**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글쓴이: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

**옮긴이: 마음 블로그**

****

“재미 삼아 읽어주세요~.

정확한 해석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영어 실력 안 됨 ㅠ\_ㅜ”

**옮긴이 말**

**■ 들어가기 전, 잠깐 앞 뒤 설명:**

『위대한 유산』은 찰스 디킨스(영국소설가)가 49세(1861년) 때 쓴 장편소설입니다. 메인요리는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성공 과 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주변 인물들의 세속적인 모습”이 양념입니다. 즉 “시종일관 우울한 시선으로 바라본 주인공 자신의 과거 ‘첫사랑 이야기’와,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시작된 주인공의 성공과 이어지는 사건들로 인해 파멸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주변 인물들의 세속적인 모습들”이 결과물(줄거리) 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반문해보게 하는 장편소설입니다. 참고로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을 쓴 영국소설가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저작권이 소멸된 소설이 라 ‘우리말로 한 번 옮겨볼까?’합니다. 『위대한 유산』은 앞부분이 좀 재미없지만 뒤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재미난 소설입니다. 물론 소설 초반부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나와 읽는 이를 당혹하게 만들지만요. 화폐 단위는 2014년 현재 우리나라 물가기준으로(제 맘대로^^) 바꾸었습니다. 거리와 무게 단위도 우리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위대한 유산』 영어원문 링크(제가 해석을 한) ▶ <https://ebooks.adelaide.edu.au/d/dickens/charles/d54ge/>

* **글의 한계 :**

이후의 글들은 정확한 우리말 옮김이 아닙니다. 저도 사전보고 옮기는 겁니다. 질문 안 받습니다. -\_-;; 정확하게 옮길 자신도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재미로 읽어주세요. “0% 정확성 + 100% 주관 적인 글임” 다만 ‘블로그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실제 원문(소설)과 비슷합니다.

* **글의 성격 :**

『위대한 유산』은 부모님이 중학교 2학년이 된 자녀들에게 넌지시 선물하면 좋은 소설입니다. 그런 성격의 소설입니다. 그럼~😊

# 

# 위대한 유산

# 1장

내 아버지 성 씨는 “피립”이시고 내 이름은 “필립”이다. 내 유아기 (생후1세~만6세) 때 혀는 “핍”보다 더 길게나 더 확실하게 발음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핍”이라고 불렀고 그게 내 이름이 되었다.

내 성이 “피립”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누나인 “조 가저리 부인”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장장이와 결혼했다.

부모님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본 적은 없다. 두 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른다. 두 분이 사시던 시기는 아직 사진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후 ‘두 분이 어떻게 생기셨을까?’하고 상상해보는 것은 내 취미가 되었다.

유치하게도 나는 두 분의 이미지를 그들의 묘석에서 유추해보곤 했다.

내 아버지 묘석 위에 있는 글씨의 모양을 보건데, 아버지는 분명 직 사각형 턱에, 뚱뚱하고, 얼굴빛이 거무스름한 분이셨을 것이다. 물론 검은 머리칼이 곱슬곱슬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비문(비석에 새긴 글)의 생김새와 비문의 모퉁이만 보고서, 나는 내 어머니께서는 주근깨가 있으시고 병약하셨을 것이라고 정말

어린애 같은 유추를 해보곤 했다. 비문에는 “여기 조지아나 부인 역시 잠들어 계시다.”라고 적혀 있었다.

부모님의 무덤 옆으로는 조그마한 다섯 개의 마름모꼴 무덤들이 깔끔하게 한 줄로 늘어서 있는데 내 다섯 형제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무덤들이다. 무덤의 길이는 각 변의 길이가 46cm인 마름모꼴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 애들은 불쌍하게도 보편적인 생존경쟁에서 너무 일찍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야했다. 그들 모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벌렁 누운 상태에서 태어났을 것이며 결코 한 번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곤 했다.

우리 마을은 시골이고 늪지대였다. 늪지대는 강 아래에 있었다. 강이 굽이쳐 있었기 때문에 32km(걸어서 8시간거리)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었다.(마을 가까이에 바다가 있다는 뜻)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생생하고 폭 넓게 사물의 정체성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된 때가 있다. 그것은 인상적일만큼 추웠던 어느 초저녁이었다.

쐐기풀로 뒤덮인 이 절망적인 장소가 교회 부속의 묘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이 교구의 고인인 ‘필립 피 립과 조지아나 부인’이 죽은 후 묻혀있는 곳이 실은 교회 부속의 묘지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다섯 명의 어린아이(생후1세~만6세)들 “알렉산더와 바돌로메와 아브라함과 토비아스와 로즈”가 죽어 잠들어 묻혀 있는 곳이 또한 교회 부속의 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다.

그리고 제방과 언덕과 수문들이 교차하고 있는 교회 묘지 뒤편의 어둡고 평탄한 ‘황무지’가, 실은 늪지대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그 늪지대 너머로 낮은 곳에서 납빛 색을 띈 선이 실은 강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다. 그리고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는 멀리 떨어진 저 야생의 ‘굴’이, 실은 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그것 모두가 점점 무서워져 벌벌 떨며 지금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나 “핍”이다.

“잠자코 있어!, 떠들지 마!” 한 사나이가 교회 돌출 현관 옆 무덤들 사이에서 기어 나오며 내게 끔찍한 어조로 말했다. “꼼짝 말고 있어 이 악마새끼야, 그렇지 않으면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변변찮은 회색 옷을 걸친 무서운 사나이는, 다리에 큰 철 조각을 단채 나타났다. 그는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고 신발은 다 떨어져있었으며 머리에는 해진 천을 둘러매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온 몸이 진흙으로 뒤덮여있었다. 그는 돌들에 치여 쩔뚝거리고 있었고 플린트(아주 단단한 회색 돌)들에 베여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쐐기풀들에 여기저기가 긁힌 상태였다. 그는 또한 브라이어(관목, 사람 키만 하고 가지가 많은 나무)들에 찧긴 상태였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와들와들 떨고 있었고 그 번쩍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얼마나 추운지 그의 이들이 딱딱 맞부딪치고 있었고 그 바람에 그의 머리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제 내 턱을 잡아당겼다.

“오! 제발 제 목을 자르진 말아주세요. 나리.” 나는 두려움에 떨며 간청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리.”

“네 이름이 뭐냐?”라고 그 사나이가 물었다. “어서 말해!” “핍이에요.”

“더 크게 말해” 그 사나이가 말했다. “더 크게!” “핍. 핍이에요. 핍이라고요.”

“어디서 살지?” 그 사나이가 말했다. “손으로 가리켜봐!”

나는 손으로 우리 마을 쪽 방향을 가리켰다. 우리 마을은, 오리나무들과 가지만 남기고 가지를 모두 전지한(자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해안가 평지 위에 있었다. 그쪽 방향을 가리켰다. 마을은 여기(교회)에서 1.6km(걸어서 30분 거리)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 사나이는 나를 잠시 뚫어지게 바라본 후 나를 거꾸로 맸다.(거꾸로 세웠다) 그리고 내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호주머니에는 빵 한 조각밖에 없었다. 교회에 올 때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빵 한 조각뿐.

교회 위아래가 다시 제대로 보였다. 그 사나이가 나를 갑자기 그리고 너무 세게 바로 세워는 바람에 내 발 아래에 교회 첨탑(뾰족탑)이 보일 정도였다.

교회가 다시 위아래 제대로 보이게 되었을 때, 아이고! 나는 엄청 높은 묘비 위에 앉혀졌고, 그 사나이가 빵을 게걸스럽게 먹는 동안 두려 움에 몸을 마구 떨어야했다.

“이 어린 개자식” 그 사나이가 자기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어라, 이 녀석 통통한 볼 따귀를 가졌군.”

내 양 볼은 통통한 편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내 나이 또래들보다 몸집이 작았고 또 몸도 허약한 편이었다.

“망할 것 당장 잡아먹고 싶군.” 그 사나이가 머리를 위협적으로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못 잡아먹을 줄 아느냐!”

나는 정말이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저를 잡아먹지 말아달라고. 나는 그가 나를 얹어놓은 묘비를 더 세게 붙잡았다. 어느 정도는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기 위해서다.

“자 여기 좀 봐라!” 그가 말했다. “네 엄마는 어디에 있지?” “저기에요. 저기에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황급히 한 걸음 내달렸다가 멈추고는 자기 어깨너머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저기요. 저기에요!” 내가 겁을 집어먹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지아나 역시 여기에 잠들다. 저게 우리 엄마예요.”

“이런!” 그가 되돌아오며 말했다. “엄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네 아 빠냐?”

“예, 어르신” 내가 말했다. “이 지역 교회의 고인이 되신 피립 역시 여기에 잠들다.”

“핫!” 그가 불명확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리곤 뭔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럼 넌 누구하고 사느냐? 만약 내가 친절하게도 너를 살려둔다면 말이다. 물론 나는 아직 너를 살려둘지 말지를 결정 못했다. 누구 하고 살지?”

“저희 누나랑 살아요, 나리. 조 가저리 부인요. 대장장이 조 가저리의 부인요. 어르신.”

“뭐 대장장이라고?”라고 말한 후 그는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와 나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그가 내가 앉아 있는 묘비 쪽으로 다가와 두 팔로 나를 붙잡고는 뒤로 확 밀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아주 위압적인 눈빛으로 내 눈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그 바람에 나는 정말이지 어쩔 줄을 몰라 무기력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올려다보아야했다.

“자 내 눈을 봐라” 그가 말했다. “네가 네 목숨을 살릴지 말지가 달린 물음이다. 줄(무엇을 매끈하게 다듬는 데 쓰이는 줄)이 뭔지 알지?”

“예, 어르신.”

“좋아 그럼 빵이 뭔지도 알겠구나?”

“예, 알아요.”

질문 하나하나마다 그는 나를 조금씩 더 뒤로 밀었고, 아마도 내가 의지할 데 없는 위험에 빠져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려는 듯 보였다.

“줄을 갖다다오.” 그가 나를 밀며 말했다. “빵도 가져오고.” 그가 다시 밀며 말했다. “아니다. 둘 다 가져와.” 그가 또 다시 나를 밀며 말 했다.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네 놈의 심장과 간을 꺼내 먹어치우겠다.” 그가 다시 나를 밀며 말했다.

나는 겁을 먹고 끔찍하게 떨고 있었고 그 바람에 현기증이 나서 결국 두 손으로 그를 끌어안아야했다. 내가 말했다. “부탁이에요. 제발 저 좀 바로 세워주세요.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아저씨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신 차리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나이는 나를 재빨리 내렸다 올리면서 한 바퀴 돌렸다. 그건 가장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교회가 교회풍향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았을 정도였다.

그리고서 그는 양팔로 나를 붙잡아 무덤 꼭대기에 바로 세우고는 다 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널어놓았다.

“좋아 내일 아침 일찍 줄(쇠를 자르는 연장)과 빵을 가져와라. 많이 가져와! 저쪽 옛날 포대(포병부대가 떠난 후 남은 시설물)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알겠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절대로 말해서도 안 돼. 그런 낌새도 보여선 안 돼. 만약 네가 살고 싶다면 말 이야. 만약 내가 말한 걸 가져오지 않거나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내뱉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얘기라도, 네 심장과 간을 잡아 뜯어내 불에 구워 먹어치우겠다. 나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혼자가 아냐. 알지? 저쪽에 젊은 놈이 한 명 더 숨어 있어. 그 녀석과 비교하면 난 천사야. 내가 방금 말한 걸 그 놈도 다 들었어. 그 젊은 놈은 냉혹하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내아이에게 접근하지. 그리곤 심장과 간을 꺼내는 거야. 그 놈에게서 몸을 숨기는 건 불 가능해. 사내아이가 자기 방문을 잠그고 따뜻한 침대 속에 쑤시고 들어가 있 어도, 사내아이가 아무리 옷을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있어도, 아무리 사 내아이가 포근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도 그 젊은 놈은 살금 살금 네발로 기어들어가 사내아이의 심장과 간을 잡아 당겨 찢어 내어 버리고 말지. 지금 이순간도 저 젊은 놈이 너를 해치려는 걸 내가 막고 있는 거야. 아주 힘든 일이지. 저 젊은 놈이 너에게 달려들어 심장과 간을 끄 집어내려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자 어때? 아찔하지?”

나는 내가 줄을 가져다드리겠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에 남아 있는 음식조각들은 모두 챙겨서 가져다드리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아침 일찍 포대(포병부대가 버린 시설물)로 아저씨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약속해라. 만약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이 널 벌해도 좋다고 말이다.”라고 그 사나이가 말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그가 나를 땅 위에 내려주었다.

“자,” 그가 계속얘기를 이어갔다. “뭘 가져와야 하는지를 잘 기억해 뒀지! 줄이랑 빵이다. 내가 방금 말한 저쪽에 있는 저 젊은 놈도 잘 기 억해두고. 자 어서 네 집으로 가 보거라!”

“아~안녕히 계세요, 어르신.” 내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젠장, 안녕이 넘친다!” 그가 자기 주변을 힐끔 돌아다보며 말했다. 춥고 축축한 평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젠장, 차라리 개구리나 뱀장어 라면 더 좋을 텐데!”

그와 동시에, 그는 양 팔로 자신의 떨고 있는 몸뚱이를 감싸 안았다. 그 자세는 마치 양 팔과 몸뚱이를 하나로 합치려는 듯 보였다. 꽉 감 싸고 있었다. 그리곤 그가 교회의 낮은 벽 쪽으로 다리를 절면서 느릿 느릿 나아갔다.

나는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쐐기풀사이를 헤치고 나무딸기들 사이를 헤치며 자기 길을 찾아내 안전히 통과하고 있었다. 초록색 무덤 주위에는 나무딸기들로 가득했다. 내 어린 두 눈에 “그는 마치 무덤 속에서 살며시 손을 뻗치곤 발목이 잡힌 사람들을 무덤 속으로 연행해가려는 죽은 사람들의 손을 잘 피하고 있는 사람 같이 보였다.”

그가 교회의 낮은 벽에 도착했다. 그가 벽을 뛰어넘었다. 그의 두 다 리는 마치 추위로 마비되어 뻣뻣해진 것 같아 보였다. 그때 그가 나를 찾으려는 듯 몸을 돌렸다.

나는 그가 몸을 돌리는 것을 보자마자 내 얼굴을 집 방향 쪽으로 돌리고는 정말이지 있는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곧) 어깨너머로 그를 되돌아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두 팔로 자기 몸뚱이를 감싸 앉은 채 강 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여기 저기 늪지대 속에 빠져있던 큰 돌들 사이를 자신의 불편한 두 발로 헤치며 자기 길을 찾아내 안전히 통과하고 있었다.

내가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찾았을 때에는, 늪지대는 이제 그저 한 줄기 검은 수평선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강은 늪지대보다 폭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덜 검게 보이고 있었다. 어쨌든 강도 이젠 그저 또 하나의 한 줄기 검은 수평선으로만 보였다. 그리고 하늘은 이제 그저 일렬로 널어선 “기다랗고 성난 붉은 선들”과 “짙고 검은 선들”의 조합으로만 보였다.

나는 어렴풋하게나마 강의 가장자리에서 두 개의 검은 물체를 식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그 근처에서 유일하게 바로 서 있는 물체같이 보였다.

둘 중 하나는, 선원들이 배의 키를 잡을 때 이용하던 등대였다. 그것은 마치 긴 막대기 위에 올린 후 고리를 제거한 통, 술을 담아 두는 나무로 된 통 같이 보였다. 여러분이 만약 등대 가까이에 다가간다면 그 추한 모습에 놀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때 해적 한 명이 매달려 있었던 쇠사슬이 여러 개 달린 교수대였다.

그는 교수대 쪽으로 다리를 절며 나아가고 있었다. 마치 해적이 다시 되살아나 줄에서 떨어졌다가 자신을 다시 매달기 위해 되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정말이지 끔찍했다. 그리고 내가 “소들이 고개를 들고 그의 뒷모습을 쫓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교수대)을 하는지 매우 궁금해졌다.

나는 그가 말한 ‘무시무시한 젊은 사람’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사방팔방 살펴보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섬뜩한 겁이 났고 이번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집까지 내달렸다.

**위대한 유산**

**2장**

내 누나인 ‘조 가저리 부인’은 나보다 스무 살이 많았다. 누나는 이 웃들로부터 평판이 아주 좋았다. 왜냐하면 어린 나를 직접 자기 손으로 키웠기 때문이다. 누나도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때쯤에는 나도 “손수 키웠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내 스스로 알아챘을 때였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야무지고 거친 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 야무지고 거친 손바닥을 내 얼굴은 물론 매형의 얼굴에까지 갖다 바르기 일쑤였기 때문에(마구 때리는 버릇이 심해서) 그래서 나는 (누나에게 하도 손으로 많이 맞고 자라다 보니) 매형과 내(주인공)가 모두 ‘손’수 길러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곤 했었다.

그녀, 그러니까 내 누나는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조 가 저리(주인공의 매형)가 그녀와 결혼하게 그녀가 ‘손’수 일을 꾸미지 않 았을까?”하는 일반적인 인상을 받곤 했다.

조(매형)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옆은 갈색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그의 부드러운 얼굴 양 옆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사나이였다. 조의 눈은 이도저도 아닌 파란색이었는데 흰자위와 색이 좀 섞이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는 온화하며 천성이 선하고 마음씨가 고운 약간은 바보 같은 느낌이 나는 성격이 느긋한 내 친애하는 친구였다. 있잖은가? 헤라클레스의 힘과 헤라클레스의 약점(아킬레스건, 조가 약간 바보스러운 것)을 동시에 가진 그런 사람, 조가 그랬다.

내 누나, 조 부인은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눈을 가진 여자로, 붉은 기운이 도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나는 그녀가 목욕할 때 혹시 비누대신 넛맥그레이터(넛맥 껍질을 갈 때 사용하는 주방도구. ‘넛맥’은 ‘육두구’를 말함. ‘육두구’는 달콤하고 시원한 향이 나는 소스, TV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가 먹고 몸에 마비가 온 음식이 바로 ‘육두구’라고 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곤 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체격이었다. 두 고리를 뒤로 묶어 몸에 단단히 고정한 변변찮은 앞치마를 거의 언제나 두르고 있었다. 앞치마 앞에는 턱받이 같은 느낌으로 가슴부근에 장식을 달고 있었는데, 그 정사각형 장식에는 온갖 핀들과 바늘들이 가득 꽂혀있어 난공불락의 인상을 풍기곤 했다.

누나는 “이 앞치마를 그렇게도 많이 입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강력한 미덕이자 남편에 대한 강한 비난의 도구로 삼았다.

그렇지만 나(주인공)는 ‘도대체 누나가 왜 그 앞치마를 입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혹은 ‘만약 누나가 그 앞치마를 입어야한다면 왜 누나가 그것을 벗어서는 안 되었는지?’ 나로선 그 이 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나의 생애를 통해 매일을 말이다.

조의 대장간은 우리 집과 인접해있었다.(집 이웃집이 대장간이다) 우리 시골에 있는 대다수 집들이 목조건물이었다. 조의 대장간도 목조건물이었다.

내가 ‘교회 부속의 묘지’에서 집까지 뛰어갔을 때, 대장간 문은 잠겨 있었다. 조(매형)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조와 나는 일종의 동병상련 (서로 가엾게 여기고 동정하고 도움)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 는 그와 같은 성격의 신뢰가 있었다. 내가 문의 빗장을 들어 올리고 맞은 편 벽난로의 구석에 앉아 있는 그를 엿보았을 때였다. 조는 이번 에도 나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귀띔해주었다.

“조 부인이 너를 찾으러 열두 번이나 외출했다 왔어, 핍. 그녀는 지금도 외출중이란다. 그러니까 이번 외출이 ‘빵 만드는 사람의 열둘’이야.” (‘빵 만드는 사람의 12’는 ‘13’을 말함)

“누나가요?”

“그래, 핍” 조가 말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도 있단다, 핍. 누나가 간질이(회초리)까지 데리고 나갔단다.”

이 음침한 정보(누나가 회초리를 가지고 주인공을 찾으러 나갔다)에 나는 내 조끼에 하나 남아 있던 단추를 빙글빙글 돌리며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불을 바라보았다.

간질이는 회초리 끝에 왁스처리가 되어 있는 회초리로 내가 하도 맞아서 그 끝부분이 매끈해져 있었다.

“누난 앉아 있었단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지, 그리곤 회초리를 움켜쥐고선 흥분해서 날뛰더니 나갔단다. 그게 다야.” 조가 부지깽이로 아래쪽 벽난로 사이에 난 불을 끄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누난 흥분해서 날뛰더니 나갔단다, 핍.”

“누나 나간 지 오래됐어, 조?” 나는 항상 조를 내 나이 또래 밖에 안 된 덩치 큰 아이로 취급했다.

“글쎄.” 조가 ‘네덜란드 시계’(외국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벽시계)를 힐끔 보며 말했다. “누나가 흥분해서 날뛰더니 나간 게, 가만 보자 마지막 철자가…, 한 5분쯤 됐어, 핍. 누나가 오는구나! 여보게, 자네 어서 문 뒤로 숨게, 회전식 타월 사이로 들어가 있어.”

나는 조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내 누나, 조 부인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 뒤에 장애물이 있음을 감지한 누나는, 즉시 그 이유를 예측했고 회초리를 뻗어 더 조사했다.

누나가 조에게 나를 내던지는 것으로 그 조사는 끝장이 났다. 나는 종종 부부간에 오고가는 미사일이 되곤 했으니까. 조는 어떤 의미에선 기뻐하며 나를 받았다. 그리곤 나를 굴뚝으로 옮기고는 자신의 거대한 다리로 나를 살짝 울타리 쳐 주었다.

“당신의 그 장난꾸러기 녀석은 어딜 쏘다니다 온 거래?” 조 부인이 발을 쿵쾅거리며 말했다.

“어서 말해. 어디 가서 뭘 하다 왔기에 나를 이렇게 속 태우고 놀래 고 불안해 달달볶게 만들었어. 말 못하면 그 구석에서 끄집어낼 줄 알 아. 만약 네가 오십 명의 핍(주인공이름)이고, 조(매형의 성씨)가 오백 명이나 되는 조가저리(매형의 이름)들이라면 말이야.”

“교회 부속의 묘지에 갔다 왔을 뿐이라고.” 나는 발판(굴뚝 앞에 있 는 발판)에 앉아 울면서 맞은 데를 비비며 말했다.

“교회 부속의 묘지라고!” 누나가 되받아쳤다. “넌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오래전에 그 곳에 누워있었을 거야, 알아? 누가 너를 손수 길렀지?”

“누나가 길렀잖아.” 내가 말했다.

“내가 너를 왜 길렀을까? 말해봐 나도 좀 알아야겠다!” 누나가 고함을 질렀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나는 모르지.”

“나도 모르겠다!” 누나가 발끈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키울 일은 없 을 거다. 암 그러고 말고. 네 녀석이 태어난 이후로 난 이 놈의 앞치마를 벗어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알아? 네 녀석 엄마 역할로도 모자라 이 지겨운 대장장이의 아내 역할까지 맡아야했다고. 그 작자의 이름이 가저리(주인공의 매형)라지.”

나는 불(벽난로 불)을 암담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 생각는 지금 누나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서 빗겨나 있었다.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늪지대에서 달아난 도망자, 미스터리한 젊은 남자, 줄(쇠사슬을 자를 수 있는 연장), 음식, 그리고 내가 이 안전한 건물(대장간)을 상대로 절도를 벌이기로 맹세한 그 무시무시한 서약.” 이러한 생각들이 복수의 석탄들 속에서 내 앞에서 솟아났다.

“하!” 조 부인이 회초리를 제 위치에 놓아두면서 말했다. “교회 부속의 묘지, 그래! 당신들 둘 다 교회 부속의 묘지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건 그렇고, 우리 둘 중 한 명(매형)은 ‘교회 부속의 묘지’ 얘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신들 두 사람이 기어코 나를 교회 부속의 묘지로 몰아넣고 말거니까. 그럼 조만간, 아주 그냥 나 없이도 둘이 소중한 한 쌍이 되겠군!”

누나가 찻그릇을 세팅하기 시작하자, 조(매형)가 자신의 다리 너머로 나를 살짝 내려다보았다. 그 행동은 마치 조가 머릿속으로 ‘나와 자신’을 캐스팅(배우에게 역을 맡김)해서는 누나가 미리 내다본 그 비통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어떤 종류의 짝패(커플)가 될 수 있는지를 미루어 생각해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후, 조는 오른 쪽 얼굴에 있는 아마색(옅은 갈색)의 곱슬머리들과 구레나룻(얼굴 옆 수염)들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앉았다. 물론 파란 눈 동자로는 조 부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면 항상 그렇게 행동했다.

내 누나가 우리에게 줄 빵과 버터를 정확한 경계선을 따라 잘랐다. 그 선은 절대 다양해지는 법이 없었다.

우선, 누나는 왼손으로 빵을 ‘가슴부근에 단 장식’에 단단히 재빨리 대고는 빵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가슴부근에 단 정사각형 장식’이라니? 누나가 늘 갖가지 핀들과 바늘들을 곱고 다니던 그 장식 말이다. 앞치마 위에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핀들과 바늘들이 조와 내 입속으로 마구 들어가곤 했지만.

그런 다음 누나는 버터를 조금 (절대 너무 많지는 않게) 나이프(칼) 위에 바르고는 그것을 약사들이 하는 방식대로 빵 위에 얇게 펴 발랐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회반죽(벽에 시멘트를 얇게 바름)을 바르고 있는 것만 같이 보였다.

나이프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해 날렵하고 민첩한 솜씨로 빵 껍질 둘레를 돌아가며 버터를 손질해서 모양을 냈다.

그럼 다음 누나는, 회반죽의 가장자리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한 번썩 닦는 식으로, 빵 위에 나이프를 한 번 썩 딱은 후, 빵을 아주 두껍게 그것도 톱질하듯 잘랐다.

이것이 누나가 빵을 갈라 우리(매형과 나)에게 나누어주기 전에 하는 누나의 방식이었다. 빵 한 조각은 조(매형)가 가지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고.

그때 당시 나는 배가 고팠다. 그렇지만 감히 내 몫의 빵조각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내가 무시무시한 ‘내 지인’과 더 무시무시한 젊은 사람인 ‘그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따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조부인(주인공의 누나, 조는 남편 성씨)의 살림살이는 정말 엄격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도둑질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도 금고(부엌 찬장)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일단 내 몫의 빵 한 덩어리를 바짓가랑이(바지구멍, 주인공은 지금 바짓가랑 이가 무릎 위까지 올라온 반바지를 입고 있음)위로 내려놓았다.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정말 지독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주 높은 집 꼭대기’에서 뛰어올라서는 곧장 ‘엄청 깊은 물 속’으로 쑤셔받는 것을 결심해야하는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 (매형) 때문에 그 일(누나 몰래 빵을 식탁위에서 무릎위로 내려놓기)을 완수하기가 한청 더 어려웠다.

앞서 말했듯이 동병상련(누나에게 손바닥으로 매를 맞음)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순교자(피해자)라는 본능적인 유대와, 그리고 나에 대한 그의 온화한 우정에서 “우리는 저녁식사 때마다 빵을 한입씩 베어 물고 나서 ‘길이 난’(남은) 빵을 서로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린 때때로 빵을 집어 들고는 서로에게 감탄사를 조용히 지어보이곤 했다. 그런 습관(베어 물고 남은 빵을 서로 비교하기)은 서로의 식욕을 더욱 분발하게 했다.

오늘 밤에도, 조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자신의 빵 조각을 보여주며 얼른 평소대로 우호적인 경쟁에 또 착수해보자”라며 몇 번이고 나에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는 매번, 한쪽 무릎 위에 노란 찻잔이 놓여 있고 다른 쪽 무릎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빵과 버터가 놓여있는 나를 발견할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자포자기식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지금 심사 숙고하고 있는 그 일을 해치워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정말이지 전혀 일어날 성싶지 않은 방식대로 그것도 지금 이 상황과 가장 비슷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해치워야한다는 자포자기식 생각에 나는 이르게 되었다.

조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빵과 버터’를 다리 아래로 내려놓았다.(무릎 위에 있던 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조(주인공의 매형)는 내 입맛이 없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불편해했 다. 조가 자신의 빵조각을 한 입 베어 물곤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건 그가 즐겁지 않다는 뜻이었다.

조는 빵조각을 입안에 넣고는 평소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물우물 입 안에서 빵을 돌렸다. 그리면서 빵을 상당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같았다. 그런 후에야 마치 알약을 삼키듯 빵조각을 꿀꺽 삼켰다.

조가 또 한 입을 베어 물었다. 빵을 좋은 자세로 먹으려고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운 조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을 때 조는 “내 빵과 버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이제 막 빵을 한 입 물으려다말고 멈춘 조가 대경실색해했다. 그 표정이 너무 확연해 누나의 주목을 피할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죠?” 누나가 컵을 세차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있잖아!” 조가 낮고 불명확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에게 아주 심각한 항의의 표시로 고개까지 흔들면서 말이다. “핍, 이봐 친구! 자신에게 장난을 쳐서는 안 돼. 목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씹을 수가 없잖아, 핍.” (핍은 주인공의 이름임)

“무슨 일이냐고?” 누나가 전보다 더 앙칼진(매우 높고 날카로운) 목 소리로 물었다.

“조금이라도 기침을 할 수 있다면 토해내려무나, 핍. 나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가 계속해서 대경실색해하며 말했다. “식사예절도 예절이지만 네 건강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겠니.”

일이 이쯤 되자 누나는 아주 필사적이 되어선 조에게 잡자기 덤벼들어 조의 두 갈래 구레나룻(얼굴 옆 수염)을 잡고선 뒷벽에다 조의 머리를 잠시 동안 찧어댔다.(두드렸다)

나는 구석에 앉은 채 이 모든 것을 마치 죄지은 것처럼 지켜보고 있 었다.

“자 이래도 말을 하나 안하나 보자.”라며 누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도살처지에 놓인 돼지 쳐다보듯이 빤히 쳐다만 보지 말고 말을 해 이 작자야.”

조(주인공의 매형)가 누나를 무기력하게 바라봤다. 그리곤 빵을 한 조각 물고는 또 다시 나를 쳐다봤다.

“너는 알지, 핍” 조가 뺨 안에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다 털어넣으며 엄숙하게 그리고 자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그냥 우리 둘(조와 나)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눈치였다. “너와 난 항상 친구야, 그리고 난 어떤 경우에도 너를 고자질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경우엔…” 조가 의자를 옮기곤 우리 사이에 놓인 바닥 여기저기를 훑어보았다. 그리곤 또 내게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특히 그 빵 만큼이나 가장 흔하지 않은 볼트(빵조각)를!” (영어동사 ‘볼트’에는 “음식을 삼키다”란 뜻도 있음)

“뭐 이 녀석이 음식을 송두리째 삼켰다고?” 누나가 소리쳤다.

“이봐 친구, 알지.” 조가 조부인은 쳐다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며 여전히 뺨 한가득 빵 조각을 베어 문채로 계속 말을 했다. “나도 네 나 이만할 때는 빵을 꿀꺽 꿀꺽 삼키기도 했었단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 지. 그리고 내가 아직 소년일 때는 내 주위에도 그런 ‘꿀꺽 이들’이 참 많았단다. 하지만 난 지금까지 네가 먹은 빵 크기만큼이나 많은 빵을 한 순간에 꿀꺽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단다, 핍. 네가 그걸(빵) 꿀꺽 하고도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구나.”

누나는 내게로 달려와선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선 이보다 더 지독한 말은 없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리와, 약부터 먹자.”

그때 당시 어떤 짐승 같은 의사가 ‘타르(석유, 발암물질)에 물을 탄 혼합물’을 좋은 약이라며 부활시켰었다. 그리고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은 그 ‘타르 수용액 일정량’을 찬장에 꼭 비치해두고 있었다. 누나는 ‘타르 수용액’의 그 불결함에 상응하는 효능이 그 안에 있을 것이 라고 믿고 있었다.

상황이 가장 좋았을 때조차도, 이 만병통치약(타르 수용액)은 탁월한 강장제(보신탕)로써 너무도 많은 양이 나에게 투여되었고 그러면 나는 새로 칠한 울타리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돌아다 녀야했다.

이날의 특별한 저녁에도 내 문제에 대한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이 혼합물 600밀리리터(우유3팩 용량)가 투여되었다. 누나는 장화 벗는 기구에 장화를 끼우듯이 자기 팔에 내 머리를 끼우고는 내 목에 그 혼합물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순전히 내 더 큰 편안함을 위한다는 구실에 서였다.

조(주인공의 매형)는 300밀리리터( ㎖ )를 마시고 풀려났지만 그걸 삼 켜야했다. 그걸 먹은 조는 속이 뒤틀려서는 천천히 빵을 우적우적 씹으며 불 앞에 가만히 앉아 묵상(마음속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나는 그 모습을 보곤 “그가 먹었었던 것(빵)이 탈이 나서”라고 말을 했지만, 순전히 내 판단에 따르건대 그가 속이 뒤틀린 것은 약을 먹고 나서의 일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 놈의 약을 먹기 전에는 아무런 탈이 없었다.

어른이든 소년이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소년의 경우에는, 그 비밀스러운 짐(양심)이 바짓가랑이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짐(빵)과 합쳐졌을 경우에는 내가 증언하건대 그것은 실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된다.

나는 결코 내가 조(매형)에게서 도둑질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안 물건들이 그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조부인(결혼한 누나)에게서 도둑질을 하려하고 있다는 “죄의식”은 내가 한 손으로 빵과 버터를 계속 쥐고 있어야할 “필요성”과 합쳐져 거의 나를 미치기 일보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앉아 있을 때나 잔심부름을 받고 부엌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도 손에서 빵과 버터를 놓지 않았다.

그때 늪지대에서 불어온 바람이 불(벽난로 불)을 발갛게 만들었다. 불이 확 타올랐다. 그 순간 나는 밖에서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만 같았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비밀맹세를 강요한, 다리에 쇠사슬을 찬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게 “나는 내일까지 굶을 수도 없고 굶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자기 손을 내 피로 더럽히는 것을 제지당하고 있는 그 젊은 사나이가 체질적인 성급함에 굴복한 나머지 시간을 착각해 오기로 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당장 내 심장과 간을 뜯어먹기 위해 파견된다면!

만약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의 머리카락이 곤두설 수 있다면, 아마도 그때 당시 내 머리카락이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아마도, 누구의 머리카락도 그런 식으로 곤두선 적은 없지 않았을까?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쓸 푸딩(서양 생 과자, 물렁물렁)을 저어야했다. ‘네덜란드 시계’(서양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벽시계)로 7시부터 8시까지 구리 막대기로 푸딩을 저어야했다. 나는 다리에 짐(빵과 버터)을 달고서 푸딩을 저으려고 애섰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빵과 버터가 내 발목에서 삐져나오려는 운동성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간 다루기 어려운 게 아니었다.

운이 좋게도 나는 빠져나와, ‘내 양심의 일부분’(누나에게서 빼돌린 빵과 버터)을 내 침실 다락방에 놓아둘 수 있었다.

“들어봐요!” 푸딩 젖기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벽난로의 구석에 앉아 마지막 남은 불씨의 온기를 쬐고 있을 때 내가 말했다. “대포소리였지, 조(매형)?”

“아!” 조가 말했다. “죄수가 또 한 명 탈출했나보다.”

“죄수가 뭐야, 조?” 내가 물었다. (잠깐 앞뒤 설명 : 여기서 말하는 ‘죄수’는, 배 위에 있는 선상감옥에서 막 탈출한 ‘두 번째 죄수’를 말하는 것임. 첫 번째 죄수는 앞에서 나온 “내일까지 빵과 버터 가져오라” 며 주인공을 겁먹인 그 사나이임. 두 죄수가 원수지간임. 헷갈리시면 안됨.^^;;)

설명을 도맡아 해온 ‘조 부인’(주인공의 결혼한 누나)이 딱딱거리며 말했다. “도망갔다고. 도망간 거라고. 이 녀석아.”라며 ‘타르 수용액’ (석유에 물 탄 액체)의 선명도(검정색)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다.

조 부인이 그녀의 바느질감 위로 몸을 구부리며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입모양만으로 말을 하며 조에게 물었다. “죄수가 뭐야?, 조.” 조가 아주 정성들여서 만든 대답을 입모양만으로 들려주었다. 그런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핍”이라는 단어 딱 하나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제 저녁에도 죄수가 한 명 도망쳤단다.” 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해가 지고 쏘는 대포소리가 들리고, 경고사격이 있었지. 지금 또 다른 죄수가 도망치니까 또 경고사격을 하는 것 같구나.”

“누가 쏘는데?” 내가 물었다.

“저런 괘씸한 녀석!” 누나가 끼어들었다. 그리곤 바느질 감 너머로 눈살을 찌푸리며 나를 노려보았다. “저 녀석 정말 질문덩어리네. 질문 하지마, 거짓말만 듣게 될 거니까.”

누나의 그런 행동은 그녀 자신에게도 무척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랬다. 내가 질문을 해도 그녀에게서 거짓말만 잔뜩 듣게 될 거라니. 누나는 손님이 있을 때를 빼고는 한 번도 예의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이때 조(주인공의 매형)가 자기 입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크게 벌리면서 무슨 말을 입모양만으로 하는 바람에 내 호기심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건 “부루퉁하다(못마땅하고 성난 빛이 있어)”라는 단어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당연 ‘조 부인’(결혼한 누나)을 가리키며 입모양 만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나가요?” 하지만 조는 내 말을 전혀 들으려 고도 하지 않고 다시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곤 입모양만으로 단어 하나를 아주 강조해서 흔드는 것이다.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 었다.

“조부인” 내가 말했다. 기댈 때는 누나밖에 없었으니까.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주 많이 꺼림칙하시지만 않으시다면 말이죠. 대포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오 하느님, 저 딴 녀석에게 축복을 내리소서!” 누나가 고함을 지러 댔다. 축복은커녕 마치 그 반대되는 의미인 것 같았다. “감옥선(배)에서 나는 소리잖아!”

“오호~!” 내가 조를 바라다보며 말했다. “감옥선이였구나! 조.”

조(매형)가 나를 책망하는 듯이 기침을 한 번 해보였다. 그것은 마치 “음,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라고 말하려는 듯 보였다.

“그리고 제발, 감옥선(배)이 뭔지도 말해죠?” 내가 말했다.

“이게 저 녀석이 쓰는 방법이라니까!”라며 누나가 고함을 질러댔다. 누나는 쥐고 있던 바늘과 실로 나를 꼭 지목하고는 고개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 질문에 하나를 답해주면 곧장 열두 개의 질 문을 도로 내게 던지지. 감옥선(배)은 죄수들이 타는 배야, ‘올가미’(도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 있잖니.” 우리 시골에서는 ‘늪지대’를 항상 ‘올가미’이라고 불렀다. (앞뒤설명 : 늪지대를 “올가미”라고 하는 이유가 소설 후반부에 다시 나옴. 주인공이 정말 나쁜 악당의 속임수에 빠져 일생일대의 위험에 처하게 장소가 바로 이곳 늪지대에서임. 소설에 나오는 수많은 복선들 중에 하나임)

“나도 궁금하다고, 감옥선(배)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그들이 왜 거기로 들어가는지?” 내가 대체로 조용한 절망감을 느끼며 말했다.

이런 행동(주인공의 궁금증 폭발)은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보았을 때 너무 나간 것이었다. 누나는 즉시 일어났다. “있잖아, 젊은 친 구.”라며 그녀가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손수 키운 것은 네가 질문공 세를 퍼부어 남들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었어. 만약 내가 널 그런 질 문공세나 하며 남들을 괴롭히라고 너를 손수 키웠다면 그건 나를 칭찬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타 온갖 나쁜 짓들을 저 질렀기 때문에 감옥선(배)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범죄 자들)이 애초 어떻게 그 나쁜 짓들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아니? 너처럼 질문공세를 시작하면서부터야. 자, 이제 올라가 잠이나 자! 이 녀석아.”

누나는 내가 촛불을 들고서 침대(다락방에 있는 침대)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껌껌한 어둠 속에서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다. 머리가 따끔따끔 거리고 있었다. “자, 이 녀석아 올라가 어서 잠이나 자!”라는 누나 자신의 마지막 말에 리듬을 넣기 위해 ‘조 부인’이 골무(바느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헝겊)로 내 머리 위를 탬버린 (음악도구) 연주하듯 두들겼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감옥선(배)이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느꼈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말이다.

나는 분명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그곳(감옥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조 부인’(누나)에게서 도둑질까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충분히 먼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나는 공포에 휩싸인 어린이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종종 생각하곤 했었다. 그 공포가 비이 성적일지라도 상관이 없었다. 말이 안 되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내 심장과 간을 원하는 ‘젊은 남자’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족쇄(다리에 찬 쇠사슬)를 찬 내 ‘교섭 담당자’(빵과 버터를 가져오라고 시킨 남자)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그런 지독한 약속을 꺼낸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사사건건 나를 무찌르는 전능한 내 누나를 통하더라도 구원에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공포라는 비밀에 휩싸여 있던 나는,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날 밤 내가 조금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센 ‘한사 리’(밀물이 가장 높이 들어오는 때) 위에 실려, 감옥선(배)을 향해, 강을 따라 떠내려가는 내 자신을 상상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교수대 옆을 지나가고 있는 내게 ‘유령 같은 해적’이 나타나선 “차라리 육지로 올라와 저기(교수대)서 한 번 목매 달리는 것이 좋을 테니 망설이지 말라”며 확성기로 외쳐대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잠을 자고 싶다고 느낄 때조차도 잠이 무서웠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침의 첫 번째 희미한 새벽이 오면 내가 식료품 저장실을 털어야한다(도둑질)는 것을.

밤에는 그것(도둑질)이 불가능했다. 그 당시에는 간단한 마찰로 불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불을 밝히려면 내가 ‘부싯돌’과 ‘강철’을 서로 부딪쳐 불을 밝혀야했었음이 틀림없는데, 그러면 쇠사슬들을 덜거덕거리던 바로 그 해적에게서 나던 소리를 내가 만들어야했음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내 작은 창문 밖에서 거대한 검은 “벨벳(표면에 연한 섬유털이 치밀하게 심어진 천) 장막”(즉 밤의 장막)이 회색빛을 띄자마자, 나는 일어나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내려가는 매 ‘판자’(계단의 판자)마다, 그리고 그 판자에 난 금(깨진 금) 사이마다 “거기 서라 이 도둑놈아!” 그리고 “어서 일어나시오,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를 뒤쫓고 있었다.

식료품 저장실에 도착했다. 평상시보다 음식이 훨씬 많이 있었다. 명 절(크리스마스) 때문이었다. 발뒤꿈치를 위로 향한 채 매달려 있는 산 토끼를 보았을 때 나는 놀라자빠질 뻔 했다. 내가 몸을 반쯤 돌렸을 때 그 산토끼가 내게 윙크하는 것을 내가 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그것을 확인할 시간도 없었거니와, 음식을 고를 시간도 없었고, 딴 것에 정신 팔 시간이 없었다. 나에게는 여분의 시간이 전혀 없었다. 나는 빵을 조금 훔쳤다. 치즈 껍질도 조금 훔쳤다. 민스미트(‘말린 과일과 양념 등등’을 섞어 놓은 것. 파이 속에 넣는 재료) 반병도 훔쳤다. 나는 이것들을 지난밤에 훔친 ‘빵과 버터’와 함께 내 휴대용 손수 건에 싼 후 묶었다. ‘돌로 만든 술병’(도자기 같이 안이 전혀 안 보이는 병, 고려청자 같은 것) 안에 있던 브랜디(포도주를 증류한 술)도 조 금 훔쳤다. 스페인 감초주(감초 달인 물)라는 이름의 사람 취하게 만드는 액체를 만들 때 내가 몰래몰래 내 방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하던 유리병 안에 브랜디를 담았다. ‘돌로 만든 술병’ 안에는 부엌 찬장에 있 던 주전자에 있던 것을 부어 희석시켰다. 고기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뼈도 하나 훔쳤다. 그리고 둥글고 아름다운 모양을 한 속이 꽉 찬 돼

지고기 파이도 하나 훔쳤다.

나는 그 파이를 그냥 지나칠 뻔 했다. 그러나 나는 선반을 하나 밟고 올라가서 구석 한쪽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뚜껑이 덮여 있는 큰 도기 접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떨 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파이(구운 과자)라는 것을 금세 알아챘다. 훔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제발 금방 사용할 파이가 아니기를, 그래서 꽤 오랫동안은 파이 하나가 사라진 사실이 들통 나지 않기를.’

부엌에는 대장간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문의 자물쇠를 열고 빗장을 열어젖혔다. 조(매형, 대장장이)의 연장(도구)들 사이에서 줄(쇠사슬을 자르는 연장) 하나를 챙겼다. 그런 다음 나는 처음 보았던 대로 자물쇠와 빗장을 제 위치에 둔 후(잠근 후) 내가 어제 밤에 집으로 뛰어 들어왔을 때 열어두었던 그 문을 연 후 다시 문을 닫 고는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위대한 유산**

**3장**

서리가 하얗게 덮인 아침이었다. 습기가 축축하게 찬 아침이기도 했다. 내 작은 창문 바깥에 습기가 차서 얼룩이 생겨있었다. 그 얼룩은 마치 악귀(나쁜 귀신)가 내 창문에서 밤새 울부짖으며 내 창문을 휴대용 손수건으로 사용한 것만 같았다.

습기는 이제 횅댕그렁한(넓은 공간이 비워 있어 쓸쓸한) 울타리들과 마른 잔디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치 거친 거미줄이 쳐져 있는것 같았다. 이 나무의 잔가지에서 저 나무의 잔가지로, 이 잎에서 저 잎으로 습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난간 위와 통로 위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늪 지대의 안개가 너무 짙었다.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표시용 말뚝 위’에 놓인 ‘나무 손가락’ 바로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말뚝이 보이지 않았다.

그 때 내가 말뚝 위 ‘나무 손가락’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에선 물을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나를 감옥선(배로)으로 헌납하는 환영 같았다. 그것이 학대받고 있는 내 양심 같았다.

내가 늪지대를 마저 빠져 나왔을 때 안개는 훨씬 더 짙어진 상태였다. 그 바람에 내가 주변 모든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던 내 마음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다.

수문들(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수문)과 제방들과 강둑들이 안개를 뚫으며 나에게로 넘칠 듯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그것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분명히 소리치는 것 같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돼지고기 파이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다! 저 소년을 멈춰 세워라!”라고.

소들이 갑자기 나를 발견했다. 소들이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코로 김을 내고 있었다. “쉿, 이 어린 도둑놈아! 쉿! 쉿!”

어깨 위에 ‘하얀 삼각형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검은 황소 한 마리’ 가 두 눈으로 나를 아주 완고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빙 돌아가는 만큼이나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자신의 무딘 고개를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빙 돌리고 있었다. 그 검은 황소는 심지어 내 양심을 깨우는 성직자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황소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르신!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검은 황소’는 고개를 숙이고는 콧구멍으로 한줄기 연기구름을 내뿜었다. 그 검은 황소는 두 뒷다리들을 한 차례 위로 차올리고는 꼬리를 한 번 휘젓더니 이내 사라졌다.

계속해서 나는 강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내 발들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사나 이의 다리에 고정되어 있던 그 쇠사슬(족쇄)처럼, 내 발들도 차가운 습 기에 단단히 고정되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포대(포병대 시설물)쪽으로 곧장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면 조(주인공의 매형)와 함께 포대 아래쪽까지 가보곤 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조(매형)는 오래된 대포 위에 걸쳐 앉아 내게 “네가 정식으로 내 도제(배우는 직공)가 되면 우린 저기서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포대 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지나쳐왔다는 것을 알았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길을 혼동한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썰물을 표시해둔 말뚝들”과 “진흙” 너머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돌투성 이인 강둑 위쪽의 “강변”을 따라 되돌아가야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내 길을 만들고 있던 내가 막 도랑(작고 폭이 좁은 개울) 하나를 건넜을 때였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 포대(포병대가 버리고 간 시설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막 도랑을 지나고 언덕을 마저 기어올랐을 때였다. 내 앞 쪽에 앉아 있는 그 사나이가 보였다.

그는 등을 내 쪽으로 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팔로 자기 몸을 감싸 앉은 채 깊은 잠에 빠져 고개를 앞쪽으로 “끄덕끄덕”거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아침 식사를 가지고 온 내가, 이런 뜻밖의 방식으로 그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그가 훨씬 더 기뻐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앞쪽으로 나아가 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가 즉시 벌떡 일어섰다. 이런 젠장 그는 내가 어제저녁에 만났던 그 사나이가 아니었다. 전혀 딴 남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거친 회색 옷’(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엔 큰 쇠사슬(족쇄)을 차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 목에선 쉰 소리가 나고 있었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내가 어제저녁에 만났던 그 사나이와 모든 차림새가 닮았었다. 단지 동일한 얼굴이 아닐 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편평하고 폭이 넓은 테 두리가 있으며 춤이 낮은 펠트”(말이 어렵죠? 저도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죄수모자’를 말 한다고 하네요)를 얼굴 위에 쓰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저녁에 내가 만났던 그 사나이와 달랐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순식간에 보았다. 왜냐하면 그를 쳐다볼 시간이 그 순식간밖엔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욕설을 한마디 내뱉고는 나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그의 주먹은 둥근 원을 그렀지만 약해보였고 무엇보다 나를 맞추지도 못했다. 그러다 그는 혼자서 넘어졌다. 내게 주먹질을 하려다 그만 발끝의 뾰족한 부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안개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가다가 두 번씩이나 발끝의 뾰족한 부분이 걸려 넘어졌다. 이내 그가 내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젊은 사나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내 심장에서 찌릿 찌릿 통증이 느껴졌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감히 말하건대, 만약 내가 간이 내 몸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를 알았더라면 나는 간에서도 그와 같은 강도의 통증을 느껴야 했을 것이다.

그 후 나는 곧 포대(포병대가 버리고 간 시설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대로 찾아왔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두 팔로 자기 몸뚱이를 끌어앉은 채 앞뒤로 다리를 절며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 그는 마치 밤새도록 그 포옹과 절뚝거림을 멈추지 않은 것만 같았다.

틀림없다. 그는 몹시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 앞에서 쓰 러져 이 지독한 추위에 그만 죽어버리는 줄 알았다.

내가 그에게 줄(쇠사슬을 자르는 도구)을 건네주었다. 그가 그 줄을 잔디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두 눈이 너무 지독히도 배가 고파보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들고 간 보따리를 그가 보지 못했다면 그 줄을 먹 어치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 위해 이번엔 그가 나를 거꾸로 들어 올리 진 않았다.

그는 내가 보따리를 풀고 내 호주머니들을 몽땅 비울 때까지, 나를 자기 오른쪽 옆에 똑바른 자세 그래도 두었다.

“병에 든 것이 뭐냐, 꼬마야?” 그가 말했다. “브랜디(포도주를 증류한 술)에요, 아저씨” 내가 말했다.

그가 ‘민스미트’(‘말린 과일과 양념 등등’을 섞어 놓은 것. 파이 속에 넣는 재료)를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자기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가 민스미트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격렬한 배고픔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딘가로 민스미트를 마구 집어넣고 있는 모습 같았다.

하지만 그런 그도 술을 마실 때는 잠깐씩 멈추었다. 그는 술을 약간 마셨다. 그는 먹는 내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너무나 격렬히 몸을 떠는 바람에 그의 이빨들 사이로 병의 목을 가만히 대고 있는 것도 어려 워보였다. 병의 목을 물어끊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제 생각에는 오한(몸에 열이 나고 춥고 떨림)에 걸리신 것 같아요, 아저씨.” 내가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꼬마야” 그가 말했다.

“이 근처는 공기가 나빠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늪지대 위에 누워 계셨죠, 지독한 오한을 일으키는데 늪지대는, 여기서 자다가 류머티즘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놈들에게 걸려 얼어 죽기 전에 나는 지금 아침부터 좀 먹어야겠다.” 그가 말했다. “그런 다음 곧장 저기 저 교수대들에 한 줄로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난 지금 좀 먹어두어야겠다. 그때까지는 이 추위를 이겨낼 테다. 내가 장담하마.”

그는 “민스미트, 고기 뼈, 빵, 치즈 그리고 돼지고기 파이”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맘을 놓지 못하고 안개 속과 우리 주변을 불신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또 종종 씹는 것까지 멈추고는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진짜 어떤 소리인지 혹은 상상의 어떤 소리인지, 강 위에서 어떤 쨍 그랑하는 소리인지 혹은 늪지대에서 어느 짐승이 내뿜는 숨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깜짝 놀라했다.

그러더니 그가 느닷없이 내게 말했다.

“너 설마 날 속이러 온 임프(꼬마정도의 키를 가진 악당요정,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나쁜 음모를 꾸미는 나쁜 요정)는 아니지? 아무도 안 데려왔겠지?”

“아무도 안 데려왔어요, 아저씨! 아무도!”

“네 놈 뒤를 몰래 밟으라고 사람을 붙이는 자는 없었니?” “없었어요!”

“좋아.” 그가 말했다. “너를 믿겠다. 만약 네 나이 또래의 아이가, 나 같이 가난하고 불행한 빌어먹을 기생충 같은 인간을 뒤쫓는 것을 돕는다면, 비열한 사냥개 새끼일 뿐이니까!”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찰깍”거리는 어떤 소리가 났다. 마치 그의 목에 시계가 있어 조만간 “따르릉”거리며 시간을 알려줄 것 같았다.

그가 누더기 같이 거친 소매로 두 눈 위를 문질렀다.

그의 쓸쓸함을 동정하면서, 그리고 그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돼지고기 파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선 이렇게 물는 것이다. “맛있게 드시니 기뻐요, 아저씨.”라고.

“뭐라고?”

“아저씨가 맛있게 드시니 기쁘다고 말했어요.”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구나.”

나는 우리 집 큰 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종종 지켜보곤 했었다. 이제 보니, “우리 집 큰 개가 음식을 먹는 모습”과 “이 사나이가 식사를 하는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었다. 내가 가만 보니. 이 사나이도 강하게 날카롭게 갑작스럽게 음식을 물어뜯었고 그런 모습은 우리 집 큰 개와 같았다.

그는 삼키거나, 또는 오히려 너무 일찍 너무 빨리 한 입 가득 음식을 물어뜯었다. 그러면서도 먹는 내내 여기 저기 옆쪽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치 사방팔방으로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만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돼지고기 파이를 훔쳐가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때문인지 그의 마음은 아주 불안정해보였다. 지금 그의 마음이 너무 불안정해서, 내 생각에는 그가 음식 맛도 마음 편히 평가할 수 없거니와, 방문자를 자신의 턱으로 절단해버리지 않고서는 남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보였다.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을 감안해 보건데 그 사나이는 영락없이 우리 집 큰 개와 아주 닮았다.

“그 아저씨 몫으론 아무것도 안 남기시네요. 안 됐어요.” 내가 소심하게 말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나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되는대로 공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음식 가져온 곳에선 이제 더 이상 가져 올 게 없거든요.” 나로 하여금 이런 힌트까지 그에게 주게 만든 것은 십중팔구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더 가져올 수 없었다.

“그를 위해 남겨줄 게 없다니? 그게 누군데?” 내 친구가 파이껍질을 “아작아작” 씹다 말고 말했다.

“그 젊은 분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저씨와 함께 숨어있다는 그 분요.”

“아하!” 그가 우락부락한 웃음 같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 보이며 대꾸했다. “그 사람 말이지? 그래, 그렇겠지! 그 놈은 이제 빵을 전혀 바라지 않으니 걱정마라.”

“아닌데요. 그 분도 엄청 배고파 보이던데요.”라고 내가 말했다. 그가 먹는 것을 딱 멈추고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이 세상에

서 가장 날카로운 의혹의 눈초리,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란 표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누굴 봤다는 거냐? 언제?”

“방금 전이요.”

“어디서?”

“저곳에서요.” 내가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요, 저기. 제가 그 분을 봤을 때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걸요, 전 그 분이 아 저씨이신 줄 알았거든요.”

그가 내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가 내게 처음 했었던 그 말 “네 녀석의 모가지를 따 주겠다.”라는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아저씨처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옷. 다만 그 분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내가 달달 떨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리고요.” 나는 조바심을 내며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줄(쇠사슬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연장)을 빌리고 싶어 할 똑같은 이유가 있어보였어요. 어젯밤 대포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지 어제 사격이 있었지!”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소리를 확실히 듣지 못하셨다니 놀라워요.” 내가 대꾸했다. “저희 집에서도 들렸는데. 저희 집은 여기서 더 멀어요. 게다가 그때 우리집 문은 다 잠겨 있었어요.”

“젠장, 그걸 왜 이제야 알아챘지!” 그가 말했다. “들어봐라! 이놈의 평지에 혼자 있는 자식에게는 말이다. 그것도 생각이 모자라고 속(위)이 비워 있는 자식, 이 지랄 같은 추위와 추격에 고통 받고 있던 자식의 귀에 밤새 울리는 건 대포소리이고 밤새 들리는 건 그 자식을 추격하는 소리다. 들리느냐? 그 자식 눈에 보이는 건 새빨간 코트를 입고 횃불을 들고서 수색하고 있는 병사들의 둥근 원이다. 그 자식 귀에 들리는 거라곤 누군가가 번호(죄수번호)를 부르는 소리 ‘꼼짝 마라’며 외치는 소리, 머스킷총(19세기에 사용된 서양 옛날 총)들이 덜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소리다. ‘준비 총! 바쳐 총! 저 놈이 꼼짝 못하도록 총을 겨누고 있게 제군들!’ 그리곤 체포되는 거지. 그리곤 없어! 제기랄. 어젯밤에 내가 본 한 무리의 추격대만 하더라도 아예 그냥 땅을 뚫고 순서대로 나오더군. 젠장. 내가 다 세었단 말이야! 정확하게 백 명이었어. 그리고 그 놈의 대포소리는 또 어떻고! 날이 밝은 후에도 이놈의 안개가 그 지랄 같은 대포소리로 진동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식 말이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 조차 잊은 듯이 말을 했었다. “그 놈에게서 뭔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없더냐?”

“그의 얼굴에 심한 멍이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까지 기억해내며 말했다.

“여기 아니더냐?” 그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기며 고함질렀다.

“예, 거기였어요!”

“그가 어디에 있었지?” 그가 조금 남아있던 음식을 자신의 회색 재킷 가슴에 잔득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가 간 방향을 말해다오. 내가 한 마리 ‘블러드하운드’(사람을 추격할 때 사용하는 후각이 발달한 개) 처럼 녀석을 허물어뜨려버릴 테니까. 그 전에 이 망할 놈의 쇠(다리에 찬 쇠사슬)부터. 쇠 때문에 다리에 상처가 났다! 젠장. 그 줄(쇠사슬 자르는 연장)부터 내게 다오, 꼬마야.”

나는 안개가 ‘그 다른 남성’에게 ‘수의를 입힌’(감싸 앉았던)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가 잠깐 동안 그쪽 방향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잔뜩 우거진 젖은 잔디 위에 주저앉고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쇠(다리에 찬 쇠사슬)를 줄로 갈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다리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족쇄(쇠사슬)에 오랫동안 비벼져 피투성이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다리가 줄보다도 더 감각이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거칠게 다루고 있었다.

그가 맹렬한 기세로 ‘그 일’(줄로 쇠사슬 자르기)에 몰두하기 시작하자 나는 다시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충분히 많이 무서웠다. 거기다 나는 지금 집에서 너무 멀리 온 것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한다고. 그러나 그에게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말이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때도, 그는 자신의 무릎 위로 고 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족쇄를 갈고(자르고) 있었다. 그 족쇄(다리에 찬 쇠사슬)에 성마른 저주의 말들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고서 말이다.

내가 그에게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 마지막으로 안개 속에서 멈추 어 섰을 때조차도, 그 줄은 여전히 계속해서 갈리고 있었다.

**위대한 유산**

**4장**

나는, 경찰이 부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체포해갈 거라고 전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엌에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내 강도질(누나가 만든 맛있는 음식들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탈옥 한 죄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이다.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은 ‘그 날’(크리스마스)의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 집을 단장하느라 유별나게 바빠하고 있었다.

반면 ‘조’(주인공의 매형)는 부엌문 앞 계단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누나의 쓰레받기에서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상인 것 같았다.

누나가 시설물(집과 대장간) 바닥들을 정력적으로 쓸어 담을 때면 머잖아 쓰레받기 안에 담기는 물건이 조의 정해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그랬다.

“그리고 너, 대체 어딜 쏘다니다 오는 거야?” 이것은, 내가 내 양심을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 부인’(누나)이 내게 던진 크리스마스 인사였다.

나는 캐럴 들으려 마을 아래쪽에 갔다 왔노라고 말했다.

“뭐! 괜찮겠지!”라며 조 부인이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 “네 녀석이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수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이 누나 말이 맞노라고.

“아마도 내가 대장장이의 아내만 아니었어도,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앞치마를 절대 벗을 수 없는 노예만 아니었어도 말이야, 나도 캐럴을 들으러 갔었어야 하는데.” 조 부인이 계속 말했다. “사실 나는 캐 럴을 몹시 좋아해, 그게 내가 캐럴을 절대로 듣지 않으려는 가장 만족스러운 이유야.”

쓰레받기가 우리 앞에서 물러났을 때 나를 따라 부엌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한 ‘조’(주인공의 매형)는,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자신에게 가늘고 짧은 눈 화살을 던지자 유화(타협)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손등으로 자기 코를 쓰윽 문질렀다.

일단 ‘조 부인의 그 눈 화살’이 거두어지자, 조는 자신의 두 집게손가락으로 살짝 십자 모양을 만들고는 그걸 내게 내보이는 것이다. 조 부인이 심술을 부릴 때마다 우리들이 주고받는 표식(상징)이었다.

조 부인이 심술을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조와 나는 종종, 아니 수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두 집게손가락을 십자 모양으로 만들어 보곤 했다. 십자군 전사들이 자신들의 양 다리를 십 자모양으로 만들곤 했었다는 그 기념비적인 표식처럼 말이다.

우리는 훌륭한 저녁식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식탁에는 “절인 돼지고기의 다리 한 짝, 그리고 푸른 채소들, 속을 꽉 채운 후 불에 구운 ‘사 육조류’(칠면조나 오리 같은 것) 한 쌍”이 오를 예정이었다.

보기 좋게 만들어진 민스파이(작고 달콤하고 파이) 하나는 어제 아침에 만들어두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민스미트(파이 안에 들어가는 ‘말린 과일과 양념 덩어리’)가 사라진 게 들통 나지 않았던 것이다. 푸딩은 벌써 팔팔 끓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준비들을 하려다보니 우린 아침식사를 소탈하게(예 절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해야 했다. “안 되지,” 조 부인이 말했다. “암 안 되고말고, 눈앞에 할 일이 있는데, 예의범절 다 따지며 처 먹고서 흥청망청 떠들고 논 후 설거지까지 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 내 장담하고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빵조각들을 나누었다. 그건 마치 집에 있는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꼬마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강행군을 강요당한 2천 명의 군인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죄하는 얼굴 표정을 지어며 드레서(서양영화에 나오는 목재찬장, 아랫부분은 나무탁자 윗부분은 선반들)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에서 우유와 물을 꿀꺽꿀꺽 삼켰다.

이럭저럭 하는 동안에,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은 깨끗한 흰색 커 튼들을 쳤고(걸었고), 헌 것을 걷어내고 ‘커튼 아래 꽃무늬 주름장식’을 ‘폭이 넓은 굴뚝’에 압정으로 고정시켜 가렸고, 약간 보기 흉했던 응접실의 벽지를 확 걷어냈다. 응접실은 복도 맞은편에 있었다.

응접실의 벽지는 다른 때에는 걷어낸 적이 없었다. 응접실의 벽지는, 은종이를 뒤덮은 ‘서늘한 연무’(실안개)처럼 일 년 내내 그곳에 덮여 있었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네 마리의 조 그마한 흰색 도자기 ‘푸들’(털이 복슬복슬한 개)들도 이 서늘한 연무 (실안개)에 덮여 있곤 했다. 이 네 마리 푸들들 모두 흰색 코를 가졌고 입에는 꽃이 가득한 바구니를 하나씩 물고 있었다. 각각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조 부인’은 정말 깨끗한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청결 함(깨끗함)을 지저분함 그 자체보다도 ‘더 불유쾌하고 더 못마땅하게’ 만드는 정말 정교한 기예(갈고닦은 기술과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청결은 신앙심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 때문에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과 똑같이 행동 하곤 한다.(자기들 이유 때문에 자꾸 남을 괴롭힌다는 의미)

크리스마스 날 누나는 할 일이 많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조’와 ‘나’)가 누나 대신 교회에 기도드리려갈 예정이었다. 대장장이 복장을 하고서 일을 하고 있는 조(주인공의 매형)의 모습은, 정말이지 다부지고 튼튼한 한 명의 대장장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휴일에는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입어도 하나의 허수아비(초라한 사람) 같았다.

그는 뭘 입어도 꼭 맞는 게 없었고 막상 차려 입은 옷도 자기 옷이 아닌 것만 같았다. 그가 입는 모든 옷들이 그를 못 뜯어 먹어 안달이었다. 당시 축제시즌(크리스마스)이었다. 명량한 종소리가 울리려고 할 때였다. 그가 일요일 참회자의 완벽한 복장으로 차려 입고서 방에서 나왔다. 정말 비참할 지경이었다.

나로 말하자면 내 자신에 대한 감정은 이랬다. 누나에게 나는 내 생일날 ‘산부인과 의사인 순경’에게 붙잡힌 한 명의 어린 범죄자였다. 내가 그런 식으로 법의 지엄함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에 합당한 대우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어떤 개념을 누나가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주인공을 손바닥으로 자꾸 때리고 못살게 굴었다는 의미)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나는 마치 “내가 이성, 종교, 도덕의 명령에 반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태어나고 말겠다.”라고 주장하고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태어나고 말겠다.”라고 주장하고서 태어난 것처럼 누나에게서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심지어 누나가 나에게 새로운 옷을 맞추어 주려고 양복점에 데리고갔을 때조차도, 재봉사에게 내 옷을 소년원복 같이 보이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 결코 녀석에게 손과 발을 자유로이 사용할 자유를 주지 말라고 주문을 했다.

그러므로 조(매형)와 내가 교회로 가는 모습은 인정 많은 사람들의 눈엔 감동적인 광경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내가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당한 고통은, 내 내면세계가 꺾어야했던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식료품저장실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혹은 누나가 방에서 나갈 때마다 나를 엄습했었던 공포들은, 오직 내가 내 두 손이 저지른 일을 마음속으로 되씹어볼 때면 함께 따라다닌 양심의 가책과만 비교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사악한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던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교회에 내 사악한 비밀을 알린다면 그 끔찍한 젊은 남성의 앙갚음으로부터 교회가 나를 보호해줄 만큼 교회가 충분히 망강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나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결혼예고를 알리는 종이가 읽혀지고 목사님께서 “그대들은 그것을(결혼) 지금 선언하시오!”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내가 일어나서 ‘교회 제의실 안에서 개인면 담을 신청한다.’고 말씀드릴 바로 그때일 거라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다.

만약 그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일요일만 아니었어도, 나는 그런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해(실행해) 여기에 모인 소규모 신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잠깐 :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 많음. 그때그때 설명하겠음. 부담가지시지 말고 그냥 넘기면 됨. 모두 중요한 배우들 아님. 남녀주연급 배우들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음)

교회서기인 ‘웝슬 씨’(소설 후반부에 다시 나오는 이름임. 수첩에 적어두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음, 주인공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임)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바퀴 제조인인 ‘허블 씨’(엑스트라)와 ‘허블 씨 부인’(엑스트라)도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펌블추크 삼촌’(남자조연임, 그래도 이름 외워두어야 함, 나 중에 주인공의 성공과 파멸을 싸잡아 비난하는 역할임, 뚱뚱하고 능청 맞은 기회주의자 역할임)이 자신의 ‘2륜 경마차’(바퀴 두 개)를 끌고 우리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올 예정이었다. 펌블추크 삼촌은 우리 마을 과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잡곡상(쌀 이외의 곡식을 사고파는 상인) 일 을 하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원래는 조(주인공의 매형)의 삼촌인데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부당하게도 자신의 삼촌으로 삼아버린 경우다. 점심시간은 1시 30분에 있을 예정이었다. 조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식탁이 놓여 있었다. 조 부인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식사도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정문도 열려있었다. 정문은 절대 그 외의 날에는 열어두는 법이 없었다. 회사(대장간)로 갈 때는 옆문을 사용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훌륭했다. 그리고 아직은 “강도니! 약탈이니!” 하 는 말들이 한 마디도 들려오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그렇다고 내 감정들에 어떤 구원이 찾아온 건 아니었다.

웝슬 씨(교회서기)는 ‘로마인 같은 코’(매부리코)와 앞이마가 번쩍번쩍 빛나는 대머리였다. 그는 깊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도 그것에 비상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도 그를 아는 지인들 사이에선 “만약 그(웝슬 씨)에게 맡긴다면 그가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사실 그 자신도 “만약 교회가 개방되어 있고 경쟁이 가능했다면” 그가 교회에서 이름을 날리는 게 가망 없는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인정했다.

“교회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웝슬 씨)는 아직 우리의 서기였다. 하지만 그는 “아멘”이란 소리를 내지르며 사람들을 소름끼칠 정도로까지 혼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시편을 낭송할 때면 그는 일단 좌중을 한 바퀴 쭉 돌아본 후 마치 다음과 같이 말 하려는 듯 시편을 낭송하곤 했다.

“여러분들은 방금 제 친구의 낭송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스타일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도 한 번씩 말씀해주십시오!”

물론 그러고는 그는 항상 전체 구절을 다 낭송했다.

손님들이 도착할 때마다 내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는데,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상(습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로 웝슬 씨(교회서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로 허블 씨 부부(바퀴제조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손님인 펌블추크 삼촌(잡곡상인)에게도 문을 열어주었다. 주의 : 나는 아직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삼촌이라고 부를 경우 가장 가혹한 형벌이 내게 주어질 수 있었다.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 펌블추크 삼촌이 한 마리 물고기 같은 입을 움직여가면서 말했다. 그는 몸집이 크고 호흡이 아주 가쁜 중년의 남성으로 행동이 느렸다. 침침한 눈으로 뭔가를 응시하는 그의 두 눈도 잊지 말아야한다. 머리 위에는 모래 빛 머리카락이 곧추 서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막 숨 막혀 죽기 일보 직전에서 막 나온 것 같았다.

어쨌든 펌블추크 삼촌이 한 마리 물고기 같은 입을 움직여가며 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계절 인사(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가져 왔지요~, 제가 가져 왔지요~, 엄마, 셰리 와인(포도주, 식사 전 마심, 식욕촉진) 한 병을요, (능글능글) 그리고 무엇을 또 가져왔게요?, 엄마. 짠, 포트와인(단맛이 나는 포도주) 한 병도 이렇게 가지고 왔지요~ (능글능글)”

그(펌블추크 삼촌)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났다. 물론 매년 인사말도 똑 같았다. 어쨌든 그가 아령(운동기구) 같이 생긴 병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가 우리 집을 방문해 거창한 인사말을 건넬 때면,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답하곤 했다. “오~, 펌~블~추크~ 사~ 암촌! 어머, 이렇게 친절하실 수가~!” (-\_-;;)

그러면 그(펌블추크 삼촌)도 역시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응수하는 것이다. “그게 다 부인의 공이죠! 부인, 가족들은 모두 원기왕성한가 요? 가만 보자 그 ‘쓰고 남은 6천원’ 같은 녀석은 잘 지내는지요?, 부인.”

‘쓰고 남은 돈 6천원’은 나(주인공)를 의미한다.

(19세기 영국 돈 ‘6페니’가 현재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6천원’임) 이 날 우리는 부엌에서 정찬(정해진 차례에 따라서 먹는 점심)을 먹

었다. 잠시 쉰 후, 응접실에서 “견과류들(땅콩), 오렌지들, 사과들”을 먹었다. 응접실은 “조(매형)가 작업복을 일요일 예배 복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바뀌어져 있었다.

누나는 지금 유달리 활기를 띄고 있었다. 누나는 확실히 다른 사람 들보다 ‘허블 씨 부인’ 앞에서 대체로 더 상냥했다.

내가 기억하는 허블 씨 부인은 키가 작고 머리칼이 곱슬곱슬한 신랄 한(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날 그녀는 하늘 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인습(관례)적으로 소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허블 씨(바퀴제조인)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오래전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녀가 그와 결혼할 때 그녀가 훨씬 더 어렸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허블 씨는 터프하고 어깨높이가 상당히 높으며 몸이 앞으로 굽은 나이 많은 분이었다. 바퀴제조인이라는 직업상 그에 게선 늘 톱밥 향기가 났다. 그의 양 다리는 비정상적일만큼 넓게 벌어져 있었다.(‘O’자 다리)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좁은 길을 올라오고 있는 그를 만날 때면, 나는 항상 그의 양 다리 사이로 ‘수 킬로미터나 되는 탁 터인 시골’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훌륭한 일행들 틈에서 나는 본의 아니게도 괴로운 입장에 놓 여있어야 했다. 심지어 내가 식품저장실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들 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내가 테이블보(덮는 천)의 날카로운 끝에 간신히 끼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식탁이 내 가슴까지 올라와서도 아니었으며, ‘펌블추크’(주인공의 삼촌)라는 사람의 팔꿈치가 내 눈에 닿아서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내 발언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사실 난 지금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나에게 가금류(칠면조)들의 다리 끝 그것도 물때가 그대로 끼어 있는 다리 끝부분을 할당해주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느 부위인지도 애매모호한 돼지고기 어느 부위를 내 몫으로 할당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부위가 그 돼지가 살아있을 때 가장 허영심을 내보이지 못했을 부위를 내 몫으로 할당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렇다 ; 만약 그들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었다면 나는 그런 것 들(주인공에게 배당된 소홀한 음식들)에 신경 쓰고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자신들의 대화주제 방향을 가끔씩이라도 내게 겨누는 것에 실패하고 그 화살 끝으로 나를 쿡쿡 찔러보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호기를 놓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들에게 나는 마치 스페인 원형 경기장 안에 놓인 불운하고 작은 황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도덕적으로는 옳지만 내 마음에는 아픈 그들의 작대기들로 아프게 쓰리게 만져져야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은 우리가 정찬(점심)을 위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웝슬 씨가 연극공연 같은 극적 효과를 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생각하기로는, 「 햄

릿」(비극)과 「리처드 3세」(희극, 코미디)에 나오는 대사들을 종교적 으로 크로스(교차)시킨 것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한다는 아주 합당하고 강렬한 열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끝마쳤다.

(고상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대사들을 서투르게 인용했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교양이 낮아서 웝슬 씨의 대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랐다는 얘기. 웝슬 씨는 소설 중-후반부에 실제로 연극배우가 됨. 런던으로 가서 전혀 안 유명한 연극배우가 됨.^^ 연극하는 도중에 관객석에서 항의의 표시로 물건들이 마구 날아오는 그런 배우가 돼서 주인공을 놀라게 함.)

그러자마자 누나가 내게로 눈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 말했다. “저 말 씀 들었지? 은예를 알아라.” 누나의 목소리는 낮고 나무라는 투였다.

“각별히,” 펌블추크 씨가 또 끼어들었다. “은혜를 알거라, 꼬마야, 너를 손수 양육해준 분들에게.”

허블 씨 부인이 고개를 흔들더니, 마치 내 인생이 좋지 않게 결말이 날 거라는 것을 예감한다는 듯이 구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왜 저 청년(주인공, 꼬마임)은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해하지를 앉죠?”

이 도덕적인 미스터리는 우리 일행에게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였다. 허블 씨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수수께끼는 간단명료하게 풀렸다. “천성적으로 악한 것이지요.”

그러자 모두들 “그 말이 옳다!”며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나를 대단히 불유쾌하고 인신공격적인 태도로 빤히 쳐다보았다.

조(주인공의 매형)의 지위와 영향력은 아무도 없을 때보다 지금처럼 일행이 있을 때 더 미미했다. 미미할 게 더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고 가능한 한 나에게 위안을 주려고 애썼다. 물론 그 자신의 방식대로 말이다.

그리고 식사자리에서도 조는 그레이비(고기국물에 밀가루 넣고 만든 소스)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날이면, 내 접시에 항상 그레이비를 듬뿍 담아주곤 했다. 오늘은 그레이비가 아주 많았다. 사람들이 나의 본성을 의심하는 이때에 조가 또다시 내 접시에 그레이비를 한 가득 담아주었다. 대략 250밀리리터(우유1팩)쯤 되는 양이었던 것 같다.

식사가 좀 더 진행되었을 때, 웝슬 씨(교회서기)가 그날 아침에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맹렬하게 비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자신이 설교를 했더라면 어떤 종류의 설교를 했을 것인지를 넌지시 암시했다. 물론 그가 늘 하는 이 말도 잊지 않았다. “교회가 개방되어 있 었더라면”이라는 가정 말이다.

자기가 펼칠 예정이라는 언설(말)의 몇몇 요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모두의 비위를 맞추어준 후, 웝슬 씨(교회서기)가 그 날의 설교 주제는 잘못 선정되었다는 사견(생각)을 피력했다.(말했다) 그가 또 덧 붙이기를 “특히나 요즘 같이 다룰 만한 주제가 많은 때에 그것은 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옳고말고요.”라며 펌블추크 삼촌(잡곡상)이 말했다.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이십니다, 선생! 그것들(설교주제)의 뒷면에 소금을 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교 주제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만약 소금상자만 준비되어 있다면 주제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지요.” 사람들의 반응을 잠시 살핀 후 펌블추크 씨가 계속 덧붙였다. “이 돼지고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주 제를 원하신다면 자 이 돼지고기를 보십시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선생. 사실 어린 것들이 성서의 말씀에서 추 론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지요.” 윕슬 씨(교회서기)가 말했다. 나는 웝슬 씨가 말을 하기 전부터 그가 나를 이쯤에서 걸고넘어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너, 잘 들어둬.” 누나가 심각한 표정을 지어며 한 마디 껴들었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내 접시에 그레이비(고기국물에 밀가루를 넣고

만든 소스)를 조금 더 담아주었다.

(영어단어 ‘돼지’에는 ‘골칫거리 인간새끼’라는 의미가 있음) “돼지는,” 웝슬 씨가 ‘자기 포크’로 당황하고 수치스러워 얼굴이 새

빨개진 ‘나’를 겨누며 말을 이어갔다. 그가 말하는 돼지가 꼭 내 세례 명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돼지는 낭비를 일삼는 녀석입니다. 그 돼지의 폭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것(식탁 위에 놓인 돼 지)이야말로 어린 것에겐 좋은 본보기입니다.” 나는 이것이 그에게 꽤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돼지고기 살이 아 주 포동포동하고 육즙이 많다고 칭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웝슬 씨)가 계속 말했다. “돼지에게 있어 혐오스러운 것은 소년에게 있어 더 더욱 혐오스럽습니다.”

소녀도요”라며 허블 씨(바퀴제조인)가 제시했다.

“당연하지요, 소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애하는 허블 씨”라며 웝슬 씨가 찬성을 표시한 후 다소 안달이 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여기엔 소녀가 없지요.”라고.

“게다가” 펌블추크 씨가 나에게로 몸을 획 돌리면서 말을 했다. “네가 무엇에 감사해야하는 지를 생각해 보거라. 만약 네가 끽끽 소리를 내는 것으로 태어났었더라면―”

“만약 어린아이가 한번이라도 끽끽 소리를 내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저 녀석이 그랬어요.” 내 누나가 매우 강조하는 말투로 말했다.

조가 내 접시에 그레이비(고기국물에 밀가루를 넣고 만든 소스)를 조금 더 담아주었다.

“글쎄요, 하지만 난 네 발 달린 끽끽이(돼지새끼, 주인공)를 의미했 는데요.”라며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잘 생각해봐라. 만약 네(주인공) 가 그런 것들로 태어났다면 넌 지금쯤 여기서 무엇이 되어 있겠니? 네 녀석이 아니라면―” (‘―’는 줄표임. 줄표는 “이후 부연 설명하겠다.”는 의미임. 제가 아니라 디킨스가 사용하고 있음)

“만약 저 형태가 아니었더라면” 웝습 씨(교회서기)가 그 접시를 보며 고개를 끄떡이면서 말을 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저 딴 형태가 아닙니다, 선생” 펌블추크 씨가 자기 발언이 중단되자 딱 한 마디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제가 의미했던 것은, 자기보다 웃어른들과 지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웃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개선시킬 기회를 박탈당했을 거라는 것을, 만약 그랬다면 지금 온갖 사치 속에서 대굴대굴 뒹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호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너(주인공, 꼬마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냐?” 펌블 추크 씨가 다시 한 번 내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랬다면 넌(주인공) 시장가격에 따라 네 몸값을 더 쳐주겠다는 사 람들을 위해 도살당했을 것이다. 푸줏간집 주인인 ‘던스터블’(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임)이 네 녀석을 끌어다 짚 속에 처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녀석의 왼쪽 팔에 호된 매질을 가한 후 네 녀석의 오른 팔에도 똑 같이 호된 매질을 가했을 것이다. 그리곤 그가 이제 작업복을 걷어 올리며 조끼 호주머니에서 펜나이프(작은 칼)를 꺼내들었을 것이며 그랬다면 네 놈의 피는 낭자해 그것으로 네 목숨도 끝이 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무도 네 놈을 손수 길러줄 수 없어. 원, 천만에 말씀이지!”

조(주인공의 매형)가 나에게 그레이비(고기국물에 밀가루를 넣고 만든 소스)를 더 주려고 했다. 난 그러기가 두려웠다.(거부했다)

“저 애는 당신에게 큰 골칫거리에요, 부인.” 허블 씨 부인(신랄한 여자)이 내 누나에게 동정의 눈빛을 가득 담아 보내며 말을 했다.

“골치라고요?” 누나가 메아리까지 넣어가며 말했다. “불안이라고 요?” 그러더니 누나는 끔찍한 카탈로그(책) 한 권을 널어놓기 시작했다. 누나는 먼저 내가 지금까지 걸렸었던 모든 질병들의 이름을 언급 했다. 누나는 또 나 때문에 잠 못 잔 수많았던 불면의 밤들을 얘기했 고, 내가 뒹굴다 떨어졌었던 높은 곳들과 내가 뒹굴다 처박혔었던 낮은 곳들을 죄다 얘기했으며, 내(주인공)가 놀다가 입었던 수많은 상처 들과, 무엇보다 내가(주인공)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모든 시간들을 언급했고 그녀(주인공의 누나)의 그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를 반항적으로 거부하더라는 얘 기까지 죄다 털어놓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코(매부리코)를 주제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짜증나게 만들었음이 틀림없으며, 아마도 그것이 결국 로마인들로 하여금 역사가 판명하듯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침략적인 민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어쨌든, 내 경범죄(가벼운 범죄)들에 대한 누나의 그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웝슬 씨(교회서기)의 매부리코가 나를 아주 짜증나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아주 소리를 길게 내지를 때까지 그 코를 잡 아 땅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참고 견디었던 모든 것들은, 잇따라 이어지든 누나의 그 장황한 설명이 잠시 멈춘 사이 나를 휘감았던 무시무시한 감정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나가 발언을 멈추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는 눈빛으로 증오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분개와 증오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블추크 씨가 대화의 주제를 원래 있던 곳으로 완만하게 되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담즙인 것 같지만, 돼지고기 역시 아주 많아. 그렇지않아?”

“브랜디 좀 드세요, 삼촌.” 내 누나가 말했다. (브랜디는 ‘포도주를 증류한 술’)

브랜디? 오 마이 갓(\*\_\*), 기어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제 그 (펌블추크 삼촌)가 브랜디 맛이 밍밍하다(싱겁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 이다. 그럼 그는 “브랜디 맛이 왜 이렇게 밍밍해!”라고 말할 것이고 그 렇게 되면 나(주인공)는 끝장이었다.

나는 식탁보 아래에 있는 식탁 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은 후 다가오고 있는 내 죽음(운명)을 기다렸다.

누나가 ‘돌로 만든 술병’(도자기 같이 안이 전혀 안 보이는 술병, 화 장품 병같이 생긴 것)을 가지러 갔다. 누나가 돌로 만든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 펌블추크 삼촌의 브랜디 잔 안에 퍼부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잔에는 아직 술이 따라지지 않았다.

아, 그 불행한 남성(펌블추크 삼촌)은 자신의 잔을 우습게 쓱 쳐다보고는 잔을 집어 들어 불빛에 비추어보고는 내려놓았다. 그의 그런 행 동들은 내 고통을 연장시켰다.

이러는 동안 ‘조 부인과 조’(주인공의 누나와 매형)는 식탁을 기운차게 치운 후, 파이와 푸딩을 내놓고 있었다.

나는 그(펌블추크 삼촌)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내 두 손과 두 발로 식탁다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불쌍한 사람(펌블추크 삼촌)이 손가락으로 자기 잔을 쾌활하게 만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가 자기 잔을 들어 올린 후 쓱 한 번 미소를 지어보이더니 고개를 뒤로 확 젖인 후 브랜디를 모두 마셔버리는 것까지 다 지켜보았다.

그 즉시, 우리 일행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에 휘감겼다. 그(펌블추크 삼촌)가 오싹하고 돌발적인 백일해성(경련성 기침 발작) 기침을 되풀이하면서 팔짝팔짝 뛰며 몇 번이고 돌더니 문 쪽으로 달려 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격렬하게 거꾸러지며 기침을 내뱉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얼굴표정이었다. 그가 정신을 잃었음이 명백했다.

‘조 부인과 조’가 그(펌블추크 삼촌)에게로 달려갔을 때, 나는 탁자 다리를 있는 힘껏 끌어당겼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일이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였다.

사람들이 그를 다시 데려왔을 때,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단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들이 그(펌블추크 삼촌)와 사이가 안 좋았었 다는 양, 그가 우리 일행을 쭉 한 번 살펴본 후 자기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가 헐떡거리며 의미심장하고 짧은 한 마디를 내뱉었다.

“타르!”라고. (타르는 “석유를 증류할 때 생기는 검은 액체.” 발암물질. 도로 아스팔트 냄새가 타르 냄새임)

내(주인공, 아직은 꼬마)가 주전자에 담긴 타르 수용액을 술병에다 집어넣었던 것이다. 나는 머지않아 그(삼촌)의 몸 상태가 더 나빠질 것 임을 예감했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이끌려 나는 식탁을 움직였고 곧 그것을 다시 붙잡았다. 마치 현대(19세기 영국)의 영매(무당) 같았다.

“타르(석유를 증류할 때 생기는 검은 액체, 아스팔트 냄새가 남)라고요!” 내 누나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타르가 어떻게 거기(술병)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누나의 그런 말은 소용이 없었다. 부엌에 있던 펌블추크 삼촌은 전 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는 고압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누나의 말을 자른 후 ‘뜨거운 진(독한 술)과 물’부터 찾았다. 그는 누나가 하는 말의 주어도 듣지 않으려 했다.

놀랄 만큼이나 깊은 생각(어떻게 타르가 술병에 들어갔지?)에 잠겨 있었던 누나는 바삐 움직이며 “진(독한 술)과, 뜨거운 물, 설탕, 그리고 레몬껍질”을 찾아내 섞어야했다.

나는 여전히 식탁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당분간은 나도 살았다(위기를 모면했다). 그러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열정에 겨워 식탁 다리를 와락 움켜잡았다.

점차 나는 안정을 되찾았다. 식탁다리에서 손을 풀고 나도 푸딩 먹는 것에 동참할 수 있었다. 펌블추크 삼촌도 자신에게 할당된 푸딩을 먹었다. 우리 모두 푸딩을 다함께 먹었다. 푸딩 먹기가 끝났다. 진과 물의 기분 좋은 영향 때문에 취기가 오른 펌블추크 삼촌이 활짝 웃기 시작했다.

누나가 조(주인공의 매형)에게 “깨끗한 접시들로요, ― 차가운 걸로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날 당일을 극복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 작했다.

그 순간 나는 또 다시 식탁 다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식탁 다리가 마치 내 어린 시절의 동반자이고 내 영혼의 친구인 양, 나는 그 식탁 다리를 내 가슴에 바짝 밀착시켰다.

나는 다가오고 있는 일(음식도둑질이 발각되어 체포)을 예견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엔 나도 정말이지 사라지고 없으리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꼭 맛보셔야 해요.” 누나가 최고로 우아하게 손님들에게 말했다. “꼭 맛보셔야 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요. 정말 기분 좋고 맛있는 선물(‘셰리 와인’과 ‘포트와인’)이지 뭐예요. 펌블추크 삼촌이 가져오셨 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며 칭찬의 말을 널려놓았다.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우대를 받아 마땅하다는 평소 지견 대로 펌블추크 삼촌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고려해보았다는 표정을 지어며 아주 원기 왕성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조 부인, 자 우선 최선을 다해 더 먹어봅시다. 그 조그만 파 이(돼지고기 파이) 한 조각부터 시작할까요.”

누나가 파이를 가지러 나갔다. 나는 식료품저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나는 펌블추크 삼촌이 자신의 나이프(식칼)를 반듯이 놓는 것을 보았다. 나는 웝슬(교회서기) 씨 매부리코의 콧구멍 속에서 식욕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허블 씨(바 퀴제조인)가 이렇게 논하는 것도 들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돼지고기 파이 한 조각 정도는 더 먹어줄 수 있죠. 맛도 있고 좀 더 먹는다고 해롭지도 않죠.”

나는 조(주인공의 매형)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 “핍, 너도 조금 먹게 될 거야.”

나는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음식도둑질이 발각될 거라는) 공 포에 질린 내가 마음 속으로만 날카로운 외침을 내질렀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일행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내 몸 전체를 통해 고함을 질렀는지 나는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이 자리를 견딜 수 없을 것임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달아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식탁 다리에서 손을 떼고 내 일생일대의 탈출을 감행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 대문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뛰어간 그곳(대문)에서, 내가 그만 머스킷총(노끈에 불을 붙여 화약 발사)을 들고 있던 한 무리의 병사들 속으로 거꾸로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수갑 한 개를 내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놈 여기 있었구나, (다른 병사들을 보며) 서둘러라 어서!” 라고.

**위대한유산**

**5장**

둘러맨 머스킷총(화승총)에서 철커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병사들이 세로로 줄을 지어 우리 집 문 앞에 등장했다. 저녁 파티가 혼란스러워져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야했다.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빈손으로 돌아오다 멈추곤 빤히 쳐다봤다. 기이하다는 듯 애통해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없어진 게, 그래 파이야!”

조 부인이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난(주인공) 상사(하사관)와 부엌에 있었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도 난 부분적으로나마 내 감각들을 회복했다. 나에게 말을 걸었던 그 상사는 오른 손에 쥔 많은 수갑들을 매력적으로 내밀며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왼손은 내 어깨 위에 있었다.

“실례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들.” 상사가 말했다. “이 어린놈(주인공 꼬마)에게는 문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도대체 그 어린놈이 누구겠는가? ←이 문장은 원문에 있는 문장임. 디킨스가 쓴 문장임) “지금 저는 왕명을 받들어 추적중입니다. 그래서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에게서 원하려는 게 뭐죠?” 누나가 재빨리 쏘아붙이며 말했다. 무엇보다 상사가 대장장이를 찾는다는 말에 분개한 듯했다.

“부인,” 상사가 정중하게(여성에게 점잖게) 얘기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야했겠지요. ‘그의 아내를 만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요. 하지만 국왕폐하를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일이 좀 생겼습니다.’입니다.”

그의 대답은 상사(상급 부사관)로서는 꽤 솜씨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펌블추크 씨가 이렇게 외쳤을 정도였다. “좋은 답변이십니다!” (이 당시 영국 병사들의 저급함과 악행은 유명함. 영국장군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자기 병사들을 가리켜 “인간○○○들을 모아놓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함. 어느 책에서 봤음.)

“당신이? 대장장이요.” 이때쯤엔 벌써 상사가 조(주인공의 매형)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다. “이 수갑들이 말썽을 좀 부리지 뭡니까. 자물쇠의 한쪽이 잘못되었더군요. 결합이 시원치 않아요. 즉시 수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가 눈으로 수갑들을 훑어보더니 의견을 내놓았다.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화덕에 불을 다시 지펴야하고 그럼 한 시간보다는 두 시간에 더 가깝게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한 번 착수(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대장장이 양 반?” 상사가 즉석에서 대답했다. “공무(국가의 일)니까요. 제 부하들이 일손을 좀 거둔다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 말과 함께, 그(상사)가 자기 부하들을 불렀다. 병사들이 잇따라 부엌 안으로 떼를 지어 들어왔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기들을 한쪽 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정말로 병사들이 그러 하듯이 그렇게 사방에 쭉 둘러섰다. 그들은 어떨 때는 양 손을 움켜쥐 고는 앞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쪽 무릎이나 한 쪽 어깨를 풀기도(휴식) 하고, 또 어떨 때는 혁대나 주머니를 느슨하게 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을 열고서 자신들의 높은 칼라(윗옷) 위로 목을 빳빳하게 내민 채 마당을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병사들의 그런 껄렁껄렁한 행동들을 나는 그들이 눈치 못 채게 다 보았다. 왜냐하면 난 다른 불안함(음식도둑질)으로 이미 몸부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갑들이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어찌되었건 군인들이 파이보다는 더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없어진 파이는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제야 난 산산이 조각나 있었던 내 지혜의 파편들을 하나 둘씩 거둬들일 수 있었다.

“제게 시간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상사(상급 부사관)가 자 신의 말에 대꾸했던 펌블추크 씨(잡곡상)에게 말했다. 아마도 아까 자 신의 말을 알아들은 것을 보고 이 남성이 자신에게 시간도 알려줄 수 있는 남성이라고 추측한 것 같다.

“딱 2시하고도 30분이 지났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라고 상사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심 지어 저희가 여기서 2시간가량을 반강제로 머물러야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여기 분들은 이 주변에서 늪지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말들 하십니까? 1.6킬로미터 이상은 아니겠죠?, 제 추측이지만서도.”

“딱 1.6킬로미터입니다.”라고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이 말했다. “그럼 됐군요. 저희들은 땅거미가 질 때까지는 늪지대 가까이에 다

다라야 하거든요. ‘해질녘 직전까지’가 제가 받은 명령들입니다. 어쨌 든 일이 잘 풀이겠는데요.”

“죄수들 때문입니까? 상사.” 웹슬(교회서기, ‘웝슬’보단 ‘웹슬’이란 이름의 어감이 더 좋아서 제가 그냥 바꿨음) 씨가 너무도 당연한 걸 물었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에 “아아!”라고 상사가 답했다. “두 명이죠. 놈들이 아직 늪지대에 잠복해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놈들은 해지기 전에는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런 하찮은 사냥감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물론 확신하건데 나만 빼고 말이다. 다행히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좋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그 놈들은 곧 자신들이 둥근 올가미에 걸려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놈들은 붙잡힐 겁니다. 자, 대장장이 양반! 만약 준비 되셨다면, 국왕폐하의 병사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갑을 고치는 것을 시작하죠)”

조(주인공의 매형)는 상의와 조끼와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곤 가죽 앞치마를 착용하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다. 병사들 중 한 명이 대장간에 있는 목재 창문들을 열었다. 다른 병사 한 명은 화덕에 불을 지폈고, 또 다른 한 명은 풀무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나머지 병사 들은 불꽃 주의에 빙 둘러섰다.

곧 불꽃이 맹렬히 타올랐다. 조가 해머 질을 시작했고 쨍쨍하는 소리가 울렸다. 다시 조가 해머 질이 시작했고 쨍쨍하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 모두는 그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 일어날 추격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일반적 주의력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로 하여금 심지어 음식을 아끼지 않는 후한사람으로 만들었다. 누나는 병사들을 위해 큰 통에서 맥주 주전자를 꺼냈다. 누나는 잔에 브랜디를 담아 상사(상급 부 사관)에게 가져다주기까지 했다.

그러자 펌블추크 씨가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상사)에게는 와인을 주셔야지오, 엄마. 와인 병에는 타르(석유)가 한 방울도 없지 않겠어요.”

상사는 펌블추크 씨에게 사의(감사)를 표하며 만약 이 집에서 와인이 브랜디와 동급이라면 자신은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정중히 말했다. 물론 자신도 타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음료수를 더 선호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상사는 와인 한 잔을 받자 국왕폐하의 건강과 크리스마스 인사들을 듬뿍 담은 후 쭉 들이켰다. 그는 와인 한 잔을 한 입 가득 몽땅 들이키고는 쩝쩝 소리를 내면서 입맛을 다셨다.

“괜찮은 물건(와인)이지 않소, 안 그렇소, 상사?”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상사가 되받아치며 말했 다. “제가 알아맞혀볼까요. 이 물건은 당신이 가져온 것이겠지요.”

펌블추크 씨가 기름기가 가득 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아, 아 아?(-\_-) 어째서죠?”

“왜냐하면,” 상사가 손바닥으로 그(펌블추크 삼촌)의 어깨를 ‘탁’치며 말했다. “당신은 뭐가 뭔지를 아시는 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펌블추크 씨가 또 좀 전과 같은 그 느끼한 웃 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상사에게 한 잔 더!”

“친한 친구와의 한잔이라면 야,” 상사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제 와인 잔 꼭대기를 당신 잔의 다리에까지, 당신 잔의 다리에서 내 와인 잔꼭대기까지! 쨍하고 건배 한 번, 쨍하고 건배 또 한 번, ‘글라스 하 모니카’(와인 잔에 물 넣고 통통 때리며 음악 연주하는 것)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율!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천년동안을 사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당신이 현재 이 순간보다 올바름에 대해 더 나쁜 재판관이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며!(펌블추크 삼촌의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 지금도 가관인데, 앞으로 소설이 진행되면서 주인공에게 성공 과 좌절이 차례대로 오게 되면 하는 짓이 더 가관일 거라는 얘기임.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 디킨스가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임. 현실에 서도 모두 이런 유의 사람들뿐이겠지만…, 어쨌든 소설은 계속됨)”

상사(상급 부사관)가 또 다시 자기 잔을 뚝딱 해치웠다(마셨다). 그리고 곧바로 한 잔 더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보기에 펌블추크 씨(잡곡상)는 지금 상사의 환대에 들떠서 지금 마구 마셔대고 있는 그 와인이 실은 자신이 우리 집에 선물로 가져온 거라는 사실을 잊은 것만 같았다. 펌블추크 씨는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에게서 술병을 빼앗아서는 솟구치는 유쾌함에 취해 그 와인을 이리 저리 건네주며 생색이란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있었다. 심지어 그 와인이 나에게도 조금 돌아왔을 정도였다.

펌블추크 씨는 와인을 마시고 자유영혼이 되어선 첫 번째 와인이 다 떨어졌을 때 한 병 더 가져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리곤 두 번째 와인을 후하게도 좀 전과 같이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따라주었다.

그들이 이렇게 화덕 주위에 모여 서서 아주 그냥 끝장나게 먹고 마 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

(아래부터 주인공의 생각들임)

‘늪지대에 있는 내 도망자 친구가 지금 이들의 저녁식사를 위한 끔찍이 좋은 양념이었구나.’ 생각했다.

그들(사람들)은, 내 도망자 친구가 등장해 유흥을 빛나게 해주기 전에는 지금의 1/4 만큼도 즐기지 못하고 있었었다.

그건 그렇고, 그들 모두가 이렇게 “그 두 명의 악한들”을 다 잡은 양 활기에 넘쳐 있을 때, 그리고 풀무(바람)들이 성난 개처럼 그 두 도망자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화덕의 불 역시 그 두 도망 자들에게 확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리고 연기가 그 두 도망자들을 뒤쫓기 위해 서두려는 것만 같았을 때,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 장이)의 해머 질과 그가 만드는 쨍쨍 소리가 그 두 도망자를 뒤쫓는 것 같았고, 조가 만들어내는 ‘불꽃이 타오르고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벽 위에 있던 탁한 그림자들 모두가 동요하며 그 두 도망자들에게 똑같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시뻘겋게 단 불꽃들이 이리저리 떨어져 꺼졌다.

그리고 동정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주인공)의 상상에는, 창백한 오후의 바깥공기들이 그렇게 창백해진 것이 꼭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 (도망자 2명) 때문인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가 대장장이인 매형의 해머 질이 만드는 불꽃들을 보면서 든, 주인공의 생각들임. 좀 기네요.)

마침내 조(주인공의 매형)가 일(수갑 수리)을 끝마쳤다. 쨍쨍 울리던 소리며 으르렁거리던 불길도 멈추었다. 조가 다시 상의를 걸쳐 입었다. 조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들 중 몇몇은 병사들을 따라 늪지대로 내려가 이번 사냥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 봐야하지 않 겠냐고.

‘펌블추크 씨(잡곡상)와 허블 씨(바퀴제조인)’는 담배 한 모금과 숙녀 분들 보호를 핑계되며 거절했다. 하지만 웹슬 씨(교회서기)는 자신이 가겠다고 만약 조가 간다면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조가 그(웹슬 씨)에게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 조 부인이 만약 허락해 준다면 나(주인공 꼬마)도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확신하건데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 20살차 이)이 이번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를 매우 궁금해 했다.

일이 이러니, 그녀(주인공의 누나)가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총알이 박혀 산산조각 난 저 녀석(주인공 꼬마)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와선 나 보고 다시 붙이라곤 말하지마.”라고.

상사(상급 부사관)가 숙녀 분들에게 정중한 작별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펌블추크 씨와는 마치 전우(전쟁동료)와 전우가 헤어지는 것처럼 헤어졌다. 나는 궁금했다. 만약 그(상사)가 술을 한잔도 안 한 그런 말 짱한 상태에서도 저 신사의 장점들을 충분히 잘 느끼고서 그렇게 아쉬 워하며 헤어졌는지. 목구멍에 촉촉한 뭔가(술)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그렇게 잘도 저 신사의 장점을 느끼더니만 말이다.

그(상사)의 부하들이 머스킷총(화승총)들을 다시 챙겼다. 병사들이 정렬했다.

상사는 ‘웹슬 씨, 조, 그리고 나’ 이렇게 세 명에게는 단단한 다짐을 받았다. 반드시 행렬의 뒤쪽에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늪지대에 다다를 때까지 단 한 마디도 해선 안 된다는 다짐 말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것 그대인(불쾌한)’ 밖으로 나와 착실하게 우 리의 임무 지를 향해 움직일 때 내가 조에게 마치 반역이라도 피우는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조, 난 이 사람들이 그들(죄수 2명)을 못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조가 내게 이렇게 귓속말을 했다. “만약 그들(죄수 2명)이 뺑 소니를 쳤다면 내가 5천원을 주마, 핍(주인공 이름).” (19세기 1실링은 지금 돈 5천 원 정도임~. 물가기준)

우리 일행은 마을 사람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날씨가 춥고 위 협적인데다 황량해 땅이 걷기 나빴고 무엇보다 이젠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내에서 따뜻한 불들을 쬐며 하루를 정리 하고 있었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창문들 너머로 보였다. 실제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뒤쫓기도 했지만 나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손가락 모양의 도표’(길 안내판)를 지나 곧장 늪지대쪽으로 직행했다.

상사(상급 부사관)의 부하 두 세 명이 무덤가 사이로 흩어져 현관(지붕이 있고 벽이 둘러진 현관)을 조사했다. 그 동안 우리는 상사의 손 신호에 따라 거기서 몇 분간 정지했다.

병사들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교회 부속의 묘지 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 활짝 열린 늪지대로 접어들었다.

매서운 ‘진눈깨비’(비가 섞여 내리는 눈)가 동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심하게 와 부딪쳤다. 그러자 조(주인공의 매형)가 나를 등에 태워주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음침한 황무지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내(주인공 꼬 마)가 “8시간 전이나 9시간 전에 여기(황무지)로 와 저기에 숨어있던 두 남성을 보았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황무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만약 우리가 그들(죄수 2명)과 마주친다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 기결수(죄 수)가 이 병사들을 여기로 데리고 온 것이 바로 나(주인공)라고 생각하진 않을까?”하는 문제였다.

그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이다. “네 녀석이 인간을 속이는 임프(난쟁이 요정,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며 뒤로는 음모를 꾸미길 좋아하는 키 작은 악당요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말도 했었다. “만약 네 녀석이 나(죄수)를 뒤쫓는 사냥에 동참한다면 넌 영락없는 사나운 어린 사냥개가 틀림없다”라고.

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나 않을까? 내(주인공)가 정말로 배반할 마음을 먹은 ‘임프(악당요정)와 사냥개’ 둘 다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를 배반했었다고.

이제 와서 그런 질문(자책감)들을 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그때 분명 거기(늪지대)에 있었고, 그것도 조(주인공의 매형)의 등에 업혀서, 그리고 나를 업은 조가 마치 한 명의 사냥꾼인 양 배수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웹슬 씨에게 (웹슬 씨의) 매부리코가 땅에 박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잘 따라오라고 격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말이다.

우리 앞쪽에 있던 병사들이 서로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일 직선을 그리며 아주 널찍하게 펼쳐 섰다.

우리는, 내가 일찍이 가려다 그만 안개 속으로 빠지고 말았던 그 코스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안개가 다시 끼지 않았거나 혹은 바람이 안개를 쫓아 버린 것 같았다. 해질녘의 낮고 붉은 섬광 아래에서, “봉수 대, 교수대, 포대의 언덕, 건너편의 강가”가 분명하게 보였다. 비록 그 모두가 물에 젖은 납 색깔을 띠고 있었지만 말이다.

내 심장은 조의 넓은 어깨 위에서 마치 대장장이처럼 쿵쿵거리고 있었다. 나는 죄수들의 사소한 흔적 하나라도 발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웹슬 씨(연극배우가 꿈인 교회서기)의 획획 하는 숨소리와 깊은 한숨 소리가 나를 한 번 이상 아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소리를 알 수 있었고, ‘웹슬 씨의 숨소리’를 ‘추적 대상’과 구별해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줄(쇠사슬을 자르는 도구)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을 때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냥 양의 목에 매달린 종 소리였다.

양들이 식사를 멈추고 소심하게 우리를 쳐다보았고, 소들이 바람과

진눈깨비(비가 섞여 내리는 눈)를 피해 고개를 돌렸다. 소들은 이런 표 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성가심(바 람과 진눈깨비)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듯.

하지만 “이러한 것들(바람과 진눈깨비)”과 “모든 풀잎이 저무는 날씨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늪지대에서 적막 함을 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병사들이 ‘오래된 포대’(포병부대가 버리고 간 시설물)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조금 뒤에 떨어져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모두 멈춰 섰다.

‘한 줄기 비바람’에 섞여 ‘한 마디 긴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가 반복되어 들렸다. 동쪽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지만 그 외침은 분명 길고 컸다. 아니, 두 사람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함께 외쳐 대는 소리 같았다. 소리에서 나는 혼란으로 판별해 보건데 그러했다. ‘상사(상급 부사관)’와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병사’가 이 소리를 가 지고 숨죽이며 얘기를 교환하고 있을 때, 조와 내가 그곳에 도착했다. 그 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본 후, 좋은 재판관이었던 조가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고 나쁜 재판관이었던 웹슬 씨(교회서기)가 그들에게 동의했다.

상사는 결정적인 한 방(단호한 결의)이 있는 사람이었다. 상사가 저 소리에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렸다. 상사가 진로 (길)를 변경해 “두 사람의 소리”가 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그쪽이 동쪽이었다. (외침이 동쪽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조가 아주 놀랍게도 땅에 맹폭격을 가하며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나는 조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를 꽉 붙잡아야했다.

이젠 정말 달음박질이었다. 이때 조(주인공의 매형)가 한 말은 딱 두 마디뿐이었다. 그가 맨날 하는 말인 “빠르게! 힘차게!”였다. 그가 둑들 아래로 내려갔고 다시 둑들 위로 올라갔다. 그리곤 수많은 수문(강에 설치한 물)들을 건너뛰었고 도랑들을 첨벙첨벙 건넌 후 골풀(높이가 50~100센티미터인 등심초, 잡풀)들 사이를 파헤치며 달렸다. 우리 모두 정신없이 뛰고 있었다. 고함소리가 들리는 곳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젠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 소리는 한 사람 이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소리였다.

가끔 소리가 동시에 멎었다. 병사들도 멈추었다. 다시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를 향해 병사들이 전보다 빠른 속도로 뛰어갔다. 우리도 병사들을 뒤따랐다.

잠시 후 우리가 그들을 찾아냈다. 우리는 한 사람(죄수)이 이렇게 말 하는 것이 들을 수 있었다. “살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죄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 죄수들이 있다! 도망자들이 있다! 경비대원들! 도망갔던 죄수들이 여기 있다!”라고.

그러더니 두 목소리들 모두 전투중인지 숨이 탁탁 막히는 것이 들렸다. 또 다시 두 죄수의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 고함과 함께 병사들이 사슴처럼 뛰기 시작했고 조 역시 사슴처럼 뛰기 시작했다.

소리 나는 곳에 다 왔을 때 상사(상급 부사관)가 첫 번째로 뛰어들었고 그의 뒤를 쫓아 다른 두 부하가 뛰어들었다. 그들을 뒤따라 우리 모두 달려들었을 때, 병사들의 총은 이미 공이치기(격발장치)가 젖혀진 (장전) 후 총구멍을 죄수들에게 겨누고 있었다.

“여기 두 놈 모두 있다!” 도랑(시궁창) 아래에서 있는 힘껏 싸우고 있던 상사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항복해, 둘 다! 이 빌어먹을 짐승 같은 자식들아! 둘 다 떨어지지 못해!”라고.

사방으로 물이 튀고 있었고 진흙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무수한 욕설 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그에 발마추어 주먹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좀 더 많은 병사들이 상사(상급 부사관)를 돕기 위해 도랑 (시궁창) 속으로 내려가 ‘내 죄수’(주인공이 빵을 주었던 죄수)와 ‘다른 죄수’를 따로따로 끌어냈다. 두 죄수 모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헐떡거 리고 있었으며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서로를 저주하는 말들을 내뱉으며 발악하고 있었다. 당연히 난 그들 둘 다를 즉시 알아보았다.

“잘 들어두시오!” 내 죄수가 거친 소매로 자신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며 말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상대방에게) 뜯긴 머리를 털어내면서 말했다. “내가 저 놈을 잡았소! 내가 당신들에게 저 놈을 넘긴 거요! 명심해두시오! 내가 저 놈을 넘긴 거라는 사실을.”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상사가 말했다. “그래 봤자 네 놈에게 돌아갈 건 거의 없어, 이 친구야, 그리고 네 처지도 똑같을 거고. 저것들에게 수갑 채워!”

“난 저 자를 잡은 것이 내게 어떤 이득이 되리리라 생각지는 않소.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도 족하오. 난 이 보다 더 많은 이득을 원하지 않았소.” 내 죄수가 탐욕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저 놈을 잡은 거요, 저 놈은 알지. 내가 저 놈을 잡았다는 것을. 난 그거면 족하오.”

다른 죄수가 노발대발해 내 죄수를 쳐다보았다. 게다가 다른 죄수의 얼굴 왼쪽 편에는 멍이 있었다. 멍은 오래 전에 생긴 것 같았다. 또한 그(다른 죄수)의 얼굴 곳곳에도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군데군데 얼굴이 찢겨져 있었다. 두 죄수가 따로 떼어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그는 얘기할 숨조차 고를 수 없었다(숨이 차 얘기할 수 없었다). 오직 자기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병사 한 명에게 자기 몸을 기대고 있었다.

“유념해두시오, 경비원, 그가 나를 죽이려했소.” 이것이 그(다른 죄 수)가 한 첫 번째 말이었다.

(잠깐 : 두 죄수가 싸운 사건은 소설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의 싸움은 소설 후반부에서 재연되며 주인공의 삶은 물론 여타 주변 인물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소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게 됩니다. 물론 이 블로그시리즈가 소설 후반부까지 지탱가능 하다면 말이죠.ㅋㅋ 즐감하세요~ 아직 주변인물들이 등장도 하지 않았 지만~ )

(앞 뒤 상황 설명 좀 더 : ‘내 죄수’는 폭력전과가 있고 고아이며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행동 대장 혹은 똘마니 혹은 심부름꾼이었고, ‘다른 죄수’는 당시 옥스퍼드대학까지 나온 지능형 사기꾼임. 범 죄가 드러나려 하자 ‘다른 죄수’가 음모를 꾸며 ‘내 죄수’를 대신 잡혀 가게 해 ‘내 죄수’는 몇 십 년이고 감옥에 갇혔고, ‘다른 죄수’는 성질을 못 버리고 또 다시 사기를 여러 번 치다가 들통이 나 잡혀 왔는데, 이들 둘이 우연히 감옥 선에서 만나게 되자 ‘내 죄수’가 ‘다른 죄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임)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내 죄수(소설 첫 부분에서 주인공이 빵을 준 죄수)가 업신여기며 말했다. “시도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내가 그를 잡았고 내가 그를 넘긴 것이오. 그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그가 이 늪지대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여 기로 질질 끌고 왔던 거요. 내가 저 놈 뒤를 뒤쫓아 가서 여기까지 놈을 끌고 온 거란 말이요. 그래 그는 신사지, (신사라고 불리는 사실에 짜증스러워하며 경멸조로) 세상에, 저 악한이. 자, 이제 감옥선이 저 신사 분을 다시 탑승시킬 거요 다 내 덕택이지. 그런데 내가 그를 살 해하려했었다고? 저놈을 살해하는 게 내게 무슨 보람이 있소. 내가 더 나쁜 짓도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왜 그를 다시 여기로 끌고 왔겠어!”

다른 죄수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짧게,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나를, 나를 살해하려했소. 증인이 있소.”

“이거 보시오!” 내 죄수가 상사(상급 부사관)를 보며 말했다. “나는 남들 도움 없이 혼자서 감옥선을 탈출했소. 나는 질주했고 이미 다 성공했었소. 이 죽도록 차가운 평지를 벗어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오. 그 런데 내가 왜? 내 다리를 보시오. 그 많던 쇠가 다 어디로 갔겠소. 내가 만약 그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만 발견하지 않았어도 아마도 난 지금쯤. 그런데 그가 달아나게 내가 내버려둔다고? 내가 발견한 수단들 (감옥선 탈출수단들)을 가지고 그가 탈출을 했는데 나보고 그가 재미를 보게 내버려두라고? 내가 또 다시 저 놈의 도구가 되는 상황을 나 보고 넋 놓고 보고 있으라고? 또 다시? 아니지, 아니야, 아니고말고. 내가 저 시궁창 바닥에서 죽었다면 또 모를까, 그럼 안 되고말고.”

그(내 죄수)가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양손으로 도랑(시궁창)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흔들어보였다. “난 그를 꽉 움켜쥐고 있었소. 그래서 당 신들이 내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를 안전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거요.”

동료 죄수에 대해 끔찍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다른 도망자가 이렇게 되풀이해 말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했소. 만약 당신들(병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오.”

“거짓말이야!”라고 내 죄수가 맹렬한 에너지를 온 몸으로 발산하며 말했다. “이 뼛속까지 거짓말인 작자야. 저자는 거짓말쟁이로 죽을 거요. 저자의 얼굴을 좀 보시오! 저 얼굴에 다 쓰여 있지 않소? 저자의 저 두 눈을 내게로 돌려보시오. 이 놈 내 눈을 쳐다보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나 한 번 보자.”

그 말에 경멸에 찬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던 ‘다른 죄수’가 어떤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자기 입을 신경질적으로 움직여보았지만 자신이 원하던 표정을 지어보일 수 없어 대신 병사들을 쳐다보다 늪지대 주변과 하늘 여기저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확실히 그는 내 죄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 같은 사실을 뒤쫓으며 내 죄수가 상사(상급 부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자식 보고 있소? 그가 악한이라는 걸 당신도 봤소? 저자의 저 굽실거리는 두 눈, 저자의 저 종잡을 수 없이 헤매는 듯한 저 두 눈을 보고 있냔 말이오? 저거요 저게 바로 우리가 함께 재판받던 날 저자가 지어보인 표정이었소. 저자는 결코 나를 쳐다보지 않았소.”

다른 죄수는 한시도 가만있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른 입술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두 눈은 자기 주변 여기저기 먼 곳 가까운 곳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결국 그런 그의 두 눈이 잠시 동안 화자(얘기하고 있는 죄수)에게 가 꽂혔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네 녀석 몰골도 만만치 않다.” 그리곤 묶여 있던 두 손을 반 쯤은 비웃듯 흘끗 쳐다보았다.

그러자 내 죄수(소설 앞부분에서 주인공 꼬마가 빵을 건네준 죄수) 가 거의 미친 듯이 분노해서는 그에게 돌진하려했고 병사들이 가까스로 내 죄수를 제지해야만 했다.

일이 이쯤 되자 다른 죄수가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저자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 나를 죽이려들 것이 라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볼 수 있었다. 그(다른 죄수)가 지금 두려움에 질러 몹시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다른 죄수)의 입술 위에 기 이하고 하얀, 얇은 눈 같은 ‘조각들’(긴장에 따른 입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는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상사(상급 부사관)가 말했다. “저기 횃불들부터 밝혀라.”

총 대신에 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병사 하나’가 자기 무릎 위에 바구니를 내려놓더니 뚜껑을 열어젖혔다.

내 죄수가 처음으로 자기 주변으로 눈을 돌렸다. 그가 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때 조(주인공의 매형)의 등에서 내려 우리가 올라온 도랑(시궁창)의 ‘언저리(끝) 위에 서 있었다.’ 나는 혈투가 벌어지는 내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를 살짝 쳐다보았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었다. 내가 그에게 두 손을 살짝 움직이며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내가 고발하지 않았다고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내 무죄(위치를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았음)를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제발 그가 나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쳐다만 봐달라고 애 원하고 있었었다. 그런데 그가 너무 한순간만 나를 쳐다보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통에, 그가 내 의도(무죄)를 이해했는지조차 내게 는 전혀 명확하지 않았다. 거기다 그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눈 길)을 내게 지어보였고 그 짧은 순간조차도 금방 지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내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가 만약 나를 ‘한 시 간’이나 ‘한 나절’ 동안 쳐다보았다면 그렇게 내 주의를 끌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에도 이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주인공이 그를 지극히 짧은 순간만 쳐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주의 깊게 그를 쳐다보게 만들었고, 그것이 음식을 훔쳐 죄수에게 가져다주었다는 어린 아이의 죄의식과 어린 시절 널 혼자였던 기억과 섞이고 이후 그를 괴롭힌 여러 가지 사건들(첫사랑)과 한데 어우러져 결국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소설을 쓰라 쓰ㅋㅋ)

바구니를 들고 다니던 병사가 곧 횃불 하나를 만들었다. 그 병사가 횃불 세 개 내지 네 개를 만든 후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전부터 거의 어두웠던 날은 이제 아주 어두운 것 같았다. 그리고 이어 곧 질흙 같은 밤이 찾아왔다.

우리가 이 장소를 떠나기 전, 네 명의 병사들이 하나의 원을 그리며 서더니 공중을 향해 총을 두 발씩 발사했다. 곧 이어 우리 뒤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또 다른 횃불들이 불붙여지는 것이 보였고, 또 다른 횃불들이 늪지대 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횃불들이 맞은 편 강둑에 서 불붙여지는 모습이 보였다.

“좋아” 상사(상급 부사관)가 말했다. “이제부턴 행군이다.”라고.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 우리 앞쪽에 위치해 있던 3문의 대포에서 대

포가 발사되었다. 그 소리가 너무 커 내 귀의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다.

“저들이 너희들의 승선을 기다리고 있다.” 상사가 내 죄수(소설 앞부 분에서 주인공이 빵을 건네준 죄수)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잡혔다는 것도 알려졌겠다, 이젠 벗어나려 해도 소용없게 됐군, 친구. 좋아 오늘은 이렇게 마감이다.”

두 죄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걷고 있었다. 각자 경비대 병사 한 명씩이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조(주인공의 매형)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리고 조의 다른 손에는 횃불이 하나 들려 있었다.

웹슬 씨(연극배우가 꿈인 교회서기)가 이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조는 이번 사냥(체포)의 끝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병사들을 따라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우리(‘웹슬 씨’와 ‘주인공’)도 조의 일행으로 계속 걸었다.

이제 꽤 편안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마 강의 끝자락인 것 같았다. 여기서부터는 제방이 여기와 저기로 갈리는 분기점이었다. 제방 위에 ‘소규모 풍차’와 ‘진흙투성이의 수문(아래위로 여닫는 수문)’이 있었다.

내(주인공, 아직은 꼬마)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우리 뒤를 쫒아 따라오고 있는 또 다른 불빛들이 보였다. 우리가 든 횃불들에서 큼직한 불똥들이 길 위에 떨어져 연기를 내며 너울너울 불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보이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횃불 들이 ‘피치 빛’(신부 ‘부케 색깔’)을 내며 불탔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변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두 죄수들에게는 그것만 해도 꽤 괜찮은 모양 이었다. 그들은 머스킷총(화승총)들 한복판에서 다리를 절며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이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갈 수가 없었다. 두 죄수들이 쉬는 동안 우리도 따라 멈추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군은 두 배 아니 세 배는 더 힘들었고 그런 관계로 우리 모두 완전히 지쳐버렸다.

한 시간 후나 혹은 그 정도 시간의 행군을 한 후, 우리 모두는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과 부두(배 대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두막 안에 경비병이 한 명 있었는데 암호가 불렸다. 상사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에는 조그만 한 담배 하나와 ‘회반죽’(시멘트+모래+물)과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하나’와 램프가 하나 있었으며 머스킷총(화승총) 한 자루가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북도 하나 있었고, 높이가 낮고 나무로 만들어진 침대틀도 하나 있었다.

그 침대틀은, 아무 장치도 없고 크기는 또 지나치게 커 마치 ‘시트 주름을 펴는 기계’ 같아보였다. 어찌나 큰지 동시에 대략 12명의 병사들은 족히 수용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침대틀 위에는 큰 외투를 착용한 ‘세 명 혹은 네 명의 병사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다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만 고개만은 든 채 졸리는 눈으로 우리를 한 번 쳐다보았는데 그러더니 도로 누워버렸다.

상사(상급 부사관)가 어떤 종류의 보고를 했다. 그리곤 기록대장에 뭔가를 기입했다. 그런 다음 내가 ‘다른 죄수’라고 부른 바로 그 죄수가 경비요원과 함께 선발되어 나가더니 먼저 배를 탔다.

‘내 죄수’(소설 앞부분에서 주인공이 빵을 건네준 죄수)는 결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딱 한 번을 제외하곤 말이다(죄수가 체포될 당시 주변을 둘러보려다 주인공 꼬마를 발견한 것).

우리가 오두막 안에서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내 죄수)는 불 앞에 서서 그 불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었다. 그는 ‘벽난로 내부의 선반’에 자기 두발을 번갈아가며 올려놓기도 하고, 혹은 최근 계속된 일련의 모험(탈옥)들에 지쳤을 자신의 발들에게 동정의 눈빛이라도 보내는 듯 그렇게 자기 발을 쳐다보며 깊은 생 각에 잠겨 있었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상사에게 몸을 획 돌렸다. 그리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다.

“이번 내 탈출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얘기하고 싶소. 나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덩달아 혐의를 받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요.”

“좋아 말해봐” 상사가 자기 팔짱을 끼고 선 채 사늘한 시선으로 내 죄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네 놈이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 이 일이 처리되기 전에 말이야. 네 놈의 탈출에 대해 얘기하고 들을 기회는 네놈도 앞으로 충분히 갖게 될 거니까. 어이, 잘 알잖아.”

“알고 있소, 하지만 이번 건 다른 경우란 말이오. 서로를 분리해서 봐야할 사항이요. 한 사람이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았겠소. 적어도 난 굶어죽기 싫었으니까. 난 저쪽 너머 마을에 들러 빵을 좀 들고 나왔소. ‘늪지대 끝자락에 서 있는 교회’가 있는 바로 그 마을 말이오.”

“도둑질을 의미하느냐?”라고 상사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빵들을 어디서 훔쳤는지도 말하겠소. 대장장이의

집에서 훔쳐 나왔소.”

“어라!” 상사가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라, 핍!” 이번에는 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먹다 남은 음식부스러기들이었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오. 나는 술도 2g(그램)정도 훔쳤소, 물론 파이도.”

“대장장이 양반, 혹시 당신 집에서 돼지고기파이 같은 물품들이 없어진 적이 있소?” 상사가 은밀하게 물었다.

“제 아내가 그랬죠. 뭔가가 사라졌다고. 당신(상사)이 저희 집에 온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너도 알지, 핍(주인공 이름, 아직은 꼬마)?”

“그래서,” 내 죄수가 시선을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에게로 돌렸다. 내 죄수는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 지 않았다. “그래서, 음, 그러니까 당신이 대장장이? 그렇지 않소? 미안하다기 보단, 어쨌든 그 파이 내가 먹었소.”

“누가 알겠소, (싫지만) 얼마든지 드시오. 다만 그게 내(대장장이 조) 것일 때만 말이오.”라며 조가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을 가까스로 생각해내곤 되받아쳤다. “우리는 당신이 먹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당신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게 되지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 친구를 말이야. 그렇지, 핍 (주인공 이름, 아직은 꼬마)?”

내가 전에도 주목했었던 것이 있다. 내 죄수의 목에서 다시 “찰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 죄수는 내게서 등을 돌려버렸다(내 눈이 그의 등을 봤다).

보트가 되돌아왔다. 그리고 ‘내 죄수 담당 경비요원’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죄수)를 따라 거친 말뚝들과 돌들로 만들어진 부두까지 걸어갔다.

그(죄수)가 보트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와 같은 복장을 한 승무원죄수들이 노를 젓는 보트였다. 승무원죄수들 어느 누구도 내 죄 수를 보고 놀라거나 관심을 표하거나 혹은 그를 반기거나 또는 탈출한 그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애석해 하거나 혹은 말이라도 한 번 건네지 않았다.

다만 보트에 탄 누군가가 마치 개들에게 으르렁거리듯 승무원죄수들 에게 으르렁거리듯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들아, 기브웨이다 (노 저어)!” 그 소리는 노들을 수면에 적시라는 신호였다. (‘기브웨이’는 ‘출발 시에 처음 한두 번 서서히 노를 젓는 일’)

횃불들이 비추는 불빛을 통해, 우리는 해안가 진창(질퍽한 곳)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가만히 놓여있는 검은 감옥선(배)을 보았다. 그 것은 마치 사악한 노아의 방주 같았다.

크고 무겁고 녹슨 쇠사슬로 가두어져있고 빗장이 져(잠긴) 정박해있는 ‘감옥선’이, 어린 내 눈에는 마치 “죄수들처럼 쇠사슬(족쇄)을 차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보트가 감옥선 옆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죄 수)는 허리를 잡혀 들어 올려진 후 사라졌다(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횃불들도 종말을 맞았다. 횃불들이 물속으로 내던져져서 “쉬익”하는 소리를 내며 꺼졌다. 그것(횃불의 종말)은 마치 “이제 그(내 죄수)와 함께 모든 것이 다 종료되었다”는 것만 같았다.

**위대한 유산**

**6장**

그런 기대치 않은 ‘면죄부’(죄수가 알리바이를 대신 만들어줌)를 받은 ‘내 음식절도행위’(누나의 음식을 훔쳐 죄수에게 갖다 준 것)에 관한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죄를 솔직히 밝혀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컨대 그(마음) 바닥에는 선함의 찌꺼기들을 약간은 가지고 있었다.

잘못이 발각되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에도, 내가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과 관련하여 어떤 양심의 감정을 가졌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누나가 주인공을 매일 때리며 키웠기 때문에 주인공은 누나를 사랑하지 않음)

하지만 나는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를 사랑했다. 그건 아마도 내 인생 초창기에 그런 상냥한 친구가 나로 하여금 그를 사랑하는 것을 허락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이유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진 못 했다. 그리고 내 내면세계(양심)가 그(조)에 대해서만은 좀처럼 조용해 지지 않았다.(선량한 매형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조(매형)에게만은 진실을 모두 얘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 속 에서 많이 생겼다. 그건 아마도 줄(쇠사슬을 자르는 줄, 주인공이 죄수에게 갖다 줌)을 찾고 있는 그를 내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음식절도)를 고백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고백한다면 그가 나를 실제 내 자신보다 더 나쁘게 생각할 것이고 그럼 나는 그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서 였다. “조에게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그럼 그때부턴 ‘영원히 잃어버린 내 동료이자 친구(매형)’를 굴뚝 구석에 앉아 밤새도 록 음울하게 지켜봐야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서였다. 그 모두(두려 움)가 내 혀를 묶어놓고 말았다.

나는 병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 스스로에게 제기해보았다. 만약 조가 내 음식절도행위를 알게 된다면, 이후 조가 벽난로에 앉아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금발의 수염을 만지고 있을 때마다 나는 혹시 그가 지금 그 일(음식절도행위)에 대해 명상(생각)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를 쳐다볼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을 병적으로 내 자신에게 제기해보았다.(←이 단락 무슨 뜻??? -\_-;; “양 심에 찔렀다”는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헷갈리게 표현했을까. 이런 내 이웃들 다 떨어져 나가겠네.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들 자꾸 나오면 곤란한데. 놀랍다 디킨스)

만약 조(매형)가 내 음식절도행위를 알게 된다면, 이후 우연이라도 어제 식탁에 올라왔던 고기와 푸딩이 오늘 식탁에 다시 올라올 때마다 나는 혹시 그가 지금 내(주인공)가 또다시 식품저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닌지 하고 토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럼 내가 절대 그를 흘낏 보지도 못할 거라는 의견을 병적으로까지 내 자신에게 제기해보았다.(←설상가상이네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이번 6장은 가관이네요. 옮기면서도 뭔 소린지 모르겠음. “양심에 찔리는데 배척받을까봐 두려워 용서 내 말을 하지 못하고 있 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

만약 조가 내 음식절도행위를 알게 된다면, 이후 계속될 우리 공동 가정생활의 나중 어느 때라도 그가 “내 맥주가 김이 빠졌네.” 혹은 “내 맥주가 탁하다”라고 논평할 때마다 나는 혹시 지금 내가 맥주 안에 타르(석유, 아스팔트 냄새나는 발암물질)를 섞은 것은 아닌지 하고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 달아 오로는 것은 아닐지 하는 생각을 병적으로까지 내 스스로에게 제기해보았다.

한 마디로 말해 그때 당시 나는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겁쟁이였다. 또한 그때 당시 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겁쟁이였다. 그때 당시 나는 세상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었다. 그리고 이런 식(겁쟁이)으로 행동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 특정한 어느 누구를 모방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비겁함을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고 순전히 독학으로 터득한 천재였던 ‘나는’ 이 일련의 행동방침들(겁쟁이, 비밀 감추기)을 스스로 발견해내었던 것이다.

감옥선(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 나는 잠이 오기 시작했고 그 때 문에 조(매형)가 나(주인공, 아직은 꼬마)를 업고 집까지 와야 했다.

집까지 오는 동안 그(조)는 엄청 들볶였음(짜증)이 틀림없다. 녹초(피 곤)가 된 ‘웹슬 씨’(연극배우가 꿈인 교회서기)가 아주 그냥 ‘욱(발끈)’ 하는 성격이 되어선, 만약 지금 당장 교회의 왕관이 그에게 주어진다면 조와 나는 물론 함께 간 추격대병사들까지 모조리 파문하고 말았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교회평신도인지라 그가 대신 취한 방법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자주 습지 위에 앉아 쉬어가기를 지속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집 (주인공꼬마의 집)에 돌아온 그가 부엌 난로 가에 외투를 말리기 위해 벗었을 때 그의 바지에 찍혀 있던 그 상황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해서 만약 그것이(습기에 앉아 너무 자주 쉬기) 죽을 죄였다면 그는 아마 교수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이때쯤에는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부엌 바닥 위에서 마치 한 명의 어린 술꾼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새로 일으켜 세워지는 동안에도 순간 잠이 들었고 열과 빛들 그리고 소리들을 듣고서 다시 깨곤 하면서 마치 한 명의 어린 술꾼처럼 부엌 바닥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다. 누나가 내 두 어깨 사이를 사정없이 강타하며 “흥! 이딴 녀석이 세상에 어디 있담!”라는 감탄사로 원기를 회복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조(매형)는 죄수가 자백한 내용(파이를 자신이 직접 훔쳐 먹음)을 손 님들(주인공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식사 중이었던 손님들)에게 들려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들은 손님들이 죄수가 식품저장실로 들어왔을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펌블추크 씨’(잡곡상, 능청맞은 사람)가 건물들(‘대장간’과 ‘가정집’)을 유심히 살펴본 후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당 죄수가 대장간 지붕을 타고 들어와 일단 가정집 지붕으로 넘어왔고 그런 후 지붕에서 부엌 굴뚝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다. “침구류를 길쭉하게 잘라 로프(밧줄) 하나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펌블추크 씨가 “내 말이 옳다”며 아주 적극적인 데다가, ‘자기 소유의 2륜 경마차’(생각)를 모든 사람들 머리 위로 몰아 붙였기 때문에 모두들 “그 말이 틀림없다”라며 동의하게 되었다. (‘2륜 경마차’는 ‘바퀴가 두 개인 마차’)

이때 웹슬 씨(연극배우가 꿈인 교회서기)가 참말로 한 마리 야생마처럼 “그렇지 않소!”라고 외쳐댔다. 그 눈빛 있지 않는가? 피곤에 지쳐 체력이 아주 끝장 난 사람들의 눈에서 가끔 보이곤 하는 허약한 적의 (악의)를 띄며 웹슬 씨가 “그렇지 않소!”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웹슬 씨는 아무런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외투도 전혀 걸치지 있지 않았따. 당연히 그의 의견은 만장일 치로 무시당했다. 그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데에는 그의 등 뒤에서 피 어나고 있던 김(연기)도 한 몫 했다. 외투에서 습기가 빨리 빠져나가게 하려고 부엌 난로 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등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던 것이다. 그의 몰골이 그러하니 사람들에게서 신 뢰를 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그날 밤에 들은 전부다. 이후 나는 꾸벅꾸벅 졸았는데 누나가 나를 손님들의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생각해 나를 (아프게) 와락 움켜잡고는 침대(다락방에 있는 주인공의 침대)에까지 데려다주는 배려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나가 어찌나 심하게 나를 움켜잡고 계단을 올라가든지, 마치 내가 50개의 부츠(신발)들을 신고 있고, 그 50개의 부츠들이 모두 계단들 끝들에 달랑달랑 거려지고 있는 것 같았다(누나가 주인공을 계 단에 마구 부딪치며 올라갔다).

내가 이미 앞부분에서 묘사했듯이, ‘내 심리상태’(양심의 가책)는 그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이미 “갖추어지기 시작해” 그 사안(음식을 훔쳐다 죄수에게 갖다 준 것)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에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에서만 ‘내 심리상태’(양심)가 “나를 구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었었다. (주인공의 이런 심리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소설 중반부터 나올 여주인공의 존재이고, 자신의 비 천한 신분 탓에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그녀가 그런 자신을 멸시하면 할수록 수그러드는 허약한 자신감 탓이다.)

**위대한 유산**

**7장**

내가 ‘교회 부속의 묘지’에서 가족(주인공의 부모님과 일찍 죽은 다섯 명의 동생들)들의 묘비를 읽으며 서 있었을 쯤에는, 철자를 옳게 말할 정도까지는 막 배운 상태였다. 다만 머릿속에서 아직 그 철자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무덤 위에 누워계시는 부인은”이 라고 읽으면 나는 그것을 내 아버지가 천국에 올라가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쓴 글인 줄 아는 식이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죽은 친척들의 묘비에서 “아래의”라는 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 가족구성원에 대해 최악의 평가를 내렸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를 얽매고 있던 ‘교리문답서’(젊은이를 위한 종교안내서)에 대한 신자로서의 내 관념들 역시 정확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나는 내가 “한 평생 한길로만 행하리(걸어가리).”라고 선언한 한 이상, 우리 집에서 마을을 지나갈 때에는 꼭 한 방향으로만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여기는 식이었다. 절대 ‘바퀴 제조인’(허블 씨 집)의 집을 지난 후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거나 또는 방앗간을 지난 후 위쪽 방향으로 틀어 길을 다양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충분한 나이가 되면 나는 조(매형)의 수습공(배우는 사람)이 될 예정 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 품위(대장장이)를 떠맡을 때까지는 나는 ‘조 부인’(20살 많은 친누나)이 말하는 “사보타주”(노당자의 쟁의 수단, 일을 게을리 함)를 해서도 안 되며 “버릇없이 키워져서도 안 되었다.” 나는 사보타주란 말을 버릇없이 키워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므로 “나는” 대장간 주변의 “심부름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 중 누군가가 “새들을 쫓아낼 꼬마”가 필요하다거나 “돌을 주워 날라야 한다”거나 할 때 또는 그런 유의 “일손”이 필요할 때면 항상 고용되는 호의를 입었다.

하지만, 우리의 우월한 지위가 잡일(돈) 때문에 위태롭게 되는 만약의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부엌벽난로 선박 위에 저금통 하나를 놓아두고 “내 수입은 모두 이 저금통에 떨어질 거예요”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야했다.

나는 그 돈들이 언젠가는 ‘국가 부채(빚)의 청산’을 위해 기부될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내가 그 보물에 개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다. (전쟁 때 돈 쉽게 끌어 모으려고 만든 영국 중앙은행은 17세기 말에 설립된 이후 처음 몇 년을 제외하 곤 매년 거의 매년 부채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음.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는 물론이거니와 이후 줄곧 부채가 부채를 부름. 일이 그러 함에도 영국은행은 물론 영국정부도 망하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 실~ 정부가 돈을 팡팡 쓰도 절대 망하지 않는 자본주의, 너 정말 놀라 워~)

‘웹슬 씨’(연극배우가 꿈인 교회서기)에게는 대고모(“웹슬 씨의 할아 버지”의 누이)가 계셨다. 대고모는 마을에서 저녁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대고모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고 병치레는 끝이 없는 어리석고 나이 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졸곤 했는데, 아이들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호기를 얻는 대가로 매주 2천 원씩을 지불하고 있었다.

대고모는 작은 집 한 채를 임대하고 있었다. 그 집 계단 위층 방에 웹슬 씨가 머물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은 웹슬 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엄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책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따금씩 천장에 부딪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곤 했다. 웹슬 씨가 3개월마다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꾸며낸 얘기였었다.

그가 그 날 실제 하는 행동은, 이따금씩 자신의 소맷부리(손목 윗부 분)를 접어 올리고서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뻗치며 “카이사르(로마 독 재자)의 시신 위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카이사르의 부하장군)가 행 했던 연설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것이었다.”

안토니우스의 연설 뒤에는 항상 ‘콜린스’(영국 서정시인)의 “열정에 대한 송시”(‘송시’란 공덕을 기리는 시)가 뒤따랐다. 그 시의 구절 중에, “복수” 역을 맡은 웹슬 씨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칼을 천둥 속으로 내던지며 괴멸(멸망)적인 시선으로 전쟁 종결을 알리는 나팔을 집어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를 특히 존경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후년에 ‘격정의 사회’에 빠져 ‘콜린스’(시인)와 ‘웹슬 씨’(교회서기)를 다시 비교해보았을 때 ‘그들 두 신사’는 내게서 다소 불리한 판정을 받았다.

‘웹슬 씨의 대고모’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외에도 “작은 잡화점 (가게)을 하나” 똑같은 방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또는 그 물건들의 가격은 얼마인지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다만 그녀의 서랍장 안에는 ‘작고 기름기가 잔득 묻은 비망록 (메모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가격목록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바로 그 신탁(메모지)에 의거해 ‘비디’(여자조연, 여주인공 아님, 헷갈리시면 안 됨)가 전반적인 가게의 운영을 도맡아하고 있었다.

‘비디’는 손녀였다. 그러니까 비디는 “웹슬 씨의 대고모”의 손녀였 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비디’와 ‘웹슬 씨’가 어떤 혈연관계였는지 유추 하는 것은 내에게 역부족이다. 그녀는 나처럼 고아였다. 역시 나처럼 (주인공이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과 다섯 형제들이 모두 일찍 죽었음, 현재 20살 차이나는 누나만 한 명 있음) 손(매 맞기)수 길러졌을 것이다.

내 생각에 ‘두 팔과 두 다리’에 관한한 그녀는 남의 눈을 잘 끄는 스 타일이었다. 예를 들면 그녀의 머리는 항상 빗질(머리 빗기)이 필요해 보였고 그녀의 두 손은 항상 손 씻기가 필요해보였다.(당시 비누가 판 매되고 있었음) 그리고 그녀의 구두는 항상 수선이 필요해보였고 구두 뒤꿈치는 좀 더 치켜세울 필요가 있어 보였다. 다만 이런 묘사는 평일 에만 한정된 경우인데, 그녀는 일요일이면 자신을 정성들여 꾸민 후 교회로 예배 보러 갔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을 남들 도움 받지 않고 나 혼자서, 그리고 ‘웹슬 씨의 대 고모’보다는 ‘비디’에게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가며 나는 알파벳을 헤쳐 나가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내게는 알파벳이 마치 ‘가시나무 수풀’인 것 같았다. 알파벳은 매 글자마다 나를 점점 더 당황하게 만들으며 매 글자마다 나를 점점 더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후 나는 ‘9개의 숫자들이란 몹쓸 도둑놈들’ 사이로 떨어졌는데, 이 도둑놈들(숫자)은 매일 저녁 새로운 짓을 해가며 자신들을 위장함으로써 내가 도저히 알아차릴 수도 없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지체와 노력 끝에 나는 마침내 손으로 더듬는 반소경(한쪽 눈이 안 보이는)의 방식으로 읽고 쓰고 계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가장 작은 스케일로 말이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굴뚝 구석에 앉아 석판(글씨 쓰는 판) 위에다 조(매형)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작성하기 위해 아주 진땀을 다 빼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건 우리가 늪지대에서 추적을 마치고 돌아온 지 일 년이 지난 때였던 것 같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겨울인데다가 또 된서리 (땅 위에 생긴 잔 얼음)가 심하게 내렸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난로 위 내 발 가까이에 알파벳 판을 참고용으로 펼쳐놓고, 난 한 두 시간을 몽땅 다 투자해 용케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할 수 있었다. 물론 곳곳에 문지르고 지운 흔적이 잔득했지만. 어쨌든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나으 친애하는 ‘조’ 나 희망 잘 지내여 희망 바래 그녀 아들 ㅂ 하벨 4 2 가리켜 당신 ‘조’ 안 그때 우린 아주 좋으을 거네여 제가 수스 업공 2 되믄 당신 조 나를 밋어여 친애하느 핍으러부더.”

그(조)가 내 옆에 앉아 있었고 우리 둘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조와 편지로 의사소통해야할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전혀 없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직접 작성한 통신문을 조에게 인도했다. 통신문이라 해보았자 석판과 글씨가 다였지만, 조는 그 편지가 마치 박식(깊은 지 식)의 경이로운 사례인양 받아들였다.

“이봐, 핍(주인공의 이름), 이 친구야!”라며 조가 외쳤다. 그는 푸른 두 눈을 활짝 뜬 채 이렇게 말했다. “대단한 학식이로구나! 그렇지 않니?”

“저도 그렇게 되고자 해요.” 그가 들고 있는 석판을 내가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글자에 굴곡(곡선)이 다소 많은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왜 있잖아, 여기 말이다 ㅈ” 조가 말했다.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오’도 있구나! 이런 세상에 여길 봐봐 ㅈ도 있고 오도 있어, 핍, 그 러니까 여기 ㅈ―오, ‘조’구나.”

나(주인공, 아직은 꼬마)는 조(매형)가 이런 유의 단음절(음이 하나인 단어, ‘조’)이상을 소리 내 읽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지난 일요일 날 교회예배 때 난 뜻하지 않게 기도서를 거꾸로 들게 되었는데 그(조)가 그것(거꾸로 든 기도서)을 보고도 자신의 편의에 맞는다는 듯 조용했었다. 마치 기도서가 똑바로 들려있든 거꾸로 들려있던 그는 크게 상관치 않는다는 태도였다. 나는 지난 일요일 예배 때 이를 목격했었다.

지금 이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는 조를 가르칠 경우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아! 나머지 부분도 읽어봐, 조(매형이름).”

“나머지 부분, 응, 핍(주인공이름)?” 조가 천천히 그러면서도 면밀히 석판(편지)을 살펴보면서 말했다. “하나, 둘, 셋. 이런, 여기에 ‘ㅈ’이 세 개 있고, 그리고 ‘오’가 세 개 있고, 그리고 ‘ㅈ―오’도 있으니까, ‘조’가 안에 있어, 핍!”

나는 조 너머로 몸을 기울여 내 집게손가락으로 그가 편지내용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와 정말 놀랍구나!”라며 조가 말했다. 내가 마지막 글자까지 다 읽어주었을 때 조는 너무 기뻐했다. “넌 이제 학자가 다 되었어.”라고. “가저리(매형 성씨) 철자가 어떻게 돼, 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얌전한 자세로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겠다는 태도를 견지한 채 물어보

았다.

“나는 내 성씨의 철자를 전혀 알지 못한단다.” 조가 말했다. “하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

“아니 짐작도 못해, 핍.” 조가 말했다. “나도 역시 글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말이다.”

“정말로, 조?”

“보통의 경우엔 그렇단다. 어서” 조가 말했다. “성서나 좋은 신문 하나를 내 손에 줘보렴, 그럼 난 좋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거란다, ‘이 이상은 더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그(조)가 손으로 자기 무릎을 살짝 비벼댄 후 계속 말했다. “그건 이런 식이란다. 만약 네가 ‘ㅈ’과 ‘오’를 알아차리게 되면 말이다. 그럼 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였군요. 결국 이거였어요, 주님. ‘ㅈ―오’는 ‘조’였어요, 주님.’ 이 얼마나 흥미로운 읽을거리니!”

나는 이쯤에서 하나의 사실을 더 알아차리게 되었다. 스팀(증기)과 같은 ‘조(매형이름)의 교육’이 아직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한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학교에 다닌 적은 없어, 조, 나처럼 어릴 때 말이야?” “그래, 핍.”

“왜 학교에 못 다녔어, 조, 나 같이 어린 데 말이야?”

“글쎄, 핍(주인공이름, 꼬마).” 조(매형이름)가 부지깽이를 집어 들며 말했다. 부지깽이를 집어 드는 것은 그가 곰곰이 생각에 빠질 때면 늘 하곤 하는 행동이었다. 아래쪽에 있는 봉들 사이로 천천히 불을 들추며 그가 말했다.

“내 얘기를 해주고 싶구나, 핍. 내 아버지는 말이다. 술에 빠져 마음이 온통 술에만 가 있던 사람이란다. 그리고 술에 취한 날이면 엄마를 집요하게 때렸지. 매번 말이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방 법으로 엄마를 때렸단다. 그게 아버지가 하는 유일한 망치질이었단다, 핍. 정말, 나를 때린 것을 빼곤 말이다. 그는 나를 힘차고 집요하게 때렸지. 그 힘은 말이다. 그가 모루(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릴 때 쓰는 쇠 받침대)에 사정없는 해머 질을 할 때의 정력과만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정력으로 나를 집요하게 때렸단다. 무슨 말인지 듣고 있니, 핍, 이해하겠니?”

“응, 조.”

“결국 ‘엄마와 난’ 그에게서 여러 번을 달아났었단다. 그런 다음 엄마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가셨지. 엄마는 이런 말을 했지. ‘우리 착한 조(이름)야’라고.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단다. ‘하느님도 기쁘시게, 너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란다, 얘야’라고. 엄마가 날 학교에 넣어주셨지. 하지만 아버진 심장 속에 어느 정도의 선량 함은 지니신 분이셨지. 그는 우리 없이는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아버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집의 문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셨지.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모자(엄마와 아 들)와 더 이상 엿일 수 없다며 우리를 아버지에게 넘겨주곤 했지. 그러고 나면 아버진 우리를 집으로 끌로가 다시 집요하게 때렸단다. 뭔지, 알겠지, 핍.”이라며 조가 말했다. 그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에 잠긴 채 부지깽이로 불을 찾아 들추고 있었다. 그런 그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배움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단다.”

“틀림없이 알아들었어, 가엾은 조!”

“(아버지에 대한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하지만 뭐랄까, 핍.” 조가 부 지깽이로 (벽난로) 맨 위쪽에 있는 봉(막대기)을 재판관처럼 한 번 두 번 톡톡 건드린 후 말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남자대 남자로서 동등한 정의를 유지한 채 말을 하자면, 내 아버진 심장 속에 어느 정도의 선량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셨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핍?”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착했을 것 같다)고 말하진 않았다.

“글쎄!” 조가 자신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는 생계를 꾸려 나가야해, 핍,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꾸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건 나도 알 수 있는 문제여서 조에게 “그래”라고 대답했다.

“결국, 아버진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진 않았단다. 그래서 난 지금 이 직업에 종사하게 되었지.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도 했어, 만약 아버지가 계속 이 일을 이어갔었다면 말이지. 썩 괜찮지는 못했지만 난 정말 웬만큼 열심히 이 일을 해왔단다. 그 사실을 확신하마. 핍. 이윽고 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몸 전체에 자줏빛을 띠며 극심한 발작’(뇌졸중 발작)을 일으키곤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를 돌보아 주었단다. 아버지의 묘비 위에 ‘(1행) 그의 결점이 무엇이든 이 글을 읽는 자여 기억하라, (2행) 그가 자신의 심장 속에 어떤 선함을 지니고 있었음을.’라는 글을 새겨 넣는 것이 내 의도였단다.”

조는 이 ‘2행의 연구’(한 쌍의 시)를 ‘아주 명백한 자긍심’과 ‘주의깊은 명쾌함’으로 암송했다(보지 않고도 달달 외워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 2행을 직접 지었냐고” 물어보았다.

“그래, 내가 지었어.”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나 혼자서 말이지. 순식간에 만들었지. 그건 마치 ‘말굽 하나’를 통째로 한방에 ‘스크라이크 아웃’(완성)시키는 것과 같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놀란 적은 없었으니까. 난 내 교육을 신용하지 않는단다. 너에게만 말하마 나는 한 번도 내 교육을 믿은 적이 없었어. 내가 말한 것처럼, 핍 (주인공 꼬마의 이름), 그 시를 내 아버지 묘비에 새기는 것이 내 의도 였단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들어. 네가 그것을 작게 새기든 크게 새 기든 돈이 든단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지. 상여꾼(관 옮기는 사람)에게 줄 돈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아낄 수 있는 돈은 모두 모아 엄마를 위해 남겨놓아야 했으니까. 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셨어. 무엇보다 무일푼(돈이 전혀 없음)이셨지. 불쌍한 ‘그녀의 영혼’(엄마)이 뒤를 따라간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였어. 결국 그렇게나마 그녀 몫의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지.”

조의 푸른 두 눈이 약간 물기를 머금기 시작했다. 그가 우선 ‘부지깽이 말단(끝)의 둥근 손잡이’로 한쪽 눈을 닦았다. 그리곤 다른 쪽 눈도 닦았다. 그것도 가장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방법으로, 그것도 가장 불 편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는 부지깽이 손잡이로 자기 눈을 닦았다.

“그 다음엔 외롭기만 했단다.” 조가 말했다. “여기서 혼자 사는 게 말이야. 그리고 나는 네 누나를 알게 되었지. 지금 이렇게 말이다, 핍.” 조가 단호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그건 마치 ‘자기가 지금부터 할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 같았다. 조가 계속 말했다. “네 누난 풍채(외모)가 당당한 여성이란다.” (‘주인공 누나’의 체격은 뼈가 앙상하고 매사에 화를 잘 내는 성격임)

명백한 의심의 상태에서, 나는 불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족들의 의견이 무엇이든지, 혹은 그 문제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어떻든지 간에 말이다. 핍, 네 누난 말이다,” 조는 한 마디 한 마디 이어갈 때마다 부지깽이로 (벽난로) 맨 위쪽 봉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풍―채가, 풍―채가 대―단―한 여성이야!”

“조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난 기뻐.” 나는 이 말밖엔 더 좋은 말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나도 기쁘단다.” 조가 내 말을 따라잡으며 말했다. “나는 기쁘단다. 내가 ‘네 누나가 풍채가 대단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다, 핍. 여기저기에 약간의 발적(붉게 부어오른 것)이 있고 뼈에 약간의 문제 가 있지만 말이다. 그게 나한테 뭐 문제겠니?”

나는 영리하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만약 그것이 그(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그렇고말고!” 조가 내말에 동의를 표하며 말했다. “바로 그거란다. 네 말이 맞아, 이 친구야! 내가 네 누나를 알았을 때, 그녀가 어린 너를 어떤 식으로 손수 기르고 있었는지가 장안의 화제였단다. 그녀가 마음이 참 착하다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말들 했지. 그래서 나도 마을 사람들을 따라 그녀가 마음씨가 참 곱다고 말했지. 그때 당시의 너(주인공꼬마)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다.” 조는 참말로 아주 불쾌한 무언가 (주인공)를 쳐다보고 있다는 얼굴 표정을 지어며 말했다. 조가 자기 말에 점점 빠져들며 말했다. “만약 네(주인공꼬마)가 그때 당시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몸이 좋지 않은 아기였는지를 알 수 있다면, 넌 아마 네 자신에 대해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을 받을 만한 의견을 제시할 텐데.”

그 얘기가 그다지 즐겁게만 들리지 않았던 내가 말했다. “난 상관 안 해(별로 신경 쓰지 않아), 조.” (‘조’는 매형의 이름, 핍은 주인공의 이름)

“하지만 난 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단다, 핍.” 조가 다정하고 순박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을 했다. “내가 네 누나에게 교제를 제시하고 그녀가 기꺼이 그리고 대장장이의 아내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교회에 가자(결혼식)고 제안했을 때, 난 그녀에게 네 얘기도 했었단다. ‘그 여리고 볼품없는 어린아이도 함께 데려오우. 하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리신 그 여리고 볼품없는 어린아이를 말이오.’라고 말했지. 나는 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대장간에는 그 아이가 들어올 자리가 있다 오.’라고.”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내가 조의 목을 꼭 껴안았다. 조가 나를 앉으려다 부지깽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조가

말했다. “우린 영원토록 최고의 친구가 될 거야, 그렇지 않니, 핍. 울 지 말거라, 이 친구야!”

이 작은 휴지기간(서로 부둥켜안고 울음)이 끝났을 때, 조(주인공의 매형)가 새삼 말했다. (소설 속에서 조는 착하지만 많이 우둔한 어른 임)

“그런데, 보자구나, 핍(주인공이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니! 그것이 어딜 밝혀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이제 네가 내 공부를 시작했다고 치자 핍, 그 전에 이 얘기부터 미리 해야겠구나, 나는 끔찍하게 우둔하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우둔하지.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우리가 시작한 이 공부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알아서는 절대 안 돼. 다시 말해서, 핍, 우린 이 공부를 몰래해야 한단다. 왜 몰래 해야 하냐고? 그 이유를 들려주마. 핍.”

그(조)가 부지깽이를 다시 집어 들었다. 부지깽이 없이도 그가 논증을 지속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네 누난 곧잘 정부(지배)를 해.”

“누나가 정부(국가기관)에게 넘어갔다고(주어졌다고), 조?” 내가 깜짝 놀라 말했다. 왜냐하면 ‘어슴푸레한 생각’ 하나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굳이 덧붙이자면 ‘희망’ 같은 것이 나에게도 보였기 때문이다.(누나가 주인공을 때리면서 키웠기 때문에 주인공은 누 나를 싫어함) 그래서 내 생각에 혹시 조(매형)가 ‘해군 본부 위원’이나 ‘재무부 위원’의 은덕을 입어 누나와 이혼했다는 말인 줄 알았다.

“곧잘 정부(지배)를 해.” 조가 말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와 나에 대한 정부(지배) 말이야.”

“오호~! 그 정부(지배).”

“그리고 누난 집에 학자를 들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단다.” 조가 계속 이어갔다. “특히 내(조)가 학자가 되는 것을 아주 썩 정말 썩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일종의 반역자처럼 말이야. 모르겠니?”

내가 질문 하나를 던져 그의 말에 반박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내가 막 “왜―”라고까지 말을 했을 때 조가 내 말을 끊으며 먼저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핍,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거든. 잠깐만 아주 잠깐만 가만 있어봐! 나도 네 누나가 가끔 우리들에게 ‘무굴 인’(16세기~19세기 인도를 지배한 이슬람인들, 소설 속에선 폭군이란 의미)처럼 행동하려든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는단다. 네 누나가 우릴 뒤로 메쳐 나가떨어지게 한 후 무겁게 내리누르곤 한다는 사실을 부정 하진 않는단다. 네 누나가 미쳐 날뛰는 그런 때는 더더욱 말이다, 핍.” 조가 문 쪽을 힐끗 쳐다본 후 목소리까지 죽이며 이렇게 소곤거렸다. “그럴 땐 솔직히 그녀가 ‘파괴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단다.” 조는 그 단어(파괴자)를 또박또박 말했기 때문에 마치 그 단어(파괴

자)가 적어도 12개의 ‘ㅍ’자로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왜 내가 들고일어나면 안 되냐고? 그게 네 의견(논평)이지. 네가 내 말을 끊었을 때 말이다, 핍, 그렇지 않니?”

“맞아, 조.”

“글쎄다,” 조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지깽이를 왼손으로 바꿔 쥐며 말했다. 아마도 오른손가락으로 자신의 구레나룻(수염)을 만 지르는 듯 보였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조용한 심심풀이’(손가락으로 구레나룻 만지기)에 빠져들 땐 그에게서 희망을 걸 수 없다는 사 실을 말이다. “네 누난 말이다. 지휘자란다. 암(그럼), 지휘자이고말고.”

“그게 뭔데?” 나는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희망을 안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는 내 기대와 다르게 자신이 사용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다. 그리고 순환논법을 사용해 나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말았다. 그가 내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네 누나지.”

“그리고 나는 지휘자가 아니란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내게서 시선을 풀고 손가락으로 구레나룻을 꼼지락거리며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소곤거리면서 말이다. 조가 말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핍, 나는 이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네게 들려주고 싶구나, 이 친구야. 난 불쌍하고 가엾은 엄마의 모습을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보며자랐단다. 그녀는 널 힘들고 단조롭고 노예처럼 혹사당했어. 그녀의 정직한 영혼은 널 짓밟혀야했어. 인간으로서의 생애동안 단 한 번도 평화가 그녀에게 찾아온 적은 없었단다. 그래서 난 여성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하게 되었단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잘못을 하는 것이 둘 중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했지. 다른 방식이란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불편해지는 게 나 혼자이길 바랬는데, 핍. 회초리가 너를 때리지 않기를 바랐단다, 이 친 구야. 너 대신 내가 그 회초리들을 다 맞을 수만 있다면 하구 말이지. 하지만 이것이 또 회초리에 담긴 의미 아니겠니.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똑바로 가고 하면서 말이다, 핍. 네가 잘못된 것들을 못 본 체하길 바라.”

그때 난 아직 어렸다. 하지만 내가 조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의 인성에 감탄하게 된 것은 그 날 밤부터였다. 우리는 나중에도, 그 이전 에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존재였다(‘어리숙한 매형’ 과 주인공은 부담 없이 반말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이후 조용한 때 내가 조를 바라보며 앉아 그의 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면, 나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솟아나는 것을 새롭게 자각(의식)할 수 있었다. 그건 매번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건 그렇고,” 조가 난로에 석탄을 좀 더 넣으려고 일어서며 말했다. “여기 ‘네덜란드 시계’(서양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벽시계)가 8시를 칠 수 있을 때까지 새빠지게 돌아가고 있구먼, 네 누난 왜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냐! ‘펌블추크 삼촌’(능글맞은 잡곡상)의 암말이 얼음 조각 위에 발을 잘못 놓다 넘어진 건 아닌지 걱정이네.”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은 장이 서는 날이면 펌블추크 삼촌이란 이따금씩 여행을 다녀오곤 했다. 펌블추크 씨가 집에 쓸 물 건이나 상품들을 사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여성의 안목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펌블추크 삼촌은 미혼이었다(결혼 안함). 그리고 자기 집 하인들에겐 전혀 희망(신뢰)를 걸지 않았다. 이런 저런 이유들과 그 날이 마침 장이 서는 날이라는 사실이 조 부인의 이러한 짧은 외출의 사유들 중 하 나였다.

조(주인공의 매형)는 난로 불을 살려놓곤 주변 바닥을 쓸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문으로 나아가서 ‘2륜 경마차’(바퀴 두 개)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보았다. 그 날은 건조하고 추운 어느 날 밤이었다. 바람이 날카롭게 불고 있었고, 오늘 내린 하얀 서리는 단단해져 있었다. 만약 이런 날씨에 늪지대 위에 누워있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오늘 밤에 말이다. 물론 그건 내 생각이었다.

그런 다음 난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만약 추위에 지쳐 죽어가던 ‘사 나이’(소설 앞부분에 나왔던 죄수)가 마침 밤하늘로 얼굴을 돌렸을 때 이토록 화려하게 반짝거리는 이 수많은 대중(별)들 속에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동정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끔직한 일일까를 생 각하며 난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저기 암말(마차)이 오고 있구나.”라며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그 참 발걸음 한번 종소리처럼 힘차고 분명하네!”

암말의 발굽에 받힌 ‘쇠’가 딱딱한 ‘도로’와 맞닿으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꼭 뮤지컬 같았다.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고 빠른 걸음으로 오고 있었다. 우리는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이 디딜 의자를 밖에 내놓았다. 밝은 창문을 만들기 위해 난로불도 확 휘저었다. 모든 부엌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있는지도 최종 점검했다.

우리가 조 부인을 맞이하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을 때, 그들이 말을 멈추었다. 무엇 때문인지 그들의 눈은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곧 조 부인이 마차(바퀴 2개인 마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따라 펌블추크 삼촌도 내렸다. 펌블추크 삼촌이 천으로 암말을 덮어주었다. 우리 모두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를 따라 들어간 바깥 공기가 어찌나 차가웠던지 난로 열기가 다 달아난 것만 같았다(추웠다).

“자,” 조 부인이 황급히 보닛(턱 밑에 모자 끈을 묶던 모자)을 재끼며 흥분해선 말했다. 그녀는 보닛을 어깨 뒤로 확 재끼려다 끈이 어깨에 걸리고 말았다. “만약 이 녀석이 오늘 밤 기뻐하지 않는다면 저 녀석이 과연 언제 기뻐할까!”

나는 왜 그런 표현을 내가 떠맡아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한 소년이 지어보일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감사함을 얼굴가득 지어보 였다.

“단지 내가 바라는 건,” 누나가 말했다. “저 녀석이 게으름을 피워 손해를 끼치지나 않을까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만.”

“그녀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 펌블추크 삼촌(능 글맞은 잡곡상)이 말했다. “부인이 잘 아시잖아요.”

그녀라니? 내가 조(주인공의 매형)를 바라보며 입 모양과 눈썹 모양으로 “그녀라니?”라고 물어보았다. 근데 조도 역시 나를 바라보며 “그 녀라니?”라고 입 모양과 눈썹 모양으로 묻고 있었다.

“그녀가 누구냐고?” 누나가 조의 표정에서 조가 하려던 말을 캐치하며 말했다. 그러자 조가 손등으로 코를 쓱 문지르면서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건 그런 경우 누나를 달래려고 그가 자주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누나가 딱딱거리며 물듯이 다시 말했다. “뭘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집에 불이라도 났다는 거야 응?”

“―어떤 개인이,” 조가 공손하게 그리고 넌지시 힌트를 주며 말했다. “말하는 것 같았는데 ― 그녀라고.”

“그래 그녀가 그녀지 그럼 누구겠어, 응?” 누나가 또 닦달을 하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미스 해비샴’(여자주연, 여자주인공은 아니고 여자주연)을 ‘그’라고 부르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아니지 당신이라면 충분히 그녀를 그라고 부르고도 남지.”

“미스 해비샴이라니? 읍 외곽에 사는 그 해비샴?” 조가 말했다. “그럼 읍내에 또 다른 미스 해비샴이 있냐? 이 얼간아?” 누나가 거

칠게 되받아쳤다.

“그녀(미스 해비샴)가 이 꼬마 녀석이 자기 집에 와서 놀아주길 바라. 그리고 이애는 당연히 거길 갈 것이고. 그리고 이 녀석도 거기서 노는 것이 더 좋을 거고(꼭 가야한다는 의미).” 누나가 정말로 밝고 명량 하라는 격려의 표시로 내게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안 그 랬다가는 내가 저 녀석을 부려먹을 테니까.”

읍 외곽에 산다는 미스 해비샴에 대한 소문은 나도 익히 들어본 적이 있었다. 주변 수 킬로미터 내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읍 외곽에 산다는 미스 해비샴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이고 무시무시한 귀부인이라는 소리를. 그녀는 크고 음침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 도둑들을 막기 위해 집 둘레에 높은 방어울타리(벽)를 쳐놓고서 그 안에서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럼 틀림없구나!” 조가 몹시 놀라며 말했다. “그녀가 핍(주인공이름, 아직은 꼬마)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등신아!” 누나가 고함을 질렀다. “그녀가 이 녀석을 안다고 누가 말했어?”

“―어떤 개인이,” 조가 공손하게 그리고 힌트를 주면서 다시 말했다. “말하는 것 같았는데 ― 그녀가 이 얘(주인공꼬마)가 자기 집에 와서 놀아주기를 원한다고.”

(주인공 누나의 긴 대사임→) “그럼 그녀(미스 해비샴, 여자주연)가 펌블추크 삼촌(능글맞은 잡곡상)에게 ‘혹시 자기 집에 와 놀아줄 꼬마 하나 아는지?’ 어떤지를 물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펌블추크 삼촌 이 그녀의 임차인(집 빌린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 이따금씩 임대료(월세)를 내러 그 집에 들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가 분기마다인지 혹은 반년 마다인지 당신 같은 작자가 그 어려운 걸 어찌 알겠어. 그리고 펌블추 크 삼촌이 늘 우리 일을 신경써주시고 친절을 베풀어주셨던 지라, 그래 당신 같은 작자에게 그런 질문이 주어졌다면 감히 생각도 못했겠지, 이 요셉아.”

누나는 그(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감각한 조카인양 힐난(비난)하 는 어조로 말했다.(조는 ‘펌블추크 삼촌의 실제 조카’이다) “그때 이 꼬마 녀석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여기서 껑충거리며 뛰어다니고 있는 이 꼬마 녀석을 말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엄숙하게 선언하건데 난 그때 껑충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지 않았다. 가만있었다. 누나가 계속 말했다. “내가 자진해서 이 노예 노릇을 평생 해주고 있는 이 녀석을 말이에요.”

“언변이 판타스틱 하십니다, 부인!” 펌블추크 삼촌이 끼어들었다. “아주, 아주 훌륭하십니다! 핵심을 꼭 집어셨어요, 꼭요! 정말 잘 맞추 셨어요! 자 요셉(주인공의 매형이름), 너도 뭐가 뭔지 알았겠지.”

“아니에요, 요셉은 몰라요.” 누나가 여전히 힐난(비난)하는 어조로 조에게 말했다. 조는 자기 손등을 코에 쓱 문지르고 다시 또 쓱 문지르며 자기 딴에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누나가 말했다. “당신(조)은 아직도 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속으로 자신이 이 상황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겠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이야. 당신이 이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 요셉. 왜냐하면 당신은 이걸 모를 것이기 때문이야. 미스 해비샴의 집에 가는 것이 이 꼬마 녀석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 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신 ‘펌블추크 삼촌’께서, 이 녀석을 오늘 밤 삼촌의 2륜 경마차(바퀴 두 개)에 태워 읍내로 데리고 가 하루 밤을 재워준 후 이 녀석을 손수 데리고 내일 아침에 미스 해비샴의 집에 들르실 것이기 때문이야. 오! 이런 맙소사!”

누나가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어보이며 자신의 어깨에 걸려 있던 ‘보닛’(모자, 끈이 턱 밑까지 오는 여성용 모자)의 끈을 풀어 내던지며 외쳐댔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바보 얼간이들이랑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펌블추크 삼촌이 기다리시는데 말이야. 암말(삼촌의 마차를 끄는 암말)이 문밖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이 녀석은 왜 이렇게 때가져선 온통 검댕이야. 머리카락에서 발바닥까지 어찌나 오물투승이인지!”

누나의 그 말(이 녀석 왜 이렇게 때가 많아)과 함께,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 양을 낚아채듯이 내 허리를 낚아채서는 세면대에 있는 나무대야(세수 대야)에 내 얼굴을 꽉꽉 눌러 집어넣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빗물 받는 통’의 꼭지(수도꼭지) 아 래로 밀어넣은 후 비누질을 시작했으며 이후 나는 주무르고 반죽하고 타월로 휘감고 내 등을 탁탁 사정없이 때리면서 나를 불안으로 짓눌렀으며 내 귀에 거슬리는 온갖 말들을 다 널어놓은 후, 정말이지 내가 정신이 나가기 일보직전일 때 씻기를 마쳤다.

내가 여기서 논평하건대, “결혼반지가 인간의 얼굴 위에 사정없이 문질러질 때, 그 결혼반지의 툭 튀어나온 부분의 영향이 인간의 얼굴에 어떤 아픔을 주는지 만큼은 이 분야(반지의 영향)의 어떤 권위자들 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씻음이 완전히 끝났을 때, 누나는 나에게, 어린 참회자가 삼베옷 (삼베옷은 참배의 표시임)을 입듯이, 가장 뻑뻑한 느낌이 나는 깨끗한 속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장 꽉 조이고 가장 끔찍한 옷을 입혀 나를 옷 속에 단단히 묶은 후, 누나는 나를 펌블추크 삼촌(능청맞은 잡곡상, 주인공의 진짜 삼촌은 아님, 그냥 말로만 삼촌)에게 인도했다.

펌블추크 삼촌은 자기가 마치 사법장관이라도 된 마냥 한껏 격식을 차리며 나를 인계받은 후, 내가 이미 눈치 챘듯이, 내 씻음이 계속되는 동안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일장연설을 내 얼굴 위로 쏟아 붓기 시작 했다. 펌블추크 삼촌이 말했다. “소년아, 너의 모든 친구들(신분상승에의 기회를 준 가족과 삼촌)에게 영원히 감사해 하거라, 특히 너를 손수 길러준 그들에겐 더더욱 감사해 하거라.”라고.

“굿 바이, 조!” (조는 ‘주인공의 매형’) “너에게 행운이 깃들길, 핍, 이 친구야!”

나는 한 번도 조와 떨어져본 적이 없었었다. 그런 내 감정들과 내 얼굴에 붙은 비누 거품들로 인해 처음엔 2륜 경마차 말곤 아무것도 보 이지 않았다. 좀 전 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도 보이던 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별이 하나씩 하나씩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떠한 별도 내 질문에는 빛을 주지 않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왜 미스 해비샴(귀부인, 여자주연, 여자주인공은 아니고 여자주연)의 집에 놀러가야 하지? 내가 거길 가서 도대체 무얼 하며 놀아야 되지?’라는 내 질문 말이다.

**위대한 유산**

**8장**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 쌀 이외의 곡식을 사고파는 상인)의 점포(점포와 집)는 ‘장이 서는 읍’의 중심가에 있었다. ‘잡곡상과 씨앗 장수’의 점포답게, ‘말린 후추열매’와 ‘곡식 가루’ 같은 특징을 지닌 집 이었다. 내가 보기에 이 위인은 정말 아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았다. 가게에 아주 작은 서랍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래쪽 단에 있는 한 두 개의 서랍 안을 훔쳐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랍 안에는 단단히 묶인 갈색 종이 다발들이 많이 보였다. 나는 궁금했다. 꽃씨들과 ‘구근’(둥근 뿌리와 줄기)들이 이러한 구치소에서 벗어나 만개(꽃이 피다)할 수 있는 화창한 날씨를 한번이라도 원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내가 이런 사색(‘꽃씨야 탈출해 어서’라는 사색)을 즐긴 것은 내가 그 점포에 도착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전날 밤에는 경사진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방의 침대로 직행해야했는데, 침대 틀(뼈대)이 있는 구석이 어찌나 낮은지 나는 내 눈썹과 30cm 이내에 있을 기와들의 수를 추산(계산)해보기까지 했었다.

내가 ‘씨앗들’과 ‘골덴바지’(코르덴 바지, 보온성은 있지만 디자인은 최악인 바지, 위에서 아래로 줄이 가 있는 바지) 이 둘 사이에 정말이지 환상적인 찰떡궁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도 이 날 이른 아침 이었다.

펌블추크 씨는 골덴바지를 입고 있었다, 가게점원도 역시 골덴바지를 입고 있었다. 뭐 어쨌든지 간에, “골덴 바지가 풍기는 향기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씨앗의 특성에도 아주 많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씨앗이 풍기는 향기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골덴바지의 특성에도 아주 많이 담겨 있었다. 이제 보니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점포 내에 있는 골덴바지와 씨앗이 헷갈렸다)

펌블추크 씨는 길 건너 ‘마구(승마 기구) 판매상’을 건너다보는 것으 로써(자기 일은 안하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알아챌 호기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 ‘마구 판매상’ 역시 ‘마차 제조인’에게서 눈을 고정시키는 것으로써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 같았고, 그 ‘마차 제조인’ 역시 양쪽 호주머니에 자신의 두 손을 푹 집어넣은 채 제빵업자를 응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제빵업자’ 역시 양팔을 순서대로 포개가며 ‘식료 잡화상인’을 째려보고 있었고 그 ‘식료 잡화상인’ 역시 자기 일은 안하고 가게 문에 서서 ‘약사’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하품을 크게 하고 있었다.

‘시계 제조인’이 자기 눈에 돋보기를 끼고서 조그만 책상 위를 계속해서 세세히 보고 있었다. 시계 제조인 쇼윈도 유리를 통해 작업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 ‘시계 제조인’만이 이 읍 중심가에서 자기 직업에 열중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았다.

펌블추크 씨와 난 가게 뒤 칸에 있는 응접실에서 8시에 아침을 먹었다. 그 동안 가게점원은 ‘차 한 잔’과 ‘버터 바른 빵’ 한 덩어리를 완두콩 자루에 담아와 점포에서 먹었다.

펌블추크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끔찍했다. 게다가 그는 내 누나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내(주인공꼬마) 식단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들은 굴욕적이고 속죄의 경향을 띄어야한다는 것 말이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가능한 한 버터를 적게 바른 빵 부스러기만을 왕창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유에 따뜻한 물을 아주 그냥 쏟아 부은 후 내게 마시라고 주었다. 물에 우유를 너무 많이 타서 차라리 거기서 우유를 빼버리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해 보일 정도였다. 그의 대화는 몽땅 산수얘기뿐이었다.

내가 공손하게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인사를 건네자마자, 그가 신 속하게 이렇게 물었다. “7×9=? 응, 꼬마야?” 그런 낮선 장소에서 그것도 속(배)이 텅 빈 상태에서 그딴 식으로 혀를 찔리고 나면 내가 도 대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배고프다고 이 인간아.

내가 한 입 삼키자마자 그 인간은 또 내게 합계를 묻어왔고 그런 식의 질문들이 아침식사 내내 지속되었다.

“더하기 7은?” “거기에 또 4를 더하면?” “거기에 8을 더하면?” “그리고 6을 더하면?” “그리고 2를 더하면?” “그리고 또 10을 더하면?” 등등의 질문들이 계속되었다.

각각의 숫자들을 해치운(답변한) 후 또 다른 질문이 주어지기 전에, 난 가능한 한 많이 한 입 베어 물거나 한 잔 홀짝 마셨다. 그동안 그는 아무것도 알아맞힐 필요 없이 편안하게 앉아선 베이컨(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불에 그슬린 후 삶아 말린 것)과 따끈따끈한 둥근 빵을, 내게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허락된다면, 거의 구역질이 날 정도로 게걸스 럽게 먹어대고 있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벽시계가 10시를 치고 우리가 ‘미스 해비샴의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을 때 난 너무 기뻤다. 그렇지만 그 귀부인의 지붕 아래에서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하는 지에 관해서는 내 마음이 전혀 편치 않았다.

15분도 안 되어 우리는 ‘미스 해비샴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음 침하고 오래된 벽돌집이었다. 집 곳곳에 쇠창살이 아주 많이 달려 있었다. 창문들 중 일부는 아예 안에서부터 벽돌로 막혀있었다. 그리고 멀쩡한 창문으로 남아 있는 창문들 중에서도 아래쪽 창문들은 몽땅 녹슨 창살(막대기)로 보호되고 있었다.

건물 앞 쪽에 안뜰이 있었다. 물론 안뜰에도 창살(막대기)은 있었다. 벨이 울린 후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 올 때까지 우린 그 창살

바깥에서 기다려야했다.

우리가 문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안을 힐끔 훔쳐보았다. 이 판국에도 이 인간은 내게 “그리고 14를 또 더하면?”이라며 산수계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나 아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다시 안을 힐끔 쳐다보니 집 옆쪽에 큰 양조장(술 만들어 도매 하는 집)이 하나 딸려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술을 만들지 않는 양조장 같았다. 오랫동안 사람이 다녀가지 않은 양조장 같이 보였다.

창문 하나가 들어 올려졌다. 곧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름이 뭐 예요?”

내 안내자가 대답했다. “펌블추크입니다.” 답변이 돌아왔다. “좋아요.”

그리곤 창문이 도로 닫혔다. 곧 이어 ‘어린 아가씨 하나’가 뜰(건물로 둘러싸인 뜰)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많은 열쇠들이 들려 있었다.

“이 애가,”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핍(주인공이름, 아직은 꼬마)입니다.”

“이 애가 핍이라고요?” 아주 예쁘고 정말 거만해 보이는 어린 아가 씨(꼬마 숙녀)가 대답했다. “들어와, 핍.”

펌블추크 씨도 따라 들어가려다 그녀가 문에서 제지하며 바람에 멈추었다. 그녀가 말했다. “어! 아저씨도 미스 해비샴을 만나시려고요?”

“만약 미스 해비샴께서 저를 뵙기를 원하신 다면요.” 펌블추크 씨가 그녀의 태도에 무척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 소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뵐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녀가 너무나 확고하고 당돌하게 최후통첩(뵐 수 없다)을 했기 때문에 펌블추크 씨는 품위를 꾸기고 말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했다.

그는 대신 내게만은 엄한 눈짓을 지어보였는데, 내가 마치 그에게 그 짓(무례한 답변)을 했다는 식이었다. 나무라는 투로 이런 말들을 남 기며 그가 떠나갔다. “소년아! 여기에서의 네 행동이 ‘너를 손수 길러준 사람들’에게 명망(신용)이 되게 행동해야 하느니라.”

나는 그가 다시 돌아와 문을 사이에 두고서 “그리고 16을 또 더하 면?”이라고 묻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어린 여자안내원이 문을 잠갔다. 우리는 뜰(건물로 둘러싸인 뜰)을 가로질러 갔다. 뜰은 포장되어 있었고 깨끗했다. 하지만 갈라진 틈 사이로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뜰에는, 양조장 건물로 통하는 작고 좁은 길이 하나 있었다. 그 좁은 길의 나무문들이 열려 있었다. 그 문들 너머로 ‘양조장 전제 풍경’이 ‘높게 쳐진 벽들 쪽’까지 환히 보였다. 양조장 전체는 텅 비워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이쪽 문 바깥’에서보다 ‘저쪽 안쪽’에서 더 춥게 부는 것만 같았다. 그 바람이 ‘양조장의 터인(열린) 쪽’을 들어가고 나오며 “청승맞게 길게 짖는 것 같은 높고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에 있는 ‘배의 삭구’(배에서 쓰는 밧줄과 쇠사슬)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았다.

내가 양조장(술 만들어 도매하는 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 만들어진 진한 맥주는 지금도 다치지 않고 마실 수 있단다, 이 꼬마야.”

“제가 생각해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 내가 수줍어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저기서 맥주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걸, 그랬다가는 식초인 걸로 판명날 거니까, 이 꼬마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예 그런 것 같아요, 아가씨.”

“그렇다고 어느 누군가가 벌써 시도해봤다는 건 아니야,” 그녀가 덧붙였다. “양조장은 벌써 완전히 문 닫았으니까, 저건 이제 무너질 때까지 저렇게 한가롭게 저기에 서있을 거니까. 진한 맥주라면 이제 지하 실창고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매너 하우스’(대저택)를 익사시킬 정도로 많아.”

“그게 이 집의 이름인가요, 아가씨?”

“이 집의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야, 이 꼬마야.”

“그럼 이 집의 이름이 하나 이상이라는 건가요, 아가씨?”

“하나 이상이지. 이 집의 또 다른 명칭은 ‘새티스’야. 아마 그건 그 리스어이거나, 라틴어(고대 로마제국 행정언어)이거나, 혹은 히브리어 (유대어)일수도 있어. 아니면 그 셋 다 일수도 있고. 뭐 나야 아무래도 좋지만. ‘새티스’란 ‘모든 게 충분하다’는 의미야.”

“충분한 집이군요,” 내가 말했다. “참 특이한 이름이네요, 아가씨.” “그래.”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이름(새티스)에는 충분하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어. 그 이름이 이 집에 주어졌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집을 소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의미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만족했나봐, 내 생각엔 그래. 자, 늑장부리지마, 꼬마야.”

비록 그녀가 칭찬과는 거리가 멀고 부주의하게 나를 “꼬마”라고 지 나치게 자주 불렀음에도, 사실 그녀는 대략 내 나이 또래였다. 물론 그녀가 나보다 훨씬 연상으로 보였고, 그거야 소녀니까, 그리고 아름다웠고 침착해보였지만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마치 21살이라도 되는 마냥 나를 멸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마치 여왕이라도 되는 마냥 나를 경멸했다.

우리는 옆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정면의 큰 출입구는 바깥쪽 에서 두 개의 쇠사슬이 가로질러 있었다(막혀 있었다). 내가 주목한 첫 번째는 “통로들이 모두 너무 어둡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녀가 그곳(통 로)에 불타는 촛불 하나를 놓아두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녀가 촛불을 집어 들었다. 우리는 여러 통로들을 통과한 후 계단 위로 올라갔다. 여전히 모든 것이 너무나 어두웠다. 다만 우리를 비추고 있는 촛불만은 밝았다.

우리가 마침내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 봐.”

내가 예의를 차린 다기 보다는 너무 숫기가 없어(겁이 많아) 이렇게 대답했다. “아가씨가 들어가신 뒤에요.”

이 말에 그녀가 이렇게 대꾸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 꼬마야. 나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녀는 그리곤 나를 경멸하면서 떠나 가버렸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촛불을 들고 가 버렸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나는 아주 불유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좀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문을 노크하는 것이었고 나는 노크를 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말이 들려왔다. 내가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아주 예쁘고 넓은 방에 혼자인 것을 발견 했다. 그 방은 밀초(밀랍으로 만든 초, 밀랍은 벌들이 집 만들 때 분비 하는 물질)들로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다. 방 안에선 햇빛 한 줄 볼 수 없었다.

가구들로 추측해보건대, 이곳은 (침실 옆에 딸린) 드레싱룸(옷방)이었다. 비록 내겐 너무나도 낮선 형태들과 용도들의 가구가 많았지만 하여튼 드레싱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눈에 띈 것”은 천이 느슨하게 씌어져 있고 금박을 입힌 유리가 딸려 있는 “테이블이었다.” 나는 그것이 “귀부인의 화장대”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만약 귀부인이 그 곳(침실 옆에 딸린 드레싱룸)에 앉아 있지 않았어도, 내가 그토록 재빨리 이 물건(유리가 딸린 테이블)의 용도를 알아챌 수 있었을지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다.

그녀는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받친 채 자신의 머리로 손 위에 압력을 가하며, 팔걸이의자에 앉아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그리고 앞으로 볼 부인들 중 가장 낮선 모습을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공단(무늬가 없는 비단)들과 레이스들과 실크(명주)들로 이루 어진 호화로운 재질들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었다. 모두(옷) 다 흰색 이었다. 그녀의 구두들도 흰색이었다.

그리고 길고 하얀 면사포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의지해 달려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부케(신부 꽃)들이 꽂혀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색깔 역시 흰색이었다.

몇몇 빛나는 ‘보석류들’이 그녀의 목과 두 손 위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보석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광채를 띄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보다 덜 화려한 옷들과 반쯤 짐을 싸다만 트렁 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옷을 완전히 다 입은 상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구두 하나를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신지 않은 다른 한 짝 (구두)은 테이블 위 그러니까 그녀의 손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면사포는 절반만 걸쳐 있었다. 손목시계도 아직 차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의 가슴에 달 몇몇 레이스(끈)들이 값싼 장신구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스카프와, 그리고 장갑들과, 그리고 몇몇 꽃들과, 그

1

리고 기도서(책) 한 권, 이 모두가 (테이블 위에 있는) 거울 주변에 어지럽게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내가 비록 사람들이 처음 몇 순간에 볼 수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것은 맞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처음 몇 순간에 다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 흰색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오래전에는 흰색이었을 테지만 이젠 그 광택을 잃고 색이 바래 노래져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귀부인)가”, 드레스처럼 꽃들처럼, 벌써 시들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어떠한 빛남도 그녀에게 남아 있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쑥 들어간 두 눈들만은 아직도 광채를 띄고 있었다.

젊은 여성의 통통한 몸매에 입혀졌을 그 드레스가, 지금은 비쩍 말라 뼈와 가죽만 남은 몸 위에 걸쳐져 느슨하게 걸려 있다는 사실도 나는 알아보았다.

언젠가, 나는 박람회장에 따라갔다가 어느 무시무시한 밀랍인형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인형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본 딴 인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적인 인물의 유해를 매장 전에 며칠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언젠가, 나는 사람들을 따라 오래된 늪지대 교회들에 갔다가 해골을 본 적이 있었다. 교회 바닥에 깔린 널돌 아래로 지하 납골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파낸 해골이었다. 그 해골은 호화로운 옷 같은 것을 입고 있었지만 모두 잿더미로 변해있었다.

(해석이 잘 안 돼서, 영어원문에 없는 말을 3개 정도 ‘제 맘대로’ 추 가했습니다. 디킨스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네요.^^ㅋㅋ 모로 가든 바로 가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되니까. ‘조회 수’도 매일 줄어들고 있는데 잘 하는 짓이다...)

“거기 누구냐?” 테이블에 있던 귀부인이 말했다. “핍(주인공이름, 아직은 꼬마)이에요, 마님.” “핍?”

“펌블추크(능청맞은 잡곡상) 씨가 보낸 소년이요, 마님. 와서 놀라고 하신.”

“좀 더 가까이 오거라. 내가 볼 수 있게. 가까이.”

그녀의 시선을 피한 채 내가 그녀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해 상세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손목시계가 9시 20 분 정각에 멈춘 게 보였다. 방에 있던 벽시계 하나도 9시 20분 정각에 멈춰서 있었다.

“내 눈을 보거라.”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네가 태어난 이래로 태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이 두렵지 않니?”

곧 후회했지만, 난 “네, 두렵지 않아요.”라는 대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버렸다.

“내가 만지고 있는 여기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녀가 두 손을 그녀의 왼쪽에 차례대로 포개며 말했다.

“예, 마님.” 그녀의 그런 행동은 나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만났던 젊은 남성(주인공의 간을 꺼내 먹겠다고 위협한 탈옥수)을 생각나게 했다.

“내가 지금 뭘 만지고 있지?” “마님의 심장이요.”

“산산조각 난 심장이지!”

그녀는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으로, 강하게 강조하며, 그리고 기묘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그 말을 했다. 그 웃음에는 일종의 자기 자랑 비슷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같았다. 이후 그녀는 두 손을 잠시 동안 그 곳(심장)에 그대로 두었다가 천천히 마치 이젠 그 두 손이 무거워졌다 는 마냥 천천히 자기 손들을 치웠다.

“피곤해.”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기분전환이 필요해. 세상 남자 여 자들과는 연분(인연)을 끊었으니까. 자 놀아보거라.”

가장 논쟁을 좋아하는 독자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사정이 사정이므로 그녀가 지금 이 불행한 소년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따금씩 병든 상상에 사로잡히곤 한단다.” 그녀가 계속 이어 갔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놀이를 보고 싶다는 병든 상상이 든 다. 자, 어서!” 그녀가 오른 손의 손가락들을 성마르게 움직이며 이렇게 말했다. “자, 어서, 어서, 어서!”

잠시 동안 나는 내 누나(주인공과 20살차이)가 눈 앞에 나타나 나에게 일을 시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주인공꼬마가 미스 해비샴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평생 대장장이 일을 시키겠다고 폭언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포자기 심정이 들어 ‘펌블추크 씨의 2륜 경마차(바퀴 두 개) 캐릭터’를 흉내 내며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볼까 하는 생각 까지 먹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다. 그리고 미스 해비샴을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내가 추측하건데 그런 내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나를 고집 센 아이로 비춰지게 했던 것 같다. 우리가 서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너 시무룩하고 고집이 세구나?”

“아닙니다, 마님, 전 그냥 마님께 죄송해서요, 송구스럽게도 제가 당 장은 놀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마님께서 절 이대로 돌려보내신다면 전 누나에게 혼이 날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놀려고 했는데 그만, 여긴 너무 새롭고 너무 낯설고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울한….” 여기서 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내가 너무 나갔다는 생 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어쩌랴 벌써 말해버렸는걸. 우리는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게서 눈을 떼 자신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또 화장대(가구)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녀가 다시 말을 했다.

“이 애에게는 모든 게 새롭군.”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에겐 모든 게 지루한데. 이 애에겐 모든 게 낯설다니. 내겐 모든 게 익숙한데. 우리 둘 다에겐 너무 우울해! 에스텔라를 불러다오.”

그녀가 여전히 거울 속에 비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했기 때문에 난 그녀가 아직도 혼자 말을 즐기고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에스텔라를 부르라니까.” 그녀가 내게 번쩍 빛나는 시선을 내던지며 되풀이했다. “그건 할 수 있겠지. 에스텔라를 불러라. 입구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저택에서 그것도 불가사의한 복도의 어둠 속에 서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대꾸도 없는 젊은 아가씨를 그 것도 나를 경멸하는 젊은 아가씨의 이름 “에스텔라”를 고함치며 부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종(제멋대로)이었다. 내가 느낀 이 모두는, 방금 전 명령에 따라 놀이를 해야 했었던 상황만큼이나 끔찍했다.

마침내 그녀에게서 대답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녀의 촛불이 하나의 별처럼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그녀에게 손짓하며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더니 테이블 에서 보석 하나를 집어 들어 그 아름다운 아가씨의 가슴 위와 그녀의 귀여운 갈색 머릿결 위에 갖다 대며 보석이 어떤 효과를 줄 주 있는지를 시험해보았다.

“네 것이 될 거야, 언젠가는, 얘야, 잘 사용하도록 해라. 자 이 애와 카드놀이를 해보 거라.”

“이 애랑? 어째서죠? 이 앤 그냥 천한 막노동 소년이잖아요!”

내 생각에 내가 미스 해비샵의 대답을 우연히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있을 법하지 않은 대답이었다. “그래? 넌 저애의 심장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니.”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지, 이 꼬마야?” 에스텔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적인 표정을 지어보이며 내게 물었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게임’밖엔 몰라요, 아가씨.”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게임’은 ‘상대편의 패를 전부 빼앗을 때까지 둘이서 하는 놀이’라고 함. 네이버검색)

“저 애를 거지로 만들 거라.” 미스 해비샴이 에스텔라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 벽시계와 손목시계 같은 것들이 오래전에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미스 해비샴이 보석을 집어 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 정확히 도로 내 려놓는 것을 나는 주목했다.

에스텔라가 카드들을 돌리는 동안 나는 화장대를 흘끗 다시 쳐다보았다. 화장대 위에 구두가 놓여 있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테지만 이젠 노래진 구두였다. 그 구두가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구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 구두가 원래 신겨져 있어야했을 그 발을 흘끗 내려다보았다. 그 발에는 실크 스타킹이 착용되어 있었다. 한때는 흰색이었을 테지만 이젠 노래진 실크 스타킹이었다. 그 실크 스타킹이 너무 밟아서 뭉개지고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창백하고 부패한 물체들인 양 서있지만 않았더라도, 붕괴된(쇠약한) 형체 위에 입혀진 말라빠진 “신부 드레스조차도” 그토록 시체에 입혀놓은 옷처럼은 보이지 않았을 테고 “긴 면사포조차도” 그토록 수의처럼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카드놀이를 하는 내내 그녀는 마치 송장(시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신부 드레스에 달린 “주름 장식들과 장신구들이” 흙으로 만들어진 종이처럼 보였다.

종종(이따금씩), 옛날에 파묻힌 시체들로 구성된 발견들, 특히 그 시 체들이 발견되는 즉시 가루로 변해버린 발견들에 대해선 그때 당시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 나는 종종 생각해보곤 한다. 그때 당시 “그녀의 모습”이, 마치 낮의 자연광(태양빛)이 들어와 그녀에게 부딪치면 그녀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것처럼 보였음이 틀림없다고 나는 이후 종종 생각 해보곤 한다.

“저 앤 네이브를 잭이라고 불러요, 이 꼬마가 말이에요!” 우리의 첫 카드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에스텔라가 경멸이 가득 담긴 말을 내게 했다. “저 애의 손들은 어쩜 저렇게 거칠까! 그리고 저 부츠들은 어쩜 저렇게 두꺼울까!”

에스텔라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내 두 손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 두 손이 형편없는 한 짝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그녀의 멸시는 너무 강했다. 그녀의 말은 전염성을 띄고 있었고 내가 거기에 걸려던 것이다.

그녀가 게임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카드를 나누어주었다. 내가 카드를 잘못 나누어주고 말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내가 실수하 기만을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아 래에서는 말이다.

그녀가 나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 멍청하고, 칠칠맞은 막노동 소년 아!”라고.

“너는 저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저 애는 네게 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왜 넌 저 애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거지. 저 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까지 더듬어가며 말했다.

“그럼 내 귀에다 대고 말해다오.” 미스 해비샴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저 애는 아주 거만한 것 같아요.” 내가 속삭이며 대답했다. “그 밖에 또?”

“저 애는 아주 예쁜 것 같아요.”

1

“그 밖에 또?”

“저 애는 아주 무례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녀(에스텔 라)가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애를 다시 안 보겠다고, 저렇게 예쁜 애를?”

“제가 저 애를 다시 안 보고 싶은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만 지금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곧 보내 주겠다.” 미스 해비샴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게임을 끝마치어라.”

처음에 본 그녀의 그 기묘한 미소만 아니었어도, 나는 미스 해비샴의 얼굴이 미소를 지을 수 없는 얼굴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했을 것 이다(확신하지 못하다 이후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

그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움쭉 못하게(정지된) 되었던 바로 그때, 경계하는 표정과 생각에 잠긴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자리잡은 것 같았다.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얼굴에서 그것(경계하고 생 각에 잠긴 표정)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없을 것만 같이 보였다.

그녀의 가슴도 쳐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몸은 굽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도 축 쳐져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낮게 말했다. 이 모두가, 그녀가 지금 죽음의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전적으로, 그녀의 외모는 안팎이 모두 축 늘어진 육체와 축 늘어진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압도적인 강풍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에스텔라와 그 게임(카드)을 끝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거지로 만들었다(그녀가 ‘상대방을 거지로 먼저 만들기’ 게임에서 나를 이겼다). 그녀가 카드를 모두 가졌을 때였다. 내게서 빼앗은 카드 따위는 이제 경멸스럽다는 듯 카드를 테이블 아래로 매몰차게 내던졌다.

“언제 다시 왔으면 좋겠니?” 미스 해비샵이 내게 말했다. “가만있자.”

내가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막 상기(기억)시켜주려 던 찰나였다. 그녀가 앞서 했던 그 “성마른 표시, 오른 손 손가락들을 성마르게 흔드는 표시”를 하며 나를 제지했다.

“저 봐, 저 봐! 나는 요일을 전혀 모른다. 나는 일 년 중 몇 주째인 지도 전혀 모른다. 엿새(6)후 다시 오거라. 알겠지?”

“예, 마님.”

“에스텔라, 저 애를 아래까지 데려다 주거라. 먹을 것을 주도록 하고. 산책도 시키고. 그리고 저 애가 먹는 동안 (양조장과 안뜰과 정원을) 이리저리 둘러볼 수 있도록 해줘라. 가거라. 핍.”

촛불을 따라 올라 왔듯이, 나는 그녀(에스텔라)가 든 촛불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에스텔라)는 우리들이 처음 촛불을 발견했던 그 장소에 촛불을 세워놓았다. 그녀가 옆문을 열 때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서 나는 지금이 필연적으로 밤 시간일거라고 상상했었다. 문이 열 리고 일광(햇볕)이 한꺼번에 내게로 내리쬐었을 때 나는 무척이나 당 황스러웠다. 내가 마치 촛불이 켜져 있던 그 이상한 방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온 느낌이 들었다.

“넌 여기서 기다려야해, 꼬마 너 말이야.”라며 에스텔라가 말했다. 그녀는 사라지더니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제야 안뜰에서 혼자 있게 되었다. 그건 내가 거친 내 두 손을 바라다볼 기회를 주었고 내 흔해빠진 부츠를 내려다볼 기회를 주었다. 이 액세서리들에 대한 내 의견은 호의적이지 않은 쪽으로 흘렀다. 그것은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문제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되었다. 내가 그것을 상스러운 부속물들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 문이다.

나는 집에 돌아가는 대로 조(선하지만 약간 어리숙한 매형)에게 왜 내게 ‘네이브라고 불러야 할 그림패들’을 ‘잭’이라고 부르게 가르쳤는지 단단히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바랬다. 조(매형)가 좀 더 고상하게 양육되었더라면 하고 나는 바랬다. 그리고 만약 조가 좀 더 고상하게 양육되었더라면 나도 역시 조에 의해 고상하게 양육될 수 있었을 텐데.

그녀(에스텔라)가 약간의 빵과 고기 그리고 맥주를 채운 작은 머그 잔을 하나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가 머그잔을 마당의 돌들 위에 내려놓은 후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빵과 고기를 내게 건넸다. 그녀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거만했기 때문에 난 내가 마치 한 마리 개인 양 모멸감을 느꼈다.

나는 너무 굴욕감을 느꼈고 상처 받았으며 퇴짜 받았고 공격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한 슬펐다. 그 쓰라림의 정확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았다. 신만이 그 쓰라림의 명칭을 알리라. 눈물들이 내 두 눈에서 쏟아나기 시작했다.

눈물이 쏟아나려는 순간, 내 눈물에 대한 원인이 그녀에게 있는 것을 확인한 ‘소녀가’ 재빨리 기쁨의 표정을 지어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눈물을 삼킨 후 그녀를 똑똑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짜증스러워 못 참겠다는 듯 고개를 홱 쳐들고는 나를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내 생각에 그녀의 그런 행동에는, 내(주인공꼬마)가 아주 많이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확실하게 확신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버리자, 난 내 얼굴을 감추어줄 장소를 둘러보았고 결국 양조장 쪽으로 통하는 문들 중 하나에 숨어들어갔다. 벽에 소매를 댄 채 소매 위에 내 이마를 파묻고는 울었다.

나는 울면서 발로 벽을 찼고 내 머리카락을 심하게 쥐어뜯었다. 내 감정들은 너무 쓰라렸고, 이름도 모를 그 쓰라림들은 너무나도 날카로 웠기 때문에 난 중화작용(반작용, 음식섭취 후 산책)이 필요했다.

내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의 양육은 나를 예민하게(상처를 잘 받게) 만들었었다. 누가 아이들을 양육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존재하는 그 조그만 한 동심 속에서, 부당한 처사만큼 미세하게 감지되고 미세하게 체험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 부당한 처사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는 작다. 아이가 가진 동심의 세계는 더 작다. 그 아이의 흔들 목마는, 비율로 따지면, 골격이 우람한 ‘아이리시 헌터’(승마용 말의 이름, 발바닥에서 등까지의 높이가 1.7미터)보다 몇 십 센티미 터 더 높다(그래서 떨어지기 쉽다).

내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말하자면, 난 유아기 때부터 나에게 가 해지는 부당한 처사와 끊임없이 투쟁하며 견뎌왔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난, 누나가 변덕스럽고 폭력적인 강압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손수 기른다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나를 당기고 밀치며 찌르고 비틀며 흔들고 홱 내던지면서 나를 키울 권리를 그녀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굳은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왔었다.

모든 벌(처벌)들과, 수치(망신)들과, 밥 굶기기들, 그리고 잠 못 자게 하기, 그리고 여타 참회를 강요당한 무수한 나날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확신(누나가 나를 기른다고 나를 때릴 권리까진 없다)”을 오랫동안 품어왔던 것이다.

그런 은둔의 방식으로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방식으로 “그 확신”과 너무 많이 교감하는 가운데, 내가 정신적으로 소심하고 아주 예민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오랫동안 품어왔다.

양조장(술 만들고 도매하는 곳) 벽에 발길질을 해대고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동안 내 상처받은 감정들도 제거되었다. 그런 다음 난 내 얼굴을 소매로 고루(잘) 닦은 후 문 뒤에서 나왔다.

빵과 고기는 먹을 만했다. 맥주는 따뜻하고 따끔따끔한 게 맛이 괜 찮았다(따뜻한 맥주도 있군요. \*\_\* 처음 알았음. 신기하네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신기~). 나는 곧 내 주변을 돌아볼 정도로 활기를 띄게 되었다.

틀림없다. 이 곳(양조장)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양조장에 있 는 비둘기장까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약간 센 바람이 불어 비둘기장이 꼭대기를 기준으로 바람에 기우뚱거리고 있었다. 만약 비둘 기장 안에 비둘기들이 있어 바람에 의해 자신들이 그렇게 기우뚱거렸 다면 아마 비둘기들은 자신들이 지금 바다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둘기장에는 비둘기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외양간에도 말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돼지우리에도 돼지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창고에도 맥아(발아시킨 보리)가 단 한 알도 없었다. 물 끊이는 솥과 대형 통에서는 곡물과 맥주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 양조장의 모 든 용도와 향기는 마지막으로 내보낸 연기와 함께 증발한 것만 같았다.

옆 뜰(마당)에는 속이 텅 빈 수많은 술통들이 쌓여있었다. 술통들은 좋았던 지난날에 대한 어떤 시큼한 추억을 자기들 주변에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시큼해서 지난 날의 맥주에 대한 견본(샘 플)으로써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대다 수 사람들처럼 은둔자였듯이, 나는 그 술통들을 은둔자들로써 기억한다.

양조장 가장 끝자락 뒤로, 오래된 담으로 둘러싸인 무성한 정원이 하나 있었다. 담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버둥거리며 올라가 붙잡은 채 좀 더 오래 버티며 그 너머를 바라다볼 수 있었다. 엉킨 잡초들이 너무 크게 자라 있어 무성해보인 그 정원은, 이 집에 딸린 정원이었다. 하지만 초록색과 노란색 길 위로 사람의 발자국 흔적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이따금씩 저쪽으로 걸어간 것만 같았다. 게다가 그때까지도 에스텔라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저쪽으로 걸어가고 있 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곳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술통들을 밟고 일 어서려는 유혹에 굴복해 술통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나는 술통이 가득한 안뜰 끝자락에서 술통들 위를 걷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등을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손에 그녀의 예쁜 갈색 머릿결을 붙잡아 넓게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더니 내 시야에서 곧장 사라졌다.

양조장(맥주공장) 건물은, 다시 말해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크고 높은 건물, 한때 맥주를 만들곤 하던 곳이다. 그 안에는 아직도 양조용 기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내가 처음 양조장(맥주공장)안으로 들어가려다 그 어두움에 아주 짓 눌려 문 근처에 선채 내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나는 그녀가 불이 끄진 난로들 사이를 걸어 어떤 가벼운 철제 계단들을 오른 후 머리 위에 있던 최상층 관람석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건 마치 그녀가 하늘 속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래에서부터는 ‘양조장’이라는 단어 대신 ‘맥주공장’이라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양조장이 뭔지 저조차도 이미지가 쉽게 그려지지 않아서요~.~)

이상한 것이 내 환상 속에 나타난 것도 이 장소, 그리고 이 순간이었다. 나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했다. 아니 더 심하게 이상했다.

쌀쌀맞은 빛을 올려다보다 약간 흐릿해진 내가 눈을 막, 내 오른 편에 있는 건물 구석 아래의 거대한 목재 빔(들보)쪽으로 돌리자마자 나는 거기서 목메 단채 매달려있는 어떤 형상 하나를 보았다.

두 발에는 구두를 한 짝만 걸친 형상, 누렇게 색이 바랜 흰색 옷을 온 몸에 걸친 형상이었다. 그런 식으로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드레스에 달린 색이 바란 액세서리들이 마치 흙으로 빗은 종이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은 미스 해미샴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마치 나를 부르려고 절규하는 듯 했고 그 절규의 몸부림이 얼굴표정이 되어 얼굴전체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형체를 보는 것은 끔찍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형상이 거기에 없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웠다. 나는 그 장소에서 달아났다. 곧 다시 그 쪽으로 달려가 보았다. 거기서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내 공포는 최대로 치솟았다.

그야말로 청쾌한(쾌활한) 하늘 아래 ‘쌀쌀맞은 빛’ 그뿐이었다. 그야 말로 안뜰 문의 빗장들 너머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뿐이었다. 그리고 채 다 먹지 못한 빵과 고기 그리고 맥주에 대한 내 배고픔이 되살아나 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심지어 내가 먹다 남겼던 음식들로 배를 다 채웠었지만, 만약 내가 나를 나가게 하려고 열쇠를 들고 내게로 걸어오고 있는 에스텔라의 모 습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렇게나 빨리 원기를 회복하진 못했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 그녀가 볼 것이고 그럼 그녀가 나를 더 얕잡아볼 합당한 이유를 그녀에게 주는 것일 뿐이라고.’

그러니 그녀는 이제 나를 얕잡아볼 어떤 합당한 이유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내 옆을 지나가던 그녀(에스텔라)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건 마치 내 손들이 거칠고 내 부츠가 지나치게 두껍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한 것이 너무 즐겁다는 표정 같았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가 문을 붙잡은 채 서 있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가려는데 그녀가 나를 비웃듯 손으로 툭 쳤다.

“왜 안 우니?”

“울고 싶지 않으니까.”

“울고 싶잖아.” 그녀가 말했다. “반장님이 될 때까지 넌 울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 다시 울려는 거고.”

그녀는 경멸하며 웃었다. 그러더니 나를 문밖으로 밀치곤 내 뒤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나는 그 길로 펌블추크 씨 집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가 집에 없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몹시 안도했다. 가게점원에게 “내가 미스 해비샴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날짜”를 알려준 후 6.4킬로미터(1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우리 집(대장간)을 향해 출발했다.

혼자 걸어가면서 내가 오늘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내가 흔해빠진 막노동 소년이라는 점, 내 손들이 유독 거칠다는 점, 내 부츠가 지나치게 두껍다는 점, 내가 네이브 (카드)를 잭(카드)이라고 부르는 천하고 어리석은 습관에 물들어 있다는 점, 어젯밤 생각했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무식하다는 점, 대체로 내가 형편없는 하층 생활을 지금까지 견지해오며 살아왔었다는 점 등등”이 떠올랐고, 집이 가까워지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위대한 유산**

**9장**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누나(20살차이)는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대해 알고 싶은 호기심이 너무 강해 수만 가지 질문들을 내게 쏟아 부었다.

나는 곧 뒤로 붙들린 채 목덜미와 허리 뒷부분을 사정없이 얻어맞고서 부엌 벽에 얼굴이 힘껏 뭉개지고 있었다. 누나의 질문들에 충분히 길게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내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상태) 것과 같은 강도로 다른 청소년(14세)들의 가슴 속에서도 숨겨져 있다면, 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왜 괴물이 아니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이 유이며 그것이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입 다물기에 대한 이유들인 것이다.

설령 내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도 그들은 이 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가 미스 해비샴에 대해 설 명을 했더라도 그들은 미스 해비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록 내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녀의 진짜 모습을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의 사색의 대상으로 끌어다 놓는다면 나는 그런 내 행동에는 음탕하고 이율배반적인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으리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거기엔 꼬마 숙녀 에스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최대한 적게 발설하기 작정했고 당연히 누나는 길길이 화가 나서는 부엌 벽에다 내 얼굴은 뭉개며 묵사 발을 만들고 있었다.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게 한 것은, 약자를 괴롭히길 극히 좋아하는 저 늙고 몹쓸 펌블추크(잡곡상)의 등장이었다. 펌블추크(잡곡상)가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에 대한 게걸스러운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해 2륜 경마차(바퀴 두 개)를 몰고 그것도 차 마시는 시간에 나타나선 자신에게 오늘 일을 소상하게 이실직고하라며 입을 떡하니 벌리고선 뻐 끔뻐끔 거려댔기 때문이다.

저 물고기 같은 눈과 입을 떡하니 벌린 채, 마치 재빨리 끝장을 보고 싶다는 듯 자신의 흙빛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비비꼬는 계산으로 자신의 양복 조끼를 불룩하니 채운 그가 마치 고문자 같은 비열한 시선을 내게 던지며 질문을 하는 바람에 난 더 악이 바쳐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좋아, 꼬마야.” 자기 전용으로 지정된 벽난로 옆 의자에 앉자마자 펌블추크 삼촌(주인공의 실제 삼촌은 아님)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읍 외곽에서 어떻게 잘 했느냐?”

내가 대답했다. “썩 잘요, 아저씨.” 그러자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가 주먹으로 나를 갈겼다.

“썩 잘, 썩… 뭐?” 펌블추크 씨가 되물었다. “썩 잘이란 대답은 없단다. 자 꼬마야, 얘기해 봐라, 네가 말하는 그 ‘썩 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니?”

내 이마에 달라붙은 회반죽(부엌 벽에 뭉개진 자국) 때문인지도 모 르겠지만 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똥고집을 부렸다. 어쨌든, 회반죽까지 이마에 붙인 내 똥고집은 다이아몬드였다. 나는 얼마동안 심사숙고 한 다음 마치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말한 ‘썩 잘’은 ‘썩 잘’을 의미해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는 듯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가 고함을 내지르더니 내게로 달려들려 했고, 조(주인공의 매형)는 대장간 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아무런 방패막이 나에겐(꼬마) 없고, 따라서 ‘펌블추크 씨’(잡곡상)가 가까스로 누나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해야했 다. “안됩니다! 안돼요! 이성을 잃지 마세요. 이 소년을 제게 맡겨두세 요, 부인. 이 소년을 제게 맡겨두세요.” 이제야말로 내(주인공) 목을 자르겠다는 듯이 펌블추크 씨가 고개를 돌이며 말했다.

“자, 8만 6천원은 천 원짜리로 몇 장이지?” 이 질문은 아마 우리(누나, 주인공, 펌블추크 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 우리 생각들을 잠시 정리하자는 의미인 것 같았다.

난 그 물음에 “8만 6천개요.”라고 대답하려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렇게 답했다가는 아무래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아 최대한 비슷한 숫자를 답으로 제시했다. 아마 6개정도 틀린 것 같았다.

그러자 “천 원짜리가 열 장 모이면 만원이다.”로 시작해선 “천 원짜 리가 80장모이면 8만원이다.”로 이어지며 내게 “지폐환산표”를 주입시 키는데 성공한 그가 의기양양해져선 이번에야 말로 나를 해치웠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자! 8만 6천원은 천 원짜리로 몇 장이지?”

이 질문에 한 동안 뜸을 들인 후 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이들의 처사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던지라 실제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펌블추크 씨는 자신의 머리를 나사처럼 돌려가며 내게서 정답을 뜯 어내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8만 6천원은 만 원짜리가 8장이니까 천 원짜리로 80장 이고 6천 원은 천 원짜리가 6장이지, 그러니까 8만 6천원은 천 원짜리로 총 86장이지?”

“맞아요!”라고 내가 말했고 그 즉시 누나(친누나, 20살차이)가 손바 닥으로 내 두 귀에다가 따귀를 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답 때문에 그(펌블추크 씨)의 농담이 엎질러져버렸고 그 바람에 그가 꼼짝 달싹 못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통쾌한 일이었다.

“그래 소년아! 미스 해비샴은 어떤 사람이더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펌블추크 씨가 두 팔을 자신의 가슴팍에 단단히 붙인 채 나사 돌 리듯이 내게 또 묻기 시작했다.

“아주 키가 커고 시커멓게 생겼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가요, 삼촌?” 누나가 물었다.

펌블추크 씨가 동의의 표시로 살짝 윙크를 지어보였다. 그 행동으로부터 나는 그가 한 번도 미스 해비샴을 만난 적이 없었음을 즉시 알아 차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키가 커지도 시커멓게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 이다.

“됐어!” 펌블추크 씨가 우쭐대며 누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저 애를 다루는 방법이죠! 우리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인?”

“물론이에요, 삼촌.”라며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맞장구를 쳤다. “삼촌께서 저 녀석을 데리고 계셨으면 좋을 텐데. 저 녀석을 다루는 방법을 이리도 잘 아시니.”

“자, 소년아! 그녀(미스 해비샴)가 무엇을 하고 있더냐? 네가 오늘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말이다.” 펌블추크 씨가 물었다.

“그녀는 앉아 있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검은색 벨벳(융단) 대형4 륜마차 안에요.”

펌블추크 씨와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둘 다 이렇게 말했다. “검은색 벨벳(융단) 대형4륜마차 안 이라고?”

“네.”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에스텔라 양이, 제 생각에 그녀는 미스 해비샴의 조카 같았어요. 마차 창문을 통해 에스텔라 양이 미스 해비샴에게 케이크와 와인을 건네주었지요. 황금 접시에 담아서 말이 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황금 접시에 담긴 그 케이크와 와인을 먹었 어요. 저는 마차 뒷좌석에서 일어나 먹었어요, 미스 해비샴이 그렇게 먹으라고 시켰거든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없더냐?” 펌블추크 씨가 물었다. “네 마리의 개들이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크더냐. 작더냐?”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 녀석(개)들이 황금 광주리에 담겨 있던 ‘얇게 저민 송아지 고기들’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웠어요.”

펌블추크 씨와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이 대경실색하며 서로를 다시 한 번 쳐다보았다. 내 자신도 내가 하는 거짓말들에 도취되어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의 질문은 고문이었고 난 지금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고 비밀을 꾸며서라도 만들어 내고 있는 몰락한 증인일 뿐이었다. 고문을 당한 증인은 뭔 말이고 꾸며낼 수 있다.

“세상에 맙소사, 그런 대형4륜마차가 어디에 있데?” 누나가 물었다. “미스 해비샴의 방에요.”라고 내가 말하자, 그들이(펌블추크 씨와 누

나) 다시 한 번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마차에 말은 없었어요.” 호화로운 장식용 천을 씌운 네 마리의 준마(잘 달리는 말)들이 마구에 채워져 있더라는 말을 막 하려던 찰나 아무래도 내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 말을 삼킨 후 “하지만 마차엔 어떤 말들도 딸려 있지 않았어요.”라는 유보조항을 넣는 선에서 내 얘기를 마쳤던 것이다.

“이게(미스 해비샴의 방안에 대형4륜마차가 있는 것) 가능한가요, 삼촌?”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가 물었다. “저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가 말 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가마(사람 태우고 다니는 가마)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녀(미스 해비샴)가 좀 경박해야죠, 아주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여자인걸요, 하루 종일 거마 위에서 보내고 도 남을 여자인걸요.”

“그럼 삼촌도 그녀가 거마에 타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조 부인(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이 물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범행을 자백할 것을 강요당한 그가 되받 아쳤다. “저는 여태껏 그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걸요? 멀리서 그녀를 쳐다본 적도 없어요!”

“맙소사, 삼촌!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녀에 대해 얘기하신 거예요?” “웬걸요, 부인께서도 아시잖습니까.” 펌블추크 씨가 무척 초조해하며

말했다. “제가 그 집에 들를 때면 저는 늘 그녀 방문 앞까지만 안내받는 걸요. 조금 열려 있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녀가 제게 말을 하죠. 그게 다에요. 부인께서도 사정을 모르신다고는 말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꼬마는 그 집에 놀러 갔으니까. 그래 무슨 놀이를 하고 놀았지, 꼬마야?”

“우리들은 깃발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내가 말했다. 조심스럽게 말 하건대 내(주인공)가 이때 한 거짓말들을 되돌아보면 나도 내 자신에 대해 놀랍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

“깃발들이라고!” 누나가 나를 따라 말했다.

“예.” 내가 말했다. “에스텔라(소녀)가 파란 깃발을 흔들면 제가 빨 간 깃발을 흔들었지요. 그러면 미스 해비샴이 마차창문 밖으로 ‘깃발 위에 온통 금색 별들이 흩뿌려져 있는 깃발’을 흔들었지요. 그런 다음 우리 모두는 검을 뽑아 들고 ‘만세’하고 외쳤어요.”

“검이라고!” 누나가 외쳤다. “네가 검이 어디 있다고?”

“벽장에서 꺼냈어요.” 내가 말했다. “벽장 안엔 총들도 있었어요. 잼 (먹는 잼)도 있었고 알약들도 있었어요. 그녀의 방 안엔 태양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지만 환하게 켜져 있는 수많은 촛불들 때문에 방안은 언제나 밝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부인.” 펌블추크 씨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떡여 보이며 말했다. “그게 그 방의 실제 모습이죠. 제가 여태껏 봐왔는걸요.” 그런 다음 그들(펌블추크 씨와 누나)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말에 거짓이 단 한 줄도 없다는 마냥 얼굴에 꾸밈없는 표정을 짓기 위해 안달을 하며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오른 손으로 왼쪽 바지를 땋았다(서로 엇갈리게 해서 한 가득으로 짜 엮었다).

만약 그들이 단 한 마디라도 더 했다면 난 틀림없이 “다 거짓말이에 요”라고 자백해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그 순간에도 “안뜰에 풍선이 하나있었다”는 거짓말을 막 하려던 찰나였는데, ‘풍선’과 ‘맥주공장에 있던 곰’으로 나뉜 내 불확실한 상상력이 뒤죽박죽되는 바람에 거짓말(안뜰에 풍선이 있었다)을 더 해볼 용기를 못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들려준 이 경이로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느라 그들이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조(주인공의 착하지만 약간 어리숙한 매형, 대장장이)가 일을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시러 들어왔을 때까지도 그들은 이 주제(방 안에 대형마 차 있다는 주인공의 거짓말)에 꽉 붙들려있었다.

누나는 남편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기보단 누나 자신의 구원(수다)을 위해 남편에게 내(주인공)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들려주었다.

자(이제), 내가 조(주인공의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매형)를 보았을 때 조는 자신의 파란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전해들은 얘기에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부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내가 조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땐 정말이지 당장 속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 했다. 하지만 이건 조에 대해서만 이었고 다른 두 사람(누나와 펌블추 크 씨)에 대해서는 단 일말도 미안하지 않았다.

조에게 그리고 조라는 한 사람에 대해 난 내 자신이 어린 괴물이라고 여겼다. 그 와중에도 그들(펌블추크 씨와, 누나)은 오늘 일로 인해 향후 내가 “미스 해비샴의 지인들”이나 혹은 “미스 해비샴 본인”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호의들에 대해 그들이 부엌에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난 당황해하는 조를 보며 내 자신이 어린 괴물이라고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미래의 내게 뭔가를 줄 것”임에 대해 그들은 한 치의 의심도 없었고, 그들의 의심은 단지 “그 뭔가”가 과연 어떤 형태를 띠며 내게 주어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누나는 그것이 “재산의 형태”를 띨 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펌블추크 씨(주인공의 매형의 진짜 삼촌)는 품위 있는 어떤 직종에 내가 도제공 (수습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녀가 많은 액수의 할증료(덧붙여 주는 돈)를 내주는 것으로 호의가 베풀어질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그 품위 있는 직종에는 예를 들면 ‘곡물 장사나 씨앗 장 사’(펌블추크 씨가 잡곡상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주인공의 매형)는 두 사람으로부터 치욕적인 창피를 당하고 말았는데, 그녀(미스 해비샴)가 내(주인공)게 얇게 저민 송아지 고기들을 차지하기 위해 맹렬히 싸웠다는 네 마리 개들 중 한 마리를 내(주인공)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자기 딴에는 똑똑한 제안을 제시했다가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이 멍텅구리야 바보도 너보단 더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겠다.”라며 누나가 핀잔을 주었다. “할 일 있으면 가서 일이나 마저 마쳐 이 멍텅 구리야.”라고 누나가 말하자 조는 대장간으로 건너갔다.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가 자기 마차를 몰고 점포로 돌아간 후, 누나(주인공의 누나, 20살차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조가 있는 대장간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그리고 조가 오늘 밤에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칠 때까지 나는 그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조가 일을 다 끝마쳤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다. “화덕(대장간 불) 끄기 전에, 조, 나 할 말이 있어.”

“그래, 핍?” 조(주인공의 매형)가 편자를 박을 때 쓰는 철제의자(말의 발을 옆으로 해서 의자 가운데에 끼울 수 있게 만든 대장간 기구) 를 화덕 가까이로 옮기며 말했다. “자 그럼 어디 한 번 들어볼까, 핍. 무슨 얘긴데?”

“조.” 나는 ‘조가 둥글게 말아 올린 셔츠 소매’를 붙잡고 내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비비 꼬며 말했다. “조, 내가 오늘 했던 말들 다 기억나? 미스 해비샴 얘기 말이야.”

“기억나다니?” 조가 말했다. “네 얘기들은 정말 놀랍더구나!” “아니 끔찍했어, 조. 내가 한 건 모두 사실이 아니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핍?” 조(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 물)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거….”

“맞아. 다 내가 꾸며낸 거야, 조.”

“하지만 모두 다는 아니겠지? 왜 네가 모든 얘기들을 다 꾸며냈다고 생각하니, 핍? 그럼 ‘검은색 벨벳(융단) 대형…4륜마차’도 그곳에 없었 니?”

내가 고개를 흔들며 서 있자 조가 또 물었다. “하지만 말이다.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 개들은 있었지 않니, 핍? 어서 말해봐라, 핍.” 조가 설득조로 말했다. “얇게 저민 송아지 고기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막 싸웠다는 개들은 거기 있었을 거 아니니?”

“없었어, 조.”

“개 한 마리도?”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큰 개가 아니라면 강아지는 있었겠지, 핍? 어서.”

“없었어, 조, 그런 건 단 한 마리도 없었어.”

내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조를 올려다보았기 때문에 조도 당황해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핍, 이 녀석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 친구! 아이고! 어쩌려고 이랬니?”

“끔찍하지, 조, 그렇지 않아?”

“끔찍하다니?” 조가 외쳤다. “두렵구나! 네게 지금 무슨 악령이 든 거냐?”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조.” 조의 셔츠 소매에서 손을 떼고 그의 발 끝부분에 있는 잿더미 위에 주저앉은 채 목을 쭉 내밀며 내가 말했다. “내게 왜 네이브라고 불러야 할 카드를 잭이라고 알려 준거야, 조. 왜 내 부츠는 이렇게 두껍고 내 손은 또 왜 이렇게 거칠지 않으면 안 돼, 조?”

이 후 나는 조(매형)에게 내가 아주 비참한 심정이라는 것과, 내가 왜 ‘조 부인과 펌블추크 씨’에게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는지와 그들 (조 부인과 펌블추크 씨)이 내게 너무 심했다는 얘기들과, 그리고 끔찍한 여성인 ‘미스 해비샴’의 집에 그 아리따운 소녀가 있더라는 얘기를 했으며 그 여자 애가 나를 너무 거만하게 대해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와, 그런 그녀가 나를 천한 막노동 소년이라고 부르더라는 얘기들 과, 나도 내가 흔해빠진 막노동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 들과, 나는 더 이상 막노동 소년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과, 이런 거짓말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나도 내가 왜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조에게 들려주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사물의 본질을 파헤치는 철학) 문제였다. 적어도 내겐 그랬다. 조(매형이름)에게도 역시 무척 다루기 힘든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조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내 문제의 본질을 단번에 끄집어내어 그(조) 특유의 방법으로 내 문제들을 무찔러버렸다. “네가 확실히 해둘 것이 하나 있단다, 핍” 조가 잠깐 생각에 잠긴 후 내게 얘기를 들려주었다. “다시 말해 거짓말들은 거짓말들일 뿐이 란다. 아무리 사정이 그랬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었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니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 안에서 맴돌 뿐이 란다. 핍, 이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그건 너 같은 소년이 문 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없어. 이 친구야, 네가 평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그 애가 했다는 평범하다는 말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구 나. 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선 비범하게 뛰어난 아이란다. 키도 비범하게 작잖니. 더욱이 넌 비범하게 학자답기도 해.”

“아냐, 난 무식하고 덜 떨어진 아이야, 조.”

“왜, 어젯밤에는 내게 편지도 써주었잖니! 심지어 그걸 활자체(인쇄에 쓰는 글자모양)로 썼잖니! 내 평생 지체 높으신 양반들의 편지를 눈 으로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맹세하건데 너처럼 편지를 활자체로 쓰는 사람은 없었단다. 암!”

“난 하나도 안 배운 거랑 다름없어. 조. 날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 그게(어설프게 편지 쓸 정도가) 다라고.”

“글쎄다, 핍.” 조가 말했다. “그게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비범한 학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평범한 학자가 되어야하지 않니. 난 네가 반 드시 비범한 학자가 되리라고 믿는다. 왕관을 쓴 왕도 왕관을 쓰기 전 에 배워두지 못했다면 의회에 출석하셔서 활자체로 칙령(명령)을 쓰실 순 없었지 않겠니. 왕자님이셨을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신 거지. 알파벳부터 말이다. 앗!” 조가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 찬 자신의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래 ‘에이’부터 시작하셨을 거다. 그래 역시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제트’까지 마치신거지. 내가 비록 알파벳을 다 베우진 못했지만 모든 일이 디 그렇지 않나 싶단다.”

조의 그런 말들 속에는 내 기분(비참함)을 다소 누그러트리는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있었다. 나는 다소 기분이 좋아졌다.

“직업이나 수입에 관한 한 말이다, 핍. 평범한 사람들이,” 조가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말을 계속 뒤쫓아 가며 말했다. “비범한 사람들과 놀러 나가는 것보단 평범한 사람들과 계속 친목을 유지하며 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은지 안 나은지 하는 문제…(←디킨스가 대사를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소설의 주제임. 즉 『 위대한 유산 』 의 주제는 ”행복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큰 요행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온건함 완전함으로 맺어진,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작지만 소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동감~), 가만 있자, 그건 그렇고 깃발은 (미스 해비샴의 방 안에) 있지 않았니? 아마…?”

“없었어요, 조.”

“이런, 유감인데 깃발이 하나도 없었다니 말이다, 핍. 어느 게 더 좋고 더 안 좋은지는 지금 따질 수 없단다. 그랬다간 일 안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있다고 네 누나가 난폭해질 거니까. 그리고 네 고민들 은 일부러 더 생각해 볼 것도 없구나. 잘 들어봐라, 핍, 네 진정한 친구가 말하는 것을, 그 진정한 친구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거란다. 만약 네가 착하게 살아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네가 나쁘게 살아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순 없는 거란다. 그러니 이 친구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잘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지, 안 그러니, 핍?”

“나한테 화 안나, 조?” (조는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매형이름) “전혀, 이 친구야. 하지만 네가 한 거짓말들이 놀랍고 너무 대담해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둬, 네가 늘 잘되기를 바라는 어느 거짓 없는 사람이 방금 들려준 얘기들도 꼭 기억해두고. 자, 네 방에 올라가기 전에 계단 있잖니 계단 오를 때 네 머릿속에 방금 얘기 ‘풍덩’ 알지? 이것으로 끝. 그러니까 이 친구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내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며 난 기도했다. 그래 조(매형이름)의 충고를 잊지 말자. 하지만 내 어린 마음은 어떤 면에선 이미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자리에 누워서도 한 참을 생각해야했다. ‘겨우 대장장이일 뿐인 조 (매형)를 에스텔라는 얼마나 천하게 생각할까? 조의 그 두꺼운 부츠와 거친 두 손을 만약 그녀가 본다면 얼마나 비웃을까?’라고.

나는 또 생각했었다. ‘지금 조와 누나는 부엌에 어떤 식으로 앉아 있 을까? 그리고 난 부엌에서 내 다락방으로 어떻게 올라왔을까? 그리고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는 절대 부엌에 앉아 본 적이 없겠지? 그런 상류 사회 인사들이 그런 천한 행동을 할 리가 없겠지?’라고.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오늘 내가 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마치 내가 거기에 수주 혹은 수개월동안 있다 온 것만 같았다. 그 일이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내 추억의 한 조각인 것만 같았다.

그 날(처음으로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출입하고, 처음으로 에스텔라를 만난 것)은 내게 중요한 날이었다. 그 일로 인해 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어느 누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자기 인생에서 어느 특정한 날 하루가 지워진다고 생각 해보라, 그리고 이후 그가 걸어야했을 인생 항로가 얼마나 달라져 있 을까를 한 번 생각해보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라. 왕관과 화초(꽃)로 모양을 낸 그 긴 사슬, 철과 황금으로 모양을 낸 그 “잠깐 동안의 긴 사슬”이 당신을 결코 묶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기억할 만한 바로 그 날 그 첫 번째 고리가 연결되었다.

**위대한 유산**

**10장**

하루나 이틀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내 자신을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다름 아닌 비디(대고모가 운 영하는 저녁학교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간단한 철자나 산수를 가리켜 주거나 잡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항상 볼품없는 옷을 입고 다니지만 일 요일 교회예배에 갈 때는 예쁘게 단장하고 가는 많이 안 예쁜 아가씨, 다만 마음은 천사, 소설 속 여자조연, 여자주인공 아님-\_- 헷갈리시면 안 됨)에게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주입받는 것이다.

어둠속에서 밝게 빛난 이 실낱같은 희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웹슬 씨의 대고모’(대고모 : 웹슬 씨의 아버지의 고모)가 운영하는 저녁 학교에 간 날 비디에게 말했다. 내게는 인생에서 성공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모든 지식을 내게 전수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지를 모두 설명했다. 비디는 또래 아이들 중 가장 책임을 질 줄 아는 소녀였다. 비디가 즉석에서 승낙했다. 그로부터 딱 5분도 안 되어 비디는 정말로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있었다.

‘웹슬 씨의 대고모’가 만들어놓은 교육방침이니 과정을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사과를 먹거나 지푸라기들을 다른 아이들의 등에 집어넣는다. 자 그럼, 웹슬 씨의 대고모가 에너지를 모아선 자작나무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에게로 다가가 비틀거리며 휘두른다.

이 습격(매)을 온갖 조롱으로 받아낸 후, 학생들은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서선 손에서 손으로 ‘누더기가 다 된 책’을 이어 던지며 웅성대었다. 그 책에는 알파벳과, 숫자 약간, 그리고 표들이 몇 개 들어가 있었다. 맞춤법 같은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언젠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책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아이들의 손에서 손으로 한 바퀴를 다 돌고나면, ‘웹슬 씨의 대고모’는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지셨는데, 아마 잠이 드셨거나 아님 ‘류머티즘에 기인한 발작’(몸이 단단히 굳어지고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증세) 증세 때문에 혼수상태에 빠지신 것일 게다.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 상대방의 발가락을 가장 힘껏 밟을 수 있느냐를 정할 속셈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의 발가락을 밟아 댔고, 이게 그들이 말하는 부츠(구두)를 주제로 한 조사였다.

비디(여선생님)가 학생들 사이로 뛰어들어 바닥에 나뒹구는 성경책 세 권을 주워 담아야지만 이 미친 짓(학생들이 서로 상대방의 발을 세차게 밟는 것)이 멈추었다. 성경책이 어찌나 많이 떨어져나갔던지 뭔지 모를 것에서 끝만 두툼하게 칼로 도려낸 것 같았다. 아주 서툴게 말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성경책들의 인쇄상태 또한 대단히 열악해서 내가 이후 접한 어떤 다른 어려운 문학서적보다도 최고조로 판독하기 어려웠다. 성경책 속 글자 주위에는 어김없이 얼룩덜룩한 잉크가 번져있었고 낱장(종이)과 낱장 사이에는 언제나 납작하게 찌부러진 각 양각색의 곤충 견본들로 가득했다.

수업은 대개 비디(여선생님)가 몇몇 골통 녀석들과 1대 1 결투를 벌 이고 난 뒤에야 시작되곤 했다. 보통은 그랬다. 일단 이런 몇 차례의 1대 1 결투가 끝나면 비디가 오늘 읽을 쪽 수를 말했고, 그럼 우리들은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지독한 코러스(후렴구)까지 넣어가며 질러댔다. 사실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았지만 어쨌든 질러댔다.

비디가 높고 단조로우며 새된 목소리로 우리를 이끌었지만 사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우리가 읽는 책(성경책)에 담긴 개념이나 존경 같은 건 없었다.

이런 불쾌한 소음이 얼마간 지속되고 나면 ‘웹슬 씨의 대고모’가 기계적으로 깨어났는데 그럼 그녀는 가장 먼저 발견한 소년의 모습에 깜짝 놀라 그 녀석의 두 귀를 잡아 땅겼고, 그럼 우리들은 저녁수업의 끝으로 받아들이고 지적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교실에 석판(글 쓰는 석판)을 들고 오지 말라거나 혹은 잉크를 사용 하지 말라는 어떠한 금지조항도 없었다는 것이 적당한 말이지만 사실 가지고 올 잉크도 없었다.

그건 그렇다고 쳐도 겨울철에 이곳에서 공부를 계속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다름 아니라 그곳에는 어떠한 양초 심지 절단용 가위도 없었고 녹인 초에 심지를 담가 다시 초로 만든 촛불 하나가 영 풀이 죽은 채 방 전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실로 사용되던 그 작은 잡화점(가게)이 실은 ‘웹슬 씨 대고모의 거실’이고 침실이었던 것이다.

상황(주변 여건이 공부할 상황이 전혀 아니니)이 이러하니 내가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만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난 해내기로 결심했고, 비디(고아, 여선생님)는 그날 저녁부터 나와 맺은 특별협정(개인교습)을 이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격목록 표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습당(정제하기 전의 설 탕)이라는 항목 아래에 있는 일부 정보들을 전수해 주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 베껴 쓰라며 어떤 신문 제목에서 그녀가 직접 따라 그린 ‘고대영어대문자 디’(글자 주변에 수많은 곡선들과 잎을 그려 넣어 그림같이 보이는 글자체)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비디가 내게 그 문자의 의미를 말해주기 전에는 허리띠에 달린 쇠를 디자인한 것인 줄 알았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마을에도 술집이 한 군데 있었다. 더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주인공의 매형, 선량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는 이따금씩 그 술집에서 자신의 파이프 담배를 피우길 좋아했다.

난 매일 저녁이면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선원들’(바지선=화물선)에 들러 조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엄명을 누나로부터 받은 상태였던 지라, 그날 저녁에도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향하기 전 조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선원들’(술집)로 걸음을 옮겼다.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선원들’이란 술집에는 바(스탠드)가 하나 있 었다. 바 안에 있는 문 옆 벽 위에는 놀랄 정도로 기다란 분필 자국들이 술값이라며 표시되어 있었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보기엔 영 원히 갚을 수 없을 술값으로만 보였다. 그 분팔 자국들은 심지어 내가 기억이란 걸 하기 전부터 그 곳에 있었는데 어찌된 것이 내가 성장속 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 시골 주변에는 석회석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분필을 활용할 기회를 조금도 회 피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술집주인이 벽 위에 있는 분필자국들(술값)을 아주 잔인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토요일 밤이라서 그런 모양이다. (외상이 빠르 게 느니까.^^ㅋㅋ) 내 볼 일은 조(주인공의 매형, 선량하지만 많이 어 리숙한 인물)에게 있었지 그(술집주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단히 “안녕하세요.”란 말만 건네곤 바로 통로 맨 끝에 있는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에는 밝고 커다란 부엌난로가 놓여있었다. 당연히 조(매형)는 그곳에 있었다. 파이프 담배를 문 채 말이다. 조는 일행이 있었는데 친 구인 ‘웹슬 씨’(교회서기, 소설 속 엑스트라)와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인 어떤 낮선 사나이였다.

조가 평소와 같이 “어이, 핍, 여기야 친구!”라며 반겨주었다. 조가 그런 말을 건네자마자 그 낮선 사나이가 고개를 돌리고선 줄곧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는 어딘가 비밀스러워 보이는 인물이었다. 그의 고개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있었고 한 쪽 눈도 반쯤은 감긴 상태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총을 가지고 무언가를 겨누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는 입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었다. 파이프 담배를 입에서 빼더니 담배 연기를 휴우 하고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러는 사이에도 내게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가 나를 보며 고개를 끄떡였다. 그래서 나도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그런 후 그가 다시 고개를 끄떡였고 내가 앉을 수 있도록 자기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하지만 나(남자주인공)는 휴게실(술집 휴게실)에 들를 때마다 조(남자조연, 주인공의 매형, 선량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옆에 가 앉아 있곤 했기 때문에 그 낮선 사나이(엑스트라, 소설 앞부분에서 주인공이 빵을 건네다준 죄수의 동료)에게 “실례하겠습니다, 어르신.”이라고 거 절한 후 조 옆에 가 앉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앉은 자리가 공교롭게도 낮선 사나의 맞은편이 되었다.

낮선 사나이가 조를 흘끗 보았다. 조가 다른 일에 열중해 있는 것을 확인하곤 나에게 또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그것도 내가 자리에 가 앉자마자 말이다. 그런 다음 그 사나이는 자기 다리를 톱으로 쓸 것처럼 비볐다. 그건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누군가(남자주연, 소설 앞부분에서 주인공이 빵을 건네다준 죄수)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낮선 사나이가 조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장장이란 말씀이시죠?”

“예. 제가 대장장이입니다. 잘 아시잖소.” 조가 말했다.

“뭘 시키시겠습니까, 성함이…? 말이 났으니 말인데 괜찮겠소? 제가 당신 이름을 막 불러도?”

조가 막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자 낮선 사나이가 조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뭘로 하겠소. 가저리 씨? 술은 제가 쏘죠? 마지막 잔이니 말이오?”

“좋습니다.” 조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전 제 돈으로 마시는 술이 아닌 남이 사주는 술은 많이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버릇이겠죠? 아니오?” 낮선 사나이가 되받아쳤다. “이따금씩은 괜 찮지 않소. 더욱이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 자! 그러고 보니 당신의 버릇을 먼저 알고 당신의 이름을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군요. 가저리 씨.” “전 경직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조가 말했다. “그럼 럼주(술)로 하죠.”

“이 분에게 럼주를!” 낮선 사나이가 주문을 넣었다. “자 다른 신사 분께서도 뭐로 하실지 말씀해주셔야죠.”

“그럼 저도 럼주로 하겠습니다.” 웹슬 씨(비중이 극히 작은 남자조연, 연극배우를 꿈꾸는 교회서기)가 말했다.

“여기 럼주 세 잔!” 낮선 사나이가 술집주인을 부르며 소리쳤다. “어서 잔을 돌리시오, 주인장.”

“이 분은,” 조가 웹슬 씨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 분은 당신에게도 들려주고 싶을 만큼 낭독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서기이 시죠.”

“아하!” 낮선 사나이가 눈으로 나를 또 ‘꼭’ 집으며 재빨리 탄성을 내질렀다. “늪지대 오른편에 외따로 서있는 그 교회말씀이시죠, 주변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

“예, 바로 그 교회입니다.” 조가 말했다.

파이프담배를 물고서 일종의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던 낮선 사나이가 자신이 다 차지하고 있던 의자 위로 두 다리를 편안하게 얹었다. 그는 테두리가 넓은 여행용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 쓰는 방식처럼 손수건을 접어 머리 위에 얹어놓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그의 머리 카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벽난로를 쳐다보고 있던 그의 얼굴에서 뭔가 교활한 표정을 내가 본 것 같았다. 그가 반쯤 웃을 때 어떤 교활한 표정이 얼굴 전체로 번져갔다.

“저는 이 시골에 일면식도 없습니다, 신사 분들. 하지만 이 시골은 꼭 강을 향해 외따로 있는 것 같더군요.”

“늪지대가 그렇죠.” 조가 말했다.

“아마, 틀림없이 지금도 그곳엔 떠도는 집시들이 있겠죠? 부랑자들 이라든가 떠돌이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전혀요.” 조가 말했다. “이따금씩 나타나는 탈옥수들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는 건 쉽지도 않고요. 그렇죠, 웹슬 씨?”

웹슬 씨는 지난번에 추격대를 따라나섰다가 힘들어서 죽다 살아난 기억을 장렬하게 회상하곤 조의 말에 정말 건성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런 추격에 나서 본 적이 있는 모양이시군요?” 낮선 사나이가 물었다.

“딱 한 번 있었죠.” 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죄수를 추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흰 구경하러 간 거였죠. 여기 있는 웹슬 씨와 핍이랑 같이요. 그렇지, 핍?”

“응, 조.” (조는 매형이름, 핍은 남자주인공 이름 아직은 꼬마)

그 낮선 사나이가 나에게로 눈을 돌렸다. 한 쪽 눈을 지그시 감은 채였는데 꼭 보이지 않는 총구멍으로 나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재확인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낮선 사나이가 말했다. “아주 똘 똘해 보이는 녀석이군요. 그래 이 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핍입니다.” 조(핍의 매형이름)가 말했다. “세례명이 핍인가요?”

“아뇨, 세례명은 핍이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의 성이 핍인가요?”

“아닙니다.” 조가 말했다. “우리들끼리만 부르는 이름이죠. 얘가 어릴 적 뭐 지금도 어리지만 자기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자기를 핍이라고 불렀죠.”

“당신 아들이오?”

“글쎄요.” 조가 명상에 잠기더니 그렇게 말했다. 물론 그 질문에 대해 명상에 잠길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파이프담배를 물고서 토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일단 질문을 받게 되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 스타일이었기 때문이다. 조가 말했다. “글쎄요. 음. 아니,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조카입니까?” 낮선 사나이가 말했다.

“글쎄요.” 조가 좀 전과 같이 엄청 심사숙고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얘는 제 조카가 아닙니다. 아니, 당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애는 제 조카가 아닙니다.”

“이런 젠장 그럼 이 애가 뭐란 말이오?” 낮선 사나이가 분통을 터트리며 말했다. 내가 봤을 땐 그(낮선 사나이)가 필요이상으로 열을 내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웹슬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남자가 결혼하지 말아야할 여자관계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던 교회서기였기 때문이다. 웹슬 씨가 나와 조의 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었다.

모든 설명을 마친 웹슬 씨가 「 리처드 3세 」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세는 15세기 말 영국의 사악한 군주, 조선의 세조와 비슷함)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굉장히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낭독하는 것으로 자 신의 설명을 마쳤다. 그리고 설명이 충분했다고 스스로도 여겼는지 이런 말을 끝에 덧붙이는 센스도 보여주었다. “시인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꼭 얘기해두고 싶다. 웹슬 씨는 나에 대해 설명하 면서 내 머리를 손으로 구겨 내 머리카락이 내 눈을 쑤시게 하는 것이 웹슬 씨 자신의 설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양 행동하더라는 것이다. 웹슬 씨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우리 집에 들렀던 그와 비슷한 위치(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해 나를 자극했는지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억에 떠오르기를, 내가 심지어 그때보다 더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서 벌어졌던 사교모임의 주제가 내가 될 때면 꼭 큰 손바닥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후원하겠다는 양 그와 같은 안과조치들(주인공의 머리를 손으로 구겨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게 하기)을 취했었기 때문이다.

이 오랫동안 내내, 낮선 사나이의 시선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젠 정말 마지막 한 방을 쏘아서라도 나를 떨어뜨리고 말겠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젠장”이란 욕설을 내뱉고 난 후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럼주에 물을 탄 것이 나왔을 때까지 말이다. 럼주가 나오자 그가 발사를 했다. 그것도 가장 특이한 한 방식의 발사였다.

그것은 구두 발언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진 무언의 동작이었다. 그것은 나를 신랄하게 지목한 행동이었다. 그는 나를 비난하듯이 물탄 럼주를 휘저었다. 그리고 나를 힐난하듯이 물탄 럼주의 맛을 보는 것 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물탄 럼주를 휘젓더니 맛을 보았다. 그건 그에 게 서비스된 스푼이 아니었다. 그건 바로 말 그대로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이었다.

그가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줄을 본 사람은 없었다. 물탄 럼주를 마저 휘저은 후 줄을 닦더니 자기 가슴 안주머니에 그 줄을 집어넣었다. 그 도구(줄)를 보는 순간 난 직감했다. ‘저건 조(매형)의 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죄 수를 안다는 사실을.’

내가 넋을 놓고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자, 그는 이제 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은 채 주로 순무우(먹는 무) 들에 관한 얘기를 했다.

우리 마을에는 토요일 밤이면 한 주일을 새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청소나 정리를 하는 달콤한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조(매형, 대장장이)는 다른 날에 비해 토요일엔 감히 누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30분이나 더 앉아 있는 만용을 보이곤 했다. 30분이 자나 물탄 럼주가 다 떨어지자 조가 가려고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가저리 씨(매형 이름).” 낮선 사나이가 말했다. “내 생각에 호주머니에 2만 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을 넣고 온 것 같소, 만약 그게 아직도 내 호주머니에 있다면, 그걸 이 꼬마에게 주고 싶소.”

그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움큼 꺼내더니 지폐를 찾았다. 지폐 한 장이 쭈글쭈글 구겨진 채 동전 사이에 껴있었다. “네 것이다!” 그가 말했다. “명심해라! 이건 네 것이다.”

나는 바른 예의의 범위를 한 참 벗어난 채 그를 빤히 쳐다보며 “감 사합니다.”란 인사말을 한 후 조의 손을 꽉 붙잡았다.

그가 조에게 “잘 가시오”란 인사를 건넸다. 웹슬 씨(교회서기)도 우 리와 함께 나왔다. 그는 웹슬 씨에게도 “잘 가시오”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그의 겨냥하는 눈이 나를 한 번 흘낏 보았다. 아니, 아니 쳐다본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란 한쪽 눈을 감은 채로도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게 만약 유머를 즐길 기분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모든 대화는 내가 했을 것이다. 말 많은 웹슬 씨(교회서기)도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 문 앞에서 우리와 헤어졌겠다, 그리고 조(매형, 대장장이)는 지금 집으로 가는 내내 럼주를 가능한 한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많은 밤공기로 들어 마시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채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내 오랜 비행(집에서 빵을 훔쳐 죄수에게 건네 준 것)과 내 옛 지인이 나타난 것에 그만 얼이 나가 이거고 저거고 간에 도무지 말할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부엌에 출몰했을 때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의 기분은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유별난 상황에 흥이 났는지 조 (주인공의 매형)가 누나(주인공의 누나)에게 2만 원짜리 지폐 얘기를 꺼냈다.

“위조지폐 아냐? 내 장담하지.”라며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의 기양양하게 말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딴 꼬마 녀석에게 2만원을 왜 줬겠어! 한 번 봐봐.”

내가 종이를 건네주었고 조 부인의 정밀 점검 결과 그 지폐는 진짜로 판명 났다. “에구머니나 이게 뭐람?” 조 부인이 지폐를 불빛에 비춰보다 말고 깜짝 놀라 말했다. “이거 50만 원짜리 수표 두 장 아냐?”

그야말로 50만 원짜리 수표 딱 두 장이었다. 그것도 읍내에 있는 가 축시장이란 가축시장은 다 돌아다니며 온갖 친밀한 계약과정엔 다 참여했을 것 같은 수표였다. 땀에 흠뻑 젖은 두 장의 수표였다.

조(매형)가 급히 모자를 다시 챙겨 쓰고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선원 들’(술집이름)로 뛰어갔다. 수표의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조가 술집으로 뛰어간 동안, 나는 내 전용 의자(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내 누나만 멍청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낮선 사나이가 벌써 술집에 없을 거라고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곧 조(매형이름)가 돌아왔다. 그 남성이 가버리고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는 그 사나이가 아니라 술집주인에 수표와 관한 말을 남기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 누나가 수표 두 장을 종이로 감싸 봉한 채, 그것을 응접실에 있는 찬장(가구) 위에 있는 장식용 찻주전자 안에 집어넣었다. 누나는 그 위에 다시 마른 장미 이파리 두 장을 얹어놓은 후 안심했다. 그 수표 두 장은 수많은 밤과 낮 동안 내게 악몽인 채로 그 장소에 있었다.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난 산산조각 난 잠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총으로 나를 겨누고 있을 낮선 사나이에 대한 생각과 죄수들과 비밀스 러운 음모 관계였다는 꺼림칙한 상스러움과 그것이 저속한 짓이라는 생각이 밤새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이전에는 잊고 있었던 내 밝지 않은 경력의 한 얼굴이다.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 주인공이 죄수에게 건네준 것)에 관한 생각도 나를 불안에 떨게 한 요 소들 중 하나였다. 내가 가장 예측하지 못할 때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이 다시 나타나리라는 불안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밤이었다.

나는 그나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간다는 생각으로 나를 구슬리며 잠이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문에서부터 내게로 다가오고 있는 줄을 보았고 누가 그 줄을 들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위대한 유산**

**11장**

지정된 시간에 나(주인공, 아직은 꼬마)는 미스 해비샴의 저택으로 다시 갔다. 멈칫거리며 종을 누르자 에스텔라(주인공 또래의 소녀)가 문까지 나와 주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지난번처럼 문을 잠갔다. 그녀가 앞장 서며 나를 어두운 통로 쪽으로 안내했다. 통로 입구에 촛불이 놓여있 었는데 그 촛불을 집어들 때까지 에스텔라는 나를 철저히 무시하는 눈치였다.

어깨 너머로 나를 대충 훑어보던 그녀가 건방진 목소리로 말했다. “넌 오늘 이쪽 길로 가야해.” 그러더니 나를 저택의 또 다른 길로 안 내했다. 전과는 완전히 딴 쪽이었다.

복도는 아주 길었고 ‘매너 하우스’(‘영주의 대저택’이란 뜻)의 사각형 모양 지하층 전체에 고루 펼쳐져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각형의 한쪽만 횡단한 것이었다. 그녀가 복도 끝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촛불을 내려놓은 후 문을 열었다.

이리로(여기로) 햇빛이 다시 나타났다. 내가 포장된 작은 안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뜰 맞은편에 외따로 떨어진 주택이 하나 서 있었다. 아마 한때는 ‘문을 닫은 맥주공장’의 감독이나 주임이 사용하던 건물 같았다.

그 주택의 바깥벽에 시계가 하나 달려 있었다. “미스 해비샴의 방에 있던 시계”와 “미스 해비샴의 손목시계”처럼 그 시계도 정확하게 9시 20분을 가리킨 채 멈춰서 있었다.

우리는 문 쪽으로 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1층 뒤쪽에 있는 방이었고, 천정이 낮고 어두운 방이었다. 이미 몇몇 일행이 방안에 자리잡고 있었다(손님들이 몇몇 있었다).

그들과 합류하면서 에스텔라가 내게 말했다. “넌 저쪽에 가서 부를 때까지 서 있어, 이 꼬마야.”

그녀가 말한 “저쪽” 그러니까 창가에 서 있기 위해 난 방을 가로질러 가 “저쪽”에 서 있었다. 나는 아주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 그래서 밖을 내다봤다.

공터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방치된 정원에서도 가장 보잘 것 없는 구석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거기(구석)엔 양배추 줄기들이 부패한 채 엉망으로 널려 있었고, 아주 오래전에 짧게 깎인 것 같은 회양목(우 리나라 아파트 단지 도로 옆에 둥글게 가지와 잎을 잘라 놓은 것, 크게 자라면 7m까지도 자라는데-\_-;;) 한 그루도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회양목이 꼭 푸딩(서양과자)처럼 생겼다. 짧게 깎인 회 양목 위에 다시 새로운 회양목이 자라서 형태도 제각각 색깔도 제각각이 된 회양목이었다. 마치 푸딩 덩어리가 냄비에서 안 나겠다고 자기 고집만 부리려다가 불에 홀딱 타버린 것 같았다. 이것은 내가 회양목을 바라보며 가졌던 내 속 편한 생각이었다.

밤새도록 눈이 적게 내렸었다. 내가 알기로는 읍 어디에도 눈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이쪽 정원 구석의 춥고 그늘진 곳에 아직 녹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바람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그 눈들을 휘감아 내가 있는 창 쪽으로 내던지며 나를 바보취급 했는데, 마치 눈과 바람이 내가 자기들을 본 것에 대한 화풀이로 나를 녹여버리려는 것만 같았다.

내 출현(등장)이 방안의 대화를 끊었다는 사실과 방안의 점유자들(손 님들)이 하나같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난 곧 간파했다(직감적으로 알았다).

내가 바라보고 있던 창유리에 비친 방안 난로불빛을 제외하고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지금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모든 관절이 아파왔다.

방안에는 세 명의 숙녀들과 한 명의 신사가 있었다. 하지만 난 내가 창가에 서 있은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같이 모두 아첨 꾼들이거나 협잡꾼(사기꾼)들이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물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아첨꾼이고 협잡꾼(사기꾼)인 것을 모르는 체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그 사실(상대방이 아첨꾼이다)을 인정하면 자기들도 또한 또 한 명의 아첨꾼이고 협잡꾼(사기꾼)이란 사실이 들통 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 모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태도로, 지루한 태도를 취하며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숙녀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수 다스러워 보이는 숙녀는 하품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기 위해 아주 경직된 채 대화를 하고 있었다.

방금 말한 그 숙녀의 이름은 ‘카밀라’(←독자가 100% 몰라도 되는 이름임, ‘카밀라’란 수다쟁이여자란 뜻임)이다. 그녀의 얼굴은 우리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와 많이 닮았다. 하지만 카밀라가 우리 누나보단 더 나이가 많았고 카밀라의 얼굴이 어딘가 더 둔해보였다. 물론 나는 이 모두를 그녀를 처음보자마자 알아챘다.

사실대로 말해 내가 그녀의 얼굴을 좀 더 잘 파악했을 땐 그녀의 얼굴이 그나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모로 보다 그녀 자신에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문이 없는 벽 같았다. 무표정했고 얼굴이 위 아래로 너무 길었다.

(아래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름들 모두 전혀 몰라도 됨, 모두 엑스트라 들임)

“아, 불쌍한 영혼!” 내가 말한 여성(카밀라, 수다쟁이)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까지 우리 누나를 꼭 빼닮아 놀랐다. 카밀라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적이라니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이 더 훌륭했을 텐데 말이죠.” 신

사가 말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테고요.”

“레이몬드 오빠(사촌오빠),” 또 다른 여성이 의견을 말했다. “우리이 웃을 사랑해야 해요.”

“세라 포킷아,” 레이몬드 사촌이란 그 신사가 되받아쳤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면 누가 이웃이겠어?”

포킷 양(아가씨)이 웃었다. 그리고 카밀라도 하품을 가까스로 참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들은 그 신사가 한 말(그자에겐 이웃도 없을 것이다)이 시기적절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아직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다른 여성이 엄숙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이지 뭘 그래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나(주인공)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아, 불쌍한 사람!” 카밀라가 곧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작자예요! 누가 믿을까만, 글쎄 톰(←독자가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이름임, 디킨스가 그냥 쓴 이름임)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아이들이 엄마의 죽음을 애도하는 데 있어서 색깔이 짙은 장식들을 아이들의 옷에 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실패했지 뭐예요.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밀라, 하느님 맙소사! 엄마를 잃은 저것들이 검은 옷만 입으면 되었지 그게(색깔이 짙은 장식들을 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라 고요. 정말 매튜답지 않아요! 나 원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하다니!”

“그(이름이 ‘매튜’, 소설 중반부터 등장하게 될 인물임)에게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암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말고요.” 레이몬드 사촌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한다면 하늘이 절 용서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의범절에 관한 센스(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구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말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톰의 가족들 명예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저는 이 얘기도 이런 했었어요. ‘색깔이 짙은 장식들을 아이들 옷에 달지 않으면 톰의 가족들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라고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전 아침식사시간 때부터 저녁식사시간 때까지 마구 울어댔죠. 제가 얼마나 그 일에 열을 냈는지 제가 그만 소화불량에 걸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무섭게 화를 내며 제게 욕지거리를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라.”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감사하시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 지만 전 그 즉시 외출을 해서는 장례식 날 쓸 물건들(장례식 날 옷에 다는 장식들)을 다 사가지고 돌아왔지요. 이 일은 언제나 제게 위로가 된답니다.”

“돈은 그 분(매튜)이 내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에스텔라가 쏘아 붙였다.

“누가 돈을 냈는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란다, 얘야.”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되받아쳤다. “그걸 내가 나가 사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는 밤에 잠에서 깨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때 일에 대해 종종 생각해볼 거고.”

멀리서부터 울러 퍼진 “종소리가” 내가 지나온 통로(복도)를 향해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은 “메아리” 혹은 고함치는 것 같은 “메아리와 결합했다.”

방안에서 벌어지던 대화가 중단되었다. 메아리 소리를 듣더니 에스텔라가 내게 말했다. “자 네 차례야 꼬마야!”

창문 밖을 바라보던 내가 방안 쪽으로 몸을 돌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최대한의 경멸을 담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세라 포킷’(미스 해비샴의 친척,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임)이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을 데가 있죠!” 그러자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더 분개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담! 이건 말도 안 돼요!”라고.

우리는 촛불에 의지한 채 어두운 통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에스텔라가 멈춰 섰다. 그녀가 방향을 돌리더니 그녀의 얼굴을 내 얼굴에 아주 가까이 들이댔다. 물론 악담을 내게 퍼부으면서.

“응?”

“응이라니요, 아가씨?” 하마터면 그녀에게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가 까스로 멈춰서며 내가 대답했다.

그녀가 나를 자세히 살펴보며 서 있었다. 당연히 나도 그녀의 얼굴 을 뚜려지게 쳐다보며 서 있었다.

“내가 예쁘니?”

“예, 아주 예쁘신 것 같아요.” “내가 무례하니?”

“지난번만큼은 무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1

“흥 지난번만큼은 무례하지 않다고?” “예.”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할 때 발끈했었다. 그녀가 있는 힘껏 내 뺨을 “찰싹” 때렸다. 그건 내가 막 그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던 순간이었다.

“지금은?” 그녀가 말했다. “이 작고 천한 괴물아, 지금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말하지 않겠어요.”

“뭐? 위층에 올라가서 다 말하려는 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왜 울지 않지, 이 어린 철면피야?”

“아가씨 때문에는 다시 울진 않을 거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건 거 짓말이었다. 그 말을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여전히 거짓선언인 채 내 안에 남아있다. 왜냐하면 난 그때도 이미 그녀 때문에 마음 속 깊이 울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난 그녀 때문에 늘 고통 받아 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 사건(그녀가 주인공의 뺨을 때린 사건)이 있은 직후 우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가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손으로 더듬으며 내려오고 있는 한 신사 분(남자주연, 소설 중반부터 나옴)과 우리는 마주치게 되었다.

“저 아이가 누구냐?” 그 신사 분이 걸음을 멈추면서 그리고 나를 내 려다보며 말했다.

“그냥 꼬마에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그는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다. 그리고 피부색이 몹시도 어두운(짙은) 남성이었다. 머리 크기가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남성이었고, 머리 크기에 호응하기 위함인지 그 남성의 손은 지나치게 커보였다.

그가 자신의 그 커다란 손으로 내 아래턱을 들어 올리더니 촛불에 내 얼굴을 돌려가며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제 보니 그는 나이에 비해 그의 머리 윗부분이 너무 빨리 대머리가 된 경우였다. 그의 검은 눈썹은 너무 텁수룩해서 누워있지 않고 곤두서 있겠다고 우기는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얼굴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워 보였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대단히 많아보였다. 그는 큰, 회중시계(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시계)의 쇠줄을 지니고 있었다(쇠줄이 컸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짙은 검은색 반점들이 많았는데, 만약 그가 면도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면 그곳(검은 색 반점들)에 턱수염과 구레나룻가 낳을 위치였다.

그는 내게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때는 나도 그가 어떤 식으로 내게 중요성을 뛰며 다가올지를 전혀 예측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호기(좋은 기회)가 때마침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봐, 이 동네 아이냐?” 그(변호사, 남자주연, 변호사 시작을 아동 범죄담당변호사로 시작했고 지금은 런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사임, 미스 해비샴의 고문변호사)가 물었다.

“예, 어르신.” 내(남자주인공, 아직은 꼬마)가 대답했다. “어떻게 여길 왔지?”

“미스 해비샴 마님께서 부르셔서요, 어르신.” 내가 설명했다.

“이런! 얌전하게 굴어라! 소년에 대해서라면 나도 꽤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너희 소년들은 끼리끼리 모여 나쁜 짓들을 하는 세트야. 자 명심해두어라!” 그가 엄청나게 기다란 자신의 집게손가락 옆을 자기 이빨로 물면서 그리고 나를 노려보며 말을 했다. “여기선 얌전히 굴어 라!”

그 말을 마치자 그가 나를 놓아주었는데 어찌나 기쁘던지. 그의 손에서 향기로운 비누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궁금해졌는데 ‘그가 혹시 의사인 가?’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의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의사일 수도 없다. 의사였다면 좀 더 조용히 좀 더 설득력 있게 내게 말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주제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신사를 떠나 보낸 후 내가 곧 미스 해비샴의 방 앞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녀(미스 해비샴)와 그 밖의 모든 물건들이 정확히 내가 그 방을 떠나올 때와 똑같이 놓여 있었다. 문 가까이에 나를 세워둔 채 에스텔라가 가 버렸다. 나는 미스 해미샴 마님이 화장대에서 내게로 고개를 돌릴 때까지 문 가까이에 가만히 서 있어야했다.

“그랬군!” 그녀(미스 해비샴, 중년여성)가 별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말했다. “날짜가 지난거야, 그렇겠지?”

“예, 마님. 그러니까 오늘이….”

“됐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해라!” 그녀가 손가락들을 성마르게(성 급하게) 흔들어 대며 말렸다. “날짜는 알고 싶지 않다. 그래 놀 준비는 되었겠지?”

약간의 혼란을 경험하며 나는 내가 대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말했다. “마님, 제 생각에 제가 아직….”

“카드놀이를 다시 하는 건 어떻겠니? 그건 할 수 있겠지.” 그녀가 내 의견을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요구했다.

“예, 마님.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이 집이 네게 낡고 무덤 같은 인상을 준다 이거겠지, 그

렇지?” 미스 해비샴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래서 기꺼이 놀지는 못 하겠다 이거고. 어떠니 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다른 질문’(놀거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잘 ‘이 질문’(일할래?)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음을 뻔할 뻔자다. 나는 내가 기꺼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말 씀드렸다.

“좋아. 맞은 편 방에 들어가 있어라.” 그녀가 내 뒤쪽에 있는 방문을 그녀의 바짝 마른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갈 때까지 저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는 (실내에 있는) 계단(의) 방문을 넘어 그녀(미스 해비샴, 37세)가 가리킨 방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간 그 방 역시 햇빛이 단 한 줄도 들어오지 않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 바람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후텁지근한 곰팡이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었다.

습기 차 보이는 구식 벽난로가 방안에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불을 지핀(붙인) 것 같았다. 불이 타고는 있었는데 활활 타오르지는 못하고 곧 꺼지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그 벽난로로부터 마지못해 피어오른 연기가 방안 가득 꽉 버티고 서 있었는데 바깥 맑은 공기보다 훨씬 더 추워 보였다. 꼭 우리 늪지대의 안개 같았다.

“벽난로 위에 있는 높은 선반 위”에 “황량한 나뭇가지 같은 촛불들”이 몇 개가 있어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촛불들이 방안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방안의 어둠을 약간 더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었다.

방은 널찍했다. 용기내 말하자면 그 방은 한 때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방이었음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한 가득 뒤덮어 있었고 그 먼지와 곰팡이가 이제 뚝뚝 조각조각 떨어지고 있었다.

당장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넓게 펴진 식탁보(천)로 뒤덮인 긴 식탁이었다. 그 식탁은, 이 집과 시계들이 모두 함께 멈춰버린 날, 어떤 대규모 축하연(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식탁 위에 있는 큰 케이크 자르기 행사)이 베풀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식탁 중앙의 장식 접시” 또는 “식탁 중앙에 놓는 어떤 종류의 장식물” 같은 물체가 식탁보 중앙에 놓여 있었다. 그 물체 위로 거미줄들이 아주 심하게 매어 있어서 그 물체의 형체를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중앙의 물체 바깥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노란색의 무언가를 따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것은 마치 검은 버섯처럼 보였고 아직도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얼룩투성이인 몸통에 작은 반점을 있는 다리들을 가진 “거미 들”이 “중앙에 있는 그 물체”를 자기 집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시 그것에서 나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마치 “거미 지역공동체”에 지금 막 가장 중요한 공적인 사무가 발생한 것만 같았다.

나(주인공, 아직은 꼬마, 10살)는 쥐가 칸막이벽 뒤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도 들었다. 마치 거미사회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그 중대 사무(주인공의 등장)가 쥐들의 이해관계에도 동일하게 중요함을 덜거 덕거리는 소리로 표명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검은 색 딱정벌레들만은 이런 동요에 전혀 미동치 않았는데, 나이 많고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운 몸을 이끌며 난로 바닥 주위를 이 리저리 손으로 더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마치 딱정벌레들은 근시이고 귀가 안 들려 거미나 쥐들의 동태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만 같았다.

불행히도 내 마음은 이들 기어 다니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다. 그때 미스 해비샴이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그녀가 오는 줄도 모르고 벌레들에 온통 정신이 팔린 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미스 해비샴은 다른 쪽 손에 지팡이를 쥐고서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윗부분에 나무그릇이 다린 지팡이”이었다. 그녀의 모습이 이 곳 (폐허가 되어 각종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먼지투성이 거미줄투성이 방)에 사는 마녀같이 보였다.

“이것은,” 그녀가 지팡이로 기다란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죽어 누울 자리다. 그럼 그들이 오겠지. 여기 누운 나를 보려고 말이다.”

그녀가 당장 식탁 위로 올라가 그 즉시 죽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과 그렇게 되면 내가 예전에 박람회장에서 본 송장 같은 밀랍 인형이 지금 당장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나는 그녀의 손아래에서 움츠러들고 말았다. (소설 앞부분에서 주인공이 박람회장에서 실물과 똑같이 만든 밀랍 인형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음. 밀랍 인형은 당시 유명한 어떤 영국정치인을 본떠 만든 밀 랍 인형이었음. 각 지역을 돌며 추모행사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 유명인사가 죽으면 그렇게 하는 게 당시 유행이었다고 함)

“저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미스 해비샴, 37세)가 지팡이로 다시 지목하며 물었다. “저거 말이다, 거미집들이 쳐져 있는 저거 말이다?”

“뭔지 모르겠어요, 마님.”

“큰 케이크다. 웨딩케이크였지. 내 웨딩케이크!”

그녀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방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내 어깨를 짚고 있던 그녀의 손에서 경련이 느껴졌다. 그녀가 말했다. “가자, 어서, 저리로! 나를 걷게 해 다오, 나를 걷게 해다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미스 해미샵 마님이 방안을 빙글빙글 돌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란 걸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즉시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기대며 걸었다. 내가 이 집 지붕 아래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한 것이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의 ‘2륜 경마차’ (바퀴 두 개인 마차)”였다. 우리는 지금 그의 2륜 경마차와 같은 걸음걸이 속도를 내며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했다. 잠시 걷던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좀 더 천천히!” 우리는 여전히 성급하고 변덕스러운 속도를 유지 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런 뒤죽박죽 페이스로 걷는 동안 내 어깨 위에 있던 그녀의 손이 경련이 일으켰고, 그녀의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지금 빠르게 걷고 있다’라고 그녀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가 생각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에스텔라를 불러다오!” 그래서 내가 층계참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좀 넓은 공간)으로 나가 지난번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을 함부로 고함쳐 불렀다. 에스텔라가 든 촛불이 나타났다. 나는 미스 해비샴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우리(미스 해비 샴과 주인공)는 다시 방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만약 에스텔라 혼자서만 방으로 와서 우리의 행동들을 보았어도 나는 충분히 불유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나(ㅜ\_ㅜ) 그녀 혼자만 온 것도 아니라 아까 내가 아래층에서 만났던 세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을 동행하고서 에스텔라가 나타난 것이다. 난 이제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예의상이라도 멈춰야 할 것 같아서 멈추려는데 미스 해비샴(37세, 여자주연)이 내 어깨를 홱 잡아당겼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걸었다. ‘모두들 내가 꾸민 짓이라고 생각하겠지’ 싶어 엄청 창피해하며 나는 걷고 있었다.

“친애하는 미스 해비샴 마님은,” 세라 포킷(여자이름, 미스 해비샴의 친척)이 말했다. “안색이 어쩜 저리 좋으실까!”

“안색이라니,” 미스 해비샴이 되받아쳤다. “비쩍 마른 뼈와 누른 거 죽만 남은 사람에게.”

세라 포킷 양이 퇴짜를 맞자 카밀라(수다쟁이여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카밀라가 미스 해비샴을 애처롭다는 듯 바라보더니 이렇게 투덜거 렸다. “저 가엾은 영혼 좀 봐! 확실히 이젠 밝은 구석이라곤 어디에도 없네. 가엾어라! 원!”

“그래 넌 어떻게 지내느냐?” 미스 해비샴이 카밀라에게 물었다. 그때 우리(미스 해비샴과 주인공꼬마)는 카밀라에게 다가가고 있었기 때 문에 내가 당연히 멈추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미스 해비샴은 멈추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카밀라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 모든 행동을 내가 먼저 꾸민 것이라 생각할 테니 카밀라가 엄청 불쾌해하지나 않을까 하 는 걱정이 들었다.

“고마워요, 미스 해비샴 마님.” 그녀(카밀라)가 대답했다. “마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죠.”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냐?” 미스 해비샴이 도가 지나칠 만큼 날카롭게 물었다.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치라곤 없지만 서도,” 카밀라가 계속 말했다. “제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서도, 마님, 저는 밤이면 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감당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요, 마님.”

“그러면 내 생각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라며 미스 해비샴이 쏘아 붙였다.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요, 마님!”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윗입술을 내민 채 흐느껴 울려다 상냥하게 억누르며 발언했다. 엥?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말했다. “레이몬더(카밀라의 남편, 사기꾼)가 증인이에요, 마님. 제가 밤마다 얼마나 많은 ‘생강과 탄산암모니아’(생기를 북돋아주는 것들임)를 복용하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지요. 레이몬더가 증인이에요, 마님. 밤마다 제 두 다리가 얼마나 많은 신경성 경련을 경 험하는지요. 하지만 ‘숨이 가빠오는 것’과 ‘신경성 다리경련’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할 때면 널 저와 함께하는 것들이니까요. 만약 제가 덜 애정이 깊고 덜 예민했더라면, 제 소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었을 것이고 전 무쇠(강철)덩어리 같은 신경을 가졌을 텐데요. 확실히 그렇 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으련만. 하지만 밤에 마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는 것은…, 원, 설마!, 그건 말도 안 되고말고요!” 이 마지막 부분을 강 조하면서 그녀(카밀라, 수다쟁이여자)는 폭풍 같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카밀라)가 말한 레이몬드(사기꾼)라는 사람이 지금 이 방에 있는 저 신사라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카밀라의 남편이라는 사실도 막 이해했다.

그(레이몬드)가 이 지점에서 아내(카밀라, 수다쟁이여자)를 구조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더니 “그녀를 위문”하며 그리고 “아내의 마님에 대한 애정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 “카 밀라, 이 상냥한 여인아, 가족(친척인 미스 해비샴)에 대한 당신의 애정이 당신의 체력을 서서히 체력을 약화시켜서 급기야 당신 한 쪽 다 리가 다른 쪽 다리 보다 더 짧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야.”

(아래에 나오는 세 명의 여성이름 모두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인물들 임. 엑스트라임. 소설 전체 줄거리와 전혀 상관없음. 연관성 0%. 그냥 “먼 친척들이 돈 많은 미스 해비샴을 어떻게든 우려먹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임.)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걸요.” 내가 목소리를 딱 한 번밖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엄숙한 표정의 여성(독자가 알 필요 없는 등장인물임)이 논평을 내놓았다. “누군가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큰 대가를 바래도 되는 건가요? 친애하는 카밀라 씨.”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세라 포킷 양’(결혼 안 한 할머니)이 이 발 언을 지지하며 말했다. 그 전에 잠깐 이 여성(세라 포킷 양)의 외모를 묘사하자면, ‘세라 포킷 양(할머니)’은 깡마르고 작은 체구에 갈색피부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엄청 많이 잡힌 노파(할머니)였다. 그녀의 자그 마한 얼굴은 마치 호두껍데기로 만들어진 것 같이 주름이 많았다. 고양이 입같이 큰 입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실제 고양이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녀에겐 고양이 수염이 없었다. 그녀(세라 포킷, 미스 해비샴의 친척)가 자기 자리에 단단히 버티고 선 채 이렇게 말했다. “안 그런가 요? 카밀라 씨. 에헴!”

“생각하는 거야 충분히 쉬운 일이니까요.” 엄숙한 표정의 여성이 동의하며 말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죠?” 세라 포킷 양(할머니)도 동의했다.

“오, 그래요, 그래!”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울면서 고함을 꽥질렀 다. 그녀는 이제 동요하는 감정들이 그녀의 다리에서부터 그녀의 가슴으로까지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애정이 너무 넘치는 것이 제 약점인 걸요, 저도 그걸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제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테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전 제게 주어진 이 기질을 바꾸지 않을 거랍니다. 비록 제게 수많은 괴로움을 주었지만, 어쨌건 제가 밤에 깰 때면 제가 그런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제게 위안거리니까요.”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도 북받쳐 오르는지 또 한 번 눈물을 왈칵 터뜨렸다.

지금껏 내내 “미스 해비샴(37세)과 나(꼬마, 10세)”는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방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어떨 때는 방 문객들의 스커트를 휙 스쳐 지나갔고, 또 어떨 때는 이 음침한 방 저쪽 끝에서 그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매튜(소설 중반에 나오는 남자조연)를 보세요!” 카밀라(수다쟁이여 자)가 말했다. “그가 어디 친척들이랑 어울리려고 하나요? 그가 언제 미스 해비샴 마님께 와서 안부를 여쭌 적이 있었나요? 사실 제 자랑 같지만, 전 제 코르셋(허리를 조여 주는 속옷) 끈이 끊겨 의식불명인채 소파에 누워 장장 세 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그래도 오직 마님께 안부를 여쭈기 위해 이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소파에 쓰러져 있을 때 제 머리는 소파 바깥에 있었고 머리카락들은 온통 산발이 되어 아래로 쳐져 있고, 가만 있자 그때 내 다리는 어디에 있었담?”

“당신 다리는 머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소, 내 사랑.” 카밀라 씨 (남편)가 말했다.

“그래요. 그런 상태로 몇 시간을 의식불명인 채 누워 있다 왔다고요. 그건 모두 이상하고 이해 불가능한 매튜의 정신 나간 행동들 때문이었 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제게 고맙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 예요.”

“당연히 안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니.” 엄숙한 표정의 여성이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알아들었니? 얘야.” 온화한 척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세라 포킷 양’(결혼 안한 할머니)이 덧붙였다. “네 자신에게 던져야할 질문은 누가 네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길 네가 기대했느냐가 되어야해, 알겠니? 얘야.”

“고맙다는 말은 기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것도 기 대하지 않았어요.” 카밀라(수다쟁이여자)가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저는 몇 시간이고 그런 의식불명인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 있는 레이몬드(카밀라의 남편)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숨이 막힌 상태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강(생강은 기운을 북 돋아주는 음식)을 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지? 제가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의 집에까지 들렸데요. 다만 불쌍한 아이들이 제 신음소리들을 멀리서 비둘기들이 구구구 우는 새소리로 오해했음이 분명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듣고 있는 소리라고는….” 이 말을 하던 카밀라가 손을 목으로 가져갔다. 그 러더니 이 방에서 그냥 이 참에 새로운 짜 맞추기의 결판을 보겠다는 양 격렬한 화학반응(격하게 울기)을 시작하는 것이다.

매튜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스 해비샴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녀 자신도 멈춰 섰다. 미스 해비샴이 카밀라를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미 스 해비샴의 이러한 변화는 카밀라가 화학반응(격하게 울기)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매튜도 결국 여기 와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미스 해비샴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저 식탁 위(케이크가 있는 식탁 위)에 눕게 되면 말이다. 저기 바로 저 자리에 그가 서 있을 것이다.” 미스 해미샴이 쥐고 있던 지팡이로 식탁 위를 후려치면서 계속 말했다. “내 머리 맡에 서 있겠지. 그럼 네(카밀라, 수다쟁이여자) 자리는 저기고, 네 남편 자리는 저길 테고! 그래 세라 포킷(결혼 안한 할머니, 겉과 속이 다른 여인) 당신 자리는 이쪽일 테지! 그리고 조지아나(앞에서 말한 엄숙한 표정의 여자,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임, 이후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님) 네 자리는 이쪽일 테고! 나를 먹어치우러 올 때 각자 식탁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제 잘 알았겠지. 그럼 이제 가봐!”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미스 해비샴은 지팡이로 식탁 위 새로운 장소를 후려쳤다. 그녀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를 걷게 해다오, 나를 걷게 해 어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방안을 걷기 시 작했다.

“그런 건가요.” 카밀라가 소리쳤다. “순응하고 떠나는 수밖엔 없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제 사랑과 대상이자 의무의 대상인 마님을 뵙게 된 것이 제겐 얼마나 뜻 깊은지 모른 답니다. 제가 밤에 깨 이번 일에 대해 생각해볼 때면 울적하다가도 만족스러울 거예요. 매튜 그 사람도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는 원체 이런 걸 멸시하는 사람이니까. 여길 올 때 전 제 감정들을 다 표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저희를 마치 거인인 양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보고 친척의 재산을 먹어치우려는 사람인 양 대하시며 가버리라고만 하시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된 다고요!”

카밀라 부인이 들썩거리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자 카밀라 씨(남 편)가 부인을 달래기 위해 다가왔다. 그러자 카밀라 부인은 부자연스러울 만큼이나 꿋꿋한 채했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녀가 이 방을 나가자마자 확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다. 적어도 그런 확연한 의지를 미스 해비샴에게 어필하려는 듯 보였다. 뭐 어쨌든 카밀라 부인이 자기 손에 키스를 해 미스 해비샴에게 인사를 보냈다. 그런 후 카밀라 부인은 남편의 부축을 받아가며 방에서 나갔다.

세라 포킷(결혼 안 한 할머니, 겉과 속이 다른 여인)과 조지아나(엄숙한 표정의 여인)는 누가 맨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나갈 것인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라 포킷은 너무나 빈틈이 없는 여자였다. 세라 포킷이 조지아나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약삭빠르게도 조지아 나를 빙 돌아 느긋하게 걸어나가는 바람에 결국 마지막 남은 조지아나가 먼저 방을 나가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때서야 세라 포킷(할머니)이 “몸조심하세요, 미스 해비샴 마님!”이라며 별도의 작별 인사를 했다. 세라 포킷은 나머지 사람들(카밀라 부부와 조지아나)의 나약함에 대해 자기 딴에는 아주 불쌍히 여긴다는 듯한 미소 한 방을 그 호두껍데기 같은 얼굴표정으로 한 가득 마구 날 리며 방을 나갔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에스텔라가 촛불을 들고 비춰주기 위해 방을 나간 사이에도, 미스 해비샴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져만 갔다.

결국 벽난로 앞에 이르자 그녀가 멈춰 섰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 벽 난로를 몇 초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이 내 생일이란다, 핍.” (핍은 주인공이름, 10세)

내가 막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녀가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제지했다(막았다).

“난 누가 내게 그런 말(생일축하인사)을 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단다. 방금 여기에 있던 그자들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매년 이날이면 저들이 여길 오지만 감히 내게 그런 말을 건네 지 못하지. 내가 용납지 않으니까.”

물론 나는 그 말(생일축하인사)을 더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매년 이 날이면, 그래 네(주인공꼬마)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 부패더미(결혼식 케이크)가….” 그녀가 “나무그릇이 달린 지팡이”로 “식탁위에 있는 거미집들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지팡이로 그걸 건드리지는 않았다. “저 부패더미(케이크)가 여기로 배달되어 왔지, 네(주인공꼬마)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말이다. 쥐들이 저걸(케이크) 괴롭혀왔어, 쥐들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이발들이 내 신경을 갉아먹어왔듯이.”

그녀(미스 해비샴, 37세)가 “지팡이의 머리 부분”을 자기 심장에 갖다 댔다. 그녀는 그런 자세로 식탁을 쳐다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한때 입었을 하얀 드레스, 이젠 완전히 누렇게 변해 쭈글쭈 글해진 그 드레스,” “한때는 식탁 위를 덮고 있었을 하얀 식탁보, 이젠 완전히 누렇게 변한 나머지 쭈글쭈글해진 저 식탁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손으로 한 번 건드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가루로 변하고말 상태에 있었다.

“모든 게 폐허로 변해버릴 때면.” 그녀가 시체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들이 내 시체를 저기(식탁) 위에 눕힐 것이다. 신부복을 입힌 채 말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자(결혼식 피로연 때 나타나지 않은 신랑, 미스 해비샴의 재산을 노렸고 실제 상당한 재산을 들고 튄 지능형 사기꾼,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저주도 마 무리 될 것이야. 그 저주가 내 생일날 완성된다면 훨씬 더 좋겠지.”

마치 식탁 위에 누워 있을 자신의 시신이 보인다는 듯이 그녀가 지금 그곳(식탁 위)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에스텔라가 돌아왔다. 그리고 에스텔라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채 서 있었던 것 같다.

방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그 방은 구석구석 무거운 어둠을 품고 있었다. 내가 심지어 ‘에스텔라와 나조차도 곧 썩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상상을 했을 정도다.

한참 있다가 그녀(미스 해비샴, 37세)가 정신을 차렸다. 그건 산란했던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번쩍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너희 둘이 카드놀이를 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 다오. 왜 시작하지 않았지?”

그 말과 함께 우리 셋은 방으로 다시 돌아왔다. 에스텔라와 내가 방 바닥에 앉아 카드놀이를 시작했다. 내가졌다. 저번처럼 내가 먼저 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카드놀이를 시작했다. 아까처럼 또 다시 내 가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미스 해비샴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각종 보석들로 에스텔라의 가슴과 머릿결을 장식함으로써 내가 점점 더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했다.

에스텔라, 그녀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의 태도는 지난번과 같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녀가 이번에는 아예 자신을 낮춰 나와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게임을 여섯 번 정도 끝내자 미스 해비샴이 내가 다시 방문할 날짜를 정해 주었다.

그런 후 에스텔라가 나를 안뜰로 데리고 내려갔다. 그리곤 그녀가 지난번처럼, 개가 먹이를 제공받는 방식대로 나에게 빵과 맥주를 주었 다(주인공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위 위에 두고 가버렸다는 얘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 좋을 대로 안뜰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게 그녀가 날 내버려두고 가버렸다는 점이다.

내가 지난번에 “벽을 기어 올라가 너머다 봤던 정원”의 문이 그때도 이렇게 열려 있었는지 닫혀있었는지 따지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그땐 문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 앞에 문이 하나 서 있었다.

문은 열린 채로 있었고, 그리고 나는 에스텔라가 방문객들(미스 해비 샴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던 ‘여성 세 명과 남성 한명’)을 모두 바래다주고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도 대문까지 잠근 후 그 열쇠를 들고서 돌아온 모습을 이미 방에서 보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엔 아무도 없겠거니 하고 무심코 정원으로 들어가 곳곳을 거닐어 보았다.

정말 황무지가 따로 없었다. 낡아빠진 멜론받침대들과 더 낡은 오이 받침대들이 정원 곳곳에 널 부려져(흩어져) 있었다. 그건 마치 어정쩡한 모습으로 저절로 자라났던 멜론과 오이들이 헌 모자와 구두 조각마냥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오래 써서 낡은 스튜(찌게) 냄비의 겉모습처럼 잡초가 우거져 분지(땅)를 이룬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정원과 온실을 샅샅이 다 뒤져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냥 여 기저기 넘어져 있는 포도나무와 몇몇 술병들뿐이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내가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았던 그 음침한 구석(정원의 구석)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집이 텅텅 비어있다는 것을 당장은 확신했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창문 하나를 들여다보며 내 얼굴이 어떻게 비치나 보려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저쪽 편에 붉은 눈꺼풀에 담색(옅은 빛깔) 머리카락을 가진 도련님이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달리 창백한 얼굴을 가진 도련님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빤히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에는 다양한 의미(이제부터 결투)가 담겨 있었다.

이 창백한 얼굴의 도련님이 갑자기 사라지더니 내 옆에 다시 나타났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내가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녀석은 공부 중이었다. 이제 보니 새까만 잉크도 여지저기 옷에 묻어 있었다.

“안녕!” 녀석이 말했다. “젊은 친구(애송이란 뜻도 있음)!”

이런 경우 최고의 맞대응은 나도 안녕이라고 따라하는 것이었기에 나도 “안녕!”이란 말을 녀석에게 건넸다. 하지만 젊은 친구란 막말은 생략했다. 내가 생각해도 품위 있는 행동이었다.

“누가 널 들여보내주었지?” 녀석이 말했다. “에스텔라 양이.”

“누가 여길 배회하도록 허락했지?” “에스텔라 양이.”

“좋아. 결투다.”라며 그 창백한 도련님이 말했다.

도대체 그 녀석을 따라가는 것 말고 내가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후로도 내 자신에게 종종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도출되는 대답은 하나였다. “도대체 내가 그 녀석을 따라가는 것 말고 내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녀석이 내게 최후통첩을 던졌을 때,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녀석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을 정도였다. 그땐 내 자신이 무슨 주문에 묶여 있는 것만 같았다.

“잠깐 기다려봐, 그래도….” 몇 발작 가지 않아 녀석이 빙글 돌면서 말했다. “내 쪽에서 결투를 신청한 이상 네가 왜 싸워야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져야 하니까. 자 내 대답은 이거다!” 아니 이 녀석이(\*\_\*).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 화나게 하는 방식으로 녀석이 자기 두 손을 찰싹 찰싹 쳐대더니 우아하게 한쪽 발을 뒤로 확 올려 찬 다음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도 내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녀석이 또 다시 자기 두 손을 찰싹찰싹 손뼉 친 다음 고개를 아래로 숙인 후 그 자세 그대로 자기 머리로 내 복부(배)를 들이받았다.

마지막 이 황소 같이 무식한 행태(들이박기)는 빵과 고기를 막 먹고 난 직후인 나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이었다. 아니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다. 세상에 머리로 상대방의 배를 들이박다니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녀석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때문에 나는 대단히 불쾌해졌다. 결국 내가 녀석을 맹공격했다. 내가 다시 녀석을 맹공격 하려는데 녀석이 황급히 이렇게 말했다. “좋아, 한 번 해보자 이거지?” 그러더니 내 제한된 경험(나이) 안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하며 깡충깡충 춤을 춰대기 시작하는 것이다(킥복싱을 생각바람~룰루랄라~).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야!” 녀석이 말했다. 방금 그 말을 하면서, 녀석이 왼쪽 다리로 가볍게 뛰어오르더니 오른 쪽 다리로 바꾸었다. “정확히, 규칙대로 하는 거야!” 이 부분에서, 녀석이 또 오른 쪽 발로 뛰어오르더니 왼쪽 발로 자세를 바꾸었다. “좋아, 라운드로 와, 준비운동부터 철저히 하라고!”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녀석이 재빨리 뒤로 비켜서더니 다시 앞으로 전진해왔다. 나는 하도 어의가 없어서 의지할 데 없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에도 녀석은 깡충깡충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앞으로 전진 했다가 다리를 바꾼 후 다시 뒤로 후퇴했다가를 계속하고 있었다.

재주가 넘치는 녀석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속으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녀석이 담색 머리로 내 배를 들이받을 하등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황소같이 무식한 타격을 받았을 때에는 적어도 내겐 녀석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타당한 권리가 내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뒤를 따른 것이다. 우리의 결투 장소는 정원의 외딴구석이었다. 두 벽들이 서로 만나는 곳이기도 했다. 몇몇 하찮은 물건들에 가려진 밖에선 보이지 않는, 정원의 외딴구석이 었다.

녀석이 내게 “이 장소를 우리들의 결투장소로 만족하느냐?”고 물어 왔을 때 내 대답은 “그래”였다. 그러더니 녀석이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잠깐 동안만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요구했고 내가 허락하자 사라졌다. 곧 녀석이 ‘물 한 병’과 ‘식초를 흠뻑 적신 스펀지 하나’ 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 둘 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 녀석이 물병과 스펀지를 벽 가까이 놓아두며 말했다.

그런 다음 녀석은 자기 재킷과 조끼뿐만 아니라 셔츠까지 몽땅 벗기 시작했다. 녀석의 옷 벗는 방식에는, 뭐랄까 “나는 지금 이것을 편한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한다.”는 감정과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랄까 혹은 “나는 지금 피에 굶주려 있다”라는 의미를 한꺼번에 다 지니고 있었다.

웃통을 벗은 녀석의 몸은 그리 건강해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고 난 아주 얼이 빠져 있었고 더구나 녀석의 얼굴에는 여드름들이 가득했고 입에는 종기까지 하나 있었다.

아무리 내가 녀석을 내 나이 또래로 보았다지만 녀석의 키는 분명 내 키 보다 훨씬 더 커보였다. 거기다가 녀석은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며 몸을 회전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웃통을 벗기 전 녀석은 회색 정장을 착용한 도 련님(‘미스 해비샴의 먼 친척인 매튜’의 아들임)이었다. 특히 녀석의 팔꿈치와, 무릎, 그리고 손목과 뒤꿈치들은 다른 부위에 비해 놀랄 만큼 발달되어 있었다.

나에게 기계적인 정밀타격을 가하기 위해 내 몸을 이리저리 자로 재 보고 있는 녀석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내 심장을 덜컹하기에 충분했다. 녀석은 정말로 나를 해부할 듯이 재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녀석이 “어느 뼈를 먼저 발라줄까?”라며 엄밀히 재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첫 번째 주먹에 벌러덩 나가떨어지는 녀석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게다. 말해도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자신도 내 평생 그렇게 놀랐던 적은 없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녀석이 땅바닥에 대자로(벌 러덩) 누워 있었다. 녀석이 누운 자세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코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녀석의 얼굴은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녀석은 다시 일어섰다. 그것도 곧장. 녀석이 스펀지가 놓여있던 자리로 가 얼굴을 닦았다. 그런 후 다시 좀 전과 같이 민첩한 자세를 취하며 내게로 다가왔다.

녀석이 또 다시 내 주먹 한 방에 나가 뒹굴어졌을 때 그리고 쓰러진 녀석이 시퍼렇게 멍든 두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을 때, 이때가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놀란 장면이었다. 물론 가장 놀랐던 장면은 의기양양하던 녀석이 내 첫 주먹에 나가 떨어졌을 때였다. 앞서 말했듯이.

녀석의 정신력은 높이 살만 했다. 그의 행동은 내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 그럼에도 녀석의 체력은 좋지 못했다. 그래서 난 절대 처음처럼 강하게 때리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녀석은 나가 떨어졌고 그럼 녀석은 벽 쪽으로 가 스펀지로 얼굴을 딱은 후 물병의 물을 마신 후 이런 틀이 녀석에겐 큰 위안이 된다는 양 내게로 달려들었다. 그것도 매번 더욱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이다. 내가 이 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다. ‘잘못하면 내(주인공)가 끝장날 수 있겠구나.’라고.

얼굴에 난 녀석의 멍 자국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일을 들먹이기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기세가 워낙에 의기양양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만 녀석을 더 여러 번 쳤고 매번 때릴 때마다 주먹의 강도를 높여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녀석은 내게로 달려들었다. 물론 스펀지로 얼굴을 닦고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자기만의 싸움 의식을 치른 후 말이다.

결국 녀석이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고 말았다. 자리에서 일어선 녀석이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적(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녀석이 무릎으로 기어서 스펀지가 놓여 있던 자리로 갔다. 녀석이 스펀지를 내던졌다. 그와 동시에 녀석이 헐떡이며 말했다. “이건 네가 이겼다는 증거야.”

녀석은 너무도 용감했고 또 너무도 순결했다. 내가 비록 먼저 제안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나는 적어도 이번 승리에 대해서만큼은 우쭐거릴 수 없었다. 다만 땅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주워 입는 동안 음울(우울)한 만족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내 자신이 무슨 잔인한 한 마리 늑대새끼 같이 느껴졌다. 아니 그런 종류의 한 마리 야수 같이 느껴졌다.

나는 이따금 흐르는 피를 닦으며 어둡고 무거운 마음이 들어 녀석에게 이렇게 말해야했다. “도와주까?”

녀석이 말했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그럼 안녕.” 그러자 녀석이 말했다. “너도.”

내가 안뜰로 돌아왔을 때, 에스텔라가 열쇠를 쥔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어디 갔다 왔는지 왜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얼굴이 밝게 상기되어 있었을 뿐이다. 마치 그녀를 기쁘게 한 무슨 일이 방금 생긴 것 같았다.

역시나 그녀가 똑바로 문 쪽으로 가지 않고 통로 안으로 뒤로 물러나며 나를 손짓해 불렀다.

“이리 와봐! 키스해도 좋아. 네가 좋다면 말이야.”

그녀가 뺨을 내게로 돌렸다. 내가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나는 생각 한다. 그녀의 뺨에 키스하기 위해 내게 얼마나 엄청난 시련들을 몰려오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땐 그 키스의 의미를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건 단지 “거칠고 보잘 것 없는 소년에게 어쩌다 한 번 주어진 동전 한 닢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 이상의 의미도 없었다.

생일 방문객들 때문에 지체되고, 카드놀이를 하느라 지체되고, 마지 막엔 싸움까지 하느라 지체된 시간이 꽤 되었다. 나는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다 왔을 때에는, 습지대 끝에 위치한 모래언덕 위의 등대에서 침을 뱉듯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깜깜한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의 화로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 길 전체를 가로지르며 산산조각 부서지고 있었다.

**위대한 유산**

**12장**

해쓱한 어린 신사 문제로 내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져만 갔다. 싸움에 대해 생각할 때면 땅에 나자빠져 있던 녀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여러 단계를 거쳐 새빨갛게 부어오른 녀석의 얼굴이 내게 어떤 만행을 저지를 것만 같이 느껴졌다. 녀석의 피가 아직도 내 머리에 붙어있는 것만 같았고 이제 사법당국의 개입은 당연해보였다.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 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 했다. ‘지체 있는 가문의 집을 유린하고 다닌 죄(정원에 들어간 죄), 면학에 열중하고 있던 영국소년을 꾀여 무자비한 주먹 폭격을 가한 죄. 이 정도면 시골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달갑지 않은 처벌을 받지 않고는 마을을 활보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은, 그리고 집에 유폐되어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내가 심부름을 나가게 될 때조차도 나는 최대한의 주의력과 떨림 (공포)으로 부엌문 밖을 내다보았고 주 교도소 경찰관들이 나를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 바지는 해쓱한 어린 신사가 흘린 코피로 얼룩이 져 있었다. 깊은 밤에 내 죄의 증거를 씻어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았다. 내 손가락 관절들도 녀석의 이빨들에 부딪쳐 찢어진 상태였고, 이제 법정으로 잡아 끌려들어가 재판관들 앞에 서 추궁을 당하고 나를 옭아맬 이 증거들에 대해 내가 거짓말을 꾸며내야 할 것이다. 내 상상 력은 수천가지 가지를 치며 서로 얽히고 엉키는 단계를 지나 내 스스 로를 쥐어뜯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었다.

우리가 싸웠던 장소로 내가 다시 방문할 날짜가 돌아왔을 때 내 공 포감은 극에 달했고, 마치 저 부엌문 밖에 런던에서 급파된 법의 앞잡 이(경찰관이나 집행인)들이 매복해 있다가 날 습격하지 않을지 의심이 들었다. 혹은 미스 해비샴이 그녀의 저택에서 벌어진 이 무도한 짓들에 대해 내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싶은 나머지 그녀가 무덤 같은 옷을 입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꺼내들고는 나를 쏘아 죽이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었다.

돈만 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낼 또래아이들을 구해 맥주공장에 잠 복시켜놓았다가 내가 다가갔을 때 한꺼번에 덤벼들어 내가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을 때까지 구타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어다.

하지만 이 모든 얄팍한 보복행위들에 녀석의 그림자는 없었는데 내가 녀석의 맑은 영혼에 대해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증거다. 내 고민거리는 모두 녀석의 현명하지 않은 친척들이 녀석의 얼굴 상태를 보고 격앙한 나머지 그리고 가문의 우수성이 심각하게도 전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격하게 동정한 나머지 나를 해치려고 꾸밀 짓들이 아닐지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나는 미스 해비샴의 저택으로 가야만 했다. 그리고 갈 수 밖에 없었다.

보시라! 지난번 결투의 흔적은 이 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투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언급된 적도 없었고 저택 어디에도 이제 그 해쓱한 어린 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 문이 아직도 열러 있는 것을 보았고, 정원을 다시 거 닐어보았으며, 심지어 정원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의 창문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잠긴 덧문(셔터)만이 갑자기 내 시야를 가렸을 뿐 집 어디에서도 녀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들의 결투가 벌어졌었던, 정원 한 쪽 구석자리까지 와서야 비로소 나는 그 어린 신사의 존재에 대한 얼마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폭행당한 상처에서 흘러나왔을 법한 핏자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게 정원의 부업토(풀이나 나뭇잎 으로 된 흙)로 그것들(핏자국)을 덮었다.

“미스 해비샴의 방”과 “긴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다른 방” 사이에는 넓은 층계참(계단 오르다가 쉬는 공간)이 있었다. 그 층계참에 정원 용의 의자를 하나 발견했다. 뒤에서 밀 수 있도록 바퀴들이 달린 무게 가 가벼워 보이는 의자였다. 그 의자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미스 해비샴을 그 의자에 태우고 그녀의 방을 돌아 층계참을 가로지른 후 다른 방까지 도는 것이 내 정례적인 업무가 되었다. 그때쯤이면 그녀가 내 어깨위에 손을 얹고서 걸어 다니는 것에 싫증을 낼 때였다.

여러 번 되풀이해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는 이 여정에 올랐고 때때로 그 여정이 세 시간 가까이나 계속되기도 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여정이(방 돌기) 수없이 반복되었다는 것으로 최소 8개월 혹은 10개월 남짓 되었을 기간을 요약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그녀의 의자를 밀었던 그 첫날 이미 내가 격일 정오 때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해 그녀를 정원용 의자에 태우고 방을 돌 아다니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주인공과 미스 해비샴)가 서로에 대해 좀 더 적응해가면서, 미 스 해비샴이 내게 좀 더 많은 대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내가 이때까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커서 무엇이 되려하는지? 같은 유의 질문들을 던졌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조(매형)의 수습공이 될 예정 이에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물론 기회만 주어진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당시 그녀의 질문이 어린 내게 미래의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반대로 내가 무식한 것이 그녀에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내게 약간의 돈도 주지 않았다. 나는 매일의 저녁식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 제공받지 않았다. 그리고 내 봉사에 대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지불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녀는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에스텔라는 언제나 내 주의에 있었다. 나에게 문을 열어준 것도 그리고 나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다. 하지만 “한 번 더 키스해도 좋아”라는 말은 이젠 다시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따금씩 내 존재를 냉랭하게 받아들였고 또 이따금씩은 나에게 착하게 굴었고 또 이따금씩은 나와 아주 친밀한 척 굴었으며, 또 이따금씩은 내 존재에 대해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나를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만 있을 때 미스 해비샴은 종종 낮은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묻곤 했다. “그녀가 점점 더 예뻐지고 있지 않니, 핍?” (핍은 주인공이름, 아직은 열 살 꼬마)

그럼 난 “예”라고 대답했고, 미스 해비샴은 그 대답을 갈망했는데 내가 해주니 좋다는 듯 즐겼다. 또한 우리(주인공과 에스텔라)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미스 해비샴은 에스텔라의 기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에스텔라의 감정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경하려 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그녀(에스텔라, 어린 숙녀)의 감정이 폭발하기 일 보직전이 되고 또 그 감정들이 서로 다른 감정들에 대해 모순되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는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처신해야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면, 미스 해비샴은 애정이 듬뿍 담긴 포옹을 에스텔라에게 하며 그녀(에스텔라)의 귀에다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속삭여주곤 했다.

“저들의 심장들을 찢어버려라 내 자존심(에스텔라)이자 내 희망아, 저들의 마음을 깨부숴버려라, 저들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조(주인공 꼬마의 매형)가 대장간에서 일할 때면 띄엄띄엄 따라 부르던 콧노래 비슷한 노래가 하나있다. ‘클레 멘 타인’(노동자들 민요) 이라는 오래된 민요인데, 노래는 수호성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클레 멘 타인’이란 곡이 대 장장이들 편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달구어진 쇠를 해머로 두들길 때 팔뚝의 힘을 조 절하기 위해 흥얼거리는 노래이니까.

이 노래는 사실 대장장이들이 성스러운 프랑스 주교였던 ‘클레멘 트’(1세기에 프랑스 북동부 도시 메츠에 제자 2명과 함께 파견된 성스러운 가톨릭주교, 메츠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던 용을 격퇴했다는 전설이 이런..-\_-; 그래서 지금 용이 한 마디로 안 남아 있군. 성인들이 용을 다 잡아버려서)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려 그날 하루가 행운이 많이 깃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구실이기도 했다.

노래가사는 이랬다. “해머 질을 하자 모서리를 둥글게, 탕탕 오 우리의 성스러운 클레멘트 주교님! 때리는 소리 좋고 울리는 소리 더 좋네, 오 성스러운 클레멘트 나리! 두들기고 패고, 두들기고 패고, 오 성스러운 우리의 클레멘트 주교님! 쨍그랑거리는 소리 죽이네, 오 성스러운 클레멘트 나리! 불 더 땅기자 불 더 땅겨, 오 클레멘트 주교님! 건조기 (물)는 으르렁거리고 연기는 높이 피어오르네, 오 우리의 성스러운 클 레멘트 나리!”

의자를 밀고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직후였다. 어느 날 미스 해비 샴이 손가락들을 성마르게 움직이며 갑자기 내게 말했다.

“저 봐(짜증), 저 봐, 저 봐! 자, 노래나 한 번 해봐라!”

나는 놀란 나머지 마룻바닥 위로 의자를 계속해서 밀며 이 짤막한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던 것이다. 이 노래가 그녀의 기호에 맞았던지 내가 노래를 마치고 나자 그녀도 약간 생각에 잠긴 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 노래를 부르며 그녀는 마치 가벼운 잠에 취한 것 같았다.

그 후 이 노래가 우리(‘주인공꼬마’와 ‘미스 해비샴’)는 우리가 방을 돌아다닐 때마다 부르는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에스텔라도 종종 우리 들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렇지만 우리 세 명이 다 함께 그 노래를 부를 때조차도,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음의 전체흐름이 너무 가라앉아 있어서, 노래 소리가 이 음침하고 오래된 가옥 안에서 부는 가장 가벼운 바람의 숨결소리보다 더 작게 들렸던 것이다.

도대체 이런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이런 환경들에 속에서 내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 연기 자욱하고 누런 방들 속에서 다시 햇빛이 비치는 바깥으로 내보내졌을 때 내 눈은 잠시 장님이 되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들과 어울려 있는 당시 내 사고도 망연자실한 상태 그대로였다. 이게 어디 놀랄 일인가?

만약 내가 이전에 엄청난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않았어도 혹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을 조(매형)에게 고백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해쓱한 어린 신사(주인공이 때린 아이)에 대해 조(주인공의 매형)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정이 이러하므로 내가 그 해쓱한 어린 신사에 대해 조에게 얘기해보았자 조가 그 아이를 분별할 수 없을지 의문이었고, 아마 그 아이를 내가 이전에 꾸며냈던 ‘검정색 벨벳(융단)으로 뒤덮인 마차 안에 타고 있을 법한 아이’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해쓱한 어린 신사에 대해 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내가 그녀들과의 첫 만남에서 우연히 떠올랐었던 생각 ‘다른 사람들 입에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의 얘기가 오르지 않게 피해야겠 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그때 당시 나는 비디(여자이름)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가련한 비디(여자조연, 평범한 외모, 고아출신, 저녁학교 여선생님이자 가게 점원, 주인공 꼬마 나이 또래)에게만은 내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얘기 할 수 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디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비디는 내가 그녀에게 말하 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때는 그녀가 내 얘기들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 집 부엌에서도 회의들이 계속되었는데, 이 회의들은 내 분노한 영혼을 거의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는 회의들이었다.

저 당나귀 같은 펌블추크(능청스런 잡곡상, 조의 삼촌)가 밤에도 우리 집에 종종 들러서는 내 미래전망들에 대해 우리 누나와 장기간의 토론을 벌이곤 했었던 것이다.

나는 정말이지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그때 당시 그 자의 2륜 경마차 바퀴 굴대에서 고정 핀을 뽑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그와 같은 몹쓸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응당 받아야 될 양심의 가책보다 훨씬 적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 끔찍한 인간은 앞이 꽉꽉 막히고 무신경한 지성의 산물이라 나를 자기 앞에 세워두지 않고는 내 장래에 대해 논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테면 나를 이용해 자신의 꽉 막힌 사고를 작동시켜보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는 보통 내 옷깃을 잡고 부엌 구석에 조용히 있던 나를 내 의자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끌어내 난로불 앞에 세워두곤 했다. 이제부터 나를 요리해보이겠다는 듯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자, 부인(주인공의 누나), 여기 이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 녀석은 부인께서 손수 기른 아이입니다. 고개를 들 거라 소년아, 그리고 너를 손수 길러준 이들(매형과 누나)에게 영원히 감사해해라. 자, 부인, 이 꼬마에 대해 한 말씀하셔야죠!”

그런 다음이면 그는 자기 손바닥으로 내 머리카락들을 마구 구기곤 했다. 자신의 손바닥으로 남의 머리카락들을 마구 구기다니! 내가 앞에서도 암시하지 않았는가? 내 가장 초창기 기억에 따르더라도, 어느 누 구도 동료 인간에 대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권리는 없다. 나는 영혼 으로부터 이를 확신하는 바이다.

또한 내 소매를 잡고 자기 앞에 나를 붙들어 세우는 것은 오로지 그 자와 같은 정신○○자이 보일 수 있는 광경(모습) 그 자체인 것이다.

그 다음에, 그(펌블추크 씨)와 내 누나(주인공과 20살차이)가 짝을 이뤄 아주 그냥 미스 해비샴에 대해 엉터리 같은 온갖 추측을 하는 것이다. “미스 해비샴이 이 애(주인공)에게 혹은 이 애의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며.

그들이 해대는 생각들이 어찌나 억측이 심한지 듣고 있는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심술이 나 눈물을 터뜨리며 펌블추크 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몸 구석구석을 마구 때려줄까 하고 바랐을 정도였다.

이러한 대화들 속에서 누나는 나를 언급할 때마다 누나의 이빨들 중 하나를 뽑는 듯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미어지는 듯이 나에게 말을 했다. 누나가 그러는 동안 펌블추크 씨는 내 후원자를 자처하며 얕보는 듯 한 표정으로 나를 전체적으로 흩어보며 앉아 있곤 했다. 그럴 때면 흡사 그의 모습은 내(주인공) 행운의 건축가인양 그리고 마치 자기 자 신은 이 일에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에 조(주인공의 매형)가 낄 틈은 없었다. 하지만 대화가 한참 진전되면 누나는 참지 못하고 조(누나의 남편)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얘기하곤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가 대장간을 떠나는 것에 대해 그(조)가 호의적인지 않다는 인상을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 20살 차이)이 받곤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그때) 조의 수습공이 될 정도 로 충분한 나이었다.

조가 부지깽이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아래쪽 벽난로 사이에서 재를 끓어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내 누나는 조의 이런 순박한 행동을 아주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남편(조)에게 달려들어 남편의 손에서 부지깽이를 빼앗아든 다음 자기 손으로 남편을 마구 흔들어댄 다음 분을 참지 못하고 부지깽이를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들 중 어느 것 하나도 나를 극도로 자극하지 않고 끝난 적이 없었다. 이 일이 먼저다 저 일이 먼저다 할 것도 없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누나는 하품을 하려다 멈추곤 했었고 그럼 누나의 눈에 내가 우연이라도 뛰는 경우엔 그 즉시 누나가 나를 위에서부터 덮쳐 내 려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네 녀석 때문에 이젠 역겹다! 어서 썩 침대로 올라가지 못해. 네 녀석이 애먹이는 건 오늘 밤만으로도 충분해 알겠어.”

이건 마치 내가 그들에게 “제발 내 삶에 애 좀 써주세요!”라며 간청이라도 했다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미스 해비샴이 주인공 꼬마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에 관한 토론)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이 상황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내 어깨에 기대, 나와 함께 걷던 미스 해비샴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불쾌하다는 듯 말했다.

“점점 키가 자라고 있구나, 핍!” (핍은 주인공이름)

키가 커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명상에 잠긴 표정을 지어보이는 것으로 넌지시 그 말을 인증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그렇게 했다.

그녀는 당장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곧 멈춰 서더니 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또 다시 멈춰 서고는 나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후 그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방문하기로 한 다음 번째 날(이틀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었음) 이었다. 평소와 같이 우리가 운동(방 안 걷기)을 마치고 내가 그녀를 화장대까지 바래다주었을 때 그녀가 그 성마른(성급한) 손가락들을 움 직여 보이며 나를 멈춰 세웠다.

“너희 집 대장장이 이름을 다시 한 번 말해 보거라.”

“조 가저리에요, 마님.” (‘조 가저리’는 주인공의 매형이름) “그러니까 네가 도제살이(수습공)를 하기로 되어있다는 그 대장장이

말이지?”

“예, 미스 해비샴 마님.”

“즉시 도제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저리가 너와 함께 여기로 와줄까? 네 도제계약서를 가지고 말이다. 내 말 알겠니?”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매형(조 가저리)이 그 제안(미스 해비샴의 저택 방문)을 영광으로 여길 것임을 확신한다고 내가 말씀드렸다. “그럼 그에게 내가 좀 보잔 다고 전해라.”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미스 해비샴 마님?”

“저 봐, 저 봐(짜증)! 나는 시간 따윈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에게 내가 곧 보잔 다고만 전해라, 너와 같이 말이다.”

밤에 내가 집에 돌아와서 조(매형)에게 미스 해비샴의 메시지(초대) 를 전했을 때, 누나(주인공의 누나)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과거 누나가 부린 난동들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정도였는데, 누나는 나와 조에게 이렇게 묻기까지 했다.

“당신들은 나를 구두 흙털개(실내출입구에 까는 매트)정도 생각하지? 어디 내 말이 틀렸어? 당신들이 어떻게 감히 나를 그딴 식으로 대접할 수 있지? 도대체 당신들은 내가 어떤 인간들과 어울려와 나와 적 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이러한 질문들을 지칠 때까지 마구 연발하던 누나가 결국 촛대를 조 (남편)에게 던지곤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누나가 쓰레받기를 꺼내 들었다. 그건(쓰레받기 꺼내기) 내 경험상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였다. 거친 앞치마까지 둘러맨 누나가 예의 그녀만의 무서운 청소를 시작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물 없이 하는 청소에 만족하지 못한 누나는 물통 하나와 솔(바닥을 문질러 닦는 것) 하나를 챙겨들고는 우리들을 집 밖으로 쫓아낸 후 놀라운 기세로 물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우리(주인공과 매형)는 뒷마당에서 벌벌 떨며 기다려야했다.

밤10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다시 집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모험을 감행 했고 그러자 누나가 조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흑인 여자 노예와 그때 당장 결혼하지 않았었던 거지?”라고.

너무 기가 막힌 질문이라 그도 긴가? 민가? 말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구레나룻(귀밑에서 턱밑까지의 수염)을 꼼지락거리며 낙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쌍한 내(주인공) 친구.

그 행동은 마치 ‘내가 그때 흑인 여자 노예와 결혼하는 모험을 감행

했더라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 있지 않았을까?’라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위대한 유산**

**13장**

이틀 후 조(주인공 꼬마의 매형)가 나와 함께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방문하기 위해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입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감정 에 대한 일종의 시련이었다. (소설 앞부분에서 조는 웃통을 벗어젖히고 대장장이 일을 할 때는 건장한 체구이지만 일요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 양복만 입어면 세상에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남자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이 꼭 예복(정장)을 차려입어야 한다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그가 그토록 예복에 신경을 쓰는 것이 모두 나 때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끔직할 정도로 불편해 보이는 옷을 굳이 입으려는 이유가 모두 나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셔츠의 옷깃 을 뒤로 높이 올려 세우려는 이유와 머리 맨 윗부분의 머리카락들을 모조리 세워 한 다발의 깃털처럼 보이려고 애 쓰고 있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해서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조는 작업복이 더 잘 어울려” 라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굳이 말을 했어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아침식사 시간에 누나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나도 당신네들과 같이 마을에 가겠어요. 당신네들이 귀부인들과 짝 짜꿍이 되던 뭘 어떻게 하던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일 끝나면 나를 데리려 펌블추크 삼촌 댁으로 오라고요.”

이게 누나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당신네들이 귀부인들과 짝짜꿍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미 조도 뭔가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눈치 챈 직후 였다.

대장간은 그 날 하루 문을 닫기로 했다. 그래서 조가 문에 분필로 “오늘”이라고 딱 하나 썼다. (영어 ‘오늘’이 아니라 고대 독일어-사용하지 않는 단어로-로 ‘오늘’이라고 씀. 소설에서 조는 아주 가끔 영국의 지방사투리나 혹은 생뚱맞은 단어를 하나 씩 가끔 아주 가끔 사용하고 있음. 글을 모르기 때문임. 제가 사투리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영어사전에 영국지방사투리라고 나오기에 알았음)

조는 또 “오늘”이란 글자 옆에 우리가 이제부터 갈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도 하나 길게 그려 넣었다. “오늘”과 “화살표 그리기”가 그가 대장간 일을 쉴 때면 꼭 문에 해두는 일종의 관례였던 것이다.

우리는 마을까지 걸어갔다. 이때 누나는 비버의 모피로 만든 아주 큰 “모자”(차양이 없고 턱 끈이 있는 겨울용 여자모자)를 쓰고, 그리고 “짚으로 엮은”, 영국의 국새(도장) 같이 생긴 “광주리”를 들고 갔으며, 그리고 “나무 덧신 한 짝”과 “여분의 어깨걸이 솔하나”와, 그리고 “우산 하나….” 아니 우산이라니? 당연히 그 날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아주 화창한 날이었다.

누나가 이러한 물품들을 그 생고생을 하며 들고 간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겠다. 나와 조(매형)을 손바닥으로 마구 때리며 대우한 것에 대한 참회의 순간을 위해? 아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에서 남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귀한지를 알리기 위한 과시의 목적에서?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모르겠다.

다만 “클레오파트라”나 “여타 미친 듯이 날뛴 여성군주들”이 자신들의 가장행렬이나 행진에서 부를 과시하기 위해 기를 쓰며 안달한 것처럼, 그때 당시 누나도 이 추운 겨울날 남들에게 잘보이기 위해 그 고생을 해가며 물건들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닐까 한다. 그것도 겨울에….

그래서인지 우리가 펌블추크 씨(능청스러운 잡곡상)의 집에 도착하 자 마자 누나는 집안으로 튀어 들어갔다. 우리(주인공과 매형)만 남았 는데 이젠 거의 정오가 다 되었던지라 조와 나는 곧장 미스 해비샴의 저택으로 향하기로 했다.

언제나처럼 에스텔라가 문을 열어주었다. 에스텔라가 나타났을 때 조가 모자를 벗어 자신의 두 손으로 모자의 가장자리를 잡고서 모자의 무게를 재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 당장 5g(그램)의 측정오차로 자신의 모자무게를 재어야 될 긴급한 용무가 그의 마음속에 막 생긴 것만 같았다.

에스텔라는 우리 둘 모두를 무시한 채 길을 안내했다. 나도 익히 아는 길이었다. 내가 에스텔라 뒤를 따라갔고 조가 우리 마지막에 따라 왔다. 긴 복도에 들어섰을 때 내가 조를 뒤돌아보았다. 조는 여전히 극도로 긴장한 채 양쪽 손으로 모자의 테두리를 잡은 채 무게를 재고 있 었다. 그리고 발끝으로 성큼성큼 걸으면서 우리 뒤를 뒤 쫒고 있었다.

에스텔라가 말했다. 둘(주인공과 매형)이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조의 코트 끝동(소매)을 쥐고서 미스 해비샴의 앞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녀는 화장대에 앉아 있었고 우리가 들어가자 즉시 뒤돌아 보았다.

“아!” 그녀가 조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애 누나의 남편이오?”

나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다. 내 친애하는 사랑인 ‘조’가 이렇게 그 자신의 실제모습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일 줄은. 올려 세운 머리카락들이 새의 깃털 다발처럼 갈기가 나 있고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마치 벌레 한 마리를 잡아먹고 싶다는 듯 입을 “아” 하고 벌린 채 주뼛주뼛 서 있는 어떤 특이한 형상을 한 새의 모습을 그가 우리 앞에서 보일 줄은 난 일찍이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이 애 누나의 남편이오?” 미스 해비샴이 다시 한 번 물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조(주인공 꼬마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는 미스 해비샴 대신에 나 에게만 말을 걸려고 고집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다, 핍.”(핍은 주인공 꼬마이름) 조는 이제 설득력 있는 논증과 엄밀한 자기신뢰 그리고 과중한 정중함을 동시에 다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핍, 내가 네 누나와 결혼했을땐 말이다, 난 아직 네가 날 독신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였지. 어쨌든 네가 그렇게 부를 의향이 있다면 말이다.”

“이거야 원!”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당신이 저 애를 도제(수습공)로 삼으려고 기른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가저리 씨?”

“왜 거 있잖아, 핍.” 조가 또 미스 해비샴 대신에 나를 보며 대답했다. “너와 난 언제나 친구였다는 걸 알지? 우리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왜 예전에 습지대에 있던 큰 바위에서 우리가 맺었던 약속을 말이다. 네가 도제가 되면 매주 이 바위에 와서 실컷 놀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핍, 네가 이 직업(수습공)에 반대의견을 내비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우린 앞으로도 영원히…, 그래 네가 검댕이나 숯 덩 어리 같은 것을 순순히만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핍,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핍. 네가 그런 유의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말이다, 핍. 응,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핍?”

“그럼 이 아이가 그동안 어떤 반대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었단 말이오, 가저리 씨? 저 애가 그 직업(대장장이의 도제)을 좋아합디까?”

“핍, 그건 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문제야.” 조가 되받아쳤다. 그의 말투에는 이제 논증과 자기신뢰 그리고 정중함이 좀 전 보다 더욱더 확고해져가고 있었다. “그것이 네 자신의 심장이 바라던 바임이 틀림없다는 것을.”(7장 참조. 조가 아버지의 묘비에 새기려던 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음으로 결국 아버지의 묘비는 만들지 못함. 조가 생각했었던 묘지의 글은 다음과 같다. “1행 - 그의 결점이 무엇이든 이 글을 읽는 자여 기억하라, 2행 - 그가 자신의 심장 속에 어떤 선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난 조가 말을 하기 전부터 벌써 알아봤다. 아버지 묘비 위에 새기려다 돈이 없어 포기했었던 자작시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답변으로 새롭게 짜 맞추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불현 듯 떠올랐음을 말이다.

조가 계속 말했다. “네 역할에 대한 반대는 없었을 지니, 그것이 네 심장이 지극이 바라던 바임이 틀림없나니라, 핍!” (조는 지금 영어단어 ‘심장’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독일어에서 의미가 파생되고 단어가 바뀐 고대영어를 사용하고 있음.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고대영어를 하나 둘 씩 사용하고 있음. 옥스퍼드영어사전 참조.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사람이란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가 아닐지…)

미스 해비샴을 보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조)를 설득하려했지만 내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가 얼굴을 일그러트리고 몸짓을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은밀하게 더욱더 논쟁적으로 더욱더 정중 하게 나만을 상대하려고 고집했다.

“이 애의 계약서들을 가져왔겠지요?” 미스 해비샴이 물었다.

“이거 참, 핍, 있잖니.”(핍은 주인공이름) 조가 마치 그녀의 질문이 약간 부적절하다는 듯이 받아치며 말했다. “내가 그것들을 이 모자 속에다 넣어두는 걸 너도 봤잖니. 그러니 그게 여기에 있지 않겠니. 너도 잘 알지.”

그(조, 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가 모자에서 계 약서들을 꺼내 미스 해비샴이 아니라 내게 주었다.

미스 해비샴의 의자 뒤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에스텔라의 두 눈에서 장난기 어린 웃음이 엿보였다. 난 유감스럽게도 내 친애하는 선량한 매형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에스텔라를 볼 낯도 없었다. 내가 그의 손에서 계약 서들을 꺼내 미스 해비샴에게 건네주었다.

“이 애에게서 수수료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겠지요?” 미스 해비샴이 계약서들을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조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내가 불만을 표시하며 말했다. “조! 왜 대답이 없어….”

“핍.” 이런 내 태도에 마음을 다쳤다는 마냥 조가 나를 제지하며 말 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이다 핍, 그 질문은 너와 나 사이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이란다. 너도 알잖니 핍, 그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다. 알겠니? 핍. 그게 ‘기대하지 않았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니 내가 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었겠니?”

거기에 서 있는 조의 모습을 보고서 미스 해비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잘 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했다는 듯 조를 힐끗 쳐 다보았다. 그녀가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들며 말했다.

“핍(주인공 이름, 아직은 꼬마)은 여기서 수업료를 벌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이게 증거입니다. 봉투 안에 천2백5십 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핍, 이걸 네 주인에게 가져다주어라.”

그녀의 낯선 이미지와 그녀보다 더 낯선 방 안 풍경들에 놀란 나머지 그만 얼(혼)이 완전히 나가있던 조는 심지어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나한테만 말을 하려고 고집했다.

“이것에 관한 한 아주 후하신 것 같구나, 핍.” 조가 계속 말했다. “과분한 은덕 잘 받겠다, 비록 조금도 아주 조금도 바란 건 아니었을 테지만 과분한 은덕 감사히 받겠다. 그런데 친구.” 조의 이 마지막 호칭에 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냉각되고 말았다. 이 친밀한 호칭이 내가 아니라 미스 해비샴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친구,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할 것 같지 않니! 너와 내가 우 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빌게,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말 이야. 그리고 너의 이 후한 선물이 사람들(주인공의 누나와 펌블추크 씨)에게 가져다 줄 만족감 그들이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이 없었을 이 후한 선물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조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끔찍한 곤경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느끼는 듯 한 표정을 짓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의 기양양하게 구출해냈다. 조가 말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자신이 생각해도 방금 한 말이 시의적절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인지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했다.

“잘 가거라! 핍.”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저들을 바래다 주거라, 에 스텔라.”

“제가 다시 찾아봬도 될까요, 미스 해비샴 마님?” 내가 여쭈었다. “안 된다. 이제부턴 가저리 씨가 네 주인이다. 거저리 씨! 잠깐 한

마디만 더!”

나는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가 뒤에서 조를 그와 같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유달리 강조하며 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애는 여기서 착한 소년이었어요, 그 돈은 그 애의 보수에요. 물론 당신도 정 직한 사람이니 다른 건 더 바라지 않을 거지만서도.”

조(주인공 꼬마의 매형)가 어떻게 방에서 나왔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전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방에서 나온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대신 자꾸만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내가 그를 뒤쫓아 가 붙 잡아야했다.

몇 분 후 우리는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대문은 잠겼고, 그리고 에스텔라는 가버렸다.

우리 둘이서만 다시 태양빛을 흠뻑 받으며 서 있게 되자, 조가 벽에다 등을 기대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랍구나!” 조는 그곳에 머무른 채 띄엄띄엄 시간간격을 두면서 “정말 놀랍구나!”라는 말을 되풀 이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너무 자주 되풀이해서 혹시 그의 사리분별력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걱정했을 정도다.

한참 있다가 조가 다음과 같이 말을 길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정신을 회복했다. “핍(주인공 꼬마이름), 내가 보증한다. 오늘 일은 정말 놀랍고 놀랍다!”

그 후 조는 조금씩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조(주인공의 매형)의 지적능력들이 지금 막 접한 사건들로 총명해졌 다고 내가 생각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펌블추크 씨(능청스러운 잡곡상, 조의 실제 삼촌)의 집으로 가는 동안 조가 교묘하고도 꼼꼼 한 계획 하나를 착안해냈다고 내가 생각할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펌블추크 씨 댁의 응접실에서 발생한 다음과 같은 일화 하나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였다. 그곳에 우리(조와 주인공)가 동시에 출 몰했을 때, 내 누나는 의자에 앉아 저 혐오스러운 씨앗 장수(펌블추크 씨)와 논의 중이었다.

“뭐죠?” 우리 둘(조와 주인공)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보고 누나가 꽥 고함을 질렀다. “이게 어쩐 일들이시람? 이렇게 황송할 수가 있나, 이런 미천한 곳까지 두 분이 납서 주시다니, 정말 놀라자빠지겠네요!”

“미스 해비샴이….” 조가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때 기억을 또렷이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는 척하며 말했다. “미스 해비샴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했어. 가만 있자 경의라고 그랬니? 존경이라고 그랬니? 핍?”

“경의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했다.

“나도 그거였다고 확신한다.” 조가 대답했다. “그녀가 조 가저리 부 인(주인공의 누나)에게 경의를 전해달라고 나에게 각별히….”

“흥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람?” 누나가 발끈하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론 기분이 은근히 좋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미스 해비샴(여자이름)이 말을 전해 달라 기를….” 조가 시 선을 또 한 번 나에게 고정시킨 채 그때 기억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는 척하며 말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지금 빌어먹을 상태인지라…, 건강 상태만 허락했었다면…, 응? 그렇지 핍?”(핍은 주인공 꼬마이름)

“그녀가 기꺼이 방문을 허락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덧붙였다. “여기 계신 신사 숙녀 분들의 방문을 허락했을 거라고 말했다오.”

조가 말했다. 그리곤 통탄의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이거 참!” 누나가 한 층 누그러진 눈빛으로 펌블추크 씨를 바라다 보며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예의 있지 않나요? 뭐 아무 말도 없는 것보단 말이라도 전해주니 좋기야 하지만서도. 그래 그녀가 이 개구쟁이 녀석에게 뭘 주던 가요?”

“그녀는 이 애에게….” 조가 말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소.”

조 부인(주인공 꼬마의 친누나, 20살차이)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조가 황급히 다시 말했다.

“그녀가 준 것은,” 조가 말했다. “이 애의 친구들한테 주는 거래.” ‘친구들한테 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가 마저 설명하려했

다. “그 말은 이 애의 누나인 조 가저리 부인의 손에 주어져야한다는 의미요. 그녀가 분명 그렇게 언급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그 분은 조 가저리 부인이에요’라고 말이야. 가만 보니 그녀가 몰랐을 수도 있겠 네….” 조가 또 한 번 심사숙고하는 척 생떼를 쓴 후 이런 말을 덧붙 였다. “내 이름이 조인지 혹은 호르헤인지 말이야.” (조의 포르투갈 식 이름이 ‘호르헤’임. 라틴아메리카에서 흔한 이름. 소설 속에서 외래어를 영어단어와 혼동해 그것을 조크인 양 사용하는 인물이 바로 조임, 자신은 조크라고 생각해서 기껏 말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 상황을 그 리려고 저자가 의도한 것임. 참고로 조는 소설 속에서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임. 주인공의 양심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지만 주인공이 떠나면서 주인공에게 많은 시련이 옴. 역시 행복은 로또가 아니라 성 실하고 정직하며 온건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임.)

누나가 펌블추크 씨를 쳐다보았다. 펌블추크 씨는 구미가 당긴다면 서 목재팔걸이의자의 두 팔걸이를 손으로 매만지고 있었다. 펌불추크 씨가 누나에게 고개를 끄떡여 보였다. 그런 후 펌블추크 씨는 또 난로 불을 보면서도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자신이 예전에 이미 간파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이 분명했다.

“그래요? 호호 얼마 받으셨는데요?” 누나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가 뜸을 들이는 이유를 알겠다는 표정이었다.

“5백만 원을 주더라고 내가 말하면 여기 계신 신사숙년들께선 무어라 말들 하시겠습니까?” 조가 강력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말하겠지,” 누나가 퉁명스럽게 되받아쳤다. “꽤 괜찮은 금액 이네라고. 지나치게 많지도 않고. 하지만 꽤 괜찮은 금액임에는 분명해.”

“그럼 그 이상을 주더라면?” 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즉시 ‘저 무시무시한 협잡꾼(사기꾼) 펌블추크’가 고개를 크게 끄떡이며 동시에 손바닥으로 자신이 앉아 있는 목재의자팔걸이를 엄청난 속도로 비비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이상이래요, 부인ㅜ\_ㅜ.”

“설마, 지금 저 사람이 진심은 아니겠지요?….” 누나가 펌블추크 씨에게 말했다.

“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조의 말을 더 들어봅시다. 자 어서 더 말해 보거라, 요셉아.(요셉은 조의 세례명, 펌불추크 씨는 조의 실제 삼촌임)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서! 어서 말해 보거라!”

“천만 원을 주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뭐라 말들 하시겠습니까?” 조가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갔다.

“천만 원이라면 아주, 아주 큰돈이지.” 누나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자 그럼,” 조가 말했다. “그녀가 준 돈이 천만 원보다 많답니다.”

저 비열한 협잡꾼(위선자) 펌블추크가 또 다시 고개를 끄떡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내 은인인 양 웃어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천만 원보다 많답니다, 부인. 그래 요셉 어서 어서 계속 말해 보거라!” (요셉은 조의 세례명. 펌블추크 씨는 조의 실제 삼촌. 조는 주인공의 매형)

“그럼 이 얘기의 결말을 짓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조가 누나(주인공과 20살차이)에게 봉지를 내밀며 기뻐서 말했다. “자그마치 천 2백 5십 만원이야.”

“오 이런 천 2백 5십 만원이래요, 부인.” 펌블추크가 누나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기꾼에게서만 볼 수 있는 비열함이 가득했다. “이건 모두 부인의 선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는 부인이 이런 보상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 의견을 물으실 때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축하드 립니다, 부인.”

만약 여기서 관두었어도 이 악한(펌블추크)의 행동은 충분히 끔찍했을 텐데. 하지만 이 자는 자신이 마치 내 후원자인 양 나를 강제로 잡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건 그가 지금까지 내게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 자는 그렇게 자신의 죄과를 더욱더 검게 덧칠하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마술이 시작됩니다, 친애하는 요셉아 그리고 부인.” 펌 블추크가 한 손으로 내 팔꿈치 위를 붙잡으며 말했다. “저는 일단 시작된 일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자 이 소년을 즉시 도제(대장장이 수습공)계약서에 싸인 하게 만듭시다. 그것이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니까요. 당장 어서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러 갑시다.”

“하느님도 다 아실 거예요, 펌블추크 삼촌.” 누나가 말했다. 물론 우리 누나는 두 손으로 돈을 꽉 움켜쥔 채 절대 놓지 않으며 말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삼촌의 신세를 지고 있는지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인.” 저 진저리나는 잡곡상(펌블 추크)이 대답했다. “기쁜 일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꼬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장 이 애와 계약을 맺어 야합니다. 제가 그리 될 거라고 (요셉과 핍이 도착하기 전에) 부인께 솔직히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청이 있었다. 시청 안에 판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시청으로 넘어갔다. 이는 모두 나를 조의 도제(대장장이 제자)로 삼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야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청으로 넘어갔다”라고 내가 방금 말했지만 실은 펌블추크가 나를 밀어 쓰러뜨릴 듯 한 기세로 몰고 간 것이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마치 남의 호주머니에서 슬쩍 하다가 붙잡혔다거나 혹은 ‘건 초가리’(말린 풀 더미)에 불을 지르다 딱 걸린 아동범죄자를 대우하듯이 딱 그런 대우를 내가 받으며 밀려 쓰러질 듯 시청으로 떠밀려 간 것이다.

이건 뭐 범정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았는데, 나를 쳐다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저 녀석이 현행범이군.” 딱 이런 눈빛들이었다. 펌블추크가 자기 앞에 나를 밀어 넣으며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때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저 애가 무슨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렸

다. “아직 청소년 같은데, 대개 못되게 생겼네, 그렇죠?”

그들 중 다소 온순하고 인정 많게 생긴 한 사람이 심지어 내게 글자 체가 화려한 전단지 한 장을 주었을 정도였다. 누가 봐도 딱 소시지 같이 생긴 족쇄(발목 쇠사슬)들을 덮어 쓴 사악하게 생긴 청소년이 목 판화로 그려져 있는 전단지였다. 전단지 제목이 “감방 안에서 읽을 것”이었다. 섬직했다.

시청은 괴상망측한(이상한) 곳이었다. 어떻게 된 것이 시청좌석이 교 회좌석(벤치)보다 더 높았다. 사람들은 그 좌석 너머에 매달린 채 안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 안 풍경도 가관이었는데 잘난척하는 판사들이 상체를 뒤로 푹 젖

힌 채 자신들의 의자에 파묻혀 있었고 개중에는 팔짱을 낀 판사도 있 었고 혹은 코담배를 맡고 있는 판사도 있었고 혹은 (너무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몸이 저려 감각이 없어 보이는 판사도 있었고 혹은 뭔가를 적고 있거나 혹은 신문들을 읽고 있는 판사도 있었다. 판사들 중에 한 명의 머리에는 파우더(화장) 칠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벽들 위에 몇 점의 검은 초상화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예 술에 문외한인 내가 봤을 때 그 초상화들이 꼭 ‘아몬드를 넣은 사탕 과자’와 ‘반창고’의 조합(결합물) 같이 여겨졌다.

이런 괴상망측한 곳의 한쪽 구석에서, 내 계약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서명되고 인증되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법과 의무에) 얽매이 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죽 펌블추크 씨는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건 뭐, 사형장에 가다가 사소한 예비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잠시 이곳에 들른 사람인 것 같았다.

우리(주인공, 매형, 친누나, 매형의 실제 삼촌)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꼴을 보게 될 거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던 소년들(시청 밖에 진치고 있던 소년들)이 크게 아쉬워했다. 이번 일은 내 친구들(매형, 친누나, 매형의 삼촌)이 그저 나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크게 풀이 죽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펌블추크 씨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내 누나는 돈 천 2백 5십 만원에 너무도 광분한 상태가 되어 “제가 오늘 한 턱 쏠게요. 지금 당장 ‘푸른 멧돼지’(식당 이름)로 가자고요. 고고씽~ 이 횡재한 돈으로 제가 오늘 한 턱 쏜다니 까요. 펌블추크 삼촌, 어서 허블 씨 부부(마차바퀴 제조인)와 웹슬 씨 (연극배우를 꿈꾸는 열혈 노총각, 아직은 교회서기)를 삼촌의 2륜 마차 (바퀴 2개)로 데리고 오세요. 호호호. 오예~”라는 제안을 했고 한 턱 쏘겠다는 데 싫어할 사람도 있남.

모두들 즐거워하며 “오케이”했고 서로들 “사람을 데리러 간다. 식당 좌석을 알아본다.”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_-;) 불행히도 그날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날들 중에서 가장 우울한 날이었다. 사람들이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마음이 바뀌어선 그것도 일행 모두가 나(주인공)를 마치 이 잔치에 있어 극히 이질적인 존재 그래 꼭 아주 못생긴 사마귀 같이 나를 대했기 때문이다. 나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걸 아주 당연시 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내가 뭘 더 기뻐하겠는가.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이따금씩 요컨대 그들이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마다 내게 “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니?(왜 음식을 더 먹지 않니?)”라고 묻곤 했고, 나는 또 어쨌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배 터지게 먹고 있어요.”라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즐겁지도 않은 날 그런 질문(왜 즐기지 않니?)을 받고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 성장했고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 그러니 내 기분이야 어떻든 그들이 이 시간을 즐기겠다는데 내가 말릴 자격은 없었다.

이 모든 횡재와 관련해 자비심 많은 후원자인양 기분이 한껏 의기양 양해진 저 협잡꾼 펌블추크은 실제로도 식탁의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내가 이번에 (법과 의무에) 얽매인 것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다.

“만약 이 애(주인공)가 카드놀이를 한다거나, 혹은 독한 술들을 마신 다거나, 혹은 근무 시간에 늦는다거나 혹은 악당들과 사귄다거나 혹은, 이 애의 도제계약서상에 나와 있듯 이 꼬마가 장차 거의 필연적으로 저지를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 기타 엉뚱한 짓들에 이 애가 장차 빠지 기라도 한다면 그 즉시로 이애는 금고형(감옥)에 처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체결한 계약서가 이를 입증합니다. 여러분. 하하하~”라며 사람 들에게 악마 같은 축하의 인사말들을 수도 없이 건네고 있었다. 더구나 이 협잡꾼(나쁜 사기꾼)은 자신의 논평에 대한 실례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옆에 있는 의자 위로 내가 올라가 서 있도록 강제했던 것이다.

이 대단한 축제일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내가 자게 내버려두질 않았다는 사실이다. 깜빡 잠이 들어있는 나를 그들이 발견할 때면 어김없이 나를 쿡쿡 찔러대며 깨웠고 내게 “왜 즐기지 않는 거니?(왜 음식을 더 먹지 않니?)”라며 말들 했다.

결국 느지막한(늦은) 저녁에 웹슬 씨(연극배우를 꿈꾸는 교회서기)가 ‘콜린스’(영국 서정시인)의 “열정에 대한 송시”(‘송시’란 공덕을 기리는 시)를 우리들에게 읊어주다가 “복수”역을 맡은 주인공이 피로 얼룩진 자신의 칼을 천둥 속으로 내던지는 장면을 너무 현실감 있게 연출하려다 보니 큰 소리가 났고, 그래서 아래층에 있던 웨이터가 올라와 우리 들에게 이렇게 말해야했다.

“아래층에 계신 사장님들께서 경의를 표하더라는 말을 전해달랍니 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식당의 칼은 텀블링(공중제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상기해 달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한껏 기분이 고무된 상

태여서 〈 오~ 아름다운 부인이여! 〉 라는 노래를 불렀을 정도다. 노래 의 베이스(저음)를 맡아 부르던 웹슬 씨(교회서기)가 무지막지하게 큰 목소리로 “내가 바로 하얀 머리채를 휘날리던 노래 속 바로 그 사나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로 고행에 나섰던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순례자다”라며 마구 질러댔다.

물론 웹슬 씨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노래를 부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관한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뻔뻔스런 태도로 노래의 앞부분을 먼저 시작한, 꼬치꼬치 캐묻길 좋아하고 매사에 말이 너무 많아 지겨운 펌블추크에게 화답하기 위해서 웹슬 씨도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조그만 한 침대로 들어와 누웠을 때엔 내가 정말이지 비참한 기분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가 조의 직업(대장장이)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 적어도 그런 강한 죄의식이 들었다.”

한때는(더 어릴 적에는) 나도 그 직업(대장장이)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위대한 유산**

**14장**

자기 집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다. 그 감정에는 배은망덕함이 녹아있을 수 있으니 당사자는 응당 처벌을 받아야하며 당연히 그리되어야한다. 하지만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비참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누나는 화를 자주 냈다. 그 때문에 우리 집은 결코 내게 아주 즐거운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주인공의 매형)는 그런 집을 신성하게 만들 줄 알았고 그래서 난 우리 집이 좋다고 믿었었다(에스텔라를 만난 이후로는 믿지 않는다는 의미).

나는 우리 집 응접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응접실이라고 믿었 었고, 우리 집 대문이 사람들이 엄숙하게 열고 들어가 통째 구운 새고기들을 희생물로 바치는 종교 교당(사원)으로 통하는 신비한 정문이라고 믿었었다.

나는 우리 집 부엌이 참으로 아름다운 방은 아니지만 나름 정숙한 곳이라 믿었었고, 우리 집 대장간이 남자다움과 자립으로 나를 이끌 비까번쩍한 도로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단 1년 만(주인공이 에스텔라를 알게 된 10개월만)에 이 모든 것들이 변하고 말았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있어 그저 거칠고 천하며 평범하기 그지없는 주변물들이 되고 말았고, 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것들(주인공의 집)을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이런 버릇없고 무례한 내 마음들 중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내 자신의 잘못 탓이고 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미스 해비샴의 잘못인지, 그 리고 내 누나가 이 모든 것들을 악화시킨 장본인은 아닌지를 지금 이 순간 따져보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어느 누구(주인공, 주인공의 누나, 미스 해비샴)에게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했고, 일은 이미 벌어진 직후라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향했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든, 그 변화에 변명의 여지가 있던 혹은 그 변화가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든, 그것은 이미 변했다.

한때는, 나도 내가 마침내 셔츠 소매들을 걷어 올리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 조(매형, 대장장이)의 수습공(제자)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여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것이 손에 잡힐 정도의 현실이 되자 “나는 이제 작은 석탄 먼지들로 먼지투성이가 되었다는 감정”과 “모루(쇳덩이받침대)의 무게를 깃털 하나의 무게로 여겨지게 만드는 추(쇠) 하나가 매일 매일 나를 내리누르고 있다는 감정”만을 느낄 뿐이었다.

후년에(나중에) 가서 두꺼운 장막이 내 삶의 재미와 로맨스 위로 덮쳐, 윤기 없는 인내의 시간들을 제외하곤 내 주변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당해있다고 내가 느끼던 때가 있었다. 그런 감정은 대다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내 삶의 경로에 있어서 내 눈 앞에 조의 수습공이 되기 위한 길이 새로 활짝 펼쳐진 이때만큼이나 그 장막의 무게와 공허함을 내가 느꼈던 적은 결코 없었다.

나는 기억한다. 내 수습공 시절의 후반부에 밤이 내리누르는 일요일 저녁이면 난 내 자신의 전망(미래)과 바람 부는 습지대의 풍경을 서로 비교했었고, 이들 둘 사이가 평평함과 낮음에 있어서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이들 둘 다 알 수 없는 길과 짙은 안개 그리고 바다로 어어 지고 있음을 헤아려보면서 (부모님과, 너무 어렸을 때 죽었다는 내 다섯 형제들이 잠들어 있는) 교회 부속의 묘지 주변을 서성이곤 했다.

수습공생활 후반부에 내가 실의에 빠져 있던 것만큼이나 수습공생활 첫날 나는 분명 실의에 빠져있었었다.

하지만 내 계약기간이 지속되는 동안 조(매형)에겐 단 한 마디도 불 평하지 않았는데 난 아직도 이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이 아마도 이 시절에 있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던지는 유일한 칭찬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후 덧붙일 이야기들 안에 그것이(이렇게 말하는 이 유가) 포함되겠지만 내가 앞으로 밝힐 모든 공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조(매형)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때의 나는 그것을 알기에는 미약한 존재였다. 그것이 내 불행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내가 대장간에서 달아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바다로 나가 선원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 조가 내 앞에서 보여준 두터운 신의 때문이었다. 내가 내 직업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장장이가 내 기질에 맞지 않았음에도 내가 이 직업을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조가 내 앞에서 보여준 노동에 관한 강인한 믿음 때문이었다. 내가 근면해서가 아니었다.

“온화하고 정직하며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지 여기서 그것을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정말정말정말 좋은 문장임. 너무 감동 받아서 잠시 심호흡 중임~ ㅜ\_ㅜ.. 공감 200%+300%+1000%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행복이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요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생 활을 즐기며,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에 있 다.”임. 찰스 디킨스의 『 위대한 유산 』 은 제가 좋아할 요소들이 곳곳 에 널려 있네요. 좋은 징조임~)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적어도 그 영향이 내 앞을 스쳐지나갔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많이 떨렸었는지를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함을 맛보았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내 수습공 시절과 관련해 좋은 것이 하나라도 내게 있었다면 그것은 매사에 출세 지향적이고 쉼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불평불만을 품고 있던 내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삶에 충실하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매형)의 영향 덕이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때 당시 내가 원하던 것을 누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나도 모르던 사항들에 대해 그걸 누가 지금 다시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때 당시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어떤 운 나쁜 시간에, 내가 천하고 더러운 장소(대장간)에 서 있을 때, 내 눈을 들어 올렸을 때 대장간 목재창문들 중 하나 너머로 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에스텔라를 발 견하는 것이었다.”

나는 머잖아 그녀가 나를 찾아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검게 변한 얼굴과 두 손을 한 채 이 이 직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나를 적발할 것이며, 그럼 그녀는 크게 기뻐하며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내려다볼 거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종종 날이 어두워진 후, 내가 조(매형)를 돕기 위해 풀무(바람통을 움직여 화로의 불 키우기)질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클레멘 타인’(노동자들 민요)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를 동안에도, 그래서 ‘그러고 보니 미스 해비샴의 집에서도 이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불 속에서 에스텔라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을 때에도, 그리고 그녀가 두 눈 가득 나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런 때는 나는 목재 창문들을 쳐다보곤 했고 보이는 것 은 검은 밤의 장막들뿐이었음에도 그녀가 막 창문에서 얼굴을 돌렸다는 착각이 들어 그녀가 기어이 내 천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구나 하고 믿곤 하는 것이다.

그 후, 우리(조와 주인공)가 저녁 식사를 위해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과 식사는 이전보다 더 초라하게 여겨지곤 했고, 그리고 집도 이 전보다 더 부끄럽게 여겨지곤 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들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해온 집을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배은망덕한 아이, 그것이 이때 당시의 나였다.

**위대한 유산**

**15장**

웹슬 씨의 ‘대고모’(‘웹슬 씨의 아버지’의 고모)가 운영하는 저녁학교에 다니기에는 내가 너무 커버렸다. 그래서 상식을 벗어난 여성 아래에서의 교육도 자연스레 종결짓게 되었다.

다만 내가 저녁학교를 그만 둔 것은, 내가 비디(여자조연, 아름답진않고 평범한 외모, 저녁학교 선생님)에게서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전수받고 난 직후였다.

나는 비디에게서 조그만 한 가격목록 표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녀가 예전에 천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 ‘코믹 송’(익살스러운 노래)을 부르는 법까지 죄다 배웠다.

코믹 송의 경우 비록 논리적인 부분이 오프닝부분 단 몇 줄뿐이었지만 말이다. 그땐 코믹 송도 문학작품의 일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외우면서도 내 자부심은 대단했다.

코믹 송 오프닝 부분의 가사를 몇 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큰 맘 먹고 런던 시내로 놀러갔다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가다가 돌아왔다네. 룰루랄라~ 룰루라라~ 나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역시 코믹 송답다. 하지만 똑똑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묵직하게도 나는 이 곡을 다 외웠다. 하지만 노래가사에 “룰 루”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헷갈렸다. 하지만 이 곡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선 추호의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정보에 굶주려 있던 나는 결국 웹슬 씨(연극배우를 꿈꾸는 열혈 노총각, 아직까지는 교회서기, 뭐 어쨌든 나중에는 런던연극계에 진출 함^^스마일~)를 찾아가 이렇게 제안했다.

“지식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아저씨의 지식을 제게 전수해주세요.”

그도 이것을 흔쾌히 승낙했다.

하지만 곧 판명 났다. 그는 나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런던연극계 진출을 위한 대사연습용 상대로 나를 정했을 뿐 이었다. 지식의 전수니 뭐니 할 것도 없었다.

그는 연극대사를 읊으며 내게 갑자기 호통을 치는가 하면, 갑자기 나를 껴안기도 하고, 또 갑자기 혼자서 악이 바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더구나 어떤 때는 나를 움켜잡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쿡쿡 찌르기도 하는 등 내 주위를 돌아다니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을 떨었다. 즉 나를 마구 괴롭혔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러니 나도 곧 그의 교육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내가 그의 교육과정을 그만 둔 시점이 내가 시인의 열 분에 휩싸인 웹슬 씨에게서 괴롭힘을 마구 당한 이후였지만 말이다.

내가 얻은 지식은 무엇이든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에게 전수해주고 싶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내게 무슨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양심상 다 말하는 게 낫겠다.

조는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했다. 조를 조금만 덜 어리숙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보다 평범하게 보이게 하고 싶었다. 그럼 나하고도 더 잘 어울릴 테고, 에스텔라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덜 경멸할 테니까.

습지대에는 포병부대가 버리고 간 ‘오래된 포대’가 하나 있었다. 그 곳이 우리의 스터디장소였다. ‘깨진 석판 하나’와 ‘짤막한 석필 하나’가 우리의 학습도구였다. 조는 여기에다 담배 파이프 한 개를 항상 추가 했다.

내 지도 하에서 그리고 그 학습내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조(매형) 가 과연 일요일 날 배웠던 내용을 그 다음날까지도 기억했는지는 나로 서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는 포대에 앉아서 다른 어떤 장소에서보다 훨씬 더 현명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곤 했었고 어떤 때는 학식 있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마치 자신의 학습이 그 날 그 날 엄청난 진보를 보인 것을 축하하는 양 말이다.

내 소중한 동료, 학습에 진전이 있었길 바란다.

(주인공은 이제 꼬마가 아님, 15세 가량임, 나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_-; 아직 꼬마인가? 15세 맞나? 잊었네...이런. 여하튼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임.)

포대(포병부대가 버리고 간 시설물. 이들은 지금 해안가 언덕 위에 앉아 있음. 가운데 아래에서 왼쪽 위로 강이 흘러 내려가고 있고 오른 쪽으로 해안가 펼쳐지고 있음)는 즐겁고 조용한 장소였다.

토루(방어용 둑) 너머로 돛(보트)들이 강 위를 가로지르며 해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때때로 해수면이 낮아질 때면 돛들이 해안가 바닥 위에 뜬 채 여전히 바다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난 파당한 배들처럼 말이다.

새하얀 돛들을 활짝 펼칠 채 해안가에서 앞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배들을 바라볼 때면 나는 웬일인지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가 떠오 르곤 했다.

그리고 햇살이, 구름 위를 혹은 모래 위를 혹은 초록색 언덕 위를 또는 해수면 위를 비스듬히 내려와 세차게 부딪쳐 날릴 때면 나는 또한 그녀들을 생각하곤 했다.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 그리고 큰 저택과 그녀들의 낮선 생활방식은, 지금 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이 풍경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일요일이었을 것이다. 몹시도 즐겁게 담배를 피워대던 조가 자신이 아둔함 가지고 너무나 위세(뽐내기)를 떨어대는 바람에 그 날 수업은 그만하기로 한 날이었다.

나는 아까부터 손으로 턱을 괜 채 토루(방어용 둑) 위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모든 풍경 속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고 수면 위에서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의 흔적을 불현듯 보게 되었다.

결국 나는 머릿속으로 오랫동안 간직해왔었던 생각하나를 조에게 공개적으로 말해보기로 결심했다.

“조.” 내가 말했다. “내가 미스 해비샴을 한 번 찾아봬야하지 않을까?”

“글쎄다, 핍.”(핍은 주인공이름) 조가 대답했다. 천천히 하지만 깊은 사색 후에 조가 대답했다. “방문 목적은 뭐라고 할 거니?”

“방문 목적이 뭐라니, 조? 방문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냐!” “그런 종류의 질문을 절대 피할 수 없는 방문이 있단다, 핍. 아마도

이 경우엔 말이다.” 조가 대답했다. “네가 미스 해비샴을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면…. 네가 뭔가를 바란다고 그녀가 생각하지 않겠니? 네가 그녀에게서 뭔가를 바란다고 말이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 되잖아, 응? 조?”

“그래 네 녀석은 그러고도 남을 아이지.” 조가 대답했다. “그녀도 널 신용할거다. 물론 똑같은 이유로 널 신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조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느꼈고 사실 그대로였다.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는 담배를 깊숙이 빨아 당겼다(피웠다).

“알겠니? 핍.” 말을 반복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자마자 조가 설득조로 말했다. “미스 해비샴은 네게 관대하게 행동했다. 미스 해비샴이 네게 후한 보수를 준 날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하더구나. ‘그게 다’라 고.”

“그래, 조. 나도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그게 다’라고.” 조가 힘주어 되풀이했다. “내가 말했잖아, 나도 들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이다, 핍, ‘그게 다’란 말의 의미는 ‘그게 다’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 알겠니? 난 북쪽으로, 넌 남쪽으로! 더이상 볼 일 없다! 뭐 이거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조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니(-\_ㅜ;) 하지만 그런 대답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단지 내 생각을 재확인 했을 뿐이다.

“하지만, 조.”

“그래, 얘야.”

“난 이제 막 내 수습기간 중 첫 번째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어(←이 것으로 주인공의 나이가 분명해졌음. 주인공나이 12살임). 수습공 계약을 맺던 날 이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잖아. 고맙다는 말도 못했고 안부를 여쭙지도 못했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도 전하지 못했 고.”

“그건 사실이구나, 핍. 하지만 네가 곡선으로 된 유리 편자(말발굽 보호용 쇳조각)를 그녀에게 선물로 주지 못할 바에야. 내 말의 의미는 유리 편자도 그녀에겐 선물이 못 될 거란 얘기란다. 그녀에겐 발굽이 없으니까.”

“그런 종류의 인사를 드리겠다는 게 아냐, 조. 내가 말한 건 선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선물에 대한 생각이 조(주인공의 매형)의 머릿속을 점령한 상태였다. 조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조가 말했다. “만약 네가 그녀 방문에 달 도어체인(방범용 문의 쇠사슬)을 뚝딱 만들어준다면 모를까… 아니지 다용도로도 쓸 수 있는 상어머리 나사못 144개나 2백 개쯤 만들어주는 게 낫겠네, 아니지 예쁜 의장품을 몇 개 만들어 선물로 드린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머핀(작고 둥근 빵)을 찍어먹을 수 있게 포크를 만들어드린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작은 청어를 구워먹을 수 있게 석쇠(굽는 기구) 같은 걸 뚝딱 만들어준다면….”

“내가 말한 건 선물이 아니래도, 조.” 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글쎄다.” 조가 말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분명 강조했음에도 조는 막무가내였다.

조가 계속 말했다. “만약 내가 너라면 말이다, 핍(주인공꼬마이름, 12세). 나는 다른 걸 선물할거란다. 암 다른 걸 만들어드리고말고. 도 어체인은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잖니, 상어머리 나사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찍어먹는 포크? 포크라면 놋쇠로 만들어야 할 텐데 놋쇠를 그녀 에게 선물 할 순 없지. 석쇠도 마찬가지다. 솜씨 좋은 장인이 기량을 뽐내기에는 석쇠도 적절한 물건이 아니지 않니? 석쇠야 잘 만들어봤자 그저 석쇠일 뿐이니까.”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조의 선물 이야기는 계 속되었다. 마치 조가 내 생각 중 고정된 망상 부분을 꺼내길 원하는 것만 같았다.

조가 말했다. “내 얘기는, 네가 그녀를 생각해 선물을 드린다고 하더 라도, 석쇠는 그저 석쇠로 판명 날 뿐이라는 것이다. 네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말이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핍.”

“그만, 조.” 자포자기식 감정이 들어 내가 그의 소매를 잡으며 말했다. “그런 선물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야 아니라니깐. 그냥 안부인사만 여쭈고 나올 거야.”

“그래, 핍.”(핍은 주인공꼬마이름, 12살) 조가 찬성했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그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네가 잘 생각할거라는 거야, 핍.”

“내가 뭘? 뭘 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요즘 일도 느슨하고 하니깐 조가 내게 내일 반나절 동안의 휴식을 줄 수 있느냐 야.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읍 외곽으로 나가 미스 에스테… 아니 해비샴 마님을 만나고 올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니?” 조가 진지하게 말했다. “에스타비 샴(에스텔라+해비샴)이 그녀 이름이었니? 그녀가 그 사이에 개명을 하지 않았다면야….”

“알아, 나도 내가 말실수 한 걸 안다고, 조(매형이름). 그러니까 응? 내가 방금 제안한 거 어떻게 생각해? 내 조퇴 말이야 어?”

요컨대, 조는 내가 그러고 싶다면 자신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는 한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는데 다음과 같다. “만약 네 방문이 그녀(미스 해비샴, 갑부 미망인)에게서 아무런 호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네 방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1년 전 그녀에게서 받았던 호의(1천2백 만 원)에 대한 감사인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녀가 네 재방문을 달 가와 하지 않는다면 너의 이번 실험은 이번 한 번으로 그쳐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친구야?”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조(주인공의 매형)는 주급(일주일 수당)을 주면서 제구실을 하는 장인 한 명을 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올릭(악당, 이름 기억하셔야 함, 주인공의 누나를 해치고 주인공을 일생일대 위기로 몰아넣는 악한, 뭐 이런 사람이 현실에 많은 것이 한이지만)이었다. 자칭 “내 세 례명은 돌지다”라고 온 마을에 떠벌리고 다니는 인물이었다. “세례명이 돌지”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돌지”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는 없음. 올릭이 마을 사람들에게 섬뜩한 인상을 주려고 지어낸 이름임)

올릭은 완고한(양보하지 않는) 성격의 사내였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세례명이 돌지”라고 주장하고 다녔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망상의 희 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기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건 마을 사람들의 이해력에 대한 모욕의 의미를 담아 고의적으로 자신의 세례명을 “돌지”라고 주장하고 다닌 것이다.

그는 어깨가 넓고 움직임이 유연한 사내였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그리고 몸을 항상 앞으로 수그린 채 그렇게 축 처진 자세로 걷는 사내였다.

그는 심지어 대장간에 일을 하러 올 때조차도 결코 일하러 온 자세가 아니었다. 단지 어쩌다 대장간에 들린 사람마냥 몸을 수그린 채 들 어왔다.

그는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에 정식(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밥)을 먹으러 갈 때조차도 혹은 야간에 어딘가를 갈 때조차도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카인(성경에 나오는 살인자)이 동생(아벨)을 죽이듯 유대인이 방랑의 길을 떠나던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로 걷곤 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되돌아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는 멀리 습지대 위에 있는, 수문지기의 집(소설 후반부에 주인공이 위기를 겪게 되는 장소)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다.

주중(출근)이면 자신의 오두막에서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어깻죽지가 축 늘어뜨리고 걸어오곤 했다. 양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목에다 도시락 끈을 둘러맨 채 도시락을 등 뒤로 대롱대롱 달로서 출 근하곤 했다.

그는 일요일이면 갑문(물의 유량을 조절하는 수문) 위에 하루 종일 누워 있곤 했다. 아니면 건초가리들(말린 풀 더미)이나 헛간들에 기대 서 있곤 했다.

그는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시선을 땅에다 고정시킨 채 기관차처럼 걷곤 했으며, 누가 자신을 부르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어야 할 상황이면 반쯤은 분개한 자세로 반쯤은 곤혹스럽다는 표정으로 고 개를 들어 올리곤 했는데 그건 마치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내가 생각이란 것을 결코 해보지 않네. 이런 기묘하고 유해한 사실이 있나!’

이 성미 까다로운 장인(대장장이)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아주 어리고 겁이 많던 꼬마였을 때에도 그는 나에게 “저 어두컴컴한 대장간 구석에 악마가 살고 있다. 난(올릭) 그 친구를 잘 알지”라고 믿게 만들었고, “7년에 한 번씩은 살아 있는 소년으로 화로에 불을 지핀다. 내 생각엔 이번엔 네(주인공꼬마)가 그 연료가 될 것 같다.”라는 말로 나를 거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었다.

내가 이제 조(주인공의 매형)의 수습공이 되자, 올릭은 아마 내가 자 신의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의심을 확신한 것 같다. 비록 그가 날 덜 좋아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그가 한 번이라도 내게 뭔 말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적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었다. 다만 그가 항상 불꽃들을 내 쪽으로 튀기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내가 ‘클레멘 타인’(노동자들 노래)을 부를 때마다 그가 박자가 맞지 않게 끼어드는 것을 보고 그가 내게 적의를 품고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다음 날 나는 조(매형이자 마스터, 대장자이)에게 반나절 휴가에 관해 상기시켜주었다. 그때 ‘돌지 올릭’(악당, ‘올릭’이 이름 ‘돌지’는 별 명)도 그 자리에서 작업 중이었다.

올릭은 그 순간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조와 자기 사이에 불덩어리가 된 쇳조각 하나를 막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때 풀무를 이용해 화로에 바람을 넣어주고 있었다.

머지않아 올릭이 들고 있던 해머로 쇳조각을 후려갈기며 말했다. “젠장 할, 마스터! 우리들 하나만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저 어린 핍

(주인공이름)이 반나절 휴가면 이 늙어빠진 올릭도 반나절 휴가를 주 셔야죠.”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 정도였지만 그는 자신이 고대인(옛날사람)인 양 증명하려는 버릇이 있었다.

“왜, 반나절 휴가를 받게, 뭐 하려고 그러나?” 조가 말했다.

“이런 세상에 제가 뭐하려고 그르냐고요! 그럼 저 녀석은 뭐 할 건 데요? 저도 저 녀석만큼 할 일이 많다고요.” 올릭이 말했다.

“핍(주인공이름)은 읍에 가봐야 하네.” 조가 말했다.

“잘 됐군요! 늙어빠진 이 올릭도 읍에 갈 겁니다.” 조의 말을 반박하며 올릭이 말했다. “둘 다 읍으로 가는 겁니다. 한 놈만 읍에 갈 순 없 습니다.”

“화내지 말게.” 조가 말했다.

“이런 젠장, 화는 내고 싶을 때 제가 낼 겁니다.” 올릭이 으르렁거리며 계속 말했다. “한 사람만 읍에 가느냐! 두 사람 다 읍에 가느냐! 자, 마스터! 어서요. 이 대장간 안에서 편애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당(공평)하게 구세요!”

조는 거부했다. 올릭(사악한 악당)의 기분이 더 좋아질 때까지 이 주 제(반나절의 휴가)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자 올릭이 용광로로 돌진해서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지렛대를 꺼내 그걸로 나를 찔러 죽이려는 듯이 달려들었다. 그러더니 작대기를 내 머리 주위로 재빨리 한 번 내두르고는 모루(물건을 올려놓고 해머 질을 할 수 있는, 대장간 쇠 받침대) 위에 쇠지렛대를 올려놓고는 해머 질을 해 대기 시작했다.

쇠지렛대가 나(주인공)이고 미친 듯이 튀기고 있는 불꽃들이 내(주인 공) 핏자국들인 양 올릭은 해머 질을 해댔다. 결국 해머 질로 자신의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후 그리고 달구어진 쇠지렛대를 물에 넣고 식인 후 올릭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해머로 쇠지렛대를 한 번 더 후려 갈기며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마스터!”

“이젠 괜찮아졌는가?” 조가 따지듯 물었다.

“아! 괜찮아졌습니다.” 자칭 늙어빠진 올릭(25세)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렇다면, 대체로 봤을 때 자네도 다른 직공들처럼 이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참고 계속해 왔으므로,” 조가 말했다. “오늘은 자네에게도 반 나절의 휴가를 주겠네.”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누나(주인공의 친누나, 20살차이)가 안뜰에서 가만히 엿들으며 서 있었다. 누난 가장 거리낌 없는 스파이이자 도청자였으니까.

사태(직공 두 명이 동시에 휴가)를 파악한 누나가 그 즉시 창문을 통해 대장간 안을 들여다보며 조(누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이 등신아! 저런 게으른 궁둥이들에게 휴가를 주면 어떡해. 퍽이나 인심 쓴다 이 인간아. 당신 자신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그딴 식으로 직공들(핍과 올릭) 월급을 낭비 하다니. 내가 저것들(주인공과 올릭) 마스터여야 하는 건데!”

“흥, 마스터가 될 수 있다면 한 번 돼보라지.” 올릭(25세)이 히죽거리며 불쾌하다는 듯 대꾸했다.

“그녀를 내버려두게, 올릭.”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너희들 같은 머저리들과 사기꾼들은 언제든지 상대해주지.” 누나가 지나치게 화를 내기 시작하며 응수했다. “나는 머저리들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마스터와 먼저 맞장 뜨지 않고는 네 놈을 상대할 수 없어. 영국과 프랑스를 통틀어 가장 악하고 기분 나쁘게 생긴 네 놈과 맞장 뜨지 않고는 다른 녀석들을 상대할 수도 없고. 잠 덤벼 이 놈아!”

“이런 젠장 할, 더럽게 바가지를 긁어 대는 여자네. 엄마처럼 굴지 마란 말이야.” 올릭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그 딴 걸로 악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저 ○이 딱 그 짝이겠네, 젠장 할.”

“그녀를 내버려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올릭.” 조가 굳은 표 정으로 말했다.

“너 방금 뭐라고 지껄였어? 뭐 ○!” 누나가 고함을 질러댔다. 누나의 목소리는 이제 새된 목소리 마냥 거칠어지고 있었다. “너 이 자식아 지금 뭐라고 말했냐니까? 핍(누나의 친동생, 20살 아래)아, 저 놈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냐? 네(올릭)가 지금 나한테 욕을 해, 내 남 편이 여기 있는데? 오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이제 누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비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이제까지 만나왔던 난폭한 여성들의 경우 똑같이 적용가능 한 진실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격렬하고 갑작스러워 억누르기 어려운 감정을 그녀들의 실수로만 감싸줄 순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 누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기감정을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상태로 차츰 누그러뜨리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자기감정을 격정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는 힘든 수고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녀들은 규칙적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거의 맹목적이고도 노발 대발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한 내 남편 앞에서 지금 저 인간이 내게 말 하는 폼 좀 보세. 아이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 올릭(악당)이 누른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저 ○이 내 마무라였다면 당장 붙잡아 펌프에 집어넣고 숨도 못 쉬게 했을 텐데.”

“그녀를 내버려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조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아이고! 저 놈 말하는 것 좀 보소!” 누나가 손뼉을 한 번 친 후 말했다. 그건 하나의 비명에 가까웠다. 이제 그녀는 좀 더 높은 단계의 분노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지금 저 놈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라. 저 작자가! 내 집 지붕 아래에서! 결혼한 나보고! 내 남편이 버젓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누나는 발작적인 박수들과 비명들을 질러댄 후, 두 손바닥으로 자신의 가슴과 무릎을 쳐댄 후 쓰고 있던 모자를 마당에 내던지곤 머리까지 풀어 제쳤다(풀어 내렸다). 결국 누나는 마지막 분노 단계인 광란의 질주 단계에 막 진입한 것이다.

이때까지 광란의 분노 단계에 막 진입하는 데 완전히 성공한 누나가 대장간 문 쪽으로 돌진했다.

다행히도 문은 안에서부터 잠겨있었다.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올릭(악당)의 입을 다물게 하려다 무시당한 비참한 꼴이 된 조(주인공의 매형)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자신의 부하 직원 앞에 당당히 버티고 선 채 올릭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나와 내 아내 사이에 그런 식으로 끼어들다니 무슨 의도 지?” 더 나아가 조는 올릭이 자신에게 당당히 덤빌 수 있는 사내인지 아닌지를 물었고, 상황이 이쯤 되니 자칭 늙어빠진 올릭(25세, 괴력의 소유자, 악당, 대장간 장인)도 이 싸움에 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듯 했다. 그 즉시 올릭이 방어 자세를 취했다.

불에 그슬리고 탄 작업용 앞치마들을 벗고 말고 할 겨를도 없었다. 두 거인은 그렇게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조(주인공의 매형)의 공격을 오래 견뎌낼 수 없었다. 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조의 공격을 한 동안 버터낼 수 있는 이웃을 본 적이 없었다.

올릭은, 마치 창백한 어린 신사(주인공의 한 방에 나가떨어졌던 도련 님)처럼 석탄 더비 사이로 나가 떨어졌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나오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올릭에게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조가 대장간 문을 열고 안뜰로 나갔다. 조가 내 누나(조의 아내)를 안아 들었다. 누나는 감 각을 잃고 창가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내 생각에 누나도 조와 올릭의 결투를 지켜보았을 것 같았다.

조가 그녀를 집 안(주인공의 집은, 대장간과 가정집이 따로 임)을 옮긴 후 그녀를 자리에 눕혔다. 조가 그녀에게 깊이 숨을 들어마셔 보 라고 말했다.

내 누나는 두 손으로 조의 머리카락을 꽉 쥐고서 버둥거리려 할 뿐 이었다.

그러더니 모든 소동 뒤에는 늘 따라오기 마련인 치욕 같은 고요와 침묵이 우리들 사이에 찾아왔다.

내가 바로 이런 소강상태와 항상 연결 짓곤 하던 모호한 감정이 든 것도 그때였다. 즉, ‘오늘이 일요일이지. 누군가가 죽은 거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모호한 감정 말이다.

나는 위층 내 다락방으로 올라가 옷을 챙겨 입고 외출할 준비를 했다.

내(주인공, 조의 수습공이자 처남, 12살 혹은 14살)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와 올릭(악당, 25세, 조의 부하직원, 대장간에서 일하는 장인, 주인공의 누나를 해치고 주인공을 일생일대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범죄자)이 빗자루 질을 하고 있었다. 올릭의 콧구멍들 중 한 쪽에 가늘고 긴 상처가 난 것 빼고는 그에게서 어떤 다른 동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다.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에서 맥주 1000cc(천 시시

=1리터)가 배달되어온 것 같았다. 빗자루 질을 마친 조와 올릭이 일대 일로 그 맥주를 차례대로 나누어마셨다.

맥주가 조에게 철학적인 통찰을 주었고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 분명했다. 그가 나를 배웅하러 도로까지 따라 나오며 이번 방문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며 작별인사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투기도 하고, 핍(주인공 이름), 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핍, 그런 게 인생 아니겠니.”

나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들뜬 마음상태로 미스 해비샴(갑부, 39세 여성)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전혀 중요한 항목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른들(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주인공자신, 어른)은 아주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감정들을 아이들의 경우 익살맞다고 그저 생각하고 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미스 해비샴이 분명 돈 천 만원을 주며 이것으로 주인공과 자신은 쌤쌤이라고 분명 말했음에도 재차 그녀의 집을 그것도 1년 만에 다시 방문 하는 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님에도 주인공은 에스텔라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

또한 내가 그 집 대문 벨을 울리기로 최종적으로 마음먹기까지, 내가 그 집 대문을 얼마나 여러 차례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를 무한 반복했는지는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집 대문 벨을 울리지 말고 그냥 내 집으로 되 돌아가야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제고해보았는지도 여기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또한, 만약 내 스케줄을 내가 조정할 수 있었다면 그녀의 저택을 방문하지 말고 당장 내 집으로 되돌아갔어야 했었음이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얼마나 명백해졌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옳지 않다.

에스텔라가 아니라, 세라 포킷(결혼하지 않은 주름투성이 노파. 소설 속 엑스트라. 독자가 이름을 알아두면 중간 중간 소설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름임) 양이 대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에스텔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길 다시 찾아오다니? 그래, 어떻게 왔지?” 미스 세라 포킷 양이 말했다. “원하는 게 뭐지?”

나는 단지 미스 해비샴 마님(39세)에게 인사차 들렸다고 말했다. 세라는 ‘이 애를 여기서 당장 돌려보낼지 아니면 자기 권한만으로도 이 애를 들여도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지는 모험을 감수하긴 싫었던 그녀는 나를 대문 안으로는 들이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곤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가 “올라와도 좋다.”는 미스 해비샴 마님의 짤막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미스 해비샴의 방은 그대로였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었다. 다만 이 번에는 미스 해비샴 마님 혼자만 이 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래,” 그녀가 시선을 내게로 고정시킨 채 말했다. “네가 무엇을 바 라고 왔는지는 내 모르겠다만 내게서 더 얻어갈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어라.”

“아니에요 마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 수습공생활을 잘 해왔고 그 때문에 마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 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됐다, 됐어!” 그녀가 또 예전처럼 자신의 손가락들을 성마르게 움직이며 말했다. “때때로 찾아 오거라. 네(주인공) 생일날 맞추어서 와라.

…, 아아!” 몸과 의자를 내 쪽으로 돌리던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너 지금 에스텔라를 찾기 위해 둘러보고 있구나? 그렇지?”

실제로 나는 그때 에스텔라를 찾기 위해 방안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여쭈어야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해외(프랑스 파리)로 갔다.”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숙녀 수업을 받으러 나갔지.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말이다. 전보다 더 예 뻐졌고 그 애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한단다. 어떠니 그 애를 잃은

감정이?”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그녀 자신의 악의에 찬 희열감이 엿보였다. 곧 그녀가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제 무슨 말을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말았다.

그나마 양심은 있었던지 그녀가 “그만 가 봐라”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나를 놓아주었다.

호두껍데기로 만들어진 것 같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입이 고양이 입 같이 커다란 ‘세라 포킷(노파) 양’이 내 뒤에서 대문을 걸어 잠걸 때, 나는 내 집과 내 직업(대장간 수습공)과 내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해 이 전보다 훨씬 더 큰 불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 날의 방문으로 내가 얻은 것은 그게 다였다.

‘내가 만약 신사라면 무엇을 사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며 암담한 심정으로 가게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며 시내 중심가를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서점에서 막 나오고 있는 웹슬 씨(연극배우를 꿈꾸는 열혈 노총각, 아직은 교회서기)를 발견했다.

그의 손에는 조지 릴로(18세기 초반의 영국비극작가)가 쓴 비극적인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책의 제목은 〈런던의 상인 조지 반웰의 이

야기 〉 (1731년)였다.(책의 내용 : 평범한 수습공이 신분상승을 꿈꾸다 나쁜 길로 들어선 결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던 ‘고용주와 고용주의 딸’을 버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며 패가망신하더라는 이야기?????←저도 안 읽어봐서 모름. 네이버검색 ‘조지 릴로’와 ‘조지 반웰’ 참조)

“지금 막 이 책에 만 2천원을 투자했지. 잘 했어. 굿. 지금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 즉 곡물 도매상)를 만나 차 마시기로 했는데 잘 됐네! 잘 됐어! 그 무식한 자의 머릿속에 이 책의 내용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몽땅 쏟아 붓고 와야지. 방글방글. 흐뭇~”

그때 그가 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어째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게 나를 쳐다보는 표정이…, 하느님께서 지금 막 자신(웹슬)에게 “저 핍이라는 수습공을 네(웹슬)게 보내노니 그 애보고 너희들 앞에서 그 비극을 읽어라 시키어라.”라며 계시를 내린 것 같은 눈치였다. 이런 말도 안 되 는!

그가 나를 막무가내로 붙들었다. 그러더니 자신과 함께 펌블추크 씨 응접실로 가자고 우겼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지금 이 비참한 심정은 그대로일 테고 또 밤도 깊었고 귀갓길도 황량(쓸쓸)할 테니, 이왕 이렇게 된 것 혼자 마을로 돌아가느니 이 모임을 끝내고 웹슬 씨와 함 께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나는 크게 저항하지 않고 웹슬 씨를 따라 펌블추크 씨 댁으 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가 막, 거리와 가게들에 불이 커질 때쯤이었을 것이다.

나는 조지 반웰(비극의 주인공)을 다룬 그 비극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당연히 그 연극이 몇 시간짜리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모임이 그날 밤 9시 30분을 넘기고서야 간신히 끝이 났었다는 것이다.

특히 책 속에서 ‘뉴게이트 감옥’(런던 서쪽에 있던 유명한 감옥, 1902년에 폐쇄됨)에 갇힌 주인공(이름이 ‘조지 반웰’)을 연기하던 웹슬 씨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주인공의 착함과 대비되는 이 치욕적인 경 력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재차 삼차 연기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나는 웹슬 씨가 절대로 자진해서 그 다음 단계인 주인공의 교수형 장면까지 이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결국 웹슬 씨가 이런 불평을 했다. “어째, 조지 반웰(비극의 주인공) 이라는 이 한 떨기 꽃 같은 청춘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야 말았단 말인가? 마치 그 자신이 수습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불행을 피하기 위해 갈피갈피(사이사이) 애를 쓰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웹슬 씨의 이런 불평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었다. 그건 단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주인공과 그런 주인공을 지루하게 연기한 웹슬 씨의 연기력에 관한 문제일 뿐인데 말이다.

나를 쓰라리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 사건 전체가 꼭 내 천진난만한 이야기인 양 들렸기 때문이다.

조지 반웰(비극의 주인공)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부분을 웰슬 씨가 연기했을 때(고용주의 딸을 버리고 타락한 여자에게 빠졌을 때)는, 내가 주인공 대신 이들에게 사과해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정도다.

펌블추크 씨(능청스러운 곡물상인) 또한 그게 모두 나 때문인 양 분개하며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웹슬 씨 또한 그 부분을 연기하며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게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고용주의 딸을 버릴 나쁜 놈이란 말인가?

나는 이제 이들의 눈에 잔인하고 눈물이 헤픈 주인공인 동시에 일고 (돌이켜 생각해봄)의 가치도 없는 패륜아(삼촌살해)인 양 비난받고 있 었다. 내가 왜?

타락한 여자(비극에 나오는 여자이름, 이름이 ‘밀우드’)는 사람들 앞에서 사사건건 나를 깔아뭉개고 있었고, 그에 반해 내가 버린 고용주의 딸은 내 옷깃에 달린 단추 하나도 버리지 못해 눈물을 흘리는 100% 편집광(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적인 여자로 웹슬 씨는 묘 사하고 있었다.

사형집행 날 아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거리며 쩔쩔 매던 나는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다. “딱 저네요(-\_-;). 총체적 부실함.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제 성격에 잘 들여 맞는 작품이네요.”

나는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의 교수형과 함께 웹슬 씨가 책을 덮었다.

하지만 펌블추크 씨(곡물상인)만은 여전히 쀼루퉁한(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곧 그가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내게 말했다. “교훈으로 삼아라, 소년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지니!”

이건 뭐 그는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다. 내가 앞으로 내 가까운 사람을 살해할 범죄를 저지를 것이 명약관약(확실)함을 말이다. 만약 내가 내 가까운 사람을 유인해 그 불쌍한 사람을 내 은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장차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은인을 살해할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양 펌블추크 씨가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훈으로 삼아라, 소년아, 경계하고 또 경계할 지니!”

모임이 파하고(끝나고) 웹슬 씨와 내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을 때엔 사방이 이미 깜깜한 밤이었다. 읍을 벗어나자 안개가 장난이 아 니었다(자욱했다). 안개 때문에 옷이 축축해지고 무겁게 느껴졌다.

유료 도로(마차 통행세를 내야하는 도로)의 램프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다. 보기에도 램프 위치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저 쪽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렇게 보였다. 램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선이 안개에 갇혀 고체물질 같이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맘 때만 되면 습지대에서 부는 바람이 변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안개가 발 생하지. 이 둘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 우리가 어떤 남성을 발견한 것이 그때였다. 유료 도로(마찻길) 요금 받는 건물 벽들 중 바람이 없는 벽에 기댄 채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축 처진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남성이었다.

“어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불렀다. “거기 올릭(천성적으로 사악한 악당) 아닌가?”

“엇!” 그가 구부정한 자세로 우리 쪽으로 걸어오며 대답했다. “잠깐 서 있었지, 친구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진 채 말이야.”

“늦었군요.” 내가 주목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올릭도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 너도 늦었구나.” “우리 모두 늦었도다!” 펌블추크 씨의 응접실에서 있었던 비극상연

으로 기분이 아주 들떠 있던 웹슬 씨(교회서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 다. “올릭 씨, 우린 지금 막 지적인 저녁을 보내고 오는 길이라오.”

지적인 저녁이고 뭐고 자기는 더 할 말도 더 없다는 듯 ‘자칭 늙어 빠진 올릭(악당)’이 으르렁거렸다(말했다).

우리 셋은 그렇게 귀갓길의 동행이 되었다.

내가 곧 올릭에게 이렇게 물었다. “반나절의 휴가 어디서 보냈어요. 읍내? 아님 부자동네에서(읍 외곽)?”

“그래.” 올릭이 말했다. “둘 다다. 네 놈이 읍내로 들어가고 바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나는 네 놈을 못 봤다지만 어쨌든 네 놈 뒤에 있었을 거다. 그건 그렇고, 뭔 놈의 대포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야.”

“감옥선(배)에서 나는 소리 아녜요?” 내가 말했다.

“아아! 그 놈의 새장에서 나는 소리였군. 그렇담 몇 마리가 튄 모양 이군. 거무스름할 때부터 쏘아댔으니 벌써 날랐겠군. 이제 또 한 방 쏠 거다.”

실제로도 우리가 몇 미터 못 가서 대포 소리가 들렸다. “붕”하고 울리는 아주 익숙한 소리였다. 우리 쪽 방향으로 발사된 것 같았다. 안개가 그것을 가로막아 대포소리는 실제보다 훨씬 약하게 들렸지만 내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소리였다. 그러고 보니 마치 도망자를 뒤쫓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마치 도망자를 위협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대포소리들은 강가 낮은 언덕을 따라 무겁게 굴러가고 있었다.

“튀기에 좋은 밤이지. 역시 도망가기에 이런 밤도 없지.” 올릭이 말했다. “녀석들 골치 좀 아프겠는걸. 튄 놈들이야 나르면 그만이지만 간수 들이야 다시 잡아들 이려며 말이야. 어쨌든 일 났군. 오늘 밤 고생 좀 해라, 이것들아.”

이 주제(탈옥수)는 나에게 연상시키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탈옥수)에 대해 생각에 잠겨갔다.

웹슬 씨는 자신이 아까 연기했던 비극 속 삼촌, 주인공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주인공에게 살해당한 삼촌으로 빙의(혼이 옮겨 붙음)되어 있었다.

웹슬 씨는 캠버웰(‘남쪽’에서 ‘런던’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중간점. 즉 마차 통행세 내야하는 지점)에 위치한 정원에서 지금 죽음과 같은 명상에 잠겨 큰 소리로 마구 떠들어 대고 있었다. 명상과 떠드는 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두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올릭은 내 옆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무겁게 걷고 있었다.

아주 어두운 밤이었고, 안개로 뒤덮여 아주 축축한 밤이었다. 아주 진흙투성이 밤이었으며 온통 안개뿐인 그야 말로 보이는 모든 것이 흐 리멍덩해지는 밤이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잘박잘박(질퍽질퍽) 걷고 있었다.

도망자가 있었음을 알리는 대포소리가 우리들 위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심술스럽게도 강을 따라 굴러가곤 했다. (위에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감옥 선이 있고, 화면중앙의 위에서 화면중앙의 아래로 강이 길게 있고. 세 사람은 화면 아래로 걸어가고 있음)

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웹슬 씨는 캠버웰(런던남부)에서 온화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보즈워스 필드(‘장미전쟁’이라는 영국내전 당시 리처드 3세라는 왕이 죽임을 당한 곳)에서는 사냥개들에게 미친 듯이 뒤쫓기고 있었으며, 글래스턴 베리(영국남서부의 도시, 영국최초로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를 넣었다는 잔이 있었다고 하는 도시)에서는 극심한 고뇌로 몸부림 치고 있었다.

올릭도 가끔 으르렁거리며 노래했다.

“두들기고 패고, 두들기고 패고, 오 성스러운 우리의 클레멘트 주교님! 때리는 소리 좋고 울리는 소리 더 좋네, 오 성스러운 클레멘트 주교님!” (클레멘트 주교 : 기원후 1세기에 프랑스 북동부 도시 ‘메츠’로 제자 2명과 함께 파견된 성스러운 가톨릭주교. 당시 메츠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던 용과 악당들을 격퇴했다는 전설이 있음)

내 생각에 올릭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 하지만 취해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마을에 다다를 수 있었다. 우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단골술집인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 옆을 지나가는 길을 택했는데 놀랍게도 시각이 밤 11시였음에도 술집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분명 큰 동요가 있어 보였다.

익숙지 않은(평소엔 볼 수 없는) 조명들이 허둥지둥 들어올려졌다가 허둥지둥 다시 내려놓아지며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다(드문드문 놓여있었다).

웹슬 씨 생각엔 오늘 저녁에 도망간 죄수가 잡혔을 거라고 했다. 그래도 직접 알아보겠다며 웹슬 씨가 잠시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웹 슬 씨가 몹시 놀라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뛰쳐나왔다.

“큰 일 났구나.” 그가 쉬지 않고 말했다. “어서 너희 집으로 가자, 어서 핍. 달려!”

“무슨 일인데요?” 내가 그를 따라잡으며 말했다. 물론 올릭(악당)도 내 옆에서 뛰고 있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 ‘조 가저리’(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가 외출한 사이 너희 집에 강도가 들은 것 같다더구나. 내 생각엔 오늘 저녁에 도망갔다는 죄수가 아닐까 싶다. 너희 집에 있던 누군가가 공격을 받았는데 다쳤다는구나.”

우리들은 빨리 뛰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부엌에 도착해서야 우리의 걸음을 멈추었고, 부엌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와 있었고 부엌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안 뜰에 있었다. 외과 의사도 부엌 안에 있었다. 조도 있었고, 한 무리의 여성들도 와 있었다. 이들(마을 사람들, 의사, 조, 여성들)은 우리 집 부엌 한 복판의 바닥 위에서 토의 중이었다.

이 토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당한 구경꾼들이 나를 발견하자 길을 내주었다.

그제야 나는 피해자가 내 누나인 것을 발견했다. 누나는 뒤통수에 무시무시한 가격을 당해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쓰러진 판자더미들 위 에서, 누나는 어떠한 감각도 없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는 있데 사지가 마비된 것이다.

사건은 누나가 벽난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발생했다.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뒷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누나가 실은, 조(누나의 남편)의 아내인 동안에는 더 이상 사납게 화를 낼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위대한 유산**

**16장**

내 머릿속에서는 ‘조지 반웰’(비극의 주인공, 직업이 주인공과 같은 수습공)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누나가 이렇게 된 것에는 나도 일 정부분 역할을 했었음이 분명했다.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이 경우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랬다. 그녀에게 은혜를 입어온 것으로 익히 알려진 내가, 누나의 가장 가까운 혈족(남동생)인 내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것은 내 머릿속에

서 점점 더 당연시되어 갔다.

하지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날이 점점 더 밝아왔을 때 나는 이 사건에 대해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내가 주변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서 확신으로 변해갔다.

조(누나의 남편)는 당시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에 가서 담배파이프를 물고 있었었다. 그가 그곳에 머물었던 시각이, 저녁 8시 15분부터 9시 45분까지였다. 그가 그곳(술집)에 앉아있는 동안, 내 누나는 우리 집 부엌 문지방에 앉아 있었고, 농장 일꾼이 그녀를 발견하곤 서로 저녁인사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농장 일꾼은 그 시간이 저녁 9시 전인 것 같다는 것밖에는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시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자 그는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조가 집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9시 55분이었다. 그 후 바닥에 쓰려져 있는 누나(조의 아내)를 조가 발견했고 그는 즉시 이웃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벽난로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을 때였고 부엌에 있던 양초의 심지가 타서 까맣게 된 부분이 아직 길지 않을 때였다. 하지만 양초의 불만은 무언가에 의해 꺼져 있었었다.

집 안 어디에도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 부엌문과 누나 사이에는 식탁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 촛불이 하나 있었다. 그게 다였다. 누나는 벽난로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뒤에서 머리와 등뼈를 가격 당했던 것이다. 누나는 쓰러지며 피를 흘렸고 그 외에는 부엌 어디에도 어질러진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부엌에 한 가지 범상치 않은(주목할 만한) 증거물이 발견되었다. 그건 오래된 족쇄(다리에 차는 쇠사슬)였다.

누나는 무언가 뭉툭(뭉툭한 것으로 맞으며 타격이 강함)하고 묵직한 것에 의해 머리와 등뼈에 가격을 당했고 그 수차례의 타격이 마무리된 후 쓰러진 그녀 위로 또 무언가 묵직한 물건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내던져졌다. 그때 그녀는 이미 얼굴을 부엌바닥으로 향한 채 사지가 마비된 직후였다.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가 그녀를 들어 올 리려고 할 때였다. 그녀 옆에서 족쇄(다리에 차는 쇠사슬) 하나가 발견 되었다. 그것은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도구)에 의해 산산이 조각난, 어느 죄수의 족쇄임이 분명했다.

곧 조(대장장이)는 장인(기술자)의 눈으로 그 쇠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이내 “이 족쇄는 상당히 오래전에 잘린 게 분명해”라는 선언을 했다. 그의 말이 원인이 되어 감옥선(배)에서 전문가들이 왔다. 그들은 죄수를 추격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조의 의견을 확증해주었다.

“틀림없습니다. 이 족쇄(쇠사슬)는 우리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게 언제 감옥선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 들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확실한데…. 이건 어제 탈옥한 놈들이 차고 있던 수갑이 아닌데.”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탈옥한 죄수 두 놈은 즉시 체포되었으며 그들은 체포 당시 족쇄를 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새로운 추론 (결론)을 구성해보겠다.

범행에 사용된 쇳조각은 분명 내가 1년 전 빵을 건네준 죄수가 늪지 대에 버리고 간 족쇄가 분명했다. 나는 분명 그가 차고 있던 그 족쇄를 보았었고 내가 도망치는 동안 그가 늪지대에 앉아서 갖은 욕설과 함께 줄(대장간도구)을 가지고 족쇄를 자르는 것을 보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내 누나를 쓰러뜨린 범인 같지는 않았 다. 차라리 그의 손을 떠났던 쇳조각이 다른 한 두 사람들의 손에 들

어갔다가 여기에 등장했음이 분명했다.

올릭(악당, 범인)이 몰래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혹은 나에게 내가 죄수에게 건넸던 줄(대장간도구)을 다시 보여주었던 낮선 남성(술집에서 매형의 술값을 낸 남성)이 소유했을 수도 있었다.

그래 올릭에 대해 말해보자. 그는 분명 읍내에 갔었다. 적어도 우리 (주인공과 웹슬 씨)가 돌아오는 길에 ‘마차통행료 내는 곳’에서 그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저녁 내내 읍내 여기저기에 모습을 드러냈었고 몇 군데의 술집에서는 서로 다른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졌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나와 웹슬 씨(교회서기)와 함께 우리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누나와 말다툼을 한 것을 제외하곤, 그를 의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실 내 누나가 그와 말다툼을 한 것은 이번 한 번 만도 아니었다. 수천 번은 더 되었을 것이다. 누나는 또한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과도 수천 번은 더 말다툼을 해오며 살아왔다.

이제부터는 내가 술집에서 만났던 낮선 남성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만약 그 사나이가 술집에서 잘못 주었던 ‘5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되찾아가기 위해 우리 집에 들렀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경우라면, 이건 말도 안 되었다. 누나는 분명 그 돈을 돌려주려고 철저하게 준비 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선 남성이 자신의 수표를 돌려받기 위해 왔더라면 누나는 분명 돌려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사건 현장(부엌)에는 어떠한 언쟁의 흔적도 없었다. 공격자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순식간에 부엌 안으로 들어와, 누나가 채 낮선 방문자를 알아보기도 전에,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누나의 뒷머리를 사 정없이 가격하고 달아났기 때문이다.

내가 범죄의 도구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고의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내 어린 시절의 주술을 끊어버리고 내가 조(매형)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얘기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동안 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했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동안, 나는 매일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았고 결국 매번 “노”라는 답을 도출하고 말았다. 그럼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문제들이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솟아올랐고, 그럼 또 나는 내 스스로가 설정해놓은 양심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런 식의 논쟁이 내 안에서 계속되었고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그 비밀(1년 전 탈옥수에게 빵과 줄을 가져다주었다)은 이제 너무 오래전일이며 내 안에서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억지로 떼어낼 수 없다(폭로할 수 없다). 이젠 내 양심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무심코 저지른 내 작은 선행이 이젠 너무 심한 나쁜 짓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만약 조가 사실을 모두 알게 된다면 나와 그와의 사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소원해질(멀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또한 조가 내 말을 믿지 않으려들 것이라는 근심보다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내가 고백하더라도 그가 또 내가 예전에 그에게 했었던 거짓말 “엄청난 크기의 검은 개들과 그 거친 개들이 ‘저민 송아지 고기’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더라.”처럼 이 번에도 내가 쇳조각 이야기를 지어냈으며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추하고 괴이한 아이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이었다.(←제가 옮겼지만 정말이지... ‘콩글리쉬의 끝’을 보는 것 같음. -\_-;; 그래도 큰 줄거리나 문맥은 비슷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 그나마 다행~)

물론 나는 내 자신과 우물쭈물 타협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내가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내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만약 가해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증거나, 혹은 그런 유의 기회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고백하자.”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선에서 내 추론을 마무리 지어야했다.

“런던의 범죄자 체포 담당 경관들(형사들)과 순경들”이 일주일 혹은 이주일 동안 우리 집 주변을 수색하며 정부당국이 이러한 경우에 항상 범한다고 하는 온갖 것들을 다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긴급히 체포하는가 하면, 명백히 잘못된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머리를 쥐어짜는가 하면, 상황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신들의 추론을 가지고 상황을 짜집기해 나가곤 했다.

또한 마을 술집 문 앞에 버티고 선 채 뭔가를 다 아는 듯 한 표정을 짓거나 내성적인 표정을 짓곤 했는데, 그 표정들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마을사람들 모두가 마음 깊이 감동했을 정도였다.

또한 그 형사들과 순경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에도 꼭 범인을 당장 체포하려는 듯 비밀스런 태도를 취하며 마시곤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실제 그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18세기 초 영국 런던 ‘보(거리이름) 거리’를 담당하던 체포조 경관들을 말한다고 함. 디킨스가 『 위대한 유산 』 을 쓰기 22년 전에 해산되었음. 위키백과 참조)

이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에서 모두 물러가고도 한 참 동안을 내 누나는 사경을 헤매며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다.

이후에도 그녀의 시선은 혼란스러웠고 복시로 고생했다. 사물이 여러 개로 보였기 때문에 그녀가 찻잔이나 포도주 잔을 집으려고 하면 실제 찻잔이나 포도주 잔이 아니라 허구의 찻잔이나 포도주 잔을 붙잡 혔다.(“뒷통수-후두엽” 부분이 시력을 관장하는 부분임.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시력을 잃거나 복시가 됨. 그 외에도 충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면 사지마비나 언어장애가 발생. 네이버검색참조)

누나는 또한 청력이 대단히 나빠졌다. 또한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녀가 말하는 것을 도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도움을 받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을 만큼 누나가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에도, 내 석판(분필로 글을 쓸 수 있는 돌)을 그녀 가까이 항상 놓아두어야했다. 그녀가 말로는 가리킬 수 없는 것을 글로는 표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의 글씨체는 썩 좋지 않았다. 악필 수준이었다. 게다가 남편인 ‘조’도 썩 좋지 않은 글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이하고 복잡한 상 황들이 그들 부부 사이에 자주 발생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내가 항상 불려가 해결해야했다.

“약물투여”라는 말을 “양고기요리 하라”는 말로 오해하는가 하면, “조”를 부르는데 “차”를 갖다 주기도 했다. “베이컨(돼지고기)을 갖다 달라.”는 말에 “제빵업자”를 부르러 가기도 했다. 이 모두는 그나마 우리들 사이에서 오고간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양호한 것들 이다. (“ ”와 “ ”는 비슷한 영어발음)

하지만, 누나의 성격은 몹시 개선되어 참을성이 있었다. 그녀의 손발들이 모두 떨리고 자신이 없는 듯 한 동작들을 하는 것은 곧 그녀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 후로도 다시 두 달 혹은 세 달이 지났을 때였다. 누나가 종종 그녀의 두 손을 머리에 올려놓고는 하더니 한 일 주일 동안 우울하고 넋이 나간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면 우리들(매형과 주인공)은 누나를 어떤 식으로 돌봐주어야 될지를 몰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결국 구원투수가 등장해 우리들을 구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웹슬 씨’(교회서기)의 대고모(‘웹슬 씨의 아버지’의 고모)가 살아생전의 고질적인 습관들을 정복하고 죽은 것이다(제 성격에 못 이겨 죽 었다는 얘기)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비디(앞에서 설명한, 예쁘지 않지만 마음씨 고운 여자조연. 꾸미진 않지만 일요일 예배보러 갈 때는 예쁘장하게 옷을 입고 약간 화려한 복장으로 교회에 가는 여자. 대고모와 먼 친척이니 혹은 웹슬 씨와 먼 친척이니 하는 말이 있지만 고아라는 얘기도 있는 여자조연. 소설 전체 구성 상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음)가 우리 집의 한 구성원이 되기로 얘기가 오고간 것이다.

누나가 부엌에 다시 등장한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비디는 자신의 모든 세속적인 물품들(전 재산)을 담은 자그만하고 얼룩덜룩 반점이 있는 상자 하나를 들고서 우리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즉시 우리 집의 축복이 되어주었다.

우선, 비디는 조에게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이 불쌍한 친구는 몸이 많이 아픈 아내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슬픔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슬픈 생활에 익숙해져갔고 어느 날 저녁엔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던 그가 푸른 두 눈을 촉촉이 젖신 채 이런 말을 내게 했다.

“그래도 한땐 풍채가 대단한 여자였는데, 안 그러니 핍(주인공이름)?”

비디는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잘 할 수 있는 가장 총명한 역할을 떠맡았다. 비디는 마치 누나를 아이 때부터 돌본 사람 같았다.

그래서 조는 좀 더 차분히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를 다시 가질 수 있었고 가끔씩 이기는 했지만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마을술집이름)에 들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 기도 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애초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조(‘피해자인 누나’의 남편)였다. 경찰관들은 직업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범인을 조라고 의심했었고 실제 비밀스럽게 조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조를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영혼들 중 가장 자기 마음을 숨기는 작자라고 결론짓고 말았는데, 정말이지 그들 직업의 독특한 특질다운 결론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사자인 조 자신은 자신이 용의선상에 올랐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비디가 자신의 새로운 직무에서 거둔 첫 번째 성공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그 문제는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건데. 내가 해결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만 것이었다.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누나는 석판(돌 종이) 위에다 분명 뭔가를 썼다. 그 글자는 분명 호기심 강한 “ㅌ”자 같이 보였다. 누나는 그 글자를 쓰고 또 썼다. 그리고는 그녀가 지금 이 글자에 각별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주의를 그 낱말로 끌기 위해 최대한 애섰다.

내가 “타르(물에 탄 석유)”에서부터 “토스트”와 “튜브(물통)”에 이르 기까지 “ㅌ”자로 시작하는 우리 집 물건 모두를 누나 앞에 진열시켜놓 았지만 내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내가 “ㅌ”자라는 글자의 발음(티읕)이 “망치” 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 누나의 귀에다가 “망치!”라고 있는 힘껏 외쳤고 누나도 식탁 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내 의견에 조건부의 동의를 표시해주었다.

그 후 곧 내가 우리 집 대장간에 있는 망치란 망치는 죄다 가져다 누나 앞에 늘어 뜨려놓았다. 하지만 내 노력은 누나로부터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나는 “ㅌ(티읕)”자가 디디고 서는 목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을에서 목발을 빌려 자신 만만하게 누나에게 보여주었지만, 누나는 목발을 보고선 도리어 누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도 로까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다”라는 표시를 했다. 그 행동은 나로 하여금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해져 있는 누나가 그렇게 심하게 목을 좌우로 흔들다 혹시라도 목뼈를 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누나(주인공과 20살차이)는 한동안 그 글자‘ㅌ’를 쓰지 않다가 비디가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재빠르다는 사실을 알자 다시 그 신비스러운 글자(ㅌ)를 석판 위에다 써보였고, 나에게서 자초지정을 들은 비디는 우선 그 글자를 사려 깊게 살펴본 후 그리고 또 누나를 사려 깊게 바라본 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주인공의 매형)를 친절하게 바라본 후 대장간으로 뛰어갔다. 조와 나도 비디를 따라 대장간으로 건너갔다. 잠깐 딴 소리를 하자면 누나가 석판 위에다 ‘ㅈ’를 쓰면 그건 조를 불러 달라는 말이었다.

대장간에 들어간 비디가 기뻐서 외쳤다.

“왜, 있잖아요! 그에요. 그라고요. 왜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네요.”

올릭(악당. 대장간 장인. 괴력의 소유자. 누나와 말싸움을 심하게 한 후 그날 저녁에 뒤에서 몰래 다가와 누나의 뒷머리를 족쇄로 강타하고 읍내로 도망갔다 돌아온 범인. 나중에 주인공의 목숨도 위협하는 인물임. 사악함)이었다. 누가 봐도 올릭이었다.

누나가 ‘ㅌ’자를 쓴 것은 기억력이 감퇴해 올릭의 실제 이름을 잊어 먹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올릭이 대장간 장인이며 해머질 할 때 나는 소리만을 기억해내고 둘을 이어붙인 것이다.

우리들(비디, 조, 주인공)은 그에게 자초지정을 들려주었고 우리와 함께 부엌에 가자고 말했다. 그도 엉거주춤 자신의 해머를 내려놓으며 팔뚝에 걸친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그 후 그가 다시 작업용 앞 치마로 이마위의 땀을 한 번 더 닦은 후 그 특유의 걸음 걷는 자세인 상체를 앞으로 푹 수그리고 축 처진 자세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두 무릎이 특이할 정도로까지 건들거리며 걸었는데 영락없는 깡패가 걷는 자세였다. 다만 그것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버릇)인양 생각하는 모양 이었다.

여기서 밝혀두어야겠다. 누나가 올릭(범인)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이제부터 누나가 올릭을 만천하에 고발할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를 비난하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막상 올릭이 모습을 보이자 누나는 그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다는 가장 강렬한 희망을 내비췄고,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이렇게라도 올릭이 그녀 앞에 나타나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누나는 그에게 마실 것을 좀 갖다 주라는 몸짓을 취했다.

누나는 올릭의 얼굴표정을 지켜보며 마치 그가 이 모든 호의를 우호 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각별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다. 누나는 그를 달래 서로간의 불신을 없애고 싶다는 뜻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비췄고, 누나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에는 친해지고 위무 (달래기)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마치 난폭한 주인에 대해 아이가 취 하는 일방적인 태도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나는 석판(돌 종이) 위에다가 ‘ㅌ’자를 그렸다. 그럼 올릭이 몸을 앞으로 수그린 축 처진 자세로 들어와 누나 앞에 끝까지 서 있었다. 마치 자기 자신도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눈치였다.

**위대한 유산**

**17장**

나(17세)는 지금 판에 박힌 수습공생활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내 생일이 돌아오면 미스 해비샴(44세)을 방문해 용돈을 받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그녀를 방문해 용돈을 받는 것 외엔 어떤 다른 주목할 만한 사항도 없는 따분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자연히 내 활동반경도 우리 마을과 늪지대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

이번 방문에 있어서도 여전히 세라 포킷(결혼안 한 주름투성이 노파, 11장 #15참조,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이 달라질 때마다 저택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존심 세고 거만한 엑스트라임)이 정문을 열어주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알았다. 내가 작년에 이 집을 떠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미스 해비샴이 화장대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이번 면담에서도 그녀는 에스텔 라(미스 해비샴의 양녀)의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던 내용이었다. 단지 단어 몇 개가 달라졌을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의 면담은 몇 분을 지속하지 못했다. 내가 문안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려하자 그녀가 이번에도 나에게 50만 원 짜리 수표 한 장을 주 었다(18세기 영국 돈 ‘1기니’를 물가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돈 50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소설의 앞뒤 문맥상 얘기가 편함).

그녀가 말했다.

“다음 번 네 생일날에 다시 방문하거라.”

내 생일날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었다. 나도 처음에는 용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 액수가 너무 컸고 이미 큰돈을 받은 상태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내 태도에 그녀가 아주 화를 내며 “더 달라는 얘기냐?”라고 호통을 칠 것 같아서 그냥 감사해하며 받았다.

이 흐릿하고 오래된 저택은 항상 불변이었다. 변화는 게 없었다. 거 무스름하게 어둠이 진 방안을 비추는 노란색 촛불들과, 자신의 화장대 거울 옆에 놓여 있는 의자에 앉은 채 빛깔이 바랜 유령의 형상을 하고 있는 미스 해비샴, 마치 시계가 멈추었을 때 이 미스터리한 장소 내에 있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집 밖에 있던 나와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나이를 먹고 있는데, 오직 이 오래되고 흐릿한 형상 의 저택만은 영구불변인 채 이 자리 이 장소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 았다.

실제로도 집 안으로는 햇볕이 단 한 줄도 들어오지 않게 벽돌로 창문이 가려져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저택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면 내 생각과 기억 속으로도 햇볕은 단 한 줄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 생각들이 나를 당혹케 했다.

그 집의 영향 아래에서 나는 진짜로 내 직업(대장장이가 될 훈련 중인 수습공)과 내 누추한 집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계속해서.

하지만 나(17세)는 미세하게나마 비디(여자조연, 19세 정도의 나이) 에게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비디는 굽이 높은 구두를 신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결은 점점 빛났으며 솜씨 좋게 뭇고 다녔다. 손도 항상 깨끗이 하고 다녔다.

남자가 봤을 때 비디는 미인은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의 여성이었다. 절대 에스텔라와 같은 유의 여성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비디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줄 알았고 대화를 나누면 유쾌해지는 아이였으며 건강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산뜻해지게 하는 얼굴이었다. 더구나 마음씨까지 정말 고왔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채 안되었다. 지금 내 기억 으로는 비디가 대고모(비디의 먼 친척일 수도 있었지만 비디를 많이 혹사시키며 일만 하다 아무런 유산도 안 주고 죽은 노파)의 장례식 마 무리 짓고 애도하는 분위기에서 맛 벗어났을 때인 것 같다. 적어도 그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어느 날 저녁 나(18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신기하네. 그녀는 정말 사려 깊고 따뜻한 눈을 가졌어.’ 그녀의 두 눈이 아주 예쁘고 선량하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파고들고 있던 책에서 내가 막 고개를 들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비디의 눈과 마주칠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때 석판에 어떤 책의 구절들을 베껴 쓰고 있었다. 그건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를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일종의 학습전략 중 하나였다.

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바느질감을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비디도 하던 일을 멈추었다.

“비디,” 내가 말했다. “넌 어떻게 해나가니? 내가 못 따라가는 거니, 아님 네가 너무 똑똑한 거니?”

“내가 뭘 잘해간다는 거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비디가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온지 1년 만에 비디는 우리 집(집과 대장간살림) 살림전체를 도맡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그 일을 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잘해나간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살림 얘기가 아니었다. 비록 내가 꺼낸 얘기로 그녀의 나머지 일들이 더욱 놀라운 것으로 되 었지만 말이다.

“넌 어쩜 그렇게도 뭐든 잘해나가니, 비디?” 내가 말했다. “내가 배우는 모든 것들을 넌 다 알고 있잖니, 그것도 항상 내 학습 진도에 맞추어서 말이야.”

사실 나는 이 당시 내 학업 성취량에 대해 약간의 허영심(헛된 자랑)을 가지기 시작할 때였다. 왜냐하면 미스 해비샴(45세)이 내 생일 날마다 주는 용돈(매년 50만원 수표 한 장씩)을 지식을 쌓는 일에 모두 쓰고 있었고, 수습공 일로 받는 내 용돈의 대부분도 그런 유의 공부에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 얻은 것은 별로 없었던 공부였지만 말이다.

“글쎄, 그 얘기라면 내가 너에게 묻는 게 더 나을 텐데.” 비디가 말했다. “넌 어떻게 해나가니?”

“아니, 난 대장간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오면 모두가 다 볼 정도로 대놓고 공부를 해. 하지만 넌 한 번도 남들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잖니, 비디.”

“응 그럴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엔 없으니까. 감기처럼 말이야.” 비디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바느질을 계속해나갔다.

나는 나무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겨 들었다.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인 채 바느질을 마무리 짓고 있는 비디(착하지만 평범한 외모의 여자조연, 여자주인공 아님)를 보고 있자니, 왠지 그녀가 비범한 자 질을 지닌 여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온지 채 1년도 안 되었지만, 벌써 대장간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용어들 그리고 각종 공구들의 이름들을 우리들 남 자직공들만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약해 말하자면 내(대장간 수습공)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때 당시 비디도 다 알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그녀도 이미 나만큼이나 능숙한 기술자였다. 어떤 면에선 나보다 뛰어날 수 있었다.

“비디, 내가 보기에 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같아. 단지 지금까지 너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을 뿐이야. 네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달라진 네 자신을 봐. 예전에 비해 얼마만큼이나 발전해 있는지를!”

그녀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곤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난 네 첫 번째 선생님이었지 않니?” 비디가 바느질을 계속

하며 말했다.

“이런!” 내가 깜짝 놀라 외쳤다. “왜 울고 있는 거니!”

“내가 언제 울었다고 그러니.” 고개를 들어 웃어 보이려고 애쓰며 그녀가 말했다. “내 행동 어디가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거니?”

비디(여자조연이름)의 바느질 감 위로 떨어지며 반짝이던 한 방울을 눈물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 었겠는가?

나는 조용히 앉아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해보았다.

‘웹슬 씨의 대고모가 악에 바쳐 살다 기어이 자기 성격에 빠져 죽을 때까지, 대고모 밑에서 비디가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야했을까? 물론 비디도 성실한 아이였지만 대고모는 심해도 너무 심한 고용주였을 것이며 말이 먼 친척이지 어쨌건 대고모가 고아나 다름없는 비디를 부려먹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또 생각해보았다.

‘그런 무의미한 환경들 아래에서 비디가 과연 어떤 희망을 품으며 살 수 있었을까? 끔찍하게 작은 가게(잡화점)에서 물건을 팔고 저녁이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야했을 텐데. 비디가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대고모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실함 덩어리였고 비디는 그런 나이 많고 성격 이상한 대고모를 항상 질질 끌고 다녀야했을 테고 어깨에 메고다녀야 했을 텐데.’

나는 곰곰이 또 생각해보았다.

‘그런 온당치 않은 시간 그런 비뚤어진 시간에도 분명 비디 내면엔 지금과 같은 자기발전에의 원동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에스텔라 때문에 가슴 아프고 내 주변 모든 것들에 불만을 품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러 간 곳이 다른 사람도 아닌 비디였기 때 문이야.’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비디의 눈에는 더 이상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혹시 그동안 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을 그녀에게 충분히 다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내 자신만 챙겨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색이라도 내야하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그 정도의 인사는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비록 이 모든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방실방실 웃으며 정확한 언어로 떠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있잖아, 비디(여자이름).” 고맙다는 말을 하기로 최종 결심한 내가 말했다. “넌 내 첫 번째 선생님이었어. 그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집 부엌에 앉아 대화를 나눌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가엾어라!” 비디가 누나를 보며 대답했다. 자신을 완전히 잊을 정도로까지 헌신적인 모습이 그녀다웠다. 비디가 일어나 내 누나(아픈 상태)에게 다가가 부지런히 움직인 후 누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준 후 말했다. “그건 슬픈 사실이야!”

“자!” 내가 말했다. “우린 좀 더 자주 대화를 나눠야해, 예전엔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난 예전처럼 너에게 더 자주 내 문제를 상의해야하고. 다음 일요일 어떠니, 우리 늪지대에 잠시 다녀오자. 산책도 하고 얘기도 더 많이 나누고 응? 비디(여자이름).”

내 누나(40대, 주인공과 20살차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있었다.

하지만 조(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매형)는 그 날 자신이 누나를 돌보는 일을 맡아주겠다고 기꺼이 말해주었다. 그래서 비디와 난 일요일 오후에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벌써 여름이었다. 날씨도 사랑스러울 정도로 화창했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 교회를 지나 교회 부속의 묘지를 통과해 늪지대까지 걸어갔다. 어느 정도 더 걸어가자 해안가 앞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들과 돛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풍경들”(해안가 앞바다, 배들, 돛들, 구름, 바다와 하늘)을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의 모습”과 내 방식대로 한장 한장 오버랩 시켜보았다.

우린 그렇게 강가에 도착한 후 둑 위에 나란히 앉았다. 강가의 물이 내 두 발 위에서 잔물결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잔물결이 일으키는 소리 때문인지 주변이 더 조용한 것 같았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신뢰감을 내보이기에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내가 결심을 굳힌 것도 바로 그때였다.

“있잖아,” 그녀에게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은 후 내가 말했다. “비디, 난 신사가 되고 싶어.”

“오, 내가 너라면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그녀가 대꾸했다. “그게 네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일 수도 없어.”

“비디,” 내가 다소 격해져서 말했다. “신사가 되려는 합당한 이유가 내게도 하나쯤은 있을 거라곤 생각 못하는 거니?”

“네가 더 잘 알잖니, 핍(남자주인공이름, 18세). 지금 이대로가 너에겐 더 행복할 수 있어. 안 그러니?”

“비디,”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내 모습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이게 뭐가? 대장장이의 수습공이라는 이 직업이? 우리 집이? 이런 내 인생이? 난 이딴 것들로부터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 이보다 더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이니. 그런 바보 같은 얘기 일 랑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말이 바보 같다고?” 비디가 조용히 눈썹을 치켜 올리다 말고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미안해. 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 단지 네가 잘 되었으면 그래서 좀 더 편안히 지냈음 하는 바람에서 한 말이었어.”

“아니,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지겨운 내 삶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신사)을 살지 못할 바에야 내 인생에서 단 한 줄기의 안락도 없을 거니까. 자 이제 알아듣겠니?, 비디. 난 이후 내 삶에서 단 한 차례도 행복해지지 못할 거라고.”

“불쌍한 아이!” 슬픈 듯 고개를 흔들던 비디가 말했다.

지금까지 내(18세)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아이라고 너무나도 자주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비디(여자이름)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려주자 하마터면 응응 소리를 내며 울며불며 신경질을 내고 내 머리카락들을 마구 쥐어뜯을 뻔 했다. 지금까지 내 내면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 히던 내 다섯 살 난 자아가 이렇게 커져 나를 비뚤어지게 했는지도 모 른다.

내가 비디에게 말했다. “네 말이 맞을 거야. 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하지만 지금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

“내가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만 있었었다면….” 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있는 풀들을 뽑으며 비디에게 말했다. 그건 에스텔라에게서 멸시를 받은 후 맥주공장 담벼락에서 내 머리카락들을 쥐어뜯으며 발로 담벼락을 수차례 발길질하던 그때의 내 격한 감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내가 비디에게 계속 말했다.

“만약 내가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만 있었었다면, 그래서 나도 예전처럼 대장간 일을 좋아할 수 있었었다면, 적어도 어린 적의 반만큼이라도 대장간 일을 좋아할 수 있었었다면. 그럼 지금의 내게 더 다행이었을 텐데. 그럼 너와 나 그리고 조(매형)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 그럼 내 수습공 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와 난 좋은 동업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었다면 난 너와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모두는 여느 다른 가족들처럼 지금 이 강둑에 앉아 이 화창한 일요일을 즐기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그렇게만 되었다면 내가 너에게 청혼(결혼)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 니? 비디?”

항해하고 있는 배들을 바라다보고 있던 비디가 한 숨을 내쉬며 내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이런 말을 했다.

“그래 나는 지나치게 꼼꼼하지는 않으니까.”

그 말은 결코 나에게 호의적인 말이 아니었다. 물론 그 사실을 그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내가 잡초를 좀 더 뽑아서 한 두 개의 잎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지낼지를 좀 봐. 불만족, 불유쾌함 그것뿐이야. 앞으로의 내 삶은 그것뿐이라고. 거칠고 천한 막노동 꾼이라는 수식어가 내 삶을 규정할 거고. 그럼 난…. 물론 아무도 내겐 아직까진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해안가 앞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던 배들을 바라다보고 있던 비디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좀 전에 항해하던 배를 바라볼 때보다 더 주의 깊게 나를 보았다.

“그 표현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대단히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야.” 그녀가 시선을 다시 항해하는 배들로 돌리며 말했다. “누가 말한 거니?”

그 순간 나는 당황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 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물음에 답해주었다. 미스 해비샴의 집에 있던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더라는 말을.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다른 여인들보다 더 아름답더라는 말을. 나는 지금도 그녀를 무서울 정도로까지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때문에라도 나는 신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이 모든 얘기들을 나를 비디에게 들려주었다.

이 정신 나간 고백을 한 후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풀들을 강물 속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다. 마치 나도 그 잡초들을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는 것처럼 나는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풀들을 강물 속으로 던져 넣기 시작했다.

“그럼 넌 그녀를 괴롭히려고 아님 그녀를 차지하려고 신사가 되고 싶은 거니?” 비디가 조용히 하지만 잠시 뜸을 들인 후 다시 물었다.

“나도 모르지.” 안달이 나서 내가 말했다.

“만약 네가 신사가 되려는 이유가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면….” 비디가 계속해서 말했다. “물론 핍(주인공이름, 18세) 네가 더 잘 알 테지만, 그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네가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더 좋고 나은 방법이었을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신사가 되고 싶은 거라면, 이 경우에 난… 물론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과연 그녀가 네가 그녀를 가질 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랬다. 비디가 방금 한 말들은 내가 그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더 내 자신에게 던졌던 얘기들이었다. 비디의 입을 통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더 정확히 더 명백히 다가왔다.

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도대체 내가, 이 불쌍할 정도로까지 이미 마음이 망가진 이 어린 시골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올곧고 현명한 남자들조차 매일매일 빠져드는 그 황홀한 모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네 말이 모두 맞을 지도 몰라.” 내가 비디에게 말했다. “하지만 난 그녀를 무서울 정도로까지 사랑하고 있어. 숭배하고 있다고.”

이후 내가 한 행동을 간략히 말하겠다. 나는 맨 먼저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엎드린 후 내 머리 한 쪽 편에 있는 머리카락들을 움켜잡고 비틀어대고 있었다. 내 정신 나간 짝사랑이 그런 식으로까지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남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때 처음 알았다.

또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만약 내 머리카락들을 잡아당겨 얼굴을 몸에서 뽑아버린다면, 그래서 내 천지(바보)같은 행동들에 대한 보복으로써 내 얼굴을 저 조약돌 사이로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얼굴이 당연히 감내해야할 벌임을 나는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비디는 또래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아이였다. 내가 그렇게 나오자 비디는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쪽 손을 내밀어 내 두 손을 잇달아 가며 잡아가며 내 머리카락들 사이에서 내 손을 놓아주었다. 비록 일을 많이 해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이었지만 부드러웠고 내게 어떤 안락함을 주는 손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 어깨를 손으로 조용히 두들겨주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얼굴을 소매에 파묻은 채 약간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에스텔라에게 홀대당한 후 맥주공장 안뜰에서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었다. 어떤 사람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구에 의해서 이용당했는지는 모른다. 다만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 18세 젊은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학대를 당했다는 막연한 확신만 들 뿐이었다.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는 이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면 당시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이글을 쓰는 도중에 이것이 내 감정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이 두 문장은 영어원문에

없는데 제가 한 번 넣어보았습니다.~\_~ 말 되네~)

“그래도 난 기쁘단다.” 비디가 조용히 말했다. “뭐냐면, 네가 나를 신뢰해도 좋은 사람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야, 핍. 그리고 기쁜 게 하나 더 있어. 말하자면, 네 비밀을 내게 들려주는 것을 네가 당연시 했다는 거야, 네 비밀을 들어도 될 사람으로 나를 인정했다니. 예전에 네 첫 번째 선생님이었듯이, 아 이런! 그땐 내 자신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철없는 꼬마 선생님이었데. 어떠니? 그때의 그 꼬마 아이가 지금 네게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면? 그 꼬마 아이가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알지 않을까? 그럼 이런 공부를 하시요라며 널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아니구나, 지금 넌 내 지식을 넘어섰으니까. 그래 이미 네 지식이 나를 능가했으니까 익히기 어려운 수업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ㅋㅋ.”

그렇게 나 때문에 조용히 한 숨을 한 번 더 내쉰 후, 비디가 강둑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상쾌하고 기분 좋은 변화가 있었다.

“자 그럼 좀 더 걸어가 볼까, 아님 돌아갈래?(^^방실방실)”

“비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불렀다. 내 팔은 그녀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 “항상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 도와줘.”

“하지만 네가 신사가 될 때까지 만이야~\*^^\*” 비디가 말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앞으로도 내가 신사가 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젠 내 비밀을 너도 다 알게 되었으니까. 며칠 전 밤에 부엌에서 내가 죄다 밝혔듯이 말이야.”

“아하 그거~!” 비디가 가볍게 속삭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먼 앞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또 다시 앞서처럼 그녀의 기분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상쾌하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어떠니, 더 걸어 가볼래 아님 집으로 돌아갈까?”

내가 비디에게 말했다. “좀 더 걸어도 될 꺼야.”

그렇게 우리는 좀 더 걸었다. 그 사이 오후의 여름은 색을 잃고 어느덧 여름의 저녁으로 변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름저녁이었다.

나는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시계가 멈춰 있고 모든 것이 정지당한채 조명 모두를 촛불에만 의지한 채 흔들거리고 있는 방안에서 “서로 먼저 거지 만들기 카드게임”을 하며 에스텔라에게서 경멸을 받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름날의 저녁을 즐기는 것이 내게 더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환경이 아닐는지 진지하게 생각 해보았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만약 내 마음 속에서 그녀에 대한 기억부분만 지울 수 있다면, 아니 그와 관련된 모든 추억들과 상상의 결과물들을 도려낼 수만 있다면 내게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는지. 그렇다면 나는 다시 수습공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대장간으로 출근해 즐겁게 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만약 비디 대신에 에스텔라가 지금 내 옆자리에 서 있다면, 에스텔라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그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확실히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녀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명했다.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핍(주인공이름),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어 리석니!”

우리는 걸으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다. 대개의 경우 비디의 판단이 옳았다.

비디는 절대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변덕 스럽지도 않았으며 오늘은 이런 모습이었다가 내일은 전혀 딴 모습을 하고서 내 앞에 나타날 아이도 아니었다.

그녀(비디)는 나에게 고통을 주느니 차라리 그녀 자신이 즐거움을 빼앗기는 쪽을 택할 아이였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느니 차라리 그녀 자신의 심장 일부분을 도려낼 아이였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비디가 훨씬 더 괜찮은 여성인데, 도대체 나는 왜 에스텔라와 비디 둘 중에서 비디를 훨씬 더 좋아하지 못하는 걸까?

“비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했다. “나는, 네가 나를 좀 바 로잡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비디가 말했다.

“만약 내가 너와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우린 오랫동안 친구사 이였으니까 이 정도 얘긴 괜찮겠지?”

“가엾은 아이, 물론이고말고!” 비디가 말했다. “내 걱정 따윈 하지마.”

“만약 내가 너랑 사랑에 빠질 수만 있다면 그럼 내게 더 좋은 일이될 텐데.”

“아니 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네가 더 잘 알잖니.” 비디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대화(사랑)를 몇 시간 전에 나누었더라면 그건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었겠지만 이 아름다운 저녁에 그 말을 하고 나니 그것이(사랑) 나에게만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아닌 것 같이 들렸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발언한 것도 당연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비디는 “아니, 넌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순 없을 거야.”라며 단호하게 말했고, 내 마음에서도 그녀의 말이 옳다고 믿었다. 그래도 가슴 아픈 사실이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 못할 것임을 그녀(비디)가 그렇게까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부속의 묘지’(“주인공의 부모님”과, 몇 년 못살고 죽은 “주인공의 다섯 오누이들이 누워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서 제방을 하나 건넌 후, 수문 근처에 있는 디딤대 하나를 더 건너야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수문에서인지 아니면 늪지대에서인지 그도 아니면 강바닥에 고여 있던 진흙에서부터인지 올릭(사악한 악당, 주인공의 누나를 때린 범인, 괴력의 소유자이자 대장간의 장인, 주인공을 싫 어함)이란 작자가 튀어나왔다. 스스로를 늙어빠진 올릭이라고 칭하고 다니는 악당 말이다. 강바닥에 괴여 썩어 있는 진흙이라는 이미지가 올릭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어쩔 시구!” 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두 사람, 어디로 가는 길이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집이지?”

“어쩔 씨구리, 그럴까.” 그가 말했다. “내가 집까지 두 사람을 바래다주지. 안 그럼 내가 벼락을 맞고 뒤질 수 있으니까!”

“벼락 맞고 뒈질 수 있다.”는 형벌은 그(올릭, 사악한 악당)가 즐겨 사용하는 가정법이었다.

내가 아는 한 그는 그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가 자신의 세례명을 혐오스럽게 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인상을 주며 즐겼듯이, 이 “벼락 맞고 죽는다.”라는 말 에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잔인하고 힘이 세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었다.

내가 더 어렸을 때였다. 나는 “그가 날을 잡아서 벼락으로 나를 맞출 것임을 그리고 그가 예리하고 무시무시한 갈고리로 사용해 나에게 벼락을 맞출 것임”을 난 찰떡같이 믿고 산 적이 있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을 비디가 극도로 경계했다. 비디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를 가까이 오게 하지마라죠. 난 왠지 그를 싫어.”

나도 역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는 건 줄은 알았지만, 말은 고맙지만 그가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내 대답에 큰 웃음을 한 번 내지르더니 받아들이곤 뒤로 떨어져 걸었다. 하지만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의 뒤를 따라왔는데, 언제나처럼 상체를 앞으로 푹 수그린 채 축 처진 자세로 걷고 있었다.

나는 알고 싶어졌다. 내 누나가 다 말하지 못했던 그 살인적인 공격을 가한 범인으로 비디가 올릭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알고 싶어졌다.

나는 비디에게 그를(올릭)를 왜 싫어하는지 물어보았다.

“아! 그건….” 비디가 어깨너머로 “구부정한 자세로 우리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올릭(악당)”을 대충 훑어보면서 말했다. “그건…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이야.”

“그가 널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니?” 내가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니.” 비디가 다시 한 번 더 그녀의 어깨너머를 대충 훑어보며 말

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를 보며 춤을 춰대.”

이 애착의 증거가 너무도 새롭고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비디의 해석을 부정활 수가 없었다. 올릭 같은 작자가 감히 비디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니, 난 정말로 화가 났고, 마치 그 폭행이 내 자신에게 가 해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분명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알지.” 비디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비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난 그 자체가 싫어. 그리고 저자가 너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싫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건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비디가 다시 말했다.

“맞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에게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비디, 만약 저자가 너를 보고 춤추는 것에 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난 너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엔 없을 거야.”

그 날 밤 이후로 나는 올릭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혹이라도 그가 비디를 바라보며 춤을 춰댈 만한 상황이 벌어지려면 그자의 앞으로 끼 어들어 그가 그 막춤을 춰댈 상황을 미리 막았다.

그는 이제 조(주인공의 매형)의 대장간에 단단히 뿌리를 박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 누나가 갑자기 그 자를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분명 그 자를 해고시키기 위해 그때 최선을 다했어 야했다.

그도 내 선한 의도들(쫒아내고 싶지만 누나를 위해 어쩔 수없이 참 는다)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에 보답했다. 물론 나는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지만….

그건 그렇고, 비디와의 대화가 있고 나서도 내 마음은 오랫동안 갈피를 못하고 있었다. 나도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내 주변을 정리하려고 했었다.

‘누가 봐도 비디가 에스텔라보다 착한 여자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평의하고 수수한 노동자의 삶을 생각해보았을 때에도 에스텔라보다 비 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와 더 잘 어울리는 여자다. 또한 정직한 노동에의 삶은 내가 부끄러워할 성질의 아니며 그런 노동자의 삶이 오 히려 내게 일상의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생각뿐이었고 실제 내 머릿속은 비디와의 대화가 있기 전보다 오 만배는 더 주름이 져 있었다.

여러 번의 계절들이 지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쪽을 택했다.

‘나는, 내 친애하는 조(매형)와 대장간에 대해 더 이상의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대로 내가 어른이 된다면 솜씨 좋은 대장장이가 될 것이고 그럼 조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내가 비디에게 청혼할 승산이 높아져.’

하지만 이런 생각들의 와중에도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럼 내 결심은 산산조각 흩어지고 나는 도로 바보가 되고 말았다.

산산조각 난 내 지혜는 다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대개의 경우는 내가 그 흩어진 지혜의 조각들을 다 모으기도 전에 이번 에는 또 다른 생각 ‘혹시 내 수습공 기간이 끝나는 대로 미스 해비샴 (갑부)이 내게 막대한 재산을 한 목 단단히 챙겨주지 않을까?’하는 검은 생각이 들었고, 그럼 그나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지혜들까지 도로 산산조각 나 흩날리고 말았다.

감히 고백하건데 아마 내가 내 수습공 기간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쌓아올린 수수께끼들에 짓눌려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수습공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고, 나는 채 잉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다.

**위대한 유산**

**18장**

내가 조(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주인공의 매형)의 수습공이 된지 4 년째로 접어드는 밤이었다. 그 날이 토요일 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는 “쾌활한 세 명의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에 모여 있었다. 가운데에는 난롯불이 놓여있었고 우리는 둥글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는 웹슬 씨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는 신문기사 내용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무리(사람들) 속에 나도 있었다.

당시 모든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던 살인사건에 관한 기사였다. 웹슬 씨는 눈썹까지 피로 물들인 채 살인사건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진저리나는 모든 형용사들을 흡족한 듯 바라보 고 있었고, 자신을 피해자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모인 증인들 하나 하나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신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희생자의 입장에 서서 “난 이제 글렀어.”라며 힘없이 신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영락없는 살인자의 입장이 되어선 “네 놈에게 복수

하리라.”라며 악랄하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지방 개업 의사의 흉내를 신랄하게(날카롭게) 내며 이 살 인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증언을 하고 있었고, 수차례의 가격(때림) 소리를 들은 나이 든 마찻길 수납원이 되어 몹시도 동요한 나머지 새된 목소리로 당시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까지 그의 연기가 리얼했는지 그가 중풍에 걸린 환자 연기를 너무나도 잘 하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마찻길 수납원의 증인으로써의 정신적 적격성에 의심을 품었을 정도다.

검시관(조사관)은 이제 웹슬 씨의 손에서 아테네의 타이몬(고대의 철 학자이름)이 되어 있었고, 교구 직원(대학총장 도우미)은 이제 코리올 리누스(고대 로마 장군)가 되어 있었다.

웹슬 씨는 철저하게 자신을 즐기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모인 우리들 도 우리 자신을 즐기고 있었다. 즐겁고 기분 좋은 토요일 밤이었다.

그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살인사건이 잔인무도한 살인 자의 고의적인 살인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옮긴이 : 잠깐 딴 얘기 하나 시작)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 위대한 유산 』 은 18장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전과는 이야기 전개가 확 달라짐. 1장부터 17장까지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다룬 내용들이 많아 좀 슬픈 내용이었는데, 18장 이후부터는 런던으로 상경해 영국신사가 되어가는 과정임.

그 사이 제 블로그 구독자 수도 큰 변화가 있었음. 1장을 올릴 때 23명이던 구독자수가 지금은 3명으로 뚝↓ (-\_-; 요즘 글 올리면 포스팅 당 하루 평균 조회 수 3명 많이 나오면 8명. 소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구독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 웃지도 울지도 못할 경우임.

블로그 하루 총 방문자 수가 500명인데 그 중에 정작 『위대한 유

산 』 구독자는 3명뿐임. 과연 위대한 유산을 다 끝마칠 때까지 3명인 블로그 구독자 분들이 남아날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요즘임~ 걱정된다, 마음 블로그~,~ 견뎌줘!

(잠깐 딴 얘기 하나 끝)

내가 내 맞은편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낮선 신사 한명을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의 얼굴에는 온갖 경멸의 감정이 가득했다. 그는 엄청나게 큰 자신의 집게손가락 옆쪽을 이빨로 물어뜯으며 우리 일행을 구경하고 있었다.

“자!” 웹슬 씨의 낭독이 끝나마자 그 낮선 신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웹슬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모든 판결을 내렸겠지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흠칙 놀라 마치 진짜 살인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를 쳐 다보았다. 그는 우리 모두를 아주 차갑게 아주 빈정대며 살피고 있었다.

“유죄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가 말했다. “자 말해 보시오, 어서!” “선생” 웹슬 씨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당신을 아는 영광을 가지진

못했지만, 나는 이 사건이 유죄라고 말하는 바이오.”

웹슬 씨가 그렇게 말하자 우리들도 용기를 내 이 사건은 유죄가 틀 림없다고 중얼 중얼거리며 말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낮선 신사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실줄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막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고.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죠.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영국) 법에 있음을 당신은 아시는 거요, 아님 모르시고서 방금 그 판결을 내 리셨던 것이요? 무죄추정의 원칙 말이오.”

“선생” 웹슬 씨가 대답하기 시작했다. “내 자신도 자랑스러운 영국 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어서 대답해 보시오!” 그 낮선 신사가 또 다시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웹슬 씨에게 말했다.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오. 얼버무 리지도 마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시는 거요, 모르셨던 거요? 어느 쪽이요?”

낮선 신사는 머리를 한 쪽으로 기울이고 몸은 저 쪽으로 기울인 채 서 있었다. 그의 태도는 고압적이었고 질문공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도살장에서 어느 소가 다음 차례인지를 지목하듯이 그는 자신의 집게손가락으로 웹슬 씨(연극배우를 꿈꾸는 교회서기)를 지목하고 있었다. 그런 후 꼭 자신의 집게손가락 옆쪽을 물어뜯었다.

“자!” 그가 말했다. “당신은 아시고 계셨던 것이오, 모르시고 있었던 것이요? 무죄추정의 원칙 말이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지요.” 웹슬 씨가 대답했다.

“당연히 당신이 그렇게 답할 줄 알았소.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소.” 이건 뭐 자신에게 웹슬 씨를 심문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자신만만한 표정 이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은 이 살인사건의 증인들 중 어느 누구도 반대심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웹슬 씨가 한 말) 웹슬 씨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낮선 신사가 제지하며 나섰다.

“그래서 예스요? 노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실 작정이오? 자 다시 한 번 당신에게 기회를 주리다.” 그 낮선 신사가 또 다시 자신의 집게손가락 끝으로 웹슬 씨를 꼭 찝어서 지목하며 말했다. “나를 납득 시켜보시오, 선생. 그 사건의 증인들 중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반대신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오, 아님 인지하지 못한 것이오? 자,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당신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이것뿐 이오. 예스요? 노요?”

웹슬 씨가 말을 더듬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웹슬 씨에 대해 다소 좋지 않은 의견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다.

“자 어서!” 낮선 신사가 말했다. “내가 도와주리다.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난 당신을 도와주겠소. 그 종이를 보시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종이를 보시란 말이오. 그게 대체 무엇이요?”

“이게 뭐냐고요?” 웹슬 씨가 눈으로 자신이 들고 있는 신문을 내려 다보면서 되풀이해 말했다. 웹슬 씨는 지금 아주 당황해 있었다.

“그것은.” 낮선 신사가 최대한의 경멸을 가득 담아 비아냥거리는 말 투로 질문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당신이 지금 막 읽었던 인쇄된 신문이 아니오?”

“틀림없이 그렇소.”

“명백해졌소. 자, 그럼 다음 장(페이지)을 넘겨보시오. 그리고 내게 들려주시오. 그 신문기사에 ‘죄수의 고문 변호사가 해당 죄수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변호를 일단 뒤로 미루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어서 내게 들려주시오.”

“저도 지금 막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웹슬 씨가 답변했다.

“당신이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중 요한 것이 아니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 기사를 지금 막 읽었느냐가 아니었소. 이제 보니 당신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주기도문(주된 기도문)을 거꾸로 라도 읽을 수는 사람인 것 같소. 물론 이전엔 분명 그렇게 하며 살아왔을 것이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오. 아니, 아니, 아니, 칼럼(해당 사건에 대한 신문사의 짧은 논평) 위쪽을 보란 얘기가 아니었소. 잘 아시면서 왜 그 러시오, 자 칼럼 아래를, 칼럼 아래를 보시오.”

우리 모두는 웹슬 씨가 속임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 했다.

낮선 신사가 말했다.

“자? 찾으셨소?”

“여기에 나와 있군요.” 웹슬 씨(교회서기)가 말했다.

“자 그럼 당신 눈으로 직접 그 구절을 읽어보시오. 그리고 내게 말해주시오. ‘자신의 모든 변호를 일제히 뒤로 미루라는 지시를 피의자는 자신의 고문 변호사부터 받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해당구절이 칼럼(신문논평) 하단에 분명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어서 내게 말해주시오. 자 어서! 어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소?”

웹슬 씨가 대답했다. “그렇게까지 단정적인 언어들로 나와 있지는 않소.”

“단정적인 언어들로 나와 있지는 않다!” 낮선 신사가 꽥 소리를 내지르며 웹슬 씨의 말을 따라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칼럼(논평)의 정확한 요지지 않소?”

“그렇소.” 웹슬 씨가 말했다.

“그렇소.” 낮선 신사가 또 따라서 말했다. 낮선 신사는 오른손을 이젠 영락없는 증인이 된 웹슬 씨를 향해 쭉 뻗은 채 우리들을 돌아보았다. “자 이제 당신들에게 묻겠소. 저 사람(웹슬 씨)의 양심에 대해 당신들은 무어라고 말들 하시겠소? 자기 눈앞에 피의자의 해명이 분명 적혀있는데도 피의자의 해명은 일체 들어주지도 않고 동료 영국인을 향해 ‘저자는 유죄다’라고 선고한 후 자기 베개 위에 머리를 편안히 대 고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낮잠을 잘 수 있는 저자의 양심에 대해 당신들은 내게 무어라고 대답하시겠소?”

우리 모두는 ‘웹슬 씨가 우리가 생각해왔었던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웹슬 씨의 흉계가 들통 나기 시작하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억해두시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낮선 신사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웹슬 씨를 묵직하게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재판의 배심원들 중 한 명으로 소집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오. 그럼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단히 잘못된 편견에 휩싸인 채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래놓고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자기 베개 위에 머리를 대고 곤히 잠들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은 기억 해두시오. 바로 저 사람이 ‘우리 국왕 폐하’와 ‘재판정에 선 피의자’ 사이에 서서 이 이슈를 평결(배심원끼리 의견 후 유죄유무 결정)함에 있어 건전하고 진실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재판정에서 엄숙히 맹세한 저 사람이, 그리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서만 참으로 진실 된 평결을 내리겠다고 재판관 앞에서 엄숙히 맹세한 저와 같은 자들이야 말로…, 오 하느님 저자에게 구원을 내려주소서!”

이것으로 웹슬 씨의 입지는 끝장이 났다. 우리 모두는 낮선 신사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 당했고 불쌍하게도 ‘웹슬 씨가 함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과 어찌되었던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웹슬 씨가 어서 빨리 자신의 선언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제 낮선 신사는 우리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권위 있는 모습을 하고서 그리고 만약 그가 폭로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개 개인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까발릴 어떤 비밀을 자신은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를 풍기며 자신의 자리를 떠나 난로불 앞에 있는 두 의자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들어왔다. 그 자리에 서서 낮선 신사는 호주머니에 왼손을 집어넣은 채 그리고 오른손 집게손가락 옆쪽을 자근자근 씹 으면서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메추라기가 된 양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그 낮선 신사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들 중에 대장장이 양반이 계시지 않소. 이름이 ‘요셉’ 그 뭐더라 ‘조’ 그래 ‘조 가저리 씨’라고 하는 분 말이오. 어느 분이시오?”

“아 접니다.”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주인 공이 배신하는 인물)가 말했다.

낮선 신사가 자기 쪽으로 오라며 손짓했다. 그래서 조가 그리로 갔다.

“당신에게 수습공이 있지요.” 낮선 신사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핍이라고들 부른다는데? 그 애가 지금 여기 와 있소?”

“저에요!” 내가 고함치며 말했다.

낮선 신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알아봤었다. 예전에 내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방문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을 때 딱 마주친 신사였다. 그것은 내 두 번째 방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는 순간 이미 직감했다. ‘그 놈이다’라고.(←“‘그 놈이다’라고”라는 문장은 원문에 없는데 추가해보았습니 다.-\_-)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서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서 있는 그와 마주보게 되자 나는 다시 한 번 그의 외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역시나 몸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그의 머리와, 짙은(검은) 피부색(안 색), 깊게 패인 두 눈과, 텁수룩하고 검은 색을 한 두 눈썹들, 그리고 커다란 회중시계(조끼에 넣고 다니는 시계)의 쇠줄과, 턱수염과 구레나 릇(수염)을 말끔하게 깍지 못해 남아 있는 짙고 검은 색을 한 수많은 점들, 심지어 그의 커다란 손에서 나는 향기로운 비누냄새까지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네 두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좀 나누고 싶소만.” 느긋하게 내 얼굴을 살펴보던 낮선 신사가 말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 오(이야기가 길어질 것이오). 당신 거주지로 가는 게 좋겠소. 내가 당 신네들에게 전해줘야 할 얘기를 여기서 모두 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네들이 직접 당신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들려주든 혹은 적게 들려주든 하시오. 그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궁극의(불가사의한) 침묵에 둘러싸인 우리 세 사람은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을 나와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낮선 신사는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며 자기 집게손가락의 옆쪽을 물어뜯었다.

우리 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다. 조(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가 막연하게나마 낮선 신사의 방문이 나름 엄숙하고 의식을 차리는 의식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조가 우리들보다 미리 달려가 정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들의 대화는 응접실에서 이루어졌다. 촛불 하나가 무기력하게(희 미하게) 우리들을 밝혀주고 있었다.

낮선 신사가 식탁에 앉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낮선 신사는 먼저 촛불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호주머니에 있던 수첩에서 몇 가지를 확인한 후 수첩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고 촛불을 다시 반대쪽으로 밀어 놓은 후 말했다.

낮선 신사는 조(주인공의 매형)와 나(18세)를 포함해 응접실을 한 바퀴 둘러본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내 이름은,” 낮선 신사가 말했다. “‘재거스’요. 런던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소. 나는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합니다. 전 당신네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묘한 사안 하나를 가지고 왔소. 내가 이 일을 제안한 게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이오. 만약 내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오. 내 질문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당신네들이 보다시피 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오. 나는 의뢰인의 밀사로서 여기에 왔으며 내가 해야 할 업무만 하려는 바이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오.”

그가 눈치 챘다.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그가 우리를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눈치 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쪽 다리를 ‘의자 등’ 너머로 넘기곤 ‘의자 등’에 의지해 섰다. 그러므로 그는 한쪽 발은 의자(앉는 자리) 위에 디디고 서 있었고, 다른 쪽 발로는 응접실 바닥을 디디며 서 있었다.

“자, 요셉 가저리(주인공의 매형 이름)씨.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에게 ‘당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이 어린 수습공의 해고를 제안한다.’는 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요. 저 아이가 원하고 그것이 저 아이를 위한 길이라면 당신께서는 이 계약 취소 제안을 반대하지는 않으시겠소? 그 대가로 당신이 바라는 건 없겠소?”

“저는 핍(주인공의 이름, 18세)의 앞길에 보탬이 되지 않는 어떤 다른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시니까 요.” 조가 재거스(런던 변호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엥? 하느님의 명령이 뭐요? 그건 경건한(신앙심이 깊은) 대답일 수는 있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오.” 재거스 씨(런던 유명 변호사)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내 질문은 ‘당신이 바라는 것이 없느냐 있느냐?’ 였소.”

“제 대답은,” 조(주인공의 매형)가 엄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니올 시다요.”

재거스 씨가 조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내 생각에 그는 지금 자기 직업의 습관상 조의 사심 없는 대답을 어느 바보가 한 농담쯤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때쯤은 나도 너무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숨 막히는 호기심과 놀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고, 그래서 재거스 씨의 생각을 확인하고 말고 할 틈이 없었다.

“그럼 좋소.” 재거스 씨가 말했다. “당신이 방금 계약 해지를 동의했음을 유념해두시오. 이내 곧 생각이 바뀌었네 마네 하지 않게 당신이 방금 계약 해지를 허락했음을 기억해두시오.”

“누가 생각을 바꾸네 마네 한다는 겁니까?” 조가 삐딱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그럴 거라는 의미는 아니었소. 혹시, 당신 개 키웁니까?” “한 마리 키우고 있소.”

“그럼 명심해두시오. “폼 잡는 ‘개’” 좋은 개라는 사실을 말이요. 하지만 당신은 이걸 더 명심해두셔야 갰소. “자기 몫부터 챙기는 ‘개’” 더 좋은 개라는 사실을 말이오. 어떻게 명심이 되시겠소?” 재거스 씨가 눈을 감은 채 그리고 조(매형)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치 자신이 방금 조에게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는 태도 같았다.

재거스 씨가 계속 말했다. “자 이제 어린 친구(주인공, 18세) 얘기로 돌아갑시다. 내가 전달해주어야 하는 내용은 ‘저 애가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오.”

조(매형)와 나(18세)는 숨이 막혀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우린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얘기를 그에게 전해주라는 지식을 받았소.” 재거스 씨(런던 변호사)가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옆에 있던 내게 던지며 말했다. “그가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오. 뿐만 아니라, 저 애는 지금 즉시 자신의 주거환경과 직장에서 떠나 요컨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응당 그렇게 하듯 저 애도 이 제부터 자기 재산에 합당한 신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오. 이것이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바램이오.”

내 꿈은 실현되었다. 내 미친 몽상이 이제 진지한 현실이 되서 나타난 것이다.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미스 해비샴(갑부)이 내게 그녀의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핍 씨.”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전해야 할 나머지 이야기들도 마저 하겠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네. 자네는 항상 핍이라는 이름을 간직해야 하네. 지금까지 자네 이름이 핍이었듯이 앞으로도 자네의 이름은 핍이 어야 하네. 이것이 나에게 지침을 내린 의뢰인의 요구네. 이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조건치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내 생각에 자네에게도 반대의견은 없을 것 같군. 하지만 만약에라도 자네에게 반대 의견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니 어서 말해보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내 고막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어찌나 더듬거리며 말을 했는지 “반대 의견이 없어요.”라는 말을 입으로 했는지 귀로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이번 페이지는 모두 ‘재거스 변호사’ 혼자서 말하는 대사입니다. 좀 기네요. 읽기 편하게 단락을 임의로 나눴음을 밝힙니다. 원래는 하나의 단락임. 요지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려하지 마라”입니다.)

(재거스 변호사의 대사 시작)

“물론 반대할 리가 없겠지! 자 두 번째 상속조건에 대해 말하겠네. 핍 씨, 자네에게 너그러운 이 후원자의 이름에 대해 자네는 극비에 붙어야 하네. 당사자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히기로 결정하기 전까진 절대 알려고 해서 안 되네.

내가 언급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단지, 당사자가 자네에게 자기 입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는 거네. 그 의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나도 말할 수 없네.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걸세. 아마 수년이 더 걸릴 지도 모르겠네.

또한, 자네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네. 자네는 이후 나와 나누는 모든 대화에서 어떤 경우라도 후원자의 이름을 물어서는 안 되네. 지나가는 식으로라도 물어서는 안 되며 또한 후원자가 이 사람은 아닌지? 또 저 사람은 아닌지? 하는 식의 암시를 내게 던져서도 안 되네. 그런 유의 질문 자체가 자네에게는 금지될 것이네.

만약 후원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그냥 자네 가슴속에서만 심어두게. 상속조항에 왜 이런 금지조항이 있는지 이건 중요치 않네. 이런 금지조항은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비밀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식의 엄숙한 맹세 혹은 그저 누군가의 일시적인 변덕일 수도 있기 때문이네. 자네는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 해서는 안 되네. 자, 이것이 상속조건이네. 모두 정해져 있지. 자네가 후원자의 비밀을 지킬 것에 동의하는지? 그래서 이 후한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려하지 않겠음을 지킬 것인지? 이것이 유일한 상속조건이네. 그것은 또한

내가 자네에게서 확인 받아야할 임무이기도 하네.

내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오직 그것만을 확인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결론은 자네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직 당사자와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다시 한 번 말하겠네, 이런 갑부(부자)가 되는 길에 이 정도의 방해물 이 정도의 조건이면 그다지 힘든 것도 아니지 않나. 그래도 혹시해서 물어보겠네.

만약 자네에게 이 조건(후원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려하지 마라)을 지키는 것에 반대의견이 있다면 지금 내게 말해주게. 지금이 그것을 말할 적기니까. 어서 말해보게.”

(재거스 변호사의 대사 끝)

나는 다시 한 번 “저는 반대의견이 없어요.”라며 말까지 더듬어가며 간신히 내 의견을 표출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자, 핍 씨, 우리의 계약은 이것으로 체결되었네.”

그는 비록 나를 핍 씨라며 존칭으로 불렀지만 확실히 내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는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말투에는 어떤 종류의 위협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내가 이제 막 어떤 불법적이고 부정직할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자신이 지금 당장 나를 괴롭혀주고 싶다는 딱 그런 뉘앙스였다.

심지어 지금은 말을 계속 하면서도 두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집게손 가락만을 내게 마구 던져대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네 부정쯤은 세상에 까발릴 자료들을 나는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품겼고 문제는 단지 자신이 언제 그걸 터뜨릴 지 마음먹느냐는 뉘앙스였다.

그가 계속 말했다.

“자 계약세부항목들로 들어가 보세. 자네는 알아두어야 하네. 내가 비록 ‘유산’이란 용어를 한 차례 이상 사용했지만 자네는 유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네. 자네는 이제 곧 자네 재산에 합당한 더 좋은 교육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충분히 더 많은 돈이 내게 보관되어 있네. 나를 이제부터 자네 후견인으로 생각해주게. 참!”

내가 막 그에게 “감사합니….”란 말을 하려는데 그가 내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이 얘기도 해야겠군. 난 이번 일에 대해 보수를 받고 있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일엔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네. 나는 생각하네. 자네는 바뀐 신분에 걸맞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자네도 만감하게 알아차렸을 것이네. 이 어드밴티지(남보다 앞서나감. 유산상속 받 음)를 가짐에 있어 그런 좋은 교육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불가결한 지를(필수적인지를).”

“그건(교육) 제가 항상 갈망해왔었던 바”라고 나는 말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다리던 것에 신경 쓰지 말게, 핍 씨.” 그가 쏘아붙이며 말했다. “이야기를 새지 말라는 얘기네. 자네가 지금 그 것(교육)을 간절히 바란다면 그걸로 된 것이네. 그럼 어디 내가 대신 대답해볼까? 방금 자네가 한 말은 혹시 이것이 아니었나. ‘저는 합당한 선생님 밑에 들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내가 “예. 맞아요.”라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좋아. 자 그럼, 자네 생각부터 들어볼까.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네 의견을 들어보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 자네 의견이 옳다거나 현명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아니네. 그래 자네가 말하고 싶은 그 합당한 선생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비디(20살 여, 예전에 마을 저녁학교 교사)’와 ‘웹슬 씨(교회서 기)의 대고모’ 이외에는 이름을 들어본 선생이 없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럼. 내가 한 사람 알고 있지. 내 생각에 그 정도면 이 일에 적합할 것 같군. 어느 정도 배운 작자니까(사람이니까).” 재거스 씨(런던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말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는 그를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네. 난 누구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아니네. 절대 추천하지 않지. 자네가 아는 선생이 없을 경우 내가 추천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네. 내가 지금 말하는 신사의 이름은 ‘매튜 포킷’이네.”

아래는 부연설명(제가 쓴 글)

(매튜 포킷 : 젊은이들에게 신사교육을 시키는 사람. 젊어서는 공직에서 총망 받던 인물이었는데 엄청 높은 귀족가문의 딸과 사랑에 빠져 도망친 후 결혼하면서 더 이상 신분상승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사람. 더구나 귀족가문의 딸이 엄청난 귀족티를 내는 그런 여성이 었데,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귀족가문이 아니라 그녀의 할아버지 대에 귀족 작위를 정말로 받을 뻔했었던 가문이라는. 그에게 귀족작위를 주라는 말이 왕의 수첩 어딘가에 적혀 있었다는 등등)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성 씨가 ‘포킷’인 경우가 여럿 나옴. 이들은 모두 먼 친척사이임. 매튜는 ‘마태(예수님 제자)’를 영어식으로 부른 것.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이 모두 먼 친척 사이인지를 소설 나중까지 모름. 미스 해비샴도 성이 포킷임. 매튜 포킷과 미스 해비샴은 서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선언한 후 근 10년이 넘도록 얼굴 안 보고 살고 있는 중. 미스 해비샴이 25살 때 옥스퍼드 출신 사기꾼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다 매튜가 극구 말리면서 사이가 벌어졌음. 미스 해비샴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함.)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것 저것 다 빼고 앞서 말한 ‘포킷’ 이란 성 씨만은 수첩에 적어두셔야 함. 기억하셔야~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살짝 헷갈릴 수 있다는~ 그 얘긴 나중에~)

아하! 나는 그 이름(매튜 포킷)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_- 이런 모르는 줄 알고 18장에서 엄청 길게 부연설명 해놓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저자의 행태라니-\_-+). 그(매튜 포킷)는 미스 해비샴의 친 척이었다.

내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처음 방문하던 날 대기실에서 카밀라 부 부(수다쟁이 부부)가 험담을 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매튜였다.

또한 미스 해비샴이 “내가 죽어 저 신부테이블(결혼축하 케이크가 중앙에 있고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던 테이블) 위에 신부복차림을 하고 누워 있을 때 내 머리 맡에 있어야 할 작자”라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매튜였다.

“어째 그를 아는 눈치구나?” 나를 기민하게(날카롭게) 살펴보며 재거스 씨(변호사)가 말했다. 그 질문을 던진 후 내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눈을 감았다.

“그의 이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내가 말했다. “그래!” 그가 말했다. “자네도 그의 이름을 들어봤군.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자네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그렇지 않은 가?”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 아마도 쩔쩔매며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라고.

“아니, 아니야 이 어린 친구야!” 그가 또 내 말을 자르며 자신의 큰 고개를 느릿느릿 흔들어대며 말했다. “진정해 전정하라고!”

정신을 못 차린 나는 다시 한 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

“아니 아니라니까, 이 어린 친구야.” 그가 또 다시 고개를 흔들며 동시에 눈살을 찌푸리며 그와 동시에 반쯤은 웃으며 내 말을 막고 나섰다. “노, 노, 노. 그 대답도 참 좋아, 하지만 그런 식은 안 되네. 그렇게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에는 자네는 아직 경험이 없어. 추천은 자네가 사용할 적합한 단어가 아니네, 핍 씨. 자 어디 다시 한 번 대답해보게.” (재거스 씨는 지금 이 유산상속 문제에 자신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일에 관여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내가 “매튜 포킷 씨를 소개해주셔서 정말 감 사드립니다.”라고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했어야지. 아주 좋군!” 재거스 씨가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이 말도 덧붙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신사 분 아래에서 즐겁게 수업받겠습니다.”라고.

“좋아 됐네. 일단은 자네가 여기생활을 정리하는 대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네. 자네가 하숙할 채비를 하라고 일러놓겠네. 우선은 그의 아들부터 만나보는 것이 좋겠군. 그 녀석도 아마 런던에 있지. 그래 언제 런던으로 올 수 있겠나?”

조(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주인공이 배신하는 인물)는 그때까지 아무런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내가 조를 바라보며 “곧바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재거스 씨에게 대답했다.

“우선.” 재거스 씨가 말했다. “런던으로 올 때 새 옷을 몇 벌 사가지고 오게. 물론 작업복들은 안 되네. 이번 주 내로 자네가 온다고 말해 놓겠네. 돈이 필요하겠지, 일단은 5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두고 가겠네? 그 정도면 되겠지?”

나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가 정말 내게 그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많은 돈이 든 지갑을 꺼내더니 수표를 한 장 한 장 세며 테이블 위에 수표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20장을 마저 채운 후 수표를 내게 밀 어주었다.

수표 20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것이 그가 자기 다리를 의자에서 치운 후 첫 번째로 한 행동이었다. 돈을 내게 넘겨준 후 그가 의자에 걸터앉았다. 물론 그냥 앉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젠 당신 차례로’라는 눈빛을 보이며 조(주인공의 순진한 매형)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둑한 돈지갑을 조에게 흔들어 보이고 있었다.

“자 보시오, 조 가저리?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랍지 않소?”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조가 단단히 결심을 굳히며 대답했다. “이쯤 되면 제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소? 이

지갑을 보시고도 할 말이 없다면야 말 다했지. 우리 체면일랑은 접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저도 눈이 있습니다.” 조가 말했다. “눈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저한테 이 두 눈은 있을 거고요.”

“예? 눈이 뭐요? 이 보시오.” 재거스 씨가 자신의 두둑한 지갑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받은 임무 중에는 당신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지시도 있었소, 보상 말이오?”

“제가 왜 돈을 받아야 합니까?” 조가 경고조로 말했다.

“저 애의 도제계약을 해지해 주었지 않소? 도제계약이 중도에 해지 되면 당신도 손실을 볼 것 아니오.”

조(매형, 대장장이)는 여자가 어깨를 만지듯이 내 어깨에 손을 얹어 놓았다.

이후로도 난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곤 했다. 어떻게 그와 같은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길이 그렇게도 다정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건장한 남성 하나쯤은 거뜬히 때려눕힐 수도 있었던 그 사나이의 주먹에 애정을 담아 계란 껍데기 한 조각을 쓰다듬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들 어있을 수 있었는지. 그의 손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가진 증기 해 머와 같았다.

“핍(주인공이름)은 언제든지 따뜻한 환영을 받을 겁니다.” 조가 말했다. “핍(주인공이름)은 명예와 행운을 찾아 대장간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이 정녕 그렇게도 돈이 저 어린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제 보상이라고 우기신다면 그리고 대장장이가 되었을 수도 있는 저 애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내 절친한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돈을 바랄 거라는… 그 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를….”

오! 내 친애하는 조(매형), 나는 그렇게도 그를 떠날 준비만을 했건만 그토록 나는 그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건만…. 나는 조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오늘도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대장장이의 팔뚝으로 두 눈을 가린 채 울먹이고 있던 조의 다정한 모습을. 당신의 넓은 가슴이 떨리는 목소리에 겨워 들어 오르든 모습을.

오! 내 충직하고 부드러운 조, 내 팔을 손에 쥐고서 떨고 있던 당신의 사랑이 지금 다시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엄숙하리만큼 애절하게도 천사의 날개 짓처럼 바삭바삭 떨고 있던 당신 손의 떨림을 기억합니다.

(옮긴이 코멘트 :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 좋은 소설임. 위대한 유산...ㅜ\_ㅜ)

하지만 그때 나는 그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다만 조 (매형)를 부추기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당혹해서 그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와 내가 밟아 왔던 부차적인 추억들을 더 거슬러 올라가보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조에게 그만 진정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조, 조 말대로 우린 언제나 최고의 친구잖아 그럼 앞으로도 최고의 친구인 거 아냐.”

조가 소매가 없던 손목으로 두 눈에서 눈물을 퍼냈다(닦았다). 용접이 잘못된 곳을 통째로 파내듯이 조는 자신을 파내버리려는 듯 손목으로 사정없이 자신의 두 눈을 닦았다(보기 안 좋았다는 뉘앙스가 있는 문장임). 그리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는 그때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주인공의 매형)를 마을의 바보쯤으로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조의 보호자는 아닌지 의 심하기 시작했다.

조의 울먹임이 끝나자, 재거스 씨가 지갑 흔들기를 멈추었다. 재거스 씨가 자기 손에 든 지갑의 무게를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요셉 가저리(요셉은 ‘조’의 세례명). 나는 다시 한 번 더 말해둘 수밖에 없소만. 이게 마지막 기회요. 더 이상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이 응당 차지해야하는 대가에 대해 받을 용의가 있다면 말하시오.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단 당신이 정녕 그 반대의 경우라고 말할 거면….”

이 부분에서 재거스 씨는 크게 당황해 말을 멈추고 말았다. 조가 권 투시합에서 사람을 쓰러뜨리듯이 재거스 씨를 의자채로 확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곤 너를 넉다운 시켜버리겠다는 모든 자세를 취하며 덤벼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조가 소리쳤다. “만약 당신이 내 집에서 나를 소곯리기(개를 부추겨 황소를 성나게 하는 영국 옛날 놀이. 출처 : 네 이버영어사전)하고 내 집에서 내 목을 졸라 죽이려는 심산이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오! 내 말의 의미는 당신도 남자라면 나랑 한 판 붙어보자는 거요 자 덤비시오 당당하게! 내 말의 의미는 나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오! 자 덤비시오!” 나는 조를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에게서 떼어놓으며 말렸고 조도 금방 유순해졌다. 조가 나를 보며 말했다. 친절한 말투였고 공손하며 타이르는 훈계조의 말투였다. 분명 이 사태를 촉발시킨 재거스

씨에게 하는 소리였다. 조가 말했다.

“난 내 집에서 소곯리기 당하고 목이 졸려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소.”

조가 이렇게 나오자 재거스 씨도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재거스 씨가 주의 분위기를 살피며 뒷걸음질로 부엌문 근처까지 이동 했다. 돌아올 의사가 없음이 분명했다. 그가 부엌문에서 작별인사랍시고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을 모두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거야 원, 핍 씨, 내 생각에 자넨 하루 빨리 여길 벗어나야하네. 그럼 그럴수록 자네에게 더 좋을 걸세. 자넨 신사가 될 예정이지 않은가. 날짜는 다음 주 오늘로 정하지. 그때까지 자네가 머물 하숙집 주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겠네. 런던 ‘시외 전세마차 터미널’(영어단어발 음은 ‘스테이지코치’)로 가게. 거기서 전세마차(택시)를 타면 내 사무실로 바로 올 수 있네. 명심해두게. 난 이번 사안에 대해 전혀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일세. 나는 어떤 식으로든 내 의견을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내비친 적이 없네. 알겠는가? 난 어디까지 내가 의뢰받 은 임무만 완수했을 뿐이네. 난 돈을 받았고 의뢰인의 지시대로 했을 뿐이네. 내가 이번 상속건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명심하겠지? 꼭 명심해야하네.”

그(재거스 씨)가 우리 두 사람(조와 주인공)을 향해 자신의 집게손가 락을 집어던졌다. 그는 그런 자세로 있다가 조(주인공의 매형)가 아무래도 위험인물이란 생각이 들었는지 그 자리(부엌문)를 떠버렸다. 나는 그가 우리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계속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가버렸다.

그때 내 머릿속에 퍼떡 떠오르는 게 있었다. 나는 뒤쫓아 갔다. 그가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마을 술집이름)로 내려가고 있었다. 술집 앞에 그를 태우고 갈 전세마차(택시)가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만요, 잠시 만요 재거스 씨.”

“오호! 이게 누구신가 핍 씨 아닌가!” 재거스 씨가 되돌아보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저는 이제부터 재거스 씨가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여길 떠나기 전에 주위 분들에게 제가 여길 떠나게 되었다고 알리는 것에 대해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으신지요? 아무래도 먼저 여쭤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혀 없네, 핍군.” 그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묻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표정이었다.

“제가 말씀드린 주위 분들이란 읍 외곽에 계신 분(미스 해비샴)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게, 핍 군.” 그가 이번에도 내 말을 못 들은 게 분명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반대의견이 없네.”

나는 그(재거스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후 집으로 다시 뛰어갔다. 집 정문은 이미 조가 잠가놓은 상태였다. 응접실도 비워있었다. 조(매 형)는 다만 부엌 벽난로 옆에 앉아 양 무릎에 손을 얹어놓은 채 멍하니 하지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불타오르고 있는 석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역시 벽난로 앞에 앉았다. 나는 타오르는 석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참 오랫동안 아무 말없이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부엌 한쪽 편엔 내 누나(주인공과 20살차이)가 쿠션방석이 있는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비디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자기 몫의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내 누나가 앉아 있는 의자 반대쪽 편에 내가 앉아 있었고, 내 바로 옆에 조가 앉아 있었으며, 조 옆에는 비디가 평화롭게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부끄러웠고, 내가 작열하고 있는 석탄들(벽난로 안의 석탁)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나는 점점 더 내가 부끄러워져 조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침묵이 오래가면 갈수록 내가 조에게 말을 걸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것만 같았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간신히 말을 꺼냈다.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비디한테 얘기했어?”

“아니다, 핍(주인공이름).” 조가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벽난로를 쳐 다보며 있었다. 이 짧은 대답을 할 때에도 두 무릎을 쥐고 있던 손의 힘을 빼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두 무릎이 어딘가로 급히 달아날 작정을 했다는 비밀정보를 얻었다는 태도였다. “아무래도 네가 직접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난 조가 말해주면 더 좋겠는데….”

“핍은 조만간 재산을 많이 가진 신사가 될 것이야.” 조가 입을 열었다. “하느님, 저 애에게 신의 가호를 내리소서! 아멘.”

비디가 바느질감을 딱하고 떨어뜨렸다. 비디가 나를 쳐다보았다. 조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쥔 자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축복의 말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축복의 말 안에는 어떤 슬픔의 흔적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게 나를 다소 분개하게 만들었다.(←이런 배은망덕한 놈 -\_-;; 가족 버리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어디 얼마나 잘 되는지 소설 끝까지 가보자)

나는 비디(여자이름)에게 단단히 일러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어떤 말도 해선 안 돼. 알려고 해서도

안 된데. 그게 상속인의 요구사항이니까. 이 조항엔 비디와 조(주인공의 매형)도 포함돼.”라고.

나는 비디에게 이 사실을 조에게 잘 설명해주라고 일렀다. 내가 신신당부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후원자로부터 내가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 빼곤 어떤 다른 말도 해선 안 돼. 때가 되면 후원자가 찾아온데.”

비디는 사려 깊은 표정이었다. 비디가 벽난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비디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바느질감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녀가 말했다.

“응 정말 조심할게, 핍.”

조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두 손으로 두 무릎을 붙들고 있었다. 조가 말했다.

“그럼아, 핍, 나도 정말로 조심하마.”

내 말이 끝나자 그들(비디와 조)이 다시 한 번 내게 “너무너무 축하해 핍”이라며 좋아해주었다. “네가 이제부터 신사가 된다니 너무 놀라워.” 그들의 칭찬엔 과한 데가 있었다. 왠지 그것이 나를 반쯤 슬프게 했다.

그러더니 비디(여자이름)는 방금 일어난 경사에 대해 내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한 비디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

누나(악당에게 뒷머리를 심하게 강타당한 후 뇌성마비 증세를 점점 심하게 보이고 있는 누나. 시력과 청력 모두 손상)는 이따금씩 “알아 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비디를 쳐다 보며 웃어 보이기도 했으며 비디의 설명이 끝날 때면 “그래, 핍이? 그래 재산이?” 등등의 단어들을 내뱉었지만 그녀 자신은 실상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누나가 지금 하는 말들이 선거 때의 외침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건 단지 현재 누나의 ‘정신상태 상’(불안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들 하나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알 수 없었다. 이후 아마 그 일이 실제 내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와 비디는 쉽게 예전의 쾌활한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우울해져만 가고 있었다.

물론 나에게 일어난 막대한 재산에 대해 내게 무슨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내 자신 안의 어떤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을 뿐이었다.

하여간, 나는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대고” “손에 얼굴을 괸 채” 벽난로를 보며 앉아 있었다. 두 사람(비디와 조)은 나를 어떻게 떠날 보낼 지(송별회)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가 버리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그 밖에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둘 중 한 사람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자주 느껴졌다. 비록 그들이 대단히 유쾌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축복하기 위해 바라보았겠지만.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자주 나를 쳐다보았고 특히 비디가 더욱 그러했다. 그것이 나를 좀 기분 상하게 했다. 왠지 나를 너무 자주 쳐다보는 것이 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확인했다는 태도인 양 느껴졌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말로든 생각으로든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하느님도 아시겠지만.

그럴 때면 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곤 했다. 우리 집 부엌문은 밤에 열어놓았다. 여름날 저녁의 환기를 위해서였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여름날의 수많은 별들이 내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별들도 이제까지의 내 삶과 함께 해온 수많은 시골 물건들 중 하나다. 반짝이고 있을 뿐 그저 초라하고 볼품없는 별들일 뿐이야.”라고.

“토요일 밤이에요.” 우리들이 빵과 치즈 그리고 맥주를 곁들인 야식을 먹기 위해 앉았을 때 내가 한 말이었다. “5일만 더 지나면, 그럼 그 날이 하루 전이니까! 시간은 금방 갈 거야.”

“그래, 핍.” 조가 의견을 표명했다. 자신의 컵에 담긴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며 조가 말했다. “금방 가고말고.”

“예, 금방 지나갈 거예요.” 비디가 말했다.

“조(매형이름), 생각해봤는데 말이야(←나이 차이는 20살 넘게 나지만 서로 반말하는 편안한 친구사이임). 월요일에 읍내로 가서 새 옷을 몇 벌 주문할 때 말이야, 재봉사 아저씨에게 내가 양복점으로 나중에 다시 와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재봉사 아저씨가 옷을 처음부터 펌 블추크 씨(능청맞은 곡물상. 잡곡을 도매 및 소매함) 댁으로 보내주면 놓겠다고 말할 생각이야.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새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허블 씨(마차수레바퀴 제조인) 내외는 네가 번지러한 양복을 빼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 핍.” 조가 왼쪽 손바닥 안에 치즈가 듬뿍 발린 빵을 부지런히 자르며, 그리고 내가 입에도 대지 않고 놓아둔 내 야식을 비스듬히 바라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자른 후 서로의 빵의 크기를 비교해보며 한 입씩 베어 물던 지난날을 떠올려 보는 것 같았다.

“웹슬 씨(연극배우를 꿈꾸는 교회서기)도 네가 양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 더군다나 네가 양복입고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 원들’(마을 술집이름)에 등장하면 환호서을 받을 텐데.”

“난 그게 싫다고. 나로 인해 떠들썩해지는 게 싫어. 변변찮고 천한 옷 한 벌에 생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응!”

“아, 설마하니…, 핍!” 조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정 그렇게 싫다면야 어쩔….”

이 부분에서 비디(여자이름)가 내게 물었다. 그때 비디는 내 누나의 음식수발을 들어주고 있었다.

“가저리 씨(주인공의 매형)에겐 양복 입은 네 모습을 보여줄 테지? 그리고 네 누나와 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니? 우리들에겐 보여줄 수 있잖니?”

“비디.” 내가 다소 화가 나서 되받아치며 말했다. “비디, 넌 뭐든지 너무 앞서 나가는 버릇이 있어. 내가 보조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그녀는 무엇이든 빠르지.” 조(주인공의 매형)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네(비디)가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비디, 넌 내가 이렇게 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거야. ‘아마도 내가 떠나는 바로 전날 저녁이 되겠죠, 내가 내 새 양복들을 여기로 한 보따리 가지고 올께.’란 말을 말이야.”

비디(여자이름)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곧 비디에게 상냥하게 대해준 후, 비디와 조(주인공의 매형)와 함께 “굿 나잇” 인사를 나눈 후 내 침실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내게 이젠 다소 작은 방이었다. 잠시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앉아 있었다. 내가 곧 신분상승을 하게 되면 영원히 이별할, 이젠 정말로 영원히 안 봐도 될, 뒤떨어지고 볼품없는 조그마한 방이었다.

물론 산뜻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장식되어 있는 방이었다. 심지어 이 생각을 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 초라한 현재의 다락방”과 그리고 “내가 곧 살게 될 새로운 하숙집”사이에서 혼란스럽고 분명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대장간”과 “미스 해비샴의 저택” 사이에서 자주 경험하던 감정들이었다. 그것은 또한 내가 비디(평범하지만 아주 착한 여자)와 에스텔라(부유하고 아름답고 성격 아주 안 좋은 여자)사이에서 종종 경험해오던 혼란스럽고 분명치 않은 감정이었다.

태양이 하루 온종일 내 다락방 지붕 위를 밝게 비추던 날이었던지라 방은 밤인데도 더웠다. 나는 창문을 밀어서 연 후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아래층에선 어두운 문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조(주인공의 매형)의 모습이 보였다. 밤공기를 마시며 한 두 차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비디(여자이름)가 조에게 다가와 파이프를 가져다준 후 불을 붙여주었다.

조는 절대 그런 늦은 시각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나에게 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는 다른 이유에서인지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조(매형)가 내 다락방 아래에 있는 문에 서서 이내 파이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비디(여자이름)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 내 얘기를 정겹게 하고 있다. 애정이 듬뿍 담긴 어조로 내 이름이 몇 번이고 언급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굳이 들으려고 했었다면 더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듣지 않았다. 창문을 떠나 내 자리로 돌아온 나는 침대 맡에 있던 내 의자에 앉고 말았다. 내일부터 휘황찬란하게 펼쳐질 내 밝은 미래들을 맞이할 첫날 밤의 풍경치고는 너무 낯설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이 외로움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신분상승을 하게 된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리라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열린 창문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창문가에서 조가 뿜어댄 것 같은 화환(동그라미) 모양의 연기들이 보였다. 그 옅은 색의 화환들은 조가 내게 보낸 축복의 꽃다발일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지도 그렇다고 내 앞에 끼어들지도 않으며, 단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름밤의 공기 속으로 축복의 꽃다발을 널리 퍼뜨리고 있 었다.

촛불을 끈 후 잠자리에 들었다. 늘 자던 침대가 왜 그렇게 낯설고 불편한지. 왜 내가 그토록 잠을 이룰 수 없었던지.

나는 이제 내 침대에서 더 이상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절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한 유산**

**19장**

아침이 되자 나는 다시 앞으로 내 앞에 전개될 미래에 대해 기대만 빵하게 되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휘황찬란하고 밝은 미래였다. 도대체 어제 내가 침대에 누워 했었던 원인모를 외로움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래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6일이나 더 이곳에 있어야지만 내가 여길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런던으로 갈 때 때마침 그 곳에서 뭔가 일이 발생해 예정에서 어긋나거나 아예 일이 틀어져버 리거나 혹은 이 모든 일들이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 었다.

내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헤어짐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조(주인 공의 매형)와 비디(여자이름)는 아주 동정적이었다. 밝은 표정들이었 다. 하지만 내가 이별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절대 그들이 먼저 그 얘기를 말하는 경우란 없었다.

아침식사가 끝난 후 조가 응접실에 있는 장롱에서 내 수습공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불 속에 집어넣었고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었다.

계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새로움과 신기함 그리고 참신함을 듬뿍 안고서 나는 조와 교회로 예배 보러 나갔다.

예배시간동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어제 나에게서 일어난 행운에 대해 목사님께서 들어섰더라면 목사님께서 〈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천국 〉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건데’라고.

잘 차려진 점심식사를 끝낸 후 나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산책도 하고 동시에 늪지대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이제까지의 일들(죄수에게 빵과 포도주을 건네준 것)을 청산해볼 겸 간 산책이었다.

교회(늪지대입구)를 지날 때 나는 느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주 일요일이 되면 이 곳에 와야 했던 그들, 결국에는 저 녹색의 낮고 오래된 무덤들 사이 어딘가의 애매모호한 위치에 눕혀지게 될 숙명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이 가난하고 초라한 빈민들의 삶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들어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감정은 오늘 아침 예배시 간에도 느낀 것이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조만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리라. 로스트 비프(소고기 구이)와, 건포도 넣은 푸딩과, 에일(영국의 쓴 맥주) 500cc(오백시시) 와, 4.5ℓ(리터) 맥주 통에 가득 담긴 내 겸손과 함께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뜬한 저녁식사 한 끼씩을 대접해주리라.’

그리고 그 개략적인 실천계획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내 어린 시절에 중죄인의 표식을 단채 다리에 쇠사슬을 차고서 추위에 지치고 불행에 짓눌려 누더기가 된 몸으로 저 무덤들 사이로 저벅저벅 걸어가던 내 죄수의 모습을 본 것도 바로 여기 이 교회무덤에서였다.

이후 그가 생각날 때면 수치심을 동반한 어떤 몹쓸 감정이 나를 덮쳐 치가 떨리던 것도 저 교회무덤에서였다.

지금 그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한 것도 이 일요일 날의 교회 무덤들이었다. 그가 다시 생각나다니!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 전 일이었다. 더구나 그 죄수는 분명 아주 먼 섬(영국 사형수 유배장소 〓 오스트레일리아)으로 유배 보내졌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진짜로 죽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는 내게 있어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은 분명했다. 그것이 그나마 나를 위로했다.

이제 낮고 젖은 이 땅도 더 이상 내 기억 속에서 안녕이었다. 이제 방들과 저 둑들과도 이젠 안녕이고, 목초지 위에서 풀을 뜯고 있는가 축들도 안녕이었다. 비록 그들이 이젠 나를 보다 존중하는 태도로 보다 칙칙한 색깔을 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나를 향해 최대한의 존경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돌아보려고 얼굴을 돌 리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다.

“단조로운 내 어린 시절의 교우 관계도 이젠 작별인 것이다.” 지금 부터는 런던으로 간다. 그 곳에서 출세할 일만 남았다.

이런 대장장이 생활과도 이별이며 이젠 정말 이들 모든 것들과 작별이었다.

나는 혼자 기뻐 날뛰면서 ‘오래된 포대’(포병부대가 버리고 간 시설물)까지 갔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누워 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에스텔라의 짝으로 삼으려는 미스 해비샴의 의도가 아닐까? 왜 내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일까?’라는 생각.

그러다 나는 문득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서 파이프(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는 조(주 인공의 매형)를 발견하곤 많이 놀랐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 조가 다정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가 말했다.

“너와 함께 여길 와 보는 것도 이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따라와 봤다.”

“따라와 줘서 고마워, 조.”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핍ㅋㅋ.”

“정말 착한 조.” 서로 악수를 나눈 후 내가 말했다. “내가 절대로 조를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지 응?”

“그래 핍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조가 편안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내 기대엔 못 미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암 확신하고말고. 넌 그럴 애니까. 아하, 아하, 여보시게들! 하느님이 축복주시길. 어떤 것에 대해 확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반듯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진 돌발사태에 대해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핍.”

웬일일까? 나는 조가 내 확신에 대해 그렇게 힘차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최대한으로까지 기뻐지는 않았다. 나는 “내가 절대 조를 잊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지?”란 내 물음에 그가 감정을 드러내며 옹호해주거나 아니면 “널 믿고말고, 핍.”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종류의 몸짓을 취해줄 줄 알았었다.

따라서 조금 불편해진 난 조가 말한 ‘첫 번째 주제’(모든 건 사람마음 먹기 나름이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두 번째 주제’(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정말 갑자기 찾아온 소식이야, 하지만 난 항상 신사가 되고 싶어 했어, 종종 아주 종종 이런 상상을 했다고. 만약 내가 신사라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왔었다고. 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말 이야.”

“그런 생각들을 했었니?”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가 말했다. “놀랍구나!”

“하지만 지금은 좀 속상해.” 내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더라면 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안 그래?”

“글쎄다, 난 모르겠는데.” 조가 대꾸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아둔했 단다. 난 그냥 대장장이 일이 천직이지. 나도 내가 끔찍스러울 정도로 바보란 것에 대해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단다. 하지만 뭐, 그런다고 내가 1년 전 오늘 보다 덜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니, 핍?”

내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 나는 내가 재산을 가지게 된 이때 그리고 조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이때에, 만약 조가 좀 더 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선까지 올라와 있었더라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는 의미였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할 만큼 너무나 순진무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난 차라리 이 얘기(조에게 시간 나는 대로 글자공부를 시킬 것)를 비디(여자이름)에게 해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했다.

우리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고 난 후, 나는 비디를 좁은 길가 옆에 있는 우리만의 자그마한 정원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란 감언이설을 내뱉은 후 내가 그녀에게 “부탁할 게 한 가지 있는데…”라며 얘기를 꺼냈다.

(위대한 유산 하루 평균 블로그 조회 수가 세 명이야 응 어쩔? ㅜ\_ㅠ)

“비디(여자이름), 있잖아.” 내가 말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네가 조를 공부시켜 주었으면 좋겠어. 읽고 쓰기 정도는 가리킬 수 있잖니.”

“어떻게 그를 도우라는 거니?” 비디가 꾸준히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글쎄! 조가 착한 건 사실이지만,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게 사 실이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선 약간 뒤쳐진 것도 사실이잖니. 예를 들자면, 학습이라든지 매너(신사의 예의범절)라든지.”

아무리 내가 그녀를 보면 얘기를 꺼냈을 지라도,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동안 그녀가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아, 매너라고! 그에게 매너를 가르치라고? 그럼 그의 매너가 좋지 않다는 거니?” 비디가 ‘까막까치밥나무’(열매로 잼을 만든다고 하네요, 첨 들어봤음-\_-;; 이 문화적 수준이란~ 네이버검색참조) 이파리 하나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래 비디, 여기서야 통할지 몰라도….”

“아! 여기선 통할지 모른다고…?” 비디가 손에 쥔 이파리를 뚫어지게 바라다보며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래 여기서야 통할지 몰라. 하지만 나는 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은 거야. 내가 상속재산을 완전히 물려받게 되면 난 조를 이 시골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의 글 읽고 쓰기나 매너 수준으로는 나도 손 쓸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니? 그럼 그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 안 드니?” 비디가 물었다.

그 질문은 너무 약 오르고 화가 나는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난 추호도 그런 생각(조가 자신의 무지를 알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표정이 굳어 다음과 같이 딱딱하게 말했다. “비디, 그게 무슨 말이니?”

(옮긴이 : “읽는 사람 없다고 너무 막 번역하는 거 아냐? 성의를 보여줘”)

비디(여자이름)가 두 손으로 맞비비며 그 잎을 조각조각 냈다. 그리고 까막까치밥나무(열매로 잼 만듦) 관목 숲은 그 이후로 나로

하여금 개울가 옆 조그마한 정원 안에 있었던 비디와 나 사이의 그 날 저녁의 대화를 떠오르게 하곤 한다.

비디가 말했다.

“그에게도 자존심이란 것이 있을 거라곤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니?” “뭐 자존… 뭐?” 내가 아주 화가 나서 경멸조로 말했다.

“아! 자존심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어.” 비디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이런 말도 했다. “자존심에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

“왜? 왜 말을 끊지?” 내가 쏘아댔다.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냐, 자존심에는.” 비디가 다시 자신의 말을 이어갔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서 ‘다른 누군가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를 그리고 실제로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그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를 현재의 위치에서 꺼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에게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의 자존심이 대단할 거라고 봐. 물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은 나보다 그를 더 잘 아는 네게 있어선 대단히 무례한 행동일 순 있어. 하지만 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그의 자긍심을 느껴진다고.”

“비디.” 내가 말했다. “너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정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너의 진면목을 보게 될 줄이야. 넌 지금 날 질시(샘을 내고 미워하며 쳐다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거고. 말해봐, 실은 내 행운이 부러운 거지. 넌 어쩜 애가 그러니.”

“만약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도 좋아.” 비디가 되받아치며 말했다. “반복해서 말해도 좋아, 만약 내 행동이 너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면.”

“그럼 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니, 비디?” 내가 우쭐해하며 상급자같은 말투로 말했다(비디가 2살이 더 많음. 주인공18세. 비디20세). “내 탓만 하지 말고 말라는 거니? 비디. 정말 실망이다. 너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이건 인간본성의 나쁜 면이야. 나는 그냥 내가 가버린 후 네가 조의 개선(읽고, 쓰기, 매너-예의범절)을 위해 조금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으려던 것이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진짜 모 습을 접하게 될 줄이야. 좋아, 이 시간 이후로 너에게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거야. 알겠니? 비디, 정말 실망이다.”

내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건(시기심) 인간본성의 정말로 나쁜 면이야.”

“네가 나를 꾸짖던 용서하든.” 불쌍한 비디(여자이름)가 대답했다. “이건 하난 믿어도 좋아. 네가 떠난 후에도 난 여기서 항상 내가 다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야. 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떠나든지 간에 이거 하난 말할 수 있어. 어떤 경우에도 너에 대한 내 기억은 변함이 없을 거야. 하지만 신사라면 자기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해.” 비디가 내게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그것(시기심)이 인간 본성의 나쁜 면이라며 열을 올리며 탓한 후, 비디를 떠나 샛길을 통해 내려왔다. 비디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나는 정원 문을 나선 후 풀이 완전히 죽은 채 저녁 식사 시간까지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내가 비디에게 말한 “시기심은 인간 본성의 나쁜 면이야”란 말은 분명 착한 비디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후 “시기심이 인간 본성의 나쁜 면이다”라는 내 생각이 타당하다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갖가지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비디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내 휘황찬란한 미래로 진입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밤조차도 첫 번째 밤(어제)만큼이나 외롭고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이 게 너무 슬프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런 감정들은 예전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었다.

하지만 다시 아침이 밝았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고 나는 다시 또 비디에게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주제(너 변했어)에 대한 우리의 앙금은 풀어졌다.

최고의 신사복을 주문해두기 위해 아침 일찍 읍내로 향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신사복전문점이 문을 열었을까?^^’라며 기대만발하며 내달려갔고 나는 트랩 씨의 신사복전문점 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

‘양복장이’인 트랩 씨는 가게 뒤에 있는 응접실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가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며 불렀다. 아마도 자신이 나와서 맞이할 만큼의 돈도 뽑을 수 없는 손님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래!” 트랩 씨가 속마음은 ‘저 놈 또 왜 왔지?’였겠지만 일단은 겉치레로 친절한 체하며 물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떤 걸 찾지?”

그때 트랩 씨는 세 겹으로 감싸인 두툼한 롤빵을 막 자르고 있었다. 그가 빵 사이로 버터를 미끈하게 쳐 바른 후 살짝 덮는 모습이 보였다.

트랩 씨는 전도유망한(잘나가는) 노총각이었다.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굳게 독신을 지키고 있는 ‘독신주의 노총각’ 뭐 그런 경우였다.

어찌나 그의 신사복전문점이 번창하든지 그는 가게 벽난로 옆에 있는 벽에다가 비까번쩍한 철제금고를 하나 박아 두었는데, 나는 지금도 확신하기를 ‘그 철제금고 안에는 돈다발이 넝쿨째 굴러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트랩 씨(양복장이).” 내가 말했다. “제 자랑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제가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순간 트랩 씨의 안색이 확 바뀌었다. 뭔가 그의 내면에서 동물적인 장사꾼 기질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가 이제 버터고 롤빵이고 뭐고 한 쪽으로 제쳐놓은 채 침대 곁(가게 위 응접실이 침대임)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보에 자신의 손가락들을 재빨리 닫은 후 저돌적으로 코를 벌렁 거리며 내게 돌진하고 있었다.

“오 기어이 하느님의 축복이 자네에게도 내리는구나.”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 곧 런던으로 가야 해요.”

내가 문득 소매에서 수표를 몇 장 꺼내 그것이 50만 원짜리인지 새삼 확인한 후 말했다.

“그래서 양복을 한 벌 맞출까 해요. 최신 유행으로 해주셨으면 해요. 원하시면 비용은….”

아무래도 선불 얘기를 안 하면 그가 대충 만드는 시늉만 낼 것 같아서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원하시면 비용은 선불로 해드릴 깨요.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친애하는 핍 선생.” 트랩 씨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행동을 취하며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팔을 활짝 벌려 멋대로 내 두 팔꿈치 바깥쪽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게나. 자꾸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잖나. 부디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말아주게. 어떻게 나 따위라도 감히 자네에게 축하인사를 해도 될까? 우선은 협소하지만 내 가게로 들어와 주는 호의를 베풀어주겠는가?”

트랩 씨에게는 점원 소년이 한 명 있었다. 그 소년은 이 일대 시골 지방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었다. 내가 가게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소년이 가게 내부 바닥을 쓸고 있었는데 먼지를 내 쪽으로 몰리게 쓸고 있었다.

내가 트랩 시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녀석은 계속해서 빗자루 질을 해대고 있었는데 가게 온 구석들과 물건들을 가능한 한 많이 부딪혀 가며 소리를 마구 내대며 빗자루 질을 하며, 적어도 자신이 이 세상 어떤 대장장이(주인공, 18세)와도 동급이라는 사실을 나타 내려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녀석의 행동으로 보아선 자 신과 비교당하는 그 대장장이가 먼지에 뒤덮여 살든 죽든 상관없는 모양이었다.

“소리 좀 작작 내 이 녀석아.” 트랩 씨가 점원 소년에게 호통치며 말했다. “안 그랬다간 구석에 처박아 놓을 줄 알아. 자자, 핍 선생 저딴 녀석에겐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자 어서 앉게.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트랩 씨가 옷감 두루마리 한 롤을 벽장에서 끌어내린 후, 계산대 위로 그 옷감 두루마리를 물 흐르듯이 펼쳐 보인 후, 옷감 두루 마리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가 그 옷감의 윤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트랩 씨가 말했다.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지 않는가. 자네 의도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도 남을 걸세. 슈퍼 급이지. 어떤가? 왜 싫은가? 걱정 말게. 내 다른 걸로 대령하겠네. 잠시만. 어슬렁거리지 말고 4번 두루마리 가져와!”

마지막 말은 트랩 씨가 점원 소년을 매우 엄한 눈초리로 째려보며 한 말이었다. 트랩 씨 생각으론 아무래도 이 점원 소년이 나(주인공)를 솔로 칠하는 만행을 저지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며 나와의 친밀함을 표시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도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점원 소년이 4번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 계산대 위에 놓고 내(주인 공)게서 한 참 멀리 떨어질 때까지 트랩 씨(양복장이)는 점원 소년에게서 매서운 눈초리는 때지 않았다.

그런 다음 트랩 씨가 5번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트랩 씨가 다시 8번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점원 소년에게 지시했다.

“번호 똑바로 보고 가져와. 꾀부리지 말고.” 트랩 씨가 말했다. “네가 꾀부리면 내가 모를 줄 알지. 호되게 혼날 줄 알아, 이 꼴통 녀석아. 꾀부리면 아주 끝장내 버릴 테니까.”

그런 다음 트랩 씨는 4번 두루마리 위로 몸을 굽힌 후 아주 정중한 자세로 확신에 차서 그 옷감을 내게 추천해주었다.

“여름용 옷감이네. 가벼우면서도 시원하지. 귀족들과 신사들 사이에서 최고 인기네. 런던최고 유행품이지. 만약 이렇게 유명한 자네가…, 어떤가? 내가 감히 자네를 나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래 고맙네. 만약 이렇게 유명한 자네가 이 옷감으로 만든 내 양복을 입어 준다면 나 같은 ‘같은 동네 사람’에게 있어 더할 나의 없는 영광이 될 걸일세. 잠시만 기다려주게. 이 녀석아(점원소년), 5번 두루 마리랑 8번 두루마리 어서 가져오지 못해!”

물론 마지막 말은 트랩 씨가 점원 소년에게 한 말이었다. 트랩 씨가 점원 소년을 보며 마저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간 내 발길에 채여 가게 밖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아니면 내가 발로 널 가게 밖으로 차버리고 두루마리들을 직접 가져오랴?”

나는 트랩 씨(양복장이)의 판단력에 의지해서 양복을 맞추기 위한 재료들을 골랐다. 내 몸 치수를 재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응접실로 돌아왔다.

물론 트랩 씨는 내 치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웬일인지 다시 재고 싶어 했다. 지금까지 그 치수로도 아주 만족하며 사용해왔음에도 말이다.

트랩 씨가 내 치수를 다시 재는 것과 함께 사과조로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이전 치수는 더 이상 맞지 않을 걸세.” 그래서 트랩 씨가 응접실에서 내 몸치수를 재고 면밀히 다시 계산하

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나 세밀하게 재고 계산을 하시든지 내가 마치 토지(땅)고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측량기사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내 몸치수를 재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싼 양복을 맞추고 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손 치더라도 그가 들인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가 치수재기를 끝마쳤다. 화요일 저녁에 펌블추크 씨(능청 맞은 잡곡상. 도매 소매 같이 하는 곡물상인) 댁으로 물품들을 보내기로 약속했을 때, 그가 응접실 자물쇠를 손으로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핍(주인공이름, 18세) 경(귀족), 나도 잘 안다네. 런던의 신사 분께서 이런 시골 신사복전문점의 단골이 되어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말 일세. 물론 일반적인 경우엔 그렇다는 말이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이 따금씩이라도 같은 동네 사람인 내게 자네의 옷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일 것이네. 이 얼마나 화창한 아침인가. 그래 잘 가게, 핍 경(귀족). 고맙네. (점원소년에게 고개를 돌리며) 문!”

물론 “문!”이라고 외친 것은 점원소년(뻔뻔한 소년)을 겨냥해 트랩 씨(양복장이)가 홱 던진 외침이었다. 하지만 점원소년은 트랩 씨가 왜 “문!”이라고 갑자기 외쳤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보다 나는 자기 주인이 나(대장장이, 18세)를 배웅하면서 옷까지 털어주는 모습을 보고는 맨붕상태(충격)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돈의 엄청난 위력에 대한 내 첫 경험은 강렬했다. 뻔뻔한 점원소년이 돈의 위력에 놀라 정신적으로 나자빠지는 모습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 인상적인 사건을 뒤로 하고, 나는 ‘모자제조인의 가게’와, ‘구두제 조인의 가게’ 그리고 ‘양품점(양말 메리야스 장수의 가게)’에 들렀다. 그때 마다 나는 마치 내가 “모든 직공들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의상 한 벌을 입은,” 허버드 아줌마(영국 동요에 나오는 여주인공, 네이버검색 참조)의 “개가 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역마차 매표소에도 들러 토요일 아침 7시 마차 표를 예매했다. 더 이상 내가 가는 곳들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네 마네 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 소문은 이미 널리 퍼졌고 내가 어떤 말

을 할 때마다 가게 주인들의 서비스는 신속했다.

읍내 중심가 가게주인들은 평소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로와 맞은편 가게에 손님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감시하는 것이 일과였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가게 주인들은 도로고 뭐고 오직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미리 생각해두었던 물품들에 대한 모든 주문 마치고, 나는 펌블추크 씨(능청맞은 잡곡상, 도소매 같이 하는 곡물상인) 댁으로 걸음을 옮겼다. 내가 펌블추크 씨의 영업소에 가까이 왔을 때 때마침 상점 문 앞에서 있는 그가 보였다.

펍블추크 씨(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곡물중간상인, 60세)는 아주 조바심을 내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2륜 경마차(바퀴 2 개인 마차)를 이용해 아침 일찍 대장간(주인공의 집)에 들러 내 유산상 속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주인공, 조, 웹슬 씨, 펍블추크 씨)가 예전에 〈 런던의 상인 조지 반웰의 이야기 〉 (1731년)이란 책을 읽었던 그 응접실에 나를 위한 조촐한 간식을 준비한 채, 자신의 점원에겐 “통로에서 물러나 있어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이다. 신성하신 분(주인공)께서 지나가 실 통로라면서.

(잠깐 앞뒤 상황설명 : 〈 런던의 상인 조지 반웰의 이야기 〉이란 책 의 내용을 아셔야 『 위대한 유산 』 을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책 내용

: 평범한 수습공이 신분상승을 꿈꾸다 나쁜 길로 들어선 결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던 ‘고용주와 고용주의 딸’을 버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며 패가망신하더라는 이야기?????←저도 안 읽어봐서 모름. 네 이버검색 ‘조지 릴로’와 ‘조지 반웰’ 참조. 주인공이 이 책을 접하게 된 사연은 15장을 참조바람)

“오~ 친애하는 핍(주인공 이름, 18세) 군.” 펍블추크 씨(60세)가 내 두 손을 꽉 붙잡으며 말했다.

응접실에 그와 나 그리고 간식만 남게 되었을 때 그가 말했다. “자네의 행운에 대해 꼭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네. 자넨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암 충분하고말고!”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속마음을 슬쩍 드러내려고 할 때 그가 주로 사용하는 아주 예민한 방법이었다. 이제 그가 무엇을 바라는 지만 알면 되었다.

“아아!” 펌블추크 씨가 코를 벌렁거리며 나에 대한 칭찬을 잠시 널어놓은 후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일이 성사되는 데 미력하게나마 기여를 했었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에 나는 그만 아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건 대단한 긍지이네. 암 나의 긍지이고말고.”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절대 말을 해서도 암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야했다.

“내 친애하는 어린 벗이여(친구여)!”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자네가 허락만 해준다면야….”

나는 “물론이지요.”라며 약간 투덜거리며 말했다.

그러자 펌블추크 씨가 다시 한 번 내 두 손을 꼭 붙들었다. 그의 양복 조끼에서 어떤 격한 울림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다소 야비한 수작이긴 하지만 분명 그의 내면에서 어떤 떨림이 그의 감정을 북받치게 한 것도 같았다.

“오! 나의 친애하는 젊은 벗이여(친구여), 나게 의지해주게. 내가 미 력하게나마 자네가 없는 동안에도 요셉(주인공의 매형 세례명)이 그 사실(상속인 발설금지)을 절대 망각하지(잊지) 못하게 철저히 주의를 주겠네.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펌블추크 씨는 가엾어 죽겠다는 마냥 “오~ 요셉아!! 오~ 요셉아!!!” 라는 말을 연발한 후,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 의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두드렸다.

물론 이것은 요셉(주인공의 매형)에게 부족한 분별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자 그럼, 내 친애하는 어린 벗이여.”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우선 음식부터 들게나. 여기까지 오며 얼마나 배가 고팠겠나. 자 편히 식사 하게. 내 앞이라고 주저 말게. 어떤 요리인지 궁금한가? 내가 말해줌세. 이건 ‘수퇘지 살코기 구이 전문점’에서 막 요리해온 닭튀김이네. 이건 같은 음식점에서 공수해온 소 혓바닥 살을 삶은 요리이네, 이건 같은 음식점에서 날라 온 하나 혹은 두개 정도의 그 무엇이냐 뭐 그렇 고 그런 음식들이겠지. 음식이 조촐하다 나를 원망 말아 주게. 아~ 자 네를 위해 이 정도 밖에 대접할 수 없는 내가 몹시 원망스러워 목이다 멜 정도라네.”

펌블추크 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격한 감정의 율동을 취해보인

후 다시 자기자리에 앉았다.

“아~ 정녕 내 앞에 있는 이 늠름한 젊은이가 유년기 시절부터 나와 즐거움을 나누던 정녕 그 어린 벗이란 말인가? (주인공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아~ 감히 내가… 아~ 감히 내가…?”

그가 말하는 “감히 내가”란 말의 의미는 그가 나에게 악수를 청해도 되겠느냐는 의미였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열렬히 그리고 뜨겁게 그리고 불타오르게 악수를 한 후 다시 자기 자리로 가 앉았다.

“여기 와인이 있네.” 펌블추크 씨(잡곡상, 60세)가 말했다. “우리 함께 한 잔 하세.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녀가 분별 있는 선택을 해 자네를 간택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난….”

펌블추크 씨가 말하려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내 눈으로 자네를… 아, 이런 훌륭한 자네를 위해 건배하면서도… 아, 이 북받치는 내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줘야 할지…, (주인공에게 악수를 청하려다 말고) 어떤가? 감히 나라도 좋다면 자네에게….”

내가 “좋으시다면 요.”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그는 다시 한 번 내 손을 꼭 붙잡으며 악수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 와인 잔을 쭉 들이켠 후 잔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나도 와인 잔을 쭉 마신 후 잔을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취기가 바로 돌았다.

만약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취기가 내 머리로 직행했던 것이다.

펌블추크 씨가 닭 날개 튀긴 것을 떼어내 내게 권했다. 그와 동시에 소 혓바닥을 삶은 요리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혓바닥 얇은 조각을 내 접시에 놓아주었다. 이 요리들이 어찌나 맛있었던지 그 어떤 돼지고기 부위가 이들 앞에 나타나도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 이와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잠깐 앞뒤설명 : 펌블추크 씨는 예전에 주인공과 식사 할 때 딱딱한 빵 껍 데기들과 물에 탄 우유를 준 적이 있었다.)

“아! 닭이여, 아 닭이여! 너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겠지.”

펌블추크 씨가 접시에 놓인 닭요리의 이름을 불러 관심을 강하게 불 러일으키는 수사법(말하기)을 쓰고 있었다.

“네가 갓 날아 나온 어린 병아리였을 때는 네 앞에 어떤 일이 닫칠지 너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겠지. 너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이 허름한 지붕 아래에서 이 늠름한 젊은이의 원기 회복을 위한 가벼운 식사음식이 될 줄을 너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겠지. 아, 이를 너의 약함 이랴 부르랴? 아니면 너의 허약함이라 부르랴? 이도 저도 아니면 병아 리의 약점이라 부르랴? 예라 모르겠다, 네 좋을 대로 해라.”

펌블추크 씨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 “어떤가? 감히 나라도? 감히 나라도…?”

“좋으시다면 요.”라고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가 자 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내 손을 붙잡으며 악수를 했기 때문이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가 그렇게나 자주 나와 악수를 했음에도 어떻게 해서 그의 손이 내 나이프(칼)에 찔리지 않았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자네 누나는.” 그가 좀 꾸준히 음식을 먹는 듯 보이더니 이내 곧 내 가족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네를 손수 길러주었다는 그 모든 영예로움을 만끽해야할 자네 누나 말일세. 정말 안타까운 그림이 되었네. 영예로움을 이제 막 자랑할 수 있을 이때에 몸 상태가 그렇게 되었으니, 쯧쯧. (그러다 말고 벌떡 정신이 들어 주인공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하지만 나라도….”

나는 그가 또 내게 와서 악수를 할 것 같아서 그를 제지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야했다.

“누나의 건강을 위해 한 잔 할까요.”

“아하!” 펌블추크 씨(잡곡상, 60세)가 이 얼마나 시의적절한 말이냐며 온갖 감탄사를 연발하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자신의 의자 뒤로 몸이 푹 기대어졌다.

“그게 바로 자네 같은 젊은이가 누나와 매형에게 보답하는 길이지. 암 그렇고말고.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할 줄 알다니 이젠 정말 ‘경(귀족)’이라 불러야겠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경(귀족)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내가 경이 아님은 확실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제 3자는 없음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펌블추크 씨가 이어서 말했다.

“그것이 바로 고귀한 품격을 지닌 귀족들이 나아갈 방향이지! 한없 이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니는 것, 그리고 한없이 상냥한 자세 말일세.” 노예근성을 가진 펌블추크는 입에 대지도 않은 자신의 와인 잔을 황

급히 내려놓으며 또 다시 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했다.

“이 비천한 저에게도, 호의를 베푸시어…, 어떤가? 감히 나라도… 감히 나라도….”

그가 악수를 한 후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후 그는 내 누 나(주인공과 20살차이. 악당에서 뒷머리를 족쇄-다리에 차는 쇠사슬- 로 강타당한 후 반신마비가 되어 간호를 받고 있는 중)의 쾌유를 기원 한다며 와인을 한 잔 쭉 들이켰다.

“잊지는 마세. 눈을 감을 필요는 없으니까.” 펌블추크 씨가 말했다. “자네 누나가 성격이 급하고 좀 모질다는 것은 인정하세. 하지만 다 자네 잘되라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두세.”

내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쯤이었다. 그의 얼굴에 점점 더 홍조가 띄어갔기 때문이다(흥분한 상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내 얼굴전체가 와인에 깊숙이 담가진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얼굴피부에 스며든 와인 때문에 꼭 안면이 온통 쑤신 것 같이 느껴졌다.

“양복을 맞추었는데 여기(펌블추크 씨의 가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러자 펌블추크 씨(잡곡상인, 60세)는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 황홀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방방 뛰었다. (-\_-)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양복 입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여러 대자 그는 기절초풍하겠다며 내 의견에 대 찬성한다며 찬송가를 부를 기세였다.

지금 이 자리엔 그밖에 없었다.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고 싶었던지 그가 “혹시?”라고 짧게 말한 다음 아주 부드러 우면서도 아주 느끼하게 질문을 해댔다.

“기억나는가? 우리가 함께 산수(더하기 빼기) 놀이를 하던 날(주인공이 처음으로 미스 해비샴의 집을 방문하던 날)을 말이야? 기억하는가? 우리 다함께 법원으로 가 자네의 수습공계약서에 공증인 도장을 받던 날을 말이야?”

요컨대 그의 질문의 요지는 이랬다.

“자네가 가장 좋아하던 사람이 나란 것을 잊진 않았겠지? 자네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널 언제나 나였다는 사실을 잊진 말게?”

만약 내가 그 날 먹은 와인 잔보다 딱 10배를 더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간파하고 있었어야 했다. 내가 그와 단 한 차례도 친했던 적이 없었음을 말이다. 또한 나는 아주 솔직히 그의 말을 부정했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유들(술과 아부)로 인해 나는 기분이 좋아져 ‘내가 혹시 그동안 이 분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나 분별력 있으시고, 이렇게나 대인관계가 뛰어나신 분, 이렇게나 젊은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친구를 그동안 내가 단단히 오판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그와 내가 예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내 자신도 확신하기 시작했다.

점차 그(펌블추크 씨, 60세)는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에 관해 내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말했다.

“만약 가게에 딸린 부지(땅)가 조금만 더 확대된다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곡물(옥수수 같은 것)과 씨앗 거래에 대한 큰 합병과 독점을 어떻게 한 건 터뜨려보겠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 인근 상권에서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될 텐데. 다만 이 로또를 터뜨리기 위해선 지금 으로선 하나 부족한 게 있다네, 다름 아니라 추가 자본이네. 다른 건 필요 없네. 딱 두 단어만 있으면 되니까. ‘추가 자본’ 말일세.”

펌블추크 씨가 계속 말했다.

“이 사업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네. 만약 익명의 파트 너가, 아니 파트너께서 이 사업에 추가 자금을 투자한다면 말일세, 파 트너는 다만 자신이 직접 들르던 아니면 대리인을 시켜 확인해보던 기분 내킬 때면 가게에 들러 회계장부들을 점검해본다거나 하면 될 텐데. 내 말은 그러니까 일단 한 차례만 투자를 해두면 그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가게에 들러 자기 몫의 수익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면 되네. 당기순이익의 최대 50%까지 내 조율해줄 수 있네. 내 말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게나, 난 그저 이 사업이 재력을 겸비한 젊은 영혼의 신사가 한 번쯤 주의를 기울여보기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네.”

그가 계속 말했다.

“저, 그러니까,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 의견을 들고 싶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는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담긴 답변이면서도 아주 뚜렷한 의미가 담긴 답변인 것 같은 내 대답은 그에게 엄청난 감명을 주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내 손을 잡아도 되는지를 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꼭 자네와 악수를 해야겠네.”라며 악수를 하고 또 했다.

우리는 와인을 다 마셨다.

펌블추크 씨는 내게 “요셉(주인공의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매형)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 노력함세.”라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자네에게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겠네.”라며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하지만 나는 정작 그 서비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내게 비밀 하나를 알려주었다.

“난 자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네. ‘저 애는 남다르다. 명심해두자. 저 애의 미래는 어느 아이들의 미래와는 확연하게 다를 테니까.’라고.”

확실히 그는 그 비밀을 지금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켜왔음이 분명했다.

그가 눈물이 가득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아주 특별한 예감이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내가 말했다.

마침내 나는 정신이 약간 흐릿한 상태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햇빛(기쁨의 근원)의 작용에 평소와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 굳이 어

떤 길을 택한 것도 아닌데 꾸벅꾸벅 졸면서 어느새 유료 마차 도로(‘읍내’와 ‘주인공마을’의 중간지점)에 들어서고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 이다.

거기서, 나(18세)는 펌블추크 씨(곡물상인, 60세)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퍼뜩 깨었다. 그는 햇볕이 내리쬐는 거리에서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떨어진 아래쪽에서 있었다. 그가 나보고 멈춰보라며 크게 몸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멈추었고, 그가 숨 가쁜 채로 올라왔다.

“이런, 내 친애하는 친구여.” 그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숨을 돌리자 말했다.

“아직은 못 보내주겠네, 친구. 자네에게 내 호의의 표시를 한 번 더하지 못하고서는 자넬 보내주지 못하겠네. 어떤가? 오랜 친구로서 그리고 자네의 행복을 비는 한 사람으로서? 나와 악수를?”

우리는 적어도 100번째의 악수를 나눴다.

그때 마차가 도로를 지나가려하자,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분개한 태도로 내(주인공)가 가는 길에서 비끼라며 젊은 짐 마차꾼에게 호통을 쳤다. 그런 다음 내 축복을 기원한다고 말 한 후 내가 마차도로의 굽어진 코스를 완전히 돌 때까지 손을 흔들며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들판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곳에 있던 울타리 밑에서 한참동안 낮잠을 잔 후 나는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런던으로 가지고 갈 짐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애초 소유한 짐이 별로 없었거니와 그것들도 이제 내 새로운 신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출발전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욱이 내일 아침 필요한 물건인 줄 알면서도 미친 듯이 짐을 싸고 있었다.

그것은 한 순간도 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핑계 때문이었다.

그렇게 화요일이 지나고, 그렇게 수요일이 지나고, 또 그렇게 목요일이 지나갔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약속한대로 펌블추크 씨 댁으로 갔다. 새 양복을 받아오고 읍내에 들른 김에 미스 해비샴(갑부, 부자) 마님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펌블추크 씨는, 내가 새 양복을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안방을 내주었다. 내가 온다고 그가 특별히 안방을 깨끗한 천들로 장식해놓았다.

새 양복들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약간 어긋났다고 해야 할까? 뭐 그랬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모든 새 옷이 그럴 것이다. 애타게 입어보고 싶었던 옷이 막상 완성돼 입어보게 되면, 애초 착용자의 기대에 좀 못 미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새 양복을 입은 지 30분 정도가 지나고, 그리고 펌블추크 씨의 작은 화장대 거울로 내 다리를 비춰보는 쓰잘머리 없는 노력에 온갖 포즈를 취해보고 나니, 그나마 옷들이 나와 어울리는 것도 같았다.

16킬로미터(마차로 1시간거리) 정도 떨어진 이웃 읍내에 그날 아침 장(시장)이 서고 있었다. 그래서 펌블추크 씨(곡물상인, 60세)는 집에 없었다.

내가 언제 떠날지도 확실하게 언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별인사랍시고 더 이상 그와 악수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와의 악수가 약간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옷도 이젠 맞는 것 같고 펌블추크 씨와 더이상 악수를 나눌 필요도 없고 보니 그럭저럭 일이 훌륭하게 전개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새 옷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왔다. 펌블추크 씨의 가게 직원 앞을 지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다.

‘일요일 날 교회에 예배 보러 가기 위해 정장차림을 한 어색한 모습의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처럼 나도 지금 그런 개인적인 불리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쁜 쪽으로 의심이 들었다.

나는 뒷길로 빙 돌아서 미스 해비샴의 저택으로 갔다. 내 장갑의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뻣뻣해서 나는 부자연스럽게 초인종을 눌러야했다.

세라 포킷(좀 긴 부연설명 : 호두껍데기로 만들어진 것 같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입이 고양이 입같이 커다란 결혼하지 않은 주름투성이 노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이 변할 때마다 정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세라 포킷이란 이름을 기억하면 소설의 흐름 이해가 쉬움. 15장 참조)이 정문으로 나왔다.

그녀는 싹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분명 당황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더욱이 그녀의 호두껍데기 같은 얼굴 표정이 ‘갈색’에서 ‘녹황 색’(채소색깔=노란색+초록색)으로 변해갔다.

“너는?” 그녀가 말했다. “오, 이럴 수가! 그래 무슨 일로 왔지?” “런던으로 가게 되었어요. 세라 포킷 양(미스 세라 포킷).” 내가 말

했다. “떠나기 전에 미스 해비샴 마님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나의 등장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당황해 나를 안뜰에 내버려둔 채 정문을 잠근 후 나를 들여보내도 좋을지를 마님께 물어보기 위해 들어갔기 때문이다.(원래는 정문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 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의미)

아주 잠깐 시간이 지체된 후, 그녀가 다시 돌아와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미스 해미샴(어마어마한 부자, 하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임)은 길게 펼쳐진 테이블이 놓여있는 방에서 목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방은 옛날 그대로였다.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가 입구에서 인기척을 내자, 그녀가 걷기를 멈추고 돌아봤다. 그녀가 막 썩은 신부용 케이크 앞에 다다랐을 무릎이었다.

“세라, 넌 안 돼(들어오면 안 돼).” 그녀가 말했다. “그래, 핍?” “내일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미스 해비샴 마님.” 나는 몹시 신

중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러 와도 꺼리시지 않으실 거 라 생각했어요.”

“그래 좋아 보이는구나, 핍(주인공이름,18세).” 그녀가 목발 지팡이로 내 주위로 동그란 원을 그려 보이며 말했다.

나를 변화시켰던 친절한 사람인 그녀가 이제 마지막 선물을 선사하기 위한 행동인 것만 같았다.

“지난번에 뵙고 난 이후로 저는 상당히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미스 해비샴 마님.” 내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님!”

“아, 아!” 내 말에 당황해하고 질시해하는 세라(주름투성이 노파)를 보고 미스 해비샴이 아주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재거스 씨(런던 변호사, 주인공 후견인의 법률대리인)가 왔다 갔었다. 그에게서 네 얘기를 들었다. 그래 내일이라고, 핍?”

“예, 마님.”

“어느 부자의 양자가 된다지?”

“예, 마님.”

“이름은 모르고?”

“예, 마님.”

“재거스 씨가 네 후견자 될 예정이고?” “예, 마님.”

미스 해비샴의 질문과 내 대답에 세라 포킷(주름투성이 노파)이 아주 질시하며 경악했다. 세라 포킷의 일그러지는 표정을 지켜보고 있던 미스 해비샴은 계속해서 내게 질문을 던졌고 그럼 그럴수록 내 대답에 당황하고 경악해하는 세라 포킷의 얼굴을 아주 고소한 듯 미스 해비샴은 쳐다보고 있었다.

“좋아!” 그녀가 계속 말했다. “이제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되겠구나, 핍. 그래 잘 다녀오너라. 너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항상 재거스 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라.”

미스 해비샴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후 그녀가 세라를 쳐다보았다. 세라의 질시어린 얼굴표정을 모두 놓치지 않고 있던 미스 해비샴의 얼 굴에서 이제 잔인한 미소가 드러나고 있었다.

“잘 가거라. 핍! 너는 항상 핍이라는 네 이름을 간직해야 한다, 알고 있겠지.”

“예, 마님.”

“그래 잘 가거라. 핍!”

그녀(미스 해비샴)가 손을 뻗어주었고 나는 무릎을 꿇은 후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를 찾아가기 전에 어떻게 작별인사를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갔었는데 바로 지금 자연스럽게 작별을 고하게 되 었다.

미스 해비샴은 기묘한 승리의 눈을 하고서 세라 포킷(주름투성이 노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내 친절한 은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방을 나올 때 그녀는 발목 지팡이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촛불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는 방 한 복판에 서 있었다. 그녀 뒤로 거미집에 가려진 섞은 신부용 케이크가 보였다.

세라 포킷이 나를 아래로 안내했다. 내가 마치 사라져야만 될 유령이 된 기분이 들었다. 세라 포킷이 여전히 내 모습에 당황해 혼돈의 마지막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했다.

“잘 있으세요, 포킷 양(미스 포킷).”

그녀는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 귀에 들리지 않았다.

저택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후 나는 왔던 방향 그대로 펌블추크 씨 댁으로 돌아갔다. 펌블추크 씨 댁에 도착한 후 새 양복을 벗고 곱게 접어 보따리에 넣었다. 헌 옷으로 갈아입은 후 보따리를 든 채 집으로 향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서 말하건대 내가 비록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옷보따리를 들고 있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너무나,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다.

이로써, 그렇게만 느리게 흘러갈 것 같았던 6일도 다 지나갔다. 시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착실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했다.

6일 저녁이나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5일에서 4일이 되고, 3일에서 2 일로 줄어들자, 나는 점점 더 조(주인공의 매형)와 비디(여자이름)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새 양복을 꺼내 입고 나와 자기 전까지 자체발광 앉아 있었다.

이 즈음해서 경사스러운 날이면 반드시 우리 집 식탁 위에 오르는 닭구이가 차려진 화끈한 저녁을 먹고 입가심으로 뜨거운 ‘계란 술’(맥 주나 브랜디에 계란 탄 거라고 하네요. 네이버검색참조)을 약간 마셨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아주 침울했다. 우리 모두는 기분이 참 좋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침울했던 분위기는 더 나아지지 않 았다.

나(주인공, 18세)는 아침 5시에 작은 여행용 손가방을 들고 마을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조(주인공의 매형)에게는 혼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실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염증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웠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함께 마차 터미널에 나타난다면 그곳에서 나와 조의 상반된 모습 사이에 주어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감에서 비롯된 의도였다.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내 자신에게는 내 말에 나쁜 의도가 없는 것처럼 타일렀다.

하지만 마지막 날(출발 하루 전) 저녁에 내 작은 다락방에 다시 올라왔을 때 나는 내 의도에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조에게 제발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마차 터 미널까지 가 달라고 간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밤새 산산조각 난 꿈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형 사륜마차(바퀴4개)가 나타나 내 목적지인 런던이 아니라 전혀 낮선 곳을 향해 내달렸다. 가죽 끈에 묶여 있는 것은 말들이 아니었다. 때로는 개들이 묶여 있었고, 때론 고양이들이, 때론 돼지들이, 때론 사람들이 가죽 끈에 묶여 있었다. 그 어디에도 말들은 없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들이 다시 지져 길 때 산산조각 난 잠과 괴상한 꿈에 시달려 난 이미 굴복한 상태였다.

그런 다음 일어나 옷을 대충 입고 창가에 앉아 이제 마지막이 될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다.

비디(여자이름)는 새벽 일찍 일어나 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비록 내가 창가에서 잠을 잔 시간이 채 한 시간도 못 되었지만 잠결에도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때 문득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잠을 너무 자서 마차 시간을 놓친 것은 아닐까? 벌써 오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오랜 뒤에 무척 오랜 뒤에 찻잔들이 식탁 위에 다시 놓이는 소리며 찻잔들끼리 가볍게 부딪쳐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용기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결국 나는 방에 쪼그리고 앉아, 비디(여자이름)가 아래층에서 “늦겠 어.”라며 부를 때까지, 내 방 문을 열었다가 닫고, 내 작은 여행용 가방 끈을 풀었다가 잠그고, 다시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맛을 느낄 새도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기차게 이렇게 말했다. 마치 이 말이 방금 막 떠올랐다는 듯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다음 나는 평소처럼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웃고 있는, 고개를 끄떡이고 있는, 고개를 흔들고 있는 내 친누나(20살차이)에게 키스를 했다. 비디의 뺨에도 키스해주었다. 조와 작별인사를 할 때에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포용했다.

그런 다음 내 조그만 여행용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내가 얼마쯤 갔을까 뒤에서 허둥지둥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뒤돌아보았고 때마침 조(매형)가 내 등 뒤로 오래된 낡은 신발 한 짝(1 개)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비디는 다른 쪽 낡은 신발 한 짝(1개)을 다른 쪽으로 던지고 있었다.

나는 멈춰서 모자를 벗어 흔들어 보였다. 내 친애하는 오랜 벗인 조도 그의 강인한 오른 팔을 머리 들어 흔들어 보였다.

조가 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안녕, 핍!”

비디는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날 내가 그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 **이 부분에서 옮긴이의 느낀 점** (19장 느낀 점 간략히) :

원래 남의 말을 들을 때 딴 생각을 잘 하는 편이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말과는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한다. 이 버릇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이 책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난 같은 책을 읽고 딴 생각을 하느라 흐름을 놓친 나머지 “이 책, 그 내용 아 니던데. 자수성가하는 행복한 내용이던데.”라며 남들 탓을 하곤 한다. 이젠 체크를 받아야 할 일도 없으니 맥을 놓친다고 내게 불리할 일은 없다.

그래서 『 위대한 유산 』 도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많은 소설처럼 밝은 내용인 줄 알았다. 물론 주인공이 고생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수성가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행복한 소설이 아니네.

-\_-.. 엄청 슬픈 내용이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우리말로 옮기 지도 않았을 텐데 싶다. 이미 시작했고 구독자도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디킨스 소설을 많이 좋아하고 해서 끝까지 가겠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어리석으면 용감하다더니, 이 소설을 옮겨 보겠다고 이 소설은 밝은 내용이라고 혼자 착각하고서 시작한 내 무모 함도 참 대책 없다.

세상에는 참 느낄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우리말 옮김은 계속 됩니다. 전혀 그만 둘 마음 없음. ~\_~..

(옮긴이의 느낀 점 끄읏~)

(다시 본문 시작)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떠나기가 훨씬 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만약 조와 같이 마차 터미 널까지 갔었더라면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내가 탄 마차 뒤로 오래되고 낡은 구두 한 짝(1개)을 던졌을 것이라 생각하니 아찔했다.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

하지만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더 평화로웠다. 주변에 낀 가벼운 안개만이 엄숙한 표정을 한 채 떠오르고 있었다. 마치 내게 이제 부터 저 밖 세계를 보여주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 마을에서 너무나 순진하고 별 볼일 없는 애였다. 이제 저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커고 너무나 알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다. 그러자 곧 바로 가슴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와 흐느껴 울고 말았다.

내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길 안내문’ 옆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길 안내문에 손을 집은 채 이렇게 말했다.

“잘 있어, 오 내 정다운, 정다운 친구(손가락 모양의 길 안내문, 외 국영화에서 마을 입구에 꼭 있는 표지판 같은 거)야!”

하느님도 아실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눈물들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눈물들은” 우리의 굳어버린 심장들 위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로놓여 있는 흙먼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이다.”

울고 보니 전보다 기분이 한 결 좋아졌다. 그리고 울기 전보다 내 자신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었고 마냥 후회되어 마음이 한결 순해졌다.

만약 내가 조 앞에서 울었다면 그럼 그가 나와 함께 해주었을 텐데.

이런 눈물들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조용히 걸어가다 도중에 또 한 번 왈칵 눈물을 터뜨리는 바람에 내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완화되었다.

내가 대형 사륜마차(바퀴4개)에 올라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파 ‘마차가 말을 바꾸기 위해 역에 멈출 때 내려 집으로 돌아가 그들과 하룻밤을 더 보내고 그리고 좀 더 다정한 이별을 하고 떠나는 것이 더 좋지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차가 말을 바꾸기 위해 역에 멈춰 섰다. 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마차가 말을 바꾸기 위해 다음 번 역에 멈춰설 때 그때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실행가능한 일이라며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내가 이런 숙고(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길을 따라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조와 정말 닮았다는 환상에 빠져 심장이 요동치곤 했다. 마치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마차가 말을 바꾸기 위해 다시 한 번 역에 멈췄다. 그 후 마차가 또 다시 말을 바꾸기 위해 다른 역에 멈춰 섰다.

이젠 너무 늦었다. 너무 멀리 와서 더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마차에 있기로 했다.

연극무대의 커튼처럼 안개는 장엄한 분위기를 풍기며 이제 모두 걷힌 상태였다. 그리고 내 앞에 세상이 넓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까지가 ‘핍(주인공이름)의 유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원문에도 있는, 디킨 스가 쓴 문장임. 하지만 소설 전체의 실제 줄거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이런 문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디킨스가 신문에 『 위대한 유산 』 을 연재하면서 임의로 넣은 문장일 뿐이에요. 하지만 20장부터는 소설의 배경이 런던사교계로 바뀐다는 사실~굿굿)

(여기까지가 19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20장에서 계속 됩니다.) (20장부터는 배경이 런던입니다. 시골은 이제 아주 가금씩만 언급됩니다.)

**위대한 유산**

**20장**

‘우리 마을’에서 ‘수도 런던’까지의 여행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다. 내가 승객으로 탄 ‘말 네 마리짜리 역마차’가 〈 런던 시, 치프사이드(런던의 시티), 우드 거리에 있는 크로스 키즈(열쇠) 주변의 혼란스러운 교통 혼잡 도로 내 〉로 진입한 시간은 점심때가 약간 지났을 무릎이었다.

이 당시 우리 대 영국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세계 최고이며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민족이라는 것에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았으며 이와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을 일종의 반역으로 여기는 아주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런던이란 도시가 다소 추하고 구불 구불하고 좁고 아주 더러운 곳은 아닌지 아주 희미하게나마 의심을 품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비록 런던의 거대함에 무섭고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말이다.

재거스 씨(런던에서 유명한 변호사)는 사무실 주소를 내게 정식으로 보내주었었다. 가만 보자, 그게 그래 ‘리틀 브리튼’이었다. 그는 명함 뒤에 이렇게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스미스필드(닭고기 돼지고기 새고기 소고기 등등을 바로 잡아서 가게 앞에 널어놓고 파는 고기 시장. 영화에서 봤음^^ㅋㅋ)의 안에서 밖으로 곧장 나와서, 역마차―매표소 바로 옆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마차’(택시) 마부는 나를 대형 사륜마차(바퀴 4개)안으로 집어넣고는 마치 나를 데리고 80킬로미터(마차로 5시간 30분 거리)는 족히 달릴 것처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접이식’, 발판들의 ‘장벽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둘러쌓다(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마차 문 꽉 잠겼단 소리겠죠????).

마부가 자가 자리에 앉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그 마부 석을 여기서 설명해볼까 한다. 내가 기억하기론, 오래되고 날씨로 풍화되고 더럽혀진 연두색 덮개(마부석의 덮개) 그러니까 나방이 갉아 먹어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연두색 덮개로 장식된 마부석이 있는 대형 사 륜마차(바퀴4개)였다.

외관은 참으로 훌륭한 마차였다. 외부에 6개의 큰 화관(왕이나 귀족이 중요행사 때 마차 외관에 다는 것???)이 장착되어 있었고, 마차 뒤에는 얼마나 많은 하인들을 필사적으로 매달고 달리려고 했는지 아주 누더기가 다된 손잡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 손잡이 아래로는 써레 (소 끌고 흙을 갈 때 쓰는 농기구, 뾰족한 빗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 것)가 하나 달려 있어 풋내기 하인들이 마차에 오르려는 유혹을 저지하고 있었다.

대형 사륜마차(바퀴4개)를 즐길 시간을 겨우 가질 때쯤, 그리고 마차가 왜 짚을 깐 가축의 겨울 우리 같은지를 생각해볼 겨를을 겨우 가질 때쯤, 그러면서도 마차가 왜 헌옷가게처럼 생겼는지 겨우 생각해볼 때 쯤, 그리고 말의 목에 걸고 다니게 되어 있는 사료 자루가 왜 마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 모두를 궁금해 하기 시작할 때 쯤, 나는 마부가 자기 자리에서 내리려는 것 같은 기척을 느낄 수가 보았다. 거의 다 도착한 모양이었다.

곧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어떤 사무실들이 쭉 늘어서 있는 음침한 거리였다. 사무실의 열린 문 위에 다음과 같이 사무실 이름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미스터 재거스.”

“얼마입니까?” 내가 마부에게 물었다.

마부가 대답했다. “2만원입죠. 더 내실 생각이 없으시다면요.” 나는 더 낼 의향이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렸다.

마부가 대답했다. “그럼 2만원입죠.”

마부가 ‘미스터 재거스’라는 이름을 보다 한 쪽 눈을 거무스름하게 감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전 그의 사무실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그 (재거스 변호사) 사람을 압죠!”

마차 비를 받은 마부는 이윽고 마부 석에 오른 후 떠났다. 어서 가 버리는 게 자신에겐 구원이라는 듯이 보였다.

나는 조그만 여행용 가방을 손에 쥔 채 현관으로 가 “재거스 씨 오 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안 계세요.” 사무원이 대답했다. “지금 법정에 출두하셨어요. 아참 핍 씨 되시죠?”

나는 고개를 끄떡이며 내가 핍임을 나타냈다.

“재거스 씨가 말씀남기셨거든요. 자기 집무실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요. 다만 재판이 재판인지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오실 겁니다. 그의 시간은 아주 비싸거든요. 이번 재판도 필요이상으로 오래 끌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이러한 말(변호사님이 출타중이십니다)과 함께 사무원이 문을 열어 주었다. 나를 뒤쪽에 있는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우리는 무명 벨벳 정장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애꾸눈의 신사 한 분과 마주쳤다. 그는 신문을 정독하고 있다가 우리가 들어가자 소매로 코를 쓱 닦았다.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마이크 씨(엑스트라 이름임, 독자가 전혀 몰라도 되는 이름임).” 사무원이 말했다.

내가 막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든 찰나에,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사무원이 이 신사분의 소매를 붙잡곤 방밖으로 밀어 냈다. 내가 보니 예의고 뭐고 아주 최소한의 예의만 보일 뿐이었다. 그 후 사무원은 그 신사분의 모피 털모자를 그 신사분 등 뒤를 향해 집어 던진 후 나를 혼자 남겨둔 채 훌쩍 가 버렸다.

(지금부터 나오는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수많은 이름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이름은 10명밖에 안됨. 이 10명의 이름만 수첩에 적어놓으면 OK임. -\_- 보통의 경우 소설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면 덮어버리고 다신 그 소설을 안 읽게 되죠. 이 급한 시대에 무척 걱 정됨~\_~ 그나마 얼마 없는 제 블로그 이웃 다 떠날 수 있으니까...)

‘천장에 낸 채광창’(하늘 빛) 하나만이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의 집무실을 비추고 있었다. 집무실은 대체로 어두웠다.

‘천장에 낸 채광창’은 사람의 깨진 머리처럼 중심이 없이 제각각 경사가 져 있었다. 그리고 서로 접해있는 건물들이 마치 ‘천장에 낸 채광 창’을 통해 나를 아래로 엿보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비튼 것처럼 왜곡 되어 보였다.

서류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집무실에서 보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양 만큼 많지는 않았다.

주변에는 다소 특이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건 내가 그의 집 무실에서 보게 될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낡고 녹이 슨 권총 한 자루, 칼집이 채워진 검 한 자루,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상자들과 소포들이 몇 개 놓여 있었다.

선반 위에는 안면이 별나게 부풀어 올라 있고 코 주위가 한쪽으로 세게 비뚤어져 있는 끔찍하게 생긴 두개의 주물들(쇳물을 녹여 만든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주물)이 있었다.

재거스 씨 자신의 의자는 등이 높고 아주 짙은 검정색 말 털(말갈기)로 만들어진 의자였는데, 관(장례식 할 때 쓰는 관)처럼 의자 테두리에 놋쇠 빛깔을 한 못들로 줄을 친 의자였다.

그가 자신의 의자에 등을 푹 기댄 채 의뢰인들을 바라보며 집게손가락 물어뜯는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의 집무실은 아주 작았다. 그래서 그의 단골 의뢰인들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등을 벽에 기대는 버릇이 생겼을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벽 중에서도 특히 ‘재거스 씨의 의자 반대쪽 편에 있는 벽’에 사람의 어깨들이 닿아서 생긴 기름기가 돋아나 있었기 때문이다.

벽 위에 돋아 있는 기름기를 보고 있자니, 방금 전 내 죄 없는 등장으로 인해 집무실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신세가 된 애꾸눈을 한 신사가 집무실 밖으로 내쫓길 때 등이 벽에다 질질 끌리던 모습이 다시 생각났다.

나(주인공, 18세)는 재거스 씨(변호사)의 의자와 대비되게 놓여있는 의뢰인전용의자에 앉았다. 나는 곧 집무실이 풍기는 음침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방금 전 그 사무원도 자신의 상사와 같이 남의 불리한 점을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새삼 주목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사무원들이 위층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나야 말로 다른 사람들의 불리한 점을 알고 있다는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다”며 주장할는지도 궁금해졌다.

또한 이 방에 있는 이 독특한 골동품들이 다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무슨 내력이 있어 여기 이 방에까지 오게 된 것인지 궁금해졌다.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얼굴이 부어오른 얼굴주물 두 개가 혹 재거스 씨의 가족인지도 궁금해졌다.

만약 이런 보기 흉한 얼굴을 한 이들이 그의 친척들이라면 무슨 불행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친척들 자신들의 집에 이 얼굴주물들을 놓아두지 않고 지금처럼 검은 점들과 파리들이 앉을 수 있게 저 더러운 횃대 위에 고정시켜 놓았는지도 궁금해졌다.

물론 나는 런던 여름철의 무더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뜨겁게 배출되고 있던 공기들과 모든 물건들 위로 두껍게 쌓여 있는 먼지들 그리고 뿌연 모래들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나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는 재거스 씨의 의자에 앉아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 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재거스 씨 의자 위의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흉한 얼굴주물들 때문에 더 이상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내가 “변호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 나가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사무원에게 말하자 그가 “길 모퉁이를 돌면 스미스필드(런던 북서쪽에 있는 고기시장)인데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스미스필드로 갔 다.

하지만 거긴 부끄러워해야할 장소이자 망신스럽고 괘씸한 장소였다. 사방이 온통 오물 천지고 동물의 기름기와 피 그리고 거품들이 널 부려져 있어 그것들이 마치 내 몸에 달라붙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장소였다.

나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 어두운 석조건물이 보이는 거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 이르자 석조건물 뒤로 “크고 검은, ‘세인트 폴 대성당’의 돔(건물천장양식)”이 나를 향해 툭 튀어나왔다.

구경꾼 한 명이 그것이 ‘뉴게이트 감옥(런던의 옛날감옥)’이라고 말 해주었다.

교도소의 벽을 따라 걷자니 마차의 수레바퀴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부지 위에 온통 밀짚(밀의 줄기)이 덮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소음방지용 밀짚들)과 그리고 알코올 냄새와 맥주냄새를 강하게 풍기며 주변을 가득매우며 서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곳에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임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서서 내 주위를 쳐다보고 있자니, 아주 지저분하고 분명 낮술을 마셨을 것 같은 법무관리 한 명이 다가와 이런 거래를 제안했다.

“어떻습니까? 나리.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5만원만 내시면 1등석으로 마련합죠. 거기서부터는 가발과 법복 (옷)을 입은 수석 재판관들을 죄다 볼 수 있죠.”

그 관리는 법관들이 마치 밀랍 인형들인 것처럼 언급하더니 이내 “그럼 뭐 3만 6천원만 냅쇼. 내 찐하게 재판관들을 보여드리리다.”라며 가격을 흥정하기까지 했다.

나는 “저 약속이 있는데요.”라며 에둘러 변명한 후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 관리는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가더니 교수대들이 놓여있는 장소들과 죄수들이 공개 태형(매질)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며 내게 아주 잘해주었다.

그러고는 내게 ‘채무자들의 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교수형에 처 해질 죄수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문이라고 했다.(당시 채무자들의 문 앞에 이동식교수대가 있었음) 게다가 그 관리는 이 끔찍한 문에 대한 내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내일 아침 8시 이후에 그 놈들 4명이 저 문을 통과해 차례로 교수형에 처해질 예정입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끔찍하고 불쾌한 소리에 난 그만 정신이 나가 런던이 구역질나고 느글거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인 것은 수석재판정의 경영자가 입고 있던 옷들이 죄다 곰팡이가 피어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가 자기 돈을 주고 산 옷들이 아니라 마치 사형집행인들한테서 싼 가격으로 구입한 옷같이

느껴졌다. 그의 모자에서부터 아래로 부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가 쥐고 있던 호주머니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죄다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상황이 이쯤 되니 교도소를 더 구경하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이 법원 관리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2만원을 쥐어주고 떼어냈다.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무실에 들러 “재거스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리틀 브리튼을 구경해보기로 마음먹고 바르톨로뮤(예수님의 제자이름) 클로즈(주변)로 방향을 틀었다. 이쯤에서 내가 새롭게 알 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재거스 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 중에 나도 포함해서 말이다.

수상하게 생긴 두 남성이 바르톨로뮤 클로즈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포장도로의 금들 사이에 구두를 집어넣으며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 앞을 처음 지나갈 때 그들 중 한 남성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재그스 씨가 꼭 맡아주실 겁니다.”

길모퉁이에는 세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성들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한 여성이 지저분한 어깨걸이 숄(어깨에 걸치는 숄)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다른 여성이 울고 있는 여성의 숄을 어깨 위로 다시 올 려주며 말로 달래고 있었다.

“재거스 씨가 그이 변호를 맡으셨잖니, 아멜리아. 도대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겠니? 그만 울어 응.”

내가 주변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바르톨로뮤 클로즈 내로 막 들어온 눈이 붉고 키가 작은 유대인 한 명이 있었다. 역시 키가 작은 유대인이 그의 동행인 것 같았는데 어디론가 심부름을 보내버렸다.

심부름꾼이 가버린 동안, 나는 이 유대인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대단히 흥분해 신경과민 상태였다. 일종의 광란 발작 상태에 빠진 그는 금속제 가로등기둥 밑에서 불안으로 떨며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 재거쓰, 오 재거쓰, 오옷 재거씃! 다른 놈들은 죄다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을 뿐이야. 내겐 오직 재거쓰 당신이 필요해!”

내 후견인에 대한 이런 경탄할 만한 증언들은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 경탄하고 있었다.

내가 바르톨로뮤(예수님의 제자이름) 클로즈(주변) 철제정문에 서서 리틀 브리튼 쪽으로 바라보고 있자니, 드디어, 도로를 가로질러 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는 재거스 씨(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 사)가 보였다. 거와 동시에 주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일제히 그에게로 몰려갔다.

재거스 씨가 한 손을 내 어깨위에 올려놓은 채 나를 자신의 옆에서 계속 걷게 하더니 내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우선, 그 수상한 남성 두 명이 재거스 씨의 얘기 상대가 되었다. “자, 얘기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요. 난 당신네들에게 해줄 말이

더는 없소.” 재거스 씨가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그들에게 내던지며 말했다. “당신네들에 대해 더는 알고 싶지 않소. 결과는 반반이오. 내가 첫 변론 때 이미 말하지 않았소. 결과는 반반이라고. 그래 웨믹에게 돈을 지불했소?”

“변호사 수임료는 오늘 아침에 다 준비되었습니다, 선생.” 한 남성이 재거스 씨의 안색을 살피는 동안 다른 남성이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돈이 언제 모았는지 어디서 모았는지 어떤 식으로 그 돈들을 모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요. 그래 웨믹이 돈을 받았소, 안 받았소?”

“받았습니다, 선생.” 두 남성이 동시에 말했다.

“잘됐군. 그럼 당신네들은 가 봐도 좋소. 자,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소!” 재거스 씨가 그들에게 뒤로 물러서라며 손을 흔들어댔다. “만약 한 마디만 더 하면, 난 이 소송 때려치울 테니.”

“저희들도 좀 생각해봤습니다, 재거스 씨….” 한 남성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내가 당신네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이오.” 재거스 씨가 말했다. “당신네들 생각이라니! 내가 이미 당신들을 위해 생각 하고 있지 않소. 그걸로 된 것이오. 일이 생기면 당신네들을 어디서 찾 아야하는지 알고 있소. 그러니 당신네들이 나를 찾을 생각일랑 마시오. 자,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소. 나는 더 들을 말도 없으니까.”

재거스 씨가 그들보고 뒤로 물러나라고 재차 손사래를 치자 두 남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겸허히 뒤로 물러나더니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젠 당신네들 차례요!” 재거스 씨가 잡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어깨걸이 숄을 한 두 명의 여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세 명의 남성들은 온순하게도 이 두 여성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재거스 씨가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아멜리아 아닌가?”

“예 나리 저에요.”

“그럼 기억하고 있겠지?” 재거스 씨가 그 즉시 쏘아붙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으면 자넨 지금 여기 있지도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오 나리!” 두 명의 여성이 동시에 소리치며 말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나리. 저희들도 잘 안답니다.”

“그래 왜?”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지?”

“빌(아기이름, 독자가 전혀 알 필요 없는 이름임, 다신 안 나오는 이름임)이 걱정되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나리!” 한 여성이 울면서 대답했다

“자 딱 이번 한 번만 사정을 말해주지!” 재거스 씨가 말했다. “자네 아들이 지금 좋은 사람들의 품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네가 계속 망각한다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찾아와 자네 아들 소식을 물으며 소란을 피운다면, 자네 아들이고 자네고 뭐고 내가 혼쭐을 내줄테니까. 그리고 나도 이 일에서 손 땔 줄 알아! 그래 웨믹(변호사 사무원)에게 돈은 지불했나?”

“예 나리,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사실이겠죠? 넷?”

“잘 됐군. 그럼 자네가 할 일은 다 한 거네. 이제 이 이상 단 한 마디라도 더 한다면 웨믹(사무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당장 돌려주라고 할 줄 알아!”

이 끔찍한 소리에 두 여성은 그 즉시 뒤로 물러났다.

이제 아무도 없었다. 단 아까부터 몹시 흥분해 있던 유태인 남성만 빼고 말이다. 그 유태인남성은 벌써부터 재거스 씨의 코트에다가 여러 번 입맞춤을 한 상태였다.

“모르는 남성인데!” 재거스 씨가 그 한 마디로 상대방에게 통렬한 정신적 가격을 가하며 말했다. “그래 원하는 게 뭐요?”

“오 친애하는 미스터 재거쓰 씨. 아브라함 나사르라는 제 동생을 아십니까?”

“그가 누구요?”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리고 내 외투는 좀 놓으시고 말씀하시오.”

그 청원자(유태인남성)는 옷자락을 놓기 전에 한 번 더 재거스 씨의 외투에 입맞춤을 한 후 놓았다. “아브라함 나사르 모르십니까? 물약 접시를 가지고 있던 애 말입니다.”

“아하, 당신은 너무 늦었소.” 재거스 씨가 말했다. “난 이미 반대쪽 편에 서게 되었소.”

“오 교황 성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 미스터 재거쓰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유태인남성이 격분해선 외쳤다. “당신이 아브라함 나스르 씨와 반대편이란 말입니까? 제발 그런 무서운 말은 말아 주 십시오!”

“사실이 그렇소.” 재거스 씨가 말했다. “자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비키시오!”

“오 재거스 씨! 잠깐만, 잠깐 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친척이 지금 미스터 웨믹을 만나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 애는 미스터 웨믹에게 많은 금액을 제시할 겁니다. 미스터 제거스 씨! 잠깐 만! 잠깐 만요! 당신이 저쪽 편에서 우리 편으로 넘어올 결심한 해주신다면 내가 돈은 얼마든지 내리다. 돈이 문제가 아니란 소리요! 미스터 제거스 씨, 잠깐만, 잠깐만 내 말을 더 들어주시오! 미스터…!”

내 후견인은 청원자에게 극도의 무관심을 보이며 지나쳐버렸다. 청 원자만이 홀로 포장도로 위에 남겨져 마치 포장도로가 뜨거운 피바다인 것처럼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우리는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현관에 ‘사무원’과 모피(부드러운 털) 모자를 쓰고 무명 벨벳(짧고 고운 털이 촘촘히 박힌) 옷을 차려입은 아까 그 ‘남성’이 서 있었다.

“마이크(엑스트라 이름, 독자가 알 필요 없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임)가 와 있습니다.” 사무원이 자신의 걸상에서 내려오며 그리고 재거스 씨에게로 몰래 다가가 털어놨다.

“오!” 재거스 씨가 그 남성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 데려오 기로 한 증인은 오후까지 데려올 수 있겠지?”

그 남성은 긴급용 종(벨) 당김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코크 로빈(영 국전승동화라고 함. 동화이름 참 -\_-아는 바 없음. 다음Daum영어사전 참조)’에 나오는 ‘붉은 가슴 울새’마냥 자신의 이마 가운데 있는 한 타 래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글쎄요, 재거스 선생님.” 마이크가 선천적 감기 환자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많은 공을 들인 끝에 이 일을 해줄 만한 한 사람을 찾아내긴 냈는데요, 선생님.”

“그래 그가 무엇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소?”

“글쎄요, 재거스 선생님.” 마이크가 이번에도 자신의 모피 모자로 코를 훌쩍 닦으며 말했다. “대체로 아무 거나요.”

이 뚱딴지같은 대답에 재거스 씨가 갑자기 격분해서는 공포에 질러있던 의뢰인을 향해 집게손가락을 내던지며 말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아무리 여기서 라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한다면 혼쭐내줄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네. 어떻게 감히 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의뢰인은 겁먹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또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이 얼간이!”라며 사무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팔꿈치로 의뢰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 바보 얼간이! 변호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어?”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다. 이 실수투성이 얼간이야!” 내 후견인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아. 그래 자네가 데려온 그 남성이 무엇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마이크(의뢰인, 이름 알 필요 없음)는 내 후견인에게 시선을 고정시 키고 있었다. 마치 내 후견인의 얼굴표정에서 자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파악하려는 의도 같았다. 그 후 마이크가 천천히 대답 했다.

“제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사건 발생 당일 밤에 저와 헤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줄곧 함께 있었다는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답하게. 그 자의 사회적 지위는 어떻게 되지?”

마이크는 자신의 모자를 쳐다본 후, 다시 사무실바닥을 쳐다본 후, 다시 사무실천장을 한 번 쳐다본 후, 다시 옆에 서 있던 사무원을 쳐다본 후,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까지 동정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인 후 아주 조마조마해하며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보이게 저희들이 차려 입혔냐 하면요….” 이쯤 되자 내 후견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뭐가 어쩌고 어째. 차려 입혀? 누가 누굴 차려 입혔다는 거야?”

“이 얼간아!”라며 사무원이 한 마디 덧붙였다. 사무원이 팔꿈치로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속절없이 꾸지람을 들은 후 이리저리 답변을 찾아보던 마이크(의뢰인)가 가까스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파이 만드는 사람 같은 인상을 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 페이스트리 전문 요리사 있잖아요.”

“그가 여기 왔나?” 내 후견인이 물었다.

“길모퉁이 돌면 있는 어느 집 문 앞 계단에 있어요.” 마이크가 말했다.

“그를 데리고 저 창문을 지나가게. 내가 그의 인상을 볼 수 있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창문이란 사무실에 딸린 창문을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리로 가 블라인드에 몸을 가린 채 우연인 것처럼 의뢰인 이 그 가짜증인을 데리고 지나가길 기다렸다.

곧 그들이 나타났고 내 후견인은 분노폭발 1단계였다. 그 가짜증인의 인상이 꼭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한 인상을 풍기는 키가 큰 사 람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흰색 리넨(광택이 나는 직물) 정장을 빼어 입고 종이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어 이건 뭐 영락없는 살인자의 인상이 었다.

게다가 앞뒤 사정을 모르는 이 제과점 주인이란 작자는 결코 술을 아니 마셨을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이제 막 회복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 녹색 멍 자국이 난 검은 눈의 사나이였다. 또 그걸 가리려고 눈 위에 화장을 한 상태였다.

“저자에게 이제 됐으니 증인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말하고 오게.” 내 후견인이 속이 메스껍고 역겨워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듯 사무 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도대체 저런 작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온 저의 (의도)가 뭔지도 물어보게.”

그런 다음 내 후견인(변호사)은 나를 데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갔다. 그리고 상자에서 꺼낸 샌드위치 하나와 주머니 병에 든 셰리주(백포도 주, 식사 전에 마심) 한 병으로 선 자세로 점심식사를 했다. 그는 점심을 먹는 동안 자신이 나를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해놓고 있었는지를 설 명해주었다. 그는 자신이 먹는 샌드위치에게조차도 못살게 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이 먹었다.

나는 포킷 씨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바너드 여관’으로 가게 예정되어 있었다. 내 편의를 위해 새로 침대 하나도 그리로 보냈다고 했다.

나는 포킷 씨의 아들과 함께 월요일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일요일에 포킷 씨의 아들과 함께 포킷 씨의 집을 방문하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포킷 씨에게서 본격적인 신사교육을 받기 전에 그가 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는 내 용돈이 얼마인지도 들었는데 그건 아주 후한 액수의 금액이었다. 내 후견인이 자신의 서랍들 중 하나에서 특정 상인들의 명함들을 꺼내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이제부터 합당한 이유에서 필요하게 될 모든 종류의 옷들이며 그 외 여타 물건들을 구입할 때 자네가 거래하기로 예약되어 있는 상인들의 명함들이네. 자네의 신용도가 좋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 이네, 핍 군.”

그가 마시던, 주머니 병에 든 셰리주에서는 마치 한 통의 술통에서 나는 것 같은 강도의 술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를 금방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자네의 청구서(계산서)들은 이들 상점들을 통해 내가 관리하게 될

것이네. 만약 정해진 범위를 초과해 지출한다면 나는 이들 상점들을 통해 자네의 거래를 정지시킬 수도 있네. 물론 어떻게든 자네는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될 테지만 말이야, 뭐 그런다고 내 탓은 아니니까.”

이 약간 비꼬는 애정에 감격해 잠깐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나는 “마차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았다.

“여관이 바로 코 닿을 거리에 있는데 마차는 무슨, 필요 없을 거네.”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만 괜찮다면 웨믹(서기, 이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 중에 한 명입니다.)이 자네와 함께 여 관까지 가줄 것이네.”

옆방에 있던 그 서기(법률사무원)의 이름이 웨믹인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웨믹이 외출할 동안 대신 자리를 맡아줄 직원을 벨을 눌러 불렀다. 위층에서 다른 직원 한 명이 내려왔다.

나는 내 후견인(런던 변호사)과 악수를 나눈 후 웨믹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건물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꾸물거리고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웨믹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나가며 다음과 같이 차갑게 말할 뿐이었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고 아무 소용없다고요. 변호사님은 당신들 중 어느 누구와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곧 그들을 뚫고 거리로 나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위대한 유산**

**21장**

함께 걸으며 나는 웨믹 씨(서기=사무원)에게 눈을 돌려 그가 햇볕 아래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살펴보았다. 나는 곧 그가 좀 딱딱한 사람이고 키가 다소 작은 편이고, 사각형 턱에, 가장자리를 무딘 정(돌 깎는 도구)으로 뭉갠 것 같은 얼굴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피부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 터치를 세밀하게 했더라면 보조개 들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처들이 그의 얼굴에 몇 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그냥 움푹 들어간 얼굴 상처들일뿐이었다.

조각가가 정으로 그의 코에 장식을 서너 차례 내려다 매끈하게 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 같은 코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와이셔츠 상태가 해어진 것을 보고 그가 독신일거라 판단했다. 그리고 애절한 사연이 있는 여러 번의 사별(친한 사람을 여읨)을 경험해 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적어도 4개가 넘는 애도단추들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위에 항아리가 놓인 무덤 앞에 ‘수양버들과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 장식 핀도 있었다.

나는 또한 그의 회중시계 쇠줄에 수 개의 반지들과 도장들이 매달려 있는 것에 주목했는데 그건 마치 고인이 된 친구들에 대한 생각들로 그의 머릿속이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작고 날카로우면서도 검은 두 눈동자는 반짝거렸고, 넓지만 얇은 그의 두 입술은 여러 가지 어두운 빛깔의 얼룩이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보건대, 내가 믿는 한에는, 그의 나이가 적어도 4~50세는 되어 보였다. (참고로 주인공의 나이는 18세임)

“그래서요, 런던에 와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웨믹씨(45세)가 내게 물었다.

“네, 전혀요.” 내(18세)가 대답했다.

“저도 한 때는 여기가 처음이었죠.” 웨믹 씨가 말했다. “지금 생각하니 이상야릇하군요!”

“지금은 이곳 사정에 정통 하시다는 말씀이군요.”

“웬걸요.” 웨믹 씨가 말했다. “그저 돌아가는 정도만 알죠.”

“이곳이 그렇게 사악한 곳입니까? 런던은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들 하던데요?” 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말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사기꾼도 많고, 부정부패도 많고, 살인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런던이죠.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사람들은 다른 도시 들에도 많죠.”

“당신과 그들 사이에 증오가 있을 때만 그렇겠지요.” 내가 그의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며 말했다.

“오~! 저는 증오에 대해 모릅니다.” 웨믹 씨가 되받아쳤다. “런던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엔 증오 따윈 중요치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범죄로 얻을 게 있으면 그냥 저지르고 보니까요.”

“그런 종류의 범죄가 더 나쁜 경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웨믹 씨가 대답했다. “‘우발적 범죄나 고의적 범죄나 둘 다 나쁘다’라고 말씀하셔야죠.” (-\_-;;; 해석 정말.. 내가 하면서도 정말 대책 없음. -\_- 예전엔 이런 엉뚱한 해석이면 블로그에 올릴 염두도 못 냈는데 이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부끄러움이 사라 지고 있는 중 혹은 그런 느낌이랄까~ 웨믹 씨가 한 원래 문장은 〈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죠.” 〉 였음. 두둥~)

웨믹 씨는 모자를 고개 뒤로 살짝 젖히며 곧장 앞만 보고 아주 침착한 태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 모습이 이 거리에서는 자신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같았다.

우체통 편지 넣는 입구 같이 생긴, 그의 입은 기계적으로 웃고 있는 형상(생김새)이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홀본 힐’(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그러한 웃음기가 단지 기계적인 웃는 모습일 뿐 실제 그 자신은 전혀 웃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튜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선생님)의 집을 아시나요?” 내가 웨믹 씨에게 물었다.

“그럼요.” 그가 특정 방향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런던서 부 해머스미스(대장장이란 뜻임) 자치구에 사시죠.”

“먼가요?”

“글쎄요! 마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려나.” “메튜 포킷 씨를 아시나요?”

“이런, 이제 보니 당신은 철저한 반대 심문자(‘꼬치꼬치 캐묻는 사 람’ 혹은 ‘고문을 지독하게 해 고문 받는 사람의 고통을 최대화 시키는 사람’) 체질이시군요!” 웨믹 씨는 내가 마음에 든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예, (약간 경멸조로) 잘 알지요. 그를 잘 알고말고요!”

웨믹 씨(서기)의 이러한 발언에는 약간 ‘메튜 포킷 씨(신사교육 선생님)’를 경시한다는 또는 뭔가를 용인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 것이 나를 다소 의기소침하게 했다.

나는 웨믹 씨가 메튜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선생님)에 대해 좋게 말해줄 어떤 말을 더 바라며 그의 사각형 얼굴을 계속해서 옆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너드 여관입니다.”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 우울함은 전혀 개운해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바너드 여관이 바너드 씨가 운영하는 런던 호텔일 거라 추 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시골여관쯤은 그냥 여인숙 같이 느껴질 줄 알았었다.

하지만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바너드 여관이란 기껏해야 육체가 분리된 영혼 같은 여관, 혹은 소설 같은 허구, 혹은 초라한 건물들이 좁은 곳에 밀어 넣어진 채 우중충하게 모여 있는 여관이었다. 암고양이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수고양이들을 위한 클럽과 같은 낮은 여관 등급을 받았을 것 같은 저급한 여관이었다.

우리는 쪽문을 통해 이 은둔지로(여관으로) 들어갔다. 입구통로를 가 까스로 빠져나오자(건물이 우리를 토해내자) 고대(옛날)의 매장지(무덤) 같이 구슬퍼 보이는 작은 광장 비슷한 것이 나왔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가장 음침한 나무들 이었으며, 그곳에 있던 참새들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가장 우울해 보이는 참새들이었으며, 그곳에 있던 고양이들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 왔던 가장 울적해 보이는 고양이들이었으며, 그곳에 있던 집들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가장 음산해 보이는 집들이었다.

그곳에는 집들이 여섯 채 정도 있었다.

이 집들 안에는 다시 각 단계로 나누어진 방들이 세트로 되어 있었고, 각 방들에는 창문들이 딸려 있었다.

이 창문들의 형상은 “파손된 블라인드와 헐어버린 커튼, 모양이 비틀어진 화분, 곳곳에 금이 간 유리창, 먼지를 흠뻑 뒤집어써 생긴 부패, 비참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의 집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기타 임 시변통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빈 방들에 붙어 있던 “셋방 있음”, “셋방 있음”, “셋방 있음”이란 문구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곳으로 새로 이사 온 불쌍한 사람이 내가 처음이거나, 그도 아니면 죽은 바너드 씨의 영혼이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임차인(방 빌린 사 람)들을 한 명씩 자○에 이르게 하고 자갈 아래에 불경스럽게 묻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원혼을 조금씩 달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바너드의 이 외로운 창조물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검댕이의 애도와 연기들로 흠뻑 뒤집어쓰고 있었고, 외벽 상층부에는 재까지 흩뿌려 놓은 것만 같이 보였다.

이제 영락없는 쓰레기 버리는 구덩이 신세가 된 이 여관은 그렇게 참회와 굴욕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여태까지는 내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말한 것이다. 그러니 건조한 부패와 물에 젖어 썩은 부식과 모든 종류의 말 없는 부패들이 방치된 천장과 지하실 내부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을 것이며, 죽은 쥐(생쥐보다 큰 쥐)와 생쥐와 곤충들의 부패에다가 마차들이 머무는 여관의 특성상 마구간에서 나는 부패한 냄새들까지 모두 더해져 저것들이 내 코에다가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너드 여관의 섞는 냄새를 한 번 맡아봐라.”

내 위대한 유산에 대한 첫 번째 현실화가 이토록 결함이 많은 것에 너무나도 낙담한 나머지 내가 웨믹 씨를 쳐다보았다.

“아하~!” 그가 내 표정을 잘못 읽고 말했다. “한가한 곳이라 시골 생각이 나시나보네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모퉁이를 돌아 한 줄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그 한 줄짜리 계단이 천천히 무너져 톱밥으로 변하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일이 잘 안 풀리는 어느 날 위층에 사는 세 입자(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았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여관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 어느 방문 앞에 이르렀다.

“미스터 포킷 2세.”라는 문패가 문 앞에 그려져 있었다. 포킷 2세는 개인우편함에 메모지를 꽂아놓고 나가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 그 메모 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돌아오겠음.”

“당신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웨믹 씨가 설명 해주었다. “어떻게 제가 같이 있어 드릴까요?”

“아, 아뇨.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됩니다.” 내가 말했다.

“전 사무실에서 회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웨믹 씨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린 꽤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날씨 좋죠.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안녕히 가세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웨믹 씨는 무척 당황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내 손을 빤히 내려다보다가 내 얼굴을 쳐다본 후에야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고 웃으며 말했다.

“아하~! 당신은 악수하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그 소리에 나는 좀 당황했다. 악수가 런던 최신 유행인 줄 알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식인 모양이다. 하지만 나도 곧 상황을 파악하고 “네.”라고 대답했다.

“전 악수하는 습관을 버린 지 오래됐죠.”라고 웨믹 씨가 말했다. “적어도 최후의 악수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어쩌죠. 제가 지금 무척 기쁜데 말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우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군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악수를 나누고 그가 가버렸을 때, 나는 계단 창을 열려다 하마터면 목이 베일 뻔했다. 창문에 딸린 줄이 섞어 있어 도중에 끊겨 단두대처럼 아래로 “확” 내려왔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줄이 너무 빨리 끊어지는 바람에 내가 미처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경우를 당한 후, 나는 창문 표면을 희뿌옇게 덮고 있던 먼지들 사이로 보이는 안개 자욱한 여관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고 서 있어야했는데, ‘내가 그동안 런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곧 돌아오겠음”이란 문구에 나오는 “곧”이라는 단어에 대한 포킷 주니어(2세)의 개념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나는 근 30분가량을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자니 거의 미칠 노릇이었다.

더러운 창문의 모든 창유리에다가 내 이름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계단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그의 모자가 올라오고 고개가 올라오고 목도리가 올라오고 양

복 조끼며 바지며 부츠가 올라왔다. 얼추 나와 비슷한 사회적 신분을 지닌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겨드랑이에 종이 봉지를 하나씩 끼고서, 한 손에는 딸기바구니 까지 들고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앞에 서 있었다.

“핍 씨세요?” 그가 말했다.

“그럼, 포킷 씨?” 내가 말했다.

“아 이런!” 그가 엄청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골 발―런던도착 마차가 정오에 있다고 아는 바람에 그 편으로 올라 오실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외출에는 당신 탓도 있습니다. 물론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당신이 시골에서 올라오시니까 식후에 약간의 과일을 드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딸기를 사러 ‘코벤트 가든 마켓(야채시장)’에 다녀왔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나는 내 두 눈이 마치 안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 그 바람에 그의 친절에 대해 횡설수설 “고맙습니 다.”란 인사를 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가 왠지 낯익어 보여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고 있었다.

“이런 맙소사!” 포킷 2세가 소리쳤다. “문이 달라붙었네요! 원래 좀 잘 안 열렸지만요. 이번엔 좀 심한데요.”

그는 두 겨드랑이에 종이봉지를 낀 채 잘 열리지 않는 문과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딸기가 지금 당장 딸기잼이 될 판이었다. 그래서 “문 열 동안 내가 들면 안 되겠니?”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그도 내 말투가 웃겼는지 동의의 미소를 지어보이며 종이봉지와 딸기바 구니를 건네주었다.

모르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보았다면 분명 그가 문과 레슬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 바람에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나와 부딪혔고 나도 그 바람에 비틀거리며 물러서다 반대쪽 문에 부딪혔다. 상황이 웃겨 우리들은 실컷 웃었다.

하지만 웃는 건 웃는 거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내 눈은 정말이지 얼굴에서 튀어나올 정도였고 나는 그것이 마치 꿈임에 틀림없다고 되뇌고 있었다.

(포킷 2세의 긴 대화 시작.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대화 끝”이라는 설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문단 무시~)

“들어오세요.” 포킷 2세가 말했다. “제가 안내해 드려도 괜찮겠죠. 집이 좀 횅댕그렁한 게 흠이지만 그래도 월요일까진 견디실 겁니다. 물론 제 바램이지만요.^^ 이건 저희 아버지 생각이셨답니다. 내일 하루는 당신이 아버지보다는 저와 보내는 것이 더 기분 좋을 거라 하시 더군요. 그리고 이참에 런던 산책도 시켜주길 바라더군요.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분에게 런던을 소개시켜드리는 일을 맡게 돼서요.

식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인근 커피 하 우스에서 배달해주시기로 약속 되었거든요. 아! 이 말씀을 안 드릴 뻔 했군요. 식사비용은 모두 당신의 용돈에서 충당될(지출될) 겁니다. 재 거스 씨(변호사, 주인공의 후견인)의 남다른 지시가 있었거든요.

숙박에 대해서라면, 좀 실망하셨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화려하지도 멋진 구석도 없는 여관이니까요. 어쩔 수 없답니다. 부모님은 저를 도와주실 처지가 아니시거든요. 주신다고 해도 제가 받지도 않았을 테 지만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활하려다보니 방도 여기로 얻게 되었죠.

이쪽은 거실입니다. 의자 비슷한 것과 식탁 비슷한 것 그리고 양탄자 등등이 보이는군요. 이들 모두를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남는 걸 가져온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 이 식탁보(천)며 스푼이며 양념 병들까지 집에서 모두 공수해온 거라곤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들은 커피 하우 스에서 당신을 위해 공수한 거니까요.

아 그렇죠. 이쪽이 제 침실입니다. 케케묵은 곰팡내가 좀 나지만 여관 전체에 베인 냄새라 닦는다고 닦을 성질의 냄새가 아니죠.

당신 침실은 이쪽입니다. 가구들은 임시로 임대해온 것들입니다. 사 용하기에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기타 더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나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긴 여관에서도 외딴 곳입니다. 저희들만 지낼 거고, 또 굳이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이 싸울 일은 없으니까 월요일까지 지내시기엔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 이런, 이럴 어쩌나, 방 안내를 한답시고 과일 바구니를 지금까지 당신에게 들고 있게 했군요. 짐들은 제게 주십시오. 이거 정말 부끄럽 군요.”

(포킷 2세의 긴 대화 끝)

그가 봉지를 하나, 둘 받아가는 동안 나는 그와 마주하며 서 있었다. 나는 보았다.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의 두 눈 속에 나타난 것을. 물론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그가 뒷걸음치며 말했다.

“아니! 넌! 그때 그 어슬렁거리던 소년이잖니!”

“그리고 넌.” 내가 말했다. “그때 그 창백한 어린 신사!” (잠깐 앞뒤 설명 : ‘창백한 어린 신사’는 예전에 ‘주인공의 한 방에 나가떨어졌던 그때 그 도련님.’ “11장 #24 ~ #29”에서 관련 내용 참조가능)

**위대한 유산**

**22장**

창백한 어린 신사와 나는 서로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곧 우리는 바너드 여관이 떠나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그게 너였다니!” 그가 말했다.

“그게 너였다니!” 내가 말했다.

그런 후 우린 다시 한 번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 후 다시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은데!” 창백한 어린 신사가 기분 좋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때 그 결투는 이제 다 끝난 일이겠지? 그때 내가 널 케이오시킨 걸 용서해준다면 내겐 큰 아량을 베풀어주는 일이 될 거야. 미안했다, 친 구.”

이 말을 듣고 나는 ‘허버트 포킷’(주인공들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아니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 중 한 명임)이 여전히 그때 그 일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난 애써 모른 척 겸손하게 대답했고, 우린 또 한 번 굳게 악수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허버트 포킷’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때만 해도(내가 널 때렸을 때만해도) 아직 유산을 물려받기 전이지?” 허버트 포킷이 말했다.

“응.” 내가 말했다.

“사실.” 그도 슬며시 인정하며 말했다. “나도 최근에야 들었어. 내가 가질 줄 알았거든 그 행운 말이야.”

“정말?”

“그래. 미스 해비샴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데. 그녀(에스텔라)가 날 좋아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였지. 여하튼 결과야 그렇게 되었지만 말이야. 그녀는 누굴 좋아할 수도 좌우지간 좋아하지도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난 “놀라운 얘기구나.”라며 맞장구를 쳐주었는데 잘한 행동 같았다.

“미스 해비샴의 나쁜 취향이었지.” 허버트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이 그렇고. 알겠니? 그런 이유로 해서 시험 삼아 날 불렀던 거야. 만약 그때 내가 성공적으로 이겨냈더라면 행운은 내가 물려받았을 걸. 그리고 아마 그렇고 그런 관계가 에스텔라와도 되어 있었을 거고.”

“그렇고 그런 관계라니?” 내가 갑자기 진지한 태도로 물었다.

허버트는 과일을 접시 위에 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나와 대화를 하다 보니 주의력이 분산돼 말실수를 한 것 같았다.

“약혼 말이야.” 허버트가 여전히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약혼자라든지, 약혼했다 라든지, 뭐였더라? 이름이. 뭐 그런 종류의 단어들 말이야.”

“그럼 넌 차였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데?” 내가 물었다.

“체!” 그가 말했다. “그때 난 별로 상처 입지도 않았었어. 그녀는 다루기 힘든 여자였으니까.”

“미스 해비샴이?” (미스 해비샴이 허버트와 주인공을 번갈아 가며 부를 때 나이가 37세였음)

“뭔 소리니! 내가 말한 건 에스텔라였어. 그녀는 정말 매정하고 오만하고 도도하고 변덕이 예측불가능 한 아이였어. 모든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미스 해비샴이 특별히 양육한 아이었으니까.”

“그럼 그녀가 미스 해비샴의 친척이니?” “전혀.” 그가 말했다. “입양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미스 해비샴이 세상남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건데? 어 떤 복수를 하겠다는 거지?”

“오, 이런! 핍 군!” 그가 말했다. “몰랐니?” “뭘?” 내가 말했다.

“아, 이런! 그건 꽤 긴 이야기가 될 거야. 우리의 저녁 식사시간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다고. 자 일단 그 문제는 놓아두고, 자 이제 내게도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핍 군. 넌 그 날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니? 그 날 말이야.”

나는 그에게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방문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 후 그가 큰 소리로 웃음을 다시 터드리더니 “그럼 나한테서 맞았던 자국들은 어떻게 얼버무린 거니(슬쩍 넘긴 거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건 내가 할 소린데.”라고 말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따지고 들면 들수록 내가 그를 때린 내 죄의식이 다시 살아날까 싫었고 내가 그를 때린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재거스 씨가 네 후견인이라며, 맞니?” 그가 해맑게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

“재거스 씨가 미스 해비샴의 재산관리인이자 개인변호사라는 사실도 알았니? 그녀는 세상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오직 재거스 씨한테만은 신뢰를 보낸단다. 알았니?”

어떻게 된 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들뿐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솔직하게 다 말해주었다.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우리(12살 때)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 뒤뜰에서 결투를 벌인 바로 그날, 난 재거스 씨를 처음 만났어. 하지만 그 날 이후론 단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었단다. 아마 그 날 나를 봤다는 사실 조차 재거스 씨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허버트 포킷이 말했다.

“친절하게도 재거스 시는 내 아버지에게 너의 가정교사가 되어 달라고 제안하신 분이야. 그걸 제안하려고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지. 당연히 내 아버지와 미스 해비샴 사이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거야. 내 아버지는 미스 해비샴(갑부)의 사촌이란다. 그렇다고 두 분 사이에 뭔가 친밀한 교류가 있다는 얘기는 아냐. 아버진 아첨꾼이 아니니까, 그녀의 비위를 맞출 생각일랑 처음부터 없으셨고.”

허버트 포킷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그는 솔직하고 편안했다.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도 나는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출 것이 있다거나 치사한 짓을 한다거나 하는 나쁜 능력과는 선천적으로 부적격할 것 같은 인상을 이토록 강하게 내게 각인시킨 인물은 그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

나는 그의 태도에서 이상하리만큼 희망적인 어떤 것을 발견했고, 그와 동시에 그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속삭임과 그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날 저녁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이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는지는 정의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한 앳돼 보이는 신사였다. 활기차고 활발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주변에는 어떤 정복당한 쇠약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뭐랄까 잘생겼다는 말보다 더 좋은 “몹시 호감을 준다거나 유쾌한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내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움직임에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밝고 어려보일 것 같은 모습이기도 했다.

트랩 씨(주인공의 시골인근읍내의 양복장이)가 만든 시골 양복이 나에게 더 잘 어울릴지 아니면 그가 입었을 때 더 우아하게 보일지는 좀 고민해볼 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녀석은 내가 내 새 양복을 소화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다소 오래된 의복을 더 잘 소화하고 있었다.

녀석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내 쪽에서 말을 아끼면 동년배 친구끼리 어울리지 않는 나쁜 태도가 될 것 같았다.

그 결과 나도 내 소소한 얘기들을 해주며 “나는 누가 내 은인인지 묻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란 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우리 시골에서 대장장이로 자랐기 때문에 예의범절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해. 만약 내가 당황해 하거나 잘못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게 힌트를 준다면 나는 그것을 큰 친절로 여길 테야.”

“좋고말고.” 허버트 포킷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예견하건대 너에게 그런 힌트를 줄 필요는 거의 없을 거야. 우린 앞으로 자주 함께 지낼 테니까. 그리고 난 우리 사이에 불필요한 어떤 구속 같은 것도 다 치 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부탁하나 해도 될까? 지금부터 나를 부 를 땐 그냥 ‘허버트’라고 불러줄래? 그게 내 세례명이거든.”

나는 “그래~”라고 말해준 후 앞으론 꼭 “허버트”라고 부르겠노라고 말했다. 나는 또한 “내 세례명은 핍립이야.”라고도 말해주었다. (참고로 주인공의 성 씨는 ‘피립’, 이름은 ‘필립’입니다. ‘1장’ 첫부분을 참고바래요~)

“필립이라는 네 이름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꼭 철자교본(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소년 같은 인상을 품기거든. 너무 게을러서 연못에 빠진 소년, 너무 비만해서 눈을 덜 수 없었던 소년, 너무 욕심이 많아서 케이크를 꼭꼭 숨겨놓다가 결국 쥐들이 몽땅 그 케이크를 먹어치워 버린 이야기에 나오는 소년, 오기로 새 둥지를 뒤지려 나무에 기어오다 옆에서 자고 있던 곰들을 깨우는 바람에 잡아먹 히고 만 소년 말이야. 내가 괜찮은 애칭(별명)하나 지어 줄께. 들어봐, 우리는 아주 사이가 좋아 그리고 넌 지금까지 대장장이로 일해 왔지, 그러니까 괜찮겠지?”

“네가 제안하는 어떤 애칭이든 기꺼이 받아들일게.”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명으로, 헨델, 헨델 어떠니? ‘게오르크 헨델’(이 소설이 쓰이기 100년 전 영국작곡가)이 작곡한 곡들 중에 〈 즐거운 대장장이 〉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느낌의 곡임)라는 곡이 있거든.”

(참고 : 헨델 〈 즐거운 대장장이 〉 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주소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za-xqk770k](http://www.youtube.com/watch?v=Mza-xqk770k) , 2분짜리 피아노 연주 동영상, 검색일자 : 2014-06-15)

“오호~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럼, 내 친애하는 헨델.” 그가 문을 열어주면서 뒤돌아보며 말했다. “저의 저녁식사 자리에 납시어주시겠사옵니까? 황송 하옵건대 식탁의 상석에 앉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나이다. 식대를 내실 분이 당신이 시기 때문이지요.ㅋㅋ”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그가 식탁의 상단에 앉고 내가 그를 바라보며 앉았다.

꽤 괜찮은 식사였다. 내겐 런던 시장 선임 공식연회보다 나았다. 우리를 빙 돌아서 어떠한 연장자도 없이 이런 독립된 환경 속에서 우리 들끼리만 먹는다는 사실이 식사시간을 더 재미나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떤 집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우리의 연회를 더 돋보이게 했다.

펌블추크 씨(능청스런 잡곡상, 소설 속 개성강한 등장인물)가 만약 우리와 함께 했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만 같았다.

“커피하우스에서 공수해온 완전히 가구가 갖추어진 식탁의 편안함과 사치스러움, 그 반면에 식탁 주변 거실 풍경은 비교적 목초가 없고 구린 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의 공간이로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거실과 방들 때문에 우린 헤매는 습관이 생겼다. 침대이불들을 바닥 위에 놓아두어야만 했는데 그 바람에 난 거실에서 이불들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버터 소스의 일종들은 안락의자 위에 놓아두어야 했으며, 빵은 책꽂이에 놓아두어야했다. 치즈는 ‘난로 옆’ ‘석탄 통 안’에 두어야했으며, 삶은 닭은 옆방에 있는 내 침 대에 놓아두어야 했다. 지저분한 거실과 방들 때문에 쌩쇼를 한 것이다.

밤이 되어 침대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침대 속에서 굳어 있는 파슬리 잎들과 많은 양의 버터를 발견했을 정도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회를 더 기쁘게 했다. 나를 지켜보는 웨이터가 자기 방으로 가자 내 순수한 기쁨은 극대치에 달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식사를 했을 때, 나는 허버트에게 “미스 해비샴 얘기 들려주기로 한 거 잊으면 안 돼.”라고 힌트를 주었다.

“아 깜빡할 뻔했네.”라고 그가 말했다. “대신 이 얘길 하나 해주께(막 나가는 해석-\_-).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헨델(주인공 애칭), 런던에서는 나이프를 입안에 넣지 않아도 된단다. 다칠 수도 있고, 또 그런 용도를 위해 포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포크도 필요 이상으로 입 안으로 많이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대 도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해. 하나만 더, 손을 위에서 아래로 해서 스푼을 쥐는 것 안 좋단다. 스푼은 아래에서 위로 알겠지?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어. 좀 더 부드럽게 입에 담을 수 있고 그게 스푼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굴(바다에서 나는 굴)을 깔 때 네 오른쪽 팔꿈치를 보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단다.”

이런 친절한 에티켓들을 허버트가 그런 활기찬 태도로 제안해주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우린 또 한 바탕 웃을 수 있었다.

“자.” 그가 계속 말했다. “이제부턴 미스 해비샴에 관한 얘기야. 너도 봐서 알겠지, 미스 해비샴은 버릇없는 아이였데. 어머니는 그녀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해달라는 건 뭐든지 해줬지. 아버지는 시골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광대한 저택에 거주하는 지방대지주 신사였데, 물론 맥주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지. 맥 주공장 사장이 되는 게 왜 신사에게 굉장히 좋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 말이야. 점잔을 빼는 신사가 빵을 구울 순 없어도, 영국 최고의 신사가 맥주공장 사장하는 일은 괜찮은 가봐.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주변에 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는 술집 사장이 되어선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 내가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술집만은 안 되지, 당연히.” 허버트가 대꾸했다. “하지만 술집 사장은 되어선 안 되지만, 신사가 술집 단골손님이 되는 건 뭐 봐줄만해. 자!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였고 긍지도 대단하신 신사분이셨단다. 그건 그의 딸도 마찬가지였지.”

“미스 해비샴이 외동딸이니?” 내가 용기를 내 물었다.

“순간정지~!!!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거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 동딸은 아냐. ‘어머니가 다른 오빠’가 한 명 있었다고 하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남몰래 재혼을 한 경우지, 재혼 상대자가 아마 그의 요리사 였다지.”

(잠깐 앞뒤 설명 : 이후 허버트가 설명하는 미스 해비샴의 가족관계

와 일련의 사건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는 경우 반드시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냥 쭉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장편 소설들은 원래 인물 관계를 3~4번 반복해서 작가가 설명해주기 때문 입니다. 잘난 척~^^ 위대한 유산도 그 중 하나임)

“긍지가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다.

(허버트의 긴 대사 시작)

“오 이런, 그는 긍지가 대단하신 분이셨어. 그러니까 남몰래 재혼한 거지. 그게 그의 자긍심이 대단했다는 증거야. 시간이 지나 그녀(요리 사)도 죽었지. 그녀가 죽자 그는 자신의 딸(미스 해비샴)에게 자신이 재혼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단다. 그리곤 아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말한 후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살게 했단다.

아들이 자라 청년이 되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 터무니없이 비싼 물건들을 마구 사대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녀석이 었던 거야. 기타 등등 한 마디로 최악이었던 거지. 결국 미스 해비샴의 아버지는 아들의 유산 상속권을 빼앗아버렸데, 하지만 그도 임종이 가 까워왔을 땐, 다시 온화해져 아들에게도 한 미천 단단히 챙겨주었지.

하지만 아들이 받은 유산은 미스 해비샴이 받은 유산에 비해 택도 없었지(적었지). 포도주 한 잔 더 할래? 미안한데 말이야, 사교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대방이 포도주잔 바닥을 위로 들어 올려 유리잔 가장자리가 코에 닿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엄격하고 양심적으로 마실 것을 기대하진 않는단다.”

(허버트의 긴 대사 끝)

그의 얘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듣다 보니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행 동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적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 후 사과했다.

그러자 허버트가 말했다. “천만에, 친구.” 그리곤 얘기를 계속했다.

(허버트의 긴 대사 시작)

“미스 해비샴은 이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되었어, 너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미스 해비샴은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신부 감이 되 었단다. 동시에 그녀의 배다른 오빠도 한 미천 단단히 상속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는 곧 온갖 종류의 빚들과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또 다시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 지가 되었지.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보다, 그와 배다른 누나와의 관계에 더 큰 불화가 있었어.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노여움이 모두 미스 해비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그는 미스 해비샴에 대해 깊고 치명적인 원한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 같애.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잔인한 치정(남녀 간의 사랑) 부분으로 넘어 가기 전에, 잠깐만 말을 끊을게. 내 친애하는 헨델(주인공 애칭), 식사용 냅킨을 ‘텀블러’(물 컵 큰 거, 스○벅스 커피 잔 같은 거) 안에 넣는 게 아니란다.”

(허버트의 긴 대사 끝)

그때 난 정말로 냅킨을 내 텀블러(큰 물 컵) 입구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의문이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앗, 나도 방금 알았어. 이 좁은 텀블러 입구 안으로 냅킨을 밀어 넣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니. 왜 이랬지?”

방금 내 행동이 훨씬 더 괜찮은 일에나 필요한 불굴의 의지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다시 한 번 허버트에게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한 후 사과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 쾌활한 어조로 “천만에, 내가 더 미안하지!”라며 웃어넘겨주었고, 미스 해비샴에 관한 얘기를 계속했다.

(허버트의 긴 대사 시작)(상당히 긴 대사입니다~)

“그때 미스 해비샴에게 구애하는 어떤 남성이 나타난 거야. 경마장에서 혹은 공개 댄스파티 장에서, 혹은 그와 비슷한 장소라면 어디에든 그 남자는 나타났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은 없어. 이건 헨델(주인공의 애칭), 너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꼭 25년 전 일 이지. 내 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자는 남에게 과시하길 좋아하는 야시 꾸리 한 남자였데. 꼭 그런 목적에 걸맞게 생긴 그렇고 그렇게 생긴 남자들 있잖니. 딱 그랬나 봐.

생김새가 그러니 바보거나 콩깍지가 씌지 않고서야 그 자를 멀쩡한 신사로 오해하는 일은 추호도 없었을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 된 신사’가 아닌 남자가 태도에서도 진실 된 신사였던 적은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도덕적 신조니까.

내 아버지 말씀으로는, ‘니스 칠(목재광내기)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뭇결을 감출 수는 없다’는 거야. 또한 내 아버지 말로는, ‘니스 칠을 하면 할수록, 나무의 결은 더욱더 돋보인다.’는 거지.

그건 그렇고. 이 남성은 주구장창 미스 해비샴을 가까이에서 쫓아다 녔고, 온갖 선물공세와 사탕발림들을 내뱉으며 ‘당신에게 헌신하겠다.’ 고 고백했데. 그때까지 미스 해비샴은 사랑에 민감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데. 하필 바로 그 몹쓸 남자를 만나고부터 그녀 안에 내 재되어 있던 사랑의 감정들이 폭발한 거지. 결국 미스 해비샴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일이 진행되어 그 남자에게 완전히 심취하게 되었어. 당시 그들을 지켜보았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랬데.

그때부터 그 남성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애정을 이용하기 시작했데. 일은 뻔하지 않니. 그 남자는 미스 해비샴에게서 돈을 야금야금 빌려가기 시작했어. 결국 그의 말에 넘어간 미스 해비샴은 ‘배 다른 오빠가 가지고 있던 맥주공장의 지분(비상장주식)’을 모두 매입하게 돼. 그것도 어마어마한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이야. 해당 지분은 그 녀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얼마 안 되는 지분이었어.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내세운 핑계가 그가 장차 그녀의 남편이 되면 맥주공장 전체 지분을 보유해야만 맥주공장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야.

네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스 해비샴을 돕고 있지 않았단다, 그녀는 그 당시 너무 거만하고 너무나도 사랑에 심취해 있어서 어느 누구의 충고 따위는 필요치 않았으니까. 또한 충고를 해 줄 수 있었을 그녀의 친척들은 가난하고 하나 같이 뒤로 나쁜 일을 꾸미고 있었지. 내 아버지만 제외하고 말이야. 내 아버지도 마찬 가지로 가난했지만 기회주의적이거나 그녀의 부에 대해서 시기를 하지 는 않았으니까.

친척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올곧던 아버진 미스 해비샴에게 “당신은 지금 그에게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어. 당신은 지금 그 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용하고 있어. 모든 것이 너무나 지나치단 말이오.”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지.

이에 격분한 미스 해비샴은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아버지에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이후로 내 아버지는 그녀를 두 번 다시 찾지 않았지.”

(허버트의 긴 대사 끝)

나는 미스 해비샴이 내게 “내가 죽어 저 결혼식 축하연 테이블 위에 누워 있을 때 매튜(허버트의 아버지이름)도 와서 볼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허버트에게 “혹시 아버지께서 그녀에 대한 분노가 그렇 게도 뿌리 깊으시니?”라고 물어보았다.

“아니.” 허버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남편으로 정한 그 남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 아버지에게 ‘당신이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저 이가 있으면 당신이 내게 꼬리치며 아부할 틈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말이 틀렸어요?’라며 맹비난했어. 그러니 만약 아버지가 그녀를 지금 찾아간다면, 그건 아버지에게나 심지어 그녀 자신에게나 그 비난이 사실이 되는 거야. 다시 그 자 얘기로 돌아가서 그 자에 대한 얘기를 끝내자면, 결혼식 날짜는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결정되었단다. 그녀를 위한 웨딩드레스 들도 공수되어 왔고,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도 갖추어졌지. 결혼식 하객 들도 모두 초대되었고, 결국 모든 준비가 끝난 결혼식 당일, 하지만 아 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는 그녀에게 편지 한 장을 남기곤….”

“그녀가 그 편지를 받은 시간이 그녀가 결혼식장에 입장하기 위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아니니? 시간이 정확히 9시 20분이었을 걸?”

“그래 정확히 9시 20분이야.” 허버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후 저택 안의 모든 시계들의 시침을 9시 20분에서 멈춰버 렸단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내용이 그녀의 결혼을 비정하게 파탄 냈다는 것만은 확실해. 나도 이 이상은 몰라 그래서 더 말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구나. 그녀는 이후 사경을 헤매며 앓았고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는, 너도 보았다시피, 저택을 황무 지로 방치해두었단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

“그게 다니?” 심사숙고한 후 내가 말했다.

“응 내가 알고 있는 전부야. 사실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짜맞추어보 고서야 많이 알게 된 거야. 왜냐하면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셨던 내 아버지는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극히 꺼리시거든. 심지어 내가 미스 해비샴의 초대로 그녀의 저택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내 아 버지는 내가 반드시 알아야할 몇몇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더 하지지 않았으니까. 참, 깜빡하고 얘기 안한게 하나 있긴 해. 미스 해비샴의 사랑을 파탄 낸 그 남성이 실은 처 음부터 끝까지 ”미스 해비샴의,“ 어머니가 다른 ”남동생과 협력했다 “는 사실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적어도 어떤 공모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과 일이 성공한 후 이득금을 나눠가졌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왜 그녀와 결혼해서 재산을 몽땅 다 차지하지 않았지?” 내가 말했다.

“그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녀에게 잔인한 굴욕감을 맛보게 하려는 ‘그녀와 어머니가 다른 남동생’의 계획일 수도 있어.” 허버트가 말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그 후 두 남자는 어떻게 되었는데?” 허버트의 말을 심사숙고해보던 내가 다시 물었다.

“그들은 더 깊은 ‘수치심’과 ‘보잘것없는 처지’에 빠져 파멸하고 말았지. 만약 더 빠질 구렁텅이가 있었다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니?” “모르겠어.”

“방금 전에 에스텔라가 미스 해비샴의 친인척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냥 양녀라고. 그럼 언제 입양한 건데?”

허버트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내가 미스 해비샴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에스텔라도 그녀 옆에 항상 있었어. 나도 그 이상은 몰라. 그런데, 헨델.”

결국 그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떨쳐버리고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완벽한 사이가 되었어. 내가 미스 해비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너도 이제 모두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모두를 너도 이제 알게 되었고.” 내가 응답했다.

“나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말인데, 너와 나 사이엔 이제 어떠한 경쟁이나 곤란함도 있으면 안 돼. 따라서 나는, 네가 네 행운을 유지할 수 있는 상속조항에 대해, 즉 너에게 유산을 물려 준 은인에 대해 네가 알려 해선 안 되며 지나가는 말이라도 대화의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그 상속조항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라면 너의 친구 로서 신뢰해도 좋아, 나와, 그리고 나와 연관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네 상속조항(나를 알려하지 마라)이 침범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실수로라도 그 얘기를 꺼내는 일도 절대로 없을 거야. 약속 할게.”

실은, 녀석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우아하게 꺼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년을 보내야 했음에도 내 상속문제에 관한 여타 문제들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녀석은 자신의 말에 힘을 주며 매우 의미 있는 듯 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내 은인이 실은 미스 해비샴이라는 사실’을 녀석도 나만큼이나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방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허버트가 우리 사이에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 짓기 위해 처음부터 그 주제가 나오게 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 주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린 후에야 우리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더 정겹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 그 래서 나는 거기에 그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분위기는 아주 명량해지고 쾌활해졌다. 그래서 대화 도중에 내가 “근데 어디서 일해?(직업)”라고 녀석에게 물었다.

“자본가 혹은 선박 보험업자랄까?”

나는 무심코 거실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며 선박이나 주식 기타 그와 관련된 표식들을 찾아보았다. 내 생각에 그가 이런 내 행동을 본 것 같았다.

그가 이런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런던시내에서 말이야.”

런던시내에서 선박보험업자들의 중요성과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당시 내가 아주 즐거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 촉망받을 운명을 지닌 어린 보험업자를 한 방에 때려눕히고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머리를 쥐어뜯었다는 생각에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든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아무리 봐도 ‘허버트 포킷이 직업세계에서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내 독특한 인상 말이다.

“나는 단순히 선박 보험업에 자본을 대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을 거야. 괜찮은 생명 보험 주식들도 소량 구입해서 다양한 곳에 재투자해볼 생각이야. 그리고 광산업에도 진출해볼 생각도 좀 있고. 하지만 이 모두는 내가 선주로부터 몇 천 톤의 선박 전부나 혹은 일부를 임차해 내 계정으로 그 배들을 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할 거야. 무역에도 손을 대볼 생각이거든.”

그가 자신의 의자에 편하게 등을 기대며 말했다.

“동인도(실제의 인도)로 가서, 비단이며, 여성용 어께걸이 숄이며, 향미료들이며, 염료들이며, 신기한 약초들이며, 그리고 값비싼 목재들을 사고팔 생각이야. 이것들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업이 될 거야.”

“그럼 이윤이 엄청나겠구나?” 내(25세)가 물었다. “어마어마하고말고!” 그(25세, 허버트)가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나보다 더 큰 재산을 모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서인도(미국 밑에 있는 섬들)로도 사업을 확장할거야.” 그가 두 엄지손가락을 두 조끼 호주머니들 속에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그곳에서 사탕수수며, 담배, 그리고 럼주를 교역할거야. 실론 섬(스리 랑카, 인도 옆에 있는 섬)에서는 코끼리 상아(어금니)를 교역할거고.”

“그러려면 상당수의 선박들이 필요하겠네?” 내가 물었다. “선단 하나(배 30~90척)는 족히 필요할 걸.” 그가 말했다.

이 무역의 엄청난 스케일에 깊이 감동한 나는 그에게 “너와 보험 계약을 맺은 선박들이 현재 대부분 어디와 거래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기에 이르렀다.

“나는 아직 보험 증서 발행을 시작하지 않았어.” 그가 응답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며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어쩐지, 이러한 이야기 전개방식은 바너드 여관(곰팡내 나고 쓰러지기 전의 여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다. 나보다 더 말이다. 이 뜻밖의 대답에 그만 맥이 빠진 내가 “허!”하며 탄식했다.

“내가 가는 회계사무실이 한 곳 있는데, 그곳에서 여기저길 알아보며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야.”

“보수가 좋은 곳이니?” 내가 물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수익이 많으냐고?” 그가 도리어 내게 물었다.

“어? 그게 그러니까, 너에게 말이야.”

“나? 나는 아냐. 나는 수익이 없어.” 그가 주의 깊게 더하고 수치를 결산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게는 아직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말하자면, 회계사무실이 내게 보수를 지불하지는 않아. 지금은 내 스스로, 내 스스로 해나가야 해.”

이것은 확실히 수익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소득원천(돈 벌 계획만 기지고 있고 실행할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는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내(주인공, 25세)가 마치 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허버트 포킷(주인공들 중 한 명, 25 세)이 말했다.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건 정말 엄청난 거라고. 내가 회계사무실에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저길 알아보며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말이야.”

그의 말은 내게 ‘만약 회계사무실에서 벗어나 있으면 여기저길 알아 보며 돌아다닐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이상한 인상을 심어주는 말이 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을 존중해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 때가 오는 거지.” 허버트(25세)가 말했다. “네 앞길이 열리는 그런 좋은 기회 말이야.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켜쥐면 돼. 그런 후 자본을 축척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면 상황 끝이지. 자본이란 일단 한 번만 축척되고 나면 스스로 돈이 돈을 굴리기 때문에 네가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어.”

이것은 미스 해비샴의 정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보인 태도와 너무나도 일치했다. 아주 일치했다.

자신의 가난을 이겨내는 그의 태도 역시 나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 그가 보인 받아들임 태도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예전에 내 주먹에 나가 떨어졌을 때 보인 방식대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온갖 역풍과 타격에 대처하고 있는 듯 했다.

증거가 있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최소한의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아 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목한 모든 것들이 결국 커피하우스에서 나를 위해 보내준 것이거나 또는 그 밖의 장소들에서 보내온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한 미천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허세를 부릴 만 했지만 그는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몸에서 자연스레 배어나오는 상냥한 마음씨와 더해져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고 그래서 우린 아주 사이가 좋아졌다.

저녁때가 되자 우리는 잠깐 산책을 할 겸 거리로 나가, 반(1/2)값만 내고 극장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런던에 있는 유명한 성당, 잘 아시겠지만^^)에 예배 보러 갔으며, 오후에는 그 근처 공원들을 돌아다니며 산책을 했다.

나는 궁금했다. ‘저 많은 말들의 말굽은 누가 다 달아주었을까? 조 (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가 달면 좋을 텐데.’

줄잡아 계산해도 그 주의 일요일(런던 상경 후 1주일 경과)이 내겐 조(매형)와 비디(여자이름)를 떠난 지 수개월은 되는 듯이 보였다. 나와 그들 사이에 놓인 공간은 이런 확장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습지대까지의 거리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멀어져 있었다.

내가 교회 갈 때 입던 낡은 옷들을 챙겨 입고서 마을의 낡은 교회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었다. 이 짧은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인식은 지리학적으로나 사회관계적으로도 결합이 불가능해보였다. 그건 햇볕에 의해서도 달빛에 의해서도 조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희미한 과거에 대한 내 기억의 일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넘쳐나고 온갖 조명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런던거리에는,” 내가 불쌍한 우리 집 부엌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놓고 왔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암시들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약간 사기꾼 같은 발자국 소리를 내는 수위가 불침번을 선답시고 여관 주변을 서성이며 “발자국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8시 45분이 되자, 허버트 포킷(25세)이 회계사무실에 나가보겠다며 알리러 왔다. 아마 여기저기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살피러 회계사무실에 나가보겠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나도 약간 지루하던 참이라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일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후에 그가 다시 나와 나를 데리고 해머 스미스(런던중앙부, 템즈 강 옆)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일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젊은 보험 업자들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올 알들이 온통 먼지와 열기 속에서 배양되고 있는 곳 같았다. 타조 알처럼 말이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것 같은 이들 거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고 있는 장소들을 보고 판단해보건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허버트(25세)가 도와주고 있는 회계사무실 건물에서는 이 주변 광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은 2층 뒷마당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기저기 때가 묻고 더러운 장소였다. 옆 건물 2층 뒷마당과 또다시 접해 있었다. 여기서 주변 광경을 살피느니 차라리 밖으로 나가 여기 저기 직접 돌아다녀 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나는 정오 때까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런던 증권거래소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솜 부스러기(매트리스 안에 넣는 거) 같은 남성들이 선박 광고지 아래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대상인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인지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기가 죽어 있어 의아했다.

정오가 되자 허버트가 나왔다. 우리는 유명한 커피하우스로 가 점심 식사를 했다. 그때 나는 그 곳을 아주 높게 평가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곳이 유럽에서도 가장 품격이 떨어지는 커피하우스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그때도 그랬지만, 그곳은 “육즙이” 스테이크 안쪽보다 식탁보 위나 나이프나 웨이터들의 유니폼 위에 더 많이 ”묻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굳이 이 가벼운 점심을 알맞은 가격에 해치웠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굳어 있던 그 동물성 기름들을 생각했을 때 말이다.

어쨌든 점심을 그렇게 해치운 후 우린 바너드 여관으로 가 내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나왔다. 그리곤 대형 사륜마차(바퀴 4개)를 빌려 해머스미스(런던 중앙부, 템즈 강 옆에 있는 런던의 자치구 중 하나)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보니 시간이 어느덧 오후 2시 내지는 3시쯤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부터 포킷 씨의 집까지 잠시 걸어갔다. 아주 금방이었다.

정문의 빗장이 들리고 우린 강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정원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포킷 씨의 아이들(허버트의 아주 어린 남녀형제들)이 뛰어 놀고 있었다.

내 이해관계와 선입관과 이토록 분명한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말한다면, 내가 보았을 때 포킷 씨 부부의 아이들은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거나 양육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꾸라지듯이 뛰어다니며 크고 있었다.

포킷 씨 부인은 나무 아래에 있는 정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 다. 다리 한 짝을 또 다른 정원 의자 위에 올려놓으신 채 말이다.

부인의 두 하녀들이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챙기고 있는 듯 했다. “엄마.” 허버트가 말했다. “이 분이 핍 씨야.”

포킷 씨 부인은 상냥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인사를 받으셨다. “앨릭(‘알렉산더’란 의미임, 애칭임) 도련님! 제인 아가씨!” 하녀들

중 한 명이 두 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렇게 덤불(엉클어진 수풀) 가까이에서 펄쩍 뛰시면 강물 속으로 구르실지 몰라요. 큰 일 나신다고요. 그럼 파파(아빠)가 뭐라 하시겠어요?”

그와 동시에 이 보모(아이돌보미)는 포킷 씨 부인의 손수건을 주워주며 이렇게 말했다.

“벌써 여섯 번째에요, 마님!”

그러자 포킷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플롭슨.”

그녀가 다리 한 짝을 의자에서 내리고 한 쪽 의자에만 앉더니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즉시 그녀는 몰두하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건 마치 지난 1주일 동안 책 읽기를 계속해온 것 같은 얼굴표정이었다. 거짓 같았다.

채 여섯 줄도 다 읽기 전에 그녀가 내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그래 어머님께서는 몸성히 잘 계시지?”

이 뜻밖의 질문에 난 너무 당황해서 이차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해대기 시작했다.

“넷?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분명 그 분도 잘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렇게라도 안부를 물어주신 친절에 대해 아주 감사해하실 거고 부인께 찬사를 보내는 걸 잊지 않았을….”

그때 보모가 다가오는 바람에 나는 가까스로 그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머!” 보모가 네모지고 작은 손수건을 집어 들며 소리쳤다. “벌써 일곱 번째 세요. 오늘 오후에 마님이 하시는 짓 좀 보세요, 넵!”

포킷 씨 부인이 손수건을 받았다. 그녀가 처음에 지어보인 표정은 그 손수건을 생전 처음 본다는 표정 그래서 그녀 자신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 손수건임을 인정하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고마워, 플롭슨.” (플롭슨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임. 독자가 몰라도 되는 이름임)

그러더니 나를 잊은 채 또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세어볼 여유가 생겼다. 다양한 연령대의 포킷(성씨)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최소 여섯 명은 되어보 였다.

내가 여섯을 다 세리기도 전에 일곱 번째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공중을 가르며 들려왔다.

“아기가 집안에 있는 거 아니니!” 플롭슨(여자보모)이 말했다. 그녀에겐 그것이 정말 놀랍다는 표정 같았다. “얘 서둘러, 밀러스.” (밀러스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임. 독자가 몰라도 되는 이름임)

밀러스는 또 다른 보모 이름이었다. 밀러스가 집안으로 들어갔다. 차츰 아이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가라앉더니 이내 뚝 그쳤다. 마치 어린 복화술사(입을 안 움직이고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가 입안에 뭔가를 물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포킷 씨 부인은 그때까지도 책에 열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강하게 생겼다.

내 생각에 우리(주인공과 허버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포킷 씨(허버트 포킷의 아버지, 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 개인교사)가 우리를 맞으러 정원까지 내려오길 말이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정원) 계속 기다렸다.

곧 나는 주목할 만한 가족적 현상을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느 아이든 간에 그 아이가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제 위치를 벗어나 포킷 씨 부인 곁으로 다가가게 되면, 아이들이 매번 발을 헛디디다 매번 포킷 씨 부인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럼 그녀는 순간 깜작 놀라하고, 그녀에게 걸려 넘어진 아이들은 오랫동안 통탄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는 이 놀라운 정황(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보기 위해 나름 심사숙고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머지않아 밀러스(보모이름, 이름 알 필요 없음)가 아기를 안고 내려왔는데 그 때까지 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플롭슨(보모이름, 이름 알 필요 없음)이 아기를 넘겨받았다. 플롭슨이 아기를 포킷 씨 부인에게 안겨주려다, “플롭슨이 아기와 함께” 머리부터 거꾸로 포킷 씨 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허버트(포킷 씨 부인의 아들, 25세)와 내가 가까스로 붙잡았다.”

“이거 참 야단났군, 야단났어, 플롭슨(보모이름, 엑스트라)!” 포킷 씨 부인(엑스트라, 알 필요 없는 이름임)이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말했다. “모두가 넘어지다니!”

“어머나 세상에, 마님!” 플롭슨이 얼굴이 시뻘겋게 되더니 말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애요?”

“여기 뭐가 있나니, 플롭슨?” 포킷 씨 부인이 물었다.

“아니 그럼 그게 발 올려놓는 발판이 아니고 뭐예요!” 플롭슨이 소 리쳤다. “그걸 스커트 아래에 놓아두시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게 아네요? 자, 아기부터 받으세요, 마님, 책은 제게 주시고요.”

포킷 씨 부인은 충고대로 책을 보모에게 건넸다. 다른 아이들이 아기 주위에서 노는 동안 그녀가 아기를 무릎 위에 앉히고 서투른 솜씨로 아기를 달랬다.

그녀의 관심이 아주 잠깐 동안 지속되었다. 그때 포킷 씨 부인이 “얘들 데리고 들어가 낮잠부터 재워라.”라며 별 애정 없이 말했다.

나는 이 첫 번째 방문에서 이미 두 가지 발견을 다 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고, 두 번째는 어린 ‘포킷’(부모님 성씨)들의 양육방식이 단지 ‘꼬꾸라지듯 뛰는 것’과 ‘눕는 것’ 이 두 가지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플롭슨과 밀러스(모두 보모 이름들,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들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양떼들

을 몰고 들어가는 듯 했다.

이런 제반사정으로 인해, 막상 포킷 씨가 나를 마중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그의 당황하는 얼굴표정들이며 회색이 다된 그의 머리카락들이며 빗질이 되어 있지 않고 아주 흐트러져 있는 그의 머리 모양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표정들을 보건데 그는 이 모든 사항을 정리할 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위대한 유산**

**23장**

“만나서 반갑네.” 포킷 씨가 말했다. “나를 만난 것이 유감스럽지 않게 되길 바라네.”

그가 마치 내 동갑내기 같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했다.

“자네도 알게 되겠다시피, 난 자네가 놀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네.”

그는 젊어보였다. 비록 그가 지금 내 앞에서 방금 전 상황들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완전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말이다.

분명 그의 말투와 태도에는 꾸밈없는 데가 있었다. 내가 굳이 연장 자에게 꾸밈없다고까지 말한 것은 그가 자연스럽게 나를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솔직히 말한다면, 그가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에는 약간 코믹한 구석도 있었다. 만약 그 자신이 “나는 매우 산만하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이 상황은 큰 웃음을 자아낼 만큼 코믹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약간 담소를 나눈 뒤 두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아내에게 말했다.

“벨린다(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임), 핍 군을 잘 맞아주었겠지?” 그는 검고 잘 생긴 두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책에서 눈을 떼 남편을 올려다보며 “그럼요.”라고 말한 후 나를 바라보며 영혼 없는 미소를 날렸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오렌지 플라워 워터’(등화수, 오렌지 꽃에서 채취해 증류시킨 향료)의 맛이 어떻게 취향에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질문은 앞서의 대화나 이후의 대화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생뚱맞은 대화였으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와도 전혀 동 떨어지는 말이었다.

그건 그녀가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치레로 내뱉은 말임을 의미했다. 그녀가 이전에 보인 태도와도 부합했다. 그냥 애정 없는 대화용 생색내기였다.

나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꼭 밝히고 싶다.

‘포킷 씨 부인’(허버트의 어머니)이 실은 아주 우연히 고인이 된 어떤 기사(정확히 말하자면 기사가 아니라 ‘나이트 작위’임, 헷갈리실까봐 그냥 기사로 해석함~)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포킷 씨 부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포킷 씨 부인의 할아버지)가 준남작(기사와 남작의 중간 작위이지만, 귀족은 아님) 의 작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는데, 국왕폐하의 개인적인 변덕이라든지, 수상의 개인적인 변덕이라든지, 혹은 대법관의 개인적인 반대, 또는 캔 터베리 대주교의 개인적인 염려내지는 기타 그럴만한 위치에 있던 어느 누군가의 악의적이고 개인적인 반대에 의해 그만 준남작의 작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포킷 씨 부인 에게서 듣긴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난다.

누가 봐도 분명 가정일 뿐인 이 것을 근거로 들어서 ‘포킷 씨 부인 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영국 귀족장부에 덧붙였던 것이다. 내 생각에, 그(포킷 씨 부인의 할아버지)가 아마 어떤 건물공사에서 혹은 기타 그와 비슷한 다른 신축공사에서 첫 돌을 놓을 때 즈음해서, 펜 촉으로 영어문법을 강타함으로써 피지(송아지 가죽) 위에다가 발악 하는(감동적인-\_-) 연설을 또박또박 큰 글씨로 적시하여(써서) 기사 작위를 받았거나, 혹은 착공식에서 명망 있는 어떤 왕실 사람에게 자신의 흙손(도구) 또는 모르타르(=시멘트+물+모래) 이 둘 중 하나를 양

보한 대가로 얼렁뚱땅 기사 작위를 받게 되었던 건 아닌지 싶다. 어쨌든 그런 연고로 해서 ‘포킷 씨 부인의 아버지’는 딸(포킷 씨 부

인)이 필연적으로 ‘작위가 있는 젊은이’와 결혼해야할 여성으로 그리고, 천한 가사노동에 대해 배워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철저히 보호받아야 될 여성으로 양육되게 딸이 요람(아기)에 있을 때부터 지도하고 관리했던 것이다.

(노코멘트 : 정말 15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라지만, 디킨스 이런 식으로 사람 골탕 먹이는 문장 사용하면 안 됨~\_!!!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음. 사전보고 해석은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올리게 되었음. “…는데, …는데, …는데, …는데,” 이런 식의 문장 정말.. -\_-. 23장의 단락이랑 그 앞 단락 너무 낯선 문장이었음. 낯설었음. 소설 초반에도 엄청 말을 꼬아서 하더니 소설 중간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예감...-\_-+ 정말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영국인은 다른가????? 낯선 하루~ 낯설다 낯설어~)

그런 밤낮 없는 경계, 부단한 경계, 엄중한 경계가 이 현명한 부모님에 의해 어린 숙녀에게 완벽하게 수행된 결과, 그녀(포킷 씨 부인, 즉 허버트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장식적이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 도 보탬이 되지 않는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성격으로만 형성된 그녀의 청춘이 막 꽃을 피웠을 때쯤 그녀가 포킷 씨를 만났던 것이다.

그도 또한 막 청춘의 꽃을 터뜨린 직후였고 전도유망한 젊은이로써 장차 상원 의장의 직위에 오를 지 혹은 주교가 의식 때 쓰는 모자를 쓰게 될 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였다.

하지만 둘 중 어느 것이 되든지 그가 성공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고, 따라서 그와 미스 포킷는 길게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쇠뿔도 단김에 빼버리라는 말도 있듯이 그녀의 현명한 부모님 몰래 결혼해버렸던 것이다.

결혼 지참금으로 줄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줄 수 있는 거라곤 단지 축복의 말뿐이었던, 그녀의 부모님은 잠시 버둥거리다 이 신혼부부에게 축복의 말을 듬뿍 건네주며 자신의 딸이 실은 “왕자를 위한 보물”이라는 말을 포킷 씨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했던 것이다.

이후 포킷 씨(포킷 씨는 ‘허버트의 아버지.’ 허버트는 ‘주인공의 친구’)는 이 왕자의 보물을 다양한 세상사에 투자했었는데 그건 단지 별 볼일 없는 이자만을 그에게 안겨다줄 뿐인 것으로 판명 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킷 부인(아내)은 전반적으로 동정어린 묘한 연 민의 대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작위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포킷 씨(남편)는 용서어린 질책의 대상이 되는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결코 작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락은 해석이 쉬웠음~ 다행~^\_~ 이 정도 문법이면 금방 하 는데...^^ 23장 앞부분 해석은 정말 어려웠음 -\_ㅜ)

포킷 씨는 나를 집안으로 데려가 앞으로 내가 사용할 방을 보여주었다. 쾌적한 방이었다. 가구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나만의 개인적인 거실로 사용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또 내 방과 비슷하게 생긴 방의 방문 두 개에 노크해 사용자들을 보여주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드러믈(주인공과 철저한 라이벌이 됨)’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스타톱(주인공의 동료가 됨)’이었 다.

드러믈이란 젊은이는 얼굴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몸이 빌딩처럼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젊은이였다. 그는 나와 인사할 때 휘파람을 휙휙 불고 있었다.

스타톱이란 젊은이는 연령과 외모에서 더 젊어보였는데, 책을 읽으며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아마 엄청난 지식을 너무 한꺼번에 탐내려다보니 머리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인 것을 그 자신도 직감한 것 같았다.

포킷 씨와 포킷 씨 부인 모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살고있다는 인상을 너무도 두드러지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실제 소유하고 있고 포킷 씨 부부로 하여금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곧 이 집의 하인들이 그 숨은 권력 자들임을 감지했다.

불편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마 하인을 많이 두는 것은 삶을 유지하는 원활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집의 하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데 자기 자신을 즐기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거나, 아래층에 자기 친구들을 많이 지내게 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여기고 있는 하인들을 거느리는 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새임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하인들은 포킷 씨 부부가 맛있는 것이 많은 식탁을 가지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매번 내가 봤을 때 이 집에서 단연코 최고로 좋은 식사를 하는 곳은 부엌일 것 같았다. 하숙인(주인공과 젊은이 2명)들이 매번 자기 방어(알아서 챙겨먹기)를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집에서 지낸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이 가족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어느 이웃집 여자가 편지를 보내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 밀러스(여자보모이름)가 애기를 손바닥으로 철썩 때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

이 이름 모를 이웃집 여자의 편지로 인해, 포킷 씨 부인은 어마어마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 이웃여자의 메모를 받자마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 여자가 어떻게 감히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참견할 수가 있죠! 어떻게 감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편지를 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주로 ‘허버트’(포킷 씨의 아들)에게서 들어 알게 된 사실이 하나씩 생겼는데, 포킷 씨가 실은 ‘해로교’(런던 서북부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 교)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성적 또한 대단히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포킷 씨 부인’과 웨딩마차를 타는 행복에 겨워하다보니, 자신의 장래성을 스스로 훼손했고 결국 ‘주입식 가정교사’라는 직업에 안주해야했다.

수없이 많은 무딘 칼날들을(어리석은 학생들) 갈고 닦고 나서 이 가련한 직업에 염증이 난 포킷 씨는 런던으로 이사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주입식 가정교사’를 할 때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데, 어리석은 학생들의 아버지들이 하나같이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면, 내 꼭 자네 자리 하나 만들어줌세.”라고 신신당부해놓고는 막상 그 멍청한 아들이 회전 숫돌(포킷 씨)에서 떠나면(교육을 마치면) 깜깜무 소식이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아마 포킷 씨가 고향을 버리고 런던으로 이사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곳 런던에서도 고결하던 자신의 이상이 하나 둘 씩 실패를 맛보자, 그는 출세의 기회가 없었거나 혹은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등한시 한 몇 사람들의 가정교사가 되어 공부를 봐주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준비 중인 몇 사람들을 일신해주기도 했다(새롭게 하다). 또한 자신의 학식에 의지해 ‘문학 편찬과 교정’에 대한 해석을 해보기도 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계수단들과, 그리고 어중간한 개인적인 재원(돈)들이 상 당히 많다보니, 내가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큰 저택을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포킷 씨 부부에게는 아첨꾼 이웃이 한 명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공감하고 누구에게나 “축복받으세요.”라는 말을 건네고, 상황에 따라선 누구에게나 눈물과 미소를 뿌리는 과부였다.

이 여자의 이름은 ‘코일러(독자가 알 필요없는 이름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부인이었다. 나는 이 집으로 들어온 그 날 저녁 식사 자리까지 그녀를 아래층으로 데려다 주는 영예를 얻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그녀가 나에게 보충설명을 해주었다. 내용인즉슨, “포킷 씨가 공부를 도와줘야만 하는 신사 분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집의 재정상황이 ‘포킷 씨 부인’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그녀는 또 이런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은 제외에요. 제 사랑과 신용을 걸고 말하겠어요. 당신은 제외에요.”

그때 그녀는 나에게 적어도 5번이 넘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제외라고.

“만약 신사 분들이 모두 당신 같았다면, 이 집의 분위기는 훨씬 달라졌을 거예요.(달라져 있을 텐데)”

“하지만 포킷 씨 부인은.” 코일러(아첨꾼) 부인이 말했다. “결혼 초기에 이미 큰 실망을 했더랬지요, 물론 그게 포킷 씨가 비난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요, 알잖아요. 왜 그. 그 후론 부인께서 저렇듯 호화롭게 치장하고서 남 앞에서 우아하게 보이시려 애쓰는 거랍니다.”

“그랬군요. 부인.” 내가 그녀의 말을 한 템포 늦추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포킷 씨 부인 얘기를 하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세요? 그녀의 기질(성격) 어딘가에는 귀족적인 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부인.” 내가 좀 전과 동일한 목적에서 그녀의 말을

한 템포 늦추며 말했다.

“바로 그거에요. 그게 바로 포킷 씨 부인을 힘들게 하는 거죠. 신사들의 공부 뒷바라지가 아니라 남편이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기울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푸줏간(정육점) 주인남자의 시간과 관심이 포킷 씨 부인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려지는 게 그녀에게 더 힘든 일이지 않 을까?’라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난 다른 사람 앞에서 차려야 하는 예의범절에 숫기 없는 주의를 기울 이느라 제 정신이 아니었다.

(옮긴이의 언급 : 두둥~ 주인공 ‘사교계의 예절’에 직면하다.)

내 앞에 놓인 나이프와 포크 그리고 스푼과 유리컵들과 같이 사용자를 자폭시킬 수 있는 식기들에 나는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때 ‘포킷 씨 부인’과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 거만한 젊은이)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다.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드러믈의 세례명은 ‘벤틀리’였다. 그는 준 남작의 지위를 이어받을 두 번째 계승자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정원에서 포킷 씨 부인이 읽고 있었던 그 책이 실은 온통 작위에 관한 내용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또한 그녀는 그녀의 할 아버지가 만약 작위를 정말로 받았다면(이름이 그 작위 책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언제 거행되었을지 에 대한 정확한 날짜까지도 알고 있는 듯 했다.

드러믈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못마땅해 성난 빛이 있었다. 그는 선민사상(신이 선택)이 있는 듯 했다. 제한된 방식이나마 말을 할 때면 포킷 씨 부인을 한명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누이로서 인증하는 듯했다.

‘그들(부인과 드러믈)’과 아첨꾼 이웃인 ‘코일러 부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대화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허버트(주인공의 친구가 됨)만은 이들의 대화가 밥 먹는데 성가신 듯 보였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때 시동(심부름아이)이 들어와서 부엌에서 불행이 발생했음을 알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불행이라는 것이 실은 요리사가 소고기를 제자리에 두지 않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 말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당황하고 말았는데, 포킷 씨가

처음으로 그 동작을 취했기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화를 누그 러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아주 기이한 동작이었다. 하지만 나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별 인상을 못 주는 것 같았다. 나도 곧 다른 사람들처럼 포킷 씨의 낯선 행동에 익숙해졌지만.

시동이 왔을 때 포킷 씨는 식탁 위에 있던 큰 고기 덩어리를 막 칼로 저미고 있느라 바빴다.

그런데 시동이 와서 알린 집안의 불행이라는 것이 기껏 소고기 못찾고 있다는 소리임을 알고, 포킷 씨가 고기 덩어리를 칼로 조각내다 말고 쥐고 있던 고기 덩어리 저미는 칼과 큰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두 손을 산발이 다 된 자신의 머리카락 사이로 넣더니, 아예 그냥 “그래 죽자! 죽어!”는 것처럼 자신을 들어 올리려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적어도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

포킷 씨가 이 비상한 동작을 끝냈을 때 그리고 자신을 조금도 들어올리지 못했을 때, 그는 다시 조용히 식탁위에 잇던 고기 덩어리를 칼로 저미던 일을 계속했다.

그때 코일러(아첨꾼이웃여자) 부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더니 내게 아첨하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은 나도 그것이 좋았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대놓고 아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곧 날아가 버렸다.

특히 내가 떠나온 고향과 내 고향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할 때는 그녀가 마치 나를 옮아 메려는 뱀같이 느껴졌다. 꾸불꾸불하고 갈라진 혀를 가진 뱀 말이다.

스타톱(비중이 낮은 조연)은 그녀의 말에 별로 대꾸하지 않았다. 드 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은 더욱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이따금씩 그녀가 스타톱이나 드러믈에게로 관심을 돌렸을 때, 나는 그들이 그녀와 반대편에 앉아 있는 것이 상당히 부러웠다.

저녁식사 후 아이들이 소개되었다. 코일러 부인(아첨꾼 이웃여자) 아 이들의 눈, 코, 입, 긴 다리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흥, 아이들의 지성을 교화시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11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4명, 11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2명, 이외에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 아기가 한 명 있었다. 또한 그 아기보다 더 어린 애기도 한 명 있었다. 물론 이 두 아기 모두 어느 쪽 성인지 모 르겠다.

이들은 플롭슨(여자보모)과 밀러스(여자보모)이 데려온 아이들이었다. 마치 이 두 하사관(병사 위 장교 아래 계급)이 어딘가에서 이 아이들을 모집하고 있다가 사병으로 만들어 데리고 온 것만 같았다.

반면 ‘포킷 씨 부인’(귀족이 되는 것만 꿈꾸는 여자)은 귀족들이 될 수 있었을 이 어린 꼬맹이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마치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전에도 이 아이들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지금 다시 보니 하도 아이들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라고. 물론 내 생각이지만~.

“자! 포크는 이리 주시고요 마님, 애기 안으셔야죠.” 플롭슨(여자보모, 엑스트라)이 말했다. “안돼요, 그렇게 받으시면, 그렇지 않음 애기 머리가 식탁 아래로 들어간다고요.”

이와 같은 가느린 충고를 받아들인 ‘포킷 씨 부인’이 애기를 다른 방향으로 안더니 애기 머리를 식탁 위로 놓았는데, 아뿔싸 어마어마한 충격음이 거실에 있던 모든 손님에게 전달되었다.

“에구머니나, 어쩜 좋아! 도로 주세요. 애기 달라고요 마님.” 플롭슨이 말했다. “제인(여자아이이름) 아가씨, 이리 와서 애기에게 춤춰주세요, 어서요 아가씨!”

11살 먹은 4명의 여자아이들 중 ‘한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부터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떠맡은 것 같은 ‘이 가여운 어린 것이’ 내 옆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더니 아기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아기에게 다가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며 웃으며 춤을 추었다.

곧 애기가 울음을 그쳤다. 그 자리에 있던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웃었고, 포킷 씨도 웃었고, 동석하고 있던 우리 모두도 웃으며 즐거워했다.

물론 이 가여운 어린 것이 춤을 추는 그 사이에도, 우리의 포킷 씨는 두 손을 자신의 산발된 머리카락 사이로 집어넣어 “그래 죽자 죽어!” 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려는 시도를 두 번이나 하셨지만 말이다.

플롭슨(여자보모, 엑스트라)이 ‘이음매가 있는 나무 인형’ 다루듯이 애기를 접어 겹치더니 안전하게 애기를 포킷 씨 부인의 무릎에 안겨주 었다.

그런 후 플론슨이 애기에게 가지고 놀라며 호두까기를 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포킷 씨 부인에게도 주의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호두까기 손잡이 부분이 애기 눈에 닿으면 안돼요, 마님.”

또한 그녀는 제인(11살 여자아이)에게도 애기를 돌보는 책임을 맡기는 빈틈없음을 보였다.

그런 다음 두 보모(아이돌보미)가 방을 나가더니 계단에서 아까 그 꼴통 시동(심부름아이)과 생기 넘치는 실랑이를 벌이며 옥신각신하는 것이다.

좀 전에 우리의 식사 시중을 들던 시동이었다. 보나마나 도박판에서 자신의 옷 단추 절반을 모두 잃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마음이 매우 불안해졌다. ‘포킷 씨 부인’(오매불망 귀족만 꿈꾸는 여자. 주인공의 친구인 ‘허버터’의 어머니임)이 ‘설탕과 와인에 푹 빠진, 얇게 잘린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서 자신의 무릎위에 있는 애기는 완전히 망각한 채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과 두 사람(드러믈과 드 러믈의 형)의 준 남작 지위에 관한 얘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호두까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애기는 온갖 오싹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었다.

결국 어린 나이에도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아차린 가느린 제인 (11살. 포킷 씨 부인의 딸)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딴에는 온갖 술수를 다 써가며 애기를 구슬려고 달래서 그 위험한 호두까기를 치워버렸다.

거의 같은 시각에 포킷 씨 부인이 오렌지 먹던 걸 마쳤는데, 그런 그녀는 제인(딸)의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제인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장난을 좋아하니, 엄마에게 이럴 거야? 어서 네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엄마 근데.” 그 가냘픈 여자아이가 혀짤배기소리(어린 아이의 혀 짧은 말하기)를 내며 말했다. “애기(남자아이네요^^)가 자기 눈을 내다 놓으려고 그랬어(도○내려고 그랬어).”

“그게 지금 엄마에게 할 소리니?” 포킷 씨 부인이 딸을 쏘아붙였다. “당장, 네 자리로 돌아가 앉아!”

‘포킷 씨 부인’의 위엄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마치 내가, 그녀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 장본인인 것 같이 느껴져 매우 당혹스러웠다.

“벨린다(허버트의 어머니).” 식탁 맞은 편 끝자락에 앉아 있던 ‘포킷 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그다지도 분별이 없을 수가 있소? 제인(딸)이 지금 아기를 보호하려다 그런 거 아니요.”

“절 간섭하는 이는 누구든 용서치 않으려든 것뿐이에요.” 포킷 씨 부인이 말했다. “매튜(남편이름), 어쩜 당신이 제게 이럴 수 있으시죠. 지금 손님들 앞에서 저를 면박주고 계시잖아요.”

“야단났군!” 포킷 씨가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는지 돌발적으로 소리 쳤다. “아니 그럼 아기들이 호두까기에 깨져서 무덤으로 갈 판인데, 아무도 애들을 구하지 말란 말이오?”

“전 단지 딸이 절 관섭하는 걸 막으려던 것뿐이에요.” 포킷 씨 부인이 저 가련한 어린 범죄자(딸)를 매섭게 흘낏 째려보며 말했다. “원컨대,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신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란 애는 정말이지!”

포킷 씨가 또 다시 자신의 두 손을 산발한 머리카락 사이로 가져가 들어 올리는 시늉을 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이번에야 말로 의자에서 10센티미터(cm)라도 들어 올려 죽고 말겠다는 식이였다.

“좀 들어봐!” 쌀쌀한 아내의 태도에 의지할 데 없이 된 그가 고함질 렀다. “아기들이 호두까기에 깨져서 죽어야 되겠소? 그것도 돌아가신 당신 조부(할아버지)의 지위를 위해서!”

그러더니 머리카락 사이에서 손을 빼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포킷 씨 부부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순진하고 활력 넘치는 애기가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누나를 향해 바동거리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내가 봤을 때,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리고 하인들을 포함해서도, 애기가 얼굴을 약간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제인(아기의 누나이름, 8~11살 정도의 나이)뿐인 것 같았다.

“드러믈 씨(주인공의 라이벌).” 포킷 씨 부인이 말했다. “벨을 눌러서, 플롭슨(여자보모)를 불러주시겠어요? 제인(딸),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니. 제발 좀 자리로 돌아가 앉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자 애기야, 넌 이리 오고!”

그 애기는 체면을 중히 여기는 아기였음이 틀림없다. 엄마에게 안기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포킷 씨 부인’의 팔 너머로 몸을 거꾸로 웅크리고 있는 아기가 보였다. 메리야스(손뜨개)로 짠 아기양발 두 짝도 보였다. 잔물결이 일고 있는 아기발목도 보였다. 아기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대신에 메리야스로 짠 양말과 발목을 엄마 팔 너머에서 보이고 있었다. 물론 자신은 엄마 팔에 거꾸로 웅크린 채 말 이다. 결국 애기는 이 극도의 반란 상태에서 옮겨졌다.

결국에는 아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어린 제인(포킷 씨 부부의 8살 정도의 딸)옆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애기를 내가 몇 분 후에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마침 5명의 아이들이 아직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플롭슨(여자보모) 외에는 돌보는 하인들이 없었는데, 플론슨도 딱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아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업무가 몇 개 남아 있어 같이 있는 것 같았다.

앞서 말한 이유들로 해서 나는 이 집의 하인들과 포킷 씨(주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증을 통해 확인 되고 있었다.

얼굴이 상기되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평소와 같은 당혹스러움으로 포킷 씨가 아이들을 몇 분 동안 쳐다보았다. 어떻게 해서 저 많은 아이들이 이 집에서 먹고 자게 되었을까? 그리고 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의 집으로 보내지지 않았는지?를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같았다.

그러더니, 냉담한 말투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몇 던졌다. “꼬맹이 조(이름)야, 옷 주름 장식에 왜 구멍을 달고 다니지?”

“파파(아빠), 플롭슨(여자보모)이 시간 나면 고쳐 준댔어요.”

“어린 패니(여자아이이름)야, 손가락 끝에 난 곪은 종기는 어쩌다 생긴 거니?”

“파파, 밀레스(여자보모)가 깜빡하지 않을 때 찜질 약을 발라 준댔어요.”

그러자 포킷 씨의 냉담한 태도가 누그러져 차츰 아버지의 다정함으로 바뀌었다. 아버지의 정이 되살아난 포킷 씨가 아이들에게 2만 원씩을 주며 “나가 놀 거라!”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나가는 동안, 자신의 머리카락 사이로 두 손을 집어넣어 자신을 들어 올리려는 아주 강력한 시도를 한 번 더 한 다음,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이 절망적인 주제(이 많은 아이들이 왜 하필 내 집에 태어났지?)를 말끔히 떨쳐버렸다.

저녁에 강에서 조정(수상스포츠)이 있었다.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과 스타톱(그냥 주인공의 친구, 아주 친하지는 않음, 약간 엑스트라 느낌의 조연)도 자기 보트가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 보트를 하나 마련해 그들 모두를 앞지를 결심을 했다.

다년간의 시골생활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나는 대다수의 운동을 꽤 잘했다. 하지만 다른 강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템스 강이 요구하는 우아한 노 젓기 자세가 내게 부족하다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즉시 1인 조정경기 우승자에게서 개인지도를 받는 일에 착수했다. 그가 우리 선착장에서 부지런히 오고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새 동료들의 소개를 받아 그에게 개인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 실습강사는 “자네는 마치 대장장이 같은 팔을 가지고 있군.”라고 말을 해 나를 정말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그 찬사 한 마디 때문에 하마터면 자신의 제자(주인공)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말을 했을는지 의문이다.

밤이 되서 집(포킷 씨의 집)에 돌아와서 보니 우리를 위해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열심히 움직였으니 우린 편안히 저녁식사를 즐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소 불쾌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집안 일이 하나 발생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포킷 씨는 기분이 좋았다. 그때 식모가 들 어오더니 그에게 말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리. 긴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이죠.”

“내가 있는데서 남편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포킷 씨 부인이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귀족의 자태를 뽐내며 위엄 있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서 플롭슨(여자보모)에게 먼저 말하게.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내게 얘기하고.”

“마님껜 용서를 빌게요.” 식모가 대꾸했다. “꼭 나리께 지금 알려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이 결과로서 포킷 씨가 방에서 나가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 예뻐 죽겠군! 벨린다(허버트의 어머니)!” 방으로 다시 돌아온 포킷 씨가 비탄과 절망에 찬 얼굴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요리사가 지금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부엌 바닥에 누워 있소. 신선한 버터 큰 묶음은 찬장에 들어박힌 채 그리스(기계의 윤활유)로 팔릴 준 비를 하고 있고!”

포킷 씨 부인은 남편의 이 자조 섞인 말에 즉시 붙임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이게 다 저 미운 소피아(여자 식모이름, 한번 밖에 안 나오는 이름 임)가 한 짓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벨린다?” 포킷 씨가 강력히 물었다. “소피아가 방금 당신보고 말했잖아요,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포킷

씨 부인이 말했다. “전 다 들었단 말예요. 소피아가 방으로 들어와 당신보고 할 말이 있으니 같이 가 달라고 말하는 걸 이 눈과 귀로 다 들었단 말예요. 제가 못 본 줄 아세요?”

“하지만 그 애(식모)는 단지 나를 아래층으로 데려가 요리사와 버터 묶음을 보여준 것뿐이지 않소?” 포킷 씨가 되물었다.

“왜 그 애를 변호하죠, 매튜(‘매튜’는 이름, ‘포킷’이 성).” 포킷 씨 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간질시킨 건 그 애였잖아요? 모르시겠어요?”

포킷 씨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녀인 제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인가요?” 포킷 씨 부인이 말했다. “게다가, 요리사(여자)는 아주 다정하고 공손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녀가 직장(요리사)을 구하러 제게 왔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꾸밈없는 태도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공작부인이 될 운명을 타고나신 분 같아요.’라고요.”

포킷 씨가 서 있던 자리에는 소파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가 죽어가는 검투사처럼 소파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공허한 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나, 핍 군.”

나는 얼른 이 자리를 떠 내 침대로 가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유산**

**24장**

2~3일 정도가 지나자 나도 이제 내 방에 적응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런던과 런던 인근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상점 주인들에게 주문도 했고, 또 포킷 씨와도 앞으로의 내 교습 방향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내게 예정된 경력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 이미 재거스(주인공의 후견인) 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재거스 씨의 말에 의하면 “핍 군의 교육은 어떠한 직업을 목표로 계획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핍 군이 이런 유복한 환경에 놓인 평균적인 젊은이들과 서로 통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려면’ 그의 운명(어마어마한 부자)에 족할 만큼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 네.”라는 것이다.

물론 나도 동의했다. 그와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교사)는 내게 런던의 모처 이곳저곳을 다 녀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내게 부족한 그런 유의 기초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네 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주게. 내가 자네의 설명교사와 지도교사의 역할을 도맡아 주겠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네가 지적인 도움만 잘 받아들인다면 향후 자네가 낙담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하네. 그러면 곧 내 도움을 제외하 고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해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

앞서 말한 비슷한 목적에서 비롯된 많은 대화방식들을 통해, 그는 훌륭한 방식으로 나와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나와 맺은 약속(신사교육)을 이행함에 있어 언제나 대단히 열심이었고 대단히 존경할 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그런 고결함이 그의 교육을 따름에 있어 나로 하여금 언제나 열정적이고 명예롭게 행동하게 했다.

만약 그가 교사로서 이도 저도 아니게 임했더라면, 당연히 나도 제자로서 무성의하게 학습에 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게 그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우린 서로 상대방에게 충직하게 행동했다.

나는 또한 단 한 번도 그를, 자기 주변에 웃음을 자아내는 요소를 지니고 다니는 인물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으며, 또한 난 단 한 번도 그를, 진지하고 정직하며 선량함과 거리가 먼 어떤 다른 사람으로 여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것이 그가 나와 소통한 개인지도 교습방식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 둘 씩 자리를 잡아가고, 내가 열정적으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훨씬 일이 실행되고 났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났다.

‘만약 바너드 여관(포킷 씨의 아들이 머무는 곳)에 있는 내 침실을 그대로 둔다면, 내 삶에 기분 좋은 다양한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또한 허버트(주인공의 친구)와 계속 같이 지낸다 해도 내 시골 풍의 매너들이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리도 없다.’라는 생각.

포킷 씨(허버트의 아버지. 허버트는 주인공의 친구. 허버트는 주인공 중의 한 명)도 이런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내 생각을 이행하기 전에,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 계획이 허버트의 주거비용을 다소 경감해준다는 고찰에서 나온 여림(섬세함)임을 느꼈다.

그래서 자리를 떠 ‘리틀 브리튼(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이름)’으로 가서 재거스 씨(변호사, 주인공의 후견인)에게 내 의사를 알려야했다.

“저를 위해 지금 세놓고 계신 가구들과 하나 혹은 둘 정도의 사소한 물품들을 제가 구입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서 아주 편안해질 겁니다.”

“이해했네!” 재거스 씨(주인공의 후견인, 변호사)가 잠시 웃더니 말했다. “내가 일찍이 말하지 않았나, 자네들이 함께 잘 지낼 거라고. 그래! 얼마를 원하는가?”

나는 대충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서!” 재거스 씨가 그런 내 태도에 쏘아붙이며 말했다. “그래서 얼마? 2천5백만원 정도면 되겠나?”

“아,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백만원?”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런 엄청난 금액 하락에 몹시 당황한 내가 말했다. “제 말은 그러니까 그보단 더 많이요.”

“그보단 많아야한다, 그건가?” 재거스 씨가 느긋하게 내 대답을 기다리며 대꾸했다. 물론 그 특유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며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이고 두 눈은 내 뒤에 있는 벽을 쳐다보면서 그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뭇거리며 내가 말했다.

“자 어서 말해보게!” 재거스 씨가 말했다. “계산해보세. 다섯 장의 두 배(1천만원)는 어떤가? 아님 다섯 장의 세 배(1천5백만원)? 그거면 되겠나? 그도 아니면 다섯 장의 네 배는(2천만원)? 그러면 되겠나?”

나는 그 정도 금액이면 이사비용으로 관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좋아 ‘다섯 장의 네 배(2000만원)’면 넉넉할 거다, 이 말이지?” 재거스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5의 4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냐 이요?”

“허!”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제 생각에는 일천만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야, 내가 말한 금액 따위엔 신경 쓰지 좀 말게.” 재거스 씨

가 짜증스러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이 고개를 발딱 쳐들며 말했 다. “자네가 얼마를 필요로 하느냐고?”

“물론, 일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웨믹(서기)!” 재거스 씨가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다. “핍 씨에게서 지불영수증을 받아두게. 그리고 지금 일천만원을 내드리고.”

이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그의 일하는 방식은 내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물론 기분 좋은 종류의 인상은 아니었다.

재거스(주인공의 후견인, 변호사) 씨는 결코 웃는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삑삑 소리가 나는 밝은 색의 큰 부츠를 신고 있었고, 그 부츠 위에서 자신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큰 고개를 아래로 구부리고서 두 눈썹에 힘을 줘 모으고서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는 이 밝은 색의 큰 구두 위에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며 이따금씩 구두로 삑삑 소리를 냈는데, 이건 마치 그의 구두가 메마르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우연히도 그가 외출하고 없었고, 웨믹(서기)은 활기차고 이야기 하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웨믹에게 “제가 재거스 씨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지를 전혀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했다.

“그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일 겁 니다.” 웨믹(서기)이 말했다. “당신이 그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_\*(놀람)” 그의 말이 갑자기 끊긴 것은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랍니다. 단지 직업, 단지 직업적인 태도일 뿐이에요.” 웨믹은 자신의 책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건조하고 딱딱한 비스 킷을 오도독 오도독 씹고 있었다. 그는 그 비스킷 조각들을 이따금씩 자신의 가늘고 긴 상처 같은 입 안으로 던져 넣고 있었는데 마치 우체

통에 편지 집어넣듯이 말이다.

“저에게도 항상 그러는 걸요.” 웨믹이 말했다. “그는 사람 잡는 함정을 설치해놓곤 관찰을 하죠. 그러다 갑자기 철컥 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느새 당신은 걸려든 거랍니다.”

사람 잡는 함정이 사람을 기분 좋게 응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비평하지 않고, 난 그냥 “제 생각엔, 그가 아주 기술이 좋은 것 같네 요?”라고만 말했다.

“깊이를 알 수가 없죠.” 웨믹(서기)이 말했다. “마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같다니까요.” 그가 펜으로 사무실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행동으로 봐선, 런던 정반대지점에 있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오스트레 일리아 대륙 아니냐는 표시인 것 같았다.

“만약 더 깊은 곳이 있다면.” 웨믹이 펜을 다시 종이 위에 놓으며 덧붙였다. “그건 바로 그(재거스)일 겁니다.”

그때, 내가 “그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웨믹이 대답했다. “최에~고고~죠오(최고죠)!”

그때, 내가 “여기 직원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라고 물었고, 그가 대답하기를.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재거스 씨(주인공의 후견인, 런던 유명 변호사) 혼자만 있으면 되니까요. 의뢰인들도 모두 그와 직접 대면하길 원하죠. 여기 직원은 총 4명뿐입니다. 그들을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당신도 우리 식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나는 그 제안(사무실구경)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웨믹(서기)은 먹고 있던 비스킷들을 우체통(입) 안에 몽땅 털어 넣더니, 금고 안에 있던 돈궤(궤=네모난 나무그릇)에서 나에게 일천만원을 내어준 후, 금고 열 쇠를 의자등받이 아래 어딘가에 살짝 감춰둔 후, ‘나선형 나사 후크(나사식 고리 멈춤쇠)’ 꺼내듯이 자신의 코트 상의 칼라를 위로 길게 내뻗친 후(-\_- 뭔 소린지... 쉽게 옮기려다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말이 되 어버림-\_ㅜ 일단 패스~),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어둡고 허름했다. 계단에도 재거스(변호 사) 씨 집무실처럼 기름때가 껴있었다. 사무실 벽의 어깨높이에 기름때를 남긴 의뢰인들은 마찬가지로 발을 질질 끌며 수년간 계단을 위아래로 밟고 다녔고 그래서 생긴 기름때 같았다.

1층 앞방으로 들어가자, ‘선술집의 주인’과 ‘쥐 잡는 사람’ 중간 어딘가에 해당되는 것같이 보이는 사무원이 한 명 보였다. 그는 엄청 창백하고 임신한 것처럼 몸이 부풀고 물에 퉁퉁 부은 것 같은 몸을 지닌 사나이였다. 그는 초라한 모습을 한 세 명 혹은 네 명 남직한 사람들과 한 바탕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사무원은 사람들을 예의고 뭐고 할 것 없이 인정사정없이 대하고 있었는데 아마 재거스 씨(런던유명변 호사)의 금고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이 선량한 의뢰인들은 죄다 그딴 식 으로 험하게 다루어지는 모양이었다.

“저래 봬도 모여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 웨믹이 설명해주었다. “런던여성교도소(이름이 ‘더 베일러’. 소설의 중요한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교도소’가 복선입니다. 재거스 변호사가 여성교도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중요. 기억해두시면 소설흐름 이해에 좋음. ‘여성’이란 단어 꼭 기억~)에서 곧 재판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 방 건너 방으로 들어가자, 군살(뚱댕이)이 약간 축 늘어진 것 같은 ‘테리어개’(털북숭이 애완견)같이 생긴 사무원 한 사람이 정말이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북슬북슬 흔들어대고 있었다. 자신이 강아지였을 때 깜빡 잊고 불필요한 털을 자르지 못한 테리어개 같았다.

웨믹이 설명해주었다.

“저 사람은 제련업자입니다. 자신의 항아리를 항상 달구고 있죠. 당신만 응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을 녹여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지금 과도하게 땀을 흘리며 펄펄 끓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제련기술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시도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았다.

뒷방으로 가니, 어깨가 높은 한 남성이 더러운 ‘플란넬’(‘면’과 ‘양의 털’을 썩어 만든 가벼운 천)로 안면 신경통에 걸린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낡은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꼭 밀랍(벌이 집지을 때 사용하는 밀랍)을 먹인 옷을 착용한 것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앞서 말한 두 신사’(사무원)가 작성한 문서의 글씨를 또박또박 다시 바르게 적고 있었다. 아마 재거스 씨 본인이 쓸 문서들인 것 같았다.

이것이 건물 내부 전경 모두였다(직원 4명).

우리(웨믹과 주인공)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웨믹이 나를 이끌고 내 후견인(재거스 씨, 주인공의 법률담당 후견인)의 집무실로 갔다,

웨믹이 말했다. “벌써 보셨겠지요.”

“근데요.” 이런 젠장, 흉측하게 생긴 그 두 개의 주물(쇳물을 녹여 만든 사람얼굴모양의 주물)에 그만 또 눈이 가고 말았다. 그 흉측함에 초조해진 내가 주물들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누구의 두상(얼굴)입니까?”

“이것들 요?” 웨믹(변호사 사무실 서기, 45세)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그 비참하고 무섭고 불쾌하게 생긴 두상들 위에 쌓인 먼지들을 “휴” 불어 날려버린 뒤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들은 유명한 인물들을 본 떠 만든 거랍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져다준 고객들이었죠. (두상을 보며) 네 놈(두상)은 야밤에 굴뚝 타고 내려와 잉크 통 안을 엿보았음이 틀림없구나. 네 눈썹 위에 이 얼룩도 그때 번진 거지! 이 늙은 악당아! (주인공을 보며) 하하 그냥 한번 해본 소립니다. 이 자는 사실 자기 주인을 죽인 살인자였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 고려해보더 라도, 이 자의 범행은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그 두상이 그를 많이 닮았습니까?” 내가 그 짐승 같이 생긴 두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이 판국에 웨믹(서기)은 그 두상 이마 위에다 침을 “탁” 뱉더니 자신의 소매로 정성껏 닫아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_\* 오마이갓)

“닮았느냐고요? 웬걸요 똑 같은걸요. 이게 그죠. 아시잖아요. 이 주물은 뉴게이트 감옥(런던의 옛날감옥, 1902에 폐쇄됨)까지 가서 직접 떠온 데스마스크랍니다. 교수형이 집행되자 마자 그 즉시 데스마스크를 떴는걸요. (데스마스크를 보며) 응, 네 놈은 나를 각별히도 좋아했지, 안 그래? 이 교활한 늙은 작자야!”라고 웨믹이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위에 항아리가 놓인 무덤 앞에 ‘수양버들과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 장식 핀을 매만지며, 자신이 왜 이 두상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이걸 그가 만들어주었지요, 각별히!”

“(웨믹의 장식 핀에 있는 여인을 가리키며) 이 숙녀는 누구죠?” 내가 물었다.

“오!” 웨믹이 즉시 반응했다. “웬걸요. 그가 장난친 겁니다. (두상을 쳐다보며) 넌 그녀를 엄청 좋아했지, 안 그래? (다시 주인공을 바라보며) 절대 아닙니다, 핍 씨. 이 여자는 귀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입니다. ‘ㅅ’자도 생각하지 마세오. 호리호리하고 가냘픈 숙녀일 랑은 거리가 먼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홍차주전자에 주의를 기울일만한 여 자도 절대 아니었죠. 홍차주전자 안에 술이 들어있다면야 또 모를까.”

자신의 장식 핀(브로치)에 생각이 닿자, 그는 들고 있던 두상을 내려 놓은 후,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장식 핀을 열심히 닦아주는 센스를 보였다.

“(주인공이 다른 두상을 가리키며) 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최후를 맞이했나요?” 내가 물었다. “그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요.”

“맞습니다.” 웨믹(서기, 45세)이 말했다. “리얼한 표정이죠. 잘 보십시오. 그의 콧방울 한쪽이 ‘작은 낚시 바늘’에 꿰여 ‘말 털 하나’로 들어 올려 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도 같은 종말을 맞이했었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여기선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죠. 그는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빈틈없이 위조했죠. 소위(이른바) 유언자들을 안락사 시키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두상을 쳐다보며) 그렇지만 정말 신사다운 녀석이기도 했었죠.”

웨믹은 관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수사법(말하기)을 사용하며 말하고 있었다.

“(계속 두상을 쳐다보며) 그리스어를 쓸 수 있다고 말했겠다. 예라, 이 뺀질이 같은 사람아!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 세상천지에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도 없을 거다, 예라 이 나쁜 사람아!”

웨믹은 고인이 된 자신의 친구(두상)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기 전에, 망자의 유품으로서 끼고 있는 반지들 중에서 가장 큰 반지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 반지를 사다주었답니다. 사형집행 바로 전날 말이죠.”

그가 다른 석고상을 올려놓고 의자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웨믹의 옷에 달린 모든 장신구들이 모두 그와 같은 출처(미망인의 유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에서 그 주제(미망인의 유품)에 대한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모험하듯 조심스럽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건 그가 내 앞에 서서 자신의 두 손에 묻은 먼지를 닦아낼 때였다.

“오 그거요.” 그의 대답이 돌아왔다. “예 맞습니다. 이것들(웨믹의 장신구들)은 모두 그런 종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가 모이니까 또 하나가 모이더군요. 늘 그런 식이었죠. 전 항상 얻어왔고 그리고 진기하기도 하고요. 혹 모르죠. 나중에라도 재산이 될지. 하지만 지금 봐선 그렇게 값나갈 것 같진 않지만요. 어쨌든 값도 나가 보이고 휴대할 수도 있으니 착용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당신 같은 젊은이(25세)들이 보기엔 사소해보일 수 있겠지만 제(45 세)겐 아니거든요.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일단 거머쥐고 보라’가 제 ‘길잡이 별’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그의 생활신조에 존경을 표시하자, 그가 예의 그 친근한 태도로 다시 얘기를 계속했다.

“혹시라도 더 나은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때에, 실례가 되 지 않는다면 저희 집을 한 번 방문해주시겠습니까.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런던 한 가운데에 있음)에 위치해있습니다. 당신께 저희 집 침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별로 없지만, 당신이 잠깐 짬을 내서라도 구경해주셨으면 하는 2~3가지 골동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꾸는 ‘아주 작은 뜰 하나’ 와 ‘정자(정원의 정자)’도 있고요.”

나는 그런 후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씀드렸다.

“과찬이십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께서 편리한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라 생각해두겠습니다. 아직 재거스 씨(변호사)가 정찬(코스요리)을 대접한 적은 없으시죠?”

“예, 아직요.”

“글쎄요.” 웨믹(서기)이 말했다. “재거스 씨가 조만간 와인을 대접하실 겁니다. 꽤 괜찮은 와인이죠. 저는 당신께 펀치(펀치=술+설탕+우유

+레몬+향료, 네이버검색참조)를 제공하겠습니다. 썩 나쁘진 않은 펀치죠. 그건 그렇고 중요한 얘길 하나 해드릴까요. 재거스 씨 집에 초대받아 가실 때, 그의 가사도우미를 유심히 살펴봐주십시오.”

“가희 희한한 뭔가 라도 보게 될 거란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웨믹이 말했다. “야수가 길들여진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흔치 않은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려든 참이시죠. 그럼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야수가 본래 지니고 있던 야생성에 달린 문제이며 그 길들여짐의 총량에 달린 문제라고요. 재거스 씨의 권력을 결코 당신은 무시하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꼭 눈여겨봐주십시 오.”

그가 각오를 일깨워주다 보니, 나도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잔뜩 느끼 고 꼭 그러겠다고 말했다.

대화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출발지(웨믹의 책상)로 와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아 참, 5분이면 되는데. 어떻게 재거스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리고 재거스 씨(런던 유명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정도는 알아둬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재거스 씨를 보러가는 것에 찬성했다.

우리는 시티오브런던(행정구역이름. 런던 심장부임. 시티오브런던 아 래쪽으로 템스 강이 흐름)으로 향했다.

우리는 사람들로 분비는 즉결 심판소(경범죄자 다루는 심판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기발한 취미로 웨믹의 장식 핀을 만들어 주었던 두상(데스 마스크)의 주인과 마치 혈족 관계인 것 같이 살기등등하게 생긴 자가 법정 난간에 서 있었다. 그는 기분이 언짢은지 뭔가를 “쩍쩍” 씹으며 으깨고 있었다.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은 어떤 여성에게 심문 혹은 반대 신문을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의 신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심문은 그녀에게 현저한 타격을 끼쳤고, 법관은 물론 법정에 있던 모든 이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누군가가 재거스 씨가 인정하지 않는 한 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재거스 씨는 즉시 그것을 “기록해둘 것”을 서기에게 요구했다.

또한 누군가가 시인을 하지 않으려 하면, 재거스 씨는 “내 반드시 당신에게서 시인을 받고 말겠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 시인을 하면, 재거스 씨는 “당신이 시인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오!”라고 말했다.

재거스 씨가 자신의 집게손가락 옆을 깨물 때마다 치안판사들은 와 들와들 떨었다.

재거스 씨가 세치 혀를 놀릴 때마다 ‘도둑들’과 ‘도둑 잡는 순경들’ 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버티고 서서 재거스 씨의 눈썹 한 가닥이라도 자신들 쪽으로 향할 것 같으면 놀람과 충격으로 움츠러들었다.

재거스 씨가 여자 쪽 편인지 남자 쪽 편인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내가 봤을 때 재거스 씨는 법정을 통째로 제분기에 넣고 가루로 만들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 자리를 몰래 빠져 나올 때, 다만 재거스 씨가 치안판사들 편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날 법정에서 ‘영국의 법과 정의’의 대표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늙은 신사를 공공연하게 비난함으로써, 법정의 사회를 주재하고 있던 늙은 신사가 겁을 집어 먹고 책상 아래에서 그의 두 다리가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판사가 겁을 먹었다. 판사의 두 다리에 경련이 났다-\_-; 심플~).

**위대한 유산**

**25장**

벤틀리 드러믈(얼굴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몸이 빌딩처럼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젊은이, 주인공의 철저한 라이벌)은 매사에 뭔가 못 마땅하고 성난 빛이 있는 친구였다. 심지어 녀석이 책을 읽을 때도 소설가가 그에게 상처라도 입히는 듯 부루퉁하게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남들과 선뜻 친해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외모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해력도 그렇고 뭔가가 둔했다. 심지어 얼굴 안색까지도 둔한 데가 있었다. 침실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자 신만큼이나 그의 입안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것 같은 크고 어색한 혀 또한 뭔가 둔했다.

그는 나태하고 거만했으며 인색(구두쇠)했다. 또한 말 수가 적었고 내성적이며 의심이 대단히 많았다.

그는 서머셋(영국 남서부의 주) 주의 어느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다. 앞서 말한 특질들의 결합체인 그는 이 부유한 가문에서 보살펴지다가 정확히 그가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녀석이 실은 바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리하여 그가 포킷 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을 때 그리고 다른 영 국신사들보다 6배는 더 멍청했을 때, 그는 포킷 씨(신사교육 담당 가 정교사)에게 오게 되었다.

스타톱(주인공의 동료)은 마음이 여린 엄마 품에서 응석받이로 자라 버릇이 좀 없었다. 아마도 그가 학교에 보내져야 할 시기에도 과보호를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애정만큼은 상상초월이었다. 스타톱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마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선지 몰라도 스타톱은 어딘가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다. 섬세하다고 해야 할까?

“녀석의 어머님을 뵙지 않아도 꼭 뵌 것 같이 느껴질 거야. 자신의 어머님처럼 생겼거든.”라고 허버트(주인공의 친구, 착함)가 내게 말해 주었듯이 말이다.

이러니, 내가 드러믈(라이벌)보다는 스타톱(친구)을 더 많이 좋아하 게 된 것은 너무 당연했다.

심지어 첫 ‘카약킹’(노젓기)이 있던 날 초저녁에 이미, 허버트와 내가 집(허버트 아버지의 집)쪽으로 향해 옆으로 나란히 노를 저어가며 카약(카누) 너머로 대화를 나누었던데 반해, ‘벤틀리 드러믈’(몸집이 커고 둔한 인물, 주인공의 라이벌)은 돌출된 뚝(제방)들 사이에 난 골풀 (높이 50~100cm의 풀)들 사이로 우리 카약이 지나온 길을 따라 혼자 서 노를 저으며 떨어져서 따라왔다.

그곳은 물이 얕은 곳이었다. 그럼에도 드러믈은 어기적거리며 노를 젓고 있었는데 꼭 어떤 불충한(불쾌한) 도마뱀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불쾌했다. 그의 어기적거리는 노 젓기는 밀물이 밀려와 그의 카약(카누)을 그의 배 진행방향으로 밀어주었음에도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지금도 그를 떠올릴 때면, 우리(주인공과 스타톱)의 두 카약(카 누)이 강물 한 가운데에서 저녁노을과 달빛을 깨부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어둡고’ ‘후미진’ 강 어딘가에서 우리를 향해 뒤쫓아 오고 있던 그의 모습이 항상 생각나곤 한다.

허버트(친구)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내 카약(카누) 1/2의 권리를 선물했고, 그래서 그도 종종 해머스미스 (런던서쪽 템스 강 옆)로 내려오곤 했다.

그리고 그의 방들에 대한 1/2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던 나도 때때로 런던(허버트의 여관집)으로 올라가곤 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곳(집과 여관) 사이를 걸어 다니곤 했다. 나는 아직도 그 길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뭐랄까 감동을 잘하고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던 내 젊음과 희망에서 형성된 애정이었다. 비록 지금은 그 길이 예전만큼 즐겁지 않지만 말이다.

내가 포킷 씨(허버트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한 달 혹은 두 달 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카밀라(사기꾼 부부, 11장 참조) 부부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카밀라(수다쟁이 여자)는 포킷 씨의 여동생이었다.

내가 미스 해비샴의 집에서 같은 날 보았던 조지아나(엄숙한 표정의 여인, 11장에 등장, 안 중요한 인물임)란 여자도 나타났는데, 그녀는 포킷 씨의 사촌이었다.

조이아나는 소화불량에 걸린 노처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엄숙함을 종교라고 부르고 자신의 독신을 사랑이라 불렀다.

이 사람들은 나를 싫어했다.(11장 #3, 부자인 미스 해비샴이 자신들보다 주인공을 놀러오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싫음) 그것은 탐욕(돈)과 낙담(돈)에서 유발된 증오였다.

당연히, 그들은 부자가 돼있는 나를 보고 천박하고 또 천박하게도 꼬리를 치며 다가왔다.

반면 포킷 씨(주인공의 개인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미스 해비샴에게서 돈 받기)에는 전혀 눈치코치도 없는 애 어른으로 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런 포킷 씨를 용서해준다는 자기만족적인 관대함을 보였다. 내가 일찍이 미스 해비샴의 대기실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포킷 씨 부인을 업신여겼다. 하지만 ‘포킷 씨 부인’이 생에서 격심한 낙담을 경험한 가여운 영혼이라는 사실은 그들도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러한 수긍이 그들 자신에게 미약하나마 위안의 빛을 비추 어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정착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의 주변 환경이었다. 나는 곧 비용이 많이 드는 버릇들에 물들었다. 겨우 2~3 개월 전까

지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라 생각했을 것임이 분명한 금액들을 마구 써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의에서든 악의에서든 책 읽기는 꾸준히 지켜나갔다. 내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내 부족함 점에 대한 충족에의 갈망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었음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포킷 씨(허버트의 아버지)와 허버트(주인공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빠르게 주변상황들에 적응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사람 혹은 또 다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머물며 내 부족한 점을 북돋아주고 내 앞길에 놓인 장해물들을 제거해주는데, 만약 내가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 덩치가 커고 둔한 못된 인물)보다 못한 진척을 보였다면 나는 드러믈만큼이나 엄청난 얼간이임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나는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을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들자 그에게 메모 한통을 보내 이런 제안을 했다.

“어느 날 저녁때쯤 집에 찾아가면 안돼여?”

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는데 내 제안에 기뻐죽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나에게 오늘 저녁 6시까지 사무실 앞으로 와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추신으로 남겼다.

나는 그쪽(런던)으로 넘어갔다. 웨믹을 찾았다. 웨믹(변호사 사무실 서기 와 돈 관리)은 자신의 금고 열쇠를 의자 등 아래쪽에 놓아있었다.

그때 시계가 6시를 쳤다.

“어떻게 한번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정확히 런던 한 복판, 웨믹의 집)까지 걸어가 볼까요?” 라고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요.” 내가 말했다. “당신만 승낙하신다면 요.”

“고맙습니다.” 웨믹의 대답이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종일 사무실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면 이 놈들도 스트레 치(뻗기)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저녁식사로 무얼 마련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핍 씨, 어떻습니까? 약한 불에 살짝 찐 쇠고기 스테이크, 집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 위에 구운 후 살짝 식혀둔 닭고기, 요건 요리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고기가 부드러울 겁니다. 그 가게 주인이 최근에 우리가 맡았던 몇몇 사건들의 배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를 배심원 명단에서 살짝 빼주었죠. 닭고기를 살 때 제가 그 일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녀석으로 골라주게, 영감, 우리가 자넬 배심원 석에 하루나 이틀 더 머물도록 만 들지 말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 그런 일쯤이야 우 리들에겐 쉬우니까.’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가게에서 최고로 좋은 놈으로 당신께 선물드릴 수 있도록 해게나.’라고 요. 물론 전 그러마라고 했지요. 어느 정도는 닭고기도 소유와 운반이 가능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다만 제 바람이 있다면, 당신께서 제 나 이 드신 부모님 한 분을 꺼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닭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말에 나는 필요한 말을 공손하게 해드렸다.

“그러니까, 재거스 씨(변호사)와는 아직 식사를 같이하지 않았군요?” (←웨믹의 대사임)

우리가 걷는 동안 그가 말을 이어갔다. “아직 은요.” 내가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오신다는 얘길 그도 들었답니다. 그 얘기를 꺼내더군요. 아마 내일쯤이면 당신을 초대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도 같이요. 하숙하는 학생들이 모두 3명이 라죠, 아닌가요?”

이런 젠장, 난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을 한시도 내 절친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 친구들 모두를 데려오라고 하실 겁니다.”

나는 친구들 모두라는 말이 전혀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든 좋은 걸로 당신들에게 대접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기대하진 마십시오, 다만 꽤 훌륭한 저녁식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엔 묘한 게 하나 더 있죠.”

아주 잠깐 그가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우리가 가정부 얘기를 마치 했다는 듯이, 웨믹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재거스 씨는 문과 창문을 잠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밤에도 말이죠.”

“절대 털리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_-; 정말 단어 선택하곤, 내가 했지만 쯧쯧 .\_.)

“바로 그겁니다!”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 및 출납담당직원)이 대답했다.

“그도 공공연히 하는 말이니까요. ‘감히 내 집을 도둑질해, 흥 어느 놈이 그럴 수 있는지 보고야 말겠다.’라고요. 주님의 가호가 있기를. 제가 그에게서 들은 것만 쳐도, 한 수백 번은 더 될 겁니다. 항상 우리 사무실 앞에서 그가 상습도둑들에게 말하죠. ‘내 집이 어딘지 알겠지, 자, 난 한 번도 빗장을 건 적이 없어. 어때? 내 집도 한번 털어보시지? 자 어서, 왜 못하겠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핍 씨, 재거스 씨가 아무리 부추겨도 그놈들 중 아무도 그걸 시도하진 않더군요. 아무리 해도 말이죠. 그 정도로까진 대담하지 않았던 거죠. 도둑들이 말입니다.”

“도둑들이 그렇게 그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말했다.

“그를 두려워하냐고요?” 웨믹이 말했다. “물론 두려워하죠. 재거스 씨가 꾀를 부리는 것도 압니다. 비록 그가 도둑들을 향해 도발을 하지만, 실은 그의 집에 은쟁반은 하나도 없거든요. 핍 씨, 아시겠지요? 수저도 죄다 ‘브리타니아 합금(백랍 수저=흰색 합금=주석+구리. 저렴함)’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이 얻을 게 많지 않겠군요.” 내(25세 남주인공)가 논평했다. “물론 그들이 훔칠 수만 있다면….”

“아~! 그렇죠, 하지만 재거스 씨가 얻을 건 많죠.”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 45세)이 내 말을 살짝 자르며 말했다.

“도둑들도 아는 거죠. 재거스 씨가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걸, 수십 명의 목숨을 말입니다. 도둑이 들면 재거스 씨는 가질 수 있던 것을 모두 가질 것이고, 재거스 씨가 의향만 있다면 이번엔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죠.”

웨믹이 다시 말을 꺼냈을 때, 난 내 후견인의 위대함에 대해 명상에 빠져 있었다.

웨믹이 다시 말했다.

“접시가 왜 없나 면, 그건 그의 내면의 깊이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강이 타고난 깊이를 가지듯, 재거스 씨도 자신만의 내면의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시계 줄 보셨나요? 그건 진짜랍니다.”

“아주 크고 무거워 보이던데요.” 내가 말했다.

“크고 무겁다?” 웨믹이 대꾸했다. “동의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반복 타종 시계죠. 돈으로 따지면 아마 5천만 원은 족히 될 겁니다. 핍 씨 (주인공이름, 25세), 런던 시내에서 이 순금시계에 대해 알고 있는 도 둑들이 대략 7백 명은 된답니다. 그 자들은 재거스 씨의 순금시계 쇠 사슬에 달린 가장 작은 고리 하나도 식별해내지 못할 남자, 여자,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재거스 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시계에 손을 댄다면, 그 순간 시계가 시뻘겋게 달라 올라 도둑들이 시계를 떨어뜨리고 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담소(재거스 씨)를 나누면서, 나중에는 보다 일상적인 얘기들을 나누면서, 웨믹 씨와 난 시간도 잊은 채 거리도 잊은 채 걸었다.

웨믹 씨가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런던 한 복판임, 웨믹의 집)에 거진(거의) 다 도착했군요.”라고 말해줄 때까지 말이다.

(재거스 씨의 사무실과 집 그리고 웨믹 씨의 집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음. 런던 시내 한 복판임, 주인공이 하숙을 하고 있는 포킷 씨의 집도 당시 기준으로 런던 인근이지 지금은 모두 런던시내임. 아닌가?~

.\_.)

월워스(웨믹의 집과 그 주변풍경)는 어둡고 좁은 길들과 도랑들과 작은 정원들로 이루어진 곳이었다. 상당히 재미없고 한적한 인상을 주 고 있었다.

웨믹의 집은 목재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었다. 정원으로 구획된 작은 터 한 가운데에 집이 있었다. 지붕 꼭대기는 마치 대포들을 장착한 포병 중대처럼 나무를 잘라 모양새를 내고 색이 칠해져 있었다.

“제가 직접 지은 집이랍니다.” 웨믹이 말했다. “쓸 만해 보이시지 않 나요?”

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작은 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괴상한 고딕양식의 창문들(중세시대 교회건 물의 창, 창살이 있는 창문)과 안으로 들어가기엔 턱없이 작은 고딕양식의 정문을 가진 집이었다. 단연컨대 창문들 중 많은 부분이 가짜창 문이었다.

“저건 진짜 깃대랍니다, 보이시죠.” 웨믹이 말했다. “일요일이면 전 진짜 깃발 하나를 높이 매달아 놓지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이 다리를 건너간 후,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전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 해버리죠.”

그가 말한 다리는 두꺼운 판자 한 짝이었다. 그것은 폭이 대략 1.2미터 깊이가 대략 0.6미터쯤 되어 보이는, 땅 속 ‘틈’을 가로지르며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가 판자를 빠르게 감아올리는 것이며 그 일을 하는 동안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그의 긍지가 느껴졌다. 또한 그가 짓는 웃음은 단순한 기계적 웃음이 아니 었다. 정말로 흥미로운 일을 하는 자의 웃음이었다.

“그리니치 시간(세계의 기준시간)으로 매일 밤 9시면요.” 웨믹이 말했다. “대포를 발사하죠. 저기 보이시죠. 저기 말입니다. 당신도 한 번 들어보세요, 제대로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실 걸요.”

그가 말한 대포는 격자 모양을 한 별도의 요새 안에 장착되어 있었다.

정교하게 만든 작은 선원용 외투가 우산과 비슷한 기능을 하며 비바 람으로부터 대포를 보호하고 있었다.

“게다가 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웨믹이 말했다. “집의 요새화란 개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후방에 두었죠. 마음먹은 걸 행동으로 옮기고 버텨라 제 인생철학이거든요. 당신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물론 저도 동의해요.” 내가 말했다.

“집 뒤에서 돼지 한 마리와 닭들 그리고 토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조그만 프레임(뼈대)들을 이어서 이렇게 오이들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샐러드용 생야채를 가꿀 수 있는지는 이번 저녁 식사 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핍 씨.”

웨믹이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었다.

“이 조그만 곳이 포위공격을 받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만약 음식 제공의 측면에서라면 이곳은 적이 아주 골치 아플 정도로까지 오랫동안 버텨낼 겁니다.”

그러더니 나를 이끌고 10미터 정도 떨어진 나무그늘로 안내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도 정교하게 꼬여 있어서 그곳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은거 처(은신처)에는 우리를 위한 잔이 놓여 있었다. 장식용(인 공)호수에 우리를 위한 펀치(펀치=술+설탕+우유+레몬+향료, 네이버검 색참조)도 하나 차갑게 유지되고 있었다. 장식용 호수 가장자리 위에 나무 그늘이 세워져 있었다.

이곳의 물은 원형을 그리며 순환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는 섬이 하나 있었고, 크기가 저녁 식사 자리에 올릴 샐러드용 생야채 크기쯤 되어 보였다.

섬 안에는 분수도 하나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만든 분수 같았다. 우리가 자그마한 방앗간을 작동 시키고 파이프에서 코르크 마개 하나를 쏙 빼면, 그 분수가 힘차게 확장해 내 손을 아주 많이 적시고 다시 줄어들 정도는 되었다.

“엔지니어(기계공)도 되면서 목수도 되면서 배관공도 되면서 정원사도 되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만물박사처럼 요.” 내가 칭찬하는 말을 받아들이며 웨믹이 말했다.

“만족한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뉴게이트 감옥(런던의 유명한 옛날감옥)’의 흔적도 지울 수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제 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아뇨 저도 만나 뵙고 싶었어요.”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성곽 안(집안)으로 들어갔다.

플란넬 외투(표면에 솜털이 있는 외투. 모직물의 일종)를 입은 아주 연로한 노인 한 분이 난로가 옆에 앉아 계셨다. 깨끗한 모습이셨고 약 간 유쾌하게 약간은 편안하게 그렇게 잘 보살펴지고 있는 분이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귀가 몹시 안 들리시는 것 같았다.

“꽤 나이 드신 분이시죠.” 웨믹이 말했다. 그런 후 웨믹은 아버지와 진심어린 악수를 나누며 익살맞은 어조로 말했다.

“어떠셨어요?”

“오 그래, 존(웨믹의 애칭). 모두 괜찮다!” 노인이 대답했다.

“(큰 소리로) 이 분이 핍 씨세요, 아버님.” 웨믹이 말했다. “(큰 소리로) 핍 씨 이름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핍 씨, 아버님께 고개를 끄떡여드리세요.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실례가 안 된 다면 윙크(눈짓) 하듯이 고개를 많이 끄떡여드리세요!”

“(주인공을 향해 큰 목소리로) 이곳은 제 아들놈이 지은 훌륭한 집이랍니다, 선생님.” 내가 가능한 한 열심히 고개를 끄떡여드리는 동안 노인이 외쳤다.

“(주인공을 향해 큰 목소리로) 아주 아담한 유원지랍니다, 선생. 이 장소와 이 아름다운 물품들은 제 아들놈이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국가에 의해 유지돼야 해요.”

“(주인공에게) 이곳이 아주 자랑스러우신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렇죠? 아버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딱딱한 얼굴이 이내 부드러워졌다. “(큰 소리로) 고개를 끄떡여드릴게요.”라며 웨믹이 엄청나게 큰 동작

으로 고개를 한 번 끄떡여드렸다.

“(큰 소리로) 한 번 더요.” 좀 전보다 더 큰 동작을 취하며 그가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주인공에게) 아 괜찮으시다면, 당신도 저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핍 씨? 첫 방문에 너무 피곤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가볍게 한번 더 고개를 끄떡여주실래요? 그게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나는 몇 차례 더 고개를 살짝 끄떡여드렸다. 아버님은 기분이 아주 좋아보였다.

닭들에게 먹이를 주려는 아버지의 기분을 북돋아준 후, 우리는 나무 그늘의 휴식 장소로 가 자리를 잡고 펀치(=설탕 술+우유+레몬)를 마셨다.

어느 정도 마신 후 웨믹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내게 말했다. “한두 푼씩 모아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는데 꽤 여러 해

가 걸렸습니다.”

“당신 집(소유)인가요, 웨믹 씨?”

“오, 그럼요.” 웨믹이 말했다. “시간을 조금씩 나눠가며 땅을 알아봤죠. 이 토지는 정확히 조지(웨믹)의 땅입니다. 암요!”

“정말요? 재거스 씨도 반하겠는데요.”

“그는 아직 이 집을 모릅니다.” 웨믹이 말했다. “들어본 적도 없는걸요. 그는 제 아버님을 뵌 적도 없고, 제 아버님에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전혀요. 사무실은 사무이고, 사적인 공간은 사적인 공간이죠. 전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이 성(집)을 뒤에 남겨두고 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성(집)으로 돌아와야 할 때는 사무실을 제 뒤로 남겨두고 오죠. 불쾌한 부탁이 아니시라면, 전 당신께서도 이 집을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무실에 소문이 나는 걸 원치 않거든요.”

나는 당연히 그의 요구를 엄수해야겠다는 선의의 감정을 느꼈다. 펀치(=설탕 술+우유+레몬)의 맛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얘기하며 마시며 하다 보니 어느덧 밤 9시가 다 되어 있었다.

그때 웨믹이 자신의 파이프(담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포 쏠 시간이 가까워졌군요. 노인장(웨믹의 아버지)의 기쁨이죠.”

성(집)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장이 부지깽이에 불을 댕기고 계셨다. 밤마다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며 그는 기대에 차 있었다.

노인장에게서 빨갛게 달군 부지깽이를 받아 진지(대포 있는 곳)로 갈 시간이 될 때까지 웨믹은 손에 쥔 시계를 내려다보며 옆에 서 있었다.

웨믹이 부지깽이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

곧 “쾅!”하며 귀청을 때리는 큰 굉음이 울려 퍼졌다. 어찌나 소리가 커든지 이 작은 사각형 집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는 줄 알았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유리컵들과 찻잔들이 “윙!”하고 울 렸다.

이를 계기로, 내 생각에 두 팔꿈치로 자신의 안락의자에 단단히 붙여 있지 않았다면 방금 전 대포소리에 날라 가셨을 것 같은 이 노인장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쏘았다! 녀석이 쏘았어!”

나는 이 노신사에게 고개를 끄떡여주었다. 내가 하도 많이 고개를 끄떡여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단지 비유만은 아니다.

대포 쏜 시간과 저녁 식사 시간 사이에, 웨믹은 헌신적으로 진기한 수집품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대개 흉악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물건들이었다. 예를 들면, 악명 높은 문서 위조에 사용되었다는 펜, 예리한 면도날 하나 또는 두 개, 누군가의 머리채(머리털)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이후 손으로 썼 다는 어느 자백서들 여러 장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 자백서들에 대해, 웨믹 씨(변호사사무실 서기 및 출납담당직원)는 그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가며 “하나하나가 죄다 거짓말들뿐입니다, 핍 씨.”라고 말했지만, 그 이유(죄다 거짓말)로 인해 그는 이 거짓 자백서들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듯했다.

이 수집품들은 ‘중국 도자기와 유리잔을 본 떠 만든 작은 견본들 사이와, 이 장식장의 소유자가 만든 것 같은 다양하고 솜씨 좋은 물건들 사이와, 노인장이 조각한 몇몇 스토퍼(파이프에 담배 채워 넣는 기구) 들 사이’에 기분 좋게 분산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 모두는 내가 처음으로 안내받았던, 성(집)의 방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 방은 일반적인 거실로도 쓰이고 부엌으로도 쓰이는 방인 것 같았다.

방 안 ‘요리판 위’에 놓인 ‘스튜 냄비’(소스 냄비)를 보건대 그랬다. 벽난로 위에는 ‘고기 굽는 꼬챙이 회전기’를 정지시킬 때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놋쇠공구도 하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로 판단해보건대 이 곳은 거실과 부엌 공용임이 틀림없었다.

방안에는 그날 노인(웨믹의 아버지)을 돌보았던 말쑥한(솜씨 좋은) 여자아이도 하나 있었다.

그 애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쳤을 때, 그 여자애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내려졌다. 밤이 늦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저녁식사는 훌륭했다. 비록 성 안(집 안)이 다소 건조하고 부식되어서 음식에 상한 견과(땅콩) 맛이 나고, ‘꿀돼지 우리가 좀 더 부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했지만, 난 그 날의 저녁식사 전부를 진심으로 즐겼다.

그리고 웨믹이 내게 제공해준 성(집) 꼭대기 작은 침실엔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다. 내 머리와 깃대 사이에 있던 천장이 너무 얇아서, 내가 밤새도록 내 이마 위에서 깃대막대기의 균형을 유지해야 될 것만 같았지만 말이다.

아침 일찍 웨믹이 내 방까지 올라왔다. 미안하게도 웨믹이 내 구두를 닦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 웨믹은 정원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내 방 고딕창문(중세 유럽의 교회 창문. 창살 있는 창문)을 통해, 나는 아버지께 일을 시키는 척하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자신의 아버님을 향해 고개를 끄떡여주고 있 었다.

아침식사는 저녁식사만큼이나 훌륭했다.

정확히 8시하고도 30분 더 흐른 후 우리는 ‘리틀 브리튼’(런던 북서 쪽에 있는 거리이름)을 향해 출발했다.

걸어가는 동안, 사무실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웨믹은 점점 말이 없고 표정은 굳어져 갔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우체통(입) 안으로 단단히 조여졌다.

마침내, 우리가 사무실 앞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가 외투 깃(목 부위)에서 열쇠를 꺼냈을 때, 그는 월워스(웨믹의 집)에 놓아두고 온 자신의 집을 깡그리 잊은 것 같이 보였다.

그건 마치 자신의 성(집)과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와 나무그늘과 아래 정자와 호수 그리고 분수(샘)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쾅!”하는 대포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모두 날려 보낸 것만 같았다.

**위대한 유산**

**26장**

그러리라고(재거스 변호사가 주인공을 집으로 초대할 거라고) 웨믹 (서기)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의 집’과 ‘내 후견인의 출납원이자 서기인 웨믹의 집’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 회를 일찍 가지게 되었다.

내 후견인은 집무실에서 향내 나는 비누로 손을 씻고 있었다.

내가 월워스(웨믹의 공간=친밀한 공간)에서 사무실 안(재거스의 공 간=공적인 공간)쪽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재거스 씨가 나를 자기 쪽으로 불러 더니, 웨믹이 말한 대로, 나와 내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네.” 그가 조건이랍시고 얘기했다. “야회복 재킷(007이 입는 양복과 나비넥타이)도 필요 없네. 그래 내일 어떤가.”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라고 내가 묻자, 왜냐하면 난 도대체 그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사무실로 오게. 내가 자네들을 집까지 안내하지.”

나는 믿는다. 그가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은 미처 우리들보고 어디로 오라고 할지 생각하지 못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반발심이었다.

여기서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다. 내 후견인은 자신의 의뢰인을 돌려보낼 때마다 손을 씻더라는 얘기 말이다.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을 외과의사 혹은 치과의사로 여기는 듯 했다.

그의 집무실에는 손 씻기를 위한 장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벽장이 하나 있었다. 그 벽장 안에는 향수 가게에서 갓 구입한 것처럼 향기로운 비누냄새가 났다.

그 벽장(세면대)에는 별나게 큰 회전식 타월(수건)이 롤러에 걸려 있었다. 물론 롤러는 문 안쪽에 달려 있었다.

그는 손을 씻은 후, 이 회전식 타월 곳곳에 손을 비벼가며 물기를 말렸다.

그는 즉결 심판소(경범죄자용)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그리고 의뢰인에게 퇴거명령을 내린 직후에도 어김없이 이 벽장으로 가 손을 씻었다.

다음날 저녁 6시에 나와 내 친구들은 그의 사무실로 갔다.

오늘은 그의 사건이 평소보다 더 암울한 양상을 뛰었을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갔을 때, 그가 손만 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장(세면대) 속에 머리를 대고서 얼굴까지 씻고 목안을 헹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세면을 다 마치고 회전식 타월을 돌돌 말아가며 닦고 나서, 작은 주머니칼을 꺼내 손톱에 낀 때(사건)를 문질렀다. 그런 후 코트 상의를 입었다.

우리들이 거리로 나갔을 때 늘 그렇듯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내 후견인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 했다.

하지만 내 후견인의 영혼을 돌고 있는 비누향기 나는 광륜(천사머리 위 하얀 원)이 너무나도 단호했기 때문에(인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날의 기다림을 그렇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서쪽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동안, 거리에 있던 군중들(사람 들)속에서 내 후견인을 알아보는 몇몇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후견인은 내게 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결코 누군가를 알아본다거나 또한 자신을 알아본 그들에게는 추호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소호(런던의 어느 타운이름)에 있는 제라드 거리’(당시엔 런던 서쪽에 있던 한적한 거리였음. 지금은 런던 중앙에 위치) 남쪽에 있는 어느 주택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같은 종류의 집 치고는 격식을 갖춘 다소 으리으리한 집이었다. 다만 슬프게도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창문도 좀 많이 더러웠다.

그가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다. 우리 모두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은 돌로 지어져 있었다. 하지만 현관 자체는 횅댕그렁하고(허전하고) 약간 음침하고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그렇게 우리는 어두운 갈색 계단들을 밟으며 올라갔다. 2층에 어두운 갈색 방이 세 개 연달아 있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합판으로 된 벽들 위에 화환(꽃)들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는 그 화환들 사이에 서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화환들이 어떤 종류의 고리들을 닮았다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기억난다.

정찬(코스요리)은 이 세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에 마련되어 있었다. 옆방은 옷 방(드레스 룸)이었고, 그 옆방은 침실이었다.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변호사)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집 전부를 소유하고 있네만 은, 이 세 방외에는 거의 사용 못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식탁은 기분 좋게 놓여있었다. 물론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이 말한 것처럼 은 식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의 좌석 옆에는 널찍한 ‘식사 운반용 손수레’가 놓여 있었다. 손수레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술병들’과 ‘마개 있는 유리병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후식을 위한 과일 접시도 4개 놓여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있었다. 그가 모든 음식들을 자신의 손 가까이에 두고서 모든 음식들을 자신이 직접 분배했기 때문이다.

방에는 책꽂이도 하나 놓여있었다. 책등을 보고서 그 책들이 ‘증언, 형법, 범죄의 역사, 재판들, 의회의 법령들, 혹은 그와 유사한 종류의 책들’임을 알았다.

방안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견고해보였고 우수해보였다.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명품 ‘회중시계의 쇠줄(5천만 원짜리)’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들 가구들은 사무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고, 순수하게 장식 적인 측면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한쪽 구석에는 서류들과 ‘갓을 씌운 전등’이 놓여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선, 역시 그도 사무실 일을 집으로 가지고 와 밤에 보면서 계속 일에 몰두하는 것 같았다.

(잠깐 앞뒤설명 : 아직 등장인물 4명이 식사를 하기 전입니다. 재거스 씨와 주인공과 허버트는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재거스 씨는 드러믈과 스타톱을 오늘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 재거스 씨는 내 세 명의 동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나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그가 종(음식 가져오라는 종)을 울린 후 ‘난로 앞에 까는 깔개’ 위에 서서 내 세 명의 동료들을 살피는 듯 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놀랍게도 그는 곧 드러믈에게 주된 관심을 보였다. 그게 아니라면 오직 드러믈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핍.” 재거스 씨가 자신의 큰 손을 내 어깨 위에 얹으며 나를 창가로 이끌면서 말했다.

“저 둘(드러믈과 스타톱)을 구별하지 못하겠군. 그래 저 거미 같은 친구는 누군가?”

“거미라뇨?” 내가 말했다.

“저기 저 친구 말이네, 온 사방으로 골이 나 있는 저 얼룩이 친구 말일세.”

“벤틀리 드러믈(남작의 둘째아들)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얼굴이 섬세하게 생긴 애는 스타톱(주인공의 친구. 절친은 아님)이구요.”

얼굴이 섬세하게 생긴 애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그가 말했다.

“벤틀리 드러믈? 그게 저 친구 이름인가? 그 표정한번 마음에 드는군.”

재거스 씨는 즉시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재거스 씨는 드러믈이 세련되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바로 그 이유들로 인해 드러믈에게서 강제로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을 첫 번째 요리를 들고서 가사도우미가 그들과 나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대략 40살 정도의 나이였다. 아니면 내가 그녀를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보았는지 모른다. 다소 큰 키에, 유연하고 날렵한 외형의 그녀는 극도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큰 눈들은 시들어 있었지만 풍성한 머리 결만은 찰랑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어떤 병적인 애착이 있는지 두 입술을 떨어뜨린 채 새근거리고(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하고도 돌연한 그러면서도 내면의 동요가 날개 돋친 듯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상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분명 그 하루 전 혹은 이틀 날 밤에, 「 맥베스 」 (셰익스피어 비극. 주인공 맥베스가 친척-스코틀랜드 왕-을 죽이고 그 부인과 왕국을 차지했다가 결국 죄의식에 미쳐 자신도 죽고 주변 인물도 죽는다. 아닌가?-\_-;; ‘갈팡질팡하던 한 개인이 순간의 감정에 굴복해 악을 범하고 고통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맥베스라는 연극에서 악행을 저지르다 고통 받는 맥베스라는 주인공이 아니라, 가사도우미의 얼굴을 보자 왠지 그 주인공을 파멸로 몰아넣으며 반역을 하라고 부추긴 악한 마녀의 얼굴이 생각나더라는 내용이 『 위대한 유산 』 26장의 줄거리입니 다.-\_-;; 남자를 파멸로 몰아넣은 여자~ 밑줄~ 횡설수설~)라는 연극을 보았음을 기억한다.

게다가 그 가사도우미의 얼굴은, 마녀들의 가마솥에서 솟아오르던 얼굴들처럼, 불같은 공기를 내뿜으며 사방팔방으로 요동치고 있는 듯이 보였다(←제가 해석한 거^^ 완벽하네~ / 디킨스가 의도한 대로 해석한 거-\_-;; → 불같이 타오르는 공기들에 의해 몹시 동요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가사도우미)가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리곤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손가락 끝으로 내 후견인의 팔을 살짝 터치하곤 이내 사라졌다.

우리는 둥근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스타톱이 다른 한쪽(주인공 후견인의 옆자리)에 앉는 동안 내 후견인은 드러믈에게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했다.

가사도우미가 식탁 위에 놓고 간 것은 값비싼 생선요리였다. 그 후 우리는 양고기 구이를 똑같은 몫을 나눠 먹었다. 그 후 새 요리를 똑같은 양으로 나눠 먹었다.

양념들이며, 포도주들이며, 우리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은 최고의 품 질이었다. 이 모두는 이 만찬의 주인이 자기 옆 ‘식사 운반용 손수레’에서 꺼내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식탁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내 후견인은 항상 그것 들을 다시 집어 자기 옆 ‘식사 운반용 손수레’위에 올려놓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그는 각 코스가 시작될 때마다 깨끗한 접시들이며 나이프들이며 포크들을 우리에게 분배했다. 그리고 다 쓴 식기들은 자기 의자 옆 바닥에 놓여있던 두 개의 바구니에 즉각 즉각 내려놓았다.

방금 전 그 가사도우미 외에는 식사시중을 드는 사람은 없었다. 코스가 시작될 때마다 그녀가 매번 요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항상 그녀의 얼굴에서 내가 그 전날 밤에 본 「 맥베스 」 (연극, 비극) 속, 가마솥에서부터 피어오르 던 얼굴을 보았다.

수년 후, 나는 그 여자의 무서운 형상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 어두운 방안에서 풍성한 머리 결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연적인 유사점도 없는 어느 얼굴을 불이 이글거리는 화주(알코올도수가 아주 높은 술) 한 사발 뒤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나는 그 무서운 여자의 형상을 만들 수 있 었다.

내가 그녀(가사도우미)를 특별히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찌를 듯 한 외모뿐 아니라 이 집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녀에 대해 웨믹 (변호사사무실 서기)으로부터 귀띔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방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주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내 후견인의 안색을 살피는 데 열중해 있었고, 그(재거스 변호사) 앞에 어떤 접시를 놓든지 간에 자신의 두 손을 접시에서 머뭇거리며 빼려고 한다는 것이다. 마치 자기를 되부르는 것을 극히 염려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 있을 때 그가 말해 주었으면 하는 듯했다. 만약 그가 그녀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이다.

그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의 태도에서 나는 탐지해낼 수 있었다. 적어도 내가 본 것 같았다. 그의 태도 어딘가에는 그녀에게 이런 지속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요소가 있었다.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은 점점 쾌활해졌다. 비록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이 대화를 이끌어 가기보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이다. 그가 지금 우리 네 명에게서 우리 기질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확 비틀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내 경우, 나는 어느 틈엔가 내가 돈을 함부로 쓰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내가 마치 허버트의 후원자인 양 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내 전도유망한 앞날에 대해 지나치게 남들에게 뽐내려는 경향이 있음을 내 입으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 그랬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드러믈보단 더 심하지 않았다.

우리들을 내켜하지 않고 널 의심하며 조롱하고 싶어 했던 그의 경향이, 첫 번째 요리였던 생선요리가 채 치워지기도 전에, 그의 내면세계 로부터 끄집어 내어쪘던 것이다.

대화(이야기)가 우리의 노 젓기 실력으로 옮겨지고, 카약킹(카누잉) 을 할 때마다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이 그 특유의 양서류 같이 느린 자세로 야밤에 우리 카약 뒤를 쫓아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은 것은 생선요리 먹을 때가 아니라 치즈요리가 나왔을 때였다.

이런 조롱에 대해, 드러믈은 내 후견인에게 “전, 저 딴 녀석들과 같이 가느니 혼자 가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카약킹 기술에 관해 말하자 면 전 저것들의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나며, 근력에 관해 얘기하자면 전 저것들을 곡식의 겉껍질처럼 쫓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라고 알렸다.

이때 내 후견인이 눈에 띄지 않는 몇 가지 방식으로 드러믈을 자극했고, 결국 드러믈은 웃자고 한 이 사소한 얘기들에 죽자고 덤벼들었다.

드러믈이 자신의 팔을 드러내며 그곳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웃기는 방식으로 우리의 팔뚝을 내보이며 얼마나 굵은지 자랑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때는 가사도우미가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였다. 그녀에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녀로부터 얼굴을 옆쪽으로 돌리던 그(재거스 변호사)가, 자신의 집게손가락 옆쪽을 이빨로 깨물면서 길길이 날뛰는 드러믈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의자 등에 푹 기대는 것이다. 그가 왜 드러믈 같은 녀석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때, 그가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가사도우미의 손목을 확 낳아 챘다. 올가미에 걸린 새를 낳듯이. 그녀가 막 식탁을 가로지르며 그녀의 손을 뻗었을 때였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고 여자를 상대로 너무나 강압적이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놀라 방금 그 하찮은 팔뚝 굵기 재기를 멈출 수 있었다.

“힘의 세기에 관해 말하잔 말인가?”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변호사이자 주인공의 후견인)가 말했다.

“그럼 이 손목(가사도우미의 손목)을 보여주고 싶군. 몰리(그녀 이름. 독자가 이 이름을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음.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이 상황이 중요함), 저들에게 네 손목을 보여드려라.”

덫에 걸린 한쪽 손이 식탁 위로 보였지만, 반대쪽 손은 이미 자신(가 사도우미)의 허리 품 뒤로 감춘 상태였다.

“선생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고 말했다. 그녀의 두 눈은 정중하면서도 간청하듯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제발요.”

“네 손목을 보여드려야겠다.” 재거스 씨가 단호한 태도로 다시 한 번 더 말했다. “몰리, 저들에게 네 손목을 보여드려라.”

“선생님.” 그녀가 다시 한 번 중얼거렸다. “제발!”

“(큰소리로) 몰리.” 재그스 씨가 여전히 그녀에게서 얼굴을 돌린 채 그리고 방 반대쪽 편으로 시선을 집요하게 고정시킨 채 말했다. “어서 저들에게 네 두 손목을 보여드려라. 보여드려, 어서!”

그녀의 손에서 손(그의 손)을 치운 후 그가 그녀의 손목을 식탁 위로 올렸다. 그녀도 허리 품에 감추었던 다른 쪽 손을 가져와 두 손을 나란히 올렸다.

그녀가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다른 쪽 손목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손목을 가로지르며 곳곳에 깊은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었다.

두 손을 내밀며, 그녀가 재거스 씨에게서 눈을 떼어 연속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여기에 힘이 있소.” 재거스 씨가 자신의 집게손가락으로 그녀 손에 난 힘줄을 쫓으며 냉랭하게 말했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손목 힘을 당해낼 남성은 몇 없소. 이 두 손이 얼마나 상대를 강하게 움켜잡을 수 있는지만 주목하시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손들을 보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손아귀 힘만 따지자면, 나는 여태껏 남성의 손에서든 여성의 손에서든지 간에, 그녀의 이 두 손보다 더 강한 손을 본 적이 없소.”

그(재거스 씨, 런던의 유명한 변호사)가 느긋하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동안, 그녀(가사도우미)는 우리가 앉아 있는 좌 석순서대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가 말을 멈추는 순간 그녀가 다시 그에게로 눈을 돌렸다.

“이제 됐다, 몰리(가사도우미의 이름).” 재거스 씨가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떡여 보이며 말했다.

“모두가 널 넋을 잃고 바라보는구나, 이제 가도 좋다.” 그녀가 손을 거둔 뒤 방을 빠져나갔다.

‘식사 운반용 손수레’에서 디캔터(TV에 나오는 고급 와인 병)를 꺼낸 재거스 씨가 유리잔에 와인을 채운 후 우리들에게 하나씩 돌렸다.

“9시 하고도 반이 지났네, 제군들.” 그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할 것 같네. 자네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뻤네. 드러믈 씨(주인공의 라이벌), 난 자네를 위해 건배하겠네.”

건배할 때,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을 지목한 목적이 만약 드러믈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못마땅하고 성난 빛에 더욱더 취한 드러믈이 결국 우리들에 대해 기분 나쁜 멸시의 감정을 보이더니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 마침내 우리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꼴불견의 단계를 하나씩 밟는 동안, 재거스 씨도 똑같이 이상한 관심을 보이며 그를 뒤쫓고 있었다.

재거스 씨가 와인을 마시는 데, 드러믈이 실제로 기분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내아이들 마냥, 유감스럽게도 우린 그날 와인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던 것이다. 그리고 우린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

우리는 특히 “너희들은 돈 귀한 줄 몰라. 죄다 걸러먹었어.”라는 취지로 한, 드러믈의 다소 천박한 냉소(조롱)에 골(열)이 냈다.

그 말에 분별(신중함)보단 골이 난 나는 결국 “1주일 전 혹은 그쯤에 네가 스타톱(친구)에게서 돈을 빌려갈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무례한 거 아냐.”라고 말 하기에 이르렀다.

“흥.” 드러믈이 삐딱하게 말했다. “(빌린 돈은) 곧 갚을 거야.”

“내 말은 네가 갚지 않으려 한다는 게 아니었어.” 내가 말했다. “다만, 네가 우리와 우리의 돈에 관해 얘기를 꺼낼 땐 좀 더 조심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고!” 드러믈이 또 비꼬며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한 마디만 더 할까?” 아주 심한 말을 할 작정으로 내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넌 만약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할 땐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을 거야.”

“그래 맞아.” 드러믈이 말했다. “난 네 딴 놈들에겐 단 돈 만원도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난 어느 누구에게도 만 원짜린 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넌 우리한테서 돈을 빌려 가냐? 좀 비열한 거 아냐. 내 생각은 그런데.”

“네 생각이 그렇다고.” 드러믈이 되풀이 말했다. “오 하느님 맙소사!”

그의 마지막 말은(“네 생각이 그렇다고”라는 드러믈의 말) 나를 아주 화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성잘 못된 아둔함에 부딪힌 나머지 내가 어떤 응수의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나를 제지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의 노력들을 무시하고 드러믈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드러믈 씨(원래는 주인공과 동갑임, 모두 25세임), 마침 얘기한 번 잘 했어. 네 녀석이 그 돈을 스타톱에게서 빌러갈 때, 여기 있는 허버트(친구)와 나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말해볼까.”

“네 딴 녀석들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갔던 내 상관할 바 아냐.” 드러믈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면서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투 덜대는 것 같았다.

“젠장, 저 딴 녀석들(주인공과 허버트) 지옥에 떨어져 한 번 굴러봐야 되는데.”

“네가 듣고 싶어 하든 듣고 싶지 않아 하든, 이 얘기는 꼭 하고 말겠다.” 내가 말했다. “우린 이렇게 말했지. 네가 돈을 빌려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그리고 스타톱이 네 녀석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마음이 약한 것을 몹시 즐기는 것 같다고.”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이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리고 두 손을 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자신의 둥근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 면전에다 대놓고 비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 행동은 내 말이 모두 맞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는 태도이며, 그리고 ‘너희 모두를 바보 얼갈이로써 경멸한다.’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타톱(여자 같은 남자)이 굳은 표정으로 “좀 더 상냥하게 구는 게 좋겠어.”라며 드러믈에게 강력히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그 권고는 내 막말보다 훨씬 더 예의를 차린 것이었다.

스타톱은 활기차고 총명한 청년(25세)이었다. 하지만 드러믈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그래서인지 드러믈은 스타톱이 뭔 말을 해도 완전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었다. 예의 바른 충고를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드러믈이 상스럽고 멍청한 말로 맞받아쳤다. 그래서 스타톱이 좀 가벼운 농담으로 이 논의(대화)를 비껴나려 했다. 그 농담에 우리 모두 크게 웃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작은 성공(농담+웃음)이 드러믈을 극도로 분노케 했다.

어떤 위협도 그리고 어떤 경고도 없이, 드러믈이 다자고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두 손을 빼더니 자신의 둥근 어깨를 낮추면서 쌍욕을 하고는 앞에 있던 큰 와인 잔을 집어 들며 자신의 적(스타톱)의 머리에 집어 던지려 했다.

만약 드러믈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을 때 이 모임의 주최자(재거스 변호사)가 예의 그 비상한 손재주로 그 즉시 와인 잔을 낙아 채지 못 했다면 드러믈의 이 깡패 같은 짓은 성공하고 말았을 것이다.

“자, 제군들.”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 변호사이자 주인공의 후견인) 가 와인 잔을 신중하게 내려놓으며 그러면서 크고 무거운 자기 시곗줄을 잡아 순금회중시계를 꺼내 들면서 말했다.

“벌써 9시 하고도 30분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유감스럽지만 말할 수 밖엔 없네.”

이 말을 신호로, 우린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주택 현관 문에 다다르기 전에 스타톱이 방금 그 일은 잊자는 의미에서 “어이 친구.”하고 드러믈을 명랑하게 불렀다.

하지만 이 영감탱이는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주변머리도 없었다. 우리들이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까지 걸어가는 동안, 드러믈은 길 같은 편에서 우리와 같이 걸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시내(바너드 여관 = 허버트 집 = 런던시내서쪽)에 남기로 한 ‘허버트와 내’가 뒤돌아보니, 드러믈과 스타톱은 서로 반대쪽 편에서 거리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드러믈과 스타톱은 하숙집으로 돌아가고 있음. 하숙집은 당시 기준으로 런던 서쪽 경계선 너머 인근지역에 있음)

스타톱이 앞장서 가고, 드러믈이 주택들의 그림자 속에서 뒤떨어져가고 있었다. 드러믈이 카약킹(카누잉)을 할 때 따라가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현관문이 아직 안 닫힌 상태였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에게 “잠시만 있어봐”라고 말한 후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에게 사과를 할 목 적으로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부츠(신발)들로 둘러싸인 드레스룸(옷 방) 안에서, 그는 벌써 우리를 떼어내기 위한 손 씻기에 한창(열심)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전에 식사자리에서 있었던 불쾌하신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 일로 절 너무 많이 비난하지 말 아주셨으면 합니다.”

“풋!” 그가 얼굴을 세차게 씻으며 그리고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사이로 말했다. “별일도 아닌 것을, 핍(주인공 이름). 그렇지만 난 그 ‘거미 녀석(싸가지 없는 드러믈)’이 마음에 들었네.”

그런 후 그는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그 녀석을 좋아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선생님.”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전 그다지….”

“아니네, 아니야.” 내 후견인이 동조하며 말했다. “그 친구와 너무 가까이 지내진 말게. 자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와 거리를 유지하게. 하지만 난 그 녀석이 맘에 든단 말이야, 핍. 그 녀석은 진짜 물건이야. 이런, 내가 마치 점쟁이 같이 말하는군.”

그가 타월(수건)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난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는 꽃장식이 그려진 타월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으며 두(2) 귀를 타월로 열심히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내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알겠지? 좋은 밤 되게, 핍(주 인공이름)군.”

“예,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 일이 있고 대략 한 달이 더 지났을 때였다. ‘거미 인간(드러믈)’ 의 시간도 영원히 끝나게 되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 제가 지어냈음), 포킷 씨(신사교습강사) 집에서의 하숙생활을 마치고 자기 가문이 있는 ‘서머셋’(영국 남서부의 주. 25장 #1참조)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다. 포킷 씨 부인(허영심이 많은 여자)을 제외하곤 이 집에 있는 모두가 대단히 기뻐했다.

**위대한 유산**

**27장**

(27장 앞부분은 비디가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비디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시골에 살 때 서로 연인으로 발전하는 단계 직전에 이별한 여성입니다. 비디는 주인공을 좋아하는데, 주인공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입니다. 둘의 감정은 이 소설의 이후 전 개과정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더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즐감~)

(비디가 주인공에게 보낸 편지내용전문. 주인공 이름이 ‘핍’임. 부연 설명 : 가저리 씨는 핍의 매형임. 나이차이가 20살이 넘음)

***친애하는 핍 씨에게***

: 가저리 씨의 부탁을 받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음. (←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실제 편지의 내용임)

조만간 가저리 씨(주인공의 매형)가 웹슬 씨(오매불망 런던연극배우가 되는 것을 꿈꾸던 시골교회의 서기)와 같이 런던으로 상경할 계획이란다. 그걸 알려 달래, 너에게 말이야. 그리고 이 말도 꼭 덧붙여 달라는 구나, 네가 많이 바쁘지 않다면 만날 수 있는지를. 그럼 좋겠데.

그가 화요일 오전 9시에 ‘버나드 여관’(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폐허같은 여관)으로 널 찾아갈 거야.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에게 상냥한 메세지라도 남겨주지 않겠니? 애석하게도 네 불쌍한 누나의 건강상태는 네가 이곳을 떠날 때 그대

로야.

그래도 우린 부엌에서 매일 밤 네 얘기를 한단다. 네가 그곳(런던)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며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너무 궁금하단다.

내 글이 예의 없게 비춰졌다면, 가련한 우리의 옛정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주길 바래.

메세지는 이게 다야, 핍 씨.

- 네게 항상 고마워하는 애정 어린(다정한) 비디(여자이름)로부터. ***추신.***

그(주인공의 매형)가 하나만 더 써 달대. “정말 신난다(←주인공에게 알려줄 좋은 소식이 있으니 잔말 말고 집에서 꼭 기다리고 있으라는 의미임. 그리고 주인공이 시골에 살 때 주인공과 지인들의 단골 술집에서 주인공의 성공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다는 의미도 있음).”라고.

네 매부의 말에 따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핍은 알거야”래.

나는 희망하고 믿는단다, 비록 네가 신사가 되었다지만 그(매형. 대 장장이)를 만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해줄 거라고.

넌 언제나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얘였으니까. 그리고 네 매부도 선 량하다는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분이시니까.

방금 그에게, 이 마지막 짧은 문장만 제외하곤, 이 편지를 모두 읽어 주었단다. 그가 각별히 이 말을 한 번 더 적어달라는 구나.

“정말 신난다.”라고.

(여기까지가 비디의 편지 끝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월요일 아침에 우편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방문일자는 내일이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감정들을 지니 고서 이 방문을 기대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겠다.

기쁜 마음이 아니었다. 비록 그와 나 사이에 어릴 적부터 끈끈한 유 대관계로 맺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난 그의 방문이 전혀 반갑지 않 았다. 차라리 내 생활의 방해로, 차라리 나에 대한 고행으로, 차라리 내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부조화를 남들에게 들추어낼 예리한 칼날로 그를 인식하고 있었다.

만약 몇 푼 집어주고 그(조)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면 난 기꺼이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못된 ○ -\_-;; 하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탈이지만…).

그나마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어디도 아니고 버나드 여관(주인공과 주인공 친구의 숙소)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가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 주인공이 신사교육을 받고 있는 하숙집)로 나를 찾아와 허버트(친구)와 허버트의 아버지가 그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내 과거(대장장이)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다면….

물론 허버트와 허버트의 아버지가 조(매형)를 만나는 것에 내가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조)의 존재가 드러믈에게까지 알 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난 극도로 민감해졌던 것이다. 내가 경멸하는 바로 그 드러믈에게 말이다.

그래서 전 생애를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나약한 부분과 저열한 단 면(모습)들이, 대개는 각자가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 때문에 들통 나는 것이다.

나는 방들을 다소나마 아주 불필요하고 과다한 방법 혹은 다른 것들로 매번 장식하기 시작했었는데, 다 떨어져가는 버나드 여관과 그런 씨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판명이 났었다.

이때쯤, 방들은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실내 장식업자의 장부에 중요한 페이지 몇 장을 내 이름으로 장식하는 명예를 누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런 내 소비성향이 가빠르게 상승해 나는 심지어 장화, 그냥 장화가 아니라 승마용 장화를 신은 심부름꾼 아이 한 명을 고용 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 심부름꾼 아이에게 매일 매일을 속박당하고 구속당한다는 말을 들어도 좋을 지경에까지 이르렀 다.

왜냐하면, 내가 괴물(심부름꾼 아이)을 만들고 난후, 그 아이는 우리 집을 드나들던 어느 직업 세탁부의 쓰레기 같은 자식이었다,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녀석에게 푸른 코트를 입히고, 카나리아(종달새와 비슷한 새)가 그려진 양복 조끼와, 휜 색 넥타이, 그리고 크림(흰색) 같은 반 바지와, 앞서 언급한 그 망할 놈의 승마용 장화까지 구입해 입혔기 때 문이다.

그리곤 정작 그 녀석에게 시킨 일이라고는 극히 사소한 몇 가지 심 부름뿐이었고, 대신 녀석에게 엄청난 양의 식사를 제공해야했던 것이다.

이런 불쾌한 두 가지 요구사항들을 맞추려다보니 그 녀석은 내 생활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

나는 이 복수(보복)의 유령(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심부름꾼 소년)에게 “화요일 아침 8시엔 홀에서 꼼짝 말고 있어, 응.”라고 지시를 내렸다. 홀은 마루깔개를 깔아놓은 가로 세로 각각 30×60센티미터 정사각 형이었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는 조(주인공의 매형)가 좋아할만한 아침식사로 몇 가지를 제안했다. 그런 관심과 배려에 그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나는 ‘만약 조(대장장이)가 너(허버트)를 만나러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네가 그렇게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상 하고 반쯤은 약이 오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쨌든 조를 맞이하기 위해 나는 월요일 밤에 런던시내(버나드 여관)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거실’과 ‘아침 식사용 식탁’이 가장 멋져 보이게끔 취해놓았다.

불행히도 아치부터 보슬보슬 이슬비가 내렸다. 상황이 이쯤 되니 아기 천사가 와도 “두레(우물)박 틀의 ‘다소 눈물 많은 거인’처럼, 버나드 여관이 창문 밖으로 검댕투성이의(거무스름한) 눈물을 샘솟듯 내뿜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 망할 놈(심부름꾼 소년)이 내 지시(오늘은 꼼짝 말고 홀에 서 있어!)를 충실히 따른답시고 홀(30×60센티미터의 협소한 정사각형 공간)에 버티고 있는 통에 눈치가 보여 도망갈 수도 없었다.

곧 누군가 계단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조(매형이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너무 서투였기 때문이다. 자기 발보다 엄청 큰 장화를 지금도 신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올라오면서 머무는 층들마다 방문에 걸린 이름패들을 읽기 위해 오래 지체하고 있었는데 분명 조(매형이름)였다.

마침내 그가 내 방을 찾았다. 그가 손가락 끝으로 내 명패에 적힌 글자를 하나씩 더듬는 소리가 들렸다. 곧 그가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는 소리가 열쇠구멍 사이로 들려왔다.

결국 그가 아주 미약한 강도로(힘으로) 가볍게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이 상황파악 못하는 망할 놈의 ‘페퍼’(심부름꾼 소년의 이름.

비중이 극히 낮은 조연. 독자가 알 필요 없는 이름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물론 등장은 가끔씩 함)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스터 가저리 씨!”

문을 열기 전에, 나는 조(매형이름)가 장화 바닥 닦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 그를 매트(바닥깔개)에서 떼어내 와야 할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조(매형 이름)가 들어왔다.

“조(매형이름), 반가워요, 조?”

“그래, 핍(주인공이름) 신수(겉모습의 느낌)가 훤하구나, 핍?”

온통 상기되고 달아오른 너무도 순박한 얼굴로 그와 나 사이의 바닥에 자신의 모자를 내려놓은 후, 그가 내 두 손을 잡으며, 마치 내가 최근에 특허 받은 펌프인 마냥, 일직선으로 위로 일직선으로 아래로 흔 들어댔다.

“만나서 반가워요, 조. 모자는 이리 주세요.”

하지만 조는 자신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모자를 다시 주워들더니 모자 안에 알들이 든, 새의 둥지를 들고 있는 마냥 자신의 소유물(모자)을 건네 달라는 내 말을 듣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인사말을 나누며 서 있으려 했다.

“그동안 많이 컸구나, 핍….” 조(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석은 사람임, 58세)가 말했다. “살도 졌고…, 더 젊잖아 졌어….” 조는 이런 고상한 단어들을 떠올리기 위해 조금씩 뜸을 들었다. “넌 국왕폐하와 이 나라에 명예가 되었어, 핍.”

“조도 마찬가진데 뭘, 내가 떠나올 때보다 훨씬 말끔해졌어.” “고맙구나!” 조가 말했다. “(당시 영국 하층 노동자 계급의 말투로←

절대 나쁜 뜻 없음-\_- 오해하시면 안 됨... 구글에서 해당 단어 검색되는 대로 쓴 것임 / 즉 철자 한두 개씩을 발음이 비슷한 엉뚱한 철자로 바꾸어 말하며 →) 나야 늘 그렇지, 핍. 하지만 내 누나(50세)는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한단다. 비디(여자이름, 28세)가 늘 옆에서 챙겨주고 있지. 그리고 친구들도 ‘더 좋아진 것이 없으니 더 나빠진 것도 없어’ (선주문이 없으니 이월상품도 없어). 하지만 웹슬 씨(교회서기)만은 조금 하락이 있었단다.”

이렇게 조(매형)가 자신의 두 손으로 ‘새의 둥지’(모자)를 조심스럽게 쥐고 있는 동안, 그의 두 눈들은 방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내 가운 (잠옷 위의 가운)에 박힌 꽃무늬패턴을 보면서도 두 눈이 빙글빙글 돌고 돌았다.

“추락이 있었다고, 조?”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조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웹 슬(교회서기)이 교회서기 일을 관두었단다, 본격적으로 연극계에 뛰어 들어 보겠대. 마찬가지 이유로 연극하겠다고 나를 따라 런던으로 온 거고. 그게 그의 바램이었으니까.”

조가 잠시 ‘새둥지’(모자)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더니, 오른손으로 알(새알)이라도 찾겠다는 양 모자 안을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네가 기분 나빠하지만 않는다면, 나보고 이걸 너에게….”

나는 조가 건네는 것을 받았다. 그것은 쭈글쭈글 구겨진 ‘매트로폴리 탄 시어터’(공연장)의 ‘연극 광고 안내문’이었다. 거기엔 명연기로 이름을 떨친 지방의 어느 유명한 아마추어 연기자의 사상 첫 출연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한 〈 국민 음유시인의 가장 비극적인 도보 여행 〉 (←디킨스가 지어낸 연극 제목임)이라는 연극에서 그가 보인 전대 미문의 연기력은 지방연극계에선 이미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성공)을 일으켰다는 문구도 같이 적혀 있었다.

“이 공연에 있었어? 조.” 내가 물었다.

“그래, 핍.” 자신이 그 공연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말을 하면서도 어째 그의 표정이 밝아보이지가 않았다.

“정말 연극이 대성공이었어?”

“그게 좀.” 조(주인공의 매형)가 말했다. “물론, 틀림없이 오렌지 껍질들이 한 무대기 날아들었지만. 그(웹슬 씨, 교회서기 때려치우고 런던연극계에 띄어든 코믹한 인물)가 유령(극중에서 웹슬의 아버지)을 목 격하는 장면에서 특히 그랬지. 질문 같을 수 있지만, 선생(주인공을 선 생이라고 처음 불렀음, 이후 계속 선생이라고 부르며 신사가 되어가는 주인공을 어려워함.), (옛 말투로→) 자신과 유령 사이에 참견하며 계 속해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 배역에 열중하고 있는 배우에게 할 짓이오? 어떤 사람이 잠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몸담았을 수도 있지 그걸….”

조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다소 감성적이며 논쟁적인 어조 말을 이어 갔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쓰레기를 던져야했느냐는 것이오. 그러니까 제 말은, 배우가 ‘유령이 된 자기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서 어쩌라고, 안 그렇소, 선생? 하물며, 그(웹슬)가 대성통곡하는 장면에서도 그래, 안타깝게도 입고 있던 검은색 의상(옷)이 너무 작아 자꾸 흘러내리는 것을 당사자(웹슬)가 어쩔 줄 몰라 올려 입고 또 올려 입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오렌지 껍질을 배우에게….”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은 표정변화가 조(매형, 58세)의 얼굴에 나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허버트(절친, 25세)가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허버트를 조에게 소개했다.

허버트가 손을 뻗으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조는 뒤로 물러서며 ‘새의 둥지’(모자)에서 손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황송합니다, 나리.” 조가 말했다. “핍과 나리는…?”

이 부분에서 조의 두 눈이 이 망할 놈(비용이 많이 드는 심부름꾼 소년)에게 가 고정되었는데 정확히 녀석이 막 식탁 위에 토스트를 올 려놓을 때였다. 조의 두 눈에는 ‘저 애도 이 집의 꼬마신사 같은데. 그럼 내가 인사를 드려….’라고 생각하려는 표정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에 내가 짜증을 내며 그의 생각을 물리쳐야했다. 이것이 또 조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 말았다.

“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두 신사분이…, 이 좁은 장소에서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는지를 물으려고…? 그러니까 이곳은, 현재 런던의 관점에서 아마도 아주 좋은 여관일 테죠?”

자시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조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들의 차림새에 비해 여관이 너무나도 볼품없어 뭐가 뭔지 헷갈린다는 얘기 였다.

“물론 호감 가는 여관이라 생각됩니다만, 저보고 여기서 살라면 이 곳에선 돼지 한 마리도 못 키우겠습니다. 물론 수퇘지 놈을 뚱땡이로 살찌워서 양념에 배겨 배터지게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야 또 모를 까…. 여긴 꼭….”

실물보다 돋보이게 하는 이런 아부의 말로 우리 거주지의 장점(무너지기 일보직전)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매형, 58세)가 나를 “나리”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조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권하자 그는 자신의 모자를 놓아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는데 마치 자신의 모자를 놓아둘 적당한 장소는 본질적으로 아주 희소한 물질 위여야 한다는 것처럼 그는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벽난로 위 선반 맨 끝자락에 그가 모자를 세워놓았다. 그때부터 모자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반에서 끊임없이 떨어졌다.

“차 드실래요? 아님 커피로 하실래요? 가저리 씨(주인공의 매형의 이름)” 아침마다 티(차)타임을 주재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5세) 가 물었다.

“아 감사합니다, 나리.” 조가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경직되어선 말했다. “나리께서 주시는 걸로 아무거나 마시겠습니다.”

“그럼 커피로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나리.” 조가 ‘커피’라는 말에 명백히 의기소침해하며 대꾸했다. “나리께서 커피를 추천해주실 만큼 생각이 깊으신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마시고 싶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그만 한 걸로 하심 안 되시겠는지?”

“아하, 차(먹는 차)로 하시겠다고요. 말씀을 하시죠.^^ 전 또….” 허버트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이때 조(주인공의 매형이름, 58세,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사람)의 모자가 ‘벽난로 위 선반’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자 조가 의자에서 뛰쳐나와 모자를 집어든 후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모자를 세워놓았다. 마치 그 위치가 새의 둥지로써 가장 안정적인 장소인양. 곧 그의 모자가 다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런던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가저리 씨(주인공의 매형 이름)?” 허버 트(주인공의 절친, 25세)가 말했다.

“그게 어제 오후였나요….” 조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기침을 연거푸 하더니 말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부터 백일해(경련성 기침 발작)에 걸린 마냥 말이다.

“아닙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그래, 아, 어제입니다. 아니, 확실히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지혜와 안심과 엄격한 공정함이 아우러진 표정으로 말했다.

“런던 구경은 좀 해보셨습니까, 가저리 씨?” 허버트가 말했다. “아뇨, 아, 예, 했습죠, 나리.” 조(대장장이)가 말했다. “런던에 도착

하자마자 웹슬(교회서기)이랑 ‘구두약 창고’부터 갔는걸요. 근데 어째 구두약 창고 규모가 우리 시골 가게 문에 달린 빨간 광고지에 있던 건 물보단 못한 것 같지 뭡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가 이 부분에서 꼭 부연설명이 필요하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덧붙 였다.

“광고지에는 훨씬 더 어~리어~리하~게(어리어리하게) 그려져 있었 거든요.”

나는 조(매형)가 이 마지막 후렴구(“어리어리하게”)로 완전한 합창곡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끝장을 낼 줄 알았다(계속 길게 발음할 걸로 정말 믿었다), 사실 그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내 마음 속에 떠올리게 하는 어떤 건축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도우서 조는 넘어지려는 자신의 모자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모자는 크리켓(방망이로 공을 쳐서 상대방 깃대 쓰러뜨리는 경기) 최종 수비수에게 요구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끊임 없는 주의’와 ‘손과 눈의 민첩함’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모자로 기이한(이상한) 동작을 했고,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어떨 때는 떨어진 모자로 황급히 뛰어가 깔끔하게 줍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떨어지는 도중에 모자를 위로 확 쳐 올려 방 여기저기로 모자를 통통 치거나 벽 위에 있는 수많은 벽지패턴들에 부딪치며 모자를 아슬아슬하게 다루었다.

그러다 그가 모자를 안심하고 쥘 수 있겠다 싶기도 전에 ‘식탁에서 찻잔 속의 찌꺼기 따위를 받는 그릇’ 속에 모자가 첨벙 떨어뜨리고 말았다.

결국 내가 실례를 무릅쓰고 그릇에서 모자를 빼앗아버렸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입고 있던 ‘셔츠 칼라’와 ‘코트 깃’에 대해 언급하자면, 둘 다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었다. 그의 복장들에서 패션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이 정장을 착용했다고 느끼기 전까지, 어떻게 저 정도로까지 스스로에게 찰과상(면도, 때 밀기)을 내야했더란 말인가?

그는 도대체 왜 나들이옷들을 입기 위해 고통이란 통과의례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면도, 때 밀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더란 말인가?

게다가 그는 접시와 입 사이에서 포크를 멈추고는 일종의 설명할 길 없는 기이한 상념에 빠져들곤 했었는데, 그럴 때면 그의 두 눈들이 아주 이상한 방향들로 이끌렸고, 그러다 범상치 않게 심한 기침들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식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않아 있어 입으로 가져가는 음식의 양보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음식의 양이 훨씬 더 많았으며, 그럴 때마다 자신이 떨어뜨린 음식이 아닌 양 행동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었다.

허버트 포킷(25세)이 회계사무실로 나가보겠다며 방에서 나갔을 때 난 진심으로 기뻐했다. (허버트는 회계사무실로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일자리며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리고 금융거리를 나다니는 경제인들을 둘러보고 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것과 만약 내가 조(매형)를 더 편안하게 대했었더라면 조도 또한 나를 더 편안해했으리라는 것’을 알만한 양식 (분별력)도 선의(호의)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에게 참다못해 화가 잔뜩 나있었는데, 조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나를 더 화나게 했다(내 머리 위에 숯불을 수북이 쌓았다).

“이제 저희 둘뿐이고…, 나리.” 조가 말을 꺼냈다.

“조!” 내가 너무 섭섭해서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어떻게 나한테 ‘나리’라고 불러?”

조는 질책(비난) 같은 어떤 표정을 힘없이 지어보이며 아주 짧은 순간 내 눈을 살폈다.

그의 넥타이가 완전히 터무니없고 그의 옷깃이 완전히 불합리했음에 도, 나는 그의 눈빛에서 어떤 위엄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까.” 조가 얘기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더 머물 생각도 힘도 없어, 이제 결론을 내자면…, 최소한 말을 꺼내자면…, 내가 왜 여기 와서 호강을 누리는지를 설명을 하자면…, 왜냐하면 호강을 누리자는 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아니니까….”

명쾌한 해설이 필요할 때마다 그가 널 보이는 손짓, 몸짓을 취하며 말했다.

“난 그저 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신사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식사를 할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의 표정을 정말이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지금 이 말투(상대를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말하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았다.

“글쎄, 나리.” 조가 얘기를 이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세 명의 바지선 선원들’(‘주인공 시골’의 ‘읍내 술집이름’)에 모여 있을 때였는데, 핍.”

그는 애정이 북받쳐오를 때면 나를 “핍”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거리 감이 느껴질 때면 나를 “나리”라고 불렀다.

그가 계속 말했다.

“바로 그때 마차를 타고 펌블추크(능청스런 잡곡상인. 쌀 이외의 곡식 사고파는 도매 및 소매업자)가 다가오지 뭐냐. 언제나 그렇듯이….”

그가 또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이따금씩 아주 지독하게도 나를 약 올리는데 말이다. 읍내 여 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핍 씨가 젖먹이일 때부터 나만이 절친 이었으며, 핍 씨가 어릴 때도 나만이 유일한 놀이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며 온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지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날 키우고 길러준 것 조(매형 이름)잖아.”

“물론 나도 그렇게 믿는다, 핍.” 조가 내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눈들은 그렇지만도 않지 않겠습니까. 나리. 아 참, 핍이지. 이번 경우도 그래, 너와 친하다는 것이 그를(펌블추크 = 능청스러운 잡곡상. 펌블추크 씨는 조의 실제 삼촌. 혈연관계임) 어찌나 뻐기고(뽐내고) 다니게 만들었는지. (갑자기 딴 얘기를 시작함) 아, ‘파이프 담배 한 모금’과 ‘맥주 500cc(시시, 우유2개 부피) 한 잔’이 엄청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천한 것들에게 얼마나 힘을 북돋아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나리.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함) 이번에도 그가 ‘세 명의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으로 나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일갈하지 뭡니까. ‘요셉(조의 세례명)아, 미스 해비샴(무지무지한 갑부)이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라고요.”

“미스 해비샴이? 조(매형이름).”

“그래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나랑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조가 앉은 자세에서 천장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정말, 조? 계속 말해봐, 어서.”

“그래서, 나리.” 마치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마냥 조가 나를 아늑히 바라보며 말했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미스 에이를 만나러 갔습죠.”

“미스 뭐? 조(매형이름). 미스 해비샴(갑부)이겠지.”

“제가 말한….” 자신도 그 이름을 기억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마냥 조(매형이름, 58세)가 법률적 형식의례 따위를 차려가며(늦장을 부리며) 대답했다. “미스 에이, 미스 에이가 아니라면 해비샴 말입니다, 나리. (시각사투리를 사용하며. 즉 영어단어를 발음 나는 대로 사용하며→)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구나. (정확한 발음으로→) ‘가저리 씨 (매형의 성), 핍 씨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겠지요?’라고. 그 언제냐, 그 러니까 네가 보낸 편지를 내가 분명 가지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해드렸지. 사실 내가 네 누나와 결혼할 때 난 ‘그럼요.’라고 대답했단다, 이번에 네 친구(미스 해비샴)에게 대답할 적엔 ‘네’라고 대답했고, 핍. 그녀가 계속 말했지. ‘그럼 핍에게 전해주시겠어요? 에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만나면 기뻐할 거라고요.’” (에스텔 라는 몇 년 전에 상류층 사교계교육을 받기 위해 파리로 건너갔다가 이번에 귀국한 것임)

조를 보고 있는 동안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얼굴이 달아오른 여러 원인들 중 하나는 원하건대 ‘만약 조가 에 스텔라의 도착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임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가 그를 훨씬 더 격려해주었을 것’이라는 어떤 자각(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디는.” 조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내가 집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끔 네게 편지 한 장을 써달라고 부탁하자, 약간 망설이더구나. 그리곤 이렇게 말했어. ‘직접 만나 이 소식을 전해주면 핍이 더 기뻐할 거 같아요. 마침 휴가철이고, 조도 핍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어서요, 조!’라고.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랍니다, 나리.”

조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면 말했다.

“그럼 지금처럼 잘 지내고 더 많이 더 높은 데까지 오르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핍.”

“지금 가려는 건 아니겠지, 조?”

“지금 가는 게 좋겠다, 핍.” 조가 말했다. “그럼 저녁식사 때까진 올 거지, 조?” “아니다, 핍.” 조가 말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가 손을 내게 내밀면서 그의 씩씩한 가슴에서부터 “나리”라는 지난 어색 함들이 녹아 없어졌다.

(아래는 조(주인공의 매형)의 긴 대사임. 좀 길죠~ 모두 하나의 단락이지만 임의로 폰으로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임의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핍, 이 친구야, 인생은 수많은 이별들의 용접(모음)들로 구성되어 있단다. 내가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양철공(얇은 철판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세공인(금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구리 세공인(구리로 물건 만드는 사람)으로 산다.

사람들 사이의 이런 구분은 자연스레 생기게 마련이고 그럼 생기는 대로 각자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란다. 만약 오늘 내 행동에서 잘못된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건 모두 내 탓인 이유다.

너와 난 런던에서 함께 해선 안 되는 두 사람(신분)이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아닌 어떤 다른 장소에서도 너와 난 함께 해선 안 되는 두 사람(신분)이다.

너는 이제 이런 옷차림(인간내면의 본질이 아닌 겉꾸밈)을 한 나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다. 그건 내가 뻐기고 싶기 때문이 아니란다, 단지 내가 올바르고 싶기 때문이지. 내겐 이러한 옷차림들(꾸밈)이 어울리지 않아.

나(대장장이, 58세)는 대장간과 우리 집 부엌을 벗어나서는 당당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건 우리 마을 뒤편에 있는 습지대를 벗어나선 내가 힘이 나지 않는 이유다.

생각해봐라. 만약 내가 해머를 손에 쥐고 다른 손엔 파이프 담배를 들고 대장장이 옷을 차려입고 네 앞에 서 있다면 네가 오늘처럼 많은 잘못을 내게서 찾을 수 있었겠니.

그래도 만약 네가 언제든 나를 다시 만나야겠다면, 대장간 창가로 와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조(매형이름)라는 사람을 찾아라, 오래된 모루(대장간에서 금속을 올려놓는 쇠 받침대)에 서서 불에 그슬린 앞치마(작업복)를 입은 채 변함없이 내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 조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에게선 오늘과 같은 어색함의 반푼어치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을 게다.

난 어릴 적부터 지독하게 어리석었다. 또 그렇게 평생 살아왔다. 하지만 마침내는 이 문제의 시시비비(옳고 그름을)를 내 나름은 거의 밝혀냈다고 본다.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내 오랜 친구 핍아, 이 녀석아, 앞으로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게다! 잘 있어라.”

(위 내용은 의역한 것입니다. 절 탓하지 마시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참견안하래야 안할 수가 없었음. 전 이런 글 너무 좋음....감동 ㅜ\_ㅜ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감동 중임...ㅎㅎ 하지만 전체 줄거리는 디킨스가 의도한 것과 100% 일치합니다.)

그(조, 주인공의 매형)에게 완전한 자존감(긍지, 잦기 존중, 자기 품위)이 있다는 내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가 이러한 말들을 했을 때, 그의 옷차림들은 더 이상 패션의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눈에 그는 하늘이 정해준 옷을 입고 있는 듯 보였다.

그가 내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더니 밖으로 나갔다.

내가 충분히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허겁지겁 그를 뒤쫓아 거리로 뛰쳐나갔고, 거리와 거리 사이를 뛰어다니며 그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위대한 유산**

**28장**

이튿날(다음날)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야된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뉘우침의 첫 번째 밀물과 함께, 내가 이번 방문 때 조의 집에 머물

러야 옳다는 것도 분명했다.

다음날 떠나는 ‘대형 사륜마차(바퀴 4개)’의 좌석을 확보하고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담당 교사)의 집(런던 서쪽 너머 인근지역)’에 들 렀다가 다시 귀가할 때 나는 ‘이번 방문 때 조의 집에서 머무는 것’에 대해 전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실은 그 반대였다.

나는 점점 ‘외설적인 수퇘지’(-\_-)(주인공 시골의 ‘술집이름이자 여인숙 이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옳다는 갖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며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 조의 집에 머물면 불편할 거야. 조도 내 방문을 원하지 않을지 모르고. 또 내 침대도 준비 안 되었을 거잖아. 조의 집은 미스 해비샴의 집과도 너무 멀고, 미스 해비샴도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라면서.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사기꾼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려는 사기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나는 이런 가식적인 자기합리화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본명 기이한 일이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5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내가 순진하게 받을 수는 있다. 그건 충분히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가짜지폐를 진짜지폐라며 고의적으로 자신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일인가!

‘어떤 친절한 낯선 사람’이 도난방지를 위해 내 지폐를 단단히 접어서 보관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내 지폐를 빼앗은 후 대신 내게는 호두 껍데기를 돌려준다면?

하지만 그 자의 능란한 손놀림이란 것도, 내가 내 호두 껍데기를 접어서 ‘자, 이게 돈이다!’라며 내 자신에게 넘겨줄 때의 내 손놀림보다 더 날쌜까!

‘외설적인 수퇘지’(‘술집이자 여인숙’ 이름)에 머물기로 마음을 굳힌 나는 하지만 저 원수(비용이 많이 드는 심부름꾼 아이)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해 엄청 헤매고 있었다.

저런 돈 먹는 하마 녀석이 여인숙 건물 출입구 아치 아래에 서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부츠에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줄 감명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혹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연인 듯 가장해가며 저 녀석을 신사복가게에 보여줌으로써 ‘트랩(돈 많이 버는 재봉사노총각) 가게 점원 녀석’의 무뢰배 같은 자 존심에 상처를 입힐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좋은 건 거기까지였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트랩의 점원 녀석이 저 녀석(심부름꾼 소년)과 급속히 친해져 이것저것 내 과거(대장장이의 수습공)를 죄다 말해버린다면?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트랩의 무뢰배 같은 점원 녀석이 얼마나 무모할 수 있고 얼마나 될 대로 되라 식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악마 같은 놈인가를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 중심가에서 그가 저 녀석(심부름꾼 소년)에게 시비를 걸어 묵사발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 었다.

그렇게 되면 내 여성 후원자께서도 그 소문을 듣고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한 나는 결국 저 돈 먹는 하마를 두고 가기로 결심했다.

내가 탄 마차는 오후에 떠날 ‘대형 사륜마차’(바퀴 4개)였다. 이제 계절도 겨울로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내 도착은 해 진 뒤 두 시간 혹은 세 시간 가량 늦어질 것이다.

‘크로스 키즈’(마차 터미널. ‘런던 시’의 ‘치프사이드 시티’의 ‘우드 거리’를 말함)를 출발하는 시각이 2시였다.

나는 내 보디가드 녀석(심부름꾼 소년)의 시중을 받으며 15분의 여유를 두고 ‘크로스 키즈’에 도착했다.

만약 내가 ‘보디가드’란 표현을 ‘만약 내 신변을 돌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절대 나를 돕지 않을 저 녀석’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말이다.

역마차(승합마차)에 재소자(죄수)들을 태우고서 해군조선소(배 공장)까지 내려가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의 관례였다.

열외의 승객자격으로 마차에 오른다는 재소자들에 대한 얘기는 나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주요도로에서 ‘대형 4륜 마차(바퀴4개)’의 지붕 위로 쇠 족쇄(다리수갑)를 대롱거리는 그들을 몇 번이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차 역 구내(지방에서 런던으로 올 때 반드시 들르는 곳임)에서 나를 발견한 허버트(절친, 25세)가 내게로 다가와 “네가 예약한 마차로 이송될 재소자들이 두 명이나 있데.”라고 했을 때 내가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재소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체질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있었다. 그것은 지금 아주 오래된 이유였다.(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탈옥수(죄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몰래 건네준 적이 있는데 널 불안해했음. 그 빵과 포도주가 누나 몰래 부엌에서 훔친 거라서)

“괜찮겠니? 헨델(주인공의 애칭).”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오, 그럼!”

“아니 난 그냥, 네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말할 순 없잖니, 너도 뭐 그들이 별로인거 같은데, 하지만 나야 꺼릴 것이 없지.”

“저길 봐! 그들이 술집에서 나오고 있어.” 허버트가 말했다. “어쩜 저렇게도 타락하고 비열한 몰골들을 하고 있을까?”

죄수들이 자신들의 교도관에게 한 턱 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교도관 한 명이 그들과 함께 보였기 때문이다. 세 명 모두 두 손 으로 입들을 닦으며 술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2명의 죄수들은 함께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쇠 족쇄(다리수갑)는 각각 따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바로 그 쇠 족쇄였다.(어릴 적에 주인공이 매형의 대장간에서 쇠줄을 훔쳐다가 탈옥수에게 건네주었고 탈옥수가 그 쇠줄로 족쇄를 갈고 있는 모습에 겁이 나 도망친 적이 있는데, 한동안 극한 공포에 시달렸었음)

그들은 또한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죄수복들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감시자(교도관)는 양쪽 허리에 권총 한 자루씩 차고 있었다.

그는 또한 겨드랑이에 ‘끝에 굵은 혹이 있는 몽둥이’를 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시자는 죄수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 같았다. 그가 자기 옆에 죄수들을 서 있게 했기 때문이다.

그 교도관은 다소 점잔빼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마차에 말을 메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죄수들이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식 오픈되지 않은 흥미 있는 전시물인양 그리고 자신은 그 전시물의 큐레이터 (전시책임자)인 양 말이다.

두 명의 죄수들 중, 한 명은 키가 더 커고 더 굳세(튼튼해) 보였다. 죄수의 세계와 일반인의 세계모두에서 비밀로 하는 풍습에 의거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키가 큰 죄수는 키가 작은 죄수보다 더 작은 치수의 옷들을 할당받은 것 같았다.

그의 두 팔과 두 다리는 마치 바늘을 꽂아 놓은 헝겊 같았다. 그의 의상(죄수복)이 그를 우스꽝스럽게 숨기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의 반쯤 감긴 눈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어느 토요일 밤에(주인공이 어릴 적에)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 들(주인공 시골의 술집이름)’에 앉아서 한 쪽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꼭 보이지 않는 총구멍으로 나를 “탕!”하고 겨누었던 그 자가 저기에 서 있었다.

다만 그가 나를 평생 본 적이 절대 없었다는 듯이, 아직까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쉬웠다.

그때 그가 나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내 회중시계(호주머니에 넣는 비싼 시계)의 쇠줄이 얼마 나갈까를 생각하는 듯 한 눈빛을 보이더니 땅바닥에 침을 “탁!”하고 뱉더니 옆에 있던 다른 죄수에게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기들끼리 “껄껄!”거리며 웃었다.

곧 두 죄수가 두 사람을 커플로 묶고 있던 수갑을 서로 부딪쳐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뒤로 돌아섰다. 그런 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나는 잊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거리에 면한 주택의 현관문처럼 아주 큰 번호가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거칠고 털이 빠져 보기 흉한 피부를 하고 있었 고, 그건 마치 그들을 저급한 하등동물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두 다리에는 마치 사과(미안)라도 하려는 듯이 손수건들을 모아 둥글게 고리 모양을 낸 쇠 족쇄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차 역 구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죄수들)을 멀리하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방식, 앞서 말한 이 모든 이유들이 이 죄 수들을,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듯이, 극도로 불쾌하고 타락한 강등당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고 있었다.

아, 설상가상(불행이 겹침)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까.

런던에서 이사를 떠나는 한 가족이 마차 뒷좌석 전체를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룰루랄라...-\_-), 두 죄수가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래서 마부 바로 뒤 첫 번째 줄의 좌석에 죄수들이 앉게 되었다.

이 결과로서, 원래 그 자리에 앉기로 되어 있던, 아주 화를 잘 내는 영국신사 한 분이 갑자기 격렬한 분노를 내뿜으시며 말했다.

“영국신사를 저런 극악무도한 것들과 합석 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이오. 이것은 유해하고 파멸적이고 수치스러운 망신살이오. 그래 망신살 나는 이 이상 더 어울리는 말을 생각해낼 수 없소.”

이때는 대형 사륜마차(바퀴 4개)가 이미 출발준비를 마쳤고, 마부도 안달이 난 상태였고, 승객들도 마차에 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라, 문제의 그 죄수2명도 교도관과 함께 등장했는데 죄수들의 등장과 함께 기 이한 냄새, 즉 끓는 물에 적신 빵으로 만든 찜질약 같은 냄새, 베이즈 (당구대 녹색 모직 천 냄새) 냄새, 밧줄 만드는 가는 줄 냄새, 그리고 광내는 돌 냄새가 났는데, 이것들은 죄수들이 있는 곳이면 항상 생기는 기이한 냄새였다.

“너무 그렇게만 탓하진 말아주십시오, 나리.” 교도관이 화를 내고 있는 신사에게 애원했다.

“당신 옆엔 제가 앉고, 저것들은 좌석 바깥쪽에 앉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절대로 나리의 여행길이 방해받는 일은 없을 겁 니다요. 저런 것들일랑은 그냥 있어도 없는 척해주십시오, 나리.”

“날 탓하진 마쇼.” 내가 익히 얼굴을 알고 있는 죄수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이런 제길, 이건 뭐 내가 좋아 가는 길인감. 가래도 가기 싫구먼. 어느 누가 나대신 가든 나로서는 대환영이니까.”

“아니면 내 대신 가든지. 낄낄.” 다른 죄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신네들 누구한테도 폐 끼칠 생각일랑은 없소, 난 내 길만 가면 되니까, 푸헤헤.”

두 죄수가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두 죄수가 호두를 깨물어 부수더니 여기저기에 호두 껍데기들을 뱉어 댔다.

만약 내가 그들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경멸을 당했다면, 내 자신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결국, 화를 내던 신사를 도울 길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이제 죄수와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역에 계속 남아 있든지 양자택일해야만 했다.

그래서 여전히 투덜대며 신사가 마차에 올랐다. 다음으로 교도관이 올라 신사 옆 좌석에 앉았다. 그리고 죄수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잘 서로를 잡아당기며 마차에 올랐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죄수가 내 뒷좌석에 앉아 내 머리카락 위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잘 다녀와, 헨델(주인공의 애칭)!” 마차가 출발하려하자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소리쳤다.

그가 나에게 핍(주인공의 실명)이라는 이름 대신 애칭(별명)을 만들어 주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 받을 일인가!’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죄수의 호흡을 내 뒷머리로만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내 등뼈를 따라 내가 얼마나 격심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정도다.

그 느낌은, 어떤 찌르듯이 자극적이고 모진(날카로운) 산(산성)이 골수(뼈 안에 있는 신경세포 덩어리. 노란색으로 보임)에 닿은 것 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숨 쉬는 일을 하려는 것 같았고, 그는 숨을 쉴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요란하게 호흡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어깨를 오그리며 그의 숨길을 피하려다보니, 나는 내 한쪽 어깨가 높이 들어 올려지는 것을 의식하였다.

날씨는 비참하고 몹시 추웠다. 두 죄수는 추위를 저주했다.

추위 때문에 마차가 멀리 가기도 전에 우리 모두는 감각이 무뎌졌다. 중간 기착지(휴게소 역)를 벗어났을 때(떠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꾸벅꾸벅 졸거나 와들와들 떨며 조용했다.

헤어지기 전에 이 죄수에게, 그가 예전에 내게 주었던 5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되돌려주어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어색하지 않게 잘 해낼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마치 말들 사이로 다이빙을 한 것처럼 좌석 앞쪽으로 굴러 떨어질뻔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깼다. 그리곤 다시 그 문제를 되씹어보기 시작했다.

그 후,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잠들었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어둠속에서 아무 것도 알아볼 수 없었고 램프의

빛과 그늘의 깜빡임 사이에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을지라도, 우리 마차를 향해 부는 춥고 축축한 바람 속에서 우리 고장 늪지대의 자취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온기를 위해 그리고 거센 바람을 나를 방패로 해서 막으려고 앞쪽으로 웅크렸기 때문에 두 죄수는 마차를 탔을 때보다 내게 더 접근해 있었다.

내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에서 내가 알아들은 첫 번째 말이 “50만 원짜리 수표 2장.”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고민해오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는 그 수표들을 어떻게 구했대?” 다른 죄수가 말했다.

“낸들 아나?” 내가 얼굴을 아는 죄수가 말했다. “어떻게든 숨겨놓았던 수표일 테지. 아님 친구들이 준 수표였을 수도 있고.”

“제기랄.” 다른 죄수가 추위를 길길이 저주하며 말했다. “지금 당장 그게 있었으면 좋겠구먼, 이런 젠장맞을.”

“수표? 아님 친구들이?”

“수표 말이야 수표.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위해서라면 내 친구들을 몽땅 팔 생각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 그렇게만 되면 이 얼마나 축복받을 흥정일까, 그래 그 자식이 뭐라고 그러던?”

내가 얼굴을 아는 죄수가 지난 시간을 되씹으며 말했다.

“조선소 목재 더비 뒤였을 거야. 거기서 극히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게 이루어졌지. 그자가 이러더군. ‘조만간 나간다며?’ 내가 그렇다고 말했지. 그러자 나보고 어떤 꼬마 녀석 하나를 찾아 달래. 그 꼬마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비밀을 지켜줬다나, 그러면서 그 수표 2장을 꼭 그 꼬마 녀석에게 전달해주지 않겠나? 라더군. 그래서 그러마라고 내가 말했지. 석방 된 후 난 그 자의 부탁대로 꼬마를 찾아가 수표를 건네주었다네. 그게 다야.”

“자네도 바보로군.” 다른 죄수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카~, 나라면 그 수표들을 먹고 마시는데 다 써버렸을 텐데. 그리고 그 자도 풋내기였음이 틀림없어. 내 말인즉슨, 그 자가 자넬 전혀 몰랐다고 하지 않았나?”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 서로 다른 조였고, 서로 다른 배에 있었으니까. 그자는 재차 탈옥을 시도했고 결국 붙잡혀 무기징역형(당시 영국의 무기 징역은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추방’을 의미)을 선고받았지.”

“빙고! 그러니까 그자를 만났던 시기가 자네가 이 지방에서 노역을 하던 유일한 시기였다 이거지?”

“딱 한 번이지.”

“그래 이 염병할 지역에 대한 자네의 고견은 어떤가?”

“짐승 같이 잔인하고 더러운 동네야. 온 사방이 ‘진흙 사주(퇴적지 형)’고, 온통 안개고, 온통 눅눅하고, 욕지거리를 하며 일만 했지,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선 욕을 내뱉고 일하고, 습지에 발이 빠지고 주위는 온통 그 망할 놈의 ‘진흙 사주’뿐이고.”

두 죄수 모두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그 고장(주인공의 마을 인근 해변가 노역장)을 저주했다. 그러다 점점 악담의 수위가 낮아지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나는 분명 일어나 마찻길 어둠 속을 방패삼아 외롭게 몸을 숨겼어야 했었다. 하지만 그 죄수가 내 신원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서 그러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나도 나이(현재나이가 19세 또는 23세 둘 중에 하나임)를 많이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와 비교해 입고 있는 옷이며 경제적인 처지가 판이하게 달라 있었기 때문에, 돌발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죄수가 나를 알아보는 일은 있을 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고 많은 마차들 중에 내가 탄 대형 4륜 마차(바퀴 4개)에 그 죄수가 올라탔다는 이 하나의 우연이 나를 몹시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 우연성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우연이 발생해 그가 내 이름을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막 생길 것만 같은 이상한 생각에 나는 온통 사로잡혀버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마차가 마을에 닿자마자 내려서 그가 내 소식을 듣지 못할 정도로까지 멀리 가버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내 작은 여행 가방은 ‘내 발 아래에 있는 트렁크(짐 넣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난 단지 경첩을 돌려 내 여행 가방을 꺼내기만 하면 되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먼저 마차 밖으로 내던졌다. 그런 다음 나도 마차에서 내렸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읍내(주인공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 포장도로의 첫 번째 비석 위에 있는 첫 번째 램프 아래에 남겨 지게 되었다.

그 두 죄수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대형 4륜 마차(바퀴4개)에 그대로 남아 자신들의 길을 갔다. 나는 그 죄수들이 강 어느 지점으로 비밀리에 끌려갈지 잘 알았다.

나는 “상상 속으로” ‘더럽고 끈적끈적한 물질들에 절은 선착장 계단’에서 두 죄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승무원죄수들과 보트를 보았다.

보트에 탄 누군가가 마치 개들에게 으르렁거리듯 승무원죄수들에게 “이 새끼들아, 기브웨이다(노 저어)!”라며 소리치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들리는 것만 같았다.(‘기브웨이’ 노들을 수면에 적시라는 신호임. 출발 시 처음 한두 번 서서히 노를 젓는 일. 5장 참조)

내 눈에는 검은 바다 위에 음침하게 멈춰서 있던 그때 그 감옥선, 사악한 노아의 방주 같이만 느껴졌었던 그 감옥 선이 다시 보이는 것만 같았다. (주인공은 어릴 적에 군인들이 탈옥수를 생포하는 모습과 그 탈옥수가 감옥 선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음. 5장 참조)

(어릴 적에는 단순히 목격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이젠 그렇게 호락호락 끝나지만은 않을 거라는 암시임. 여자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도 주인공을 망치는 데 한 몫 하겠지만….)

내가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했었는지 차마 여기서 밝힐 순 없다. 왜 냐하면 내 두려움은 불분명함과 모호함의 혼합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목전까지(가까이까지) 닫쳤던 두려움이었다.

호텔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단지 고통스럽고 불유쾌한 알아봄에 대한 불안에의 감정을 훨씬 초월하는 공포에 전율하고 말았다.

나는 확신한다. 나는 그 공포가 뚜렷한 형태가 없다는 것과 그것이 단지 내 어린 시절의 공포에 대한 몇 분 동안의 되새김질이었음을 인정한다. (앞뒤 설명 :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탈옥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훔쳐서 건네준 이유는, 탈옥수가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 다주지 않으면 자신의 젊은 친구가 어린 주인공의 생간을 먹을 거라고 위협했기 때문인데, 주인공은 상당한 기간 동안 두려움에 떨었음. 그때 일이 잠시 생각났다는 얘기임.)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 읍내의 술집이름이자 여인숙이름)에 딸린 다방엔 손님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다방에서 내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웨이터는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곧 그가 나를 알아봤다.

“신사 분께서는 저의 부주의한 기억력을 용서해주시겠지요?” 그러더니 “펌블추크 씨(67세, ‘주인공 매형’의 친삼촌. 주인공과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님)에게 알려야겠지요?”라며 심부름꾼을 보내도 되는지를 내게 물었다.

“아뇨.” 내가 말했다. “됐습니다. 됐어요.”

내 대답에 웨이터는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었다. 사실 그는 내가 어릴 때 그 망할 놈의 대장장이 수습공 계약서에 싸인 하던 날, 외판원 (세일즈맨)들의 강력한 불평을 판사에게 성토하던 자인데….

하지만 그는 곧 내 앞에 먼지 가득하고 오래된 지방일간지 한 부를 가져다 놓는 센스를 발휘함으로써 앞서의 어색함을 만회할 기회를 조기에 가졌다.

나는 신문을 집어 들고 다음과 같은 단락을 읽기 시작했다.

(아래 내용은 주인공 고향의 지방일간지에 실린 칼럼(논평)내용입니다.)

오호~ 독자들이 전적으로 흥미를 가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니한(-\_-;;), 즉 이 지방 제철업에 종사하던 한(어느) 젊은 기술공(주인공)에게 최근에 일어난 드라마틱한 신분상승에 관한, 뭐 어쨌거나, 오~ 이 주제가, 피치 못하지 아니한 것이 아닐 사유로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못한 우리 읍내 사람인, 투비(사람이름,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임, 알 필요 없음) 즉 우리 칼럼(논평)의 시인이 마술적인 필력을 펼치기에 참말로 좋은 주제가 아니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 청년의 아기 때부터의 후원자이자 동료요 친구는 이제 널리 평판이 자자한 한 인물인데, 물론 그 분은 ‘곡물 장사나 씨앗 장사(펌블추크 씨의 직업)’과 완전히 관련이 없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인물이올시다, 그 분의 두드러지게 편리하고 넓은 상점은 시내중심가(거리)에서 고작 160킬로미터(어른이 걸어서 4일. 마차로는 쉬지 않고 가야 10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올시다.

그 분은, 우리가 그(펌블추크 씨. 능청스러운 상인임)를 오디세우스 (영웅)가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사람이름, 처음에는 미약한 존재였다가 불운과 행운을 경험하며 성장해가는 인물)의 교육을 맡긴 멘토르 (사람이름, 모두 그리스 신화) 같은 인물이었다고 수첩에 기록하고픈 우리네의 감정들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한 것이 아니한데.

이유인즉슨 우리 지방이, 텔레마코스(주인공을 의미함)가 누린 행운 들의 창설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지없는 기쁨이기 때문이 올시다.

아, “누가 그 행운들의 주인공이냐?”라고 지방 현자의 찌푸린 이마 가 심사숙고하며 묻는가요?

아니면, “누가 그 행운들의 주인공이에요?”라고 이 지방 미인의 초롱초롱한 두 눈이 묻는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만 말하겠다.

“쿠엔틴 마세이스(16세기 벨기에 화가. 대장장이 출신임. 고리대금업자가 금화 세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도 처음엔 앤트워프(벨기에의 항구 도시)의 말발굽을 다루던 대장장이였었다.”라고.

현자에게는 이 한 마디면 충분하리라.

“대. 장. 장. 이”

(여기까지가 주인공이 밥 먹다 말고 읽은 신문칼럼(논평) 끝입니다.)

지대한 내 지난 경험들에 비추어보건대, 용의자(이런 엉뚱한 칼럼을 지방일간지에 보낸 ‘투비’라는 인물이 실은 ‘펌블추크 씨’일거라는 확신)는 분명했다.

만약 내 번영의 시기(일간지 칼럼을 읽었던 그때)에 북극으로 갔었어도, 나는 그곳에서 “펌블추크 씨(능청스런 잡곡상인)가 당신의 후원자이자 행운의 설계자라면서요? 그것도 당신이 어릴 적부터요.”라며 내게 말을 거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방랑하던 에스키모 인이 든 혹은 문명화된 사람이든 간에 말이다.

**위대한 유산**

**29장**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인숙을 나왔다.

아직 너무 이른 시각이라 미스 해비샴의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미스 해비샴의 저택 쪽 방향으로 난 읍내 전원에서, 내 여성 후원자에 대해 생각해보며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나를 위해 펼칠 빛나는 계획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며 나는 어정거렸다.

이 쪽 방향은 조(주인공의 매형)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 조의 집은 내일 방문해도 되었다.

그녀(미스 해비샴)는 에스텔라를 입양했었다. 이제 나를 입양한거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우리 둘을 이어주려는 그녀의 의도인 것이 명확 했다.

이 모두가 그녀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내가 앞으로 그녀의 황폐한 집을 복구하는 것도, 그 어두운 방들 속으로 햇빛을 들이는 것도, 9시 30분에 멈춰져 있는 이 집안의 모든 시계들을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이 차가운 난로들을 다시 불태우는 것도, 거미집을 치우고 해충들을 박멸하는 것도 모두 그녀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임무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연애소설에 나오는 젊은 기사가 빛나는 모든 공적들을 이행한 후 공주와 결혼하는 스토리였던 것이다.

나는 막 지나친 집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붉은 벽돌들이 강한 불에 겉 부분을 그슬린 집이었다. 창문들은 모두 막혀 있었고, 억센 초록색의 담쟁이덩굴들이 자신의 잔가지들과 힘줄들을 이용해 산더미 같이 수북이 쌓여 있는 굴뚝들조차도 전부 감싸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건(담쟁이덩굴) 마치 근골이 늠름한 노인의 두 팔 같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집에 풍부한 마력,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신비로움을 부여해주고 있었다(공주가 사는 성 같다는 이야기임).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나는 연애소설의 남자주인공이고, 에스텔라는 이 모든 것들의 영감이자, 살아있는 심장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비록 그녀가 나를 그렇게도 강렬하게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지만, 비록 내 공상과 희망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녀를 기초해 서 있었을지라도, 비록 내 사내아이 같은 유치한 발상과 성격에 그녀의 영향력이 전능했을지라도,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소유한 특성들을 제외 한 어떤 다른 특성들’도 더 덧붙이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내가 로맨스에 빠져든 아침에조차도 말이다.

내가 여기에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가련한 미궁 속’으로 나를 이끌어줄 길잡이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건대, 연인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은 언제나 진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에스텔라를 한 남자로서 사랑했을 때, 나는 그저 그녀에게 압 도당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흠모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무결한 사실이다.

딱 잘라서, 나는 몇 번이고 자주 내가 느끼는 비애에 대해 알았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이성에 거슬리면서까지 그녀를 사랑했었고, 내 밝은 전망들이며 평온들 희망들 내 행복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방해물들 물리치면서까지 나는 그녀를 사랑하려했다. 그 것이 내 비애의 원인이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내가 경건하게 믿은 결과가 나를 억제했을 영향력보다, 그것(위험함)은 나를 전혀 구속하지 못했다(뻔히 결말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다).

산책을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가며 내가 익숙한 시각에 정문에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벨(종)을 울렸다. 그만 너무 긴장해 정문을 등지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하며 내 심장박동을 적절히 조용하게 시키고 있었다.

그때 옆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안마당을 가로질러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다. 심지어 정문이 ‘정문의 녹슨 경첩’을 치며 “삐거덕” 소리를 낼 때조차도.

그때 내 어깨 위에 손이 닿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다. 그 순간 나는 그만 경악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 좋지도 않고 그렇 다고 그리 나쁘지도 않은 회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성과 마주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부자) 댁의 정문 문지기라는 자리에, 내가 최후에 보아야 될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올릭!” (올릭은 사악한 악당. 32세. 괴력의 소유자. 주인공 누나를 쇠 수갑으로 뒤에서 가격해 치명상을 입힌 장본인. 목격자가 없어 붙잡히진 않았음)

“어, 도련님, 제가 더 많이 변했죠. 우선 들어오쇼. 자, 정문 오래 열 어두었다간 제가 욕먹으니까.”

나는 그의 말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올릭, 사악한 악당)가 문을 흔들어 잠갔다. 그가 열쇠를 자물쇠에서 빼며 말했다.

“네!”

끈질기게 내 앞을 몇 걸음 앞서 집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가 얼굴을 내게로 돌리며 말했다.

“접니다!”

“어떻게 여길 오셨죠? 올릭.”

“내 발로 왔지.” 그가 삐딱하게 말했다. “손수레에 한 상자 실고서 여기로 왔지.”

“그럼 여기서 영원히 사실 건가요?”

“나쁜 짓 하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요, 도련님.”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자신의 무거운 눈을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들어올려 내 다리, 팔,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말대꾸를 차분히 되새겨보았다.

“그럼 대장간 일은 그만 두었단 말인가요?” 내가 말했다.

“이 옷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옷같이 보이냐?” 올릭이 험악한 시선으로 자기 주위 여기저기로 시선을 보내더니 말했다. “자, 이래도 대장간에서 일하는 옷처럼 보여?”

나는 “가저리 씨(주인공 매형의 이름)의 대장간을 떠난지 얼마나 되셨죠?”라고 물어보았다.

“여기선 하루하루가 다 비슷해, 따로 더해보지 않고선 모르겠는데. 하지만 네가 런던으로 떠난 후 머지않아 여기로 왔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흥!”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젠 모르는 게 없는 학자가 되셨구먼, 제길.”

우리는 이때 저택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의 방이 저택 옆문 바로 내부에 있는 방이며, 그 방문엔 안뜰을 구경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방의 크기는 작았다. 파리에 있는 어느 문지기들에게 일반적으로 할당되는 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이었다.

몇몇 열쇠들이 방안 벽에 걸려 있었고, 그가 이제 막 벽에다 정문 열쇠를 추가로 걸었다.

각양각색의 헝겊들로 잇대어 덮여있는, 그의 침대는 방 안쪽으로 쑥 들어가 구획되어 있는 작은 곳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되는대로 처박혀 있고 좁고 졸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방이었다. 마치 인간 겨울잠 쥐(잠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아지트 같았다.

창문 옆 모퉁이의 그늘 속에서 어렴풋하게 보이는 검고 묵직한 ‘그의 모습은’ 흡사 이 방에 꼭 맞는 ‘인간 겨울잠 쥐 같았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인간 겨울 잠 쥐 그 자체였다.

“전에는 못 보든 방인데.” 내가 논평했다. “그렇지 그땐 여기에 문지 기란 없을 때니까.”

“그래.” 올릭(사악한 악당, 현재는 문지기)이 말했다. “하지만 이 큰 부지를 지켜줄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곳이 아주 위험해졌지, 죄수들이며 어중이떠중이이며 거지들이며 하층민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그런 다음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사나이로써 내가 문지기로 추천되었지. 난 당연히 그 일을 맡았고. 이건 뭐 풀무질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나 해머(망치)질보다 도 더 편해. (주인공의 시선이 벽에 걸린 총에 모이는 것을 알고) 저거 장전된 거야, 진짜야.”

그것은 내 시선을 뒤쫓던 그가 한 말이었다.

내 시선은 정말로 벽난로 위 선반 위 ‘테두리가 놋쇠(=구리+아연)로 보강된 총 한 자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럼.” 그(올릭, 사악한 악당)와 더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내가 다짜고짜, “미스 해비샴 마님을 만나러 올라가 봐도 되죠?”라고 물었다.

“그걸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그가 우선 스트레칭을 쭉 해보이더니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비딱하게 말했다. “내가 받은 지시는 여기까지요, 도련님. 여기에 놓인 이 망치로 내가 벨을 쾅 두드릴 테니 까, 그럼 넌 아무나 만날 때까지 혼자 쭉 통로를 올라가면 돼.”

“마님도 제가 온 거 아시죠?”

“젠장 할 내가 그걸 알 면 두 번 타 죽겠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곧 내가 두꺼운 장화를 신고서 어릴 적에 처음으로 밟았었던 이 기나긴 통로로 접어들었다. 역시 그(올릭)가 벨을 망치로 두 드려 소리를 만들었다.

통로의 끝자락에서도 벨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통로의 끝에서 세라 포킷(결혼하지 않은 주름투성이 노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독자가 이름을 알아두면 중간 중간 소설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됨, 다만 몇 번 안 나오는 이름이라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게 흠~)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금 내 갑작스런 등장 때문에 얼굴이 녹색이나 황색(노란 색)이 되는 체질이 된 것 같이 보였다.

“오!” 세라 포킷이 말했다. “당신, 그쵸?, 당신 핍 씨군요?”

“예, 미스 포킷 양(미스). 포킷 씨와 그 가족들(주인공의절친인 허버트의 가족)이 잘 지내고 있더라는 얘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이 눈치가 좀 빨라졌나요?” 세라가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 로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잘 지내는 것보단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고지식한 매튜(허버트의 아버지), 고지식한 매튜! 길은 아 시죠, 나리?”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오르곤 했었던 계단이라 웬만큼 알고 있었다.

내가 어릴 적에 여기 처음 와서 이 계단을 오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벼운 부츠를 신고 나는 이 계단을 올랐다. 이 익숙한 길을 톡톡 두드려가다 보니 어느새 미스 해비샴의 방문 앞에 도착해있었다.

“핍(주인공이름)이 노크(똑똑) 드립니다.”

그 즉시 그녀(미스 해비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거라, 핍.”

그녀는 오래된 식탁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옷도 예전 그대로 오래된 옷이었다. 자신의 막대기(지팡이) 위에 두 손을 겹쳐놓고 있었고, 그 손 등위에서 그녀의 턱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지금 벽난로의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미스 해비샴) 곁에는, 결코 누가 신어본 적이 없는 휜 색 구두를 손에 쥐고서, 고개를 숙여 그 구두를 살피고 있는,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들어 오거라, 핍.” 미스 해비샴이 낮게 울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하지만 뒤돌아본다거나 올려다본다거나 하진 않았다. “들어오거라, 핍, 그래 어떻게 지냈느냐, 핍? 마치 내가 여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내 손에 키스를 하는구나. 응? 그렇지 않니?”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눈으로만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짓궂게도 장난스런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 않니?”

“저는…, 미스 해비샴 마남.” 내가 약간 당황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친절하시게 도, 마님께서 저를 보시자고 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왔습….”

“그게 다니?”

내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숙녀가 고개를 들어 짓궂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그 눈 속에서 에스텔라의 눈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있었다. 전보다 아주 훨씬 더 아름다워져 있었고, 전보다 아주 훨씬 더 여성스러워져 있었다. 모든 면에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그러한 변화는 너무나 놀라운 발전이라 내가 그동안 이룬 변화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듯 느껴질 정 도였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내가 거칠고 천한 막노동꾼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감속이 들었다.

아, 내가 맞다드린 그 거리감과 불균형의 자각이란,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그 접근하기 어려움이란!

그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더없는 기쁨이며 오늘과 같은 기회가 오기를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학수고대해 왔노라는 등등의 얘기를 했다.

“저 애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보겠니? 핍.” 미스 해비샴이 갈 망하는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미스 해비샴이 지팡이로 그녀들(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 사이에 놓인 의자를 두드렸다. 나보고 거기에 앉으라는 신호인 것 같았다.

“미스 해비샴 마님, 제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얼굴이나 모습에서 전혀 에스텔라가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모두 제자리를 잡았….”

“뭐라고? 설마 저 애가 예전 그대로라고 말하진 않을 테지?” 미스 해비샴이 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 애는 도도하고 무례했지. 넌 그런 저 애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고. 핍,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니?”

나는 당황해서 “마님,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땐 제가 아직 잘 모를 때이고…, (횡설수설)”라고 말했다.

에스텔라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그녀도 내가 전적으로 옳았음을 확신한다고, 그리고 그녀가 그때 대단히 무례한 애였다고 말했다.

“그가 변했니?” 미스 해비샴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주 많이요.” 에스텔라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덜 거칠고 덜 저속해졌니?” 미스 해비샴이 에스텔라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에스텔라가 웃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다시 웃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구두를 내려놓았다.

그녀(에스텔라)는 여전히 나를 소년으로 대했다. 하지만 나를 계속 유혹했다.

우리는 꿈결 같은 방에서,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오래되고 낮선 영향들 사이로 앉아 있었다.

곧 나는 알았다. 에스텔라가 프랑스에서 막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조만간 런던으로 갈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대로였다. 예전처럼 거만하고 제멋대로였다. 하지만 그러한 자질들을 가져다 자신의 아름다움 속에 종속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것을 그녀의 아름다움과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본질에도 맞지 않았다. 적어도 난 그리 생각했다.

내 소년기를 훼방 놓았던 돈과 상류계급에 대한 추구 그러한 모든 비참한 열망으로부터 그녀의 존재를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은 실로 불 가능했다.

생전 처음 내 집과 ‘조’(주인공의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매형, 대 장장이)를 창피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 모든 부당한 염원들로부터 그 녀의 존재를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도 실로 불가능했다.

작열하는 불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던 환상들과, ‘모루’(대장간 쇠 받침대) 위에 쇠에 놓았을 때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미친 듯이 해머 질을 했었던 환상들과, 밤의 어둠 속에서 형성된 그녀의 얼굴이 대장간 목재창문을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다 휙 스치듯 사라져 버렸던 그 모든 상상들로부터 그녀의 존재를 떼어내서 생각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능했다.

한 마디로 말해, 내 가장 깊숙한 내면세계로부터, 과거든 현재든, 내가 그녀를 떼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마음먹었다.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그 날의 나머지시간을 모두 보내고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갔다가 내일 런던으로 상경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와 에스텔라가 잠깐 대화를 나누는 사이, 미스 해비샴이 산책을 다녀오라며 우리를 방치된 정원으로 보냈다.

다만 머지않은 시각에 돌아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탄 의자를 잠깐 동안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스테라와 나는, 내가 길을 잃다 ‘창백한 어린 신사’(허버 트)와 만났을 때 통과했었던 통로를 통해 정원으로 들어섰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창백한 어린 신사’란 지금의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를 말 한다.

나는 영혼까지 떨려와 에스텔라가 입고 있는 옷의 가장자리 단(안으로 접어 붙인 부분)까지 숭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침착해 보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옷 가장자리 단을 숭배하는 모습 따윈 확실히 거부하고 있었다.

내가 허버트를 만났던 장소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숨어서 그 날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난 정말 특이한 아이였음이 분명해. 하지만 난 지켜보았고, 사실은 아주 즐겼지.”

“그 답례(그녀의 뺨에 입맞춤)가 내겐 너무도 큰 보상이었어.”

“내가 그랬니?” 그녀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리고 그 일을 잊었다는 듯 말했다.

“난 네 적수(허버트)에게 대단한 이의를 품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런 애가 여기 온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데 날 귀찮게까지 하지

뭐니.”

“그 앤 지금 내 절친(친구)이야.”

“그러니? 그러고 보니 그 애 아버지가 네 공부를 봐준다는 소식은 들은 것 같아.”

“그래.”

나의 이러한 인정은 내키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엔(누군가가 자신의 공부를 돌봐준다는 것) 뭔가 소년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나를 소년보다 더 소년같이 대하고 있었다.

“네 운과 미래에 대한 변화만큼이나 네 친구들도 달라졌겠구나.” 에 스텔라가 말했다.

“당연히….” 내가 말했다.

“필연적인지도 몰라.” 그녀가 다소 도도한 말투로 덧붙였다. “한때 네 친구로 적합하던 사람들이, 지금의 네 친구론 아주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까.”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주인공은 조를 많이 창피해하고 있음)를 만날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게 있었는지 그 질질 끄는 의향이라도 있었는지 도저히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결판났다. 만약 내게 그러한 의향(조를 만날 의향)이 있었다고 해도, 그녀의 이 발언이 그런 내 생각을 “확” 달아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앞에 펼쳐질 행운에 대한 개념은 없었겠구나?” 에스텔라가 손을 가볍게 흔들면서 말했다. 나와 허버트와의 싸움이 있던 어릴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조금도 없었어.”

내 옆에서 완벽하고 우월한 태도로 걷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그런 그녀 옆에서 젊은이특유의 굴복하는 자세로 걷고 있는 내 모습은 큰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그 대조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자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따로 챙겨져 할당된 존재로써 그런 생각(그녀와 주인공 사이의 크나큰 대조)을 이끌어낸 것임을 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은(큰 대조) 실제보다 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사무쳤을 것이다.

정원엔 풀이 너무 크고 지나치게 무성하게 자라 있어 걷기가 쉽지 않았다.

두 번 혹은 세 번 정원을 마저 돈 후, 우리는 맥주공장의 안뜰로 다 시 들어섰다.

나는 그녀에게 정확하게 가리켰다.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그녀 가 큰 통들 위를 걸어가던 장소를 나는 정확하게 가리켰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냉담하게 그러면서 그 쪽 방향을 무관심하게 바 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랬니?”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 저택에서부터 걸어 나와 나에게 고기며 음 료수(따뜻하게 데운 맥주를 의미함)를 준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날(주인공) 울렸던 일도 기억 안나?” 내가 말했다. “그래.” 그녀가 고개를 흔든 후 여기저기를 보며 말했다.

나는 정말로 믿는다. 그녀가 조금도 기억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녀가 조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고. 그것이 나를 마음속 깊이 다시 울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로 믿는다. 그 눈물이 모든 눈물들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울음이었다고.

“넌 알아야해.” 가끔 훌륭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내게 일부러 공손하게 대하듯, 에스텔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난 심장이 없어. 그게 만약 내 지난 기억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더욱더.”

내가 그 말을 의심한다는 효과를 내기 위해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허튼소리를 내뱉고 말았다. 그 문제라면 내가 더 잘 알 것 같다고. 심장 없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미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오! 칼로 찌를 수 있고 총에 맞을 수 있는 심장은 내게도 있어. 그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에스텔라가 말했다. “당연히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내 삶도 멈출 테니까. 하지만 넌 알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심장엔 부드러움이 없다는 말이었어. 내 심장엔 동정이라느니 감정이라느니 하는 그런 허튼 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녀는 가만히 서서 나를 주의 깊게 쳐다봤을 때, 문득 내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녀에게서 미스 해비샴과 닮은 점을 내가 발견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외모와 행동에는 미스 해비샴을 연상시키는 기운이 얼마간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릴 적부터 어른과 오래 같이 지낸 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후천적인 닮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린 시절을 통과한 후 완전히 다른 두 얼굴들 사이에서 예외적으로 유사한 표정이 이따금씩 보이곤 하는 그런 유의 닮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취를 미스 해비샴과 연결시킬 순 없었다.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비록 그녀는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방금 전의 그 이미지는 사라졌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난 지금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 에스텔라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많이 언짢아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마가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단지 표정이 어두웠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자주 만나야한다면, 방금 내가 한 말(”난 심장이 없어”)을 즉시 믿는 게 좋아.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려하자) 아냐!”

내가 뭐라고 입술을 벌리려고 하자 그녀가 고압적으로 제지하며 말했다.

“내 애정을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냐. 난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순간 우리는 맥주공장 안에 있었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던 곳이었다.

그녀가 아주 높은 좌석을 가리켰다. 그 곳은 내가 이 곳에 처음 온 날 그녀가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던 곳(맥주공장 내부 맨 위쪽 관람석 좌석)이기도 했다.

그녀가 말했다.

“난 기억나. 내가 저 위쪽에 있었던 것과 네(주인공)가 이 아래에서 겁을 집어 먹고 서 있던 걸 내가 본 일을 말이야.”

내 시선이 그녀의 하얀 손에 닿았다. 그 순간 내게 혼선을 주며 아무리 해도 움켜쥘 수 없는 아까와 같은 흐릿한 연상이 떠올랐다.

본의 아니게 내가 놀라자 그녀가 내 팔에 손을 얹어 주었고, 그 즉시 환영(유령)이 다시 한 번 지나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문제 있니?” 에스텔라가 물었다. “아님 다시 두려워진 거니?” “아마도, 방금 전에 네가 한 그 말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웠겠지.” 내

가 논지에서 벗어난 말을 했다.

“그럼 안 믿는단 말이니? 알았어. 어쨌든 난 말했으니까. 미스 해비 샴이 기다리겠다. 네가 옛날처럼 의자를 밀어주길 바라나봐. 내 생각엔, 그녀가 다른 익숙한 소유물(재산)들과 함께 운동도 그만둘 것 같지만 말이야. 어떠니, 정원 한 바퀴만 더 돌고 갈까, 그러자. 어서! 걱정마 내 잔인한 행위 때문에 오늘만큼은 네가 눈물 흘릴 일은 없을 테니까. 넌 오늘 내 시동(시중을 드는 아이)이 되어야하니까, 우선은 네 어깨를 좀 빌릴까.”

그녀가 입고 있던 멋있는 옷이 지면에 끌렸다. 그녀가 한 손으로 옷을 잡고서 다른 한 손을 내 어깨 위에 가볍게 얹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폐허가 다 된 이 정원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두 번 혹은 세 번을 더 돌았다. 내겐 그 정원 곳곳에 꽃이 활짝 핀 것만 같았다.

오래된 벽의 갈라진 틈들에 핀 그 황록색(녹색과 노란색)의 잡초들이 그때까지 피웠었던 가장 값비싼 꽃들이었다손 치더라도, 내 추억 속에서 이 정도로까지 소중히 간직되진 못했을 것이다.

그녀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연령의 차이 같은 건 우리사이에 전혀 없었다.

우리들은 거의 동갑이었다.(부연설명 : 둘 다 19세입니다.) 물론 그녀가 나보다 몇 살 많아 보였지만.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태도가 그녀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난 내 환희의 한복판에서도 고통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여성 후원자(미스 해비샴을 의미함)가 우리를 서로를 위한 배필로 정해주다는 내 확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태도가 그녀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 때문에 고통받았다.

가련한 녀석!

마침내 우리들이 저택으로 되돌아왔다.

거기서 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 미스 해비샴의 고문 변호사)이 미스 해비샴을 업무 차 만나러 방문했었으며 저녁식사시간 때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외출하는 동안, 썩고 있던 식탁이 넓게 자리 잡고 있던 방안 ‘샹들리에’(천장 장식용 고급 전등)들에 매달린 ‘낡고 황량한 나뭇 가지들’(촛대)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갑부)이 그녀의 의자에 앉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결혼식 축하연 잿더미 주위를 둥근 원을 그리며 익숙하게 서서히 돌았을 때, 그건 마치 의자 자체를 과거의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 만 같았다.

하지만, 구슬픈 그 방에서 시체 같은 사람이 의자에 등을 바짝 기댄채 자신(미스 해비샴)의 시선을 그녀(에스텔라)에게 고정하고 있었음에도 에스텔라는 전보다 더 빛나보였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이 나를 더 강렬하게 그녀에게 매혹시켰다.

시간이 그렇게 차츰 녹아 사라져, 우리가 이른 저녁식사를 들 시간이 다가왔다.

그녀 자신을 준비(꾸밈)하기 위해 에스텔라가 방을 나갔다. 우리는 그때 긴 식탁 중앙 가까이에 멈춰 서 있었는데, 의자 밖으로 다 말라 빠진 두 팔 중 하나를 내민 채 미스 해비샴의 꽉 쥔 손이 색이 바란 식탁보 위에 받쳐져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에스텔라가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자, 미스 해비샴이 그 손(꽉 쥔 손)으로 탐욕스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키스를 보냈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종류의 강렬함이었다.

에스텔라가 사라진 다음 우리는 둘만 남게 되었다. 미스 해비샴이 내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다음과 같이 속삭였다.

“저 애가 아름답니, 저 애가 우아하니, 저 애가 잘 자란 것 같으냐? 저 애를 찬양하느냐?”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스 해비샴 마님.”

그녀가 한 팔로 내 목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채로 내 고개를 그녀의 고개 쪽으로 내려서 끌어당겼다.

“저 애를 사랑하거라, 저 애를 사랑해, 저 애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 거라! 저 애가 그를 어떻게 이용하더냐?”

적어도 내가 그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채 대답 도 하기 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저 애를 사랑하거라, 저 애를 사랑해, 저 애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 거라! 저 애가 네게 친절을 베풀면 저 애를 사랑해라. 만약 저 애가 네게 상처를 입히더라도 저애를 사랑해라. 만약 저 애가 네 심장을 갈기 갈기 찢어놓더라도, 넌 저 애를 사랑해야한다. 저 애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한다! 나이가 들고 더 강해질수록 네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테지.”

이러한 말들(“그녀를 사랑해라”)을 내뱉으면서 그녀가 보인 그런 열정적인 갈망을 나는 일찍이 단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다.

내 목을 감은 얇은 팔의 근육들이 그녀를 홀린 열정들에 이끌려 부풀어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잘 들어라, 핍(주인공이름)! 난 저 애를 입양했다. 그건 저 애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저 애를 길렀고 교육시켰다. 그건 모두 저 애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저 애를 지금의 모습으로 키운 것도 모두 저 애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저 애를 사랑해주어라!”

그녀는 매우 빈번하게 그 단어(“사랑”)를 사용했다. 그녀에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심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만일 그토록 자주 되풀이되던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증오”였어도, 아니 그 단어가 “절망”이었어도, 아니 그 단어가 “복 수”였어도, 아니 그 단어가 “무시무시한 죽음”을 지칭하는 단어였어도, 그녀의 두 입술에서 이토록 저주스럽게 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미스 해비샴)이 여전히 성마르고 정열적인 어조로 속삭이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느냐. 그건 눈 먼 헌신이다. 그건 무조건적인 겸손이며 완전한 복종이다. 그것은 신뢰이자 ‘네 자신과 전 세계에 맞선 신앙’이다. 알겠느냐, 네 모든 심장과 영혼을 강타자(연인)에게 산체로 넘기는 것이다. 내가 그러했듯이.”

“내가 그러했다”는 말까지 나왔을 때, 그녀가 야생적인 외마디 고함을 내질렀다. 내가 그녀의 허리 주의를 붙잡아야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수의(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입히는 옷) 같은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폭동을 일으키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덤벼들었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마치 그녀가 이대로 벽에 부딪쳐 죽어 넘어지고 말겠 다는 태도 같았다.

몇 초 사이에 이 모든 소란이 지나갔다. 내가 그녀를 다시 부축해 의자에 앉히자,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비누향수 냄새가 남을 알아챘다.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이 방안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아직 언급 안 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재거스 씨가 꼭 손수건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아주 화려한 비단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인상적일 만큼 커다란 손수건을 그는 항상 휴대하고 다녔는데, 그건 변호사란 그의 직업상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았다.

마치 그가 당장에라도 코를 풀 것처럼 그 손수건을 지나치게 격식을 갖추며 펼침으로써 의뢰인(고객)이나 증인을 아주 겁먹게 하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보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는 그 행동을 딱 멈추었는데, 마치 의뢰인이나 증인이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기 전엔 그와 같이 행동할 여유를 자신이 가지면 안 됨을 그가 퍼뜩 생각했다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도 의뢰인이나 증인들의 자기 서약(맹세) 이 곧바로 이어졌다.

내가 방안에서 그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는 예의 그 손수건 행사 례(코풀기)를 하려고 두 손으로 폼을 잡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눈이 그의 눈과 마주치자, 그가 코풀기 바로 전 자세에서 멈칫하며 말없이 정지하든이 솔직히 속마음을 털어났다.

“정말이오? 그거 참 놀랍소!”

그런 다음 불가사의할 정도로까지 효과적으로(보는 이로 하여금 두 려움을 줄 정도로) 손수건에다 코를 풀어댔다.

내가 재거스 씨를 보자마자 미스 해비샴도 재거스 씨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는 그를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기감정을 가다듬으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더듬었다.

“여전히… 약속 시간을… 엄수하시는군요.”

“전 언제나 약속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미스 해비샴.” 그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며 대답했다.

“(주인공에게) 그래 어떻게 지냈나, 핍? (미스 해비샴에게) 제가 좀 태워드릴까요, 미스 해비샴? 한 바퀴면 되겠죠? (주인공에게)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군, 핍?”

나는 그에게 내가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미스 해비샴이 언질을 줘 내가 에스텔라를 만나러 내려왔노라고 그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그가 “아! 그 대단히 아름다운 젊은 숙녀분 말인가!”라며 답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미스 해비샴이 탄 의자를 뒤에서 밀었다. 두 손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커다란 두 손들 중 한 손으로 밀었다. 다른 손은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는 비밀이 가득하다는 듯이 바지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핍(주인공이름)! 자네 에스텔라 양(미스)을 얼마나 자주 만난 거지? 전에 말일세.” 그가 한 바퀴 돌았을 때 나를 보며 말했다.

“얼마나 자주라뇨?”

“아! 얼마나 여러 번 말일세. 한 만 번쯤은 되나?”

“어! 만 번이라니요. 택도 없죠.”

“그럼 두 번?”

“재거스.” 나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미스 해비샴이 제지하며 말했다. “핍은 내버려두게. 저 애를 데리고 저녁이나 먹으러 가시게.”

재거스 씨가 그 말을 따랐다. 우리는 함께 손으로 더듬어 가며 어두운 계단을 내려왔다.

우리가 저택 뒤쪽에 있는 ‘포장된 안뜰’ 맞은편에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들’을 향해 여전히 가고 있는 도중에, 재거스 씨가 내게 또 물었다.

“그래, 미스 해비샴이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았나?”라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백번? 아님 한 번 보았나?”라며 한 다발의 선

택폭을 제시했다.

나는 잘 생각해본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전혀요.”(미스 해비샴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혀’란 말이 앞으로도 이어질 걸세, 핍.” 재거스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웃더니 결국 삐딱하게 응수했다. “그녀가 현재와 같은 이런 삶을 시작했을 때부터, 먹는 모습이든 마시는 모습이든 남들에게 보이는 걸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밤이면 여기저기 종잡을 수 없이 어슬렁거리며 손에 집히는 대로 음식을 먹는다지 아마.”

“그럼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물론이지, 자네가 원할 때는 언제든 내게 질문을 할 수 있네. 물론

그 질문에 대해 난 답변하는 것을 언제든 거절할 수 있고. 그럼 질문부터 던져보게.” 그가 말했다.

“에스텔라의 이름이요. 해비샴인가요 아님…?” 나는 이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아니면 뭔가?”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해비샴인가요?” (←미스 해비샴의 성 씨는 ‘포킷’인데 에 스텔라의 성 씨는 무엇이냐고 물으려다가 말이 헛 나온 것임. 원래 주인공이 하려던 질문은 두 사람이 친척사이냐?임)

“그러네.”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우리는 저녁식탁자리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엔 에스텔라와 세라 포킷(호두껍데기로 만들어진 것 같은 얼굴

에 주름이 많고 입이 고양이 입같이 커다란 결혼을 하지 않은 노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실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주인공의 유산상속을 굉장히 시기하는 인물임)이 벌써 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거스 씨가 상석(윗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았다. 에스텔라가 재거스 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황록색(녹색과 노란색) 얼굴색을 한, 내 친구(세라 포킷, 주인공의 유산상속을 너무 시기해 주인공의 얼굴만 봐도 화가 나 얼굴빛이 황록색으로 막 변함)와 마주보며 앉았다.

저녁만찬은 잘 차려져 있었다. 내가 이 저택을 여러 번 들락거렸음에도 한 번도 나랑 마주친 적이 없는 어느 가사도우미가 우리의 식사 시중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가사도우미는 이 미스터리한 저택에 줄곧 머물러왔음이 분명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았다.

저녁식사(만찬) 후 오래된 ‘포트와인(단맛이 나는 포르투갈 산 적포도주. 식사 후에 마심)’ 한 병이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 앞에 조심스럽게 놓여졌다.

뽐을 보니 그는 특정한 연도와 지역에서 난 포도주에 대해선 아주 이골이 나있는 것 같았다(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두 숙녀들(에스텔라와 세라 포킷)은 우리를 남겨두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저 지붕아래에서 단단히 결심한 듯한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 변호 사)’의 과묵(말수가 적음)과 같은 건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에게서도 처음 보는 행동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골몰해있었고 저녁만찬을 하는 동안에도 에스텔라의 얼굴 쪽으론 단 한 차례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에스텔라가 자신에게 말을 걸면, 재거스 씨는 듣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한 마디씩만 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결코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경우는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면 에스텔라는, 불신에서 비록된 것이 아닌 호기심과 캐기 좋아하는 그 나이 또래의 감정을 실은 채 그에게 자주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재거스 씨의 얼굴 어디에도 그것을 의식한다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저녁만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천연덕스러운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 나와의 대화에서 내가 앞으로 받을 예정인 막대한 유산을 종종 언급함으로써 세라 포킷의 얼굴빛을 더욱 더 누르락푸르락(누르렀다가 푸르렀다가) 만들며 천연덕스럽게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혀 내색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스스로 그러한 언급(유산)들을 하게 만들며 천연 덕스럽게 즐기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하고만 남게 되자, 획득한 정보의 결과 이젠 가만히 있자는 식으로 점잔빼며 앉았다.

그게 정말이지 나로선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 밖에 괴롭힐 상대가 없자, 앞서 말한 포도주를 상대로 반대 심문을 펼치고 있었다(음미하고 있었다).

자신과 촛불 사이로 잔을 쥐고는 포트와인(단맛이 나는 포르투갈 산 적포도주. 식후에 마심)을 음미하며 입안에서 와인을 살살 굴리다 꿀꺽 삼켰다. 그런 다음 다시 잔을 촛불 쪽으로 가져가 비춰보고는 포트와인의 향을 살짝 맡곤 입에 적셔보곤 했다. 그런 후 포토와인을 다시 채웠다. 그리곤 내가 너무도 신경질적이 되어 마치 ‘저 포트와인이 내 약점을 죄다 그에게 발설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 때까지 그는 아무 상관없는 와인 잔에다가 반대심문을 퍼붓는 것이다(와인을 음미).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하나?’싶을 정도로 내가 무기력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세 번 혹은 네 번 정도 했을 때, 즉 내가 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려고 뜸을 들이는 것을 그가 눈치 챌 때마다, 그는 입안에서 와인을 이러 저리 굴리며 손에 와인 잔을 쥔 채 나를 가만히 살폈다. 그의 동작은 마치 내게 주의를 요청하는 것만 같았다.

‘아무 소용없네. 내가 대답할 수 없을 테니까.”라는 주의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세라 포킷 양(미스)은 의식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다시 보면 내 성공에 너무 화가나 정말이지 돌 수도 있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신이 치달을 수 있음을 염두 했다고 말이다. 어쩌면 자기 모자를 뜯어버릴 지도 모를 일이었고 어쩌면 너무 짜증이 나 자기 머리 카락들을 바닥에 흩뜨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자는 아주 보기 흉했고 괴상했으며 모슬린(털실로 짠 모직물) 대걸레와 비슷했기 때문에 좀 뜯어져도 되었을 것이다.

또한 확신하건데 그녀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그 머리카락들도 정말 그녀의 머리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재거스 씨와 내가 뒤에 미스 해비샴의 방으로 다시 올라 갈 때도 세라 포킷 양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 네 명은 장난삼아 ‘휘스트’(2명이 1조가 되어 하는 카드놀이, 다음Daum 영어사전 참조)를 했다.

휴식 시간에 미스 해비샴이 자신의 화장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을 몇몇 꺼내 에스텔라의 머리카락에 그리고 에스텔라의 가슴과 두 팔 주위에 환상적인 방식으로 달아주었다.

보석에서 반짝이는 빛과 빛깔이 다채롭게 쏟아지며 재거스 씨 앞에 그녀의 사랑스러움이 꽃피었을 때, 심지어 내 후견인조차 숱 많은 눈썹 아래로 그녀를 바라 보다 감탄해 눈썹이 살짝 들어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았을 정도였다.

재거스 씨가 우리들의 으뜸 패(카드놀이의 으뜸 패)를 따가는 방식이며 정도에 대해서는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판(카드놀이의 판)의 끝마다 보잘 것 없는 자신의 허름한 카드들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카드 앞에서 우리(‘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와 ‘주인공’)들의 ‘왕과 여왕카드들’이 당한 패가망신에 대해서도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우리 세 사람을 “뻔할 뻔자”에 “볼품없는 세 개의 수수 께끼들”인 마냥 인신 공격적으로 수수방관하며 지켜보던 것에 대해서도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그가 특히 우리들을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해답을 푼 수수께끼들 마냥 바라볼 때마다 내가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서도 나는 더 말하고 않겠다.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냉랭한 그의 존재’와 ‘에스텔라를 향한 내 감정들’사이의 극명한 대조(불일치)였다.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녀에 대해 그에게 좀 더 물어보고 싶어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자기 부츠로 삑삑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음 알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에 관해서는 발을 떼려는 그를 내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정작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내 찬양의 대상이 그(재거스 변호사)와 50센티미터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내 감정들이 그(재거스 변호사)와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바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그녀 근처에 어떤 남자도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 있더라도 그녀를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저녁 9시까지 카드놀이를 했다. 그런 다음 에스텔라가 런던으로 올 때 나에게 미리 주의를 줄 것과 마차 역까지 내가 미리 나와 있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그녀의 손에 살짝 키스를 한 후 그녀를 떠났다.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도 ‘외설적인 수퇘지’(여인숙이름이자 술집 이름)에 묵고 있었다. 바로 내 옆방이었다.

밤늦도록 미스 해비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를 사랑하거라, 그녀를 사랑해, 저 애를 사랑해!”라는.

나는 미스 해비샴이 한 말을 내 자신의 언어로 반복해 베개에다 쏟아 부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가 분명 그녀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수백 번을 반복했다.

그때,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가 내 배필로 정해질 운명이었다니.’ 그것도 한때 별 볼일 없던, 대장간심부름꾼 소년이었던 나를.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었다. 만약 그녀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운명(주인공의 배필)에 대해 전혀 열광적으로 감사해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언제쯤이면 그녀도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

그리고 나는 언제 그녀 안에 있는 심장을 깨워야할까? 그녀의 심장은 지금 소리도 없고 식어있는데.

아아! 이건 고귀하고 위대한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에 어떤 저급하고 작은 감정이 깃들어 있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조를 경멸할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직 하루가 채 안 지난 일이었지만 벌써 내 눈물은 말라 있었다.

하느님 저를 용서해주소서! 이토록 빨리 눈물이 마르다니.

**위대한 유산**

**30장**

아침에 일어나 ‘외설적인 수퇘지’(여인숙)에서 옷을 챙겨 입는 동안에도 나는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우선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에게 “올릭(지독한 악당, 32세)이란 작자가 과연 미스 해비샴 댁(저택)의 수위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절한 유형의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는 말부터 하기로 결심했다.

“물론 그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네, 핍(주인공의 이름).”라며 전체적으로 이번 방문에 이미 흡족해하던 그가 말했다. “신뢰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치고 적합한 유형의 사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 까다로운 직책(수위)에 예외적이게도 적절치 못한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그의 기분을 대단히 고양시키는 것 같았다.

내가 올릭(악당)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그에게 들려주는 동안에도 그는 만족스런 눈빛으로 경청하고 있었다.

내 얘기가 끝났을 때, 그가 “아주 잘됐네, 핍.”라며 발언했다. 그가 말했다.

“지금 그 집에 들러 그 친구에게 급료를 주고 해고하도록 하겠네.”

이 재빠른 조치에 나는 살짝 당황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가 아닙니다. 상대하기에 벅차실 수도 있습니다.”란 힌트까지 주었다.

“오 절대, 그러진 못할 거네.” 내 후견인이 자신의 손수건으로 긴장감을 배가시킬 때처럼 완전한 자신에 차서 말했다.

“내가 그 자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 군.”(←임의대로 해석했음 / 직역 → 그가 그 문제로 나와 논쟁하는 것을 보고 싶네.)

우린 정오(한 낮) 마차 편을 이용해서 런던으로 함께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펌블추크(능청맞은 잡곡상, 67세)가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입으로 밥을 먹는 건지 밥이 내 입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떨려서 손으로 찻잔을 쥐고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 핑계를 대고 “좀 걷고 싶어서요.”라며 말을 꺼낸 후 “변호사님께서 바쁘시니 저만이라도 먼저 마찻길을 따라 런던으로 걸어가고 있겠 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마차가 저를 따라잡았을 때 제가 잡아탈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미리 마부에게 귀띔해주실 수 있으신지요?”라고 물었다.

이와 같이 꾀를 부린 결과 나는 아침이고 뭐고 대충 먹은 후 그 즉각 ‘외설적인 수퇘지’(여인숙 이름이자 술집 이름)에서 튈 수 있었다 (달아날 수 있었다).

펌블추크(67세)의 상가부지 뒤쪽에 있는 ‘탁 터인 시골길’로 원형 고리를 그리며 45분(=3킬로미터)을 걸은 후 시내중심가로 다시 진입해 펌블추크와 마주칠 위험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쯤에야 나는 비로소 ‘이젠 비교적 안전하겠지’ 싶었다.

조용한 옛 읍내로 다시 한 번 들어서자니 나름 흥미가 당겼다. 여기저기에서 갑작스럽게 나를 알아보고 뒤에서 나를 응시하는 게

어째 영 불쾌하지가 않았다.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되는 상점 주인들이 가게에서 쏜살같이 달려나와 내가 가는 길 앞쪽으로 좀 더 갔다가 마치 뭔가를 잊은 사람인양 돌아서서 나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지나쳐가기도 했다.

이런 경우, 가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 그들이 더 가식적인지, 그걸 못 본체 한 내가 더 가식적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등장은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이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뿔싸 운명의 여신이 ‘저 무례하고 사악한,’ 트랩 씨의 ‘점원 녀석’을 내가 가는 앞길에 집어던진 것이었다. (트랩 씨의 점원 녀석에 대해서는 19장 참조 바람. 이 일대 읍내에서 가장 뻔뻔한 꼴통 녀석임)

‘내가 가는 앞길’의 ‘어느 지점을 향해’ ‘거리를 따라 시선을 보내던 나는,’ 그 망할 놈의, 트랩씨 가게의 ‘점원 녀석(뻔뻔스러운 꼴통, 19세)이’ 비어있는 청색 가방으로 자신의 몸을 “퍽퍽” 후려치며 다가오는 것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평온한 척 그래 애써 모르는 척 그를 응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며 그 사악한 녀석의 마음을 제압할 가장 요긴한 방도라 생각한 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며 앞으로 전진 했고 나름 이 방법이 녀석에게 먹혀들 것임을 스스로에게 자축하고 있었다.

제길, 트랩 씨의 점원 녀석의 두 무릎이 느닷없이 서로 세게 부딪치더니, 녀석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녀석이 쓰고 있던 모자가 “휙” 날아가 땅바닥에 떨려지고, 녀석의 몸뚱이에 붙은 팔과 발들이 격렬히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녀석이 비틀거리며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망할 놈은 온 시민들을 향해 이딴 굉음을 내지르고 있었다.

“저 좀 안아주세요! 무서워죽겠단 말예요!”

그건 거짓으로 꾸며낸 티가 팍팍 나는 공포와 통탄에 젖은 발작적 외침이었으며 내 품위 있는 등장에 대한 통렬한 비꼼이었다.

녀석을 지나쳤다. 녀석의 입이 귀에 달린 것이 보였다. 녀석이 큰 목소리로 재잘거렸다. 곧 녀석이 누가 봐도 명백히 나에게 굴욕적인 창피를 주기 위함이 분명한 온갖 동작들을 취해가며 정말 나 때문에 죽는다는 시늉을 하며 땅바닥에 ‘대자로(길게 누운 자세로)’ 뻗어버렸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작태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채 200미터도 더 못 갔을 때, ‘트랩 씨 가게의 그 점원 녀석’이

이쪽으로 또 다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의 내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경악과 치미는 분노란….

녀석은 한 쪽 구석을 빙 돌아서 내 쪽으로 접근한 것이다. 녀석이 어깨너머로 청색 가방을 휙 내던졌다. 정직하면서도 성실한 눈빛이 녀석의 두 눈에서 발산되고 있었고, 트랩 씨의 가게(읍내 신사복전문점) 로 자신도 걸어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그의 걸음걸이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큰 충격과 함께 녀석이 나를 알아봤다. 녀석이 앞서와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빙빙 도는 동작이었다. 녀석이 두 무릎을 심하게 떨며 마치 주님에게 자비를 간청하려는 듯이 두 손을 높이 치켜 던 채로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휘청거렸다.

일단의 구경꾼들이 녀석의 이런 원맨쇼에 열광하며 환호를 보냈고, 결국 난 정신이 무너질 정도의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내가 거리를 더 내려가 우체국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때, 앗(\*\_\*) ‘트랩 씨 가게(신사복전문점)’의 점원 녀석이 뒷길을 돌아 잽싸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도, 녀석은 완전히 태도를 바꾸며 다가왔다. 좀 전에 어깨 뒤로 내던졌던 청색 가방을 펼쳐 마치 자신의 오랜 외투인 양 걸치더니, 거리 맞은편에 있던 내 쪽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거드름을 피우면서 오고 있었다.

녀석의 옆엔 아주 기뻐하는 어린 똘마니들이 한 무더기 뒤따르고 있었는데, 녀석은 그런 애기들에게 손을 흔들어대며 때때로 이렇게 외쳐 대고 있었다.

“어허, 댔기 이 녀석들! 너희들은 몰라.”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나쳐갈 때 녀석이 내게 가한 도발과 상처의 총량(합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 녀석은 우선 자신의 셔츠 칼라(옷깃)를 세우더니, 자신의 옆머리를 꼬더니, 손을 허리춤에 대고 팔꿈치를 양 옆으로 쭉 뻗더니, “싱글싱글” 뽐내는 웃음을 절묘하게 짓더니, 팔꿈치와 몸을 굼실굼실 거리며 독특하고 느린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어허, 네 이놈들! 내가 감히 누구라고. 응? 너희 같은 놈들이 감히 날! 아는 체를 해? 응! 감히 날? 댔기 이 녀석들아!”

그 직후 이 불명예스러운 수행원(점원 소년)은 까마귀 울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똘마니들을 대동하고서 나를 따라 다리 건너까지 쫓아오며, 내가 대장장이였을 때부터 알았던 까마귀 한 마리가 이제 막 풀이 몹시도 죽어 내는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읍내를 떠나며 받은 불명예’ 말하자면 ‘읍내에서 ○망신을 당하며 쫓겨난 뒤 탁 터인 시골길로 내동댕이쳐졌을 때에 받 은 내 불명예’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내가 트랩 씨의 ‘점원 녀석’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제외하고 참는 것 말고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나는 진짜 모르겠다.

거리에서 그와 옥신각신 한다거나, 혹은 녀석 심장의 피가 아닌 다른 비열한 보상을 녀석에게서 강제로 거둔다거나 하는 짓은 정말이지 효과도 없고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타격을 가할 수 없는 녀석이지 않았던가. 구석으로 쫓기면 포획자의 두 다리 사이로 다시 뛰어나가면서 “캥캥” 짖어대며 상대를 깔볼 녀석이며, 공격할 수 없고 재빨리 몸을 피하는 뱀 같은 녀석이지 않는가.

하지만 나는 다음날 우편으로 ‘트랩 씨(돈 많이 버는 양복집 주인, 노총각, 44세)’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 핍 씨(주인공 자신 이름)는, 모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혐오를 불러일으킨 점원을 고용하기까지 한 개인(트랩 씨), 상류사회 최선의 이해관계에 이득을 보고 있음을 잊을 수 있었던 개인(트랩 씨)과 더 이상의 거래를 거절하는 바입니다. 〉

머지않아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가 탄 대형 사륜마차(바 퀴4개)가 다가왔다. 나는 마차 내 좌석에 올라탔다. 그 후 안전하게 런 던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내 심장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이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대구(생선) 하나와 굴(먹는 굴) 한 통’을 ‘조(주인공의 매형)’에게 보냈다. 그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버나드 여관(주인공이 묵고 있는 다 떨어질 것 같은 외관을 한 여관)’으로 향했다.

여관에 도착해보니, 허버트(주인공의 친구. 약간 허풍이 심하지만 착함. 19세)가 식은 고기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가 내 귀가를 기쁘게 환영해주었다.

일단 ‘돈 먹는 하마 녀석(심부름꾼 소년)’을 커피하우스로 보내 내가 먹을 추가분의 저녁식사를 가져오라며 떼어낸 후에야, 난 마음을 열고 오늘 꼭 내 친구에게 모두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원수 같은 녀석(심부름꾼 소년)’이 여전히 홀에 있어 지금 이 문제를 허버트와 의논해보았자 소용없었다. 홀이 열쇠 구멍이 딸린 방임으로 감안하면 그랬다. 그래서 녀석을 연극구경 보냈다.

녀석이 할 일을 찾아주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내몰려야했던 모멸적인 궁여지책들보다, ‘작업할당 원(감독)’의 직책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속박당하고 있었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 비열한 궁여지책들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나는 이따금씩 녀석에게 일을 찾아주기 위해 지금 몇 시인지 알아보고 오라며 ‘하이드 공원 (런던의 공원)’ 모퉁이(구석)로 녀석을 보내기까지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함께 발을 난로의 철사 망 위에 올려놓 은 채로 앉았다.

내가 허버트(절친, 19세)에게 말했다.

“있잖아, 허버트.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생겼어.” “친애하는 헨델(주인공의 애칭).” 그가 맞대응했다. “나를 신뢰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네 신뢰에 대해 존중해주겠어.” (← -\_- 대책 없는 해석)

“나에 관한 얘기야, 허버트.” 내가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허버트가 자신의 두 다리를 서로 교차시키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벽난로를 바라다보며, 그러면서 잠깐 동안 허망한 눈망울로 벽난로를 바라보다, 내가 얘기를 더 진행하지 않자 다시 나를 쳐다봤다.

“허버트” 내가 내 손을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대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아니 숭배해. 에스텔라를….”

내 갑작스런 말에 그 자리에서 옴쭉 못하는 대신, 허버트가 편안하 고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대답했다.

“맞아. 어?”

“어라니, 허버트? 그게 네가 얘기할 수 있는 전부니? ‘어?’란 말이?” “이어지는 말은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허버트가 말했다. “당연히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지.”

“네가? 네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다 .

“이런,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당연히 너를 보고 알았지, 헨델(주 인공의 애칭).”

“난 한 번도 네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핍. 네가 이발을 했을 때 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난 그걸 감지할 정도의 지각은 있단다. 넌 항상 그녀를 숭배해왔 어. 심지어 내가 너를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말이야. 네가 여기로 왔을 때 넌 작은 여행 가방과 함께 그녀에 대한 숭배도 함께 가지고 왔단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핍! 이런, 넌 내게 밤새도록 얘기를 했었 어. 내게 네 자신의 얘기를 들려줄 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숭배 해오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말이야’라고 넌 내게 분명히 얘기했었단다, 핍.”

“그럼 좋아.”

그의 말이 새로웠지만 못 받아들일 것도 없노라고 허버트에게 말했다.

내가 말했다.

“난 그녀에 대한 숭배를 단 한 번도 관둔 적이 없어. 이제 그녀가 귀국했어.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우아한 여성으로 말이야. 어제 그녀를 만났는데, 만일 내게 그녀를 전에 숭배했었다면, 나는 지금 그녀를 두 배로 숭배하게 되었어.”

“그럼 네겐 행운이 일어난 거야, 헨델(주인공의 애칭).” 허버트(주인 공의 절친, 19세)가 말했다. “넌 그녀의 배필로 정해졌잖니 그녀에게 할당된 거라고. 금기(주인공의 유산에 대한 정보를 캐지 말 것)를 깨지 않으면서도, 우린 이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니? 네가 그녀의 배필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의심도 없노라고. 아직 뭐 들은 얘긴 없니? 네가 그녀를 숭배하는 문제에 대한 에스텔라의 생각에 관해서 말이야.”

나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그녀는 지금 나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걸.”라고 내가 말했다.

“침착해, 헨델(주인공의 애칭). 시간은 넉넉하고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내게 해줄 말이 더 있는 것 아니었니?”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사실이어서 그래.” 내가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단 털어놓는다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니 니까. 넌 나보고 행운아라고 그랬지. 맞아, 난 행운아야. 하지만 어제 까지만 해도 대장간의 한낱 심부름꾼 소년이었는걸. 난 사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든 걸까…오…늘?”

“만약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착한 사람’이 되어 있노라고 말해두렴.” 허버트가 미소 지으며 그리고 내 등을 살짝 두드려주면서 말했다.

“‘착한 애’ 말이야. 성급함과 망설임, 그리고 대담함과 자신 없음, 그리고 행동과 꿈이 네 안에 기묘한 방식으로 혼합되어 있는 ‘착한 애’ 말이야. 넌 착한 애니까.”

난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았다. 과연 내 성격 안에 그런 혼합물(성급함과 망설임, 그리고 대담함과 자신 없음)이 정말로 있는지를 생각해보 았다.

대체적으로 그 분석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논쟁까지 할 가치가 있다곤 생각지 않았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지금 내 모습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내가 물었을 땐 말이야.” 내가 얘기를 계속했다. “나도 나름 생각한 게 있어 서야. 내가 운이 좋다고 말했니. 하지만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걸.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야. 단지 돈이 현재의 나를 치장해주었을 뿐이야. 그걸 운이라니 운이라고 해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텔라가 떠오를 때면….”

“그럼 네가 그녀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었니?” 허버트가 벽난로 위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나는 그것을 녀석의 친절과 공감으로 생각했다.

“그럴 때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이름), 난 이 말을 네게 들려주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의존적이고 불확실하게 내 자신을 느끼고 있는지, 수많은 우연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내가 얼마나 느끼는지를. 방금 전에 네가 말했듯 금기(주인공의 유산에 대한 정보를 캐지 말 것)를 피해 말하자면, 난 여전히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어. 내 유산은 오 로지 내가 이름도 모르는 어느 누군가의 불변성(지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단지 그 유산이 무엇인지 아주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어, 이 얼마나 막연하고 불만스러운 일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난,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사실상, 에스 텔라를 만난 어제 이후부턴 의심할 바 없이 최고조로 치닫던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없앴다).

(아래의 글 전부 다 허버트의 대사입니다. 좀 길어요.)

“자, 헨델(주인공의 애칭).”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19세)가 명랑하고 희망에 찬 태도로 응답했다.

“사랑을 부르는 선율에 낙담해 있을 때 우리는 확대경(돋보기)을 통해 공짜로 받은 물건이나 선물에 대해 흠을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게다가, 확대경으로 검토를 하려고 정신을 집중할 때 우리는 사물의 가장 좋은 면들 중 하나를 완전히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적어도 내 생각엔 그래.

(내용이 길어서 단락을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허버트의 긴 대사 입니다.)

내게 처음에 말하지 않았니? 내 후견인(주인공에게 유산을 주는 사람이 아님. 그냥 법률 후견인임)인 재거스 씨(사람이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넌 막대한 재산만 증여받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말했다손 치더라도, 이건 내가 승인한 매우 커다란 가 정인데, 어떠니? 네 생각은? 런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 재거스 씨(변호사이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너와의 관계를 유지할 사람으로 보이니?”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부정하진 않을 게.” 내가 말했다. 나는 또 이 말도 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내가 진실과 정의에 대한 너무 성급한 양보를 하고 있는 지도 몰라. 마치 내가 그걸(허버트의 말에 일 리가 있다) 부정하고 싶듯이 말이야!”

“나도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곤 생각해.” 허버트가 말했다. “그리고 그 보다 더 강도가 센 말을 네가 생각해내긴 당혹스러울 거라고도 생각해. 그 나머지(사랑)에 관해서는, 넌 네 후견인(재거스 씨)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리고 네 후견인(재거스 씨)은 의뢰인(주인공에게 유산을 주려는 수수께끼 인물)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넌 스물한 살이 될 거고. 그럼 넌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야. 여하튼 너는 점점 더 그 해답에 다가가게 될 거야, 그게 결국엔 오게 되어 있을 거니까.”

“너 정말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주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고마워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며 말했다.

“너도 알잖니, 내게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허버트(20세)가 말했다. “그것 외에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방금 말한 것들에 대한 양식이며 분별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사상임을 인정안 할 수 없구나. 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결정적인 논평 하나를 하셨지. 네 이야기에 대한 그의 유일한 논평이기도 해. ‘그 일은 자리를 잡았고 완료되었다. 그렇지 않다면야, 재거스 씨(런런의 유명 변호사)가 이 일에 관여하고 있겠니.’ 그건 그렇고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해 더 말하기 전에, 그리고 신뢰(주인공의 고 백)를 신뢰(허버트의 격려)로 갚기 전에, 내가 잠시 동안 너에게 아주 불쾌하고 명백히 매정하게 굴려고 하는데….”

“넌 그러지 못할 거야.” 내가 말했다.

“아니 난 할 거야!” 허버트(20세)가 말했다. “하나, 둘, 셋, 자 난 물 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게 됐어. 헨델(주인공의 애칭, 귀여운 별명), 내 여린 친구야.” 그가 비록 가벼운 농담조로 말했지만 확실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 오던 게 있어. 우리가 펜더(벽난로의 철사 망 위)에 발을 올려놓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에스텔라가 확실히 네 상속재산의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이 그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면서. 네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완전히 이 해한 거라면, 적어도 네 후견인은 그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때, 틀렸니? 예를 들어볼까, 그(재거스 씨)에게서 어떤 힌트도 없었지? 네 후원자(주인공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가 과연 네 결혼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 말이야.”

“전혀 없었어.”

“자, 헨델(주인공의 애칭). 내 영혼과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이건 절대 질투심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야! 넌 그녀에게 구속당하는 게 없잖니, 네 자신을 그녀로부터 떼어놓을 순 없겠니? 어때? 내가 말했지, 내가 널 아주 불쾌하게 만들 거라고.”

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던 우리 마을 습지대 바람들처럼, 급속하게 휘몰아치는 어떤 감정이, 안개가 엄숙하게 피어 오르던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대장간(고향)을 떠나던 날, 내가 마을 끝 자락에 있던 ‘손가락 모양의 길 안내문’ 위에 손은 짚었을 당시 나를 엄습했었던 것과 똑같은 어떤 감정이 급속하게 휘몰아쳐 또 다시 내 심장에 엄청난 영향(고통)을 주었다.(ㅠ\_ㅠ)(자세한 것은 19장 끝부분 참조 바람. 19장 끝부분의 내용은 “런던으로 상경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올 때 주인공이 울었다”는 내용임)

잠깐 동안 우리(주인공과 허버트) 사이에 침묵이 있었다.

“그렇지? 하지만 친애하는 헨델(주인공의 애칭, 20세).” 마치 우리가 침묵 대신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듯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 세)가 계속 말했다.

“천성(본성)과 환경이 아주 로맨틱하게 만든 어느 소년의 심장 속에 사랑이 강하게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된 거야. 그녀의 양육을 생각해봐, 그리고 미스 해비샴을 생각해보고.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를 생각해봐. 지금 난 매정하게 굴고 있어 그리고 넌 나를 증오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 말만은 해야겠어, 헨델(주인공의 애칭). 너의 사랑은 비참한 결말로 치달을 수 있어.”

“나도 그리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 허버트.” 여전히 그에게서 고개 를 돌린 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도 그것을 어쩔 수 없어.”

“네 자신을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순 없다는 말이니?” “그래, 불가능해!”

“시도해볼 순 있잖아,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좋아!” 마치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는 마냥, 허버트가 활기 넘치게 흔들며 일어나더니 벽난로의 불을 휘저으며 말했다. “자, 난 다시 상냥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 테야.”

그러더니 허버트는 방을 여기저기 걸어 다니며 커튼들의 먼지를 털어 없애고, 의자들을 원래 제자리에 옮겨두고,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책들 따위를 정리하고, 홀(방) 안을 들여다보고 우편함을 살짝 엿본 후, 출입문을 닫고 벽난로 옆 자신이 원래 앉아 있었던 의자로 되돌아와 앉으며 왼쪽 발을 두 팔로 껴안듯이 들었다.

“어쩌지, 할 말이 한 두어 가지 더 있는데, 헨델(주인공의 애칭). 이번엔 ‘내 아버지(주인공의 신사교육 개인지도교사인 ’포킷 씨‘를 말함)’와 ‘내 아버지의 아들(허버트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 살림살이 면에서 별로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 들이 논할 필요도 거의 없을 정도야. 유감스럽지만.”

“하지만 모든 게 넉넉하잖아, 허버트(주인공의 친구이름, 20세).” 용기를 불어넣어줄 요량으로 내가 말했다.

(허버트의 긴 대사입니다→) “오오 그렇고말고! 확실히 쓰레기 운반 인조차도 전폭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리고 뒷골목에 있는 중고 선박용품 가게에서도 그렇게 말할 정도고. 이젠 좀 진지 하게 말해볼까 헨델(주인공의 애칭, 20세), 이건 충분히 진지한 주제일 테니까. 너도 나만큼이나 우리 집이 형편이 어떤지 잘 알지. 내 아버지 가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은 있었을 테지. 하지만 그게 이전에 있었다 해도, 시간은 가버리는 거란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니? 네가 예전에 주목할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이야. 지극히 어울 리지 않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하고 싶어서 항상 안달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아니. 너희 지방에선 어땠니?”

이건 정말이지 기괴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나도 잘은 몰라.”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가 말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도 그것이니까. 우리 형제들의 경우엔 확정적이거든. 내 가엾은 누이 ‘샤를로트(여자이름)’가 인상적인 예지. 그 애는 내 바로 아래 여동생인데 가엾게도 14살이 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단다. 꼬 맹이 ‘제인(11살)’도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열망인 그 애(제인, 11세)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가정의 더없는 기쁨에 대한 끊임없는 명상을 하며 보냈다고 네가 생각해도 좋을 정도니까. 제인보다 더 어린 ‘앨릭(‘알렉산더’란 의미임, 애칭임, 22장 참조)‘의 경 우는 또 어떻고. 실내용 어린이옷을 입은 그 애는 벌써 ’큐(런던 남서 부의 한 지구. 유명한(?) ’큐 왕립 식물원‘이 있다고 함. 네이버검색결 과)’에 사는 자기 또래의 알맞은 어느 어린 여자애와 결혼하기로 약혼 까지 해 놓은 상태니까. 실제로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약혼을 한 상태야, 아기(20세인 허버트의 동생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음)만 빼고 말이야.”

“그럼 넌? 너도 야?” 내(주인공, 20세)가 말했다.

“그래, 나도 약혼했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가 말했다. “하지만 비밀이야.”

난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녀석에게 말했다. 대신 호의를 베풀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순 없느냐고 간청했다.

녀석이 내 미약한 사랑에 대해 너무도 분별 있게 그리고 너무도 감성 충만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사랑의 세기에 대해 뭔가 알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아도 돼?” 내가 말했다. “‘클라라(여자이름, 조연, 19세)’야.” 허버트가 말했다. “그녀도 런던에 사니?”

“응. 어쩌면 내가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허버트가 말했다. 그와 내가 흥미를 일으키는 이 테마(주제)로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후부터, 녀석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도 풀이 죽고 온순해졌다.

녀석이 말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의 엉터리 같은 귀족가문 관념엔 다소 못 미치는 여성이야. 그 애 아버지가 여객수송선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일을 했었거든. 내 생각에 그의 지위가 사무장(사무책임자, 선원) 쯤 이셨을 거야.”

“지금은 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말했다.

“(놀림조로) 지금은 ‘몸이 성치 못해 늘 골골거리며 병을 앓고 사시는 분’이셔.” 허버트가 대답했다.

“생활은 어떻게…?” “2층에서.” 허버트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애초 질문을 던진 의도는 그의 생계수단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허버트가 말했다.

“실은 나도 그 분을 뵌 적은 없어. 그가 항상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거든. 내가 클라라(허버트의 약혼자)를 알게 된 이후로도 마찬가지 야. 하지만 그를 끊임없이 엿듣고는 있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소동을 일으키시거든. 고함지르고 어떤 끔찍한 도구를 이용해서 방바닥에 말 뚝을 박으시니까.”

내 눈을 살피며 그가 진심으로 웃었다. 허버트가 잠간동안 평상시 그의 활기찬 태도를 되찾았다.

“그를 만나보고 싶은 건 아니고?” 내가 말했다.

“오 그렇고말고, 난 항상 그를 만날 기대를 하는 걸.” 허버트가 대답 했다. “그의 고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천장을 통과해 공중제비를 돌며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니까. 하지만 보(건물바닥 하중을 기둥으로 옮겨주는 구조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2층 바닥을 잡아 줄지 나는 모르니까.”

허버트가 다시 한 번 실컷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온순한 태도로 돌아왔다. 그가 내게 “자산만 현실화되면 이 젊은 숙녀와 결혼할 생각이 야.”라고 말했다.

그가 한 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건 의기소침함을 불러일으키는 다소 자명한 진술이었다.

“하지만 넌 결혼할 수 없을 거야.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방황하는 한 넌 그럴 순 없어.”

우린 함께 벽난로의 불을 응시했다. 나는 생각했다. 때때로 이 같은 자산을 현실화한다는 비전(전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는 두 호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었다.

두 호주머니 중 하나에 있던, 접힌 한 장의 ‘종이’가 내 주의를 끌었다.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건 내가 조(주인공의 매형, 대장장이, 55세,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에게서 받았던 연극 광고 안내문이었다.

명연기로 이름을 떨친 지방의 어느 유명한 아마추어 연기자(웹슬 씨, 주인공 고향의 교회서기였다가 연기자가 되겠다며 런던연극계로 무작정 상경한 코믹한 인물)의 사상 첫 출연작과 관련된 연극 광고 안내문 이었다.

“어럽쇼!” 내가 본의 아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젠장 할, 오늘 밤이잖아!”

즉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다. 우리는 허겁지겁 연극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실행 가능한 방법들과 실행 불가능한 방법들을 통 틀어서라도 그의 애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있어 허버트를 위로하고 돕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허버트도 내게, 그의 약혼자도 이미 내 이름을 들어 알고 있 으며 곧 나를 그녀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린 상호간의 신뢰에서 우러난 따뜻한 악수를 나누었다. 우린 서둘러 방안의 촛불을 끄고, 벽난로의 불을 지핀(붙여서 타게

한) 후, 문을 잠그고, 웹슬 씨(교회서기였다가 런던으로 상경해 연극배우가 된 인물)와 덴마크(나라이름, 셰익스피어의 비극 「 햄릿 」 을 보러 간다는 의미임. 햄릿은 ‘덴마크 왕자’입니다. 영국왕자 아님-\_-;; 처음엔 저도 엄청 당황했었음. 「 햄릿 」 이란 책을 잘못 산 줄 알고)를 찾으러 밖으로 나왔다.

**위대한 유산**

**31장**

‘덴마크’(〈햄릿〉이 공연되는 극장.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무대가 덴마크라서)에 도착해서 보니, 덴마크의 ‘왕과 왕비’가 ‘하나의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안락의자’에 높이 앉아 알현 식(왕이 신하를 만남)을 거행하고 있었다.

덴마크의 귀족들이 통째로 참석해 있었다.

알현 식에 참석한 귀족들의 외모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인 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은 ‘사슴가죽 부츠(목이 긴 신발)’를 신은 어느 귀족 소년이 한 명 보였다.

만년에(생의 마지막 부분에) 국왕의 백성 신분에서 존경받는 국왕의 신하로 거듭난 것 같은 비열한 얼굴을 한 귀족도 한 명 보였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에 빗 하나를 꼽고서 두 다리엔 새하얀 비단 양말을 신은 덴마크의 기사가 보였다.

그들 모두는 여성스러운 외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우리 ‘읍내사람(웹슬 씨)’은 팔짱을 낀 체 침 울한(어두운) 표정으로 외따로 떨어져 서 있었다.

그의 곱슬곱슬한 머리털들이 좀 더 사실적이고 그의 앞이마가 좀 더 현실감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내가 걱정한다고 바뀔 일은 아니지만.

(잠깐 앞 뒤 설명 : 〈 햄릿 〉은 덴마크가 배경입니다. 왕(햄릿의 친 아버지)과 왕비(햄릿의 친어머니)가 있었는데, 왕비가 ‘왕의 동생(햄릿의 삼촌)’과 눈이 맞아 왕(햄릿의 친아버지)을 독살하고 ‘왕의 동생(햄릿의 삼촌)’과 새로 결혼해 ‘왕의 동생(햄릿의 삼촌)’을 왕으로 세우고 대신 햄릿을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로 정하고 좋은 여자를 맞이해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때부터 왕궁을 지키던 수비병(햄릿의 친아버지를 존경했었던 병사들)들 눈앞에 ‘죽은 왕(햄릿의 친아버지)’ 이 나타나면서 일이 벌어져 여차여차해서 햄릿도 친어머니와 삼촌의 계략을 알게 되고 이리저리해서 햄릿은 ‘자신을 사랑하던,’ 귀족가문의 ‘딸’을 죽게 만들고 그녀의 오빠와 원수지간이 되어 왕의 만찬장에서 결투를 벌이다 왕위 계승자들(삼촌, 친어머니, 자기 자신)을 모두 죽인 다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햄릿〉에서 끔찍한 유령이 나오는 분위기가 이후 전개될 위대한 유산 31장의 이미지와 비슷해 디킨스가 사용했습니다.)(잠깐 앞 뒤 설명 끝)

(아래부터는 『위대한 유산』 본문임)

연극이 속행되는 동안 몇 가지 호기심을 끄는 작은 상황들이 연출되 었다.

‘고인이 되신, 덴마크의 왕(햄릿의 친아버지)’이 사망 당시 기침으로 엄청 고생한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까지 그 기침을 가지고 간것 갔고 다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도 그 기침을 가지고 나온 것만 같 았다.

‘국왕의 환영(유령, 햄릿의 친아버지)’은 자기 곤봉(몽둥이) 둘레에다가 유령 같은(희미한) 원고 한 장을 두르고 나와, 때때로 그 원고를 참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한 자신의 죽음 상태를 암시하는 대사를 어디까지 읽었는지 종종 까먹는 경향을 보이며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이 어설픈 연기 때문에 결국 이 ‘음영의 존재(유령)’는 관객들로부터 “다음 페이지 넘겨봐!”라는 야유까지 듣게 되었다. 내 생각엔 그랬다.

물론 ‘국왕의 환영(유령)’은 이 권고를 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게다가 ‘이 위엄 있는 영혼(유령)’에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그가 오랜 세월 전에 무덤을 떠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리를 떠돈 것처럼 매번 등장했음에 비해서, 그가 밀접하게 인접해 있던 벽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다. 그것도 연기도 뭐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막 나온 게 티가 나게 말이다.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두려움의 존재여야 할 환영(유령)이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었다.

‘덴마크의 왕비(햄릿의 친어머니)’는 가슴이 엄청나게 풍만한 여성이었다. 비록 그녀가 뻔뻔스러웠다고 역사적인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말이다.

관객들은 왕비가 옷 여기저기에 너무 과도한 놋쇠(구리와 아연으로 만든 쇠붙이)를 달았다고 여겼다.

또한 왕비(= 햄릿의 친어머니 = 남편을 독살한 여인)의 턱은 폭이 넓은 금속 끈으로 그녀의 왕관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어마어마한 치통을 앓고 있는 중임을 과시하려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허리는 또 다른 금속 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두 팔도 하나씩 금속 끈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녀를 향해 공공연히 “팀파니(솥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큰북)”라고 놀릴 정도였다.

거인 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은 ‘사슴가죽 부츠’를 신은 그 귀족소년의 경우엔 일관성이 없이 무대에 매번 등장하고 있었다. 한 번은 단숨에 유능한 뱃사람이 되었던가 하면, 또 한 번은 단숨에 순회공연을 떠도는 남자배우가 되었던가 하면, 또 한 번은 단숨에 죽은 사람을 위한 무덤을 파는 사람이 되기도 했으며, 또 한 번은 단숨에 목사님이 되고, 또 한 번은 단숨에 궁전(궁궐) 펜싱시합에서 극도로 중요한 심판이 되기도 했다. 왜 그 있잖은가, 자신의 노련한 눈과 좋은 식별력을 근거로 하여 펜싱 시합 자들의 최고의 찌르기를 걸러내는 심판.

이 때문에 웹슬 씨(연극배우)에 대한 관객들의 인내는 점점 타들어 갔으며 심지어, 승직자로 등장한 배우(웹슬 씨)가 아까와 같은 동일한 배우(웹슬 씨)임을 감지해낸 관객들이, 그 배우(웹슬 씨)가 불쌍하게 죽은 어느 소녀(오필리아)의 장례식 절차를 이행할 것을 거부하는 장 면에서는, 기어이 관객들의 분노가 폭발해 호두 껍데기들을 무대를 향해 집어 던졌던 것이다.

(↑잠깐 ‘앞’ 단락 앞뒤설명 : 햄릿을 너무 사랑해 정신이 안 좋게 된 어느 소녀(이름이 ‘오필리아’, 귀족의 딸임)가 햄릿과 잠을 잔 후 어느 날 우물에 스스로 몸을 담겨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승직 자가 종교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치러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최후에, 오필리아는 음악적 광기에 서서히 먹이가 되어갔고, 이윽고 그녀가 새하얀 ‘모슬린(털실로 짠 모직물) 스카프’를 벗어 접은 후 손 수건을 묻었을 때, 관객석 앞줄에 있던 철봉에 기대어 너무나 어설픈 배우들의 연기에 짜증이 나고 못마땅해 하며 오랫동안 화가 나 있던 한 남성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며 말했던 것이다.

“자 애기 재우고 저녁이나 먹자!”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하건대, 그의 말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의 연속이 익살맞은 효과를 내며 내 불행한 읍내 사람의 목전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우유부단한 햄릿 왕자(웹슬 씨)가 국왕(유령)에게 질문을 할 때나 혹은 의심을 품을 때마다, 관객들이 먼저 대답을 말해 버려 왕자를 도왔다.

예를 들면, 왕자가 “아,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더 고귀한가?”라고 질문을 했을 땐, 일부 관객들이 “그렇다.”라며 고함질렀고, 또 일부 관객들은 “아냐.”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또 일부 현명한 관객들은 두 가지 의견을 동시에 피력했는데 이런 식이었다. “동전 던 지자! 앞이냐 뒤냐!”라는 괴상망측한 야유. 이 일로 관객들 사이에 토 론클럽이 크게 일어났다.

왕자가 “나 같은 자들이 천상과 지상 사이에서 기어다니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복수를 해야 하는가?란 의미)”를 물었을 때에는, 관객들 사이에서 “옳소! 옳소!”라는 시끄러운 고함소리들이 여기저기에 서 울려퍼져 왕자(웹슬 씨)의 심기를 북돋아주었다.

왕자가 스타킹(긴 양말)을 채 다 올리지 못하고 무대에 나타났을 땐, 관객들 사이에서 “저 배우의 다리가 여위고 핏기가 없이 해쓱한 것”에 관한 열띤 대화가 오고 갔고 “혹 그의 다리가 파리한 이유가 친아버지인 유령을 보고 충격을 받아 생긴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열띤 대화가 오고 갔다.

(디킨스가 관객들이 소란을 피운 이유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디킨스의 글임→) 관습에 따라 왕자가 스타킹을 채 다 올리지 못한 묘사는, 맨 위를 한 번 깔끔하게 접는 것으로써 마무리되 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맨 위 부분을 인두(다리미)로 꾸며 놓았어야했겠지요.

왕자가 리코더(악기)를 집었을 때에는, 관객들 사이에서 “ 〈 브리타니 아 서곡 〉 (영국의 애국적 노래)이나 한 번 불어보라!”는 빗발치는 요청 이 왕자에게 쏟아졌다. 물론 왕자가 집은 리코더는 관현악단에서 방금 연주되던 검정색의 작은 플루트(부는 악기)와 아주 유사했다. 왕자가 문간(출입구)에서 건네받은 것 같았다.

( 〈 브리타니아 서곡 〉 의 부연설명 : 영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애국 적 노래라고 함, 유튜브 링크 : [http://www.youtube.com/watch?v=Sgd9nYqVz2s&feature=youtu.be](http://www.youtube.com/watch?v=Sgd9nYqVz2s&amp;feature=youtu.be) , 전체 6분, 15초 후부터 음악 나옴, 검색일자 2014-08-27, 이 기회에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왕자가 남자배우에게 “공중에 대고 톱질하지 말라”고 권고했을 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객석 앞줄 철봉에 기대선 채 너무나 어설픈 배우들의 연기에 짜증이 왕창 나 있던 아까 그 남성이 또다시 “너나 좀 그러지 마, 응, 넌 임마 저 놈보다 더 엉망이야!”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씩 벌어질 때마다 왁자하고 터지는 웃음들이 웹슬 씨에게 쏟아 부어졌음을 나는 몹시 슬퍼하며 덧붙이는 바이다.

하지만 웹슬 씨의 일생일대의 시련은 ‘교회 부속의 묘지’에서 있었다. 교회 부속의 묘지는 고대 숲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교회의 세탁소 같이 생긴 작은 게 하나 있었고, 다른 쪽에는 ‘유료 도 로(마찻길)의 요금을 받는 문’이 하나 있었다.

폭이 넓은 검정색 망토(소매 없는 외투)를 입은 ‘웹슬 씨’가 유료 마찻길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을 때, 관개들이 ‘무덤을 파고 있던 사람’에게 좋은 생각에서 나온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조심하쇼!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저기 장의사 (웹슬 씨)가 오고 있으니까!”

생각건대, 두개골(머리뼈)을 두고 도덕적인 말을 들려준 다음에는 꼭 자기 가슴 호주머니에서 꺼낸 흰색 냅킨으로 손가락의 먼지를 털지 않고서는 아마 웹슬 씨(성직자로 연기. 나중에는 햄릿으로 연기)가 그 두 개골을 다시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입헌국(영국관객들)에 널리 퍼져 있는 통념임에도, 아, 애석하게도(ㅜ\_ㅜ), 당연히 해야 할 이 순결하고 ‘필요 불가결한 동작(먼지 털기)’을 웹슬 씨가 했을 때조차도 관객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했다.

관객들이 이렇게 지적 질을 했기 때문이다. “웨~이~터냐!”

매장될 오필리아(햄릿을 너무 사랑해 잠을 잤는데 이후 햄릿이 외면해 미쳐 음악에 심취하다 샘에 비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져 생을 마감한 오필리아)의 시체는 뚜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열린 비워있는 검 정색 상자 안에 있었다. 오필리아 시체의 등장은 곧 관객들에게 “기뻐 하란 신호”로 작용했다.

‘이 신호는,’ 관 운반인들 사이에서 식별이 가능한 밉살스러운 한 개인(어설픈 연기도 연기거니와, 시체의 두개골을 만지고도 손수건으로 손가락의 먼지를 터는 관례를 생략해 관객을 불쾌하게 만든 웹슬 씨)이 새삼 목격됨에 따라 ‘아주 강렬하게 작용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그 환희는 ‘오케스트라(관현악단)와 무덤의 끝자리’에서 웹슬 씨(햄릿 연기)가 레어티스(오필리아의 오빠)와 결투를 벌이는 내내 계속되었으며, 웹슬 씨(햄릿 연기)가 식탁 위에 앉아 있던 왕을 찔러 꺼 꾸러뜨릴 때까지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윽고 독 칼(펜싱 칼)에 살짝 상처를 입었던 햄릿(웹슬 씨)이 그의 발목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서서히 죽어갈 때조차도 멈춰지지 않았다.

( 「 햄릿 」 설명 : 레어티스는 ‘오필리아의 오빠’임.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햄릿 때문에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왕(햄릿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햄릿의 어머니와 결혼한 삼촌)과 계략을 꾸며 만찬장에서 펜싱 시합으로 독 묵은 펜싱 칼을 햄릿에게 찔러 복수하려다 칼이 뒤바꿔 자신이 죽게 되는 인물. 그가 죽자 햄릿이 큰 충격을 받고 왕을 똑같은 칼로 찔러 죽임. 물론 햄릿도 펜싱 시합 때 독이 묵은 펜싱 칼에 살짝 상처를 입어 서서히 의식을 잃다 죽음. 이 모든 사태에 햄릿의 어머니(왕비)도 목숨을 끊음. 셰익스피어의 「 햄릿 」 은 비극임. 하지만 막상 책으로 읽으면 감동이 처음 생각만큼은 아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책보단 영화나 연극으로 보는 게 더 좋음)

우리는(주인공과 허버트) 정말로 웹슬 씨를 위해 박수를 치고 싶었다. 그래서 주위의 눈치를 보고 또 봤다. 하지만 지금 같은 관객들 분위기에선 그를 위해 박수를 친다는 것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 었다.

따라서 우리는 웹슬 씨를 매우 동정하며 앉아있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대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웃음이었다. 뭐랄까 그냥 다 너무나 우스꽝스러 웠다.

하지만 웹슬 씨의 발성 능력에는 확실히 훌륭한 뭔가가 있었다. 나름 연기에 잠재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와의 옛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발성 능력에는 아주 느리면서도 매우 황량하며 정력적인 뭔가가 있었다. 삶과 죽음이라는 자연적 환경(죽느냐 사느냐란 대사를 하는 햄릿)에 처한 어떤 남성이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 표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독특한 방식이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그렇게 끝이났다.

웹슬 씨가 관객들에 의해 불러져 나와 야유를 흠뻑 받았다. 내가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에게 말했다. “튀자(나가자), 잘못하면 그와 마주칠지 몰라.”

우리(주인공과 허버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손살 같지는 못했음이 판명 났다. 왜냐하면 극장 출입구에 짙은 눈썹 자국이 부자연스럽게 나 있는 유대인 한 명이 서 있다 우리가 지나치려 할 때,

“핍 씨와 그 친구 분 되시죠?”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가 내 눈을 보았다.

우리가 핍 씨와 그 친구임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미스터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배우용 이름) 씨께서,” 그 남성이 말했다. “두 분을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월든가버’라고요?” 내가 당황하자 허버트가 내 귀에다 대고 “아마 웹슬 씨를 말하는 건가봐”라고 말했다.

“오!” 내가 말했다. “그럼요 만나 봬야죠. 당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몇 걸음만 더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옆 복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남성이 고개를 돌리더니 물었다. “그(웹슬 씨)의 옷차림이 오늘 어땠습니까? 제가 옷을 제공했거든요.”

장례 행렬 때를 제외하고는 웹슬 씨가 그 날 무대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파란 리본 옆에 ‘큰 덴마크의 태양인지 별’인지를 추가로 목에 매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웹슬 씨를 어떤 특별한 화재 보험 회사 보험에 든 사람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결례였음으로 “좋아보였어요.”라고 쿨 하게 대답해주었다.

“무덤으로 갈 때 말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웹슬 씨가 고용한 어깨) 가 길안내를 하며 말했다. “그의 망토가 참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하지만 무대 옆쪽에서 봤을 땐, 그가 왕비의 방에서 유령(햄릿의 친아버지이자, 햄릿의 친어머니인 왕비가 독살한 남편)을 볼 때, 그가 스타킹으로 효과를 더 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나도 겸손하게 동의를 표했다. 우리는 협소하고 더러운 반회전문을 통과해, 그 바로 뒤에 있던 뜨거운 팩(포장)을 한 일종의 통 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웹슬 씨가 덴마크 식 의상을 몸에서 때어내고 있었다. 포장용 상자 같은 ‘문’ 혹은 ‘뚜껑’ 같은 그 문을 전부 열어놓고서야, 서로의 어깨들 너머로 웹슬 씨를 쳐다볼 정도의 딱 그 크기의 방이었다.

“오! 제군들.” 웹슬 씨가 말했다. “이렇게 신사 분들을 접하게 되어 덧없는 영광이네. 특히 핍 씨 자네는 내가 사람을 보내오라고 한 나를 용서해주게나. 자네 같은 신사 분을 이전부터 알아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 그리고 연극은 언제나 귀족과 부유한 이들에 대한 권 리가 있으니까. 그들도 언제나 인정해 오는 바였지.”

그러는 동안에도 미스터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배우용 이름)’ 씨는 햄릿 왕자용 상복(복장)에서 벗어나려고 진땀을 다 빼고 있었다.

“스타킹을 아래로 내리면서 벗으세요, 미스터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씨.” 스타킹의 원소유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걸 부술 테니까요. 70만 원짜리 명품 스타킹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생전에 신어보지 못한 명품 스타킹이란 말입니다. 자, 의자에 잠자코 계세요, 그 일은 제게 맡기시고요.”

그렇게 말하고서, 그(웹슬 씨가 고용한 어깨)가 웹슬 씨의 무릎으로 가 희생자(웹슬 씨)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남성이 첫 번째 스타킹을 떼어냈을 때 100% 희생자(웹슬 씨)도 자신의 의자와 함께 발라당 뒤로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나동 거려지기엔 이 놈의 방안이 너무나 협소했다.

나는 정말이지 웹슬 씨가 연극에 대해 물어볼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

바로 그때 우리의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배우용 이름) 씨가 아주 자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제군들, 오늘 내 연기 어땠나? 객석에서 보기에 말이네.”

내 뒤에 서 있던 허버트(주인고의 절친, 20세)가 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말했다.

“훌륭했어요.” 그래서 나도,

“훌륭하셨어요.”라고 말했다.

“등장인물의 개성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어때보였나?” 우리의 월든가버 씨가 생색을 내는 태도와 완전히 다름없는 어조로 말했다.

이번에도 내 뒤에 서 있던 허버트가 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 르며 말했다.

“중량감 있고 구체적이셨어요.”

그래서 나도, 마치 내가 그 말을 먼저 하려던 참이었다는 걸 강조하 려는 마냥, 대담하게 말했다.

“무게감 있으면서도 실제사실에 입각하신 것 같았어요.”

“자네들이 그렇게 과찬해주니 기쁘네, 제군들.”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배우용 이름) 씨가 목소리에 위엄을 담아서 말했다. 비록 그때 자기 자신은 벽과 대치한 채 의자의 좌석 옆쪽을 꽉 쥐고 있어야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미스터 월든가버 씨.” 스타킹을 벗겨주고 있던 그 남성(웹슬 씨가 고용한 어깨)이 말했다. “당신이 낭 독하실 때 놓치신 게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일랑은 전 관심 없으니까요. 제 말은, 당신이 햄릿 대사를 읊으시는 장면에서 두 다리를 옆모습으로 하셨는데 당신이 놓치신 부분입 니다. 제가 옷을 제공한 저번 햄릿 연기자도 리허설(예행연습) 때 그 대사부분에선 똑같은 실수들을 했더랬지요. 제가 그 사람의 양쪽 정강 이(다리부분에서 앞부분에 있는 수직의 긴 뼈) 위에다 ‘착 달라붙는 붉 은색 큰 메모지’를 부착해줄 때까지는 그 사람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최종 리허설 때였을 겁니다. 그때 전 무대 바로 앞쪽 아래 부분의 오케스트라석 뒤쪽으로 가서, 그 사람이 두 다리를 옆모습으로 돌리며 대사를 옆을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었죠. ‘’메모지가 안 보여요!‘ 결국 그날 밤 정식공연 때 그의 낭독은 훌륭했습니다.”

미스터 월든가버(웹슬 씨의 예명, 배우용 이름) 씨가 내게 미소를 지 어보였다. 마치 “내 충실한 극단 딸린 식구지. 그가 약간 어리석은 건 난 신경 쓰지 않는다네.”라고 말하려는 듯이 보였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연극에 대한 내 관점은 이곳 사람들에겐 좀 고전적이고 진지하게 들린다네. 하지만 그들도 나를 통해 성장해갈 것이네. 암 그러고 말 고.”

허버트와 내가 함께 말했다.

“분명 그들도 개선이 있을 거예요.”라고.

“그래, 눈치는 채셨소? 신사양반들.” 월든가버 씨가 정색하며 말했다. “관객들 중에는 교회예배를, 아참 여긴 교회가 아니지, 이 연극상 연을 조롱하려고 기를 쓰던 자도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게도 거짓 대답을 했다.

“그러고 보니 그런 남성이 한 명 있었던 것도 같은 생각이 살짝 드 네요.”라고.

내가 덧붙였다.

“아마 술 먹었겠지요, 확실해요.”

“오 아니오, 그게 아니오, 선생.” 웹슬 씨가 말했다. “술이 아니오. 그의 고용주가 조치를 취했을 거니까, 술에 취하는 것도 용납지 않았을 게고, 선생.”

“그럼 아저씨는 그를 고용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내(20 세)가 말했다.

웹슬 씨가 눈을 감았다. 그러더니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이 두 가지 의식(눈 감은 후 눈 뜨기)을 아주 느릿느릿 실행했다.

“자네도 눈치 챘을 게 아닌가, 신사양반.” 그가 말했다. “무지하고 뻔뻔스러운 당나귀 같은 놈이지. 귀에 거슬릴 정도로 긁어대는 목에 저급한 원한이 흐르는 안색을 한 놈이지. 그 놈이 덴마크 왕 ‘클라우디 우스’(햄릿의 친아버지를 죽이고 왕비와 결혼한 삼촌. 햄릿의 삼촌)의 배역을 완수한 거요. 방금 눈치 채셨소, 내가 배역이란 말을 프랑스어로 했는데. 나는 또한 그가 연기를 잘해냈다고 인증하려는 게 아니오. 신사 양반, 바로 그 자가 그 남성의 고용주요. 직업이란 그런 것이오!”

그런 계략에 웹슬 씨가 자포자기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를 더 슬퍼했 을는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대로도 난 그가 너무 처량했고 그래서 웹슬 씨가 멜빵(끈)을 걸치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틈을 이용해서, “집에 모셔서 저녁을 대접하면 안 돼?”라며 허버트의 의견을 물었다. 웹슬 씨가 멜빵을 걸치려고 뒤돌아서는 바람에 허버트와 내가 밀치락달치락하며 반회전문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허버트도 동의했다. “그게 저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정식으로 웹슬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오는 내내 외투를 눈까지 걸치곤 잠이 든 그를 데리고 우리의 보금 자리인 바너드 여관으로 돌아왔고, 우리가 그에게 대접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를 대접했다. 그는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자신의 연극계 진출 성공을 재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구상들을 진척시켰다.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인 내 기억으로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극을 부할 시키는 것으로 시작할 예정이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으스러뜨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네.”라고.

그 까닭인즉슨, 그가 죽으면 연극계가 완전히 상실감에 빠져 더 이상의 가망이나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찌 되었건 나는 잠이 들었다. 우울했다. 에스텔라를 향한 내 마음은 한 마디로 빈약하고 불쌍함 그 자체였다. 나는 내 막대한 유산이 언제 어디서 취소될지 모르는 비참한 꿈을 꾸었다. 나는 또한 허버트의 피앙세(이름이 ‘클라라’)와 결혼식을 올려야하는 꿈을 꾸었으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햄릿에 대해서는 스물(20) 단어도 모르는 체로 유령이 된 미스 해비샴 앞에서 햄릿을 연기해야만 하는 꿈을 꾸었다.

**위대한 유산**

**32장**

어느 날이었다. 내가 책들과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담당 개인교사) 일로 한창 바쁠 때였다. 우체부가 내게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편지의 겉봉투를 보는 순간 난 극도의 초조와 흥분 상태로 빠져들었다.

겉봉투에 적힌 필체는 내가 일전에 본 적이 없는 필체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누가 썼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봉투를 열어봤다. 편지에는 〈친애하는 핍 씨〉 혹은 〈안녕 핍〉

혹은 〈 받으시는 분께 〉 혹은 〈 친애하는 아무개 씨 〉 하는 도입부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 런던으로 갈 예정이야. 이틀 후 오후가 될 거고. 런던 도착 ‘정오 마차’편이 될 거야. 마중 나와 줄 거란 약속 잊지 않았지? 무튼 미스 해비샴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도 그에 맞추어 이 편지를 쓰는 거고. 그녀(미스 해비샴)가 네게 안부 전해 달래~.

너의 에스텔라 〉

그녀의 도착날짜까지 만약 시간이 더 있었다면 나는 아마 이 마중을 위해 정장 몇 벌을 더 주문했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난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로도 모양을 내기로 기꺼이 감내했다.

내 식욕은 즉각적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도착 때까지 내겐 평온이니 안정이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았다. 물론 그녀의 도착으로 내게 다시 평온이나 안정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도착하는 당일 날 상황은 더 악화되어, 내가 끊임 없이 ‘치프사이드 시티’(런던의 시티 중 하나)의 ‘우드 거리’(런던의 거 리)에 있는 ‘역마차 매표소’를 맴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녀를 태운 마차가 우리 읍내에 있는 ‘외설적인 수퇘지’ 여인 숙을 떠나기도 전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역마차 매표소가 한 번에 5분 이상 내 눈 앞에서 사라지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이 느꼈다.

이런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나(20세)는 처음 30분을 망을 보며 보냈다. 물론 그녀의 도착은 앞으로 4시간 또는 5시간은 더 있어야 했다.

그때 웨믹(42세,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 = 사무원, 이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웨믹은 사무실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담당하므로 알 수 없는 후원자가 변호사사무실에 맡겨둔 돈을 매달 주인공에게 전해주는 인물 이기도 함)과 우연히 마주쳤다.

“여보세요, 이거 핍 씨 아니십니까.” 웨믹(42세, 21장 웨믹의 인물묘사 참조. 좀 딱딱해보이고 키가 다소 작고 사각형 턱에 가장자리를 무딘 정으로 뭉갠 것 같은 얼굴의 소유자)이 말했다. “그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설마 이곳이(역마차 매표소) 당신의 순찰 구역은 아닐 테지요?”

“제가 누굴 좀 기다려야 해서요. 마차 편으로 올 거거든요.”라고 내 (20세)가 설명했다.

나는 그의 성(성 모양의 오두막집 형태를 하고 있는 웨믹의 집)과 아버님께서는 잘 계신지 물었다.

“덕분에 모두 무탈하답니다.” 웨믹이 말했다. “특히 연로하신 분(아 버지)께선 더 잘 지내고 계시죠. 원기왕성하십니다. 다음 생일 때 82세가 되시죠. 이번 아버님 생신 땐 대포를 82발 쏠 생각입니다. 물론 이웃에서 민원만 넣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제 꼬맹이 대포가 그렇게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게 증명이 되면요. 하지만 이게 런던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무실로 가시나요?”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사무실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다음 일이고요.”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이 대답했다. “뉴게 이트 감옥(런던의 유명한 옛날감옥, 1902에 폐쇄됨. 이 소설은 1861년에 쓰인 것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은행간부의 소포 꾸러미 소송사건’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현장을 잠깐 보러 내려갔다 오던 참입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의 의뢰인과 한두 말 정도는 나눠야 해서요.”

“그럼 그 의뢰인이 강도질을 벌인 건가요?” 내가 물었다.

“어이구 천만에요, 그게 아닙니다.” 웨믹이 아주 건조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 일로 고소당한 건 사실이죠. 당신이나 저도 그리될 수 있죠. 우리들 중 어느 쪽은 그 일로 고소까지 당할 수도 있겠고요. 아시잖습니까.”

“단지 우리 둘 중 어느 쪽도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은 거군요.” 내가 논평했다.

“(상류층 말투로) 그렇습니다!” 웨믹이 자신의 집게손가락으로 내 가 슴부위를 “톡” 치며 말했다. “당신 같은 능구렁이(엉큼한 사람)도 없으실 겁니다, 핍 씨! 뉴게이트 감옥(영국의 유명한 옛 감옥)을 한 번 슬쩍 보시고 싶진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시간이 좀 되시나요?”

나는 여유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안(감옥 구경하기)은 내게 다행이었다. 물론 내 내면의 욕망은 역마차 매표 소에서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동행해도 될 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올게요.”라고 구 시렁거리며(중얼거리며) 나는 역마차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직원이 화를 내려고 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마차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확인했다.

나는 이미 마차 도착 시간을 그 직원만큼이나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웨믹 씨에게로 가 내 시계를 참고하는 척 가장하며 내가 역마차 사무소에서 얻은 정보에 놀라는 척 가장하며, 나는 웨믹 씨의 제안(감옥 구경하기)을 받아들였다.

몇 분 후에 우리는 뉴게이트 감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위실을 통과했다. 수위실에는 몇 개의 족쇄(다리 수갑)들이 횅댕그렁한(벌거벗 은) 벽 위에 걸려 있었다. 족쇄 뒤로는 감옥에서의 준수사항들이란 포 스터가 보였다. 감옥 내부로 들어갔다.

부풀려진 반발이야 말로 항상 공적인 모든 범법 행위들의 가장 중대 하고 가장 힘든 처벌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교도소들이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그리고 공적인 모든 범법 행위들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부풀려진 반발의 시기는 아직 저편 이야기였다.

그래서 흉악범들이 병사들보다 더 잘 기거하고(자고) 더 잘 먹는 일은 없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다.(당시만 해도 흉악범들의 생활이 병사나 가난한 사람들보다 못했다는 이야기. 비슷한 시기에 책을 쓴 마○○스는 영국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 죄수들이나 병사들보다 훨씬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배급된 수프(음식)의 풍미(맛)를 개선하려는 용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교도소에 불을 피우는 일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

다.

웨믹이 나를 데리고 갔을 때가 마침 면회가능 시간이었다. 대폿집(술 집)의 사환(심부름꾼)이 맥주를 든 채 교도소 안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 안뜰 철망 뒤로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맥주를 사고 있었고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저분하고 불결했으며 곰팡내 나며 추하고 무질서하고 억압적인 환경 그 자체였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들 사이로 걸어 다니듯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 42세)이 죄수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처음으로 들어 온 것은 그가 한 밤 중에 땅을 뚫고 나온 총알 한 방을 쏘아보듯이 죄수에게 말하는 순간이었다.

“어이, 이거 톰(‘토마스’의 애칭) 대령님이 아니십니까? 거기 계셨군요. 아, 저런!”

그리고 또한 웨믹은 다른 죄수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물통 뒤에 있는 게 ‘블랙 빌(다시 안 나오는 죄수이름임)’ 아닌가? 이런 근 두(2) 달 동안은 자넬 보지 못했는걸, 그래 오늘 기분은 어때요?”

그런 식이었다. 웨믹은 철장 앞에 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갈망 하듯 속삭이는 죄수들의 얘기를 귀담아줄 때에도, 웨믹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우체통 같은 표정으로 죄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건 마치 그가 그 죄수를 지난번에 관찰한 이후로 죄수가 이룬 개과천선(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됨)의 양을 주목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래서 죄수의 이번 재판 때 그것이 활짝 꽃 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만 같았다.

웨믹은 뉴게이트 감옥에서 인기가 대단했다. 나는 알아챘다. 웨믹 씨는 재거스 씨(변호사)의 사무 중에서 친숙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비록 재거스 씨의 상태와 같은 무언가가 웨믹의 주변에도 늘 붙어 다녔고 또한 웨믹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친숙함은 용납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연속적으로 만나는 의뢰인들 개개인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눈도장 (유심히 봄)은 고개를 한 번 까딱하는 것이었다. 그리곤 자신의 모자를 두 손으로 쥐곤 자기 머리 위에 좀 더 편안하게 앉히는 동작과, 그런 다음에 우체통 같은 표정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서 자신의 호주머니 두 개에 두 손을 푹 집어넣는 동작의 연속이 상대방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눈도장이었다.

수수료(변호비용) 인상과 관련해 한두 번의 곤란함이 있었다.

그럴 때면 웨믹 씨(변호사사무소 ‘서기 = 사무원’)는 죄수가 제시한 불충분한 금액에서 가능한 한 멀찍이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다.

“당치 않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난 단지 하수인(부하직원)일 뿐이 에요.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담당할 사항이 아닙니다. 부하 직원에게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수수료를 마련할 수 없다면 본인(재거스 변호사)에게 직접 말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바닥에 변호 사는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이쪽이 그 수수료 액수를 가당치 않게 여긴다면 저 쪽에선 사건을 맡기에 충분한 수수료 액수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을요. ‘종속된 지위에 있는 부하직원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 지 말라’가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권고(부추김)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잰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게 저나 당신이나 뭐 다르 겠어요?(←직역 : 왜 당신이 그래야 합니까?) 자, 다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웨믹(사람이름, 42세)의 온실(뉴게이트 감옥)을 걸어 다녔다. 그때 웨믹이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제가 이제부터 악수를 나눌 자를 주목해주세요.”

그런 귀띔이 없었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웨믹 씨는 아직 아무와도 악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 있자마자, 당당하고 허리가 똑바른 자세를 한 한 남성이 철장의 한쪽구석으로 다가왔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의 모습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상이었다. 그는 일단 많이 입어서 해진 올리브 색(초록색) 프록코트(남성용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특유의 창백함이 그의 얼굴홍조(붉은 색 안색)를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의 모자는 표면이 차가워진 수프(음식)마냥 기름이 많이 묻어 있고 표면이 유들유들했다(기름기가 돌았다). 그는 시선을 고정시키려고 애를 쓸 때조차도 사방으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두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손을 모자에 붙였다. 반은 진지한 그러면서도 반은 익살맞은(웃기는) 군대식 경례(인사)였다.

“대령, 당신이 사용하는 이름을 쓰자면 요, 대령!” 웨믹(변호사사무소 서기, 42세)이 말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대령님?”

“만수무강이오, 웨믹 씨.”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증거가, 우리 쪽 증 거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대령.”

“그렇소, 증거가 너무 강하오, 선생. 하지만 난 신경 쓰지 않소.” “그럼요, 그러시겠죠.” 웨믹이 냉담하게 말했다. “대령이야 상관도

안 하시니까요.”

그런 다음 웨믹이 내게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이자는 폐하를 위해 복무하던 자입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었었죠, 사건 발생 후 결국 강제전역 당했지만요.”

내가 “정말요?”라고 놀라워하자, 그 자의 시선이 내게 와 꽂혔다. 그런 다음 그 자의 시선이 내 고개 너머를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그의 시선이 다시 돌아와 내 주변 여기저기를 떠돌았다. 그런 다음 그 가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썩” 닦더니 웃었다.

“내 생각으론 이번 월요일이면 출소할 것 같소, 선생.” 그(대령이었다가 강제전역당한 죄수)가 웨믹(변호사사무소 서기)에게 말했다.

“아마도요.” 내 친구(웨믹)가 맞장구쳤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죠.”

“웨믹 씨, 당신과 작별을 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오.” 그가 두 개의 창살 사이로 손을 내뻗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웨믹이 그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당신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대령.”

“체포당시 내가 소지하던 게 진짜 화폐로 드러났다면 말이오, 웨믹 씨.” 자신의 손을 도로 거두기를 마음 내키지 않아하며 그 남성이 말했다.

“당신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당신이 반지를 하나 더 낄 수 있게 장만해주었어야 했는데 말이오.”

“그 마음만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웨믹(변호사사무소 서기, 42세)이 말했다. “그건 그렇고, 대령은 비둘기 기르는 사람이셨다죠. 전문가 수준이었다는데.”

그 남성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웨믹이 계속 말했다.

“대령은 공중제비까지 할 줄 아는 놀라운 비둘기들을 기르셨다죠. 당신 친구 아무에게 시켜서 제게 비둘기 한 쌍만 가져다주게 하실 수 있겠는지요, 물론 대령께서 소용이 없는 걸로 한 쌍만 말입니다.”

“그리하리다. 선생.”

“좋습니다.” 웨믹이 말했다. “제가 잘 돌보도록 하지요. 기분 좋은데요, 대령.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이 다시 악수를 나누었다.

우리가 그에게서 멀리 떨어졌을 때 웨믹이 내게 말했다.

“화폐 위조자입니다. 아주 솜씨 좋은 작자였죠. 기록관의 보고서가 오늘 제출됩니다. 아마 월요일부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 내에선 비둘기 한 쌍 정도는 휴대할 수 있는 재 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는 그가 뒤돌아보았다.

그 불쌍한 사형수에게 고개를 끄떡여주고 나서 웨믹은 뉴게이트 감옥 안뜰에서 퇴장하는 동안 감옥 여기저기로 시선을 보냈다. 그 행동은 마치 어떤 다른 죄수를 다음 순번으로 아까 그 사형수의 감방 안에 들이면 가장 어울릴지를 이리저리 따져보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수위실을 통해 교도소를 벗어날 때 나는 알아챘다. 내 후견 인(재거스 변호사)의 엄청난 중요성은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물론 그들이 보호하는 죄수들의 경우엔 더 생각할 것도 없었다.(교도관과 죄수 모두 재거스 씨를 인정했다).

“이거 참, 웨믹 씨.” 간수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장식 단추가 달리고 스파이크(뾰족한 징이나 못)가 붙은 수위실 문 2개 사이에 우리를 있게 하고서 다른 쪽 문의 자물쇠를 풀기 전에 방금 연 문의 자물쇠를 주의 깊게 잠그면서 말했다.

“강가 둔치에서 발생한 살○사건을 재거스 씨(변호사)는 어떻게 처 리하실 생각이시죠? 이번에도 솜씨 좋게 과실 치사로 처리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왜 그(재거스 변호사)에게 직접 묻지 않는 게요?” 웨믹(변호사사무소 서기, 42세)이 되받아쳤다.

“오오, 제가 감히요!” 교도관이 말했다.

“보시죠, 이게 여기 있는 자들의 행동이죠, 핍 씨(주인공 이름, 20세).” 우체통 입구 같은 입을 길게 늘어뜨리며 웨믹이 고개를 내게로 돌리면서 말했다.

“저들은 내게 묻는 건은 꺼려하지 않죠. 난 하수인(부하직원)이니까요. 하지만 제 상사(재거스 변호사)에겐 어떤 질문도 던지지 못한 답니 다.”

“이 젊은 신사 분은 당신 사무소의 연수생이나 수습생(인턴) 중 한 명인가요?” 웨믹 씨의 유머에 교도관이 “씩” 웃어 보이며 말했다.

“(혼자말로) 또 시작이군, (주인공을 쳐다보며) 이젠 알겠죠!” 웨믹이 호소했다. “(주인공에게) 제가 저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첫 번째 질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두 번째 질문을 저 같은 하수인에겐 잘도 던져 되죠! (교도관을 쳐다보며) 자, 핍 씨(주인공이름)가 수습생 중 한 명이 맞대면 어쩌시려고요?”

“그런데,” 교도관이 또 히죽히죽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재거스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흥!” 느닷없이 웨믹이 익살맞은 몸동작으로 교도관을 비웃으며 소리쳤다.

“당신은 내 상사(재거스 변호사)와 대면할 때는 그 열쇠들 중 하나 만큼도 말을 못하지. 그걸 당신이 더 잘 알걸. 자 어서 우리나 밖으로 나가게 해주시오, 이 늙은 여우같은 양반아, 그렇지 않았다간 내가 당 신을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자 어서 여시오.”

교도관이 소리 내어 웃더니 우리를 내보내 주었다. 그리고 우리(주인 공과 웨믹 씨)가 계단을 밟고 내려가 거리로 들어섰을 때에도 쪽문의 스파이크(뾰족한 징이나 못) 너머로 우리를 비웃으며 서 있었다.

“이제 아시겠죠, 핍 씨.” 좀 더 은밀함을 덧보이기 위해 내 팔을 잡으며 웨믹이 진지한 말투로 말했다.

“전 ‘재거스 씨(변호사)’의 처세 같은 건 모릅니다. 다만 그가 자신을 아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은 압니다. 사실 그는 그 방면으로 도가 턴 사람이죠. 그는 항상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그 높이는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자신의 변론능력과 같은 종류입니다. 대령(화폐 위조자)이 감히 재거스 씨에게 작별인사를 고하지 못한 것처럼, 저 교도관도 감히 소송과 관련해 재거스 씨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같은 하수인(부하직원)을 저들과 자기(재거스 변호사) 사이에 몰래 끼어 넣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재거스 씨가 저들의 영혼과 육체까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비록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내 후견인의 사람 다루는 절묘함에 대해서는 혀가 내둘려질 정도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그때 ‘내가 다소 능력이 좀 못한 다른 후견인 을 가졌으면’하고 진심으로 바랬다.

웨믹 씨와 나는 ‘리틀 브리튼(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이름)’에 있는 변호사사무소 앞에서 헤어졌다. 그곳에는 여느 때와 같이 재거스 씨(변 호사)를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꾸물거리고 있는 수많은 탄원 자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역마차 매표소가 있는 거리로 되돌아와 갔다. 시계를 보았다. 대략 세 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었다.

나는 시종 내내 뭔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모든 더럽혀지고 얼룩진 교도소와 범죄에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내겐 너 무도 낯설게 다가왔다.

즉 내 어린 시절에 어느 겨울 저녁에 홀로 늪지대까지 나아갔다가 내가 처음으로 마주쳐야했었던 것이며, 색이 바랐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얼룩과 같이 시작해 그것이(늪지대로의 여행가서 죄수를 만난 일) 두 번씩이나 재현된 일이며, 그것이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내 운과 진보 구석구석에 베어들어야 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게 너무도 낯설게 다가왔다.

나는 이런 생각들로 나머지 세 시간을 모두 소비했다.

내 마음이 이와 같이 골똘해있는 동안에도, 나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지닌 에스텔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거만하고 세련된 여성이 내게 오고 있었다.

교도소와 그녀 사이에 그어진 이 절대적인 불일치의 혐오를 나는 생 각해보았다.

나는 바랬다.

‘차라리 웨믹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애초에 뉴게이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가 같이 가자고 권했을 때 처음부터 뿌리쳤어야 했는데.’라고.

사실이 그랬다. 적어도 이 날만큼은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일 년 중 그날만큼은, 그녀를 만나는 오늘 만큼은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지금처럼 내 숨결과 내 옷들에 뉴게이트 감옥의 냄새를 풍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뒤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래서 내 발에 묻은 교도소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내 옷들에서도 먼지를 흔들어 털어 냈다. 나는 숨을 크게 내쉬며 내 허파에서 공기를 내보냈다.

그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난 이렇게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마차가 너무 빨리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웨믹 씨(변호사사무소 서기) 씨의 온실(교도소)의 오물에 대한 상념 에서 내가 체 자유롭지 못할 때, 나는 대형 사륜마차(바퀴4개)의 창문 에 비췬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한 순간, 또 다시, 그녀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갔었던 형언하기 힘든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주인공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녀의 얼굴과 손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그게 누군가와의 닮음을 의미’함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인공은 시간 간격을 두고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모습에서 불연 듯 스쳐 지나가는 형언하기 힘든 어떤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위대한 유산**

**33장**

모피로 안을 댄 ‘트래벌링 드레스(잘 구개지지 않는 여행자용 옷)’를 입고 있는 에스텔라의 모습은 이전 어느 때보다 섬세하게 아름다운 것 같았다. 심지어 내 눈에서도 말이다.

전에 나를 대하며 신경 썼었던 것보다는 더 애교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에스텔라의 그런 변화에는 미스 해비샴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그녀가 내게 자신의 짐을 가리켜 보여주는 동안 줄곧 우리는 여인숙 안뜰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짐이 모두 다 모아졌을 때 그제야 떠올렸 다. 내가 그녀의 목적지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그녀 외의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로 갈 거야.” 에스테라가 내게 말했다. “수업에 따르면 리치먼드는 ‘서리’(런던 바로 남서쪽 템스 강 부근을 말함)에 하나 ‘요크셔’(런던에서 아주 먼 지방. 영국 가 운데에 위치)에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말한 건 서리에 있는 리치먼드야. 여기서 거리는 16km고.(16km면 당시 마차로 ‘1시간 거리’입 니다) 마차로 가야하니까 네가 날 에스코트 해줘야 해. 이게 내 지갑이 란다. 거기서 내 여행 경비를 꺼내 지불해주면 돼. 참, 너에게도 지갑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 너와 난 그래, 우리가 받은 지시를 따르면 되니까. 우리 아직 마음대로 행동하기엔 자유롭지 못해, 적어도 너와 난 그래.”

지갑을 건네주며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동안에도 난 그녀의 말들 속에 어떤 내적인 의미가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 말들을 경멸하듯 말했지만 사실 불쾌함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마차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에스텔라, 잠시 여기에 있을래?”

“그래, 난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해, 그리고 차(먹는 차)도 좀 마셔야 하고. 그동안 네가 날 돌봐줘야 해.”

에스텔라가 내 팔짱을 꼈다, 마치 그 행동(팔짱)도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마냥.

“우리를 전용객실로 안내해주시오”라고 나는 웨이터에게 요구했다. 그는 자기 생애에 그런 것을 본 적이 결코 없었던 사람마냥 대형4륜

마차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자였다.

그러자 그 웨이터는 냅킨 하나를 꺼냈는데, 마차 그 냅킨이 위층 계단으로 통하는 길을 자신에게 알려주는 마술의 지팡이인 양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가 우리를 여인숙의 어두운 굴 안으로 이끌었다.

사물을 줄여서 보여주는 거울 하나가 비치된 방이었다. 그리고 안초 비(멸치)로 만든 소스 양념 통 하나도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나무 덧신들이 비치되어 있었다.

방(어두운 굴 같은 방)의 크기를 고려하면 사물을 줄여서 보여주는 거울은 완전히 불필요한 물품이었다.

이런 은둔지에 대해 내가 반대하고 나서자, 웨이터는 우리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엔 30명은 앉을 저녁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방에는 벽난로도 하나 있었다. 그 벽난로 안, 석탄가루 30킬로그램( ㎏ ) 아래로 불에 그슬린 글씨 연습용 책 한 페이지가 있었다. 웨이터가 활동을 멈춘 이 큰 불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그가 내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내 주문이 기껏 “이 숙녀 분에게 약간의 차를!”로 판명나자 그는 아주 처진 기분이 되어 방을 나갔다.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마구간과 ‘수프스톡 (탕거리)’ 냄새의 강렬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이 방의 공기는, 어쩌면 손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마차들이 오고가는 여관 파트의 영업이 신통치 않은가?’ 혹은 ‘기업 심이 왕성한 여관경영자가 여관식당파트에 쓸 요량으로 말들을 바짝 달이고 있는(한약을 ’달이다‘라고 할 때의 ’달이다‘) 것은 아닐까?’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은 나에게 둘도 없이 소중한 방이었다. 왜냐하면 에스텔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이 곳에서도 평생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나는 생각했다.

당시, 나는 그 점(그녀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한지여부)에 있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말하건대 나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어디로 가는데?” 내가 에 스텔라에게 물었다.

“그곳에서 나는 큰 비용을 대고 어떤 영향력 있는 부인과 지낼 예정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나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내게 사람들을 소 개시켜 줄 예정이야, 물론 나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맞아, 넌 다양성과 감탄을 기뻐할 거야.” “(무관심하게) 응 그럴 거 같아.”

그녀가 매주 부주의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넌 꼭 네 자신의 일을 남일 같이 말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네가 꼭 어디서 전해 듣기라도 했다는 거니? 자, 자.” 에스텔라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거라곤 기대해선 안 돼. 난 내 방식대로 말한 거니까. 그래 포킷 씨(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 개인교사)와는 잘 해나가고 있니?”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선 아주 만족하며 지내, 적어도….” 내가 혹 기 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대답은 않고 에스텔라가 갑자기 웃어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겐 매우 이상하게 다가왔다. 그래서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서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활기 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서 웃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웃음이 멈추었을 때 내가 자신 없는 태도로 그녀를 대하며 말했다.

“만약 그 분들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친다면 네가 그렇게 유쾌하게 웃진 못할 것 같은데. 아니니?”

“그래, 그래 그걸 믿어도 좋아.” 에스텔라가 말했다. “그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웃는 거라고 믿어도 좋아. 아, 그 사람들이 미스 해비샴을 상대하며 어찌나 추궁을 당하던지 ㅋㅋ!”

그녀가 다시 웃었다.

심지어 지금은 그녀가 웃는 이유를 내게 들려주었음에도 그녀의 그런 웃음은 내게 아주 낯설게 다가오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웃음이 진짜임을 내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그녀의 웃음은 뭔가가 너무나도 이상했다.

그녀의 웃음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녀가 그런 내 생각을 보았다.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래는 모두 에스텔라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심지어 너조차도, 좌절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 얼마나 만 족감을 주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걸. 그리고 그들이 우스꽝스러워질 때 내가 그 모습에서 얼마나 큰 대리만족을 느끼는 지도 넌 알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넌 그런 이상한 집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양육 되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난 아냐. 동정, 연민, 부드러움과 위로 그 외 비슷한 것들의 복면 아래로, 너에 대한 음모를 꾸밈으로써 네 어린 명민함이 억눌리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본 적이 넌 없을 테니까. 하지만 난 아냐. 한 밤중에 깨어선 그녀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소지품들을 따져보는 그런 협잡꾼 같은 여자(미스 해비샴)를 발 견하곤 네 어린애 같은 두 둥근 눈이 더 넓게 더 넓게 서서히 떠지는 것을 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난 그래 봤어.”

에스텔라는 이제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기억들(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틈에서 자란 것)을 이제 더 이상 어떤 얕은 곳에서 끄집어내고 있지도 않았다.

‘모든 유산을 위해서 내가, 그녀에게 그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진 않으리라. 내 비록 그 유산이 산더미 같이 쌓이더라도.’

“네게(주인공) 들려줄 얘기가 두 가지 있어.” 에스텔라가 말했다. “왜,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속담이 있지.(낙숫물 = 처마 끝에서 떨 어지는 물, 댓돌 = 낙숫물 받는 돌) 물론 넌 그 사람들(주인공의 성공을 질시하는, 미스 해비샴의 먼 친척들)이 네게 해를 끼치진 못할 거란 걸 확신해도 좋아. 크든 작든 언제 어떠한 일에서도 미스 해비샴이 널 지지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의 꾐과 비열함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 유가 너니까 난 어찌 보면 네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내 손!”

에스텔라가 장난스럽게 손을 내게로 내밀자 난 그 손을 쥐고 내 입 술로 가져갔다.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구나.” 에스텔라가 말했다. “아니면 경고를 전혀 받고 싶지 않은 거니? 그것도 아니면 언젠가(12살 때) 내가 내 볼에 입 맞춰도 좋다고 했을 때의 기분으로 내 손에 키스한 거니?”

“그게 어떤 기분인데?” 내가 말했다.

“잠깐 생각해봐야겠어. 아첨꾼과 음모자들에 대한 경멸에의 감정?” “내가 ‘그래’ 대답하면, 네 뺨에 다시 키스해도 되니?”

“넌 내 손에 입 맞추기 전에도 내게 물어 봤어야 했어. 하지만, 그 래, 좋을 대로 해.”

내가 웅크렸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이 마치 석고상 같이 느껴졌다. “자.”라고 말하며 에스텔라가 고개를 돌렸다.

그 즉시 난 그녀의 볼에 입 맞추었다.

“이제 내가 차를 좀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니. 그리고 나를 리 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까지 보호해주는 것도 잊지 말고.”라고 말하며 그녀가 원래 말투대로 돌아갔다.

그건 마치 우리의 유대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우린 단지 ‘작은 인형(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그런 행동이 내게 고통을 주었다. 사실 우리 교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이 내게 너무 고통을 주었다.

나와 나누는 그녀의 말투가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나는 그녀의 말투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말투에 어떠한 희망도 얻 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불신과 부질없음에 저항해 계속해서 나아갔다. 왜 수 천 수 만 번이나 그랬냐고? 정말로, 언제나 늘 그것이 신뢰할 수 없고 부질없었기 때문이다.(자신의 행동이 부질없음을 알고 자괴감에 그녀에게 더 다가가려 했다는 말)

나는 어서 차를 달라고 벨을 울렸다. 그리고 웨이터가 ‘마술의 지팡이(냅킨, 웨이터가 뭔 일을 할 때 먼저 꺼내든다는 의미)’와 함께 다시 나타나, 이 다과(차와 과자)에 곁들여지는 부속물들을 대략 50가지 정도 조금씩 가져왔다.

그 50가지 부속물들은 다음과 같다.

차 쟁반 하나와, 컵들과 받침접시들, 나이프(칼)들과 포크들, 그리고 고기 써는 큰 나이프와 큰 포크들, 각양각색의 스푼들과, 소금 그릇들, 순하게 생긴 작고 둥근 빵(머핀) 하나, 그 빵은 튼튼한 철판 덮개 아래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가두어져 있었고, 그리고 ‘수북한 파슬리 잎 안’에 ‘부드러운 버터 한 조각’으로 포인트를 준 ‘부들(개울가에 자라는 풀)들 속’에 든 ‘모세(종교지도자)’와, 맨 윗부분에 잘게 빻은 가루를 뿌린 색깔이 연한 빵 한 덩어리, 삼각형 모양의 빵 몇 조각 위에 두(2) 줄 나 있는 부엌벽난로 막대기자국들의 증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뚱뚱 하고 주둥이가 있는 가정용 홍차주전자 하나였다.

짐이 무거워 고통스럽다는 기색을 얼굴 표정 가득 명백히 드러내며, 웨이터가 이 모든 부속물들을 들고서 비틀거리며 방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눈결에 언뜻 보아서도 차(먹는 차)는 없었다.

그런 다음 웨이터는 이 접대의 단계에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더니, 한참 있다가 어린 가지들이 담겨 있는 값비싸 보이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서 되돌아왔다.

나는 이 어린 가지들을 뜨거운 물속에 담갔다. 그런 뒤에 웨이터가 가지고 온 50가지 부속물들 전체를 가지고, 에스텔라를 위해, 뭔지 잘 모르는 것을 한 잔 우려냈다.

찻값을 지불했다. 웨이터는 팁을 잊지 않고 챙겼다. 마부에게 돈을 지불한 후, 객실 담당 여종업원에게도 적절한 팁을 주었다. 한 마디로, 여인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뇌물을 쥐어주고 멸시와 적개심의 상태에 빠지게 만든 후에야 에스텔라의 지갑은 아주 가벼워졌다.

우리는 우편마차를 타고 그곳을 떠났다.

‘치프사이드 시티’(런던의 시티 중 하나)를 돌아 덜거덕거리는 뉴게 이트(감옥) 거리를 지나자, 내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벽들(감옥의 벽 들)이 나왔다.

“저기(뉴게이트 감옥, 런던의 유명한 감옥, 1902년에 폐쇄됨)가 어디니?” 에스텔라가 내게 물었다.

나는 바보같이 그것이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척 연기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그녀가 그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마차 안으로 끌어당기며 중얼거렸다.

“불쌍한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곳을 방문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리라.

“재거스 씨(변호사, 주인공의 후견인)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솜씨 좋게 언급하며 내가 말했다. “재거스 씨는 저 음침한 곳에 대한 비밀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런던 시민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어.”

(에스텔라의 대사) “그는 모든 장소에 대한 비밀을 죄다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니.” 에스텔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공의 대사) “그러고 보니 넌 그를 종종 만났겠구나?” (에스텔라의 대사) “불특정한 간격을 두고 종종 보며 자랐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릴 적부터.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을 뗄 때보다 차라리 그를 더 몰라. 그래 넌 그와 교류가 있니? 그가 네 출세를 돕고 있다던데?”

(주인공의 대사) “일단 의심이 많은 그의 태도에 길들여진 후로부턴 나도 매우 잘 해나가고 있어.”

(에스텔라의 대사) “그와 친해?”

(주인공의 대사) “그의 집에 가서 정찬(저녁식사)을 대접받은 적도 있는걸.”

“내 생각에,” 에스텔라가 살짝 겁을 내며 말했다. “그의 집은 별난 곳일 것 같아.”

(주인공의 대사) “특이한 곳인 건 맞아.”

아무리 에스텔라와 함께였다지만, 나는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을 너무 함부로 논하는 것에 신중했었어야 했다.

만약 그때 갑작스럽게도 가스 등 불빛이 마차 안으로 쏟아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 결국 ‘제라드 거리’(재거스 씨의 집이 있는 거리이름, 당시엔 런던 서쪽에 있던 한적한 거리였음. 지금은 런던 중앙에 위치)에서 있었던 저녁식사자리(‘주인공의 동료’가 ‘주인 공의 라이벌’과 싸울 뻔했는데 재거스 씨가 솜씨 좋게 말린 일, 26장 참조바람)를 묘사하는 데까지 나아갔었을 테지만 갑작스런 불빛으 로 어쨌든 그런 일은 없었다.

불빛이 지속되는 동안, 이전에 나를 사로잡았던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다시 불붙어 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차가 가스 등 불빛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마치 번갯불 속 에 있다 나온 마냥 아찔했다.

그래서 우린(주인공과 에스텔라, 둘 다 20세) 다른 주제로 대화를 계속했다. 대체로 우리가 여행하는 도로에 대한 얘기들이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런던의 어디어디가 나오고 저쪽 방향으로 가면 런던의 어디어디가 나온다는 얘기를 나누었다.

“내겐 이 큰 도시가 거의 처음이야.” 그녀가 계속 말했다.

“프랑스로 건너갈 때까지(그녀 나이 14세 또는 16세 때, 15장 참조바람) 단 한 차례도 미스 해비샴의 품에서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 프랑스로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에도 런던은 그냥 통과만 했었거든.”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가 여기서 체류하는 동안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이 돌봐주도록 되어 있니?”

내 말에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그녀가 그것에 성공하고 있었다는 것, 심지어 그 일(유혹)에 고통이 따랐다고 해도 그녀가 나를 굴복시키고 말았으리란 사실을 내가 외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그것은 나를 조금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사이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식

으론 그녀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그녀의 존재를 그때 ‘느꼈어야만 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심장을 짓밟고 내던지기 위해 그녀가 계획적으로 내 심장을 움켜쥐길 원한 것이지 내 심장이 그녀 안에 있는 어떤 유연한 부분(애정)을 억지로라도 끄집어낼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그때 ‘느꼈어야만 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 이 당시엔 ’런던 너머‘이고 현재는 ’런던 안‘임, 주인공이 신사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교사의 집)’를 통과할 때, 나는 매튜 씨가 사는 집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니까…, 리치먼드(에스텔라가 살게 된 동네. 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널 이따 금씩이라도 볼 수 있기를 희망해(\*^-^\*).”

“그래 그렇고말고, 넌 나를 볼 수 있어. 네가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날 찾아와도 되고. 그 집에 너에 대한 얘기를 할 생각이니까. 사실 대로 말하자면 네 얘기를 벌써 했어.”

나는 물었다.

“네가 구성원이 될 그 집엔 가족이 많니?”

“아니, 엄마와 딸 단지 둘 뿐이야. 엄마 쪽은 어떤 지위에 있는 귀부인 출신인데 수입이 증가하는 것에 그다지 기분 나빠하진 않는 것 같 았어.”

“미스 해비샴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너와 다시 헤어질 수 있다니 좀 놀랐어.”

“그건 미스 해비샴이 내게 품고 있는 계획들 중에 일부분이야, 핍(주인공의 이름, 20세).” 에스텔라가 “휘” 한숨을 쉬며 말했다. 피곤해보 였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써야하고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 해야해 그리고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려야만해. 나와 보석들이….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젠 거의 전부 내 소유거든.”

그건 그녀가 내 이름을 언급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물론 그녀는 일 부러 그렇게 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값지게 여길지를(직역 → 소중 하게 간직할지를)’ 그녀가 알았던 것이다.

우리는 ‘리치먼드(에스텔라가 살게 된 동네. 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 너무도 빨리 도착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동네 중앙에 있는 잔디밭 옆의 집이었다. 근엄하게 생긴 옛날 식 집이었다.

공판일(판사가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날)에 여러 번 나갔을 것 같은 테를 두르고 있는 집, 파우더(분)를 바른 것 같은 집, 헝겊 조각을 댄 것 같은 집, 코트 상의로 멋을 내고 스타킹을 말아 올린 것 같은 집, 각종 주름 장식들과 장검(칼)을 찬 것 같이 근엄하게 생긴 옛날 식 집이었다.

집 앞에 있는 오래된 몇몇 나무들은, 유행 지난 ‘둥근 고리들과 가발들 그리고 뻣뻣한 치마들 마냥’ 틀에 박혀 있고 부자연스럽게 가지가 쳐져 있었음에도, 여전히 유행에 어울리는 양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죽은 나무들의 긴 행렬에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할당받을 시간이 아득히 먼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도 곧 목적지에 도착해 먼저 와 있던 동지들처럼 침묵의 길을 걷게 되리라.

고적한(외로운) 소리와 함께 벨이 울렸다. 아마 그 벨은 이 집안이 잘 나갈 때에는 가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댔을 것이다.

〈 여기 친환경적인 ‘파딩게일’(옛날에 서양여자들이 허리는 가늘게 치마는 불룩하게 하려고 속에 착용하던 둥근 틀)을 입으신 부인 도착 이요! 다음으로 손잡이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검(칼)을 차신 기사분이 요! 여기 10cm 힐과 보석이 한 알 박힌 반지를 끼신 숙녀 분 도착이

요!〉라고.

벨은 달빛을 받아 엄숙하게 울렸다. 체리(노란빛을 띤 검 붉은색) 색 상을 한 옷을 입은 가사도우미 두 명이 에스텔라를 마중하기 위해 옷자락을 펄럭이며 뛰쳐나왔다.

대문간은 곧 에스텔라의 짐들로 가득 찼다. 에스텔라가 미소지으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잘가.”라며.

그녀 또한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는 여전히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도 그녀와 함께 저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내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임을 그리고 항상 비참해질 것임을 그 누구보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마차에 올라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 주인공이 신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하숙집, 주인공의 방은 바너드 여관에도 하나 더 있음)로 되돌아왔다.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며 마차를 타, 더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며 마차에서 내렸다.

우리 집 대문에서 보니, ‘제인 포킷’(11세 여자아이이름, 주인공의 스승인 ‘포킷 씨’의 똑똑한 딸, 허버트의 나이차 많이 나는 여동생, 독자들이 이름 알 필요 없음)이 자신의 앳된 꼬마 신사의 에스코트를 받 으며 소규모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꼬마 신사가 비록 플롭슨(포킷 씨 집의 ‘여자보모’이름, 독자들이 이름 알 필요 없음)의 통제를 받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꼬마 신사가 부러웠다.

포킷 씨(50세. 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 개인교사, 허버트의 아버지) 는 강의를 위해 출타중이셨다. 왜냐하면 그가 가정(집)경제에 관한 한 런던에서 최고로 기쁨을 주는 강연자였기 때문이다. 덩달아 아이들과 하인들을 관리하는 능력에 관한 그의 최근 논문들이 그 주제와 관련되어 최고로 우수한 교과서들에도 실리기 되었기 때문에 강연요청이 쇄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포킷 씨 부인(45세. 독자들이 알 필요가 없는 이름임. 많이 안 나옴)’은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녀는 곧 사소한 곤란 하나에 처하게 되었다.

즉 밀러스(여자보모 이름, 33장 #21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독자가 굳이 알 필요 없는 이름들임)가 근위 보병 연대에서 근무하는 어느 친척 한 사람 때문에 무책임하게도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애기를 조용히는 시켜야겠고, 그래서 포킷 씨 부인이 애기에게 바늘통을 가지고 놀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애기 손에 있던 바늘통에서 너무 많은 바늘들이, 즉 그런 어린 애기 환자가 그것을 강장제(약)로 알고 삼켰거나 혹은 외부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바늘들이 바늘통에서 사라진 것이다.

포킷 씨(50세. 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 ‘개인교사’이자 ‘허버트의 아 버지’)는 가정(집)문제에 관한한 가장 훌륭하고 실용적인 충고를 들려 주는 것으로 저명하신 분이셨다. 당연하게도 말이다.

그리고 그는 사물들에 관한 명확하고 건전한 인식을 지닌 매우 현명한 지성의 소유자로 저명하신 분이시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심적 고통 속에서, 포킷 씨에게 “제 비밀 좀 들어주십시오.”고 청해볼까 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다.

하지만 바늘을 삼켰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애기를 위한 특효약이랍시고 애기를 침대에 눕히는 처방을 한 후 자신은 작위에 관한 책을 계속 읽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포킷 씨 부인(아내)’의 모습을 내가 우연히 쳐다본 후엔, 글쎄, 아니 차라리 포킷 씨(남편)에게 털어놓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유산**

**34장**

나는 점점 내 유산에 익숙해져갔다. 나는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산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내 자신의 성격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을 나는 가능한 한 최대한 못본 척 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조(주인공의 매형, 55세)에 관해서는 만성적인 거북함(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는 심적 상태로 살았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자신을 방문한 조를 깔보고 무시하다 조가 실은 겉으로만 어리숙할 뿐 깊은 삶의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주인공이 자신을 비하한 일)이 마음에 걸리고 또 걸렸기 때문이다.

비디(주인공이 시골에 있을 때 사귀려던 찰나에 유산을 받고 런던으로 오면서 흐지부지된 착한 아가씨)에 대한 내 도덕심도 결코 기분 좋을 리는 없었다.

카밀라(포킷 씨의 여동생 25장 참조, 엄청 수다쟁이. 부자이자 자신의 먼 친척인 미스 해비샴의 돈을 탐내곤 미스 해비샴에게 “당신을 걱정 하느라 밤에 종종 잠에서 종종 깰 정도에요.”라는 말을 했었음)처럼, 나도 종종 밤에 깨었다. 그럼 영혼까지 밀려오는 피곤함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곤 했다.

‘내가, 미스 해비샴(갑부)을 모르는 채 ,그리고 힘든 대장간에서 조(직업이 대장장이)와의 동업자 관계가 되는 남자다운 만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자랐더라면, 그럼…,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되어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녁이면 자주 나는 홀로 앉아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곤 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집(고향 시골) 부엌의 벽난로 불‘과 ’대장간(주인공이 어릴 적에 일했던 시골 대장간)의 불‘과 같은 열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렇지만 에스텔라가 내 심적 불안과 동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그 심적 불안과 동요의 결과물에서 내 자신의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경계를 그을 수 없어 혼돈의 상태에 빠졌었다.

즉, 내게 유산이 하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에스텔라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잘 해내나가고 있었을까를 만 족스럽게 판별할 수가 없었다.

자(이제), 내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나쁜 영향에 관해서라면, 나는 일말의 곤란함도 겪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너무 어슴푸레하게였 지만, 난 내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으로 알아차렸다.

무엇보다도,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에게는 그러했다. 돈을 낭비하는 내 습관들은 그의 공격받기 쉬운 본성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출을 하게 했고, 수수하던 그의 삶을 부패시키고, 평 온하던 그의 일상을 번민과 후회로 요동치게 했다.

내가 무의식중에, ‘포킷 씨 집안의 여타 다른 사람들’이 좋지 못한 술책(씀씀이)들을 생활화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그런 천함은 그들 본성의 구부러짐이었으며 내가 그들 본성을 얕은 잠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누군가 딴 사람에 의해 그들 본성이 일깨워졌을 테니까.

하지만 허버트의 경우는 아주 다른 경우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찔리는 듯 한 아픔을 내게 주었다.

‘가구가 부족해 야윈, 그의 방들’을 그의 경제적인 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내 장식용품들로 가득 메우고, 카나리아(종달새와 비슷한 새)가 그려진 양복 조끼를 입은 ‘원수(주인공이 비싼 돈을 주고 부 리지만 거의 아무 것도 안하는 심부름꾼 소년)’에게 그가 마음대로 지시를 내리게 하는 악마 같은 호의를 내가 허버트에게 베풀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종종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좁은 감방(부족한 용돈)’을 ‘넓은 감방(풍부한 삶)’으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으로써, 나는 이제 많은 빚을 지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내가 시작하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 또한 시작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그도 곧 빚을 지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스타톱(여자 같은 남자, 주인공의 동료)의 제안이 있고 해서, 우리는 ‘작은 숲의 방울새들’이란 클럽의 일원이 되기 위해 명단(이름)을 제출 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단체(클럽)의 설립목적을 모른다. 만약 “회원들은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값비싼 정찬(코스 요리)을 들어야하며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 많이 그들 자신들끼리 말다툼을 벌여야하며, 6명의 웨이터들에게 술을 먹여 계단 위에서 뻗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그 단 체(클럽)의 설립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알았다. 이 유쾌한 사교의 목적들은 언제나 잘 달성되었기 때문에 나와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는 첫 번째 기립 건배 때 다음과 같이 언급해야하는 것을 제외하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주인공과 허버트가 한 대사) 제군들, 서로 간에 선의의 감정을 돈독케 하는 이 모임이 ‘작은 숲의 방울새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 잔 같이 흘러넘치길 바라네.”

방울새들(클럽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돈을 바보 같이 썼다. 우리가 코스 요리를 먹던 호텔은 코벤트 가든(런던 중심부의 지구)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숲(클럽)에 가입하는 영광을 입었을 때 내가 본 첫 번째 방울새는 벤틀리 드러믈(얼굴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몸이 빌딩처럼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인물. 주인공의 라이벌)이었다.

그 당시 벤틀리 드러믈은 자기 소유의 마차를 타고 갈 곳과 마차를 제대로 운전할 줄 몰라 시내 여기저기를 허둥대며 돌아다니면서, 길모 퉁이에 서 있는 ‘코너 표시 말뚝들’에 빈번히 손상을 입히고 있었다.

이따금씩 그는 마부 석 발판 너머로 머리부터 먼저, 거꾸로 마차에서 솟구쳐 오르기도 했는데, 일찍이 나는 그런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작은 숲(클럽)’의 정문을 향해 그가 내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화로에 석탄을 던져 넣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기술은 내가 조금 선수를 쳐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땐 아직 내가 작은 숲의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모임의 신성한 규율에 의하면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회원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소유한 자금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의 지출을 기꺼이 내 자신이 떠맡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뭔지 아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도저히 그에게 대놓고 그러한 제안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녀석은 점점 다방면에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자기 주변을 둘러봐야했다.

우리가 차츰 깊은 밤의 시간들과 동료들에 빠져 들어갔을 때, 녀석은 아침식사를 할 땐 실의에 빠진 눈을 하고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다가도, 정오 때쯤이면 좀 더 희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해, 저녁을 먹기 위해 집에 돌아왔을 땐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꽤 또렷하게 먼 거리에서나마 자본을 다시 발견한 것 같다가도, 자정(밤중)이 가까워지면 그 자본을 거의 다 실현한 것 같더니, 새벽 2시쯤이 되면 너무나 깊이 낙심해서는 “있지, 핍, 라이플 총(명중률이 높은 소총)을 하나 사서 미국으로 건너가볼까?”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더랬다. 그러면서 “그 총으로 버팔로(미국들소)들을 잡아서 돈을 벌면 되잖아? 안 그러니?”라며 두루뭉술하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는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 주인공이 신사교육을 받고 있는 개인교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일주일에 대략 반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럴 때면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 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가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에 관해 서는 가까운 장래에 따로 떼어 얘기하도록 하겠다.

내가 해머스미스에 머물 때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도 해머스미스 (허버트의 부모님 집임)에 자주 찾아오곤 했었다.

그런 기간 동안 계속 그의 아버지(포킷 씨. 주인공의 신사교육 담당 개인교사)는 아들이 기대하고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시적인 인지를 이따금씩 하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고꾸라지듯이 뛰어오르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망가지는 상황 하에서는, 아들이 어딘가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제 밥 벌이는 하는지 아닌지는 어쨌든 그 자신이 처리해나가야 할 일이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포킷 씨(50세. 허버트의 아버지)의 머리카락들은 점점 회색이 되어갔고, 포킷 씨는 자신이 처한 곤혹스러움들에서 빠져나오려고 자신의 머리카락들을 두 손으로 붙잡곤 자신을 들어 올리려는 시늉을 종종 해댔더랬다.

포킷 씨 부인은 자신이 발을 얹고 있는 대(발판)를 헛디디고 가족들이 넘어지는 와중에도 주구장창 작위(귀족)에 관한 자신의 애독서를 읽으며 감동에 북받쳐 자신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또 감동에 못 이겨 우리들(그녀의 가족들과 주인공)에게 자신의 조부(그녀의 할아버지. 귀족의 작위를 받을 뻔했다가 행정상의 실수가 있어 귀족의 명부에 오르지 못했다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께서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주의를 끌 때는 언제나 자녀들 을 침대 속으로 직행시킴으로써 단단히 버릇을 가르쳤다.

내 앞 길을 정리하려는 목적에서(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나는 지금 이때 당시의 내 생활에 대해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버나드 여관(주인공이 이따금씩 들러 묵고 있는 다 떨어질 것 같은 외관을 한 여관. 허버트의 하숙집)’에서의 우리의 평상시 생활방식과 습관들에 대한 묘사를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을 것이다.

우리(주인공과 허버트, 모두 20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돈을 써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상을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것들만을 얻어내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곤궁한 사람(가난한 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예비신사들이란 우리 동료들의 금전 상태는 죄다 이런 식(빚을 내 과소비를 하면서도 겉으론 멀쩡한 척 함)이었다.

이들 모두, 물론 나를 포함해서, 이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즐기고 있다는 명량한 날조가 있었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해골 같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가 실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내가 아는 한에는 우리의 경우는 그래도 꽤 평범한 경우에 속했다(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는 얘기).

매일 아침이면 언제나처럼 부푼 기대를 안고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는 시내로 나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종종 캄캄한 안쪽 방(허버트의 방)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는 그 곳에서 잉크병과, 모자걸이와, 석탄 통과, 끈 상자와, 1년 단위로 나오는 책 한 권과, 그리고 자신의 책상과 의자와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물론 그 방에는 줄긋기에 쓰이는 자도 하나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자기 주변을 둘러보는 것 예외는 그밖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그를 나는 일찍이 본 기억이 없다.

만약 대영제국의 사람들 모두가 허버트가 하는 것만큼만 충실하게 책임을 맡아서 착수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쯤 덕치국가를 실현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쌍하게도 녀석은 매일 오후면 정해진 시각에 ‘로이즈 다방 (영국의 해상보험업자의 단체)’으로 가 주인에게 눈도장을 찍고 오는 의식을 준수하는 것 예외는 그 밖에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로이즈 다방과 관련해서도 내가 파악한 바로는 녀석이 그 다방에 그 다음 날도 가보더라는 것 말고는 녀석이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경우가 매우 심각하며 정말 좋은 기회를 포착해야만 한다고 절실히 느낄 때면, 가장 바쁜 시간에 런던증권거래소로 나가 그 곳에 모인 유력자들 사이로 다소 어두운 시골의 댄스마냥 헤집고 들어갔다가 헤집고 나오곤 했다.

“왜냐하면,” 허버트가 내게 말했다. 그건 그가 그 특별한 의식(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그냥 멍 때리기)들 중 하나를 실행하고 온 날의 저녁식사자리에서였다.

“좋은 기회란 개인에게 쉽게 오지 않으려 하거든 그래서 개인은 그 곳까지 가야하는 거야, 내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해본 거야.”

만약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애정이 덜 가지고 있었다면, 내 생각에 우린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어김없이 미워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후회가 밀려드는 시간(아침)이면 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이 하숙집이 싫었으며, 원수 같은 녀석(주인공이 비싼 돈을 주고 부리고 있는 심부름꾼 소년)이 입고 있는 저 제복 또한 눈에 거슬려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

‘녀석이 입고 있는 저 제복은 그 어느 때보다 사치스럽고 내 지금 수입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 24시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말이야.’라고.

우리(주인공과 허버트, 모두 20세)는 점점 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아침 식사는 점점 더 공허하고 속이 빈 형태를 띄어갔다.

그러던 중, 어느 때인가의 아침식사시간에 “〈 보석 장신구와 완전히 관련이 없지 않소. 〉”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하는 한 통의 편 지를 받았다. 꼭 내 고향 지방일간지에나 실릴법한 문구였다. ‘보석 장신구’란 어구 말이다.

그 편지에 너무 화가 난 나는 생뚱맞게도 원수(심부름꾼 소년)의 파란색 옷깃(목)을 붙잡고서 “야 이 녀석아,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이딴 롤빵이라도 먹길 원할 거라 감히 생각해!”라며 녀석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흔들기까지 했다.

그 결과 실제로도 녀석이 공중에 붕 떠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이 마치 장화를 신은 큐피드(사랑의 신) 같았다.

가끔은, 이건 불확실한 가끔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기분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가끔씩 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치 그것이 주목할 만한 발견인 양.

“내 친애하는 허버트야, 우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내 친애하는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아,” 허버트도 진심에서 우 러나오는 말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상한 우 연의 일치이게도, 넌 방금 내가 하려던 말을 한 거야.”

“그럼, 허버트,” 그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반응하곤 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계획에 대한 약속을 잡아두는 것으로 우리는 심대한 만족을 매번 얻곤 했다. 나는 항상 이 약속 잡아두기가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고, 나는 항상 이 약속 잡아두기가 문제에 맞다드리는 방법이라 생각했고, 나는 항상 이 약속 잡아두기가 적(빚)의 목을 잡아채는 방법이라 생각 했다.

물론 내가 아는 한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듯했다.

우린(주인공과 허버트, 모두 20세) 저녁식사용으로 꽤 특별한 음식을 주문했다. 물론 평소와 달리 마실 것도 꽤 특별한 와인으로 한 병 주문했다. 이건 모두 우리의 마음을 임시로 공고히 해 기대에 부응하는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

저녁식사가 끝났다. 우린 만년필들을 한 꾸러미 끄집어냈다. 그리고 잉크병도 넉넉한 걸로 준비하고, 필기용지와 압지(잉크로 쓴 글씨가 번 지지 않도록 물기를 빨아들이는 종이)도 근사하게 쭉 펼쳐놓았다.

왜냐하면 문구류를 넉넉하게 배열해놓고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한 뭔 가가 팍팍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나는 빛깔 나는 종이 한 장을 골라 그 종이 위 부분을 가로지르며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제목을 썼더랬다.

“핍(주인공 이름, 20세) 씨의 부채관련 비망록(제가 쓴 글 → 비망록 이란 ‘잊지 않기 위해 쓴 기록’을 의미함)”라고.

나는 또한 비망록에 “장소 : 바너드 여관(= 허버트 집 = 런던시내 서쪽), 오늘날짜 : ○○○○-○○-○○”라고 적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면,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 또한 종이 한 장을 집어 들어 그 위에다가 내가 쓴 제목과 비스무리하게 적었더랬다.

“허버트 씨의 부채 제반 사정에 관한 비망록”

그런 다음 우리 각자는 서로의 옆에 어질러진 채로 수북이 쌓여 있는 서류 더미들을 조회하곤 했다. 그 서류뭉치들은 그것들이 도착할 때마다 서랍 속으로 집어던져지거나, 호주머니의 구멍 속에 끼어 닳았 거나, 촛불에 그슬려 반쯤은 타버렸던 것이거나, 수주일 동안 거울에 꽂혀 있었거나, 아니며 그 외의 방법들에 의해 훼손된 서류들이었더랬다.

만년필이 굴러가는 소리는 우리를 몹시도 기운 나게 하고 우리의 기 분을 상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따금씩 ‘이 유익한 비즈니스 행위’와 ‘실제 부채를 갚는 행위’를 서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 용성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이 둘은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꽤 오랫동안 써내려간 후, 난 허버트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어때 잘 돼가?”

그럼 십중팔구 허버트는 누적되어가고 있는 부채의 총량을 가장 후 회막급 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더랬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 허버트는 이렇게 말하곤 했더랬다. “내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넌 굳세어라 금순이도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어, 허버트.” 내가 엄청난 부지런함으로 펜을 열심히 움직이며 통렬한 응수를 하곤 했더랬다. “문제를 직시해야해. 네 부채들을 조사하고, 그 놈들을 빤히 쳐다 봄으로써 무안을 주어야해.”

“그래 알았어, 헨델, 그렇게 해보도록 할께. 그런데 왜 이 수치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내게 무안을 주는 것 같이만 느껴질까.”

하지만, 내 단호한 태도는 먹혀들었고, 허버트는 다시 숫치 합계에 열중할 수 있었다.

한 동안의 시간이 더 흐른 후 녀석이 다시 한 번 포기하려 했는데, 제(허버트) 딴에는,

“코브스 씨(의미 없는 이름임) 가게에서 온 계산서가 없는 걸.”라거나,

“이런 로브스 씨(의미 없는 이름임) 가게에서 온 계산서도 없어.”라거나,

“젠장 노브스 씨(의미 없는 이름임) 가게에서 온 계산서가 없어.”라며 각 경우에 댈 수 있는 핑계들은 다 찾아내며 부채 합계계산을 중간에 관두려했다.

“그럼, 허버트, 감으로 그 부분을 메꿔봐. 어림잡아 기입하는 방식 있잖니.”

“넌 정말 기지가 굉장한 녀석이구나, 완전 꾀돌이야!” 감탄하며 내 친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말이지 네 비즈니스적인 감각은 아주 놀라워.”

나도 역시 내가 기지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때마다, 일류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과단성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주관이 있고 냉철한 마음씨를 지닌 일류 비즈니스맨이란 평가를 내 스스로에게 내 렸다.

내가 내 부채 목록을 옮겨 적어야 하는 모든 책임을 완료했을 때, 나는 그 목록들과 계산서들을 비교해가며 부채 목록에 체크 표시를 했다.

하나의 항목에 체크가 될 때마다 내 자화자찬은 사치스러운 감동의 물결 그 자체였다.

모든 항목에 체크표시를 마쳤을 때, 나는 내 계산서들을 반듯하게 접어, 계산서들 뒷면 각각에 꼬리표를 붙인 후, 계산서 전부를 대칭적인 꾸러미가 되도록 묶었다.

그런 다음 허버트 앞으로 온 계산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묶어주었다.

이런 나를 보고 그가 얌전하게 말했다.

“난 너처럼 행정상의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내가 녀석을 위해 부채목록정리 작업의 초점을 맞추어준 것 같이 느껴졌다.

부채목록정리 작업에 있어서, 내 작업스타일에는 빛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나는 이제부터 그것을 “여유(마진) 남기기”라 부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가령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의 부채 총계가 8,200만원(부연설명 : 원문에 나오는 ‘164파운드 4실링 2펜스’ 는 2014년 우리나라 물가기준으로 계산하면 8,200만 원 정도입니다. 계산에 전혀 근거 없는 거 아시죠? 다만 19세기 영국 돈을 이렇게 계산하면 편합니다)이면 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유 남겨둬, 1억이라고 적어둬.”

혹은, 가령 내 자신의 부채총계가 그의 4배라면, 나는 여유를 남기고 한 3억 5천만 원이라고 기입했다.

나는 이 같은 “여유 남기기” 방식의 현명함에 대해 최고로 높이 평가했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건대 그것이 값비싼 처방이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시 새로운 부채를 지고 그 남은 여유의 전체범 위까지 다 메꿔버렸으며, 때때로는 그 남은 여유가 주는 해방감과 지 불능력이 아직 있다는 감각에 빠져, 또 “다른 여유 남기기”가 필요한 상황 속으로 멀찍이 가 있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부채총계에 대한 이러한 조사를 하고 나면 차분하고 편안하며 도덕적인 침묵이 찾아왔다. 그것은 내게 우선은 내 자신이 칭찬받을 만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내 고군분투와 일처리 방식, 그리고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0세)의 칭찬들’로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나는 테이블 위에, 문구류들 사이로 대칭적으로 묶어 놓은 ‘그와 나의 계산서 꾸러미들’을 올려놓은 채 그 앞에 앉아 있곤 했더랬다.

그럼 나는 내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은행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의식(총부채를 계산)을 치를 때면 바깥쪽 문을 닫았다. 이는 모두 작업도중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이러한 평온 상태에 빠져있었을 때, ‘앞서 말한 그 문(바깥쪽 문)’의 틈을 통해 편지 한 통이 들어와 바닥에 “뚝”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렸다.

“네게 온 편지 같은데,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 허버트가 나가서 그 편지를 들고 돌아오면서 말했다. “아무 문제가 없길 바랄께.”

이것은 그 편지의 묵직한 검정색 ‘봉랍(영화에서 보면 편지를 봉하고 찍는 도장)’과 테(가장자리)를 넌지시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편지에는 ‘트랩 회사로부터.’라는 사인(서명)이 되어 있었다. (부연설명 : 트랩 씨는 “45세, 돈 잘 버는 노총각, 주인공의 고향에서 신사복전문점 운명.” 소설 속 비중이 낮은 조연임)(참고로 주인공의 나이는 정확히 20세임)

그 편지의 내용은 간략했다.

〈 존경하는 경(귀족이 아닌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께.

사람들이 저를 통해 경께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조 가저리(주인공의 친누나 이름, 47세) 부인께서 월요일 저녁 6시 20분경에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발인(관을 묘지로 옮김)이 다음 주 월 요일 오후 3시경에 있을 예정이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요.〉

**위대한 유산**

**35장**

내 삶의 경로(길)에 무덤이 열렸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나중에도 한 차례 더 죽음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는 의미임). 연약한 내 마음에 무덤이 남긴 갈라진 틈은 놀라웠다.

우리 집 부엌 난로가 옆 누나의 전용의자에 앉아 있는 누나의 모습이 밤낮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다.

누나가 없는 그 장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내가 최근에 누나를 떠올렸었던 적이 좀처럼 아니 전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녀가 내 쪽으로 거리를 가로질러 건너오고 있다’거나 ‘그녀가 지금 내 방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극도로 이상한 생각들에 사로잡혔다.

그 전에는 내가 누나와 내 방을 연결해 생각해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허함’과 함께 ‘누나의 목소리 혹은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 혹은 몸짓’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연상이 내 방 속에는 있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리고 종종 그 곳을 다녀간 거 마냥.

내가 누나에게서 매일 매 맞으며 자랄 운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간에, 나는 많은 애정을 지니고서 누나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많은 애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몸에 배일 정도의 후회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회의 영향으로 그리고 아마 좀 더 애정을 가지고서 누나를 떠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나는 그녀에게 그런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가해자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그때 충분한 증거만 나왔더라도 앙심을 품고 올릭(33세, 사악한 악당)을 최후까지 뒤쫓을 수 있었을 텐데. 범인이 누구든 다른 사람이었 다 하더라도.

조에게 편지를 썼다. 위로하는 편지였다. 말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례식에 갈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그 기묘한 심리상태에서 나는 나머지 기간을 보냈다. 장례식 당일 날, 나는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미리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의 ’여인숙 겸 술집‘이름)에서 내려 대장 간(주인공의 집. 집과 대장간이 붙어 있음)까지 걸어갔다.(← 읍내에서 내려 마을까지 걸어갔다는 얘기. 거리로는 6.4킬로미터. 걸어서 1시간 30분 거리임. 8장 참조)

화창한 여름 날씨였다. 또 다시 맞는 여름이기도 했다. 계속 걷는 동안 내가 어리고 희망 없던 창조물이었을 때와 누나가 나를 돌봐주지 않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간질이(회초리)의 매서움조차 부드럽게 하는 어떤 온화한 음색과 함께 떠올려졌다.

우선은, 강낭콩들과 클로버(네 잎 클로버)의 숨결만으로도 내 심장에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햇살 속을 거니는 누군가가 나를 회상하며 마음이 순화되어 나 에 대한 기억을 좋게 떠올릴 날이 올 거야’라고.

드디어 우리 집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했다. 그때 내 눈에 트랩(신사 복점 주인) 회사가 장례 집행에 들어갔으며 이미 우리 집을 장악한 것이 보였다.

우울하게 생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침울한 표정을 지은 두 남성이, 검정색 붕대로 한 번씩 감은 목발 한 짝씩을 과시하듯이 내보이고 있었다. 마치 그 목발이 누군가에겐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에의 도구이기나 한 마냥. 그들은 현관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외설적인 수퇘지(여인숙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 류장이름)’에서 해직된 좌마 기수였다.(좌마 기수 = 말 4마리가 끄는 대형 마차의 앞 쪽 두 말 중 왼쪽 말에 타는 기수) 그는 결혼식을 막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던 어느 젊은 커플을 구덩이에 꼴아 박은 장본인이었다. 그때 그가 어찌나 술에 취해 있었던지 커플이 구덩이에 곤 두박질치는데도 그는 말의 목을 양팔로 꽉 껴안고 달렸다.

집엔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마을의 대다수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연신 감탄하며 이 검은색의 수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감탄은 닫힌 창문들과 대장간을 보고도 계속되었다.

내가 들어가자 두 수위, 앞서 말한 그 좌마 기수가 현관문을 노크해 주었다. 이것은 ‘당신은 지금 비탄으로 너무 많이 기진맥진해 있어 현 관문을 노크할 힘도 없을 것이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문은 다른 쪽에 서 있던 검은색 수위가 열어주었다. 그는 목수였다. 내기에 이긴답시고 거위 두 마리로 한 번에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가장 좋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나는 거기서 제일 좋은 테이블을 제 마음대로 차지하고 있는 트랩 씨(신사복전문점 주인)와 마주쳤다. 그는 모든 ‘덧 판(넓게 펴는 판)’들을 일으켜 세워 놓고는 일종의 검은색의 바자회를 열고 있었다. 그 바자회는 수많은 검정 배지(옷에 핀으로 꽂는 종이 같은 거)들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의 등장과 동시에 그가 막 누군가의 모자에 긴 검정색 천들로 아프리카 추장처럼 모양을 내는 일을 막 끝마치던 참이었다. 그래서 내 모자도 건네받기 위해 그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나는 모자에 검정색 천을 다는 것에 그만 당황해 그의 행동을 오해하고 말았다. 결국 난 모든 따뜻한 애정을 표시하며 그의 손을 잡고 악수했다.

가여운 내 ‘조’(55세, 주인공의 매형, 직업이 대장장이,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임 / 주인공의 나이는 20세)는 약간 바닥이 더 높은 응접실의 끝자락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는 턱 아래로, 약간 검은 망토(외투)를 커다란 나비매듭으로 얽어 감은 상태였다(꼼짝 못하게 된 상태였다).

그가 상주(죽은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트랩 씨(신사복전문점 주 인)에 의해 그 장소를 배치 받았음이 분명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조에게 말했다.

“(주인공은 조에게 말을 높이지 않습니다) 조, 어때?” 조가 말했다.

“핍이구나, 녀석, 넌 알게다. 예전 네 누나가 풍채가 당당한 한 명의 여….”

그때 그가 내 손을 움켜잡았다. 더 이상 그의 입에서 얘기가 흘러나 오지 않았다.

비디(23세, 15세 때 주인공을 처음 만남,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주인공이 런던으로 상경하면서 인연이 되지 못한 사이)는 검은 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주 단정하고 얌전해보였다. 조용히 여기저기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비디에게 이야기를 걸었을 때 아무래도 대화를 계속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20세) 자리로 가 조(55세, 주인공의 매형) 옆에 앉았다.

그곳에서 나는 ‘우리 집 어느 장소에 시신이…, 그녀가…, 내 누나가 안치되어 있을까?’하고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응접실 안이 달콤한 케이크 냄새로 꽉 차 눈이 어찔어찔할 때, 나는 가벼운 다과가 차려진 식탁을 두리번거리며 찾았다. 내가 응접실 안 어둠에 익숙해져서야 식탁 하나가 보였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조각조각 잘려진 건포도가 든 케이크(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 할 때 먹는 케 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나누어진 오렌지들, 샌드 위치들, 비스킷들, 그리고 두 개의 식탁용포도주병이 놓여 있었다. 그 식탁용포도주병 두 개는 나도 아주 익숙한 장식품(물품)이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그것이 사용되는 모습을 나는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었 었다. 식탁용 포도주병 하나에는 포트와인(단맛이 나는 포르투갈 산 ‘적’포도주)이 가득 담겨 있었고, 다른 포도주병에는 셰리주(식사 전에 마시는 스페인 산 ‘백’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알아채게 되었다. 저 노예근성을 지닌 비굴하고 맹종적인 ‘펌블추크’(68세, 능청스러운 잡곡상. 주인공의 매형인 조의 실제 삼촌)가 검정 망토(외투)에 몇 미터나 됨 직한 검정 띠를 모자에 두른 채 이 식탁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내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기 위해 아부하는 듯한 행동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동작이 성공했다. 그가 내게로 건너왔다. 셰리주(스페인산 백포 도주)와 케이크 부스러기들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가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감히, 친애하는 경(귀족이 아닌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께?” 그러더니 악수를 했다.

나는 그때 허블 씨(마차바퀴 제조인)와 허블 씨 부인께서도 와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에 이름을 부른 분(허블 씨 부인)께서는 한쪽 구석에 앉아 품위를 지킨 채 너무 놀란 나머지 격한 감정의 발작이 생겨 말을 채 못하시고 계셨다.

우리 모두는 순서를 지어 상여의 뒤를 따를 예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트랩 씨(45세, 신사복전문점 주인)에 의해 웃기는 보자기로 한사람씩 묶여지고 있는 중이었다.

“(허물없는 말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핍(주인공의 이름, 20세).”이라며 조(매형, 55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땐 우리가 응접실에서 트랩 씨(신사복전문점 주인, 45세)가 “관례를 가추다”라고 부르는 것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다. 두 명씩 한조가 되는 정렬이었다. 그 정렬은 마치 무서운 종류의 어떤 댄스를 추기 위해 준비를 하는 마냥 끔찍스 러웠다.

그때 조가 내게 속삭인 것이다.

“(허물없는 말투로) 관을 내가 직접 이고 교회까지 갔다면, 이야. 탁 터놓고 깔 수만 있는 그래서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착한 어깨(남자)들만 있었어도 내가 직접 했지, 암. 하지만 그랬다간 이웃들이 천시할 테 니까, 그런 행동을. 그리고 그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테니까.”

조가 이 말을 막 했을 때 트랩 씨가 “꽥” 소리를 질렀다.

“자자, 어서요, 호주머니에 찬 손수건 꺼내시라고요, 모두!” 그것은 감정이 가신 상인의 상투적인 어투였다.(←의역 / 직역 → 그것은 우울 한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자자, 손수건 꺼내시라고요! 그럼 자, 준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들을 꺼내 얼굴로 가져갔 다. 마치 우리들의 코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마냥.

두(2) 사람씩 짝을 이뤄 밖으로 줄지어 나갔다.

조(매형)와 내가 한 조였고, 비디(옛 친구)와 펌블추크(조의 실제 삼 촌)가 한 조였다. 그리고 허블 씨 부부가 한 조였다.

내 불쌍한 누이(주인공과 20살차이)의 시신은 부엌문 옆으로 빙 돌 아 운반되어 나왔다.

6명의 운반 인들이, 테두리가 하얗고 소름끼치는 검정색 벨벳(표면에 곱고 짧은 털이 빽빽이 나도록 짠 거) 차양(덮개) 아래로, 감정을 억누르고 눈이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 이 운반의식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전체가 12개의 사람의 다리를 가진 앞이 안 보이는 괴물이, 두 명의 사육사인 ‘좌마 기수’(4마리가 모는 마차에서, 앞쪽 2마리 중 가는 방향의 왼쪽 말에 탄 기수)와 그 ‘동료’의 지도하에, 발을 질질 끌며 앞이 잘 안 보여 줄을 따라 더듬거리며 걷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이웃들은 이러한 배합들을 몹시 괜찮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우리가 마을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넋을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역 공동체에서 좀 더 어리고 좀 더 원기 완성한 악동들은 이따금씩 줄에서 황급히 달려 나가 매복해 있다가 유리한 지점에서 다시 행렬 속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다.

이러한 때에 그들 속에서도 좀 더 원기 완성한 녀석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어떤 길모퉁이로 우리가 빙 돌아 나타나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고함질렀다.

“온다, 온다. 와!”

“사람들이 저기 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들은 거의 갈채를 받았다.

이러한 행렬의 과정 속에서도 나는 펌블추크의 절망적이고 비열한 태도 때문에 아주 화가 났다. 그는 내 뒤를 따라오며, 내 모자에 두른 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거나 내 외투의 등을 곱게 펴주려는 섬세한 관심을 표명한답시고 오만 때만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사고(생각)는 허블 씨(마차 제조인) 부부의 지나친 자긍심 때문에도 보다 깊이 산만해졌는데, 그들은 이런 뛰어난 장례행렬에 구성원들 로써 참여하게 된 것을 과장되게 으스대며 자만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강 위에 있는 선박들의 돛들이 점점 더 커져가더니 우리 앞에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 교회묘지가 있음)의 경계선이 보다 명확히 보였다.

우리는 교회 부속의 묘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다. 이 교구(종교행정구역=마을) 의 고인이 되신 ‘피립(주인공 아버지의 성 씨) 필립(주인공 아버지의 이름)’과 ‘조지아나 부인(주인공의 어머니 성함).’

그리고 그곳에 조용히 내 누이(누나)가 소중히 안치되었다. 종달새들이 지면 위 높다랗게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리고 가벼운 바람이 ‘구름과 나무들’의 아름다운 그림자들로 흙을 흩뿌리는 동안, 내 누나는 조용히 안치되었다.

이 모든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 명리(이득)에 급급한 펌블추크(68세, 능청스러운 잡곡상인, 주인공이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길 원하고 있음) 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 단지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로 향했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게다가 〈 어떻게 인간이 이승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며 또 저 승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없는지와, 어떻게 우리네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흘러가고 잠시도 한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르질 않는지 〉를 우리에 게 상기시키는 저 경건한 구절들이 읽혀질 때조차도, 나는 “뜻밖에 막 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어느 젊은 신사(주인공)의 경우엔 보류요”라며 그가 기침을 토하듯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했다.

우리가 귀가할 때였다.

그는 대담하며 뻔뻔스럽게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경의 누이께서도 경이 이렇게 자신의 장례식에 몸소 참석하시여 큰 명예가 되어 드린 걸 아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대가로 경의 참석을 누이께서도 타당한 가격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경.”라는 암시까지 내게 주었다.

그 후 펌블추크가 남아 있던 셰리주(스페인산 백포도주, 식사 전에 마심)를 몽땅 다 마셨다. 다른 식탁용포도주병에 있던 포트와인(단맛이 나는 포르투갈 산 ‘적’포도주)은 허블 씨(마차바퀴 제조인)가 다 마셨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종인 양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것이 이러한 경우들(장례식 뒷 풀이)에선 통례임을 이후에야 알았다.

마침내, 펌블추크가 자신의 마차에 허블 씨 부부를 태우고 도망쳤다. 그 날의 피날레(마지막)를 장식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마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술집이름)’에 들러 “핍 경이 누리는 저 부의 애초 설계자가 누군지 아는가? 바로 날세. 암. 핍 경이 어릴 적 가장 친애하던 든든한 버팀목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날세, 암.”이라며 말했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가고 났을 때였다. 그리고 트랩 씨와 그의 하수인들도 모두 물러…, 그러고 보니 트랩 씨가 늘 부리고 다니던 ‘점원 녀석’(일 대 최악의 뻔뻔스러운 꼴통, 19세)은 이날 보이지 않았다.(주인공이 트랩 씨에게 점원 녀석의 행동에 대한 악의적인 편지를 물론 우회적인 표현을 쓴 편지를 트랩 씨에게 보냈고 트랩 씨가 점원을 해고한 경우임) 오늘 장례식에서 녀석을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하튼 모두가 가버리고 트랩 씨와 그 하수인들도 자신들의 허례허 식(거짓꾸밈)을 가방들 속에 “꽉 꽉” 채우고 역시 가버렸을 때서야, 그제야 집이 좀 사는 것 같았다.

이내(머지않아), 비디(옛 여자친구)와 조(주인공의 매형) 그리고 내가 식탁에서 함께 식은 음식들(주로 식은 고기와 함께 먹는 식사를 말함)로 식사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낡은 부엌이 아니라 응접실 가장 좋은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조(매형)는 나이프(칼)와 포크 그리고 소금 그릇과 그 외 식기들을 다룰 때 몹시도 신경을 썼다. 그래서 분위기가 대단히 경직되었다.

하지만 저녁식사 후, 내가 그에게 파이프담배를 건넸을 때,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대장간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장간 바깥쪽에 놓인 큰 석재(돌) 위에 걸터앉았을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좋아졌다.

나는 장례식 끝난 후 지금까지 그가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을 알아 챘다. 그것은 ‘그가 일요일 예배 갈 때 입는 복장’이랑 ‘대장간 작업복’ 사이의 어느 타협점이었다. 그 옷을 입자 조가 한층 자연스러워보였다. 본래 그대로의 그의 모습이었다.

내가 내 조그만 한 다락방(어린 시절 머물던 방)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조(주인공의 매형)는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기뻤다. 왜냐하면 그런 부탁을 하면서 내가 꽤 큰일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녁의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올 때쯤, 나(정확하게 20세)는 비디(23세, 15세 때 주인공을 처음 만난 여자조연. 주인공이 런던으로 신사교 육을 받으러 가면서 인연이 되진 못함)와 정원에 들러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비디.” 내가 말했다. “내 생각엔 네가 이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해 내게 편지로라도 알려줬어야 했다고 봐.”

“당신이라면…, 핍 씨?” 비디가 말했다. “만약 내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야.”

“내가 박정하다고(쌀쌀맞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비디. 난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신가요, 핍 씨?”

비디(23세, 옛 여친)는 아주 침착했다. 그녀 주변에는 정돈되고 선량 하며 귀여운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울리게 만들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 옆에서 걸으며 풀이 죽어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잠시 본 후엔, 나는 그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

“(약간 장난기로) 이제 여기서 머물기 어려워지겠지요, 비디 양?” “오! 제가 그럴 순 없지요, 핍 씨.” 비디가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말

투로 하지만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허블 씨 부인(마차 제조인의 부인)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이야. 내일 그녀에게 가보기로 되어 있고. 허블 씨 부인과 내가 ‘가저리 씨’(55세, 대장장이, 주인공의 매형)가 자리를 잡으실 때까진 돌봐드릴 순 있을 거야, 그러길 바래.”

“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니, 비디? 만약 네가 돈이 좀 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고?” 비디가 갑자기 말참견을 하며 끼어들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수간 붉게 빛이 지나갔다.

“자 말해줄게, 핍 씨. 나는 거의 완성된 인근 새 학교 여교사(비디는 원래 야간학교 선생님이었음)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해볼 생각이야. 여기 이웃 분들이 날 추천해줄 테니까 아주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참을성 있게 행동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나도 배울 수 있을 거고. 알잖니, 핍 씨.”

그녀가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보며 미소지어며 말을 이어갔다. “새로운 학교들은 예전이랑은 많이 다르지만(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아이들은 배우려하지만), 그때 이후로 난 너에게서 많은 걸 배웠으니 까. 그때 이후로 줄곧 내 자신을 향상시킬 시간을 가져왔는걸.”

“내 생각에 넌 언제까지나 스스로를 향상시킬 거라고 봐, 비디(여자 이름),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말이야.”

“아! 인간본성의 내 나쁜 측면은 예외겠구나.”라며 비디가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연설명 : ‘비디가 이 말을 한 이유’ → 주인공과 비디가 잘 되려던 찰나에 주인공이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것이 알려지고 런던으로 신사교육을 받으러 떠나게 되면서 둘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려던 찰나에 런던으로 가기 바로 전날 주인공이 “매형을 공 부시켜줘. 내가 나중에 유산을 물러받으면 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란 말을 했다가 비디가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 사람이라며 가르침은 필요 없다는 식의 말을 주고받다가 감정이 안 좋아져 주인공이 화를 내며 “넌 그래서 탈이야, 이건 인간 본성의 나쁜 측면이야.”라고 말을 했는데, 비디가 지금 그때 주인공이 한 말을 코믹하게 되받아친 거임)

그것은 부지불식간에(저항할 수도 없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입 밖에 낸 것치고는 질책(비난)하는 투의 말하기는 아니었다. 글쎄! 나는 그 문제도 접어두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비디와 정원을 좀 더 걸으며 풀이 죽은 그녀가 눈을 내리깔고 걷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만 봤다.

“난 내 누나의 임종(마지막)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가 없어, 비디.”

(아래글 전체가 비디(여자이름)의 긴 대사임)

(비디의 긴 대사 시작)

“들려줄 얘기가 별로 없어, 가엾어라! 그녀는 좋지 않은 건상상태들 중 한 고비에 계셨어. 비록 최근엔 점점 좋아지시는 기미가 있으셨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았으니까, 요 4일 간은 말이야. 하지만 그날 저녁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셨고, 차 마실 시간 때쯤이었을 거야, 그리곤 아주 분명하게 ‘조(남편이름)’라고 말하셨어. 난 그녀가 오랫동안 어떤 단어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간으로 달려가서 가 저리 씨(성 씨가 ‘조’, 이름인 ‘가저리’임)를 데리고 왔지. 그녀가 나에게 신호를 보냈단다. ‘당신(조)이 좀 더 내 가까이로 와 앉아주면 좋겠 다고.’ 그리고 ‘내(아내) 두 팔을 그(남편)의 목에 둘러앉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비디의 대사가 길어, 읽기 쉽게, 임의로 단락을 한 번 나눕니다.)

그래서 난 그 두 분이 포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고개를 그의 어깨 위에 내려놓으시며 더없이 만족해하셨어. 그러시곤 이내 ‘조(남편의 이름)’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셨단다, 그러곤 ‘미안’이라고 한 번 말하셨고, 또 한 번은 ‘핍(20살 아래의 남동생 이름.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발음하시곤. 그러시고는 더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 한 시간 후 우린 그녀를 그녀가 사용하던 자신만의 침대 위에 조용히 눕혀드렸단다. 우리도 그녀가 마지막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비디의 긴 대사 끝)

비디(여자이름)는 울었다. 거무스름해진 정원이, 좁은 길이, 서서히 빛을 내뿜고 있던 별들이 내 시야에서 흐릿해졌다.

“무엇이든 밝혀진 건 없었니? 비디.” “없었어.”

“올릭(33세, 범인, 사악한 악당)이 어떻게 된지는 알아?”

“그의 옷‘들’ 색상으로 보건대 채석장들에서 일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니? 아니, 너 왜

좁은 길에 서 있는 저 어두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

“조 부인(주인공의 누나)이 죽음을 맞이하던 밤에도 난 그(이름이 ‘올릭’, 범인임)를 저기서 봤는걸.”

“그럼 그게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니라는 말이니, 비디?”

“그래, 우리가 여기를 거닌 이후로도 죽 난 저기 서 있는 그를 보았어. 앗, 소용없어!” 비디가 손으로 내 팔을 붙들며 말했다. 내가 막 그리로 뛰쳐나가려던 찰나였다. “내가 널 속일 리 없다는 걸 알잖니. 그는 저기서 1분도 채 서 있지 않다 가버렸어.”

이 자식이 아직도 비디를 쫒아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내 분노는 극에 달하며 되살아났다. 나는 뼈 속까지 그 자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비디에게 “그 자를 뼈 속까지 혐오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자를 이 마을에서 몰아내기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을 거야.”라도 말했다.

그녀가 점차 보다 온화한 대화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조(주인공의 매형)가 얼마만큼 나(주인공)를 사 랑하는지, 그녀가 내게 말했다, 조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해본 적이 없었노라고(주인공이 설레는 마음으로 신사교육을 받고 있던 주인공을 찾아갔을 때 조의 행색과 식사예절이 누추하다고 주인공이 조를 무시한 적이 있었음). 그녀는 조가 불평안하는 대상이 나임은 말하진 않았다. 그것에 대해선 그녀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한 건지를 알았다. 그녀가 말했다.

“네 매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어. 단지 자신의 방식대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나갈 뿐이야. 그의 강한 손과 조용한 혀 그리고 온화한 마음씨를 가지고서 말이야.”

“정말, 그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아.”라며 내가 말했다. “그리고 비디, 우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주 의견을 교환하게될 거야. 당연히, 이제부턴 내가 자주 여기로 내려올 거니까. 가엾은 조(매형)만 혼자 여기에 남겨둘 순 없어.”

비디는 일언반구도(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디, 내말 듣고 있는 거니?”

“그래, 핍 씨.”

“제발 그 놈의 핍 ‘씨’라고 좀 안 하면 안 돼? 하나도 멋지게 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도대체 나를 씨라고 부르는 의도가 뭔데?”

“의도가 뭐나니?”

“비디,” 나는 고결한 척 자신만만해하며 말했다. “내 말은 지금 네가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를 알아야겠다고 요구하는 거야.”

“이런다니?” 비디가 말했다.

“내 말 좀 따라하지 마.” 내가 반박하며 말했다. “너 예전에 안 그랬 잖니, 비디.”

“예전엔 안 그랬다니!” 비디가 말했다. “오 핍 씨! 예전에 라니!”

이거 참! 나는 그 문제도 접어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또 다시 아무런 말없이 정원을 잠깐 산보한 후, 나는 좀 전 그 문제를 다시 꺼냈다.

“비디.” 내가 말했다. “나는 내가 고향으로 자주 내려와 조(매형)를 만날 거라는 얘기를 했어. 하지만 넌 굳은 표정으로 내 말을 담담이 들고만 있었을 뿐이야. 부탁이야, 비디, 왜니?”

“넌 네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니, 그러니까, 네가 네 매부를 자주 만나러 올 수 있을 거란 확신 말이야?” 비디가 좁은 정원 산책로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가 별들 아래로 맑고 정직한 자신의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아 저런!” 내가 말했다. 도저히 이 주제로는 비디와 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절망스럽게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마냥 내가 말했다.

“이건 인간 본성의 아주 나쁜 측면이야!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만, 미안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말 아조. 지금 그 말로도 내겐 충분히 충격적이었으니까.”

이런 납득할 만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저녁식사 내내 일정한 거리를 비디에게서 두었다. 그리고 내 어린 시절 방이었던 다락방으로 자러 올라갈 때, 비디에게 툴툴거리는 심정에서, 그 날의 장례식행사와 교회 부속 묘지에서의 안장(시신을 땅에 묻음)과 일치시킬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이나 위엄 있게 “그만 자러 갈게”라고 비디에게 말했다.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할 때마다, 그건 한 시간에 4번씩이나 있었다, 난 되씹어보았다.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그녀가 얼마나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는지를, 그녀가 얼마나 부당하게 나를 평가했었는지를.’

아침 일찍 나는 떠날 예정이었다. 아침 일찍 나왔다. 그리고 대장간의 목재 창문들 중 하나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곳에서 조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얼굴 위에서 백열하듯 달아오른 건강과 힘으로 그는 벌써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빛나는 생명의 태양이 그의 얼굴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하고 있었다.

“잘 있으세요, 친애하는 조(55세, 주인공의 매형이름)! 아뇨, 닦아내지 마세요. 제발, 불에 그슬린 그 손을 제게 주세요. 곧 그리고 자주 내려올 거예요,”

“너무 금방은 오지 마십시오, 나리.” 조(주인공의 매형, 착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조는 주인공에게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가며 합니다. 물론 영어에선 높임말이 없다지만-\_-;; 높임말 느낌~ 반말 느낌~은 있겠죠. 없나????)가 말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오지도 말거라, 핍(20 세, 주인공 이름)!”

비디(23세, 여자이름. 주인공과 사귈 수 있었는데 주인공이 런던으로 신사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인연이 되지 못한 사이)가 부엌문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웃집에 들러 갓 짜온 신선한 우유 한 잔과 빵 껍질이 들려 있었다.

“비디.” 내가 작별의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난 화난 게 아니라 맘을 다쳤을 뿐이야.”

“안 돼, 상처입지 마.” 그녀가 가여우리만큼 애원하며 말했다. “내가 너그럽지 못했다면(옹졸했다면) 상처는 나만 받아야지.”

내가 마을을 떠나는 동안 다시 한 번 그때 그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 었다.(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신사교육을 받기 위해 떠 나던 날 안개가 피어올랐었습니다.)

만약 안개들이 나에게 폭로했더라면, 지금 피어나고 있는 안개가 실은 그러한 목적이었음을 내가 알아챘더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비디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나는 다만 “안개들도 또한 전적으로 옳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위대한 유산**

**36장**

허버트(21세, 주인공의 친구)와 나(20세, 주인공)는 이때쯤 정말이지 끝장을 보고 있었다(허버트와 나는 더욱 나빠졌다). 부채(빚)가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문제들(부채들)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본다는 측면에서도 그랬고, 그 놈의 여유두기(부채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꼼수두기)를 고수했다는 측면에서도 그랬다. 그 외 그와 같은 부류에 드는 일반적인 상거래들에 있어서도 정말이지 끝장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든, 우리들도 어쩔 수 없게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어느덧 성년이 되었다(‘영국 성년 나이’=’유산상속받기 가능한 나이’=’21세부터’).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도 전에 넌 성인이 돼 있을 거야”라는, 허버트의 예언을 적중시키며 말이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1세)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나보다 8개월 먼저 성년이 되었었다.

성년이 된 것 말고는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 그 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성년의 나이가 된 것이 바너드 여관(= 허버트 집 = 런던시내서쪽 = 주인공도 이따금씩 같이 거주함)에서 깊은 감동이 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내 21번째 생일을 많은 추론들과 기대들을 하면서 학 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 = 주인공에게 유산을 물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인공의 법률담당 후견인임. 주인공이 성년이 아니라서 후견인 필요했음)이 그런 경우 명확한 어떤 말(유산상속 확답)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생일이 언제인지를 ‘리틀 브리튼’(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 이름, 재거스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음)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했었다.

내 생일 하루 전날, 나는 웨믹(변호사사무실 서기)으로부터 공식적인 서류 한 통을 받았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 그 복되고 좋은 날 오후 5시에 귀하께서 재거스 씨를 방문해 주신다면 재거스 씨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우리(엄청난 빚에 쪼들리고 있던 ‘주인공과 허버트’) 는 ‘어마어마한 어떤 일이 있을 예정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내가 시간엄수의 본보기인 마냥 정확히 오후 5시에 내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을 때 내 심장을 유달리 “콩닥콩닥” 뛰게 만들었다.

변호사사무실 대기실에서, 웨믹은 나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그리고 ‘티슈 페이퍼(투명하고 얇은 종이)’를 한 번 접더니 자신의 코 옆에다가 비볐다. 나는 그 ‘티슈 페이퍼(종이)’의 모양새가 참 좋았다.

하지만 그는 이 행동에 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내가 변호사님의 집무실로 들어가도 좋다는 승낙의 고개 끄덕임을 한 번 지 어보였다.

때는 어느덧 11월이었다. ‘벽난로 위 선반’에 등을 기댄 채 그(재거스 변호사)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두 손은 이미 ‘웃옷’의 뒷 자락 깊숙이 박힌 지 오래였다.

“그래, 핍(21세, 주인공이름).” 재거스 변호사(48세)가 말했다. “아니지, 오늘부터는 핍 씨라 불러야 되겠군. 어쨌든 축하하네, 핍 씨.”

우리는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언제나 눈에 띌 만큼 짧은 시간동안만 악수를 했다.

나도 그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가 예의 그 삐딱한 자세를 취했다. 자신의 부츠(목이 긴 신발)를 향해 고개를 구부린 것이다.

나는 불리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예전에 도망 나온 죄수에 의해 묘지석 위에서 반강제로 물구나무를 서 졌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흉측하게 생긴 두 개의 주물(쇳물을 녹여 만든 사람얼굴모양의 주물)은 그와 멀지않은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두상의 표정이 마치 어느 아둔한 ‘뇌졸 증’(중풍) 환자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럼, 젊은 친구.” 마치 내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증인인 마냥 내 후견인이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네에게 한 두 마디 정도 잔소리를 좀 할까 하는데.”

“기꺼이 들려주십시오, 선생님.”

“자네가 생각하기에.”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바닥을 본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 천정을 살폈다. “그래 자네는 지금 자네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의 생활비라니요, 선생님?”

“어느 정도,” 여전히 천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재거스 씨가 다시 말했다. “어느 정도의 생활비로 말일세.”

그러더니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자기 손에 쥐어져 있던 손수건을 코 쪽으로 절반 정도 가져가다가 행동을 멈추었다.

나는 툭하면 내 문제들(부채들)을 들여다보았었고, 그래서 난 그 부채들의 영향들에 대해 언젠가 가졌을지도 모를 어떤 사소한 생각마저 완전히 망각한지 오래였다.

마지못해, 난 그 질문에 전혀 답변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이런 내 태도가 재거스 씨에게도 먹힌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네!”

그러더니 만족해서는 코를 세게 풀었다.

“자, 내가 자네에게 질문을 하나 한 것이네, 내 친구.”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래 내게 물어볼 게 있겠지?”

“물론 제가 선생님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면 제겐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의 금지사항(누가 상속을 주려는 건지 묻지 말 것)도 기억하고 있는 걸요.”

“하나만 묻게.” 재거스 씨가 말했다.

“제 은인이 누구인지 오늘 알 수 있을까요?(오늘 알게 될 예정입니까?)”

“아니. 자 다음 질문.”

“그 비밀이 곧 제게 전달될 예정입니까?”

“그 질문은 잠시 보류해두세.” 재거스 씨가 말했다. “자 다른 질문.”

나는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을 비껴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만 같았다.

“제가…무엇을…받나요, 선생님?”

이 질문에 대해 재거스 씨가 환희에 취해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지 알고 있었네!”라고 말하더니 “핍 씨에게 그 서류(변호사 사무실의 현금 출납부) 한 장을 가져다주게.”라며 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 현금출 납도 담당하는 서기)에게 소리쳤다.

웨믹이 손에 그것(현금 출납부)을 들고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졌다.

“자, 핍 씨.” 재거스 씨가 말했다. “부디 주의해서 듣게. 자네는 여 기에(주인공이 마구 서명하고 돌아다닌 수표들)다가 아주 자유롭게 서명을 하고 다녔더군.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의 현금 출납부에 자 네의 이름이 꽤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니까 말이네. 하지만 모두다 부채더군, 당연하겠지?”

“제가 ‘예스’라고 말씀드리기조차 민망 하군요, 선생님.”

“자네는 ‘예스’라고 답해야 한다는 걸 알 텐데. 안 그런가?” 재거스 씨가 말했다.

“‘예스’입니다, 선생님.”

“(재거스 변호사의 대사임→) 자네가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는 따로 또 묻지 않겠네, 어차피 자네도 알지 못할 테니까. 물론 자네가 안다해도 내겐 말하지 않을 테지. 아니면 더 적게 말하든가. 좋아, ‘예스’다 이거지. 내 친구.”

마지막 대목에서 재거스 씨는 큰 소리로 말했는데, 내가 그의 말(주인공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말)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흔들어서 나를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자넨 그러지(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아닐세, 자넨 그러게 되어 있네. 자넨 내게 변명을 하려고 드는군, 하지만 자네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자, 이 종이 한 장을 자네에게 건네주 겠네. 받았나? 아주 잘 됐군. 자, 그럼 펼쳐보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게.”

“이것은 2억 5천만 원짜리,” 내가 말했다. “은행 수표입니다.”

“맞네, 그것은 은행 수표네.” 재거스 씨가 내말을 반복했다. “2억 하

고도 5천만 원짜리지. 또한 아주 큰 금액이기도 하지, 내 생각엔 말일 세. 어때 자네도 동의하겠지?”

“달리 제가 뭐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 하지만 질문에 답하게.” 재거스 씨가 말했다. “틀림없이 큰 금액입니다.”

(아래 내용 전체가 재거스 변호사의 아주아주 긴 대사입니다.^^ 뭐니 이 긴 대사 -\_-;;)

“틀림없이, 자네는 그것이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하는군. 이제, 그 큰돈 모두가 자네 소유일세, 핍(주인공이름, 21세). 이것은 자네가 유산을 본격적으로 물려받기 전에 자네에게 할당된 작은 선물이네. 그리고 매년 그와 똑같은 액수의 금액(2억 5천만 원의 수표)이 자네에게 지급될 것이며, 그것은 자네에게 유산 전체를 물려줄 기증자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매년 생활비로 2억 5 천만 원 이상은 곤란하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자네 생활비와 관련된 일체의 제반사항을 자네가 직접 처리해야할 것이며, 자네가 직접 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 사무실의 출납도 같이 담당)에게 받아가야 할 것이네. 물론 자네가 타갈 금액은 매분기(3개월)마다 정확히 6천 2백 5십만 원일 것이고. 이도 또한 자네가 그 돈의 근원(기증자)과 직접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네 (기증자에게 용돈 올려달라고 직접 협상을 할 때까지). 그럼 그땐 더이상 한낱 에이전트(대리인)는 필요치 않을 테니까.

내가 전에 자네에게 들려준 얘기 기억하는가? 잘 듣게, 난 이 일에 있어서 한낱 에이전트에 지나지 않네. 난 지시사항을 이행할 뿐이며, 그 하나하나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네. 나는 내가 받은 지시사 항들이 자네의 상황(돈을 물써듯이 쓰는 나쁜 행동)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어쨌든 내가 그런 지시사항들의 가 치에 대해 언급할 권한까지 지급받은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재거스 씨의 아주 긴 대사였습니다. 단락은 임의로 3번 나누었지만 원문에는 그냥 긴 하나의 단락입니다o^^o)

내가 막 ‘저에게 지급되는 이런 관대함과 공평무사함에 대해 제 은인에게 제가 감사하더란 말을 전해줄 수 있나요?’하는 식의 말을 꺼내 려고 하자,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이름)가 나를 제지하며 말했다. “자네의 말을 어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난 지급받지 않았네.”

그러더니 그 주제를 요약했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코트 뒷자락을 확 걷어 올리더니, 마치 자신의 부츠(목이 긴 구두)가 자신을 음해할 계략을 꾸몄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마냥, 자신의 부츠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넌지시 알려주었다.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재거스 씨. 당신이 제게 잠시 보류해보자며 말씀하셨던 그거요. 그 질문을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생판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무슨 질문?” 그가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절대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야했는데(몰랐다는 의미임). 하지만 내가 전혀 새로운 질문을 꺼내는 양, 대화의 뒤로 돌아가 그 질문을 새로이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음, 할 가능성이….” 내가 사뭇 머뭇거린 후 말했다. “제 후원자께서, 그러니까 재거스 씨께서 언급하신 그 근원(돈의 근원)께서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후원자께서 곧….”

“곧 뭔가?” 재거스 씨가 물었다. “현재 상태 그대로는 절대 질문이 안 되네, 알잖은가.”

“곧 런던으로 오십니까?” 나는 정확한 단어들의 형식을 생각해 내려고 애쓴 후 말했다. “아님 어떤 다른 곳으로 저를 부르실 생각이신 지?”

“자, 이 시점에서,” 재거스 씨(변호사)의 어둡고 움푹한 눈이 나에게 한 차례 고정되더니 그가 대꾸했다. “우리는 예전에 자네 마을에서 우리가 서로 처음 마주쳤던 그 날 저녁(재거스 씨가 주인공을 찾아와서 ”저 애는 이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소.“라며 알려주던 날)으로 되돌아가야하네. 그래 내가 그때 자네에게 무어라 얘기했었나, 핍(주인공이름)?”

“재거스 씨, 그 후원자가 나타나려면 향후 수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제게 말했었습니다.”

“그대로네.”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게 내 대답이네.”

우리가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는 동안, 나는 그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고 말겠다는 강한 욕망에서 내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음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내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있음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어떤 정보라도 끄집어 낼 가능성이 그 언제보다 더 적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향후 수년은 더 걸릴 거라고요, 재거스 씨?”

재거스 씨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내 방금 질문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가 질문에 답하게끔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내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의미에서의 고개 짓이었다.

그리고 내 시선이 그것들(얼굴 주물들)에 가 멈추었을 때, 누가 얼굴 한쪽을 홱 잡아당긴 것 같은 ‘그 2개의 흉측한 얼굴 주물’(쇳물을 녹여 만든 사람얼굴모양의 주물)들은 일시 정지되었던 자신들의 주의력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마냥 막 재채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자(진정하게)!”

재거스 씨가 데워진 자신의 두 손등으로 다리 뒷부분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말했다.

“이제 확실히 말해야겠군. 내 친구 핍(핍은 주인공 이름). 그것은 나에게 요구해선 안 되는 질문이었네. 어떤가, 그 질문이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내가 자네에게 말해준다면 자네가 그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걸세. 그럼! 자네와 좀 더 멀리 가 볼까. 내가 좀 더 들려주겠네.”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 재거스 씨가 자세를 바로 잡으며 말했다. “자네와 그 사람은 자신들만의 일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네.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일에서의 내 역할도 종지부를 짓게 될 것이네.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것도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질 걸세.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꼭 들려 주고 싶은 전부이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가 시선을 거둘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에 잠겨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나는 미스 해비샴(‘주인공 마을’ 인근 ‘읍내 외곽’에 사는 최고의 갑부)이 어떤 이유에선가 아니면 전혀 이유가 없어서인가 간에 그녀(미스 해비샴)가 나를 에스텔라와 이어줄려는 계획에 관해서 속마음을 그(재거스 씨)에게 얘기하지 않았음을 유추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것이 재거스 씨를 화나게 했고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면 그가 그녀의 계획에 관해 정말로 반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일에 그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다. 내가 다시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가 줄곧 나를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만약 그것이 제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전부라면요, 선생님.” 내가 발언했다. “저도 더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런던 도둑들이 모두 무 서워한다는 시계를 꺼내들었다.(도둑들이 훔치고 싶어 하는 비싼 시계지만 유명한 변호사인 재거스 씨에게 걸려 교도소에 오래 갇혀 있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 그가 내게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내 방에서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21세)와 먹을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대화의 연속으로써, 그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호의를 베풀어줄 수 있는지를 내가 그에게 물었고, 그는 즉시 내 초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주장했다. “자네와 함께 걸어가겠네.”

이것은 내가 그를 위해 어떤 과도한 준비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 도에서였다.

그는 우선 쓸 편지가 하나 혹은 둘 있었다. 그리고 씻어야할 손들도 있었다.(재거스 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누구를 만나 얘기를 나눈 후에는 향기나는 비누로 꼭 손과 목 얼굴을 씻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변호사사무실의 대기실)로 나가 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 현금출납도 같이 담당함. 주인공이 변호사사무실에 들러 돈을 타갈 때 만나는 사람임)과 얘기를 나누고 있겠습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다.

사실, 2억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내 머리 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건 내가 이전부터 자주 생각해오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생각에 대해 조언을 구할만한 착한 사람으로서 웨 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만한 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웨믹은 벌써 금고(웨믹이 보관하는 조그마한 금고)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퇴근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나 ‘기름기가 도는’ 2개의 ‘사무실 촛대들’을 꺼내 문 가까이에 있는 두꺼운 널빤지 위에 있던 양초 심지 절단용 가위와 일렬로 세워놓은 상태였다. 그는 그렇게 촛불을 끌 준비를 마쳤다.

그는 벽난로에 갈퀴질을 해 불 길을 낮추어놓은 후 자신의 모자와 거대한 외투를 꺼내 입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자신의 금고 열쇠를 가지고 외투 가슴 부위 곳곳을 두들겨 펴고 있었다(열쇠로 외투를 펴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근무 종료 후에 하는 운동의 일환이었다(운동선수의 운동이었다).

“웨믹(43세) 씨.”(부연설명 → 디킨스가 쓴 웨믹의 얼굴묘사 : 「함께 걸으며 나(주인공)는 웨믹 씨에게 눈을 돌려 그가 햇볕 아래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살펴보았다. 나는 곧 그가 좀 딱딱한 사람이고 키가 다소 작은 편이고, 사각형 턱에, 가장자리를 무딘 정(돌 깎는 도구)으로 뭉갠 것 같은 얼굴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 용은 21장 참조)

내(주인공, 21세)가 말했다.

“조언을 구할 게 좀 있는데요. 제 친구(이름이 ‘허버트’)를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의 우체통 같은 입이 굳게 닫혔다. 그리곤 그가 고개를 저었다. 마치 “자신이 아주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사족을 못 쓰는 약점에 대해 내 의견을 묻는다면, 내 대답은 하나올시다. 둘 다 끝장난다는 것이 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이 친구는,” 내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 친구는 상업계에서 출세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자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해 언제나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가 어쨌든 시작이나 좀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요.”

“현금으로요?” 웨믹이 말했다. 그 말투는 세상 어느 톱밥보다도 더 건조했다.

“약간의 현금으로요.” 내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집에 반듯하게 접어 꼬리표를 붙인 후 대칭적으로 묶어놓은 계산서 한 보따리가 뇌리를 스 쳐지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거북하고 불안한 떠올림이었지만.

내가 계속 말했다.

“약간의 현금으로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을 약간 보증으로 해서라 도요.”

“핍 씨(핍은 주인공 이름).” 웨믹(43세, 변호사사무소 서기)이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제 손가락들을 가지고 첼시유역에 잔뜩 쌓아 올려져있는 각양각색 다리들의 이름들을 재빨리 훑어볼까요. 어디 봅시다, 첫째 런던 다리, 둘째 서더크(템즈강 남쪽) 다리, 셋째 블 랙프라이어스(‘도미니크 수도회’라는 뜻임) 다리. 넷째 워털루(영국이 이긴 전쟁이름) 다리, 다섯째 웨스트민스터(의사당 있는 곳) 다리, 여섯째 복스홀(????) 다리까지.”

그는 자신의 금고열쇠 손잡이를 손바닥 위에 얹어놓은 채, 각각의 다리를 차례차례 체크했다.

“보십시오, 고를 수 있는 다리가 여섯 개나 된답니다.”

“뭔 소리신지 모르겠는걸요.” 내가 말했다.

“어디 한 번 당신의 다리를 선택해보세요, 핍 씨.” 웨믹이 되물었다. “어서요, 당신이 고른 다리 위에서 산책해보세요. 당신이 고른 다리의 중심 아치 너머로, 템스 강에 당신의 돈을 던져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당신의 돈은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친구를 도와 줘보세요. 그럼 그 돈도 역시 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 으로 친구를 도와준 경우가 덜 즐겁고 덜 유익한 끝이지요.”

그는 이 말을 한 후 자신의 입을 아주 넓게 벌렸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그의 입 속으로 신문지 한 장을 다 넣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기소침하게 하는 발언이시네요.” 내가 말했다.

“의기소침 좀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웨믹이 말했다.

“그럼 그게 웨믹 씨의 의견이신가요.” 내가 아주 살짝 발끈해서 물었다. “그럼 절대 주어서는….”

“…친구에게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을 투자해서는 안 되냐고요?(‘휴대할 수 있는 재산’이란 말은 웨믹이 즐겨 사용하는 말임)” 웨믹이 말했다. “암 그렇고말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친구와 절교하고 싶으시다면 모를까요. 그 뒤에는 친구와 절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지가 또 다른 질문이 되겠지만,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이란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내(21세, 주인공)가 말했다. “웨믹 씨의 복잡 미묘하신 (신중한) 답변이신가요?”

“그게 바로,” 그(43세, 이름이 ‘웨믹’)가 대답했다. “그게 바로 제 신중한 소견입니다. 적어도 이 사무실에선 말이죠.”

“앗!” 내가 그의 손을 꼬옥~ 잡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가 막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다. “그럼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런던 한 복판임, 웨믹의 집)에서의 당신의 소견도 그와 같을까요?”

“핍 씨(주인공의 이름이 ‘핍’임).” 그가 응답했다. 아주 엄숙한 태도로 말이다. “월워스(웨믹의 집)와 이 사무실은 별개의 장소입니다. 저의 ‘연로하신 아버님’과 재거스 씨가 전혀 다른 존재이듯이 말입니다. 그 둘을 합쳐서 어리둥절해 해서는 안 됩니다. 월워스(웨믹의 집)에서의 제 감정들은 월워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실에서는 단지 제 공무상의(공식의) 감정들 외에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 동의한다는 뜻으로) 좋습니다.” 내가 한층 고무되어 말했다. “그럼 월워스(웨믹의 집)로 제가 언제 한 번 찾아뵈어야겠군요. 정말이에요, 꼭 찾아뵙도록 할게요.”

“핍 씨(‘핍’은 주인공 이름”).” 그가 응대했다. “그곳에서 당신은 언제든 환영받으실 겁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자격이시라 면요.”

우리는 소곤소곤 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었다. 우린 내 후견인(48세, 재거스 변호사)의 귀가 예리하기론 세계 최강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재거스 변호사)가 이제 집무실 출입문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물론 타워로 두 손을 닦으며 말이다. 어쨌든 재거스 씨가 모습을 드러 냈기 때문에, 웨믹(43세,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은 자신의 거대한 외투를 차려 입고 사무실 촛불들을 끄기 위해 준비했다.

우리 세 사람은 다 함께 거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건물 현관 앞에서 웨믹은 자기 집 쪽으로 몸을 틀었고, 나와 재거스 씨는 우리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그 날 저녁 ‘제라드 거리’(재거스 씨의 집. 런던 중앙임)에도 재거스 씨의 이맛살을 약간은 펴줄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것이, 아니면 대포(웨믹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대포)가, 아니면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면 좋겠다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희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번째 생일날(성년이 되었음)에 재거스 씨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심스럽고 의심 많은 세상 속에서 성년이 된 것이 전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은 고찰(깊은 살핌)이었다.

재거스 씨(48세, 변호사)는 웨믹(43세, 서기)보다 천(1000)배는 더 박식했고 천 배는 더 똑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보다는 오히려 웨믹과 천 배는 더 식사를 같이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재거스 씨는 단지 나만 밑도 끝도 없는 울적함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다.

재거스 씨가 돌아간 후,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벽난로의 불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렀음이 분명해. 그리곤 그 자세한 내막을 잊었었음도 분명하고.”

그는 아주 풀이 죽은 채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위대한 유산**

**37장**

월워스(웨믹의 집. 런던 도심지역. 정확히 런던 한 복판)에 들러 웨믹 씨에게서 의견을 듣기에 가장 좋은 날이 일요일이라고 간주한 나는,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를 웨믹(43세, 서기)의 성(집)으로 순례여행 하는 데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흉벽(집의 벽)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유니언 잭(영국국기 이름)’이 팔랑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건너갈 수 있는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도 올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런 대담한 반항과 앙칼짐에의 표시에도 저지되지 않은 나는 출입구에 있는 벨을 눌렸다. 그리고 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최대한의 평화로운 매너로 나를 안으로 맞으셨다.

“선생님, 제 아들놈은요,” 연로하신 그의 아버님(귀가 아주 많이 안 들리심)은 도개교를 다시 잡아매신 후 말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한 번 들리실 것 같다고 녀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산책이 끝 나는 대로 집으로 바로 올게요.’라는 말을 남겨놓았었죠. 제 아들놈은 언제나 그 시간이면 산책을 나가거든요, 제 아들 녀석이죠. 매사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사는, 어김없는 제 아들 녀석이죠.”

나는 노인장(웨믹의 아버지. 귀가 아주 많이 안 들리심)에게 고개를 끄떡여주었다. 웨믹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버님에게 끄떡여드렸을 만큼 나도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노인장과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선생님(주인공)께서 제 아들 녀석을 알게 된 게,” 노인장께서는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불꽃을 향해 자신의 두 손을 내밀어 쪼이면서 말했다. “녀석의 사무실에서겠지요, 제 생각이?”

내가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아하! 제 아들 녀석이 이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한 일꾼이 라죠. 선생님?”

내가 부지런히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그럼요, 사람들이 제게 들려준걸요. 녀석이 활동하고 있는 직종이 법조계라면서요?”

내가 아까보다 더 부지런히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그 사실이 더 놀랐습죠, 제 아들 녀석의 경우엔 말입니다.”라고 노인장이 말했다. “왜냐하면 녀석은 법 같은 것을 배우며 자란 것이 아니거든요, 실은 포도주 통 제조업을 배우며 자랐습죠.”

나는 그 노인장이 재거스 씨(런던의 유명한 변호사)의 명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 재거스 씨의 이름을 고함쳐 불러드렸다.

그가 갑자기 아주 활달한 태도로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기 때문에 난 잠시 큰 공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가 말했다.

“아니,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나는 그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크(농담)를 했었다고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었는지 아주 희미하게 로라도 생각해낼 수가 없다.

그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채, 노인장께 끊임 없이 고개만 끄떡인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순 없었기 때문에, 난 큰 소리로 외치며 노인장 자신의 예전 직업도 또한 ‘포도주 통 제조업자’이셨는지 어떤지를 여쭈어봤더랬다.

‘포도주 통 제조업자’라는 용어를 그에게 설명해드리려고 내가 몇 번이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 용어와 노인장 자신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인장의 가슴 부위를 톡톡 두들겨드린 덕분에, 난 최종적으로 그 노 인장과 그럭저럭 의사소통을 하는 데 성공했다.

“아니요.” 노인장이 말했다. “창고를 관리했습죠, 창고 말입니다. 저기 너머에 있는 창고 말입니다.”

굴뚝 위쪽을 의미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리버풀(영국 항구도시. ‘런던에서 리버풀’까지의 거리는 대략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임)을 가리키시려고 하신 것 같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그 다음엔 런던 시티(런던타워 근처)에 있었습죠. 여기 이곳 말입니다. 하지만 병을 얻는 바람에… 귀가요 귀가 거의 먹다시피 했거든요, 선생님….”

“(몸짓과 입모양만으로) 정말 놀랬어요, 어르신.”라고 나는 무언극의 배우처럼 말했다.

“그럽죠. 귀가 먹었습죠. 귀가. 우연히 귓병을 앓는 바람에…, 제 아들 녀석이 법조계에 들어가게 되었습죠. 저를 책임져야했었거든요. 녀석은 조금씩, 조금씩 일구어나갔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말입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 가자면, 아실 테지만,”

또 다시 진심에서 우러나오신 웃음을 지으시곤 노인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무어라 설명드릴 도리가 없지만 서도, 분명, 분명히 선생님이 옳으 십니다요.”

나는 삼가 불가사의하게 여기고 있었다. 내가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 휘한다면, 지금 이 노인장을 흥겹게 하고 있는 그 ‘허의(상상)의 농담’의 반만큼이라도 내가 그를 흥겹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고안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때 굴뚝의 한쪽 벽 속에서 갑자기 “찰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위에 “존”이라고 적힌 작은 나무뚜껑이 유령같이 텀블링(재주넘기)을 하며 열리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시선을 쫓던 노인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다.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소!”

그리곤 우리 둘 모두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까지 나아갔다. (‘디킨스가 묘사한’ 웨믹의 집으로 갈 때 건너야하는 ‘도개교의 모습은?’

→ 「 그가 말한 다리는 두꺼운 판자 한 짝이었다. 그것은 폭이 대략 1.2미터 깊이가 대략 0.6미터쯤 되어 보이는, 땅 속 ‘틈’을 가로지르며 놓여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25장 #13’을 참조바람)

조금만 기다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악수를 나눌 수 있었을 때, 해자(주위를 둘러서 판 못. 웨믹의 집의 경우엔 「 폭이 대략 1.2미터 깊이가 대략 0.6미터 」 임)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손 인사를 저어보이는 웨믹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금전적인 가치보다도 내게 가치 있었다.

도개교(들어 올리는 다리. 사실은 두꺼운 판단 한 짝임)를 들어 올리는 끈을 잡아 내리며 노인장은 너무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차마 내가 도와드리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웨믹이 해자(못)를 건너와 내게 스키핀스 양(미스)을 소개해주었을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다. 스키핀스 양은 웨믹이 동반하고 온 숙녀였다.

스키핀스 양의 겉모습은 이런 말하면 실례지만 나무로 만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있는 연인처럼 그녀도 우체통 입구 같은 입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웨믹보다 대략 두세 살이 더 어렸을지도 모른다(모르겠다는 말투죠-\_-;; 굳이 이따위로 표현한 디킨스의 의도가 뭘까요? 에스텔라를 더 예쁘게 보이려고???? 역시-\_-;; 위대한 소설가든 평범한 사람이든 생각하는 게 똑같군-\_-;; 그 나물에 그 밥~,~).

내가 보건대 그녀는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의 특징을 지니고 서 있었다.

허리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리고 앞과 뒷면 모두,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상의가 그녀의 몸매를 흡사 소년의 연(하늘을 나는 연) 같이 보이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마터면 “그녀의 가운이 좀 너무 튀는 오렌지색 아니에요?” 혹은 “그녀의 장갑이 좀 너무 강렬한 초록색 아니에요?”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을 깍듯이 예우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녀가 이 성(웨믹의 집)을 자주 방문함을 눈치 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왜냐하면(이유는 나중에 나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웨믹에게 그가 이 독창성이 풍부한 장치를 고안해 아버지가 아실 수 있도록 한 것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자, 그가 내게 “그럼 굴뚝 다른 쪽 면에도 살짝 주의를 기울어주실래요?”라며 신신당부하곤 사라지더니 이내 곧 또 다른 “찰칵”하는 소리를 내며 “스키핀스 양”이라고 적혀 있는 작은 나무뚜껑이 텀블링(재주넘기)을 하며 문이 열렸다. 그런 다음엔 “스키핀스 양”의 문이 닫히고 존(웨믹)의 문이 텀블링을 하며 열렸고, 그런 다음엔 스키핀스 양의 문과 존의 문이 함 께 텀블링을 하며 열렸다. 마지막에는 다함께 문이 닫혔다.

이런 기계적인 장치를 시연해 보인 후 웨믹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내가 그 장치들에 얼마나 크게 감탄하며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표현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이거 참, 눈치 채셨겠지만 저게 연로하신 아버님에겐 유용하거든요. 아버님이 즐거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핍 씨,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문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저 손잡이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 아버님과, 스키핀스 양, 그리고 저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웨믹 씨가 저걸 만드셨죠.” 스키핀스 양이 거들었다. “자기 머리로 꾸며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스키핀스 양이 보닛(끈을 턱밑으로 묶는 모자. 아기 모자같이 생긴 모자)을 벗는 동안, 그녀는 초록색 장갑을 저녁 내내 끼고 있었는데 그 것은 집(웨믹의 집)에 손님(주인공)이 있다는 외적인 신호이자 가시적 인 표시였다.

어쨌든 그녀가 보닛(여자모자)을 벗는 동안, 웨믹은 나를 이끌고 집과 정원을 빙 돌며 산보에 나섰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겨울철이면 이 섬(집 주위로 빙 못을 판 웨믹의 집)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내 생각에 이 산보는 그가 내게 ‘월워스(웨믹의 집 주변 지역)에서의 조언’을 구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이라 여겨졌고, 그래서 난 성(집)을 벗어나자마자 그 기회를 와락 붙잡았다.

신중히 그 문제(허버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는 것)에 대해 생각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난 마치 내가 이전에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기색(기미)을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 주제(친구와 돈)로 들어섰다.

나는 우선 내가 ‘허버트 포킷’(주인공의 절친. 주인공과 허버트 모두 21세임)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앞 뒤 상황설명을 웨믹 씨에게 했다. 그리고 내가 허버트와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내가 허버트와 어릴 적에 한 여자애를 놓고 어떻게 싸웠는지 하는 자초지종도 웨믹에게 설명해주었다.

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의 집안 사정과 허버트의 성격(주인공이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안 받을 거라는 성격)에 관해서도 대강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의지해 받고 있는 수입 외에는 어떤 다른 수입도 그는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아버지에게서 의지해 받고 있는 그 수입이란 것도 실은 불확실하고 제때 들어오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내 고향집을 떠나 이 낮선 런던으로 들어와 미숙하고 무지했던 내 초기 런던생활에 있어서 내가 허버트에게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넌지시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움들에 대해 난 그저 그를 나쁜 길 (돈을 흥청망청 막 쓰기)로 인도했을 뿐이며 아마도 나와 내 막대한 유산만 없었더라도 녀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

미스 해비샴(‘주인공의 고향마을’ ‘인근 읍내’의 어마어마한 갑부)을 전면에 내세우며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또한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앞날을 놓고 내가 그와 경쟁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넌지시 암시했다. 그리고 허버트가 ‘야비함, 불신, 앙갚음, 계략(계획)’과는 아주 동떨어진 관대한 영혼을 키워왔음이 확실하다는 것도 나는 또한 웨믹에게 넌지시 암시했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내 어린 시절의 동료이자 친구이며 내가 녀석(허버트) 에게 큰 애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내 소유의 행운이 녀석에게도 약간의 빛줄기로 작용하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의 처리에 관해 내가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웨믹 씨의 경험과 지식들에 의지해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어떻게 하면 제 자금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 허버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녀석에게 현존하는 수입이 약간이라도 있어야될 텐데? 제 생각으론 1년에 5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년 수입이면 녀석이 희망을 가지고 명량하게 자신의 일에 매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녀석을 돈으로 굴려서 나중엔 어떤 자그마한 사업의 동업자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끝으로 나는 “녀석이 알아채거나 의심하는 일 없이 제 도움이 녀석에게 작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웨믹 씨 밖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라며 웨믹 씨에게 간청했다.

나는 내 손을 웨믹 씨의 어깨 위에 얹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었다.

“이번 부탁이 웨믹 씨를 곤란하게 하는 일임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웨믹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걸요. 따지고 보면 이건 모두 웨믹 씨 탓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절 이곳(집)으로 데리고 오셨었잖아요. 넷!”

웨믹이 잠깐 동안 침묵했다. 그런 다음 흠칫 놀란 듯이 말했다. “이거 참, 핍 씨(‘핍’은 주인공이름), 잘 아실 테지만, 당신에게 이

한가지만은 꼭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몹시도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웨믹 씨가 저를 도와주실 거

라고 말씀해주세요. 넷?”라고 내가 말했다.

“저런,” 웨믹이 고개를 한 번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제 분야가 아닌걸요.”

“이곳(웨믹 씨의 정원)도 또한 근무하시는 장소는 아니시죠.”라고 내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가 응답했다. “정곡을 찌르셨군요. 핍 씨(‘핍’은 주인 공이름), 차분히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해주고 싶어하는 일들 모두 서서히 진행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스키핀스 양의 친오빠가 공인 회계사이자 중개상(의뢰를 받아 상행위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거든요. 제가 그를 한 번 찾아가 그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요. 저 감동했어요(ㅜ\_ㅜ). 찬만 배 만 만 배나요.”

“그 반대죠.” 그가 말했다. “제가 더 고마운걸요. 엄밀히 말해 비록 저희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지위에 얽혀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게이트 감옥(런던의 유명한 옛날감옥, 1902에 폐쇄됨. 이 소설은 1861년에 쓰인 것임)의 거미집이 우리 주변에 쳐져 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말끔히 털어주셨잖습니까.”

동일한 취지로 좀 더 이야기를 진행시킨 후, 우린(주인공과 웨믹 씨) 성(웨믹의 집) 안으로 돌아갔다.

집 안에선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이 티타임(차 마시기)을 준비하고 있었다.

토스트(구운 식빵)를 굽는 일은 노인장에게 위임된 상태였다. 이 탁월한 노인장께선 어찌나 토스트 굽기에 열심이신지 나는 순간 ‘저러다 두 눈이 열에 녹아내리시는 건 아냐?’라는 의심까지 품었을 정도였다.

우리가 차리고 있었던 것은 이름뿐인 식사가 아니었다. 아주 격렬한 실제 상황이었다.

노인장께서는 ‘버터 바른 토스트’를 마치 건초더미 마냥 준비하셨다. 어찌나 많든지 그 ‘버터 바른 토스트’가 ‘부엌 맨 위’ 막대기 위에 ‘갈고리처럼 걸린’ 쇠 받침대 위로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버터 바른 토스트’ 너머로 노인장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 였다.

한편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도 아주 큰 잔에 차를 팔팔 끊이고 있었기 때문에, 집 뒤 우리에 있던 돼지까지 차 냄새에 강하게 흥분해 이 즐거움 속에 자신도 참석하려는 욕망을 “꿀꿀”거리며 되풀이해 표시했을 정도였다.

마땅한 시각에 ‘유니언 잭(영국국기 이름)’은 지붕 위에서 내려졌고 대포도 발사되었다.

나는 느껴졌다. 마치 내가 9미터 폭과 9미터 깊이의 해자(건물 주변을 빙 둘러가며 판 못) 안에 있고 월워스(웨믹의 집이 있는 동네이름)의 나머지 지역들로부터 포근하게 차단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다.

성(웨믹의 집)의 고요함을 깨는 어떤 방해도 없었다. 이따금씩 ‘존 등장’ 그리고 ‘스키핀스 양 등장’이라고 쓰인 작은 나무뚜껑이 텀블링(공중 재주넘기)을 하며 열리는 것만 빼면 말이다.

이 작은 문들은 어떤 경련성 질환의 희생자들인 것만 같았다. 그 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나는 동정심이 일어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이 상을 차리는 방식이 체계적인 것을 보고 그녀가 매주 일요일 밤마다 여기에 들러 차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클래식한(고전적인) 브로치(옷에 다는 장식 핀)은 웨믹이 그녀에게 준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의 하나임을 살짝 의심해볼 수도 있었다.

그 브로치는, 콧날이 아주 바로 서 있는 범죄자 같이 생긴 “여인의 옆얼굴”과 “영락없는 초승달”을 형상화한 브로치였다.

우리는 토스트(구운 빵)를 모두 먹었다. 그리고 사람 수대로 나눈 차들도 모두 마셨다.

식사를 마친 후 너무도 기름투성이가 되어 마음이 훈훈해진 서로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몹시 유쾌한 일이었다. 나는 특히 노인장을 이제 막 술에 취한 어떤 야만족의 깔끔한 늙은 추장으로 오인할 뻔했을 정 도니까.

식사 차리는 것을 도와주던 어린 소녀가 매주 일요일 오후 때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때였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시간을 거친 후, 스키핀스 양이 차(마시는 차)도구들을 씻었다. 그녀는 우리들 중 어느 누구의 품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약간은 아마추어 같은 여성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들이 사용한 차도구들을 씻었다.

차(먹는 차) 도구를 모두 씻은 다음 그녀는 다시 장갑을 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벽난로 가에 둥글게 모여 앉았다.

웨믹이 말했다.

“자, 아버지, 저희들에게 팁으로 신문을 주셔야죠.(← 직역-\_-;; / 의 역 → 신문을 읽어주세요)”

노인장께서 안경을 꺼내 드시는 동안 웨믹이 내게 설명해주었다. “저희들 습관에 따른 것이지요. 신문기사를 큰 소리로 저희들에게

읽어주시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코믹하게) 사과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라며 웨믹이 말했다. “다른 즐거움을 누리실 여유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아버지를 바라 보며) 그러시죠, 아버…?”

“(신문 빨리 읽어달라는 소리인줄 알고, 아들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존(웨믹), 알았어.” 자신에게 말을 붙이는 것을 아시고 노인장께서 대답하셨다.

“이따금씩 아버지께서 신문에서 눈을 떼실 때마다 아버님께 고개를 끄떡여드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핍 씨.”라고 웨믹이 말했다. “그럼 아 버지께선 왕처럼 행복해하실거거든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희 모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버지.”

“그래 알았다, 존(웨믹), 알았어!”라며 쾌활해진 노인장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지금 너무 열심이셨고 또 너무도 만족해하시고 계셨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노인장의 낭독(신문기사 읽기)은 나로 하여금 웹슬 씨(당시 교회서기 지금은 연극배우)의 대고모(대고모 = ‘웹슬 씨의 아버지’의 고모)에서 받았었던 수업들이 기억나게 했다.

노인장의 낭독에는 열쇠 구멍을 통해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 좋은 특징이 있었다.

노인장은 양초들을 자신의 가까이에 놓아두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매번 머리로든 혹은 들고 있던 신문지로든 간에 양초와 부딪치기 일보직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약 공장을 지키듯 그를 지켜 보아야했다.

그러나 웨믹(노인장의 아들)도 또한 지치지 않고 조용히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노인장은 아주 여러 번이나 자신이 양초와 부딪칠 뻔한 위험을 넘겼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낭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노인장께서 고개를 들어 우리는 보실 때마다 우리 모두는 최대한의 관심과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의 낭독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고개를 끄떡여드렸다.

웨믹과 스키핀스 양이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늘이 진 구석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웨믹 씨의 입이 서서히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그가 스키핀스 양의 허리를 감싸 앉으려고 자신의 팔을 서서히 그러면서도 단계적으로 내 뻗고 있음을 강렬히 시사하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그의 손이 스키핀스 양의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스키핀스 양은 자신의 초록색 장갑으로 보기 좋게 그를 제지하고서는, 마치 그것이(손이) 드레스(드레스 한 점)인양 허리에 감겨 있던 그의 팔을 다시 풀어 매우 신중하게 그녀 앞에 놓인 탁자 위로 올려놓았다.

스키핀스 양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동안 보인 침착함은 내가 그때까지 본 가장 예사롭지 않은 광경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 행동이 시종일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가운데 나온 거라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그렇게 생각 안했다는 의미임), 나는 그녀가 순전히 기계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겼을 것이다(웨믹 씨의 그러한 손버릇이 늘 있는 일임을 곧 알게 되었다는 얘기임).

머지않아 나는 주목했다. 웨믹의 팔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이내 곧 그의 입이 또다시 헤 벌레해지기 시작했다.

아주 재미있고 거의 고통을 수반하는 지속적인 긴장감 사이의 휴식기가 내 쪽에서 지나간 다음, 나는 그의 손이 스키핀스 양의 반대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즉시 스키핀스 양이 솜씨 있고 쉽게 동요하지 않는 권투선수인 마냥 그의 손을 제지하더니, 전과 같이 그 ‘허리띠 또는 권투장갑(웨믹의 손)’을 벗어 도로 식탁위로 올려놓았다.

식탁이 미덕의 길로 향하는 통로를 대변한다면, 노인장의 낭독이 계 속되는 동안 웨믹의 팔은 그 미덕의 길에서 빗나가 있다가 스키핀스 양이 그 손을 도로 미덕의 길로 소환해준 것이라 말해도 정당했다.

마침내 노인장께서 가벼운 선잠이 드셨다. 이때를 이용해서 웨믹이 작은 주전자 하나와, 잔이 놓인 쟁반 하나와, 윗부분이 자기(도자기 할 때의 ‘자기’)로 된 코르크 마개가 달린 검은 병 하나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 술병에는, 술을 마셔서인지 혈색이 좋고 사교적인 용모를 지닌 어떤 성직 고위인사가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는 따뜻한 뭔가를 마셨다. 물론 노인장께서도 마셨다. 그가 금방 깨어나셨기 때문이다.

스키핀스 양이 그것을 섞었다. 그리고 그녀가 웨믹과 같은 잔으로 마시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물론 스키핀스 양을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나는 어리석진 않았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귀가해야한다는 사실 또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도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노인 장과 진심에서 우러난 작별인사를 나눈 후, 나는 이 기분 좋았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퇴장했다.

1주일이 다 가기도 전에, 나는 웨믹으로부터 메모 한 장을 받았다. 날짜 란에 월워스(웨믹이 사는 동네이름)라고 적힌 그 메모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와 연관된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께서 이 문제로 저를 다시 찾아와 만나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월워스(웨믹이 사는 동네이름)로 다시 한 번 찾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갔으며, 런던시티(금융가)에서도 몇 차례 약속을 잡고 그를 만났다.

하지만 ‘리틀 브리튼’(웨믹의 직장이 있는 거리이름. 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이름임)에서나 또는 그 근처에서는 그 주제에 관해 나는 웨믹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어느 젊고 훌륭한 상인내지는 선박중개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이 업계에 뛰어 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적인 도움과 자본 그리고 시간과 수익의 필연적인 결과로써 파트너도 한 명 구할 생각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와 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를 주체로 한 비밀 협정에 서명했다. 나는 그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계약금조로 그 자리에서 지불했고 다른 몇 가지의 지급 약속에도 서명해주었다. 어떤 지불 약속에는 지불 기일을 특정한 날짜로 잡아 내 수입에서 주기로 했으며, 또 어떤 지불 약속에서는 내가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지정된 금액을 분 담하는 것으로 체결했다.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의 친오빠(공인 회개사)가 이 교섭을 진행 했다.

웨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섭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여했다. 하지 만 교섭에 절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 전체 업무가 너무도 빈틈없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는 내 손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언젠가 오후에 집으로 귀가한 허버트가 대단한 한 건의 뉴스라며 “헤비급 뉴스가 있어, 헨델. 클래리커(남자이름. 소설 속 엑스트라임. 독자가 이름 알 필요 없음)란 어느 상인과 만났는 그가 글쎄 내게 어 마어마한 관심을 보이지 뭐니, 마침내 내 앞길에 광명이 비추어질 것 같아.”와 같이 말하면서 온 얼굴이 자체발광 빛나던 모습을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잊을 수 없으리라.

그의 희망이 나날이 현실이 되어갔고 그의 얼굴이 나날이 빛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갈수록 더 내가 애정이 넘치는 친구라고 생각했음일 틀림없다. 왜냐하면 녀석이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난 흘러내리는 환희의 눈물을 억제하고 있기가 가장 힘들었기 때문이다.

한참 있다가, 그 일이 마무리 되고, 그리고 그 날 허버트가 ‘클래리 커(사람이름)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그리고 기쁨과 성공감에 넘쳐 녀석이 온 저녁동안 내게 떠들어댔을 때, 내 유산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선의의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정말이지 진정으로 울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일대 대사건, 내 삶의 ‘터닝 포인트’(전환점)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와 뒤얽힌 모든 변화들로 옮겨가기 전에, 나는 하나의 장(38장 전체)을 에스텔라에게 할애해야한다(떼어주다).

그것은 내 심장을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주제에게 기부하기에 그리 많은 분량은 못 된다.

(여기까지가 37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38장에서 계속 됩니다.) (오호~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이야기군요. 좀 빨리 좀 나오지. 내 블로그구독자들은 다 구독취소한 지 오랜데. ㅜ\_ㅜ 디킨스 참 여러 가지로 애 먹이네. 하나의 단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만 자주 사용해 사람 골탕 먹이더니.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늦게야 끄집어내면…. 기다려줄 이웃이 어디에 있니~! 디킨스가 신문에 연재한 소설이라는데 당 시에도 관련된 사람들 좀 애먹였을 듯~ 어쨌든 38장으로 고고~)

**위대한 유산**

**38장**

내가 죽어 시체가 되었을 때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이름)’의 잔디밭 근처 그 고적하고 오 래된 집에 만약 유령이 전에 없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 내 영혼이 투영된 것일 게다.

에스텔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 많고 많은 밤과 낮 전부를 내 안에 있던 동요하는 영혼이 그 집을 괴롭혔던가!

내 영혼이 그 집 주변을 언제까지나 배회하게 되고 종잡지 못해 헤매듯 방랑하더라도 부디 거기가 내 몸이 머물 곳이니 내 몸을 거기에 있게 허락해주시길.

에스텔라가 함께 지내고 있는 귀부인의 이름은 ‘브랜들리’ 부인(소설 속 엑스트라임. 독자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이름임)이었다. 미망인 (과부)이었다. 그녀는 에스텔라보다 몇 살 더 많은 외동딸(소설 속 엑스트라임. 이름 몰라도 됨)이 한 명 있었다.

어머니는 젊어보였고 딸은 나이 들어보였다.

어머니의 얼굴 피부색은 연분홍색이었는데 딸의 얼굴 피부색은 노랬다.

어머니는 천박했는데 딸은 신학적인 체했다.

그 모녀는 소위 말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고 또 그 모녀도 사람들을 방문했다.

거의 없는, 만약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모녀와 에스텔라 사이에는 감정의 공유가 거의 없었다. 그 모녀는 에스텔라가 필요했고 그리고 에스텔라도 그 모녀가 필요하다는 이해가 맞아떨어졌을 뿐이다.

미스 해비샴(주인공 시골 인근 읍내 외곽에 사는 어마어마한 갑부. 에스탈라를 낳지는 않았지만 거두어 길러준 수양어머니임)이 은둔의 시기에 들기 전까지, 브랜들리 부인은 미스 해비샴의 친구였었다.

브랜들리 부인(에스텔라의 하숙집 여주인)의 집 안에서 그리고 브랜들리 부인의 집 밖에서도, 나는 에스텔라가 내게 야기 시키는 모든 종류와 모든 강도의 고문을 다 겪었다.

그녀와의 관계의 특성상 나는 내 자신을 호의의 조건에 두지도 못하면서 친밀하게만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구혼자들을 애 달게 만드는데 나를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그녀에 대한 내 헌신을 끊임없이 모욕하는 데에 사용했다.

내가 만일 그녀의 비서였었다면, 집사였었다면, 어머니가 다른 오빠 였더라면, 아님 가난한 친척이었더라면, 그도 아니면 내가 만일 그녀가 결혼할 남편의 남동생이었더라면, 내가 그녀와 가장 가까워진 바로 그 때에도, 그녀를 향한 내 희망들은 더 줄어들진 않았을 텐데.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특권과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특권은 내 시련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내 특권(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을 그녀가 부르는 것)이 그녀의 다른 구혼자들을 거의 미치게 한 것이 있을 법한 일이었음에 비해, 그 특권이 나를 거의 미치게 했던 것은 너무도 확실 했다.

그녀에겐 끝도 없이 구혼자들이 달라붙었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질투심 때문에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이들을 구혼자로 여겼다.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아도 구혼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하게 널려 있었다.

나는 그녀를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서 종종 만났다. 나는 시내에서 그녀에 대한 소문을 자주 접했다. 나는 종종 템스 강으로 그녀와 브랜들리 모녀를 데리고 가곤 했다.

피크닉(소풍)들에서든, 야외에서 이루어진 축제들에서든, 연극들에서 든, 오페라들에서든, 콘서트들에서든, 파티들에서든, 모든 종류의 즐거 움들에서든 나는 그녀를 쫓아다녔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어울림(교제) 속에서 단 한 시간도 행복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신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지낼 거라는 행복에 대해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지껄 여대고 있었다.

곧 드러나다시피 우리의 교류(←원문에 ‘교제’라고 쓰여 있지 않음)는 오래갔다. 굳이 오래갔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교류의 이러한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교제(←원문에 ‘교제’라고 쓰여 있음)는 우리에게 강요된 것”임을 나타내는 말투로 되돌아가 얘기하곤 했다.

또 다른 때에는 이러한 말투나 그녀의 수많은 말투들로 얘기하는 것을 갑작스레 억제하고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을 때도 있었다.

“핍(주인공의 이름, 21세), 핍.”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앞서 말한 그 갑작스런 억제력을 발휘하면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녀의 집 어두운 창가에서 떨어져 않아 있을 때였다.

(에스텔라의 대사→) “너는 경고를 듣지 않으려는 거니?” (주인공의 대사→) “무슨 경고?”

(에스텔라의 대사→) “나에 대한 경고 말이야.”

(주인공의 대사→) “너에게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말이니, 에 스텔라?”

(에스텔라의 대사→) “다시 말할게! 만일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넌 눈이 먼 거야.”

나는 사랑은 흔히 눈을 멀게 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내가 그때 느낀 감정은 비참함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그녀가 미스 해비샴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그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관대하지 않다는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에 스텔라를 대할 때 나를 항상 내리누르던 감정이기도 했다.

내 불안은 항상 다음의 두 가지였다.

그녀의 역할에 대해 내가 안다는 것이 내가 그녀의 자존심을 대할 때 항상 내 자신을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그녀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를 바동거리며 반항해야할 대상으로 삼게 만들진 않았는지이다.

“어쨌든,”이라며 내가 말했다. “난, 지금 당장은 어떠한 경고도 네게서 받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 이리로 오라고 한 건 너였 으니까, 지금 이 시각에 말이야.”

“그래 맞아.” 에스텔라가 항상 나를 오싹하게 만드는 예의 그 차갑고 애정 없는 미소를 지어며 말했다.

땅거미가 지고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가는 모습을 잠깐 동안 지켜본 후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새티스(미스 해비샴의 집)에서 미스 해비샴이 나와 하루 동안 지내길 희망하는 날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말하자면, 네가 날 그곳까지 데려다 주어야 한다는 거야. 런던으로 되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미스 해비샴은 나 혼자서 여행하는 걸 싫어하거든. 그리고 내 심부름꾼 여자아이가 나를 따라 그곳까지 가는 것도 극구 반대하시고. 그런 사람 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예민할 정도로까지 끔찍해하시니까. 어떠니 나를 데려다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데려다 줄 수 있겠니라니, 에스텔라!”

“그럼 데려다줄 수 있다는 거지? 너만 좋다면 모레(내일의 다음날) 내려 갈까하는데. 넌 이번 여행경비를 내 지갑에서 꺼내 지불해주면 돼. 그게 네가 가는 조건이니까, 알았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

이것이 다였다. 내가 그 방문을 위해 들었던 준비 전부였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방문 때도 그와 똑같은 말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미스 해비샴은 결코 내게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이전에도 그녀의 손 글씨를 본 적이 없었다(나중에는 한 번 써주더라는 얘기겠죠. 왜일까요? 왜??? ^0^).

우리는 ‘그 다음다음 날’(=모레) 내려갔다.

미스 해비샴은 내가 그녀를 처음 접했던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 또한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대저택 이름)에 어떠한 변화도 없더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불필요했다.

미스 해비샴은, 내가 그녀와 에스텔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에스텔라를 좋아했다. 나는 ‘좋아했다’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왜냐하면 미스 해비샴의 표정과 포옹에는 명백히도 끔찍스러운 에너지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에스텔라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에스텔라의 말들에 열중했고, 그녀는 에스텔라의 몸짓들에 구애했다. 에스텔라가 자신을 바라다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미스 해비샴)는 자신의 떨리는 손가락들을 우물우물 씹으며 앉아 있었다.

그건 마치 미스 해비샴이, 그녀(미스 해비샴) 자신이 길러낸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는 것만 같이 보였다.

미스 해비샴이 에스텔라에게서 눈을 떼 나를 바라다보았다. 그 눈빛은 내 심장을 캐서 내 심장의 상처들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것만 같은 탐문하는 눈빛이었다.

“그래 핍(주인공이름, 21세) 저 애가 너를 어떻게 이용하더냐? 저 애가 널 어떻게 이용해?”

그녀가 마녀 같은 열성으로 내게 묻고 또 물었다. 심지어 에스텔라가 그 옆에서 듣고 있었음에도.

하지만 밤에 우리가 깜박거리는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야말로 그녀가 가장 섬뜩해보이던 때였으리라.

왜냐하면 그때, 미스 해비샴은 에스텔라의 손을 자신의 팔로 칭칭 감싸 손으로 움켜쥐고는, 에스텔라가 정기적인 편지로 그동안 써 보냈었던 “에스텔라에게 매료되었었던 남성들의 이름들과 상태들”에 대해 다시 언급하게 함으로써 에스텔라를 갈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에 걸린 것만 같은 강렬함으로 미스 해비샴은 이 명부(=두루마리=편지)를 곱씹는 동안,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목발 지팡이(=목발=지팡이)를 짚은 채, 그 지팡이 위에 턱을 괴고 앉은 채, 자신의 비정상적으로 창백하고 빛나는 그 두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깨우는 예속감과 심지어 내 지위가 강등당하는 느낌은 너무 쓰라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미스 해비샴이 남자들에게 복수를 가하기 위해 에스텔라를 준비해왔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미스 해비샴은 에스텔라를 내게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왜 사전에 에스텔라를 만날 수 있었는지를.

남자들을 매혹시키고 고통을 준 후 차버리기 위해 에스텔라를 세상 밖으로 내보냈을 때, 미스 해비샴은 “에스텔라가 모든 구혼자들의 손에 닿는 그 너머에 있으며 그녀의 애인이 되기 위해 뛰어든 모든 남성들이 결국 패자가 될 것”이란 악의적인 확신을 가진 채 그녀는 에스텔 라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도 역시 이 왜곡된 재간(재주)에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내가 심지어 그 상을 받도록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 일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늦추어져 왔는지를. 그리고 내 최근의 후견인(재거스 변호사)이 그러한 계획을 인지했음을 공식적으로 실토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는지를.

한 마디로 말해, 나는 즉시 내 앞에 앉아 있는 미스 해비샴의 실체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것은 항상 내가 이 두 눈으로 받아오던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녀의 삶을 태양으로부터 은폐시키고 있는 거무스름하고 건강하지 못한 ‘새티스 저택’(미스 해비샴의 저택이름)의 그 뚜렷한 그림자를.

미스 해비샴의 방에 불빛을 비추고 있던 양초들은 벽에서 쑥 내민 돌출 촛대(양초 꽂이)들에 꽂혀 있었다.

촛불들은 바닥에서 높이 있었다. 좀처럼 환기되지 않는 공기 속에서 그 촛불들은 흔들림 없고 울적한 빛을 부자연스럽게 방에 비추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촛불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이 만든 희미한 어둠도 둘러보았다. 멈춘 시계는 예전 그대로였다. 테이블에서부터 바닥에 걸쳐 있는 빛이 바랜 신부용 드레스도 둘러보았다. 벽난로의 유령 같은 빛에 반사된 나머지 방의 천장과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그녀 자신의 끔찍한 모습에도 나는 고개를 돌려 둘러보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에서 내 마음이 받아들인 그 해석(끔찍함)이 되풀이 되어 나에게로 되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내 생각들은, 테이블이 널찍이 자리 잡고 있는 층계참(위층으로 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가는 계단 사이에 있는 공간)의 맞은편에 있는 그 거대한 방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에서 내 해석(끔찍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를 테면, 식탁 중앙에 놓은 장식물에 쳐져 있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식탁보 위에 있는 거미들의 우글거림들 속에서, 칸막이벽들 뒤에서 빠르게 뛰고 있는 작은 심장들을 호소하듯 움직이고 있는 쥐들의 발자국들 속에서, 그리고 바닥 위에 있는 딱정벌레들이 이리저리 손을 더듬다 멈췄다하는 그 모습들 속에 나는 내 해석(끔 찍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방문에 즈음해서 화가 나서 하는 몇몇 말들이 에스텔라와 미스 해비샴의 사이에서 오고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이 대립하는 것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에스텔라가 조금씩 미스 해비샴에게서 벗어나려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셋은 벽난로 가 옆에 앉아 있었고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미스 해비샴은 여전히 에스텔라의 팔을 자신의 팔로 칭칭 감싼 후 에스텔라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었다.

앞서, 에스텔라는 몇 번이고 거만한 짜증스러움을 드러냈었다. 에스텔라는 미스 해비샴의 사나운 애착을 받아주고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느니 차라리 그 사나운 애착을 참고 견디고 있었다.

“뭬야!” 미스 해비샴의 눈에서 섬광이 일며 말했다. “그래서, 내게 싫증난 거냐?”

“제 자신에게 조금 지쳤을 뿐이에요.” 에스텔라가 미스 해비샴의 팔에서 몸을 떼며 말했다. 에스텔라는 거대한 ‘벽난로 위 선반’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벽난로 불빛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사실대로 말해 보거라, 이 배은망덕한 것아!”라며 미스 해비샴이 자신의 지팡이로 바닥을 격렬하게 내리치면서 소리쳤다. “넌 내게 싫증난 게야.”

에스텔라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미스 해비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벽난로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에스텔라의 우아한 모습과 아름다운 얼굴에는 상대방의 사나운 열기에 대한 거의 잔인할 정도로까지 냉정한 무관심이 드러나 있었다.

“이 목석(나무나 돌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은 것아!”라며 미스 해비샴이 소리쳤다. “이 매정한 것!”

“뭐라고요?” 에스텔라가 큰 ‘벽난로 위 선반’에 기댄 체 눈만 움직이며 예의 그 무관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말했다. “제 마음이 차갑다고 질책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께서요?”

“그럼 아니란 말이냐?” 통렬한 반박이 잇따랐다.

“어머니께서는 아셔야 해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절 이렇게 키운 분이 어머니시란 것을요. 모든 칭찬도 모든 비난도 모든 성공과 실패도 모두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절 받아들이시라고요.”

“오, 저 애 좀 보거라, 저 애 좀 봐!” 미스 해비샴이 심하게 울부짖으며 말했다. “저 매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보거라, 그것도 자신이 양육된 벽난로 바닥 위에서! 버려져 생애 첫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저것을 이 불행한 가슴으로 받아들였던 이 장소에서, 내 애정 을 저를 위해 수년 동안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이 장소에서!”

“적어도 전 그 협정의 어떠한 당사자도 아니었어요.” 에스텔라가 말했다. “그 협정이 맺어질 때, 전 너무 어려 말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작은 애였더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머닌 제게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어머니에게 모든 것 을 빚지고 있죠. 자 그럼 어머닌 제게서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사랑이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어머닌 사랑을 받고 계세요.”

“난 받고 있지 않다.”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수양어머니(=낳지는 않았지만 길러준 어머니).” 느긋하고 우아한 자신의 태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상대방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전혀 없이, 분노에도 애정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은 채 에스텔라가 쏘아붙였다.

“수양어머니, 제 모든 것을 어머니께 빚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이 솔직히 어머니 것이에요. 제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면 도로 가져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이상, 전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께서 결코 제게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무리 어머님께 감사함과 의무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람 말이에요.”

“내가 저(에스텔라)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다니!” 미스 해비샴이 미친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외쳤다. “내가 저(에스텔라)에게 열렬한 모정을 준 적이 없다니, 질투와 분리할 수 없고 날카로운 통증과도 떼려야뗄 수 없었던 열렬한 모정을 내가 저에게 준 적이 없다니, 저것이 내게 이와 같이 말하다니! 저 애보고 나를 미쳤다고 부르게 해라, 저 애더러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게 해!”

(빵실~빵실~해석 잘 되네~ㅋ)

“제가 왜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에스텔라가 대답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제가요? 어머니께서 확고한 목적들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을 저의 반만큼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어떤 흔들림 없는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고는 사실을 제가 아는 반만큼이라도 아는 이가 어디에 있다고 이러세요? 심지어 거기 어머니 옆에 지금도 놓여 있는 그 자그마한 의자(등받이나 손잡이가 없는 의자) 위에, 이 벽난로 바닥 위에 앉아서, 어머님의 얼굴이 낯설고 저를 겁먹게 하셨을 적에도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당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자란 애가 저 아닌 가요!”

“벌써 다 잊다니!” 미스 해비샴이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다. “그 때를 벌써 다 잊다니!”

“아녜요, 전 잊지 않았어요.” 에스텔라가 반박했다. “아무 것도 잊지 않았어요, 단지 제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해두었을 뿐이에요. 제가 언제 어머니의 가르침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언제 어머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있던가요? 어머님께서 배척하셨던 어떤 것이든,” 에스텔라가 자신의 손을 가슴에 대었다. “어머니께서 배척하셨던 그 어떤 것이든 제가 여기(심장)에 들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게 진실해지세요.”

“저 거만한 것, 저 거만한 것!” 미스 해비샴이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회색 머리카락을 옆으로 밀어젖히며 신음소리를 냈다.

“누가 절 이토록 거만하게 가르쳤던가요?” 에스텔라가 쏘아붙였다.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하나씩 익혀나갈 때마다 절 칭찬해주셨던 분이 누구였던가요?”

“저 거만한 것, 저 거만한 것!” 미스 해비샴이 앞서와 같은 그 동작 (머리카락 옆으로 밀어젖히기)을 하며 신음소리를 냈다.

“누가 절 이토록 매정하도록 가르치셨던가요?” 에스텔라가 대꾸했다.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하나씩 익혀나갈 때마다 절 칭찬해주셨던 분이 누구였냐고요?”

“아니 내게 이토록 거만하고 매정하게 굴다니!” 미스 해비샴이 자신의 두 팔을 내뻗으며 완전히 새된 목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에스텔라, 에스텔라, 에스텔라, 내게 이토록 거만하고 매정하게 굴다니!”

에스텔라가 잠시 동안 경이로울 정도로까지 침착한 태도로 미스 해비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에스텔라는 동요하지는 않았다. 잠시 시간이 더 흐른 후, 에스텔라가 다시 고개를 돌려 벽난로 불을 내려다보았 다.

“전 모르겠어요,”라며 잠시 침묵을 더 지키던 에스텔라가 시선을 들면서 말했다. “한동안 떨어져 있다 어머니를 만나러 돌아온 제게 왜 그렇게 불합리하셔야 해요. 저는 어머니가 당하신 잘못들과 원인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전 어머니와 어머니의 교육 어느 것에 대해 서도 결코 충실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책잡힐만한 어떤 약점도 보인 적이 없어요.”

“내 사랑에 대한 네 보답이 기껏 ‘책잡히지 않은 것’이더냐?” 미스 해비샴이 소리 질렀다. “아니 그래, 그렇지, 저 아인 사랑을 ‘책잡히지 않는 거’라 말하곤 했었지!”

“전 이제,” 에스텔라가 다시 한 번 경이로울 정도의 침착함을 보이더니 생각에 잠긴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전 이제 이번 일이 어떻게해서 벌어진 일인가를 거의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일 어머니께서 양녀(딸)를 들이셔서 이 거무스름한 방들에 완전히 감금한 채 햇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니와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게 키우셨다면…, 만약 어머니께서 그렇게 완수하시고, 그런 다음 어떤 목적에서 그 여자애보고 햇빛을 이해하길 바란다거나 햇빛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길 바란다면, 그게 어머니께서 실망하시고 화내실 일인 건가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앉은 미스 해비샴이 낮은 신음 소리를 내며 앉아 자신의 몸을 전후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에스텔라의 질문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에스텔라가 잠시 뜸을 들인 후 말했다. “이게 더 밀접한 경우겠지만…, 만약 그 애의 지능이 막 태동했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그 애를 최대한의 에너지와 의도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가리켰다면, 햇빛 같은 것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애의 적이며 파괴자가 될 예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햇빛이 어머니를 상처 냈기 때 문에 이제 그 애에게도 상처를 입힐 거라며 그 애보고 햇빛에게서 등을 돌려야 된다고 가리켰다면…,” 에스텔라는 여기서 한 번 뜸을 들인 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렇게 완수하셨고, 그런 다음 어떤 목적에서 그 여자애가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원하셨는데 만일 그 여자애가 그러질 못하더라면, 그럼 그게 어머니께서 실망하시고 화내실 일인 건가요?”

미스 해비샴은 경청하며 앉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경청하는 척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난 미스 해비샴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스 해비샴은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있 었다.

“그러니까,”라며 에스텔라가 말했다. “제가 만들어진 대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성공이 제 성공이 아니듯, 실패가 제 실패가 아니 듯이요. 단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저를 만든 것일 뿐이에요.”

미스 해비샴은 바닥 위에, 흩뿌려져 있고 색이 바란 신부용 유품들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난 그녀가 어떻게 그 자세를 취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손짓을 해 에스텔라에게 미스 해비샴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간청한 후 그 방을 나섰다. 처음부터 난 그 기회를 찾고 있었었다.

내가 방을 떠날 때, 꼭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서 있었던 것처럼 에스텔라는 그 거대한 벽난로 선반 가(옆)에 여전히 서 있었다.

미스 해비샴의 회색 머리카락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바닥 위에서, 또 다른 신부용 유물들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그건 보기에도 비참한 광경이었다.

우울한 마음이었다. 한 시간 혹은 그 이상을 나는 별빛 속에서 안마당 여기저기를 걸었다. 맥주공장 주변도 걸었다. 폐허가 된 정원 주변도 걸었다.

마침내 내가 용기를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에스텔라가 미스 해비샴의 무릎 앞쪽에 앉아 조각조각 떨어져 가는 낡은 드레스 중 하나를 바늘로 꿰매어 깁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이후 죽 색이 바란 넝마 옷 같은 낡은 현수막들이 대성당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종종 당시 에스텔라가 바늘로 꿰매고 있던 이 낡은 드레스가 떠올 려지곤 했다.

나중에 에스텔라와 나는 종전과 같이 카드놀이를 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카드놀이에 능숙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게임들을 했다(에스텔라는 프랑스로 숙녀교육을 다녀왔음). 그렇게 저녁은 차츰 닳아 없어 졌고 나는 침대에 들었다(잠을 잤다).

나는 안마당 건너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에서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이었다. 내가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저택 이름)에서 자는 건. 그래서인지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명의 미스 해비샴에게 시달렸다. 그녀는 내가 벤 베게 이 쪽 위에, 저 쪽 위에, 그리고 베개 머리맡과 베개 발치에, 반쯤 열려 있던 옷 방(주인공 방의 옷 방) 문 뒤편에도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방에도 그녀는 있었고, 머리 아래에 있는 방에도 그녀는… 내 생각이 미치는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은 있었다.

밤이 새벽 2시를 향해 속도를 늦추며 기어가고 있을 때, 마침내 나는 이 방은 누워 잘 방으론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어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들을 챙겨 입고서 안뜰로 건너가 돌로 된 긴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안뜰 외곽으로 가 그곳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나는 통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들고 있던 촛불을 꺼야했다. 왜냐하면 미스 해바샴이 낮은 목소리로 비명소리를 내며 유령 같은 방식으로 통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 떨어진 채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았다.

미스 해비샴의 손에는 아무것도 안 덮인 촛불만이 들려 있었다. 아마도 그녀 자신의 방에 있던 ‘돌출 촛대’(=양초꽂이)들 중에서 촛불 하 나를 꺼내 온 것 같았다. 그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 세상사람 같지 않은 섬뜩한 모습이었다.

계단 바닥에 서 있던 나는 그녀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지 않았음에도 결혼식 축하연이 차려진 방에서 나는 흰곰팡이 냄새를 느꼈다.

나는 그녀가 그 방안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들었다. 그 뒤 나는 그녀가 그녀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는 것을 들었다. 그 뒤 나는 그녀가 다시 결혼식 축하연이 차려진 방으로 건너오는 것을 들었다. 신음하는 듯 울리는 그녀의 비명 소리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에, 나는 어둠 속에서 나가려고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새벽의 여명이 길을 잘못 들어 내 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내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나는 나가지도 그렇다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간격 동안, 내가 계단의 바닥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미스 해비샴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으며 그녀가 든 촛불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끊임없는 그녀의 낮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튿날 에스텔라와 내가 새티스 하우스를 떠나기 전까진, 에스텔라와 미스 해비샴 사이에 의견차이의 재현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어떤 다른 사건도 더 이상은 재현되지 않았다. 다만 내 기억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면, 그와 비슷한 의견 차이는 네 번 더 있었을 뿐이 었다.

하지만 그 경우들을 다 포함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에스텔라를 향한 미스 해비샴의 태도가 변한 적은 없었다. 에스텔라를 향한 미스 해비샴의 이전의 특질들 사이에 근심 같은 무언가가 섞인 것 같다는 인상을 내가 받은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종이 위에 벤틀리 드러믈(22세, 주인공의 라이벌)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서, 내 인생의 이번 장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도 내가 다음 장으로 넘길 수 있었다면 나는 아주 기꺼이 넘겨 버렸을 것이다.

핀치 새들(이른 말하면 안 되는 줄은 알지만-\_-;; 일부 핀치 새를 박제한 모습이, 모자를 쓰고 상체가 발달한 신사의 모습을 많이 닮았음)이 의기투합하기 위해 모인 어느 때였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돈독한 느낌이 마구 발산되고 있을 때였다.(주인공과 런던 상류사회 젊은 신사들의 친선 모임인 ‘작은 숲의 핀치 새들’은 말 그대로 볼 짱 다본-\_-;; 분위기 아시죠???? 술 마시고 죽자 식의, 웨이터에게 술 먹이고 계단에서 쓰러져 자게 하거나, 술 잘 마시다 자 기들끼리 싸우거나, 돈을 마두 펑펑 쓰는 모습을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그냥 막짱 클럽입니다)

모임의 주재하던(사회를 보던) 핀치 새(런던신사)가 ‘작은 숲’(클럽이름) 전체를 향해 질서유지 권 어쩌고 하며 정숙 할 것을 요구하더니 말했다.

“자자 신사제군들, 정숙 좀 하게나. 드러믈(주인공의 라이벌) 씨는 아직 숙녀를 위해 건배를 들었던 적이 없소. 모임의 장엄한 헌법에 따라 저 짐승 같은 자식은 오늘 숙녀를 걸고 건배를 해야 하는 순번인 게야.”

디캔터(보기 좋은 포도주병)들이 돌려지고 있는 동안, 나는 드러믈이 추잡한 방식으로 곁눈질해가며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그딴 우정이란 애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녀석이 나를 째려보는 것쯤이야 일을 법했다.

그가 “에스텔라 양을 위해!” 건배할 것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요청했을 때, 내 분노와 놀라움을 정말이지 하늘을 찔렀다.

“어느 에스텔라를 말하는 거지?” 내가 말했다.

“넌 상관할 바 없어.” 드러믈이 대꾸했다.

“어디 사는 에스텔라를 말한 거냐고?” 내가 말했다. “넌 어디 사는 에스텔라인지를 말할 의무가 있어.”

녀석이 ‘작은 숲속의 핀치 새들’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녀석은 그녀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밝힐 의무가 있었다.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 사는 에스텔라를 위해, 제군들.”라며 드러믈이 내 질문을 무시한 채 말했다. “절세의 미인이지.”

내가 허버트(21세, 주인공의 절친)에게 속삭였다.

“절세미인에 대해 많이도 알겠다, 저 비열하고 항상 뚱해 있는 바보 같은 자식이!”

“나도 그 숙녀 분을 알고 있어.”라며 허버트가 테이블 위를 가로지 르며 말했다. 그건 건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였다.

“네가?” 드러믈이 말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있지.” 내가 얼굴이 새 빨게져선 말했다.

“네 녀석이?”라며 드러믈이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이것이(“하느님 맙소사!”) 이 둔중한(무거운) 녀석이 할 수 있는 재치 있는 응수의 전부였다. 유리잔이나 도자기류를 집어 던지는 행위를 제외하곤 말이다.

하지만 나는 마치 그의 말 속에 신랄한 가시가 담겨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말에 격분해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숲(‘클럽’을 의미함)에 등원해서, 숲에 등원해서(2번 반복하고 있음) 자신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숙녀를 걸고 건배를 제안하는 행위는 명예 있는 ‘핀치 새’(‘클럽구성원’을 의미함)가 할 법하지 않은 뻔뻔스럽고 무례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말했다.

‘숲에 등원하다’란 말은 우리가 항시 즐겨사용 하던 멋있는 의회식 표현방식이었다.

이 말에 드러믈 씨도 펄쩍 뛰며 “방금 그 말의 의미가 뭐야?”라며 내 해명을 요구했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내게 결투장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정도는 알 것으로 생각되는데.”라며 극단적으로 말했다.

이후 피를 흘리지 않고서 이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영국이라는 기독교 국가에서 가능한지를 놓고 핀치 새들(클럽멤버들)의 의견이 양분된 사건이었다.

이것에 대한 토론이 너무 열기를 띄어가 정말이지 적어도 6명이나 되는 명예로운 핀치 새들이 토론 도중에 다른 6명 이상들에게 “나에게 결투장을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할지 정도는 자네도 알 것 같은데.”라며 말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작은 숲속의 핀치 새들’ (클럽이름)은 명예의 법정이었으니까. 핀치 새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드러믈 씨(22세, 주인공의 라이벌)가 그 숙녀 분에게서 자신이 그녀와 알고 지냄을 의미하는 아주 사소한 증서라도 가지고 온다면, 그럼 핍 씨(21세, 주인공이름)는 신사로서 그리고 핀치 새의 구성원으로서 ‘방금과 같이 흥분해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임을 표명해야 한다.”였다.

기한은 우리의 명예가 지체로(지연으로) 식지 않도록 이튿날(다음날) 까지로 정했다.

이튿날 드러믈은 에스텔라가 자필로 적은 공손하면서도 짧은 ‘시인서’ 한 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 에스텔라는 드러믈 씨와 두서너번 함께 춤을 추는 영광을 입었었습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나는 “‘내가 흥분에 휩싸여 감정을 드러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가 결투장 운운한 것’이 지지될 수 없 음으로 그 말을 취소한다.”라고 말할 수밖엔 없었다.

“작은 숲속의 핀치 새들”의 멤버 전원이 무분별한 자기모순에 빠져

결국 최종적으로 상호간의 좋은 감정의 증진이 이토록 놀랄 만한 속도로 회복되었노라고 선포하는 동안에도 내내, 드러믈과 나는 서로 콧방귀를 뀌며 한 시간 동안이나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볍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에스텔라가 그런 경멸할 만한 비열하고 꼴사납고 널 뚱해 있는 멍청이에게 그런 식이라도 어떤 호의를 선사했다는 생각이 내게 어떠한 고통을 주었는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평균 이하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는 그런 녀석에게.

이제까지, 나는 믿고 있다. 그녀가 저 사냥개에게 몸을 굽힌 거라는 생각을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녀를 향한 내 사랑 속에 담겨 있던 관대함과 사심 없음의 어떤 순수한 불꽃 탓이라고 해도 좋다고 나는 이제까지 믿고 있다.

의심할 바도 없이, 그녀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나는 비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좀 더 가치 있었다면 그 대상이 좀 더 훌륭했더라면 내 번민의 종류와 강도는 달랐을 것이다.

드러믈이 에스텔라를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었’다는 사실과 그녀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고, 또 곧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꽤 오랫동안 드러믈은 매번 그녀를 쫓아 다녔고 그래서 그와 나는 매일 조우하게 되었다.

드러믈은 우둔하고 끈질긴 방식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에스텔라 또한 그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어떨 때는 그를 격려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가, 또 어떨 때는 대번에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를 공공연히 얕보며 경멸했다가, 또 어떨 때는 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어장관리죵-\_ㅜ. 슬퍼~어장관리)

재거스 씨(변호사)가 일찍이 부른 이름이듯이 이 ‘거미’인간(드러믈) 은 숨어서 기다리는 데 익숙했다. 그런데 녀석은 거미 종족 특유의 참을성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녀석은 자신의 돈과 가문의 저명함에 대한 멍청이 같은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 멍청한 자신감은, 녀석에게 부족한 집중력과 결연한 의지력 대부분을 대신해 녀석에게 유리함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그래서 이 거미인간은 집요하고 끈덕지게도 에스텔라를 지켜보고 주 시하면서, 자신보다 더 빛나는 수많은 벌레들을 감시하다 종종 아슬아슬한 순간에 똬리를 풀고 내려오곤 했다(에스텔라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의미임).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 네)에서 열렸던 어떤 공공 무도회 장소에서였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 분의 장소들에서 공공 무도회가 열리곤 했다.

에스텔라는 그 자리에 모은 어떤 다른 여인네들보다 탁월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바보 같은 드러믈 자식이 그녀 주변에 아주 착 달라붙어 있고 그녀 또한 그 만큼이나 드러믈을 자신의 상대역으로서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나는 녀석의 인간 됨됨이에 대해 에 스텔라에게 한 마디 정도는 들려주어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다음 순간을 포착했다. 그건 그녀가 브랜들리 부인(에스텔라가 사는 집 여주인입니다. 이름 아실 필요없습니다. 다시 안 나오는 엑스 트라입니다. 전혀 소설 진행과 상관이 없습니다.)이 그녀를 데리고 집 으로 데려다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어떤 꽃들 사이에 따로 떨어져 앉아 마차를 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무도회 장소들로 갈 때나 집으로 귀가할 때는 내가 항상 그녀들과 동행했었기 때문이다.

“피곤하니, 에스텔라?”

“좀 그래, 핍(21세, 주인공이름).” “그렇겠지.”

“오히려 내가 안 그렇다고 말해줄래. 잠들기 전에 ‘새티스 하우스’ (미스 해비샴의 저택이름)로 편지 한 통을 부칠 게 있거든.”

“오늘 밤의 승리를 말씀드리려고?” 내가 말했다. “물론 아주 볼품없는 승리였겠지만, 에스텔라.”

“말에 뼈가 있다. 난 모르겠는데. 오늘 무도회에 그런 게 있었는지.” “에스텔라,”하고 내가 말했다. “저쪽 구석에서 우리가 있는 여기로

건너다보고 있는 저딴 녀석 좀 봐봐.”

“내가 왜 그를 봐야하니?” 에스텔라가 드러믈 대신에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네 표현을 빌리자면 저 구석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에 내가 쳐다봐야한다는 거니?”

“참으로, 내가 너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야.”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밤 내내 네 주위를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방들과, 모든 종류의 못생긴 창조물들은,”이라며 에스텔라가 드러믈이 서 있는 쪽을 흘낏 쳐다보면서 말했다. “불을 밝히는 촛불 주변을 배회하기 마련이야. 촛불이 그것을 피할 순 없지 않겠니?”

“그래,”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에스텔라라면 그것을 피할 순 있지 않을까?”

“글쎄!” 그녀가 잠깐 동안 웃더니 말했다. “아마도. 그래, 네 좋을 대로 생각해.”

“하지만, 에스텔라,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봐. 대체적으로 경멸을 받는 드러믈이란 남자를 에스텔라 네가 격려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나를 비참하게 한다고. 그가 얼마나 경멸받는지 너도 잘 알잖니.”

“글쎄?”라며 그녀가 말했다.

“너는 잘 알고 있어. 그의 외모가 형편없듯이 그의 내면도 보기 흉하다는 사실을. 너도 알다시피 그는 불완전하고 성질이 나쁘고 항상 시무룩해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우둔한(바보) 아일뿐이야.”

“그랬던가?”라며 그녀가 말했다.

“넌 잘 알고 있어. 그가 돈과 아둔한 조상들의 웃기는 족보 외에는 전혀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지, 너도 잘 아는 거지?”

“그런가?”라며 그녀가 좀 전 그 대답을 반복했다. 그녀가 매번 “글쎄!” 혹은 “그런가?”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스런 두 눈을 점점 더 크게 뜨며 말했다.

“글쎄!”나 “그런가?”라는 식의 외마디 대답 이상을 얻기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그 외마디 대답을 그녀에게서 가져와 ‘글쎄!’란 말을 ‘그러면, 자아!’란 말로 강조해가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 자아!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이유야.”

자, 그녀가 나를…, 그러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드러믈(22세, 주인공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내가 말일 믿을 수 있었다면, 나는 그 문제에 관해 좀 더 좋은 심정이었을 것이다.(-\_-;; 에스텔라는 정말로 드러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_ㅜ 드러믈은 앞서 말했듯이 바보 같고 성격 더럽고 돈만 많고 가문은 좋지만 정말 인간이 덜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 그러듯이 나를 완전히 대화를 나누어 봐야 소용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렸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정말 나를 비참하게 하려고 드러믈에게 친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도리가 없었다.

“핍(21세, 주인공의 이름)” 맞은 편 방을 흘낏 쳐다보더니 에스텔라가 말했다. “내 행동이 네게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바보 같이 굴지 마. 내 호의는 다른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어, 또 그러는 것이 내 의도일 수 있어. 그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어, 알겠니?”

“아니, 가치가 있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라며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그녀는 자신의 우아함과 매력들을 한낱 천박한 자에게 내던지고 있어.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저급하게 천박한 남자에게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단 말이야.”

“난 견딜 수 있어.”라며 에스텔라가 말했다.

“오! 그렇게 자존심 센 척 좀 하지 마, 에스텔라, 그렇게 고집 센 척 좀 하지 말라고.”

“이젠 나보고 자존심 세고 고집 세다고 말하려는 거니!”라며 에스텔라가 쌍수(두 손)를 벌리며 말했다. “그것도 좀 전까지 어느 촌스런 남자에게 몸을 굽힌다고 나를 비난해놓고선!”

“분명 넌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 내가 뭔가 허둥지둥 대며 말했다. “난 다 봤단 말이야. 네가 바로 오늘 밤 드러믈에게 보낸 표정들과 미소들을 내가 다 봤단 말이야. 넌 결코… 결코 내게는… 내게는 그런 표정과 미소들을 준 적이 없었는걸.”

“그럼 너는 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화가 나지 않았다면 심각하고 상기된 눈초리로 나를 보며 그녀가 말했다.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속이고 덫에 빠뜨리길 원하니?”

“그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네가 단지 그를 속여 덫에 빠뜨리려고 한 일이란 말이니,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에스텔라?”

“그래,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 모두에게도. 하지만 넌 예외였어. 브랜들리 부인(에스텔라가 사는 집 여주인입니다. 이름 아실 필요 없음) 부인이 오신다. 이젠 그만 말할래.”

이제 나는 내 심장을 그렇게도 가득 메웠던 그래서 내 심장을 그렇게도 자주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그 주제(사랑)에 대해서 한 장 (38장)을 배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서 훨씬 더 오랫동안 나를 짓눌려왔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 사건은, 내가 에스텔라라는 존재를 알기도 전이며, 그리고 에스텔라의 아이(에스텔라는 1살에 입양되었음) 같은 지능이 미스 해비샴(에스텔라의 수양어머니 = 길러준 어머니)의 황폐화된 손에 의해 첫 번째로 왜곡되고 일그러지던 시절부터 이미 준비되어오기 시작했었던 사건이었다.

동양(터키가 오스만 제국일 때를 말함)의 이야기에, 정복의 기고만장 함에 취한 터키 황제의 호화로운 침대 위로 떨어질 예정인 무거운 석판은 보통 채석장에서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추어간다.

석판을 적절한 장소에 붙들어 맬 밧줄이 지나갈 터널은 4킬로미터(km)나 되는 바위 속을 관통해 서서히 형성되며, 그럼 석판은 서서히 들어올려져, 일단 굴 천정에 끼워 맞추어지고, 밧줄로 그것을 결박한 다음, 4킬로미터(km)나 되는 터널을 통해 그 밧줄을 서서히 당겨 거대한 철고리에 잇는다.

이 모든 것이 아주 많은 노동으로 완료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터키 황제(오스만 제국 황제)는 한밤중에 흥분하고, 그 거대한 철 고리에서 밧줄을 절단해줄 날카로운 도끼가 터키 황제의 손에 쥐어진다. 그러면 터키 황제가 도끼로 밧줄을 세게 내려치며, 밧줄은 절단 나 쏜살같이 끊어지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석판이 터키 황제 위로 떨어진다.

내 경우가 그랬다. 모든 일이, 가깝든 멀었든, 결론이 나려든 경향을 보이던 모든 일이 완성되었을 때, 그 즉시 도끼가 세게 내려쳤고, 내 요새(‘에스텔라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자신이 곧 물려받게 될 막대한 유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의미함)의 지붕이 떨어져 나를 덮쳐버렸다.

(여기까지가 38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39장에서 계속 됩니다.) (오호~ 이제 본격적으로 격투신인가요. :) 아닌가???? 긴가민 가???? 어쨌든 꿀잼이네요~꿀잼^^ ←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제일 재 미나게 읽고 있는 중 뭐니 이 상황 -\_-;;)

**위대한 유산**

**39장**

(★ 잠시 앞뒤설명 시작 :

■ 지금까지의 이야기 정리 - 주인공의 나이를 중심으로 12살 : 에스텔라 만남,

18세 : 런던 상경,

19세 : 신사교육 본격 시작,

20세 : 에스텔라가 프랑스에서 귀국,

21세 : 법적인 성인이 되어 용돈이 아주 많이 오르지만 펑펑 써대면 서 막대한 빚을 지기 시작해 걷잡을 수 없이 빚이 커져가지만 아직은 유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그리고 사랑하던 에스텔라는 드러믈을 좋아하게 된 채 시간이 지나감,

23세 : 39장 #1 이야기 시작 잠시 앞뒤 설명 끝 ★)

(그럼, 본문 시작)

나는 이제 23살이었다. 내 막대한 유산과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언급도 더 듣지 못한 채 내 23번째 생일도 1주일 전에 지나갔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와 나는 바너드 여관(= 허버트가 전에 살던 외벽이 다 떨어질 것 같았던 여관집=하숙집 = 런던시내서쪽에 있었음)에서 이사한 지가 1년도 넘었다. 우리는 이제 템플(=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있는 지역 / 정확한 위치 모름. 여기 나오는 지명은 모두 지금으로 따지면 런던 중앙임^^)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의 침실들은 강가에 있는 가든코트(상점가란 뜻) 내에 위치해 있었다.

포킷 씨(53세, 허버트의 아버지)와 난 이미 얼마 전에 스승과 제자 관계를 정리한 상태였지만 가장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 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책읽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매일 아주 많은 시간을 꾸준히 독서에 할애하고 있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의 일(사업 전 단계)은 여전히 진행 중 이었고, 내가 그를 위해 주선했었던 모든 사안들도 37장(3‘8’장이 아니 라 3‘7’장임) 끝 부분에서 기술한 내용 그대로인 채였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는 출장 차 마르세유(프랑스 지중해안의 항구 도시)에 가고 없었다.

나는 혼자 있었고, 그리고 혼자만 있다는 감각에 둔해졌다. 의기소침한 상태였고, 갈망하는 상태였고,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는

어째 내 앞 길에 반짝하고 해가 떨까 싶다가도 또 깊은 실망감에 젖어, ‘얼른 와 친구!’라며 허버트의 쾌활한 얼굴과 재빠른 반응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슬프게도 말이다.

궂은 날씨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며 비가 왔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며 비가 왔다. 그리고 거리는 온통 비에 젖어 진흙, 진흙, 진흙투성이였다.

매일같이, 거대하고 무거운 비구름 장막이 동쪽에서부터 몰려와 런던을 너머 달리고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동쪽엔 영겁(불 멸)의 비구름 폭풍이 존재하는 것 같이 말이다.

돌풍들이 너무나도 맹렬했기 때문에 시내에 있던 고층 건물들의 지붕에선 함석판들이 벗겨졌다. 시골에선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졌으며 풍차의 날개들이 날아가 버렸다. 해안가에서는 난파선이니 사망자 발생이니 하는 우울한 사건사고들이 들려왔다.

한바탕 격렬하게 부는 비가 이러한 격심한 강풍들과 같이 왔다. 하루를 막 마치고 책을 읽기 위해 의자에 앉은 그 날은 어느 때보다

도 최악의 날씨였다.

그때 이후로 템플(템스 강 인근이자 런던 중앙)의 그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 곳이 인적이 드물고 쓸 쓸한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그 곳이 템스 강 쪽으로 눈에 띌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강 쪽으로 난 마지막 집 맨 꼭대기에 살았다.

그날 밤 강 쪽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집이 흔들렸다. 마치 대포가 발사된 마냥, 아니면 마치 파도가 산산조각 난 것 같이 집이 흔들렸다. 강풍과 함께 비가 몰아쳐 창문 표면을 세차게 때렸을 때, 나는 창문들이 요동치는 동안 창문 쪽으로 시선을 들어 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이건 뭐 폭풍우의 피해를 입은 등대 속에 갇힌 기분이구만.’라고. 이따금씩, 연기가 굴뚝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왔다. 연기가 마치

‘이런 날씨에는 나도 좀 살자!’라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내가 문들을 열고 계단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을 때 보니 계단 램프들이 몽땅 꺼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양 손으로 얼굴을 그늘지게 해서 어두운 창문들을 통해 내다보았을 때 보니 유리 지붕이 덮인 우리 건물 내부 공간에도 램프란 램프는 모두 꺼져 있었다. 그런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창문을 조금이라도 연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리고 다리들 위에 있는 램프들과 강 연안에 있는 램프들은 몸서리치며 떨고 있었다.

강 위에 떠있는 바지선들 안에서 피운 석탄불들은, 마치 빗속에서 타오르는 빛들인 양 바람 앞에서 자제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내 시계를 올려놓은 채 어쨌든 밤 11시엔 책 읽기를 마칠 생각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책장을 다 덮을 땐, ‘세인트 폴 대성당’의 시계와, 시티오브런던(행정 구역이름, 런던 심장부임. 시티오브런던 아래쪽으로 템스 강이 흐름)에 있는 여타 다른 모든 교회의 시계들이 밤 11시를 알렸다. 어떤 시계들은 같이 밤 11시를 알렸고 또 어떤 시계들은 뒤따라서 쳤다.

바람이 이상하게도 그 시계 소리들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바람이 어떻게 시계 소리들을 괴롭히고 찢겨놓는 지’를 생각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어떤 발자국 소리기 들렸다. (콩닥콩닥~두근두 근~\_~;;)

그 소리에 내가 어찌나 깜짝 놀라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발자국 소리를 ‘내 죽은 친누나의 발자국소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었는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지나갔다. 나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비틀거리는 발자국 소리는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렸다.

그때 계단 램프들이 강풍에 모두 꺼져버린 것이 기억난 나는 서재용 스탠드를 들고 계단 꼭대기로 나가보았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누구든 내 램프 불빛을 보자마자 멈춘 게 분명했다. 모든 게 너무도 조용해졌기 때문이다.

“아래에 누가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라며 깜깜한 아래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몇 층을 찾으시죠?”

“꼭대기 층(주인공의 방이 있는 층이 꼭대기 층임)이오, 핍 씨.” (핍은 주인공의 이름임, 23세)

“제 이름이 핍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아무 문제업소.”라며 그 목소리가 대꾸했다. 내게 그 말을 던진 남성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계단 난간 너머로 램프 불빛을 비추며 서 있었다. 그가 서서히 램프 불빛 안에 들어왔다.

내가 들고 있던 램프는 서재용 램프여서 일종의 갓을 씌운 전등이었다. 그래서 그 램프 불빛이 만드는 밝은 원(둥근 ‘원’)은 아주 협소했다.

그 결과 아주 잠깐 동안만 그가 불빛 안으로 들어왔다 즉시 벗어났다.

그가 불빛 안에 있는 그 한 순간, 나는 내게는 너무 낯선 어떤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내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만족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며 나를 올려다보았기 때문이다. (콩닥콩닥 -\_ㅜ;;)

그 사람(남자)이 움직이는 대로 램프 불빛을 움직여주면서 나는 그가 대체로 거친 옷을, 마치 바다를 넘어온 항해자같이 거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그가 철(금속)과 같은 회색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나이가 대략 60은 가까워보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두 다리를 단단히 버티고 선 굳세 보이는 사나이였다. 근육질이기도 했다. 더욱이 피부가 날씨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 갈색이 되고 단단해진 남성이었다.

그가 마지막 계단 내지는 두 개의 계단을 올라옴에 따라 내가 손에 들고 있던 램프 불빛 안에 우리 두 사람 모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는 그가 내게로 자신의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 머리가 둔해질 정도로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내 일?” 그가 잠깐 멈춘 후 내 말을 다시 말했다. “아! 그렇지. 내

설명해 드리리다. 당신이 허락해주신다면 말이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소.” 그가 대답했다. “들어가고 싶소, 주인양반.”

나는 충분히 불친절하게 그에게 질문을 던졌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나를 알아보고 다소 기뻐하며 환해지는 기색이 있어 내가 불쾌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불쾌했다. 자신이 나를 알아 본 것에 대해 내가 반응해 주리라는 기대 같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내가 막 나왔던 서재 안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 램프를 올려놓은 후 나는 “어찌된 영문이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는지요?”라며 가능한 한 예의바르게 질문을 던졌다.

그가 가장 이상한 태도로 자기 주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마치 그가 넋을 잃고 보고 있는 것들 안에는 자신도 일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마냥 경탄하며 즐거워하는 태도였다.

그가 거친 자신의 외투를 벗고 모자를 벗었다.

그때 나는 그의 머리가 깊은 주름살이 진 대머리인 것을 보았다. 철(금속)과 같은 회색(색깔)의 머리카락들은 그의 머리 양 옆에서만 길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다.

반대로 나는 다음 순간 그가 다시 한 번 내게 자신의 두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의미시죠?”라며 내가 물었다. 난 그때 그를 반쯤 미친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내 말에 그가 딱 멈추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서서히 자신의 오른쪽을 왼손에 대고 비볐다.

“이거 실망인데.”라며 그가 말했다.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기대하고 온 사람에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온 사람에게 말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을 탓하지는 않겠소.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둘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닐 테니까. 잠깐만 내 잠 깐만 있다가 얘기하겠소. 부디 잠깐만 내게 시간을 주시오.”

그가 벽난로 앞에 있던 의자 위에 털썩 걸터앉았다. 그가 정맥(피부에 보이는 파란 핏줄)이 두드러져 보이는 커다란 갈색(색깔) 두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덮었다.

나는 그때 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곤 그에게서 약간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나는 그를 몰랐다.

“이 가까이에 아무도 없겠지,”라며 그가 자신의 어깨 너머를 둘러보 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이렇게 밤늦게 제 집으로 찾아온 당신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정당당한 사람이오.” 그가 나를 향해 고의적으로 애정을 내보이며 자신의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그 행동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분통이 터졌다.

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정정당당하게 자라주어 기쁘오. 하지만 날 붙잡을 생각은 마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내게 미안해질 테니까.”

그가 간파했었던 내 의도(신고)를 나는 포기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은 내가 그의 얼굴 특징에서 누군가를 연상시키진 못했지만 나는 분명 그를 알고 있었다.

만약 비와 바람이 그 사이의 세월을 쫓아버리고, 그 사이의 모든 물 체들을 흩뿌리고, 우리를 휩쓸고 우리가 아주 다른 키(높이)로 일대일 서로 마주 보며 섰었던 ‘그 교회 부속의 묘지’로 우리를 데려다 놓더라도, 나는 그 죄수를 지금보다 더 똑똑히는 알아채진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었던 그 당시보다 그가 내 앞에 앉아 있는 지금 그를 더 잘 알아봤다.

그가 굳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을 꺼내 내게 보여줄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가 굳이 자신의 목에서 목도리를 꺼내 그것을 꼬아 자신의 머리를 휘감을 필요도 전혀 없었다.

그가 두 팔로 몸을 감싼 채 맞은 편 방으로 가 몸을 떨며 몸을 돌린 후 내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뒤돌아볼 필요도 전혀 없었다.

나는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그러한 힌트들을 주기 이전에 나는 이미 그를 잘 알고 있었다.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그의 수상한 신원을 의식하진 못했을 지라도 말이다.

그는 내가 서 있던 서재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곤 자신의 두 손을 다시 내게로 내밀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나는 마지못해 그에게 두 손을 내 밀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놀라 침착함을 잃었었기 때문이다.

그가 내 두 손을 열렬히 움켜쥐고는 자신의 입술 쪽으로 내 두 손을 들어 올려 내 두 손 위에다 키스했다.

그는 여전히 내 두 손을 잡은 채로 있었다.

“그때 넌 귀족같이 행동했었다, 얘야.” 그가 말했다. “귀족 말이다, 핍(주인공이름)! 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단다.”

심지어 그가 나를 포옹하려는 것 같은 태도의 변화가 보일 때, 나는 그의 가슴팍에 한 손을 대고 그를 밀쳐내 버렸다.

내게 고정되어 있는 그의 희한한 시선에 내 주의가 너무 끌렸기 때문에, 내 혀에서 단어들이 서서히 사라졌다.

“내가 확실히 이해해야한다는,” 우리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대했을 때 그가 발언했다. “말을 하려던 참이었구나. 그래, 내가 무얼 확실히 이해하면 되겠니?”

“제가 오래전에 당신과 맺었던 우연적인 교류를 재개하고 싶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환경 아래에서는요. 전 다만 당신이 후회하고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요. 기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더 기쁘고요. 제게 고맙다는 말을 드려주시려고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것에도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처지는 아직 많이 다릅니다. 비에 옷이 젖으셨군요. 피곤해보이세요. 가시기 전에 마실 거라도 좀 드릴까요?”

그가 목도리를 단정치 못하게 돌려놓고는 서 있는 자세에서 목도리의 기다란 끝을 물어뜯으면서 나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래,” 그가 여전히 입에 목도리의 끝자락을 문채 그리고 여전히 나를 관찰하며 대답했다. “그래 내 생각에도 돌아가기 전에 뭘 좀 마시는 것이 좋겠다, 고맙구나.”

옆 테이블 위에 쟁반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쟁반을 가지고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갔다. 그에게 “무엇으로 마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가 쟁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리고 내 질문에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술병 하나를 건드렸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물을 탄 따뜻한 럼주(사탕수수에 물을 타서 발효시킨 술)를 약간 만들었다.

나는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내 손을 떨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 고정되어 있는 그의 시선 탓에, 그리고 자신의 이빨들 사이로 자신의 목도리의 기다랗고 약간은 더러운 끝부분을 문채 의자에 등을 기대고서 내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그 때문에 나는 내 손의 주인 역할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빨들 사이로 자신의 목도리 끝부분을 물어뜯고 있음을 잊었음이 분명했다.

마침내 내가 그에게 럼주 한 잔을 가져다드렸을 때, 나는 그의 두 눈에 잔뜩 고여 있는 눈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껏 나는 서 있는 상태였다. 그가 그만 나가주길 바란다는 뜻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사나이의 그런 부드러운 면을 보자 내 마음도 누그러졌다.

그러자 자책감을 느낀 내가 허둥지둥 내가 마실 잔에 뭔가를 따르면서, 그리고 의자 하나를 떼어 테이블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귀에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혹 제 말이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행복하시고 잘되시길 바랄게요!”

내가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자, 그의 입이 벌어졌는데 입에서 목도리 끝자락이 떨어졌다. 그가 놀라 자신이 지금까지 물어뜯고 있던 목도리 끝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잔을 쥔 손을 내게로 뻗었다. 나도 내 잔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가 술잔을 마셨다. 그가 소매로 자신의 두 눈과 앞 이마를 대패(나무 곱게 미는 연장) 밀듯이 닦았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양을 키우는 목장 주로 살아왔단다. 가축 사육자도 일했었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며 살아왔지. 멀리 신세계(오스트레일리아 = 죄수 유형지)에서 말이다.”라며 그가 말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이곳에서도 수천 킬로미터나 더 떨어져 있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 너머 말이다.”

“일들이 잘 풀리셨는가 봐요?”

“그래, 놀랄 만큼 잘 풀려왔지. 나를 따라 뛰어든 사람들 역시 죄다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만큼 잘 풀린 사람은 없단다. 난 그 일로 유명하지.”

“그러셨다니 기뻐요.”

“네가 그렇게 말해주리라 기대했단다, 얘야.”

그가 얘기하는 단어들과 어조를 이해하려 애쓰며 나는 막 내 마음속에 떠올랐던 지점으로 대화의 방향을 틀었다.

“아저씨가 예전에 제게 보냈던 그 사람을 다시 본 적이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에게 그 일(어린 주인공에게 돈을 전해준 일)을 맡기신 이후로요.”

“그를 다시 보진 못했다. 마주쳤을 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저씨 말을 충실히 따랐어요, 그가 제게 50만 원짜리 수표 두 장을 주고 갔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전 가난한 소년이었고, 제게 주신 그 수표가 상당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론 저도 아저씨만큼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니 아저씬 제가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꼭 허락해주셔야 해요. 다른 가난한 소년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내가 내 지갑을 꺼냈다.

내가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여는 동안 그는 나를 지켜보았다. 내가 내용물들에게 5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꺼내는 동안에도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표는 막 발행된 깨끗한 새 종이였다.

내가 손을 뻗어 그 수표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때도 그는 여전히 나를 주시하며 보고 있었다. 그가 수표 1장에 다른 수표 1장을 올려놓더니 긴 쪽 방향으로 반으로 접은 후 한 번 비틀곤 램프(서재 위에 있 던 독서용 램프)로 가져가 태워버렸다. 쟁반에 그 수표의 재가 떨어졌 다.

“실례가 안 되길 바라네,”라며 그가 서리(눈)같은 미소를 지어며 그러면서 미소가 담긴 냉소를 내게로 던지면서 말했다.

“자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자네와 내가 소름끼치는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 교회 묘지가 있음, 교회묘지에는 주인공의 돌아가신 부모님과 5명의 친동생 들과 친누나의 묘지가 있음)에서 단 둘이서만 만났던 그 이후로 말일세?”

“어떻게 라고요?”

“그래!”

그가 자신의 술잔을 모두 비우고는 일어나 벽난로 가로 가섰다. 그가 커다란 갈색(색깔) 손을 벽난로 선박 위에 놓았다.

그가 벽난로 철봉 위로 발을 들어놓더니 건조시키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습기 찼던 부츠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츠를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었다. 그가 쳐다보고 있는 대상은 벽난로도 아니었다. 그는 줄기차게 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몸을 떨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의 입술이 가라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어떤 단어들을 형성해내었을 때, 나는 가까스로 노력해서 그에게 비록 내가 뚜렷한 발음을 낼 수 없었을 지라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재산을 대받기로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그것이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인지 물어도 될까?”라며 그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재산을 말하는 건지 여쭤 봐도 될까?”라며 그가 말했다.

자신이 없어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모릅니다.”

“어디 내가 한 번 맞춰볼까, 자네가 성년이 된 이후로 줄곧 받아 챙기고 있는 자네의 수입을 말이야!” 그 죄수가 말했다. “이제 그 첫 번째 숫자는 ‘5’ 아닌가?”

내 심장은 불규칙하게 휘둘러대고 있는 묵직한 해머에 난도질되고 있는 마냥 요동치고 있었다.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 등에 내 손을 얹고 선 채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어떤 후견인(재거스 변호사 = 주인공에게 유산을 물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인공의 법률담당 후견인임)과 관련해서,”라며 그가 운을 떼었다. “자네가 아직 성인(21세 / 현재 주인공 나이는 23세)이 되지 않은 동안에도 어떤 후견인이 혹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있었을 테지. 어떤 변호사였다지, 아마. 자 그 변호사의 이름이 ‘ㅈ’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재’거스 변호사의 ‘ㅈ’)

나는 그제야 내 지위에 관한 모든 진실을 불현 듯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의 실망감이, 그것의 위험성이, 그것의 치욕이, 이 모든 종류들

의 결과가 물밀 듯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에 압도당한 나머지 매번 숨을 내쉬기 위해 투쟁해야 했을 정도였다.

“간단히 말해볼까.”라며 그가 계속 이어갔다. “그 놈의 ‘ㅈ’으로 시작되는 변호사, 재거스 일지도 모르는 그 변호사의 고용주가…, 간단히 말해 그 고용주가 바다를 건너 포츠머스(영국남부의 항구도시)에 도착 했고, 그리고 거기서 육지로 내려, 너에게로 오고 싶어 했었다고 말일세. 자넨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지.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절 찾은 건지.’라고. 글쎄! 내가 도대체 자넬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그래, 내가 포츠머스(영국 남부의 항구도시)에서 런던에 있는 어떤 작자 에게 편지를 보냈네, 자네의 상세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그 작 자의 이름이 뭐냐고? 그래,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 주인공과 친 함)이었네.”

나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비록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다손 치더라도.

나는 의자 등에 한쪽 손을 얹은 채, 다른 쪽 손은 내 가슴께에 붙인채 서 있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그곳에서 나는 그렇게 서서 그를 매 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방이 갑자기 높아지고 빙빙 돌기 시작해 내가 의자를 세게 붙잡아야했을 때까지 나는 그렇게 서서 그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나를 부축해 소파께로 옮겨다 주고 내 등에 쿠션들을 대어주었다. 그리곤 내 앞에 자신의 한 쪽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내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나를 몸서리치게 하는 그 얼 굴을 내 쪽으로 아주 가까이 대었다.

“그래, 핍(23세. 주인공이름), 얘야. 내가 널 신사로 만들었단다. 그 일을 해온 놈이 바로 나란다. 나는 그때(= 12살의 주인공이 무서움에 떨며 죄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주는 모습을 죄수가 유심히 보았던 때를 말함) 맹세했지. ‘언젠가 내 수중에 그 망할 놈의 5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라도 들어오는 날엔 그 돈을 꼭 내게 보내리라고.’ 나는 그 뒤로도 줄곧 맹세했단다.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되는 날엔 반드시 너를 부자로 만들고 말겠노라고.’ 난 비천하게 살았다. 하지만 너만은 그런 천함을 모르며 자라게 하고 싶었다. 난 더럽게 일했다. 하지만 너만은 손에 흙을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참 별꼴이네’라고 말하려는 게냐 얘야? 너에게 의무감을 지우려고 이 말을 하는 거냐고? 천만에. 단지 네가 알아주길 바라서란다. 똥 더미를 뒤집어쓰고서 쫓기고 있던 저 개 같은 자식이, 네가 구해주었던 그 자가 이렇게 성공해 널 신사로 만들 수 있었음을, 단지 난 이것을 네게 알려주고 싶었단다.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네가 바로 그 신사다!”

그를 향한 내 혐오와, 그에 대한 내 두려움,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몸을 사리게 만든 반감의 세기는, 만약 그가 어떤 끔직한 야수였다손치더라도 이보다 더 커였을 리 없다.

(아래의 글 전부 다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 좀 길죠~ 디킨스도 너무 몰입한 나머지 어느 정도의 길이로 죄수의 대사를 쓰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죄수의 대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임의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사람이 말하는 대사입니다.)

(죄수의 긴 대사 시작)

“여길 봐라, 얘야. 나는 너의 두 번째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다. 넌 내게 있어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내 아들이다. 나는 돈을 모아왔다. 그건 모두 네가 쓰라고 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외딴 오두막에서 고용된 양치기로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반쯤 까먹을 때까지 양들의 얼굴 외에는 그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을 때에도, 난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동안에도 난 몇 번이고 나이프(칼)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대내이곤 했었단다.

‘여기 꼬마 녀석이 또 납셨군, 그래 이 녀석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말이야!’

나는 그곳에서 수도 없이 너를 보았고, 그 모습은 언젠가 내가 너를 늪지대에서 처음 보았을 때만큼이나 선명했단다.

‘주님 저를 때려 죽여주십시오!’라고 나는 매번 대내였다. ‘하지만 살리실 거라면, 그래서 만일 제가 자유의 몸이 되고 부자가 된다면, 전 반드시 그 소년을 어엿한 신사로 만들고 말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성공했다.

그래, 네 자신을 보아라, 얘야! 여기 네가 머물고 있는 이 숙소들을 한 번 둘러 보거라, 공작(귀족)에게도 적합할 방들이로구나!

공작이 다 뭐냐? 오! 넌 공작들과 누가 더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지 내기를 걸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게다!”

(죄수의 긴 대사 끝)

자신의 열기에 취해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에 취해, 그리고 내가 거의 실신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 반응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나마 내가 안도하는 바였다.

“여길 봐라, 얘야!” 그가 내(주인공) 호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면서 그리고 내 손가락에 끼어져 있던 반지를 자기 쪽으로 돌린 후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 동안 나는 그가 마치 뱀이라도 되는 마냥 그의 접촉에 흠칫 놀라고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멋진 금시계구나. 이거야 말로 신사의 시계지, 암!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둘레를 루비(보석)들로 장식했구나. 그래 이것이 신사의 반지지, 암! 네 셔츠를 보거라. 질 좋고 아름답구나! 네 의복들은 또 어떻고, 이보다 더 좋은 옷감들은 찾을 수 없을 게다. 네 책들도 마찬가지구나.”

그가 시선을 돌려 내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수백 권, 그래 선반 가득 수백 권은 쌓여 있어! 넌 저 책들을 다 읽었겠지? 내가 들어올 때도 네가 책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하, 하, 하! 얘야, 저 책들을 내게도 읽어줄 수 있겠니? 저 책들이 만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쓰여 있더라도, 네가 읽어만 준다면 난 꼭 내가 읽은 것만큼이나 자랑스러울 게다.”

그가 다시 내 두 손을 잡더니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 동안 내 피는 싸늘하게 식어갔다.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핍(23세, 주인공이름).”라며 그가 자신의 소매로 자신의 두 눈과 앞이마 부위를 대패처럼 밀어 닦은 후 말했다. 그의 목에서 “찰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소리였다. (어릴 적 주인공은 두려움에 떨며 죄수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도 죄수가 말을 할 때마다 목에서 “찰깍”하는 쇳소리가 나는 것을 신기하게 여겼었음)(3장의 한 구절 → 〈 그가 말을 할 때 마다 “찰깍”거리는 어떤 소리가 났다. 마치 그의 목에 시계가 있어 조 만간 “따르릉”거리며 시간을 알려줄 것 같았다. 〉<http://blog.naver.com/osy2201/10185307688> ←링크는 깨졌을 수도 있음)

그는 정말 진심이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를 더 끔찍하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가 말했다.

“넌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겠구나, 얘야. 넌 내가 했듯이 이 순간을 서서히 기대하진 않았을 테니까. 넌 내가 했듯이 이 순간을 준비해오지도 못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 던 거니?”

“오 아뇨, 아뇨, 아뇨.” 내가 대답했다. “전혀, 전혀요!”

“자, 너도 이제 그것이 나란 사실을 알았을 테지, 이 모두 그 누구도 아닌 나 혼자서 한 일이란다. 내 자신과 ‘재거스 씨’(런던에서 제일 유명 변호사)를 제외하곤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 밖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나요?” 내가 물었다.

“그래.”라며 그가 흠칫 놀라는 표정(주인공이 굉장히 미남인 것을 보고 놀람)을 한 번 지어보이더니 말했다. “그 밖에 누가 있을 수 있겠니? 그리고, 얘야, 넌 정말 잘 생기게 자랐구나! 어딘가에 아리따운 눈을 가진 여인이 따로 있을 테지…, 응? 어딘가에 아리따운 눈을 지닌 아가씨가 없니, 네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아가씨 말이다 응?”

(주인공의 생각 속 독백→) 오 에스텔라, 에스텔라!

(아래의 글 전부 다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 이번 39장에서는 긴 대사가 자주 나오네요. 그만큼 디킨스가 몰입해서 썼다는 증거겠죠. 아님 알아듣지도 못하게 단락을 길게 늘이는 이상한 글쓰기가 당시 유행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죠. ^o^;;)

(죄수의 대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임의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말하는 대사입니다.)

“그 아가씨들은 이제 모두 네 것이다, 얘야. 만일 그녀들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말이다. 물론 너 같은 신사가 할 짓이 아닐 테지. 너같이 모든 조건을 갖춘 신사라면 신사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녀들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돈이 널 받쳐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려던 말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겠니. 얘야.

거기 오두막에서 그리고 거기서 일한 대가로 내 주인이 내게 돈을 남겨주었단다. 물론 그는 죽었다. 나와 같은 유형 수(유형 = 섬으로 보내 가두어 버림) 출신이었지. 그리고 난 자유의 몸이 되어 내 자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단다.

내가 뛰어든 모든 일마다 나는 매번 너를 위해서 일했다. ‘주님 제게 재앙을 내려주소서.’

그 일이 무엇이든 나는 매번 이렇게 대내였단다.

‘만약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신다면!’

모든 일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단다. 너에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난 그 일로 유명하단다.

‘주인이 내게 남겨주었던 돈’과 ‘내가 첫 몇 해 동안 벌어들인 이득

들’을 나는 고국(영국)에 있는 ‘재거스 씨’(런던에서 최고로 유명한 변 호사)에게 보냈단다. 그건 모두 널 위한 돈이었단다. 내 편지에 적힌 대로 그가 너를 처음으로 찾아간 것도 그때란다.”

(주인공의 생각 속 독백 시작)

오 ‘재거스 씨’(런던 변호사)가 내 집으로 와 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재거스 씨가 나를 대장간(주인공의 집과 대장간은 붙어 있음)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럼 결코 만족하진 못했어도 지금에 비해 행복했을 텐데!

(주인공의 생각 속 독백 끝)

(독백의 앞뒤 배경 설명 : 주인공은 어릴 적에 대장간 수습공(일을 배우는 직공)이었는데 항상 대장장이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환경에 만 족하지 못하며 오매불망 큰 행운을 꿈꾸다 재거스 씨가 찾아와 주인공과 가족들에게 ‘이제 그 애는 막대한 유산을 물러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삶이 바꿔져 런던으로 상경해 신사교육을 받고 신분상승을 이루었지만, 결국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듯이 허울만 좋은 신사이지 흥청망청 돈을 쓰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막대한 빚을 지고 결국 사랑하던 여인도 주인공 보다 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경쟁자에게 빼앗기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자신의 예전 대장간 수습공(직공)시설을 그리워할 즈음 느닷없이 주인공이 항상 다시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 죄수가 나타난 것임)

(독백의 앞뒤 배경 설명 끝)

(아래의 글 전부 다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o^;;)

(단락이 길어 임의로 여러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모두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

(죄수의 긴 대사 시작)

“그런 다음엔, 얘야, 여길 보겠니. 내가 신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내겐 하나의 보상이었단다. 내가 걸어가는 동안 그곳(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주민들이 탄 ‘서러브레드’(순수한 계통의 고급 말임. ‘경마용으로 쓰이는 말’을 상상바람)의 발뒤꿈치가 내 쪽으로 흙먼지를 올려 찰 때에, 내가 무어라고 말했겠니?

그래 나는 이렇게 대내였단다.

‘이 자식들아 나는 너희들 보다 백배 천배는 더 잘난 신사를 기르고 있다.’라고.

그들(식민지 주민들) 중 누군가가 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놈은 유형자(섬에 보내 가둔 자)였지. 저 놈에게 운이 트이는 바람에 부자가 되었다지만 저 놈은 어디까지나 못 배워 처먹은 천한 것일 뿐이야.’라고 말할 때면. 그래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주었겠냐?

나는 그럴 때면 이렇게 속으로 대내였단다.

‘그래, 이놈들아, 난 신사도 아니고 못 배워 처먹은 바보천치일 뿐이다. 하지만 네 놈들도 모르는 것이 있어. 내가 많이 배우고 때깔 나는 신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는 가축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겠지, 그래 이 놈들아 너희들 중 어느 놈이 내가 기르는 것만큼이나 잘 자란 런던 신사를 알고 있다더냐?’라고.

이것이 유형지에서 내 자신을 추스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다가오는 날에 그 애가 자라온 영국 땅에서 그 애를 만나 나에 대해 반드시 알려주리라고 내 마음 속에 고이 간직해 왔던 신념이란다.”

(죄수의 긴 대사 끝)

그가 자신의 손을 내 어깨 위에 얹자 나는 흠칫 놀랐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의 손이 피로 더럽혀져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쉽지 않았단다,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내가 그 곳을 탈출하는 게 말이다.(유형지를 벗어나면 사형임) 또한 안전하지도 않았고 말이다. 하지만 난 굳건히 나와의 약속을 지켰단다. 그것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의지는 굳건했지. 난 확고했고 결심을 이미 마친 상태였으니까. 마침내 난 탈출할 수 있었단다. 얘야, 내가 그걸 해냈어!”

나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려야 차릴 수가 없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내, 나는 그의 목소리보다는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과 비의 소음에 내 자신이 더 주의를 기울였던 것만 같았다.(창밖에선 지금 폭풍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휘몰아치며 엄청난 비바람을 뿌리고 있는 중임)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조차도, 나는 그의 목소리를 창밖에서 들리는 소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비록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시끄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을 지라도.

“날 어디에 재울 거냐?”라며 그가 머지않아 물었다. “나도 어딘가에 묵어야 하지 않겠니. 얘야.”

“주무시게요?”라며 내가 말했다.

“그래. 좀 조용히 오랫동안 잠들고 싶구나.” 그가 대답했다.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고, 바닷물을 온통 뒤집어쓰며 왔단다, 수개월을 그렇게 말이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라며 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지금 부재중이에요. 그 친구 방을 쓰세요.”

“그가 내일 돌아오진 않겠지, 얘야?”

“네.” 제대로 대답하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기계적인 대답이 나와 버렸다. “내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심해라, 얘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인상적인 자세로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내 가슴 위에 대며 말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단다.”

“무슨 의미세요? 경계라니요?” “죽음이란 소리지!”

“무슨 죽음이요?”

“나는 종신형(평생 감옥)을 선고받고 유형(섬에 보내져 가둠)에 처해 진 거란다. 그러니 귀국은 내게 있어 곧 죽음을 의미하지. 요즘엔 그런 식으로 귀국하는 유형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졌지. 아마 잡히는 날엔 나도 교수형이 틀림없단다.”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았다. 이 가련한 사나이는 수년 동안 불쌍한 내게 자신의 금줄(금의 줄)과 은줄(은의 줄)을 채워주고는 단지 나를 만나기 위한 일념 하나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 수천 킬로미터 바다를 건너왔던 것이다. 그리

고 그 점에서 내가 그의 목숨을 수중에 두게 된 것이다!

만약 내가 그를 혐오하지 않고 사랑했더라도, 만약 내가 가장 강한 반감을 지니고서 그에게서 몸을 움츠리지 않고 가장 강한 존경과 애정으로 그에게 매료되었더라도,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되었을 리 없었다. 반면에 상황이 이 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보호해

준다는 사명이 좀 더 내 심장에 당연하고 상냥하게 호소했을 테니까.

유형지를 탈출한 그를 위해 한, 내 첫 번째 조치는 창문 밖의 덧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불빛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창문들을 모두 닫고 단단히 잠갔다.

내가 이러한 조치를 하는 동안, 그는 테이블 곁에 서서 럼주(사탕수수에 물을 타서 발효시켜 만든 술)와 비스킷을 먹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열중해 있는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늪지대에서 그 죄수가 음식을 게걸스럽게(허겁지겁 욕심내며) 먹던 그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건 마치 그가 이내 허리를 굽힐 것만 같은 그래서 자신의 다리에 채워진 족쇄를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로 갈 것만 같은 그런 분 위기였다.

나는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의 방으로 들어가, 허버트의 방과 건물내부계단(=층계=건물 내부에 1층에서 꼭대기 층까지 지그재그로 죽 이어져 있는 계단)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다. 그 결과 ‘허 버트의 방’은 내가 죄수와 대화를 나누었던 ‘방(서재 겸 방)’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었다.

“지금 침대로 들어가실 건가요?”라고 내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가 “그러마.”라고 대답했다. 그가 내게 “신사의 의복”을 몇 점 입게 달라고 했다. 아침에 입을 수 있게 말이다.

내가 옷을 몇 점 꺼내와 그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아드렸다. 그때 그가 다시 내 두 손을 붙잡곤 “잘 자거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 피는 다시 얼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서 벗어났는지 생각나지도 않는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방(서재 겸 방)에 있던 벽난로의 불을 되살리고 나서 나는 그 옆에 앉았다.

한 시간이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나는 너무나도 망연자실한 상태라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난파당했는지를 완전히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내가 돛을 올려 출범한 배(런던신사가 되어 에스텔라와 결혼할 수 있을 거란 희망)가 어떻게 해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지를 철저히 깨닫기 시작했다.

나를 향한 ‘미스 해비샴’(주인공 고향에 사는 막대한 거부. 부자)의 의도들은 모두 한낱 꿈이었을 뿐임이 판명 났다.

그리고 에스텔라는 내게 예정되어있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하나의 편의(편리한 것)로써 고생을 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저, 미스 해비샴이 자신의 탐욕스러운 친척들(미스 해비샴이 빨리 죽어 유산을 받길 원하느 친척들)을 상처내기 위한 가시(침)였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어떤 다른 실습도 가까이에 없을 때 연습용 상대로써 그래서 인공심장을 지닌 하나의 모델이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느꼈던 쓰라림들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쓰라림들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가장 깊은 고통을 주는 것은, 내가 조(58세, 선량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 주인공의 친누나의 남편. 주인공의 친누나는 이미 죽었음)를 버린 이유가 이 죄 수(허버트 방에서 자고 있는 죄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 유형지에 보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이 집에서 붙잡혀 나갈지도 모를 이 죄수, 그래서 ‘런던의 중앙 형사 법원’(법원 이름이 ‘올드 베일 리’임)의 출입구에서 교수형에 처해질지도 모를 이 죄수를 위해 내가 선량한 조를 버렸다는 사실이 내게 가장 깊고 날카로운 고통을 주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떤 이유로든 조(58세, 선량하지만 많이 어리숙한 인물)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이제 어떤 이유로든 비디(26세, 주인공의 전 여친)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이 내게 가치가 없다는 듯이 행동한 것에 대한 내 의식이 어떤 다른 설명으로도 납득이 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지혜도, 그들이 내게 주었던 소박함과 신의를 내게 다시 줄 리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저질렀었던 행동(주인공은 조와 비디를 부끄 러워했었음. 미천하다고)들만은 절대로, 절대로 무효로 만들 수도 그렇다고 원상태로 돌릴 수도 없었던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중에도 나는 추적자들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다.

두 번씩이나, 나는 바깥쪽 문에서 누군가가 노크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음을 맹세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를 덮쳐버린 이러한 두려움들에 휘감겨 버린 나머지, 나는 이 죄수의 등장을 사전에 알리던 설명하기 힘든 경고들이 무수히 있었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더듬어보기 시작했다.

즉, 지난 수주일(1주일 2주일 할 때의 ‘주일’)동안, 나는 거리들에서 이 죄수의 얼굴과 닮은 얼굴들을 지나쳤었던 것만 같았다. 그가 바다를 건너 와 내게로 점점 접근함에 따라 그러한 얼굴들을 접한 횟수가 월등히 증가했었던 것만 같았다.

이 죄수의 사악한 영혼이 왠지 내 영혼에게 이러한 전달자들(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냈을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폭풍우가 치는 밤에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나타나 나와 함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밀려왔다.

그가 내 어린(주인공이 12살 때 / 주인공의 현재 나이는 23세)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독히 폭력적인 사람임에 틀림없어보였다는 사실과, ‘저 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며 또 다른 죄수(사기꾼 악당)가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던 모습과, 그리고 그(죄수)가 다른 죄수(사기꾼 악당)와 뒤엉켜 마치 야수처럼 도랑 아래에서 찢기고 때리며 싸우던 모습이 다시 기억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을 회상하고 나자,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 외로운 밤에 그와 단둘이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직은 덜 성숙된 두려움이 내가 쳐다보고 있던 벽난로의 불빛 속에서 되살아났다.

이 공포심이 옆으로 퍼져 내가 있던 방을 가득 채우고서 결국 내가 촛불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내 무시무시한 부담감(죄수)을 살펴보도록 만들었다.

그는 머리 둘레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감싸고 있었다. 자고 있을 때에도 그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잔득 흐리고 찌푸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비록 그의 권총 한 자루가 베개 위에 놓여 있었을 지라도.

그가 잠든 것을 확인 한 나는 열쇠를 문 바깥쪽 열쇠구멍으로 조용히 옮긴 후 잠갔다.

그런 후 나는 다시 벽난로 가로 와 앉았다.

나는 점차(서서히)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바닥 위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잠이 들어서도 내 가엾음에 대한 자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 집 동쪽 편에 있는 교회들에서 아침 5시를 울리는 종이 울리고 있었다.

촛불은 모두 타 꺼진 상태였고, 벽난로의 불도 죽었으며, 비바람이 칠흑(광택이 나는 검은 색)같이 어둡고 무거운 캄캄함을 더 심화시키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핍(주인공이름)의 유산’ 두 번째 무대의 끝입니다.” (← 이 문장은 디킨스가 쓴 문장입니다. 영어원문에도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추가한 문장 아닙니다^^.)

(소설의 전체 줄거리 상 ‘첫 번째 단계’니 ‘두 번째 무대’니 하는 말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디킨스가 신문에 『 위대한 유산 』 을 연재하면서 임의로 넣은 문장입니다. 아니면 그때 당시에 책으로 출간하면서 편집장이 추가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이제 액션만 나오면 금상첨화 굿굿~)

(참고로 핍(주인공이름)의 유산 첫 번째 단계의 끝은 “19장”였습니다. 링크 걸었습니다. <http://blog.naver.com/osy2201/220020879467> ← 링크는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19장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19장의 내용은 주인 공이 고향을 떠나 막대한 유산과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런던으로 가는 마차에 올랐다가 서서히 고향과 멀어지면서 슬퍼 눈물을 흘렀다가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런던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39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40장에서 계속됩니다.)

**위대한 유산**

**40장**

다행이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무시무시한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내가 미리 취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나를 압박하는 바람에 혼란해진 내 머리가 다른 생각들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내 방들에 계속 숨겨두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시도는 필연적이다시피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이제는 어떤 ‘원수(주인공이 비싼 돈을 주고 부렸지만 거의 아무 일도 안했었던 심부름꾼 소년)’의 시중도 받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는 두었는데, 매사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신의 조카라고 부르는 활기차고 옷차림이 추레한 어떤 여성의 도움을 받아가며 내 가사도우미 일을 도맡고 있었었다.

당연히 이 두 여성에게서 방 하나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호기심과 과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들 두 여성 모두 시력이 나빴는데, 나는 그것의 원인이 열쇠구멍을 잠깐씩 들여다보는 그들의 만성적인 행태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다분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두 여성은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항상 내 가까이에 있곤 했는데, 정말이지 그것은 도둑질을 제외하고 그들의 믿을 만한 유일한 자질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아침에 “갑작스레 제 삼촌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촛불을 밝힐 수단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여기저기를 손으로 더듬는 동안 나는 이러한 행동방침(“죄수를 시골에서 올라온 자신의 삼촌이라고 말하려는 것”)들을 결정했다.

결국 도구를 찾지 못한 나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가까운 수위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수위보고 그의 랜턴(=유리 덮개를 씌운 등)을 들고서 같이 가자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나는 껌껌한 건물내부계단(층계)을 따라 앞을 손으로 더듬으며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게다가 그 뭔가는 계단참(위층 계단과 아래층 계단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한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떤 남성이었다.

내가 그(‘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죄수의 등장과 함께 수상한 사람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런던 사복경찰들까지도 주인공의 주위를 맴돕니다.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죠~,~액션 좋아~)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그러면서도 고묘히 내 손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수위실로 뛰어가 수위에게 빨리 와 줄 것을 강력히 재촉했다. 그리고 오는 중에 수위에게 그 특이한 일에 대해 얘기해주었다.

바람이 유례없이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랜턴(등불) 덮개를 열면서까지 건물내부계단(층계)에 있는 꺼진 램프들을 되 밝히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진 않았다.

우리는 건물내부계단(층계)의 바닥부터 꼭대기(주인공의 방이 있는 층)까지 조사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수상한 남성(계단중간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수상한 남성)이 내 방들 안으로 몰래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위가 들고 있는 랜턴으로 내 촛불을 밝히고서, 수위를 출입구에 계속 서 있게 한 후, 내 방들을 조심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다. 내가 조사한 방들 중에는 내 끔찍한 손님이 누워 자고 있는 방도 포함 되었다.

모든 방들이 조용했고, 확실히 그 침실들에는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확실히 없었다.

일 년 365일의 밤들 중에서 하필 그날 밤에 허가받지 않은 거리 상인이 건물내부계단(층계)에 있었다는 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위에게 물어보았다. 그에게서 어떤 희망적인 설명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며 은근히 기대하며, 내가 출입구에 서 있는 그에게 맥주 한 모금을 건네면서 물었다.

“밖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어떤 신사를 정문에서 통과시켜준 적이 있으세요?”라고.

“그렇습니다요.”라며 그가 말했다. “많이 다른 시간에 세 번 있었습죠. 모두 한 밤중이었데요.”

그가 계속 말했다.

“한 사람은 파운튼 코트(분수 근처 집???? 어딘지 모름^^;; 주인공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안으로 또 건물이 있지 않을지????)에 사는 사람이고, 다른 두 사람은 레인(오솔길??? 역시 어딘지 모름??? 주인공의 수위실 문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집인가 봅니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 모두 집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영화에서 본 대로 설명하면 주인공이 있는 수위실 출입구를 통과하면 또 집들이 있는 구조임???? 모르면 쓰지를 말든가? 내가 왜 썼을까 싶음.-\_-;; 아무런 생 각이 없음)

내 침실들이 있는 가옥(집)에는 나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살고 있었다. 그는 요 몇 주일동안 고향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간밤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 확실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수위와 내가 건물내부계단 들을 올라가는 동안 그의 방 출입구가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밤에 날씨가 몹시 나빴지 않습니까요, 나리.”라며 그 수위가 내 잔을 돌려주며 말했다. “정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는걸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신사 분들을 제외하곤 말입죠. 어떤 낮선 사람이 어젯밤 11시 정도에 나리에 대해 물은 이후로는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요.”

“제 삼촌이에요.” 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예 삼촌요.”

“그럼 그를 보셨습니까요, 나리?”

“예. 아 예.”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왔던 사람도 말입니다?”

“그와 같이 왔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놀라서 말했다.

“저는 그(죄수)와 함께 온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뎁쇼.”라며 수위가 반응했다. “그(죄수)가 제게 물으려고 걸음을 멈추면 함께 온 그 사람도 멈추었고, 그(죄수)가 이쪽으로 쭉 가니까 함께 온 그 사람도 이쪽으로 쭉 가든걸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는데요?” 수위는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노동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하던데. 그거 참 기억이….” 그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함께 온 그 사람이 갈색 작업복(검은 빛이 도는 갈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납니다요. 작업복 위에 검정색(짙은) 외투를 그 사람이 입고 있었습죠.”

내가 엄청 진진한데 반해, 그 수위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당연했다. 그가 나처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위를 보내주었다. 그의 설명을 더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발생한 이 두 사건은 내 마음을 엄청 불안하게 했다.

반면에 그 일이 각각 개별적인 사안들이라면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기는 쉬웠다.

예를 들면 밖에서 식사를 가졌든 안에서 식사를 했든 누군가가 여기 이 수위실 정문을 통과하지 않은 채, 길을 잃고 우리 집 건물내부계단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었고 또 그러다 거기에서 곧 잠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름을 아직 모르겠는 내 방문자가 길 안내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왔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시간동안의 변화들이 내게 불신과 두려움을 준 것만큼이나 이 두 사안을 같이 놓고 생각해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과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험악한 측면이 있었다.

벽난로의 불을 밝혔다. 아침 이맘때쯤이면 벽난로의 불은 잠깐 동안 만 확 타올랐다. 날것 그대로의 핼쑥하고 엷은 색깔의 불빛이었다.

그러다 벽난로 앞에서 나도 모르게 깜박 졸고 말았다.

시계가 아침 6시를 울렸다. 하룻밤 내내 꾸벅꾸벅 졸은 것만 같이 제대로 못 잤다.

햇빛이 비치려면 아직 한 시간 반은 족히 더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깜빡 잠이 들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장황한(긴) 대화들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불안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굴뚝 내부에서 바람이 만든 천둥 같은 소리를 듣기도 했다.

결국 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햇빛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

지금껏 내내 나는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볼 여유가 전혀 없었었다. 또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체력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아주 실의에 빠져 낙담해 있는 상태였고 심리적으로도 괴로운 상태였다. 하지만 다수의 비논리적인, 뭐랄까 생각들에 휩싸여는 있었다.

앞으로의 일들에 관해 어떤 계획을 세우는 문제라면, 나는 차라리 그 즉시 코끼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창문 덧문들을 열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아침을 내다보았다. 주위는 온통 탁한 회색 빛깔을 띠고 있었다.

나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걷다가, 벽난로 앞에서 몸을 떨며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가사도우미 할머니와 할머니의 조카가 빨리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며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 해보았다.

하지만 “왜?” 비참한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내가 얼마동안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내가 어떤 요일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가사도우미 할머니와 할머니의 조카가 도착했다. 할머니의 조카는 자신이 들고 있는 먼지투성이 빗자루와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내 모습과 벽난로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내 삼촌(주인공이 죄수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로 자신의 삼촌이라고 말함)이 어떻게 해서 간밤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침실에서 잠자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녀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아침식사 준비들이 수정되어야함을 얘기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들이 가구 여기저기를 두드려대며 먼지를 만드는 동안, 나는 씻고 옷을 차려 입었다.

그리하여 나는 일종의 꿈 또는 최면술에 걸린 사람 마냥, 다시 한번 벽난로 가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죄수)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그의 방이 열리고 그가 나왔다.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햇빛에 의해 그의 모습이 더 흉측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전 이름도 모르는 걸요.” 그가 테이블 가에 있던 의자에 앉는 동안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되죠? 전 아저씨가 제 삼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놨어요.”

“딱 좋다, 얘야! 나를 삼촌이라 부르렴.”

“그래도 이름은 가지고 계셔야죠. 배에 선승해 있으실 때는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사용한 이름은 ‘프로비스’란다.” (‘프로비스’란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후 소설 속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 하거든요.)

“그럼 그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글쎄, 그럴까 한다, 얘야. 다른 것만큼이나 좋지 않니. 만약 네게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야 몰라도.”

“실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소곤소곤 그에게 물었다. “‘매그위치’란다.” 그가 동일한 말투로 이렇게 덧붙였다. “기독교 세례명으론 ‘아벨’이지.”(아시겠지만, 종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 에 → 아담과 이브의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였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벌레만도 못한 놈이었단다(불량배였단다). 얘야.”

그가 아주 심각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마치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나타내는 마냥 그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잠깐 앞뒤 설명 : 죄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 외우기 힘드시면 몰라도 됩니다. 유형지를 탈출한 죄수란 것이 중요합니다. 걸리면 사형이란 게 중요하죠. 소설의 이야기 진행 상 ‘매그위치(가명: 프로비스)’의 나이는 57세 정도 됩니다.)

“어젯밤 템플(템스 강 인근이자 런던 중앙)에 오셨을 때요….” 그가 온 것이 정말로 어젯밤인지 아니면 더 오래전인지를 순간 엄청 헷갈린 내가 멈칫하며 말했다.

“그래, 얘야?”

“아저씨께서 정문으로 들어오셔서 수위에게 여기 이쪽 방향으로 오는 길을 물었을 때요, 일행이 있으셨던가요?”

“누구 말이냐? 전혀 없었단다, 얘야.” “하지만 거기에 누가 있지 않았나요?”

“특별히 눈여겨 본 사람은 없었단다.” 그제야 그가 수상쩍어 여기며 말했다. “이곳의 길을 잘 모르니까 말이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긴 있었던 것 같다. 나를 따라 누군가 들어오더구나.”

“아저씨가 런던에서도 알려져 있나요?”

“아니길 바란다, 얘야!” 그가 자기 집게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시늉을 해보였다. 그것이 나를 덥고 메스껍게 만들었다.(주인공 마을 인근에 늪지대가 있는데, 늪지대 너머로 더 가면 버려진 교수대가 보임. 어릴 적에 주인공이 버려진 교수대를 보며 겁을 먹곤 쓸데없는 상상을 하곤 했음)

“그럼 이전엔 날리셨다는 얘긴가요?”

“덧붙일 필요도 없다, 얘야. 난 대부분의 생을 지방에서 보냈으니까.”

“재판은 런던에서 받으신 거 아니었어요?”

“언제 말이냐?” 그가 매서운(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마지막 재판이요.”

그가 고개를 끄떡였다. “그렇게 재거스 씨(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처음 알게 되었지. 그가 내 변론(변호사)을 맡았단다.”

“그게 어떤 재판이었….”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나이프(칼)를 집어 들더니 한 번 흔들어댔다.

그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 죄 값에 대한 지불은 노역(일하는 죄수)으로 모두 지불했다!” 그가 아침식사를 시작했다.

그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양 먹어댔다. 유쾌하지 못한 광경이었 다. 그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두 상스럽고 시끄럽고 탐욕스러웠다.

늪지대에서(주인공이 12살 때 죄수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었을 때) 그가 먹는 모습을 본 이후로 그는 이빨 몇 개 떨어지고 없었다.

그는 음식을 입으로 퍼 담고는 자신의 가장 강한 송곳니들(사람의 ‘어금니’가 아니라 동물의 ‘송곳니’를 말함)을 움직여서 음식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털었을 때는 정말이지 그가 한 마리의 늙고 지독하게 굶주린 개 같았다.

식욕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더라도 그가 다 날려버렸을 것이다. 그리 고 처음 의자에 앉았던 그 자세 그대로 나는 앉아 있었을 것이다.

대처할 수 없는 혐오감에 역겨움을 느낀 나는 그저 우울한 표정으로 식탁보만 바라보고 있었다.

“난 대단한 식탐 가란다, 얘야.” 그가 자기 몫의 음식 접시들을 모조리 비운 다음에 예의랍시고 하는 말이었다. “항상 그랬지만 말이다. 내 체질이 좀 적당한 식탐 가였다면 그 생고생들도 좀 덜 겪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를 좀 피워야했지. 지구 반대편에서 양치기로 처음 고 용되었을 때, 만약 내가 ○배를 몰랐었다면 아마 난 장기적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 감에 젖은 양(가축)으로 변해버렸을 게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피 코트’(선원용 코트, 이미지 링크 [http://term](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9815&amp;cid=42822&amp;categoryId=42822)s.naver.com/entry.nhn?docId=289815&cid=42822&catego [ryId=42822](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9815&amp;cid=42822&amp;categoryId=42822) , 검색일자 : 2014-10-31)의 가슴께로 손을 집어넣더니 ‘짧은 검정색 파이프’와 ‘가루○배 한 줌(한 움큼)’을 꺼냈다. 그 가루

○배는 씹는○배의 일종으로 질이 나쁜 종류의 것이었다.

파이프에 가루○배를 채워 넣은 그가 남은 가루○배들을 도로 가슴 께로 집어넣었다. 마치 그 호주머니가 서랍장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그런 다음, 그는 집게로 벽난로에서 불이 아직 살아 있는 석탄하나 를 집어 자신의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자신의 등이 벽난로 쪽으로

향하게 돌아서며 벽난로 앞에 깔린 깔개 위에 섰다.

그가 곧 좋아하는 동작을 취했다. 물론 그것은 내 손을 쥐기 위해 자신의 두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연신 내 손을 쥐고 위로 들어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하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신 파이프를 뻐끔뻐끔 피워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키운 신사란 말이지! 그래 영락없는 진짜 신사야! 널 이렇게 보고 있자니 내가 착해진 기분이구나, 핍(23세, 주인 공이름). 내가 바라는 것 이거뿐이란다. 단지 네 곁에 서서 너를 바라 보는 것이다, 얘야!”

나는 최대한 빨리 내 손을 그의 손에서 풀었다. 나는 발견했다. 내가 서서히 내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일에 착수하기 시작했음을 말이다.

그의 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의 머리가 깊은 주름살이 진 대머리인 것을 올려다보며 앉아서 그리고 그의 머리 양 옆에서만 자라 있는 철(금속)과 같은 회색(색깔)의 머리카락들을 올려다보며 앉아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그 쇠사슬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는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래는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

“나는 내 신사가 거리의 진창(질퍽질퍽한 곳)에 발을 디디는 것을 볼 순 없단다. 암 그 어떤 진창도 내 신사의 부츠에 묻어선 안 되고말고. 내 신사는 자신의 말들을 타야한다,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네가 탈 말들과, 네 마차를 끌 말들과 그리고 네 하인들이 몰고 다닐 말 들도 있어야 하고말고. 암. 식민지 주민들도 지들의 말들이 있는데 하 느님 맙소사 그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은 순종 말들이지 뭐냐. 아니 그런데 우리 런던 신사 분에게 말이 없어서야 쓰나? 암, 암. 두고 보라지, 네 그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테니까, 자 핍 그래줄 거지?”

그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핸드백을 꺼냈다. 그 핸 드백은 지폐들로 터질 듯했다. 그가 테이블 위에 그 핸드백을 던져 놓았다.

“이 돈 다발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얘야. 죄다 네거다.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죄다 네 것이다. 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떠나온 곳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고 그 모두 이제 곧 네 것이 될 테니까. 나는 오직 내가 키운 신사가 기품있게 돈을 써대는 것을 보기 위해 고국으로 되돌아온 거다. 그거야 말로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내 기쁨이야 말로 네가 내 돈을 사용해주는 거다. 암. (갑자기 뒤돌아보며) 네 놈들을 죄다 날려버리고 말테다!”

그가 신경을 곤두세우며 방을 뒤돌아보며 “딱!”하고 손가락 관절 꺾는 소리를 한 번 내더니 말했다.

“죄다, 가발 쓰고 있던 그 망할 놈의 판사부터 시작해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 옆을 지나갔던 망할 놈의 식민지 주민들까지 죄다 네(주 인공)가 날려버리고 말테니까, 암. 네 놈들을 죄다 날려버리겠어! 네 놈들을 죄다 합친 것보다 더 잘난 영국 런던신사를 내가 보여주고 말 테니까!”

“그만 좀하세요!” 내가 거의 광란하듯 걱정하며 그리고 반감을 나타내며 말했다. “아저씨께 이 말만은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지도 듣고 싶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런던에 머무실 예정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도요.”

“여길 보거라, 얘야.” 그가 급작스레 태도를 바꿔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으면서 말했다. “무엇보다도, 여길 보거라. 나는 아까까지만 해도 내 자신을 잊었지 뭐냐. 내가 했던 말들은 별로 좋지 못한 말들이었다. 그렇고말고. 질이 나빴어. 여길 보거라, 핍(23세, 주인공이름). 내 말을 못 들은 체 해다오. 나는 더 이상 천해지지 않으련다.”

“우선.” 내가 반쯤 신음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이어갔다. “아저씨가 발각되어 체포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예방조치들을 취할 수 있죠?”

“아니다, 얘야.” 그가 좀 전과 같은 어조로 말했다. “그게 제1위가 아니란다. 비천한 것이 제1위란다. 나는 신사를 길러내기 위해 아주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런 내가 무엇이 신사를 위한 일인지 몰라서야 쓰겠니. 여길 보거라, 핍(23세, 주인공이름). 내가 저속했다. 그게 나였 단다. 저속하고 천했지. 얘야, 그러니 너그럽게 봐다오.”

잔인하고 터무니없는 어떤 감정이 나를 조바심치게 만드는 바람에 나는 웃고 말았다.

내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똑같은 얘길 되풀이 하실 거예요!”

“그러마. 하지만 여길 봐다오.” 그가 집요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다. “얘야,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온 것은 저속하고 천해지려는 게 아니 었단다. 자, 계속 말해 보거라, 얘야. 내가 말하려든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서 어떻게 하면 아저씨를 구할 수 있느냐고 요?”

“글쎄다, 얘야, 그 위험이라는 게 그리 크지 않단다. 첩자(첩보원)들이 나를 밀고만하지 않는다면야 그렇게까지 문제될 위험은 없을 게다. 어차피 재거스(런던 변호사)와, 웨믹(재거스의 서기, 착함)과, 그리고 너 뿐이지 않니. 그밖에 누가 또 신고할 사람이 있겠니?”

“누군가 길거리에서 아저씨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잖아요?”라며 내가 말했다.

“글쎄다.”라며 그가 반문했다. “많지는 않을 게다. ‘보타니 베이’(오 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인근의 만. 만=바다가 육지로 휙 파고 들어온 곳. 보타니 베이는 영국의 죄수 식민지.←네이버참조 / 쿡 선장이 처음 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곳이기도 함. 이후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이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대신 알아서 살라며 죄수를 보내 버리던 식민지임, 단 영국으로 귀국할 경우 사형임)에서 돌아온 홍길동이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지 않는다면야…. 이젠 세월도 많이 흘 렀는데 누가 나를 밀고해 이득을 보려하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 (23세, 주인공이름). 여길 보거라, 만일 위험이 그것의 50배는 컸더라 도 나는 널 만나러 고국으로 돌아왔을 거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였다.”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실 건데요?”

“얼마나, 라니?”라며 그가 말했다. 그가 입에서 시꺼먼 파이프를 빼 자신의 입을 떡 벌리더니 말했다. 물론 그는 나를 쏘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난 돌아갈 생각이 없단다. 난 영원히 돌아온 거다.”

“어디에서 사실 건데요?”라며 내가 말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리고 어디가 안전하실 것 같으세요?”

“얘야.”라며 그가 반문했다. “가발로 변장하면 되잖니. 돈도 가져왔겠다. 머리에 바르는 가루(화장품?)도 있겠다, 안경이며 일꾼들이 입고 다니는 검은빛의 웃옷이며, 반바지 등등을 돈을 주고 구입하면 되지 않겠니. 이전에 영국으로 밀입국 했던 유형수(죄수)들도 모두 그렇게 해서 안전할 수 있었다. 그들도 했는데 나라고 경찰들을 따돌리지 말 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니. 기거하고 살 방도에 관해서라면 말이다. 그 것에 대해서라면, 얘야, 네 조언을 듣고 싶구나.”

“지금은 그렇게 차분히 말씀하시지만,”라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어 젯밤만 해도 아저씬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셨잖아요. 맹세하건데 걸리면 죽음이라고요.”

(아래의 글 모두 죄수의 긴 대사입니다. 죄수 이름은 ‘매그위치’입니다. 그의 가명은 ‘프로비스’입니다. 나이는 57세 근육이 잘 발달된 건장한 남성입니다.)

(죄수의 긴 대사 시작)

“그래 그것이 죽음이라고 내가 맹세했지.” 그가 파이프를 다시 입에 물며 말했다. “아마 교수형이겠지. 이제는 멀리(오스트레일리아로 유 형)까지 갈 필요도 없이 시장거리에서 형이 집행될 거다. 일이 그리 될 거란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한다는 말은 진심이란다. 그럼 그걸 충분히 이해했으니 그 다음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난 이미 여기에 있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 머무는 것만큼이나 나쁜데. 아니 더 험 악하지. 게다가, 핍(23세, 주인공이름), 난 네 옆에 몇 해고 있을 작정으로 건너 온 거란다. 내가 앞으로 무모하게 굴지에 대한 것을 묻는 거라면 말이다. 난 이제 조심성이 많은 새란다. 처음 날기 시작한 이후로 온갖 종류의 덫(함정)들을 뚫고 온 사람이지. 난 이제 허수아비 위에 걸터앉는 것도 두렵지 않단다. 만약 허수아비 안에 죽음이 숨어 있 다면, 있다면, 녀석을 끄집어내다오. 그럼 내가 녀석을 마주봐주마. 그 러고서야 난 그 녀석이 존재함을 믿겠다. 그 전엔 안 믿겠다. 자 이젠 내가 내 신사를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해다오.”

(죄수의 긴 대사 끝입니다)

(죄수의 실제 이름은 ‘매그위치’이지만 주인공은 그를 ‘프로비스’라고 부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매그위치란 이름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 헷갈릴 수 있음. 그냥 근육질의 죄수라고 생각해두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가 다혈질인 것도 잊어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그가 내 두 손을 잡더니 감탄해하는 소유자의 태도로 나를 살폈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 그는 아주 만족한 듯이 담○를 피우고 있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돌아왔을 때, 그(죄수)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조용한 숙소를 매우 가까운 곳에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버트는 2~3일 후면 돌아올 예정이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이겠지만, 이 비밀(죄수의 존재)을 허버트에게 털어놓아야함은 분명해보였다. 내가 허버트와 이 비밀을 나눔 으로써 얻게 될 큰 위로를 문제 밖에 두더라도 말이다.

나는 그(죄수)를 ‘프로비스’(매그위치의 가명)라고 부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와 비밀을 나누는 문제는 프로비스 씨(57세, 죄수)에게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프로비스 씨는 자신이 허버트를 직접 보고서 허버트의 인상에서 호의적인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이 일에 허버트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동의여부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프로비스 씨가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얘야.”라며 그가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손자국 기 름투성이고 한쪽이 지퍼로 채워진 작고 검은 성서를 뽑아들며 말했다.

“성경에다 대고 맹세를 시켜야한다.”

내 끔찍한 후원자가 이 작고 검은 성경책을 들고서 세계를 방랑하는 것이 오로지 비상시에 상대방에게 맹세를 시키기 위함이라 말한다면, 정말이지 나도 완전히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그가 그 책을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일찍이 결코 본 적이 없다.

그 책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떤 재판소에서 훔쳐진 것 같은 외관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성경책의 앞서의 경력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법정선고)과 슬기롭게 결합되어 그것이 그에게 일종의 법적인 매력과 부적으로써의 능력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가 성경책을 처음 꺼내 보였을 때, “나는” 그가 오래전 ‘교회부속의 묘지’(주인공 마을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늪지대를 들어가기 위해 지나야하는 교회부속의 묘지. 그곳에 주인공의 부모님 묘와 친누나와 아주 어릴 때 죽은 5명의 동생들 무덤이 있음)에서 나에게 어떻게 신의(믿음)를 지킬 것을 맹세시켰는지 와, 지난밤에 그가 나에게 자 신이 홀로 있을 때마다 매번 자신의 결심(자신은 힘들게 일하지만 런던 신사를 키워 남들에게 뽐내는 것)을 어떻게 다져왔는지를 묘사하던 일을 “회상했다(기억해냈다).”

프로비스(죄수) 씨는 현재 선원용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옷 안에 내다 버려야할 앵무새 몇 마리와 시○(○뱃 잎을 썰지 아고 통째로 돌돌 만 ○배) 몇 개를 지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나는 그와 상의했다.

그는 변장에는 “반바지”(↔ “ ”라는 기호는 디킨스가 친 것입니다.) 가 미덕이라는 기이한(놀라운) 신념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은 옷이랍시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을 스케치 했는데, 그건 그를 ‘대성당의 주임 사제’와 ‘치과의사’ 사이의 그 무엇 인가로 만드는 의상이었다.

상당한 곤란함을 겪은 후에 나는 그에게 돈 많은 농장주의 옷차림 같은 의상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야 한다는 것과, 그가 약간의 화장을 하기로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가사도우미 할머니와 할머니의 여조카가 아직 프로비스 씨를 못 본 상태였다. 그래서 프로비스 씨가 옷을 모두 바꾸어 입을 때까지는 그녀들에게 안 보이기로 했다.

이러한 예방책들(가발과 화장과 옷 바꿔 입기)을 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등장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로 내 머리가 멍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산만해진 것이 아니라 멍해진 상태에서, 예방책들을 강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일 이었다.

그날 오후 2시 또는 3시가 되어서야 나는 계획한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외출할 수 있었다.

물론 프로비스 씨에게는 침실에 잠자코 계시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도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에식스 거리(런던)에 꽤 괜찮은 하숙집 하나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그 하숙집으로 갔다.

그 하숙집 뒤편이 템플로 향해있었다. (※ 참고, 템플 동서남북 지리 잠깐 설명 :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있는 지역 / 남쪽이 템스 강. 북쪽이 템플임. 그 템플 안에 주인공의 집이 있음. 템플에 있는 주 인공의 집에서나 지금 계약하려는 하숙집을 나와 템스 강에 작은 배를 띄우고 왼쪽으로 계속 가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가 나옴 / 그러니까 요지는 배경이 지금의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의 북쪽’이라는 것)

내 방(템플에 있는 주인공의 속소) 창문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 거의 들릴 그런 거리에 이 하숙집은 위치해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자칭 타칭 내 삼촌 ‘프로비스 씨’(죄수 / 실명은 ‘매그위치’ 가명이 ‘프로비스’임)를 위해 2층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런 다음 나는 이 가게 저 가게로 돌아다니며 그의 겉모습을 바꾸어줄 물품들을 구입했다.

이 일을 처리한 다음, 나는 방향을 돌려 내 볼일(재거스 변호사를 만나 따지는 것)을 보러 ‘리틀 브리튼’(재거스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 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이름임)으로 향했다.

재거스 씨(런던 유명 변호사)가 아직 자기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곤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앞에 자리를 잡고 섰다.

“지금부터는, 핍(23세, 주인공이름).”라며 재거스 씨(50세, 런던변호 사)가 말했다. “조심하게나.”

“그러고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내가 받아쳤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며 왔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게.”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말게. 알겠지… 누군가를, 말이네. 어떤 말도 내게 더 하지 말게. 난 아무 얘기도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호기심이 일지도 않네.”

물론 나는 이해했다. 프로비스가 귀국했음으로 재거스 씨도 알고 있음을 말이다.

“단지 제가 바라는 건 말입니다, 재거스 씨.”라며 내가 말했다. “제가 들었었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진 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도 되잖아요.”

재거스 씨가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하지만 자네는 ‘들었다’라고 말한 건가 아님 ‘확인했다’라고 말한 건가?”라며 그가 내게 물었다. 물론 예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이며 내게 물었다. 하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았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시선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들었다’라는 말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할 수도 있네. 자넨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임 / 헷갈리시죠. 이 소설의 무대는 오직 런던 중심부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거나 앞으로 나올 여타 지역들의 이름은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니 시드니니 이런 것과 이 소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몰라도 됨)에 있는 남성과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질 수 없다 네, 알겠지.”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거스 씨.” “좋네.”

“저는 ‘아벨 매그위치’(죄수의 실제 이름이 ‘매그위치’입니다. ‘아벨’의 매그위치의 세례명입니다.)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가 오랫동안 저를 후원해왔었던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통지(확인)받았습니다.”

“그가,”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뉴 사우스 웨일스에 있다는 그 남성이네.”

“단지 그(‘그 사람’ 할 때의 ‘그’) 뿐입니까?”라며 내가 말했다.

“단지 그(‘그 사람’ 할 때의 ‘그’) 뿐이네.”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따. “전 그렇게 철이 없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오해들과 잘못된 판단들

에 대해 선생님께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전 그렇게 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 항상 제 후원자가 미스 해비샴(‘주인공 마을’의 ‘인근 읍내 외곽’에 사는 갑부)일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핍(23세, 주인공이름), 자네가 말하듯이,” 재거스 씨(변호사)가 내게 쌀쌀맞은 시선을 던지며,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선생님이요.”라며 내가 한 껏 풀이 죽은 마음으로 항변했다.

“털끝만한 증거도 없었네, 핍(주인공이름).” 재거스 씨가 고개를 가 로저으며 자기 셔츠의 주름을 접으며 말했다. “사물의 겉모습만보고서 받아들이지 말게나. 실제 있는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게. 그보다 더 좋은 원칙은 없다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 침묵을 유지한 후 내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제가 받은 제보(정보)를 확인했으니 이제 끝입니 다.”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주의 중심 도시가 ‘시드니’임)에 있는 ‘매그위치’(죄수의 실제 이름)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드러냈으니,”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자네도 이해해줄 거네, 핍(주인공이름), 내가 자네와 연락하는 내내 얼마나 엄격하게 사실에 대한 엄밀한 선을 충실히 지켜왔었는지를 말일세. 사실에 대한 엄밀한 선에서 한 치의 일탈도 나는 절대 없었네. 자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지?”

“잘 알죠, 선생님.”

(재거스 변호사의 긴 대사 시작)

(대사가 길어서 읽기 쉽도록 임의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 사람의 긴 대사입니다.)

“나는 분명 매그위치(죄수의 실제이름)에게 전했다. 물론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임)에 있는 매그위치 말일세.

‘뉴 사우스 웨일스’에 있는 그가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나는 분명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네.

내가 사실에 대한 엄격한 경계선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나리라고 그가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이네.

나는 또한 그에게 다른 주의도 주었네. 그가 여기 고국 땅에 있는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애매하게나마 자신의 편지에서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네. 그 문제(주인공을 고국에서 만나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내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말라고 말이네.

그리고 그가 형 집행을 면제받을 가능성은 결코 없을 것이며, 그가 종신유형(평생 섬에 보내 가둬버림)을 선고 받고 추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고국 땅에 그가 발을 디디는 순간 그는 중범죄를 행하는 것이 되며 이는 곧 그가 유형보다 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음을 나는 분명 그에게 일러주었네.”라며 재거스 씨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말했다.

“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근처)로 보냈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분명 그 편지의 내용대로 따랐을 것이네.”

(재거스 변호사의 긴 대사 끝)

“그렇겠죠, 의심할 바 없이….”라며 내가 말꼬리를 흐리며 말했다. “나는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에게서 보고를 받았네.” 재거스 씨

가 여전히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웨믹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군. 날짜 란에 포츠머스(영국남부의 항구 도시이름)라고 적힌 어느 편지는 어느 식민지 주민에게서 온 편지인데 그의 이름이 ‘푸’르비스 뭐라더라….”

“아마 ‘프’로비스 일겁니다.” 내가 넌지시 말했다.

“그렇군, ‘프’로비스였네. 고맙네, 핍(23세, 주인공이름). 아마 그가 그 프로비스일테지? 아마도 자네는 그가 프로비스임을 알고 있겠지?”

“네.”라며 내가 말했다.

“자네는 그가 프로비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군. 그래, 날짜 란에 포츠 머스(영국남부의 항구도시이름)라고 적힌 어느 편지엔 말이네, 매그위 치(죄수의 실제 이명)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프로비스라고 밝힌 어느 식민지 주민이 자네가 사는 곳의 상세한 주소를 묻고 있다더군. 그래서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은 그에게 상세한 주소를 보냈다네. 내가 듣기로는 반송 우편(다사 돌려보냄)으로 보냈다더군. 아마 자네가 매그위치(죄수의 ‘실’명)에 대한 소식을 접한 것도 그 프로비스(죄수의 ‘가’명)란 식민지 주민을 통해서겠지. 물론 매그위치란 남성은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 임)에 있고 프로비스란 남성은 영국에 있으니까 말일세.”

“저도 프로비스(사람이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라며 내가 대답했다.

“그럼 안녕히 가게나, 핍(23세, 주인공이름) 군.” 그가 악수를 제안하며 말했다. “오늘 자네를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네.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 임)에 있는 매그위치(죄수의 실제 이름)에게 편지를 보낼 때나, 프로비스(죄수의 가짜 이름)를 통해 매그위치와 연락할 때에, 부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게나. ‘우리(‘의뢰인인 매그위치’와 ‘변호사인 재거스’)의 오랜 신용거래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들과 영수증들이 나머지 잔액과 함께 자네(주인공)에게 전달될 거란 사실‘을 말일세. 왜냐하면 여전히 잔액이 좀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 잘 가게나 핍 군!”

우리가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가 문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도 그는 여전히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집무실 선반 위에선 극도로 불쾌하게 생긴 두 얼굴주물(쇳물을 녹여 만든 사람얼굴모양의 주물 / 재거스 변호사의 집무실 선박에 있는 두 주물을 말함 / 주인공은 이 주물들의 끔찍한 생김새를 싫어함)이 자신들의 눈꺼풀들을 막 떼려고 애쓰고 있는 것만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두 얼굴주물들은 부어오른 자신들의 목구멍을 통해 이렇게 말 하려는 듯 보였다.

“오, 그(재거스 변호사)는 정말 남자야!”라고. (얼굴주물들은 어느 유명 범죄자들의 얼굴을 본 뜬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이 얼굴주물들을 볼 때마다 재거스 씨를 존경하면서도 싫어하면서도 꼬인 감정을 갖게 되었음. 어쨌든 얼굴주물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듯이 보여서)

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은 외근 중이었다. 비록 그가 지금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템플(런던중앙. 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곳)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 끔찍한 프로비스(죄수의 가명)가 럼주(사탕수수에

물을 타서 발효시켜 만든 술)에 물을 타서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씹는 ○배까지 씹어대고 있었다. 즉 그는 무사했었던 것이다.

다음날, 내가 주문했었던 옷들이 모두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프로비스가 그 옷들을 입었다.

솔직히 말해, 그가 그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그가 전에 입었던 옷보다 나빠 보였다. 우울하게도, 적어도 내가 봤을 땐 그랬다.

생각해보건대, 그의 안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변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옷을 더 많이 입히면 입힐수록, 그리고 내가 그에게 옷을 더 좋은 걸로 입히면 입힐수록, 그는 더욱더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 교회묘지가 있음, 교회묘지에 주인공의 가족들 무덤이 있는 데 그 곳에서 12살의 주인공이 프로비스를 처음 만났었음)에 구부 정한 자세로 앉아 있던 도망자같이 보였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상상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그의 옛 얼굴(프로비스가 처음 12살의 주인공을 만나 음식 가져오라고 협박하던 때의 얼굴과 그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개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떠올리게 했을 때의 얼굴)과 태도에 점점 친숙해져간다는 것과 내 불안한 상상의 결과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_- 뭐니 이 해석???)

또한 확실히 그는 다리 한 쪽을 절고 있었다. 마치 예전에 차고 있었던 그 족쇄(다리 수갑)의 무게에 아직도 짓눌러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확실히 그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살결에 자신이 바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임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고독한 오두막 생활의 영향이 그의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가 무슨 옷을 몸에 걸쳐도 모양새가 살지 않는 야만족 분위기까지 주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의 고독한 오두막 생활 후, 사람들 사이에서 그 리고 모든 기어 다니는 것들 사이에서 그가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영 향까지 더해져, 그의 자의식은 지금도 무언가를 기피하며 숨고 있었다. 그가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태도들에서,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는 모든 태도들에서, 어깨춤을 세우고 사뭇 주저하는 스타일로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그의 모든 태도들에서도, 뿔피리 모양의 자루가 달린 커다란 잭나이프(접을 수 있는 주머니칼)를 그가 꺼냈을 때나 그 잭나 이프를 자신의 바지에 쓱쓱 닦은 후 그 잭나이프로 음식을 잘랐을 때 보인 그의 모든 태도들에서, 가벼운 유리잔이나 컵들을 마치 엄청 다루기 힘든 금속잔인 양 어색해하며 자신의 입술까지 들어 올리는 그의 모든 태도들에서나, 남겨진 빵을 잘라서는 그 빵으로 둥근 접시 둘레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고기육즙 궁물 들을 하나하나 그 빵 속으로 최대한 빨아들인 다음 그 빵 끝에다 다시 자신의 손가락까지 쓱 닦은

다음 그를 입속으로 던져 꿀컥 삼키는 그의 모든 태도들 속에서나, 이러한 태도들에 있어서 그리고, 하루 매분(1분 2분 할 때의 ‘분’)마

다 발생하는 천개는 됨직한 여타 다른 소소한 그의 행동들에 있어서까지, 그는 영락없는 죄수였었다. 정말이지 영락없는 중죄인, 흉악범, 식민지 노예의 모습 그대로였다.

파우더(화장품의 분)를 바른다는 생각은 그가 생각한 것이었다. 반바지를 입겠다는 그의 생각을 억누르게 만든 후 나는 그 대신 그가 파우더를 바르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파우더 칠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이지 그 효과라는 것이 실상은 시체 위에다가 금빛 화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더랬다.

최대한 억눌려야 함이 바람직한 그의 내면의 모든 것이, 얇은 가식 (화장)의 층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해 그의 정수리(머리 맨 꼭대기) 끝에서 불타듯이 드러나 보이는 방식은 정말이지 끔찍 그 자체였다.

그래서 파우더 칠을 하자마자 파우더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회색 머리카락들을 짧게 잘랐다.

그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동시에, 그가 내게 풍긴 끔찍한 미스터리에 대해 내가 얼마나 끔찍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어떤 단어로도 설 명할 수 없다.

저녁이 되어 그가 마디가 울퉁불퉁한 손으로 큰 안락의자의 옆 자락들을 꽉 움켜쥐고서 그리고 자신의 가슴 위를 향해 깊게 처져 있는 주름 문신을 한 대머리를 한 채 잠이 들었을 때, 나는 곁에 앉아 그를 쳐다보곤 했다. 궁금했다. 그가 어떤 짓을 저질렀었는지, 그리고 그에 게서 달력에 있는 온갖 범죄들을 연결시켜 생각하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에게서 달아나야겠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곤 했다.

그가 해왔었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였으며, 지금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난 이유도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머지않아 귀국할 것임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에 대한 혐오가 매시간 너무도 커져가, 심지어 처음 극심한 고통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을 때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서 달아났었을 수 있다.

한번은, 야밤에 내가 실제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있던 가장 허름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다. 서둘러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인도에서 복무하는 병사로 입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비바람이 항상 몰아치는 긴 저녁과 긴 밤에 외딴 숙소에서, 유령이 그의 존재보다 더 무서웠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유령은 나 때문에 체포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질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꼭 그리 될

거라는 두려움이 내 공포를 상당히 배가시켰다.

그는, 자지 않을 때나 또는 누더기가 다 된, 자기 소유의 ‘카드들’로 복잡한 종류의 ‘페이션스’(혼자서 하는 카드놀이 ← 네이버참조) 놀이를 안 할 때는, 자신의 잭나이프(접을 수 있는 주머니칼)를 테이블에 찔러 넣음으로써 그날 자신이 딴 돈을 기록했다. 물론 그가 하는 카드 놀이는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는 본 적이 없는 방식의 카드놀이였다.

그가 이러한 소일거리(취미)에 빠져 있지 않을 때면, 그는 내게 “책을 읽어다오.”라며 요구했고 꼭 “외국어(영어 말고 다른 언어,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쓰인 책으로 읽어다오, 얘야!”라고 덧붙였다.

내가 그의 말을 따라 책을 읽는 동안, 그는, 단 한 글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전시회를 열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 나를 측량하며 벽난로 앞에 서 있곤 했더랬다.

내 얼굴에 그늘을 만들어준 내 손가락들 사이로, 나는 그가 손짓 몸짓을 해가며 “내가 키운 런던신사의 외국어 실력을 보게나.”라며 가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를 나는 보곤 했더랬다.

자신이 신앙심이 없을 때 만든 흉측한 창조물에 쫓기던 가공의 학생도, 나를 만들어준 사람에 의해 쫓기고 있던 나보다 더 가련하진 않을 것이다.

그가 나를 칭찬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애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더욱더 혐오감을 느끼며 그(사람)로부터 움츠러들었다.

마치 이것이 1년 동안 지속되기라도 한 거 마냥 내가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의식은 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5일만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뿐이었다.

줄곧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외출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만 해가 진 뒤 프로 비스(57세, 죄수)를 데리고 바람을 쐬려 나갈 때를 제외하곤 말이다.

한참 있다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가 녹초가 되어 잠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밤에는 불안해져서 두려운 꿈들을 꾸었고 그래서 내 휴식이 파탄 났기 때문이다.

그때 건물내부계단(층계) 쪽에서 반가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 내가 ‘빵실빵실 웃으며’(←원문에 없는데 한 번 넣어봤음^^;;) 잠에서 깨었을 때, 자고 있던 프로비스(57세, 죄수) 역시 내가 만든 소음 소리에 깜짝 놀라 깼다. 그 즉시 나는 그의 손에서 반짝 빛나는 잭나이프(접을 수 있는 주머니칼)를 보고야 말았다.

“진정하세요!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란 말이에요!”라며 내가 말했다.

그때 허버트가 ‘1000 킬로미터’(≒우리나라 남북한 길이)나 떨어진 프랑스에서 몰고 온 활기찬 상쾌함을 발산하며 숙소 안으로 불쑥 들어 왔다.

“야 ‘헨델’(허버트가 주인공을 부르는 애칭), 내 다정한 친구! 그래 잘 지냈니? 반갑다. 정말 반가워. 이건 뭐 12달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기분인데! 그런데, 넌 정말 12달은 지난 것 같은데, 너 그 사이에 왜 이렇게 핼쑥해졌니? 헨델(주인공의 애칭), 내 친구가 왜…, (프로비스를 보며) 어? 안녕하세요, 제가 실례를 범했다면 죄송합니다.”

허버트가 계속 얘기하면서 나와 악수를 나누려다 프로비스를 발견하곤 딱 멈추었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를 별로 진실 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던 프로비스(57세, 죄수)가 자신의 잭나이프(주머니칼)를 도로 집어넣으며 무언가 다른 것을 찾는지 다른 쪽 호주머니 속을 손으로 더듬거리고 있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내 소중한 친구!” 내가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닫으면서 말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허버트는 이상하다는 듯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많이 낯설 일이 하나 발생했어. 이 분은 내 방문 자셔.”

“괜찮다, 얘야!” 프로비스(23세, 죄수)가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그의 한 손에는 한쪽이 지퍼로 채워진 작고 검은 성서가 들려 있었다.

그가 성서를 허버트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여기에다가 자네의 오른손을 얹게. 자네가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의 비밀을 누설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자넬 처 죽이시기를! 자 성경에 입을 맞추게!”

“그렇게 해, 허버트, 그가 바라는 대로,”라며 내가 허버트(23세, 주 인공의 절친)에게 말했다.

그래서 허버트는 선의의 걱정과 당혹감을 내비치며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곧 프로비스가 하자는 대로 성서에 입을 맞추었다.

그 즉시 프로비스는 허버트와 악수를 나누었다. 프로비스가 말했다.

“이제 자네가 맹세했으니까 말이야, 나도 하나 하지, 만약 내가 핍을 통해 자네를 신사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나를 저주해도 좋네.”

**위대한 유산**

**41장**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와 나(23세, 주인공) 그리고 프로비스 (57세, 죄수)가 벽난로 앞에 앉아 내가 나와 프로비스 사이의 비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들러주었을 때, 허버트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동요했는지를 내가 묘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충분했다. 나는 허버트의 그러한 표정들에서 내 자신의 감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표정들 가운데, 나를 위해 이토록 많은 일을 행해왔던 프로비스를 향한 내 강한 반감을 허버트의 얼굴에서 대신 본 것으로 상황은 충분했다.

굳이 어떤 다른 환경 구분을 짓지 않더라도, 내가 허버트에게 얘기를 들려주는 동안 프로비스(57세, 죄수)가 보인 승리감 그것 하나만으로도 프로비스와 우리(허버트와 주인공) 사이를 구분 지었을 것이다.

내 폭로가 끝나자마자, 그가 내 폭로에 대해 허버트에게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자신이 일찍이 질이 나빴었다.”는 것을 골치 아프게 오랫동안 의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내 (주인공이름)가 내 행운에 대해 어떤 결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나를 신사로 만들어왔었다는 뽐냄과, 그리고 내가 그의 풍부한 재원 위에서 신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것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그의 뽐냄은 나를 위한 것만큼이나 그 자신을 위한 뽐냄이었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 둘 모두에게 대단히 기분 좋은 뽐냄이며, 우리 둘 모두 그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야한다는 것이 그 자신의 생각 속에 아주 확실히 자리 잡은 결론이었다.

“하지만, 내 얘기를 들어 보거라, 핍의 친구야.” 아까부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와 말을 주고받던 프로비스(57세, 죄수)가 허버트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온 후 30초 동안 나는 내가 질이 나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다.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핍(23세, 주인공)에게도 했다. 내가 질이 나빴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 점에 있어선 신경 쓰지 말거라. 나는 핍을 신사로 만들었다. 핍은 이제 너를 신사로 만들 것이다. 그런 내가 너희 둘에게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주인공을 보며) 얘야, 그리고 (허버트를 보며) 핍의 벗아, 너희 둘은 믿어도 좋다. 내가 항상 고상한 말만하는 입마개(개에게 채우는 입마개 상상바람)를 쓰고 있겠다고 말이다. 내가 천박함에 내 자신을 넘겨주었 던 그 30초 이후부터 나는 입마개를 내 입에 채웠단다. 나는 그 입마 개를 현재도 차고 있다. 그리고 항상 차고 있을 것이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그렇고말고요(앞으론 험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대답임 -\_-;;).”

하지만 허버트는 프로비스의 방금 말에 어떤 구체적인 위안도 찾지 못한 마냥, 여전히 당혹스럽고 놀란 표정이었다.

허버트와 나는 간절히 바랬다. 프로비스가 자신의 임시 숙소(이제부터 프로비스의 임시 숙소가 될 에식스 거리에 있는 ‘하숙집’을 말함 / 주인공의 숙소는 템플에 있음)로 가주어 우리가 함께 남게 될 때를 말이다. 하지만 프로비스는 우리 둘만 남겨두고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다. 눈에 띌 정도로 말이다. 그는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였다. 내가 그를 에식스 거리(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템플에서 고함을 치면 들리는 거리)에 있는 임시 숙소로 바래다 주고 그가 안전하게 자신의 껌껌한 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시간이 말이다.

그(프로비스)를 뒤따라 문이 닫혔을 때서야 비로소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찾아왔었던 그 날 밤 이후로 말이다.

계단에 있던 남성에 대한 불안한 기억에서 전혀 자유로워지지 못한 나는 해가 진 뒤 프로비스(죄수)를 데리고 외출할 때나 그를 숙소로 다시 안내해 줄 때나 내 주변을 항상 이리저리 둘러보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내 주 변을 둘러보았다.

이런 거대한 도시인 런던에서 방금 언급한 그 점(감시)과 관련해 내가 위험을 의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곳에 있는 어떤 누구도 내 이동에 관심이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지나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나아갔고, 우리가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곳)로 방향을 틀었을 때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우리와 함께 정문(건물의 담이 연결된 정문을 말함)을 나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었다. 우리와 함께 정문안으로 들어선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분수대 옆을 지나갈 때 나는 프로비스(죄수)의 불 켜진 뒤쪽 창문들을 보았는데, 그건 밝고 조용한 불빛들이었다.

내 숙소가 있는 건물로 돌아와, 계단을 오르기 전, 건물 문간(대문)에 잠시 서 있을 때였다.

‘가든 코트’(상점가란 뜻 / 주인공의 숙소는 템스 강가에 있는 ‘가든 코트’ 내에 있음)는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의 건물내부계단만큼이나 정지되어 있고 생명체가 안사는 것 같았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었다.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축복받은 일임을 전에는 몰랐었다.

그가 동정적이며 격려 섞인 말들을 여러 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 그 문제를 논의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프로비스(57세, 죄수)가 앉았었던 의자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긴장된 ‘한’ 가지 방식으로 ‘한’ 자리 주변에서만 어 슬렁거리는 막사(←군인들이 사는 건물) 생활 같은 방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그는, 마치 석판(글 쓰던 판) 위에 자신의 행동규율들이 모두 적혀 있다는 마냥, 자신의 파이프(피우는 파이프)와 씹는 ○배와 잭나이프(접을 수 있는 주머니칼)와 카드 한 벌 등등을 들고서 그 의식을 거치곤 했다.

그의 의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둔다. 허버트가 무심결에 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 그 의자를 멀찍이 치우고는 다른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그 일(의자) 이후 내 손님(프로비스)에 대해 그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굳이 할 이유도 없었다. 나도 물론 내 손님에 대해 내가 혐오감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서도 서로가 가진 비밀을 공유할 수 있었다.

(허버트의 대사→) “아이 참.” 다른 의자에 자리 잡고 앉은 허버트 (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연속해서 허버트의 대사→) “내 가엾은 헨델(23세, 주인공의 애칭 / 별명).” 그가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너무 어리둥절해 난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도 모르겠어.”

“강풍이 처음 불어 닫쳤을 때 나도 마찬가지였어, 허버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놓긴 해놓아야 해. 그가 지금 돈이 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열중해 있거든. 말(타는 말)이라든지, 마차라든지, 그런 모든 종류의 낭비들 있잖니. 어떻게든 그를 막긴 막아야해.”

“그럼 이제부턴 그의 돈을 받지 않을 생각인 거니…?”

허버트가 잠시 머뭇거리든 사이 내가 끼어들며 말했다. “내가 무슨 수로?”라고.

내가 다시 말했다. “그에 대해 생각해봐! 그의 외모를 밀이야!” 내 말에 우리 둘 모두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짜 끔찍한 사실은 말이야, 허버트, 그가 내게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강렬한 애착 말이야. 숙명(운명)도 숙명도 이런 숙명이 어디 있겠니?”

“내 가엾은 헨델(주인공의 애칭).”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이름)가 되풀이해 말했다.

“그러니까,”라며 내가 말했다. “어쨌든, 여기서 멈추고 그에게서 추가적인 돈을 더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난 이미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걸! 한편 난 지금 다른 곳에도 막대한 빚을 지고 있잖니. 나로선 도저히 값을 수도 없는 돈들을 말이야. 이젠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데. 그리고 난 직업교육이란 걸 단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없는걸. 난 아무 쓸모없는 애일뿐이야.”

“이런, 이런, 이거 참!” 허버트가 충고하며 말했다. “그런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즉, 군인이 되는 길 뿐이야. 벌써 지원했을 수도 있었어, 허버트(친 구이름). 하지만 네 우정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먼저 들어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시 빨간 군복을 입은 영국육군병사들의 전투력은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전투력은 최강인 대신 어찌나 하는 짓들이 하류였는지 영국 지휘관들조차도 자신들의 병사를 “쓰레기들을 모아놓았 다”라고 했을 정도임. 어느 책에서 봤음-\_-;;)

물론 나는 이 부분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물론 허버트는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줌으로써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체 해주 었다.

“어쨌든, 헨델(주인공의 애칭).”라며 허버트가 곧 입을 열었다. “군인이 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선 아닌 것 같아. 만약 네가 그의 후원과 호의들을 포기할 것을 선언할 생각이라면, 내 생간엔 네가, 네가 벌써 받은 금액들에 대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라도 되갚아줄 줄 수 있다는 약간 미약한 희망을 지고서 포기 선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하지만 군인이 된다면 그의 돈들을 되갚을 수 없잖니. 힘들어지지. 게다가, 군인이 되겠다니 터무니없는 발상 이야! 차라리 ‘클래리커(사람이름 / 주인공이 몰래 돈을 투자해 허버트 를 고용하게 한 회사이름이자 대표이름)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 될 거야. 물론 현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회사지만. 그래도 알잖니, 내가 클래리커 씨(←독자가 이름 알 필요 없음)와 동업자 관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걸.”

아 가엾은 녀석(허버트)! 녀석은 클래리커 회사의 투자금(주인공이 클래리커 씨에게 1억 2천 5백만 원을 계약금 조로 주었고, 나머지 투 자금액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유산을 물려받으면 내기로 한 금액의 출처를 말함)이 누구의 돈인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어.”라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이건 무지하고 결의에 찬 한 남성의 이야기야. 그것도 오랫동안 한 가지 생각에 고정되어 왔던 남성 말이야. 그(그것)보다 더한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그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절망적이고 사나운 성격의 사나이 같이 보였다는 거야. 물론 내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꾸했다. “그것을 증명할 얘기를 해줄까. 내가 보아 온 것을 말이야.”

프로비스(57세, 죄수)가 자리에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나머지 얘기들, 즉 내가 어릴 적에 프로비스가 또 다른 죄수와 사납게 싸우던 얘기를 허버트에게 들려주었다.

“그럼, 봐봐.”라며 허버트(친구)가 말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자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 돌아온 거야. 왜냐하면 자신의 고정된 한 가지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함이지. 그의 모든 노력과 기다림이 이제 현실화되는 순간, 너는 그의 발밑에 있던 발판을 빼버리는 거고. 그럼 그의 꿈은 사라질 테고, 그럼 그의 수입들도 더 이상 자신에게 가치 없는 것이 될 테지. 그럼 그가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건 생각해봤어, 허버트(친구이름),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어, 그가 처음 도착한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쭉 말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그가 모든 걸 놓아버리고 스스로를 체포당하게 할 거란 생각들 외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건 없었어.”

“그럼 너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라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 친)가 말했다. “그가 그것을 행할 위험성이 커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것이 너를 쥐고 있는 그의 힘이야. 그가 영국 땅에 머물러 있는 한은 말이야. 네가 만약 그를 저버리고 떠난다면 스스로를 체포당하게 하는 것이 그의 무모한 행동방침이 될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의 공포에 꽉 붙들려 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나를 짓눌러 왔었던 공포였다. 그 생각이 현실로 작동한다면 나는 내 자신을 얼마간은 살인자로 여길 것이다.

나는 의자에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 일어나 앞으로 뒤로 걷기 시작했다.

그 동안에도 나는 허버트에게 말했다.

“심지어 만약 프로비스(57세, 죄수)가 자기 의사(생각)에 반해 알려지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의 체포의 원인 제공자로써 비참한 상태로 접어들 거야. 내가 비록 죄가 없다하더라도 말이야. 그건 맞는 소리야. 그를 잡히지 않게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그리고 내가 항상 이 꼴이 되느니 차라리 내 전 생애를 대장간에서 보내기를 훨씬 더 간절히 바 래왔을지라도!”

하지만 그 질문을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즉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제일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라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일단 그(프로비스)를 영국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너도 그와 함께 가야하고, 그래야지 그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가려는 곳으로 그를 데려간다 해도,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의 귀국을 막을 수 있겠니?”

“내가 인정하는 헨델(주인공의 애칭)아, 그에게 내 생각을 알렸을 때 그리고 그가 무모하게도 체포당하려고 할 때 바로 다음 거리(길)에 ‘뉴 게이트’(런던 내에 있었던 유명한 옛 감옥, 1902년에 폐쇄되었음) 교도소가 있는 이곳이 어딘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큰 위험하다는 것이 명 백하지 않니? 이제, 다른 죄수나 또는 그의 삶 속에 있는 그밖에 다른 무언가로부터 그를 국외로 도피시킬 구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 데.”

“거 봐! 또!”라며 내가 허버트(친구) 앞에 멈춰 서고는 마치 내 두 손바닥에 절망적인 사실이 들어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내 두 손바닥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그의 삶에 대해 전혀 몰라. 밤에 여기 앉아서 가 까이서 그를 보는 것이 나를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거든. 이토록 내 행운과 불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시절에 이틀(2일)동안 나를 겁먹게 한 성질 나쁘고 불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나는 그의 삶에 대해 전혀 몰라!”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일어섰다. 그가 자신의 팔로 내 팔을 팔짱꼈다.

우리는 카펫을 살피며 팔짱 낀 자세로 함께 천천히 앞뒤로 움직였다.

“헨델(주인공의 애칭 / 별명),” 허버트가 걸음을 멈추면서 말했다. “너는 그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적 도움을 받지 않을 확신이 서 있니, 그러니?”

“완전히 확신해. 물론 너라도 그러지 않겠니. 만약 네가 내 입장에 놓였더라면 말이야?”

“그리고 넌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서 있니?”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어째 질문이 이상하다?”

“하지만 넌 너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건 것 때문에 네가 그 친절에 도 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가 목숨을 버리지 않 도록 네가 그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자신을 구 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기 전에 넌 그가 영국 땅을 떠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야. 그 일이 성공한 후에야, 하늘에 맹세코 넌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린 함께 결말까지 지 켜보게 될 거고, 안 그러니 친구.”

그것에 대해 악수를 나누고 다시 왔다 갔다 했더니 나름 위안이 되 었다.

“자,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라며 내가 말했다. “이제부턴 그의 살아온 내력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느냐하는 문제야.”

하지만 내가 알기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즉 내가 딱 잘라서 그에 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 말이다.

“그래, 내일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그에게 한 번 물어봐봐.”

왜냐하면 프로비스(57세, 죄수)가 허버트와 작별인사를 하자마자 “자네들과 함께 아침을 들러 오겠네.”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킨 후 우린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프로비스(57세, 죄수)와 관련된 가장 사나운 꿈을 꾸었다. 다음날 나는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나는 또한 밤중엔 잊고 있었었던 두려움, 즉 프로비스가 귀환한 추 방자인 게 적발되지나 않았을까하는 두려움을 다시 느끼며 잠에서 깼다.

깨어나서도 나는 그 두려움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약속된 시각에 그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잭나이프(접을 수 있는 주머니칼)를 식탁 위에 꺼내놓더니 음식이 차려진 자리에 앉았다.

그는 계획들로 가득했다. 자신의 신사(주인공 자기 자신)를 어엿한 한 명의 신사처럼 세상에 드러낼 갖가지 강력한 계획들 말이다.

그가 내 소유라며 두고 갔었던 그 핸드백 속에 든 돈다발을 어서 쓰라고 내게 충고했다.

그는 ‘내 숙소와 자신의 하숙집’도 그냥 임시 거주지로써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곧 내게 “런던 상류층 부자들이 사는 최신 유행의 집”을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하이드 공원(런던의 공원)’ 근처로 알아볼 것도 주 문했다. 물론 그 집에는 자신이 지낼 수 있는 잠자리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가 자기 몫의 아침식사를 해치우고 자신의 바지 위에다 잭나이프 (주머니칼)를 쓱쓱 닦고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이다.

“어제저녁에 아저씨가 돌아간 후에, 허버트에게 병사들이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 교회묘지가 있음, 교회묘지에 주인공의 가족들 무덤이 있는 데 그 곳에서 12살의 주인공이 프로비스를 처음 만났었음)에서 아저씨를 발견한 이야기며 그때 아저씨가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들이 다가갈 때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아저씨?”

“기억이라고!” 그가 말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란다!”

“아저씨가 싸우고 있었던 그 남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 자신에 대해서도요. 어제저녁에 허버트에게 들려준 이상은 제가 두 분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특히 아저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저희에게 말씀해주시기에 이만큼 좋은 때도 없을 것 같은 데요?”

“글쎄다!” 뜸을 들인 후에 프로비스(57세, 죄수)가 말했다. “맹세할 수 있겠느냐, 핍의 친구야?”

“그렇고말고요.”라며 허버트가 대답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얘기를 들려주든지 간에,” 프로비스가 주장했 다. “지금 그 맹세는 적용된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해두어라! 내 죄 값에 대한 지불은 노역(일하는 죄수)으로 모두 지불했음을 말이다.”라며 프로비스가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그 말씀도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그가 검정색 파이프(피우는 ‘파이프’)를 꺼내들었다. 그리곤 ‘가루○ 배’로 파이프 안을 채워나갔다.

그때 그의 눈에 자신의 손 안에 엉켜(????-\_-;; 무슨 뜻인지 모름. 영어사전에 있는 대로 썼음. 아무런 생각이 없는 해석-\_-;;생각이 없어~) 붙은 ‘가루○배’가 띈 것 같았다. 그가 당황한 것 같았다. 마치 그 엉켜있던 ‘가루○배’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헷갈리게 하는 마냥.

그가 ‘가루○배’를 호주머니 안으로 도로 집어넣더니 들고 있던 파이프를 자신의 코트(외투) 상의 단추 구멍에 꽂았다.

그가 두 손을 펴서는 무릎 위에 놓았다. 타오르는 눈빛으로 벽난로 위로 눈길을 돌리더니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우리에게로 고개를 돌려 다음과 같은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두근두근~^^;; 이야기는 42장에서 계속 ~)\_-;; )

**위대한 유산**

**42장**

“얘(23세, 주인공)야 그리고 핍(주인공의 이름)의 동료(23세, 주인공의 절친)야.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삶을 마치 노래나 동화책처럼 들려주진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자네들에게 짧고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당장 내 지나온 삶을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단다. ‘수감되고(갇히고) 탈옥하고(탈출하고), 또 수감되고 탈옥하고, 또 다시 수감되고 탈옥하고.’의 연속이었단다. 그 점에서, 너희들은 내 지나온 삶을 다 들은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거의 전부였단다. 핍(주인공이 12살일 때를 말함)이 내게 친절을 베풀어준 후 내가 배로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의 내 삶은 그랬단다.”

(이번 42장은 모두 프로비스(57세, 죄수)의 긴 독백입니다.)

(42장을 다 읽으셔야 이 소설의 이후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42장을 안 읽으면 이후 줄거리를 정말 모르게 됨)

“나는 모든 것을 다 겪으며 살아왔다. 거의 대체로 그랬다.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은주전자를 숨기듯 철장 안에 갇혀지곤 했다. 나는 수레에 실려 여기로 옮겨지고 또 저리로 옮겨지곤 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내쫓기곤 했고 또 저 마을에서도 내쫓기곤 했다.

나는 차꼬(나무 두 개 가운데에 원형 구멍을 내고 죄수의 발에 채우던 거)에 채워져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죽도록 매를 얻어맞거나 개에 물리며 곯려지거나 가축들처럼 내몰려지기도 했다(가축을 ‘몰다’ 할 때의 ‘내몰리다’).

나는 너만큼이나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단다.

내 자신이 처음으로 내 존재에 대해 깨달은 게 그러니까 내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순무(유럽산 ‘무’ / 사과<????-\_-;;>같이 생긴 먹는 ‘무’)들을 훔쳤을 때란다. 그게 아마 에섹스(런던 북동쪽 / 주인공의 런던숙소에서 이 소설이 쓰인 당시 마차를 타고 북동쪽으로 3시간 40분 정도 가면 도착하는 곳임) 남쪽에서 있었던 일일 게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서 도망쳤지. 그러니까 그 작자(남자)가 떠돌이 땜장이(깨진 그릇 고침)였었지 아마. 그자가 나한테서 불까지 들고가 버리는 바람에 난 그 날 아주 혹독함 밤을 맞았단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이 ‘매그위치’임을 알았단다, 세례명은 ‘아벨’이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생 울타리 안에 있는 새들의 이름들이 되새(유럽산 ‘되새’), 참색, 개똥지빠귀 인줄을 알았듯이 알았단다.

(참고, 이 소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링크 걸어봄 - ‘되새’ 사진 링크 : [ht](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0&whe [re](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idetail&rev=31&query=%EB%90%98%EC%83%88&ie=utf8&aq=0&s [pq](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0&nx\_search\_query=%EB%90%98%EC%83%88&nx\_and\_query=& [nx](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datetype

[=0](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startdate=0&enddate=0&start=1&img\_id=dic1084809%7C189003

[\_1](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0&amp;where=idetail&amp;rev=31&amp;query=%EB%90%98%EC%83%88&amp;ie=utf8&amp;aq=0&amp;spq=0&amp;nx_search_query=%EB%90%98%EC%83%88&amp;nx_and_query&amp;nx_sub_query&amp;nx_search_hlquery&amp;nx_search_fasquery&amp;datetype=0&amp;startdate=0&amp;enddate=0&amp;start=1&amp;img_id=dic1084809%7C189003_1) . 출처 : 두산백과, 검색일자 : 2014-11-12)

내가 그 새들의 이름들을 몽땅 가짜인줄로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새들의 이름들이 사실이더구나. 그래서 나도 내 이름(매그위치)이 사실일 거라 생각했단다.

내가 기억하는 한, 굶주린 만큼 헐벗고 있던 어린아이였던 ‘아벨 매 그위치’를 보고서 겁을 집어먹고 나를 내쫓겨나 나를 체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단다.

나는 체포되고, 또 체포되고, 그리고 또 체포되었단다. 내가 규칙적으로 체포되며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늘 그런 식이었지, 일찍이 내가 본 가장 가엾고 누더기를 걸친한 창조물일 때, 나는 상습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지.

물론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본 것 아니었다, 난 태어나서 그때까지 가구가 갖추어진 집 안을 들어가 본 적이 많지 않았으니까.

“오만가지 상습범.” 이것이 그들이 교도소방문객들 앞에서 나를 지목하며 한 말이었다.

“이 녀석은 교도소에서 살다시피 하는 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더군.

그럼 교도소방문객들이 나를 쳐다보았지. 그럼 나도 그들을 쳐다보았단다. 그럼 그들은 내 머리 길이를 자로 재곤 했지. 그들은 차라리 내 허기진 배를 자로 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게 팸플릿(종교적인 내용의 소책자)들을 주면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연설들을 늘어놓더구나.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내게 말이다.

그들은 매번 악마에 대해 내게 얘기하곤 했었지.

하지만 내가 도대체 무얼 했어야했단 말이냐? 나도 살아야하지 않겠니. 뭔가를 내 뱃속으로 집어 처넣어야 되지 않았겠니?

그래, 내가 점점 천해지고 있군. 그래 나도 고운 말이 뭔지 정도는 알고 있다.

얘(23세, 주인공)야 그리고 핍(주인공이름)의 동료(23세, 이름이 ‘허 버트’)야, 내가 저급해질까 두려워 말거라.

부랑자(떠돌아다님)가 되어 구걸을 하며 지내다 또 도둑질을 하고 가끔씩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며 지냈단다. 비록 생각만큼 자주 일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말이야. 너희들 같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쉽게 줄 수 있으련 지 생각해 보면 될 거다.

밀렵꾼 생활도 좀 했다. 막노동 일도 좀 했지. 짐마차를 끄는 마부일도 좀 했고, 건초(사료나 비료로 쓰려고 풀을 베어서 말린 것)더미 만드는 일꾼 노릇도 좀 했단다.

그러고 보니 행상(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사람) 노릇도 좀 했군. 대부분은 돈은 안 되고 생고생만 줄 창 하는 일들이었지. 그러다 난 어른이 되었다.

여관에 탈영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수많은 ‘다투라’(또는 ‘악마의 나팔꽃’이라고 부름 / 나팔꽃 같은데 열매를 맺으면 열대성과일처럼 둥글고 가시가 있음. 독성이 있음)들 속에 턱까지 숨어 지내던 병사였 지. 그가 내게 글 읽는 것을 가르쳐주었단다.

2천원에 한 번씩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해주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어떤 거인에게서 글 쓰는 법을 배웠지.

그때부터는 나도 이전만큼 그렇게 자주 철장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진 않았단다. 하지만 여전히 감옥의 금속성 열쇠 키가 나 때문에 닳긴 닳고 있었지.

대충 잡아 20년 전 일이다. 나는 ‘엡섬’(영국 ‘서리’ 주의 도시, 경마로 유명 / ‘서리’ 주는 런던 남서쪽에 인접해 있음)의 경마장에서, 어떤 작자(남성)와 안면을 트게 되었지.

만약 그 자의 두개골이 이 벽난로의 선반 위에 있다면 나는 그 작자의 두개골을 이 부지깽이로 깨부술 수도 있단다. 바다가재의 집게발을 깨부수듯이 말이다.

그 자의 진짜 이름은 ‘콤피슨’(철저한 사기꾼임 / 옥스퍼드 대학 출 신임)이다.

얘야, 그렇다. 그게 바로 네가 봤던 그 남성이다.

내가 어제저녁에 돌아간 후 네가 네 동료(허버트)에게 올바르게 설 명해주었던 대로 그가 바로 내가 도랑(시궁창) 아래에서 부서져라 쳐대고 있던 그 사람이다.

그는 자신을 영국신사라 떠벌리고 다니던 작자였지. 이 ‘콤피슨’(철 저한 사기꾼)이란 작자가 말이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도 다닌 적이 있는 꽤 배운 자였단다.(원문에는 사기꾼 “‘콤피슨’이 ‘공공 기숙학교’에도 다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닌 걸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바꾸었음. -\_-;; 옥스퍼드가 더 멋지지 않나요?^^ 더 멋지네!!! 옥스퍼드 뭔가 있어 보임. 굿~ 잘 바꾸었음. 굿 초이스~)

그는 붙임성도 있고 말솜씨가 좋은 소위 알랑거리는 작자였지. 특히 좋은 가문 사람들의 관례들엔 도가 터 있었지. 그는 또한 이목구비가 반반하게 잘생긴 작자였다.

큰 경마가 있기 전날 밤이었다. 주변은 거친 잡초와 작은 야생화들만 널려 있던 들판이었다. 그곳 어느 식당의 칸막이된 자리에서 나를 그를 처음 발견했다.

내가 식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테이블들 사이로 그 자와 일행 몇 명이 더 앉아 있었다.

식당주인이, 물론 이 자는 나도 알던 자다, 경마를 좋아하던 자였지, 이 식당주인이 그(콤피슨)를 큰 소리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더구나.

“내 생각에 이 자가 당신 일에 적합할 것 같소.”라고. 물론 당신이란 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콤피슨, 그자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더구나, 그래서 나도 그를 쳐다보았지.

그는 멋진 시계와 시곗줄을 지니고 있었다. 반지도 끼고 있었고 가슴엔 넥타이핀도 달고 있었다. 한 마디로 멋진 정장을 착용하고 있는 사나이였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건대, 자넨 운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왔군.”라며 콤피슨이 내게 말했다.

“예, 어르신, 전 단 한 번도 운과 가깝게 지내 본 적이 없습니다요.” 그땐 내가 부랑죄(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떠 돌아다니면 매를 때리고 수감했었음)에 걸려 킹스턴 교도소에 수감되

어 있다 막 출소했을 때였지.

그 밖에 다른 죄로 수감되지 않았을 리가 없지만 일단은 부랑죄였을 게다.

“운들은 바뀌는 법이지.” 콤피슨이 말했단다. “아마 자네의 운도 바뀔 것 같군.”

내가 말했지. “제발 그렇게만 되면 좋겝쇼. 자리(여지)는 있습죠.”

“그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며 콤피슨이 말하더군.

“먹고 마시는 거요.”라며 내가 말했지. “만약 어르신께서 일거리(재료)만 찾아주신다 면요.”

콤피슨이 웃더구나, 그러더니 다시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지. 그리곤 나에게 10만원을 주더구나. 그러면서 내일 밤에 다시 보자고 하더군. “바로 이 장소에서”라며.

다음 날 밤 같은 장소로 나(프로비스, 죄수)는 콤피슨(철저한 사기꾼)을 찾아갔다.

그리고 콤피슨이 나를 고용했지. 자기 하인이자 짝패(범죄 패거리)로 삼았지.

우리가 짝패가 된 콤피슨의 사업이 무엇이었냐고?

콤피슨의 사업은 사기, 다른 사람이 써놓은 글씨 위조, 도난당한 잉 글랜드(중앙은행) 은행권(지폐)을 유통하는 것 따위의 짓이었단다.

콤피슨이 자신의 머리로 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덫(함정)들이 콤피슨의 비즈니스가 되었단다. 그럼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수익은 다 챙기고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꼼짝 못할 처지에 빠뜨리곤 했지.

그는 이 철 부지깽이만큼이나 심장이 없는 인간이었단다. 그는 죽음 만큼이나 차가운 남자였지. 그는 앞서 말한 그 악마의 머리를 가진 작 자(사람)였다.

콤피슨(사기꾼)에게 친근하게 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 그의 이름은 ‘아서’(주연이 아니고 조연임)였다. 아서는 세례명이 아니라 그의 성(이름)이었단다.

그는 쇠약할 때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유령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

아서와 콤피슨은 그 수년 전에 어떤 부유한 숙녀를 상대로 나쁜 일 (‘결혼을 빙자한 금전적인 사기행각’)을 벌였단다.

그 일로 그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 하지만 그 많던 돈들도 콤피슨이 경마니 도박이니 게임이니 하며 써대는 통에 얼마 못가 세금 낼 돈도 없을 정도로 돈을 몽땅 다 탕진해버린 상태였다.

그렇게 아서는 몸이 쇠약해저 죽어가고 있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 정신이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콤피슨의 아내는 동정할 수 있을 때면 아서를 불쌍하게 여기더구나. 물론 그녀가 콤피슨에게 걷어차이지 않을 때면 말이다.

그리고 콤피슨은 어떠한 것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심이라곤 베풀지 않고 있었다.

나(프로비스, 죄수)는 아서(아픈 사람)를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러질 못했단다.

얘(23세, 주인공)야 그리고 핍(주인공이름)의 동료(23세, 허버트)야, 그때 내 자신만은 예외일거라 생각했다느니 하는 따위의 변명은 하지 않겠다. 그런다고 좋아질 게 뭐 있겠느냐?

그렇게 나는 콤피슨(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철저한 사기꾼)과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나는 그의 손에 쥐어진 덜 떨어진 도구였다.

당시 콤피슨의 집은 브렌트퍼드(지명이름) 너머 인근에 있었다. 아서 (사람이름)는 그 콤피슨의 집 맨 꼭대기 층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콤피슨은 아서(아픈 사람)의 하숙비를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게 있었단다. 혹시라도 아서가 건강해져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서(아픈 사람) 용의 장부는 곧 마감이 되었지(금방 죽었다는 의미).

그게 아마 내가 아서(사람이름)를 두 번짼가 세 번째로 보았을 때였다.

밤늦은 시각에 아서가 콤피슨(사기꾼)의 응접실로 뛰어들어왔다. ‘플란넬’(‘면’과 ‘양의 털’을 썩어 만든 가벼운 천) 가운(잠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그의 머리는 온통 땀들로 뒤범벅이 된 상태였다.

아서(아픈 사람)가 콤피슨(사기꾼)의 아내에게 말하더구나. “샐리(‘사라’라는 이름의 ‘애칭’임), 그녀가 지금 내 주위를 어슬렁거

리고 있어. 위층에 있다고. 도저히 그녀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녀 는… 그녀는 온통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아서가 계속 말했지.

“그녀가 머리에 흰, 흰 꽃(신부용 꽃들을 말함)을 꽂았어. 미친 것 그녀라고. 그녀는 자신의 팔에 수의(시체에 입히는 옷)까지 축 늘어뜨 리고 있을 정도야. 이렇게 읊조리고 있어. ‘이 수의(시체 옷)를 당신에게 걸치고 말겠어요.’라고, 그 시간이 내일 아침 5시야.”

그러자 콤피슨(사기꾼)이 말했지.

“아니, 이 등신아! 그녀가 살아 있는 거 몰라?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 가냐? 방문도 통과하지 않고서 응! 그렇지 않음 창문으로 들 어갔냐? 왜 계단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말하려고?”

“나도 그녀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몰라.”라며 아서(아픈 사람)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 듯 떨며 말하더구나.

아서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분명 내 침대 발치에 서 있었어, 정말 미쳐 있다고. 그리고…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나가 있어, 그 자리에…, 당신(콤 피슨)이 그렇게 했잖아! 그 자리에 핏방울들이 있어.”

콤피슨(사기꾼)은 말은 억세게 했지만, 하지만 예전부터 검쟁이였지. 그래서 콤피슨은 자기 아내에게 말했지.

“(아내를 보며) 계속 쓸데없는 말들이나 해대는 이 병자를 따라 올라가 봐. 그리고 (매그위치를 보며 / 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42장의 화자) 매그위치, 이 사람(콤피슨의 아내) 좀 도와주겠나?”

그러면서도 콤피슨 자기 자신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했지.

콤피슨(사기꾼)의 아내(이름이 ‘샐리’, 이름 알 필요 없음)와 나는 아 서(아픈 사람)를 데리고 올라가 그를 다시 침대에 눕혔지. 그러는 동안에도 아서는 미친 듯이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단다.

“저기 그녀가 보여! 그녀를 좀 봐.”라며 소리치더구나.

“그녀가 나를 보며 수의(시체에 입히는 옷)를 흔들고 있어! 왜 그래, 그녀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녀의 저 눈 좀 보라고 제발! 저토록 미쳐 있다니,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

그는 다음에 이렇게 소리치더구나.

“그녀가 기어이 저 수의를 내게 입힐 거야. 그럼 난 결단 나는 거야! 제발 그녀를 내게서 좀 멀리 떼어줘, 제발 떼어달라고!”

그러더니 그가 우리의 손을 붙잡았지. 입과 눈으로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참혹하든지 나는 실제로 내가 그녀를 보았다고 믿을 정도였다.

늘 하든대로 ‘콤피슨(사기꾼)의 아내’가 아서(아픈 사람)에게 공포에서 벗어나라며 약간의 알코올을 주었다네. 그도 차츰 안정을 되찾더군.

“오, 그녀가 사라졌어요! 간수(지키는 사람)가 그녀를 데려간 거요?”

라며 그가 말했지.

“그래요.”라며 콤피슨의 아내가 말해주었네.

아서(아픈 사람)가 말했지. “당신이 간수(사람)에게 그녀를 철장 안에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시킨 거요.”

“네.”

“그럼 제발이지 그녀에게서 저 끔찍한 물건(핏방울이 있는 산산조각난 심장) 좀 치우라고 말해주시오?”

“네, 네, 알았어요. 그럴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라며 아서가 말하더군. “무슨 일이 있어도, 나 혼자만 있게 하지 말아 줘요. 그리고 매번 고마워요!”

새벽 5시가 되기 몇 분 전이었네. 그때까진 아서(아픈 사람)도 안정을 거의 되찾은 상태였지. 하지만 5시가 되자 그가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하더군. 그러면서 이렇게 고함질렀네.

“그녀가 다시 나타났어! 그녀가 내게 다시 수의(시체에 입히는 옷)를 내밀고 있소. 앗, 그녀가 수의를 펼치고 있어. 그녀가, 그녀가 구석에 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오. 이젠 침대까지 왔다고. 제발 나를 붙잡아 주오, 당신들(‘매그위치’와 ‘콤피슨의 아내’)이 내 한 쪽씩 잡아달란 말이오. 제발 그녀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해주오. 호, 저번에는 그녀가 나를 놓쳤지. 그러니 이번에도 그녀가 내게 수의를 던지지 못하게 해주오. 제발 그녀가 나를 들어 올려 저 수의를 내 몸에 걸치지 못하게 해주오. 아, 그녀가 나를 들어 올리고 있소. 나를 제발 내버려둬! 제발 나 좀 눌러주시오! 제발!”

그때 그가 바싹 곤두선 자세로 자신의 몸을 일으켰네. 그리고 그는 죽었네.

콤피슨(사기꾼)이 말했네. “잘 갔지 뭐야! 이건 그와 나 양쪽 모두를 위해서도 잘 된 일이야. 속이 다 시원하군!”

콤피슨과 나(프로비스=죄수, 42장의 전달자)는 곧 바빠졌네.

우선 그가 나에게 내 자신의 책에다가 맹세를 시겼네. 그는 언제나 교활했으니까. (주인공을 쳐다보며) 물론 그때 그 책이 내가 방금 네 동료(허버트)에게 맹세하게 한 그 작은 검정색 성경이란다, 얘(주인공)야.

콤피슨이 계획하고 내가 실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만으로도 1주일은 잡아먹을 테니까.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그 자(콤피슨)가 나를 그러한 그물들 속에 가두고는 나를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부렸다”는 얘기란다.

얘(주인공)야 그리고 핍(주인공이름)의 동료(허버트)야, 나는 그와 일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매번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지배를 받았고 항상 일을 했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사실 나보다 젊었다. 하지만 녀석은 술책(꾀)을 부릴 줄 알았지. 배운 것도 많았고 말이다. 그는 나보다 5백배는 더 강적이었다. 그리고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었지.

나와 함께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내 마나님(마누라)은… 그래 이 말은 말아야겠군! 그녀까지 들먹일….”

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42장 이야기의 전달자)가 혼란스러운 듯 자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자기 기억의 책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가 벽난로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손을 펴더니 좀 더 무릎을 많이 덮었다. 그가 손을 무릎에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 그녀(자신의 아내)까지 들먹일 필요는 없겠지.” 그가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콤피슨(사기꾼)과 함께한 그 때가 내가 일찍이 겪었던 거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단다.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할 정도면 말 다 한 것이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었나? 내가 콤피슨(사기꾼)과 일하는 동안 나만 경범죄(못된 짓)에 걸려 재판을 받은 얘기를 말이야.

내(23세, 주인공 / 42장의 이야기 전달자는 아님)가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이거 참!” 프로비스(57세, 죄수=42장의 이야기 전달자)가 말했다. 나는 재판에 걸려 유죄판결을 받았단다. 혐의를 받은 것만 해도 내가 콤피슨(사기꾼)과의 관계를 계속했던 4~5년 안에 2번인가 3번 정도였단다. 하지만 모두 증거부족으로 풀려났었지.

결국, 나는 콤피슨(사기꾼)과 함께 ‘흉악 범죄’(위조지폐 유통)로 재판에 넘겨졌단다.(예로부터 위조지폐 제조나 유통은 사형임. 특히 왕국에선 더욱더)

도난당한 잉글랜드(중앙은행) 은행권(지폐)을 유통시킨 혐의였단다. 물론 다른 혐의들로도 이미 고발당한 상태였지.

콤피슨(사기꾼)이 내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연락하지 말고 변론(대답)은 각자 하자.”

그래 그것이 다였다.

나는 뼈저리게도 가난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 등을 붙잡고 있던 것 (???)을 빼곤 내가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팔았다. 그 때가 내가 재거 스(런던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를 가까스로 찾아간 때란다.

우리가 피고(범인)석에 앉았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주목했다. 곱슬머리에 검정색 양복을 걸치고 가슴께에 흰 색 손수건을 꽂은 콤피슨(사기꾼)이 얼마나 런던신사처럼 보이는지를 말이다. 그에 비해 내 몰골은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 그 자체였단다.

검사측이 입을 열고 증거가 간결하게 제시되었을 때, 나는 미리부터 그 모든 증거들이 내게 얼마나 불리한지 반면 콤피슨(사기꾼)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벼운지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증인석에서 진술이 이루어질 때, 나는 알아차렸단다. 증언들이 얼마나 나를 지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이 매번 나였음을 얼마나 맹세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항상 일을 처리하고 이득을 본 것 같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맹세할 수 있는지를 나는 알아차렸단다.

하지만 피고(범인)측 변호인이 등장했을 때, 나는 그때서야 그 의도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단다.

왜냐하면, 콤피슨(사기꾼) 측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지.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앞에, 그것도 나란히, 극명하게 갈리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콤피슨=사기꾼)은, 그는 상대방(매그위치=프로비스= 죄수)보다 젊습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이 많은 쪽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자로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더 젊은 쪽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래들에서 비록 있다 해도 극히 드물게 모습을 보이며 단지 의심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더 나이 많은 쪽은 항상 이 거래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항상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있던 자입니다.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건에 한 사람만 관여하고 있다면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에 두 사람이 관여하고 있다면 과연 더 죄가 무거운 쪽이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이였지.(앞서 언급한 사기꾼 측 변호사의 주장이 사기 꾼에게만 유리했다는 얘기임)

재판이 기질(성격) 얘기로 진행되자, 학교를 다녔었던 건 콤피슨(사 기꾼)이지 뭐냐? 그리고 방청석과 배심원석 여기저기에 앉아 있던 자들도 콤피슨의 동창생들이지 뭐냐? 게다가 클럽과 사교모임들에서 콤피슨을 알던 자들까지 목격담을 들려주니 어디 하나 콤피슨에게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경범죄(못된 짓)로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유치장들과 구치소들을 줄기차게 들락거린 경력도 있었지. (유치장과 구치소 모두 재판에서 정식으로 판결나기 전에 가두어지는 곳)

그리고 재판이 피고(범인) 진술로 들어서자, 콤피슨은 자신의 하얀 손수건에 이따금씩 자신의 얼굴을 파묻으면서 진술을 했단다. 물론 그는 그러면서도 “아!”, “어!”, “야!”하는 유의 단어들을 자신의 진술 속에 넣었지.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진술에서 써먹을 수 있었던 건 고작, “신사 여러분들, 제 옆에 있는 이 자야 말로 가장 지독한 악당입니다요.” 뿐 이었단다.

배심원의 평결이 나왔을 때였다. 좋은 성격과 나쁜 친구(매그위치 자기 자신) 그리고 그가 나에 대해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법정정보들 때문에 자비를 받도록 추천받은 것은 콤피슨(사기꾼)이었단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들에게서 “유죄”라는 단어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되자 내가 콤피슨(사기꾼)에게 말했지.

“이 법정을 나서자마자 네 놈의 낯짝(얼굴)을 박살내주겠다!”라고. 그러자 콤피슨(사기꾼)은 재판장에게 “저를 보호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 그리고 두 명의 교도관들이 우리 둘 사이에 배치되게 되었단 다.

곧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콤피슨에겐 “7년 형”이 선고되었단다. 그리고 나는 “14년 형”을 선고받았지.

판사가 콤피슨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구나. “아주 잘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안 됐소.”라고.

그리고 판사는 나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단다.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저 상습범은 앞으로도 더 나쁜 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다분할 것으로 생각되오.”라고.

콤피슨(사기꾼)은 짐짓 자기 자신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는 듯 연 기했단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 2~3번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종종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내 쪽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 면서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한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지.

“이봐 자네, 나는 천해지지 않을 걸세!”라고.

이 과정에서 콤피슨(사기꾼) 그 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격하게 만들다보니 얘기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얼굴과 머리 그리고 목과 두 손을 닦아야했을 정도였단다.

내(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42장 이야기의 전달자)가 콤피슨(사기 꾼)에게 “네 놈을 박살내고 말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느님 제발 저 놈을 박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느님께서 저를 박살내도 좋습니다!’라고 기원했지.

우리는 같은 ‘감옥 선’(배)에 올랐지. 하지만 오랫동안 기회를 엿볼 수가 없었네. 비록 내가 시도를 했지만 말이야.

마침내 내가 녀석의 뒤로 몰래 갈 수 있을 때 난 녀석의 뺨을 후려갈겨 녀석이 돌아보게 했지. 그러고 나서 놈을 묵사발로 만들었네. 결국 내 행위는 발각되고 난 갇혔지.

감옥 선의 ‘감금소’는 그리 튼튼하지 못했다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

나는 실행에 옮겼고 해안가로 탈출할 수 있었네. 그리곤 그 곳에 있던 무덤(주인공의 부모님과 친누나 그리고 어릴 적에 죽은 동생5명과 그 지역 마을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교회 부속의 묘지들을 말함 / 그 곳에서 12세의 주인공이 탈옥수 매그위치와 콤피슨을 처음 만나면서

『 위대한 유산 』 이란 소설이 시작이 됨)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있었지. 결과가 정해져 그곳에 누워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난 얘

(12세 때의 주인공)를 처음 만난 것이야!

(주인공의 독백 시작→) 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불쾌감을 느꼈다. 비록 내가 그의 이야기에 큰 연민을 느꼈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너무 함부 로 해석하는 거 아냐? ~^^;; 뭐 어쨌든ㅋㅋ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시 키기로~)

(주인공의 독백 끝)

(매그위치의 이야기 다시 계속)

이 애(12세 때의 주인공)를 통해, 나는 콤피슨이란 작자(놈)도 감옥 선을 탈옥해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 교회묘지가 있음, 교회묘지에 주인공의 가족들 무덤이 있는 데 그 곳에서 12살의 주인공이 프로비스를 처음 만났었음)로 숨어든 것을 알았다.

맹세하건데 그 자식은 내가 녀석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깜짝 놀라 내게서 탈출을 시도한 것일 게다. 물론 녀석은 내가 이미 감옥 선을 탈옥해 해안가로 숨어든 사실을 모른 채였지.

나는 미친 듯이 끝까지 녀석을 추적했다. 그리곤 녀석의 얼굴을 묵사발을 만들었지.

내가 콤피슨(사기꾼)에게 이렇게 말했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짓을 네 놈에게 하겠다. 내 손을 빌릴 필요도 없다. 난 네 놈을 끌고 감옥 선으로 되돌아갈 테니까.”

내가 계속 말했지.

“가능한 한 있는 힘껏 헤엄쳐가겠다. 네 놈의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가겠다.”라고.

만약 그때 너희들이 오지 않았더라도 나는 병사들의 도움 없이도 녀석을 끌고 감옥 선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물론 젠장, 그 자는 법정에서 판사가 말한 대로 “그 놈의 성격이 아주 좋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활용했지만 말이다.

결국 내 존재와 내 살해 의도들에 겁을 먹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 자가 탈옥한 것으로 되었지. 그래서 그 자에겐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반면 난 철장행이였지. 그리고 나는 다시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러다 결국 종신유형(평생 섬에 보내 가둬버림)에 처해졌지.

하지만 여기 이렇게 있으니 죽을 때까지 머무르지는 않았구나, 얘 (23세의 주인공)야 그리고 핍의 친구(23세의 허버트)야.

그가 다시 얼굴이며 목이며 머리를 닦았다. 전에 한 동작 그대로였다. 그런 다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마구 엉켜서 묶여져 있는 가루○배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단추 구멍에서 파이프(피우는 파이프)를 잡아 뽑았다. 그가 가루○배로 파이프 안을 천천히 채우더니 곧 ○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사기꾼인 ‘콤피슨’)가 죽었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물 었다.

“누가 죽었단 말이냐, 얘야?” “콤피슨(사기꾼)이요.”

“그 자라면 내가 죽었길 바랄게다. 만약 그 작자가 살아 있다면 말이다. 넌 그것을 확신해도 좋을 게다.” 매그위치가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때 이후론 그에 대해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단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책 표지에다가 자신의 연필로 뭐라고 적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그 책을 내 쪽으로 밀며 보여주었다. 그건 프로비스(= 매그위치=죄수=57세)가 막 벽난로를 바라보고 파이프를 피우며 서 있을 때였다.

내가 천천히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아니? 해비샴(41장까지만 해도 주인공은 거부인 해비샴이 자신에게 에스텔라와 막대한 유산을 물러줄 거라 생각했었음)의 처녀 때 이름이 ‘아서(해비샴에겐 어머니가 다른 오빠가 한 명 있었음. 그 오빠가 콤피 슨과 짜고 해비샴에게 결혼을 빙자한 돈 사기를 벌인 것임 / 물론 콤 피슨이 해비샴과 결혼한다며 접근한 것임)’야.”

내가 책을 덮었다. 나는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허버트가 책을 한쪽으로 치웠다.

하지만 우리 둘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벽난로 가에 서서 자신의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 프로비스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위대한 유산**

**43장**

내가 다음과 같이 묻기 위해 흐름을 끊을 이유가 없었다. 내가 프로 비스(=매그위치=죄수)에 대해 몸을 사린 이유가 “얼마나 많이 에스텔라에게 기인하고 있는지?”를 굳이 물을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나는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 심리 상태를 굳이 비교함으로써 늦장을 부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첫째는, 역마차 매표소에서 에스텔라를 만나기 전에 뉴게이트 감옥 (런던시내에 있었던 유명한 옛 감옥)의 얼룩을 내 자신에게서 떼어내 버리기 위해 애썼을 때의 내 심리상태와,

둘째 ‘자존심 강하고 아름다운 에스텔라’와 내가 숨겨주고 있는 ‘이 돌아온 유형자(죄수)’ 사이에 놓인 깊고 깊은 구렁을 지금 되돌아보며 떠올리고 있는 내 심리상태.

나는 첫째 심리상태와 둘째 심리상태를 굳이 비교하는 늦장을 부림으로써 시간을 허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한다고 내 인생길이 더 순조로워질 리도 없었고, 그렇게 한다고 이 결말이 더 좋아질 리도 없었다.

그것은 프로비스(죄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며, 그를 숨겨주고 있는 내 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었다.

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57세)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

아니 차라리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 속에 이미 있던 두려움이 일정한 형태와 의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만약 콤피슨(프로비스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고 프로비스가 돌아온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후 벌어질 사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콤피슨(사기꾼)이 프로비스(죄수)에 대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나도 그들 당사자들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다.

까짓 프로비스가 묘사한 그런 사기꾼이라면, 밀고자가 되는 안전한 방법들을 통해 두려운 적으로부터 영원히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망설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난 결심했다. ‘프로비스(죄수)에게 에스텔라에 관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허버트에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내가 해외로 갈 수 있기 전에 에스텔라와 미스 해비샴을 둘 다 반드시 만나봐야겠어.”

내가 이 얘기를 허버트에게 건넨 건, 그러니까 프로비스(57세, 죄수) 가 우리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 날 밤에 프로비스는 돌아가고 허버트와 나만 거실에 남아 있을 때였다.

나는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 다음날 꼭 가봐야겠다고 결심했고 또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브랜들리 부인(에스텔라의 하숙집 여주인. 이름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안 나오는 엑스트라임. 소설이야기 진행과 전혀 상관 없는 인물 임)의 집에 들르자마자, 불려나온 에스텔라의 ‘심부름꾼 여자아이’가 “아가씬 시골에 내려가셔서 지금 안 계시는데요.”라고 말해주었다.

“시골이라니? 어디 시골을 말하는 거냐?”

“늘 그렇듯이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저택이름)요.” “늘 그렇듯이 가 아닌데.”라며 내가 말했다.

에스텔라가 나와 동행하지 않고서 시골로 내려갔었던 적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아가씬 언제 돌아오신다고 하셨지?”

이어진 그 애의 대답 속엔 조심스럽게 뭔가를 숨기려는 태도가 있었다. 그것이 나를 엄청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제 생각에, 아가씨께선 절대 금방은 안 돌아오실 것 같아요.”

이 애가 한 말의 뜻을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애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정도였다.

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당황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루가 지났다.

프로비스가 귀가한 후, 물론 나는 매번 그를 하숙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프로비스가 귀가한 후 나는 또 다시 허버트와 밤에 의논을 나누었다.

아무래도 내가 미스 해비샴을 만나고 돌아올 때까지는 해외로 도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 동안에, 허버트와 나는 프로비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따로따로 생각할 예정이었다. 아무래도 그가 수상쩍은 관측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구실을 만들어내야 할지 어떨지?를 말이다. 또는 이제껏 단 한 차례도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는 내가 먼저 여행을 제안해 봐야 할지 어떨지? 를 허 버트와 나는 따로따로 생각해볼 예정이었다.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든지 프로비스가 동의할 것임을 우리 둘은 알았다.

계속 이런 위험한 상태에 그가 여러 날을 보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에도 우리는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조(58세, 주인공의 매형 / 주인공의 친누나는 이미 죽었음)에게 꼭 내려 가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 이건 꼭 지켜야할 약속이야.”라는 구실을 만드는 조잡함을 보였다.

물론 나는 이때쯤이면 조(매형)나 조의 이름을 걸고서 거의 어떤 조잡한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가 외출하고 없는 동안 프로비스(57세, 죄수)는 절대 조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프로비스를 돌보았듯이 허버트가 그를 책임져 주기로 했다.

나의 시골방문은 1박(1밤)이 예정이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대로 내가 더 어마어마한 규모로 런던신사로서 내 출발을 시작함으로써 프로비스의 조바심을 만족시켜줄 예정이었다.

그때 문득 내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이후에 내가 알았듯이, 허버 트에게도 또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그건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유의 구실을 대고서 바다를 건너 도피하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미스 해비샴’(‘주인공 시골마을’ 인근 ‘읍내 외곽’ 에 사는 어마어마한 부자)을 방문하고 하고 일을 처리해 놓은 후, 나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마차를 타고 아직 해가 비치기 전에 출발했다.

그래서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할 쯤에는 탁 터인 시골 길을 달리고 있었다.

주저하면서, 훌쩍거리면서, 후들후들 떨면서, 그리고 조각구름(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구름)과 걸레 같은 엷은 안개에 둘러감싸인 채, 마치 걸인(거지)같이 차츰차츰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아침이었다.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차에 탄체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의 여인숙이름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누군가가 현관입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야 했다.

손에 이쑤시개를 든 녀석, 그 녀석이 마차를 쳐다보았다. 그건 ‘벤틀리 드러믈’(24세, 지방의 부유한 어느 남작의 둘째아들임. 즉 ‘준 남작’ 의 지위를 이어받을 두 번째 계승자임. 하지만 얼굴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몸은 빌딩처럼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아둔하지만 자신의 가문과 부유함에 대해 엄청 거만해하는 인물임. 주인공의 라이벌. 드러믈이 이름. 벤틀리가 세례명임. 또한 드러믈은 생활이 나태하고 거만하며 인색한(구두쇠) 인물임 / 자세한 내용은 25장을 참조바람. 25장 첫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054106254> , 검색일자

: 2014-11-20) 수밖에 없었다.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이 나(23세, 주인공)를 못 본체 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못 본체 행동했다.

그건 서투른 가식이었다. 우리 둘 다에게 말이다. 특히나 우리 둘 모두 그 커피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서투른 가식이었다.

커피숍에서 보기 그는 막 자신의 아침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나는 주문을 했다. ‘읍내에서 녀석을 볼 줄이야!’ 지독히 불쾌했다. 왜냐하면 저 자식이 여기 왜 왔는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인공이 드러믈을 만난 곳은 읍내입니다. 읍내에서 50분 쯤 걸어 가야 주인공의 시골마을이 나옵니다. 시골이 아니라 주인공이 드러믈을 만난 읍내 외곽에 주인공의 최종 방문목적지인 미스 해비샴의 저택이 있습니다.)

기름이 배고 끈적끈적한, 날짜 한 참 지난 신문을 나는 읽는 체했다. 이건 뭐 신문지에 커피, 양파절인 것들, 생선양념들, 고기국물, 녹다 만 버터, 그리고 와인 등등의 온갖 이물질들이 신문지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어서 글자를 뚜렷이 읽을 수 있는 지방뉴스는 반도 안 되었다.

이 신문지는 마치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뛴 홍역에라도 걸린 것만 같았다.

드러믈 자식은 벽난로 앞에 서 있었고 나는 내 식탁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점차 저 자식이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나에 대한 극악무도한 무 례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벽난로에서 내 몫을 찾아오기로 결심했다.

내가 벽난로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나는 불을 휘젓기 위해 부 지깽이(큰 포크 같은 거)를 쥐기 위해 드러믈 자식의 두 다리 뒤쪽으로 내 손을 뻗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그를 모르는 체했다.

“이거 고의적인 무시냐?”라며 드러믈 씨(24세, 주인공의 라이벌)가 말했다.

“(놀라는 체 하며) 오!”라며 내가 부지깽이(집게)를 손에 들고 말했다. “이거 자네 아닌가? 그래 잘 지냈나? 난 또 어느 자식이 벽난로를 막고 있나 싶었지.”

이 말과 함께 내가 부지깽이(집게)를 불 속으로 무시무시하게 쿡 찔러댔다. 그 일을 다 한 다음, 나는 어깨를 쭉 펴고서 등을 벽난로로 향한 다음 드러믈과 함께 나란히 자리를 잡고섰다.

“이제 막 내려온 건가?” 드러믈 씨가 자신의 어깨로 나를 약간 밀어제치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내 어깨로 다시 그를 약간 밀어제치며 말했다.

“불쾌한 곳이군. 짐승 같은 곳이야.” 드러믈이 말했다. “자네 고향이 이 어디쯤이랬지?”

“맞아.” 내가 동의하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 고향 ‘슈롭셔’(리버폴과 버밍엄 중간쯤에 있음 / 그러니까 영국중서부에 있는 카운티)도 만만치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조금도 닮지 않았네.”라며 드러믈이 말했다.

얘기가 이딴 식으로 진행되자 녀석이 자기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나도 내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다음 녀석이 내 부츠를 못마땅한 듯 째려 보았다. 그래서 나도 녀석의 부츠를 못마땅한 듯 쳐다보았다.

“여기 오래 있었나?”라며 벽난로에서 단 1cm(센티미터)도 밀려나지 않으려고 작심한 상태에서 내가 물었다.

“충분히 지겨워질 만큼 오래 있었지.”라며 드러믈이 하품을 하는 척 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실은 이 녀석도 방금 나와 똑같은 생각이었다.

“그럼 여기 계속 머무를 건가?”

“말할 수 없지.” 드러믈이 대답했다. “그래 자넨?” “말할 수 없지.” 내가 말했다.

나는 이 부분(대화)에서 피가 따끔거렸기 때문에 만약 드러믈 이 자식의 어깨가 머리털 한 올만큼의 너비라도 더 자기 거라고 주장했다면 내가 분명 그를 낚아채 창문으로 던져버렸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어깨를 머리털 한 올만큼의 너비라도 더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들었다면 녀석이 나를 낚아채 가장 가까 이에 있던 상자 속으로 나를 던져버렸을 것이다.

녀석이 살짝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서 나도 휘파람을 불었다.

“이 근처에 꽤 넓은 늪지대(주인공의 마을 인근 늪지대)가 있다며?” 드러믈이 말했다.

“그래. 그래서 뭐?” 내가 말했다.

드러믈 씨가 썩은 미소를 날리며 나를 보았다. 그런 다음 그가 내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녀석이 “흥!”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다. (디킨스가 쓴 그대로 해석하면 → 〈 드러믈 씨가 “오!”하며 소리 내어

웃었다. 〉 임 -\_-;; 왜 “흥!”이라는 콧방귀로 바꾸었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웃었다”보다는 “콧방귀를 뀌었다”가 어울릴 것 같아서~ 완전히 내 마음대로 막가는 해석~)

“(갑자기 높임말로) 재미 있으신가보군요, 드러믈 씨?” 내가 말했다. “아니,”라며 드러믈이 말했다. “별로야. 말 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 늪지대부터 돌아보는 게 좋겠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저 쪽에 외딴 마을들이 있다지, 사람들이 그러더군. 작고 특이하게 생긴 선술집들이며… 대장간들이며… 그런 것들 말이야. (큰소리로) 웨이터!”

(웨이터의 대사→) “예, 나리.” “내 말 준비해두었겠지?”

“문간까지 끌어다 놓았습죠, 나리.”

“자, 이봐, 형씨. 숙녀 분께선 오늘은 말을 타지 않으실 거네. 날씨 가 그럴 날씨가 아니지.”

“아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나리.”

“그리고 내 식사를 준비시킬 필요 없네, 오늘은 내가 그 숙녀분의 집에서 정찬(코스요리)을 들 거니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나리.”

그때,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이 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비대하게 큰 아래턱을 가진 그의 얼굴에 오만한 승리감이 만발했다. 그것이 내 가슴에 사무쳤다. 저 아둔한 자식이… 나를 몹시 화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녀석을 팔로 낚아채 벽난로 불 속에 녀석을 눕혀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마치 영국 아동용 동화책에 나오는 ‘딕 터핀’이라는 노상강도가 노파(노부인)를 그렇게 벽난로 불 속에 넣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처럼 말이다.(← 이 마지막 문장 확 빼려다 그냥 소설이 니까 남겨두었습니다. -\_-;; 이 마지막은 다름이 아니라, 이 소설 『 위 대한 유산 』 이 집필되기 약 100년 전에 영국에서 악명 높던 강도1명 (딕 터핀)과 그 무리들 4명 이렇게 5명이 경찰에게 쫓기던 중 어느 영 국 가정집 그러니까 에식스 지방에 있는 셀리 라는 노부인의 집에 침 입했다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그녀를 벽난로 위에 눕혀 버리겠다고 말했는데 노부인이 끝까지 거절하자 그 방에 있던 그녀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결국 노부인에게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 2층으로 가 돈 몽땅 훔치고 지하층으로 가서 술 마시고 다시 다 른 집으로 가서 강도질을 했다는 기사가 주간저널에 실린 것을 디킨스 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악명 높았던 강도이름은 ‘딕 터핀’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지고 나서 그의 도주소실과 범행들이 기사화되고 소설로 쓰이면서 전설적인 노상강도 딕 터핀이 탄생했음. 또한 1834년에 ‘윌리엄 에인즈워스’가 딕 터핀의 도주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히트 시켰는데 ‘윌리엄 에인즈워스’는 디킨스와도 친분이 있었음. 역시 사람이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는 종이 한 장 차이. 개 인의 처신이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강도가 전설적인 노상강도로 돌변~. 참조 : 위키백과)

이거 하나는 우리 둘 모두에게 분명했다. 즉, 무슨 건수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둘 다 절대 벽난로를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벽난로에서 어깨를 펴고, 어깨 대 어깨, 발 대 발로 맞서며 두 손은 뒷집을 지고서 단 1cm(센티미터)도 꿈쩍 않고 있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가운데 문가에 서 있는 말이 보였고, 내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려져 있었다. 드러믈의 식사 테이블은 치워져 있었다. 웨이터가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나리.”라며 나를 부르기 시작 했고 나는 고개를 끄떡여주었다.

그럼에도 우리 둘 모두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래 그 이후로 ‘작은 숲’(드러믈과 주인공이 속한 먹고 마시고 죽자 식의 20대 초반 런던신사들의 놀자 클럽)에는 가본 적이 있나?”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이 말했다.

“아니.” 내가 말했다. “지난번 거기에 있었을 때 ‘핀치 새’(‘클럽구성원’을 의미함)들에게 충분히 질렸거든.”

“그날이 우리가 의견 차이를 보이던 때인가?” “맞네.” 내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다.

“아니, 이봐! 핀치 새들이 자넬 너무 쉽게 풀어주었어.” 드러믈이 비웃으며 말했다. “무엇보다 자넨 그때 화를 내선 안 되었었어.”

“드러믈 씨.”라며 내가 말했다. “그 주제라면 남 말 할 때가 아닐 텐데. 나는 화가 난다고 상대방에게 와인 잔을 집어 던지지는 않네. 이 경우에도 내가 그 날 화를 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네.”

“나는 집어던지지.” 드러믈이 말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흉포한 심리상태에서 녀석(드러믈)을 한 번 또는 두 번 더 흘낏 쳐다본 후, 내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드러믈 씨(24세, 주인공의 라이벌), 이 대화는 내가 청한 것이 아니네, 그리고 나는 이 대화가 기분 좋은 대화라고 생각지도 않네.”

“물론 쾌활한 대화는 아니지.” 녀석이 자기 어깨 너머로 오만하게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 하지 않네.”

“그래서,”라며 내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미안하네만, 앞으로는 우리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제안하는 바이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네.”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이 말했다. “내가 먼저 제안했어야 할 것을…, 아니 오히려… 제안 없이도 바로 실행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는 말게. 그러지 않아도 자넨 앞으로 잃어야 할 게 많지 않은가?”

“방금 한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지 물어야겠네, 형씨?”

“흥, (웨이터를 쳐다보며) 웨이터!” 드러믈이 내게 대답하는 대신 웨이터를 불렀다.

웨이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봐, 자네. 아리따운 숙녀 분께선 오늘은 말에 오르시지 않을 거란 내 말 이해했겠지. 그리고 내가 그녀의 저택에서 정찬(코스요리)을 들 거란 소리도 말이야.”

“그렇고말고요. 나리!”

급격하게 식어있는 찻주전자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살짝 느껴보던 웨 이터가 ‘고만 좀 드세요. 다 식어가요.’(← ‘ ’ 안의 문장은 제가 그냥 재미로 추가한 문장입니다)라며 애원하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나가 버렸다.

내 어깨에 밀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며,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가(담○잎을 돌돌 말아서 만든 담○) 하나를 꺼내더니 그 끝을 물어뜯어냈다. 하지만 전혀 움직일 기색은 없어보였다.

(43장의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막 들어서 매서워지기 시작하던 때임) 녀석의 담배에 숨이 막히고 등 뒤 벽난로 열기에 푹푹 찌던 나는 에스텔라의 이름을 꺼내지 않고는 우리 사이의 대화가 단 한 단어도 더 진행되지 못할 것임을 느꼈다.

하지만 녀석이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반대쪽 편의 벽만 돌처럼 차갑게 쳐다보며 마치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는 듯 행동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에게 제발 좀 침묵하고 있으라고(=에스텔라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강요 하고 있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세 명의 농장주가 그때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을 그런 말도 안 되게 웃 기는 자세를 취한 체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내 생각에 농장주를 커피숍에 들어오게 한 것은 아마도 웨이터의 배려 같았다.

커피숍으로 들어온 그 세 명의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두꺼운 외투의 단추를 풀고서 두 손을 맞비벼대며 벽난로를 향해 돌격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벽난로 앞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드러믈(드러믈은 행동이 굼뜬 인물입니다.)이 자기 말의 갈기(목덜미의 털)를 잡는 장면이 창문을 통해 보였다. 녀석이 어색하고 난폭한 방식으로 말에 올랐다. 말이 주저주저하듯 옆걸음질 치며 뒤로 물러갔다. 지나가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녀석이 다시 나타났다. 잊고 있었던지 입에 물고 있던 시○(잎을 돌돌 만 담○)에 불을 붙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다갈색(검은빛을 띤 갈색) 옷을 입고 있던 어떤 남성이 불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알 수 없었다. 여관의 안뜰일 수도 있었다. 아님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님 다른 어딘가에서 나왔을 것이다. 드러믈이 말에서 몸을 아래로 숙이더니 시○(담○)에 불을 붙이곤

소리 내어 웃었다.

드러믈이 커피숍 창문들 쪽으로 머리를 홱 움직였다. 드러믈에게 불을 붙여주던 남성의 구부정한 어깨와 누더기 같은 머리카락들이 보였다. 그 남성은 나와 등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 나는 올릭(36세, 사악한 악당)을 떠올렸다.

43장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쓴 부연설명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올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흉포한 성격에 강자 앞에선 비굴한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장에 나온 올릭의 성격 및 외모묘사를 참조바

랍니다. 15장 링크 <http://blog.naver.com/osy2201/10189513046>

)

(이렇게만 쓰면 읽으실 분이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15장에 나온 올릭의 인물묘사를 좀 정리했습니다.

〈 올릭은 양보하지 않는 성격의 사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해 력에 대한 모욕의 의미를 담아 고의적으로 자신의 세례명을 “돌지(‘돌지’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는 없음)”라고 주장하고 다닌 것이다. 올릭은 어깨가 넓고 움직임이 유연한 사내였다. 얼굴이 까무잡잡한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는 그리고 몸을 항상 앞으로 수그린 채 그렇게 축 처진 자세로 걷는 사내였다. 〉 (15장 중에서)

죄수가 버리고 간 족쇄(쇠 수갑)를 올릭이 주어보관해오다 올릭이 주인공의 누나와 말다툼을 심하게 벌이던 날 그 족쇄로 주인공의 누나를 때려 다치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든 범인이지만 증거가 없어 주인공이 어쩌지를 못한 인물입니다. 올릭은 주인공이 아주 어릴 때부터 주인공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특히나 주인공이 어른이 되어서는 올릭이 비디(여자이름)를 좋아했는데 비디가 주인공을 좋아했었기 때문입 니다. 물론 비디와 에스텔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비디와 에스텔라가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비디는 예쁘지는 않지만 상냥하고 착해 주인공과 어울릴 만한 여자지만 주인공이 안 좋아하고, 에스텔라는 굉장한 미인이지만 주인공이 전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가 아님에도 주인공이 사랑하고만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 위대한 유산 』 의 주제는 이래저래 말 돌릴 필요도 없이, “주인공의 성공과 파멸, 그리고 주인공이 시종일관 우울한 시선에서 바라본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지만 런던신사가 되리라는 환상도 그리고 에스텔라와 결혼할 수 있으리라는 것도 모두 환상이었다. 하지만 아련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의 사랑을 받을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ㅜ\_ㅜ

행복은 뭔가 다른 요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 사랑, 진실함, 성 실함으로 이어진 인간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저의 설명 끝~)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그땐 내가 드러믈 때문에 기분이 심하게 언짢았기 때문에 그 남성이 올릭인지 아닌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결국 어찌되었건 나는 아침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다.

얼굴과 손을 물로 씻음으로써 날씨와 여행으로 생긴 피곤을 씻어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잊혀 지지 않는 옛집(=이름이 ‘새티스 하우스’ 임=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가 사는 저택임)을 향해 걸었다.

내가 결코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결코 알지 못했더라면 내게 훨씬 더 좋았을 그 잊혀지지 않는 옛집을 향해 나는 걸어갔다.

**위대한 유산**

**44장**

화장대가 서 있는 방, 밀랍(밀랍=꿀벌 집 재료)으로 만든 초들이 벽 위에서 타고 있는 방 안에서 나는 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부자)과 에스텔라를 발견했다.

에스텔라는 쿠션 위에 발을 올려놓고서 벽난로 가까이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에스텔라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미스 해비샴은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들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곧 두 사람은 내 안에 생긴 어떤 변화를 눈치 챘다.

그들이 주고받는 표정을 통해 나는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부자)이 말했다.

비록 미스 해비샴의 눈빛이 견고하게 나를 보고 있었지만 분명 그녀 의 눈빛에는 당황한 흔적이 있었다.

에스텔라가 나를 보는 동안 잠시 멈추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다. 그 손가락들의 움직임에서 나는 “내가 내 진짜 후원자를 알게 되었음”을 그녀가 눈치 챘음을 내가 간파했다고 생각했다. 그건 마치 그녀가 나를 향해 수화를 보내는 마냥 분명해보였다.

“미스 해비샴 마님.” 내가 말했다. “저는 어제 에스텔라에게 전할 말이 있어 리치먼드(런던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에스텔라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전 에스텔라를 여기로 오게 한 어떤 바람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온 것입니다.”

미스 해비샴이 세 번 인가 네 번 내게 앉으라며 시늉을 해보였다. 나는 화장대 옆에 놓인 의자에 가 앉았다. 그 의자는 미스 해비샴이

종종 앉던 자리였다.

내 다리와 내 주변으로까지 다가온 이 모든 파멸의 순간에 그 의자는 그 날 나를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자리 같았다.

“미스 해비샴 마님, 전 에스텔라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마님 있으신 데서 지금…, 곧 하겠습니다. 마님을 놀라게 할 얘기도 마님을 노하게할 얘기도 아닙니다. 전 지금 마님께서 바라신만큼이나 충분히 불행한 상태니까요.”

미스 해비샴은 계속해서 나를 견고하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에스텔라의 손가락들의 움직임에서 그녀가 뜨개질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저는 제 후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행운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명성을 주는 것도, 제 지위를 높이는 것도, 제 운을 틔어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이상을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관련된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에스텔라를 쳐다보며 말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생각하며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스 해비샴이 되풀이해 말했다.

“그게 너의 비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비밀이라는 거니. 그렇지?”

“미스 해비샴 마님께서 저를 여기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저 너머에 있는 마을, 결코 제가 떠나오지 말았어야 할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연히 불러온 어떤 다른 소년의 자격으로, 결핍을 채워주고 변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그래서 그 보답으로 돈을 받는 그런 종류의 하인으 로서 저는 실제 여기로 불러왔겠지요.”

“아아!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미스 해비샴이 확고하게 고개를 끄떡여 보이며 대답했다. “그래 넌 그랬다.”

“그리고 저 ‘재거스 씨’(런던 유명 변호사)가….” (부연설명 1 : 재거스 씨는 미스 해비샴의 재산관리 관련 법률 대리인이자, 주인공 핍의 후견인)(부연설명 2 : 재거스 변호사 = 주인공에게 유산을 물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인공의 법률담당 후견인임. 주인공이 성년(영국의 경우 = 21세 이상)이 아니라서 유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까지 돌봐줄 후견인이 필요했음)

“재거스 씨는,” 미스 해비샴이 강한 어조로 내게 이의를 제기하며 말했다. “그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가 내 재산관리 변호사인 것과, 그가 네 후견인의 변호사인 것은 우연의 일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너의 경우와 같은 우연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 우연이 일어났다. 그건 누군가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이 시점까지 미스 해비샴의 수척한 얼굴에 어떠한 은폐도 또한 어떠 한 회피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제가 이다지도 오래 유지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적어도 마님께서는 저를 거짓말로 유혹하셨잖아요?”

“그래,” 그녀가 다시 한 번 견실하게 고개를 끄떡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를 속인 것은 맞다.”

“그게 친절이었던가요?”

“내가 누구냐,” 그녀가 갑자기 자신의 목발 지팡이로 바닥 위를 치며 말했다. 그녀가 너무도 갑작스레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에스텔라까지 흠칫 놀라 미스 해비샴을 흘긋 올려다보았을 정도였다.

미스 해비샴이 계속 말했다.

“내가 누구더냐, 오 하느님 맙소사, 내가 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느냐?”

그것은 힘이 약한 불평이었다. 그리고 나에겐 그럴 의도(불평을 할 의도)가 없었다.

나는 이 얘기를 그녀에게 했고, 그녀도 이 감정폭발 이후엔 생각에 잠겨 음울하게 앉아 있었다.

“그래, 그래, 좋다!” 그녀가 말했다. “그밖에 또 있느냐?”

“저는 이전에 여기서 시중 든 것에 대한 보답을 후하게 지불받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말했다. “대장간 수습공(일을 배우는 직공)에게 있어서 그 보수는 아주 관대한 금액이었습니다.(미스 해비샴은 봉투 안에 1천2백5십 만원을 주인공의 매형에게 주 었음. 참조 13장 ▶ <http://blog.naver.com/osy2201/10188752399> ) 그리고 방금 질문들은 대답을 바라지 않고 단지 참고로만 드린 질문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들은 다른 의도에서 드리는 질문들입니다. 바라건대 사심없는 질문들이라 생각됩니다. 제 착각들을 어르고 달래시는 동안 마님께선 아마도 마님의 이기적인 친척들을 벌하셨 겠지요. 아님 그들을 상대로 책략을 꾸미셨던가요, 마님의 의도를 설명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단어가 있다면요.”

“그래 내가 그랬다. 이런, 그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들이나 너에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탄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만든 올가미에 걸린 것이다. 나는 결코 그런 덫을 만든 적이 없다.”

나는 그녀의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역시 그녀가 야생적이고 갑작스런 방식으로 벌컥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나는 얘기를 계속했다.

“저는 마님의 친척들 중 한 가족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미스 해비샴 마님. 저는 런던으로 상경한 이후 줄곧 그 가족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해 그들이 저만큼이나 헛된 희망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님께서 받아들이시든 아니든 그리고 마님께서 제 말에 신빙성을 부여하시든 아니든 마님께선 매튜 포킷 씨(미스 해비샴의 친척. 23세의 미스 해비샴이 사기꾼 남성에게 빠져 허겁지겁 결혼하려하자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하다 미스 해비샴과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후 다시는 서로 안 만나고 있는 사이)와 그의 아들인 허버트(매튜 포킷 씨의 아들)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계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을 마님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의 부정과 열등감 탓일 테니까요. 만약 마님께서 그 두 사람이 관대하고 올바르며 열린 마음과 도무지 노림수와 비열함과는 동행할 수 없는 이들이라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마님께선 그들 두 사람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네 친구들이다.” 미스 해비샴이 말했다.

“제게 그들의 지위를 빼앗겼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제 친구들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세라 포킷(결혼하지 않은 주름투성이 노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신분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기질투하며 현실의 문(저택의 진짜 현관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엑스트라 /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되는 이름임)과, 미스 조지아나(괜히 엄숙하게 보이려고 엄숙한 표정을 지어면서 뒤로 꿍꿍이를 꾸미는 여인 / 몰라도 되는 이름임), 그리고 카밀라(수다쟁이 여자 / 몰라도 되는 이름임) 부인은 제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두 사람(‘허버트의 아버지’와 ‘허버트’)을 대비한 것이 기쁘게도 미스 해비샴에게 이롭게 작용한 것 같았다.

그녀가 잠시 나를 예민하게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가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단지,” 내가 말했다. “단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혼동해주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비록 그들이 친척사이이지만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의 타고난 품성까지 닮은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가 나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되풀이해 물었다.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전 교활하지 않습니다, 마님.” 내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내가 말했다. “심지어 제가 의도할 때조차도 제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마님께 숨길 수 있을 만큼 전 약삭빠르질 못합니다. 미스 해비샴 마님, 만약 제 친구인 허버트(미스 해비샴의 ‘사촌 오빠’의 아들)가 살아 있을 때 영구적인 도움을, 그러니까 약간의 금전을 녀석 에게 할애해줄 수 있는지요. 하지만 이 경우(인도와의 무역사업)의 성격상 마님의 도움을 녀석이 몰라야합니다. 방법은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허버트가 몰라야 되느냐?” 미스 해비샴이 양 손을 자신의 목발 지팡이 위에 얹으며 말했다. 그건 좋은 신호였다. 내 말에 좀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왜냐하면요,” 내가 말했다. “제가 이미 2년 전부터 녀석 모르게 녀석의 사업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입니다. 이제 와서 그 일이 제 능력을 넘어선 이유를 설명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 된 비밀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마님.”

미스 해비샴이 나에게서 시선을 점점 거두더니 벽난로의 불쪽으로 가져갔다.

침묵과 천천히 소모되고 있는 초들의 불빛에 의해 그녀가 아주 오랫 동안 벽난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은 듯이 느껴졌다.

붉은 석탄들이 몇 개 다 타버렸다. 그 바람에 그녀의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다시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우선 나는 그녀의 눈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곧 그녀의 눈빛이 점점 주의력을 회복했다.

이러는 내내 에스텔라는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이제 시선을 내게 확고하게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건 마치 우리 사이에 어떠한 대화단절도 없었다는 듯 확 고했다.

“그 밖에 또 있느냐?”

“에스텔라,” 내가 이제 그녀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었다. 에스텔라. “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니. 난 너를 오래도록 그리고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사랑해왔어. 넌 알거야.”

이런 식의 말을 건네자마자 그녀가 두 눈을 들어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가락들은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얼굴표정을 한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나에게서 눈을 떼어 그녀를 흘낏 쳐다보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 나를 다시 쳐다보았다.

“좀 더 빨리 말했어야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는걸. 내가 이토록 오랫 동안 미망에 젖어있지만 않았더라도. 그 미망이 나로 하여금 미스 해비샴이 우리들을 이어주려고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를테면 너도 네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을 거라 내가 생각하는 동안은 나도 이 말을 삼가 해왔던 거야. 하지만 이제 이 말만은 꼭 해야겠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냉랭한 시선을 견지한 채 그리고 손가락들은 뜨개질을 계속하면서, 에스텔라가 고개를 가로 저었다(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다는 얘기).

“나는 알아,” 내가 ‘그 행동(에스텔라의 흔들리지 않는 냉랭함)’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안다고. 내가 이제 너를 내 꺼라 부를 아무런 희망도 없게 되었음을 말이야, 에스텔라. 이제 곧 내가 어 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가난해질지, 또는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너를 이 새티스 하우스에서 처음 만나 그 순간부터 사랑해왔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냉랭한 시선을 한 채 나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는 뜨개질을 치중하며 그녀가 다시 한 번 고개를 가로저었다(도리도리 흔들었다는 얘기).

“만약 미스 해비샴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 해보서도, 이토록 수년 동안을 헛된 희망과 효과 없는 달음질로 고통 받도록 어느 가난한 시골 소년의 감수성을 획책한 것이라면, 그녀 안에 있는 잔인함은, 그 잔인함은 너무 무서운 잔인함인 거야. 하지만 그녀가 그 심각성을 충분히 되돌아보진 못했을 거라 생각해. 그녀 자신의 시련(23세에 사기꾼에게 사랑을 빙자해 돈사기를 당하고 버림받은 것)을 감내하느라 내가 겪는 시련은 잊은 거라 생각해, 아니니 에스텔라.”

미스 해비샴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댄 체 나와 에스텔라를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를 감정들,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 에 스텔라가 아주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난 단지 그것을 낱말들의 조합으로써 이해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어. 넌 내 마음 속에 어떤 것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 내 마음에 닿지도 않았다고. 네가 하는 말에 개의치 않아. 내가 분명 이것에 대해 경고 했었잖니? 자, 아니었니?”

내가 비참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맞아. 그때 넌 내 경고를 듣지 않으려 했어. 왜냐고? 내게 경고의 의미가 없다고 넌 생각했으니까. 자,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사실이지 않길 바랐어. 넌, 너무 여렸고, 가냘팠고,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에스텔라! 분명 그게 네 본심일리 없어.”

“그게 내 본심이야.”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단어 하나 하나에 힘을 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야.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도 내가 너를 그나마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 이상은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벤틀리 드러믈(24세)이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건 사실이 아니니, 그가 너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니?”

“그건 전적으로 사실들이야.” 그녀는 완전한 경멸과 같은 무관심한 태도로 벤틀리 드러믈를 언급하며 말했다.

“그럼 네가 그를 부추겨, 그와 함께 말을 타고 나간 일이며, 그리고 그가 바로 오늘 너와 정찬(코스요리)을 하기로 한 것은?”

내가 그 사실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겐 약간 충격인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대답이 날아왔다. “전적으로 사실이야.”

“넌 그를 사랑할 수 없어, 에스텔라!”

처음으로 뜨개질을 하던 그녀의 손가락들이 멈추었다. 다소 화가 난 그녀가 앙칼지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말한 거니? 넌 내 말엔 귀도 기울이지 않아, 넌 여전히 내 말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니?”

“그와 정말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에스텔라?”

그녀가 미스 해비샴 쪽을 쳐다보았다. 그녀가 잠시 자신의 손에 들 려 있던 뜨개질에 대해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다.

“왜 내가 네게 진실을 말하지 않겠니? 난 그와 결혼할 예정이야.”

옮긴이 코멘트 :

〈 하울의 움직이는 성 〉 〈 마녀 배달부 키키 〉 같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을 보고, 손 그림이 주는 따뜻함이랄까 작품의 완성도를 접한 상태로, 아직 눈이 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 위대한 유산 해석을 보니 참 -\_-;;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네요. 정말 수준 차이나서 -\_ㅜ;; 견딜 수가 없음. ㅠ\_ㅠ 빨리 마음 추스르고 위대한 유산 해석 계속 할 수 있기를 빔~ 이런 경우엔 시간이 약임~ 룰루랄라~

(옮긴이 코멘트 끝~)

내가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잘 내 스스로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단어들을 듣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고려한다면 말이다.

내가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미스 해비샴의 얼굴엔 파랗게 질린 그런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내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비록 내가 그때 격정적인 슬픔과 허둥댐을 느끼고 있었을 지라도 말이다.

“에스텔라, 내가 사랑하는 에스텔라, 미스 해비샴이 네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허용하지는 마. 나를 제쳐놓아도 좋아. 넌 그렇게 해왔잖니. 그건 내가 더 잘 아는 사실이야. 하지만 제발 네 자신을 드러믈보단 더 가치 있는 남자에게 받쳐. 드러믈은 네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야, 미스 해비샴이 단지 너를 그에게 준 것 뿐이야. 그건 미스 해비샴이 ‘너를 드러믈에게 보냄으로써’ 너를 사모하는 수많은 훌륭한 남성들과 너를 진실로 사랑해온 소수의 남성들에게 미스 해비샴이 가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자 상처이기 때문이야. 그 소수의 남성들 가 운데는 심지어 너를 나만큼이나 끔찍이 사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비록 그가 나만큼 널 오랫동안 지켜 오진 못했을 지라도. 제발 그런 사람에게 가. 그럼 내 마음이 이보단 더 잘 견딜 수 있을 테니까. 제발 너를 위해!”

내 진심이 그녀 안에서 어떤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그녀가 만약 내 진심을 그녀 자신의 마음에 전부 이해시킬 수만 있었다면, 동정심에서 불러일으켜질 수 있을 그런 경이로움이었다.

“아니, 난 그와,” 그녀가 다시 한 번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난 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 나를 위한 결혼식 준비가 한 창 이루어져 있고, 난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넌 왜 여기에 내 수양어머니(미스 해비샴은 에스텔라를 낳은 어머니가, 에스텔라가 갓난아이일 때 입양해 길러준 어머니임)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니? 그와의 결혼은 내 의사야.”

“그게 네 의사라고, 에스텔라, 너 자신을 그런 짐승 같은 자식에게 내던져버리는 게?”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던져야 하겠니?” 그녀가 미소를 띠며 반박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그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느낄 그런 남자 품에 내 자신을 내팽개쳐야하겠니? 만약 사 람들이 그런 감정들을 느낀 다면 말이야. 거 봐! 이미 일은 정해졌어. 난 곧 제법 잘해나갈 거야, 그리고 내 남편 될 이도 그런 대로 잘 해나갈 거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 구렁텅이로 들어서는 문제에 관해 서라면, 만약 그게 네가 말한 대로였다면, 미스 해바샴이 먼저 나를 제 지해 이 일을 미루게 했을 거야. 그래서 아직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하지만 난 내게 더 이상의 매력도 거의 없는 이런 삶을 사는데 싫 증이 났어.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기꺼이 나섰던 거야.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려하자 제지하며) 아니, 더 이상 말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짐승 같은 자식에게, 그런 아둔하고 바보 같은 자식과 결혼하겠다고!” 내가 절망감에 미쳐 그녀를 몰아쳤다.

“내가 그에게 하나의 축복이 되리라는 두려움은 하지 않아도 돼.” 에스텔라가 말했다. “난 그렇게 되진 못할 테니까. 자! 우리 악수하자. 우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 이 환상을 쫓는 아이야, 아니 이젠 남정네 지?”

“오 에스텔라!” 그녀의 손 위에 내 폭풍 눈물이 빠르게 떨어지는 동안 내가 말했다. 도저히 내 감정을 추스를 수 없었다. “비록 내가 영국 땅에 계속 남아 나머지 사람들과 얼굴을 들고서 의기양양하게 지낼 수 있더라도, 네가 드러믈 자식의 아내가 된 꼴을 내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녀가 응수했다(대꾸했다). “무의미할 뿐이야. 오늘 일도 즉시 잊어버리고 말걸.”

“절대 그러지 못할 거야, 에스텔라!”

“1주일 만 지나도 넌 나를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아래 글은 주인공이 에스텔라에게 하는 긴 대사입니다. 슬프네요. ㅠㅠ 조회 수도 안 나오면서 혼자 슬퍼나고 난리 -\_ㅜ;; 민망~ 다만 읽기 쉽도록 임의로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널 잊는다고! 너는 내 실재(존재)의 일부분이야, 넌 내 자신의 일부라고. 심지어 네가, 거칠고 천박한 소년(12세 또는 13세 때의 주 인공)의 불쌍한 가슴에 상처를 입힌 이후로 넌 내가 읽는 모든 글 행간(줄과 줄 사이)에 존재해왔어.

넌 내가, 강 위에서, 해안가에 떠 있는 배들의 돛에서, 늪지대에서, 구름 속에서, 태양빛 속에서, 어둠 안에서, 바람 안에서, 숲 속에서, 바다 속에서, 거리들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내가 너를 본 이래로 넌 내가 바라보는 모든 풍경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

[잠깐 부연설명 → 17장에서 주인공은 해안가 앞바다에서 항해 하고 있는 배들과 돛들에서 에스텔라를 떠올린 적이 있음. 「나(주인 공)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풍경들”(해안가 앞바다, 배들, 돛들, 구름, 바다와 하늘)을 “미스 해비샴과 에스텔라의 모습”과 내 방식대로 한장 한장 오버랩 시켜보았다.」참조 17장 ▶ <http://blog.naver.com/osy2201/200000245535> 검색일자 2014-11-30]

너는 지금까지 내 지성이 알아 온 모든 우아한 공상(상상)의 구현(형 상화)이야.

런던에서 가장 단단한 기초석(건축물 구조의 토대가 되는 돌)도 네 존재와 영향이 내게 미쳐온 것보다 더 실제적이지는 않아, 그 돌들은 옮길 수 있을 지라도 네가 내게 미쳐온 영향력은 제거할 수 없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영혼과 영향은 언제나 함께할 거야.

에스텔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넌 내 개성의 일부이자, 내 안에 있는 작은 선(착함)의 일부분이자, 내 악(나쁨)의 일부로 남을 수 밖엔 없어.

하지만, 이 이별에선 난 너를 내 선함(착함)과만 연결지을 테야. 난 성실하게 너를 그렇게만 내 안에 간직할 거야. 내가 지금 신랄한(예리한) 고통을 느낀다고 가정해도, 넌 분명 내게 상처보단 친절을 훨씬 더 많이 베풀 없음이 분명하니까. 오, 하느님이 너를 축복해주시기를, 오, 하느님께서 널 용서해주시기를!”

불행의 어떤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파탄난(깨진)’ 단어들을 스스로 생각해냈는지 나는 모른다.

그 광시곡(=즉흥시)은 내 내면에서 솟아났다. 마치 몸 안에 생긴 상처에서 피가 콸콸 흘러나오듯이.

나는 내 입술에 그녀의 손을 대고 한 참을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떠났다. (ㅠㅠ)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나는 미스 해비샴의 유령 같았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 에스텔라가 못 믿겠다는 듯이 놀라워하며 그저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는 동안, 자신(미스 해비샴)의 심장을 손으로 감싼 “미스 해비샴의 괴기한(유령 같은) 모습이” 차츰 가까워지면서 동정과 연민의 “송장 같은(무시무시한) 응시(빤히 쳐다봄)로” 변해가는 것만 같았던 그녀의 모습을 나는 그 후로 계속 잊지 앉고 있었다.

모든 게 끝이었다. 그렇게 모든 게 사라지고 말았다!

너무 많은 것들이 끝이 나고 사라져서 문을 나섰을 때의 햇빛이 내가 그 문을 들어섰을 때보다 더 어두워져 있는 것만 같았을 정도였다.

잠시 동안, 나는 몸을 골목길과 샛길 사이로 숨겼다. 그런 다음 나는 런던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 지금 서 있는 지방의 읍내에서 런 던까지는 당시 마차로 대략 5시간 거리임. 거리로는 대략 75km 정도임. 걸었다 쉬었다 하면서 걸어가면 어른 걸음으로 보통 18시간 정도)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나도 자제심을 되찾아서 ‘이대로 여인숙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과 그런 식으로 드러믈(24세, 주인공의 라이벌

/ 드러믈은 에스텔라와 결혼할 사이)을 만나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마차를 잡아탔다가는 런던까지 버티고 앉아 있을 수도 없거니와 사람들과 부대낄 수도 없으리라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를 녹초(피곤)가 되게 만드는 것만큼 지금 내게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런던 다리(템스 강 위에 있는 다리이름)’를 건넌건 밤 12시가 지나서였다.

당시 강의 ‘미들섹스(당시 런던 서쪽에 있던 옛 ‘주(행정구역)’이름)’ 기슭(강에 맞닿은 곳) 가까이에서 서쪽으로 향해 있던 좁고 복잡한 거 리들을 비집고 나가면서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곳)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변을 끼고 화이트프라이어즈(‘프라이어즈’란 ‘탁발 수도회의 수사들’란 뜻임 / 화이트프라이어즈는 런던 중앙부에 있는 지구임)를 통과하는 방법이었다.

원래 내 도착예정일은 내일이었다. 하지만 내겐 문 열쇠가 있었고, 그래서, 만약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도, 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서도 내 방 침대로 들 수 있었다.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곳. 여러 채의 건물들 외곽에 담이 빙둘려 쳐져 있고 수위실이 있는 정문을 통과하면 다시 여러 채의 건물들이 나오는 구조임 -\_- 이런 적고 보니 설명이 더 어렵네...ㅎㅎ)이 닫힌 후엔 내가 화이트프라이어즈(런던 중앙부에 있는 지구. ‘프라이어 즈’란 ‘탁발수도회의 수사들’란 의미임) 쪽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는 좀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나는 하루 종일 걸어서 진흙투성이였고 파김치가 되어 있었던지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수위 아저씨가 문 을 잡고 살짝 열어줄 때 그가 나를 대단히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나는 나쁘게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가 모르실까봐 내 이름을 말해주었다. 그가 말했다.

“완전히 확실치는 않아도 어림짐작으로 나리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리 앞으로 메모지가 한 장 와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가지 고 왔습죠. 그가 이러더군요. 아무쪼록 제(수위아저씨) 랜턴(손전등) 옆 에서 그 메모지를 나리께서 읽어달라더군요?”

그 요구에 깜짝 놀라 나는 그 메모지를 받았다. 피립 핍(주인공의 성이 ‘피립’, 주인공의 이름이 ‘핍’임) 씨에게 가는 편지였다. 즉 내게 온 편지였다.

내 이름 위 여백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제발 이 편지를 이 자리에서 읽으십시오. 〉

나는 편지를 열어보았다. 수위 아저씨가 옆에서 랜턴 불빛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내가 안쪽을 읽자마자 웨믹의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집으로 가지 마시오.〉

**위대한 유산**

**45장**

그 경고를 읽자마자 나는 템플(주인공의 숙소) 정문에서 방향을 틀었다(그 자리를 벗어났다). 나는 플리트 가(플리트 거리는 런던 중심시가 거리이름)로 가는 길로 최대한 나아갔다. 그곳에서 야간 전세마차 (택시)를 잡아타곤 ‘코벤트 가든’(런던 중심부의 지구. 이 소설 속에선 신선한 딸기를 살 수 있는 야채시장이 있는 곳으로 나옴)에 있는 ‘후머스 호텔’(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에는 호텔이었다고 함. 구글 검색 참조)로 내달렸다.

당시엔 그곳(후머스 호텔 인근)에서 언제든 누워 잘 잠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밤 시간이면 언제든 말이다. 호텔 직원이 쪽문 안으로 나를 들이고는 선반 위에서 내 차례에 해당하는 초에 불을 밝히고는 나를 데리고 내 순번에 해당하는 침실로 나를 바로 안내했다.

그곳은 1층 뒤편에 있는 일종의 지하 납골당(죽은 사람의 뼈 안치하는 곳) 같은 유형의 방이었다.

방안에는 기둥이 넷인 침대 틀이 천정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올라앉은 형국이었다. 꼭 포악한 괴물 같았다. 그 괴물(침대 틀)은 제멋대로인 다리(기둥) 하나를 벽난로 안으로 밀고 다른 다리(기둥) 하나는 출입구 쪽으로 밀면서 그리고 성스럽고 거룩한 신과 같은 자세로 작고 불쌍한 세면대를 확 그냥(-\_- 그냥 한 번 추가해봤음~) 좁고 비좁은 구석으로 확 밀어 쑤셔넣고 있었다.

내가 야간 등(희미한 등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직원은 나가기 전에 등을 하나 가지고 왔다.

덕스럽던 그 시절에 애용되던 옛날 골풀 양초(갈대 같이 생긴 골풀을 기름에 녹여 만든 초)를 가져왔다. 내 말은 구조상 겉보기엔 골풀 양초였다는 말이다. 그건 마치 걸어 다니는 지팡이 같이 생긴 유령을 닮은 양초였다. 내 손이 닿는 즉시 뒤로 부러졌으며 그것이 내는 불빛 의 세기가 너무 약해 그 어떤 것도 이 양초 불에 의해서는 태워질 것 같지 않았다. 그 골풀 양초는 높다란 양철 탑 바닥에 외롭게 감금당한 듯 놓여 있었다.

사방의 벽들을 향해 눈을 뒤룩거리는 듯 빈틈없는 무늬를 만드는 둥근 구멍들이 사방에 나 양철 탑 바닥에 갇힌 양초였다.

침대로 들어갔다. 발은 신발에 쓸려 상처가 나 있었고 난 녹초가 되어 있었고 심적으론 매우 불행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로 누워 있었다. 나는 곧 내가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아르고스(그리스 신화. 눈이 100개 달린 감시인)의 눈들을 감길 수 없듯이 내 자신의 두 눈도 감기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음울한 밤의 적막 속에서, 우린(깡통 구멍을 통해 비취는 양초와 주인공) 서로를 응시하며 있을 수밖엔 없었다.

얼마나 슬픈 밤인가! 얼마나 불안하고 음울하며 길게만 느껴지던 밤인가!

방안에는 식어버린 그을음과 달아오른 먼지들로 생긴 쾌쾌한 냄새가 났다.

내 머리 위 침대 제단 위의 닫집 구석들을 올려보고 있자니 이건 뭐 정육점 가게에서 왔을 법한 무수히 많은 검정파리들과 시장에서 왔을 법한 무수히 많은 집게벌레들 그리고 시골에서 막 상경한 것 같은 땅 벌레들이 그곳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내년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일부 벌레들이 언젠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아 닌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들었고 곧 나는 내 얼굴 위로 가벼운 낙하들을 느꼈다고 생각하기 이르렀다. 이것에도 곧 불유쾌한 사고의 전환이 있었는데 뭔가가 내 등 위로 타고 오르는 것 같은 더 마음 내키지 않는 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꽤 오랫동안 깬 체 누워 있었을 때였다. 고요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엄청난 소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붙박이장(옷 넣어두는 곳)이 속삭였고, 벽난로가 한숨을 내쉬었으며, 자그마한 세면대는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를 냈으며, 서랍장 안에 있던 기타 한 줄은 이따금씩 울렸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눈들(깡통 둥근 구멍을 통해 비춰진 양초 불빛) 이 벽들 위에서 새로운 표정을 지었으며 사방에서 나를 노려보는 듯한 그 눈들(양초 불빛들) 하나하나 안에는 이렇게 적힌 문구가 보였다.

〈집으로 가지 마시오.〉

밤의 공상(상상)들과 소음들이 내 위로 아무리 쇄도할지라도 〈 집으로 가지 마시오. 〉 라는 그 문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문구는 녹아들었다. 마치 신체상의 고통이 늘 그러하듯이 말이다.

얼마 전에 나는 신문지상에서 어느 이름 모를 신사 한 명이 밤에 ‘후머스 호텔’(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에는 호텔이 생겼음. 구글 검색 참조)로 와 하룻밤을 묵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다음 날 아침에 피가 낭자한 가운데 발견되었다는 어느 신문기사를 읽었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그 신사가 혹시 내가 누워 있는 이 지하 납 골당(방)에서 묵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주위에 핏자국의 흔적들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문을 열고는 호텔 통로들을 바라보고는 가까이에 있는 희미한 불빛을 확인하고서야 마음을 놓았다. 내가 알기로 그 불빛 가까 이에서 호텔 직원이 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는 동안에도, 내가 왜 집으로 가면 안 되는지, 내 숙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내가 집에 가면 안 되는지, 그럼 내가 언제 집으로 가면 되는지, 그리고 프로비스(57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탈출해 영국으로 밀입국한 죄수)는 과연 자신의 하숙집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는지 하는 질문들로 내 머릿속은 가득해서 내 머릿속에 어떤 다른 주제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심지어 내가 에스텔라를 떠올릴 때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그 날 어떻게 영원히 헤어졌었는지에 대해 떠올렸을 때조차도, 그리고 우리 헤어짐의 모든 상황들을 떠올렸을 때조차도, 그리고 그녀가 뜨개질을 하는 동안 보였던 그녀의 모든 표정들과 어조(말투)들 그리고 손가락들의 움직임을 내가 다시 떠올릴 때조차도… 그럴 때조차도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고 내 주변 여기 저기 모든 곳에 그 경고문이 붙어 있는 듯 했다.

〈집으로 가지 마시오.〉라는.

결국 내가 완전히 마음과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겉잠이 들었을 (꾸벅꾸벅 졸았을) 때 그 경고 문구는 내가 동사활용 변화를 꼭 시켜야만 하는 거대한 그림자 같은 단어가 되어 있었다.

그 경고 문구는 곧 다음과 같은 현재형 시제 명령법이 되었다. “그대는 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를 집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집에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또는 그대는 집으로 가선 안 된다.” “그들을 집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그 경고 문구는 가정법으로 변했다. “나는 집에 가면 안돼 아니 가선 안 돼.” “나는 집에 가면 안 될지도 몰라, 아니 갈 수 없을 지도 몰라, 아니 못 갈 지도 몰라, 아니 가선 안 될 지도 몰라.”(← 젠장 -\_-;; 옮기면서도 가정법 문장들 사이에 뭔 차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이런 변화는 내가 이러다 미치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배게 위에서 머리를 이러 저리 뒹굴었다. 그러곤 사 방벽 위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원(깡통 구멍들을 통해 벽에 비친 수많은 양초 불빛들)들을 다시 쳐다보며 바로 누웠다.

내가 꼭 아침 7시까진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호텔 직원에게 남겼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웨믹의 집으로 가야만 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일은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런던 한 복판임, 웨믹의 집 임)에서만 할 수 있는 그의 조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너무도 분명했다.

너무도 비참한 밤을 보냈던 지라 방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위안이었다. 그래서 내 불편한 침대에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해 깨우기에는 호텔 직원이 문을 두 번까지도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웨믹의 성(집=목재로 만든 작은 오두막)과 흉벽(담)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아침 8시 무렵이었다.

예전에 본 그 어린 여자애(가사도우미)가 갓 구운 롤빵(버터 발라 먹는 빵) 두 개를 들고서 성체(집)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애와 함께 뒷문을 통과해 도개교(끈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다리. 소설 속에선 두꺼운 판자 한 짝임. 즉 폭이 대략 1.2미터 깊이가 대략 0.6 미터쯤 되어 보이는 땅 속 ‘틈’을 가로지르며 놓여 있는 웨믹의 집으로 가는 소형다리)를 건너 내가 들어간다고 전혀 알리지도 않고 자신이 마실 차와 연로하신 아버님이 마실 차를 따르고 있는 웨믹 바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열린 문을 통해 그의 연로하신 아버님이 아직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처럼 보였다.

“어어, 핍 씨 아니십니까!” 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말했다. “그렇다면 시골에서 상경하신 거군요?”

“예,”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숙소엔 들르지 않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템플(주인공의 숙소)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다 메시지를 남겨놓았었거든요. 당신이 읽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래 어느 문을 통해 들어가신 겁니 까?”

내가 그의 물음에 어느 쪽 문을 통해 들어갔노라고 답해주었다. (주인공의 대사가 아니라 “웨믹”의 대사임→) “다른 쪽 문들에 남긴

메모들은 제가 오늘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폐기하겠습니다.”라며 웨믹이 말했다. “가능하다면 서류상의 증거들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제 원 칙이거든요.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지 모를 일일 테니까요. 자 제가 좀 스스럼없이 대해도 되겠죠? 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 이 소 시지(음식)를 좀 구워주시겠습니까?”

나는 “기꺼이 구워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럼 메리 앤(어린 여자애, 가사도우미 / 이름 몰라도 됨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아, 넌 이제 네 일을 봐도 좋단다.”라며 웨믹이 어린 가사도우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둘만 남게 되는 거죠, 안 그 렇습니까? 핍 씨.”라며 웨믹이 윙크를 한 방 날렸다. 그렇게 해서 그 어린 여자애는 사라졌다.

나는 그의 우정과 신중함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우리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그의 연로하신 아버님을 위해 소시지(음식)를 굽고 있었고 웨믹은 자기 아버지 몫의 롤빵(버터 발라 먹는 빵) 속에 버터를 바르고 있었다.

“자, 핍 씨(23세, 주인공의 이름), 잘 아시겠지만,” 웨믹이 말했다. “당신과 저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적이고도 개인적이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린 비밀스런 거래(몰래 주인공의 친구인 허버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에 다함께 관여한 적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감상(변호사사무실에서의 만남)은 그와는 별개죠. 우린 지금 직무외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공감을 표했다.

나는 극도로 초조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굽고 있던 소시지(음식)가 횃불처럼 활활 타고 있는 줄도 몰랐다. 그래서 황급히 소시지에 붙은 불을 꺼야했다.

“저도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웨믹이 뉴게이트 감옥에 들러 업무를 보는 시간임)에 말이죠.”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 서기)이 말했다. “제가 당신을 언젠가 한 번 데려갔었던 어떤 장소(런던 내에 있던 ‘뉴게이트 감옥’을 말함. 뉴게이트 감옥은 1902년에 폐쇄되었음)에 갔었죠…. 그 장소의 이름은 심지어 당신과 나 사이의 대화라도 대도록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을 테죠….”

“좋을 리가 없죠,”라며 내가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다.”

“어제 아침에 그곳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웨믹이 다시 말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식민지 주민의 일들과 무관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정말 누구인지 저는 모르거니와… 우리가 이 인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필요는 없으 니까요(←웨믹의 말하는 스타일이 이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라며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승(현실세계)의 어떤 장소(술집-\_-; 술집엔 언제나 사람이 많죠)에서 약간의 소동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들르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비용을 대준다고 완 전히 아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장소였다더군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 그만 그의 연로하신 아버님이 드실 소시지를 봉화(불 피우는 신호)로 만들고 말았는데 이것이 내 자신과 웨믹의 마음의 평정을 크게 잃게 만들었다.

내가 소시지 태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니까, …이 그 장소에서 사라져서 그 소동에 대해 그 부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문을 들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웨믹이 말했다. “갖가지 억측들이 솟아나고 소문들이 붙었다고 하더군요. 나는 또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가든 코드’(상점가란 뜻 / 주인공의 숙소는 템스 강가에 있는 ‘가든 코트’ 내에 있음)에 있는 당신 숙소에 머물 때에도 당신이 감시를 받았었고 그 감시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저를 왜요?” 내가 말했다.

“그것까지 설명할 순 없습니다.” 웨믹이 대답을 회피하며 말했다. “제 공싲적인(변호사서기 업무) 책무들과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는 거기 들를 때마다 같은 장소에게 여러 다른 흥미로운 사안들에 대해 종종 소문을 들어왔듯이 이번 사안도 그렇게 전해들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보로써 당신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얘기하는 동안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 서기)이 내게서 ‘기다란 포 크’(음식 구울 때 쓰는 도구)와 소시시를 가져가더니 연로하신 아버님이 드실 수 있도록 작은 접시 위에 맵시 좋게(보기 좋게) 놓아드렸다.

그러기 전에 웨믹은 깨끗하고 하얀 천을 가지고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 아버님의 턱 아래에 천을 깔끔하게 달아드렸더랬다. 웨믹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들였다. 그런 다음 잠잘 때 쓰는 모자를 한쪽으로 따로 씌어 아버지를 멋쟁이로 만들어드렸다.

그런 다음 웨믹은 매우 주의해서 아버지 앞에 아침상을 차려드렸다. 웨믹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괜찮으시죠, 연세 살짝 많으신 압(아버지)~♥?”

이에 기분이 좋아진, 그의 연로하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마. 존(웨믹의 ‘애칭=별명’), 얘야 그러마!”

여기엔 그의 아버님이 남 앞에 내놓을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그러므로 지금은 아버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무언의 암시가 있는 듯싶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척 그 옆에서 쥐죽은 듯 있었다.

“제 숙소들에서의 저에 대한 이번 감시는, 물론 제가 의심받을 일이 한번 정도는 있었지만요.” 웨믹이 돌아왔을 때 내가 물었다. “웨믹 씨가 언급한 그 사람의 일과 저에 대한 제 숙소들에서의 감시가 별개의 사안인지요?”

웨믹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웨믹이 말했다. “단언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감도 일부 작용해 내린 결론이었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거나, 또는 그래 질거나, 또는 그럴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취득한 비밀에 대한 준수의무사항 때문에 그가 말을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만큼이라도 말해 준 것이 그의 인생행로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 캐물을 수는 없었다.

벽난로 너머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내가 그에게 말했다.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는 조건을 달고서 제가 질문 하나

만 더 던져도 될까요? 옳다고 생각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리틀 브리튼(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웨믹 씨의 의무감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가 식사를 하다말고 멈췄다. 그가 팔짱을 꼈다. 그러더니 자신의 와이셔츠 소매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꼭 집었다. 그에게 있어서 실내에서의 편안함이란 곧 어떤 상의도 걸치지 않고 앉는 것이었다.

웨믹이 고개를 한 번 끄떡여보였다. 그건 내가 질문을 던져도 된다는 승낙이었다.

(주인공의 대사→) “실제 이름이 콤피슨(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어떤 평판 나쁜 인물에 대한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떡이며 그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주인공의 대사→)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떡여보였다. (주인공의 대사→) “그럼 그가 런던에 있나요?”

그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떡여 보이더니 우체통(웨믹의 입은 우체통을 닮았음)을 완전히 잠가버렸다. 그런 후 나를 향해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떡여보이곤 자신의 아침식사를 계속했다.

“이제,”라며 웨믹이 말했다.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는 내가 알아듣기 쉽도록 강조해서 다시 한 번 말했다. “그럼 제가 그 소문을 듣고 나서 했던 일들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전 ‘가든 코트’(상점가란 뜻 / 주인공의 숙소는 템스 강가에 있는 ‘가든 코트’ 내에 있음)로 가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 계시더군요. 그래서 ‘클래리커(사람이름 / 주인공이 몰래 돈을 투자해 허버트를 고용하게 한 회사이름이자 대표이름) 회사’로 가서 허버트 씨(23세, 주인공의 절 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았나요?” 내가 크게 걱정하며 말했다.

“거기서 그를 만났습니다. 어떤 실명(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리고 어떤 내용도 발설하지 않은 채 저는 허버트 씨에게 이해시켰습니다. 당신(주인공) 숙소들 주변이나 인접한 이웃 주변에 있는 톰(사람이 름)이든, 잭(이름)이든, 또는 리처드(이름)이든지 어떤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당신(주인공)이 안 계시는 동안 허버트 씨가 그 톰(이름)이든, 잭(이름)이든, 또는 리처드(이름)이든을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옮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요.”

“허버트가 완전히 멘붕이였겠네요?(허버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혼란스러워했겠군요?)”

“그래도 역시 제(웨믹)가 허버트 씨(주인공의 절친)에게 그 톰(이름)인지, 잭(이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사람을 지금 당장은 너무 멀리 옮기려는 시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허버트 씨가 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핍(23세, 주인공 이름) 씨, 당신께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잠 입에 성공했다면 대도시처럼 좋은 은신처도 없습니다. 은신처를 너무 빨리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숨어 계십시오. 일단은 상황이 느슨해질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곤 기회를 엿보세요. 이건 외국 밀항을 도모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귀중한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는 어떻게 했나요?”

“허버트 씨(23세, 주인공의 절친)는,”라며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 서기. 선량함)이 말했다. “30분 동안 망연자실해져 계시더니 결국 한 가지 계획을 도출해냈습니다. 그가 제게 은밀히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제 약혼자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녀에겐 몸져누워 계시는 아빠가 한 분 계신데, 물론 이 사실은 핍(주인공이름)도 압니다. 한때 선박의 사무장(사무책임자, 선원)이셨던 그녀의 아빠는 활 모양으로 내 민 창가 침대에 누워 템스 강 상류와 하류로 지나가는 배들을 지켜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라더군요. 아마 당신(주인공)이 그녀와도 안면을 텄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며 내가 말했다. (45장까지 주인공은 허버트의 약혼녀를 만난 적이 없음)

사실은(그녀와 주인공이 못 만나 이유는) 내(23세, 주인공)가 허버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동료라며 그녀가 나를 꺼려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나를 소개해주겠다고 허버트가 처음 제안했을 때에도 그녀가 전혀 기뻐하지 않고 그저 그런 중간 정도의 온정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는 바람에 허버트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사정(그녀의 반감)을 내게도 털어놓아야했고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 였던 것이다.

“그녀를 만나기까진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때는 내가 허버트의 사업들을 스리슬쩍 돕기 시작했을 때여서 나는 이것을(그녀의 반감) 선듯 받아들일 수 있었었다.

‘그’와 ‘그의 약혼녀’, 그들로서도 당연히 자신들의 데이트에 제3자를 받아들이려는 그런 강한 열의도 없었었다.

그리고 그런 연고로 해서, 이후 아무리 클라라(22세, 허버트의 약혼녀)가 나를 좋게 평가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그 젊은 아가씨(클라라)와 내가 허버트란 매개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메 시지들을 주고받게 되었을 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녀와 직접 대면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까다로운 얘기들로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 서기)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았다.

“활 모양으로 내민 내닫이창(돌출 창)이 있는 그 집은(=‘허버트 약혼 녀’의 아버지가 지내고 있는 집),”이라며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 서 기)이 말했다. “강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인하우스(런던 동부의 ‘빈민가’←나쁜 뜻 없음 영어사전에 있는 대로 쓴 것임-\_-)와 그리니 치(런던 동남부 ‘교외=인접한 곳’) 사이에 있는 풀(웅덩이? 수영장?)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훌륭한 과부 한 분이 가구가 갖추어진 위층을 임대(방 빌려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씨(23세, 주인공의 절친)께서는 ‘그 위층을 그 톰(이름)인지, 잭(이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사람(’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를 말함)을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 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게 제시했습니다. 자, 저는 그 제안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유들 때문이죠. 다시 말해, 첫 번째로, 그곳은 당신의 모든 활동구역범위에서 대체적으로 벗어나있고, 그리고 일상의 크고 작은 수많은 거리들로부터도 꽤 벗어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 스스로가 그 곳 가까이 가지 않아도 당신은 허버트 씨(23세, 주인공의 절친)를 통해서 그 톰(이름)인지, 잭(이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사람(’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를 말함)의 안전에 대한 소식을 항상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시 신중해진 후에, 만약 당신이 그 톰(이름)인지, 잭(이 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사람(’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를 말함)을 외국(인도)으로 가는 정기선(=배=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배) 에 몰래 탑승시키고자 할 때, 그 장소야말로 준비된 장소이기 때문입 니다.”

(※ 참고, 그 집의 동서남북 지리 잠깐 설명 :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있는 지역 / 남쪽이 템스 강. 북쪽이 템플임. 그 템플 안에 주인공의 집이 있음. 템플에 있는 주인공의 집에서나 지금 계약하려는 하숙집을 나와 템스 강에 작은 배를 띄우고 왼쪽으로 계속 가면 외국 으로 갈 수 있는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가 나옴 / 그러니까 요지는 배경이 지금의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의 북쪽’이라는 것)

이러한 설명을 듣고서야 나는 아주 크게 안심을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에게 다시 한 번 또 한 번 감

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달라고 그에 게 간청했다.

“후유, 핍 씨! 허버트 씨(23세, 주인공의 절친)는 의욕적으로 그 일에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그 톰(이름)인지, 잭(이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분(’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를 말함)을, 어느 쪽 이름이 든 당신이나 저나 알길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아주 성공적으로 지난 밤 9시까지 그 장소에 옮겨드렸습니다. 예전 숙소(하숙집)에는 그가 도버(영국 남동부 항구도시이름)로 호출 되었다고 말해두었지요. 사실 그가 도버로 가는 길로 갔었습니다. 길모 퉁이에서 틀었지만요. 자, 이 모든 일들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이 모두가 당신 없이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행적들에 관심이 있는 어느 누 군가가 있다면 그는 분명 당신이 아주 동떨어진 장소에서 완전히 별개의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 듯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혐의를 따돌리고 헛갈리게 하는 일이죠. 동일한 이유에서 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가지 마실 것을 메모지로 알 려드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밤늦게 상경했을 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일은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며 이는 모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혼란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침식사를 모두 마친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자신의 시계를 쳐다보더니 곧 양복상의를 걸치기 시작했다.

“그건 그렇고, 핍 씨(주인공 이름이 ‘핍’임),” 아직 두 소맷자락 안에 두 손이 있는 상태에서 웨믹이 말했다(웨믹은 현재 아침식사를 마치고 양복 상의를 입고 있는 중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최대한 처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 그것이 ‘월워스’(런던 도심지역. 런던 한 복판임, 웨믹의 집임)의 의견이 되었든, 엄밀하게 말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견해가 되었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집으로 가기 전에 오늘 밤 그곳에 들러 톰(이름)인지, 잭(이름)인지, 또는 리처드(이름)인지 하는 사람(’프로비스=매그위치= 죄수’를 말함)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해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당신에게 지난밤에 집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또 다른 이 유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 집으로 귀가하신 이후에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시면 안 됩니다. (주인공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하자) 별 말씀을요, 정말 별 말씀이십니다, 핍 씨.”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막 그의 두 손이 소매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의 손들을 잡으며 흔들었기 때문이다.

웨믹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 습니다.”

그가 두 손을 내 두 어깨에 얹으며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은밀히 이 렇게 속삭였다.

“움직일 수 있는 재산(프로비스의 재산)을 손에 넣기에 오늘 저녁만한 기회가 없습니다(프로비스가 죄수이기 때문에 붙잡힐 경우 재산을 몰수당하니 미리 빼돌려두라는 얘기. 서류준비는 웨믹이 할 수 있지만 주인공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 그(=프로비스=매그위치=죄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니까요. 움직일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두십시오(거머쥘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이러한 의견(범죄자의 재산을 미리 챙겨두세요. 도와드릴게요.)에 대해서 내 생각(싫어요)을 그에게 분명히 하려는 희망을 상실한 나는 그러려는 시도를 관두었다(그만두었다).

“시간이 되었군요.”라며 웨믹이 말했다. “자 출발해볼까요. 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신게 아니라면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서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해드릴 조언입니다. 사실 당신이 좀 걱정이 많아 보이시거든요(주인공이 사랑하던 사람이 딴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란 소식을 그녀에게서 직접 들음). 연로하신 제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당신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곧 기분이 좋아지실테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아참 우리 집 꿀꿀이(집 뒤에서 키우는 돼지와 오리들) 기억하시죠?”

“예, 물론이죠.”라며 내가 말했다.

“그래요 그럼, 조금은 녀석을 드셔보세요. 당신이 구운 소시지(음식) 가 그 녀석 거였거든요. 모든 점에 있어서 그 녀석은 국내산 1등급 돼 지였거든요. 한 번 시식해보세요, 옛 친구(돼지를 본 친구)의 의리상 당신도 드셔보셔야죠.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그럼 살짝 연로하신 아 버지, 다녀올게요!”라며 쾌활하게 외쳤다.

“그래, 존(웨믹의 애칭=별명). 그래 그러마. 얘야!”라며 노인장(귀가 거의 안 들리심)이 안쪽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곧 웨믹 씨의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연로하신 웨믹 씨의 아버님과 나는 거의 온종일을 벽난로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우대감을 과시했다.

우리의 식사는 돼지고기 허리 살이었다. 그리고 뜰에서 키운 녹색 채소들도 상에 올려졌다.

나는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연로하신 아버님께 고개를 끄떡여드렸다(아버님이 귀가 거의 안 들리셔서 남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끄떡여주면 의사소통이 된 것으로 생각해 기뻐하심).

조용한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토스트(구운 빵)를 굽기 위해 불을 준비하고 계시는 연로하신 아버님(주인공의 아버지가 아니라 웨믹 씨의 아버지)을 떠났다.

그(웨믹 씨의 아버지)가 놓는 찻잔의 수로 미루어보건대, 그리고 벽에 있는 두 개의 자그마한 문을 한번 씩 보시는 그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건대 미스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 37장 #5부터 등장함)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주인공은 조용히 웨믹의 집을 떠났다는 내용).

**위대한 유산**

**46장**

돛대와 노(보트를 젓는 ‘노’) 그리고 선박용 나무토막들을 만드는 장인들과 긴 강가에 자리 잡고 있던 보트 건조 인들이 뿌린 대팻밥과 깎아져 있는 나무 조각들이 풍기는 싫지 않은 냄새 속으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오후 8시 무렵이었다.

런던 브리지(런던 중심부 템스 강 위에 있는 다리. 이 당시에는 다리 위나 다리 옆에도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았음) 아래에 있는 풀(웅덩이? 수영장? 동네이름?) 위쪽과 아래쪽 물가 지역은 모두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강을 따라 아래로 나아갔을 때 나는 내가 찾던 장소가 내가 가고 있던 방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찾던 장소는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이었다. 그곳은 ‘중국인’(아래 부연설명 참조바람)들이 사는 강 유역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중국인들이 사는 강 유역으로 찾아간답시고 단지 ‘푸른 빛깔 구리를 입힌 우리 밧줄 공장’이라는 한 조각의 길잡이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부연설명 : 원문엔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음. 디킨스가 이런 단어도 사용했다니 좀 놀랍네요.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는 모양임. 아니면 모든 영국인들이 그런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니 자신도 의미 없이 그 일반적인 오해에 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음. 그래 편승이란 말 좋네요. 편승~ 뭔 소리야\*-\* 153년 전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니 역시 나라가 힘들면 국민이 고생. 1861년이면 우리나란 중국보다 더 못살 때였는데... 멘붕이네요.)

‘드라이 독’(물 빼고 배 수리를 하거나 배를 제조할 수 있는 구조물)들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는 배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었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려 부셔져 조각조각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는 오래된 배들의 몸체 사이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었는지,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남긴 분비물(진흙)들과 악취 나는 진액 그리고 여타 다른 찌꺼기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었는지, 배 만드는 회사와 배를 때려부수는 회사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놀고 있는 상태로 땅에 마구잡이로 파묻어져 있는 녹슨 닻(고정 장치)들 사이에서, 높은 산들 처럼 쌓여있는 통(나무통)들과 목재들 사이에서, 그리고 ‘푸른 빛깔 구 리를 입힌 우리 밧줄 공장’이 아닌 수많은 밧줄 공장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었는지 하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몇 번이고 길을 잘못 들고 목적지를 지나친 후 가까스로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돌연히(갑자기)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이 나왔다. 그곳이 내 목적지였다.

모든 정황(환경)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곳은 나름 공기가 맑은 장소였다. 이곳은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빙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두 그루 또는 세 그루 정도의 나무들도 있는 장 소였다. 주요 부분이 잘려나가 버려진 풍차의 흔적이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 ‘푸른 빛깔 구리를 입힌 우리 밧줄 공장’이 있었다. 노쇠해(나이 들어) 대부분의 치아(갈퀴)를 잃고 퇴직한 ‘건초 제조용

갈퀴들’처럼 보이는 일련(연속)의 목재 프레임(난간)들을 따라, 나는 달빛 아래서 그 공장으로 가는 길고 좁은 가로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에는 기묘하게(이 상하게) 생긴 주택들이 몇 있었다. 그 증에 건물정면이 목재로 되어 있고 3층에 활 모양으로 내민창이 있는 어느 주택을 골라 현관문에 달린 문패(집주인 이름)를 읽어보았다. 거기엔 〈 윔플 부인 댁 〉 (←이름 몰라도 됩니다. 몇 번 더 나오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소설 속 엑스트 라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활 모양으로 내민창은 돌출된 창은 아니었다. 설명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다른 종류의 창이었다.

〈 윔플 부인 〉 이란 명패는 내가 찾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나는 문을 두드렸다. 곧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부인이 응답했다. 상냥하고 넉넉해 보이는 부인이었다.

그녀는 즉시 물러나고 대신 허버트가 조용히 나를 응접실로 안내하곤 문을 닫았다.

약간 색다른 느낌이었다. 친숙한 얼굴을 한 그(23세, 허버트)가 아주 낮선 방과 동네에서 완전히 집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약간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내가 유리잔과 중국식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는 식기 선반(삼각형 모양)을 유심히 쳐다 본만큼이나 나는 허버트의 얼굴 또한 유심히 살펴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느꼈다.

벽난로 위 선반에는 조가비(조개껍데기) 모양의 용기들이 놓여 있었으며, 벽에는 ‘쿡 선장’(다 아시겠지만... 쿡 선장은 평민에서 영국해군 대령까지 오른 인물, 세계일주3번, 1779년 하와이 원주민에게 살해됨. 말이 좋아 쿡 선장이지 발견된 원주민 사회는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죠. 다 지나간 얘기지만)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채색된 판화(그림)와 배의 진수식(배를 물에 띄움)을 묘사하고 있는 판화와 쿡 선장의 군주인 ‘조지 3세’ 왕(미국독립전쟁 때 영국 왕)이 마부용 가발과 가죽반바 지와 ‘톱 부츠’(승마용 장화)를 착용한 채 윈저(영국왕궁) 테라스 위에서 있는 장면을 묘사한 판화가 걸려 있었다.

“만사형통(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이야,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라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그(죄수, 57세)도 아주 만족해하고 있고 물론 널 끔찍이 보고 싶어 하지만 말이야. 내 피앙세(약혼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 클라라(22세, 허버트의 피앙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줄래 오늘은 꼭 너를 그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거든. 서로 인사를 나눈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보자. 저 소린(아파서 내는 비명소리) 그녀의 아버지야.”

그때쯤에는 나도 위층에서부터 들려오는 일종의 경각심을 울리는 것 같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인지하고 있었다. 내 표정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었나보다. 허버트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녀의 아버지가 처치 곤란한 늙은 악당이라는 게 아쉬워.”라며 허버트가 사뭇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도 아직 그를 본 적은 없어. 럼주(사탕수수에 물을 타서 발효시켜 만든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그는 술을 항상 달고 사신단다.”

“럼주를?”라며 내가 말했다.

“그래.” 허버트가 대꾸했다. “술이 그의 통풍(뼈마디가 부어 아픈 병)을 얼마나 부드럽게 해줄지 한 번 헤아려 봐. 또한 그는 모든 식량을 위층에 있는 자기 방에 보관한 채 그걸 배급해준단다. 자기 머리맡의 선반들 안에 식량들을 감춰두고서 일일이 무게를 재워보지. 그의 방은 일종의 잡화상(아주 작은 슈퍼마켓)의 가게 같을 게 분명해.”

허버트가 그러한 얘기들을 널려놓는 동안,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길게 발음되는 일종의 울림으로 바뀌어갔고 ‘어느 순간 사라 졌다’(직역→그러고는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 외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겠니?”라며 허버트가 설명조로 말했다. “자기가 치즈를 자르겠다는데. 오른 손에 통풍(뼈마디가 부어서 아픈 병)이 있는 사람이 또한 몸 다른 구석구석도 아픈 사람이 손을 베이지 않고서 ‘더블 글로스터’(주황색의 단단한 영국 치즈. 소의 젖으로만 만든 치즈. 사진링크 : [http://upload.wikimedia.](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3/Cheese_24_bg_051306.jpg?uselang=ko)org/wikipedia/commons/1/13/Cheese\_24\_bg

[\_051306.jpg?uselang=ko](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1/13/Cheese_24_bg_051306.jpg?uselang=ko) , 검색일자: 2014-12-18)를 자를 수 있겠 니.”

아무래도 그(클라라의 아버지)가 엄청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뒤이어 또 다른 광폭한 울부짖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프로비스(57세, 죄수)를 저층의 위층에 머물 하숙인으로 받은 것은 ‘윔플 부인’(하숙집 주인, 과부, 독자가 이름 알 필요 없음)에겐 하늘이 준 뜻하지 않은 은총이었을 거야.”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소음을 견딜 리가 없기 때문이지. 여긴 별난 곳이지 않니 헨델(23세, 주인공의 이름)?”

그랬다. 참 별난 곳이었다. 기이하면서도 호기심이 가는 그러면서도 눈에 띌 정도로 주부의 손길이 가 있는 잘 정돈되어 있는 깨끗한 집이 었다.

내가 그 말(집이 참 깨끗하다)에 동의하자 허버트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윔플 부인(이름 몰라도 됨)은 최고의 가정주부들 중 한 분이셔.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클라라(22세, 허버트의 약혼녀) 가 어떻게 지낼지 정말 상상도 안 돼. 클라라(약혼녀)는 어머님이 안 계셔, 헨델(주인공의 애칭), 친척들도 없단다. ‘험상궂은 퉁퉁 이’(퉁명스럽고 험상궂은 사람) 한 분만 제외하곤 말이야. 그게 그녀의 아버지지.”

“물론 ‘험상궂은 퉁퉁 이’가 그의 실명(이름)은 아닐 테지, 허버트?”

“아냐, 아니고말고.”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클라라 아버님의 성함은

‘발리’ 씨야.(발리=‘보리’라는 뜻임. 보리쌀 할 때의 보리) 하지만 내 아빠와 엄마를 생각했을 때(두 분 모두 씀씀이가 너무 헤픔. 과소비) 이런 내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녀 에겐 내 아빠와 엄마 같은 친척들이 없지 않겠니? 가족들 때문에 그녀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성가시게 할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허버트는 이전에도 내게 말해주었듯이 이번에도 내게 자신이 클라라(이름) 발리(성 씨) 양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일려주었다.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 옆. 즉 허버트의 하숙집 말고 부모님 집 근처)의 어느 교육기관에서 그녀 자신의 교육을 마무리 짓고 있을 때 만났다고 했다.

특히 클라라가 아버지의 간호를 위해 집으로 소환되게 되었을 때, 그와 그녀는 어머니 같은 윔플 부인(클라라가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다.

그때 이후로 그들의 사랑은 윔플 부인에 의해 촉진되었고 그녀의 한결같은 친절과 분별로 보듬어져왔다고 했다.

그 세 사람 사이에는 사랑에 관한 어떤 것이든 클라라의 아버지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는 통풍(뼈마디가 부어 아픔)과 럼주(술)와 식량 짱박아둠(-\_- 여하튼 내가 해석했지만 단어선택하곤) 이상의 어떤 심리적인 주제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클라라의 아버지. 한 때 선박의 사무장이었다가 술로 인생을 버린 사람. 실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일은 없음. 주로 목소리로만 이 소설에 등장함)가 이미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동안 ‘발리’(클라 라의 아버지) 씨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고함소리가 천정을 가로질러 놓여있던 보(바닥 하중(무게)을 기둥으로 전달해주는 구조물. 작은 대 들보. -\_-; 칵~ 설명 너무 멋지다~자화자찬~)를 타고 전해지는 동안, 문이 열리고 어느 아리땁고 가냘픈 몸매를 한 짙은 눈썹의 소녀, 20세 가량 되었을 소녀 한 명이 팔에 바구니를 건 채 들어왔다.

그녀의 품에 있던 바구니를 허버트가 부드럽게 받아준 후 녀석이 무척 수줍어하며 “얘가 클라라야.”라고 그녀를 내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내가 이제까지 본 아가씨들 중 가장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아가씨였다. 어쩌면 그녀는 늙은 발리(클라라의 아버지) 씨라는 호전적이고 무서운 괴물에게 봉사하도록 몰아붙여지고 있는 사로 잡힌 요정이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거 좀 봐봐,”라며 허버트가 내게 그녀가 가지고 온 바구니를 보이며 말했다. 그가 상황을 알만하다는 듯 한(클라라의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먹을 식량과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을 딸에게 아주 조금만 주었다는 얘기) 동정심 많은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 가여운 아가씨의 저녁식사야. 이렇게 매일 밤 배급을 받는 단다. 여기 이건 그녀 몫의 빵이고 이건 그녀의 치즈, 그리고 이게 그녀가 받은 럼주야. 물론 이건 내가 먹게 되겠지만. 이쪽에 있는 건 그 녀가 준비해야하는 발리 씨(클라라의 아버지)의 내일 아침 식사야. 내일 드실 음식도 전날 밤에 이렇게 배급받지. 양의 갈비 고기 살 두 점, 감자 3개랑 꼬투리를 벗긴 완두콩 약간이랑, 약간의 밀가루와 50그램 (g)의 버터랑 소금 한 스푼 그리고 이건 모두 껍질 채 빻은 검은 후추 가루들. 모두 함께 넣고 끊여서 매콤하게 우려내면 이거야 말로 통풍 (뼈마디가 부어 아픈 병)에 좋다나봐!”

바구니에 든 음식재료들을 허버트가 상세히 언급하는 동안 클라라 (20세, 허버트의 약혼녀)가 보인, 모든 불만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듯한 (순종하는=단념하는 듯한) 표정에는 확실히 사람의 마음을 끄는 꾸밈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리고 허버트가 껴안는 팔에 안길 때 그녀가 보인 정숙한 태도에는 순진하고 애정 깊은 무언가 순결한 구석이 있었다.

중국인들이 사는 강 유역과 ‘푸른 빛깔 구리를 입힌 우리(나 너 우리 할 때 ’우리‘) 밧줄 공장’ 옆의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못) 제방(둑)’에 자리 잡고 있는 집에서 보(바닥 아래에 있는 작은 대들보) 를 통해 전해지는 발리 영감(술로 인생을 버린, 클라라의 아버지)의 불만에 찬 소리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그녀는 너무도 조용하고 너무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확인해보지 않은, 매 그위치(57세, 주인공에게 막대한 유산상속을 약속한 죄수)의 핸드백 속에 든 돈을 몽땅 다 지불한다손 치더라도 절대 그녀(클라라)와 허버트(약혼자) 사이의 약혼이 깨지는 것을 보고 싶진 않았다.

내가 즐거이 감탄해 마지않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위층에서 그 울부짖는 고함소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무언가가 맞부딪치는 무서운 소리였다(클라라의 아버지가 나무막대기로 바닥을 치는 소리). 마치 나무다리를 가진 거인이 그와 우리 사이에 놓인 천장을 뚫고 우릴 덮치려는 것만 같았다.

이 즉시 클라라가 허버트에게 말했다. “자기(달링), 아빠가 절 부르려는가 봐요!” 그러더니 도망치듯 사라졌다.

“저렇게나 비양심적으로 탐욕스러운 세관원(세금징수원)도 없을 거 야!”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그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맞춰볼까, 헨델 (주인공이름)?)

“나는 모르지,”라며 내가 말했다. “술 마실 것을 달라는 거 아닐까?” “바로 그거야!” 내가 마치 엄청난 수학공식을 풀었다는 듯이 허버트가 소리쳤다. “그는 식탁 위에 있는 작은 통에 물을 탄 독한 럼주를 미리 보관하고 있어. 잠시 기다려봐, 무슨 소리가 들릴 걸, 그건 클라 라(20세, 허버트의 약혼녀)가 그를 일으켜세워 약간의 럼주를 마시게

하는 소리야. 바로 저 소리지!”

또 다른 고함소리가 들렸다. 끝 부분을 오래 끌며 흔들리는 외침이었다. 뒤이어 침묵이 흐르자 허버트가 말했다. “이건 그가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야, 자.”

뒤이어 보(바닥 아래 수평구조물)를 타고 한 차례 더 고함소리가 들러오자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 양반 도로 나가 떨어졌군!”

머지않아 클라라(20세, 허버트의 약혼녀)가 돌아오자,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나를 대동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가 책임져야할 사람(57세, 죄수=(가명)프로비스=(실명)매그위치)을 보기 위해서였다.

우린 발리 씨(클라라의 아버지. 술로 인생을 망친 한 때 선박의 사무 장이었던 남성. 소설 속 엑스트라)의 방문 앞을 지나가야했다. 내부에서 목이 쉬도록 중얼거리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처럼 올라갔다 바람처럼 내려가는 그 중얼거림의 선율은 다음과 같은 후렴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이 심하므로 그 단어와 정반대 되는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바꿔 불러보겠다.

(클라라 아버지(예전에는 선박의 사무장이었음)가 술 마시고 부른 노 래=욕설→) “어어이, 이봐 그 배! 네 놈들의 눈동자에 축복 깃들라, 이 배엔 영감탱이 빌 발리(클라라 아버지의 이름)가 타고 있다. 여기 영감 탱이 빌 발리가 타고 있다고. 네 놈들의 눈동자에 축복 깃들라. 여기 영감탱이 빌 발리가 기어이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자빠져있으니까. 늙어 죽은 도다리(몸이 납작하고 마름모꼴인 바닷물고기) 자식이 바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마냥 내가 그렇게 바닥에 등을 대고 벌렁 자빠져 있다. 여기 너희들의 영감탱이 빌 발리가 있어, 네 놈들의 눈동자에 축복 깃들라. 어어이, 이봐 그 배! 축복 깃들라고.”

허버트가 내게 일려주었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주구장창 저 애석한 선율 속에서 스스로와 교감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날이 밝은 때에는 종종 강을 멀리 내다볼 목적으로 자신의 침대 위에다가 설치해놓은 확대 망원경에다 한 쪽 눈을 대고 지낸대.”

주택 꼭대기 층에는 배의 선실 같은 방이 두 개 있었다. 공기가 맑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방이었다.

그 방에서는 2층에 있는 발리 씨가 고함치는 소리가 1층보다 적게 들렸다.

그곳에 프리비스(57세, 죄수=주인공에게 막대한 유산을 주려는 사 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쫒기는 사람)가 아주 편안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어떤 놀람도 표시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의하긴 힘들지만 나는 그가 부드러워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원래 프로비스는 난폭한 사람임)

내가 굳이 정의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어떻게 부드러운지 그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가 결코 회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날의 휴식이 내게 이번 사태를 좀 더 심사숙고해볼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난 콤피슨(철저한 사기꾼)에 대한 얘기를 프로비스(57세, 죄수)에게 하지 않기로 완전히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바로는, 만약 콤피슨 얘기를 했다가는, 콤피슨에 대한 증오로 프로비스가 콤피슨을 찾아내려 할 것이며 그거야 말로 프로비스가 자신의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꼴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벽난로 옆에 허버트와 내가 그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앞서와 같은 이유로 나는 우선 프로비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 착함, 현재의 주인공들의 정보통)의 판단과 정보를 믿을 수 있으세요?”

“그래, 그래, 얘야!”라며 그가 매우 심각하게 고개를 끄떡이며 말했다. “그건 재거스(런던 유명 변호사)도 인증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웨믹과 좀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웨믹이 제게 어떤 주의(미행을 조심하라)를 주었는지 그리고 무슨 조언(사태가 잠잠해지면 인도로 밀항해라)을 했는지 아저씨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방금 말한 조건부대로(사기꾼인 콤피슨 얘기는 빼고) 나는 프로비스 (57세, 죄수)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웨믹(변호사 사무실 서기, 착함)이 그러한 소식들(미행당하고 있다) 을 뉴게이트 감옥(런던에 있던 옛날 감옥. 1902년에 폐쇄 / 이 소설

『 위대한 유산 』 은 1861년에 나왔음)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프 로비스가 현재 모종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내 숙소가 지금까지 감시당해온 것 같다는 얘기들이며, 웨믹이 잠시 동안 당신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이며, 그리고 나도 또한 그(프로비스)에게서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며, 그를 해외로 출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웨믹이 말한 것들을 나는 프로비스에게 정확하게 다 들려 주었다.

물론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때가 되면 저도 아저씨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아저씨가 먼저 나가시고 제가 뒤이어 출국하면 됩니다. 이건 웨믹이 판단하건대 가장 안전할 것 같다더군요.”

그에 뒤따라야 하는 얘기를 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뚜렷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마음도 편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분명 더 부드러워져 있었고 나를 위해 영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지출을 급격히 늘러 생활하자는 그의 며칠 전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가 지금 처한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세요. 이것도 더 나빠질 게 없다면 하는 소리에요.”

프로비스(57세, 죄수)는 이것을(지금 상황에서 과소비는 위험함)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는 이야기 내내 대단히 분별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귀국은 모험이었다. 그리고 그리 될 거라는 것도 항상 알고 있었다. 될 대로 되라 식의 모험은 더 하지 않으마. 하지만 이런 훌륭한 도움을 받는 내 안전에 대해선 전혀 염려되지 않는구나.”

지금까지 벽난로 불을 바라보며 숙고(생각)에 잠겨있던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이 부분에서 끼어들며 말했다.

“웨믹(45세,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의 말을 들으니 내게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 아마 이게 우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거 같아. 자 들어 봐. 우리 둘(주인공과 허버트) 다 상당히 노를 잘 저어. 그렇지 않니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가 오면 우리가 아저 씨를 강 하류까지 데려다드리자. 이 일에 뱃사공을 고용할 필요도 보 트를 따로 빌릴 필요도 없어. 그러지 않는 게 의심을 들 받는 방법이 니까. 어떤 혐의든 줄일 수 있는 건 줄일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이 초겨울인 것도 신경 써지마. 일단은 네(23세, 주인공)가 템플 (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곳) 선착장에 보트 하나를 매어두고서 언제나 강을 저어 오르거나 강을 저어 내려가는 거야. 내 생각 괜찮지 않니. 네가 그 습관에 익숙해지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경 쓰지 않을 거 아니니? 그렇게 넌 20번 내지는 50 차례 그 습관을 계속하는 거야. 일단 그 숫자만 채우면 사람들은 이후 네가 21번째로 보트를 타는지 51번째로 보트를 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계획이 좋았다. 허버트의 제안을 듣고 프로비스(57세, 죄수. 주인공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려다 쫒기는 신세가 된 죄수)의 기분이 한껏 돋아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동의했다. 그것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일단 우리가 다리 아래로 와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을 지나서 노를 저어갈 때 프로비스가 절대 우리를 아는 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가 방안에서 우리를 볼 때면 그리고 무사할 땐 언제나 동쪽 창문의 블라인드(햇빛 가리기)를 끌어내려 놓기로 동의를 보았다.(굳이 동쪽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려놓기로 한 이유는, 현재 주인공들이 있는 런던 템플(숙소)에서 인도로 가는 큰 배를 타려면 런던(템스 강) 동쪽으로 보트를 몰래 타고 어느 정도 가야함)

(※ 참고, 동서남북 지리 잠깐 설명 : 템플은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있는 지역 / 남쪽이 템스 강. 북쪽이 템플임. 그 템플 안에 주인공의 집이 있음. 템플에 있는 주인공의 숙소 근처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프로비스가 묵고 있는 하숙집까지 내려온 후 프로비스를 태우고 템스 강을 계속 동쪽(런던 왼쪽)으로 내려가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가 나옴 / 그러니까 요지는 배경이 지금(2014년)의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의 북쪽’이라는 것. 물론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엔 템플이 런던 중앙은 아니었겠죠^^ 아닌가???)

우리의 의논이 이제 마무리 되고 모든 계획들이 조정되었을 때, 나는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면서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에게 “우리가 동시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먼저 이 집을 나갈 테니까 넌 30분 쯤 있다가 나와죠.”라며 언질을 준 후 프로비스를 바라보며 “아저씨를 여기 남겨두고 가긴 싫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제 가까이 계시는 것보단 여기서 머무르시는 게 더 안전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마. 얘야.”라며 그(프로비스)가 내 두 손을 꼭 붙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른다만 난 이 자리에서 안녕히 가란 말은 못하겠구나. 얘야, ‘굿 나잇’(밤 인사)라고 말해주겠니!”

“그럼 잘 주무세요!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아저씨와 저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때가 되면(주인공이 보트를 한 50번쯤은 더 타서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해지고 템스 강의 물이 밀물에서 썰물 〈 런던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로 변하면) 저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해도 좋으세요. 굿 나잇(밤 인사), 아저씨 잘 주무세요!”

우리(주인공, 허버트, 프로비스) 생각으론 프로비스가 숙소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를 떠났다. 그는 방 문 바깥쪽 층계참(위층과 아래층 중간에 있는 여유 공간)에 서 있었다. 우리가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가 계단 난간 너머로 램프 불빛을 비추어주었다.

내가 그를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였다. 나는 그가 나를 처음 찾아왔었던 그 폭풍우 치는 밤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의 처지는 지금과 정반 대였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이 내가 그를 떼어놓고 가면서 이토록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러울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

발리 영감은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뭐라 뭐라 중얼거리듯 맹세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방문 앞을 다시 지나갈 때 말이다. 그가 그 중얼거림을 한때 중단했다거나 아님 앞으로 중지할 조짐은 전혀 없어보였다.

우리가 1층 계단 바닥에 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에게 “아저씨가 프로비스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신대?”라고 물었다.

허버트가 대답하기를 “물론 아니지, 하숙인 이름 란에 미스터 ‘캠벨’ 씨라고 써났거든.”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소설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_- 역사 이야기 하나 / 캠벨 = 이 소설 『 위대한 유산 』 이 쓰이기 3년 전<1858년>에 인도에서 세포이의 항쟁<인도용병들의 항쟁>을 진압한 영국 육군 원수<장군>의 성씨)

허버트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그 ‘캠벨’ 씨(프로비스의 2번째 가명)에 대해 최대한도로 알려진 것은 내(허버트. 주인공이 아니라 허버트 자신)가 캠벨 씨(프로비스)를 인도받았으며 캠벨 씨(프로비스)가 잘 보살펴지며 은둔 생활을 하시는 게 나(허버트)의 강렬한 개인적 관심사항이라는 것 정도야.”였다.

그래서 우리가 윔플 부인(집주인)과 클라라(20세, 허버트의 약혼녀) 가 일을 하며 앉아 있는 응접실로 다시 들어섰을 때, 나는 캠벌 씨(프로비스)에 대한 내 관심을 전혀 표명하지 않고 숨겨두었다.

내가 예쁘고 상냥하며 짙은(검은) 눈썹을 한 “소녀”(클라라, 20세)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가장 애틋한 감정 공유를 할 수 있었던 어머님 같은 “부인(집주인인 윔플 부인)”과 작별인사를 하고 헤어졌을 때, 나는 마치 ‘푸른 빛깔 구리를 입힌 우리(우리 함께 할 때의 ‘우리’) 밧줄 공장’이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발리 영감(클라라의 아버지. 술 중독)은 고대 아시아의 역사만큼이나 나이가 많을지 몰라도(←이 문장 의역임-\_-;; 멋져~), 그리고 발리 영감이 들판을 가득 메운 기병들(말)만큼이나 하느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설을 할지 몰라도.

하지만 이곳 중국인들이 사는 강 유역에는 이곳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젊은, 신뢰,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런 다음 에스텔라가 떠올랐고 어제 있었던 그녀와의 이별이 머릿 속에서 떠올랐다. 나는 몹시 슬픈 상태가 되어 집으로 귀가했다.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 이름 / 런던 안)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것들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최근에 프로비스(57세, 죄수=주인공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려던 사람)가 점유하고 있었던 ‘숙소 한 쪽 편’ 방들의 창문들은 음산하고 조용한 채로 있었다.

‘가든 코트’(상점가란 뜻 / 주인공의 숙소는 템스 강가에 있는 ‘가든 코트’ 내에 있음) 내에는 더 이상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걷는 사람은 안 보였다.

내 숙소로 가는 계단을 밟고 내려가기 전에 나는 분수대(울타리가 건물들 주변에 쳐져 있고, 그 울타리에 있는 정문<수위가 지키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다시 여러 채의 건물들<4층 또는 5층>이 분수대 주변으로 쭉 있는 아파트 같은 배치구조임 / 여기선 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건물들로 가는 길에 있는 분수대들을 말함 -\_- 뭔 소리야? 저도 모름 내가 이 설명을 왜 했을까????)를 두 번인가 세 번 지나쳤다.

다행히도 거리엔 확실히 나 혼자 뿐이었다.

나는 내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침대로 직행했다. 나를 뒤따라 30분 쯤 후엔 허버트도 집으로 들어왔다. 내 베갯머리 쪽으로 온 허버트가 “미행은 없었어.”라며 알려주었다.

물론 허버트도 기운 없고 피로한 상태였다.

그런 후 허버트가 창문들 중 하나를 열더니 달빛이 비취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거 좀 봐봐, 템플의 인도(=보도=길. 국가 ‘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인도’를 말함)는 지금 시각 어떤 대성당의 인도(=보도= 길) 못지않게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엄숙한 장소가 되어 있어.”라고.

이튿날(다음날) 나는 계획 실행을 위한 보트를 구하기 시작했다. 곧 보트 하나를 살 수 있었다. 그 보트는 그 자리에서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이름) 선착장으로 돌려져, 내가 1분 또는 2분 이내에 탈수 있는 자리에 메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보트 노 젓는 연습과 실습을 하는 마냥 선착장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때때론 나 혼자서 또는 이따금씩은 허버트와 동행하며 노 젓는 연습을 했다.

추울 때도 비가 올 때도 그리고 진눈깨비(눈)가 내릴 적에도 나는 종종 보트를 타러 선착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몇 번 굳은 날씨에도 외출한 이후로는 아무도 내 행동을 그렇게 많이 눈여겨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는 ‘블랙프라이어스’(‘도미니크 수도회’라는 뜻임. 도미니크 수도회 1215년에 안 좋아진 가톨릭의 정신에 청빈한 생활과 개혁을 넣고자 생긴 수도회. 물론 이 수도회도 나중에 가톨릭처럼 안 좋게 변함-\_-;; 아닌가??? 뒤죽박죽 역사~) 위쪽에서만 노를 저었다.

하지만 밀려든 템스 강의 물이 다시 밀려나갈 때 나는 런던 다리 쪽으로도 나아가보았다.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런던 다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오래된 런던 다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다리는 정해진 시각이면 ‘급류’와 ‘강물의 급격한 낙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더랬다.

하지만 나는 그 급류와 낙하가 끝난 뒤에 어떻게 그 다리를 휙 지나갈 수 있는지 하는 방법에 이미 통달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풀’(웅덩 이? 수영장? 동네이름?)에 정박된 배들 사이를 보트로 여기저기 젓기 시작했으며 곧 에리스(런던 동쪽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부연설명 : 즉 프로비스의 하숙집이 있는 동네)을 지나갔을 때, 나와 허버트는 하나 씩 노를 젓고 있었더랬다.

제방(=둑=프로비스의 하숙집이 있는 동네)을 지나갈 때와 다시 되돌아올 때 우리는 프로비스의 숙속 창문에 블라인드(햇빛 가리기)가 끌어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허버트는 일주일에 세 번 씩은 그 곳을 방문했었는데, 내가 들어 걱정할 만한 말은 일언반구도(한마디도) 전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할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일단 내가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하는 느낌을 받으면 그 생각은 미친 개 마냥 내게 달려 붙었으며, 내가 무고한(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의심했었는지는 이루 다 계산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요컨대, 나는 누군가가 저 길 모퉁이 뒤에 잠복해 있다는 두려움들 로 가득했다.

허버트가 이따금씩 내게 말했다.

“어두워진 후 템스 강물이 떠내려갈 때 우리 창문들 중 하나에 서면 기분이 좋아져. 강이 모든 것을 밀치고 클라라(20세, 허버트의 약혼녀

=매사에 조심스러우며 요정같이 상냥하고 가냘픈 여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생각 들거든.”

하지만 내 경우엔 정반대였다. 난 흘러가고 있는 템스 강물을 보고 있자면 그것이 매그위치(57세, 죄수=매그위치=프로비스=캠벨 / 모두 한 사람 이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듯 두려웠고, 강 표면 위에 어떤 검은 얼룩이라도 보이는 날에는 그것이 매그위치를 잡으러 날쌔고 은 밀하게 그리고 확고히 나아가고 있는 추적자들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유산**

**47장**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은 채 몇 주가 흘러갔다.

우리는 웨믹(45세,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 다. 그리고 그에게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내가 ‘리틀 브리튼’(웨믹의 직장이 있는 거리이름. 런던 북서쪽에 있는 거리이름임 / 당시 기준으로 해서 굳이 런던 북서쪽이라고 했을 뿐이지, 지금 2014년 런던 지도 기준으로 보면 47장 이후 나오는 모든 위치는 지금의 런던지도 한 복판 위치임)을 벗어나 그를 사귀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성(웨믹의 오두막 집 같은 집을 좋게 말해서 ‘성’)에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특별 취급을 즐긴 적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를 의심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잠시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내 세속(일상)의 일들이 우울한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과소비 덕에 한 명 이상의 채권자(주인공이 돈을 주어야 하는 상인)로부터 지불 압박을 받은 것이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돈, 그러니까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돈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몇몇 사용치 않는 보석 세트들을 현찰로 바꿈으로써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확고하게 결심한 상태였다.

‘현재 내 생각과 계획들이 이토록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 후원자(57세, 죄수=프로비스=매그위치=캠벨)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더 받는 것은 정말이지 철면피한 사기행위일 것이다.’라는 결심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를 통해서 매그위치(57세, 죄수)에게 그가 내게 사용하라고 주었지만 내가 아직 열어보지 않고 있었던 돈이 든 핸드백을 “아저씨가 보관하고 계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며 돌려보내주었다.

이 일로 나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는데, 사태야 어떻게 돌아가든 그(57세, 죄수)의 정체가 폭로된 이후에는 내가 어찌되었든 그의 풍족 함으로 어떤 이익도 받지 않고 있다는 만족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실 된 만족감이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꾸민 만 족감이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텔라가 결혼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다.

비록 그녀가 결혼했을 것임을 거의 확신했음에도 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신문을 피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에게도 그녀에 대한 얘기는 절대 내게 하지 말아달 라고 간청했다.

그 전에 이미 나와 그녀의 마지막 인터뷰(이별) 상황들을 털어놓은 상태였다.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왜 내가 째져 사방으로 날아갈 희망의 장막 (걸치는 외투 같은 옷)이란 비참하고 하찮은 이 마지막 넝마(걸레)를 가슴 속에 품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문장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디킨스가 쓴 것임→) 이 글을 읽는 당신(독자)도 작년에 혹은 지난달에 혹은 지난주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순을 범하지(저지르지) 않았는가?

(잠깐 부연설명 : 이 소설은 주인공이 우울한 시선으로 바라다본 자 신의 첫사랑 이야기와 자신의 성광과 파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나쁜 모습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주인공이 과거를 떠올리며 글을 적는 식입니다. 위대한 유산의 주제는 “행복은 뭔가 큰 요행(로토 1등 당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성실함, 온건함으로 이어진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다.”입니다. 너무 멋진 거 아 냐~\_ㅜ 굿~주제~굿..........하지만 굳이 로또 1등 당첨기회가 주어진 다면 전혀 마다할 마음이 없다는 게 함정^^;; 역시 사람 마음 모르는 것임 :) 하지만 일단은 위대한 유산에 치중~)

내가 사는 삶은 불행한 삶이었다.

나는 주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이 절대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산맥(산들) 위로 우뚝 솟은 높은 산 마냥 내 다른 모든 걱정거리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걱정을 야기할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프로비스(57세, 죄수)가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엄습해 자리에서 펄쩍 일어나는가 하면, 밤이면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 그 발자국 소리가 평상시보다 더 빠른지 그리고 불길한 소식을 가지고서 그가 급히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두려움에 그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앉아 있기도 했다.

그것과 그리고 그 목적과 유사한 훨씬 더 많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굴레는 하루하루 계속 이어져갔다.

작동중지를 선고받은 채 그리고 끊임없는 마음의 동요와 긴장상태에서, 나는 내 보트를 타고 여기저기로 노를 저어갔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또 기다리고 있었다.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의 정보를.

템스 강을 타고 내려갔는데(런던에서 바다 쪽 방향으로 내려갔는데) 옛 런던다리(런던에 있는 모든 다리들이 아니라 ‘런던교’라는 이름의 다리 하나를 말함)의 강물소용돌이에 쓸려 벗겨진 다리 아치구조물들 (오목한 부분)과 ‘물막이 말뚝’(강물의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함 구조물 들임)을 통과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밀물과 썰물 때 문에 일어나는 템스 강물 흐름의 상태 때문이었다.

그럴 때는 내 보트를 세관(관공서) 가까이에 있는 선착장에 매어두었다가 나중에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의 선착장으로 가져오게 시켰다.

나는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마다하진(싫어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나와 내 보트를 이곳 강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더 흔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부터 말할 두 가지 만남도, 이 대수롭지 않은 계기로 불쑥 생겼기 때문이다.

2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였다. 해가 지고 좀 어둑어둑해지는 무렵이었다. 나는 보트에서 선착장(템플이 아니라 세관 근처의 선착장을 말함)으로 올라섰다.

썰물(강물이 런던에서 바다 쪽 방향으로 가는 때)과 함께 그리니치(런던 중심에서 약간 동쪽. 그리니치 왕립 천문대가 있음)까지 노를 저어갔다가 밀물과 함께 돌아오던 때였다.

맑고 햇살이 밝게 비치던 날이었다. 하지만 해가 가라앉으면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시야를 가릴 정도였다.

그래서 배들 사이로 아주 조심스럽게 내가 왔던 길로 되짚으며 와야했다.

가고 올 때 모두 프로비스(57세, 죄수=매그위치=프로비스=캠벨)의 창가 표식(신변에 아무 이상 없으면 동쪽 창문의 블라인드를 끌어 내려놓기로 한 약속)을 보았었다. 모두 오케이였다(모두 순조로웠다).

습하고 으스스 추운 저녁이었다(-\_-;; 추워~).

‘젠장, 당장 밥부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야 좀 안정이 될 것 같았다.

이대로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로 귀가한다 해도 내 앞에 놓인 건 수(몇) 시간의 낙담(실의)과 고독의 시간들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나중에 연극 구경을 가려고 마음먹었다.

웹슬 씨(연극배우. 원래 주인공 시골마을의 교회서기였다가 비극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큰 희망을 품고 런던연극계로 진출했다가 거의 코미 디배우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 코믹한 인물)가 문젯거리 승리를 구가한 (웹슬 씨는 비극을 코믹하게 연기해 관객들로부터 엄청난 땅콩 껍질과 오렌지 껍질을 받았음) 극장이 여기 물가(강가) 근처에 있었다. 이젠 그 물가(강가)는 어디에도 없지만 말이다. 어쨌든 난 그 극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웹슬 씨가 극예술을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부흥은커녕 상황은 그 반대로 진행되어 그가 차라리 연극의 쇠락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급기야 ‘연극 광고 안내문들’을 보고서 그가 성실한 하인 역할을 한다는 처량한 소식까지 접했다. 그 하인 역할은 어떤 귀족태생 꼬마 숙녀와 관련이 있었으며, 물론 그와 꼬마 숙녀 사이에는 원숭이 한 마리가 웹슬 씨보다 더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까지 내게 전해주기를,

“붉은 벽돌같이 생긴 얼굴로 분장을 하고서, 괴상망측한 모자를 자신의 나팔바지 아래쪽 끝까지 내려 쓴 채, 웹슬 씨(연극배우)가 코믹한 경향을 보이며 약탈(강도)을 일삼는 타타르(몽고인. 정확하게 말하자면 몽골인은 아니고 중앙아시아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퍼져 살고 있 던 목축인들. 중국에 세력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 쪽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오고 동유럽 쪽에 세력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 대신 동유럽 쪽으로 서서히 밀려들면서 두 쪽 다 몇 천 년에 걸쳐 서서히 쇠락하게 한 장 본인들임-\_-;; 지속적인 대외전쟁에 남아날 강대국은 없음)족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지 뭐야.”라고 했다.

고기 전문 음식점이 하나 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와 내(23세, 주인공)가 그 음식점을 지리학의 음식점이라고 부르곤 한다. 모든 식탁보(천) 45센티미터(cm)마다 후춧가루 통 가장자리에서 묻은 세계 지도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웨이터가 가지고 오는 나이프(칼) 하나 하나마다 죄다 고기육즙으로 생긴 항해도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인 지금까지도 런던 시장의 행정력이 미치는 내엔 식탁보와 나이프(칼)에 음식 자국이 지도처럼 남아 있지 않은 고기 전문 음식점이 겨우 한 곳 있을 정도다.

나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다.

빵부스러기들 위로 깜빡 잠도 들면서, 석탄 난로에서 피어나는 가스를 멍 때리며 응시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용광로에 불어 넣는 열풍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음식들에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면서 나는 연극 상연 시간까지 죽치고 앉아 있었다.

곧 나는 “펄떡” 정신을 차리고 연극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그곳(극장)에서, 나는 국왕폐하를 위해 봉사 중인 고결한 어느 갑판 장(선원)을 발견했다. 그는 가장 뛰어난 갑판장으로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두 바지자락들이 곳에 따라서 너무 꽉 조여 있지만 않으면 싶었고, 그리고 다른 곳은 좀 너무 느슨하게 풀려 있지 않다면 더 좋을 텐데 싶었지만.

어쨌든 그 갑판장은 관대하고 용감한 선원으로 그려지고 있었지만 괜스레 애(아이)들의 모자란 모자는 죄다 노크해대는(두드려대는) 바람에 모자가 애들의 눈 위에까지 내려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갑판장은 아주 애국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지만 괜스레 세금을 내지 말자고 우겨대기도 했다.

그 갑판장은 천(옷감) 안에 푸딩(과자)처럼 생긴 핸드백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핸드백 속에 돈이 들었음은 당연했다.

그 돈으로 그는 ‘침대의 장식’으로 치장을 한 어느 젊은 아가씨와 결혼을 했더랬다. 그 결혼은 관객들로부터 큰 축하를 받았다.

포츠머스(영국 남부 항구도시. 바다 건너편에 프랑스가 있음. 포츠머스는 영군해군기지임)의 전체 인구(9명의 배우)가 자신들의 손과 손을 (자신의 양손을 비비다) 비벼대며 해안가(무대 위)에서 불쑥 모습을 드러내더니 다른 모든 사람들(배우들)과 손을 흔들며 이렇게 노래를 불 렀다.

“잔을 채우시오, 잔을 채워요!”

놀라지 마시라. 극 중엔 포스머스 도시의 전체인구가 9명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_- 그랬을 리가 없겠죠. 해석이 어디에서 잘못된 모양임~ 거의 막 나가는 해석. 성의를 보여줘~)

하지만 잔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에게 제안된 어떤 행동도 거부한 정말 얼굴 색깔이 검은 느림보 뚱뚱이가 한 명 무대 위에 있었더랬다. 포츠머스 사람들(9명의 배우들)은 그 느림보를 “그의 심장도 그의 얼굴색만큼이나 검다네.”라며 공개적으로 말해대고 있었다.

그때 그 느림보 뚱뚱이(연극 속 말썽꾸러기)가 다른 두 느림보 뚱뚱 이들에게 “전 인류를 곤란에 빠뜨리자”라며 제안했다.

그 느림보 뚱뚱이(연극 속 말썽꾸러기)는 유력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문출신이었다.

결국 그 느림보 뚱뚱이들 세 명은 말썽을 피웠고, 이를 바로 잡는데 거의 그날 저녁의 반이 날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한 것도 끔찍스럽게도 착한 어느 식료품 잡화상(정육점) 주인에 의해서였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각반(등산용 양말^^)을 착용하고, 빨간 코(사람의 코)를 한 그 식료품 잡화상(정육점) 주인은 시계 침이 석쇠(고기 올려놓고 굽는 철망. 파리채 같이 생긴 거)로 된 ‘시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가 다시 나타나 시계 안에서 뽑아온 그 석쇠(고기 올려놓고 굽는 철망. 고기 굽는 음식점 가면 있는 파리채처럼 생긴 거)로 “내가 다 엿들었다 이 작자(사람)야! 자네가 한 말은 틀렸어! 에라 이 석쇠(파리채 같이 생긴 거)를 받아라!”라며 포츠머스 시민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대며 포츠머스 시민들의 등짝을

후려쳐 녹다운(쓰러뜨림) 시켰더랬다.

이 어처구니없는 등짝 후려치기 소동 때문에 급기야 웹슬 씨(53세, 주인공 시골의 교회서기였다가 중년의 나이에 런던 연극계의 큰 별이 되겠다며 상경해 영락없는 코믹 엑스트라 배우가 될 팔자에 놓인 인물)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것은 웹슬 씨가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물론 웹슬 씨의 가슴팍에는 붉은 별과 ‘가터 훈장(영국의 나이트의 최고 훈장. 나이트≒영국식 기사 호칭)’이 하나 씩 달려 있었다.

웹슬 씨(53세)가 맡은 역할은 영국해군성(영국 해군본부)에서 파견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전권 대사(전권을 가진 대사)’ 역할이었다.

웹슬 씨(53세)가 대사를 읊었다.

“말썽을 부린 느림보 뚱뚱이들 세 명은 이 즉시 교도소에 투옥되어 야한다. 그리고 공직에 몸담은 것에 대한 작은 답례로써 갑판장에겐 유니언잭(영국국기) 아래에서 한 번 서 있을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하겠 다.”라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생전 처음으로 여인처럼 눈물을 흘린 그 갑판장은 유니언잭에다가 공손히 자신의 두 눈을 닦았더랬다.

그런 다음 다시 기운을 차린 갑판장은 웹슬 씨를 “판사님”이라며 호칭하며 “부디 이 미천한 손이 판사님과 악수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더랬다.

이에 웹슬 씨가 위엄 있고 자애로운 태도로 “손을 잡아도 좋네.”라고 악수를 허락하는 대사를 막 읊자마자 그 즉각 웹슬 씨는 다른 배우 들에 의해 거칠게 내밀쳐져 관객석에선 보이지도 않는 한 쪽 무대 구석으로 밀려났더랬다.

웹슬 씨의 기분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무대 위 모든 배우들은 격렬하게 ‘혼파이프(=’뿔피리 반주.’ 영국에서 유행한 활발한 춤. 특히 영국 선원 사이에 유행했다고 하네요~ 생전 처음 들었음-\_-;; 어쨌든 혼파 이프 중에서는 잉글랜드의 ‘세일러스 혼파이프’가 유명합니다. ‘세일러스 혼파이프’ 듣기 링크 : [http://](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3/College_Hornpipe.ogg)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3/College\_Hornpi [pe.ogg](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f/f3/College_Hornpipe.ogg) 검색일자 : 2014-12-27. 전혀 흥이 나는 음악이 아닌데...멘붕 -\_-;; 내 음악 듣는 취향은 참 고리타분한데 19세기 말 영국 사회도 만만치 않았군요~\_~ 베토벤은 듣기 좋던데~)’를 추어댔다.

무대 구석에 서서,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관객석을 내려다보던 그는 곧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두 번째 작품(연극)은 최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익살스런

(코믹) 〈 크리스마스 팬터마임 〉 (크리스마스 때 상영하는 영국 동화 연극 / 팬터마임=배우가 말 안하고 몸짓 손짓 표정으로 연기하는 거)이 었다.

나(23세, 주인공)는 가슴 아팠다. 내가 그 연극 첫 장면에서 웹슬 씨 (53세, 연극배우. 원래 주인공 시골마을의 교회서기였다가 비극연극 배우가 되겠다는 큰 희망을 품고 런던연극계로 진출했다가 거의 코미디 배우로 전략할 위기에 처한 코믹한 인물)가 대단히 과장되게 푸른빛을 내는 표정 아래로 바지 다리부분이 붉은 털실로 된 뭔가를 걸치고서 커튼의 ‘술’(술=커튼 위에 실을 꼬아 장식 한거)을 머리카락에 붙여 부스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선, 광산(탄광)에서 천둥번개들을 제조하 느라 바쁘게 움직이다 자신의 거인 주인(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 오만 때만 소리를 다내며 저녁을 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 왔을 때, 오 이런 웹슬 씨가 자신의 거인 주인에게 너무도 비겁하고 소심하며 겁먹은 모습을 비추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웹슬 씨(53세, 연극배우)라는 것을 감지했다. 아니 어렴풋이 그가 웹슬 씨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그것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대 배우가 되겠다며 런던으로 상경했는데 저런 역을 맡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웹슬 씨(53세, 연극배우)가 곧 다음 장면에선 좀 더 괜찮은 역할로 자신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사랑을 관장하는 수호신이 도움이 필요해 어느 독선적인 마법사(웹슬 씨)를 한 명 호출했는데, 그 마법사는 언뜻 보기에 무리한 여행(왼쪽으로 들어갔던 배우가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뛰어가 오른쪽 무대로 등장하기) 후 상당히 다리를 후들 후들거리며 무대 반대쪽에서부터 등장했더랬다.

그(마법사)가 곧 춤(=높이)이 높은 모자를 쓰고서 자신의 겨드랑이 밑에 마법 책 한 권을 끼고 등장한 웹슬 씨로 판명되었다.

물론 그 전에 수호신이 마법사(웹슬 씨)를 필요로 하게 된 이유는, 자신(무대 위 배우)의 딸이 선택한 연인을 반대한 어느 예의도 모르는 농부의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동 덕분이었다. 그(딸의 아버지)가 2층 창 문에서부터 마당 밀가루 포대 속에 숨어 있던 딸의 연인 위로 의도적 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이 마법사(웹슬 씨)가 맡은 역할은, 주로 다른 배우들이 몸짓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실제 들리는 것 마냥 맞대응해주고 다른 배우가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으면 몸으로 맞아주고 다른 배우의 춤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을 향해 다양한 색상의 섬광(불꽃)을 비추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주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무대 위에서 손이 놀 때가 많았다. 그리고 내가 관찰하건대, 아주 놀랍게도, 그는 그 남아도는 무대 위에서의 시간 대부분을 내가 있는 관객석 쪽 방향을 향해 빤히 쳐다보는데 할애하고 있었다.

그건 마치 그(웹슬 씨)가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넋을 논 상태인 것 같았다.

웹슬 씨(53세, 연극배우)의 점점 커져 가는 눈빛에는 무언가 주목할 만한 데가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뭔가를 수도 없이 떠올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곤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이젠 나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무대 위에 있던 거대한 회중시계의 케이스 안으로 들어가 구름 장치들 위로 올라가 관객석에선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나는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을 되새겨보며 앉아 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몰랐다.

한 시간 후 극이 끝나고 극장을 나설 때까지도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문 가까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웹슬 씨)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어떠세요?” 우리가 악수를 나눔과 동시에 거리로 함께 들어서며 내가 물었다. “절 보신 거 아니었어요?”

“암 봤지, 핍 군!” 웹슬 씨(53세, 연극배우)가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자네를 봤네. 하지만 거기에 또 누군가 있지 않았나?”

“그 밖에 누군가라니요?”

“정말 기절초풍(매우 놀랄)할 노릇이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웹슬 씨가 다시 한 번 넋을 놓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그라는 것을 맹세할 수 있다네.”

그 놀라움 속으로 나까지 빨려드는 것을 느끼며 내가 “방금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라며 대답을 재촉했다.

“자네가 관객석에 있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를 알아봤을까마는,”라며 웹슬 씨가 또 다시 아까 와 같이 넋을 놓으려는 듯 발언했다. “나도 장담할 순 없다네. 하지만 난 결국 그를 알아봤을 것이네, 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귀가할 때 내가 늘 미행이 없는지 확인했듯이 말이다. 그의 이 애매한 단어들이 내게 한기(추움)를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아! 그는 지금 이 곳에 없다네,”라며 웹슬 씨(53세, 연극배우)가 말했다. “그는 내가 무대에서 퇴장할 때 자리를 떴으니까. 그가 나가는 것을 내가 무대 뒤에서 보았다네.”

이미 의혹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지어 이 가엾은 엑스트라까지 의심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고 그가 혹 나를 꼬드겨 프리비스(죄수)에 관한 일을 털어놓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그로 말미암아 나는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그를 한 번 이상 힐끗 쳐다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을 했군. 난 자네가 그 자가 함께 온 줄 알았었거든, 핍 군. 그가 자네 뒷좌석에 유령처럼 앉아 있는 것을 자네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까지 말이야.”

방금 느낀 한기(추움)가 또 다시 내 등뼈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23세, 주인공)는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왜냐하면 나를 꼬드겨 이러한 얘기들과 프로비스(57세, 죄수)를 연결시 키려한다고 내가 그를 의심해도 앞뒤 상황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프로비스가 관객석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완전히 안심한 상태였다.

“뭐 내(53세, 웹슬 씨=연극배우)가 자넬 놀라게라도 하는가, 핍군. 아무래도 자네가 좀 놀란 것 같아서 말이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 내가 지금부터 내뱉을 말을 자넨 믿지 않을 걸세. 나도 내 눈을 의심했었으니까 말이야, 아닌가?”

“글쎄요?”라며 내가 말했다.

“그래 글쎄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핍 군. 기억나나 예전 우리가 다함께 모였던 크리스마스 날 말이네, 자네가 아마 12살 정도였을 때지, 우리가 자네 매형(조 가저리=힘세고 착한 대장장이)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지. 그때 몇몇 병사들이 문가로 몰려와 쇠고랑(수갑) 한 쌍을 고쳐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건 저도 잘 기억하고 있는걸요.”

“그럼 곧이어 두 탈옥수들에 대한 추격이 시작된 것도 기억나는가, 우리도 병사들 틈에 합류하지 않았는가, 가저리(주인공 매형의 이름 / 주인공과 35세라는 큰 나이 차이가 남 / 성 씨가 ‘조’이고 이름이 ‘가 저리’임)가 아마 자네를 등에 업고 갔었지. 내가 선두에 서고 자네들은 내게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실제로는 이 반대였음. 힘이 센 가저리가 주인공을 등에 업고서 선두에 서고 어린 주인공은 힘들어서 꾸벅꾸벅 졸고 교회서기였던 웹슬 씨는 병사들을 따라 걷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만이라도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가저리가 우 리도 병사들처럼 끝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우기는 바람에 웹슬 씨는 힘 들어서 울 지경인데 돌아가지도 못해 쩔쩔맸음)

“저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저씨.” 실제론 이때 아마 내가 그(웹슬 씨)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선두에 섰다는 마지막 얘기만 제외하면 말이다.

“그럼 자넨 우리가 도랑(진흙투성이 개천)가에서 그 두 탈옥수들을 찾아낸 것도 기억나는가, 그 두 탈옥수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지고 있 었고, 그들 중 한 명이 상대방 죄수에게 호되게 얻어맞아 얼굴 여기저기 살갗이 찢겨지는 많은 상처를 입었던 것도 기억하는가?”

“모두 눈앞에 선한 걸요.”

“그리고 병사들이 횃불들을 밝혔었지, 그리고 그 두 탈옥수를 쇠고랑에 채워 행렬 중간에 끼고서 걸어갔지. 우린 그 사건이 어떻게 귀결 (결론)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었고. 아마 칠흑 같았던 늪지대를 다 지나갔었지. 횃불이 그 두 죄수의 얼굴들 위로 비치는 채 말이야. 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네. 우리 둘레로 온통 검은 밤의 바깥 원이 형성되었을 때 그 횃불이 그 두 죄수의 얼굴들을 비추었던 일말이네. 기억하는가?”

“그럼요,” 내가 말했다. “저도 다 기억나는 걸요.”

“그러니까, 핍 군, 그 두 죄수들 중 한 명이 오늘 밤 자네 뒤에 앉았었다 네. 내가 무대 위에서 자네 어깨 너머로 본 게 바로 그 자란 말 이지.”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진정해!’라며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런 다음 그(웹슬 씨)에게 재차 확인했다.

“그럼 오늘 밤 아저씨께선 그 두 죄수들 중 어느 쪽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왜 있지 않은가, 얼굴 여기저기에 살갗이 찢겨져 나가는 많은 상처를 입었었던 남성 말이네.” 그가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마냥 술술 이야기를 풀어갔다. “내가 본 사람이 바로 그 자라네! 암 맹세할 수 있 고말고! 그 자를 생각해내면 낼수록 내가 오늘 밤 본 것이 그 자라고 더욱 더 자신할 수 있지 뭔가.”

“이상한 일인데요!” 나는 그것이 내게 별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듯 내가 꾸밀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가장하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이런 대화(웹슬 씨가 주인공이 앉아 있던 좌석 뒤에 있던 죄수를 봤다는 얘기)가 나를 더한 불안상태로 몰아넣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콤피슨’(옥스퍼드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이 마치 내 뒤에서 유령처럼 서 있는 것 같은 유별나고도 기분 나쁜 공포를 내가 느껴야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프로비스의 은둔이 시작된 이래로 내가 이제까지 내 생각들 속에서 잠시도 콤피슨(사기꾼)을 지울 수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때에 그 자가 내게 가장 접근해 있었다니.

내가 매우 조심하였는데도 내가 경계를 늦추었고 실은 전혀 그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 이건 마치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100개 의문을 걸어 잠그는 조바심을 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 팔꿈 치에서 도둑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내가 극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거기로 온 것임은 이제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주변에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이 아무리 사소해보일지라도 그 위험은 아주 가까이에 있으며 수면 아래서 활 발히 움직이고 있는 위험임은 의심할 바도 없었다.

나는 “그 남자가 언제 쯤 객석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까?”라는 식의 여러 질문들을 웹슬 씨(53세, 연극배우)에게 던졌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객석에서 ‘나(23세, 주인공)’을 봤고 그런 후 내 어깨 너머에 있는 그를 보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첫눈에 알아본 것도 아니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보고서야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우선은 막연하게나마 그를 나와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예전 시골에 있을 때 내게 속한 누군가로 그 남성을 생각 했었다는 것이다.

“그가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었죠?”

“부유한(부자) 차림새를 하고 있더구나. 하지만 다른 것은 눈여겨보지 못했네.”

그가 생각하기에 검정색 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얼굴에 찢겨진 상처가 남아 있던가요?”

“아니네, 지금 생각으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음울한(답답한) 생각에 잠겨 내 뒷좌석에 누가 앉는지 전혀 눈여겨보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만약 얼굴에 찢겨진 상처가 있는 자였다면 어떤 식으로든 내 눈길을 끌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웹슬 씨(53세, 연극배우)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기억과 내가 그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전해준 후 그리고 “오늘 피곤 하셨죠.”라며 내가 그에게 적절한 비용의 간단한 다과(음식)를 대접해준 후, 우린 헤어졌다.

템플(런던 한복판, 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주택단지 / 동서남북으로 주택단지 내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음)로 돌아와서 보니 시계침이 밤 12시와 1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출입구 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내가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고 숙소로 들어올 때까지도 내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돌아왔을 때, 우린 벽난로 가에 앉아서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그 날 밤에 내가 알아낸 정보를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에게 전달해주고 우리가 그의 신호(언제 인도로 출국하면 안 잡힐지)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가 기억하도록 다시 한 번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그의 성(웨믹의 오두막 같이 작은 통나무 집)으로 너무 자주 가면 이는 또 그를 위태롭게 하는 길일 수도 있었음으로 나는 일단 그에게 오늘 일을 편지로 알리기로 했다.

나는 침대에 들기 전에 편지를 작성했고 밖으로 나와 부쳤다. 그때까지도 내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허버트와 나는 우리가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사실 그걸 빼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도 했다.

우린 정말이지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전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였다. 더 주의를 기울일 게 있었다면 말이다.

나(23세, 주인공)로서는 내가 노(보트의 노)를 저을 때를 제외하곤 일절 ‘중국인들이 사는 강 유역(프로비스<57세, 죄수>가 은둔해 있는 곳)’ 근처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때에도 나는 그 밖에 다른 장소를 쳐다보듯이 만 ‘제분 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 쪽으로 눈길을 줄 뿐이었다.

**위대한 유산**

**48장**

나는 47장에서 두 차례의 만남에 대해 얘기했었다. 첫 번째 만남이 있고 약 1주일 후에 그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

어느 때처럼 오후 좀 이른 시각에 다리 아래 선착장에 내 보트를 남겨두고 “젠장 밥은 어디서 먹지?”라며 헷갈려 하다, 일단은 ‘치프사이드 시티’(런던의 시티 중 하나)까지 어슬렁거리며 산보를 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군집들 속에서 영락없이 가장 갈데없는 사람마냥 그렇게 거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성큼성큼 나를 따라잡더니 큰 손바닥을 내 어깨 위에 얹었다.

그건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의 손이었다. 그가 내 팔에 팔짱을 끼었다.

“같은 방향인 것 같군, 핍(23세, 주인공이름), 같이 좀 걷겠나. 그래 목적지는 어딘가?”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요, 제 생각 엔요.”라며 내가 말했다.

“그럼 자네도 모른단 말인가?”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말했다.

“글쎄요,” 어쨌든 이번 한 번만은 그와의 대화(디킨스는 ‘반대신문’이라고 적었음)에서 선수를 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해하며 내가 대답 했다. “글쎄요, 아직 제 마음이 결정을 못 내린 건 아닐까요?”

“저녁 먹을 생각 아니었나?”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자네도 마다 하진 않겠지, 아닌가?”

“네.”라며 내가 대답했다. “마다하진 않죠.”

“선약(약속)은 없겠지?”

“제가 선약이 없는 걸 굳이 마다하는 편은 아닙니다.”

“잘 됐군.” 재거스 씨(50세, 런던 변호사)가 말했다. “같이 저녁이나 먹으러 가세(자신의 집으로 가자는 의미임).”

‘젠장 내가 왜 이 양반 말에 맞장구를 쳤을까!’라며 거절하려는 찰나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몇 단어를 말하려던 찰나에 재거스(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재거스 변호사는 굉장히 날카롭게 말하는 스타일임)가 이렇게 덧붙였다.

“웨믹(45세, 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의 서기. 선량한 사람임)도 온다네.”

그 말에 나는 거절하려고 꺼내었던 단어들을, 사실 그 단어들은 승 낙(수긍)의 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린 ‘치프사이드 시티’(런던의 시티 중 하나) 거리를 따라 걷다가 ‘리틀 브리튼’(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 지금 2014년 런 던지도기준으로 보면 모두 런던 한 복판임. 당연히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엔 한적한 곳이었겠죠?) 쪽을 향해 비스듬히 방향을 틀었다.

그러는 사이 쇼윈도(상품진열창)의 조명들이 휙 켜지기 시작했고, 오후의 붐비는 틈바구니들 속에서 램프를 켜기 위해 놓을 사다리를 댈 충분한 공간을 찾지 못한 ‘거리 가로등 램프를 켜는 사람들’은 폴짝거 리며 뛰어다니거나 이 거리 안과 저 거리 안을 들락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후머스 호텔’(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소설이 쓰일 당시에는 호텔 이 생겼다고 함. 구글 검색 참조)에서 숙박해야 했을 때 깡통구멍을 통해 ‘골풀 양초’(갈대 같이 생긴 골풀을 기름에 녹여 만든 초) 불빛이 유령 같은 벽에서 하얀 색 눈(보는 눈)들을 떴을 때보다 ‘거리 가로등 램프를 켜는 사람들’에 의해 훨씬 더 많은 붉은 색 눈들이 떠지고 있 었다. 차차 더해지고 있는, 거리의 ‘안개’ 속에서 말이다.

( 부연설명1 : △ 후머스 호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 → 45장

첫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198310070> )

( 부연설명2 : △ 호텔 방에서 피운 ‘골풀 양초’에 대한 묘사 부분

→ 45장 첫부분 그 다음 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198969766>

)

‘리틀 브리튼’(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 지금 기준으로는 런던 한 복판임)에 있는 사무실(재거스 변호사사무실)에선 평상시와 같이 재거스 씨의 편지쓰기와 비누로 손 씻기, 그리고 웨믹 씨의 촛불심지 자르기와 금고 잠금 확인 절차가 그 날 하루사무의 종료로써 행 해졌다.

내가 재거스 씨 집무실 벽난로 가에 한가로이 서 있는 동안, 벽난로의 불길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았다하면서 선박 위에 있던 두 개의 주물(쇳물을 녹여 만든 흉측한 사람 얼굴 모양의 주물)이 마치 나와 함께 사람 기분 엄청 안 좋게 만드는 까꿍(숨었다가 보였다가 하는) 놀이를 하는 마냥 여러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한편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편지 쓰는 동안 구석에서 희미하게 불을 비춰주고 있던 굵고 땅딸막한(키 작고 뚱뚱한) 한 쌍의 사무실 초는, 마치 교수형에 처해졌었던 다수의 의뢰인 들을 기념하는 더러운 수의를 입은 마냥 촛농들로 떡칠이 되어 있었다.

우린(주인공, 제거스, 웨믹) ‘제라드 거리’(재거스 씨의 집이 있는 거리이름, 당시엔 런던 서쪽에 있던 한적한 거리였음. 지금은 런던 중앙에 위치)로 향했다. 나와 재거스 그리고 웨믹 이렇게 세 명이서 말이다. 물론 전세 마차(택시 개념)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식사는 준비되었다.

비록 내(23세, 주인공)가 재거스 씨의 집에서 웨믹(45세, 재거스 변 호사사무실의 서기)의 월워스(웨믹의 집) 의견(주인공이 처한 일에 대해 웨믹 씨의 개인적이고 우호적인 의견)에 대해 표정으로조차도 언급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손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때때로 우호적인 시선으로 내게 눈빛을 던지는 것까지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식사 도중에라도 식탁에서 고개를 들 때면 항상 재거스 씨(50세, 런던의 유명한 변호사)에게만 눈길을 주었으며 내게는 마치 그 자리에 쌍둥이 웨믹이 앉은 마냥 감정 없고 서먹한(어색한) 눈길만을 주 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 같았다.

(재거스 변호사가 자신의 직원인 웨믹에게 하는 대사→) “그래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이 핍 씨(23세, 주인공이름)에게 보낸 짧은 편지를 핍 씨에게 보여주었나?”

저녁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소설 속에서 말하는 투가 싸가지-\_-)가 웨믹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라며 웨믹(45세, 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대답했다. “우편으로 부칠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께서 핍 씨를 사무실로 데려오시더군요. (편지를 내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웨믹은 나에게 그 편지를 직접 주는 대신 (꼭 이렇게 해야 함. 상사에게 먼저 주어야함) 자신의 상사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었다.

“두 줄짜리 메모라네, 핍(주인공이름).” 재거스 씨가 그 편지를 다시 내게 넘겨주며 말했다. “미스 해비샴은 자네 집 주소를 확신할 수 없어 내게 보낸다고 하더군. 자네가 그녀에게 언급한 그 비즈니스적인 약간의 사무(돈을 투자하는 일)에 대해 자네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 누고 싶다더군. 갈 텐가?”

(비즈니스적인 약간의 사무란? → 주인공 핍이 몰래 친구인 허버트의 사업을 도우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한 금액의 절반은 몰래 대주었는데 나머지 돈은 주인공 자신이 유산을 물려받으면 주려고 했는데 사건이 꼬이면서 주인공 자신이 돈을 충당할 수 없자 미스 해비샴에게 “친척이니 도와주세요?”라는 말투로 얘기했는데 미스 해비샴이 “내가 왜 그들을?”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가 그 날 주인공이 에스텔라에게 처참하게 차이자 그리고 주인공이 진심으로 에스텔라를 사랑했음을 알고 마음이 아파진 미스 해비샴이 지금 다시 만나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얘기임)

(너무 자세한 설명 아냐? :) 웬일이람~ )

“예, 내려가 봐야죠,”라며 나는 그 메모지를 빨리 한번 훑어보았다. 정확히 그가 말한 그대로였다.

(재거스 씨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 “그래 언제쯤 가볼 생각인 가?”

“지금 당장은 그보다 절박한 사무가 있어서요,”라며 나는 웨믹을 한 번 힐끔 쳐다보며 말했다.

웨믹은 그때 생선의 살을 집어 자신의 우체통 입구 같은 입 안으로 막 던져 넣고 있던 참이었다.

내가 계속 말했다.

“그 일 때문에 날짜를 특정지울 순 없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즉시 내려가 뵐 작정입니다.”

“핍 씨에게 곧 내려가 볼 의향이 있다면,”라며 웨믹(직원)이 재거스 씨(상사)에게 말했다. “핍 씨가 굳이 그 메모지에 대한 답장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의 방금 말은 내가 늦추지 말고 미스 해비샴(56세, 부자)을 만나봐야 한다는 하나의 암시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23세, 주인공, 실속 없는 런던신사)는 내일 아침 마차 편으로 당장 시골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다.

웨믹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더니 단단히 만족한 듯 한 태도로 내가 아니라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래, 핍(주인공의 이름)! 우리의 ‘거미 인간(싸가지 없는 드러믈. 재거스 씨는 드러믈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함. 싸가지 없다고)’이 카드 놀이를 했다지.”라며 재거스 씨가 말문을 열었다. “그가 당첨(에스텔라 와의 약혼)되었다는 얘기는 들었네.”

나는 마지못해 그 말에 동의해주었다.

“헛! 순조로운 출발이군. 가망성이 있는 녀석이었어. 녀석 나름대로 는 말이야. 하지만 전부다 자기 방식대로 할 순 없을 게야. 강한 자가 결국에는 이길 것이지만 우선은 누가 더 강한 자인지 알 아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녀석의 마음이 바꿔 그녀에 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려든….”

“설마,” 내가 벌렁대는 가슴에 얼굴까지 시뻘개져선 그의 말을 제지 하며 말했다. “재거스 씨께서는 녀석이 설마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깡패일거라 생각하시는 건 진정 아니시겠죠?”

“그건 내 말의 요지가 아니네, 핍(23세, 주인공이름). 난 경우의 수 하나를 말한 것일세.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가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물론 힘은 그가 더 셀 테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력(지성)의 문제라면 확실히 그는 덜 가진 쪽일 테지. 그런 부류의 남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변할지 생각해보는 것은 일종의 가 능성을 따져보는 일이겠지.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동전 양면 던지기 랄까(그것은 두 가지 결과 사이의 반반의 가능성이기 때문이네), 뭐 그런 거 아니겠나.”

“결과라니요 무슨 결과 말입니까?”

“우리의 ‘거미 인간(싸가지 없는 드러믈. 재거스 씨는 드러믈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함. 싸가지 없다고)’ 같은 부류는,”라며 재거스 씨가 대답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든가 또는 굽실거리든가 하지. 굽실거리며 으르렁거릴 수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굽실거리면서도 안 으르렁거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내를 때리거나 굽실거리거나 둘 중 하나일세. 그래 웨믹 자네의 고견은 어떤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굽실거리거나 하죠.”라며 웨믹(45세, 재거스 변 호사사무실의 서기)은 전혀 나를 향해 말하지 않으면서 대답했다.

(재거스 변호사가 하는 대사임→) “그럼 벤틀리 드러믈 부인을 위해 건배해볼까,”

(잠깐 인물 설명 : ‘벤틀리 드러믈’(24세, 지방의 부유한 어느 남작의 둘째아들임. 즉 ‘준 남작’의 지위를 이어받을 두 번째 계승자임. 하지만 얼굴이 나이에 비해 늙어 보이고 몸은 빌딩처럼 둔하고 무거워 보이는 아둔하지만 자신의 가문과 부유함에 대해 엄청 거만해하는 인물임. 주인공의 라이벌. ‘드러믈’이 이름. ‘벤틀리’가 세례명임. 또한 드러믈은 생활이 나태하고 거만하며 인색한(구두쇠) 인물임 / 자세한 내용은 25장 첫부분을 참조바람. 25장 첫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054106254> , 검색일자 : 2015-01-05)

재거스 씨(50세, 능력은 좋은데 싸가지 변호사)가 식탁 가운데에 놓인 회전식 식품 대에서 포도주가 든 디캔터(보기 좋은 포도주병. TV에 나오는 거 :)를 집어 웨믹과 내 잔을 채우고 자신의 잔까지 마저 채운 후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다.

“바라건대 패권을 차지하는 문제가 벤틀리 부인께서 만족하시는 선으로 해결되기를! 하지만 그 여성분과 그 남성분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란 절대 없을 것일세. 자, 몰리(40세, 가사도우미 이름 / 17세 때부터 재거스 씨의 가사도우미였음), 몰리, 몰리, 넌 오늘 왜 이렇게 꾸물 거리는 거냐! 몰리!”

재거스(50세, 변호사)가 몰리(40세, 가사도우미 이름. 17세 때부터 재거스 씨의 가사도우미였음)를 호명했을 때, 몰리는 재거스 씨 팔꿈치 쪽에 있었다. 막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려던 참이었다.

그녀가 접시에서 손을 빼더니 한두 발짝 정도 뒤로 물러섰다. 겁을 먹은 듯 죄송하다는 몇 마디 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가 얘기하는 동안 보인 손가락들의 어떤 특정한 움직임 하나가 내 주의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무슨 문제 있는가?”라며 재거스 씨(50세, 변호사)가 내(23세, 주인공, 실속 없는 런던신사)게 물었다.

“아뇨, 전혀요. 단지 저희들이 나누고 있던 이 주제(아내인 에스텔라에게 남편인 드러믈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라며 내가 말했다. “다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입니다.”

그녀(몰리=40세=17세 때부터 재거스 씨의 가사도우미였음)가 손가락으로 취한 손놀림은 짐짓 뜨개질을 하는 것 같은 손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용주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짐짓 이젠 가도 되는지를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재거스 씨가 그녀에게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녀가 가면 도로 부르는지를 몰라하는 것만 같았다.

상대방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 한 그녀의 눈빛! 틀림없이, 나는 아주 최근에, 잊혀 지지 않는 그 날(에스텔라에게 차인 때)에, 정확히 저 눈빛과 저 손을 본 적이 있었다.

“이제 가도 좋다”고 재거스 씨(53세, 변호사)가 몰리(40세, 가사도우 미)에게 말했다. 그녀가 미끄러지듯 방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짓이 내게 준 인상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난 자리에 그녀가 계속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분명 저 손과, 저 눈빛들을 본 적 있었다. 나는 또한 물결치는 듯한 저 머릿결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나는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저 손과 내가 아는 또 다른 그녀의 손을, 그리고 저 눈빛과 내가 아는 또 다른 그녀의 눈을, 그리고… 저 머릿 결을, 폭력적인 남편과 파란 만장한 생애를 살았을 경우 23년 후에 저 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 내가 아는 그녀의 손과 눈빛과 머릿결을 떠올 려보았다.

나는 또 다시 가사도우미(40세, 이름이 ‘몰리’)의 눈과 두 손을 쳐다 보았다. 그리고 기억해냈다. 폐허가 된 그 정원(미스 해비샴의 저택에 딸린 정원)과 사람들이 떠나 버린 맥주공장(미스 해비샴의 저택 옆에 있는 맥주공장)을 내가 마지막으로 거닐었을 때, 물론 나는 혼자 걷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 갑자기 들었던 해석 할 수 없는 감정을 나는 가 사도우미의 눈과 두 손을 보면서 다시 떠올렸다.

나는 생각했다. 전세 마차(지방과 런던을 오고가는 시외버스 개념) 창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과 내게 흔들어주던 그녀의 손을 보았을 때 방금과 똑같은 해석할 수 없는 감정이 어떻게 내게서 다시 되살아났었던가를 나는 생각했다.

또한 내가 마차(택시)를 타고서, 그때도 나는 혼자 타지 않았었다, 어두운 거리에서 가로등 불빛이 있는 장소로 갑자기 들어섰을 때 가로등 불빛 마치 섬광(번개)처럼 내 주위에 “확!” 비춰졌을 때 어떤 해석할 수 없었던 감정이 내게서 어떻게 다시 되살아났었던지를 나는 생각 해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극장(연극을 상연하는 극장)에서 낮선 사람(이름이 ‘콤피슨’=사기꾼)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그런 연결고리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에스텔라의 이름에서부터 그녀가 뜨개질을 할 때 보이든 손 가락들과 그녀의 매력적인 눈빛들로까지 전에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스쳐 지나갔었던 그 고리 하나가 지금 내 주의를 얼마나 집중시키고 있는지를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 여인(이름이 ‘몰리’. 40세)이 에스텔라(23세)의 친어머니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들었다.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내가 에스텔라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아왔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내 감정들을 못 읽을 리도 없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대화의 주제)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떡이더니 가볍게 내 등을 토닥 여주었다. 그리곤 다시 잔을 돌리더니(채우더니) 자기 몫의 식사를 계 속했다.

딱 두 번 더 가사도우미(40세, 이름이 ‘몰리’)가 다시 나타났었다. 그럴 때도 그녀는 아주 잠시만 방에 머물러 있었고 그럴 때에도 재거스 씨는 그녀에게 몹시 세차게 굴었다.

하지만 그녀(=가사도우미=몰리)의 손은 에스텔라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들도 영락없는 에스텔라의 눈빛이었다.

만약 그녀(=가사도우미=몰리)가 그렇게 100번을 더 나타났더라도 나는 내 추측이 맞음을 더 확신하지도 그렇다고 덜 확신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분한 저녁식사자리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차례가 되면 웨믹은 마치 그것이 업무상의 술자리인 마냥 잔을 들이켰기 때문이다. 마치 날짜가 되어 자신의 월급을 수령하는 마냥 매번 자신의 고용주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곤 혹 자신의 고용주가 준엄한 추궁을 해올 것에 대비해 답변할 채비를 끊임없이 갖추고 있었다.

그가 마신 포도주의 양에 관해 말하자면, 우체통이 편지지의 개수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더니 그의 우체통 같은 입도 포도주 잔의 수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이 마시는 포 도주의 양에 관해서 그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내가 보기에, 그는 가짜 웨믹이 틀림없었다. 진짜는 집에 있고 그의 쌍둥이 동생이 그 자리에 왔음이 틀림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있던 것은 분명 월워스에 있는 웨믹과 외모만 극적으로 닮은 가짜 웨믹이었다.(←주인공이 농담하는 거임)

우린(웨믹과 주인공과 재거스 씨) 일찍 인사를 나눈 후 같이 자리를 떴다.

그렇다고 해도, 재거스 씨가 쌓아놓은 부츠들 사이로 우리의 모자를 찾으러 손을 더듬을 때 나는 이미 그의 쌍둥이 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중임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웨믹과 주인공)가 월워스(웨믹의 집 방향) 쪽으로 제라드 거리(재거스 변호사의 집)를 채 5m(미터)도 벗어나지 않아서 나는 웨믹의 쌍둥이 형과 서로 팔짱을 끼고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웨믹의 쌍둥이 동생’(웨믹의 쌍둥이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말은 주인공의 농담임)은 저녁 공기 속으로 수분을 빼앗겨 증발해 버렸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라며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 주인공을 몰래 도와주고 있음)이 말했다. “끝났습니다! 상황종료입니다. 재거스 씨는 대단한 사 람입니다. 그와 비슷한 인물을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와 식사를 같이 할 때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하답니다. 굳이 속이 뒤틀린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좀 더 편안하고 긴장을 푼 상태에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죠.”

나는 그의 말이 재거스 씨가 주선한 오늘 저녁식사 자리를 잘 설명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핍 씨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며 그가 대답했다. “당신과 제가 나눈 대화가 다른 사람에게로 새어나기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나(23세, 주인공)는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 주인공을 도와주고 있음)에게 “전에 한 번이라도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의 수양딸(양녀)인, 벤틀리 드러믈 부인(23세, 에스텔라)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너무 느닷없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나는 이번엔 웨믹의 연로하신 아버님과 미스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내가 미스 스키핀스 양(웨믹의 애인) 얘기를 꺼냈을 때, 그(웨믹)는 다소 능글맞은(엉큼한) 표정을 지어보이더니 거리에 멈춰서 선 고개를 앞뒤로 한 번 흔들며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봐란 듯이 코를 세차게 풀었다. 은근 연인에 대한 자랑(허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과시적 행위였다.

“웨믹 씨,”라며 내(23세, 주인공. 실속 없는 런던신사)가 말했다. “전에 제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왜, 제가 재거스 씨에게서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집 가사도우미를 유심히 보아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요?”라며 웨믹이 되물었다. “아하, 아마 그런 말을 당신께 했을 수도 있겠군요. 아뿔싸!”라며 그는 갑자기 이렇게 덧붙였다. “기억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 정신이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걸로 봐선 오늘 저녁식사가 꽤 절 뒤틀리게 했나 봅니다.”

“야수가 길들여진 모습, 당신은 그녀를 그렇게 호칭했었죠.” (앞뒤설명 : “길들여진 야수의 모습” → 24장 참조바람. ▶ <http://blog.naver.com/osy2201/220053553505>)

“그럼 핍 씨께서는 그녀를 무엇으로 호칭하실 겁니까?”

“마찬가지니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재거스 씨(변호사)가 어떻게 그녀를 길들일 수 있었죠, 웨믹?”

“그의 영업비밀이죠. 그녀는 그와 오랜 세월(23년)을 함께 지내왔으니까요. 가사도우미로 말입니다.”

“그녀(40세, 이름이 ‘몰리’=재거스 씨의 가사도우미=에스텔라의 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게 좀 더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특별한 관심을 느끼거든요. 웨믹 씨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저 사이에 나눈 대화는 다른 사람에게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아신다고요.”

“네!” 웨믹이 응답했다. “하지만 저도 그녀의 이야기를 잘은 모릅니다. 제 말인즉슨, 그 이야기의 전부는 저도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만이라도 당신께 들려드리리다. 물론 이것은 당신과 저 사이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지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약 20여 년 전에( = 정확하게는 23년 전에 에스텔라가 갓 태어났었을 때이며 = 에스텔라의 친어머니인 ‘몰리’가 17세였을 때이며 = 27 세의 재거스 씨가 변호사로 갓 개업해 막 유명세를 터뜨리려 할 때임), 어떤 여성 한 명이 ‘런던의 중앙 형사 법원’(법원 이름이 ‘올드 베일리’ 임)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되었다가 풀려났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당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녀에겐 약간의 집시의 피도 흐르고 있었습니다(그녀는 약간 집시 계통의 피도 섞인 여성이었 습니다). 어쨌든, 이 모두가 당시 온 런던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그대로였습니다. 대단히 아름다룬 젊은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하지만 무죄로 석방되었다면서요?”

“재판 때 재거스 씨(당시 27세 갓 개업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주 었거든요.”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보이더니 웨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재거스 씨)는 아주 놀라만한 방식으로 그 사건을 풀어나 갔지요. 결과가 뻔한 절망적인 사건이었는데, 또한 그가 개업한지 비교 적 초장기 시절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일반 대중들의 감탄을 자아낸 것이죠. 변론으로 말입니다. 사실 그 재판을 통해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날 동안 하루 같이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다툴 정도였죠. 그는 아직 개업한지 초장기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맡을 수는 없었죠. 대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듯이 피고 측 변호에 있어서 소금과 후추를 넣으며 피고 측 변호사 밑에서 앉아 있 었죠. 살인 사건의 피고인(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은 어느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족히 10살 이상은 많은 또 다른 여성이었 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나이 많은 여성(죽은 피해자) 쪽이 키가 훨씬 더 커고 힘도 훨씬 더 셌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화(살인)를 부른 사건이었지요. 두 사람 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여기 제라드 거리(재거스 씨의 집의 사무실과 집이 있는 거리이름)에서 지내고 있던 이 여성(가해자)은 아주 어려서 결혼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었고 내연관계(동거)였죠. 상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떠도는 생활을 하던 어느 뜨내기 남성이었죠. 그런 그녀(17세의 몰리. 에스텔라의 친어머니)가 질투의 화신이 되어 미쳐버린 것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확실히 살해당한 여성 쪽이 그 남성(뜨내기)의 배 우자로 더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살해당한 채 ‘하운즐로우 히스’(하운즐로우=런던 서부의 행정구역 중 하나. ‘히스’는 들판이라는 뜻의 영어단어. 어딘지는 저도 모름 :) 런던에 있겠죠? 없나? 아닌가) 근처의 어느 ‘헛간’(문이 없는 창고)에서 발견 된 것입니다. 격렬하게 다툰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싸운 흔적 같았습니다. 살해된 피해 여성은 멍이 들었고 할퀴고 찢겨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려 결국엔 질식사한 경우였습니다. 사건 당시 이 어린(17세) 여성(이름이 ‘몰리’. 에스텔라의 친어머니. 에스텔라는 몰리를 전혀 모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에 연류 되었을 것 같은 어떤 혐의자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여성이 자신보다 더 몸집이 커고 힘이 센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죽이는 일은 일어날 법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 당시 재거스 씨(당시 27세, 갓 개업한 변호사)의 주요한 변론 요지였습니다. (웨믹이 주인공을 쳐다보며) 당신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라며 웨믹이 내 소맷자락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재거스 씨는 그 당시 이 어린(17세) 여성(이름이 ‘몰리’)의 손목 힘에 대해선 절대 크게 논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따금씩 그녀의 손목 힘을 강조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웨믹에게 말했다. 재거스 씨(변호사)가 예전에 디너파티(=저녁 식사=연회) 때 우리들(주인공과, 주인공의 라이벌인 ‘벤트리 드러믈’과, 주인공의 절친 인 ‘허버트’와, 주인공의 동료인 ‘스타톱’을 말함. 벤트리 드러믈은 에스텔라와 결혼한 인물. 주인공의 철저한 라이벌)에게 그 녀(이름이 ‘몰리’=에스텔라의 친어머니)의 두 손목을 보여준 일을 말이다.

(더 읽으시기 전에 검은 딸기 사진 몇 장 보실까요? 48장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답니다. ‘검은 딸기’는 가지와 잎 뒷면에 발톱 같은 가시들이 있음.

검은 딸기 사진 링크 :

‘계명’ 님의 네이버블로그 [링크 ▶](http://blog.naver.com/shahn315/50022678518) <http://blog.naver.com/shahn315/50022678518> [검색일자:](http://blog.naver.com/shahn315/50022678518) 2015-01-08.

‘여왕벌’님의 다음 블로그 링크 ▶ <http://blog.daum.net/qweenbee/8893389>검색일자: 2015-01-08.

이상 검은 딸기 덤불 사진 링크였습니다. :) 너무 자세한 설명 아냐? 물론 링크였지만~ㅎㅎ)

“그러니까요, 핍 씨!”라며 웨믹이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 어린(17 세) 여성(이름이 ‘몰리’. 에스텔라의 친어머니)은 자신이 체포될 당시에 실제 자신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자신을 가냘프게 보이게끔 하는 옷을 아주 교활하게 착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도 말 입니다, 핍 씨, 지금 제 말뜻 아시겠지요? 넷? 특히나 그녀의 두(2) 소매 자락들은 너무도 솜씨 좋고 정교하게 수가 놓여 있어 그녀의 두 팔들이 아주 연약하게 그러니까 아주 가냘프게 두 손목이 보이게끔 해주었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 면요. 그녀는 몸에 타박상(멍)이 한 군데던가 아니면 두 군데 뿐이었답니다. 그거야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 온 여성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는 분명 찢겨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죠. 그 상처가 피해 여성의 손톱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죠? 자, 재판 과정이 이렇게 불리하게 흘러가자 재거스 씨(당시 27세 갓 개업한 변호사)는 그 어린 여성(당시 17세)이 그녀의 얼굴까지는 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녀가 두 손을 할퀴어지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었던 무수한 ‘검은 딸기’(가지와 잎 뒷면에 무수한 가시들이 있음. 검은 딸 기 사진 링크 - ‘계명’ 님의 네이버블로그 링크 ▶ <http://blog.naver.com/shahn315/50022678518> 검색일자: 2015-01-08) 덤불들을 지나가기 위해 몸부림친 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고만 것이죠. 게다가 그녀의 피부에선 실제로 검은 딸기 가지의 가시 몇 조각이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죠. 그 가시 조각들은 즉각 증거로써 법정에 제 시되었습니다. 또한 재거스 씨는 그 문제의 검은 딸기 덤불을 검사해보니 누군가 힘으로 검은 딸기 덤불을 뚫고 지나가려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과 실제 그 어린 여성의 드레스 몇 조각이 걸려 있더라는 것과 작은 핏방울 몇 개가 덤불 여기저기에 묻어 있더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 증거로써 법정에 제출했었죠. 하지만 그가 법정에서 한 가장 대담한 주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즉 살인이 일어날 무렵에 그 어린(당시 17세) 여성(이름이 ‘몰리’=에스 텔라의 친어머니)이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세(3) 살가량 됨직한 그녀 자신의 아이를 광분해선 죽였었다는 강력한 혐의가 있음이 사건 당시 그녀가 질투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써 검찰 측에 의해 제기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재거스 씨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 손등에 있는 이 상처들이 살해당한 여성의 손톱에 의해 생긴 자국이 아니라 검은 딸기 덤불 자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심원 여러분들과 검찰 측에 그 검은 딸기 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그것이 살해당한 여성의 손톱에 의해 생긴 자국이며 그 어린 여성이 그녀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는 가설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측은 자신들이 세운 그 가설들의 모든 결과들을 인증 해야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녀가 실제 자신의 아이(당시 3살의 에스텔라)의 목숨을 빼앗았을 수도 있다는 것과 그녀의 품에서 바동대던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손등을 할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법정에서 검찰 측은 그녀를 그 아이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참에 공소의 제기를 하시지 그러십니까? 그럼 이 사건에서도 할퀴어진 상처만 찾아낸다면, 지금까지의 검찰 측 논리로 보건대,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죄다 확인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검찰 측이 증거(할퀴어진 상처)를 날조하지 않았다는 논거에 배심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한다는 가정을 하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웨믹이 주인공을 쳐다보면서) 요약해볼까요, 핍 씨(핍은 주인공의 이름).”라며 웨믹이 말했다.

“재거스 씨는 당시 27세의 갓 개업한 변호사였지만 좌중을 휘어잡았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배심원들보다 훨씬 더 한 수 위였던 거죠. 결국 배심원들은 재판 내내 힘에 겨워하다 재거스 씨에게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참고로, 노래 셋 링크 겁니다. 유튜브 링크입니다.)

48장과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약간의 줄거리와 느낌이 비슷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요즘 광고로도 뜬 노래인데 한 번 들 어보시죠.

현철 - 〈앉으나서나 당신생각〉(1987)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7O8ZwjLF6-k](http://www.youtube.com/watch?v=7O8ZwjLF6-k) (검색일자 : 2015-01-08)

(정말 디킨스의 소설 내용 중 48장과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디킨스의 『 위대한 유산 』 이란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와 100% 일치하는 노래는 〈 비워낼 수 없는 슬픔 〉 (노래제목)이죠. 이것도 유튜브에서 찾았습 니다. 링크 걺니다. 노래 좋음. 저만 좋을 수도 있고~ 예전에 TV에도 나왔었던 노래. 『 위대한 유산 』 이야기의 한 축은 주인공이 시종일관 우울한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의 첫사랑이야기이기 때문에 〈 비워낼 수 없는 슬픔 〉 (노래제목)이 소설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오랜만에 들으 니 좋네요~ 슬픈 곡이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굿 초이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pD36uWhskac](http://www.youtube.com/watch?v=pD36uWhskac)

(검색일자 : 2015-01-08)

그럼 또 한 곡은 아래의 노래.

John Parr 〈 St. Elmo's Fire (Man In Motion)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EOvMpND2OZY](http://www.youtube.com/watch?v=EOvMpND2OZY) (검색일자 : 2015-01-08)

이 곡도 디킨스가 묘사하는 주인공의 이미지(특히 소설 후반부의 이 미지)와 많이 닮았습니다. 좀 소리 지르는 노래라 어르신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나름 좋음. (물론 이 노래의 가사내용과 디킨스의 소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 그냥 가수의 허스 키한 목소리 느낌이 디킨스의 소설 분위기와 살짝 비슷함)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그럼 이후로 줄곧 그녀(이름이 ‘몰리’=당시 17세=에스텔라의 친어 머니)는 재거스 씨(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의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건가요?”

“예, 하지만 그녀가 근무한 것은 그건 만이 아니랍니다.”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말했다. “그녀는 석방 직후 곧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금처럼 유순해진 상태였죠. 이후 그녀는 가사도우미의 직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나 둘씩 배워왔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그녀는 유순해진 상태였었죠.”

“그때 그 죽었다는 아이가 남자애였습니까? 아니면 여자애였습니까?”

“소녀였었다고들 말하듭디다.”

“오늘 밤 제게 더 해주실 말씀은 없으신가요(주인공이 인도로 밀항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느냐는 의미)?”

“아뇨.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았고 그걸 읽은 즉시 태워버렸습니다. 그것뿐이랍니다.”

우리는 정중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머릿속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담은 채 집으로 귀가했다. 비록 그 전 고민거리(과연 언제 밀항을 시도 하느냐하는 고민)도 만만치 않았지만 말이다(←의역. 직역→비록 그 전 고민거리들 중에서 경감된 것은 전혀 없었지만.)”

**위대한 유산**

**49장**

다음 날 나는, 미스 해비샴이 내게 메모를 보내자마자 내가 이렇게나 빨리 그녀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 그녀가 살짝 놀라움을 표현하는 변덕을 부릴 경우에 대비해 분명 그녀가 오라고 메모를 보냈음을 입증할 미스 해비샴이 쓴 메모지를 내 호주머니 속에 구겨 넣으며, 나는 메모지를 받은 다음 날 역마차 편으로 시골로 다시 내려갔다.

나는 여관(여관 이름이 ‘외설적인 수퇘지.’ ‘외설적인 수퇘지’ 여관은 주인공 시골의 여인숙이름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임)에서 내려 거기서 아침식사를 했다.

여관에서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집. 새티스 하우스는 읍내 외곽에 있습니다. 여관에서 읍내로 간 다음 다시 읍내에서 새티스 하우스로 가야 함)까지는 걸어갔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 길을 통해 읍내로 들어갔다가 또 같은 길을 통해 읍내에서 빠져나와 제발이지 이놈의 시골에서 조용히 좀 뜨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햇살이 지나갔을(사라졌을) 때쯤 나는 번화가(거리) 뒤편에 있는 조용하고 집 전체에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저택들을 지나갈 수 있었다.

한때는 나이 많은 수도자들이 자신들의 안식과 오후를 즐겼을 그 으슥하고 외진 집터는 무덤 속에 누워있을 나이 많은 수도자들만큼이나 말이 없었다.

예전엔 견고했을, 그 곳의 벽들은 이제 변변찮은 헛간들과 마구간들을 구획하는 벽들로 이용되고 있었다. (-\_- 오역이 너무 많군요. 해석 하면서도 양심이 찔리긴 또 처음이네 -\_-;; 하긴 영어사전 없이 해석 해보는 게 소원일 정도니 말 다했지-\_- 룰루랄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던 내게 대성당의 종소리는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내겐 더 구슬프고 훨씬 더 아득하게만(멀게만) 들렸다.

그래서 대성당에서 울려 퍼진 오래된 오르간의 선율은 내 귀에서 마치 장례음악처럼 들렸으며, 그리고 회색 빛 탑 주변을 배회하며 작은 수도원의 정원들에 있는 앙상하고 높은 나뭇가지들에 앉아 전후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떼까마귀(몸집이 큼. 보면 약간 놀람. 하기야 왜가리를 처음보고 ‘공룡의 후손이 조류’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나지만. 그렇게 큰 줄 상상도 못했었음)들은 내게 마치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긴 새티스 하우스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만나려는 에스텔라(23세. 주인공의 라이벌과 이미 결혼했음. 에스텔라는 3살에 미스 해비샴에게 입양되었음)도 이젠 이곳에서 영원히 가버리고 없어.”

40세 전후의 여성이 정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내가 전에도 보았던 여성이었다.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저택이름이 ‘새티스 하우스’임. 이름 자체에는 별 뜻 없음) 뒤뜰 별채에서 기거하는 가사도우미들 중 한 명이었다.

우리가 지나가는 어두운 통로에는 예전처럼 촛불 하나가 밝혀져 있었다. 나는 그 촛불을 들고서 혼자서 계단을 올라갔다.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은 자기 방에 없었다. 계단의 ‘층계참’(위층으로 가는 계단과 아래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건너편에 있는 더 큰 방에 그녀는 있었다.

문가에 서서 방안을 들여다보며 나는 공허한 가운데 노크를 했다. 그녀는 다 해진 의자에 앉아 벽난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의자는 벽난로 바로 앞에 있었다.

벽난로의 불기운은 세지 않으면서도 끊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 뭉근한(약한) 불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있었다. (때는 초겨울에서 본격적인 겨울로 막 들어서려는 때임)

내가 종종 그렇게 했듯이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난로 위 선반’에 손을 갖다 대고 서 있었다. 그 곳이면 그녀가 명상에서 돌아왔을 때 쉽게 나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녀가 시선을 든다면 말이다.

그녀에게서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내가 전에 그녀를 추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그녀가 고의로 내게 입혔을 지라도 나는 지금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를 동정하며 서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만신창이가 된 이 집의 운명의 한 부분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게서 멈췄다. 서서히 그녀가 나를 인지했다. 곧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정말 핍(23세, 주인공의 이름)이냐?”

“네, 마님. 정말 저예요. 재거스 씨(50세, 재거스 씨는 프로비스에게 수임을 받고 주인공을 찾아간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스 해비샴의 재산 관리 법률대리인이기도 함)가 제게 마님의 메모지를 보여주었어요. 어제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장 달려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핍. 고맙다.”

방 한 쪽에 다 해진(헤어지고 뜯어진) 의자들이 몇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벽난로 바닥께로 가져와 앉았다.

나를 주목했다. 미스 해비샴의 얼굴에서 새로운 표정이 드러나는 것을. 그건 마치 그녀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만 같았다.

“네가 지난번(미스 해비샴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인공이 에스텔라에게 차일 때)에 말한,” 그녀가 말했다. “그 주제(주인공의 친구 사업에 돈을 몰래 투자해주는 것)에 관해 좀 더 얘기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무나 돌과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님을 네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리 된 마당에 내 심장에도 인간적인 면이 있음을 넌 이제 믿지 않으려들 테지.”

그녀를 안심시키는 말들을 내가 몇 마디 해주었다. 그때 그녀가 와들와들 떨리는 오른 손을 내밀었다.(어릴 적에 주인공이 처음 미스 해 비샴의 저택에 와서 미스 해비샴의 의자를 밀어주었듯이 그렇게 의자를 밀어달라는 의미) 마치 그 손으로 내게 닿으려는 마냥.

하지만 내가 그 손짓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쳐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 오른 손을 도로 거둬들였다.

“네 친구(주인공 친구의 이름은 ‘허버트.’ 허버트는 미스 해비샴의 ‘친척오빠의 아들’입니다.)를 위해 어떻게 돕는 길이 유용하며 효율적인 방식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다고 넌 말했었다. 내가 이루었으면 하 는 것이 그것 아니니?”

“돕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나는 미스 해비샴에게 내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허버트의 사업 파 트너’와의 비밀 거래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다.(파트너가 허버트를 공동 대표로 뽑아주면, 주인공이 일단 계약금조로 1억 2천 5백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사업자금은 유산을 받는 대로 매년 일정액씩 주기로 했는데, 유산 상속 계획이 뒤틀리면서 그 대신 미스 해비샴 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임)

오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을 보고서 그녀가 내 얘기보다는 나에 대한 산만한 흥분상태에 잠겨 있다고 나는 판단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멈추자, 내가 말을 멈추었음을 그녀가 알아채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 말을 끊는 게냐(멈추는 거냐)?” 그때, 좀 전과 같이 나를 두려워 하는 하는 표정을 드러내며 미스 해비샴이 내게 물었다. “이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다는 게냐?”

“아뇨,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마님.” 내가 대답했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스 해비샴 마님! 전 다만 마님께서 제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말을 멈춘 것뿐이에요.”

“아마도 내가 그런 모양이다.”라며 그녀가 한 손을 머리에 대며 말했다. “계속 말해 보거라. 딴 곳을 쳐다보고 있으마. 아니 넌 가만있어 라(그 자리에 있어라)! 자 계속 얘기해다오.”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이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목발 지팡이 위에 손을 얹었다. 그건 이제부터 내 말을 경청해 듣겠다는 강한 표시였다. 그녀가 벽난로의 불을 쳐다봤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을 시작했다.

“제 선(돈)에서 그 거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일이 틀어져 저도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그녀에게 이렇게 일려두었다.

“일이 틀어진 이유에 대해선 지금 설명드릴 순 없습니다. 또 한 사 람(‘에스텔라’를 말함. 에스텔라의 미스 해비샴의 양녀. 얼마 전 에스텔 라는 ‘벤틀리 드러믈’과 결혼했음. 벤틀리 드러믈은 주인공의 라이벌이었음)의 중대한 비밀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이 고개로는 동의를 나타내며 그러면서도 내 쪽은 보려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얼마가 부족한 거냐?”

나(23세, 주인공=실속 없는 런던신사=파산직전)는 말하기를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내게 생각해도 너무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말했다.

“4억 5천만 원이요.” (19세기 말 영국 돈 900파운드는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대략 3억 6천만 원 쯤 합니다. 하지만 이왕 계산하는 거 통 크게 잡아서 4억 5천 만 원으로 적었음 :) 뭐 제 돈도 아닌데요. 뭘ㅋㅋ 이럴 땐 통이 큼 :)ㅎㅎㅎ)

“만약 내가 그 돈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라고 준다면, 네 자신을 비밀을 지켰듯이 내 비밀도 지켜주겠느냐?”

“네 성심성의껏 꼭 지킬게요.”

“이제 네 마음이 한층 편안해질 것 같으냐?” “훨씬요. 아주 훨씬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아주 불행하니?”

미스 해비샴은 마지막 질문(“그럼 지금은 아주 불행하니?”)을 하며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으려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이례적으로 나를 동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즉각 대답을 할 순 없었다. 목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목발지팡이 꼭대기에 왼팔을 얹었다. 그러더니 천천

히 자신의 이마를 왼팔 위에 놓았다.

(주인공이 하는 대사임→) “전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스 해비샴 마님. 하지만 마님께서 헤아리시는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말 못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님께도 얘기해드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잠시 후 미스 해비샴이 고개를 들어 또 다시 벽난로의 불을 쳐다보았다.

“훌륭한 신사가 다 되었구나, 핍. 불행의 원인들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 그게 사실이냐?”

“너무도 사실이에요, 마님.”

“내가 네 친구를 통해서만 너를 도울 수 있는 거냐? 핍. 그것이 실행되었다고 치면, 내가 너만을 위해 따로 더 해줄 건 없겠니?”

“전혀요. 그렇게 물어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걸요. 특히 그걸 물 어봐주실 때 담아주신 마님의 따뜻한 말투에 전 훨씬 더 감사함을 느끼는 걸요. 전 다만 그것이면 족합니다.”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이 곧 의자에서 일어났다. 뭔가 를 적기 위해 좀 더 밝은 곳을 찾았다.

하지만 밝은 곳이라고 할 만한 곳이 그 방엔 없었다.

그녀가 호주머니에서 변색된(흐릿해진) 금으로 장식된, 노란 상아빛깔의 ‘편지지 첩’(한 장씩 떼어내 쓰는 편지지 첩)을 꺼내 그 위에다, 자신의 목에 매달려 있던 변색된(흐릿해진) 금제품 케이스(상자) 안에 있던 ‘석필(그림 그리는 연필)로’ 뭐라고 적었다.

“넌(23세, 주인공. 어리버리 런던신사=지금 파산직전) 여전히 재거스 씨(50세, 싸가지 변호사. 미스 해비샴의 재산관리 대리인)와 친한 사이겠지?” (미스 해비샴은 재거스 씨를 약간 두려워하고 있음. 재거스 변호사가 워낙에 똑똑한 막말을 해대는 스타일이라)

“예. 아주요. 어젠 그의 집에서 저녁도 먹었는걸요.”

“자, 이건 그보고 너에게 거기 적힌 금액을 지급해도 좋다는 신용장 (신용장에 적힌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좋다는 지급 위탁서)이다. 그 금액에 한해 네 자유 재량껏 네 친구(이름이 ‘허버트’)를 도울 수 있을 게다. 지금 이 집엔 그 정도의 금액이 없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재거스 씨(변호사)가 전혀 모르길 네가 만약 바란다면, 내가 후에 따로 너에게 그 돈을 부쳐주마(보내주마).”

“고마워요, 미스 해비샴 마님. 저도 재거스 씨를 통해 그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어요.”

미스 해비샴(56세, 어마어마한 부자)은 자신이 쓴 신용장 내용을 내게 읽어주었다. 신용장 내용은 정확하고 분명했다. 듣기에도 그녀가 나를 배려한 것 같았다. 내가 그 돈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거란 의심을 일절 들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것 같았다.

그녀가 들고 있던 노란 상아빛깔의 ‘편지지 첩’(한 장 씩 데어내 쓰는 편지지 첩을 통째로 주었다는 얘기임)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녀의 손이 또다시 와들와들 떨렸다. 그리고 ‘석필’(방금 편지지 첩에다가 신용장을 쓴 연필)이 달려 있던 그 목걸이를 벗어 내 손에 담아줄 때 그녀의 손은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모두를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했다.

“내 이름은 첫 번째 낱장에 적혀 있다. 네가 어느 때고 내 이름 아래에 ‘전 그녀를 용서했어요.’라고 적어줄 수 있겠니. 그게 비록 내 ‘실 연’(결혼식 당일 날 하객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결혼식을 거행할 시간이 되어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음. 미스 해비샴의 예비 신랑은 미스 해비샴에게 결혼을 빙자한 사기를 치고 돈만 받고 도망갔음.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를 말함)이 티끌이 된 아주 오랜 후가 될지라도 말이다. 어느 때고 좋다.”

“오! 미스 해비샴 마님.” 내가 말했다. “전 아무 때도 좋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써드릴 수 있어요. 뼈아픈 실수들은 저도 해온걸요(주인공은 유산상속을 약속받고 런던으로 상경하자마자 시골에 있는 매형과 누나를 잊었음). 지금까지 제 삶은 눈멀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을 힐난하기엔 제겐 용서와 관리가 너무도 부족한 걸요.”

내게서 시선을 돌린 이후 처음으로 그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놀랍게도 그녀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난 급기야 공포심까지 느꼈을 정도다.

그녀가 깍지 낀 두 손을 내게 들어올렸다. 그 모습은 그녀가 분명 자신의 엄마 곁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을 때의 그러한 태도였다. 물론 그녀의 가련한 마음씨가 아직 여리고 어리며 그 무엇으로도 가공되지 않았을 그때에.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는 그녀의 새하얀 머리카락과 헐벗어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큰 충격을 느 꼈다.

나는 “제발 좀 일어나시라”고 탄원했다. 그녀가 일어설 수 있게 내 두 팔로 부추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만 자신의 손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내 손을 아래로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곤 내 손 위로 고개를 숙이고는 울 뿐이었다.

나는 그 전까지 결코 그녀가 허물어지는(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바라건대 그 눈물이 그녀에게 안식이 되길 바란다.

나는 말없이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이제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퍽 쓰러졌다.

“오!” 그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가!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그 질문이, 당신이 제게 상처를 입히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면, 미스 해비샴 마님, 제가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요.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힌 건 그녀 앞에서도 어쩔 수 없었든 제 자신이에요. 전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녀를 사랑하고 말았을 거예요. 에스텔라는 결혼했나요?”

“그래.”

에스텔라가 결혼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질문은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외딴 저택에서 느껴지는 비워낼 수 없는 슬픔이 이미 내게 그 사실을 일려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니!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그녀가 두 손을 쥐어짰다. 그리고 자신의 새하얀 머리카락들을 구개고 으깼다. 그녀가 또 다시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이 미친 짓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가!”

그 말(“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에 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랐다. 또한 그녀를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을 지도 몰랐다.

단지 그녀가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애(3살)를 데려와 그 형틀(아이) 안에 자기 자신의 미친 분개(남자에 대한 원한)와 퇴짜 맞은 애정(결혼 당일 미스 해비샴의 예비 신랑은 돈을 들고튀었음. 그 예비 신랑은 당시 자신이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스 해비샴에게서 돈을 사 기치고 자기 아내 찾아 갔음. 그때가 미스 해비샴의 나이로 25세. 그 일이 있고 8년 후 33세의 미스 해비샴은 3살의 에스텔라를 입양함) 그 리고 자신의 상처 받은 자존심을 다른 남자들에게 되갚아주도록 그 여 자애를 길러냈다는 이 통탄할(쓰라리도록 슬퍼할) 일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햇빛을 차단해버렸을 때(미스 해비샴은 결혼식이 파토 난 이후 저택의 모든 창문을 벽돌로 막고 쇠막대기로 엑스 자를 친 후 건물 내부에서 두꺼운 커튼을 쳐버렸음) 그녀가 또한 형용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것들도 차단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녀가 은둔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가 자연스럽고 치유의 효능이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은둔시켜버렸다는 사실을.

조물주(신)께서 정해놓은 모든 질서를 역행했을 때 모든 정신이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며 또한 그렇게 되어가듯이 그녀의 마음도 자기 자신의 은둔과 함께 고독이 피를 흘리며 점점 병들어 오고 말았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연민(동정심) 없이는 차마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가 폐허가 되었음이 보이는데, 그녀가 놓여 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밑바닥에서부터 그녀가 어울리지 않음이 보이는데,

후회의 헛됨, 연민의 헛됨, 무가치의 헛됨, 이 세상에 저주가 되어온 여타 극악무도한 헛됨들 마냥 자기 자신의 강박과 충동의 주인이 되어온 비애(슬픔)의 헛됨이 보여 나는 차마 연민(동정심) 없이는 그녀를 쳐다볼 수 없었다.

“네(23세, 주인공)가 일전에(최근에) 에스텔라에게 고백했을 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너라는 반사거울 안에서 한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성에게 배신당해 버 림받음)이 다시 비추어졌을 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왔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니!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그리곤 그녀는 또 다시 자신의 두 손을 쥐어짰다. 그리고 자신의 새하얀 머리카락들을 구개고 으깬 후 또 다시 “내가 무슨 짓을 했어!”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내가 무슨 짓을 했니!”라는 말을 20번, 아니 50번은 더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미스 해비샴 마님(56세, 어마어마한 부자).” 그녀의 고함소리가 다소간 잦아들었을 때 내가 말했다. “마님의 의식(=양심)과 마음속에서 저를 놓아주셔도 이젠 됩니다. 하지만 에스텔라의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마님께서 이제라도 그녀에게서 일부 옳은 본성(사랑을 빌미로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을 떨어뜨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한 잘못들 중에서 조금의 조각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를 되 씹으며 평생 눈물짓는 것보다는 잘 한 행동이 될 겁니다.”

“그래, 그래. 나도 안단다(알다), 핍…(뜸을 들인 후)… 얘야!”(미스 해비샴이 주인공보고 “얘야!”라는 말을 처음 했음)

그녀의 그 새로운 호의(“얘야!”라는 말)에는 나를 위한 가장 진지하고 여성스러운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얘야! 내 말을 믿어다오. 그 애(에스텔라, 입양 시 3세 현재는 23세)가 이 집에 처음 온 날, 나는 내 자신이 겪었던 비참함을 그녀는 모르게 하고자 했다(비참함에서 그 애를 구하고자 했다). 나는 정말, 정말 그 이상 더 바라지 않았단다.”

“알죠, 알고말고요!”라며 내가 말했다. “저도 마님께서 그랬길 바라는 걸요.”

“하지만 그 애가 자라 너무도 아름다워질 기미를 보이자, 나도 점차 불행해지기 시작했단다. 그러다 결국 그 애를 숭배해주는 말을 하면서, 때론 그 애를 보석으로 치장해주면서, 때론 일깨어주면서, 때론 그 애 앞에 매번 이런 몰골을 함으로써…, 내 훈계(가르침)를 그 애가 되새기며 잊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경고로 삼았지. 나는 그런 식으로 그 애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교묘히 그 애의 애정을 차지해갔단다.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자리(심장)를 냉담함으로 메꾸었지.”

“더 좋을 거예요.”라며 나(23세, 주인공)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말했다). “에스텔라(23세)를 타고난 본성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심지어 그것(본성)이 그녀를 더 상처 입히고 부서트릴 지라도요.”

내 말과 동시에 그녀가 잠시 동안 주의가 산만해진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그녀가 또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가, 아!”라며. 그녀가 내게 하소연했다.

“만약 네가 내 이야기(돈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끝내 결혼식 당일 날 하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비신랑에게 버림받은 것)를 모두 알게 된다면, 넌 내게 조금이나마 연민(동정심)을 느끼고 나를 이 해해주려할 텐데.”

“미스 해비샴 마님,” 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마님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까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고 장(지역)을 일찍이 처음 떠났던 이래로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큰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제가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로 인해 받으셨던 영향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스 해비샴 마님, 오늘 마님과 나눈 대 화를 핑계 삼아 에스텔라(23세)와 관련된 질문 하나를 여쭈어 봐도 될 까요? 지금(23세의 에스텔라) 얘기가 아니라, 그녀가 처음 이 저택으로 오게 되었을 당시(3세의 에스텔라) 그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팔을 다 뜯어진 의자에 걸치고 머리로는 두 팔 위를 압박하면서 미스 해비샴(56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그 질문(“에스텔라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일을 물어보고 싶습니다.”)을 한 후, 미스 해비샴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 그녀가 이내 대답했다. “계속해 보거라.(질문을 해 보거라)”

“에스텔라(당시 3세)는 누구의 아이였죠?” 그녀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주인공의 대사→) “마님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또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재거스 씨(당시 27세의 갓 개업한 변호사)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그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애를) 여기로 데려 왔었지.”

“그럼 자초지종(사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말해 줄 수도 있으 시겠군요?”

그녀(미스 해비샴, 56세)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이 방들 속에서 오랫동안 유폐된(갇힌) 삶을 살아왔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른다. 저택 안 모든 시계들의 시침은 9시 20분에서 멈춰있다. 언젠가 내가 재거스 씨(당시 27세의 변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스 해비샴의 재산관리 대리인이기도 함)에게 말했었지. 어린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줄 아이 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비운(운명)에서 구해줄 아이 말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고? 난 그 일(결혼식 파토)이 있고 이곳을 황무지(원문대로라면 ‘초토화’라는 의미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 해비샴이 초토화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와 닿지가 않아서 황무지로 바꿈~ 풀밭으로 바꾸려다가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그냥 황무지로 채택. 어쨌든 얼렁뚱땅 갖다 붙이는 데는 최고임 ‘:)’ 최고~)로 만들 생각으로 그를 불렀단다. 내가 세상과 단절되기 전에 신문지상에서 그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내게 말하더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그런 목적에 알맞은 고아 아이를 찾아보겠다.’고. 어느 날 밤에 그가 잠들어 있는 그 애를 데려왔더구나. 난 그 애를 ‘에스텔라’라고 이름 지어주었지.” (‘에스텔라’라는 이름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들 중에서 가장 예 쁜 이름인. 무슨 보석 이름 같음. 에스텔라~ 찾아보면 에스텔라라는 보석이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ㅎㅎ 어쨌든 마음에 드는 이름임. 에스텔라. 아름다운 이름이기도 하고. 진짜 사람이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님~ 읽는 이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게 하는 놀랍 도록 아름답고 설레는 이름임 :) 에스텔라 최고~!!!)

“당시 에스텔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물어도 되나요?”

“두 살 혹은(또는) 세 살 정도였단다. 그 애는 지금도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단지 자신이 고아가 되었다가 내 수양딸(양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정도만 알게다.”

그 여자(이름이 ‘몰리’임. 몰리는 17세 때 에스텔라를 낳았음. 현재 몰리의 나이는 40세 임. 그녀는 현재 재거스 변호사 집의 가사도우미로 있음. 재거스 변호사는 20살의 몰리가 살인사건을 일으켰을 때 변 호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런던 최고의 유명 변호사로 우뚝 선 사람임. 또한 당시 재거스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미스 해비샴의 재산 관리 대리인이기도 했었음. 또한 재거스 씨는 나중에 주인공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법률 후견인 역을 맡기도 했음. 그게 다 틀어져 지금은 주인공이 인도로 밀항하기 위해 노력 중임. 요즘 TV에서 자주 보이는 드라마 패턴이죠. 뭐 워낙 19세기 영국소설이 인기를 구가하다 보니 그때 이미 드라마의 기본 틀은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어쨌든 재밌음 됐지~ 꿀잼~ 154년 전 소설이 무슨 드라마 같 음~ 웬일~:( ㅎㅎ), (일단 줄 바꿈~)

그 여자(이름이 ‘몰리’임)가 에스텔라의 친어머니라는 확신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그걸 입증하고 자시고 할 증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어느 누구의 마음(독자)에서나 내가 말한 이 연결고리는 분명하고 연 속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한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시종일관 우 울한 시선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식임. 상처만 남긴 첫사랑 얘기와 막 대한 유산 상속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이 보여준 위 선들이 주된 이야기임)

(◈ 지나가는 말 :

49장 #26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트리플(가수이름)의 〈 썰렁한 왕자 와 해적 〉 (상당히 예전 노래^^ㅎㅎ)와 비슷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노래와 소설 속 주인공의 심리변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물론 소설 속 주인공은 첫사랑에 실패했다는 거고, 노래 속 가사는 성공했다는 얘기지만 그 과정이 소설과 노래가 주는 느낌이 약간 비슷 함~

트리플(가수이름)의 〈썰렁한 왕자와 해적〉

유튜브 링크 (다만 음질이 매우 안 좋음. 잘 안 들림 그래도 맛보기 로 들어보면 좋음) :

https://[www.youtube.com/watch?v=BR1-WAFGzbY](http://www.youtube.com/watch?v=BR1-WAFGzbY) (검색일자 : 2015-01-16)

해석을 노래 분위기와 맞추면 해석이 나름 괜찮음~)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그녀(56세, 미스 해비샴)와의 대화를 더 끈다고 해서 내(23세, 주인 공)가 무얼 더 얻을 게 있겠는가?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를 도우려던 일도 성공했고, 에스텔라 (♥)에 대해 미스 해비샴이 알고 있는 모든 얘기도 들은 상태였고, 또한 그녀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한 상태였다.

우리가 헤어질 때 더 이상 어떤 다른 말도 필요치 않았다. 우린 그 렇게 헤어졌다.

저택 내부 계단을 다 내려와 바깥 공기를 맞았을 때는 땅거미가 이 미 지고 있는 중이었다.

내게 저택의 정문을 열어주었던 그 가사도우미(40세 전후)에게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직 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곳을 좀 둘러보며 걷 고 싶거든요.”라고.

왜냐하면 왠지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꺼져가는 햇빛이 내가 이 장소를 마지막으로 보아두기에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불규칙적으로 죽 늘어서 있는 맥주 통들을 지나갔다. 내가 오래 전에 그 위에서 걸은 적이 있는 맥주 통들이었다.

그 자리에 놓인 이래로 맥주 통들 위에는 20년 동안 빗방울이 떨어져 맥주 통 곳곳이 썩었거나, 세워져 있던 맥주 통들 위에는 작은 늪과 물웅덩이가 남겨져 있었다.

맥주 통들을 지나자 폐허가 된 정원이 나왔다.

나는 그 넓은 지역을 한 바퀴 돌았다. 내가 12살 때 허버트(주인공 의 절친)와 죽자 살자 권투를 했었던 구석 모퉁이를 돌아, 에스텔라(♥)가 허버트와의 싸움에서 이긴 내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던 통로들을 돌며 한 바퀴 돌았다.

너무 춥고 너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이었으며 모든 장소들이 너무도 처량했다!

돌아오는 길에 맥주공장(미스 해비샴의 저택 안에는 맥주공장이 있음. 28년 전에 미스 해비샴이 폐쇄해버린 맥주공장임. 미스 해비샴의 아버지는 영국신사였는데 그는 맥주공장도 경영했었음)에 이른(도착한) 나는 맥주공장의 ‘정원 쪽 끝에 있는’ 작은 문에 달린 녹슨 빗장(걸쇠)을 들어 올리고 공장 안을 걸어서 통과했다.

반대쪽 문에 이르러 빗장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 이게 영 잘 열리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습기 찬 나무 빗장이 부풀어 올라 커졌기 때문이 다. 게다가 문짝의 경첩(철)들이 모두 구부려져 휘어 있었고, 문지방 (입구)은 균류(버섯)들이 성장해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때 나는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았다.

이 대수롭지 않은 동작을 하는 순간 어린애 같은 연상이 경이로운 힘을 발휘하며 되살아났다. 내가 방금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놓인 지지대)에 목이 매달려 있는 미스 해비샴의 모습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인상은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착각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져서는 그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으로 놓인 지지대) 아래서 서 있었다.

비록 그것이 분명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일 지라도 말이다.

그 장소(폐허가 된 맥주공장의 실내구조)와 그 시간(땅거미가 지고 있고 빚이 꺼져가는 초저녁의 시간)의 애절함과 이 환각의 끔찍스런 공포(미스 해비샴이 목매달고 있는 환각)가, 비록 그 시간이 극도로 짧 았을 지라도, 나로 하여금 형언할(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었다.

나는 열려 있던 목재 문틈들 사이로 나왔다. 그 문들은 한때 에스텔라(♥)가 내 심장을 쥐어짠 직후(12살 때 에스텔라♥는 주인공보고 “이 천한 막노동꾼 소년아!”라고 비웃었음) 내가 분에 박쳐 머리를 짓눌려 대던 그 문짝들이었다.

앞뜰로 나온 ‘나는’ 아까 그 가사도우미를 불러 내가 나갈 수 있게 정문의 잠금장치를 풀어 달라고 할지 아니면 이대로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미스 헤비샴이 나와 헤어질 때처럼 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확인해봐야 할지를 놓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안전을 확인해보기로 하고 일단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녀를 떠나왔던 그 방 안을 나는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다해진(다 뜯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벽난로 가까이에 숯을 피우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그 화로 바로 곁에 그녀가 앉은 의자가 있었다. 그녀의 등은 내 쪽을 향해 있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내가 막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큰 불길이 확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 쪽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았다. 그 불길은 그녀의 옷 곳곳으로 옮겨 붙어 소용돌이치듯 그녀를 휘감고 있었다. 그 불길은 그녀의 머리 위로 적어도 그녀의 키 만큼이나 높이 치솟고 있었다.

나는 이중 망토(입지 않고 어깨 위로 걸치는 외투)로 덮인 길고 무거운 헤비코트(천이 두터운 큰 외투)를 입고 있었고 내 손에 또 다른 두터운 외투를 걸쳐 들고 있었다.

나는 헤비코트(큰 외투)를 벗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넘어뜨리고, 벗은 헤비코트(큰 외투)로 그녀의 몸을 덮었다. 동일한 목적으로 결혼식 테이블 위에 있던 큰 천을 세게 잡아당겼다. 그와 동시에 이제껏 결혼식 테이블 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둥지를 틀고 있었던 온갖 추한 것들과 결혼식 테이블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부패 더미들이 같이 끌어져 내려왔다.

미스 해비샴과 나는 불천지 원수를 만난 마냥 바닥 위에 뒤엉켜 싸웠고 내가 내 헤비코트(큰 외투)로 그녀의 불 붙은 몸을 가까스로 다 덮으려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사납게 비명을 질러대며 내 헤이코 트(큰 외투) 안에서 벗어나려고 기를 썼다.

이 일을 나는 결과를 통해서 알았지 불 끌 당시에는 내가 한 행동을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난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가 커다란 결혼식 테이블 옆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했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녀의 빛바랜 신부용 드레스였던 천 조각들이 연기 자욱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며 부싯깃마냥 여전히 타들어가고 있음을 내가 인지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뒤를 돌아보다 어지러이 소란 떨고 있는 딱정벌레들과 바닥 위를 듬성듬성 건너뛰고 있는 거미들과 그리고 문간에서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는 남녀 가사도우미들을 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사력을 다해 미스 해비샴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도망가려는 죄수를 붙들 듯이 말이다.

나는 순간 그녀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지조차 의심이 들었고 우리가 왜 그토록 뒤엉켜 싸웠는지조차 의심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불길에 휩싸였었는지 또는 그 불길이 크게 번졌는지조차 의심이 들었다.

적어도 내 의심은 한때 그녀의 옷이었던 천 조각들이 더 이상 공중에 뜬 채 불타지 않고 우리 주위 바닥 위로 검은 소나기가 되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스 해비샴은 의식이 없었고, 그래서 난 가사도우미들이 그녀를 움 직이려거나 또는 심지어 그녀를 건드리려는 시도조차 겁내했다.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낸 나는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도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마치 내가 그녀를 놓아주기라도 하면 화염이 다시 한 번 터져올라 그녀를 휘감고 말리라는 비이성적인 상상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마냥 나는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외과 의사가 다른 도우미와 함께 그녀를 돌봐주기 위해 도착하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그제야 내 두 손이 화상을 입은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감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가 검사해보니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의사 말로는 가망이 없고 뭐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 했다(괜찮다는 말).

위험한 요소는 대개 정신적 충격과 관련 되어 있었다.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그녀의 침상(누워 잘 수 있는 평상)을 그 방 안으로 옮긴 후 그 침상을 커다란 결혼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공교롭게도 그 커다란 결혼식 테이블은 그녀의 상처들을 붕 대로 감기게 아주 적합한 테이블이었다.

내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때가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거의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정말로, 내가 이 저택에 처음 왔을 때 그녀 자신이 자신의 목발지팡이(목발=지팡이) 로 그 결혼식테이블을 내리치며 자신이 언젠가 여기에 누워 있을 거라고 말하던 그 결혼식 테이블 위에 그녀는 정말로 누워 있었다.

비록 그녀가 입고 있던 신부용 드레스의 천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말았지만, 사람들이 내게 말했듯이, 그녀는 여전히 예전 그 소름끼치는 신부의 형상 같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독한 솜(탈지면)으로 그녀를 목까지 감은 상태였고, 그리고 새하얀 시트(침대시트)를 그 위에 느슨하게 덮은 상태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파토난 날 유령같이 변했었다가 소독한 솜과 시트로 감싸인 지금 또 변한 결과 유령 같은 어떤 분위기가 그녀 위에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질문을 하자마자 나는 에스텔라(♥)가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외과의사에게 다음 우편 편으로 에세텔라(♥)에게 이번 사건 소식을 전해 달라는 약속을 받아두었다.

미스 해비샴의 친척들에게 이번 사건 소식을 알리는 것은 내가 맡기로 했다. 나는 일단 매튜 포킷(53세, 매튜 포킷은 미스 해비샴의 사촌 오빠임. 25세의 미스 해비샴이 사기꾼 남성에게 빠져 허겁지겁 결혼하 려하자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하다 미스 해비샴과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후 다시는 서로 안 만나고 있는 사이. 매튜 포킷은 허버트의 아버지이기도 함. 허버트는 주인공의 절친임) 씨에게만 이번 사건 소식을 알리고 나머지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에게 맡길 생 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런던으로 되돌아오자마자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를 통해 매튜 포킷 씨(53세, 허버트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날 저녁(미스 해비샴의 옷에 화롯불의 불길이 번진 사건 당일 저녁)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건지에 대해 그녀가 차분하게 읊조리는 시기가 한 차례 있었다. 비록 어떤 서투른 명량함을 그녀가 보이기 했지만 말이다.

밤 12시가 가까워지면서 그녀의 얘기는 다시 오리무중 헤매기 시작했다. 밤 12시 이후부터는 점점 낮고 침통한 음조(목소리)를 띄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셀 수도 없이 반복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든가!”

그리고 또, “그 애(에스텔라)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난 단지 내 자신이 겪어야했었던 불행에서 그 애를 구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그리곤 또, “(주인공을 보며) 연필을 가져다 편지지 첩에 있는 내 이름 아래에다가 ‘그녀(미스 해비샴 자기 자신)를 용서한다!’고 적거라.”

그녀는 이 세 가지 문장의 순서를 절대 뒤바꾸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하려던 문장에서 한 두 단어를 놓쳤다. 하지만 절대 그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지는 않았다. 매번 그렇게 자신이 하려던 단어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 단어를 이어갔다.

내가 거기(미스 해비샴의 저택)서 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의 종잡을 수 없는 횡설수설조차도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없는 가중하는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가 런던 집에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그날) 밤중에 내일 아침 이른 마차 편으로 상경하기로 마음 먹었다.

일단은 1.6킬로미터(km. 어른 걸음으로 걸어서 24분 거리) 쯤 걸어서 읍(마을)을 벗어난 후 오는 마차를 잡아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대략 6시 정도의 아침에 난 일단 테이블 위에 잠들어 있는 그녀 위로 상체를 구부려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었다. 하지만 내 입술이 닿는 그 순간까지도 그녀의 두 입술은 쉴세,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연필을 집거라, 그리고 내 이름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거라. ‘나(23 세, 주인공)는 그녀(53세, 미스 해비샴)를 용서한다.’고.”

**위대한 유산**

**50장**

나는 두 손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밤에 두 번 또는 세 번 소독한 솜으로 감싸야했으며 아침에 다시 한 번 감쌌다.

내 왼팔은 팔꿈치 부분까지 상당히 심하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좀 덜 심하긴 했지만 팔꿈치 부분부터 어깨 부위까지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화상부위는 아주 아팠다. 하지만 불길이 그 방향으로 확 타올랐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은 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 오른 손은 그렇게 심하게 화상을 입지 않아 손가락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물론 오른 손에도 붕대로 감싸야했지만 적어도 왼손이나 왼팔보단 훨씬 덜 불편했다.

삼각건(삼각형의 헝겊)으로 왼손과 왼팔의 무게를 견디게 하고서, 망 토(소매 없는 외투) 같은 내 헤비코트(외투)를 어깨 위로 느슨하게 풀고 대신 헤비코트를 목에 고정시키고서야 나는 간신히 내 헤비코트를 걸칠 수 있었다.

머리카락들도 불길에 감싸이긴 마찬가지였지만 다행이도 얼굴과 머리에 직접적인 화상을 입진 않았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해머스미스(런던서쪽 템스 강옆, 이 당시엔 ’런던 너머‘이고 현재는 ’런던 안‘임, 주인공이 신사교육을 받았던 집)’로 내려가 부모님(허버트의 아버지는 미스 해비샴의 친척오 빠임)을 만나 뵙고 우리 숙소(런던)에 있던 내게 다시 돌아와 나를 정성껏 종일 보살펴주었다.

녀석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간호사였다. 일정한 시간마다 붕대들을 풀고서 그 붕대들을 미리 준비해놓은 냉각액(차가운 물?)에 담가 두었다가 도로 꺼내 내가 깊은 고마움을 느꼈을 만큼이나 부지런한 친절함으로 붕대를 감아주었다.

소파 위에 가만히 누웠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만치 힘들었다.

화염의 눈부신 빛이며 사람들이 놀라 허겁지겁 소리 지르던 것이며 타는 냄새가 지독히 나던 것들에 대한 인상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래야 지울 수가 없었다.

요행이 내가 아주 잠깐 눈을 붙었을 때조차도 나는 어디선가 들리는 미스 해비샴의 비명소리들과 그녀의 머리 위로 그녀의 키만큼이나 치솟던 불길에 휘감겨 내 쪽으로 뛰어오던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나는 깨곤 했다.

이 심적인 고통은 내가 입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훨씬 더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걸 본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는 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옆에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다.

보트(인도까지 가는 배를 몰래 타기 위해 런던에서 가장 가까운 항 구도시까지 몰래 가기 위해 템스 강의 물길을 알기 위해 보트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함)에 대해서는 우리 둘 중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모두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기피(회피)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두 손을 사용할 정도로 회복하는 일이 수주일이 아니라 수 시간 내에 치료가능한 문제가 되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에 서로가 동의함으로써,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둘 다 보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내가 허버트를 만났을 때 내 첫 질문은 당연히 “강 아래쪽 일들은 모두 무탈해?”이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확신과 완벽한 쾌활함에 차서 “오케이고 말고!”(← 원문에 없는데 그냥 삽입해봤음 :)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라며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우린(주인공과 허 버트) 그 문제를 낮(햇빛)이 차츰 닳아 없어질 때까지 다시 꺼내지 않 았다.

하지만 벽난로에서 뿜어 나오는 빛의 세기가 바깥에 있는 빛의 세기보다 더 세 지자 허버트가 붕대를 교체하며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끄 집어냈다.

“어젯밤에 프로비스(57세, 죄수)를 만나고 왔어, 헨델(주인공의 애칭

=별명). 두 시간 정돈 머물렀던 것 같아.”

“그럼 클라라는 어디에 있고(20세 클라라=허버트의 약혼녀)?” (부연 설명 : 프로비스는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픈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집의 맨 위층에 이름을 바꾸고 머물고 있음)

“그 가엾은 것은!”라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는 말했다. “클 라라(20세, 허버트의 약혼녀)는 ‘험상궂은 퉁퉁 이’(=퉁명스럽고 험상 궂은 사람=허버트가 클라라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임) 씨 때문에 저녁 내내 1층과 2층을 오르내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자기 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쉴 새 없이 2층 방바닥을 찍어 땠으니까(막대기로 바닥을 치다). 하지만 그가 과연 오래 견딜 수 있을 지는 미지수야(일찍 죽을 것 같다). 종일 럼주(술)를 마시다 행패를 부려대거나 행패를 부려대다가 럼주를 마시시지. 내 생각엔 그의 추태도 멀지 않아 끝날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은 그래.”

“그때 결혼하려고 허버트?”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가엾은 꼬마 소녀(20세 아가씨)를 어떻게 보살펴줄 수 있겠니? 팔을 뻗어서 소파 등 위에 놓을래. 내겐 그녀보다 네가 더 꼬마 소년 같으니까. 잠깐만 여기 좀 앉고 보자. 일단 네 붕대 들부터 조금씩 벗겨내야 하니까. 조금씩 뗄 게 아프지 않게 말이야. 그래 이 얘길 하다 말았지. 난 어젯밤 프로비스(57세, 죄수)와 얘기를 나 누었어. 아니,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 그는 사람이 확 달라졌어. 좋은 쪽으로 말이야.”

“나도 네게 말했잖니, 그(57세, 프로비스)가 부드러워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미 느꼈는걸.”

“네가 말한 그대로야.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이 정확해. 어젯밤에도 나랑 있는 데 아주 수다스러우시더라.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도 내게 많이 말씀하셨어. 그거 기억나? 왜 전에 그가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다 자신을 힘들 게 했었던 어떤 여성에 대해 언급하려다 멈칫했었잖아? (주인공이 움칫 하는 것을 보고) 붕대 아프니?”

나는 정말 움칫 했었다. 하지만 그건 허버트의 손이 상처에 닿아서가 아니었다. 그가 사용한 단어들(어떤 여성이 그를 괴롭혔다)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난 이제껏 잊고 있었었어,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나도 방금 그게 기억나는 걸.”

“참! 그가 그 얘기도 하더라, 자기 삶에서 가장 어둡고 터무니없었던 (사나웠던) 시절의 얘기 말이야.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들어볼래? 아 님 지금은 네가 아프니까 좀 그렇고 나중에 들려줄까?”

“그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말 해봐. 그가 한 얘기 모두 다 말이야.”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좀 더 가까이서 나를 보려고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마치 내 요구가 그가 애초 예상한 내 반응보다 훨씬 더 조급하고 열을 올린 마냥.

“너 머린 괜찮니?” 그러면서 그는 내 머리를 만져보았다. “괜찮으니까 말을 했지.”라며 내가 말했다.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어서 프로비스(57세, 죄수)가 네게 들려주었던 그 얘기나 마저 해봐. 이 뚱딴지같은 녀석아.”

“열은 없는 것 같아.” 허버트가 말했다. “(풀린 붕대를 보며) 붕대 하나가 풀린 게 매력적인데. 자 시원한 붕대를 댈게. (붕대를 감싸며) 처음에는 붕대가 차가워서 움츠러들 거야. 불쌍한 녀석, 어때? 하지만 차가운 건 곧 괜찮아질 거야. (푼 붕대를 챙기며) 그 여자는 나이 어린 여성이었더네나봐. 샘(질투심)이 많은 여자였데.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앙심을 품고 있던 여자였고. 내 말 이해하니, 헨델, 복수심 말이야, 복수심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던 여성이었더네나 봐.”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데?”

“살인을 저질렀대. (주인공의 붕대를 보며) 민감한 부위인데 너무 쓰라리고 그러진 않니?”

“쓰라리진 않아. 그래 그녀가 어떻게 살인을 했다는 거야? 누굴 죽 였다는데?”

“글쎄, 그 행위(살인)가 모름지기 그대로 무서운 명칭을 받을 만한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당시 20세)는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재거스 씨(당시 30세, 갓 개업한 상태의 변호사)가 그녀를 변호해주었데, 그 변론의 세평(평판)을 듣고 프로비스도 처음으로 재거스 씨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 또 다른 그러니까 희생자는 더 힘이 센 여성이었다데. 사건 현장에는 격렬하게 다툰 흔적이 있었고… ‘헛간’(문짝이 없고 입구만 있는 창고)에서. 어느 쪽이 먼저 싸움을 시작했는지 또는 그것이 정당방위였는지 아닌지 의문투성이였데. 하지만 결론은 확실히 의문이 아닌 쪽으로 났지. 왜냐 하면 희생자가 목이 졸려 숨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성은 유죄판결을 받았데?”

“아니.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데. (붕대를 보며) 이런 내가 널 아프게 했구나, 헨델?”(헨델은 주인공의 애칭=별명)

“별로 아프지도 않은걸 뭐, 그런데 허버트. 응? 그 밖에 또 다른 얘기는 없었어?”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은 이 여성(당시 20세)과 프로비스(당시 34세)의 사이에는 귀여운 어린아이(당시 3살)가 하나 있었데. 그 애를 프로비스는 끔찍이도 귀여워했다고 하더구나. 내가 네게 들려준 대로 그녀(아이의 어머니)의 질투심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교살(목이 졸려 죽 음)된 바로 그 날 저녁에, 그녀(아이의 어머니)가 아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 프로비스 앞에 잠시 나타났었대. 그리곤 ‘그 애를 죽일 거예요. 죽이고 말겠어요.’라고 맹세했대. 아이는 당시 그녀가 데리고 있었고. 그 이후론 프로비스는 그 아이를 두 번 다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아이의 엄마도 자취를 감추어버렸데. (주인공의 팔을 바라보며) 한 번 만 더 삼각건(붕대) 안으로 네 왼쪽 팔(상처가 가장 심한 왼팔)을 넣어보자. 그럼 좀 편안해질 거야. (주인 공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이제 오른손만 남았네. 그게 훨씬 더 쉬운 일 이지. 난 대낮보다 이런 약한 조명 아래에서 더 뛰어난 간호사란다. 조 명이 희미하면 화상 후 생긴 수포(물)들로 헐거워진 헝겊조각들이 잘 보일리 없잖니. 그럼 내 손도 안 떨릴 테고. (주인공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이(너), 네 호흡이 좀 부자연스러워진 거 같은데. 숨이 너무 가빠 보여.”

“아마도 내 숨이 좀 가빴나 봐, 허버트. 그래서 그 여성이 맹세를 지 켰데(자기 아이를 죽었데)?”

“그 부분이 프로비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부분이야. 그녀는 실제 그렇게 했어.”

“즉, 그녀가 살인을 했다고 프로비스가 말을 했냐고?”

“이런 그야 당연한 거 아니니, 친구.” 허버트가 놀란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곤 내 상태를 살피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모두 프로비스가 들려준 얘기야. 나도 그 외 다른 얘길 들은 건 하나도 없어.”

“그야, 물론이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을 계속 이어갔다. “프로비스(사건당시 38세. 현재는 57세) 자기 자신은 애 엄마(살 인사건 당시 20세)를 학대했는지 잘해주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대략 4년 내지는 5년 동안을 같이 생활해왔었데 (결혼 아님 동거임). 알지? 예전에 프로비스가 이 벽난로 가에서 우리 에게 묘사했었던 그 불쌍하고 가엾은 떠돌이 생활을 말이야. 그리고 그는 애 엄마에 대해 동정(불쌍히 여김)을 느꼈던 것 같았어. 물론 용 서조차도 느꼈었는가 봐. 그런 까닭에, 이 소멸된 아이에 대해 증언을 하도록 재판정에 불리 어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애의 죽음의 원인이 자기 자신인 것으로 지목당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물론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아이를 잃은 비탄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어쨌든 숨 어버렸데. 그리곤 그가 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은 그 재판에 더 이상 방해가 안 되도록 비켜나 아벨(남자이름. 소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름임. 신경 안쓰도 됨. 아래에 정리한 아벨 부연 설명 참조바람)이라는 어떤 남성으로써 모호하게 언급되어질 뿐이었대. 그녀를 질투에 사로잡히게 한 장본인으로 말이야. 석방된 후 그녀도 모습을 감추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아이와 아이 엄마까지 잃게 된 것이지.”

(‘아벨’에 관한 설명. 『 위대한 유산 』 15장에서 디킨스가 소설 속 악당인 25세의 ‘올릭’이란 인물을 묘사하는 글귀가 소설 속에 등장 하는 아벨이라는 어감의 이해를 돕는다. 그래서 잠깐 살펴봄.

15장의 본문내용→ 〈 그(올릭)는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 (술집)에 정식(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밥)을 먹으러 갈 때조차도 혹은 야간에 어딘가를 갈 때조차도 몸을 앞으로 수그린 채 카인(성경에 나오는 살인자)이 동생(아벨)을 죽이듯 유대인이 방랑의 길을 떠나던 것 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로 걷곤 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되돌아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뭔가 비슷하죠? 자신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되돌아와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살인을 저지르고 한때 범죄자였던 자가 이젠 처지가 바꿔 방황 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세상의 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 은 과거를 회개한 후 남을 위해 돈을 모은 프로비스의 이야기이고 처 음부터 끝까지 사악한 짓을 하는 올릭(악당)의 경우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순 없는 차이이죠. :) 아닌가????) / 여하튼 15장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10189513046>)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시작)

(주인공이 허버트에게 하는 대사→) “내가 묻고 싶은 건….” (허버트의 대사→) “잠깐만, 이 녀석아, 내 얘기도 다 끝나가니까.

옥스퍼드대 출신의 사악한 천재이자, 수많은 악당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당인 ‘콤피슨’(=미남 + 말발 + 철저한 사기꾼)이 그때 당시 프로비스(당시 콤피슨의 부하)가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그렇게하는 이유들을 알았던 거야. 물론 그 후 콤피슨(사기꾼)이 자신이 알게된 사실들로 프로비스(38세, 당시 콤피슨의 부하)를 협박해 프로비스를 더 가난하게 하고 더 가혹하게 부려먹었대. 어젯밤에 프로비스와 얘기를 나누면서 명확해지더라, 프로비스가 왜 아직까지도 그 사기꾼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쳐 있는지를 말이야.”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내가 특별히 더 알고 싶은 건,”라며 내(23세, 주인공)가 말했다. “그 일이 언제 발생했었는지를 프로비스가 네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야?”

“특별히 라고? 그럼 나 좀 생각하게 해줄래. (잠시 생각한 후) 그의 말투는 ‘대략 20년 전 일이고 거의 내가 ‘콤피슨’(옥스퍼드대 출신의 사기꾼)과 얽인(일을 시작한) 직후였지.’래. 그럼 넌 그때 몇 살쯤이었 니? 네가 그 작은 ‘교회 부속의 묘지’(←주인공 시골에 있는 묘지들. 주인공 가족들의 묘가 있음. 동네 사람들의 묘도 있음)에서 그와 처음 마주쳤을 때 말이야.”

(부연설명 : 감옥선에서 탈출한 프리비스는 교회 부속의 묘지에서, 가족들의 묘비 옆에서 놀고 있던 주인공을 처음 만나게 됨. 주인공은 프로비스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좀.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주인공은 친누나의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훔쳐서 프로비스라는 죄수에게 가져다 준 것을 오랜 세월동안 양심에 괴로워했었음)

“내 생각엔 일곱 번째 해(7살)였을 거야.” (← -\_-;; 그동안 주인공 이 프로비스를 만난 나이가 12살 때로 계산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의 나이도 따라서 계산하고 있었는데 거의 멘붕상태임. 다시 생각해보니 나이 계산에서 달라지는 건 없군요. 다만 주인공이 런던에 머뭄 년도가 많이 늘어남. 뭐 이런 건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일단 해석 계속~)

“아. 그럼 그 일(살인사건)은 그가 너를 만나기 약 3년 혹은 4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가 그렇게 말했거든. 너를 만나기 거의 3년 혹은 4년 전이라고.(오늘 멘붕 여러 차례 오네. 또 나이계산 잘못했음이 드 러남)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때 살아 있었다면 꼭 네 나이 (7살) 또래였을 그 귀여운 아이 너무도 비극적으로 잃은 그 여자아이를 네가 생각나게 했데.”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내가 잠깐 동안의 침묵 후 서두르며 말했다. “허버트, 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나를 잘 볼 수 있니? 아니면 벽난로 불빛으로 나를 잘 볼 수 있겠니?”

“그야 벽난로 불빛이 더 세니까,” 그가 다시 내 쪽으로 다가오며 대 답했다.

“나 좀 봐봐.”

“지금도 잘 보고 있어, 이 친구야.” “그게 아니라 나 좀 건드려보라고.”

“자 건드렸다, 이 녀석아.”

“내가 열이 좀 있는 거 같지 않니? 그러니까 내 머리가 어젯밤에 있었던 사건의 충격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다거나 응? 그렇게 보이지 않아?”

“전‥전혀, 왜 그래?”라며 그가 나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후 말했다. “네가 좀 흥분해 있는 거 같긴 해. 하지만 정신은 온전해 보이 니까 걱정마.”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강 하류에 있는 숙소에 몸을 숨겨주고 있는 그 사람이 에스텔라(♥)의 아버지란 것도.” (←프로비스가 에스텔라의 친아버지란 소리입니다. 현 재 프로비스는 58세, 에스텔라는 23세입니다.)

**위대한 유산**

**51장**

내가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에스텔라의 출생을 들추고 입 증하는데 그토록 열을 올렸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곧 드러나듯이 내 머리보다 더 현명한 사람의 머리에 의해 그 질문이 내 앞에 놓이게 될 때까지는 당시 어떠한 희미한 흔적으로도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다. (-\_- 뭔 소리?)

하지만 허버트(23세, 친구)와 내(23세, 주인공)가 쉽지 않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나는 내가 그 문제(에스텔라가 미스 해비샴에게 입양된 과정과 에스텔라의 친아버지가 프로비스인 거)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몹시 흥분된 확신에 휩싸이게 되었다. 또한 그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되며 꼭 재거스 씨(변호사)를 만나서 진상(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휩싸이게 되었다.

나는 정말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 모든 행위들을 모두 다 에스텔라의 안위(이익)를 위해서 했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토록 오랜 세월 나를 휘어감아 온 로맨틱한 관심들 중 몇 가닥의 빛줄기를 내가 그토록 염려하며 숨겨주고 있는 그 남성(=58세=프로비스=에스텔라의 친아버지)에게도 넘겨주게 된 것이 기뻐서인지 나는 정말 알지 못한다.

아마도 후자가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그 날 밤 당장 ‘제라드 거리’(재거스 씨의 집과 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로 향하는 것을 보류할 수밖엔 없었다.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그랬다가는, 우리 도망자(프로비스)의 안전이 네(주인공) 게 달려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성마름(성급함)을 자제하지 못하고 혼자 행동했다가는 이후 벌어질 사태에 넌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상태에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할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재거스 씨를 찾아가고야 말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한 후에야 나는 결국 넉 다운이 되어서(침묵을 지키며) 내 상처들을 허버트가 돌보게 하고 집에 가만히 머물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집을 나섰다.

‘스미스필드(런던 북서쪽에 있는 고기시장. 지금과 같은 정육점 거리가 아니라...-\_-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에서 꼭 나오는 피가 여기저기에 막 있고 짐승들의 고기를 파는 시장. 가본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봤음)’ 옆 ‘길스퍼 거리’(구글 지도 링크 ▶ https://[www.google.co.kr/maps/place/Giltspur+St,+London+EC1A+9](http://www.google.co.kr/maps/place/Giltspur%2BSt%2C%2BLondon%2BEC1A%2B9) DE+%EC%98%81%EA%B5%AD/@51.5166651,-0.1011058,354m/dat

a=!3m1!1e3!4m2!3m1!1s0x48761b530df949eb:0x849aad8b7bb9639b

?hl=ko ←크롬에서만 열림. 익스플로어에서는 구글 지도가 안 보일 수 있음. 만약 링크가 안 열릴 경우 구글 지도에서 “런던 길스퍼” 또는 “Giltspur St, London”라고 검색하면 지도 보임. 검색일자 : 2015-01-29)의 모퉁이에서 나는 허버트를 ‘런던 시티’(=금융가=런던 타워 근처를 말함)로 떠나보내고 ‘리튼 브리튼’(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을 향해 출발했다.

재거스 씨(변호사)와 웨믹(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이자 사무실 출납회계를 담당함)이 정기적으로 변호사사무실의 회계(예금계좌)를 점검해보는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그들은 해당 거래가 이미 처리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각종 영수증들에 체크 표시(✔)를 해나가며 회계 상의 실수들을 바로잡았다.

내가 그를 방문했을 때가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던 때였다. 웨믹이 자신의 장부(책)들과 각종 서류들을 챙겨 재거스 씨의 집무실로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웨믹의 자리였던 대기실 책상은 위층에서 내려온 다른 직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의 이 자리 배치 이동을 보자마자 나는 변호사사무실의 정기 회계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로선 재거스 씨(상사)와 웨믹(부하직원)을 함께 만나는 것이 영 유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가 웨믹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어떤 말도 하지 않음을 그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 외투는 어깨 위로 느슨하게 걸친 채 나타난 내 겉모습은 내 의도에 호의적으로 작용했다.

런던으로 상경하자마자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있었던 사고(벽난로 앞에 놓은 거의 식어가던 화로 불이 미스 해비샴의 옷에 번져 미스 해 비샴과 주인공이 불길에 휩싸인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편지로 재거스 씨에게 알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몰골(모습)이 몰골이다 보니 자초지종(과정)을 재거스 씨에게 다시 설명해야했다.

그리고 그가 정기적인 회계 점검을 하던 중에 나와 특별히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라 우리의 대화는 좀 덜 건조하고 좀 덜 딱딱해질 수 있었다. 이전보다도 증거니 법칙이니 하는 법률 용어의 책임을 좀 덜 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 끔찍한 화재에 대해 묘사하는 동안, 재거스 씨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면 그가 곧잘 하듯이(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집게손가락 옆을 이빨로 잘근잘근 씹는 행동)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웨믹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푹 기댄 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물론 웨믹은 두 손을 자신의 바지 호주머니에 꽂혀 상태였다. 웨믹의 펜(볼펜)은 우체통 같은 자신의 입안에 수평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판사의 소송 절차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쇳물을 녹여 만든 흉측한 사람 얼굴 모양을 한 주물 2개’(재거스 씨의 집무실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석고상 2개)는 ‘자신들이 현 시점(지금 순간)에서 화염(불) 냄새를 맡았는지 아닌지’를 얼굴까지 시뻘개져선(충혈 되어선) 검토하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이 나고 곧이어 그들의 질문들까지 고갈되자(끝나자) 나는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를 위해 내 앞으로 4억 5천만 원(19세기 영국돈 9백 파운드는 현재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약 3억 6천 만 원 정도입니다. 편의 상 4억 5천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억이나 4 억이나 뭐 제 돈도 아닌데요. 뭘~)을 지급해주라는 미스 해비샴의 신 용장(신용장에 적힌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도 좋다는 지급 위탁 서)을 그들 앞에 제출했다.

내가 미스 해비샴에게서 받은 노란 상아빛깔의 ‘편지지 첩’(한 장씩 데어내 쓰는 편지지 첩을 신용장으로 통째로 받았다는 얘기임)을 재거스 씨에게 건냈을 때, 재거스 씨의 두 눈이 고개 속으로 살짝 더 깊게 들어갔다.

하지만 이내 곧 그 신용장을 웨믹에게 도로 건네주며 “내 서명(사인)을 받을 수표를 발행하게.”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뭔가를 적고 있는 웨믹을 구경했다. 그리고 재거스 씨는 잘 닦여진 ‘부츠’(목이 긴 구두) 위에서 자신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다.(이 행동은 재거스 씨가 상대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의 구두가 메마르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비웃고 있음을 뜻합니다. 재거스 씨의 버릇입니다.) 물론 재거스 씨가 지켜보고 있던 것이 나였음을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웨믹이 건넨 수표에 자신의 서명을 끝마친 후 내가 그 수표를 내 호주머니 속에 넣을 때 재거스 씨가 말했다.

“유감이네, 핍(주인공의 이름).”라며. 그리곤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가 자네를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말일세.”

“미스 해비샴(51세, 어마어마한 부자)께서도 제게 선의로 그렇게 물 어주셨습니다.”라며 내(23세, 주인공 = 실속 없는 영국신사 +현재 파산 일보직전의 런던신사)가 대답했다. “그녀 자신이 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요. 하지만 전 ‘아니요’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들(파산 직전)에 대해 알아야하네.”라며 재거스 씨(50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말했다.

그와 함께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자 사무실 출납담당 직원)이 입모양을 통해 내게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이요.(붙잡힐 경우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죄수에게서 주인공 몫부터 따로 챙겨놓고 보라는 의미)”라며 일러주었다.

“내가 역시 자네였더라도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을 것이네.”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의 사무(경제적 여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네.”

“보통 사람의 사무란,” 웨믹이 나를 향해 다소 나무라는 투로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의 사무란 휴대 가능한 재산을 말한답니다.”라고.

나(23세, 파산 직전의 어리버리한 런던 신사)는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주제(에스텔라♥의 입양의 비밀)를 추적할 시간 말이다.

그래서 재거스 씨(50세, 변호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저도 미스 해비샴(51세, 부자)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선 생님(재거스 씨). 그것은 그녀의 수양딸(양녀)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그녀가 제게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점에서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게 주었습니다. 비록 불충분한 정보였지만요.”

“그녀가?”라며 재거스 씨가 자신의 부츠(목이 긴 구두)를 내려다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푹 숙이려다 곧 몸을 수직으로 바짝 세우며 말했다. “하! 내가 그녀였더라도 그렇게는 말하지 못했을 건데. 그녀 자신의 사무(=입양)는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법이네.”

(주인공과 재거스 씨와 웨믹이 있는 자리에서, 주인공이 재거스 씨에게 하는 대사임→) “저는 미스 해비샴이 입양한 아이(에스텔라)의 내력 (출신)에 관해 미스 해비샴 그녀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재거스 씨). 전 그 아이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 즉시 절반은 탐구심이 생겨 절반은 미심쩍어 하는 듯 재거스 씨(50세, 변호사)가 나(23세, 어리버리 파산 직전의 영국 런던신사)를 쳐다보며 되풀이했다.

“친모(어머니)를 안다고?”

“전 며칠 전에도 그녀의 친모(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뭐?”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 아니 선생님께서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녀를 훨씬 더 자주 보며 지내왔겠군요.”

“응?”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아마 어쩌면 에스텔라의 이력에 대해 제가 당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라며 내가 말했다. “전(저는) 그녀의 친부(아버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재거스 씨)가 멈칫했다. 틀림없는 멈칫 이었다.

그가 너무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멈칫했었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진 않았다.

하지만 어떤 정의하기 힘든 세심한 멈춤이 표면에 드러나는 것까진 감출 순 없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재거스 씨가 에스텔라의 친부(아버지)까지는 몰랐음을.

이것은, 프로비스가 들려주었다던 그 얘기 “재판이 벌어지자마자 몸을 숨겼다”는 얘기를 허버트를 통해 들었을 때 내가 이미 강하게 의심하던 바였다.

재판이 끝나고 4년 여후가 지나서야 프로비스가 재거스 씨의 의뢰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 사실이 내 의심을 보탰다.

4년 여후의 시간 차이라면 프로비스가 굳이 자신의 정체를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좀 전까지만 해도 재거스 씨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누구보다 확신하게 되었다.

“정말! 자네가 그 젊은 숙녀(에스텔라♥)의 아버지를 안다는 말인가, 핍(23세, 주인공의 이름. 실속 없는 영국신사).”라며 재거스 씨(50세, 변호사)가 말했다.

“예,”라며 내가 응답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프로비스(죄수의 가짜 이름)입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임 / 헷갈리시죠. 이 소설의 무대는 오직 런던 중심부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거나 앞으로 나올 여타 지역들의 이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니 시드니니 이런 것과 이 소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 몰라도 됨)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단어들을 말하자 심지어 재거스 씨조차도 움찔했다(깜짝 놀랐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무심코 새어나올 수 있는 가장 약한 움찔함이었다. 가장 주의 깊게 억제된 놀람이었으며 당사자가 놀라자마자 바로 억제되었다는 표현에 더 가까운 놀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 깜짝 놀랐다. 비록 그것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는 행동으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내 말에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은 웨믹을 쳐다보기가 겁이 났기 때문이다. 예리한 재거스 씨가 웨믹과 나 사이에 자신(재거스 씨)이 모르는 모종의(비밀의)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 무슨 증거라고 있는 말인가, 핍(23세, 주인공)”라며 재거스 씨(50세, 런던 유명 변호사)가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서 자신의 코로 가져가려던 손수건을 반쯤 코로 가져다가 멈추고서 말했다. “프로비스(58세, 죄수)가 이 주장을 했단 말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친딸(에스텔라♥)이 살아 있다는 어떠한 인지도 어떠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네모지고 각진 그의 강력한 그 손수건도 제 역할(중요한 순간에 상대방 앞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풀어서 상대방을 긴장시 키기)을 하지 못했다.

내 대답은 너무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재거스 씨는 손수건으로 코를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 속으로 도로 손수건을 집어 넣었다.

그가 팔짱을 끼었다(두 팔을 꼼). 비록 어떤 동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표정이었지만 그가 나를 엄중하면서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지도 그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실상(실제) 웨믹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미스 해비샴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그가 추리하게 내버려두었다는 조건은 있었지만 말이다.

나는 그 부분(주인공의 말이 웨믹과 연관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주의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내가 해야 할 말들을 모두 끝마칠 때까지 나는 웨믹 쪽을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재거스 씨의 표정과 맞닥뜨리며 아까부터 서 있었다.

내 얘기가 다 끝나고 내가 마침내 웨믹 쪽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나는 그가 자신의 펜을 입에서 뗀 사실과 그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회계 장부에 열중해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허어!” 재거스 씨가 마침내 테이블 위에 놓인 각종 서류들 쪽으로 몸을 옮기며 말했다.

“그래 핍 씨(23세, 주인공=파산 직전의 어리버리한 런던신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항목을 점검하고 있었지, 웨믹?”

그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따돌려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열렬하게 거의 분개하듯 그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저에게 좀 더 솔직하고 남자답게 대하세요!”

나는 그에게 일깨워주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빠졌었던 그 거짓 희망들(에스텔라♥와의 사랑)과 그 희망들이 내 안에서 지속된 시간의 길이들과 내가 발견한 것들을 그에게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내 영혼들을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있던 위험(인도로의 밀항)에 대해서도 넌지시 알려주었다.

나는 주장했다.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비밀(에스텔라의 친아버지가 프로비스인 거)에 대한 답으로써 저도 선생님으로부터 약간의 비밀을 들을 자격이 분명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제 자신이 선 생님에게서 진실에 대한 확신(=확언=안심시키는 말)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50세, 재거스)가 내(23세, 주인공)게 “왜 그것을 알고 싶은가? 그리고 왜 자네가 그것을 알아도 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난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전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오랜 시간 에스텔라(♥)를 사랑해왔습니다. 비록 그녀는 다른 사람 품에 가버렸고 전 이제 연인을 떠나보낸 삶을 살아야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관련된 그 무엇이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제게 가깝고 소중합니다. 비록 선 생님께서는 이런 제 가련한 희망들엔 별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러자 재거스 씨가 완전히 정지한 채 그리고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다. 내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 센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웨믹(45세, 서기)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웨믹, 전 당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상냥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당신의 즐거운 집을 보았고 당신의 연로하신 아버님도 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무(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일)를 기운 나게 하는 천진하고 기운차며 쾌활한 방식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께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부디 저를 위해 재거스 씨에게 한 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신(재거스 씨)은 핍에게 좀 더 솔직히 대해주어야 합니다!’라고요.”

이런 내 호소가 있고나서 재거스 씨(50세, 변호사)와 웨믹(45세, 부 하직원)이 서로를 기묘하다는 듯 쳐다본 것보다 더 서로를 이상한 듯 쳐다보는 두 사람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말이다.

우선, 웨믹(부하직원)이 그의 고용주(재거스 변호사)에 의해 즉시 해 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이 나를 급습했다(직역→내 마음에 떠 올랐다).

하지만 재거스 씨의 긴장이 풀려 그의 표정 속에 어떤 미소 같은 것이 머금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웨믹의 표정이 좀 더 대담해지는 것을 보자 나는 마음이 스르르 녹았다.

“이게 대체 무슨 말들인가, 자네?”라며 재거스 씨(50세, 변호사)가 말했다. “자네에게 나이 드신 아버님이 계셨단 말인가? 그리고 기운을 돋우는 즐겁고 쾌활한 방식이란 또 뭔가?”

“글쎄요!”라며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대답했다. “제가 그들(자신의 즐거움과 쾌활한 성격)을 여기(직장)로 데려오지 않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된단 말씀이십니까?”

“핍(23세, 주인공이름).”라며 재거스 씨가 자신의 한 쪽 손을 내 팔 위에 얹으며 활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제 보니 이 사람(웨믹), 온 런던 시내에서도 가장 노련한(솜씨 좋은) 사기꾼이었음이 틀림없네, 거 래.”

“당치도 않습니다(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며 웨믹(45세, 변호사사 무실의 서기. 직장에서 거의 한 마디도 안 하는 성격임)이 점점 더 대범해지고 또 더 대범해져선 말했다. “전 차라리 변호사님께서 더 그러신 거(더 철저한 런던 식 사기꾼인거) 같은데요.”

그들(재거스 씨와 웨믹)이 다시 좀 전과 같은 기묘한(이상한) 눈빛을 서로 교환했다. 제각기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했다. 명백히 말이다.

“자네가 쾌활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라며 웨믹이 받아쳤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요. 자, 변호사님을 보시자면, 변호사님께서도 이 일에 싫증이 나면 언젠가는 변호사님 소유의 즐거운 집을 한 채 장만하시려고 계획하시거나 궁리하실 지도 모를 일이며 그럴 거라 해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긴 듯 재거스 씨(50세, 영국 런던의 유명 변호사)가 두 번 혹은 세 번 고개를 끄떡였다. 실제로도 그는 깊은 한 숨을 내쉬기도 했다.

“핍(23세, 주인공이름. 파산 직전의 어리버리 영국 런던신사).”이라며 재거스 씨가 말했다. “우리 처량한 꿈들에 대해선 더 말하지 말게나. 그런 감정들이라면 나보단 자네가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런 종류의 감정 경험들을 막 겪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에 관해서라면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주겠네. 하지만 명심 하게! 난 아무것도 시인하지않네.”

그가 한 마지막 표현,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네.”라는 표현의 의미를 내가 새겨들은 것을 내가 분명히 입 밖으로 밝힐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이제, 핍(23세, 주인공이름, 파산 직전의 어리버리 런던신사).” 재거스 씨(50세, 런던 유명 변호사)가 말했다. “이런 가정을 해 보세나. 어떤 여성(당시 21세의 몰리. 몰리는 에스텔라의 친어머니임)이 자네가 언급한 대로 그러한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있었다고 말일세.

그녀의 법적 조언자(변호사)로부터 ‘변론의 범위를 상정해(가정해)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선 그 아이(에스텔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변호사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듣고서 마지못해 그녀의 법적 조언자(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틀어놓을 수밖엔 없었다는 가 정을 우리 한 번 해 보세나.

그럼 이제 다른 가정을 한 번 더 해 보세. 그녀의 법적 조언자(변호사)는 그때 그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괴짜인 지방의 어느 풍족한(부유한) 숙녀(당시 31세의 미스 해비샴)로부터 입양해 기를 계집아이 하나를 구해달라는 위탁(부탁)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일세.”

(앞뒤 부연설명 : 미스 해비샴은 31세 때 3세의 에스텔라를 입양했습니다. 3세의 에스텔라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만 압니다. 에스텔라를 미스 해비샴에게 데려다 준 것은 당시 30세의 재거스 변호사였습니다. 에스텔라는 이 또한 기억 못합니다. 다만 소설 전반부에서 묘사되어 있듯이 재거스 씨는 가끔씩 미스 해비샴의 저택으로 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럴 때면 재거스 씨는 에스텔라를 향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지만 에스텔라는 늘 호기심을 가지고서 재거스 씨를 흘낏흘낏 쳐다봅니다. 그게 이번 내용이랑 다 연결이 되네요.)

(주인공이 재거스 변호사에게 하는 대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법적 조언자(변호사)가 일찍 이 악의 소굴에 들어가 살았다고 가정해 보세나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 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란 게 죄다 그 아이들은 분명 파멸되기 위해 태어나지고 있더라는 인식이었다고 가정해 보세나. 이제 이런 가정도 해 보세나. 그 아이들이 형사법원에서 잘 보여지 기 위해 들어 올려 진 채 엄숙히 재판 받는 광경을 그가 종종 너무 종종 목격해왔다손 쳐보세. 그리고 이런 가정도 한 번 해 보세.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 갇히고 채찍질당하고 이 소년원과 저 소년원을 전전하며 추방당해 방치되다 사회에서도 버림받는 과정을 통해 점점 ‘교수형 집행인’을 만날 수 있는 자격들을 다방면에서 갖추어가더니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실제 교 수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그는 지속적으로 보아왔다손 쳐 보세나. 자 우리 한 번 이런 가정도 해 보세나. 그 법적 조언자(변호사)가 자 신의 일상 업무 과정에서 보게 되는 어린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거의 전부 다 언젠가는 자신(변호사)의 그물(함정)에 들어가게 될, 물고 기들의 알 덩어리,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어 그의 그물 안에 들어가게될 알 덩어리, 기소당하거나 변론(변호) 받게 되거나 위증을 해 고아들이 되거나 아님 어떻게든지해 귀신에 씌게(들리게)되고말 알 덩어리 들로 여길 이유가 너무도 다분했다고(많았다고) 가정해 보세나.”(←해 석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물고기의 알 덩어리’로 생 각해 보자 그런 소리입니다.)

(주인공이 재거스 변호사에게 하는 대사→)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했습니다, 선생님.”

(재거스 변호사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자 이제 이런 가 정도 한 번 해보세나, 핍(23세, 주인공=현재 파산직전의 런던신사). 여기 그 퇴적(흙)더미들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한(1명) 귀여운 계집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 그 애의 아버지는 그 애가 죽었다고 믿고 있네. 그리고 자신의 처지 상 법석도 전혀 떨지 않네. 그 아이에 대해, 그 애 엄마의 법적 조언자(변호사)는 그 애 엄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손 쳐보세. (재거스 변호사가 에스텔라의 친어머니에게 했던 대사를 다시 생각 하며 주인공에게 들려주는 대사. 회상입니다.→) ‘난(31세, 재거스 변호사. 당시 막 개업한 변호사) 자네(에스텔라의 친어머니. 당시 21세. 다른 여성을 목 졸라 죽였음. 재판 중)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네. 또한 그 일(살인)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했는지도 알고 있네. 자 네는 여차 여차해서(←여차여차 원문에 있는 말임) 그 장소에 도착했고 자네에 대한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자네는 저차 저차 행 동했네. 나는 자네가 한 모든 일을 추적해봤기 때문에 자네에게 죄다 말할 수 있는 것이네. 자네 아이와는 헤어지게. 만약 자네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 위해 그 아이의 생사여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 말이네.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라도 그 아이의 생사여부를 공개하겠네. 그러니 그 아이를 내게 맡기게. 그럼 자네가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 겠네. 내(당시 30세)가 자네(에스텔라의 친어머니, 당시 21세)를 구 한다면(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건 곧 그 아이도 구원받는 일이 아니 겠는가. 설혹(혹시라도) 내가 자네를 구하지 못하더라도(유죄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그 아이만은 안전하게 구제될 수 있지 않겠나.’ (다시 재거스 씨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임→) 이 모든 것들이 실제 행해졌다고 가정해 보세나, 그리고 그 여성도 구제되었다고 가정해 보 세나.”

“무슨 말씀이신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실 확인도 하고 있지 않음도 이해하는가?” 그러자 웨믹이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시인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웨믹은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시인도 하지 않으시죠.”

“가정해 보세나, 핍(주인공이름). 죽음에 대한 격정(불안)과 공포가 그 여성의 지력(지능)을 살짝 뒤흔들었다고 가정해보세. 그리고 그녀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석방되었을 때)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할지 두려워져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을 변론해준 그 법적 조언자를 찾아가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세나. 그럼 이런 가정도 가능하겠지. 그가 그녀를 자기 집에 지내게 하고 이후 그녀의 야수성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눈치 챌 때마다 그가 옛날 재판정에서 그녀를 변론해주었을 때처럼 그녀에 대한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강력히 주지(확인)시킴으로써 그녀의 예전 그 사납고 폭력적인 야수성을 억제해왔다고 가정해 보세나. 이 가상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가?”

(주인공의 대답→) “완전히요(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재거스 변호사의 대사→) “그럼 이런 가정도 해 보세나. 그 계집아 이(에스텔라)가 자라 남자(드러믈)의 돈을 보고 결혼했다고 말이네. 또한 그 아이의 친모(어머니)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 아이의 친부(아버 지)도 여전히 살아 있네. 서로에 대해 모른 채 그 친모와 친부는 수 킬 로미터 또는 수백 미터 또는 수 미터 내에서, 거리는 자네 좋을 대로 생각하게, 수 미터 내에서 서로 기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나. 그 비밀은 여전히 비밀이며 오직 자네가 그것에 대해 풍문으로 들었다고만 가정해 보세나. 이 마지막 가정(‘풍문으로 들었다’는 가정)을 매우 조 심스럽게 자네 자신에게 제안해두게.”

(주인공의 답변→) “했습니다.”

(재거스 씨가 웨믹을 쳐다보며→) “웨믹 자네도 이 마지막 가정(풍문으로 들었다)을 매우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제안해보라고 말하고 싶네.”

그러자 웨믹이 말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 비밀을 밝히려는 것인가? 부(아버지)를 위해서? 친모 때문에 친부가 더 좋아질 리도 없지 않는가. 그럼 친모를 위해서?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런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면 지금 그녀가 있는 그곳(재거스 변호사 자신의 집)이 그녀에게 더 안전하지 않은가. 그럼 그 딸아이(에스텔라)를 위해서? 20년이나 지난 마당에, 그녀의 출생에 대한 사실을 그녀 남편(드러믈)에게 입증시켜 그녀에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차라리 평생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을 그녀에게 창 피를 안겨주려는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자네(23세, 어리버리 런던신사 현재 파산직전)가 그 딸 아이를 사랑해 왔었으며 그녀를 자네의 그 ‘가련한 꿈들’, 자네가 있음 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들의 머릿속에서 한두 번쯤 품어져봤었을 그 ‘가련한 꿈들’의 대상으로 자네가 그녀를 선택해 왔었다고 가정해 보세나. 그렇다면 나는 자네에게 붕대가 감긴 자네의 오른 손을 가지고 자네의 그 붕대 감은 왼손을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이네. 그런 다음 그 도끼를 웨믹에게 건네주고서 남은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하는 바이네. 자네가 그것을 좋게 생각한 다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일이네.”

내(23세, 주인공이름)가 웨믹(45세, 서기)을 쳐다보았다. 웨믹의 얼 굴표정이 매우 진지해보였다. 웨믹이 자신의 집게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진지하게 대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재거스 씨(50세, 변호사)도 똑같이 했다.

그런 다음 재거스 씨가 “자, 웨믹.”라며 평상시 태도로 돌아오며 말했다. “자 웨믹, 핍 씨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느 항목을 점검하고 있었지?”

그들(재거스 변호사와 웨믹)이 일하는 동안 그들 옆에서 잠시 동안 서 있던 나는 그들이 서로를 기묘하다는(이상하다는) 듯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몇 차례 목격했다.

전과 다른 면이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의식하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약함과 비직업적인 미숙한 측면을 상대방에게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서로 의심하는 눈치였다.

이 이유로, 나는 그들이 서로에 대해 더 경직되게 나온다고 생각했다.

재거스 씨는 아주 강압적으로(명령조로) 나왔고 그리고 그럴 때면 잠시 동안이었지만 웨믹도 가장 사소한 미결사항들(재거스 씨의 사인이 없는 영수증)이 있을 때면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웨믹은 변호사사무실의 출납업무도 조금 담당하는 서기임)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나빴던 적을 나는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정말로 명백히 서로 잘 지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이크’(뚱뚱하고 많이 어리숙한 의뢰인임. 코믹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그들(재거스 씨와 웨믹)의 긴장은 서로 행복하게 풀릴 수 있었다. 마이크라는 이 의뢰인은, 모피 털모자를 쓰고서 옷소매로 연신 (계속) 자신의 코물을 닦으며 등장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내가 재거스 씨의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날 만난 적이 있었다. (마이크란 인물에 대 해서는 20장을 참조바람)

(20장 해당부분1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021934662> 20장 해당부분2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024697630>

(검색일자 : 2015-02-04) )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 중 누군가’ 이 둘 중 한 명은 꼭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이 보이는 작자(사람)였다. 아니면 그의 가족들 중 누군가가 ‘뉴게이트 감옥’(런던에 있던 유명한 옛날 감옥. 1902년에 폐쇄됨)에 갇혀 있던가 말이다.

그 작자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자신의 장녀(가장 나이 많은 딸)가 상점에서 물건을 슬쩍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을 알리려온 것이었다.

마이크가 이 슬픈 상황을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에게 전달하는 동안, 재거스 씨(50세, 변호사)는 벽난로 앞에 위엄 있게 서선 그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도 마이크의 두 눈에서 눈물이 반짝거렸던 것이다.

“뭘 하자는 겁니까?”라며 웨믹이 극도로 화를 내며 대답해 보라고 다그쳤다. “여기서 자꾸 울며 보채는 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웨믹 씨.”

“지금 그랬잖소.”라며 웨믹이 말했다. “어디서 감히? 만약 당신이 불량 펜촉(펜의 앞부분)처럼 질질거리며 말을 더듬지 못하고는 여기 있을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이 여기 들어올 적당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단 소리요. 그래 질질거려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어느 누구든 자신의 감정을 조절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웨믹 씨.”라며 마이크가 하소연했다.

“(화를 내며) 어느 뭐요?”라며 웨믹이 무자비하게 화를 내며 대답할 것을 다그쳤다. “당신 그 소리 다시 한 번 해보쇼!” (원래 웨믹은 화를 잘 내지 않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마이크에게만은 워낙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화를 자주 내왔 었습니다.)(원래 문맥 상 재거스 씨와 웨믹이 모두 마이크에게 반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약간 높이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지만요. 앞뒤 분위기 상~ 반말은 좀 그 렇죠.)

“어이 거기 여길 좀 보시게.” 재거스 씨가 ‘마이크’(의뢰인의 이름. 많이 어리숙함)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자신의 집게손가락으로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난 털끝만큼도 자네가 불쌍치 않으니까. 자 어서 나가.”

“꼴좋다!”라며 웨믹이 말했다. “자 꺼지시오.”

그렇게 해서 등장할 기회를 잘못 잡은 이 불운한 ‘마이크’(많이 어리숙한 의뢰인의 이름)는 너무도 볼품없이 철수를 하게 되었더랬다.

그리고 재거스 씨(50세, 변호사)와 웨믹(45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 은 서로 친밀한 예전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것 같았더랬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방금 점심 식사를 한 것 마냥 심기충전 해져서는 정기적인 회계 점검에 다시 착수하였더랬다.

**위대한 유산**

**52장**

건네받은 4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내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는 ‘리틀 브리튼’(재거스 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거리이름. 지금 기준으로는 런던 한 복판임)을 떠나 ‘미스 스키핀스 양’(42세, 웨믹의 애인)의 친오빠(44세, 독자가 이름 알 필요 없음. 이후 다시 안 등장함)에게로 갔다. 스키핀스 양의 친오빠가 공인 회계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 회계사인’, 미스 스키핀스 양의 ‘친오빠’는 곧장 ‘클래 리커(’클래리커‘는 사람이름 / 주인공이 몰래 돈을 투자해 허버트를 고용하게 한 회사이름이자 그 회사의 대표 이름임) 회사’로 가서 클래리 커(사람이름)를 내게로 데리고 왔다.

나는 이 협의(친구 몰래 주인공이 무역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 대표가 허버트를 공동 대표로 고용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를 마무리 지으며 대단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한 유일한 선행이자 거의 완전히 내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재거스 씨(변호사)로부터 처음 엄청난 재산 상속에 대해 통보받은 이후로 말이다.

‘클래리커(’클래리커‘는 사람이름 / 주인공이 몰래 돈을 투자해 허버트를 고용하게 한 회사이름이자 그 회사의 대표 이름)는 내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회사 일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야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동양(=인도)에 작은 지점 하나를 낼 채비도 거의 다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 이름)가 새로운 파트너 자격으로 그곳으로 가 그 곳 사무를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 설명과 함께 나는 알게 되었다. 설사 내 자신의 일이 많이 해결 되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동안 친구와 헤어질 준비를 해왔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젠 정말로 내 마지막 닻(배가 정박할 때 사용하는 ‘닻’)이 지지대로부터 느슨해지고 있으며 내가 곧 바람과 파도의 힘을 받아 배를 띄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느꼈다.(런던 템스 강에서 동쪽에 있는 항구까지 가려면 바람이 런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 때 템스 강의 물 높이가 낮아지며 물이 동쪽으로 빠질 때를 이용해야 함. -\_- 음 다시 생각해보니 디킨스가 쓴 이 마지막은 상황묘사가 아니라 자신의 처 지를 비관한 심리묘사 같은데. 해석 못하겠음. 그냥 다음으로 패스 ~\_ㅜ)

하지만 밤에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가 집에 돌아와 이러한 변동사항들을 내게 그것이 내겐 전혀 뉴스가 아님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그 기쁨에 대해 내게 털어놓을 것을 상상하니 보상이 되었다.

그리고 허버트는 클라라 발리(20세, 이름 : 클라라, 성 : 발리)(클라라는 허버트의 약혼녀)를 아라비안나이트가 나오는 세계로 인도하는 공허한(비현실적인) 상상의 나래를 머릿속으로 펼칠 것이며 그들 속에 나도 합류시켜 나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기상천외한 장관들을 구경 하는 상상을 할 것이다. 그럼 그땐 내가 낙타 캐러밴(사막에서 수많은 낙타들을 대동하고 상업 활동을 하는 대규모 상인 무리)을 이끌고 등 장하길 은근 바랄 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빛나는 계획들 속에서 내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은 영 낙관적이질 못했지만, 허버트(23세, 주인공의 절친)의 앞길이 이토록 빨리 분명해지고 있고 이제 ‘빌 발리’(클라라의 아버지 / 빌:이름 / 발리: 성 씨) 영감은 성마른 자신의 성격과 럼(술)을 계속 먹어대도 되었고, 이제 발리 씨의 딸(20세, 클라라)은 곧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느꼈다.

계절은 이제 3월로 들어섰다.(3월? 소설 후반부 계절은 겨울인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어쨌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추운 날씨로 소설 속에선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나쁜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 왼쪽 팔은 화상의 상처가 아무는 자연적인 과정상 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외투를 걸칠 수 없는 상태였다.

내 오른쪽 팔은 어지간히 회복된 상태였다. 흉터가 남았지만 그럭저럭 쓸 만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허버트와 내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우편으로 웨믹(45세, 주인공의 밀항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다.

〈 ‘월워스’(지도상 거의 런던 한 복판임. 웨믹의 집이 있는 동네이름임). 다 읽은 즉시 이 편지를 태우기 바람. 주초(한주일의 시작) 혹은 수요일쯤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시도해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얻어 들은 것을 실행해도 될 것 같음. 자 (이 편지를) 태우시오.〉

나는 그 편지(“밀항을 시도하시오!”란 웨믹의 편지)를 허버트(이제는 24세임, 주인공의 절친)에게도 보여주었다. 우리 둘 다 그 편지 내용을 암기한 후 그 편지를 벽난로 불에 넣어 태어버렸다.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지를 두루 생각해보았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보트 노 젓기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이젠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템스 강에서 일하는 뱃사공을 구하는 것보단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스타톱(25세, 여자 같은 성격의 남자로 묘사되는 인물임. 주인공과 신사교육을 같이 받은 동료임)을 끌어들이자, 응? 녀석 정도면 괜찮잖니. 게다가 녀석은 노도 잘 젓고.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말이야. 그 리고 자기 일에 열성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명예가 뭔지를 아는 녀석 이잖니.”

나(24세, 주인공=파산직전의 어리버리 한 런던신사)도 스타톱(25세, 주인공의 동료)을 끌어들이는 문제에 대해 몇 번이고 생각해봐왔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밀항에 대해 스타톱에게) 얘기하려고, 허버트?”

“거의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잖니. 단순한 장난, 하지만 비밀스런 장난쯤으로 이 일을 생각하게 두자, 실제 보트를 띄우는 당일까진 말이야. 그때 가서 네(24세, 주인공)가 프로비스(59세, 죄수)를 데리고 해외로 밀항하려는 긴급한 이유를 말해줘도 되잖니. 어쩔래? 녀석도 포함시킬래?”

“당근(당연하지).”

“어디로 갈 건지 장소(밀항의 목적지)는 정했고?”

그 점(밀항의 목적지)에 대해 나는 수많은 생각들을 걱정스럽게 해 보았었지만 우리가 어느 항구, 그것이 ‘함부르크’(독일)가 되었든 아님 ‘로테르담’(네덜란드)이 되었든 아님 ‘앤트워프’(벨기에의 항구도시)가 되었든 그 차이는 별로 없어 보였다.

프로비스(59세, 죄수)가 영국 땅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장소야 별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을 따라 내려가다 우리를 태워줄 외국의 증기선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만사 오케이였다.

나는 프로비스(59세, 죄수)를 보트에 태워 강 하류까지 내려갈 맘을 항상 먹고 있었었다. 물론 ‘그레이브젠드’(런던 동쪽에 있는 항구이름.

이후 『 위대한 유산 』 의 주 무대임) 훨씬 너머까지 갈 생각이었다. (부연설명 → ‘그레이브젠드’의 위치를 지도로 한 번 ‘꼭’ 봐 두셔야

이후 이 소설의 후반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링크 건 구글 지 도로 한 번 보세요. 자 클릭 하시죠 :) ‘그레이브젠드’의 구글 지도 링 크 ▶

https://[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http://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2B%25) EC%BC%84%ED%8A%B8+%EA%B7%B8%EB%A0%88%EC%9D%B4

%EB%B8%8C%EC%A0%A0%EB%93%9C/@51.4601469,0.3538991,4

3385m/data=!3m1!1e3!4m2!3m1!1s0x47d8b412568e0b3f:0x4acb476 0cd850e75?hl=ko ← 화면을 축소하시면 런던과의 거리가 대충 보임. 하지만 클릭 안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글로 간단히 설명하면 ‘그레이브젠드’는 런던과 바다 사이 딱 중간에 위치해 있음)(만약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위의 링크가 안 열릴 경우 구글 지도로 접속해서 “그레이브젠드”를 검색하면 런던 주변 지도가 나옵니다.)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시작)

왜냐하면 만약 저 쪽(‘밀고자’와 ‘경찰들’)에서 낌새를 챌 경우 ‘그레 이브젠드’(항구)에서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템스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시각에(썰물 때에) 외국의 증기선들이 런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썰물 이전에’(=외국 증기선이 움직이기 이전에) 강을 따라 내려가 있다가 지나가는 배 한 척에 우리의 보트를 댈 수 있을 때까지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계획이었다.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외국의 증기선이 우리가 숨어 있을 장소를 지나갈 시각쯤이야 사전에 조사만 해둔다면 우리가 그 시각을 거의 완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알림 : 이후 『위대한 유산』의 주된 무대가 ‘그레이브젠드’(런던 동쪽에 있는 항구)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데 -\_-;;; 여하튼 꼭 지도로 위치를 대충이라도 확인하셔야 이후 이 소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위의 지도 클릭~ 위치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_-+...)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도 이 모든 것(=주인공의 의견 = 강 하류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외국 증기선에 배를 대 탄다)에 동의했다. 우리는 아침을 빨리 먹은 후 즉시 외국 증기선들의 운행시 간을 조사하러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알았다. ‘함부르크’(독일 최대의 항구도시)로 가는 배가 우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함을 우리는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주로 그 배 쪽으로 기울었다.

물론 동시간대에 런던을 출발하는 외국 증기선들의 목록들도 잊지 않고 수첩에 적어두었다. 우린 증기선들의 모습과 색깔을 알게 된 것에 만족했다.

그런 다음 우린 몇 시간동안 헤어져, 나는 필요한 여권들을 한꺼번에 챙기러 가고, 허버트는 스타톱의 하숙방으로 찾아가 스타톱(주인공 들보다 1살이 많음. 주인공의 동료)을 만났다.

우리 둘 다 어떤 방해도 없이 애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오후 1시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린 우리가 거든 성과에 대해 서로 에게 보고했다.

나로서는 여권들을 준비한 상태였고, 스타톱은 허버트에게서 “합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란 말을 들은 상태였다.

그래서 허버트와 스타톱이 한 쌍이 되어 보트의 노를 젓기로 하고 나는 키(보트의 방향)를 잡기로 했다. 그리고 우린 프로비스(59세, 죄 수)는 착석 자(앉은 사람)가 되어 조용히 있게 하기로 결정했다.

속도는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 날 저녁엔 허버트가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에 들렀다가 저녁을 먹으로 집으로 오기로 정했다. 대신 내일 저녁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엔 절대 허버트가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정했다.

수요일 출발 당일 우리의 보트가 접근하는 것이 보이는 정확한 시각에 프로비스가 숙소 옆에 있는 배를 끌어올리는 곳까지 올 수 있도록 허버트가 준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모든 채비(준비)는 월요일 밤에 프로비스와 합의를 보아야하며, 월요일 이후부터 프로비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를 보트에 태울 때까지는 우리와 전혀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방조치들을 충분히 주지한 후(이해한 후) 나만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숙소의 덧문(문 바깥에 덧붙여 다는 문)을 내 열쇠로 열자마자, 나는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에게 온 편지였다. 표면이 아주 지저분한(더러운) 편지였다. 비록 글씨체는 악필이 아니었 지만 말이다.

내가 집을 나선 후 사람 손으로 배달 된 편지인 것 같았다. 편지에 담긴 내용은 이러했다.

〈 오늘 밤이나 내일 밤 9시에 ‘늪지대’(주인공 시골 마을 뒤편에 있는 늪지대)로 오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고, ‘석회 굽는 가마’ 옆에 있는 ‘작은’, 수문지기의 ‘집’에 오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만약 당신의 삼촌인 프로비스(59세, 죄수의 이름)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체 없이 오는 것이 좋을 것이오. 혼자 와야 하오. 이 편지를 가지고 오시오.〉

※ 부연설명 (복‘선’에 관하여)

(“늪지대”란 단어는 『 위대한 유산 』 이란 소설의 복선입니다. 주인공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편에 있는 넓고 안개 낀 늪지대를 “올가 미”라고 부릅니다.

위 편지의 내용은 “2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잠시 정리합니다.

2장 발췌 → “우리 시골에서는 ‘늪지대’를 항상 ‘올가미’이라고 불렀다.”

앞뒤설명 : 주인공이 정말 일생일대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늪지대입니다. “올가미”란 단어는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복선들 중 하나입니다.)

[참고 (굳이 2장을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

2장 해당 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10184997297> (검색일자 : 2015-02-07)]

(다시 본문 해석 계속 시작)

이 낮선 편지를 받기 전에도 내 마음 속에는 근심이 가득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식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내가 빨리 결심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시골로 내려가는 오후 마차를 놓칠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 마차를 잡아탄다면 적어도 오늘(월요일) 밤 9시까진 내려갈 수 있었다.

내일(화요일) 밤에 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되면 밀항을 위한 도피 시각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잘은 모르겠지만 들려주겠다는 그 정보가 우리의 탈출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정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랐다.

만약 내게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숙고를 더 해 보았다하더라도 나는 분명 시골로 내려갔을 거라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시계를 보니 30분 후면 마차가 출발할 시각이었다.

나는 당연히 내려가선 안 되었다. 하지만 내 아저씨 프로비스(59세, 죄수)와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웨믹의 편지도 받았고 아침부터 바삐 채비를 한 것이 형세를(시골로 내려가 보겠다는 주인공의 결심을) 결정적으로 만들다.

극단적으로 서두를 때는 어떤 편지가 되었든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이 이상한 ‘서한’(=편지=시 같은 느낌이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편지)을 두 번이나 읽어야 했다. 그런 후에야 편지 내용을 비밀로 해야 된다는 편지 속 권고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

동일한 기계적 방식에 따라 나는 연필로 메모 한 장을 허버트에게 남겼다.

〈 허버트 나야,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야하고 얼마나 외국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서 나가기 전에 미스 해비샴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보려고 급하게 내려갔다 오기로 결심했어. 〉

그런 다음 가까스로 내 외투를 걸치고 가까스로 숙소 문을 잠그고 좁은 뒷길을 통해 역마차(=승합마차=시외버스) 매표소로 향했다.

만약 전세마차(택시)를 타고 거리를 지났더라면 역마차 시간에 맞추지 못할 뻔했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터미널에서 나오는 역마차를 간신히 잡아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신 차렸을 때, 역마차 안에 손님이라곤 나뿐이었다. 게다가 내 몸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밀짚(말 먹이) 속에서 끊임없이 덜컹거리고 있었다.

편지를 받은 이후부터 나는 평상시의 내 자신이 정말이지 아니었다. 아침부터 허겁지겁 서두른 이후 뒤따른 편지라 너무도 당황스러웠던 것이다.

그 날 아침의 서두름과 소동은 엄청났다.(부연설명 : 주인공은 이 날 아침에 웨믹으로부터 1통의 편지를 받았고 오후 늦게 다시 1통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웨믹으로부터 소식을 너무도 오랫동안 갈망해왔었기 때문에 그가 보낸 편지에 담겼던 암시도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건 그거고(-\_-) 나는, 내가 왜 마차 안에 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놀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마차에 타고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즉시 마차에서 내려 귀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쨌든 발신인의 이름이 안 적힌 그 편지에 주의를 기울인 것에 대해 내 자신을 헐뜯기 시작했다. 서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그러한 부정(아님)과 주저함의 모든 단계들을 나는 통과(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프로비스(59세, 죄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내린 결론이었지만, 만약 이 것도 추론(생각)이라면, ‘혹시라도 내가 가지 앉아 프로비스에게 어떤 위해(위험)가 닥칠 경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 겠는가!’라는 결론을 나는 내렸던 것이다.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날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바깥 풍경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왼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여서 마차가 정류장에 멈추었을 때도 마차 안에만 있었다. 내게 이번 여행은 길고도 처량한 여행이었다.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마을 인근에 있는 ’읍내 여인숙‘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을 피한 나는 읍 아래에 있던 그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여인숙에 묵었다. 그리고 약간의 저녁을 주문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나는 ‘새티스 하우스’(미스 해비샴의 저택. 읍 외곽에 있음)로 가 그녀의 면회를 요청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이 매우 안 좋았다. 비록 외관상은 전보다 나아보였지만 말이다.

내가 묵은 여관은 한때(옛날에) 고대의 교회 건물 중 일부였다. 식사는 여관 휴게실에서 했는데, 휴게실이 약간 8각형이라 꼭 세례용 물을 담는 그릇 같았다.

팔이 불편해 내 스스로는 고기를 썰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이 지긋한 가게 주인이 대신 썰어주었다. 그의 머리는 어찌나 대머리든지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나대신 고기를 썰어주는 동안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내 자신의 이야기(주인공의 성공 스토리 즉 유산 상속 사건은 이 지역에선 지방신문에 까지 나왔을 정도로 유명함)로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쓸 만큼 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펌블추크(능청맞은 잡곡상임, 72세 / 주인공은 펌블추크 씨를 몹시 싫어함 / 주인공을 우습게보다가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상전 모시듯 하기 때문임)가 내 초기의 은인이며 내 성공의 기초 설계자라는 통속적인(널리 알려진) 지방신문기사 내용 그대로였지만 말이다.

“그 젊은이를 아십니까?”라며 내(23세)가 물었다.

“그를 아냐고요!”라며 여관 주인장이 흥겨워하며 말했다. “알다마다요. 그 청년이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봐 왔는걸요.”

“그가 언제고 이 고장에 다시 돌아 온 적이 있습니까?”

“아하, 그가 오고 말 곱쇼.”라며 여관 주인장이 말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들을 찾아오는 뎁쇼. 때때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그 분께는 쌀쌀맞게 대한다고 하더군요.”

“그 분이라니요?”

“왜 있잖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라며 여관 주인장이 말했다. “펌블추크 씨 말입니다.” (부연설명 : 펌블추크 씨는 능청맞은 잡곡상임, 72세. 주인공은 펌블추크 씨를 몹시 싫어함. 주인공을 우습게 보다가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상전 모시듯 하기 때문임)

“그 청년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모든 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요.”라며 여관 주인장이 대꾸했다. “하지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일 입쇼. 왜냐 굽쇼? 펌블추 크(능청스런 잡곡상, 72세)가 그 젊은이를 위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입죠.”

“펌블추크란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나굽쇼!”라며 여관 주인장이 응답했다. “그에겐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숍.”

“그러니까 그도 그렇게 말하던 가요?”

“만약 그가 설명하는(‘일러바치는’이란 의미도 있음) 것을 듣는다면 어느 누구의 피든 그냥 확 ‘백포도주 식초’(=화이트와인 비네거=발효 ‘식초’를 말함)로 변하고 말거니까요.”

나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58세, 주인공 매형의 이름. 나이차이가 많이남), 사랑하는 조, 당신만은 자랑하지 않지. 인내심이 강하고 애정이 깊은 조, 당신만은 내게 어떤 불평도 하지 않지. 그리고 너, 마음씨 고운 ‘비디’(현재 30세, 주인공이 런던으로 상경하면서 찬 여자) 너도 그 렇고!’

“사고(사건 사고 할 때의 ‘사고’)가 식욕에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라며 여관 주인장이 내 외투 아래에서 붕대에 감겨 있는 왼쪽 팔을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부드러울 때 한 입 드셔 보십시오.”

“아, 사양하겠습니다.”라며 내가 테이블 쪽에서 벽난로 불 위쪽으로 방향을 바꿔 불을 째며 말했다. “더 이상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식은 치워주셔도 됩니다.”

조(58세, 주인공의 매형)에 대한 내 배은망덕함에 대해 오늘 만큼 이토록 뼈저리게 내 자신이 인식된 적이 없었다. 비록 그것이 뻔뻔스럽고 철면피 같은 협잡꾼(사기꾼) 펌블추크(능청스런 잡곡상, 72세)를 통 해서였지만 말이다.

펌블추크가 내게 위선을 떨면 떨수록 조는 내게 더욱더 진실했고, 펌블추크가 내게 비굴하면 비굴할수록 조는 고결하고 또 고결하게 나를 대해주었다.

벽난로의 불을 한 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유심히 쳐다보는 동안 내 심장은 철저히 그리고 너무도 마땅히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있었다.

그때 벽시계가 갑자기 울리는 바람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울과 양심의 가책에서 내가 깨어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목 둘레로 내 외투를 다시 고정시킨 후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예비적으로 그 편지를 호주머니 속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목적지로 향하기 전에 편지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었다. 아마도 역마차 안에 있던 밀짚더미들 속에 떨어뜨리고 왔음이 틀림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불안해졌다.

하지만 약속장소가, ‘늪지대’(주인공 시골 마을 뒤편에 있는 늪지대) 위 ‘석회 굽는 가마’ 옆에 있는 ‘작은’, 수문지기의 ‘집’(=약속장소)라는 사실과 약속시간이 오후 9시라는 것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던 바였다.

나는 이제 곧장 늪지대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기서 꾸물거릴 시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유산**

**53장**

어두운 밤이었다. 담으로 에워싸인 읍 지역을 떠나 늪지대로 들어섰을 땐 비록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지만 어두운 밤이었다.

비록 늪지대의 어두운 선 너머로 안개가 끼지 않은 한 줄기 맑은 하늘이 보였지만 거대하고 붉은 달을 품기에는 가혹하리만치 폭이 충분히 넓지 못했다.

몇 분 후 보름달은 그 안개 끼지 않은 맑은 영역에서부터 상승해 위로 차곡차곡 쌓여 있던 엄청난 구름들 사이로 올라가 버렸다.(그래서 어두운 밤이었다는 얘기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_- 이렇게 길게 묘사를 하다니 -\_-)

우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늪지대는 말 그대로 쓸쓸함 그 자체였다. 이 장소에 처음 오는 사람도 우울한 바람과 쓸쓸한 늪지대를 견딜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나에게 조차도 그 바람과 늪지대는 너무 가혹해서 난 되돌아갈지 말지를 망설일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이골이 난 곳이었고 이보다 훨씬 더 어두운 밤하늘 아 래에서도 지나간 적이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이미 늪지대까지 와서 되돌아갈 핑계가 없었다.

그래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여기까지 왔듯이 나는 또 내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아갔다.

내가 나아가는 방향은 내 옛 고향집이 있는 방향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7살 때 조와 웹슬 씨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죄수들의 뒤를 쫒으며 나아갔던 방향도 아니었다.

내 등은 폐선이 된 감옥선 선체 쪽을 향해 있었고 나는 그 반대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비록 모래톱(모래가 깔린 큰 벌판)들 위 저쪽 멀리 떨어진 낡은 등대에서 불빛들이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어깨 너머(뒤에서 비침)로 보일 뿐이었다.

포병부대가 버리고 간 ‘오래된 포대’를 내가 잘 아는 만큼이나 나는 ‘석회 굽는 가마’도 잘 알고 있었다. ‘오래된 포대’와 ‘석회 굽는 가마’ 사이에는 수 킬로미터의 간격이 놓여 있었다.

그러하므로 그날 밤에 불빛이 각각 두 지점에서 타고 있었다면 두 개의 밝은 점들 사이에는 가느다랗고 ‘휑뎅그렁한’(텅 비어 허전한) 지평선 한 줄만이 길게 있었을 뿐일 게다.(뭔 소리?????-\_- 가끔씩 내가 해석해 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음. 어쨌든 쏴리~)

나는 우선 몇몇 문들로 들어가 문을 뒤로 닫아야했으며, 때때로는 뚝 위 좁은 길에 누워 있는 가축들이 일어나 잔디와 갈대들 사이로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동안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늪지대 전체가 온통 내 차지인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로부터 또다시 30분이 더 지나서야 나는 ‘석회 굽는 가마’ 가까이로 접근할 수 있었다.

석회는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은 냄새를 풍기며 굼뜨게(느리게) 타고 있었지만 가마의 불은 완성된 채 내버려 둔 상태였다. 주위에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매우 가까이에 작은 채석장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 앞에 곧장 있었으며 그날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았다. 채석장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 도구들이며 수레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구덩이(채석장)에서 늪지대 높이까지 좁고 조잡한 길이 나 있었는데 따라 올라가 보니 익숙한, 수문지기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나는 걸음을 재촉해 다가간 다음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약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 수문(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시설물)이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고 타일(사각형 기와 같은 거)을 붙인 지붕으로 된 이 목조 집은 머지않아 폭풍우 한 방에 날아갈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챘다. 물론 지금이라도 당장 쓰려질 것 같은 집이였지만 말이다. 집 주변 진흙이나 ‘개흙’(늪 바닥의 흙)은 석회로 덮여 있었고, 석회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숨 막히는 연기가 내 쪽으로 유령 같은 움직임으로 기어 나오고 있는 것 등등을 알아챘다.

여전히 집 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다시 노크를 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의 ‘걸쇠’(문에 거는 ‘ㄱ’자 모양의 쇠) 를 열 수 있는지 시도해보았다.

내 손에 걸쇠(‘ㄱ’자 모양의 쇠)가 솟구치면서 문이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켜져 있는 촛불 하나가 식탁 위에 있을 뿐이었다. 긴 의자도 있었고 바퀴 달린 낮은 침대틀 위엔 ‘매트리스’(침대요)도 보였다.

그 위로 다락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 쪽을 향해 “거기 누구 안 계 세요?”라고 외쳐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내 회중시계(작은 시계)를 쳐다보곤 9시가 지났음을 알게 되었 다.

내가 다시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 안 계시냐고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문 밖으로 다시 나와 이제 어떻 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계속해서 비가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미 본 가구들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집안으로 다시 들어가 문간(출입구)에 서서 비를 피한 채 어둠 속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얼마 전까진 누군가가 여기 있었음이 틀림없으며 곧 되돌아올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촛불이 켜져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양초의 심지가 긴지 짧은지? 라도 봐둘까?’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 다.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 몸을 돌려 손으로 초(양초)를 집어 들었다. 그때 어떤 폭력적인 가격에 의해 촛불이 꺼졌고, 그리고 내가 파악한 그 다음 일은 뒤에서부터 내 머리 위로 던져진 당기면 죄어지는 억센 올가미 속에 내가 갇혀버렸다는 것이다.

(53장을 읽을 때의 주의사항 : 53장은 주인공이 엄청 힘이 센 악당에게 올가미(줄)로 결박당하는 장면 묘사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_- 아래 글을 건너 띄고 읽으셔도 되니까요. 어쨌든 이번 53장은 읽는 분들에 따라 편히 읽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후 해석이 계 속될 53장은 어떤 문장은 읽고 어떤 문장은 건너뛰면서 읽으세요~ 제 말인즉슨 “53장 아래 글은 부담되면 건너뛰고 읽으셔도 됩니다.”입니다.)

“이제야,”라며 누군가가 욕설 섞인 말을 소리 죽여 말했다. “이제야 걸려들었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라며 내가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이런! (밖을 향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올가미 때문에 내 양 팔이 내 옆구리 쪽으로 끌어당겨졌을 뿐만 아 니라, 내 아픈 왼쪽 팔까지 압박을 받게 되어 격심한 아픔이 느껴졌다. 때때로 어떤 남성의 완강한 팔이, 이따금씩은 남성의 가슴이 내 입을 막으며 내 비명 소리를 약하게 했다. 열기 나는 숨을 계속 가까이로 느끼며 나는 내 몸이 벽에 단단히 매어지는 동안 어둠 속에서 효과

적이지 못한 몸부림만 쳐대고 있었다.

“자,”라며 누군가가 욕설 섞인 말을 소리 죽여 말했다. “한 번만 더 외쳐봐라. 순식간에 해치우고 말테니까!”

너무 놀라 당황하고 상처 난 왼팔에서 오는 고통으로 아프고 거의 기절할 것 같았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의식했다.

나는 저항을 단념하고 어쨌든 팔이라도 좀 더 안 아프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올가미는 너무도 단단히 매어있었다. 마치 내 팔이 불타기 전에 지금 삶아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갑자기 밤이 차단되고 대신 그 자리에 껌껌한 어둠이 자리한 것을 보고 나는 그 남성이 덧문을 닫은 것을 직감했다.

잠시 동안 손으로 여기저거를 더듬던 그는 자신이 찾던 부싯돌(라이 터)과 부시(쇳조각)를 발견하곤 불을 켜기 시작했다. (불을 붙이려면 ‘부싯돌’과 ‘부시’를 쳐 불똥이 튀면 ‘부싯깃’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성냥에 불을 붙여 방안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면 됩니다. 촛불 완성~) 나는 부싯깃(불이 잘 붙는 물건. 쑥의 잎이나 종이나 솜 같은 거) 사

이로 떨어지는 그 불똥들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가 성냥을 들고서 부싯깃(쑥의 잎이나 솜) 위에 숨을 불어넣고 또

불어넣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의 두 입술과 성냥의 푸른 점만 보일 뿐이었다. 심지어 그것들조차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를 반복하며 보였다.

부싯깃은 습기 찬 상태였다. 이곳 늪지대에선 이상할 것도 없었다. 잇따라 불똥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져갔다.

그 남성은 서두르지 않고 부싯돌(라이터)과 부시(쇳조각)를 다시 부딪쳤다. 다시금 부싯깃(불이 잘 붙는 물건. 말린 쑥의 잎이나 종이나 솜 같은 거) 사이로 굶고 밝은 불똥들이 그의 주위로 튀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두 손과 얼굴의 흔적을 보고 그가 앉은 자세로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내 곧 성냥의 푸른 점이 보였고 그가 다시 부싯깃(말린 쑥의 잎) 에 숨을 불어넣었고 그런 다음 성냥 불빛이 확 타오르더니 그 자리에 ‘올릭’(42세, 과거 대장장이였었음. 괴력의 소유자. 사악한 악당임. 농 담 아님-\_-)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내가 바랐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만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대단히 위험한 곤경에 쳐했음을 직감했다(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매우 조심해가며 성냥불로 초에 불을 붙인 후 성냥을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서 분질러버렸다.

그런 다음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는 촛불을 들어 자기와 반대쪽 편에 좀 떨어뜨려 놓은 후 식탁 위에 팔꿈치를 댄 자세로 팔짱을 낀 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벽으로부터 한 뼘 정도 떨어진 단단한 고정식 수직 사다리에 붙들어 매어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사다리는 그곳 시설물 중 일부라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야,” 아까부터 서로가 서로를 관찰한 후 올릭(42세, 괴력의 소유자. 사악한 악당임)가 말했다. “이제야 잡았다 이놈!”

“날 풀어줘. 가게 해 달란 말이야!”

“허!” 그가 대답했다. “걱정 마라 영원히 보내 줄 테니까. 달나라로 보내주랴? 별나라로 보내주랴? 곧 그리 해주지.”

“날(23세, 주인공) 여기까지 유인한 이유가 뭐야?” “몰라서 묻나?” 그가 사늘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도대체 나를 어둠 속에서 공격한 이유가 뭐냐고?”

“내 자신이 해치울 생각이니까. 한 놈이 해치우는 게 두 놈이 해치우는 것보단 비밀을 지키기가 좋으니까, 이 이 원수 같은 놈아! 너는 내 원수야!”

내가 줄에 묶인 광경이 즐거운지 그는 식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는 내 쪽으로 고개를 흔들어 보이며 놀릴 기도 하고 좋아 죽겠다며 자기 자신을 두 팔로 끌어안아 흔들기도 했는데 그런 행동들에 담긴 악의(나쁜 의도)가 나를 와들와들 떨리게 만들었다.

내가 말없이 그를 지켜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손을 자신의 옆쪽에 있는 구석으로 가져가 ‘테두리가 놋쇠(=구리+아연)로 보강된 총 한 자루’를 집어 들었다.(올릭은 미스 해비샴의 수위 일을 할 때도 벽에 총을 걸어두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올릭의 총은 29장을 참조바람. <http://blog.naver.com/osy2201/220088111802> 검색일자 : 2015-02-10)

“(총을 내보이며) 어이, 이게 뭔지 보이지?” 마치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듯 올릭(42세, 악당. 올릭은 주인공의 친누나를 죽게 만든 장 본인입니다.)이 말했다. “전에도 어딘가(미스 해비샴의 수위실 벽)에서 본적 있을 텐데. 어서 말해봐. 이 색마(이리) 같은 자식아!”

“그래 봤다.” 내가 대답했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지. 이놈. 어서 말 못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랐냐?”

“그래 넌 그랬지, 네 놈이 한 짓이었어. 그거면 충분해, 더 이상 필요 없어. 감히 내가 좋아하던 아가씨(주인공이 런던으로 상경하기 전에 차버린 ‘비디’라는 아가씨를 말함)와 나 사이에 네 놈이 끼어들어?”

“내가 언제?”

“뭐 ‘내가 언제?’라고. 넌 그녀 앞에서 항상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녔어.(넌 그녀에게 나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고 다녔어.)” (앞뒤 설명 : 올릭은 비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올릭이 워낙에 행실이 나빠 비디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주인공이 올릭에게 싸우려고 덤벼들려하자 비디가 “이건 네가 나설 일이 아냐”라고 말했고 그게 주인공과 비디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어 주인공은 런던으로 신사교육을 받기 위해 가벼렸음)

“먹칠은 네 자신이 직접 한 거잖아. 모두 당신 자신이 한 일이었던걸 몰라. 만약 네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면 나도 네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질 못했을 거야.”

“이 거짓말쟁이, 이 사기꾼아, 나(42세, 올릭=악당)를 이 고장(마을)에서 몰아내기 위해선 어떤 수고(노력) 어떤 돈도 쳐 바르겠다고 네 놈이 그랬었잖아, 어디 내 말이 틀려?”

그건 내가 비디(여자이름)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비디에게 되풀이하며 들려주었던 말이었다.

“자, 이제 내가 잘난 네깟 놈에게 지식 하날 전수해주지. 나를 이 고장에서 몰아내려는 너의 그 시간과 노력이 오늘 밤만큼 가치 있을 날도 없을 거란 거다. 아아! 나를 몰아내는데 네 놈의 돈 모두보다 수만 배가 더 들지라도 넌 ‘내 마지막 남은 옆 전(옛날 동전) 한 닢까지 올릭을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겠다.’라며 떠벌리고 다닐 놈이야!”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처럼 그가 입으로 으르렁거려대며 나를 향해 커 다란 자신의 손을 휘둘려대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주인공이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올릭을 몰아냈을 거란 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지?”

“오늘,”라며 가능한 한 최대의 힘으로 사정없이 식탁을 내려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반동을 이용해 그가 식탁을 자신의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네 놈의 멱(목숨)을 따 버리겠다!”

올릭(42세, 악당)은 나를 노려보며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는 쥐었던 자신의 손을 천천히 풀더니 마치 그 입이 나 때문에 군침이라도 흘리는 듯 자신의 입을 스윽 닦았다.

그리곤 다시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네 놈이 아이였을 때부터 넌 항상 이 올릭(이름) 어르신이 가시는 길에 방해물이었어. 오늘 밤 부로 어르신의 앞길에서 사라지게 해주마. 어르신은 앞으로 더 이상 너라는 방해물을 만나지 않게 될 거다. 왜냐고? 넌 내 손에 죽을 테니까.”

내가 무덤 직전(앞)까지 들어왔음을 느꼈다.

잠시 동안 나는 미친 듯 어떤 탈출의 기회라도 찾을 수 있는지 알아 보려고 나를 묶고 있던 올가미(줄) 주변을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떤 희망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다.

“그에 더해서,” 올릭(42세, 주인공)이 식탁위에 다시 팔꿈치를 올려 놓으며 팔짱 낀 자세로 말했다. “난 네 놈의 옷 한 조각도 그리고 네 놈의 뼈 한 조각도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을 테다. 내가 네 놈의 시체를 가마(석회를 태우는 가마)에 쳐넣고 말거니까. 너 같은 놈은 두 명 이라도 내 두 어깨 위에 지고 가마까지 나를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숯덩이가 된 너에 대해 뭣대로 생각하게 내버려두마. 그게 너란 걸 절대 알지 못할 테니까.”

이와 같은 죽음의 결과가 가져올 모든 것들을 내 정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끝까지 추적했다.

에스텔라의 아버지(58세, 프로비스=죄수)는 내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며 결국 경찰들에게 붙잡혀 나를 원망하면서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다.

심지어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조차도 내가 그에게 남긴 ‘편지 내용’과 내가 단지 잠깐 동안만 미스 해비샴의 정문 앞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비교해가며 나를 의심해볼 것이다.

조(58세, 주인공의 매형)와 비디(30세, 여자이름)는 오늘 밤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미안해했었는지를 절대 알지 못할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진실되고자 마음먹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 못할 고통들(에 스텔라를 사랑한 것. 그리고 그녀가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 을 경험해왔는지 절대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 닫친 죽음은 끔찍했지만 그 죽음 이후 사람들이 나를 잘못 기억할 것을 생각하니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내 사색(생각)은 너무도 빨라 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아이들의 세대)에 의해 내 자신이 경멸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에스텔라의 아이들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죄다 나를 경멸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색(생각)들은 이 악마 같은 인간(42세, 올릭=괴력의 사나 이=사악한 악당)이 내뱉은 단어들이 아직 그의 입술 위에서 채 떠나기도 전에 다 이루어졌다.

“자, 이 이리 같은 놈아,”라며 그가 말했다. “네 놈을 어떤 다른 짐 승들처럼 죽이기 전에, 이러는 게 내 원래 의도였지 그리고 네 놈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묵어 놓은 이유이기도 해, 난 네 놈이 죽을 때까지 못살게 굴 작정이다. 그리고 그걸 즐겁게 지켜봐줄 작정이야. 알겠냐?, 오, 이 원수 같은 자식아!”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비명을 질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건 바로 그때였다. 비록 어느 누구보다 이 장소(늪지대에 있는 석회 굽는 가마)가 원래 외진 곳이며 도움을 받을 희망이 전혀 없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가 올가미(당기면 죄어지는 억센 ‘줄’)에 묶인 내 모습을 흡족한 듯 바라보며 앉아 있는 동안만은 어쨌든 나도 그에 대한 경멸스러운 혐오 때문에 내 두 입술을 꽉 깨물며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올릭(42세, 사악한 악당이자 괴력의 사나이)에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빈약하나마 내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그에게 저항하다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올릭(악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내 사고(생각)는 내가 하느님께 초라하나마 간절히 용서를 빌만큼이나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과 이제 나를 사랑해준 이들에게 어떠한 작별인사도 건넬 수 없으리라는 생각과 그들에게 내 자신을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내 빈약한(비참한) 실수들에 대해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구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내 감정이 내심은 누그러뜨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다면 그래 심지어 내가 죽어가면서 조차도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못했다는 의미임).

그는 막 술까지 마셨던 상태라 그의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 되어 있었다. 그는 싸구려 술병을 목둘레에 둘러맨 상태였고, 그는 전에도 몸 여기저기에 자신이 먹을 고기며 술을 치렁치렁 걸고 다녔더랬다.

그가 입술로 술병을 가져가 불같은 술을 한 모금 적셨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의 얼굴에서 강렬한 술기운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냄새로 느낄 수 있었다.

“이 이리 같은 자식아!”라며 그(올릭)가 또 다시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 ‘올릭’(42세, 사악한 악당이자 괴력의 소유자이며 주인공의 친 누나를 다치게 해 죽인 장본인) 어르신께서 네 놈 같은 것에게 한 말 씀 하겠다.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던 네 누나를 죽게 한 건 바로 너야.” 좀 전과 같이 내 정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내 누나가 뒤 에서 쇠수갑으로 가격을 당한 일이며, 이후 불구가 된 일이며, 죽게 된 일까지”의 전(모든) 문제를 힘껏 연구했다. 이건 그가 느리고 주저주저(더듬더듬) 내뱉은 말들이 채 문장을 완성 짓기도 전에 끝마쳐졌

다.

“이 더러운 자식아, 그건 너 때문이었어.”라며 내가 소리 질렸다.

“내 말해주지, 그건 네 놈이 벌인 짓이었어. 왜 못 들었냐? 내 똑똑히 말해두지. 그건 네 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라며 그(=올릭=사악한 악당=42세=괴력의 사나이)가 반박하더니 느닷없이 총을 집어 올리고는 총의 개머리판(넓적한 부분)으로 우리(주인공과 올릭) 사이에 놓인 빈 허공을 한 번 세차게 후려 갈겼다.

“알겠냐? 난 네 누나를 뒤에서 따라잡았지, 오늘 밤 네 놈을 뒤에서 따라잡았듯이 말이야, 그리곤 이렇게 후려 갈겼다! 이렇게! 그 후 그녀가 죽게 방치해두었지, 만약 지금 네(24세, 주인공=파산 직전의 런던 신사) 가까이에 석회 굽는 가마가 있는 거리만큼이나 그녀 가까이에도 석회 굽는 가마가 당시 있었다면 그녀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벌인 건 이 올릭 어르신이 아냐 바로 너였어. 네 놈은 온갖 호의(친절)를 받고 있었지만 당시 난 네 놈의 매형에겐 패대기를 당하지 않나 잔소리 대마왕인 네 누나로부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나. 어? 올릭 어르신이 누구신데, 어? 그깟 것들에게서 패대기를 당하고 못살게 잔소리를 들어야해. 내가 누군데. 이제 네 놈은 벌을 받는다. 네 놈이 저지른 온갖 악행에 대해 이제 네 놈이 죄값을 치르는 거야.”

올릭(42세, 사악한 악당)이 다시 술로 입술을 적셨다. 그에게서 더욱더 잔인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술병을 뒤로 젖히는 것을 보고 술병 안에 술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음을 알았다.

나를 죽이기 위해 술로 자기 자신을 북돋우고 있음은 이제 의심할 나위도 없었다.

그 술 한 방울 한 방울에 내 생명도 한 방울 씩 담겨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마에 넣어져, 내게 조심하라고 일깨워주려던 유령인 마냥 조금씩 내 쪽으로 기어나오던 증기(가마의 연기)의 일부분으로 내가 변 해버렸을 땐, 그는 내 누나를 해쳤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읍내로 몹시 서둘러 내려가 여기 저기 선술집들에서 술을 마셔대며 구부정한 걸음 걸이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 것이다.

내 빠른 정신은 그가 읍내(마을)로 내려가는 것을 뒤쫓았고 읍에서 그가 걸어갈 거리의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 “거리의 조명들과 활기”를 나를 녹여버릴 증기 그리고 이 외진 늪지대와 그 늪지대 위를 살금살금 기어갈 탁하고 흐릿한 “흰색 증기”와 대조해보았다(비교해보 았다). (“자신의 처지와 올릭이 자신을 처치하고 내려가 활개 치며 돌 아다닐 거리의 화려함과 비교해보았다”는 의미임)

올릭(42세, 사악한 악당)이 기껏 몇 마디를 하는 동안 나(23세, 주인공)는 지난 십 수 년을 압축해 파악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들은 내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림을 보여주었다.

뇌가 들뜨고 자극받은 상태에서 나는 어떤 장소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든 내가 생각하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선명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줄곧 올릭 그 자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호랑이가 몸을 웅크리며 자신에게로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으랴! 나는 그의 손가락 끝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들까지도 죄다 파악하고 있었다.

올릭(42세, 괴력의 소유자이자 사악한 악당)은 두 번째로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이 앉아 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나 식탁을 옆으로 밀어제쳤다. 그런 다음 그는 초(촛불)를 집어 들더니 초의 불빛을 내게 보내기 위해 그 흉악한 손으로 초를 그늘지게 만들며 내 앞에 와 서서는 나를 쳐다보며 올가미에 묶여 있는 내 모습을 즐겼다.

“이 색마(이리) 같은 자식, 내가 하나 더 알려줄까. 그날 밤 네 놈의 하숙집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게 바로 나, 올릭 어르신이다.” (주인공과 프로비스가 외국으로 밀항하려는 것을 감시한 게 자신이라는 의미임)

내 눈에 램프(등불)들이 끄진 그 계단들이 보였다. 수위가 내민 랜턴 (손전등)이 벽에 그리운 그림자들, 계단의 난간들의 그림자들이 수위가 내민 랜턴에 의해 벽에 그리운 그 그림자들이 내 눈에 보였다.

나는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예전 내 하숙방이 보였으며 여기 이 반쯤 열린 문 저긴 반쯤 닫힌 문 그리고 사방으로 있는 가구류들이 죄다 보였다.

“왜 이 ‘올릭’(42세, 괴력의 소유자이자 사악한 악당) 어르신께서 그 곳(주인공의 하숙집 건물 내부 계단)에 계셨냐고? 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해주지, 이 색마(이리) 같은 자식아. 이 고장에서 편히 사는 것에 관해서라면 네 놈과 그녀(미스 해비샴)는 나를 이 고장에서 꽤 잘 쫓아버렸어. 하지만 나도 새로운 짝패(사기꾼이나 깡패들)들과 어울리게 되었지. 새로운 주인들과도 친해졌고 말이야. 그들 중 몇 명에게 부탁해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들이 내 편지를 대신 써주더란 말이지, 듣고 있냐? 이 색마(이리) 같은 자식아, 그들이 내 편지를 대신 써주더라고! 그들(가짜 서류 만드는 사람들)은 50개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 그 들은 도둑 놈 근성이 있는 네 놈과는 달라 네 놈이야 기껏 한 가지 글 씨체로만 쓰지. 색마(이리) 같은 네 놈이 네 누나를 파묻으러 이곳으로 내려 온 이후부터 난 내 놈의 목숨을 거머쥘 단단한 마음과 굳센 의지를 지녀왔다. 네 놈이 도망 못가도록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었을 뿐이야, 네 놈이 들락거리는 곳들을 알기 위해 네 놈을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올릭(악당이름) 어르신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그 놈(주인공)을 잡고야 말겠다!’라고. 아니 그런데! 네 놈을 찾다가 네 놈 삼촌인 프로비스(59세, 죄수이름)를 발견 했지 뭐야, 어?”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과, 중국인들이 사는 강(템스 강) 유역, 그리고 ‘푸른 빛깔 구리를 입힌 우리(우리나라 할 때의 ‘우리’) 밧줄 공장’ 이 모든 장소들이 너무도 분명히 너무도 똑똑히 내 눈 앞에 보이는구나! 숙소에 머물고 있을 프로비스(59세, 죄수)와,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그와 우리 사이의 신호며, 귀여운 클라라(21세, 허버트의 약혼녀) 와, 그리고 친어머니 같이 허버트와 클라라를 돌봐주던 선량한 ‘윔플’ 부인(41세)이며, 그리고 벌렁 누워 있을 빌(이름) 발리(성 씨) 씨(클라 라의 아픈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내 눈 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바다로 손살 같이 내달리고 있는 내 가빠른 생명의 개울(강) 위를 떠 내려가듯이!

“흥, 너에게 삼촌이 있다고! 글쎄, 난 네 놈을 가저리(주인공의 매형) 댁(집)에서 알았다, 그때 넌 너무 작아 내가 네 놈의 식도(목)를 내 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쳐 죽일 수 있을 때였다. 사실 네 놈이 일요일 날에 가지를 잘라낸 나무들 사이로 어정거리는 것을 볼 때면 난 이따금씩 그러려고도 생각했었지. 하지만 넌 그때 어떤 삼촌도 없었어. 암, 전혀 없었지! 하지만 이 ‘올릭’(42세, 악당의 이름) 어르신께서 네 놈의 삼촌 ‘프로 비스’(59세, 죄수이름)란 작자가 실은 십 수 년 훨씬 더 전쯤에 이 올 릭 어르신께서 여기 늪지대에서 발견해 줄(쇠를 자르는 대장간 도구) 로 동강냈었던(조각조각 잘린) 족쇄(다리에 차는 수갑)를 차고 있던 자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뭐야. 물론 그때 발견해 동강냈었던 족쇄를 나는 잘 보관하고 있었지. (쥐 고 있던 총을 허공에다가 휘두르며) 이렇게 네 잔소리꾼 누나를 황소 같이 후려갈길 때까지 말이야. 이제 네 놈을 해치울 때 할 것처럼 말 이야. (주인공 표정을 즐기며) 알겠냐? (다시 한 번 주인공 표정을 즐기며) 이 올릭 어르신께서 그 소리(족쇄 얘기)를 들으셨을 때. (또 다시 주인 공을 표정을 즐기며) 알겠냐?”

올릭(42세, 사악한 악당)이 잔인하게 비웃더니, 촛불을 내 쪽으로 너무 가까이 대 나는 불에 그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깔보며) 하!” 그가 한 번 더 촛불을 내 얼굴 가까이로 대더니 비웃 으며 소리쳤다. “불에 댄 아이 부지깽이만 봐도 놀라는 꼴이군! 올릭 (42세, 괴력의 소유자이자 사악한 악당) 어르신은 네 놈이 불에 덴(화상)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네 놈이 네 삼촌이라는 프로비스(59세, 죄수)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네 놈보다 한 수 위인 올릭 어르신께선 네 놈이 오늘 밤 여기로 올 거란 것도 알고 있었고말고! 자 곧 있으면 죽을 네 놈에게 비밀을 하나 더 말해주지, 이 색마(이리) 같은 자식, 이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거다. 올릭 어르신께서 네 놈의 맞수이듯이 네 삼촌 프로비스에게도 훌륭한 맞수들이 많이 있더군. 프로비스는 자신의 조카(주인공)를 잃었을 때 그들부터 조심하는 게 좋아! 자기 조카 놈의 초라한 옷가지 하나라도 이 세상에선 건질 수 없었을 때 그는 그들부터 조심해야 할 거다! 그건 네 놈의 뼈 한 조각도 그가 찾을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매그위치, 그래 난 네 삼촌의 실명도 알고 있고말고!, 매그위치가 자기들과 함께 같은 땅(영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 어하고 견디려 하지도 않는 자들이 많이 있더군. 매그위치가 다른 땅(매그위치의 유형지=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을 때조차도 그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지. 그게 매그위치가 비밀리에 이 땅(영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며 그가 비밀리에 이 땅을 벗어나 그들을 다시 위험 속으로 몰아넣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아마 50가지의 글씨체를 쓴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지. 그들은 네 놈 같이 한 가지 글씨체만 고집하는 애송이와는 달라. (위를 바라보며) 어이 매그위치(현재 59세, 죄수이름), 콤피슨(현재 63세, 옥스퍼드대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을 조심하게! 그리고 자네가 곧 만나게 될 교수 대도 조심하고! (웃으며) 우헤헤.”

올릭이 또 다시 촛불로 나를 위협했다. 나는 얼굴과 머리카락을 그을렸다. 그리고 일순간(잠깐 동안) 눈이 멀었다. 그런 후 그가 건장한(강한) 등을 돌리더니 식탁 위 원래 자리에 촛불을 놓았다.

올릭이 다시 내 쪽으로 몸을 돌리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문을 외우며 조(매형)와 비디(여자이름)와 허버트(주인공의 절친)를 생각했다.

‘식탁’과 맞은 편 ‘벽’ 사이에는 1미터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 이 공간 사이에서 올릭(42세, 괴력의 소유자이자 사악한 악당)은 구부 정한 자신의 걸음걸이로 뒤를 향해 걸어갔다가 앞을 향해 걸었다가 반복했다.

그가 두 손을 양 옆구리에 느슨하고 서투르게 매단 체 그리고 두 눈으로는 나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거센 힘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_- 해석 참 대책 없죠~ 일단 패 쓰~).

나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날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내 마음이 미친 듯 허둥지둥 거렸을 지라도 그리고 생각 대신 내게 몰려드는 영상들의 힘이 아무리 놀라웠을 지라도 나는 아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몇 분 안에 모든 인간의 인식 밖으로 확실히 태워 없애버릴 결심을 한 것이 아닌 한 그가 절대 이제까지와 같은 말들을 내게 들려줬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갑자기 올릭이 걸음을 멈추더니 술병에서 코르크 마개를 뽑아 내던 졌다.

코르크 마개가 아무리 가벼웠을 지라도, 그것은 무거운 짐이 곤두박질치는 듯 내 귀에 들렸다.

그가 술병을 조금씩 위를 향하여 움직이면서 술을 천천히 꿀꺽꿀꺽 삼켜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올릭은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술까지 자신의 손바닥에 쏟아 부더니 죄다 핥아 먹었다.

그 다음에 돌연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그러면서 끔찍한 욕설을 내뱉 으면서 술병을 내던진 후 구부정하게 섰다. 그의 손에 길고 묵직한 손잡이가 달린 암석의 구멍을 뚫는 해머(쇄석 해머)가 들려있는 것이 보 였다.

결심했었던 바(악당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기)를 나는 버리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나는 살려달라는 헛된 애걸 따윈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비명을 지르고 온 사력을 다해 발버둥쳤다.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내 머리와 내 두 다리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던 모든 힘 그때까지 한 번도 내본적이 없던 모든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그와 동시에 응답하는 외침들이 들렸고 곧 문에 사람의 그림자들과 한 줄기 빛이 번쩍하고 실내로 들이 닫치는 것이 보였다. 뒤이어 목소 리들과 소음들이 들리고 올릭(악당이름)이 마치 출렁거리는 파도 마냥 뒤엉켜 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단번에 식탁을 확 제겨버리고는(치 우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보였다.

잠시 공백이 있은 후, 나는 몸이 풀린 채 누워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같은 장소에 있는 바닥 위였다. 내 머리를 누가 무릎으로 바치고 있었다.

내가 정신 차렸을 때 내 두 눈은 벽에 있는 수직 사다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내 정신이 그것을 사다리로 인식하기 전까지 나는 눈을 뜬 채 그렇게 사다리만 쳐다보며 누워 있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고 그제야 나는 이 장소가 내가 정신을 잃었던 장소와 동일 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도 아무렇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누가 나를 부축해주고 있는지 고개 돌려 확인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나는 그저 사다리에 두 눈을 고정시킨 채 누워 있었다.

그때 사다리와 나 사이에 어떤 얼굴이 나타났고, 그건 트랩(49세, 신 사복가게 주인) 씨 가게의 뻔뻔스런 점원(25세, 이 일대의 꼴통) 녀석이었던 것이다!

(트랩 씨 가게의 ‘뻔뻔스런 점원 녀석에 관한 글’ 19장 해당부분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220013361337> / 19장 해당부분 요약 ▶ 한 마디로 어릴 적 주인공을 골탕 먹이던 꼴통 녀석이었다는 얘기임)

“(두 눈으로는 누워 있는 주인공을 보며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쩔 시구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라며 이 망할 놈의 꼴통 자식 (26세 = 어릴 적 줄곧 주인공을 괴롭히던 꼴통 = 트랩 씨의 점원)이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공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이 말과 함께 내 머리를 무릎으로 부축하고 있던 이(사람)의 얼굴이 다시 한 번 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래서 나도 내 ‘서포터스’(후원자)의 얼굴을 볼 수… 어?….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 (기도) 오 하늘이시어!” “진정해,”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이젠 조용조용 말해도 돼, 헨델(24세, 주인공의 애칭=별명). 너무 열 내지 않아도 돼.”

“여긴 우리의 오랜 친구, 스타톱(25세, 주인공의 동료)이구나!” 그 (스타톱)가 내 쪽으로 너무 깊숙이 몸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리치며 말했다.

“스타톱이 우릴 돕기로 한 거 기억나니,”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그리니 진정해도 돼.”

그 암시(“친구가 우리들을 돕기로 한 일 기억나니?”라는 허버트의 말)가 나를 벌떡 일어서게 했다. 비록 내가 다시 내 팔 쪽에서부터 오는 강한 고통에 그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지만 말이다.

“날짜(밀항 날짜)가 벌써 지나간 건 아니니, 허버트 그렇지? 오늘 밤이 무슨 요일이지? 내가 여기 얼마 동안 누워 있었던 거니? 응?”

왜냐하면 내가 이 장소에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거라는 이상하면서도 강렬한 불안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주인공의 생각) 하루? 아님 하룻밤을 있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이틀 낮과 밤이 지난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걱정 마 날짜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직 월요일 밤인걸.” “오 감사합니다. 하느님!”

“내일 화요일 하루는 오롯이(온전히) 네 휴식을 위해서만 쓰렴.”라며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가 말했다. “말을 하면서도 계속 신음소리를 내는구나, 내 친구 헨델(24세, 주인공의 애칭=별명)아. 어디 다친덴 없니? 일어설 수 있겠어?”

“그래 만사형통이야.”라며 내가 횡설수설 말했다. “걸을 수 있는 걸. 이 욱신거리는 팔만 제외하면 별로 다친덴 없는 거 같아.”

그들(주인공의 친구 2명과 점원 1명)이 붕대를 풀어 팔을 드러낸 후 가능한 한 치료를 해주었다.

팔은 지독히도 붓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다. 그들이 만지려는 시도조차 내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이 읍내로 돌아와 내 상처 위에 바를 약간 시원한 로션(바르는 거)을 구할 수 있었을 때까지, 자신들의 목도리들로 새(새것) 붕대를 만들어 내 팔을 감싼 후 조심해가며 그것을 삼각건 안에 다시 넣어주었다.

곧 얼마 안 되어 우린 껌껌하고 텅 빈 ‘수문(강의 물길)지기 집’의 문을 닫은 후 우리가 왔던 채석장을 거쳐 읍내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트랩(49세, 신사복가게 주인) 씨의 ‘가게 점원’(26세, 이 일대의 꼴통 녀석)은 이제 너무 커서 볼꼴 사나운 젊은이가 되어 있었고 랜턴(손전등) 하나를 든 채 우리 앞에서 가고 있었다. 그것은 내 외침이 있고 곧 문에 사람의 그림자와 한 줄기 빛이 번쩍이며 실내로 들이 닫쳤을 때 내가 본 바로 그 불빛이었다.

하지만 달(해와 달 할 때의 달)은 내가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그 위치를 확인했을 때보단 거의 2시간(=각도로 30도 위) 가까이 높이 떠 있었다.

그리고 밤은 비록 비(내리는 비)를 품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마 지막으로 여길 통과했을 때보단 훨씬 더 밝아 있었다.

우리가 지나쳐가는 동안 가마(석회를 굽는 가마)에서 나오는 휜 수 증기도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었다. 올가미에 묶여 있을 때 내가 기도문을 떠올렸듯이 나는 이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나를 구출할 수 있게 도착할 수 있었는지 말해 달라고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에게 간절히 부탁한 나는, 내가 허겁지겁 숙소를 떠나다 그만 편지를 펼친 채 숙소에 떨어뜨리고 나왔다는 사실과, 귀가하던 도중 거리에서 스타톱(25세, 주인공들의 동료)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내가 숙소를 떠나자마자 곧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이런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게 돌아온 첫 번째 대답은 매정하게도 “상처가 아물 수 있게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는 대답이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들이 발견한 그 편지의 어조가 허버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특히 그 편지와 내가 그(허버트) 앞으로 남겨놓고 떠난 날려 쓴 글씨체의 편지 사이에서 오는 모순이 더욱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15분의 숙고(깊은 생각)의 시간을 보낸 후에도 그 불안함이 진정되기는커녕 가중되어 그는 스타톱(25세, 주인공들의 동료=신사교육을 같이 받은 동료들임=주인공들보다 한 살이 많음)과 함께 ‘역마차 매표소’(시외버스 종점)를 향해 출발했던 것이다.

이때 허버트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스타톱 또한 동행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함께 역마차 매표소로 가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다음 마차 편의 시간을 알아봤던 것이다.

오후 마차 편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돌부리에 채인 마냥’(-\_- 의역했는데...이런 표현이 우리말에 있나? 없나? 있겠지 있을 거야. 암. -\_-;; 음... 원문에는 “도중에 장애물을 맞닥뜨리다”라고 적 혀 있어요. 그래서 의역 함~ 멋져~) 허버트의 머리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종이 울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4륜 역마차’(4~5인승의 마차. 시외버스)를 타고 내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허버트(24세)와 스타톱(25세)은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마을 인근에 있는 ’읍내 여인숙‘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거나 적어도 내 소식에 대해 얻어듣게 되리라고 기대했었던 그들이 실제론 전혀 내 소식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들이 다음 목적지로 미스 해비샴의 저택(읍 외곽)으로 넘어갔는데(찾아갔는데) 바로 그 곳에서도 그들은 나를 찾지 못한 것이다.(부연설명 : 허버트와 스타톱이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다녀간 후 주인공이 미스 해비샴의 저택을 찾아갔던 것임)

이 결과로써 그들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늪지대 까지 자신들을 안내해줄 사람을 찾았더랬다. 이때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성공 스토리에 관해 여관집 주인장으로부터 진부한 지방 신문 기사 조의 얘기를 듣고 있을 대략 그 시각 때쯤이었을 것이다.

외설적인 수퇘지 여관 입구 아래에서 어슬렁어슬렁 걷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이 발견한 사람이 바로 트랩 씨의 점원(26세, 유명한 꼴통) 녀석이었다. 자신이 나설 권리가 없는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는 점원 녀석의 오랜 기질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트랩 씨의 점원은 내가 미스 해비샴의 저택(읍 외곽지역)으로부터 내가 식사를 할 장소 쪽(읍내방향)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트랩 씨의 점원(26세, 유명한 꼴통)이 허버트와 스타톱의 안내원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점원의 안내로 읍(마을) 뒷길을 통해 늪지대에 있는 수문지기의 집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물론 이 길은 내가 피했던 길이었다.

이제, 그들 세 사람이 길을 따라 걸아가면서도,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는 어쨌든 내(주인공)가 프로비스(59세, 죄수)의 안위(안전)를 위해 어떤 성실하고 유용한 용건을 보기 위해 이곳에 들른 것은 아닌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더랬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쑥 등장하는 것은 도움이 안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내원(점원)과 스타톱을 채석장 가장자리(끝)에 남겨둔채 혼자서만 채석장 안으로 들어가 내부 사정이 괜찮은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애쓰며 수문지기의 집 둘레를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몰래 접근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 정신이 너무 빨리 전개돼 내가 깊고 거친 음성만 그것도 희미할 정도로 밖엔 낼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허버트는 심지어 내가 집 안에 있는지 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더랬다.

하지만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곤 그도 소리쳐 내게 대답하곤 집 안으로 돌진했던 것이다. 허버트를 바짝 뒤따라 나머지 두 명도 뛰어든 것이다.

내가 허버트에게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말해주었을 때, 허버트는 비록 늦은 밤이었을 지라도 읍내 치안판사 앞으로 가 이 즉시 올릭(주인공을 죽이려던 악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 경우를 내가 생각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 될 경우 우리의 이곳 체류는 길어질 것이며 그럼 런던으로 빨리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프로비스(59세, 죄수)에게 파멸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러한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그때 올릭을 뒤쫓으려던 모든 생각을 철회했다.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보건대 잠깐 동안은 트랩 씨의 점원(26세, 유명한 꼴통)도 이번 사안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분별 있는 행동일거란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다.

확신하건대 만약 자신의 개입으로 내가 석회가마에서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느낄 실망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트랩 씨의 점원은 악의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다만 명량 쾌활 활발함이 도에 넘치다 보니 아무라도 희생시켜서라도 구경거리와 자극을 얻으려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헤어질 때 나는 그에게 ‘50만 원 짜리 수표 2장’을 사례조로 주며 “한 때 내가 자네에게 악 감정을 가졌었던 것에 대해 유감이네.”라는 말을 건네주었다. 물론 그는 나의 이런 유감 표명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고 단지 내가 건넨 수표의 액수가 자신의 당초 안내원 목적을 충족시켰다는 표정이었더랬지 만 말이다.

수요일(주인공들이 계획한 애초 밀항 출발 날짜가 이번 주 수요일 임)이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어쨌든 그날 밤 4륜 역마차 편으로 세 명 모두 런던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 날 밤의 사건이 회자되기(퍼지기) 전에 우리가 말끔히 사라져줘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했다.

허버트는 내 팔을 위해 어떤 물품을 커다란 병(약병) 체 구해왔고 나는 이 물품을 내 팔 위로 떨어뜨림으로써 밤새껏 그것도 간신히 여행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다시 템플[부연설명 : 주인공들의 숙소. 템플은 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 있는 지역임. 템플 남쪽에 템스 강이 있음. 템플에 있는 주인공의 숙소 근처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프로비스가 묵고 있는 하숙집까지 내려온 후 프로비스를 태우고 템스 강을 계속 동쪽(런던 왼쪽)으로 내려가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큰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레이브젠드’라는 항구가 나옴. 하지만 그레이브젠드가 진짜 항구인지 그냥 보트가 몇 개 들락거리는 도시인지는 모르겠음 -\_- 구글 지도 봐도 모름. 항구겠죠? 그래도 템스 강에 붙어 있는데 항구 맞을 것 같음]에 도착했을 땐 대낮이었다. 그리고 나는 곧장 침대로 직행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병이 나 내일(수요일의 밀항) 나서지 못할 거란 공포가 너무도 엄습했기 때문에 그 공포 자체로 인해 내 신체에 장애가 생기지 않은 것이 더 놀라울 정도다.

내일에 대한 비정상적인 중압감(부담)만 없었더라도 나는 아마 정신적인 마모(닳아 없어지는 거)와 함께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도 걱정스럽게 학수고대해 왔던 일이며 그런 중대성으로 내 자신을 가득 메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결과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불분명했다. 비록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음은 분명했지만 말이다.

우리가 그날(=화요일. 수요일 날 출발임) 프로비스(59세. 죄수)와의 연락을 삼가해야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방조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연락을 삼가 하기) 다시 내 차분하지 못함을 가중시켰다.

나는 모든 발자국 소리와 모든 인기척에도 놀랐다. 왜냐하면 프로비스가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내게 그것을 알리러 오는 전령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프로비스가 잡혀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내 자신을 설득했으며, 내 마음에 불안이나 예감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체포는 이미 실제로 발생한 일이며, 불가사의한 작용에 의해 나는 다만 그 체포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내 자신을 설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소식들도 들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날도 저물고 어둠이 내려오자, 이번엔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내게 병이 발병해 불구가 되고 말거라는 음울한(슬픈)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접수해버렸 다.

타는 듯한, 내 팔(화상을 입은 팔)이 고동쳤고(두근거렸고) 뜨거운, 내 머리가 맥박 쳤다(두근거렸다). 나는 열 때문에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상상했으며 끝도 없이 높은 숫자까지 세어 보기도 했으며 내 자신에게 뭔가 다짐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산문(소설)과 운문(시)에 있는 구절들(문장들)을 되풀이해 말해보기도 했다.

이따금씩 지친 마음에서 살짝 탈출하기만 해도 몇 분 동안 졸거나 잠시 전 것을 잊어먹었다. 그런 다음엔 다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되뇌는 것이다.

“이제 갈 때까지 갔군, 열 때문에 헛소리까지 집어먹고 있으니 말이야!”

허버트와 스타톱은 화요일 하루 종일 나를 가만 내버려두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내 팔을 붕대로 감아 주었고 내가 청량음료들(시원한 음료수들)로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잠이 들었을 때마다 나는 아직 ‘수문지기의 집’(악당이 주인공을 올가미로 묶어놓았던 집) 안에 있다는 생각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프로비스(59세, 죄수)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눈을 떠야했다.

대략 밤 12시쯤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24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으며 당초 출발 날짜였던 수요일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다’라 고 굳게 믿으며 허버트에게로 갔다.

그것은 내 안달함(짜증)의 마지막 자기 소모적인 노력의 결과였다.(-\_-) 왜냐하면 그 후 내가 푹 잠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창밖을 내다봤을 때는 수요일의 아침이 점점 밝아 오고 있었다.

템스 강 위에 있는 여러 다리들 위에서 깜빡이고 있던 불빛들은 벌써 색이 엷어 있었고, 도래하고 있는 태양은 마치 지평선 위에 뜬 불의 전차 같았다.

냉정하게 회색으로 변하고 있는 다리들,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비치면서 붉게 물든 접촉면이 꼭대기 여기저기에 있는 다리들은 여전히 거무스름 해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강 위 이러 저리에 걸쳐져 놓여 있었다.

유달리 청명해 보이는 하늘을 향해 찌를 듯 높이 솟은 ‘교회 탑들’ 그리고 ‘뾰족탑들’과 함께 모여 있던 ‘지붕들’을 내가 쭉 훑어보고 있을 때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마치 강에서 장막을 걷어내듯이 강의 수면들 위로 수백만 개의 물거품들이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했고,[표현 죽이네.~ 디킨스 최 고!!!~ :) ] 내게서도 또한 어떤 장막이 걷어내어지듯이 나는 튼튼함과 건강함을 느꼈다.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는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랜 ‘학우’(신사교육학교 친구, 25세의 ‘스타톱’을 말하는 것임.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들 3사람은 신사교육을 같은 곳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서 받았기 때문임)는 소파(긴 의자) 위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도움 없이는 옷을 입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벽난로의 불을 그럭저럭 되살릴 수 있었고 그 불을 이용해 그들(허버트와 스타톱)을 위한 약간의 커피를 준비할 순 있었다. 아직 벽난로의 불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때가 되자 녀석들 역시 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로 벌떡 벌떡 일어났고 우린 창(창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창문‘들’을 말함)에서 매서운 아침 공기를 맡으며 여전히 우리 쪽 방향을 향해 밀려들고 있는 강물의 흐름(밀물)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9시에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라며 허버트가 쾌활하게 말했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다가오는지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준비 땅(-\_-해석의 센스~ 퍽~) 하면 같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그쪽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에 계신 프로비스(59 세, 죄수) 아저씨!”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인데...-\_-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성격 급한 것 문득문득 튀어나오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즉 영어 실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아주 많이 더 있었다면 더 빨리 해석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살 짝씩 문득문득 들기도 하네요. 영어사전에서 단어 찾아보는 시간만 줄여도 해석이 엄청 빨라질 텐데. ㅜ\_ㅜ 이건 사전의 장점과 단점이겠죠. 하긴 영어사전 없으면 해석도 못하지만...ㅎㅎㅎ :) 여하튼 디킨스 최고~)

**위대한 유산**

**54장**

태양이 뜨겁게 비치고 있고 바람이 세차게(차갑게) 부는 3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작년 11월 달에 주인공은 미스 해비샴의 저택에서 두 팔에 화상을 입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왼팔은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오른 팔만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에스텔라는 딴 남자와 결혼했죠~)

햇살엔 어느덧 여름이 오려는 기색이 있었고 그늘 진 곳에선 여전히 겨울의 기운이 느껴질 때였다.

우리 모두는 ‘피 코트’(선원용 코트, 이미지 링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9815&cid=42822&catego](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9815&amp;cid=42822&amp;catego) ryId=42822 , 검색일자 : 2015-2-27)를 꺼내 입고 가방도 따로 하나 챙겼다.

세속적인, 내 모든 소지품들(재산) 중에서도 나는 다만 항해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소수의 필수품들만 가방에 챙겼을 뿐이다.

내가 어디로 가게 될는지,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아님 내가 다시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하는 제반사항들은 나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물음들이었다.(←주인공의 심리에 맞게 문장 내용을 약간 바꾸어 해석했음. 안 중요한 문장이지만 나름 의미 부여는 될 것 같아서 살짝 바 꾸었음. 원래 문장은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내가 언제 귀국할 수 있을지” 등등을 모르겠다는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의문들이 내 마 음을 산란케(괴롭게) 하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전부 프로비 스(59세, 죄수)의 안전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24세, 주인공. 파산직전의 어리버리 런던신사. 독일로 밀항하려는 중임. 말항하려는 곳은 ‘함부르크’<독일 최대의 항구도시>임)는 문간에 멈춰 서 뒤돌아보며 설사 내가 이 방들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있다쳐도 그땐 또 내가 어떤 바뀐 상황 아래에서 이 방들을 보게 될지 하고 나는 다만 잠깐 동안 생각해봤을 뿐이다.

마치 물가(템스 강)에는 전혀 갈 의도가 없는 마냥 우리는 딴전을 부리며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 이름) 선착장(보트 묶어놓은 곳)까지 내려갔다.

물론, 나는 보트가 바로 출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타 다른 문제 에 있어서도 사전에 적절히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선착장엔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사는 두 세(2~3)명의 사람들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템플 선착장에 소속된 뱃사공들이었다.

약간 머뭇거리는 시늉을 한 후, 우린 보트에 탑승해 밧줄을 풀어 던졌다.

뱃머리에는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가 앉고 내가 키(보트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노가 달린 긴 막대기)를 잡았다.

그때가 대략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였을 때쯤이었고 시각으론 오전 8시를 30분 정도 넘긴 시각이었다(오전 8시 30분).

(앞뒤 설명 : 밀물=바다에서 런던으로 밀려오는 강물. 썰물=런던 쪽에서 바다로 가는 강물. 주인공들은 지금 런던 왼쪽 항구도시까지 가 지나가는 선박을 잡아타는 것이 목적임)

우리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오전 9시 정각에 우리를 싣고 강물이 오후 3시까지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오후 3시 이후 조수가 바뀌어 밀물이 된 이후부터는 어두워질 때까지 우린 조류(밀물)에 거슬려서라도 계속 노를 저어 천천히라도 나아갈 작정이었다. (템스 강을 따라 런던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어두워질 때쯤이면 우린 켄트(영국의 주 이름)와 에식스(영국의 주 이름) 사이, 그러니까 ‘그레이브젠드’(런던 동쪽에 있는 도시이름. 『 위 대한 유산 』 후반부의 주 무대임) 하류에 있는 긴 직선 유역(3킬로미터 정도의 직선 구간이 있음)에 아마도 도착해 있을 것이다. (런던 왼쪽 바닷가에 ‘켄트’라는 주와 ‘에식스’라는 주가 있고, 템스 강은 켄트와 에식스 사이를 굽이굽이 지나 바다로 나갑니다. 즉 템스 강 하류 위에서 지나가는 선박을 잡아타겠다는 계획임)

(‘그레이브젠드’의 구글 지도 링크 ▶ https://[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http://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2B%25) EC%BC%84%ED%8A%B8+%EA%B7%B8%EB%A0%88%EC%9D%B4

%EB%B8%8C%EC%A0%A0%EB%93%9C/@51.4601469,0.3538991,4

3385m/data=!3m1!1e3!4m2!3m1!1s0x47d8b412568e0b3f:0x4acb476 0cd850e75?hl=ko 검색일자 : 2015-02-27)

그곳은 켄트와 에식스 사이를 흐르는 템스 강을 한눈에 바라다볼 수 있는 유역이기도 했으며 폭이 넓고 고적한(쓸쓸한) 강이었다. 또한 강가 주민들도 거의 드문 곳이었으며 술집을 겸하는 여인숙들이 여기저기에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 여인숙들 중에서 휴식처로 활용할 만한 곳을 한 군데 고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럼 거기서(여인숙) 우린 밤새도록 휴식을 취할 셈이었다.

‘함부르크’(독일 최대의 항구도시)로 가는 배(증기선)와 ‘로테르담’(네 덜란드의 최대 항구도시. 유럽 최대의 무역도시이기도 함)으로 가는 배는 목요일(내일) 아침 오전 9시 정도에 런던을 출발할 것이다.

우린 그 배들이 우리가 있을 지역을 몇 시 정도에 지나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두 배들 중 첫 번째로 오는 배를 맞이하면 되었다.

만약 일이 틀어져 우리가 그 배에 오를 수 없다면 우린 그 다음 배를 잡아타면 되는 문제였다.

사전조사로 우린 이미 그 각각의 배들의 마크를 알아놓은 상태였다.

오랜 결심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안도감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나는 수 시간 전에 처했었던 그 상황(살해위협)을 실감하기가 어려웠을 정도였다.

상쾌한 공기와, 햇빛과, 보트의 운전상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속력을 내며, 우리를 동정 하고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우는 길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강물 그 자체가’ 내게 새로운 희망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었다.’

나는 보트 안에서 거의 쓸모가 없음에 굴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팔을 쓰지 못하거니와 그렇다고 보트 안에 그들 두 사람보다 더 좋은 ‘노 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종일 성실히 노를 저었다.

그 당시, 템스 강에서의 ‘증기선 교통량’은 현재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였다. 오고 가는 배 대다수가 뱃사공들에 의해 움직이는 보트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바지선들(바닥이 평평한 배이자 짐 싣는 배임)과, 오고가는 석탄 선들, 그리고 연안(영국 해안가들) 무역선들의 수는 당시에도 무려 지금만큼이나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타려는 증기선들은 온갖 크기의 증기선들을 총망라 하더라도 지금의 1/10 또는 1/20도 안 되었다. (1/10=10분의 1, 1/20=20분의 1)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 템스 강 여기저기엔 ‘스컬(노)로 보트를 젓는 사람들(=조정경기 할 때 사용하는 1인용 배)’(스킬 이미지 링크 ▶ http://endic.naver.com/imgEntry.nhn?sLn=kr&imgUrl=[http://dicimg.n](http://dicimg.n/) aver.net/cndic/entry/sourcing\_images/0/655\_cobis\_20070206153354

.jpg&imgFrom=NaN&imgFromId=&entryName=scull2 , 검색일자 : 2015-02-28)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바지선들(바닥이 낮고 평평한 배. 짐 싣는 배)도 엄청 많았다.

갑판(큰 배의 바닥)이 없는 보트를 타고 다리(교량)들 사이로 해 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즘보다도 그 당시에 훨씬 더 쉽고도 일상적인 광경이었다.

그래서 우린 ‘1인용 소형 보트들’과 ‘나룻배’들 사이를 활기차게 나아가다.

예전 ‘런던브리지’(다리이름)를 빨리 통과한 후, 예전 ‘빌링즈게이 트’(런던의 생선시장)에 딸린 ‘굴(먹는 굴) 따는 보트들’과 ‘네덜란드 배’들을 지난 후, ‘화이트 타워’와 ‘반역자의 문’(템스 강 북쪽에 있는 런던 타워 안에 ‘화이트 타워’와 ‘반역자의 문’ 등등이 있음. 런던 타워는 왕을 감금해 죽였던 감옥임)도 지나, 우리는 여러 줄로 정박해 있는 선박들 속으로 들어갔다.

대다수는 ‘리스’와, ‘애버딘’, 그리고 ‘글래스고’에서 온 증기선들이었다. (‘리스’와, ‘애버딘’, 그리고 ‘글래스고’는 영국 북동쪽에 항구 도시 들임. 스코틀랜드의 항구 도시들임) 그 배들은 짐들을 싣고 있기도 하고 싣고 있지 않고 있기도 했는데 물 위로 어찌나 높이 솟아 있든지 우린 그 배들을 옆으로 지나치면서 감탄을 절로 했다.

좀 있자니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은 선탄 선들이 나왔는데, 갑판 위에선 석탄 부리는 인부들이 갑판 위에 있는 발판들 쪽으로 뛰어내리며 그 반대되는 힘으로 균형을 잡으며 석탄을 위로 흔들고 있었다. 그런 다음 인부들은 그 석탄들을 바지선들 위 한쪽에다 드르륵 떨어뜨리고 있었다.

좀 더 가자니, 자신의 계류장에 정박해 있는 내일(다음 날) ‘로테르 담’(네덜란드의 최대 항구도시. 유럽 최대의 무역도시이기도 함)으로 떠나는 증기선이 보였다. 우린 그 배를 꼼꼼히 보아 두었다. (주인공들은 이 ‘로테르담 행 증기선’을 강위에서 잡아타고 밀항을 시도해야함)

좀 더 가자니, 이번엔 내일 ‘함부르크’(독일 최대의 항구도시)로 향하는 증기선이 보였다. 우린 그 배 앞쪽으로 길게 돌출해 있는 돛대 모양의 둥근 나무(=이것을 ‘제1사장’이라고 함) 아래를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보트 뒷부분에 앉아 있던 내 눈 앞에도 ‘제분소(방앗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과 선착장(=프로비스가 보트를 타 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로 한 장소)이 나타났다. 내 심장은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아저씨 그 쪽에 계셔?”라며 허버트가 내게 말했다. “아니 아직 안 보이시는데.”라며 내가 말했다.

“자아! 아저씬 우리가 보일 때까진 내려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때 아저씨의 창문 신호가 보여?”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안 보이는데, 여기선 어림도 없지. 가만 뭔가 본 것 같은…. 앗, 아저씨다! 자 다들(허버트와 스타톱) 노를 당겨. (잠시 후) 허버트 늦춰. 노를 세워도 될 것 같아!”

잠깐 동안 우린 선착장(배를 타는 곳)에 가볍게 닿았다. 그리고 아저 씨가 올라탔고 우린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

아저씨는 장교용 망토를 입고 있었고 ‘캔버스 백’(손가방을 말함)을 가지고 계셨다. 내가 마음속으로 희망했던 만큼이나 그는 ‘수로 안내인’(배에 타서 배를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행~)

“이 녀석!”라며 그가 자리에 앉는 동안 자신의 한 쪽 팔을 내 어깨 위에 얹으며 말했다. “이 녀석, 약속을 잘도 지켰구나. 잘 했다. 고맙고 또 고맙구나!”

우린 또 다시 여러 줄로 정박해 있는 선박들 사이로 들어섰다. 그 선박들 틈을 들락거리며, 교수형 모양 동아줄이 닳아 풀어져 있는 ‘사슬 닻줄들’과 물 위에서 까닥거리고 있는 ‘부표’(물 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들을 피하기도 하고, 떠내려가고 있던 부서진 광주리(바구니)들이 잠시 가라앉히기도 하면서, 그리고 떠다니고 있는 나무토막들과 그 부스러기들을 흩어버리기도 하면서, 그리고 떠다니고 있는 석탄 찌꺼기들을 가르며 나아가기도 하면서, 여러 줄로 정박해 있는 선박들 사이를 우리는 들락거렸다.

많은 ‘존’(이름이 ‘존’인 왕과 성인들이 많음)들이 그렇게 연설하듯 강풍을 향해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선덜랜드’(영국 중부 동해안에 있는 항구도시이름) 호(배)의 ‘존’이라는 ‘선수상’(나무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 배 앞부분에 붙인 거) 아래를 지나,

딱딱한 조각적 형식을 갖추어 만들어진 ‘가슴’(사람가슴)을 지니고 있으며 그녀의 고개 위로 5센티미터(cm)나 ‘솟구쳐 있는’ 혹같이 ‘둥근 두 눈을’ 가진 ‘야머스’(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영국의 항구이름) 호(배)의 ‘베치’(여자이름. 여자 이름 ‘엘리자베스’를 귀엽게 부른 이름이 ‘베치’임)라는 선수상(배 앞부분의 조각상) 아래를 지나,

또 그렇게 선박들 사이를 들락날락 하면서, 선박회사 안마당에서 들려오는 해머(쇠망치) 소리들이며, 목재를 자르는 톱 소리들이며, 알 수 없는 물건들에서 나는 엔진들이 충돌하는 소리들이며, 물이 새는 선박들 안에서 들려오는 펌프질 소리들이며, 닻 따위를 감아올리는 장치 소리들이며, 바다로 막 출항하려는 선박들의 소리를 들으며,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서 상대방 ‘거룻배 사공’들을 향해 고함치며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선원들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선박들 사이를 들락날락 거리며 나아갔다.

그런 후에야 우린 드디어 좀 더 훤히 뚫린 강 위로 나올 수 있었다. 그곳은 배에서 일하는 ‘사환’(심부름꾼 소년)들이 뱃전(배 앞) 완충물(충돌방지용)들을 안으로 옮기는 곳이었다. 뱃전 너머 완충 물에 의 지해 낚시질 한 번 해보려던 것이 거친 파도에 낚시고 뭐고 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은 꽃과 색종이들로 장식된 돛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곳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프로비스(59세, 죄수)를 태운 선착장에서, 그리고 이후로 줄곧 나는 우리가 의심을 받고 있다는 어떤 징후라도 있는지를 방심하지 않고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확실히 의심 받고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를 따라오거나 우리와 같이 움직이는 어떠한 배들도 없었다.

만약 어떤 배가 우리를 따라온다면, 나는 배를 강기슭에 대고 그 배가 반강제적으로 먼저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 배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방해의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프로비스(59세, 죄수)는 장교용 망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내가 말했듯이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왔다(강 풍경의 일부분인양 자연스러웠다).

우리보다 그가 더 걱정이 없어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아마도 그가 살아와야 했던 비참함이 그것을 설명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이번 항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사들 중의 한 명이 된 ‘내 신사’ (주인공)를 지켜보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구나.”라고 내게 말했었기 때 문이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는 순종이니 체념이니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인물이 아니었다. 또한 위험과 타협할 생각도 전혀 없는 인물이 었다.

만약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자신에게 달려든다면, 그는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그가 위험에 처한 뒤의 이야기일 것이다.

“얘야, 네가 만일,”라며 프로비스(59세, 죄수)가 내게 말했다. “네 옆(말의 어감이 ‘네 옆’이 아니라 ‘내 새끼 옆’ 뭐 이런 분위기임)에 이렇게 앉아 한 모금 피우는 이 맛을 안다면, 넌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것도 몇 날 며칠을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 골방에서 보낸 후엔 말 이다. 하지만 넌 그게 뭔지 모를 게다.”

“자유가 주는 큰 기쁨들에 대해선 저도 알 것도 같아요.”라며 내가 대답했다.

“아아,”라며 그가 고개를 근엄하게 흔들며 말했다. “하지만 너의 그 자유란 것은 나의 그것에 비할 만한 것이 아닐 게다. 내 자유를 감당하려면 철창에 갇혀 봐야 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난 그런 구렁텅이로 다시 떨어지진 않을 거다(나는 천해지지 않으련다).”

어떤 주된 관념(생각)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든 혹은 심지어 생명이 든 그것을 위험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이 내겐 모순처럼 들렸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자유는 그의 생활방식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음에 생각이 미쳤다. 그의 자유는 자유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감과는 사뭇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가 한 모금 피운 후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얘야, 넌 알게다, 내가 저쪽(오스트레일리아) 편에 있을 때, 그러고 보니 지구 정반대 편에 있었군, 난 항상 이쪽(영국) 편을 바라보고 있 었단다. 내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점점 맥 빠지더구나. 누구든 매그위치(프로비스의 실명)를 알았단다. 그리고 매그위치는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또 올 수도 있었다. 그는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서도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지. 하지만 얘야 여기 (영국 런던)선 나에 관해 너무도 편치 않게 생각하는 구나. 적어도 만일 그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편치 않아 할 게다.”

“이번 일(밀항)만 잘 마무리되면요,”라며 내(24세, 주인공, 파산직전의 어리버리 한 영국 런던신사)가 말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몇 시간 내에 아저씬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안전해지실 거예요.”

“글쎄다,”라며 그(59세, 가명이 ‘프로비스’임=오스트레일리아를 탈출 한 죄수임=유형지를 임의로 탈출해 귀국한 죄수는 잡히면 무조건 교수 형임)가 긴 한 숨을 내쉬며 응답했다. “그러길 바란다, 얘야.”

“그럼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배(주인공들이 타고 있는 보트를 보트라고 생각해도 되고, 작은 배라고 생각해도 됨) 앞’의 ‘위 끝’ 너머로 프로비스(59세, 죄수)가 살짝 한 손을 담갔다. 내겐 새로울 것이 없는 부드러워진 분위기를 외모로 풍기며 그러면서 미소를 잊지 않은 채 그가 이렇게 말했다.

“흠, 그건 아니란다, 얘야. 다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조용하고 간단한 진행과정을 이해 못하겠는 것뿐이란다.(←의역이 좀 심했죠. :) 사실 직역은 이거임→우리가 현재보다 더 조용하고 태평스러울 수 있을지 당혹스럽구나.) 아님 너무도 부드럽고 유쾌하게 물을 헤집고 나아가고 있는 바람에 아마 내가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 담○ 한 모금 피우고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이 강의 바닥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듯이 우리가 몇 시간 후의 일을 예측할 수도 없는 법이란 생각이 드는구나. 또한 내가 이 강물을 계속 손 안에 쥐고 있을 수 없듯이 우린 시류 (물결)를 거스를 수도 없는 거란다. 보거라, 잔물결들이 내 손가락들 사이로 빠르게 번지다 사라지는 것 을!”

그러면서 프로비스는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손을 들어보였다.

“아저씨의 얼굴만 아니었더라도 전 아저씨께서 살짝 우울해 계시다고 생각할 뻔 했어요.”라며 내(24세, 주인공. 파산직전의 어리버리 영국런던신사)가 말했다.

“난 조금도 우울하지 않단다, 얘야! 너무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게 원인이란다, 저기 뱃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물결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찬송가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 뭐냐. 아마도 내가 그새 또 약간 나이를 먹었나 보구나.”

프로비스(59세, 죄수)가 자신의 파이프(담○)를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얼굴에선 동요(혼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우리가 벌써 영국 땅을 벗어난 것 마냥 그는 차분하고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지속적인 공포 상태에 처 해있다는 마냥 한 마디의 충고엔 순종적이었는데, 내가 굳이 그렇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보트에 실을 맥주 몇 병을 사기 위해 강가 기슭에 닿았을 때, 그도 일어나려하자, 내가 “보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것 같은데요.”라고 넌지시 알리자 그가 “그러냐? 얘 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가 조용히 앉았기 때문이었다.

(“54장”은 해석이 쉽네요. 딱 이정도 영어단어 및 영어문장 수준이 제 취향인데. -\_- 디킨스는 글을 이상하게 길게 써려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서. 음. -\_ㅜ 여하튼 이번 54장은 해석이 무척 쉬었음. 오랜만에 만나는 쉬운 글~)

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여하튼 화창한 날은 화창한 날이었다. 태양도 아주 매력적이게 내리쬐고 있었다. 다만 물결 (=썰물=강물이 런던에서 오른쪽 바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셌는데, 나는 그 물결(썰물)들 중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했다. 꾸준히 노를 저은 덕분에 우린 아주 잘 나아갔다.

썰물이 빠져나가는 동안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의 차이로 우린 가까이에 있던 숲과 언덕들을 더욱더 벗어나 진흙투성이 둑(=제방=홍수예방용 흙 언덕)들 사이로 점점 더 높이가 낮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템스 강의 썰물은 우리가 ‘그레이브젠드’(런던 동쪽에 있는 도시이름)를 벗 어날 때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했다.

(‘그레이브젠드’의 구글 지도 링크 ▶ https://[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http://www.google.co.kr/maps/place/%EC%98%81%EA%B5%AD%2B%25) EC%BC%84%ED%8A%B8+%EA%B7%B8%EB%A0%88%EC%9D%B4

%EB%B8%8C%EC%A0%A0%EB%93%9C/@51.4601469,0.3538991,4

3385m/data=!3m1!1e3!4m2!3m1!1s0x47d8b412568e0b3f:0x4acb476 0cd850e75?hl=ko 검색일자 : 2015-03-02) (전 위대한 유산 후반부의 주된 무대가 ‘그레이브젠드’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

프로비스가 장교용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떠 있는 ‘세관원들의 배’와 보트 한 두 척 간격내로 지나갔다. 그리곤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두(2) 척의 이민선(갈 땐 이민 가는 사람 들을 태우고, 올땐 화물을 싣고 오는 배)들과 나란히 나아가거나, 앞 갑판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얕보고 있는 병력들을 태운 커다란 군 수송선(배)들의 뱃머리 아래를 통과했다.

곧 썰물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닻을 내리고 있던 선박들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내 곧 그들 모두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리고 새로운 조류(밀물)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풀’(런던 동부지역)까지 나아가려든 선박들이 선단을(무리를) 이루며 우리 쪽으로 쇄도하기(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린 낮은 여울(얕아서 물살이 빠름)들과 ‘진흙 둑’(강에 살짝 튀어나온 흙 언덕)들을 피하며 이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밀물의 힘을 적게 받기 위해 강가 기슭 바로 아래로 가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썰물 때 가끔 배를 조류에 맡겨 몬 덕분에 우리의 ‘노 꾼’(허버트와 스타톱. 노 젓는 친구들)들이 아직 팔팔 했기 때문에 15분간의 휴식으로도 우리가 원한 에너지를 몽땅 충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소 미끌미끌 거리는 돌들 사이로 상륙해 가지고 온 것을 먹고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건 마치 우리 고향 마을의 늪지대와 흡사한 광경이었다. 희미한 수평선 한 자락을 가지고 있을 뿐 평평하고 단조로운 늪지대 말이다.

이러는 사이에도, 굽이치고 있던 강물은 돌고 돌아, 강 위에 떠 있던 거대한 ‘부표’(물 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들을 돌리고 또 돌리고 있었 으며, 그 밖의 다른 것들도 자기 위치에서 오고가도 못하고 쥐죽은 듯 가만히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방금 막 마지막 선단(배의 무리들)이 우리가 향했던 마지막 최저점(높이가 낮은 지점)을 한 바퀴 돈 데다, 갈색 돛을 달고 있던 마지막 녹색 바지선이 밀짚을 잔뜩 싣고 뒤따랐기 때문이다.

어린아이가 생전 처음 작은 배를 그려본 것처럼 생긴, 바닥짐을 실은 ‘거룻배들’이 진창(질퍽질퍽한 곳)에 낮게 자리하고 있었고,

강 위로 드러난 말뚝들 위엔 작고 웅크린 ‘여울목’(=물살이 센 곳) 등대 하나가 받침대들과 버팀목들 위에서 절○발이가 된 체 진창에 빠져 있었으며,

진흙투성이의 경계표지말뚝들은 진흙에서 쑥 삐져나와 있었으며, 끈적끈적해 보이는 돌들일랑은 진창에서 아예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었고,

빨간색 ‘경계표’(육상표지 경계표)들과 썰물과 밀물의 높이 차이를 표시하는 ‘조석점’들도 진창에 삐져나와 있었으며, 오래된 ‘부잔교’(물에 뜨는 다리, ‘부잔교’ 이미지 링크 ▶ [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Xj1x&imgurl=htt](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Xj1x&amp;imgurl=htt) p://cfile229.uf.daum.net/original/113215504D5B6B4A2FA8AC , 검색 일자 : 2015-03-03)와 한때 건물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붕도 없이 진흙탕에 쿵하고 나자빠져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었다.

이건 뭐 밥 먹다 말고 둘러 본 주변풍경이란 게 모두 이 모양이라, 모든 게 멘붕상태에 빠져 있었고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 배를 저어 나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얼마만큼은 나아갔다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우리 쪽으로 밀려오는 밀물의 세기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버트와 스타톱(주인공의 친구들)은 잘 견뎌주었고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노를 젓고, 젓고 또 저었다.

그때는 강이 우리 배를 살짝 들어 올렸기 때문에 우린 둑(제방) 너머를 볼 수 있었다.

붉게 물든 태양이 강기슭 낮은 고도 위에 떠 있었다. 해 주위로 한 줄기 자줏빛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검게 물들 여지고 있었다.

정말 쓸쓸하고 멋대가리 없는 늪이었다.

둑(제방) 훨씬 멀리에는 땅들이 솟아 불룩하게 언덕들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와 그 언덕들 사이에는 어떤 불빛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우울병에 걸렸을 것 같은 갈매기 한 마리가 우리 앞 여기저기에 날아다닐 뿐이었다.

밤이 빠르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며칠 전 보름달이었던 달도 일찍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배 위에서 약간의 의견교환을 한 후, 사실 의견교환도 아닌 한 두 마디 대화였다, 일단 배에서 내려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외진 여인숙에서 한 숨부터 돌리고 보는 것이 우리의 우선무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은 노를 저었고 나는 집처럼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이런 식으로 우린 거의 아무런 말없이 6킬로미터 내지 8킬로미터를 지루하게 더 견뎠다.

아주 추운 날씨였다. 그래서 우리 옆을 지나가던 석탄선의 난방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연기)과 너울거리는 불길이 마치 그 석탄 선을 기분 좋은 집처럼 보이게 했다.

이때쯤 이미 날은 저물어 암흑 천지였고 이대로 내일 아침까지 갈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를 비추고 있는 빛들조차 하늘이 아니라 강에서 더 많이 오는 것 같았는데, 그들(허버트와 스타톱)이 노를 살짝 물에 담글 때마다 강물 위에 반사되어 있던 하늘의 몇몇 ‘별들’이 뒤흔들 렸기 때문이다.

이 음울한(우울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뒤쫓기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물결이 밀려옴에 따라 배가 강기슭에 닿아 불규칙한 간격으로 “탁 탁”하며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들 중 한 두 명은 분명 놀라며 그 쪽을 흘끗 쳐다보았다.

강기슭 여기저기에 일련의 조류(썰물과 밀물)의 움직임들로 ‘둑’(제 방) 아래 부분이 마모된 작은 ‘만’(강물이 굽이져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우린 그런 모든 장소를 의심해 초조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따금씩 “저 잔물결은 뭐지?”라며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치면,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저쪽 저거 보트지?”라며 대꾸했더랬다.

그런 다음에는 어김없이 죽음과 같은 침묵이 우릴 덮쳤고 그럼 나는 노걸이(노를 꽂는 노걸이)에 걸린 노들이 여느 때와 달리 큰 소리는 낸다고 생각하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한참 있다가 우린 불현 듯 불빛 하나와 지붕 하나를 보게 되어, 매우 가까운 곳에서 집어 올린 돌들로 만든 것 같은 작은 둑(제방) 길과 나란히 나아갔다.

나머지 사람들을 배에 그대로 있게 한 후 강기슭을 밟은 나는 술집같은 술집 아닌 여인숙 같은 건물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정말 칙칙하고 더러운 장소였다. 감히 말하건대 그런 장소가 밀수업자 패거리들의 단골 아지트(본부)가 아니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였다.

하지만 부엌엔 좋은 난방기가 있었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달걀들이며 불에 그슬린 돼지고기(베이컨)며 들이킬 수 있는 각양각색의 알코 올음료(술)들이 있는 여인숙이었다.

게다가 “누추하지만,”이라며 여관 주인이 말하긴 했지만 ‘2인용 침대가 1개 있는 방’ 2개가 갖추어져 있는 술집 겸 여인숙이었다.

여관 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남자 한 명외엔 어떤 다른 일행도 없어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남성은 우리가 지나쳐왔던 둑길에 소속된 ‘잭’(흔한 이름)이라는 일꾼이었는데 마치 자신의 몸이 강의 수위가 가장 낮을 때를 가리키는 표시인 마냥 너무도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진흙투성이 옷차림을 한 남성이었다.

이 일꾼(이름이 ‘잭’. 머리가 희끗희끗 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나는 배로 다시 되 돌아내려가 사람들을 강기슭으로 오르게 한 다음, 노(젓는 노) 두(2) 개와, 배의 키, 그리고 배의 갈고리 장대와 그 밖의 물품 들을 꺼내 하룻밤을 새기(보내기) 위해 뱃머리를 바람 불어오는 쪽(런 던의 동쪽 바다쪽)으로 돌려놓았다.

우리 모두는 부엌의 난방기 옆에서 아주 근사한 저녁을 먹었다. 그런 다음 각자의 침대 방을 배당받았다. 허버트(24세)와 스타톱(25세, 주인공의 친구)은 한 방을 쓰고 나(24세, 주인공=어리버리한 영국런던 신사)와 ‘내 피보호자’(59세, 이름이 ‘프로비스’임. 죄수임)가 다른 한 방을 썼다.

우린 두 방 모두 공기가 외부와 면밀히 차단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마치 바깥 공기가 생명에 치명적인 양 말이다. 두 방의 침대 밑에는 내가 여관주인 가족 소유일 거라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흙투 성이인 ‘의류들’과 모자 따위를 넣는 ‘판지(단단한 널빤지 같은 종이) 상자들’이 쑤셔 박아져 있었다.

하지만 우린 우리들이 여하튼 남부럽지 않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더 외지고 쓸쓸한 여인숙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저녁식사를 다 마친 후 부엌 옆 난방기 옆에 앉아 편히 쉬는 동안, 방금 말한 그 ‘잭’(65세, 둑길 소속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발에 보기 싫게 부풀어 오른 단화(구두)를 신고서 우리가 달걀들과 베이컨을 씹어재끼는 동안 그 단화(구두)를 우리들에게 뽐내며 자랑했다.

“이 단화 좀 보쇼, 때깔나지 않소. 며칠 전 물에 빠져 강변으로 밀려 온 어느 선원의 발에서 벗겨낸 거요.”

그러더니 내게,

“보셨소? 밀물 때(오른쪽 바다 쪽에서 왼쪽 런던 쪽으로 가는 강물) 노 4개짜리 갤리선(사람이 노를 젓는 배) 한 척이 런던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던데.”라고 물어왔고,

그래서 내가,

“아뇨 못 봤는데요.”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럼 벌써 내려간 모양이군. 이상도 하지, 여기서 떠날 땐 물살(밀물. 오른 쪽 바다 쪽에서 왼쪽 런던 쪽으로 가는 강물)의 도움을 받으며 노를 젓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보군.”

“그 사람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강을 올라가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모양이군.”라며 ‘잭’(65세, 둑길 소속의 일꾼)이 말했다. “강을 내려간 걸 봐선 말이지.”

“노 4개짜리 갤리선(사람이 노를 젓는 배)이라고 말씀하셨죠?”라며 내(24세, 어리버리 한 영국런던 신사)가 말했다.

“그렇소, 4개짜리였소.”라며 잭이 말했다. “노를 젓는 네(4) 사람들 외에도 두 사람이 더 앉아 있더이다.”

“그럼 그들이 여기 이 강기슭으로 상륙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와서 8리터짜리 돌 항아리에다 맥주까지 담아 갔다니까 그러

시네. 젠장, 그 술 단지에 확 그냥 독약을 타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군.”라며 “히죽히죽”웃으며 잭이 말했다. “아니면 설사하는 약을 왕창 집어넣든가 말이지.”

“대체 왜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네.”라며 잭이 말했다. 그는 질퍽질퍽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치 많은 양의 진흙이 그의 목 안을 적시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여관 주인은 병이 있어 보이고 늘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 같았다. 그는 또한 창백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잭이라는 이 남성에게 몹시도 기대는(의지하는) 것 같았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저 사람은,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 감이 맞다니 까 그러네.”라며 잭(65세, 일꾼)이 발언

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세관에서 나온 사람들 일거라고 생각해요, 잭?”라며 여관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그러네.”라며 잭이 말했다.

“그럼 당신은 틀렸소, 잭.” (←여관 주인의 말)

“(과도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내가 틀렸다고!” (←잭의 말)

자신의 대답에 대한 무한한 중요성 부여와, 자신의 관점에 대한 끝 없는 확신에 찬 ‘잭’(65세, 둑길에서 일하는 일꾼)은 보기 싫도록 부풀어 오른 신발 한 짝을 벗더니 그 신발 안에서 부엌 바닥으로 작은 돌조각 몇 개를 툭툭 털어 떨어뜨리더니 도로 신발을 신었다.

그는 자기 견해가 옳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필요한 행동도 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며 그렇게 행동했다.

“아니, 그럼 세관원들이 입는 옷에 딸려 있어야할 단추들을 그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이 양반아?”라며 약간 마음이 뒤흔들리는지 여관 주인이 말했다.

“단추가 뭐 대순가(대수인가)?”라며 잭이 응답했다. “그딴 건 배 밖으로 내팽개치면 누가 찾을 수 있을라고. 아님 삼켜도 되고. 배가 고팠나보지. 생야채라도 자라게 땅에 심어도 되지 않나. 단추 따윈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제발 좀 건방 좀 떨지 마쇼, 이 양반아.”라며 여관 주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 말투엔 자신의 체질적 우울함과 애처로운 애수가 담겨 있었다.

(잭이라는 일꾼이 여인숙 주인에게 하는 막말입니다→) “그 놈들이 세관에서 나온 경관들이라면 자기 ‘단추’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게 아닌가.” ‘잭’(65세, 머리가 희끗희끗 센 일꾼)은 경관들의 단추를 지독히도 경멸한다는 듯이 ‘단추’라는 단어를 밉살스럽게도 반복했다. “바보들이 아니고서야 자신들의 제복 단추가 사람들 눈에 띄게 하진 않을 거 아닌가. 강바닥에 무슨 놈의 세관원이 있지 않고서야 노잡이 4명에다가 착석자 2명까지 태운 배가 썰물을 타고 올라갔다 밀물을 타고 내려오고 또 썰물 때 내려오고 밀물 때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강 주변을 맴돌리 없어! 이 인간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에라.”

이 말을 하면서 ‘잭’(65세, 머리가 희끗희끗 센 일꾼)은 여인숙 주인을 막 업신여기며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리고 대화에 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여인숙 주인은 그 주제(세관에서 나온 경관들이 탄 배의 강 맴돌기)를 더 파헤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내용(세관에서 나온 경관들이 강을 배회하더라는 대화)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음은 두 말할 나이도 없었다. 특히, 나는 더 불안했다.

불길한 바람이 여인숙 둘레로 “윙윙” 낮게 울리었고 밀물이 강기슭에서 “찰싹찰싹”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우리가 감금당해 위 협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런 경고를 주목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그토록 유별난 방식으로 강을 배회한 ‘노 4개짜리 갤리선’(사람이 노를 젓는 배)의 존재는 내가 간과할 수 없는 위험한 사실이었다.

나는 우선 프로비스(59세, 죄수)보고 위층에 가서 “주무시라”라 설득한 다음 내 두 동료(허버트와 스타톱)와 여인숙 밖으로 나가 회의를 가졌다.

이때쯤에는 스타톱(25세, 주인공과 런던신사교육을 같이 받은 동료. 주인공들보다 1살이 많음)도 상황의 심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 썰물은 대략 내일 오후 1시쯤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래서 우린 다음 썰물(왼쪽에 있는 런던에서 오른쪽에 있는 바다 쪽으로 템스 강의 강물이 이동하는 때) 때까지 이곳에 머무를지 아님 지금 떠날지 아님 일단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아침 일찍 떠날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전반적으로, 우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일단 하루 밤 묵는 것이 더 나은 방책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

증기선(독일 최대의 항구도시인 ‘함부르크’로 가는 증기선을 말함)이 오는 시간 한 시간 전쯤까지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가 배가 가는 항로로 들어서 썰물에 배를 맡기며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었다.

이런 행동방침을 정한 후, 우린 다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각자 배당받은 침대로 가 취침에 들었다.

나는 의복을 거의 그대로 착용한 채로 자리에 누워 몇 시간 동안 잘 잤다.

잠에서 깨어보니 바람은 더 거세져 있었고, “승무원”이라고 적힌, 여인숙의 ‘간판’은 바람에 날려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저기를 “탕탕”거리며 때려대고 있었다. 그 소리들에 놀라 내가 잠 에서 깬 것 같았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왜냐하면 내 피 보호자(이름이 ‘프로비스.’ 59세. 죄수)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어제저녁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동쪽=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려놓았던 우리 보트가 있는 둑길이 내려다보였다. 구름에 덮인 달빛에 내 눈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는 두 남성이 우리 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 두 남성은 내가 있는 창 바로 아래를 지나쳐갔는데 배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살펴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선착장(=부두=배 타는 곳) 쪽으로 내려가진 않았는데 내가 봐도 선착장은 텅 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늪지대를 가로질러 건너가 ‘노어’(=템스 강 끝자락에 있던 모래언덕. 즉 ‘북해’ 바다가 템스 강과 처음 만나는 강어귀<첫머 리>에 있는 모래언덕을 말한다고 함. 어쨌든 템스 강이 완전히 끝나는 영국 땅 오른쪽 끝을 말함. 구글 검색에만 나오고 구글 지도에는 안 나옴. 그 사이에 건물 짓느라고 사라졌나봄????? 아닌가???? 여하튼 영국 오른쪽 끝은 맞음) 쪽 방향으로 갔다.

#1. 네이버 해외 지도 첨부 (the Nore로 검색 후 임의로 장소 지정) <http://blog.naver.com/osy2201/220290213606>

▲ ‘노어’가 대충 이 근처가 아닐지 싶음. :)

#2. 네이버 해외 지도 첨부 (the Nore로 검색 후 임의로 장소 지정) <http://blog.naver.com/osy2201/220290213606>

▲ 현재 주인공이 있는 여인숙 위치 근처. :) [전혀 정확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시작)

내 첫 번째 충동은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를 불러(깨워) 저 낮선 남자 두 명이 유유히 장소를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방과 이웃해 있고 여인숙 후면(여인숙 건물 내부에서 후면)에 있던,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상 허버트와 스타톱이 어제 하루 나 보다 훨씬 더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피곤에 겨워 있을 거란 생각에 다다른 나는, 그를 깨우려던 것을 그만 두었다.

내 방 창가로 돌아온 나는 그 두 남성이 늪지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달빛 아래에서 내 시선은 곧 그들을 놓쳤고 게다가 갑자기 세찬 추위까지 느껴져 나는 그 문제와 더 싸우지 않고 항복한 후 도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잠이 들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네 명이서 다 함께 왔다 갔다 하며 아침 식사시간 전까지 걷는 동안 나는 내가 어제 밤에 봄 광경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우리 일행 중 내 피보호자(59세. 이름이 ‘프로비스’=죄수)가 그 일에 대해 가장 염려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세관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랑은 상관 없을 게다.”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라며 나는 내 자신까지 설득해가며 그에게 말했다.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저씨와 저는 친구들과 떨어져 저기 눈으로 가장 멀리 보이는 저 지점까지 먼저 떠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랬다가 친구들이 배를 몰고 오면 잡아타도록 해요. 낮 12시쯤에는 아마 저 곳이나 저 근처 어디쯤 에서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제 계산대로라면 요.”

이 제안은 동료들에 의해 좋은 예방책으로 받아들여졌고 프로비스와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여인숙에게 어떤 기별(전하는 말)도 남기지 않고 약속 장소로 먼저 출발했다.

(“노~ 코멘트~!!!” : 확실히 54장은 문법이 쉽습니다. 단어도 쉽고요. 빨리 해석이 되네요~ 아마도 찰스 디킨스가 소설 초반에 신경 쓰서 소설을 썼다가 나중엔 제 풀에 지쳐 대충 대충 마무리하려다 후반부가 되니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정신 차리고 소설을 써 내려간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문법이 쉬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또 말도 안 되게 디킨스가 글을 써놓은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도 되지만 뭐 어쨌든 54장만은 문법이 약간 쉬운 건 사실. 디킨스가 소설을 대충 쓴 장이랑 제대로 쓴 장이 반복되는 터라. 글을 좀 읽다보면 눈에 띔. 대충 막 쓴 티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 글은 짧고 쉽 게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의 글이 아닌 이상 문장이 길고 어려우면 아무도 안 읽어주거든요, ㅠ\_ㅠ 내 블로그 글들이 그래서 안 읽혀지는 것임.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는데 1년 걸렸음. 흑흑)

우리가 둑(제방)길을 따라 걷는 동안 ‘프로비스’(59세, 죄수)는 담○ 파이프를 피웠다. 그는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곤 손으로 내 어깨 위를 “탁탁” 토닥여주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우리가 약속 지점에 다다름에 따라 나는 그에게,

“제가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아저씬 몸을 가릴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라며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쪽 방향이 지난밤에 그 두(2) 남성이 통과했던 지점 쪽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말대로 했고 그래서 나는 홀로 계속 나아갔다.

그 지점 앞의 강엔 어떤 배도 없었다. 그리고 그 지점 가까이 어느 곳에서도 늘어서 있는 배는 없었다. 또한 사람이 그곳에서 출항했다는 어떤 흔적들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물살이 심하기는 하지만, 수면 아래에 몇몇 발자국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몸을 숨긴 자리에서 멀찍이 내다보고 있던 그(=프로비스=죄수)는 내가 모자를 벗어 그에게 “오시라”고 신호를 보내자 건너왔고, 그렇게 우린 다시 합류해 약속 장소에서 친구들을 기다렸다.

우린 친구들이 탄 보트(작은 배)가 돌아올 때까지 때때로 둑 위에 누워 있기도 하고 때론 입고 있던 코트로 함께 몸을 감싸보기도 하고 또 때론 몸을 데우기 위해 막 움직여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왔을 때 우린 쉽게 보트에 탔고 증기선이 지나갈 항로(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린 노를 저었다.

‘오후 1시를 10분 정도 남겼을 무릎’(오후 12시 50분부터)부터는 우리도 증기선이 내뿜는 연기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 1시 30분이 지나고서야 우린 증기선이 내뿜는 연기를 볼 수 있었고, 곧이어 또 다른 증기선이 그 뒤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전속력으로 그 두 증기선들이 다가오는 동안, 우린 두(2)개의 가방을 챙기며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친구)와 스타톱(25세, 주인공의 학교동료)에게 “잘 있어.”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고, 허버트의 눈에서도 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바로 그때 우리 조금 앞에 위치한 ‘둑’(제방) 아래에서 ‘노 4개짜리 갤리선(사람이 노를 젓는 배)’이 불쑥하고 튀어나오더니 우리와 동일한 항로 속으로 노를 저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근처 템스 강이 휘어있고 구불구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와 ‘증기선의 연기’ 사이에는 쭉 뻑은 강기슭(=해안가)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증기선은 명백히 눈에 보였고 우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나는 허버트(24세, 친구)와 스타톱(25세, 동료)에게,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며 잠시 정지해 있다는 것을 저쪽 증기선들에서도 알 수 있게 노를 젓지 말고 썰물에 맡기고 있어.”

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프로비스(59세, 죄수)에게는 “소리 내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요.”라고 말한 후 그의 장교용 망토(외투)로 그를 덮어주었다.

프로비스는 “염려 말아라, 얘야.”라며 명량하게 대답하더니 조각상처럼 자리에 앉았다.

내가 이런 조치들을 하는 동안에도, ‘갤리선’(6인승 배, 사람이 노를 젓는 배)은 증기선과 우리 사이를 엑스(X)자 형태로 밀고 들어와 우리 배가 자신들의 배를 따라잡게 만들더니 우리 배가 자신들의 배 옆에 나란히 서게 만들었다. 갤리선은 정말 능숙하게 조종되고 있었다.

노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을 남겨둔 채, 갤리선은 우리와 나란히 보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표류하며(떠내려가면) 그들도 표류하고(떠내려가고) 우리가 노를 한 번 저으면 그들도 노를 한번 내지는 두 번 저었다.

두 명의 ‘착석 자’들 중 한 사람(키잡이)이 배의 ‘방향타용 줄’(=요크 라인=배의 핸들=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진행,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진행)들을 쥐고 있었는데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물론 나머지 노잡이들도 우리를 지켜보기는 매한가지였다.

두 명의 ‘착석 자’들 나머지 한 명은 ‘프로비스’(59세, 죄수)만큼이나 옷으로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었는데 마치 몸을 일부러 움츠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우리의 동태를 살피며 키잡이에게 “뭐라, 뭐라”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 두 배 중 어느 한 쪽도 일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증기선 이미지 : 아래 사진에서 배 뒤에 있는 ‘바퀴 같은 게’ 배의 양 옆에 있으면 당시의 증기선의 이미지와 비슷해짐. 바퀴 빼고는 전 체적으로 비슷한 이미지임)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amp;viewloc=1&amp;w) here=idetail&rev=31&query=%EC%A6%9D%EA%B8%B0%EC%84%A0 &section=image&res\_fr=0&res\_to=0&ie=utf8&face=0&color=0&ccl=0 &aq=0&spq=0&nx\_search\_query=%EC%A6%9D%EA%B8%B0%EC%8 4%A0&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 ch\_fasquery=&datetype=0&startdate=0&enddate=0&start=10&img\_id

=dic1211306%7C575172\_1 (검색일자 : 2015-03-05)

(함부르크 : 독일 최대의 항구도시) (네이버 해외 지도 첨부)

https://maps.google.co.kr/maps?ie=UTF-8&t=m&iwloc=A&q=53.5 510846,9.99368179999999&ll=54.22446598760982,3.797392737499

9903&z=5&output=classic&dg=brw (검색일자 : 2015-03-05)

몇 분 후, 첫 번째 증기선이 ‘함부르크 행’ 증기선이라는 사실을 ‘스 타톱’(25세, 주인공과 같이 신사교육 받은 동료)이 알아보곤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부르크 행이야.”라고 알려주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 대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함부르크 행 증기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었다. 증기선의 페달(큰 바퀴 같이 생긴 거)들이 강 위를 때리며 내는 소 음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내가 막, 그 증기선의 그림자가 정말로 우리 머리 바로 위까지 다다랐다고 느끼는 순간, 느닷없이 ‘갤리선’(6인승 배)이 느닷없이 우리를 큰 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 이유를 물었다.

‘방향타용 줄’(=요크 라인=배의 핸들=줄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배가 오른쪽으로 진행,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배가 왼쪽으로 진행)들을 쥐고 있던 그 남성(키잡이)이 말했다.

“당신네 배에는 밀입국한 유형수(죄수)가 타고 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망토로 몸을 감싸고 있는 바로 저 자다. 그의 이름은 ‘아벨 매그위치’(실명), 또는 ‘프로비스’(가명)라고 불리는 자다. 매그위치, 너를 체 포한다. 체포에 순순히 응해라. 그리고 당신네들도 이를 도울 것을 요구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선원들(사복경찰들)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고 ‘그 남성’(=키잡이=선장=사복경찰)은 ‘갤리선’(6인승 배)의 방향을 틀어 우리 쪽으로 돌진시켰고, 갤리선의 선원들도 갑자기 노를 크게 한 번 앞으로 내저은 후 노를 다시 자신들의 배 안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리하여 그들의 배는 우리 배를 비스듬히 앞질렀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뱃머리를 우리 배의 앞쪽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미처 그들의 의도를 눈치 채기도 전에 이루어졌고, 이 느닷없는 상황연출이 (함부르크 행) 증기선 갑판 위에 있던 선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쪽을 향해 “뭐라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다급하게 선실 쪽을 향해 “당장 패달(바퀴) 멈춰!”라고 외치는가 싶더니 이내 패달이 멈췄지만 증기선은 지금까지의 추진력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쪽을 향해 전진해오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그 갤리선(사복경찰의 배)의 키잡이(=선장=사복경찰)가 자기 죄수(59세, 프로비스=죄수)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으며, 썰물(강물)의 힘에 의해 우리 두 배가 빙글 돌고 있는 것을 느꼈으며,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증기선의 갑판 위에 있던 선 원들이 죄다 미친 듯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죄수(59세, 프로비스)가 펄쩍 뛰어 올라 자신을 낚아채려는 자(=갤리선의 키잡이=경찰) 너머로 몸을 휙 구부리더니 잔뜩 웅크린 채 갤리선(경찰의 배)에 앉아 있던 자의 목덜미에서 외투를 확 끌어당기는 것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외투가 벗겨진 그자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 얼굴은 놀랍게도 내가 어릴 적에 늪지대에서 보았던 또 다른 죄수의 얼굴이었다. (주인공은 어릴 적에 2명의 죄수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다혈질의 ‘프로비스’입니다. 두 번째 죄수는 사기꾼 ‘콤피슨’입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공포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가는 그의 얼굴을 보았으며 곧이어 증기선의 갑판 위에서 내지르는 어떤 함성(외침)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 물 속에 “첨벙”하고 뛰어드는 큰 소리를 들었으며 그리고 배가 내 발 아 래에서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순간 나는 천(1000)개의 ‘물레방아 바퀴들’과 천(1000)개의 ‘섬광’ (번쩍거리는 빛)들과 있는 힘을 다해 싸운 느낌이었다. 즉각 나는 갤리선 위로 끌어올려졌다.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스타톱(25세, 주인공과 같은 신사교육 선생님에게서 배운 동료)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배는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또한 두(2) 명의 죄수들 또한 보이지 않았다.

‘함부르크(독일 항구) 행’ 증기선의 갑판 위에 있던 선원들의 외침소리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증기선과 그 증기선에서 미친 듯이 분출되고 있던 증기(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가 계속해서 떠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어디가 강기슭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강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갤리선(사복경찰들의 배)의 선원들은 엄청난 스피드로 배(갤 리선)의 위치를 바로 잡았다. 그들은 정확하고 날 세게 있는 힘껏 노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나서 노를 거둬 다시 배 위에 올려놓은 후 합심해 모두들 배 뒤쪽을 말없이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내 거무스름한 무언가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것은 썰물에 떠밀러 우리 쪽(=갤리선=사복경찰 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들 아무런 말이 없었다.

하지만 ‘키잡이’(=갤리선의 키잡이=선장=경찰)가 자신의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모든 선원들이 부드럽게 배를 뒤로 저었으며 그래서 배는 직선으로 후진해 정확하게 그 검은 물체 쪽으로 다가갔다.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그 물체가 ‘매그위치’(59세, 죄수의 진짜 이름. 죄수의 가명은 ‘프로비스’임)가 수영해오고 있는 것임을 알아 차렸다. 하지만 그건 자유로이 놀리고 있는 수영자세는 아니었다. 어딘가 불편해보였다.

선원들(사복경찰들)은 매그위치(59세, 죄수의 진짜 이름)를 배 위로 끌어올린 다음 그 즉시 매그위치의 두 손목과 두 발목에 수갑을 채웠다.

* 주인공 현재 위치(사복경찰들이 탄 갤리선의 사건 당시 현재 위 치)(영국 템스 강 하류와 북해 바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강)

[네이버 지도. 검색어 : the Nore ] 링크 추가 못함

* 함부르크 (독일 항구도시) 위치 [네이버 지도 첨부. 검색어 : 함부르크 ] 링크 추가 못함
* 로테르담 (네덜란드 항구도시) 위치 [네이버 지도. 검색어 : 로테르담 ] 링크 추가 못함

갤리선(사복경찰의 배)은 현 위치를 유지한 채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강물 위 수색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젠 ‘로테르담’(네덜란드 항구도시) 행 증기선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증기선은 방금 전 상황(난파)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급속 도로 전진하고 있었다.

증기선이 이쪽에서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배를 가까스로 멈추었을 때쯤에는 두 증기선(함부르크 행 증기선과 로테르담 행 증기선. 함부르크=독일 항구도시. 로테르담=네덜란드 항구도시) 모두 우리로부터 훨씬 멀어진 뒤였다.

우리가 탄 갤리선(사복경찰의 배)은 두 증기선이 지나가며 남기고 간 거친 물살의 결과 강 위로 들어 올려 졌다가 내려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강 수색에 들어간 한참 뒤 그리고 두 증기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우리 모두는 강 수색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망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 이름이 ‘승무원’인 여인숙의 위치 (주인공의 현재 위치) [네이버 해외지도 첨부. 검색어 : the Nore ] 링크 첨부 못함

결국 우린 수색을 포기했다. 갤리선(사복경찰의 배)의 선원들(사복경 찰들)은 어제 묵었던 여인숙(여인숙 이름이 ‘승무원’임)이 있는 쪽으로 강기슭을 따라 노를 저어나갔다.

여인숙에 있던 사람들은 ‘적잖이’(아주 많이) 놀라며 우리를 맞았다. 그곳에서 나는 ‘매그위치’(59세, 죄수의 진짜이름)를 위해 몇 가지

편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프로비스’(매그위치의 가명)라는 가명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았다. 매그위치는 가슴패기(가슴의 평평한 부분) 안에 위중한(심각한) 상처

를 몇 군데나 입은 상태였으며 머리에도 깊게 베인 상처가 하나 난 상태였다.

매그위치(59세, 죄수)가 말했다.

“이런 젠장 아무래도 증기선(배)의 ‘용골’(배 바닥에서 가장 아래로 볼록한 부분) 밑까지 내려갔다 온 것 같군. 다시 떠오르는 과정에서 용골(볼록한 부분)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친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슴에 입은 상처는 물속에 빠지는 과정에서 갤리선(사복경찰의 배) 옆쪽에 부딪쳐 입은 상처란다.”

그는 가슴에 난 상처로 말미암아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매그위치가 덧붙였다(말했다).

“콤피슨(63세,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 매그위치에게 사기를 쳐 감옥에 넣은 사람) 그 자식에게 내가 뭔 짓을 했을지 안했 을지 입에 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자식에게서 망토(외투)를 벗겨내는 순간 난 그게 그 새끼라는 걸 알았지. 그랬더니 그 자식이 나를 보곤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 그 바람에 우리 둘 다 배 밖으로 꼴아 떨어진 게다.”

매그위치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우리 배를 벗어나며 몸을 비틀었을 때, 매그위치를 체포하려든 키잡이(=선장=사복경찰)도 또한 매그위치를 계속 배 안에 두려고 붙잡고 있으려다 보니 우리 배가 뒤집힌 것이었다.

매그위치가 소곤거리며 내게 말했다.

“우린 서로의 팔 안에 지독하게 붙들린 채 물에 처박혔지. 물 아래에서 한 차례의 싸움이 있은 후 내가 그 놈의 팔을 풀고 헤엄쳐 나온 경우란다.”

그(59세, 매그위치=죄수)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한 진 의여부를 내가 의심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갤리선(사건 당시 사복경찰들이 탔던 배)의 키를 잡았었던(운전했던) 그 경찰관도 또한 매그위치(59세, 죄수)와 콤피슨(63세, 사기꾼이자 밀고자)이 배 밖으로 떨어진 이유를 같은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경찰관(앞서의 키잡이)에게 “아저씨의 젖은 옷들을 다른 걸로 바꿔 입혀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묵었었던 여인숙에서 여분의 의류들(여인숙 주인의 옷)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청했고 그는 “기꺼이”라며 허락해주었다.

다만 그 경찰관은 “어찌되었건 내가 맡은 죄수의 소지품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내게 있네. 그 점만 명심해두게.”라는 말을 덧붙였고, 그래서 한때 매그위치(59세, 죄수)가 내게 “죄다 사용하라”며 주었었던 핸드백(돈지갑)은 그 경찰관이 보관하게 되었다.

그 경찰관은 내게 “죄수가 런던으로 압송되는 동안 동행해도 좋네.”라고 허락했지만 내 두(2) 동료들만은 호송 조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승무원 여인숙’(여인숙의 이름이 승무원임)에 있던 ‘잭’(65세, 둑길에서 일하는 일꾼.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사람(이름이 ‘콤피슨’)이 떠내러올 만한 지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그래서 잭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강기슭으로 가 물에 빠진 시신이 있는지 탐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시신 발견에 대한 그의 흥미는 죽은 사람이 비단 스타킹을 입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아마 잭은 적어도 12명의 익사자들에게서 옷을 빼앗아 입고 지금의 옷차림을 완전히 갖춰 입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익사자에게서 옷을 뺏어 입음) 잭의 복장이 왜 다양한 품목(옷)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각의 품목들이 왜 각기 다른 단계의 부패를 꺾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일 수도 있었다.

우린(주인공들과 사복경찰관들) 템스 강의 조류가 다시 ‘밀물’(오른 쪽에 있는 ‘북해’ 바다에서 왼쪽에 있는 런던 방향으로 몰려가는 강물) 로 바뀔 때까지 그 여인숙에 머물렀다.

그런 다음 ‘매그위치’(59세, 죄수의 진짜 이름. 헷갈리죠? 프로비스는 가명, 매그위치는 실명임. 소설속엣도 이후부터는 계속 매그위치라는 이름으로만 사용됨)는 대기하고 있던 갤리선(배)으로 옮겨져 배에 태워졌다.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와 스타톱(25세, 주인공과 같은 신사교육 선생님에게서 배운 동료)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육로를 통해 런던으로 상경할 계획이었다.

정말 쓸쓸한 작별이었다.

그들과 작별한 다음 나도 배에 올라타 매그위치의 옆으로 정해진 내 몫의 좌석에 앉았다.

나는 느꼈다.

‘그(매그위치)가 살아 있는 동안 이제부터는 이 좌석이 내 자리야.’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59세, 매그위치)를 향했던 내 혐오가 모두 녹아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손을 꼭 쥔 채 초췌해져(겁에 질려) 있었고, 부상당해 있었으며, 두 손과 두 발에 수갑(족쇄)이 채워진 상태였다.

나는 이제 그를, 나를 겁주려던 사람이 아니라 한때 내 은인(후원자)이 되려고 너무도 갈구했었던 사람으로서의 그만을 보고 있었으며, 수 년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을 내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에게 애정과 감사함과 관대함만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내가 한때 조(주인공과 20살 넘게 나이차이가 나는 매형임. 유산을 상속받게 되자 주인공이 조를 업신여겼었음. 미천한 대 장장이라고)에게 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의 모습만을 보았던 것이다.

밤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59세, 매그위치=죄수)의 호흡은 더욱 더 가빠지고 고통을 동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신음소리를 억누르지 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모든 자세를 다 취하며 내 팔위에 그가 편히 기댈 수 있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내심으론 그가 몹시 다친 것이 유감이 아닐 수도 있단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왜냐하면 그가 죽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나위가 없었기’(분명했기) 때문이다.

그(59세, 매그위치=죄수)의 신원을 밝혀줄 의향이 있고 실제 그럴 수 있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의심할 바 없이 너무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관대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든 것이다. 그는 재판정에서 가장 사악한 죄명으로 불려나올 것이다.

감옥선(배)을 부수고 탈옥한 죄목에서부터 그 일로 다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 받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유배 보내졌다 국법을 어기고 국내로 몰래 귀국한 죄목까지, 그리고 자신(=59세=매그위치=죄수) 이 체포되는 단서를 제공했던 한 인물(=63세=콤피슨=밀고자=옥스퍼드 대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자기 대신 콤피슨을 감옥에 들어가게 한 사 기꾼)의 죽임을 야기한(일으킨) 자로서 그가 법정에 불려나올 것임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어제 뒤로 하고 출발했었던 그 석양(=저녁놀=서쪽)을 바라보며 다시 런던으로 귀환하는 동안, 우리(주인공과 매그위치)가 가졌었던 모든 희망의 빛줄기들도 되감겨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가 그(59세, 매그위치)에게,

“저를 위해 아저씨께서 귀국하신 걸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얘야, 난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 한 것을 참 만족한단다. 네 녀석을 만날 수 있었지 않니. 그리고 넌 이제 나 없이도 어엿한 신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계속해서 신사 신분에 걸맞은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것). 우리가 나란히 배 위에 앉아 런던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었다.

내 자신의 의향은 둘째치고서라도, 그리 되진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야 웨믹이 내게 넌지시 얘기했었던 암시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죄가 인증되면 그(59세, 매그위치=죄수의 진짜 이름)의 전 재산은 국가에 몰수 될 것임을 나는 그제야 예견했던 것이다.

“여길 보거라, 얘야.”라며 그(59세, 매그위치)가 말했다. “이제부턴 신사가 나와 연류 되었다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다. 나를 찾아 올 때도 우연히 들른 것처럼 오거라. 그럴 때도 웨믹(변호사사무실 의 서기)과 함께 오는 것을 잊지 말고. 다만 마지막이 될 재판 때 내가 법정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내가 널 볼 수 있는 곳에 앉아다오. 그 이상 더 바라지 않으마.”

“아저씨(59세, 매그위치=죄수) 옆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절대로요.” 내가 말했다. “아저씨 옆에 머무르는 게 허락될 때는 언제나요. 간절히 바라건대, 아저씨가 지금껏 제게 진실 하셨듯이 저도 앞으로 아저씨께 진실할 게요! (원문에는 “진실하다”가 아니라 “충실하다”라고 적혀 있음. 충실하다... 잘 안 쓰는 단어라 진실로 바꿈. 100% 맘대로 해석 :) ㅎㅎ )

내 손을 쥐고 있던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갤리선(배)의 바닥에 누워 있는 동안 그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나는 그의 목에서 나는 익숙한 소리(철 조각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은 그 소리도 부드러워졌다, 마치 그의 나머지 부분들처럼.

그(59세, 매그위치=죄수)가 이 점을 언급한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무 늦어서야 생각해 냈을 것들을 마음먹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를 부유한 신사로 만들려던 그의 희망들이 이렇게 해서 최후를 고하게 되었음을 굳이 그가 알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어.’라는 생각 말이다.

**위대한 유산**

**55장**

다음 날 매그위치(59세, 죄수)는 ‘즉결 심판소(즉결 법원)’로 이송되었다. 보통 같으면 즉시 재판이 시작되었겠지만, 이번 경우 그의 신원을 확인해줄 사람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한 차례 탈옥했었던 감옥선 (배)에 사람을 보내 나이 많은 감독관(경찰관)을 불러들이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했던 것이다.

아무도 그의 신원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증언해주기로 되어 있었던 콤피슨(63세,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이 죽어 템스 강의 조수(썰물과 밀물)들에 짓밟히고 있는 데다 절차상 필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교도관들이 때마침 런던시내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전날 밤에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의 자택으로 ‘재거스 씨’(51세, 유명한 변호사)를 곧바로 찾아갔다.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재거스 씨는 죄수(매그위치)를 대신해서 그 어떤 것도 시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유일한 방책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재거스 씨의 말에 의하면, 증인이 있을 시 이번 사안은 단지 5분이면 끝장날 사안이었기 때문이며 그리되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유력자(권력자)도 이번 재판이 우리 쪽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재산이 몰수되리란 것을 그(59세, 매그위치=죄수)가 계속 몰랐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을 ‘재거스 씨’(51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에게 전했다.

재거스 씨는,

“그것(매그위치의 재산)이 미꾸라지처럼 손가락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버려두었다.”

며 불평 아닌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곤 그는,

“(재거스 씨의 대사→) 우린 곧 청원서를 제출해 그 중 남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여하튼 시도해보아야 하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거스 씨는 속내를 숨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재산이 몰수 되지 않는 소송사건들이 많다손 치더라도 이번 사안의 정황 상 그리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네.”

나도 그 점을 십분(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범법자와 연관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남이 알아볼 정도로 그와 어떤 유대로 묶여있지도 않았다.

그(매그위치)는 체포되기 전에 나를 위해 서류나 재산 양도에 서명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을 받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를 법적으로 입증시켜보겠다는 무익한 일로 내 마음을 구역질나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결심을 지켰다.

(참조 : 동서양을 망라하고 밀고는 대단히 수지맞는 장사였습니다. 밀고자들에게는 범죄자(대개 부자들)의 재산 1/4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왕이 지배하는 국가에선 밀고란 앞뒤 정황만 일치하면 범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표면에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재산 몰수는 당연. 삐뚤어진 인간 심리의 한 단면입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역사책에 수도 없이 등장하는 장면이니까요. 밀고가 수지맞는 장사였다는 것이요. 이상 “인간 본성이 악하다”에 한 표 던지는 1인이었습니다. :( 이럴 땐 의견 표명을 꼬박꼬박하죠 ~\_~...)

매그위치(59세, 죄수의 실제 이름)에게서 재산이 몰수될 경우 보상을 기대하고서 익사한(물에 빠진) 밀고자(63세, 이름이 ‘콤피슨’)가 매그위치에 대해 몇 가지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해오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있었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에서 콤피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시신의 형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그의 호주머니들 속에 있던 내용물들을 통해서 그의 신원을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호주머니들 속에 있던 서류들은 그나마 여전히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서류들을 꼬기 꼬기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비교적 많은 돈이 들어 있는 (은행), ‘뉴 사우스 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주 = ‘뉴 사우스 웨일스’라는 주의 중심도시가 ‘시드니’임 = 위대한 유산이란 소설 속에서 죄수 매그 위치가 유형 생활을 하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장소임)에 있는 어느 은행 이름과,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 지역들의 이 름들이 적혀 있었더랬다.

이들 ‘은행 이름’과 ‘지명’들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매그위치(59세, 죄수)가 내(24세, 주인공의 이름)게 재산을 물러주려 한다며 그가 헤아려 재거스 씨(51세, 변호사)에게 건네준 자신의 재산 목록 표에 적혀 있었더랬다.

가엾은 사람, 어쩌면 모르는 것이 상책이었을지 모른다. 그는 만약 재거스 씨(51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의 도움만 있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주 그러니까 아주 안전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죄수의 신원을 확인해줄 감독관(증인)을 지방(주인공 시골고향 인근 강)에 있던 감옥 선에서 불러올 목적으로 검찰 측에서 연기한 3일이 지난 후, 감독관(증인)이 도착했고 이 손쉬운 소송의 구비요건은 모두 갖추어졌다.

매그위치(59세, 죄수)는 한 달 후에 열릴 다음 ‘법정 개정 기간’ 때 맞춰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되었다(감금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가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가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빛이 없을 시기였다.

“어쩌니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 아무래도 곧 너를 떠나게될 것 같아.”

이미 그의 사업 파트너가 내게 귀 뜸을 해준 사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덜 놀랬다.

(허버트의 대사→) “이번에 ‘카이로’(이집트의 수도)로 가는걸 미루면 더할 나위 없는 기회를 놓치고 말 거야. 네게 내 도움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이렇게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유감이구나, 헨델(주인 공의 애칭=별명).”

(주인공의 대사→)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 내가 항상 널 사랑할 거니까 나는 네가 항상 필요할 거야. 하지만 다른 때보다 지금 네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

(허버트의 대사→) “네가 몹시 쓸쓸해질까 봐 그러지.”

(주인공의 대사→) “난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걸.”라며 내가 말했다. “너도 알잖니.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최대한은) 내가 그와 함께 머무르는 걸,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온종일이라도 나는 그의 옆에 있어줘야 한다는 걸 말이야. 집에 와서도 내 생각은 그에게서 떠나질 않는다는 걸 너도 잘 알잖니.”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가 가(출국해) 버린다니 끔찍한 상황연 출이었다. 분명 우리 둘 다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었다. 그래서 보통 단어들 가지고는 그 일(친구의 출국)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다.

“이봐 친구야,”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우리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핑계 삼아 내가 널 좀 괴롭힐 수 있게 해줄래. 네 신변 문제에 관해선대. 사실 내 출국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친구야, 이제 어쩔 셈이니?(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니?)”

(주인공의 대사→) “아니, 어떤 미래든 생각하기도 두려운 걸.” (허버트의 대사→) “하지만 이렇게 넋 놓고 있을 순 없잖니. 누가 뭐

래도 네 미래인걸. 정말 사랑하는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아, 미래에 대한 생각을 버려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미래에 대해 나와 얘기해보자 응, 도움 되는 몇 마디 말이 오고가는 범위 내에서 말이야.”

“그럴게.”라며 내(24세, 주인공)가 말했다.

“헨델(주인공의 애칭), 이(이곳) ‘카이로’(이집트의 수도) 지점에… 하나가 날 것 같은데 말이야.”

허버트가 동정심에서 그 직접적인 단어를 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무원(직원) 구한다고?” 라고 말했다.

“그래 사무원(직원). 발전해서 ‘파트너’가 될 가망성이 전혀 없지 않은 자리야. 너도 안면이 있는 내 사업 파트너(이름이 ‘클래리커’라는 사람. 허버트의 회사의 대표이름임. 이름 몰라도 됨)가 그런 경우잖니. 자, 헨델(24세, 주인공의 애칭=별명) 간단하게 말할게, 이 녀석아, 응 우리 카이로 지점으로 와 줄래?”

마치 그것이(“자, 헨델”이라는 말) 불길한 사업의 시초(시작)를 알리는 엄숙한 도입부인 마냥 “자,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그 말투를 버리고서 마치 초등학교의 남학생처럼 말하며 정직한 손을 뻗어 보이는 그의 태도 속에는 애교 섞인 정중함과 남을 설득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허버트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 “클라라(21세, 허버트의 약혼녀)와 난(24세, 허버트=주인공의 절친) 이 문제에 대해 몇 번이고 대화를 나눠보았단다.”

허버트(주인공의 절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허버트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 “그 어리고 귀여운 것은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서(눈물 가득) 신신당부를 하지 않겠니. 네(24세, 파산 직전이자 신경쇠약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려는 ‘주인공=영국신사’)게 가 ‘우리들과 함께 그곳(카이로=이집트 수도)으로 가 살자’고 제발 말해달라고 말이야. 만약 너만 승낙해준다면 네(주인공) 행복을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덤으로 남편의 친구가 아내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네게 꼭 확신시켜 보이겠다 말이야.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 우린 그녀의 말대로 잘 살 거야, 응!”

나는 그녀(=21세=클라라=허버트의 약혼녀)에게 마음으로부터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고 녀석(=24세=허버트=주인공의 절친)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들과 함께해도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마치 녀석이 친절하게 제안을 하는 만큼이나 망설였다.

이미 내 마음은 다른 주제에 몰두하고 또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지점으로 가는 일까지 담을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다음으로… 그래! 그 다음으로 말이다.(카이로로 가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내 생각 속에서 미련을 느끼고 망설이려는 분명치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땐 몰랐다. 하지만 내 비천한(엉성한) 이야기의 끝 부분에 거의 다다라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허버트, 만약 네가 네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손해)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그 문제를 잠시 유보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라며 허버트가 소리쳤다.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네 답을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라며 내가 말했다. “기껏 2~3 개월이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가 악수를 나누었을 때 허버트는 뛸 듯이 기뻐했고 그래서 때마침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출국해야 될 것 같았거든.” “클라라도?”라며 내가 말했다.

“그 어리고 귀여운 것에겐 보살펴드려야 될 아버님이 계시잖니. 하지만 그 분도 그리 오래 버티시진(사시진) 못하실 거니까. 윔플 부인(41세, 클라라의 하숙집 주인)이 내게만 말해준건데, 아무래도 오래 못 가실 것 같데.”

“무정하게 들릴는지는 몰라도,”라며 내가 말했다. “본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시는 게 제일 나을 거야.”(클라라의 아버지가 몹시 아파서 하는 말임. 클라라의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술에 빠져 그만 안타깝게 된 경우임. 술 조심~ 도박 조심~ 조심할 게 많음 :( 조심~)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엔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라며 허버트가 말했다. “어쨌든 돌아가시고 나면 난 깜찍이를 데리러 귀국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와 그녀는 가장 가까운 교회 안으로 스리슬쩍 스며들어갈 생각이란다. 생각해봐! 축복받은 신부는 어떤 명문가문 출신도 아니 란 것을, 안 그러니 헨델(주인공의 애칭=별명), 그 애는 『귀족 신사록 』 (귀족과 신사의 이름들을 적은 19세기 영국 책. 책의 표지가 붉은 표지였다고 함. 허버트의 어머니가 항상 이 책을 보며 가정은 안 돌보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귀족 못 된 것만 한탄함)을 들여다본 적도 전혀 없는 아이야, 그러니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허망한 생각을 품고 있을 애도 아니라고. 와우! 내 어머니의 아들에게 이 얼마나 행운이란 말이니!”

같은 주(이번 주말 할 때의 ‘주’) 토요일 날, 나는 항구로 떠나는 우편 마차들 중 하나 위에 올라타고 있던 허버트를 떠나보냈다. 녀석은 부푼 희망으로 가득 차있었지만 나와 이별하는 것을 슬퍼하고 미안해 했다.

나는 ‘커피 하우스’(커피숍)로 들어가 클라라(허버트의 약혼녀)에게 짧은 메모 한 장을 보냈다. 허버트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메모 하단에는 허버트가 내게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라고 되풀이해 말했었다는 내용도 적었다.

그런 다음 나는 홀로 집으로 귀가했다, 만약 그것이 집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내게 집이 아니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위한 집은 없었다.

(내 숙소 건물 내부) 계단에서 나는 웨믹과 마주쳤다. 그는 (내) 숙소 문을 두드린 자신의 손가락 관절들이 실패를 거둔 후 내려가던 중이었다.

밀항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한 후 내가 그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며 이번 실패와 관련해 몇 마디 해명(변명)을 하려던 참이었다.

“죽은 ‘콤피슨’(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이름)이,” 웨믹이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실행된 ‘일반 비즈니스’(주인공들이 독일 항구도시로 밀항하는 것)의 깊은 속내까지 조금씩 염탐해왔던가 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은 곤경에 빠져 있는, 그의 똘마니들 중 몇 몇을 통해서였거든요. 그의 부하들 중 몇몇은 항상 곤경에 빠져 있었 지요. 저는 귀를 닫고 있는 듯 하면서 열어놓고 있었지요. 그때 제가 콤피슨이 런던에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밀항을) 시도하기에 가장 최적의 적기라 생각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 자의 꾐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신의 똘마니들까지 속일 정도라면 말이죠. (주인공의 눈 치를 살피며) 절 탓하시나요, 제발, 네? 핍 씨? 전 정말이지 당신들을 돕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제 진심을 다해서래도요.(나의 반응 → ㅜ\_ㅜ 슬픔~)”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이나 저도 그걸 확신하는걸요, 웨믹 씨. 정말이지 이번 일에 당신이 보여준 관심과 우정에 전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말고요. 그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웨믹이 자신의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말씀드리건대, 이토록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본 적이 없는 걸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많은 휴대 가능한 재 산들이 이제 날아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 이런 세상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웨믹 씨, 불쌍한 그 재산의 원소유자입니다.”

“물론 그야 그렇겠지요,”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직원)이 말했다. “당신(24세, 주인공=파산 직전의 영국런던신사)이 그(=59세= 매그위치=죄수의 진짜이름)를 동정하시는 것에 저도 당연히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구치소)에서 나오게 할 수만 있다면야 저도 2백만 원을 내놓겠습니다.[(5파운드 곱하기 40만원을 해서 ‘2백 만 원’이라고 약식으로 계산함 :) 전혀 근거 없는 계산인 거 아시 죠????). 19세기 영국 돈 1파운드는 현재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 40 만 원정도입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계산하거나 50만원으로 편의상 계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꼼수죠~\_^]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죽은 ‘콤피슨’(63세,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이 이미 전부터 그(매그위치=죄수)가 귀국한다 는 정보를 감지고하서 그를 감방에 쳐 넣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매그위치=죄수)가 구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반면 휴대할 수 있는 재산은 확실히 구제될 수 있었 고말고요. 그게 바로 소유‘물’과 소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시겠습 니까?”

나는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직원)에게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월워스(웨믹의 집이 있는 동네이름)로 걸어가기 전에 ‘그로그술’(럼주에 물 탄 거. 럼주=사탕수수에 물을 타서 발효시켜 증류한 술. 럼주는 보통 알코올 40도 정도라고 함? 숏킹\*\_\*) 한 잔으로 목을 추이시고 가시라”고 제안했다.

그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적당한 알코올 도수(술의 도수)의 그로그술(물을 탄 럼주)을 마시는 동안 그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다음 그는 이 야기의 주제를 이끄는 아무런 서곡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제(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직원)가 이번 월요일에 하루 휴가를 낼까 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핍 씨(24세, 주인공의 이름)?”

“(살짝 놀라며) 글쎄요, 웨믹 씨께서 이 12개월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이 12 년 동안이었죠, 아마도요.”라며 웨믹이 말했다. “예. 전 하루 휴가를 낼 예정입니다.(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어떤 사안에 대해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웨믹의 평상시 말투임) 그것 이상으로, 전 산책도 할 예정입니다. (잠깐 머뭇거렸다가) 그 이상으로, 전 (당당 하게) 당신에게 그날 같이 산책 하시자고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나(24세, 파산직전의 어리버리 한 런던신사)는 막 사과하려던 참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나쁜 길동무 외엔 되어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직원’)이 이런 내 낌새를 감지했다.

웨믹이 말했다.

“당신이 그 날 면회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 몸이 편치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핍 씨(주인공의 이름). 하지만 당신께서 이번 제안을 수긍해주신다면 전 그것을 더할 나의 없는 친절로 여길 것 입니다. 길지 않을 산책입니다. 아침 일찍 나서는 산책이기도 하고요. 산책 도중 있을 아침식사를 포함해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만 시간을 내주시면 된답니다. 승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주실 수 있겠죠?”

그(=46세=웨믹=변호사사무실의 ‘서기’)는 여러 번이나 나(24세=주인 공=파산직전의 어리버리 한 영국런던신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에게 보답하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그래 드리겠노라고…”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런 내 동의에 대단히 만족해했다. 아주 많이 말이다. 그래

서 나도 너무너무 기뻤다.

그의 각별한 요청에, 나는 이번 월요일 아침 8시 30분까지 성(웨믹 의 작은 오두막집을 중세시대 왕이 살 던 성이라고 비유한 것임)으로 그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다음 우린 그때를 기약하며 작별했다.

월요일 아침 약속시각 정각에 나(24세, 주인공)는 성(웨믹 씨의 작은 오두막집을 성에 비유)으로 가 현관 벨(종)을 울렸다.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몸소 맞아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그가 평소보다 더 긴장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모자도 평소보다 더 반들반들 윤기 나는 걸로 쓰고 있었고 말이다.

집 안엔 럼(40도 정도의 도수를 지닌 술)과 우유를 섞은 컵 2잔과 비스킷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연로하신 그의 아버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도록 부추겨진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님 침대 방 안 풍경을 흘낏 보니 평소 늦게까지 주무시는 아버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이었다.

‘럼(알코올도수 40도의 도수 높은 술)에 우유를 탄 음료’와 ‘비스킷’으로 기운을 북돋운 우리는 트레이닝 준비를 하고서 산책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다.

그런데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느닷없이 낚싯대를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나(24세, 주인공=어리버리하며 파산 직전인데다가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려는 주인공)는 적지 않게 놀랬다.

웨믹은 그 낚싯대를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려놓았다.

“이런, 낚시하려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요!”라며 내가 말하자, “아니었죠.”라며 웨믹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지만 낚

싯대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걷고 싶었는걸요.”라고 했다.

나(24세, 파산 직전의 영국신사)는 이것을(웨믹이 어깨 위로 낚싯대 를 맨 것) 유별나다고(이상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뭐, 마땅히 생각나는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잠자코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린 산책길에 올랐다.

우린 ‘캠버 웰 그린’(웨믹이 사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 위에 있는 네이버 해외지도 참조) 쪽 방향으로 갔다.

우리가 대략 ‘캠버 웰 그린’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웨믹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어이! 여기 교회가 있군요!”

물론 그게 다였다면 나도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치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라 자신이 고무 되었다는 듯이 그가,

“자 들어가 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는 나도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네이버 해외 지도 참조 (검색일자 : 2015년 3월 15일)

1. 지도 #1

* ‘캠버 웰 그린’(작은 공원)(웨믹과 주인공의 위치)

링크 첨부 안함

(▲ 웨믹이 사는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 위에 있는 네이버 해외지도 클릭 후 참조)

1. 지도 #2

* ‘월워스’(웨믹의 집이 있는 동네)

링크 첨부 안함

(▲ 물론 소설은 154년 전이 배경이니 현재 지도와 전혀 달랐겠죠?)

(다시 소설 본문 해석 계속 시작)

우리(주인공과 웨믹)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직원’)은 가지고 온 낚싯대를 교회 현관에 놓아두고는 주위를 이러 저리 살폈다.

그와 동시에, 웨믹은 자신의 코트 양(2)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거기에 있던 종이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어‘쩔’시구리(어절씨구)!”라며 그가 말했다. “여기 장갑 두 켤레가 있지 뭡니까! 자, 우리 한 짝씩 껴봅시다!”

그 장갑들이 ‘새끼 염소 가죽’으로 된 새하얀 장갑인데다가 그의 우체통 같은 입(설명 : 웨믹의 사각형 얼굴과 사각형 모양의 입은 그의 입을 더욱 우체통처럼 보이게 함)이 벌어질 때로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제야 ‘이게 무슨 꿍꿍이인가?’라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 의심은 그의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어느 숙녀 분을 에스코트하시 며(대동하며) ‘교회 옆 출입구’로 입장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확실한 것으로 굳어졌다.

“어절씨구!”라며 웨믹이 말했다. “여기 ‘미스 스키핀스 양’(43세, 웨믹의 애인)이 오시는 군요. 자 결혼식을 올려봅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분별 있는 처녀(웨믹의 애인인 ‘미스 스키핀스 양’)는 평소와 같은 옷차림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녀도 이제 자 신의 녹색 장갑을 새하얀 ‘새끼 염소 가죽’ 장갑으로 바꿔 끼는 중이었 지만 말이다.

노인장 또한 마찬가지로 ‘히멘’(결혼의 신. 그리스신화)의 제단을 위한 동일한 헌신(장갑끼기)을 준비하는 데 열중해 있었다.

하지만 연로하신 신사 분(아버지)께서는 장갑을 착용하는데 너무도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웨믹(아들)은 아버지를 교회 기둥에 등을 대고 있게 하고서 자신이 기둥 뒤로 가 우격다짐으로 아버지의 장갑을 자기 쪽으로 당겨야 함을 감지했더란 것이다.

물론 웨믹이 그러는 동안 난 노인장의 허리를 조심히 잡는 역할을 맡고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노인장은 ‘받들어 총 자세(두 손을 앞으로 내민 자세)’를 하고서 뒤로 당기는 힘과 동일한 힘을 앞으로 받으며 안전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이 창의력 풍부한 계획 덕분에 그의 장갑은 노인장의 손에 “쏙~”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교회의 서기(직원?)’와 ‘목사님’께서 나타나자 우린 운명의 난간에 차례대로 배열했다.

사전 준비 없이 이 모든 것이 거행된다는 자신의 의향(생각)에 충실 하려는 듯, 웨믹은 식이 거행되기 전에 자신의 조끼 호주머니에서 뭔 가를 꺼내더니 “어이! 여기 반지가 있네!”라며 혼자말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나는 신랑의 지지자 그러니까 신랑 들러리 역할을 맡았다.

한편 아기 ‘보닛’(턱 밑으로 끈을 매는, 아기들 모자)을 쓴 몸집이 작고 발을 저는(절뚝거리는) ‘교회의 좌석 안내인’이 ‘미스 스키핀스 양’(43세)의 가장 친한 친구 시늉을 하고 있었다.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책은 노인장(웨믹의 아버지)에게 위임 되었다(맡겨졌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 목사님께서 본의 아니게도 발끈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누가 이 사내에게로 인도해주시 나요?”

라며 노인장에게 말씀드렸을 때,

노인장(귀가 잘 안 들리심)께서는 자신이 지금 이번 의식의 어느 지 점에 와 계신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시고서 ‘십계명’(모세의 십계명)을 향해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던 것이다.

그러자 목사님께선 다시 한 번 더,

“어느 분께서 이 여성이 결혼하실 수 있도록 이 사내에게로 인도해 주시죠?”

라며 ‘어느 분’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물으셨던 것이다.

나이 많으신 신사 분(웨믹의 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심)께선 여전히 교회 십계명만 바라보시며 가장 존경할 만한 상념에 젖어계셨더랬다.

그래서 신랑(웨믹)이 늘 하던 목소리로,

“살짝 연로하신 아버님, 네! 누가 인도하시죠?” 라고 했더랬다.

그제야 노인장께선 엄청나게 호탕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더랬다.

“그래 오케이다, 존(웨믹의 이름이 아니라 애칭임. 애칭=사랑해서 부르는 별명) 아, 암 오케이고 말고 내 아들아!”

그런데 그는 이 대답을 목사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순간 아주 암담한 심정이 되시어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었는데 잠깐 동안이었지만 나는 그 날 웨믹 씨의 결혼식 행사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심각하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의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교회를 나서려고 했을 때,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은 ‘성수반’(성당 입구에 놓인 물그릇)에서 뚜껑을 벗기더니 그 안에 자신의 흰색 장갑을 넣었다. 그런 다음 뚜껑으로 다시 성수반 위를 덮었다.

장래(미래)에 대해 보다 좀 더 배려심이 많은 웨믹 부인(웨믹의 애인이었던 ‘미스 스키핀스 양’=43세)께서는 끼고 있던 흰색 장갑들을 성수반 대신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으시곤 녹색 장갑을 꺼내 다시 끼시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웨믹은, “자, 핍 씨.”(핍은 주인공의 이름)

라며 아주 득의만만한 태도로 낚싯대를 어깨에 메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번 생각일랑 해 보십시오, 누가 이 무리를 결혼식장을 막 나서는 하객들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침식사는 초원(‘캠버 웰 그린’이라는 작은 공원)에서 ‘1~2킬로미 터’(걸어서 15분~30분 거리)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한 쾌적하고 자그마한 선술집(가격이 싼 술집)에 이미 주문이 되어놓은 상태였다.

방에는 핀볼 게임용 탁자도 놓여 있었는데 혹시라도 진지한 결혼식을 막 치르고 난 우리가 긴장을 풀길 바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웨믹(46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았을 때 그녀(43세)가 더이상 그의 팔을 풀어헤치지 않고, 마치 케이스 안에 든(들어 있는) 첼 로(사람 키만 한 바이올린) 마냥, 벽에 기대여 있는 ‘등이 높은 의자’에 앉아 선율이 아름다운 악기 늘 그러하듯 웨믹의 팔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우리는 훌륭한 아침식사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들 중 어느 누구라도 웨이터가 내어오는 음식들 중 하나라도 거절하려고 하면 웨믹(=신랑= 변호사사무실의 서기, 46세)이 어김없이,

“지불한(돈 준)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다하실 이유가 없어요!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말했다.

나는 “새로운 커플을 위하여!”라며 잔을 들었고(마셨고), 다음으로 “아버님(웨믹의 아버지)을 위하여!”라며 잔을 들었으며(마셨으며) “당신의 성(웨믹의 작은 오두막집)을 위해!”라며 잔을 들었다(마셨다).

그리고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도 신부에게 깍듯이 거수경계를 해 보이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분 좋은 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웨믹은 나를 선술집 문까지 바래다주었다(계단을 내려왔다).

나는 다시 한 번 그와 악수를 나누며 “정말 축하드립니다!”라며 그의 기쁨을 빌어드렸다. (주인공은 현재 24세로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약간의 신경 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 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경제적 후원자가 구치소에 갇혀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두 손을 비비며 웨믹(46세,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이 말했다. “그녀(43세, 웨믹의 아내)는 가금류(닭, 집오리, 칠면조)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도 살림꾼이랍니다. 당신께선 모르셨을 테죠. 나중에 달걀을 몇 개 보내드릴 테니 직접 한 번 판단해보십시오.”

(주인공이 떠나려하자 웨믹이 주인공을 등 뒤에서 부르며) “있잖습니까, 핍 씨!”(핍=주인공의 이름=24세)

등 뒤에서 그가 나를 부르더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건(결혼식)은 전적으로 ‘월워스’(웨믹의 집이 있는 동네이름)에

서의 감정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아시죠.”

“아, 알다마다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리틀 브리튼’(=재거스 씨 변호사사무실=웨믹의 직장)에다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할 테니까요.”라며 내가 말했다.

웨믹이 고개를 끄떡이며 말했다.

(농담조로→) “일전에(최근에) 당신께서 ‘찔러 바친’(누설한) 일도 있고 하니 이번 건(결혼식)에 대해서는 재거스 씨(51세, 변호사)가 인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뇌(두뇌)가 무디어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러려는 낌새가 있다고 고용주인 그가 생각할 지도 모를 테니까요.”

**위대한 유산**

**56장**

그는 병으로 구치소(감옥)에 누워 있었다. 상태는 아주 안 좋았다. 재판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돌아오는 ‘법정 개정 기간’ 때까지(한 달 동안) 내내 몹시 아파 상태로 그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갈비뼈 2개가 그의 허파 두 개 중 하나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 문제였다. 그는 호흡을 시도하려 할 때도 아주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다. 그런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상대방이 그나마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했고 따라서 말 수가 무척 적어졌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내가 판단한 것들을 그에게 들려주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내 삶의 중대한 의무가 되어갔다.

일반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기에는 너무도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는 첫째 날인가 그 연후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로써 나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가질 수 없었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다.

위중한 그의 병세만 아니었어도 그는 수갑을 차고 지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명백한 탈옥자로 각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로 그는 주변에 인식되고 있었다.

비록 내가 매일같이 그를 찾아갔다손 치라도 그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서로 떨어졌다 정기적으로 다시 만나는 면회시간은 그의 육체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사소한 변화들조차도 그의 얼굴 위로 드러나게 하기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에서 어떤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었다. 구치소 문이 그의 위에서 닫힌 그 날(수용당한 날) 이후 그는 매일같이 서서히 약해지고 나 빠지고 있었다.

그가 보인 순종과 인종(체념)의 종류는 완전히 지친 사람이 보이는 순종과 체념의 일종이었다.

나는 때때로, 그를 벗어난 속삭이는 한 두 마디의 말들이나 그의 태도에서 자신이 만일 좀 더 좋은 환경 아래에서 태어나 자랐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진 않았을지 아니었을지 하는 문제를 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다는 어떤 인상을 나는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절대 그 점을 암시하는 어떤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는 않았다. 또한 영원히 변치 않을 형상을 갖추어버린 자신의 과거에의 기억을 부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59세=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 중 한 두(1~2) 사람이 그(죄수)의 끔찍한 평판에 대해 넌 지시 언급한 적이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있었다.

그럴 때면 한 줄기 미소가 그(죄수)의 얼굴 위로 지나갔는데, 그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의 존재가 믿음직스럽다는 듯 쳐다보곤 했다. 마치 내가 어떤 자그마한 속죄(구원)에의 희망을 그의 안에서 보았었음을 확신한다는 마냥, 심지어 내가 너무도 어린 꼬마소년이었을 때 만큼이나 오래전에 내가 그 희망을 보아왔음을 말이다.

그밖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라면 그는 겸허했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 그리고 절대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법정 개정 기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재거스 씨’(51세,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는 매그위치(=59세=프로비스=죄수)의 재판을 다음 ‘법정 개정 기간’(한 달 후)까지 미루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매그위치가 그보다(1개월) 더 오래 살 수 없을 거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청원서를 거절되었다.

재판은 즉시 속개(시작)되었다. 매그위치가 법정 안으로 끌려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내가 피고석 가까이로 다가가 나를 향해 내민 그의 손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은 극히 짧았고 보다 분명했다.

그(=59세=죄수=매그위치)를 변명할 수 있는 말들이 제시되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 습관들을 익혀왔었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 부유해지고 그곳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그(오스트레일리아로 영구 추방된 죄수가 몰래 귀국한 것)가 돌아왔다는 사실과 판사와 배심원들의 면전에(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었다.

그것에 대한 죄를 물으면서 그 밖에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가 보더라도 유죄가 확실했던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법정 개정 기간’의 마지막 날에 판결을 일사천리로 통과 시키고 사형선고로써 클로징 효과를 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서투른 내 재판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다.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지울 수 없는 광경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심지어 이 글을 쓰는 지금조차도, 32명의 남녀 죄수들이 판결을 받기 위해 다 함께 판사 앞에 내몰려져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 32명의 죄수들 맨 앞에 그(매그위치)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져 있었는데, 그건 그의 생명을 얼마간 유지해줄 만큼의 숨을 그가 내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법정의 창문들 위에서 4월의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던, 봄의 ‘빗방울’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경들이 ‘움직이는’(원문→그 순간의) 생생한 색채가 되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59세, 매그위치)가 앉아 있던 피고석의 한 쪽 귀퉁이 바깥쪽에 서서 그의 손을 내 손으로 꼭 쥐고 내가 서 있는 동안, 무대 위에는 32명의 남녀 죄수들이 도열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무례한 태도로 서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흐느껴 울거나 비탄에 잠겨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두 손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린 채 체념한 채 서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 여기저기를 응시하며 서 있었다.

여성 죄수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비명들이 새어나왔지만 곧 가라앉아졌고 “쉿!”(조용히 하라는 신호)이라는 신호는 성공을 거두었다.

커다란 족쇄(수갑)들과 향기 나는 꽃다발들을 든 ‘집행관’들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굴퉁이’(=어중이떠중이들)들과 악한들과, 재판정의 ‘정리’(판사가 판결하면 큰 소리로 읽는 사람)들이며, 관리들이며, 연극을 구경하러 온 엄청난 수의 관객들인 마냥 법정 관객석을 꽉 메우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릴 구경하며 지켜보는 동안, 32명의 죄수들과 판사는 진지하게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런 다음 판사가 32명의 남녀 죄수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그(판사)의 앞에 서 있는 이 비참한 피조물들(죄수들) 사이에서도,

그(판사)가 특별한 연설을 위해 선발해야 했는 한 사람(=59세=죄수=매그위치)은 유 소년기 때부터 온갖 법에 반하는 범죄자였다.

그리고 그(=59세=죄수=매그위치)는 감금(감옥)과 처벌을 반복해오다 결국 수년 동안의 감옥선 수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 자는 너무도 과격하고 대담무쌍하게도 감옥 선에서의 탈옥을 감행한 결과 도로 체포당해 종신 유배형(영구 추방)을 선고받은 자였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영국)에서 멀리 내보내졌을 때, 이 가련한 피조물은 한 동안 자신의 지나온 잘못들을 누우치는 듯 보였으며 평화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악행에의 쏠림(범죄성향)과 격정(흥분)에 굴복한 나머지 안식(휴식)과 회개의 피난처(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그를 추방한 사회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바로 그런 오만방자함(멋대로 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를 이 사회의 골칫(두통)거리로 내몬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여기(영국 땅)에서 곧 고발당한 그(=59세=매그위치=죄수)는 잠시 사 법경관들을 피하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국외(독일 항구도시)로 밀항을 시도하다 사로잡혔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도 사법경관들에게 저항을 계 속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고발한 자의 죽음을 유발했으며 고인이 된 그 자(= 63세 = 이름이 ‘콤피슨’ =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철저한 사기꾼)는 이 자(=59세=매그위치=죄수)의 살아온 이력에 대해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던 자였다.

물론 자신의 고발인에 대한 그의 행위가 의도된 것이었는지 아님 뻔 뻔스러운 자기 자신의 대담함의 결과였는지는 본인(=59세=매그위치= 죄수)이 더 잘 알 것이다.

자신을 영구 추방한 땅(영국)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이 사형이므로 그리고 그의 범행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그는 응당 사형을 당할 준비를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유리창 위로 맺혔던 화려한 빗방울들을 통과한 4월의 햇살이 법정의 커다란 창문들에 닿아 부서지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햇살은 ‘32명의 남녀죄수들’과 ‘판사’ 사이에 폭이 넓은 한 줄기 빛줄기를 만들며 그들 둘을 다 같이 이어주고 있었다. 아마도 이 광경을 보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죄수와 판사가 완전히 평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절대 오류가 없는 더 큰 최후의 심판 장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잠시 동안 일어서서 이 방향의 빛줄기를 자신의 얼굴 위에 뚜렷한 한 점으로 받던 그 죄수가 이렇게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전능하신 그 분으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판결에도 복종하겠습니다(원문에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도로 자리에 앉았다.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판사가 다시 자신이 낭독해야할 나머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런 다음 32명의 남녀죄수들 모두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죄수들 중 몇몇은 충격으로 부축을 받으며 퇴장했고, 또 그들 중 몇 몇은 대담한 마냥 독살스러운 얼굴표정을 지어보이며 어슬렁거리듯 걸어 나갔다. 그리고 몇 명은 방청석 쪽으로 끄떡이며 인사를 해보였고, 그리고 2명 내지 3명의 죄수는 서로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죄수들은 법정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향기로운 허브(향초)들 중 몇 개를 집어 허브 조각들을 씹어대며 걸어 나갔다.

그(=59세=죄수=실제 이름은 ‘매그위치’이고 가짜 이름은 ‘프로비스’)는 제일 마지막에 나갔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에도 도움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자연히 느리게 움질일 수밖엔 없었다.

다른 죄수들이 모두 퇴장하는 동안 그(=59세=죄수=매그위치)는 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방청객들은 교회나 여타 장소들에서 나갈 때 그러하듯이 자신들의 옷매무새를 바로 잡으며 순간순 간 손가락으로 이 죄수가 어떻다느니 저 죄수가 어떻다느니하며 지목하고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그(=59세=죄수=매그위치)와 내(=24세=런던신사=파산 일보 직전의 영국런던신사) 쪽을 지목하는 것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했다.

‘제발 그가 죽게 해달라고. 형사 법원 임시 판사가 보고서를 완성 짓기 전에 그(=59세=매그위치)가 죽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살아 사형 집행을 당하리라는 큰 공포 때문에 나는 그 날 저녁 내무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한 장 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그가 어떤 연유로 인해 나를 위해 돌아오게 되었는지 기술했다.

나는 그 탄원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렬하고도 애절하게 기술했다.

글을 끝마치고 탄원서 제출을 마무리 지었을 때, 나는 가장 자비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 당국자들 앞으로도 상당히 긴 내용의 탄원서를 자세히 작성했으며 그리고 국왕 폐하 앞으로도 탄원서를 한 장 작성했다.

그(59세, 매그위치)가 선고를 받은 후 몇 날 며칠을 나는 내 의자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든 것을 제외하곤 전혀 쉬지 못했다. 오로지 탄원서 제출을 통한 호소에만 열중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출한 이후에도 나는 탄원서를 제출한 장소들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내가 탄원서와 가까이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탄원서들이 좀 더 희망적이 되고 좀 덜 절망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차분하지 못한 심적 고통들로 인해 나는 내가 탄원서를 놓고 나왔던 관공서들과 고관대작들의 집들 주변을 이리저리 헤매며 돌아다녔고 저녁이면 런던의 거리들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곤했다.

쌀쌀하고 먼지 많은 봄이 돌아와 밤이 되고나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로등이 길게 늘어서 있고 괴로운 듯 닫혀 있는 대저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 진저리나는 런던서부지역의 거리들이 이때의 기억들을 연상시켜 나를 울적하게 만든다.

내가 그(=59세=죄수=매그위치)를 만날 수 있는 평일의 면회시간이 이제 짧아졌다. 사형 선고 이후 그는 보다 엄격히 관리되었다.

내가 알아맞힌 건지 아님 내 상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독약 을 건네줄 수도 있는 인물로 내가 의심을 받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베갯머리(침대의 머리 부분)에 앉기 전이면 “몸수 색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리고 항상 지키고 있던 그 경관에게 “제 의도의 진정성을 확인시켜드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보일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59세=죄수=매그위치)나 나에게 매섭게 대하진 않았다.

행해져야 할 본분(의무)이 있고 처리되었지만 엄하진 않았다. “어제보다 더 나빠졌어요.”라며 그의 건강상태에 대해 경관은 매일

전해주었고, “병실에 있는 다른 아픈 죄수들”과 “간호사 일을 하며 병 시중(돌봄)을 돕던 다른 몇몇 죄수들” 또한 매번 같은 이야기를 내게 전해주었다.

그들은 죄수들이었지만 인정을 버릴 만큼 악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고마워라!

날짜가 지나가면서, 그(=59세=매그위치=프로비스=죄수)가 흰(하얀색) 천장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누워 있곤 하다는 것을 내가 점점 더 주목하게 되었다.

내가 몇 마디 말을 건네는 잠깐 동안은 그의 얼굴에도 빛이 돌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이내 가라앉았으며 얼굴에 활기가 없었다.

때때로 그는 말을 거의, 아니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럴 때면 그는 내 손을 가볍게 누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제 나는 그의 의미(손을 누르는 것)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판결 후 날짜 수가 10을 짚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그에게서 목격했다.

그의 두 눈은 문 쪽을 향해 돌아가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다시 밝아졌다.

“얘야,” 내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을 때 그가 말했다. “좀 늦는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네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았단다.”

“정시에 온 거예요, 아저씨.”라며 내가 말했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엔 정문에서 기다려야했었거든요.”

“그럼 넌 항상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 그러니 얘야.”

“예. 한 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고맙구나, 얘야, 고맙구나. 네게 신의 은총이 깃들길! 넌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얘야.”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눌렀다. 왜냐하면 나도 한 때 그를 버리려 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가장 기쁜 것은,”라며 그가 말했다. “내가 어두운 구름 아래로 들어선 이래로 네가 나를 더 편안하게 여긴 다는 것이란다. 내 인생에 햇살이 비췄을 때보다 더 말이다. 나는 그게 가장 기쁘단다.”

그는 바닥에 누워 몹시 힘겨워 하며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애를 쓰면 쓸수록 그리고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 빛은 이따금씩 사라져갔고, 엷은 막(안개) 같은 것이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만족한 듯 한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다.

“오늘은 많이 힘드세요, 아저씨?”

“난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는단다, 얘야.”

“아저씬 늘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당신은 결코 불평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임종의(마지막) 말을 한 거였다.

그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난 그의 손이 내 손을 누르는 것을 보고 그가 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 달았다.

내가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자 그가 다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 곤 자신의 두 손을 내 손 위에 얹어 놓았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에도 면회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던 나는 내 가까이에 ‘교도소의 간수장(우두머 리)’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자넨 여기 더 있어도 되네.”라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그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제가 그에게 몇 마디 말을 전해 도 될까요?”

그 간수장(교도소의 간수장=우두머리)은 옆으로 비켜서며 ‘물러나 있 게’라고 경관에서 손짓을 해보였다.

비록 조용히 진행된 변화(사람들의 움직임)들이였지만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의 만족한 듯한 얼굴에서 엷은 안개가 걷히었다(그가 잠깐 정신을 차렸다).

그런 후 그는 가장 애정이 깃든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매그위치 씨, 전 당신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꼭요. 제 말 들리세요?”

내 손 위로 부드러운 압박이 느껴졌다.

“아저씨에게 한 때 여자아이(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했지만 잃었다는 아이요.”

내 손 위로 좀 더 강한 압박이 느껴졌다.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유력한 후원자들(부자인 ‘미스 해비 샴’과 ‘재거스’ 변호사)을 만났고요. 그녀는 지금 살아 있답니다. 그녀는 이제 숙녀가 되어…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마지막 희미한 노력과 함께…, 그 노력은 내가 응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 없었을 마지막 희미한 노력과 함께 그는 내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런 다음 그는, 두 손으로 내 손을 포개며 서서히 내 손을 자신의 가슴 위로 도로 내려놓았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 잠시 평온함이 다시 나타나는듯 했으나 이내 곧 사라졌다.

그의 고개가 가슴 위쪽으로 조용히 숙여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어 왔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서, 나는 기도를 드리려 ‘템플 교회’(런던의 ‘템플 교회’. 템플은 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을 생각해 냈다.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있는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말들 중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생각나지 않았다.

“오 하느님, 죄인인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위대한 유산**

**57장**

이젠 온전히 나 자신만 남게 되었으므로, 나는 임차(=전세=집 빌림) 기간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대로 ‘템플’(주인공의 숙소가 있는 동네이 름. 템스 강 바로 앞에 있음)에 있는 집을 빼겠다는 내 의향을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계약 기간 만료시점까지는 집을 싼 값으로 임대(세를 줌)할 거라고 밝혔다.

동시에 나는 집 창문들 마다 광고 전단지(집 세줌)를 내붙였다. 왜냐하면 빚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입이 어떤 식으로든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쯤 나는 내 경제적 상황(막대한 빚과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아주 심각한 질병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다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이해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와 집중이 있었더라면 나는 내가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음에 깜짝 놀랐어야 했었다고 적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요전에 나에게 가해졌던 스트레스(매그위치의 밀항)는 병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 병을 제거해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이 지금 나를 엄습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생각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이때 당시 내 병에 대해 관심을 두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하루 동안이었든가 아님 이틀 동안이었든가를 나는 소파에 누워서 또는 바닥에 누워 아님 맥없이 주저앉는 대로 집 안 어디든 누워 있었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팔 다리는 고통스럽게 쑤셔왔기 때문에 무엇을 할 의향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내겐 전혀 없었다.

그런 다음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고 아주 길게만 느껴지는 밤이 찾아 왔고, 아침이 되었을 때 지난밤에 있었던 불안과 공포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내 침대에서 자세를 바로 앉아 보려고 해보았을 때 나는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정말 칠흑 같은 밤중에 ‘가든 코트’(‘상점가’라는 뜻임 / 주인공의 숙소는 템스 강가에 있는 ‘가든 코트’ 내에 있음)로 내려가 거기에 보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변을 헤매며 보트를 찾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침대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를 몰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계단(=주인공의 숙소 건물 내부 계단=난간이 있는 계단)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의식을 차렸었는지 아닌지,

그(=59세=매그위치=죄수=이미 고인이 된 인물)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는 생각과 바람이 불어 등불들이 꺼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꺼진 램프에 불을 붙이려고 바동대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했었는지,

누군가 미친 듯 지껄이는 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괴로운 듯 신음하고 있는 소리들에 이루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내가 시달렸었는지 와 그러한 소리들이 모두 내 자신이 내고 있는 소리들은 아닌가하고 내가 반쯤은 의심해보았었는지 아닌지,

방 어두운 한쪽 구석에 문이 닫힌 화덕(대장간의 ‘화덕’)이 놓여 있고 어떤 목소리가 ‘저 안에서 미스 해비샴이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외쳐대고 있었는지를,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 날 아침 침대에 누워서 더듬어보고 정리해보려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석회 굽는 가마’(악당 ‘올릭’이 주인공을 끈에 묶고 죽이려고했던 ‘석회 굽는 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들이 나와 화덕 사이에 끼어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어버렸다.

비로소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 수증기를 통해서였다.

(주인공의 대사→) “어떻게 오셨죠?” 내(24세, 파산직전의 영국신사) 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전 당신들을 모르는데요.”

“네, 선생님.”라며 그들 중 한 남성이 허리를 아래로 굽혀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대며 대답했다. “당신께서 정리하시게 될 사안이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당신을 체포해야겠습니다.”

(주인공의 대사→) “빚 때문인가요?”

“모두 합쳐 ‘6천 1백 8십 1만 2천원’입니다. 선생님 성함으로 보석 상의 외상 계정에 적힌 수치만 그렀습니다.”(부연설명 : 원문에 나오는 ‘123파운드 15실링 6펜스’를 2015년 우리나라 물가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꼼수 계산이지만 19세기 후반 영국 돈을 이렇게 계산하면 소설을 읽기에 나름 아주 편합니다. 반드시 틀린 계산이라고 말할 수 도 없는 그럴싸한 계산법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약식 계산하자면 ‘5천 30십 1만 2천원’이 보다 정확한 계산 결과입니다. 그냥 퉁 쳐서 6천원 만원으로 계산해 해석했습니다.)

(주인공의 대사→)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저희 기관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며 다른 남성이 말했다. “저흰 꽤 괜찮은 하우스(경찰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어나 옷을 입어보려는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내(24세, 주인공=파산한 영국신사=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된 주인공) 가 그 다음으로 그들(=두 남성=형사???)에게 주의를 기울었을 때, 그들은 침대에서 약간 떨어져 ‘선 자세’로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내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제 몸 상태를 보셨겠지만,”라며 내가 말했다. “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움직여보겠는데,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를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가는 도중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표명했을 것이다. 아니면 나를 격려해가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믿게 하려고 시도해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내 기억 속에 이런 가느다란 실 한 개에 의해서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며 단지 그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열병에 걸렸고 사람들이 나를 피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몹시 고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종종 정신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지루하고 끝없이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있을 수 없는 존재들과 내 자신을 혼동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집 담벼락에 박혀 있는 하나의 벽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돌공에 의해 끼어 맞추어진 그 현기증 나는 높은 장소에서 ‘제발 나를 꺼내 달라!’고 애타게 애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소용돌이 위에서 부딪히고 빙빙 돌고 있는 거대한 엔진에 박힌 강철 ‘레버’(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는 조절 장치. 막대 사탕같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인간의 몸은 ‘엔진을 당장 멈추고 쇠망치질을 해서라도 나를 여기서 떼어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러한 중병의 단계들을 거쳤다는 것을 나는 회상(되돌 아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얼마간은 알고 있었다.

나는 이따금씩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살인자들이라고 여기고 그들과 진짜로 싸워댔으며, 그러다 갑자기 그들이 내게 잘해주려는 의도인 것을 이해하고서 녹초가 된 몸 상태로 그들의 팔에 안기며 침대에 눕혀지는 경험을 하곤 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도 잘 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속에 일정한 하나의 경향(변화 모습)이 있음을 알았고, 내가 몹시 아팠을 때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인간의 얼굴을 하며 터무니없이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몸집이 아주 크게 팽창하기도 했는데…, 요컨대, 무엇보다도, 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속에 놀라운 하나의 경향이 있음을 즉 그들이 조(58세. 24세인 주인공의 매형. 주인공의 친누나는 주인공과 20살 이상 차이남. 친누나는 악당 올릭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해 병을 앓다 죽었음. 조는 주인공의 매형임)와 아주 닮은 사람으로 머지않아 틀을 잡아가더라는 것을 알았다.

병세의 최악의 고비를 넘긴 이후, 나(24세, 파산한 주인공. 현재 주인공이 지고 있는 부채는 3억 5천 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 석상과 외상으로 거래한 6천만 원 만 문제가 된 것임)는 여타 그 모든 이들의 생김새가 변했다 것과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 생김새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누가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그 얼굴 생김새는 여전히 조(58세, 주인공의 매형. 주인공의 친누나는 죽었음)의 얼굴 생김새로 틀을 잡아갔다.

나는 밤중에 눈을 떴고 침대 베갯머리 곁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는 조(매형)를 보았다.

나는 낮에도 눈을 떴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창(창가) 밑에 장치된 의자에 앉아 그늘진 채 열려 있는 창문에서 파이프(담○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 조(매형)를 보았다.

내가 시원한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를 찾았을 때 내게 음료수를 건넨 것도 조(매형)의 큼지막하고 애정 깃든 손이었다.

음료수를 마신 후 내가 다시 베개에 등을 기대며 누웠을 때 내 병세가 호전된 것을 기뻐하며 나를 부드럽게 내려다보아주는 것도 역시 조의 얼굴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내(24세, 주인공)가 원기를 회복해 조(58세, 매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매형이름)지(=조이죠=매형이죠.)?”

내가 사랑하고 익숙한 고향의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나, 이 친구야.”(정신적으로 많이 어리숙한 ‘조’는 주인공과 어릴 적부터 반말을 주고받는 친한 친구였다가 주인공이 런던으로 상경해 신사수업을 받으면서 변해가자 주인공에게 높임말을 쓰며 어려 워합니다.)

(조가 기뻐서 주인공의 목을 감으며 침대에 누웠기 때문에 주인공이 울며→) “(감탄사→) 오 (매형이름→) 조, 제 마음이 찢어지는군요! 조, 제발 화난 얼굴로 절 봐 주세요. 절 때리시란 말이에요, 조. 그리고 제 배은망덕(은혜를 모름)함을 꾸짖어달란 말이에요. 제발 제게 더 이상은 잘 해주시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한 건, 내(24세, 파산한 주인공)가 그(58세, 매형)를 알아볼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는 기쁨에 겨워 내 옆에 있던 베개에 고개를 베고 누우며 자신의 팔로 내 목을 감싸며 안아주었기 때문 이었다.

“오랜 친구잖니, 핍.” 조가 말했다. “너와 난 언제나 친구였잖니.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 마차 타고 바람 쐴 정도까지만 멀쩡해져도 정말 신이 나겠구나!”

그 말을 한 후 창가로 다시 물러선 조는 등을 내가 누워 있는 침대 로 향하고 서서는 연신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극도로 쇠약해진 내 건강상태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려는 것이 가로막히지만 않았어도 난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나는 대신 침대에 누워 이렇게 속삭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했다.

“(감탄사→) 오 하느님 그를 축복해주세요! 오 하느님 저 고결하고 인정이 넘치는 자를 축복해주소서!”

내가 다시 내 곁에 있는 조(=58세=매형)를 발견했을 때 그의 두 눈은 붉게 물들여있었음에도 나는 조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우리 둘 모두 행복감을 느꼈다.(-\_- 해석한 문장이 이상하네.)

“언제부터, 응 조?”

“네 말인즉슨, 핍(24세, 파산한 주인공=런던신사), 네가 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있었냐 이거지, 친구?”

“응 맞아, 조(58세, 매형이름).”

“그게 5월 말이니까, 핍, 내일이 6월의 첫 번째 날이구나.”

“여기 쭉 있었던 거야, 응 조?” (어릴 적부터 주인공과 조는 서로 반말하는 사이입니다. 조가 많이 어리숙하기 때문에 주인공은 친근감을 느끼고 반말을-\_- 해 왔습니다. 소설 초반부에 주인공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음. 자신이 반말을 하는 이유를)

“거의 그랬단다, 이 친구야. 편지로 네가 아파 누워있다는 소식을 전 달받았을 때 내가 ‘비디’(30세, 여자이름)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지. (갑자기 딴 이야기를 꺼내며) 집배원이 가지고 온 편지였단다. 그는 원래 싱글(독신)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했지. 비록 많이 걸어 다니고 구두 뒤축이 너무 빨리 닳는 것에 비해 그가 받은 돈은 쥐꼬리만 하지만 말이다. (또 다른 얘기를 꺼내며) 수사슴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결혼이지 않니….”

“당신에게서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기뻐요, 조(58세, 매형이름)! 그러니 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비디(30세, 여자이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들려주세요.”

“그게 어찌된거냐 하면,”

라며 조(58세, 주인공의 매형. 많이 어리숙한 인물이지만 따듯한 마음씨를 가진 대장장이로 나옴)가 말했다.

“네가 낯선 사람들 틈에 어떻게 있을지, 그리고 너와 내가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왔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날을 한 번 잡아서 너를 방문 해보는 것도 네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다,하고 내가 말했 더랬지. 그러자 비디(30세, 여자이름)도, 그녀 말로 옮기자면, ‘그에게 가보세요, 한시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라며 조(58세, 매형이름)는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요점을 설명하는 식으로 내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비디(여자이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가보세요.’ 비다가 말했지, ‘당장이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 젊은 처자(비디)의 말의 의미가 ‘1분의 지체도 없이,’였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더라도,”

라며 조가 약간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너를 왕창 속인 건 아니라는 거지.”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일단락을 지으며 ‘조(58세, 매형이름)는 내게’ 내가 아주 절제된 상태에서만 말을 해야 하며, 입맛이 당기든 안 당기든 정해진 시간에 자주 조금씩 음식물을 먹어줘야 하며, 모든 면에서 네 자신을 그의 지시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나(24세, 아픈 주인공)는 그의 손에 입맞춤을 한 후 조용히 자리에 누웠고, 그 동안에 조(58세, 매형이름)는 비디(30세, 여자이름) 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문자화하는(적는) 일에 착수했던 것이다(들어갔다). 물론 그 편지에는 내가 전하는 안부도 포함될 것이었다.

분명히 ‘비디’(30세, 여자이름)는 조(58세, 주인공의 매형이름)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쳤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가 만족스러운듯 편지 쓰는 일에 착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에, 아픈 상태였지만, 나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커튼을 떼어낸 내 ‘침대 틀’은 나를 실은 채 거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거실은 내 숙소에서 가장 공기가 잘 통하고 큰 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실 바닥에 있던 양탄자(카펫)도 제거된 상태였으며 거실은 밤 낮으로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거실 한 쪽 구석으로 밀어지고 조그마한 병(잉크병 같은 조그마한 ‘병’들)들로 어지럽혀져 있던, 내 ‘필기용 테이블’(←영화 같은데서 보면 꼭 보이는 ‘서랍이 달린 테이블’을 말함)에서 ‘조’(58세)가 지금 그의 대단한 작업에 열심히 착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펜 접시’(필통)가 마치 거대한 연장통(상자)인 마냥 조는 펜 하나를 골랐다. 그런 다음 자신의 두 소매 끝을 감아 올렸는데 이건 마치 대 장장이의 쇠지렛대(쇠지렛대 사진 ▶ <http://blog.naver.com/karma1203/220265117083> , 검색일자 : 2015-4-14)나 쇠메를 휘두르려는 것만 같았다.

조(58세, 대장장이)가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내 ‘필기용 테이블’을 힘껏 붙들어 맨 후 자신의 오른쪽 발을 뒤로 멀찍이 빼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물론 그가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이다.

그런 다음 그가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기를 할 때면 동작이 너무도 굼떠서 이건 마치 2미터(m)짜리 선을 긋는 것만 같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긋기를 할 때면 그의 펜이 온 사방팔방에다 대고 “살려달라고!” 식식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어야했다.

그는 별난 상념(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멀쩡히 자기 가까이에 있는 잉크스탠드(잉크통)를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펜을 잉크스탠드가 없는 빈 공간에 찍어 댔는데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는 매우 흡족해하는 듯 했다.

이따금씩, 조(58세, 주인공의 매형)는 일부 맞춤법에 부딪쳐 글자를 잘못 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잘 정말로 잘 써나갔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두(2) 집게손가락으로 종이에 묻어 있던 마지막 잉크 자국(마침표)을 자신의 이마에 묻히고 나서야, 조(주인공의 매형) 는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가 놓여 있는 내 ‘필기용 테이블’ 주변을 서성이며 다양한 방향에서 자신의 성취물(편지)을 음미해보고 있었다. 한정 지을 수 없는 만족감을 나타내며 말이다.

심지어 내(24세, 방금 막 건강을 회복한 주인공)가 말을 많이 할 수 있었다손 치더라도, 나는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함으로써 조(58세, 매형) 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미스 해비샴’(52세, 어마어마한 부자= 얼마 전 주인공에게 지난 과거를 털어놓다 화상을 입어 정신적인 건강을 많이 잃은 상태였음)에 대해 묻는 것을 다음 날까지 미루어야했다.

하루가 지나 내가 그녀의 건강이 회복되었는지를 조(매형)에게 물었을 때 조(매형)는 자신의 고개를 흔들어보였다.

“그럼 그녀가 죽었다는 말이야, 조?”

“왜 그렇게 여기는 거냐? 응 이 녀석아.”라며 조(58세, 주인공의 매형)가 점점 불평조(불평하는 어조)를 띠더니 결국은 항의하는 말투로 말했다.(-\_- 해석 참...) “그 정도까진 아니다만, 왜냐하면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럼 살아 있단 말이야, 조?” (주인공 나이=24세=런던신사 / 조의 나이=58세=대장장이=주인공의 매형)

“그것이 좀 더 알맞은 표현 같구나.”라며 조가 말했다. “그녀는 더이상 살아있지 않단다.”

“(그녀의) 병이 오래 끌었나요, 조?”

“네가 병에 걸리고 난 후, 네가 질문을 받는다면 꼭 그게 일주일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만 딱 그랬다(거의 대략 그렇다).” 내 몸 상태를 생각해서인지 조는 조금씩 대화를 진척시키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말했다.

“사랑하는 조(매형이름), 그녀의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들어봤어요?”

“글쎄다 친구.”라며 조가 말했다. “그녀(=52세=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부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 대부분이 미스 에스텔라 양 앞으로 가도록 정리해놓았던 것 같다더구나, 내 말인즉슨 그녀의 재산이 새어나 가지 않게 꽁꽁 묶여져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미스 해비샴은 ‘그 사고’(다 꺼진 벽난로 의 불에 입고 있던 드레스가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직접 손으로 조그만 한 ‘조가비’(조개의 껍데기. ‘조가비’란 생뚱맞은 단어가 등장한 이유→‘유언 보충서’라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대장장이인 ‘조’가 자신의 언어로 유식하게 번역한 것임→결국 코믹한 상황이 됨) 하나를 덧붙였더랬지. 그 내용인즉슨 매튜 포킷(=54세=미스 해비샴의 먼 사촌오빠=주인공의 절친인 허버트의 아버지)씨 앞으로 자그마치 20억 원(19세기 후반 영국 돈 ‘4천 파운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6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20억 원으로 해석했습니다)을 상속으로 남긴다는 내용이었단다. (매튜 포킷이 미스 해비샴의 결혼을 반대했다 다투고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된 적이 있었음) 그리고 왜, 응 왜, 상상이 가니, 무엇보다도 ‘핍’(=24세=주인공의 이 름이 ‘핍’임), 미스 해비샴이 자그마치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매튜 포킷 씨 앞으로 남겨놓은 이유가 상상이 가니? 그건 바로 ‘상술한(위에서 언급한) 매튜, 그에 대한 핍(주인공의 이름)의 평가에 의거하여.”라고 그녀가 적어놓았기 때문이지. 나도 ‘비디’(30세, 여자이름)에게서 들었지 뭐냐, 그 문구가 적혀 있었더라고 말이다.”

라며 조(58세, 주인공의 매형이름)는 법정 상속권과 관련된 그 표현이 자신에게 끝없는 좋음을 가져다주는 마냥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했다.

(조의 대사임→) “‘상술한(위에서 언급한) 매튜, 그에 대한 핍(주인공의 이름)의 평가에 의거하여.’ 그리고 자그마치 20억 원이란다, 핍!”

조(58세, 주인공의 매형)가 누구에게서 20억 원에 대한 그런 진부한 열기(온도)를 배웠는지 나는 결코 밝혀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금액의 합계를 더 크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는 그것이 큰 금액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것 같았다.

조의 이러한 설명이 나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 것이(미스 해비샴이 매튜 포킷에게 2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것) 내가 행했었던 유일한 선행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그럼, 조, 미스 해비샴의 여타 다른 친척들에게도 얼마만큼의 유산이 돌아갔는지 들어보셨어요?”라며 내가 조에게 물었다.

(57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앞뒤 상황 설명 : 아래에 나오는 ‘미스 세라’, ‘미스 조지아나’, 일명 ‘낙타 부인’(=커밀러=여자이름=커밀러라는 단어는 낙타라는 영어단어와 비슷함)은 모두 미스 해비샴의 먼 친척들입니다. 하나 같이 성격이 안 좋지만 성격을 감추어가며 매주 미스 해비샴을 찾아가 갖은 아부를 하던 여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 미스 해비샴이 죽으면 유산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미스 해비샴은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조금만 기분 나쁘라고 물러준 것입니다.)

(본문 다시 시작)

“미스 세라”(세라 포킷을 말함. 주름투성이 노파이며 결혼을 하지 않아 미스임)라며 조가 말했다. “그녀의 성격이 성마르고 불쾌하니 담○라도 사 피우라며 1년마다 1천 2백만 원을 준다더구나. 그리고 ‘미스 조지아나’(소설 속에서 ‘엄숙한 표정의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여성 임), 그녀는 현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지. 그리고 어느 부인(‘커밀러’를 말함)은… 음 그녀가 누구였지… 가만있자 등에 혹이 달린 그 야생 동 물(낙타를 말함)의 이름이 뭐였지 친구(주인공을 가리킴)?”

(‘커밀러’는 여자이름입니다. 커밀러라는 말에는 ‘말이 빠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말이 빠르다’ 또는 ‘발이 빠르다’는 의미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막에서 혹이 달리고 잘 걷는 낙타와 연결시킨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이 소설을 쓴 디킨스라는 저자가요. 게다가 ‘커밀러’라는 영어철자와 ‘낙타’라는 영어단어가 비슷하니 금상첨화가 된 거죠~\_^ 디킨스 최고~)

“낙타 말이야 조?”라며 그가 도대체 왜 낙타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궁금해 하면서 내가 말했다.

조가 고개를 끄떡이며 말했다. “낙타 부인은,”

물론 나는 곧 그것이 ‘커밀러’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조가 계속 말했다.

“낙타 부인은, 야밤에 자주 깬다니(커밀러는 자신이 미스 해비샴을 걱정해 밤에 자주 깬다며 울면서 미스 해비샴에게 느끼한 아부를 자주했음. 물론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였음) 그녀에겐, 영혼을 불어넣어줄 골풀 양초(갈대 같이 생긴 골풀을 기름에 녹여 만든 초)들을 사라며 2백만 원을 상속으로 남겼다더구나.”

이런 사실 열거들의 정확함이 충분히 명백해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정보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

“자 어쨌든,”라며 조가 말했다. “넌 아직 튼튼하지 않지 않잖니, 친구, 그러니 오늘 일랑은 한 ‘삽’(흙을 퍼 담는 삽)만 더 담고 더 못 담을 거다. 올릭 영감(올릭은 42세임. ‘올릭 어르신’이란 표현은 사악한 악당인 올릭이 자기 자신을 남들 앞에서 지칭하던 표현임. 올릭은 주 인공을 가마에 태워 죽이려고 했던 악당. 주인공의 친누나를 해치기도 한 악당임)은 문을 부수고 주택에 침입했단다.”

“누구의 집이요?”라며 내가 물었다.

“나도 너에게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올릭에게서 강도를 당한 사람)의 매너(태도)가 좀 호통을 잦고 거드름을 피우는 인상을 풍기잖니,”라며 조가 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듯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집은 자신의 ‘성’(왕이 사는 성)이잖 니, 성은 전쟁 시에도 부수고 들어가는 곳이어선 안 되지. 그가 몸에 걸친 결점들(호통과 거드름)로 판별해보건대, 그는 가슴 가득 ‘곡물과 씨앗’을 파는 장수지.”

(24세의 주인공의 대사→) “그럼, 강도를 당한 집이 ‘펌블추크’(72 세, 능청스러운 잡곡상인 / 주인공은 능청스런 펌불추크를 아주 싫어해서 어지간해서는 ‘씨’라는 존칭을 붙이지 않음)의 집이었다는 거야?” “바로 그렇단다, 핍(=24세=핍은 주인공 이름).”라며 조(58세의 대장 장이)가 말했다. “강도들은 카운터(안내 데스크)에 있던 돈 서랍을 가져갔고 금고까지 훔쳐갔다더구나. 게다가 그의 집에 있던 와인들을 죄다 마셔버렸고 상점에 있던 씨앗들까지 먹어치워 버렸단다. 어디 그뿐이냐, 강도들은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고 코를 세게 잡아 당겼지. 또한 그(72세의 펌블추크)를 침대기둥에 꽁꽁 묶어놓았다지 뭐냐. 그리고도 모잘라 강도들은 열 두 번이나 더 그의 얼굴을 철썩 철썩 가격했고 그 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꽃이 피어있던 일년생 ‘풀과 나무들’ 을 그의 입에 꽉꽉 채워 넣었지. 하지만 강도들 중에 올릭(42세의 사 악한 악당)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아보았던 거지. 그래서 올릭은 그 일이

있고 주 형무소에 갇히고 말았지.”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통해 우린(24세의 주인공 + 58세의 조) 서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디었지만 느려도 분명 점점 덜 허약해 지고 있었다.

조는 항시 나와 함께 머물렀는데 나는 이따금 내가 다시금 어린 핍 으로 돌아간 듯 한 공상(상상)에 빠져들곤했다.

조(=58세=대장장이=주인공의 매형)의 부드러움이 내 요구에 너무도 훌륭하게 부합했기 때문에 나(24세, 런던신사)는 그의 손에 든 어린아이 같았다.

그가 친숙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그리고 익숙한 ‘사람 좋음’으로 그리고 연장자답게 조심스럽게 보호해주는 태도로 그는 내게 말을 걸거나 내 옆에 앉아 있곤 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전 고향 집 부엌에서 보냈었던 시절 이후의 ‘내 전 삶’(런던 체류기간)이, 지나간 내 열병이 야기한 정신적 문제들의 하나라고 반쯤 믿곤 했다.

그(조)는 나를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했다. 굳이 가사도우미 일을 제외시킨 이유는 그가 내 숙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제일 먼저 내가 고용했었던 세탁부에게 급료를 주고 해고한 다음 아주 정숙한 여성을 고용했기 때문이다.

“내가 확신하건데, 핍(핍은 주인공의 이름).”라며 그는 종종 자신의 처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조의 대사→) “내가 네게 확신해줄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마치 맥주 통을 다루듯 네 숙소 ‘손님용 침대’를 툭툭 쳐대며 양동이 속으로 ‘깃 털들’을 빼내고 있더라는 것이다. 내다 팔려고 말이다. 아마 내가 아니 었더라면 그 여자는 네가 누워 있는 침대까지 털어 네가 누워 있는 통 째로 깃털들을 쓸어 담아 양동이에 처넣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도 그 여자는 ‘수프 그릇’(큰 냄비)이나 ‘야채 접시’(금속으로 만든 접시)에 석탄을 담아 점차 가져가버리고 있었고 급기야는 네 ‘웰링턴 부츠’ (무릎까지 덮는 장화. 네이버영어사전 참조)에다가도 와인과 위스키를 담아 빼돌리고 있었다.”

내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함께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갈 날을 우린(주인공과 조) 학수고대했다. 그건 마치 어린 시절 내가 그의 도제 (수습공)가 될 날(어느 정도 나이가 될 날)을 우리가 함께 학수고대하던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덮개가 없는 마차’(이것을 ‘무개마차’라고 합니다)가 마차선(도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는 나를 자신의 두 팔로 안아 올려 마차까지 가서는 나를 마차 위에 올려놓아주었다.

그건 마치 내가 아직도 어리고 희망 없는 생명체여서 그가 자신의 훌륭한 품성(인품)을 여실히 내 안에 담아주어야 되었듯이 말이다.(주인공과 주인공의 친누나 사이의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입니다. 주인공을 낳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친누나가 주인공을 키웠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려는 것을 조(매형)과 같이 키우자고 해서 같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을요.)

그리고 조(58세, 대장장이)가 내 옆 자리에 올랐고, 우린 런던 외곽의 시골로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곳은 나무와 잔디들 위로 벌써 풍성한 여름을 만끽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여름의 향내가 가득 차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일요일이었는데, 가련한 내가 열병을 앓아누워 침대 위를 뒹굴고 있는 동안 낮으로나 밤으로나 빛나는 태양과 어둠 속 별 빛들 아래에서 자연이 어떻게 성장하며 변화해 왔었는지 그리고 이 작은 야생의 꽃들이 어떻게 꽃을 피워왔었는지 그리고 새들의 지저 김들이 어떻게 나날이 힘을 얻어왔었는지를 생각하며 내 주변의 사랑 스러움 들에 대해 구경하고 있을 때, 내가 열병에 걸려 뒹굴었었다는 그 단순한 회상조차도 지금 내 평온을 깨는 방해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요일의 종소리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넓게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좀 더 눈을 돌렸을 때, 나는 내가 아무리 공들여 감사하다고 말해도 그건 단지 내가 아직도 열병으로 너무 허약해서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란 느낌이 들어나는 머리를 ‘조’(주인공의 매형)의 어깨 위에 기댔다.

마치 오래전 언젠가 내가 그를 따라 박람회장에 갔다가 내 어린 감수성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전시물들에 놀라 내 머리를 그의 어깨 위에 기대었듯이.

(주인공이 아주 어릴 적에 박람회장에 갔다가 놀란 일은 8장을 참조바람. 8장 일부 내용 발췌 → “언젠가, 나는 박람회장에 따라 갔다가 어느 무시무시한 밀랍인형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인형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본 딴 인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적인 인물의 유해를 매장 전에 며칠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8장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10186736526> , 검색일자 : 2015-4-20)

잠시 후 나는 좀 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고, 시골 집 근처에 있던 예전 포대(포병부대가 떠난 후 남은 시설물) 근처 잔디 위에 누워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었듯이 우린 대화를 나누었다.

내 옆에 있는 조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어릴 적 내 두 눈에 들어왔었던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지금도 내 두 눈에 들어와 있었다. 여전히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꾸밈없고 올바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숙소(런던 중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차 위에 있던 나를 들어 올려… 그는 너무도 쉽게 그 일을 해주었다!… 뜰을 가로지 르며 계단을 오르며 나를 옮겨 주었다.(주인공의 숙소는 아파트 개념입 니다. 4층 정도의 주택들이 여러 채 있고 그 가운데 안 뜰이 있으며 주택들 주위로 담이 쳐져 있으며 동서남북으로 수위실 문이 있습니다. 정문에 있는 수위실 문에서 주인공의 숙소까지 가려면 수위실을 통과해 안뜰을 지난 후 계단을 지나 숙소로 들어가 4층 건물의 4층까지 계 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나를 업고 늪지대까지 갔었던 파란만장했던 크리스마스 날이 떠올랐다.(크리스마스 이브 날 감옥선을 탈옥해 주인공을 만났던 죄수(매그위치)가 군인들에게 붙잡힌 날이 크리스마스 날임. 주인공과 조는 그걸 지켜보았음)

아직 우리는 변경된 내 운명(=재산상속받기 실패 후 파산)에 대해 어떠한 말도 넌지시라도 주고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내 최근의 이력(죄수를 해외로 탈출시키려다 붙잡히고 파산까지 당한 일)에 대해 그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도 나를 모르는 상태였다.

나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의심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고 될지 어떨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들었어, 조,”(=들어봤어요, 조?)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본 후 나(24 세, 주인공)는 그 날 그(=58세=조=대장장이)에게 물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주인공의 대사→) “내 후원자에 대해서?” “들었단다,”라는 조의 대답이 돌아왔다.

조가 말했다. “그가 미스 해비샴(어마어마한 부자. 52세에 죽었음)이 아니라 더구나, 이 친구야.”

“그럼 그가 누구라고 들었어, 조?”

“글쎄다, 핍(핍은 주인공 이름)! ‘세 명의 쾌활한 바지선 선원들(주인공 시골의 술집이름)’에서 네(어릴 적 주인공)게 수표(50만 원 짜리 수표 2장)를 준 사람(당시 갇 감옥을 나온 또 다른 죄수)을 보낸이(사람)라고 들었단다.”(어릴 적에 주인공이 수표를 받은 일은 10장을 참조바람. 10장 링크 ▶ <http://blog.naver.com/osy2201/10187375085> , 검색일자 : 2015-4-21)

“그래 맞아.”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라며 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차분한 ‘어조’ (원문에는 ‘태도’라고 적혀 있음)로 말했다.

“그럼 그(=매그위치=죄수=59세)가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어, 조(=58 세=대장장이=주인공의 매형)?” 내가 곧 더욱더 망설이며 물었다.

“어느 쪽 말이냐? 네게 수표를 보낸 사람을 말하는 거니, 핍(=24세=파산한 런던신사=주인공)?”

(주인공의 대사→) “응.”

“생각해보니,” 조는 한참을 묵상(명상)한 후 다소 얼버무리려는 듯 ‘창턱 밑에 붙여 있는 긴 의자’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죽은 매그위치)가 어떻게 해서 대체로 그 방향(죽음) 으로 무언가 내지는 다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구나.”

“그가 처해 있었다던 상황에 대해서도 들었어, 조?” “특별한 건 듣지 못했다, 핍.”

“만약 듣고 싶‘으’시다면, 조…”라며 내가 막 말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조(58세, 매형)가 일어나더니 내가 있는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여길 보거라, 얘야,”라며 조가 내 쪽으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우린 언제나 최고의 짝패(친구들)였잖니, 그렇지 않니, 핍(24세, 주인공 이름)?”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했다.

“아주 최고의 짝패(친구)였지.”라며 내가 마치 대답이나한 것처럼 그가 말했다. “그럼 된 거란다. 그럼 우리가 짝패였다는 거에 너도 동의한 거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친구, 이미 최고의 짝패인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불필요할 것이 분명한 그런 주제를 왜 생각해야 하겠니? 그런 불필요한 얘기 말고도 두 사람 사이에 다룰 이야기들은 넘쳐나지 않겠니. 자, 맙소사! 네 불쌍한 누이가 이따금씩 분을 삭이지 못해 미친 듯 가구를 망가뜨리며 날뛰든 기억이 나지 않니! 그래 간질이(누나가 주인공을 때릴 때 사용하던 왁스를 바른 회초리)로 맞던 기억이 들지?”

“그야 당근 기억나지, 조.”

(아래의 대사 모두 조의 긴 대사입니다. 조는 주인공의 매형입니다. 주인공의 누나는 죽었습니다. 조의 나이는 58세 정도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의 나이는 정확하게 24세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 곳곳에서 조의 대사를 통해 이 소설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57장 #35에서 이 소설의 주제가 언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뭔 소리??????)

(본문 다시 시작)

“여길 보거라, 친구,”라며 조가 말했다. “나는 너와 그 ‘간질이’(누나의 회초리)를 서로 떼어놓으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하지만 내 힘은 항상 내 생각(원문에는 ‘성향’이라고 적혀 있음)만큼 충분히 동일하지가 못했지.(조는 아주 어리숙한 인물로 나옵니다. 직업은 대장장이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인공은 조를 자신과 같은 레벨로 보고 반말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누이가 너를 야단치려고 마음먹었을 때 차라리 그러했으니까.”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길 좋아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만약 내가 그녀를 막으려고 나서면 그녀는 나또한 야단쳤을 뿐만 아니라 매번 너를 더 심하게 야단쳤단다. 나는 곧 그걸 눈치 챘지. 그렇다고 내가 네 누이에게 구레나룻(얼굴 ‘옆과 턱 밑의’ 수염)를 잡아 채이기 싫어서라든가 아님 그녀가 나를 마구 흔들어대기 ‘때문에’(→내가), 사실 난 그녀가 그러는 걸 환영했지, (←때문에) ‘내가’ 그 어린 아이(주인공)를 체벌에서 면해주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니었단다. 하지만 내 구레나룻(수염)가 잡아 채이고 내 몸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그 어린 아이(주인공)가 더욱 더 심하게 야단을 맞는 경우라면, 그럼 그 사내(남자)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대내이게 되지. (조의 대사 속의 생각→) ‘네가 하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니? 나쁜 결과가 보인다는 걸 너(조)도 인정해.’ (조의 대사→) 그리곤 계속 말하 더구나. (다시 생각→) ‘좋은 결과를 이끌지 못하리란 걸. 그러므로 대 장장이 양반, 내(생각 속의 조)가 자네(실제의 조)에게 조언하건대, 나쁜 쪽보단 좋은 쪽을 택하시게.’라고 말이야.”

“그 사람이 말했어?”라고 내가 굳이 말한 이유는, 조가 아까부터 내가 자신의 말에 대해 대답하길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그렇게 말하고말고.”라며 조가 인정했다. “그 사내가, 옳으니?”

“사랑하는 조, 그(조를 말함)는 항상 옳아요.”

(소설 속에서 조는 아주 어리숙한 인물로 나옵니다. 직업은 대장장이 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인공은 조를 자신과 같은 레벨로 보고 반말을 해 왔습니다.)

(큰따옴표 시작→) “좋아, 친구,”라며 조(58세, 매형)가 말했다. “방금 한 말을 잊지 말거라. 만약 그(조 자기 자신)가 항상 옳다면, 대체적으로 그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지, 만약 그가 항상 옳다면 그럼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겠지. 네(주인공)가 어린 꼬마였을 때, 어떤 사소한 문제를 네 속으로만 끌어 안고 끙끙 앓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구나, 대개의 경우 그런 경우란 ‘너’(주인공)와 ‘간질이’(주인공의 친누나가 회초리 끝에 왁스를 발라 맞으면 아픈 회초리)를 서로 떼어놓으려는 ‘조 가저리’(이름이 ‘조’, 성이 ‘가저리’)의 힘이 그의 생각(성향)만큼 충분히 같지 못하기 때문일 테지. 그러니 우리 두 사람사이에는 그 일에 대해 더 생각하지 말자구나, 그리고 불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더 언급하지 말구. 내가 지독히도 아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오기 전에 비디(30세, 여자이름)는 이런 나를 붙들고 ‘이건 이러한 관점에서 쳐다봐야’하며 그걸 그러한 관점에서 쳐다왔을 경우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말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느라 무진장 애를 먹었단다, 이제 그 둘 다를 다…,” (←큰따옴표 끝)

조는 자신의 논리적인 말의 배열에 완전히 매료되어 말했다. (큰따옴표 시작→) “그 둘 다를 이루었으니까, 자 이제부턴 진실된

친구로서 네게 이 말을 하는 거다. 다시 말 하마, 넌 그 문제로 무리해선 안 돼. 절대로 안 되고말고. 하지만 저녁 식사는 꼭 지켜야 하고 네 집에 있는 와인도 충분히 마셔야 하고 물도 많이 먹어야 해. 그러니 넌 침대 시트(이불) 사이로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야.” (←큰따옴표 끝)

조(58세, 매형)가 이 주제를 처리하는 섬세함과, 조가 그런 행동을 취하도록 단단히 일러놓은 비디(30세, 여자이름)의 친절한 재치와 상냥함이 내 마음에 깊게 전달되어 감동을 주었다. 여자의 기지로 그녀는 그렇게나 빨리 나를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고 ‘햇빛 앞에 놓인’(뒤에 나오는 ‘엷은 안개’와 연결), 우리 늪지대(주인공 시골 마을 뒤로 30분 넘게 걸어가면 늪지대와 교회의 무덤들 그리고 S자 모양의 강이 나옴)의 ‘엷은 안개’(햇빛 앞에 놓인 안개) 마냥 내 막대한 유산들이 어떻게 모두 녹아버렸는지를 조(매형)가 아는지 어쩐 지를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처음 발현했을(나타났을) 때는 내가 미처 인지할 수 없던 하지만 내가 곧 도달하게 된 서글픈 이해 하나가 조(매형)에게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점점 더 건강을 회복하면 할수록 그래서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 가면 갈수록 조(매형)는 조금씩 나를 덜 편안해하더라는 것이다.

내 몸 상태가 위중해 완전히 그에게 의지했을 때는, 이 가련한 친구는 완전히 예전 자신의 어조(말투)로 돌아가 내 익숙한 이름을 편하게 부르며 “핍(주인공이름)아, 응 이 친구야.”라며 좋아해 마치 내 귀엔 그것이 음악처럼 들렸는데,

나 또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의 그러한 친숙한 태도가 고맙고 행복하기만 했었는데, 하지만 내가 급속도로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음에도 어느 사이엔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던 조(매형)의 손힘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나도 이것이(조의 태도가 경직되어 가는 것) 의아했지만 곧 그(조)로 하여금 태도를 경직되게 만드는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이것에 대한 잘못이 모두 나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이었 다.(?????-\_-;; 이 몹쓸 번역체의 말투...사라져)

아아! 내 마음(원문에는 ‘지조’라고 적혀 있음. 지조??? 절개???)을 의심하고 내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내가 그를 점점 홀대해 떨쳐 버릴 거라는 생각을 그가 들게 내가 하지 않았던가?

내가 점점 건강해짐에 따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의 손이 점점 느슨해질 것이며 그럼 내가 먼저 내 손을 잡아 빼기 전에 그가 적기에(제 때에) 자신의 손을 풀어 나를 가게 놓아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고 그의 순결한 마음이 본능적으로 느끼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던가?

내(24세, 주인공=파산한 런던신사)가 조(58세, 주인공의 매형=대장 장이)의 팔에 기대어 템플(=런던 중앙이자 템스 강과 붙어있는 지역. 이 소설에 나오는 위치는 모두 지금으로 따지면 런던 한 복판임^^ 물론 당시에는 런던 한 복판이 아니었겠죠) 공원에 가보기 위해 집을 나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의 외출이었다. 그때 나는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너무도 분명히 감지했던 것이다.

우리는 강을 내려다보며 화창하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이것 좀 봐, 조(58세, 매형이름)! 이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걸. 자, 내가 이젠 혼자서도 이렇게 뒤로 걸을 수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자 봐봐.”

“무리는 하진 말거라, 핍(24세, 주인공이름=파산한 런던신사).”라며 조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그러는 걸 볼 수 있다면 난 기쁠 겁니다, 나리.”

‘나리’라는 이 마지막 말이 내 신경을 아주 거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공원 정문 쪽으로 더 걸어가지 않고 이내 전보다 더 허약해진 체 연기하며 조에게 그의 팔에 기대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조는 자신의 팔을 내게 내밀어주었지만… 생각에 깊게 잠겨 있었다.

내 입장에서도 역시 생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쑥쑥 자라는 조의 이러한 변화(높임말)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막을 수 있을지가 내 앞에 놓인 강력한 곤혹스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어느 처지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그에게 정확히 밝히기가 부끄러웠음도 나는 애써 숨기지 않겠다.

하지만 원컨대(생각건대) 그런 내 행동이 완전히 무가치한 꺼림도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적은 저금(돈)으로 나를 도와주길 원하리란 것을 나는 너무도 잘 알았고, 그가 나를 그런 식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됨을 내가 잘 알았던 것이다.

정말 우리 둘(주인공과 매형) 다 생각으로 가득 찬 저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이 문제를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결정했다. 내일이, 그러니까 일요일이니까, 새로운 주(월요일~금요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래 월요일 아침이 되면 조에게 이러한 변화들(높임말)에 대해 얘기를 꺼내보자, 그래서 이 내색하지 않은 마지막 흔적을 한쪽으로 제쳐놓자,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그 두 번째 것을 그에게 밝히고 그리고 내가 왜 ‘허 버트’(주인공의 절친)가 있는 카이로(이집트 수도) 지점으로 이주하지 않았는지도 밝히리라, 그럼 그 변화(높임말)들은 영원히 정복되리라.

내 안색이 밝아짐에 따라 조(매형)의 안색도 밝아졌기 때문에 마치 그도 역시 내 생각에 공명해 어떤 결심에 다다르게 된 것 마냥 보였다.

우리는 일요일을 아주 조용히 보냈다. 런던 시 외곽으로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고 들판을 좀 걸었다.

(주인공의 대사→) “요즘은 아팠던 게 다행이라 느껴, 조(58세, 매형 이름).”라며 내가 말했다.

(조의 대사→) “사랑하는 핍, 이 친구, 이젠 다 완쾌되었구먼, 나리.” (주인공의 대사→)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조.” (조의 대사→) “내게도 마찬가지인 걸, 나리.”라며 조가 다시 대답했다.

(주인공의 대사→) “내가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시간을 우린 함께 해왔어, 조(58세, 매형이름). 나도 잘 알아, 내가 그것을 잠시 동안 잊었던 때가 한때는 있었음을 말이야. 하지만 이 시간들만큼은 다신 잊지 않을 거야.”

(조의 대사→) “핍(24세, 주인공이름=파산한 런던신사),”라며 조가 잠깐 서두르며 그리고 좀 힘든 듯 말했다. “종달새들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있어왔던 일이지…요 친애하는 나리.”

밤이 되어 나(24세, 주인공=파산한 런던신사)는 침대로 갔고, 조(58세, 매형이름) 또한 내가 아픈 내내 그러했듯이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와 주었다.

아침(월요일 아침)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하다고 확실하게 느끼느냐 그가 내게 물어보았다.

(주인공의 대사→) “그럼 그렇고말고, 사랑하는 조.”

(조의 대사→) “그럼 매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 거다, 친구?” (주인공의 대사→)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조, 꾸준히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

조가 자신의 거대하고 선량한 손으로 내 어깨 위에 있던 침대 덮개를 가볍게 툭 치더니 ‘약간 쉰 듯 한 목소리’(허스키 한 보이스)로 말했다.

(조의 대사→) “굿나이트!” (“굿나이트” = <밤 인사>“잘 자거라” =

<작별인사>“안녕히 있거라”)

아침에 나(정확한 나이 24세임←제가 꼼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디킨스가 주인공의 나이가 “이제 24세”라고 묘사했었음, 주인공=파산한 런던 신사)는 한층 더 상쾌하고 기운차게 기상했고 ‘지체 없이’(바로) 조(58세, 주인공의 매형=대장장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는 내 나 름의 결심으로 충만했다.

그래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에게 말을 하자, 일단은 옷부터 챙겨 입고 그가 묵고 있는 방으로 가 그를 놀래어줄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그 날은 내가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난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곧 그의 침실로 갔다. 아, 그런데 그가 그곳에 없었다. 그곳에 없는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여행용 트렁크’(가방) 역시 온데 간데없었다.

허겁지겁 식사테이블로 가 본 나는 식사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였다.

〈 예의에 어긋나게 너무 오랫동안 머무는 것 같아 먼저 가마. 네가 다시 건강해졌고 이젠 조(자기 이름)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나가기라 믿기 때문이란다.

추신. 언제나 최고의 친구로부터 〉

그 편지 안에는 내가 체포당했었던 이유인 ‘빚과 소송비용’이 모두 청산되었다는 영수증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채권자(주인공에게 돈을 빌려 준 사 람들)가 내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미루었거나 철회했다는 허황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24세, 주인공=파산한 런던신사)는 조(58세, 주인공의 매형=대장 장이)가 그 돈을 지불했으리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조는 그 돈을 모두 지불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영수증에 (내 이름이 아닌)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를 쫓아 그리운 옛 대장간으로 찾아가서 내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참회의 감정들로 그에게 애원하는 것 외에, 그래서 예전부터 지워지지 않는 어렴풋한 무언가로 시작해서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된 그 미루어두었던 ‘두 번째 것’을 ‘내 마음과 가슴’에서 덜어내는 것 외에, 무엇이 지금 내게 남아 있겠는가?

그 결심이란, 비디(30세, 여자이름.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되고 런던으로 신사교육 받기 위해 상경하던 전날 차버린 여자)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심이란, 내가 한 때 품었었던 모든 희망들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그녀에게 밝히고 내가 처음으로 불행했던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옛 신뢰를 그녀에게서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다(다시 잘해보겠다는 얘기죠).

(아래의 긴 글 모두 주인공의 긴 독백입니다. 다만 읽기 편하게 단락을 제 마음대로 여러번 나누었습니다.)

(주인공의 긴 독백 시작)

그때 나는 그녀(30세, 비디)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큰따옴표 시작→) “비디(30세, 여자이름=주인공과 예전에 썸을 탔 던 관계), 네가 한때 나를 아주 많이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 너와 멀어졌던 동안에도 내 방황하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으면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늑하고 좋았어.

만약 네(비디)가 나를 한 번만 더 좋아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전의 반만큼이라도 나를 좋아해줄 수 있겠다면 만약 네가 내게서 비롯된 모든 실수들과 약속파기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용서 받은 아이를 품듯 너도 날 수용해줄 수 있겠다면, 정말로 난 미안해하고 있어, 비디, 그리고 지금 내겐 위로하는 목소리와 달래는 손길이 필 요해, 바라건대 지금의 나는 전보다 좀 더 네게 가치 있는 사람이지 않니, 훨씬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정말 조금은 말이야.

그리고 비디(30세, 여자이름), 내가 대장간에서 조(58세, 대장장이= ‘주인공의 매형’)와 함께 일을 할지 아니면 이 고장(주인공 시골 마을)에서 다른 직업을 구해볼지 그도 아니면 우리가 함께 먼 곳(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의미함)으로 건너가 내가 제안은 받았지만 잠시 보류해놓았던 그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먼 곳으로 건너갈지 말지는 네 말에 달려 있는 거야. 내가 네 대답을 듣게 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건 그렇고 사랑하는 ‘비디’(30세, 여자이름), 만약 네가 나와 함께 세상살이를 헤쳐갈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럼 내겐 이 세상이 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일 거고 그로 인해 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널 위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거야.” (←큰따옴표 끝)

그러한 것들(사랑고백 후 다시시작)이 내 결심이었다.

3일이 지나 건강을 좀 더 회복한 후 나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든 그곳(시골마을)으로 내려갔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모두 내가 어떻게 그 결심을 헤엄쳐 갔느냐이다 (????? ^-^;; 콩글리쉬죠~ ‘헤엄쳐가다’는 표현 귀엽네요. :) ㅎㅎ).

**위대한 유산**

**58장**

최고 수준에 있던 내 재산이 맹렬히 처박히고 말았다는 소식은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 고향과 인근지역 사람들의 귀에 이미 들어간 뒤였다.

‘외설적인 수퇘지’(=술집이름=주인공 시골마을 인근에 있는 ‘읍내 여 인숙’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그 정보가 퍼져 있음을 나는 발견했고, 그것이 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음도 눈치 챘다.

내가 한 재산 물러 받게 되었을 때에는 갖은 인정과 배려로 내 우호적인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열심이었던 그들은, 지금 내가 재산을 잃게될 처지인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냉랭함을 보였다.

저녁에 나는 도착했다. 종종 그토록 쉬었던 여행길에 나는 몹시도 지쳐 있었다.

‘외설적인 수퇘지’(=여인숙이름=술집이름=정류장이름=주인공 시골마을 인근에 있는 ‘읍내 여인숙’이자 ‘술집이름’이자 ‘마차정류장이름’)는 내가 늘 묵던 침실에 나를 들일 수가 없었다. 다만 안뜰 위, 비둘기들과 ‘4륜 역마차’(바퀴 4개 달린 4~5인승 마차)들 사이에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침실을 내 몫으로 배정해줄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아주 잘 숙면을 취했다. ‘외설적인 수퇘지’ (여인숙이름)가 일찍이 내게 줄 수 있었을 가장 상급의 숙박시설에서 잔 것만큼이나 나는 그 곳에서 깊고 평화롭게 잘 잤다. 그 곳에서 꾼 내 꿈의 질(양질의 꿈 할 때의 ‘질’)은 최고의 침실에서 꾼 꿈과 얼추 비슷했다.

내 식사가 차려지는 동안, 나는 아침 일찍 ‘새티스 하우스’(여인숙에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저택. 죽은 미스 해비샴이 살 던 저택. 미스 해비샴는 에스텔라를 길러준 수양어머니. 에스텔라는 돈을 보고 이미 다른 귀족과 결혼했고 미스 해비샴은 사고 후 죽은 경우임)까지 거닐어 보았다.

대문 위와, 창틀들 사이로 삐져나와 있는 양탄자(카펫)들 위로, 가구와 가재도구들에 대한 경매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임을 알리는 전단지들이 인쇄되어 붙여 있었다.

‘새티스 하우스’ 저택 그 자체는 낡은 건축 자재들로 팔려 허물어질 예정이었다.

맥주공장 벽에 ‘백화’(벽돌 따위에 흰색 얼룩이 진 거)가 껴 있었는데 그 백화 된 X자 모양의 글자 안에 ‘경매 1’이라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본체 건물들 중 한 채의 벽에도 ‘경매 2’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곳이었다.

여타 경매 번호들도 건조물(건물) 여기저기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매 번호들을 벽에 표시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담쟁이덩굴들이 뜯겨내어져 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 땅에 붙어서 뻗어나가 있었다. 물론 이미 시든 상태였다.

열린 대문 안으로 잠시 발을 들여놓고서 이곳과 전혀 상관없는 낮선 사람인 마냥 불편한 자세로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카탈로그(경매목록) 편집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맥주 통 위를 걸으며 수를 세고 있는 경매회사 직원을 목격했다.

펜을 손에 쥐고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던 카탈로그 편집자는 내가 예전에 ‘클레멘 타인’(노동가요)이란 노래의 곡조에 따라 종종 밀곤 했 었던 바퀴 달린 의자를 자신의 책상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미스 해비샴이 앉은 의자를 어린 주인공이 밀며 방을 돌아다녔었는데 그럴 때면 미스 해비샴이 심심하지 않도록 어린 주인공은 클레멘 타인이라 는 노동가요를 부르곤 했었음)

(※ 클레멘 타인 :

노동자들이 ‘달구어진 쇠를 해머로 두들길 때 팔뚝의 힘을 조절하기 위해 흥얼거리는 노래.’

이 노래는 성스러운 프랑스 주교였던 ‘클레멘트’(1세기에 프랑스 북 동부 도시 메츠에 제자 2명과 함께 파견된 성스러운 가톨릭주교, 메츠에서 아이들을 잡아먹던 용을 격퇴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런..-\_-; 그래서 지금 용이 한 마디도 안 남은 거임. 성인들이 용을 다 잡아버려서)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려 그날 하루가 행운이 많이 깃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구실이기도 했습니다.

노래가사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해머 질을 하자 모서리를 둥글게, 탕탕 오 우리의 성스러운 클레멘트 주교님! 때리는 소리 좋고 울리는 소리 더 좋네, 오 성스러운 클레멘트 나리! 두들기고 패고, 두들기고 패고, 오 성스러운 우리의 클레멘트 주교님! 쨍그랑거리는 소리 죽 이네, 오 성스러운 클레멘트 나리! 불 더 땅기자 불 더 땅겨, 오 클레 멘트 주교님! 건조기(물)는 으르렁거리고 연기는 높이 피어오르네, 오 우리의 성스러운 클레멘트 나리!”

아시죠? 전혀 근거 없이 지어낸 해석인거? :) ㅎㅎㅎ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낮겠죠. :)

(참조 12장, <http://blog.naver.com/osy2201/10188491411> , 검 색일자 : 2015-5-9)

# 앞 부분에서 사용한 단어 두 개 해석 정정 :

58장에 적었던 일부 문장 속 단어해석을 정정합니다. :) 가만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서..ㅎㅎ

「 맥주공장 벽에 ‘백화’(벽돌 따위에 흰색 얼룩이 진 거)가 껴 있었는데 그 백화 된 X자 모양의 글자 안에 ‘경매 1’이라는 기호가 적혀

있었다.」

위의 문장에서,

‘경매 1(영어로 ’LOT 1‘임)’라는 글자가 X자 모양의 글자 안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매 1(LOT 1)’이란 글자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경매 1’이라는 글자가 여자허리를 앞에서 본 것처럼 ‘경매 1’이란 중간(높이기준)부분이 들어간 글자형태입니다. X자처럼~

* ‘경매 1’ 그림 : <http://blog.naver.com/osy2201/220356958282> (검색일자 : 2015-5-12)

해석하다가 오버했음. -\_-;; 주인공의 공허한 감정에 너무 감정이입 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위의 문장 ‘다음+다음’ 문장인 「 여타 경매 번호들도 건조물(건물) 여 기저기에 표시되어 있었다.」에서,

건조물이라고 해석한 것은 잘못되었고 ‘구조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영어사전이나 네이버영어사전 보다가 덩달아 잘못해석 한

것 같네요. -\_= 점점 영어사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져서 ㅠ.ㅠ 아는 단어도 사전으로 확인안하면 전혀 생각이 안 남...어이구 ㅜ.ㅜ 영 어해석의 폐해~\_~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 영어 더 헷갈리고 있음.

▼ 구조물의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조물’ 그림 : <http://blog.naver.com/osy2201/220356958282> (검색일자 : 2015-5-12)

그러니까 ‘경매1’(영어로 ‘LOT 1’)이라는 단어가 위의 그림처럼 적혀 있고, ‘경매2’란 단어는 맥주공장 일부건물 벽에 적혀 있고, 여타 다른 ‘경매 번호’들은 맥주공장이 시간이 지나 구조물(기둥, 벽, 보)이 들어날 정도로 헐어졌거나 또는 맥주공장을 추가로 더 지으려다가 공사를 관두어 드러난 구조물(건물이 아니라 기둥이나 보 바닥 같은 구조)들에 덕지덕지 붙어있더란 묘사였습니다.

(본문 다시 해석 계속)

아침을 먹기 위해 ‘외설적인 수퇘지’(주인공 시골 읍내의 술집이름이자 여인숙이름)에 딸린 다방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나는 펌블추크 씨(72세, 능청스런 잡곡상인)가 여인숙 주인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인공은 펌블추크 씨가 지나치게 뻔뻔스럽고 철면피 같은 협잡꾼 (사기꾼)같다며 엄청 싫어함)

물론 아닌 밤중에 홍두깨마냥 당한 최근의 일(악당들에게 집이 강도를 당하고 침대 틀에 묶여 괴롭힘을 당하고 주먹으로 코를 맞은 일. 그 일에 가담했었던 악당들 중 한 명이 ‘올릭’인데 사건 후 잡혀 교도소로 끌려감)로 그의 얼굴은 전보다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펌블추크 씨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내가 나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년이여, 그대의 쇠락해진 모습을 보게 되다니 유감이네. 하지만 그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나! 응? 그밖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말이네!”

그가 당당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손을 뻗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미 병으로 망신창이가 된 상태라 그와 말다툼을 벌일 건강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윌리엄(웨이터이름, 알 필요 없는 이름임 다시 안 나옴),”이라며 펌 블추크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식탁 위에 머핀(옥수수 빵) 하날 갖다놓아 드리게. (주인공을 보며) 결국 이렇게 된 것인가! 응? 결국 이렇게 된 것이냐고!”

나(24세, 파산한 런던신사)는 찌푸린 얼굴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펌블추크(72세, 능청스런 잡곡상) 씨는 옆에서 그런 나를 지켜보다 내 손이 찻주전자에 닿기도 전에 자신이 찻주전자를 들고서는 마지막까지 충실하기로 작심한 후원자인 것 마냥 내 찻잔에 차를 따라주었다.

“윌리엄(웨미터이름),”라며 펌블추크 씨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 소금을 이 신사 분께 갖다드리게. (다시 주인공을 쳐다보며) 잘나가던 시절엔,”라며 그가 다시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설탕을 넣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우유를 넣었던가 아닌가? 그래 자넨 설탕과 우유를 함께 넣었었지. 윌리엄 샐러드용 ‘물냉이’(=녹색채소, 잎을 샐러드나 수프용으로 먹는 채소. 그냥 먹어도 됨. 물냉이 사진링크 ▶ <http://themlife.co.kr/70156268826> , 검색일자: 2015-5-12)도 하나 갖다드리게.”

“감사합니다만,”이라며 내가 짧게 말했다. “전 물냉이(녹색채소)를 먹지 않는걸요.”

“아하 자넨 그 딴것들을 먹지 않지.”라며 펌블추크 씨는 마치 내가 그렇게 말하리란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리고 물냉이를 먹지 않는 것이 내 현재의 나락(몰락)과 일치한다는 마냥 고개를 여러 번 끄떡거리 면서 한숨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펌블추크 씨의 대답→) “그래. 대지에서 나는 소박한 작물(물냉이)이지. 괜찮네, 윌리엄(웨이터 이름) 단 몇 개라도 가져올 필요 없네.”

나는 계속해서 아침식사를 했다.

그리고 펌블추크 씨는 마치 자신이 항상 그러했다는 마냥 물고기 같이 흐리멍덩한 시선으로 나를 노려보며 시끄럽게 날숨을 쉬어가면서 내 옆을 계속해서 지키며 서 있었다.

“너무 말라 피부와 뼈밖에 없군!”라며 펌블추크 씨가 감회에 젖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고장을 떠날 당시에만 해도, 그때 내가 축복의 말을 했더랬지, 내가 꿀벌마냥 변변찮은 음식 (소 혓바닥 삶을 요리와 닭튀김 등등. 19장 참조 ▶ <http://blog.naver.com/osy2201/220015496023> , 검색일자 : 2015-5-12)들을 그의 앞에 내 놓았을 때만 해도 그는 복숭아만큼이나 포동포동 살이 쪘었더랬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막 새로운 행운(막대한 유산 상속 예정소식)에 들어섰을 때, “(악수를 청하는 말→) 아~ 감히 내가…?”라며 자신의 손을 내밀던 그때 그 “비굴한(노예근성의) 태도”와, 그리고 방금 전에 살찐 그 동일한 다섯 손가락들을 내밀 때 보인 “여봐란 듯 과시하는 행위” 사이에 놓인 이 놀랄 만한 차이를 상기시켜주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허!” 그가 버터 바른 빵을 내게 건네며 계속 말했다.

“요셉(요셉은 조의 세례명, 펌불추크 씨는 조의 실제 삼촌임. 조는 주인공의 매형)에게 가볼 생각인 게냐?”

“하늘에 맹세코,” 내가, 나도 모르게 발끈해서 말했다. “제가 어딜 가려든지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발 그 찻주전자 일랑은 제자리에 좀 두세요.”

그건 내가 택할 수 있었던 가장 나쁜 경우였다, 왜냐하면 그런 내 행동으로 인해 펌블추크는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젊은이,”라며 펌블추크(72세, 펌블추크)는 문제의 그 물건(찻 주전자) 손잡이에서 손을 풀며, 내 테이블에서 한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동시에 다방 문에 있던 주인과 웨이터보고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다.

“찻주전자 일랑은 내버려 두지. 자네가 옳네, 젊은이. 이번 한 번만은 자네가 옳네. 낭비벽과 방탕으로 고갈 된 자네의 쇠약해진 골격(건강)을 자네 선조(부모님)들로부터 이어받은 건강에 좋은 음식물로 북돋 아주려던 거였는데 내가 그만 자네 아침식사에 지나친 관심을 두다보니 깜빡했나보네. (주인공에게서 고개를 돌려 다방 문에 있는 주인과 웨이터를 바라보며 큰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블추크는 다방 문에 서 있던 주인과 웨이터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팔을 뻗으면 나와 닿을 거리에 서서 나를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펌블추크 씨의 대사→) “이 자가 바로, 그의 행복한 유아기(만1살~6살 아기) 시절에 내가 늘 놀아주었던 바로 그 자라네! 그도 내게 그게 자신이 아니라곤 말 못할 것이네. 암. 이게 그 자라고 내가 당신 들에게 말하고 있거늘!”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중얼거림이 그들로부터 들려왔다. 웨이터가 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고개로는 다방 문에 서 있는 주인과 웨이터를 바라보면서, 거리로는 1미터 쯤 주인공의 식사테이블에서 떨어진 채, 자신의 손가락으로는 주인공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자가,”라며 펌블추크(72세, 능청스런 ‘잡곡상=곡물상인’)가 말했다.

“내가 저 ‘2륜 경마차’(바퀴 2개인 마차)에 태우고 다녔던 게 바로 그일세. 바로 이자가 자기 친누나의 품에서 양육되는 것을 내가 지켜 보았던 것이 바로 그일세. 바로 이자가, 내가 자기 친누나 남편의 삼촌이 되는 자일세. 그 애의 이름은 그 애 친정어머니 이름과 같은 ‘조지아나 마리아’(이름=조지아나, 성=마리아)였네. 어디 그(주인공)보고 만약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부정해보라고 거들어보게나!”

웨이터는, 내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리라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 진상(사실)에 암담함을 부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다.

(다방 문에 서 있던 주인과 웨이터에게서 고개를 돌려 주인공을 바라보며) “이보게, 젊은이(주인공),”라며 예전에 문제가 꼬일 때면 그가 늘 상 해보였듯 내 쪽을 보고 자신의 머리를 나사처럼 돌려대며 그가 말했다.(←문제가 꼬일 때마다 늘 상 하는 펌블추크의 버릇임. 9장 맨 아래에서 위로 2번째 단락 참조 ▶ <http://blog.naver.com/osy2201/10187106210>)

“요셉(주인공의 매형 이름)에게 가려던 게지. 자넨 내게 물었지, 자 네가 어디로 가든 그것이 자네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네? 그럼 이렇게 말해주리다, 신사양반, ‘자넨 요셉에게 가려던 게지.’라고”

그것을 납득시켜달라는 마냥 웨이터가 헛기침을 해보였다.

“이제,”라며 펌블추크(72세, 능청스런 ‘잡곡상=곡물상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확신과 결정을 미덕(선행)을 위해 말한다는 정말이지 짜증스러운 태도로 이 모든 얘기들을 해댔다.

(펌블추크의 대사→) “좋네, 내 자네에게 자네가 요셉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겠네. 여기 주인장 나리(여인숙 주인)께서 자리해 계시네, 물론 그는 이 고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이 평판받는 인물이네, 그리고 저기 윌리엄,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아버님 성함이 폿킨스(=별난 이름임=중세 영어에서 기 원=홉킨스???:)인 윌리엄도 여기 자리해 있네.”

“바로 알고 계십니다, 어르신.”이라며 윌리엄(웨이터 이름)이 대답했다.

“저들(여인숙 주인과 웨이터)이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펌블추크 (72세, 능청스런 ‘ 곡상=곡물상인’)가 말을 이어갔다. “내 자네에게 한 마디 함세, 젊은이(주인공). 요셉(58세, 대장장이. ‘요셉’=‘주인공의 매 형’=‘펌블추크의 조카’. 요셉은 ‘조 가저리’의 세례명임. ‘조=이름. 성= 가저리’)을 찾아가면 자네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말이네. 그에게 이 렇게 말하게. (작은따옴표 시작→)‘요셉(주인공의 매형의 세례명), 전 오늘 제 초기의 은인이자 제 성공의 기초설계자이셨던 분을 만났어요.(←펌블추크가 읍내사람들에게 맨날 하는 말임) 전 어떤 존함도 거명 하진 않을 거에요. 하지만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그래요 요셉 (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읍내사람들은 그 분을 즐거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전 오늘 그 분을 만나고 온 거예요.’(←작은따옴표 끝)라고 말이네.”

“전 맹세코 그런 사람(제 초기의 은인이자 제 성공의 기초설계자이셨던 분)을 만나지 못한 걸요.”라며 내가 말했다.

“방금 그 얘기도 하게,” 펌블추크가 응수했다. “자네가 방금 그 얘기를 했노라고 그에게 말하게. 그럼 심지어 요셉(주인공의 매형)조차도 아마 놀라움을 무심코 드러낼 것이네.”

“그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군요.”라며 내가 말했다. “그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게,”라며 펌블추크(72세, 능청스런 ‘잡곡상=곡물상인’)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작은따옴표 시작→)‘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그래요 제가 그 분을 만나 뵙고 온 거예요. 그 분(펌블추크 자신)은 당신(주인공의 매형)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어떤 악의도 품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분은 당신의 성격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계신걸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그 분은 당신의 그 똥고집(황소고집) 같은 성격과 무지몽매(사리에 어두움)함에 기가 찬 이 상황에 너무도 익숙 하시니까요. 그 분은 제 성격도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신걸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고마워~워~할 줄 모르는 제 결핍된 성격을 말이에요. 그래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작은 따옴표 끝)라고.”

이 부분에서 펌블추크는 자신의 머리와 팔을 나를 향해 마구 흔들어 보였다.

“알겠는가. (작은따옴표 또 시작→)‘보통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가장 기초적인 고마워~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제겐 완전히 철저히 결핍되어 있음을 그 분은 잘 알고 계세요. 읍내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 분만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당신도 그걸 몰랐죠,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당신이야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웬걸요 그 분만은 죄다 정말 죄다 간파하고 계시던걸요.’(←작은따옴표 끝)라고 말이네.”

그가 수다스러운 당나귀인줄이야 알았지만, 내 얼굴에다 대고 이딴 식으로까지 말을 해댈 수 있는 낯짝을 그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난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그에게 말하게, (작은따옴표 시작→)‘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그 분(펌블추크 자기 자신)이 제게 작은 메시지 하나를 주셨어요, 당신을 만나면 복창하라면서요. 제가 파산했을 때 그 분께선 하느님의 가운데 손가락을 보셨대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그 분께선 자신이 본 그 가운데 손가락의 생동감 넘치심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 손가락은 다음과 같은 글귀를 지칭하고 계셨는데, 그 문구는, 요셉(주인공 매형의 세례명), 다름 아니라, 〈 그(주인공)의 초창기 은인 이자 그(주인공)의 성공의 기초설계자였던 이(펌블추크)에 대한 배은망 덕~덕~함에 대한 마땅한 응보라. 〉 라였데요. 하지만 그 분(펌블추크) 께선 자신이 저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대요, 요셉(주인공 매혀의 세례명) 전혀요 전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당 옳았고 친절이었으며 인정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도울 거래요.’(←작은따옴표 끝)”

“유감이군요.” 중단당한 아침식사를 끝내며 내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다시 할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는 게 말입니다.”

“주인장!”라며 펌블추크는 이제 여인숙 주인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윌리엄(웨이트 이름)! 좀 전에 내가 한 얘기들이 자네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응당 옳았고 친절이었으며 인정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내가 도우리라’고 자네들이 이 청년에게 말하려는 것을 나는 일절 방해하지 않겠네.”

그와 같은 분명치 않은 “그것”이란 모호함이 주는 효력 덕택에 기분좋기 보다는 훨씬 더 넋이 나가 있는 나를 뒤로 하고서, 이 ‘협잡꾼’(사기꾼)은 이러한 말들을 한 후 그들 두 사람(주인과 웨이터)과 악수를 나눈 후 점잔을 빼며 여인숙을 떠났다.

그가 떠난 후 오래지 않아 나도 역시 그 여인숙을 떠났다.

그리고 내가 읍내중심가(상점이 늘어서 있는 거리)로 들어섰을 때 나는 그(=72세=펌블추크=능청스런 잡곡상)가 선택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게 문 앞에 서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틀림없이 동일한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내가 길 반대편을 통과할 때 아주 호의적이지 않게 “휙! 획!”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디(30세, 여자이름)와 조(58세, 매형이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 지금은 더 즐거운 일이었다. 그들의 멋진 용서가 놋쇠 빛을한 이 철면피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빛났기 때문이다. 만약 더 빛날 것이 있다면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로 더디게 걸어가고 있었다. 내 발이 허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로 다가가면 갈수록 아픔은 덜해졌고 오만과 부정(진실 아님)로부터 더 멀리 더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6월의 날씨는 향기로웠다. 하늘은 푸르렀고 종달새들은 ‘덜 여문 옥 수수’(옥수수가 녹색이란 의미) 위로 높이 상승하고 있었다.

시골 지역 모두가 이전에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 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살 삶들에 대한 수많은 유쾌한 그림들과, 내가 입증했듯 그녀(=비디=여자이름=30세)의 소박한 신앙과 맑고 편안한 지혜가 내 옆에서 안내해주는 영혼이 되어줄 때 변화해갈 내 인격에 대한 더 좋은 변화들에 대한 기대가 나를 이끌고 있었다.

그러자 내 안에서 부드러운 연민의 정이 샘솟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이번 귀향으로 부드러워져 있었고, 지나와야 했던 변화가 너무나 커서 내가 마치 먼 여행길에서 맨발로 집으로 힘들게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사람, 수많은 세월을 여행으로 방랑한 사람인 마냥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비디(30세, 여자이름)가 여자선생님으로 있는, 시골의 작은 학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교였다.(←주인공이 학업을 그만두고 새로 지어진 조그마한 학교임)

하지만 조용히 마을로 들어서려다보니 학교 옆 좁은 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 길은 생 울타리로 둘러쳐진 길이었다.

실망했다. 학교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비디의 집 문도 잠겨 있었다.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잠시 봐두려던 내 약간의 희망이 꺾인 것이다.

하지만 대장간은 아주 짧게 떨어져 있었다. 조가 해머 질을 하는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향기 나는 녹색라임(라임≒레몬:)?) 나무들 밑을 지나 대장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 소리(해머질 소리)가 들렸어야 하는 한참 뒤에도, 그리고 내가 그 소리라고 상상했다 미처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린 한참 뒤에도 모든 것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라임(≒레몬^^;;)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예전 그 산사 나무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서양산사나무 이미지 사진 링크 네이버 블로그 ▶ <http://goo.gl/Bm8ksB> ← 주소를 줄인 주소임, 검색일자 : 2015-5-14), 밤나무들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소리를 들으려고 멈추었을 때 나무 잎들은 사이좋게 “바스락” 거려 주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바스락거려준 한여름의 바람 속에도 조의 해머질 소리는 들어있지 않았다.

대장간이 시야에 들어오자 거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이유를 몰랐다. 마침내 대장간을 보였고 닫혀 있음도 보였다.

화염의 번쩍임도 전혀 없었다. 불똥이 비 오듯 떨어지는 반짝거림도 전혀 없었다. 고함소리도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 그냥 문이 닫혀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집은 비워있지 않았다.(대장간 옆에 주택이 붙어 있는 구조이며, 대장간과 주택 앞으로 마당이 있음) 최상의 응접실은 여전히 사용 되고 있는 듯 보였다. 왜냐하면 응접실 창가에 새하얀 커튼들이 팔랑 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문은 열려진 채였고 꽃들로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꽃들 너머를 들여다볼 셈이었다.

그때 조(58세, 주인공의 매형)와 비디(30세, 여자이름)과 내 앞에 서 있었다. 팔짱과 팔짱을 낀채.(두둥~!!!)

마치 내가 유령이 되어 나타났다는 마냥 비디(30세, 여자이름)가 처음에는 “캭”하며 소리를 한번 내질렀다. 하지만 곧 그녀는 내 품안에 있었다(포옹했다).

그녀를 보고 나는 울었다. 그녀도 나를 보며 울고 있었다.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그녀가 너무 세련되고 즐거워보였기 때문이고, 그녀가 나를 보고 운 것은 내가 너무 야위고 창백해보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비디, 너 오늘 정말 산뜻한 옷차림이구나!”

“응, 사랑하는 핍(주인공이름).”

“그리고 조(매형이름), 정말 멋진 옷차림이야!”

“그래, 사랑하는 핍(주인공이름), 이 오랜 내 친구.”

나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눈을 돌리며 그들 둘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러고는….

“내 결혼식 날이야!”라며 비디가 행복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며 외쳤다. “나 오늘 조와 결혼했어!”

비디(30세, 여자이름)와 조(58세, 주인공의 매형. 주인공의 친누나는 몇 년 전에 죽었었음)는 나를 부엌으로 부축해 옮겼고, 나는 친근하고 익숙한 그 식탁 위에 고개를 기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비디는 내 한 쪽 손을 가져다 자신의 입술에 대고 있었고 조는 내 기운을 회복시키고자 내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조가 비디에게 하는 대사→) “여보, 핍이 아직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 경기(놀람)를 일으킨 모양이구려.”라며 조가 말했다.

그리고 비디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하지만 전 너무 행복한 걸요.”라며 말했다.

그들 모두 나를 만난 것에 너무도 반가워하고 있었고 나를 본 것에 너무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으며 내가 그들을 찾아와 준 것에 너무도 감동받아 있었으며 마침 그 날 내가 우연히 들러 그들의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에 너무도 기뻐했다!

내게 첫 번째로 든 가장 고마운 것 중 하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좌절된 이 희망(비디와의 결혼)을 입 밖에 내지 않아 조(매형이름)가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얼마나 자주, 그가 나를 간호하고 있을 때, 그것(비디에게 청혼하는 문제)이 내 입술까지 올라왔든가!

그가 딱 한 시간만 더 나와 함께 있었더라도 그것(비디에게 청혼하는 문제)을 그도 인지했을 테고 그럼 얼마나 돌이킬 수 없었을까!

“사랑하는 비디(여자이름),”라며 내가 말했다. “넌 온 세상에서 최고로 괜찮은 남편감을 고른 거야. 내 침대 맡에서 나를 돌보던 그를 보았더라면 아마도… 아니 아니지, 네가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할 순 없을 테니까.”

“맞아, 그건 정말로 불가능해.”라며 비디가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매형이름), 당신은 온 세상에서 최고의 신부감을 얻은 거예요. 당신이 받아 마땅할 행복을 그녀는 가져다 줄 테니, 당신은 선하고, 인심 좋고, 고결하니까요, 조!”

떨리는 입술로 조(매형이름)가 나를 바라보았다. 실제로도 그는 자신의 소매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이 교회를 다녀왔을 테니, 조(매형이름)와 비디 (여자이름)는 당신들이 제게 해준 모든 사랑, 제가 배은망덕함으로 보 답했었던 모든 사랑들에 대한 제 겸허한 사의(감사)를 받아주세요! 한 시간 내로 제가 여기를 떠나 해외로 나갈 예정이라 말씀드릴 때에도, 제가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당신들께서 지불해야만 하셨던 그 돈을 마련해 다시 송금할 수 있을 때까지 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을 테예요, 그리고 제가 그 돈들을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더 갚았다손 치더라도 전 절대로 당신들에게 진 지금의 이 부채들 중 단 한 푼도 만회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테예요. 사랑하는 조와 비디, 전 이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주인공의 긴 대사 끝)(위에 적힌 주인공의 긴 대사는 디킨스가 쓴 원문을 읽기 쉽게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마음대로 고친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나게 ㅎㅎㅎ 고쳤음. :) 원문과 비슷함. 주인공이 감정에 겨워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본문 해석 다시 계속)

그들 모두 나의 이러한 말들에 감정이 누그러져 제발 더는 말하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그래도 이 말만은 더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조’(매형이름), 전 당신이 사랑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몇 살 안 먹은 꼬마가 한겨울 밤 이 벽난로 구석에 앉아 당신으로 하여금 이 자리(주인공 좌석)를 영원히 떠나가 버린 또 다른 꼬마를 생각하게 하겠지요. 그 녀석에겐 말하지 마세요, 조(매형이름), 제가 남에게 감사하지 못 했음을요. 그 애에겐 말해주지 말아죠, 비디, 내가 인정머리 없고 정당하지 못 했음을. 제발 그 애에겐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제가 두 사람 모두를 영광으로 생각했다고요. 당신 둘 모두 너무도 선량하고 진실하니까요, 그런 당신들의 아이니까 그 애는 저(주인공)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 람으로 자라는 게 당연한 일이라 제가 말했다고만 전해주세요.”

(주인공의 매형인 조가 하는 말→)(참고로, 주인공의 누나는 악당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해 고생하다가 몇 년 전에 죽었음. 조가 새로 비디 와 결혼하는 경우임) “그 애(조와 비디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에겐,”라며 조가 소매(팔의 소매) 자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난 그 애에게 진실 외엔 어떤 말도 들려주지 않을 거야, 핍(주인공의 이름). 비디(=주인공의 전 여친=주인공과 사귈 뻔한 여친????)도 그러지 않을 테고. 어떤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란다.”

“그럼 이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신들이 벌써 그 마음속에서 날 용서했음을요, 비록 그렇지 라도, 부디 두 사람 다 내게 들려 주세요. ‘널 용서한다!’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줘 기도할게. 내가 그 말들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야 나는 다가올 장래(미래)에는 두 사람이 날 신뢰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믿을 수 있을 테니까!”

(위 부분과 아래 사이에는 시간간격이 있습니다. 위 부분은 주인공이 시 골에 내려가 조와 비디를 만나 얘기를 나눈 후 “같이 식사 한 후 저를 바라다 주세요. 거기서 작별인사 해요 우리.”라는 말을 한 것으로 끝나고, 곧바로 이야기는 런던으로 돌아와 주인공이 이후 한 일들로 시작 합니다. 이제 무대는 런던이 됩니다.

깜빡하고 얘기 안 했는데 이 소설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 속에서 유독 “영국의 지방사투리+단어의 어원이 중세 시대 독일에서 온 영어단어(당시 안 쓰던 영어단어)”를 이따금씩 구사하는 인물은 바로 조(주인공의 매형)입니다. 조의 직업은 대장장이입니다. 힘은 장사입니다. 그 외에는 소설 속에서 사투리에 대한 별다른 언 급이 없습니다.

아마 소설 속 비중이 많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속은 듬직해 결국 주인공을 절망에서 구해준 인물이 조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투리를 사용했나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주제는 “행복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진실함 정식함 성실함으로 이어진 인간관계에 있다”입니다. 이 주제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인물이 조인 거죠~

시중에도 좋은 번역본이 여럿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넘 재밌거든요. :) 넌 내 타입이었어!!! 바람 피고 딴 여자랑 한 번 더 결혼한 것만 빼면 뭐 디킨스도 나쁘지 않음~)

(그럼 각설하고 해석 다시 시작합니다. :)

(주인공이 시골에서 돌아와 런던에서 곧바로 착수한 일들입니다.→)

채권자들과 화해할 목적으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았고 모을 수 있는 한 돈을 모았다.

그들은(채권자들)은 내가 나머지 금액을 완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었다.

나는 해외(=카이로=이집트 수도)로 나가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 카이로 지점에서 일함)와 합류했다.

한 달이 못되어서 나는 영국을 벗어났으며, 두 달이 못되어서 나는 이미 ‘클래리커(사람이름 / 주인공이 몰래 돈을 투자해 허버트를 고용하게 한 회사이름이자 대표이름) 무역(상업)회사의 사원이었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채 넉 달이 못 된 날 회사 사무에 대한 전권을 이임 받았다.

왜냐하면 클라라(21세, 허버트의 약혼녀)가 살고 있는 ‘제분소(방앗 간)가 있는 저수지(인공 못) 제방(둑)’(←영국 런던의 어느 동네)의 주택 거실 천정을 가로지르는 보(수평바닥하중 〈 무게 〉을 수직 기둥으로 전달시켜주는 수평구조물. 기둥이 수평으로 누운 거. -\_ㅜ; 칵~ 멋진 설명. 짝짝짝)를 더 이상 ‘빌 발리’(클라라의 아버지 / 빌:이름 / 발리: 성씨. 클라라는 허버트의 약혼녀. 허버트는 주인공의 절친이자 카이로 지점장) 영감이 전율시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영면에 든 것이 다(클라라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클라라와 결혼하기 위해 허버트(24세, 주인공의 절친이자, 무 역회사의 카이로지점장)가 귀국해야 했고 그래서 내겐 허버트가 돌아올 때까지 카이로 지점의 업무 전반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다.

(허버트가 일하고 있는 카이로 지점은 클래리커 무역 회사의 카이로 지점이며, 주인공은 돈이 좀 있을 때 허버트를 위해 그리고 허버트를 취직시켜주는 조건으로 클래리커라는 상인과 계약을 맺고 클래리커 무역 회사가 동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투자했었습니다. 계약한 사실은 주인공과 클래리커와 웨믹만 압니다. 웨믹은 변호사사무실의 서 기입니다.)

내가 회사의 공동 경영진(사장이 아니라 공동 경영진)이 되기까지 여러 해를 보내야했다. 하지만 나는 허버트와 그의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이젠 빚도 다 청산했으며, 비디(조의 아내)와 조(주인공의 죽은 누나의 남편)와 서신왕래도 부단히(변치 않고)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나는 이제 회사에서 3번째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때까지 클래리커(사람이름)는 나와의 신의(주인공이 회사에 거금을 투자한 대가로 클래리커가 허버트에게 카이로 지점을 맡긴 걸 비밀로 하기)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3번째 자리에까지 오르자, 클래리커(사람이름)는 도의심 (양심) 때문에 그동안 너무 버거웠었다며 자신이 허버트와 협력하게 된 비밀을 이젠 밝혀야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말대로 했고, 대신 허버트는 당황하리만큼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랜 은폐 때문에 녀석과 내 사이가 더 나 빠진 건 없었다.

나는 우리가 대기업이 되었다거나 또는 돈을 끌어 모았다거나 하는 상상을 여러분들이 하게 여지를 남기진 않겠다.

우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명성을 얻었으며 우리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린 매우 잘 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허버트(주인공의 절친)의 한결같고 기운찬 근면과 즉응력(준비능력)에 너무도 많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이 친구가 사회생활에 적절치 않다고 여길 수 있었는지 종종 의구심이 일었을 정도였다.

그런 상념의 결과 어느 날, 나는 어쩌면 ‘적합지 않았음’이 그의 안에서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58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59장에서 계속 됩니다.)

(59장이 이 소설의 마지막 장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

산』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59장**

(마지막 장임)

(59장의 무대는 영국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11년 만에

자신의 영국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년 동안, 나는 조와 비디를 만나지 못했다. 비록 그들 두 사람 모두 카이로(이집트 수도)에 있는 내 공상(상상) 속에 자주 나타났을지라도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을 11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11년 만에 영국으로 귀국했음→) 12월의 어느 저녁 날이었다. 해가 진 후 한 두 시간이 더 흐른 뒤였다.

나(주인공, 35세)는 익숙한 부엌 문 빗장(걸쇠) 위에 조심스럽게 내 손을 얹었다. 빗장이 너무도 부드럽게 열렸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눈에 띄지 않게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부엌 벽난로 옆 옛날 그 장소에 그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여전히 정정하고(←건강한 노인) 원기 왕성한 모습으로, 비록 약간은 희끗희끗한 머리털을 지니고 있었지만, 거기엔 여전히 변함없는 조(69세, 주인공의 친누나의 남편. 주인공의 친누나는 악당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해 병으로 고생하다 오래전에 죽었음. 조는 이후 비디와 결혼했음. 주인공의 전 여친이자 주인공의 누나를 간병하던 이가 비디임. 비 디는 이제 41세)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전과 다름없이…, 조가 다리(발과 다리 할 때의 다리)로 만들어준 울타리에 등을 기댄 채, 한때 내 자신의 자리였던 자그마한 ‘걸상’(앉는 자리만 있고 등이 없는 걸상을 말함) 위에 앉아 벽난 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내가 전과 다름없이!”

(조가 주인공에게 하는 대사→) “우린 널(주인공) 위해서 그 애에게 핍(주인공의 이름. 부연설명→1장 본문 중에서 발췌→ 〈 내 아버지 성 씨는 “피립”이시고 내 이름은 “필립”이다. 내 유아기(생후1세~만6세) 때 혀는 “핍”보다 더 길게나 더 확실하게 발음할 수 없었다고 하 는데 그래서 나는 나를 “핍”이라고 불렀고 그게 내 이름이 되었다. 〉 )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단다.”

내가 그 아이 옆에서 또 다른 걸상(등받이가 없는 걸상) 하나를 차지하고 앉았을 때 조가 기쁨에 겨워 말했다.

물론 나는 내가 어릴 적에 펌블추크(주인공이 어릴 적에 무척 괴롭힌 노인)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는 짓은 하지 않았다.

조가 계속 말했다. “우린 살짝궁 저 애가 너처럼 자라길 바랐지, 아무래도 그리되고 있는 것 같지 뭐니.”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11살짜리 꼬마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뜻이 아님^^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키나 몸집이 엄청 작게 자라고 있다는 뜻임. 그래서 조가 주인공보고 주인공이 어릴 때처럼 자라고 있다고 한 것임)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애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우린 서로를 완전하게 이해하며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다.

나는 그 애를 데리고 교회 부속의 뜰(묘지)로 내려가 그 애를 거기 있던 어떤 묘석(무덤 앞 돌멩이=비석이 아님) 위에 앉혀놓았다.

그러자 그 애는 그 높은 자리에서 내게 어떤 비석(사람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필립 피립(주인공 아버지 이름임. 이름이 ‘필립’이고 성 씨가 ‘피립’임)이 〈 이 교구(교회 행정구역)의 고인인 ‘필립 피립’ 씨 〉를 기리기 위해 놓은 비석인지 그리고 어떤 비석이 〈 그의 아내인 조지아나 부인〉을 기리기 위해 놓아둔 비석인지를 손으로 가리켜보여주었 다.(조지아나 부인=주인공의 어머니 이름)(주인공 어머니의 비석에는 “여기 조지아나 부인 역시 잠들어 계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비디(여자이름, 41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비디(=아들1+딸1)가 자신의 어린 딸을 무릎에 눕히고 재우는 동안 대화를 나눌 때 내(35세)가 그녀에게 말했다. “조만간 ‘핍’(비디의 11살 짜리 아들)을 내게 보 내줘야 해, 아님 잠시 내게 맡겨두든가, 좌우지간 뭐 어쨌거나 말이야.”

“아니, 안 되고말고,”라며 비디가 상냥하게 말했다. “넌 결혼해야 잖니.”

“허버트와 클라라(부부사이)도 그렇게 말하든 걸, 하지만 나는 결혼을 안 하게 될 것 같아,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 비디. 더욱이 허버트의 집에 너무 단단히 정착해져선 결혼 할 생각은 꿈도 꿔지지 않는 걸. 난 이미 독신주의를 고수하는 노총각인 거야.”

비디(여자이름, 41세)가 자신의 어린 딸을 내려다보더니 자그마한 손을 가져다 자신의 입술로 뽀뽀해주었다. 그런 다음 아이와 닿았던 그 선한 엄마 같은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비디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반지가 누르는 가벼운 압박감과 그 행동 속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사랑하는 핍(주인공의 이름, 정확히 35세),”라며 비디(여자이름, 41세)가 내게 말했다. “그녀 때문에 애태워 하지 않는 건 맞니(않는 게 맞아)?”

“아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비디.”

“그럼 오랜 옛 친구로서 내게 말해줄래.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니?”

“사랑하는 비디, 언젠가 내 삶에서 1순위였던 것 중 어떤 것도 난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었대도 난 잊지않아 왔어. 하지만 가려한 꿈, 아니 내가 한 때 그렇게 부르던 그 가련한 꿈들도 이젠 다 가버리고 없는 걸, 비디(여자이름)… 이젠 모두 다 지 나간 얘기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았다. 그녀(에스텔라♥)를 위해 그날 저녁 혼자서라도 그 옛 집의 집터(땅)를 다시 찾아가 볼 생각을 내가 남몰래 하고 있었음을 말이다. 그래 그렇다 해도 그건 에스텔라(♥)를 위해서였다.

나는 에스텔라가 가장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인도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드러믈), 그녀를 극도로 잔인하게 다루었고 오만, 허욕(탐욕), 야만 그리고 천박함의 복합체로 지독한 악명을 떨치게된 자신의 남편과도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나는 들은 적이 있었다.

나는 또한 그녀의 남편인 드러믈의 사망 소식도 들은 적이 있었다. 돌발적인 사고였다고 했다. 자신의 말(말 타는 말)을 심하게 때리다 발생한 당연한 귀결이라 들었다.

그녀가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게(남편이 죽은 게) 대략 2년 전 쯤 일이었다. 아무튼 그녀는 이후 재혼을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조(사람이름)의 가족이 이른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내(주인공, 35세)가 비디(여자이름, 41세)와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도 어두워지기 전에 그 옛 터(한때 미스 해비샴의 집이었던 집. 이젠 그냥 집터)를 둘러보고 올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옛 ‘오브제’(물체)들을 살피기도 하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기도 하며 늦장을 부리다보니, 그만 날이 완전히 저물어서야 나는 그 장소(한때 미스 해비샴의 저택이 있었던 집터)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젠 저택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맥주공장도 더 이상 없었다. 남아있는 건물이랄 게 전혀 없는 그냥 오래된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뿐인 터(땅)였다.

변변찮은 울타리가 빈 집터에 쳐져 있었다.(미스 해비샴의 저택은 담 안에 여러 주택이 있고 그 안에 맥주공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이런 저런 건물들이 담과 담으로 구역을 나워 여럿 있는 구조였음) 울타리 너 머를 바라보고 있자니, 낮고 조용한 폐허 잔해들 위로 친근한 담쟁이 덩굴 몇 점이 다시 땅에 뿌리를 박고 녹색 잎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보였다.

울타리 안으로 통하는 문이 조금 열린 채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문을 밀어서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차가운 은빛 안개가 ‘오후’(오전 오후 할 때의 오후)에게 면사포(결혼식 모자)를 씌우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벗겨줄 달은 아직 뜨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멋진 표현 ^-^;; 틀린 해석이겠지만 멋져~ 굿~)

하지만 별들만은 안개 저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달도 차차 떠오르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저녁이 마냥 어둡지 만도 않았다.

예전 저택의 일부였던 건물들이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맥주공장의 자리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통로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맥주 통들이 있던 자리는 어디인지를 나는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모두 훑어본 후, 황량한 ‘정원 산책길’을 따라 한가롭게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그때 ‘정원 산책길’ 저 안에서 한 사람의 검은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내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그 실루엣(사람의 모습)도 내 존재를 의식한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 실루엣(사람의 모습)은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이내 멈춰 서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그것이 어떤 여인의 형상임을 알아차렸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녀가 막 돌아서려던 참이었다. 순간 그녀가 멈췄다. 그러더니 내가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때, 그녀는 무척이나 놀란 듯 비틀거리며 내 이름을 읊조렸고(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

“에스텔라(♥)!”

“난 많이 변했어. 네가 날 알아본 게 의아해.”(간단한 문제지만, -\_-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 장면에서 에스텔라가 높임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반말을 사용하느냐는 제게 참 골치 아픈 해결과제입니다. ‘\_’ 아무래도 높임말이 우리말 해석에 더 맞는 것 같지만, 남이 읽을 때 안 좋게 생각할 것도 같아서 그냥 예전처럼 말을 낮추는 걸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에스텔라가 사용하는 영어가 높임 말인지 반말인지를 제가 모르니 답답할 것도 없지만. 소설 속에 아주 민감한 장면이라...ㅎㅎ ^0^;; 오호~ 민감 이란 단어까지 나왔군. :) ......-\_-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까진 높임말이 더 어울린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석해놓고 보니 어째 높임말은 쫌... 쉽게 선택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 어쨌든 네이버블로그에 올 립니다.)

(-\_- 아직도 에스텔라가 높임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를 결정 못 했음. 일단 해석부터 계속해나가는 걸로 :( )

생기발랄하던, 그녀의 아름다움은 정말이지 온데간데없었다. 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위엄과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은 여전했다.

그녀 안에 있던 그러한 매력들은 내가 전에도 익히 봐왔었던 것들이었다.

내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었던 것은, 한땐 그렇게도 도도했던 두 눈에 스린 다소 슬퍼 보이고 누그러진 빛이었다.

내가 전에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것은, 한땐 그렇게도 냉랭했던 그 두 손에 담긴 상냥한 터치(살짝 잡아줌)였다.

우린 가까이에 있던 벤치로 가 앉았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주인공의 대화→) “이렇게 많은 해(11년)가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주앉게 되다니 무척 낯설지 않니, 에스텔라(♥), 여긴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자리였잖니! 종종 여길 와보는 거니?”

(에스텔라의 대화→) “그때 이후론 처음이야.” (주인공의 대화→) “나도 그래.”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젠 고인이 된 분(=매그위치=에스텔라의 친아버지=에스텔라는 이 사실을 모름), 새하얀 천정을 바라보던 그 평온한 눈빛이 생각났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매그위치=에스텔라의 친아버지)가 살아생전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들을 내가 해주었을 때 내 손으로 전해지던 그 떨림이 머리에 떠올려졌다.

내 다음으로,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침묵을 깬 건 그녀였다.

“종종 와보고도 싶었고 그러려고도 했지, 아주 말이야, 하지만 많은 상황들 때문에 매번 오지 못했단다. 가엽고 불쌍한 옛 장소지!”

(위대한 유산이란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시작됩니다.)

(참고사항1 : 이번 해석은 좀 깁니다. 읽을 때 흐름이 끊기지 않게 길게 분량을 잡았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그럼 해석 시작합니다. :)

(참고사항2: 안개는 소설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공의 처지가 안 좋을 땐 어김없이 마을 주변에 온통 안개가 끼어 사람들의 옷을 축축하게 합니다. 참고로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신사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던 날 안개가 피어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의 신사생활에 허무감을 느끼고 다시 대장장이가 되려고 시골로 돌아 갔다가 이젠 자신이 있을 자리가 대장간엔 없음을 발견하고 쓸쓸히 되돌아오던 날도 안개가 끼었으며 주인공의 친누나가 악당에 의해 뒤에 서 머리를 가격 당하던 날에도 안개가 눅눅히 끼었습니다. 주인공 시골 마을이 늪지대와 30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개가 자주 낍니다.) (참고사항3 : 그럼 위대한 유산 마지막 장면에 대한 우리말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읽어주세요~ 전 찰스 디킨스가 너무 좋습니

다. 『 위대한 유산 』 이란 소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3권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재미 만점~ 최고임~ 디킨스 최고~!!!!)

(어쨌든 각설하고 해석 시작합니다.)

(해석 시작)

떠오른 달로부터 내려온 한 줄기 빛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은빛 안개로 스며들어 그녀의… 두 눈에서 떨어지고 있던 눈물에 가 닿 았다.(59장에서만 벌써 ‘터치’라는 영어단어가 3번이나 나왔음)

내(=주인공=35세)가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그녀 자신의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나직이(조용히) 말했다….

“여길 따라 걸으면서 이상하지 않았니? 어떻게 해서 여기(에스텔라가 남주인공을 처음 만난 곳) 이 장소만은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남아 있는지?”

“응, 에스텔라(=여주인공 이름=35세).”

“여긴 내 소유거든. 내가 양도하지 않아 오고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야.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날 떠나가 버렸단다, 조금씩, 하지만 난 이 곳만은 지켜왔어. 여기 이곳은. 내 모든 불행한 시절에도 내가 완강히 막서며 지켜낸 유일한 대상인 거야.”

(주인공의 대사→) “뭘, 지을 예정이니?”

(에스텔라의 대사→) “그래, 마침내. 이곳이 변하기 전에 작별인사를 해두러 여길 온 거였어. 그래 넌,”

방랑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에스텔라의 대사→) “해외에 살지 아직?”

“응 여전히.”

“잘 해나가고 있겠구나, 맞니?”

“응 충분히 생활하려고 꽤 열심히 일하거든, 그리고 그런 까닭에… 응 그래, 난 꽤 잘 하고 있어.”

“난 자주 네 생각을 했어,”라며 에스텔라(여주인공이름, 35세)가 말했다.

“그랬니?”

“최근엔, 아주 종종 네 생각을 했단다. 내가 그 가치를 무시했던 때에 내가 내던져버렸었던 것들에 대한 회상을, 나로부터 멀리 떼어낸 길고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 하지만 내 의무(=아내로서의 의무)가 그런 회상(남주인공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 모순되지 않게 된 이후론(= 남편이었던 드러믈이 사고로 죽은 이후 한 남자의 아래로서의 의무감 에서 벗어나 주인공을 종종 거부감 없이 생각해 왔었다는 얘기임), 그것을 내 마음(남주인공의 사랑) 한쪽 구석에 간직해 왔단다.”

“내 마음 속에선 네가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원문/직역→넌 항상 내 마음 속에서 네 자리를 차지해왔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얘기를 꺼낼 때까지 우린 또 침묵에 들어갔다. “전혀 예상 못했어,” 에스텔라가 말했다. “이 장소와 작별인사를 할때 너와도 작별인사를 나누리라곤 전혀 예상 못했어. 이제 그럴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스러워.”

“다시 이별하게 된 게 기쁘다는 거니, 에스텔라? 내겐, 이별이란 고 통스러운 것이야. 내겐, 우리 지난 이별에 대한 회상(기억)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슬픔과 애처로움으로 남아 있어.”

(에스텔라가 화를 내며→) “하지만 넌 내게,”라며 에스텔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로, “‘하느님이 너를 축복해주시기를, 하느님께서 널 용 서해주시기를!’(주인공이 여주인공을 떠나보낼 때 한 말임. 참고 44장 해당부분 ▶ <http://me2.do/xKeDpg3f> , 검색일자 : 2015-6-9)란 말을 했었어. 만약 그때 네가 내게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시련이 다른 어떤 가르침들보다도 더 강하게, 나로 하여금 예전 네 마음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해준 지금이야말로, 넌 내게 그 말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거잖니.

(다시 마음을 다 잡으며) 난 휘어지고 부서져왔어…, 바라건대…, 더 나은 모습으로 말이야.

(좀 더 침착하게) 그러니 넌 단지 예전처럼, 예전에 내게 그래주었던 것처럼, 내게 동정심과 친절을 베풀어주면 돼, 이제, 우린 친구라고 말 해줄래.”( 에스텔라의 대사 끝)

기운을 되찾은 그녀가 벤치(빈 집터 내에 있던 산책로에 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섰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 그녀에게로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주인공이 하는 대사→) “우린 친구야,”

(에스텔라가 하는 대사→) “그럼 헤어져서도 친구로 남는 거야~♡.

(‘남는 거야’=‘남을 거야’=‘남는 거다’=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긴 표현)” 에스텔라가 말했다.

난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우린 폐허가 된 그 장소를 떠났다.

그리고 오래 전 내가 처음으로 대장간을 떠나던 날 아침부터 자욱하게 끼어있었던 안개가 내가 런던에 다다름에 따라 차츰 걷히었듯이 지금도 우리 앞에 저녁의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안개가 내게로 이끌어준(데려다준)’ ‘평온한 달빛’이 넓디넓은 공간 모두를 비추어주었을 때에도, 나는 그녀에게서 어떤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끝.** (끝)

(전체 끝)

(『위대한 유산』의 전체 끝)

여기까지가 ‘찰스 디킨스’(150년 전 영국 유명 소설가)가 쓴 『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의 끝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걷히지 않던 안개가 주인공이 에스텔라와 재회하고 잘될 것을 암시하자 안개도 걷힌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대한 유산』에 대한 해석을 마칩니다. “그동안+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 글을 통해 그동안 쭉 읽어주셨던 열 한 분 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 :) 그리고 중간에 읽기 관둔 ㅠ.ㅠ 열 세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해석의 시작(1장)은 조회 수 24회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

그럼 마지막 인사~🐌 땡큐~😉 땡큐 베리 마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땡큐~💋

바이~🌻

(끝)👊

(진짜 끝)🥝

(진짜 전체 끝 :)🐤

(진짜 위대한 유산 끄읏~🎶 :) (그럼 이만~🍓)